

4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모음
370호 ~ 469호 (2002년~2003년)



4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4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모음
370호 ~ 469호 (2002년~2003년)

발행일 2020년 4월 일
발행인 이재훈
발행처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편집인 김홍주
기획·편집 채현석, 남윤조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문의 :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070-4940-0641, 채현석 010-7336-7387)

4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모음
370호 ~ 469호 (2002년~2003년)



일러두기

1. 이 책은 온누리교회 선교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온누리교회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신문>의 선교 관련 기사 및 광고 등을 발췌하여 묶은 자료집이다.
2. 제4집은 <온누리신문> 370호(2002년 1월 6일)부터 469호(2003년 12월 28일)까지의 자료이다. 이후의 자료에 대한 자료집도 연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3. 자료집 뒤에 신문 호수 별 목록과 신문 기사의 분류 별 목록을 실어 필요한 기사 자료를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4. 자료의 배치는 <온누리신문> 원면(쪽수) 순서대로 하였으나 편집상 필요한 경우 일부를 조정하였다.
5. 현재 2000선교본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온누리신문> 축쇄본 일부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 자료집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양해를 구하며, 추후 <온누리신문> 원본의 수집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므로 소장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략)” (디모데후서장 4장 2절)

살롬! 2020년 봄은 온 나라와 세계가 뜻하지 않은 코로나 19 전염병 창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주일 예배를 비롯한 일체의 공식 예배 등을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제4집을 발간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지름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제4집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 치 <온누리신문>의 선교 관련 기사를 담았습니다. 이 기간에 온누리교회는 2002년 한일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타고 국내 이주민 선교와 함께,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민족을 향한 선교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 이천만훈련원(선교훈련원)>을 <온누리 세계선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장단기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미전도종족 선교사역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2003년에 온누리교회는 ACTS29 비전을 선포하며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냅니다. 곧, “교회를 재 생산하는 건강한 교회”, “전도를 위해 흠어지는 교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국내외에 비전교회(지교회) 설립을 통해 사도행전적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비전 추진과 활발한 선교 사역의 모습이 이 자료집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온누리신문>의 선교 관련 기사를 묶어 발간하는 이 자료집과 함께, 앞으로 교회내 각 선교 기관의 자료와 선교사 및 선교사역자들의 개인적인 자료까지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면 이러한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열정과 열매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2020년 4월 일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 목 차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2002년				
370	1월 06일	11	411	11월 10일	208
371	1월 13일	16	412	11월 17일	212
372	1월 27일	21	413	11월 24일	214
373	2월 03일	23	414	12월 01일	217
374	2월 10일	30	415	12월 08일	230
375	2월 24일	36	416	12월 15일	235
376	3월 03일	41	417	12월 22일	240
377	3월 10일	44	418	12월 29일	243
378	3월 17일	48		2003년	
379	3월 24일	51	419	1월 05일	251
380	3월 31일	55	420	1월 12일	254
381	4월 07일	57	421	1월 19일	259
382	4월 14일	62	422	1월 26일	262
383	4월 21일	65	423	2월 09일	267
384	4월 28일	69	424	2월 16일	269
385	5월 05일	73	425	2월 23일	273
386	5월 12일	76	426	3월 02일	276
387	5월 19일	80	427	3월 09일	279
388	5월 26일	82	428	3월 16일	285
389	6월 02일	88	429	3월 23일	288
390	6월 09일	95	430	3월 30일	294
391	6월 16일	104	431	4월 06일	298
392	6월 23일	112	432	4월 13일	301
393	6월 30일	122	433	4월 20일	305
394	7월 07일	126	434	4월 27일	311
395	7월 14일	132	435	5월 04일	320
396	7월 21일	137	436	5월 11일	323
397	7월 28일	139	437	5월 18일	326
398	8월 04일	142	438	5월 25일	335
399	8월 11일	148	439	6월 01일	337
400	8월 18일	153	440	6월 08일	339
401	8월 25일	159	441	6월 15일	347
402	9월 01일	164	442	6월 22일	355
403	9월 08일	167	443	6월 29일	357
404	9월 15일	170	444	7월 06일	365
405	9월 29일	180	445	7월 13일	371
406	10월 06일	184	446	7월 20일	374
407	10월 13일	190	447	7월 27일	382
408	10월 20일	197	448	8월 10일	388
409	10월 27일	200	449	8월 17일	395
410	11월 03일	207	450	8월 24일	402

■ 목 차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451	8월 31일	409
452	9월 07일	415
453	9월 21일	423
454	9월 28일	430
455	10월 05일	433
456	10월 12일	438
457	10월 19일	444
458	10월 26일	448
459	11월 02일	453
460	11월 09일	460
461	11월 16일	470
462	11월 23일	475
463	11월 27일	480
464	11월 28일	481
465	11월 30일	482
466	12월 07일	486
467	12월 14일	491
468	12월 21일	498
469	12월 28일	506

■ 찾아보기

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호수별 목록 511
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분류별 목록 549



2002년

2002 1 6 ~2002 12 29
370 ~418

2003년

2003 1 5 ~2003 12 28
419 ~469

01



온누리 성도들이 해외선교헌금 작정으로 새로운 한 해의 문을 연다. 오늘(6일)과 다음 주일(13일) 서빙고와 양재 성전 예배를 비롯, 꿈이자라는 땅, 청년대학부, 외국인 예배 등 모든 온누리 성도가 해외선교헌금 작정에 참여한다.

2천선교팀은 금년에 '선교사 80여 명 파

오늘, 해외선교헌금 작정

송' 계획을 세우고, 헌금작정 목표액을 작년보다 2억원이 늘어난 35억원으로 잡고 있다.

매년 초에 드러지는 해외선교헌금작정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온누리 성도들의 고백이 모여 2001년 12월 말 현재 직·간접적으로 50개국 4백88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그중 2백48백명이 온누리 교인이다.

대륙별 파송은 동북아시아가 2백77명으로 가장 많고, 동서남아시아 96명, 중앙아시아 71명, 미주 81명, 유럽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이 연초에 작정해 드린 헌금은 교회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되며 선교사 지원은 물론 선교베이스 개척, 문서방송선교와 선교대회 등에 사용된다.

한편, 올해부터 선교헌금을 은행에서 자

동이체를 통해 드릴 수 있다. 자동이체를 원하는 성도는 '자동이체용 작성카드'를 작성해 교회에 제출하고, 거래 은행에 가서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로 헌금을 작정한 성도는 통장의 예금주가 반드시 본인이어야 한다. 입금 계좌는 서울, 외환, 한빛, 국민, 조흥 등 5개 은행에 개설했다.

〈해외선교헌금 자동이체 계좌〉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문의 : 김효람 간사(교 230)

서철 chol@onnuri.or.kr

02

일만사역자 파송되는 유형욱 성가사

“지휘로 영향력 미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주사랑성가대를 섬겨온 유형욱 성가사가 오늘 2부 예배에서 일만사역자로 파송된다. 유형욱 사역자는 미국 웨스트민스턴 학교에서 '교회음악' 과 '합창지휘' 를 공부할 계획이다.

“저는 일만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라는

유 성가사는 온누리교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성가사로 섬기며 배웠던 것을 미국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도했다.

유형욱 성가사는 ▷한국에 남게 된 아내와 두 자녀가 적당한 때 미국에 올 수 있도록 ▷성도로서 지휘자로서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와 연결되길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학비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고 박승철 선교사 2주기 추모예배

8일 오후 7시 소회의실

동북아 A국 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순교한 고 박승철 선교사가 문막 온누리동산2주기 추모예배가 오는 8일(화) 오후 7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문막 온누리동산에서는 안장예배를 드린다.

서철 chol@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참 목자 되신 주님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M교회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이후 첫 성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여 동안 이곳 기독교인과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역시 짧은 준비 기간과 제약 가운데 전도를 하고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 다시 한번 저희같은 부족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청받은 현지인이 15명이 넘었고, 모교회에서 온 성도와 저희 성도를 합쳐 40명이 넘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현지인 형제자매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준비를 하였고 예배 인도도 현지인 형제가 맡았습니다. 말씀은 저희 모교회인 구원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오셔서 전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참 귀한 시간이었고, 오늘 모임을 준비한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준비한 연극과 아이리라 아주머니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저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계속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주님의 몸이며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것이기에 귀하며 비록 적은 무리도 모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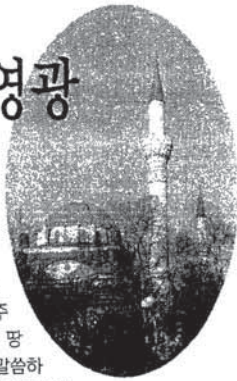
휴세인, 골세브, 누라이, 아이린, 아이라, 에르달... 주님은 바로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파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함께 고민하며 보낸 세월이 있었지만 주님은 인내함으로 이들을 먹이고 목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현지인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섬기는 가운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하시며 불평하는 저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늘 저녁 함께 수고한 저희 교회 개척팀 안에도 깊은 사랑과 위로가 자라감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저희를 이땅에 보내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 M교회가 새해에 더욱 새로이 거듭나고 새로운 비전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부족한 저희 한 무리임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저희가 목자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 달려가는 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놀라운 당신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속히 행하시옵소서. 동역자님의 기도와 더불어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를 보는 흥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스텝 올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영환/윤유희 (파송-방글라데시-TIM)

- 이땅의 경제회복과 환경보호가 이루어지도록
- 성남분당공동체 의료선교팀의 방문을 위해
-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이명순 (파송-스웨덴-YWAM)

- 성령님과 매순간 교제하도록
- 상담학교 사역을 통해 지경이 넓어지도록
- 암스테르담 베이스의 부흥과 도시사역을 위해
- 가족의 건강과 구원을 위해

황디모데/송예나 (파송-소아시아-인터콥)

- 믿음안에 들어온 지체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주님의 제자들로 잘 양육되도록
- 보라, 휴세인 형제의 신앙성장을 위해
- 교회의 부흥성장을 위해

정소연/사시 (파송-스리랑카-TIM)

- 교회개혁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 10명의 타밀 소년들이 제자양육을 통해 거듭나 이 있도록
- 남편 사시 형제의 믿음 성장과 순산을 위해

조중환/임미경 (후원-파푸아-GBT)

- 번역 훈련센터의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을 위해
- 건축에 참여하는 지체들의 건강함을 위해
- 다중언어번역팀과 효과적인 팀사역이 이루어 지도록

윤정숙/정홍경 (단기-동북아-선교촌)

-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 일대일 교제 중인 왕, 리, 주 형제의 신앙 성장을 위해
- 소수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미전도종족 44 -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혼탁한 땅에 순전한 진리가 심어지기를...”

가톨릭 비율이 93%인 멕시코 내에는 261개 종족 가운데, 단 한 명의 복음 증거자도 없는 종족이 129개, 조사조차 안 되는 종족이 83개에 달한다.

국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만, 주로 가톨릭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타라후마라인들은 오랜시간 그들의 사회, 종교,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전통적 의식에 불합치 사실상 복음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 타라후마라인은 귀신을 달래는 토속신앙과 혼합된 가톨릭을 믿고 있다.

혼합종교의 타라후마라인들

타라후마라인들은 귀신을 달래는 토속신앙과 혼합된 가톨릭을 믿고 있다. 그래서 부활절은 가톨릭과 그들의 이교적 신앙관을 독특하게 결합한 주요 축제이다. 또한,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가톨릭 성당으로 불리고 있고, 마을의 무당이 사람과 땅 위에 치유행위를 하기도 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국인 선교사를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인 선교사 한 명이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72년 번역된 신약성경이 있다.

동부 구리협곡(East of Copper Canyon)에는 소수의 타라후마라 기독교인과 소규모 교회와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만, 서부 구리협곡 중

은 정령승배의 경향이 짙은 가톨릭 관습에 의존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10년간 산발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복음주의자들을 반(反)멕시코 스파이와 멕시코 문화의 파괴자로 묘사하는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복음주의는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은누리교회는 지난 97년 타라후마라족을 복음으로 입양했다. 이곳에 파송된 은누리 선교사는 아직 없으나 이들 가운데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기도와 헌신된 사역자가 필요하다.

섬길 수 있는 사역도 다양하다. 교회개혁 사역과 성경번역 사역 외에도 지도자양육 사역은 이들의 교리적 빈약함과 오류로부터 건강한 미래의 교회를 일으킬 열쇠이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생명의 소식을 전할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

어디에 살고 있나?



▲ 타라후마라인들의 주거지인 시에라 협곡은 멕시코 북부 치와와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천 마일에 달한다. 이 산은 수천 년 전에 용기린 고원과 오늘날 여러 개의 거대한 협곡 구조로 갈라져 지르는데, 각 협곡들은 1마일 혹은 그 이상된다. 그들은 여름에는 시원한 고원에서 돌이나 진흙벽돌을 쌓아 원시 그대로 오두막에서 살다가 혹심한 추위가 오는 10월부터 4월까지의 따뜻한 협곡 동굴에서 산다. 대개 셋(오슬)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흩어져 산다.

기도제목

- 편협한 전통과 혼합종교에 묶여 있는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줄 자를 보내주시도록
-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며, 소수의 신자들이 압박속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담할 수 있도록
- 복음전도와 교회개혁, 청소년 사역, 지도자 훈련으로 건전한 복음전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01



세계 선교 이끌 리더 양성

올해는 2천 비전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기 원하는 성도가 훈련 받기에 좋은 해가 될 듯하다. 2천선교팀은 양지에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세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선교로 부르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몰랐던 성도에게는 더 없는 좋은 과정이다. 공동 생활을 하며 6개월 가량 선교 이론을 배우고, 선교 현장에서 예비 선교사로서 2년간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법을 배우고, 선교 현장에서는

실제적인 사역을 배우는 '균형 잡힌' 훈련을 한다. 훈련을 마치면 TIM(두란노 해외선교회)을 통해 파송된다. 공동생활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되며, 훈련센터장인 김사무엘 목사가 훈련생들과 같이 생활한다.

황은철 목사는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갈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온누리세계선교센터'가 2010년 이후 선교 리더를 배출하는 요람이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02

"안식년을 통해 온전한 선교사로 충전되길"

이철희 선교사(몽골)



한 해를 조용히 뒤돌아보니 구베 구비마다 감사거리가 넘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켜주시는 감사입니다. 필라에 대비한 조치까지 마련해 놓았을 정도로 혁명당(구공산당)이 정권을 잡을 때만 해도 은근한 걱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교회지만 사골과 도티장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신 것, 일년 천부미 몽골에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기도해 왔었는데 온누리 청년성령집회 팀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비람을 일으켜 주신 것,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사골에 혼자 계시는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렙루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고, 몽골 인민을 더욱 가슴에 품고 싶습니다. 올해는 첫 안식년을 맞는 해입니다. 안식년을 통해 영성과 지성을 갖춘 온전한 선교사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데 편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한걸음 내려다보이는 첫집에 앉아 파곤다 콘한 커피 한잔으로 성전을 높이고 싶고 여배 후에 베풀어주시는 온누리 인민의 정겨운 모습들도 지켜보고 싶은 모든 순간의 사해 소망입니다. 온누리의 여러분 사랑해요.

03

"황폐한 땅에 주님의 백성이 가득 차길"

이석희, 박혜숙(기업, 보배) 선교사



유난히도 어수선했던 지난 한해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 하심과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사업장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심속에 국내의 정치 경제가 안정 되기를 소원 합니다. 이곳 2억 3천만 인도네시아 땅 곳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 황폐한 땅이 주님의 백성으로 가득차며 특히 미전도종족인 람퐁족에 복음의 문이 열려 소외되고 소망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 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며 날마다 성령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4

가정에 부어주신 비전이 성취되는 새해

신원석, 오수경 성도



결혼 전 3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단기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저 혼자 믿고 있었기에 가족의 반대

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9남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 때문에 예전에는 서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큰 시험과 고난으로 소유물이 없어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둘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예배 드린 뒤 누님 집에 모여서 형제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다투기보다 너무 잘 알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큐티를 하면서 나누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신년 메시지처럼 가정마다 주시는 비전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중앙아시아를 향한 선교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 중앙아시아를 돕는 중보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 故 박승철 선교사 2주기 추도예배
 · 일시: 1월 8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모집
 · 자격: 선교에 비전이 있는자, 운전 가능한 자, 컴퓨터 전공자 환영
 ·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간증문(선교비전 포함)
 · 마감: 1월 13일
 · 문의: 이중재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 지역 : 초등교사 2명, 한국어교사 2명(단기 6개월사역), 피아노 교사 1명, 컴퓨터 교사 1명
 · 문의: 571-9535

✠ 에펠선교회 1월 에펠정기기도모임
 · 일시: 1월 1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사: 이반석, 최순덕 선교사
 · 대상: 에펠을 사랑하는 모든 이
기도방 안내
 월 : 생수 / 들뜬 동산 / C2R / 겨자씨
 화 : 브니엘 / 임마누엘 / 스바냐 / 달리다꿈
 수 :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셀라
 금 :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 만나 / 베엘 / 여호와 삼마 / 축복
 에펠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1-9947-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문의: 이진엽(019-263-4891)

2002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 일시: 2월 8일~12일
 · 장소: 프놈펜
 · 주최: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관악금전공동체, 의료선교회
 · 대상: 희망자 누구나, 의사(특히 치과), 약사, 미용사 급구
미용실 구합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캄보디아 자매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데 이들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칠 곳을 찾습니다.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일본어어린이예배 차량봉사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30~2:30, 3:30~4:30
 · 문의: 아미구치 전도사
 (011-480-9686)

✠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유대인들의 신년 회개와 결의’

유대인들은 연초 10일 간 지난해 자신들의 영적 생활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기도로써 새해를 설계하고 결의하는데 사용한다. 유대 율력으로 올해는 5762년이다. 그리고 5762년의 설날인 ‘로쉬 하쉬나’는 2001년 9월 17일에 이미 지나갔다. ‘로쉬 하쉬나’ 후 10일째 되는 날은 ‘욘 키푸르’ 즉 대 속죄일이다. 유대인의 설날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윤달이 없는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이 기간에 지난 해를 어떻게 성찰하고 회개하며 새해 결의를 다지는지 알아보자.

유대인의 새해

첫째, 개인의 영적 변화를 위한 과정을 가진다. 먼저 자신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를 성찰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면 그 문제점을 찾아낸다.
둘째,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영적 생활

을 살피게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직장 동료 및 상관과의 관계를 살펴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신의 잘못으로 판단되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문제가 없었는지, 자기자신을 부당하게 비판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하여 그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한다.

셋째, 음식 운동 휴가 의복과 외모 자기 표현과 큐티 또는 명상 등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었는지 돌아켜 보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 자신의 영혼을 살피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는지 생각해 본다. 지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난해에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았는지, 영혼이 존대 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영적 생활을 살피게 하는 책을 읽었는지, 생활을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 음악회, 전시회, 연극, 공동체 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생각본다.

또 하나님과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영적 차원을 탐구하기 위하여 강연에 참석했는지 생각해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새해에는 이를 실천하는 계획을 세운다.
다섯째, 세상을 치유하고 개혁하는데 노력했는지 생각해 본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격이나 행동 중에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한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는 태도, 자기 비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무시, 일에 집착하는 것 등이다. 물론 이 외에도 유대교 신앙의 증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10일간의 회개와 성찰

다음은 위에 열거한 각 분야별 문제점을 일일이 기록하여 10일간의 회개기간 중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회개와 기도로 성찰한다. 그 후 여러 문제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기록으로 남겨, 새해에 이것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결심하고 기도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01

일반사역자 파송식

오늘 2부 예배에서 임철영, 공선희 집사와 권영국 집사가 해외 일반사역자로 세워진다. 임철영 집사 가정은 C국으로, 권영국 집사는 싱가포르로 파송된다. <인터뷰 6면>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온누리동산 새단장

“C국에서 선교한 박승철 선교사 안장”

아름다운 공간 조성위해 분양가 조정



온누리동산이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안식처로 새단장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조경 공사를 시작한 온누리동산은 강원도 문막 약 3천평 대지에 880기 묘역으로 조성됐다.

지난 8일(화)에는 C국에서 순교한 박승철 선교사가 선교사 묘역에 1호로 안장됐다.

온누리복지재단은 더욱 아름다운 온누리동산을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분양가를 평균 8.69% 인상한다. 온누리동산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 대해 “심과 나눔이 있는 아늑한 공간 마련을 위해 온누리동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부담으로 주변 묘원 가격과 비교해 분양가를 조정했습니다”며 성도들의 많은 이해를 구했다. 단장묘역(3평형)의 경우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합장묘역(4.5평)은 345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조정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끊이지 않는 테러와의 갈등

이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지난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조용히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수바라야 지역의 교회에 폭탄이 장치될 수 있다는 정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초인 어제 아침 뉴스에서는 슬라웨시의 어느 교회에 폭탄이 터져 몇 명이 다쳤다는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슬라웨시 섬 중부 포소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성난 회교도에게 쫓겨나 숲에 웅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갈리만탄 섬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인 다약족이 마두라 섬에서 이주한 무슬림을 공격해 수백 명을 살상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을 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수년간 해결되지 않는 피의 보복이 말루쿠 지역(암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1999년 초 발생해 그 해만 1천 3백여 명이 죽임을 당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종교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약 250여 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85%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그 외에도 기독교, 가톨릭, 불교, 힌두교 등이 공인되었고,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종교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슬람이 전래된 역사는 약 7백여 년, 기독교는 약 2백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신념과는 관계없이 다섯 개의 종교 중 반드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족이나 가문의 종교를 물려받기 때문에 명목상의(주민등록상) 종교인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의 갈등 원인은 종교 때문이라기보다 종족간의 갈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

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들간의 갈등이 종종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비례로 보아 정치권에도 이슬람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낼 때는 무슬림과 기독교의 비율이 비슷한 도시나(메단시), 지역(말루쿠)에서 의도적으로 분쟁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하르토 정부시절 정적으로 인구가 밀도가 높은 자바와 마두라 섬에 살고 있는 종족을 인구밀도가 낮은 섬(즉 다른 종족의 영역)으로 이주시킨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전(거룩한 전쟁), 배교하는 자는 죽이는 것, 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 등 호전적이고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교리를 가진 이슬람과 공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낱 표면상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더 큰 원인은 자민족 중심주의, 배타주의, 이권다툼 등 인간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거룩한 전쟁), 배교하는 자는 죽이는 것, 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 등 호전적이고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교리를 가진 이슬람과 공존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한낱 표면상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더 큰 원인은 자민족 중심주의, 배타주의, 이권다툼 등 인간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1. 화해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인도네시아 종족 분쟁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2. 분쟁지역인 암본(말루쿠) 지역의 명목상(주민등록상)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화해와 성령의 바람이 지속되고,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원수된 종족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김종만, 황신실 선교사(인도네시아)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낙웅/조길순 (파송-러시아-TIM)
 - 1/28-31 코스타 수련회를 위해
 - 부부의 성령충만과 건강을 위해
 - 이사 문제와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조문상/김정년 (파송-싱가폴-BEE)
 - 1월에 있을 미국 방문을 위해
 - 혼자 생활하고 있는 자녀 장환이를 위해
 - 스리랑카 수레쉬 목사의 첫 인도 사역을 위해
 - 프라담 구릉 형제가 카타르에서 새로운 사역에 잘 적응하도록

김중만/황신실 (파송-인도네시아-YWAM)
 - 인도네시아에 종족간의 화해가 일어나도록
 - 분쟁지역인 암본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화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유은영 (파송-인도네시아-YWAM)
 -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 2002 안식년 동안 겸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박성화/박종윤 (후원-미국YWAM)
 - 미국 내 인디언 원주민 사역을 위해
 - 고통을 잊기 위해 슬을 즐기는 원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도록
 - 자녀 종대와 종관어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강성실/최은희 (후원-한국-HOPE)
 - 2월 동북아 A국에 들어갈 예정. 사역을 위해
 - 장기 체류를 위한 사업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 자녀 다윗, 다니엘의 현지 적응을 위해

03

●故 박승철 선교사 2기 추모예배

“한 알의 밀알이 열매 맺을 그날까지”

박승철 선교사의 죽음은 선교지의 씨앗으로 남아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



“주 내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무도 없는 무대에 홀로 서서 눈물 흘리며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찬양하던故 박승철 선교사. 그가 주님 품에 안긴 지 2년만에 유족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추모예배를 드렸다. 이날 그의 사신은 문막에 있는 은누리동산에 이장됐다.

국화 꽃다발 속에서 웃고 있는 박 선교사의 영정이 다정스럽다.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격려하듯, 천국의 아름다운을 자랑하듯.
 김동국 목사는 요한복음 11장 17~27절로 말씀을 전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부모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던 마르다처럼, 박 선교사의 가족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에 헌신했는데 왜 ‘죽음’을 맞아야 하는가 라고 물을 수 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소경되게 했고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보기에 패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속에 있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남겨진 딸이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라며 ‘날 사랑한 주’를 들려주었다.
 박 선교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곳의 한 성도가 간증한 비디오했다. 아름다운 열매로 남아 있는 자이다. 그는 지금도 남아있는 유족과 함께 헌신적으로 사역을 돕고 있다고 한다.
 “능력없는 저를 통해 하나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곳은 성령의 베이스예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어요”라고 부인 김 선교사는 말했다.
 어찌 눈물과 좌절이 없으리라는 김 선교사의 고백속에서 담대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다. 한 알의 밀알인 박 선교사의 죽음이 아름다운 씨앗이 되고 가지가 번성하여 풍성한 열매 맺을 그 날이 곧 오리라.



故 박승철 선교사 추모사

시체 안치실에서 그 싸늘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이 어제일처럼 기억됩니다. 그 몸은 이미 박 장로가 아니었습니다. 박장로는 눈물도, 고통도, 추위도 다 벗어버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요.

그 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놓았던 음악학원, 문회원, 뺑징 등 모든 일을 김 권사 홀로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도 되었지만, 지금까지 별탈 없이 기도하며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으니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고 당시 한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구출하려고 했던 일은 선교를 맡아 일하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아 선교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다짐하게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당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충격과 비탄의 마음뿐이었지만, 이제 2년을 지내고 보니 참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보람있는 인생이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썩을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몸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은 가족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중보할 박장로를 상상합니다. 2천만을 위하여, 그리고 이번 봄에 시작될 선교훈련원을 위해서도 주님께 특별히 부탁해 주십시오.

런 훗날 박장로를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럼 없도록 이제 남은 삶을 거룩하고 복된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지구촌에서 김사무엘

일만사역자인터뷰

“사랑의 빛 갠으러 갑니다”

“백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주었던 사랑의 빛에 늘 영적 부담을 느껴 왔습니다. 제가 C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도 많은 부분이 C국을 중심으로 빛을 갠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임철영, 공선희 사역자 부부

임철영, 공선희 사역자 부부는 이달 25일 선교지로 떠난다. 사업차 가게 됐지만, 그 근간에는 전부터 꿈꾸어온 선교를 위해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사업을 통해 또한 학교나 유치원을 세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곳 아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심고자 한다. 임 사역자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선교고 다음이 사업이다”라고 말해왔다. 그리고 가

서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고자 일만사역자로서 파송받고 떠나기로 결심했다.

“전부터 파송받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과 함께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겠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일만사역자로서 사명감을 갠고 하나님

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드러 순종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가길 원합니다.”

임철영, 공선희 사역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깊은 영성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잘 적응하도록, 하나님 앞에 사업과 가정이 바로 서도록, 가서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다.

“청년을 만나면 담대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김보경 사역자

지난 주 해외 일만사역자로서 세워진 김보경 사역자는 청년 사역에 뜻을 두고 떠난다.

“한국에서는 신앙심이 갠있던 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인본주의적 교수의 영향 때문에 신앙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며 청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전이 세워졌습니다.”

김 사역자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아병원에서 방사선과 의사로서 근무하게 된다.

“평소 활발하지 못한 성격 탓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기회가 있을 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지역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많다.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일대일 양육도 하고, 자신이 거처할 아파트가 성경 공부반이나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도 쓰였으면 한다.

김 사역자는 그 곳에서 공부에도 힘쓰고 싶다고 한다. 김 사역자는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찾게 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갖게 되기를, 서울에 남아 있는 남편 한동훈 성도가 더 성숙하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도록 기도해주길 부탁했다.

“건설현장에 감도는 예수 향기”

“일만사역자로 선다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지요. 더구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안수집사 직분도 받았습니 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 사역자는 싱가포르에서 암반이 전혀 없는 연약한 지반 위에 구조물을 올려야 하는 난공사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떠난다.

건설 일은 특성상 사람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술의 유혹도 많은 곳이다. 그 건설현장에서 권 사역자는 술 냄새 아닌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제자로 서길 바라 고 있다.



권영국 사역자 가족

“워낙 급하게 떠나게 되어서 어떤 식으로 사역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를 돕고 좋은 교회를 만나 봉사하

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일했으면 합니다.”

가족들은 3, 4개월 뒤 권 사역자가 자리를 잡으면 함께 살 예정이다. 싱가포르에서 좋은 교회와 신앙의 지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난공사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현지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 습득에 빠른 진전이 있기를, 자녀들이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그리고 눈 때문에 다섯 차례나 수술한 둘째 아이의 시력이 좋아지도록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전성희 shee@annuri.or.kr

01

▶ 12개 본부 조직 및 사역

구분	분과명	본부 교역자	본부 장로	담당간사	담당 업무	비고
5	이천선교본부	김창욱	김종인	서인석, 김경민, 김효람, 황민석, 이영재 임선아, 이윤정	이천선교, KIBI, 중국어예배, 영어예배, 일어예배, 세계선교센터 온누리미션(미얀마, 네팔, 몽골, 인나, 러시아, 이란어, 외국인열린예배)	

02

▶ 이천선교본부

분과명	본부 교역자	본부 장로	부서명	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이천선교 본부	김창욱	김종인	선교본부	김창욱	김종인	조성래	정성운	유인국 고영수 홍해남
			2천선교	김창욱	김경선 윤현덕 유재천 이국주	김윤식	김기호	이영찬, 김현미, 김화수, 이승배, 김영성, 이상도, 오경석, 나승주, 천대우, 강영주, 이휘숙, 권은순, 이용대, 이인철, 서성렬, 이정훈, 정희연, 홍사경, 황영옥, 박미선, 김석민, 정대서
			온누리미션	나봉근, 이은규, 홍재우, 권두스, 빌립, 이준,	원우현 심상달 함지연 황재익	박성우	김준상	김영석, 신문순, 김정숙, 이희주, 민동권, 조성래, 김건오, 이휘숙, 김진년, 판비르, 상만, 록, 요섭, 윌리엄
			중국어예배	전명택, 윤덕해, 김수아	김성순	김현철	정낙현	최윤정, 김광수, 최윤정, 백은희, 박천수
			KIBI	한관홍	송만석	장성태	장봉기	권영석 한창웅 김해리 김원선

▶ 이천선교본부

분과명	본부 교역자	본부 장로	부서명	교역자	담당 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이천선교 본부	김창욱	김종인	TIM	김종원	손정래	이덕환	백인호	김주현 황식의 박영국 백인호 김영금 문영기, 이덕환 천대우
			선교훈련센터	황종연, 김사무엘	이민희 황용오	김용준		천대우 이용대 송창도 김화수 김원일
			영어예배	서경남 이은규 김민화 Derck Hwang JoshuaThroneburg James Mallog	김준 우광방 김원균	Peter Weldy	Don Sutton	Jimmy Kim
			일어예배	김사무엘, 아마구피, 천창길, 쓰지 히사시	유병진, 박형규	신민호	이만철	김종태, 권태환, 이종해, 김국중, 권영환, 김영성, 전장식, 정현주, 문호용, 미야자기, 구가, 황인해, 키타노, 요시하리
			BEE KOREA	황종연	윤현덕	윤현덕	정진희	조성래, 백인호, 정재호, 이병철, 최남식, 이상애, 정우영, 이경옥, 유현희

*

✚ 서남아시아 기도모임(SAM)
 · 일시: 1월 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해정 간사 (792-7075~6)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 지역 : 초등교사 2명, 한국어교사 2명(단기 6개월사역), 피아노 교사 1명, 컴퓨터 교사 1명
 · 문의: 571-9535

남자 간사 모집
 · 자격: 선교비전, 운전 1종, 컴퓨터 가능하자
 ·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간증문(선교비전 언급)
 · 마감: 1월 19일
 · 문의: 이중재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에zell선교회
 1월 에zell성기도모임
 · 일시: 1월 1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사: 이반성, 최준덕 선교사
 · 대상: 에zell을 사랑하는 모든 이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대 동산 / C2R / 격자씨
 화: 브니엘 / 임마누엘 / 스바나 / 달리다꿈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셀라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벨엘 / 여호와 삼마 / 축복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1-9947-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문의: 이진엽(019-263-4891)

2002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 일시: 2월 8일~12일
 · 장소: 프놈펜
 · 주최: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회
 · 대상: 희망자 누구나, 의사(특히 치과), 약사, 미용사 급구
미용실 구합니다
 이번 아우리지에서 캄보디아 자매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데 이들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칠 곳을 찾습니다.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c21@hotmail.com)

일본어어린이예배 차량봉사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30~2:30, 3:30~4:30
 · 문의: 아마구치 전도사 (011-480-9686)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01

2002년 해외선교헌금 31억 7천6백여 만원 작성

꿈땅·P.W - 오늘, 다음주 작성

지난 6일과 13일 작성한 2002년 해외선교헌금이 31억7천6백59만4천8백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해외선금 작성에는 서빙고 6천4백42명, 양재 2천7백24명, 영어예배 1백18명 등 총 9천2백84명이 참여했다. 헌금을 자동이체로 드리겠다는 성도는 1천7백88명이었다. 꿈이자라는 땅과 파워웨이 쓰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해외선교헌금을 작성한다.

서철 chol@onnuri.or.kr

02

2000선교

안내데스크 운영

"선교사로 가려면...?"

선교와 선교헌금에 대한 상담을 위해 서빙고와 양재 성전 로비에 안내데스크가 생겼다. 서빙고 성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03

영어예배

"캄보디아 의료선교 위한 바자 가져"



의료선교 기금 모금을 위해 영어예배 캄보디아팀은 오늘(27일) 이천만 광장에서 순대, 오명, 해물전, 팔죽, 음료수 등을 판매한다. 2월 8일부터 13일까지 프놈펜에서 진행되는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회는 관악금천 공동체, 의료선교회가 참석한다. 영어예배 캄보디아팀은 4년 전부터 매년 여름, 겨울 2차례씩 의료선교를 해왔고

그 지역에 교회 3동도 세웠다. 캄보디아팀은 선교를 위해 사용될 물품을 후원 받는다.

- 물품: 의약품, 아이들을 위한 여름옷, 신발, 학용품, 어린이용 영어 소설책, 리빙라이프 과일호 등
- 문의: 서세창 형제 016-218-4499, 영어예배 793-5916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일만사역자 파송식

현영민 이화정 부부가 해외일만사역자로 세워져 호주로 파송된다. 파송식은 오전 9시 한동출 초 등부 2부예배에서 진행된다.

05

중국을 품고 기도합시다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중사모)이 중국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중사모는 중국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에게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고, 설교와 세미나를 통해 선교에 대한 도전을 준다. 1월 모임은 28일(월) 오후 7시 선교관 304, 305호에서 있다.

· 문의: 오주영 간사

(016-349-7203)

홍미남minam@onnuri.or.kr

06

온누리대학부 요한공동체 태국 아웃리치

"그리스도의 자유를 노래하라"

요한공동체(담당 서동욱 전도사)가 태국 아웃리치를 떠난다. 1진은 오늘 출발해 2월 2일에 귀국하며, 2진은 2월 3일 출발해 2월 9일에 귀국한다.

중보기도 제목

1. 자유의 땅, 태국에서 참 자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노래하며 예배하도록
2. 태국인들, 특히 슬럼가의 빈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서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3. 125명의 참가학생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전적으로 따르도록
4. 태국 젊은이들을 잡는 음란과 폭력, 마약, 허무의 영들을 깨뜨리는 영적 승리를 얻도록
5. 협력하실 선교사들-최승근, 이소민, 정석천, 장인식-과 그 교회에 은혜가득하도록

*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1월 28일 (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선교관 304호
 · 말씀: 박종길 목사
 · 문의: 오주영(016-349-7203)

✳ 해외선교 연합기도모임
 · 일시: 1월 29일 (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한동홀
 · 진행: 황종연 선교사(동북아 선교사 경력, 현 은누리선교훈련센터 담당), 특강 후 중보기도
 · 참석대상: 교회내 해외선교 사역팀 관계자 및 선교관심자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 지역 : 초등교사 2명, 한국 어교사 2명(단기 6개월사역), 피아노 교사 1명, 컴퓨터 교사 1명, 유치원교사 1명
 · 문의: 571-9535

✳ 인터콥 제6기 여성선교증보학교
 · 일시: 3월 19일~6월 11일
 매주 화요일
 · 장소: 선교관 101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훈련내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며 프론티어를 향한 전략적 중보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
 · 문의: 인터콥(02-796-3541)
 최백란 간사(018-863-3452)
 ic-woman@hanmail.net

에펠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 : 생수 / 월면 동산 / C2R / 겨자씨
 화 :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 달리다
 금
 수 :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셀라
 금 :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 만나 / 벨열 / 여호와삼마 / 축복
 에펠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1-9947-3146)

✳ 은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전기청소기, 전자레인지, 팬티엄 3 이상 컴퓨터 1대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방글라데시 의료 아웃리치
 · 일시: 2월 9일~13일
 · 장소: 방글라데시 다카
 · 주관: 성남분당공동체
 · 후원: 한빛은행 682-048956-02-101 예금주 김순길

✳ 2000선교팀 간사 모집
 · 자격: 은누리교회 등록교인(남자), 선교헌신자, 컴퓨터 사용에 능하며 운전 가능한 자(선교단체 근무경력자나 선교사 경력자 우선채용)
 · 전형: 이력서(신앙이력 포함) 및 신앙명세서 제출 후 면접
 · 마감: 1월 29일(화)
 · 문의: 서인석 팀장(793-9686 교 239)

✳ 아프간 난민 구호물품 및 의료진
 황폐화되고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간 난민을 돕기 위한 구호물품과 의료진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식량, 의복(중고), 의료약품, 구호기금, 의료자원봉사자
 · 마감: 3월 31일
 · 문의: 2000 선교(교 239, 206)
 인터콥 서향유 선교사 (796-3541 교 6)

2002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 일시: 2월 8일~12일
 · 장소: 프놈펜
 · 주최: 은누리교회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회
 · 대상: 희망자 누구나, 의사(특히 치과), 약사, 미용사 급구

미용실 구합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캄보디아 자매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데 이들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칠 곳을 찾습니다.

✳ 물품후원
 학용품, 인형, 여름현웃, 슬리퍼, 신발, 의약품, 리빙라이프 과일호, 바리깡, 토끼바리깡, 미용가위, 드라이기 등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01

외국인근로자 설날 행사

설 연휴 기간에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마련된다. 중국어예배는 서울, 경기지역 중국어권 외국인 근로자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온누리미션은 각 나라별로 설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관련기사 8면)

02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프가니스탄 난민 도움 의사
극동러시아에 보낼 내복 모집중

인터콥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도움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의사를 찾고 있다.

사역기간은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며, 개인 사정에 따라 1~2주일 정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문의: 문혜숙 간사 798-6001)
KIBI는 극동러시아에 '1인 1내복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1구좌에 1만원이며, 내복은 극동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문의: 792-7075)

후원계좌:

국민 803-01-0216-582

한빛 576-252180-13-002

농협 094-01-151313 예금주 KIBI

서철 chol@onnuri.or.kr

03

목회자 일본 선교지 탐방



온누리 교역자들이 일본에 세운 온누리교회를 탐방한다.

오는 25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온누리 교역자 24명은 12개 조(2인 1조)로 나뉘어 1주일 간 오사카, 도쿄, 우에다 교회를 순회, 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은 QT와 일대일을 비롯해 선교, 내적치유, 성경의 맥을 잡아라, 공휴사역 등 온누리교회가 감당하는 사역에 관한 것이다. 이번 탐방의 인적 구성은 공동체 담당 교역자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서철 chol@onnuri.or.kr

04

창조과학선교사 파송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 1월 31일 대덕교회(대전직할시 소재) 교육관에서 고재형 박사를 창조과학 선교사로 파송했다. 고선교사는 몽골국제대학에서 창조과학 강연활동, 일대일 교육 등을 감당한다. 또 창조과학센터를 세워 몽골 내 창조과학 지부를 설립하고, 동아리도 조직할 계획이다. 고선교사는 서울대를 거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분자생물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철 chol@onnuri.or.kr



“이 땅에 뿌려진 믿음 씨앗”

매르하버! 이곳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소
문이 참 빨리도 퍼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폭설 소식을 들으시고 안부를 물어오는 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채우신 하나님

지난봄에는 일대일 교재가 출판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는 이
곳 언어로 된 구약성경이 재번역되어
서신과 함께 묶여져 나왔고, 수도권
안에서 라디오 복음 방송이 시작된 것,
성탄절에 맞추어 저희가 만든 큐티 책
이 나온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
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등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큐티
교재를 편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확하
게 시기를 맞추어 전문가를 보내주셨습
니다. 그분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 관광을 전혀
하지 않고 책의 틀을 잡는 작업을 해주셨
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9월, 의대에 입학하
면서 장기사역에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의 씬씀이를 정리하면서, 때
마다 필요한 만큼 채우신 하나님의 선하
신 손길에, 함께하시던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지난해부터 텔레비전을 통해 사역자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이 타깃
이 되어 한 단체는 사역자들 얼굴이 공개 되
었고, 많은



교회가 폐쇄
되었습니다. 전

에는 동양인을 호의
적으로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계의 눈
빛을 보냅니다. 그 여파로 장애포교사역 법
인인 K가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를 위
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팀 사역이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복 경찰 셋이 저희 집에 찾아와

서 여권과 거주증을 검사하고 회사에 대해
몇 가지를 묻고 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전화
가 도청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조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제자원을 함께 섬기는 현지인 아저
씨는 지난 성탄절 전에 아들, 딸과 함께 세
례를 받으셨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
혹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아저씨와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
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특별히 기도
해주십시오. 저희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땅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갈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
니다.

예제자원 사역과 컴퓨터 회사를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바를 선생님과 가정
을 위해서도 중보해주십시오. 국제교회 협
력사역은 계속해서 권사님 선생님과 이한
나 선생님께서 외국 사역자들과 함께 섬기
고 계십니다. 저는 학업 때문에 10월부터 격
주로 있는 청소년 성경공부 모임에 함께 하
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역을 섬기는 동안 앞으
로 사역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
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소아시아에서 주사랑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한상임/콘스탄티누스 (파송-동북아-TIM)

- 2002년 계획이 합당하게 이루어 지도록
- 마을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 M 자매 어머니에게서 귀신이 떠나 가도록
- 가족의 강건함을 위해, 늘 성령충만하도록

이석희/박혜숙 (파송-인도네시아-TIM)

- 사역과 언어에 기쁨부어주시도록
- P종족 A7정과 좋은 관계가 형성 되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충만한 삶을 살도록

김낙웅/조길순 (파송-러시아-TIM)

- 기도운동이 확산되도록
- 평신도 성경대학을 위해(책별, 주제별, 인물별 등)
- QT운동과 번역출판을 위해
- 각종 세미나를 위해(상담학교, 가정사역, 자녀교육 등)

황디모데/송에나 (파송-소아시아-인터콥)

- 민족구원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특별히 교회 건물 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 복음방송국 '라디오 쉐마'가 더욱 능력있는 방송선교의 매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 자기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김선교지 소개 1 : A국 E시

희생의 터 위에 맺는 열매

오! 주여,
백 명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주님의 뜻과
맘에 합한 사람,
먼 곳까지 멀리 주의
사랑을 전할 사람을 보내사
우리로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그 어떤 것보다
힘써 부를 우리의 노래,
주께서 범사에
선하게 인도하셨네...

이 글은 허드슨 테일러가 100여
년 전 선교지에서 드렸던 기도문이다.

볼모지에 밝힌 복음의 빛

A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전파되어 2백여 년의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인구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혹 듣는다 할지라도
맘대로 믿을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금세기 최후 복음의 불
모지 중 하나가 A국이다.

현재 A국의 기독교는 암울한 시
기를 거치면서 거둬지는 고난 속에
도 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도 계속되고 있는 희생의 터
위에 온누리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여러 모양으로 A국 곳곳에 흩어져
복음의 불을 밝히고 있는데, 특별
히 E시는 온누리의 A국 선교 1호
베이스이다.

1호 선교사, 1호 베이스

지난 93년 음악학원 설
립으로 시작된 E
시 베이스는 현
재 20여 명의
일꾼이 모
여 음악학
원과 커피
숍, 베이커
리와 문화센
터로 사역 범위
가 확장되고 있다.



음악학원 설립자이자 E시 선교
의 첫 열매인 고(故) B선교사는 88
년부터 E시를 여러차례 왕래하면
서 E시 선교베이스 구축을 위한 발
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92년 처음으로 현지 합작 예술학
교 설립인가를 시 정부로부터 받
고, 93년 10월 음악학원을 개원하
면서 교육열이 높은 E시의 현지인
자녀와 한인 자녀를 대상으로 사역
을 시작했다.

94년에는 커피숍과, 유치원을 추
가로 오픈하고, T대학의 교수요원
으로 사역자를 초빙하기 시작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98년에 T대학
내에 문화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T대학 문화센터
는 양국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와 전통을 보
급할 뿐 아니라 한국
에 관심이 많은 E시 젊은



▲ A국은 고 B선교사의 선교 베이스로 93년 음악학원 설립한 이후 현재 20여
명의 일꾼이 모여 커피숍, 베이커리, 문화센터로 사역의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들을 위한 귀한 복음의 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문화센터에는 정보자료실, 도서
실, 열람실, 영화감상 및 세미나실,
인터넷카페, 컴퓨터 교육실 등이
있으며 음악회, 서예반, 태권도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주관해 지역 주
민을 섬기기도 한다.

백 명의 일꾼을 보내사

왕성하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던
2000년, 고(故) B선교사는 다른 선
교사를 답사하고 돌아오는 도중 교
통사고로 주님을 향한 마지막 헌신
을 드리고 순교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E시 선교베이스는 지금도,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남은 사명
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다.

지난 날 허드슨 테일러의 간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응답
되어져 오늘날 30, 60, 100배의 결
실을 맺고 있다.

기도제목

- 문화센터를 비롯한 교육, 문화 사역이 선교의 좋은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 선교사들의 하나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01

중국어예배 성령집회

“명절을 동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은 명절 분위기에 속해 자칫 소외되어 버리기 쉬운 곳을 살피는 사역이 있다. 제한 외국인 사역이다. 귀성 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울 때 멀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동포간의 교제를 통해 위로해주는 잔치를 벌인다.

추석과 더불어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설날을 맞아 중국어예배는 중국인성령축제를 연다. 올해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십여 개 교회가 연합해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남양주 백봉산 기도원에서 '방한 중국인 설잔치'를 연다.

주최측인 중국 어문선교회는 '복음과 인생'을 주제로 예배와 선포 강연, 조별 장기자랑, 미니올림픽, 만두 빚기, 캠프파이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창진 목사(충현교회), 방지일 목사, 예종탁 목사, 오치용 목사가 집회 설교를 하고 주지호 목사(극동방송), 손옥금 선교사, 이명박 장로가 선포 강의를 한다. 수련회동안 의료 선교(누가 의료선교회, 안드레 선교회), 이 미용선교, 신앙과 근로시 애로사항 상담, 일대일 등도 한다.

은누리중국어예배는 예배진행, 재정지원, 헌신자 봉사를 통해 돕는다. 주최측은 10개 교회에서 중국인과 자원봉사자들이 6백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은 조선족 포함 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중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중국인은 5천명 정도로 전체 3%정도에 불과하다.

장낙현 성도(중국어예배 총무)는 "중국 현지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힘든 것에 비해 선교의 열매가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

들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며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다.

중국어예배는 이번 행사에서 봉사와 후원을 통해 중국인 선교에 동참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 서울은행
33901-0474782
예금주: 은누리-중국어예배
문의사항: 011-723-0630
(02)337-9725 정낙현 총무



02

●인터뷰

“심기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한국인에게도 중요한 명절인데 휴일을 포기하고 봉사하는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을 봤어요.”

작년 추석 은누리교회에 나온지 얼마 안된 송 자매는 '이 기회에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게 보내야겠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중추절 성령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됐고 또한 중국인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명을 받았다.

“행사를 위해 2,3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으구나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느 자매는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주방에서 일한 탓에 허리가 아파 제대로 잠을 못 이뤘다. 그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송양은 중국어예배에 꾸준히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은누리교회에 나올 때 한국 친구들이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성도간에 깊은 교제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중국어예배를 다니면서 중국인끼리 뿐만 아니라 한국인 안에서도 사랑이 가득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송양 자매

03



의정부, 군포 셀터를 다녀와서

의정부셀터와 군포 셀터에 세계 선교관 학교 (MISSION PERSPECTIVES) 학생이 지난 1월 두 차례 방문했다. 이들은 공장, 병원 등을 돌아보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형제, 자매를 선교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섬길 비전을 나눴다.

‘세계를 향한 선교가 잉태되는 곳’

이주 노동자를 위한 ‘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한 그곳에서 진실한 젊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땅을 찾은 객들에게 따뜻한 친구와 안전한 쉼터가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하다. 불법 체류자라는 불안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일하다 다친 서러움이 한꺼번에 휘몰아칠 때 함께 있어주고 싸워줄 친구들이 필요했다.

토요일, 각자 일을 마치고 밤 9시가 훌쩍 넘어서야 시작되는 네 팔, 미얀마인의 예배. 진지한 예배와 부르짖음, 열정적인 찬양. 그들이 한국 땅에서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타게 갈망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고향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려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적은 월급을 쪼개어 보낸 사

람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족 5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명에게 세례를 주려는 그들의 목표를 들으면서 이곳에 그들을 보내신 섭리에 또 한번 놀라곤 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과 교통하심을 체험했다. 이슬람 국가에, 불교 나라에 세우실 하나님의 선발대가 이곳에 모여있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들을 섬기느라 병원으로, 공장으로, 거리로 다니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간사님들의 젊음과 헌신, 밝은 웃음을 잃지 않는 자매들을 보면서 선교 한국의 저력이 느껴졌다.

일지리를 찾아 멀고도 험한 길을 찾아온 그들에게 복음과 안식처를 나누는 의정부와 군포 셀터 같은 곳이 계속 생겨나기를...

이인숙 간사

04

은누리미션 구정행사

은누리미션 내에 있는 네팔, 우르드어, 미얀마, 몽골, 이란, 인도네시아, 러시아 7개 예배는 각 나라별 설날 행사를 한다. 각각의 예배가 주최가 되어 자기 민족 형제들을 초청하여

섬기며 전도한다. 미얀마를 제외한 각 예배는 중국어예배처럼 같은 민족끼리 모여 연합 행사를 한다. 네팔 예배는 회년선교회, 군포, 주안장로교회 은누리교회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우르드어는 갈릴리교회와, 몽골은 서울, 의정부, 경기도 등지 7개 교회가 연합해, 이란은 의정부교회와, 인도네시아는 6개 교회, 러시아는 4개 교회가 연합해 행사를 진행한다. 은누리미션은 같은 영성을 가

지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추석에는 은누리미션 연합예배를 드리고 구정에는 자율권을 줘서 각 예배별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

이 땅 나그네를 위로하는 잔치



다. 각 나라별로 예배를 드리면 한국어 찬양과 고향 음식, 같은 문화권 형성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예배에 대한 소속감도 높아진다. 각 예배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군포 셀터에서 함께 설을 보낸다.

은누리미션은 성령이 임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 기쁨과 감사의 체험장이 되도록, 행사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물품과 물질이 채워지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길 부탁했다.

·헌물: 쌀, 과일, 음료, 육류, 감자, 식용유, 양파, 오이, 마늘, 생강, 방울토마토 등등
·헌금: 서울은행 33901-9522448(예금주 은누리교회-은누리미션) 02-790-6052

예배명	장소	기간
네팔예배	은누리교회	2월 10일(오후 2시)~12일
우르드어예배	은누리교회	2월 10일(오후 4시)~11일
미얀마예배	군포 하나로	2월 11일(오전 9시)~12일
몽골예배	불광동 기독교수양관	2월 10일(오후 4시)~12일
이란예배	은누리교회	2월 10일(오후 6시)~12일
인도네시아예배	양재 햇빛 트리니티	2월 10일(오후 7시)~12일
러시아예배	은누리교회	2월 10일~12일

2002 2 3 373

•01- (8) , •02- (8) , •03- (8) , •04-

(8) (8)

양재 대학부1부(바울공동체) 대만 아웃리치
 "Jesus remembers Taiwan! Stand Up!"

흑암 같은 대만이여 일어나라

지난 21일(주일)에 출발해서 26일(금)까지 바울 공동체(양재대학1부) 학생 1백명이 대만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뿐이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저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한낱 미련한 자들일 뿐이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나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손을 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림 조각을 맞추어 가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기 전 여리고기도 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은 죄와 부족함을 보게 하셨다. 또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을 열사다이 하나님께로 돌리셨다. 그렇게 우리는 깨끗한 그분의 그릇으로, 그분의 좋은 군사로 변화가고 있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행 18:9-10)

성령님께서 우리의 군대장관이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순간순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실수 없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소리높여 기도하게 하시고, 길거리에서 춤추게 하시고, 힘을 다해 뛰게 하시고, 대만



"함께 주를 높이세" 바울 공동체 100여 학생들은 대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며 소리높여 기도했다.

의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

앞서 가신 군대장관

거리에서 일대일전도를 하면서, 강권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강렬하신 사랑을 깨닫고 많은 지체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감격해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우리가 만났던 그 영혼들을 통해 흑암같은 대만에 빛이 비취고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져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래서 그 날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서로 반가워하며 함께 하늘나라의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제 한국에서 새롭고 긴 여정의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버티고 싶지 않다. 오늘 새롭고 큰 은혜를 구하며 빛을 들고 가정, 캠퍼스, 세상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설 것이다. 하나님은 진흙 같은 우리 인생위에 지금도 성경을 쓰고 계신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앞에 자신을 비취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구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분을 향한 치열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한다.

유주영 학생
 (바울공동체)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워십댄스선교단 일본 동경, 오사카 아웃리치

Blessing to the Nation

“일본에서 워십으로 복음 전했죠”

우리는 일본으로 가기 위해 많은 기도와 영적인 훈련이 필요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온 세계와 열방의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다.

워십댄스사역을 하고 기도 할 때 성도가 방언을 하고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동경 갈보리 채플에서는 신학교 학장이 집회에 참여 했다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법의 예배에 대하여 강의하시겠다고 워십댄스

부흥의 불씨가 일본에서...

노방에서 공연 할 때는 빠른 곡이나, 한국적인 무용에 관심을 보였고 경찰들이 달려와 경교장을 붙이기도 했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는 큰 도전과 섬김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계속 일본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에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며 그 구원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 비취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러기 원한다. 주님 사랑합니다.

색다른 전도 방법에 놀란 일본

4개월 동안 워십댄스스쿨을 통하여 40명의 학생들이 오사카와 동경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6명의 간사, 3명의 중보기도자와 함께 워십댄싱과 드라마를 통해 예배를 준비했다.

일본에서는 주로 일본인 현지교회와 노방전도, 일본의 주요지역 땅밭기를 하며 중보기도를 했다.

일본의 교회들은 가기 전부터 우리의 공연포스터가 교회와 크리스천 신문·잡지에 실려서 그런지 관심이 아주 많았다.

일본 기독교방송에 40분 동안 우리의 인터뷰 내용이 나가기도 하고, 워십댄스를 배우기 원하는 교회에서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워십댄스를 배울 수 있는 비디오를 찾으려 한결같이 일본에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집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 일본교회의 성도는 우리가 워십댄스로 예배하는 것을 보며 흥분했다.

첫날 오사카 노방 전도 때에는 기무라상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령회관이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다.

10년 전에 왔을 때 교회 성도의 수는 두세명 이었고 일본 전도는 너무 힘들어

보였다. 이젠 많이 달라졌다.

이번 전도 여행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일본 땅 가운데 뭔가 꿈틀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성령의 물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박 에스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워십댄스선교단 대표)

방글라데시 아웃리치 위해 기도해주세요



성남분당공동체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Dhaka)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번 아웃리치는 박영환 선교사와 협력해 진행된다. 두 공동체는 다카지역의 슬럼가 학교를 방문하여 의료 활동을 하고, 한인 선교사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진료를 한다.

아웃리치팀은 목회자 2명, 사역팀장 1명, 의료진 16명, 찬양봉사팀 11명, 진행팀 7명 등 총 37명이다. 성남분당공동체는 이들을 위해 1월 25일 파송예배를 드렸고, 현재는 아웃리치를 위한 중보기도

에 힘쓰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인구는 약 1억 3천 만명이며 이슬람교가 8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기도제목>

*다카 AG교회와 아름답게 연합해 사역할 수 있도록

*현지 한인선교사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원>

한빛 682-048956-02-101

예금주 김순길

서찰 chol@onnuri.or.kr

*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생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 지역 : 초동교사 2명, 한국 어교사 2명(단기 6개월사역), 파아노 교사 1명, 컴퓨터 교사 1명, 유치원교사 1명
 · 문의: 571-9535

인터콥 제6기 여성선교증보학교
 · 일시: 3월 19일~6월 11일 매주 화
 · 장소: 선교관 101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훈련내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며 프론티어를 향한 전략적 증보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
 · 문의: 인터콥(02-796-3541)
 최백란 간사(018-863-3452)
 ic-woman@hanmail.net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방글라데시 의료 아웃리치
 · 일시: 2월 9일~13일
 · 장소: 방글라데시 다카
 · 주관: 성남분당공동체
 · 후원: 한빛은행 682-048956-02-101 예금주 김순길

☞ 아프가니스탄 난민구호사역에 동참할 의사를 찾습니다
 · 사역기간: 2월~3월 말까지
 · 내용: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구호 사업
 · 대상: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등
 · 참여방법: 위 기간 중 개인사정에 따라 1~2주일 정도 단기 사역 가능
 · 문의: 인터콥 문혜숙 간사 (798-6001)
 *구호기금 및 구호 물품도 수시 접수합니다.

2002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 일시: 2월 8일~12일
 · 장소: 프놈펜
 · 주최: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관악급 천공동체, 의료선교회
 · 대상: 희망자 누구나, 의사(특히 치과), 약사, 미용사 급구

미용실 구합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캄보디아 자매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데 이들에게 미용 기술을 가르칠 곳을 찾습니다.
물품후원
 화장품, 인형, 여름한옷, 슬리퍼, 신발, 의약품, 리빙라이프 과일호, 바리깡, 토끼바리깡, 미용가위, 드라이기 등
 · 문의: 서 세 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전기청소기, 전자레인지, 팬티엄 3 이상 컴퓨터 1대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뜻 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러시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엘리베이터는 괴물처럼 나를 위축 시켰다. 크고 시커멓게 녹슨 쇠창살은 과거 공산주의를 연상시키고도 남았다.

더구나 열기설기 얽힌 쇠창살 사이로 전기 줄을 비롯해 낡고 먼지에 덮인 기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공연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마 엘리베이터 나이가 족히 1세기는 넘었으리라. 그 안은 얼마나 좁은지 세 사람만 타면 얼굴이 마주 닿아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공포의 엘리베이터

가끔 집채만 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술주정뱅이 위층 아저씨와 함께 타는 날이면 으르렁대는 개의 눈치를 보느라 숨도 크게 쉬지 못한다. 일단 엘리베이터에 타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은 이중 문이 무섭게 닫힌다. 그 안에는 층계를 알리는 버튼이 있으나 떨어졌거나 숫자가 지워져 어림잡작하여 잘못 누르는 날엔 다른 층에 내리기 일쑤다. 녹슨 비상벨은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엘리베이터에 얽힌 사연이 많다. 그래서인지 나드 부담과 공포를 갖고 있었다.

얼마 전 주일 아침 교회에 가던 날, 그 고

약한 엘리베이터는 드디어 나를 삼키고 말았다. 이층과 삼층 사이에서 심통 맞게 서 버린 것이다. "이크!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반사적으로 도와 달라고 외쳤다.

몇 명의 기술자들이 고치려 했지만 만만치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초조하고 불

절부터 35절 말씀이 떠올랐다. 탕감 받은 자가 남의 빛을 탕감해주지 않아 결국 둘 다 옥졸에게 붙여진 내용이다.

나는 탕감이라는 단어를 '용서' 라는 말로 바꾸어 묵상했다. 만약 '용서' 라는 단어를 저울에 달아보면 값이 얼마나 될까? 용서의 값은 하나님의 사랑의 값과 같아서 절대 돈

에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악순환의 나를 본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용서는 더욱 인색하다. 실수나 무능함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비난의 화살을 쏜다. 또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의 골짜기로 골짜기 끝까지 몰아 붙인다. 미숙함은 절대 기다리지 못한다. 나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나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스스로 감옥 속의 내 자리를 습관적으로 찾아간다.

나는 긴 세월 동안 용서와 씨름했지만 그 넓

이와 깊이는 성령님 없이는 도저히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용서하기 싫어서 무관심이라는 것으로 덮어두었던 사람들, 성공이라는 목표로 묶어 두었던 나, 사람, 환경, 땅과 하늘, 세대,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순간 내 마음속을 누르고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날아갈 것 같고 감사가 넘친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나의 몸도 그 낡은 감옥에서 빠져 나왔다.

나는 그 분을 찬양한다. 그 겸손한 엘리베이터와 내 마음 속까지 찾아오신 성령님을. 이제 엘리베이터가 더 이상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 나를 자유롭게 한 영적 밑거름이었으리라...

엘리베이터에 갇혀 맞본 자유



조길순 선교사

순간 내 마음속을 누르고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날아갈 것 같고 감사가 넘친다.

안해 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색 순교를 하다니...

그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열려 말고 하나님을 묵상 하라고. '아니 이런 와중에 묵상이라니...'

그러나 며칠 전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5

으로 계산 될 수 없다. 용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며, 은총이고 또 높은 차원의 능력이다. 그러나 용서는 가해자 보다 피해자가 해야 할 몫이므로 더 어렵고 힘겹다. 그래서 누구도 인생의 인기 순위에서 '용서'를 넣지 않는다. 오히려 '용서'는 무능력해 보이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여 용서를 꺼려한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

오랫동안 사역자로 살아온 내게 등돌리는 사람을 보면 분노의 가슴앓이로 마음이 경직된다. 미움용 미움으로 맞서려하며 손해를 손해로, 분노를 분노로 갚는데 가끔은 용서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기쁨도 잠시, 어느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질책 때문

01

외국인 근로자 위한 설 잔치

은누리미션과 중국어예배는 설 연휴동안 한국 거주 외국인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은누리미션은 은누리교회와 양재 트리니티 성전, 군포 하나로 등지에서 외국어 예배 별로 잔치를 연다.

중국어예배는 중국인 사역을 하는 서울, 경기지역 교회와 연합해 남양주 백봉산 기도원에서 '방한 중국인 설잔치'를 한다. 은누리미션과 중국어예배는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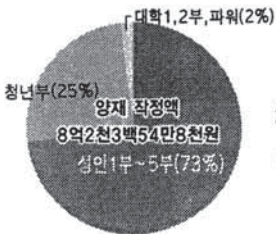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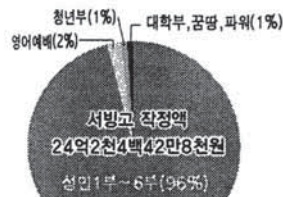
2천 선교사 파송

오늘 2부 예배 시 서빙고본당에서 고재형, 허성혜 선교사 파송식이 있다. 고재형, 허성혜 선교사는 인터콥 소속 은누리단기선교사로 몽골로 파송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해외선교현금 자동이체, 이렇게 하세요



올해 해외선교현금을 자동 이체로 작성한 1천 9백여 성도들 중 아직 은행에 이체 신청을 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 안내문을 공지했다. 1월분 미납 성도는 본당 1층 로비에 비치된 해외선교현금 봉투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현금함에 넣으면 된다.

〈은행 자동이체 신청 방법〉
본인 실명으로 된 거래 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십시오. 매달 이체 날을 정하시고, 해지일은 올해 12월 30일로 하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서울은 33901-9529186
의환은 010-33-23507-7
한빛은 011-023811-02-202
국민은 803-01-0219-417
조흥은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서철 chol@onnuri.or.kr

2002년 해외선교현금 작성액

◀ 2월 6일 현재, 9천7백9명이 참여한 해외선교현금 작성액이 32억 4천7백97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동이체로 현금을 드리겠다고 작성한 성도는 20%인 1천9백70명이다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성경 번역으로 끌어안습니다”

선교 동역자님들께
최근 저희는 위클리프 국제 본부가 있는 미국 남부 텍사스 주 달러스 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간 맡았던 GBT 대표 직을 내놓고 새로운 임무인 '아시아 디아스포라(Asian Diaspora)' 동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전도 종족어로 성경 번역 추진
비전2025(3천 미전도 종족에게 그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사역을 최소 2025년까지 하자는 목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 위클리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이 사역은 세계에 흩어진 아시아 크리스천을 성경 번역 사역에 동원하는 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서 원래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우리

는 자기 나라를 떠나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아시아인을 '아시아 디아스포라'라 칭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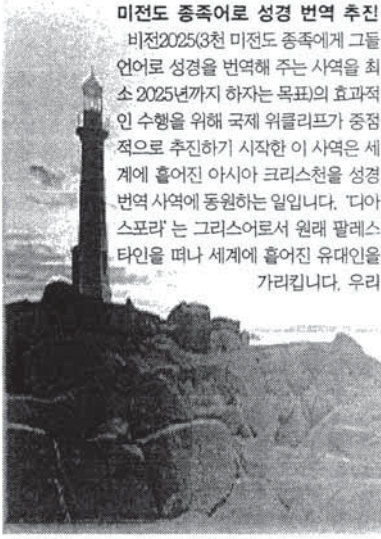
새로운 임무 적응
19년 전 언어학 훈련을 받았던 댈러스로 돌아와 그때 머물렀던 선교부 아 파트에 다시 여장을 꾸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북부 댈러스는 몰라보게 변했지만, 위클리프 본부가 있는 이곳 남쪽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추억이 더욱 새로웠습니다. 저는 정초에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훈련소를 막 출소하고 부대 배치를 받은 신병처럼 이곳 국제 본부의 규정과 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데 지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별로 깨달은 가정의 소중함
두 아이를 한국에 남겨두고 떠나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 이미 대학생으로 법적 성인이지만, 부모에게 자식이란 나이와 상관없이 영원한 자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이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처음 경험하는 이별이라 아픔과 아쉬움이 사무치지만,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유

익도 주었습니다. 막내 다영은 생각보다 이곳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학교도 잘 다녀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행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보람과 의미가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도 제목**
- 2월 초 열리는 북미주(미국/캐나다) 아시아 디아스포라 전략 회의를 잘 준비하고 진행하며 효과적인 계획들이 세워지도록.
 - GBT 지도력 업무 인수 인계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선교대구에 풍성한 선교 동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 2월 중 콜로라도 주 덴버 시에서 한 인교회를 선교적으로 깨우고 동참시키기 위한 'Perspectives' 프로그램 강의를 잘 감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 한국에 두고 온 두 아이를 지켜 주시도록.

정민영 이재진 올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옥연 / 김정숙 선교사 (파송-도미니카-TIM)
-연세 많으신 장모님(90세)의 건강 위해,
-마코리스와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돕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전화가 속히 가설 되도록.

박영환 (파송-방글라데시-TIM)
-악플이 세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의료 진료시 모슬렘 배경인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의료진료를 통해 풀바리아교회(학교)를 섬기는 손길들이 생기도록.

이은혜 (파송-중동-YWAM)
-아랍어를 배우는 데 지혜를 주시도록,
-마프락 사막지대에서 많은 베두인을 만날 기회를 주시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시도록,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엄홍식 / 안재영 (파송-싱가포르-경천)
-저희 부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가 풍성한 한해가 되도록,
-중국어 준비를 위해
-2002년 ANM 싱가포르에서 계속되는 목요 모임과 특별 모임을 위해

김미선 (파송-대만-경천)
-지난 1월 3일 아버지 소천 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족한 학비를 채워주시도록

03



섬김선교지 소개2 :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희망, 소망교회

한 때 라오스, 태국의 일부, 베트남의 남부에 이르는 거대한 크메르 왕국을 이뤘던 나라 캄보디아.

그러나 지난 1975~1978년 크메르 루즈에 의해 자행되었던 오욕의 역사 '킬링필드'의 흔적이 아직도 캄보디아 곳곳에 배어 있다. 3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참혹한 민족 학살로 문화 폐지, 종교 박멸, 교육이 정지되었다. 땅은 지리로 뒤덮였으며 많은 이들이 육체적 정서적 장애를 입었다.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과부와 고아가 생겨났다. 아직도 이들은 식음, 의류, 약품, 생필품 등이 부족한 절대 빈곤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교회 문을 개방한 결과, 99년에 영광교회, 은혜교회, 사랑의교회를 개척하였고, 2002년에는 평강교회를 건축할 계획이다. 전국민 95% 이상이 불교도인 나라에서 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천 5백여 명에게 복음을 전도한 성과를 낳았다.

이 선교사는 요즘 올바른 지도자가 부재한 캄보디아의 현실에 선교 사역의 목표와 미래를 짊어질 영적 지도자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 학교를 열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2명의 목회 지망생이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10명의 현지인 동역자가 이 선교사를 도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캄보디아 선교지 설립 취지, 비전
이영룡 선교사는 97년 8월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빈민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9살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해 4층 규모인 소망교회를 자를 때까지 병마와 납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선교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외된 나라 캄보디아를 위해 복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흘리는 땀과 기도는 그들이 지닌 비극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꿀 큰 힘이 되고 있다. 오늘도 이 선교사는



▲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97년 8월부터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빈민촌에서 9살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선교는 소망교회에 이어 현재 5개의 교회 개척과 1천 5백여 명에게 복음을 전도한 성과를 낳았다.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해온다. "캄보디아를 짓누르는 극심한 가난, 무지, 삶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려움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며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관심 속에 빈민촌의 소망교회와 영광교회에서 많은 주일학교 학생과 청년이 모여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 애굽의 요셉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점차 캄보디아를 이끌어 갈 크리

스천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빈민촌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 소망, 영광, 은혜, 사랑의교회에 성령 충만함과 영광교회 건축 비용을 위해
 -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있을 은누리교회 의료 선교를 위해
 - 온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와 평화 위해
- 자료제공 2000선교

태국이며 자유를 노래하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사61:6)

요한공동체(양재 대학2부)는 1월 27일부터 2월9일까지 2주 동안 하



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태국 땅을 밟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국 방콕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슬럼가에 요한공동체 지체 60명이 찾아갔다. 방역, 청소, 페인팅, 노인안마, 어린이 사역 등으로 나누어 5개 팀별로 마을 주민들을 섬겼다. 방역팀은 소독기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 다녔고, 청소팀은 골목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페인팅 팀은 마을에서 가장 허름한 집의 벽이나 문을 칠해주었고, 안마팀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마를 해드렸다. 어린이 사역팀은 어린이들과 놀아주기, 얼굴에 그림 그려주기, 목욕 시켜주기 등으로 사랑을 전했다. 그리고 일부는 캠퍼스 전도를 위한 캠퍼스 땅뺏기를 하였다.

마을 사람들과 하나 되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치울 엄두

조차 내지 못하던 슬럼가 주민들은, 어디선가 온 외국 학생들이 자신들도 꺼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는 '까올리(한국) '프라예수크릿(예수 그리스도)'을 외치며 웃음으로 그들에게 인사했다. 잠시 와서 봉사만 하고 떠나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러 왔다는 것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슬럼가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때는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 축제를 했다. 태국어 찬양, 워십댄스, 드라마, 태권도 등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은 드라마로 죽임을 당하려는 죄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메시지를 전했다. 선교사님은 이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다.

순서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날 집회는 말 그대로 축제였다.

싸앗이 열매 되는 그날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1진으로 출발한 60명 중에 20명은 2월 2일 먼저 서울로 돌아왔고, 2진 60명은 태국을 향해 떠났다. 한 주 먼저 가서 슬럼가 사역을 했던 40명과 본진 60명이 함께 캠퍼

스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먼저 돌아온 지체 20명과 그 외 중보자들은 매일매일 그 땅과 영혼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중보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2주 동안 뿌리고 온 씨앗들이 언젠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을 믿음으로 기대한다. 보잘 것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태국땅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최현민(요한공동체 14기)

● 세품아 세 번째 아웃리치-여호수아 정탐 여행

“그 땅을 축복하라”

'세계를 품는 아이들(세품아)'이 중국을 품고 돌아왔다. 10박 11일동안 중국 K시를 방문, 소수민족 문화를 접하고 MK(선교사자녀)와 교제, 워십, 부채춤 등을 공연했다.

세품아는 2천/1만 비전에 따라 어린이에게 성경적 지도관을 심어주고 선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어린이 스스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탐 일기



12월 27일(목) 중국 도착

4시간을 날아서 중국 땅에 도착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공산주의 나라답게 복잡하고 살벌한 짐 검사를 받았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12월 29일(토) 세품아 공연
중국 아이들과 MK들을 위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었다. 열심히 연습한 부채춤, 워십,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어서 좋았다.

2002년 1월 1일(화) 새해 기도
오늘은 소수 민족 남서족의 전통 공연을 보러 갔다. 선생님께서

남서족은 농사 지을 땅이나 산업이 없어 관광 사업으로 돈을 번다고 하셨다.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남서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빨리 남서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해주세요."

1월 4일(금) 중국에 대해서...
9일 동안 중국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다. 13억 인구가 사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여서인지 분위기도 살벌하고, 복음을 전하다 들기면 추방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비록 지하교회이지만 주일마다 모여 예배 드리는 4천만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의료 기술이 뒤떨어진 중국에서 의료선교를 하고, 이·미용으로 봉사를 하거나 생활 용품을 선물로 주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해주세요."

1월 5일(토) 마지막 날
중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다. 한국에 가서 중국이 빨리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오늘도 세품아를 지켜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품아 모집

-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 모집 인원: 24명
- 접수: 2월 24일(주일)~3월 9일(토)
- 면접: 3월 9일

※세품아교사모집: 아이들에게 선교 비전을 심어주며 선교사역 할 성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 4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란 말씀으로 우리를 중국 서쪽으로 인도하셨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눈을 뜨고 기도해야 했고, 공공 장소를 빌려서 리서치 발표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와 찬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우리 세품아들이 도착한 것을 보고 극적으로 문을 열어 주었어요. 세품아들은 담대하게

넓은 학교 운동장을 채운 많은 중국 어린이들 앞에서 우리의 전통 무용과 워십댄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세품아들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땅을 축복하는 자'로 불러 주심을 깊이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신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과 세품아에게 놀라운 비전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드립니다. 세품아 전도사 양승순

설날, 방글라데시로 아웃리치 갑니다

지난 주일(3일) 양재 2부예배에서 성남분당공동체의 아웃리치 파송식이 있었다(아래 사진).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의료선교와 전도사역을 하고 돌아올 성남분당공동체를 위해 중보기도 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mailto:홍미남_minam@onnuri.or.kr)



공동체 사역본부 - 공동체 사역자

공동체	일대일	여성QT나눔방	심방	새가족	전도	장례	금출	홈페이지	선교	남안수집사대표	여안수집사대표	자원봉사
이촌	김석인 고영희	정경옥	최봉자 정우경 김의자	이운경	이은주 장정희	박용국	김희수	윤종원	최창규	김형중	김정숙	김영준
한강	윤정순	김지연	김금춘 최향숙 김은희	최덕희 한인종	윤혜정 박미자	김경한	김남현	-	조덕형	김홍석	김성희 한인종	김성희
강촌	김영환	문경숙	최준혜 이근자 박기정	김원숙	김주옥 오수환	진용환	한송현	박명숙	정원억	심길섭	최복실 이혜정	김천봉
중종로	주용일 이숙자	이경선 김인숙	신용년 양병숙	김태선 김명민	전정희 송경옥	이재봉	신기철	이명동	김선래	함공식	원현숙 황인희	이영희
용산	송창도 김향숙	김정자 이명희	하경만 정명숙	명혜경 박미경	문정우 김성희	김원균 정희태	정희태	임정혁	이용대	이정권	이향우	김순애
성동광진	최봉림 이영미	김지명	문태임 이상옥	권순희 전예록	정은주 이윤재 남기희	정영열 이숙자	변건일	박영태	김대회	박영태	이숙자	최영기
동대문남양주	권명자 정은운	이규영	김진순	평정애 권은렬	이용옥 손은휘	김희	김원규 방찬종	구자충	이시영 이정훈	최봉천	노국자 김나임	조은덕
노원의정부	장기준	김경희	박찬자 장유은	박정란 윤영희	권인숙 김성희	이교수	이양실	김정철	황영옥	최연무	황인숙	고건영
성북	이재훈	장애자	김영덕 박아영	권광련 재갈숙	김영애 배기경	최종훈 전태경	신치제	황연희 유정래	전재상	전영만	이은주	이입춘
강남A	이한성	김용숙	한정자 정현애	김민정 신정자	박영희 문태기	이강범	김정자 김미영	송우영 박송수 염은희	김선호 이홍선	최진성	신정자	고윤숙 박영희
강남B	홍경희	송기영	김정옥 백인숙	김정순	김영미 이은주 허혜순	추교명	박명균	조순자 정현석	김성종	손성찬	박규연	김봉순 김정자
서초A	김명세 이상미	정효영	권연수 김광자	이은희	박혜순 오정란	윤안민	임영일	박의수	안태환	박영일	이영희	박애연
서초B	김순옥 안병철	윤치연	이은희 김성자	곽옥용	최규순 정정순	김성순	김재형	차원재	조성래	구재영	정은주	최인숙
강동송파	원태성 박영희 김민정	민영혜	홍경자 김혜신	김영숙 김종순	최연자 신정숙	박성필	신현종	김철주	권중기	임호열	김종만 서순래	이공원
성남분당	정인숙	정인숙 김은희	강혜란 박희숙	유영애	임성숙 유경희	최희영	한형식	김승근 현복규 강혜란	박일화	정학영	윤송의 윤영미	박기신
서빙고	박명자	정승옥	임청수 권오연	김남명 이성진	장은숙 문영주	허영오	김정숙	손문선	김진영	전상현	이미옥 이우경	이일성
영등포구로	이경순 진영선 유지영	김학임	박정애 박숙희 조인숙	이경순 진영선 유지영	강연식 박인숙 김민주	김수영 박봉래	김동현	김동현	백영걸	박순길	황미숙	구명희
동작A	박윤희 서성렬	유지영	김순자 강미라	오명희 박은희	김혜숙 배미란	윤창기	서호석	정용환	김은식	이동진	박순식 최영희	최영희
동작B	김복순 남춘희	오미숙 남춘희 오예숙	민필자 김명희 한지영	박종숙	임현정 조정옥	구준기	이동희	조정만	홍사경	김효구	유기중 오미숙	김진애
관악금천	이정수 홍재정 김종희	홍정수 손순덕	최성안 박옥남 김혜경	신혜영 전미옥	이시라 조은숙	김범열	김정자	이종배	김기호	권오혁	김정자 박옥남	문성기
과천수원	유성근 허귀재	조상숙 이병은	최승숙 홍혜옥	한정희 이정주	이은숙	한종대	정태화	함정철	김준현	함정철	김감자 허귀재	이은숙
안양안산	박현규 최순이	조희숙	강미자 김정숙	고선녀 조희숙	김현숙 이은숙 이은희	장양희	전영찬 김하성	노진환 이병구	나승주 김병찬	서진봉 강부대	백미애 이지숙	김관중
광명인천	박주훈	강경희 차혜숙	정숙자 김경희 김희영	정영희	이명미 이영애	송재길	홍기명	이승배	이승배	송재길	정화숙	장길희
일산	조근 우형경	이은현	한춘복	정지연 박춘숙	한정아 이영민	양종석	이봉수	배준석 김규남	유병철	정승환	박정자 이은현	최길자
고양은평	박상혁 정상희	정경애 이명화	김경희 정혜영 김희정	박민선 강영순	엄효숙 문경희	김태현	김경하	김태광 김미현	김희수	홍성국	김은영 안춘호	윤용균
마포	박세금 고효순	이상혜	강윤정 이정안	김남영 박능신	조정순 장정옥	한규종	김영식	황우현	김영하	노기홍	이정안	정임성 서정심
서대문	최수일 김영안	오종선	문경자 송명복	한정수	박병옥 여은연	김수창 오종선	편무옥	김현주	박영춘	조희동	이희정	서명주
양천	황주창 이봉덕	김희정 오종선 이은희	정진숙 나혜경	배은주	송영현 유승희 이경숙	장영교	이승환	김진화	이종우	장경문	이민우	박순숙
강서김포	이병욱 김필연	김희정 오종선 이은희	함애자 조순자 김숙자	신숙경	김명녀 이명자	김민호 이돈성	우연식	정광식	김진원	박일면	이명옥	이신은
열린	박두서 문현숙	문현숙	홍혜경 최재민 문현숙	박두식	김주희 오수진	최진호	최진호	이재호	황석희	김웅	김동옥	문상아

러방랜드 자원봉사 사역자 : 이한운

*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n.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 지역 : 초등학교사 2명, 한국 어교사 2명(단기 6개월사역), 피아노 교사 1명, 컴퓨터 교사 1명, 유지원교사 1명
 · 동북아 지역 : 국어·수학 교사, 컴퓨터 단기선교사, 한국어 전문인 교사, 유치원 교사
 · 문의: 571-9535

✳️ 제9기 갈렙네트워크
 · 일시: 3월 2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9:00(서울지역)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선교사의 부모
 · 후원비: 25만원(부부는 45만원) 국민은행 822-25-0009-384 예금주: 아문협
 ·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신앙경력 포함, 사진 3매 첨부), 신앙간증문(지원사유 포함)
 · 문의: 인터콥(796-3541 교2) 박정미 간사(016-706-6565)

예절선교회 2월 정기기도모임
 · 일시: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00(구 정연휴로 인하여 연기되어 진행합니다.)
 · 장소: 은누리교회 선교관 303호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사: 최윤혜 선교사(일본/나아) 서여호수아(인도네시아)
 청년과 직장인을 위한 기도모임 양재성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두란노빌딩 703호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1-9947-3146)
 ezer@tyrannus.co.kr
 ezertriple@tyrannus.co.kr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 겨자씨
 화: 브니엘/임마누엘/스바냐/달리다금
 수: 두란노/Open Door/양재성전/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셀라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벨엘 / 여호와 삼마 / 축복
 예절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1-9947-3146)

인터콥 제6기 여성선교증보학교
 · 일시: 3월 19일~6월 11일 매주 화
 · 장소: 선교관 101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후원내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며 프론티어를 향한 전략적 증보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
 · 문의: 인터콥(02-796-3541) 최백란 간사(018-863-3452)
 ic-woman@hanmail.net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아프가니스탄 난민구호사역에 동참할 의사를 찾습니다
 · 사역기간: 2월~3월 말까지
 · 내용: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구호 사업
 · 대상: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등
 · 참여방법: 위 기간 중 개인사정에 따라 1~2주일 정도 단기 사역 가능
 · 문의: 인터콥 문혜숙 간사 (798-6001)
 *구호기금 및 구호 물품도 수시 접수합니다.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국민은행 803-01-0216-582
 한빛은행 576-252180-13-002
 농협 094-01-151313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

중국의 현재와 선교의 실제

25일 오후 7:30 중사모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중사모)이 25일(월) 오후 7시 30분에 서빙고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달 강의주제는 마민호 교수(한동대)의 ‘중국의 현재와 선교의 실제’이다.

‘중사모’는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중국 선교사를 섬기고 증보하며 비전을 키우는 모임이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제3기 이스라엘 비전스쿨

이스라엘을 보면 성경이 보인다

성경의 이해를 돕는 ‘제3기 이스라엘 비전스쿨’이 열린다. 한이성경연구소(KIBI; Korea Israel Bible Institute)에서 주관하는 이 강좌는 3월 13일 시작되어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빙고 미전도종족 증보 기도실에서 열린다. 등록비 3만원.

· 서울은, 33901-1033558,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 서철 chol@onnuri.or.kr

<강의주제>

유대인의 눈에 보이는 기독교	변순복 교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가	이경욱 선교사
현재 중동 이스라엘과 성경 속의 이스라엘	김해리 교수
재미있게 듣는 유대인 이야기	최산지 형제
성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상규 목사
유대인의 천재 교육	변순복 교수
이스라엘은 왜 회복되고 있는가	송만석 교수

온누리미션 설날 행사

‘부흥과 성숙’ 두 마리 토끼 잡은 ‘한마음 축제’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오랜만의 연휴에 흐뭇해 하던 설, 온누리미션 외국인 형제 자매들은 동포들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끽했다.

온누리미션 전체 연합행사가 아니라 추석 행사 때처럼 들뜨고 활기찬 축제 분위기는 달했지만, 각 나라별 특성에 맞게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그동안 추석과 설 행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포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집회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행사는 이미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러시아예배는 이번 축제 동안 QT를 생활 속에 심는데 주력했다. 큐티에 대한 특강을 하고 아침마다 큐티와 말씀 묵상을 했다. 큐티모임 리더를 세우고 행사 마지막 날(12일)에는 공장과 각자의 처소로 큐티 사역자를 파송했다. 이준 전도사는 “이번 행사는 종교적 엄숙성에 익숙한 러시아인들에게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새로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전도의 진두기지에 나설 수 있도록 세우는 ‘성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라고 전했다.

파키스탄 예배는 4년 전부터 부흥을 주제로 설 행사를 해왔다. 올해는 예배와 찬양, 큐티, 기도가 이어지는 성령충만한 시간이였다. 각기 다른 교회에서 온 강사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 하의 구원’, ‘하나님의 음성’, ‘부활하신 주님’, ‘잠에서 깬 때라’를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각기 다른 교회에서 왔지만 일관된 맥락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 외에도 네팔, 우르드어, 이란 예배는 온누리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예배는 햇불 성전, 몽골 예배는 불광동 기독교 수양관, 미얀마 예배는 군포 하나로에서 설 행사를 가

졌다.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이번 행사에서 온누리성도의 참여가 적었다는 것이다. 행사 때마다 외국인에게 감동을 주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하는 모습 대신 외국인들 스스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설 행사에서는 그동안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하나님을 향한 온누리미션 지체들 개개인의 성숙된 신앙, 스스로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은 은혜와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 ① 민속악기에 맞춰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파키스탄 예배. ② 비록 고향 음식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동포들과 함께 한 식사는 즐겁다. ③ 회교국 이란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 교역자와 일대일로 신앙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④ 러시아예배는 종이컵으로 만든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방한 중국인 설 잔치

예수님 사랑으로 함께 나는 '고향 잔치'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스키장 인근에 위치한 백봉산 기도원은 전국 각 지역에서 모여드는 중국인들로 왁자지껄했다. 귀에 익숙한 고향 말에 반가워 편하게 인사를 건네는 이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한국 중국 어문선교회가 설날을 맞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방한 중국인 설 잔치' 행사를 마련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한국의 설날은 중국에서 춘절이라 하여 연중 가장 큰 명절로 여기는 날이다.

이국서 느끼는 가족 사랑

환영 예배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목사님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복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주었다. 예배 시간에도 설교보다는 고향 소식을 주고받기에 바쁜 모습들이었다.

행사 기간 중에는 무료 의료 서비스와 이·미용 봉사가 있었다. 시엔주예(宣竹燾, 사강 감리교회) 형제는 "힘든 육체 노동으로 관절이 접질렸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국 타향에서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환영과 치료를 받게 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치 친 가족같은 따뜻함을 느낍니다"며 감격했다.

이·미용 봉사 현장에서 만난 쑤시엔웨이



(孫賢輝), 조우리화(周利華, 공단제일교회)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니 국가 간 구분도 없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사랑과 평등을 체험했고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 행복, 기쁨을 느끼게 하니 잠시 고향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고 이곳이 바로 우리들의 집입니다"라고 말했다.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광주 중화교회의 형

제 자매들이 한데 둘러앉아 찬양을 했다. 갖가지 설날 놀이 행사로 흥은 점점 고조되었다. 이번 행사의 취지나 진행 프로그램이 모두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풍선 터뜨리기를 할 때는 모두 아이처럼 천진했고, 교자(중국만두)를 빚을 땀 솟는 자랑으로 모두 열심이었다. 모닥불 파티 때에는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향수를 달래기도 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시간들이었다.

조우쯔하오(周志豪) 목사님의 '복음과 중

국, 쑤위친(孫玉琴) 선교사님의 '복음과 가정'이라는 설교 말씀은 많은 박수를 받았고 일부 형제 자매들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중국 선교에 대한 불씨를 품고

김광수(金光壽, 대지교회 중국어예배) 형제는 처음 열린 이번 중국인 연합예배가 중국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비록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주만 믿고 의지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행사가 끝난 후 참가한 이들이 돌아가서 중국 복음화의 불씨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 큰잔치 행사는 중국인들에게 연합의 의미를 알게 했다. 또한 교회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교통하며 협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중국이 변화되어 주님께 돌아와야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중국 선교에 헌신하는 마음을 다지는 자리였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설 명절을 보내게 해주었다.

백 설 자매
(중국어예배)

땅끝까지 전할 하나님 사랑

양곤에 도착하던 첫날, 공항에는 꽃다발을 든 환영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누리교회 미얀마어 예배를 섬기고 있는 뚝제우 목사님 가족과 목사님 장인이 목회하시는 교회 형제 자매들로 인해 우리 일행은 감동했다.

받은 만큼 나누어야 할 때

둘째날, 첫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인타에서 정탐이 시작되었다.

배를 타고 인레 호수를 한 시간쯤 가서 수상 가옥에 사는 아망 목사의 조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그곳에서는 매주 40~50여 명의 성도가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믿지 않는 주민들을 초대해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팔순이 넘은 목사님 부부의 순전함과 청빈한 살림살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인력자전거를 타고 가보듯도 없는 밤길을 달려 아망 목사님 댁에 도착했다. 현지인 집사님들과 어린 성도들과 함께 작은 집회를 가졌다. 복음을 감당하는 눈망울에서 미래를 향한 열정을 보았다.

다음 날 새벽, 아침 식사를 동남하는 승려들의 긴 행렬을 보았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일행은 양곤으로 향했



▶ 지난 1월 중종로 한남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민병요 목사, 뚝제우 목사, 김선래 집사, 양병숙 집사, 정정희 집사는 입양종족인 인타족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다. 짧은 여정이어서인지, 혹은 문화적 충격 때문인지 우리는 견든지, 먹든지, 이동 중일 때에도 쉬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듣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그들의 실상을 보며 우리는 100년 전의 우리 사회를 생각했다. 당시 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헌신적인 선교 덕분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던 것을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이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제물품은 가난한 살림에 보탬이 되었고, 사탕과 초콜릿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 영혼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도 나눠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곳에서 이뤄나갈 하나님의 비전

다음 일정은 뚝 목사님 장인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방문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에는 마침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민 목사님은 그곳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메시지로 그곳 청년들을 권면했다.

우리가 만난 미얀마 사람들은 양순했다. 우리를 드러나지 않게 정성을 다해 대접해 주었다(그곳에서는 소리 없이 뛰어다니는 것을 손님을 위한 예의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들의 살림살이는 가난했다.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미화 30불 정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작은 돈이 미얀마 선교에 크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뚝 목사님의 주선으로 우리는 한국인 선교사인 박정수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얀마 선교 현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박 목사님은 이미 교회와 고아원 두 곳,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고 계셨고, 현재 양곤에 2만 평의 땅을 사서 선교센터와 제2병원, 고아원, 학교를 설립 중이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안내와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는 박 목사님의 약속에 마치 베이스 캠프를 얻은 듯 기뻛고, 함께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됐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는 한국땅으로 돌아왔다.

정정희(중종로 공동체)

■ 성남분당공동체 / 방글라데시 사역현장 ①

주여,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소서



2002년 2월 9일 저녁 11시(현지 시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약 8시간만에 우리 대원들은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에 도착했다. 국제공항이라고 하지만, 우리 나라 지방공항만도 못한 시설에다가 극성스런 모기떼만 우리를 반겨 주었

다. 기온은 섭씨 20도는 되는 듯 무더웠다.

출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다. 가지고 온 의약품은 개인 집에 분산해 놓았지만

만일 세관에서 트집이라도 잡는다면 어떤 고통이 따를지 자명했기 때문이다. 서울을 출발하기 전부터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어려움을 당한 터라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었다. 모두들 쉽게 입국수속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필요한 치과장비가 싱가포르에서 오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야말로 영적싸움이었다.

황우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늦은 밤 숙소인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했다. 그곳은 미국선교사가 150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기도 처소였다. 간단한 도착 감사기도를 한 우리는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다.

2월 10일 아침 6

시, 잠결에 저 멀리 창밖으로부터 주문을 외우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이곳이 모슬렘 국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 대원 모두는 긴장감과 피곤이 덜 풀린 상태에서 의료사역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분주했다. 2개 팀으로 나누어 A팀은 다카 시내 모그바자르 빈민가 학교로, B팀은 울드다카 지역의 빈민가 학교로 나눠 출발했다.

어찌 그리도 사람이 많은지, 아침에 펼쳐진 다카 시내의 교통지옥이었다. 거리를 메우고 있는 수많은 '릭사페'(내가 보기에는 꼭 짐승 때 같았다)와 영겨 있는 수십 대의 버스와 승용차들. 어떻게 뚫고 나갈지 걱정도 되었지만 운전기사는 너무도 익숙하게 잘도 빠져나갔다. 이곳은 차량과 릭사의 잦은 충돌 사고로 타박상 환자가 많았다.

잊을 수 없는 그들의 눈빛 첫 사역지에 도착하니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한 악취가 진료 내내 우리를 괴롭혔으나 어느새 우리 일행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 온 몸에 퍼진 '움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 아팠다.

저녁시간에 우리의 협력중인 다카AG교회에서 특별한양이 있어 우리들은 아직도 진료받지 못한 울드다카의 빈민가 형제들을 뒤로 한 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생전 처음 구경하는 약을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던 그 눈빛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 이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해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 하옵소서."

(다음호에 계속)

한복규 집사



▲ 성남분당공동체 37명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TIM에서 파송한 박영환 선교사와 함께 의료 선교로 진행되었다.

*

★ 제2회 해외선교 연합기도모임
 · 일시: 2월 26일(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두란노홀
 · 주제: 선교에의 도전 (Missions Challenge)
 · 강사: 김사무엘 목사(온누리 세계선교센터 원장, 미국 C&MA 파송 선교사)
 · 대상: 온누리 성도 누구나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개강좌
 · 일시: 2월 25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주제: 중국의 현재와 선교의 실제
 · 강사: 마민호 교수(한동대)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분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해정 간사 (792-7075-6)

★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2월 28일(목)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2호
 · 문의: KIBI (792-7075)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자격: 교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동아시아 A지역: 초등학교(수학, 국어) 2명, 한국어교사 2명
 · 동아시아 B지역: 피아노 교사 2명, 유치원교사 2명
 · 문의: 571-9535
 *필요서류: 동화책, 과학서적,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CD, 완구(블럭 종류)

제9기 갈렙네트워크
 · 일시: 3월 2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9:00(서울지역)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선교사의 부모
 · 훈련비: 25만원(부부는 45만원) 국민은행 822-25-0009-384 예금주: 아문혜
 ·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신앙경력 포함, 사진 3매 첨부, 신앙간증문(지원사유 포함)
 · 문의: 인터콥(796-3541 교2) 박정미 간사(016-706-6595)

에셀선교회 청년과 직장인을 위한 기도모임 양재성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두란노빌딩 703호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1-9947-3146) ezer@tyrannus.co.kr ezertriple@tyrannus.co.kr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 겨자씨
 화: 브니엘/임마누엘/스바냐/달리다금
 수: 두란노/Open Door/양재성전/야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셀라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벨엘 / 여호와심마 / 축복
 에셀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1-9947-3146)

인터콥 제6기 여성선교증보학교
 · 일시: 3월 19일~6월 11일 매주 화
 · 장소: 선교관 101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훈련내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며 프론티어를 향한 전략적 증보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
 · 문의: 인터콥(02-796-3541) 최백란 간사(018-863-3452) ic-woman@hanmail.net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아프가니스탄 난민구호사역에 동참할 의사를 찾습니다
 · 사역기간: 2월~3월 말까지
 · 내용: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구호 사업
 · 대상: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등
 · 참여방법: 위 기간 중 개인사정에 따라 1~2주일 정도 단기 사역 가능
 · 문의: 인터콥 문혜숙 간사 (798-6001)
 *구호기금 및 구호 물품 수시 접수

2002년 해외선교한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의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국민은행 803-01-0216-582
 한빛은행 576-252180-13-002
 농협 094-01-151313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사랑과 인내로 지켜보는 통로자”

우리 부부가 학교에 가고 나면 집에 홀로 남겨진 어린 다니엘을 돌봐주는 꼬마 아가씨가 있습니다. 올해 열아홉 살 된 순박한 시골 처녀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도 즐겨 읽으며,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예쁜 자매죠.

폐결핵에 걸린 자매

이 자매가 오랫동안 기침을 했다가 별 생각 없이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는데 결과가 기관지염, 폐렴, 폐결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 함께 주님께 아뢰고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병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어린 다니엘에게 병이 전염될까 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하며 어떤 설득에도 요지부동입니다. 우리에게 자매를 소개했던 중국인 친구(자매의 가까운 친척)가 마침 우리 집을 방문했다가 이런 상황을 듣고 참 난감해 했습니다. 더 이상 패를 끼칠 수 없다며 데리고 가겠다는 걸 붙잡아 놓고 이래저래 물어보니 자매의 가정 형편이 가막했습니다.

‘입 하나 덜었어’

자매가 살던 동네는 마실 물도 부족해 평생 목욕 한 번 제대로 못하는 곳입니다. 그나

마 1년 동안 간신히 농사 지은 감자도 부친의 오랜 지병 치료에 약값으로 쓰고 나면 여섯이 나 되는 자식들은 제대로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자매를 남의 집 더 부살이로 보내고 일 걱정 하나 덜었다고 좋아하는 집에 무슨 여유로 이 딸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모친은 딸을 외지에 보내고 1년 이 넘도록 얼굴은 커녕 목소리 한 번 들지 못했는데 “딸이 보고 싶지 않느냐”는 친척의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음까지 회복시키는 주님

모질다는 생각보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플까’ 하는 애처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즉시 이 자매를 치유해 주시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이를 지켜봐 줄 통로자가 필요했고, 그 통로자로서 우



리가정이 부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선을 베풀고 소망과 믿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이제 이 자매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고진우 · 혜현 · 다니엘 올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M자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하루 속히 회복되도록.
- 어린 다니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모임과 양육에 필요한 안전한 장소가 구해지도록.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류성훈(파송-중동-TIM)

- 말리 자매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영적 소원이 생기도록, 예수님께 친히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정이레(파송-중앙아시아-ITM)

- 북을 방송국, 성경 배포하는 T국 형제 보호 위해.
- 소송 위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 생생수 교회를 위해(구입한 건물 수리, 예배에 기쁨 부으심) 기도.

이영란(파송-동북아시아-TIM)

-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위해.
-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에게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승환(파송-동서남아시아-TIM)

- 라투갈러 베다 교회에 기쁨부어 주시고 함께 섬기는 밀턴과 요한 형제에게 지혜주시도록.
- 다니시리, 수닷, 수산며 형제가 신학 과정(2년)을 성실히 마치도록.
- 헤나니갈러 베다 마을에 복음 사역이 지혜롭게 시작되도록.

안디옥(파송-중앙아시아-인터콥)

- 토기장이 프로젝트(공예방 같은 회사 설립)를 통해 사역자들이 계속해 서들어 올 수 있도록.
- 고용된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 함께 섬겨줄 동역자를 주시도록.

03



섬김선교지 소개 3 : 일본 오오사카

영적 불모지에 심은 부흥의 씨앗

우리는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 또는 선지자 요나가 가기 꺼려했던 섬을 ‘니느웨’에 비유하곤 한다. 이처럼 일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다소 불편한 상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최근엔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수주의 의지로 주변 국가들과 결고려운 관계를 만들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일본은 천연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지난 45년 동안 강력한 수출 지향 경제 대국을 이룩해왔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일궈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1억 2천여만 명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있는 가련한 영적 불모지이다. 그런 일본 땅 곳곳에 온누리 선교사들이 주님의 깃발을 꽂고 있다.

혼미한 땅 오오사카

오오사카는 긴키 지방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삼면이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업 도시이다.

오오사카인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인생관으로 현세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신분을 의지하고 호코라(사당)나 야시키(가미집에 모신 신) 등 민간 신앙이 삶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다. 영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인 오오사카는 인구 8백60만 명에 교회 수가 5백67개로 한 교회가 담당해야 할 인구는 1만5천 명이다. 그러나

도쿄 이상으로 국제적인 도시라는 점에서 선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오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교회

2000년 3월, ‘교인 1000명 교회 설립’의 비전을 품고 일본인 형제가 헌납한 장소에서 오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교회가 태동했다. 처음 5, 6명이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하여 같은 해 4월 부활 주일에 창립기념예배를 드렸고 6월에는 ‘오오사카 두란노서원’을 개원했다.

자금은 성도가 70여 명 규모로 성장한 오오사카 그리스도교회는 온누리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다.



▲ “부흥 모델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2000년 3월, 교인 1천 명 비전을 품고 5,6명의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한 오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교회는 온누리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기도의 밑거름으로 현재 7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김사무엘 선교사 부부가 개척하여 현재 이영선 · 천창길 선교사 가정과 신인순 선교사 그리고 현지인 2명이 헌신하고 있다.

오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교회는 전 성도를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 양육과 큐티 훈련을 활성화하고 있다. 두란노서원을 통한 큐티 나눔방과 각종 세미나 사역으로 주변 교회에 살아 있는 온누리 사역의 영성을 나누고자 애쓰고 있다. 그리고 교인 1천 명 비전을 실현함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한 현재 일본 교회를 향해 교회 부흥의 한 모델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고 있다.

기도제목

1. 오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편견을 버리고 성령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2. 일본인과 결혼한 한인 여성 성도들이 그리스도교회를 찾아오는 일본인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3. 사역자들이 일본의 영적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는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품아」란?

세상을 향해 비전을 품는 아이들

“세품아가 소년부에서 워십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워십 배우는 곳인 줄 알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같은 반 친구 엄마가 세품아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하자구 해서요.”

“예배시간에 세품아 소개가 있었는데 호기심으로 지원했어요.”

각기 다른 동기로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하 세품아)’에 가입했던 아이들이지만 이제 한 목소리로 말한다.

“친구들과 정말 친해졌고, 세계 문화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배웠어요. 좀더 일찍 세품아에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끝나고 나니 아쉬워요.”

세품아란?

어린이들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꿈땅에서는 2천1만 비전에 따라 1999년 ‘세품아’를 시작했다. 어린이들은 선교지 언어와 역사, 무용 등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



①



②



③



④

▶ ① 유대인의 회당에서 랍비와 함께 ② 말레이시아 모스크
③ 공동체훈련 ④ 1박 캠프 아침 길가

건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세계를 품은 아이로 성장해간다. 워십댄스, 캠프, 탐방, 아웃리치를 통해 성경적인 선교관을 갖고 스스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품아에 들어온 뒤 변했어요
홍수림(초6) 양은 “예전에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배우면서 세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라고 한다.

세품아를 통해 장래 희망이 가수에서 선교사로 바뀌었다는 정승화(중1) 군은 “처음에는 한국 역사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까지 배워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도 사랑하게 됐어요”라고 한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웃리치이다.

김진(중 2) 양은 세품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는 인도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라고만 생각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MK(mission's kids 선교사 자녀)를 만나고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저는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진 양의 고백이 아름답다.

학교 친구보다 더 친해졌어요

“토요일마다 세품아에 나와야 하니까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게 처음엔 속상했지만 이제 학교 친구들보다 더 친해졌어요.” 이한솔(중 1) 군은 도보 국토종단 때 세품아 친

‘세품아’가 걸어온 길

· 1999년 1기-2기 32명 모집
-네팔, 중국, 태국
-1회 아웃리치:싱가폴, 말레이시아에서 타 문화 타 종교 리서치 여행(8박9일).

· 2000년 3-4기 24명 모집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2회 아웃리치: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자녀들과 함께 캠프’ (9박10일).

· 2001년 5-6기 25명 모집
-일본, 중국(소수민족)
-3회 아웃리치:중국 K시에서 소수민족 리서치여행, 선교사가 정 홈스테이(10박11일).

구들이 격려해준 것이 너무 고맙다고 한다. 세품아는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라는 카페를 만들어 인터넷으로도 활발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세품아를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어린이 선교 사역자로 성장해가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2002 예수 통신사 프로젝트 (바울공동체 겨울 일본 전도 수련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13기 이일 (바울 공동체 회중)



2박3일이라는 길지 않은 일정 동안 하나님은 깊이 그리고 강하게 인도해주셨다.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 일본 땅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셨고, 영적으로 무뎠던 내게 일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감사하게도 아글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권사님, 장로님을 붙여주셔서 숙식을 허락하셨고, 현지 간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길안내와 동역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았다.

일본 땅에 복음이 뿌리내리길

20일, 하카다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텐진이라는 중심가로 갔다. 짧은 일정이기 에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름다운 공원에서, 변화한 거리와 백화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했다.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을 알게 하셨다. 그것은 거절감이 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오래되었지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속마음과 겉이 다르다는 일본 사람들, 사무라이 정신 이면에 감추어진 연약하고 고독한 영혼을 느끼게 하셨다.

둘째날, 현지 간사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일본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내게 먼저 깊이 회개하게 하셨고, 이 땅

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계속해서 각 캠퍼스와 텐진 지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다.

큰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

수련회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퍼즐조각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워 보였던 여러 상황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흠어진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서 마침내 큰 그림을 완성해내고야마는 하나님.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주님, 그 어려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신 은혜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 오래전 복음이 전해졌지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었다.

*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사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숲속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자격: 교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동아시아 A지역 : 초등교사(수학, 국어) 2명, 한국어교사 2명
- 동아시아 B지역 : 피아노 교사 2명, 유치원교사 2명
- 문의: 571-9535
- *필요물품: 동화책, 과학서적,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CD, 완구(블럭 종류)

✠ 에셀선교회

청년과 직장인을 위한 기도모임

양재성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두란노빌딩 703호

에셀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간사 모집

- 자격: 컴퓨터 가능한 분, 문서사역에 관심 있는 분, 선교에 비전이 있는 분, 주님의 일에 헌신하신 분
- 제출서류: 이력서
- 접수: ezzer@tyrannus.co.kr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인터콤 제6기 여성선교중보회

- 일시: 3월 19일~6월 11일 매주 화
- 장소: 선교관 101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훈련내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며 프론티어를 향한 전략적 중보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
- 문의: 인터콤(02-796-3541) [최백란 간사\(018-863-3452\) ic-woman@hanmail.net](mailto:최백란 간사(018-863-3452) ic-woman@hanmail.net)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2002년 해외선교헌금

- 서울은행 33901-9529186
- 신한은행 010-33-23507-7
- 국민은행 011-023811-02-202
- 우리은행 803-01-0219-417
- 농협은행 341-03-0063359
- 예금주: 온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 국민은행 803-01-0216-582
- 신한은행 576-252180-13-002
- 우리은행 094-01-151313
-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01

온누리 선교학교로 오세요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온누리 세계 선교 학교를 열고 제 1기 학생을 모집한다. 선교 학교는 4월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비전홀에서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경기도 용인시 양지에 위치해 있으며 선교사 양성과 안식년 선교사 재충전 등 비전 2000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관련기사 7면>

- 일시: 4월 13일~6월 29일 (매주 토) 오후 4:00~8:00
- 장소: 비전홀
- 대상: 전교인

전성희 shee@onnuri.or.kr

02

2천선교사 파송식

오늘 서빙고 9시예배에서 최상운/허윤정 가정이 동북아 A국으로, 이지현/김점희 가정이 스리랑카로 파송된다. <관련기사 5면>

서철 chol@onnuri.or.kr

03

유년 2부

“선교의 꿈 키워요”

지난 2월 24일(주일) 양재 유년 2부 어린이들이 선교예배를 드렸다.

반이름을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의 이름으로 정한 유년 2부는 매달 미전도종족에 대해 알아보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예배를 한 달에 한번 하기로 했다.

첫 선교예배로 드린 이번 예배에서 유년 2부 어린이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미전도종족에게 알리고 구원하기 위해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4

선교사 파송

최상운 · 허윤정
(주은 · 주영 · 경찬)



파송-동북아-TIM

□ 기도제목

1.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2.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 시도록.

3. 사역과 언어에 진보가 있도록.

□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4-1601404

(예금주 최상운)

이지현 · 김점희
(나래 · 형식)

파송-스리랑카-TIM

1.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2.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

는 통로된 가정이 되도록

3. 가족의 건강과 나래, 형식이 언어 습득과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4-0892513

(예금주 이지현)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몽골 초원을 달리는 복음의 말발굽 소리

살롱! 요즘 산길이가 유치원에 다니길 좋아해 하나님께 감사하합니다. 저는 문화센터, 시골, 수요가정교회 사역을 담당하고 김조세핀 사역자는 한국어 가르치기와 교회 사역에 비중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저희와 참 여할 지체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세요.

바잉울에 잉태되는 교회
지금까지 주일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렸는

고 2000년 다시 몽골에 들어와 언어훈련을 해오던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바잉울 마을에서 올 가을부터 영어 교사로 일하기로 정식 계약했습니다. '발리게' 라는 닷돌 지역에서 사역했던 브리아트 형제와 함께 사역할 예정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저희에게 열어주신 바잉동 지역과 80km 떨어진 바잉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D 씨가 바잉울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증인 될 새신자 양육 시작

지난해 성탄절을 전후해 교회 이름을 '도르노트 그리스도 교회'로 지었습니다. 6명(에르트바트라흐, 디와자브, 나랑, 첸수랭, 간조리, 알탕차메크)이 정식 등록을 하였고, 5명이 준비 중입니다. 또 등록요인 중 2명은 세례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다와자브 형제 집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구도자를 위한 수요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 모임을 갖는 동안 10여 명의 새로운 구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그들이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월부터 몇 가지 양육 과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새신자를 위한 기초양육과정, 세례 학습반, QT 기초반, 일대일 제자양육 등입니다. '하나님의 진신강생을 입고 초이발산과 도르노트 그리고 모든 족속(브리아트)에게 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목표

데, 지체가 늘어 방이 비좁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넓은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 중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난 2월 첫째 주에 그동안 이름만 들었던 DX(32세) 씨를 만나 교제를 갖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침례교에서 파송한 독일계 사역자인 그는 지난 98년 몽골에서 브리아트족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 그 후 본국에서 목회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소금과 빛'의 문화센터

밝은미래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는 지난 1월 21일에 컴퓨터 강좌를, 2월 4일에 한국어 강좌를 시작해 주 5일 동안 각각 3시간, 1시간 반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강좌는 4월 5일에 종강할 예정입니다. 비서로 나랑도야, DIA 교사로 에르트몽흐가 새 식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는 DIA(Diamond-collar International Academy, 원장 원동연 박사) 학습비 세미나를 준비 중입니다. 컴퓨터, 한국어의 강좌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길 소원하며 이를 통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문화센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바나바 · 김조세핀 · 신길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최연호(파송-아프리카-Mercy Ships)
-도덕적 해이로 주님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새해에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도록
-부스터 YWAM 베이스가 바른 체계를 잡아가도록(재정, 도덕관계 부분)

조윤정(파송-스위스-YM)
-베이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해와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역으로 주님이 제 삶에 두신 큰 그림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도록

강철주(파송-동북아시아-YM)
-제주도 BEDTS(6월 시작)를 성길 간사 7명, 학생 30명, 영남대학 어린이집을 성길 YWAM 간사 1명을 보내 주시길
-건강을 주시도록

정성천(후원-동남아시아-국제기아대책기구)
-방콕 은혜학교와 유치원이 국제 학교로 성장하도록, 많은 후원자가 생기도록
-태국 국제기아대책기구 발족을 위해

이지현(후원-중동-ACTC)
-건강과 시간 관리를 위해
-결핵지역 선교 방안을 위해
-정탐사역(3월말)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이뤄지길

이선유(단기-동남아시아-경천)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인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있도록
-저와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03



선교선교지 소개 4 : C국 B시

감시와 도청의 땅에서 '부흥하는 교회'

지하에서 부르짖는 복음

동북아시아 C국의 B시는 복음 선교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망이 삼엄한 곳이다. B시는 현지인과 소수민족인 동포, 그리고 이웃나라 N국에서 건너온 동포들을 위한 주거 및 물자 수송이 용이한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 지역에 각종 정보원들의 감시와 도청이 강화돼 복음 전선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선한 목자를 기다리는 B시

B시는 약 2만여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유구한 역사의 도시다. 1907년 무역항이 개설된 많은 국제 교류가 이뤄졌으며 C국 최북단 지역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을 갖추고 있다. 육·해·공의 교통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연해 개방 도시이며 섬유, 전자, 관광 산업이 발달한 C국 최대의 번영 도시이다.

특히 소수민족으로 192만 명의 재외 이주 동포들이 B시를 포함한 동북 3개 성

(성)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곳에는 많은 한인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타지방에 비해 개방과 발전 속도가 빠른 편이다. 따라서 재외동포 교회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B시에 C국 정부가 인가한 60여 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나 지하교회에는 적절한 훈련 과정을 거친 목자들이 없어, 각종 이단들의 교리가 성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른 영적 지도자의 양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N국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까지

은누리교회가 B시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98년 0순종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면서다. 0순종 선교사는 B시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과 N국에서 건너온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마을 전도와 제자화 훈련을 시작했다. 99년 4월에 한인교회를 창립하여 B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 사원들도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B시 한인교회는 단기 선교팀이 방문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 재외

동포 성도들과 지하교회 지도자 그리고 소수의 N국 동포들에게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현재 0권능 선교사가 사역에 합류하면서 B시 최초 외국인 교회의 설립인가를 목표로 전도와 양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B시 선교사역의 최종 목표는 이웃나라 혼탁한 땅 N국에 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기도제목

- 현지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제자 양육을 통해 C국과 N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 B시 한인교회가 조속히 인가 받아 신속될 수 있도록
- 선교사들의 영육 강건을 위해



▲ C국 B시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정부 당국의 삼엄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최초 외국인 교회 설립 인가를 목표로 전도와 양육에 열정을 쏟고 있다.

2002 3 10 377

온누리 세계 선교센터



▲ 선교센터내 학생 숙소들

1994년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임태되었다. '주후 2000년까지 2천 명 해외선교사와 1만명 국내사역자를 배출 하자'는 목표 아래 시작된 사역은 다음 해 '비전 2천/1만'으로 다져졌다. 2010년까지 전략적 선교 지역에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 2000' 아래 지금까지 선교사 7백여 명이 세워졌다.

선교센터의 목적과 역할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온누리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될 선교사들을

배출해 비전 2천을 이루어가려 한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에 세워지는 선교센터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하고 역량이 있는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여 세계 선교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현지인 지도자를 발굴, 훈련시켜 비전2천에 동참하게 한다. 선교센터는 또한 안식년에 고국에 돌아오는 선교사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훈련도 실시한다.

선교센터는 선교세미나, DTS, MTS 등 교회 내 선교훈련 과정을 총괄해 온누리교인에게 가장 적합한 선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C&MA와 협력

또한 1백여 년 넘게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정보를 쌓아 가고 있는 C&MA와 협력해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 C&MA는 커리큘럼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선교 이론과 실제에 관한 강의, ELS(English Language School) 강의를 돕는다. 훈련원들은 C&MA선교현지에서 2년 간 훈련받게 되는데 현장사역 기간 중 현지 적응과 언어훈련 등 현장 선교훈련을 받는다.

온누리교회 선교훈련을 총괄해 체계화하고, 단계별 목적에 맞는 훈련을 통해 현실되고 역량있는 선교사를 배출하게 될 온누리선교센터는 비전 2000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or.kr



C&MA(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는 1887년 미국에서 Dr. Albert Benjamin Simpson에 의해 설립되었다. 선교와 전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복음주의적 교단이다.

초기 C&MA는 "전세계에 성경을 전하자"라는 좌우명으로 시작되었고 18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해 뉴욕 The Gospel Tabernacle Church를 중심으로 미국 부흥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중국, 인도, 인도차이나 등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하였고 그 숫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안에서도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1974년 독립 교단으로 자리매김을 새로이 했다.

현재 Dr. Peter N. Nanfelt의 지도력 아래 49개국에 선교사들을 1천1백 명 이상 파송하고 있으며 문서번역, 교회개척, 의료사역, 구제, 봉사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68여 개국에 C&MA 지교회 혹은 협력교회를 설립하고 The Alliance World Fellowship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 수는 25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선교센터 개원을 앞두고

'95년 온누리교회 전체가 추구하던 목표와 비전은 '2천/1만'이었습니다. 분당 현관에 들어서면 2천/1만이라는 숫자가 방문자들을 제압했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배출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비전의 선포였습니다. 이 비전에 매료돼 헌신하여 섬겨온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수년간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또 진행하셨는 돌이켜보며 앞일을 살펴보게 됩니다.

온누리 신앙고백 '비전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그때부터 2년 간 온누리교회에 흥분하고 헌신하며 풍성한, 매우 바쁘고 뿌듯한 시기였습니다. 2천/1만의 개념을 정리하고 목회자는 5년, 평신도는 7년이 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기기를 권장하는 매우 특이한 목회철학을 가진 목사님의 도전을 접목시켰습니다. 선교사 훈련 과정을 만들고 선교 헌신자를 동원하고 도전을 주는 등 선교 중심의 교회로서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2천년까지 이 목표를 성취하자는 의견이 있을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선교의 열기와 헌신으로 훈련된 온누리 성도들은 '성령충제', '온누리축제', '가정사역축제' 등 온누리교회의 큰 축제가 열리는 동안 훈련된 봉사자 조직화된 섬김으로 지역 교회의 제지화 된 모습을 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

를 이상으로 삼고 이를 추구하는 교회로 자랑합니다.

이와 같은 성장과정 속에서 축적된 전문적인 목회 정보와 지식을 다른 교회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인터넷 방송시대가 열리면서

나. 양재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2의 교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빙고의 열린 예배가 독자적인 성격을 갖추면서 그 영향권을 확실히 굳혀가고 있으며, 여러 분의 교역자들이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 이 교단에서 파송한 경험 있는 선교사들이 온누리선교센터에 와서 헌신한 선교사 후보생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일정기간(9개월 예정) 동안 기초과정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후에 이 선교단이 있는 나라들에 2년 간 파송되어 언어, 문화적응, 개척선교준비 등 위탁훈련을 계속하고 제3년째부터 독자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일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며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 1백 년 동안 그는 이 비전에 헌신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온누리는 영상을 매체로 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여 내용을 섭렵하고 은혜를 받는 최첨단 매체의 도입으로 '100만 명 큐티' 운동의 실현이 그렇게 먼 장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날로 확장해 나가는 현장 속에는 은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

C&MA의 선교 노하우 전수받기

이런 움직임 속에 2천명 선교사를 훈련하여 파송하는 '온누리 세계 선교센터' 설립이 지난해부터 거론되기 시작했고 드디어 미국 C&MA선교 교단과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C&MA선교 교단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 1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1백 년이 넘도록 세계선교에 쓰임 받은 선교단체입니다.

선교센터 통해 역사할 하나님 손길 기대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합니다. 온누리 선교센터의 개원을 앞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교회를 준비해 오신 그분의 손길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훨씬 뛰어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2천 명의 선교사들이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전해를 선교의 소식들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교회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김사무엘 목사(온누리선교센터 원장)

01

온누리미션 네팔어예배 바자



네팔예배는 네팔인 신학생을 후원하기 위해 오늘(17일) 2천/1만

광장에서 바자를 열고 감자구이, 우유와 쌀로 반죽한 네팔식 도넛 '로띠', 잡채 등을 판매한다.

네팔예배는 네팔 현지인 2명을 찾아 신학훈련을 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훈련비용 6백여 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바자를 준비했다.

이 바자를 통해 네팔예배가 선교를 위해 나가는 예배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네팔 예배는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네팔형제 5백 명을 전도하고 10명의 세례교인을 얻자는 '500/10', 1명의 전도자를 세워서 네팔 시골에 사역자로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세웠다.

1994년 4명이 모여 시작한 네팔예배는 1997년 외국어예배로 정식 등록했다. 1998년 개비라이 목사가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헤브론 교회를 개척, 세례교인 120명인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일만사역자 파송

오늘 서빙고 2부예배시 안희진 권사가 해외사역자로 파송된다.

서철 chol@onnuri.or.kr

03

기독교선교사기도제목

“거주허가가 나오도록”

김다니엘, 이한나(파송, TIM)
T국 한국대사관에서 취득한 취업 비자를 가지고 거주신청을 하러 갔으나 담당 경찰관이 저희가 3년 전 성경배포를 하다 강제출국 당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무부에 조희한 후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즉시 강제 출국 당할 지도 모를 형편입니다. 거주 허가를 발급해도 좋다는 통보가 나오도록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탄원해주세요.

“수술 후 완쾌위해”

최연숙 (파송, YWAM)
유방암으로 3월 11일 국립 암 연구 센터에서 한쪽 가슴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지만 6개월 이상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해야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04

꿈땅 요셉학교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품는 어린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삶으로 행하는 어린이, 세상 영혼을 사랑으로 품는 어린이로 훈련하고자 합니다.”

요셉학교가 4월 6일 개강한다. 송경부 목사(요셉학교 담당)는 요셉학교 1, 2학기(각 12주) 1년 과정이며 매주 토요일 모여 말씀을 배운다. 한달에 한두 번 서빙고와 양재 성전에서 합숙을 통해 공동체 훈련을 하고, 캠프와 아웃리치도 한다. 매주 모임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배우고 그룹활동,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한다. 또한 세피아와 긴밀한 협력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요셉학교 학생모집

- 대상: 초등 5~6학년(20~25명)
- 원서 접수: 3월17~29일(꿈땅 사무실)
- 구비서류: 자기소개서, 부모추천서, 교사 추천서 지참(꿈땅 사무실에서 양식 교부)
- 회비: 8만5천원
- 면접: 3월30일(토) 오후 3시 장소 추후공고(합격자 개별연락)
- 문의: 송경부 목사(011-9638-0690)
김대진 간사(016-231-9269)
김창도 간사(011-271-4558)

전성희 shee@onnuri.or.kr

01

● 선교센터개원을 앞두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헌신자 훈련, 선교사 자녀와 은퇴선교사 돌봄, 제3세계목회자 훈련에 힘쓸 터

85년 창립 이래 18년이 되는 온누리를 돌이켜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많다. 그 중에서도 '온누리교회'를 '온누리' 되게 한 것은 '선교가 우선인 교회'라는 것이다.

선교 우선인 교회

그 동안 온누리교회의 선교정책은 몇 가지 면에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하나는 '협력선교'이다.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교회의 이름으로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와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사역을 공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교단체와 그에 속한 선교사를 우리의 협력기관 협력선교사로 받아들였다.

또 '평신도 선교사'이다. 한국교회는 아직 대체적으로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나 온누리교회는 총 5백여 명의 파송선교사 중에 평신도 선교사가 60%에 달한다. 평신도가 이끄는 교회의 목표가 선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많은 평신도 선교사가

각각 전문 영역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전도종족과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과 일본을 전략적 대상으로 보고 15개 종족 입양하고 선교 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으로 우리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교회와 선교사, 파송단체와의 유기적

서구 선교사들과 실제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여 정보와 도구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의 부재로 많은 헌신자들이 훈련되지 못하고 타선교단체를 통해 파송됨으로 교회의 비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그 동안의 노후를 선교 정책의 기반으로 체계화하고 적극적인 평신도 선교사의 개발과 교육, 선교사 자녀교육과 건강관리, 선교사 재교육과 은퇴선교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비전 2000을 이루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도약할 때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지금까지 해온 선교보다 앞으로 이를 선교적 소명을 위하여 우리교회에게 '온누리 세계 선교센터'를 주신 것이다. 이것은 교회 내의 '2000본부'와 '두란노 회의 선교회'와 더불어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되 상호 유기적인 보완 관계로서 우리의 비전을 실행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서 하는 일

1. 선교 헌신자를 개발하고 관리한다. 헌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비전을 누군가가 멘토가 되어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신자 각자에 대한 파일을 만들어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 인격, 관계, 신앙을 점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돕는 제자훈련의 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의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종합하여 훈련할 장소와 체계가 필요하다.

3.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전문 기관이 되기를 원한다. 단기, 장기 선교사 훈련학교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서구 선교사들과 동등한 능력의 훈련된 선교사를 배출하고, 전략지역과 제3세계 현지 지도자의 목회와 선교훈련, 인식선교사를 위한 재교육, 특성별 훈련 프로그램과 선교사 자녀와 은퇴 선교사를 돌보는 종합선교센터가 되기를 원한다.



인 협력으로 적극적인 선교를 모색하고 있다.

지금은 도약할 때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우리교회 파송선교사가 국제 무대에서

황 중 언 목사(온누리선교센터 담당)

이렇게 진행됩니다

02

2002 온누리 세계 선교센터 훈련과정

1. 제1기 온누리세계선교학교 (주1회, 12주과정)

온누리 세계선교센터에서는 선교에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성도, 올바른 선교사 후원과 중보기도를 하기 원하는 성도, 선교사역의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성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 등을 위해 온누리세계선교학교를 실시한다.

이번 학교는 온누리 교회의 2천/1만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미국에

서 평신도 선교교육교재로 널리 공인된 미션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s :US Center for World Mission)과정을 통해 선교의 올바른 성경적, 문화적, 역사적, 전략적 관점을 제공한다.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 1회 실시되며 예배와 강의 그리고 온누리교회 선교현장의 사역소개와 선교사 간증, 중보기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12주 과정이후 여름휴가와 방학을 이용하여 온누리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해외선교 현장에서 단기사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선교의 이론적 관점을 배울뿐만 아니라 자신을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뜨거운 중보의 시간이 될 것이다.

- 기간: 4월 13일 ~ 6월 29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8시, 12주간)
- 장소: 온누리교회 비전홀의
- 문의: 이영재간사 (Tel: 570-7801, 7803)
- 편비: 3만원 (간식비 및 보조 교재비 등)



2. 제1기 Onnuri Mission Institute (OMI, 5개월 합숙과정)

선교에 헌신한 온누리교회의 성도를 사역정신이 투철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여 준비된 선교사로 훈련하기 위한 전문 선교사 양성 학교로 교육의 내용과 질이 크게 달라진다.

선교현장 경험이 풍부한 온누리교회의 선임 선교사들과 미국 C&MA 교단 소속 선교사와 함께 5개월간 합숙하며 경기도 양지에 위치한 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 선교사로서의 인격과 사역정신, 영성, 선교 이론 등에 대해서 5개월간의 집중 훈련을 받게 된다.

이후 훈련생들은 소정의 허입 절차를 마치고 두란노 해외선교회(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약칭 TIM) 소속 장기 선교사로서 온누리교회 Vision2000

의 일원이 된다. 초기 2년은 미국 C&MA 교단 선교사역지로 파송하여 수습 선교사로서 언어훈련과 문화적응을 받은 이후 교회 2천선교본부와 협의하여 선교지를 결정 후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 기간: 7월 15일 ~ 12월 14일 (5개월 합숙)
- 문의: 이영재 간사 (Tel: 570-7801, 7803)
- 편비: 추후 통보

온누리세계센터는 선교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훈련생의 신청을 받는다.

E-mail: owmc@onnuri.or.kr, 전화: 570-7801, 7803

※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 일시: 3월 18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1호
 ·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3월 25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401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속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자격: 교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동아시아 A지역 : 초등학교(수학, 국어) 2명, 한국어교사 2명
 · 동아시아 B지역 : 피아노 교사 2명, 유치원교사 2명
 · 문의: 571-9535
 *필요물품 : 동화책, 과한서적,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CD, 완구(블럭 종류)

✠ 제13기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 12주 주말훈련,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선발: 1차 서류, 2차 면접
 · 마감: 4월 14일
 · 문의: 송지윤 간사(교 525)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 가능자
 · 문의: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제3기 이스라엘 비전스쿨
"이스라엘을 일면 성경이 보인다"
 · 일시: 3월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00~4:00
 · 장소: 서빙고 미전도종족증보기도실
 · 회비: 3만원
 · 입금계좌 : 서울은행 33901-1033558 예금주 KIBI
 · 문의: KIBI (792-7075)

제6기 여성선교 증보학교
 · 일시: 3월 19일~6월 11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00~오후 2:30
 · 장소: 서빙고 101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훈련내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며 프론티어를 한하여 전략적인 증보 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
 · 문의: 인터림(796-3541 교2) 최백관 간사(018-863-3452)

✠ 에델선교회
찬양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양재 비전홀
 · 리더: 정장철형제, 강병민전도사
 · 내용: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돌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

서빙고 증보기도 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리더/권순호, 최승권 형제) 두란노빌딩 에델사무실(703호)
 · 내용: 직장인과 청년들에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증보의 끈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기도모임

*에델은 돕는 손길의 뜻입니다. 에델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6개의 기도모임이 각 지역에서 요일별로 있습니다.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실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발행하고 있는 선교사의 기도정보가 들어있는 기도책자를 우편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양재 2부 영어새벽예배(E2S2)
특별부흥집회 "New Anointing"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분, 선교헌신자
 · 일시: 3월 18일~22일 오전 6:40
 23일 오전 6:30
 · 장소: 양재회관성전 (23일은 양재화평인내성전)
 · 문의: 이진엽(019-263-4891)

2002년 해외선교한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국민은행 803-01-0216-582
 한빛은행 576-252180-13-002
 농협 094-01-151313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01

해외선교연합기도모임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선교사를 중보기도로 후원하는 '해외선교연합기도모임'이 오는 3월 26일(화) 오후 7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에는 미국 C&MA 소속 선교사이자 심슨 컬리지의 선교학 교수인 데이빗 스트롱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02

벌써 3월입니다. 한국은 봄이 왔거든요. 여기도 많이 따뜻해 졌습니다. 낮에는 영하 5도에서 10도사이 저녁에는 영하 20도 정도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많이 포근해 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몽골 사람들이 금년 겨울은 유

례없이 따뜻했다고 얘기 하더군요. 첫 번째 겨울을 별로 추위고생은 하지 않고 난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적응하면 살만하다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다가 영하 20도 정도만 되어도 따뜻하다고 느끼며 지냈습니다. 다만 겨울이 워낙 길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한국에서 보다는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지난 3월 3일은 제게 참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몽골에 온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몽골어로 주일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날은 제가 섬기고 있는 하이르 교회의 아양예베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철희 선교사님께서 지난 2년간 개척하시고 인도해 오신 현지인교회인데, 금년 4월 3년간 안식이라서 제가 그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언어도 부족하고 병원일도 있는데다가, 아직 몽골에 온지 얼마되지도 않아 절대로 할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나

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 "내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전에는 피상적으로만 보던 말씀이 몽골에 오고나니, 자주 양떼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되고 목자들도 보게되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이 되었

50,60명정도가 모이는데 좀 더 큰 장소를 구하고 있고, 새신자 교

몽골에서 온 편지

'말기신 양떼' 힘 다해 돌보겠습니다

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치시던 사랑하는 양떼를 정말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로 양떼를 치라고 하신 명령이 제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한 두려운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했던 것처럼, 저 역시 오직 정성과 사랑으로 양들이 배고파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도록 목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격이 없는자를 목자로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를 부흥시키시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현지인 지도자 양육이 가장 중요

교회의 기도제목으로는 금년 초에 교회를 확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장하는 한해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 성경묵상, 찬양예배등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시작해서 교회가 내실있고,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지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현재 2명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아직은 연약하지만 이들이 잘 자라고, 더 많은 현지 지도자를 양육해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관태, 정수경, 박준은, 박준호 가정 드림

기도제목

1. 맡게된 하이르 교회를 목자의 마음으로, 성령의 기쁨부으심으로 잘 감당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2. 하이르 교회가 부흥되고, 현지인 지도자가 잘 세워지며, 돕는자 (통역, 반주

- 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 3. 언어의 진보가 있고, 아내도 교회에서 사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4. 병원의 수술실 셋업이 잘되고, 수술받는 환자들이 잘 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 5.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몽골 유치원에 다니는 주은이가 잘 적응하고, 한국에 있는 준호도 무사히 몽골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 후원계좌
서울은행 30004-0853112 박관태



▲ 겨울초지에 있는 가족들이 우리로 돌아오고 있다. 겨울초지에는 눈도 별로 없고, 풀도 많이 있어 겨울을 나기에 좋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스리랑카 티싸마하라마 시내에 있는 한 교회. 그곳 교회를 세운 라이오넬 자야싱허 목사는 승려였다. 1984년 시내에서 탁발을 하던 어느 날 누군가에게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았다. 그곳에 적혀있는 교회로 찾아가 복음을 듣고 개종한 후 자신의 고향 티싸마하라마 시에서 목회를 했다. 줄곧 불교가 강성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지역 사람들에게 전했다. 흠뻑 단신 시작한 교회는 개종자들이 한 둘씩 늘기 시작했다.

교회를 개척한지 2년 후인 86년 띨라니(Lalani) 지매와 결혼했다. 87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셨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모

88년 3월 어느 날 초저녁, 그가 속했던 사원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가 귀가하는 라이오넬 목사를 저격했다. 그의 나이 29세, 개종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4년만에 순교하고 말았다.

그 사건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문을 닫는 듯 했다. 띨라니 사모는 남편의 교회를 맡아 사역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순교한 남편을 위한 최상의

길임을 알았다. 하루에 8~10km씩 걸으며 복음을 전했다. 반응은 방담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은사를 주셨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와주었다. 그래서 공출사역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적박한 땅에 자라난 교회

현재 이 교회에는 띨라니 목사 외에 9명의 식구들이 함께 생활한다. 그 중에는 부모가 헤어지자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한 자매도 있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서 오갈 데 없는 어린아이들도 있다. 이렇듯 라이오넬 목사는 떠나갔지만 사역은 꽃을 피웠다.

이제 교회가 작아 더 큰 곳으로 가야 했다. 그래서 이사 온 곳이 지금의 교회이다. 앞쪽으로 살림집이 있고 뒤로는 꽤 커다란 터가 있었다. 그곳에 간이로 아자수 나뭇잎을 열기설기 엮어 기도처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그 기도처를 불질러버렸다. 띨라니 목사는 나뭇잎으로 기도처를 세우는 대신 본당을 신축하기로 결심했다. 기초가 놓이고 기둥이 올라서는데 누군가 기둥 세 곳에 폭탄을 설치, 그 중 둘

이 폭발되어 애써 세웠던 기둥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 사건은 스리랑카 전국으로 대서특필되었다. 그리고 일약 그 교회는 유명해지고 곳곳에서 건축헌금이 담지해 2000년 교회건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인간의 귀환을 선으로 바꾼 하나님

띨라니목사는 가끔 폭탄을 설치한 사람을 찾고 싶다고 한다. 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을 주기 위해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교회를 잘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한 번은 누군가 아들을 납치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아들을 끌름보 근처의 언니네 집으로 보내어만 했다. 띨라니 목사는 오히려 협박한 사람이 고맙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더 잘 된 일이라고 했다.

주일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붉게 칠해진 본당의 바닥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내게는 그 붉은 바닥이 예수님의 피아자 라이오넬 목사의 피로 보였다.

조문상선교사, 김다니엘 이한나 드림 (파송-소아시아-TIM)



선교사를 위한 기도

채영진(장학-싱가폴-경천)
 -영어권 중국어권 교회가 연합하도록
 -경배와 찬양 모임(5/26~29)을 통해 견고한 현지 사역자들이 준비되도록
 -학생비자와 학교 입학,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채사라(파송-소아시아-인터콥)
 -1국의 어려운 영적 상황 속에서 파티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도록
 -모든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안드레/서석남(파송-이스라엘-TIM)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해묵은 전쟁이 끝나고 화해와 용서가 있도록
 -사마리아인 코헨 제사장과 교제를 통하여 복음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해지길
 -경환, 경진, 성환이의 교육문제를 주님께서 인도해주시길

Gregg/Milee Wareham (단기-동북아시아-TIM)
 -둘째 아기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교회와 한동대에서 사역 위해 지혜와 인내주시길
 -Milee와 Sara를 돌보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석희/박혜숙(파송-인도네시아-TIM)
 -3월에 람퐁족의 서베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업(중1)이 중부 자바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6월에 있을 비자 갱신을 위해(가족의 일시 해외 체류의 절차가 필요함)



성김선교지 소개 5 : 방글라데시

주의심장으로 '방글라데시에 희망을'

방글라데시는 세계 극빈국 중의 하나로, 인구밀도가 세계1위인 1억3천만 명에 달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무서운 홍수와 각종 자연 재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극심한 가난은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으나 극복할만한 실질적인 희망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이들을 민망히 여기시는 당신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자들을 찾고 계신다.

독립을 위한 유혈의 역사, 불안정한 정치
 방글라데시의 의미는 "벵갈인들의 나라"라는 뜻이다. 국경 산악의 소수 종족들을 제외한 90% 이상의 인구가 모두 벵갈 족이다. 이들은 거대한 인도 제국의 일부로서 5천년 이상의 우수한 문화와 언어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방글라데시가 인민공화국으로 독립한 것은 1971년이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45년에 이슬람을 신봉하던 이들 방글라데시 벵갈인과 파키스탄이 동, 서 파키스탄으로 분리된 후 26년간 '동파키스탄'이라는 이름으로 파키스탄의 식민통치를 받

아오다가 방글라데시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독립 이후에도 내부적인 부패, 불안정, 암살과 거듭되는 쿠데타로 얼룩져 왔고, 군부정권이래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대처할만한 능력이 없었으나 최근에 들어선 민간정부에 국민들이 지는 기대와 지지가 매우 높은 편이다.

400년전에 뿌려진 복음
 방글라데시의 국교는 이슬람이다. 인구의 87%가 모슬렘 신봉자이며, 12%의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모슬렘들의 신앙에는 힌두교적인 요소가 많이 배어 있으며 더 깊은 밑바탕에는 애니미즘적 정서가 깔려 있다. 기독교인은 인구의 0.2%인 약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을 위한 선교의 흔적은 400년을 훨씬 거슬러 올라간다. 1758년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통치하면서 벵갈 지방의 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교사를 초청하여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를 계기로 힌두교에서 개종한 벵갈인 개종자들을 포함하여 1761년 최초의 교회가 설립된다. 그러나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약 680여개의 교회가 있을 뿐이다.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많은 고립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 국가와 선교단체가 NGO형태로 구호, 빈민 구제 활동을 퍼 정부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과격한 회교도들에게 차별을 당하는 힌두교도들이 집단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하며, 소수부족들 중에 바움족과 판쿠족은 거의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두 가정을 방글라데시로 파송하여 후원하고 있다. 한유민 선교사 가정은 12년간 문맹률이 낮고 노동력의 5%만 고등교육신분인 방글라데시인들에게 기술교육과 제자양육 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2000년 5월에 파송된 박영환 선교사 가정은 다카AG교회와 협력사역을 겸하며 언어준비를 하고 있다.

기도제목
 · 이슬람의 강한 진이 무너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 박영환 선교사의 다카 AG교회와의 아름다운 동역과 언어향상을 위해
 · 한유민선교사의 사역을 통해 많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성김 공동체 : 안양안산 공동체>

01

요셉학교 학생 모집

꿈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요셉학교가 4월 6일 개강을 앞두고 학생과 교사를 모집한다.

- 대상: 초등 5~6학년(20~25명)
- 원서교부 및 접수: 3월17~29일 (꿈땅 사무실)
- 구비서류: 자기소개서, 부모추천서, 교사추천서 지참(꿈땅 사무실에서 양식 교부)
- 회비: 8만5천원
- 면접: 3월30일(토) 오후 3시 장소 추후공고 (합격자 개별연락)
- 문의: 송경부 목사(011-9638-0690) 김대진 간사(016-231-9269) 김창도 간사(011-271-4558)

02

영등포 구로 공동체

구름 위 동네에 교회 세운다

영등포구로 공동체가 지난 2월 9일부터 18일까지 입안미전도종족인 미해족을 탐방했다. 이번 탐방에는 김동국 목사를 비롯해 유우상 장로, 이종순 권사, 김종건 장로, 백연숙 권사, 이국주 장로, 이현자 권사, 황선길 집사, 서정식 권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교회 파송선교사인 김선광, 강일영 선교사와 함께 미해족이면서 크리스천인 셀소 형제 가정들을 방문하는 등 미해족 복음전도에 힘을 쏟을 다짐했다.

구름 위 마을로

장장 15시간의 비행 끝에 목적인 오하카(Caxaca) 공항에 도착했다. 현지시간 2월 9일 밤 10시, 시골 기차역 같은 공항 대합실에는 김선광 선교사와 두 아들 성욱, 관욱과 3일간 대절할 벤을 몰고온 가브리엘 부부가 우리 일행을 맞이했다. 호텔에 투숙하기 전 근처 공원 내의 한 식당에서 멕시코 음식을 처음으로 먹었다. 식당 맞은편에서는 멕시코 전통의상에 콧수염이 길고 형이 넓은 밀짚모자를 쓴 중년신사가 악사들에게 둘러싸여 부르는 민요를 감상하고 있었다. 일행도 합류해 함께 '베사메 무초'를 부르며 야국 정사에 빠져들었다. 공원 내 이곳저곳에서 흘러 나오는 악사들의 민요와 산책인들의 발걸음 속에 오하카의 밤은 깊어만 갔다.

2월 11일 아침, 셀소(Selso)가 사는 동네를 향해 떠났다. 아하카시 동방 약 250km 떨어진 4500 고지, 차로 왕복 7시간의 거리였다. 험준한 산줄기를 꿈틀거리며 구름을 뚫고 산 정상에 올랐다. 잡힐듯한 구름 위로 셀소 동네로 가는 꼬불꼬불한 비탈길이 보인다. 차에서 내려 질퍽한 진흙 비탈길을 걸어 올라 셀소네 집에 들어섰다.

토담 벽에 함석 지붕, 잘 다듬어진 진흙 바닥을 토담 킨막이로 부엌, 식당, 침실, 거

실로 쓰는 집이었다. 아내 이레네(Irene)가 커피를 끓이고 닭요리까지 준비하고 일행을 맞이했다. 잠시 후 셀소가 돌아왔다. 김동국 목사님의 인도로 도착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님은 셀소 모친의 유언대로 그 땅에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셨다. 일행 모두에게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을 보여주셨다.



▲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120여 가구 중 유일하게 크리스천인 셀소 형제는 마을 사람들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이번 탐방팀의 방문으로 큰 위로를 얻었다. 영등포구로공동체는 셀소 형제가 사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엘림성경학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셀소 가족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다. 기쁨을 주는 만남이었다. 모두 셀소의 헌신으로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해 산악마을 복음화의 씨앗이 되어 줄 것을 기도했다.

멕시코 복음화 기지 '엘림 성경학교'

12일 아침 일찍 엘림(Elim) 성경학교가 있는 마티아스 로메로(Matias Romero)로 떠났다. 미트라(Mitla) 계곡을 지나 험준한 산허리를 맴돌며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계속했다. 좌우에 선인장만 자라는 산들과 멀

리 지평선상에 있는 산 밑이 맑게 보여 열대의 진풍경이었다. 카마론(Camaron)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다시 험준한 산허리를 구불구불 내려갔다. 화트인 평야를 지나 오후 2시경 조용한 전원의 도시 마티아스 로메로에 도착했다.

엘림(Elim) 성경학교는 인근 험준한 산악마을의 복음전도를 위해 설립되었다. 현지인을 목사 또는 전도사로 훈련하고 있었다. 한 장로에 의해 세워진 이 학교는 현재 그의 아들, 변호사인 '후샤와'가 김선광 선교사, 강일영 선교사와 함께 헌신하고 있다. 금년 새학기는 100여명이 지원했으나 80명만 등록시켰다고 한다.

식당에서 엘림 성경학교 학생들과 교제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현지 목사와 전도사도 있었다. 간단한 소개를 마친 후 밖으로 나와 서로 손을 잡고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다.

갓과 간 T셔츠를 나누어 입고, 기쁨을 나누며 축제가 절정에 달했다. 이들이 헌신하는 한 제 2,3의 셀소가 양성될 것이며, 산악마을의 미해족 복음전도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유우상 장로

* 이 글은 지난 3월 21일 영등포구로공동체 연합순예배에서 보고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3월 25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성전 신관 3층
- 말씀: 박종길 목사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3월 25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401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자격: 교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동아시아 A지역: 초등교사(수학, 국어) 2명, 한국어교사 2명
- 동아시아 B지역: 피아노 교사 2명, 유지원교사 2명
- 문의: 571-9535
- *필요물품: 동화책, 과학서적,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CD, 완구(블럭 종류)

제13기 다윗학교

- 학생모집**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 12주 주말훈련,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선발: 1차 서류, 2차 면접
- 마감: 4월 14일
- 문의: 송지윤 간사(교 525)
-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 가능자
- 문의: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3월 28일(목)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2호
- 내용: 유월절 세테르(만찬)
- 문의: KIBI(792-7075)

2002년 해외선교현금

- 서울은행 33901-9529186
- 외환은행 010-33-23507-7
- 한빛은행 011-023811-02-202
- 국민은행 803-01-0219-417
- 조흥은행 341-03-006359
- 예금주 은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 국민은행 803-01-0216-582
- 한빛은행 576-252180-13-002
- 농협 094-01-151313
-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온누리 세계 선교학교 학생모집

제1기 온누리 세계 선교학교가 학생을 모집한다. 4월 13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선교학교는 선교에 비전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르는 성도,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에 적당한 사람인지 확인하길 원하는 성도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선교의 이론과 선교사역의 실제와 간증, 온누리교회 비전 2000 멤버십 소개,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와 예배 등을 배우게 된다. 학교를 졸업하면 비전 2000을 이루어갈 동역자로서 온누리선교 네트워크의 멤버십이 되어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입학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 훈련비: 3만원
- 제출서류: 신청서 1부(이메일 접수 가능), 사진 1부
- 문의: 온누리선교센터 이영재 간사 (570-7801, 7803 owmc@onnuri.or.kr) 전성희 shee@onnuri.or.kr

*

Why Mission?
(온누리세계선교학교)
· 일시: 4월 13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4:00 ~ 8:00
· 장소: 서빙고 비전홀
· 강사: 선교 담당 교역자 및 선교사
· 내용: 미션 퍼스펙티브, 온누리 선교사역 소개 및 실제
· 문의: 이영재 간사 (570-7801, 7803, owmc@onnuri.or.kr)

선교사훈련학교
(OWMTS : Onnuri World Missions Training School)
· 일시: 7월 15일 ~ 12월 14일 (5개월 합숙)
· 장소: 경기도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강사: 미국 C&MA 소속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사
· 문의: 이영재 간사 (570-7801, 7803, owmc@onnuri.or.kr)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알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rn.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자격: 교사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동아시아 A지역 : 초등교사(수학, 국어) 2명, 한국어교사 2명
· 동아시아 B지역 : 피아노 교사 2명, 유치원교사 2명
· 문의: 571-9535
*필요용품: 동화책, 과학서적,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CD, 완구(블럭 종류)

제13기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 12주 주말훈련,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선발: 1차 서류, 2차 면접
· 마감: 4월 14일
· 문의: 송지윤 간사(교 525)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 가능자
· 문의: 권응갑 전도사 (016-378-5851)

내팔여를 단기선교
7~8월에 네팔에 단기선교 가실 형제자매를 찾습니다.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연락처: 김세정 자매 019-468-5417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국민은행 803-01-0216-582
한빛은행 576-252180-13-002
농협 094-01-151313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선교지에서 온 편지

새로운 터전, 새로운 꿈

오하카로 이사는 지 벌써 두 달이 다 되었 습니다. 이 마을은 중하중 정도 생활 수준으로 아이들 학교도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어 편리합니다. 시티보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오하카로 와서 시티에서 얻은 고향애가 많이 양호해 졌는데 대신 잠을 자면 중지진 세례를 두 번 받았습니...

1월 1일에 워로부터 받은 작은 꿈이 있습니다. 미해족의 고아들을 위한 조그마한 양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올 때부터 제일 먼저 마음에 와 닿은 것이었는데 영두를 내지 못하다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시작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잠잠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바 장소는 열림신학교가 있는 미해족 중심지 마티아스 로메로가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사역의 열매에 감사

지난해 함께 공부했던 학생 45명 전원인 2년제 정식 신학교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올해는 1백 명 넘게 지원했지만 교실과 식사 문제 등으로 80명 선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제 사역치고는 풍성한 결과여서 참으로 감사했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뒤 목사 안수를 받는 학생도 생...

거날 것입니다. 셀소도 9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와서 공부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셀소네 지역에 교회 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고지대를...

“신학생 45명이 탄생했습니다”



위한 선교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셀소는 고지대를 위한 선교사로 양육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필박도 달게 받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게베아에서 새사역

오는 5월부터 게베아에서 정식으로 제자 사역을 하기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약속 했습니다. 고지대 각처에서 최소한 40~50 명이 몇 시간씩 걸어서, 혹은 차를 타고 모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오게 될까 봐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척박한 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스페인어도 제대로 읽지 못 하면서 배우겠다는 열심 하나로 찾아오는 그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는 알베르토 목사의 아버님이 40년 전부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차를 타고 다녀도 힘든데 힘한 길을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저는 그저 무임승차하는 기본입니다. 저희들이 사역으로, 기도로, 물질로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요.

한국 성도들의 방문

올해는 여러 분들이 사역지를 방문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인디언 형제 자매들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도 선교 담당 목사님과 장로님이 신학교 입학식을 위해 먼 곳에서 찾아와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역을 위해 중보자님들의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멕시코에서 김선광 선교사 (구자현, 성욱, 권욱)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상오/박선희(파송-인도-TIM)

- DTS 훈련을 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하 드릴 수 있도록

김사령(파송-중앙아시아-인터컴)

- 계속 비자를 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 팀사역(공예방/웨딩샵/스튜디오/한국음식점/안경점/어린이사역)에 헌신자와 재정이 준비되도록

모지연(파송-네덜란드-YWAM)

-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려 사는 유럽 청년들을 공화히 여기고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한샘물(파송-몽골-인터컴)

- 환절기를 잘 지내고, 현지 언어의 진보를 위해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맑은미래학교) 건축 부지를 몽골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정재순/홍정옥(후원-미국-GBT)

- 메케오 구약, 포트모르스비 북부 언어 그룹을 위한 자원 위원과 번역 일을 하게 될 빅토와 동역자 아이사, 메케오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 파파우뉴기니 비자 신청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도록

배순호/김정자(후원-중앙아시아-OM)

- 장에야 학교와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 FOK 구호센터 부지에 신축할 강당을 위해



섬김선교지 소개 6 : 스리랑카

목표! '서남아시아에 100명 선교사 파송'

'중고 전시장', '신들의 나라'로 불리는 서남아시아는 북동 선교의 불모지이다. 불교, 힌두교의 발원지면서 모슬렘으로 그들만의 특수한 사회를 형성해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서남아시아는 윌리엄 캐리가 시작한 현대 개신교 선교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SAM 선교 베이스는 서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4천 5백여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의 불길에 타오를 날을 꿈꾸며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SAM(South Asia Mission)의 부르심과 꿈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근교에 위치한 SAM 선교 베이스는 서남아시아 7개국(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과 주변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선교 전진 기지이다.

10여 년 전 서울 한남동의 한 다락방에 모인 몇 명의 산실한 크리스천 사업가들에 의해 시작된 선교 열망이 스리랑카, 인도, 방...

글라데시에 10가정, 18명의 선교사를 파송 하기에 이르렀다. SAM 공동체는 온누리교회의 2천/1만 비전을 분담 받아 서남아 땅에 현실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2010년까지 1백 명 선교사를 10개 주요 전략 도시에 파송' 하며, 이를 위해 '1천명의 헌신적인 중보 동역자를 세운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현지인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

현지 사정으로 대내외적으로 기술학교(TIM Institute)로 알려져 있는 SAM 선교 베이스는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고,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국제 학교로 발전하여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양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있는 SAM 선교사들은 각기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교회개척, 지도자양육(BEE), 미전도종족(베다족), 선교 캠프 건축과 관리, 문서출판과 문화(두란노플롬보), 신학생 장학후원, 마약재...



▲ 서남아시아의 영적 갈급함과 향의 필요는 가히 눈물겹다. 수많은 영혼이 깃들 큰 나무의 성장을 위해 SAM선교사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활원, 어린이집(선한사마리아인의 집, 거리의 아이들)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 사역을 통해 선교사들은 선교지와 현지 교회에서 앞장서 복음 선교를 담당하고 서로 기도하며 돕고 있다.

이 땅에 영적 갈급함과 향의 필요는 가히 눈물겹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 큰 나무의 성장을 위해 SAM 선교사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기도제목

-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서남아시아 땅에 속히 임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 TIM Institute 학교에 등록된 100여 명의 학생과 부모에게 전도의 기회가 열리고 본관 건축 공사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양육 중인 청소년들이 굳건한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 선교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되록
(섬김 공동체 : 서초B)

01

요셉학교 4월 20일 개강

요셉학교가 4월 20일 개강에 배를 앞두고 학생과 교사를 모집한다.

어린이들을 말씀에 뿌리내린 크리스천 리더로 양육하기 위한 요셉학교는 그동안 잠시 중단되었다가 송경부 목사가 담당하면서 새로이 출범한다. 요셉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어린이는 자기 소개서와 부모 추천서, 교사추천서를 지참해 꿈땅 사무실에 접수하면 된다.

· 대상: 초등 5~6학년

· 문의: 송경부 목사

(011-9633-0690)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온누리 교역자 일본 아웃리치

4월 8일부터 오사카·도쿄·우에다 교회서 세미나

온누리 교역자들이 8일부터 일본 아웃리치를 시작한다. 공동체 담당 목사 2인이 1조가 되어 1주일씩 오사카, 도쿄, 우에다교회를 돌아보고 지역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갖는다. 온누리교회의 주요 사역인 Q.T, 일대일, 성경의 맥을 잡아라, 24개 주제의 특강(금호사역, 청년사역, 전도 등) 등으로 일본 현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친교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편성 및 일정〉

4/8~15 최성림 박담회



4/15~22	김중원 박형준
4/22~29	김동국 김치수
4/29~5/6	신도배 광성한
5/6~13	박인용 이양목
5/13~20	이재훈 전병택
5/20~27	이기원 박철웅

5/27~6/3	김성원 김영희
6/3~10	이상규 한상원
6/10~17	박종길 유선식
6/17~24	민병요 공진수

서철 choi@onnuri.or.kr



“이스라엘을 위해 두 손 모읍니다”

살림!

평안하셨는지요? 이스라엘에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팔레스타인인과 분쟁으로 언제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 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조용한 분위기가 납니다.

테러 위험 속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에 목은 가구나 필요 없는 물품들을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주방기구들을 소독하고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며 새롭고 청결한 것으로 바꿉니다. 유월절이 성경 달력으로 새해 첫 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다보니 크리스천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 의미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한 절기들을 유대인의 행태는 전쟁 시대의 풍습이라고 서구의 전통만 고수하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안타깝게 그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평안과 사랑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한국 음식에 복음을 담자

2주전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인 교회에서 25명의 군인들을 포함해 40명에게 한

국 음식을 대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 한국 음식의 진미를 맛보고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일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먼 길을 오신 유 선교사 부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온누리 식구들의 단결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인트레이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유학생과 선교사들의 예루살렘학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 회원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30여명이 참석하여 교제를 갖고 학술 활동과 사역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들을 나누고 선교, 신학, 문화, 역사, 언어 등 각종 분야에서 연구 결과를 문서선교 차원에서 책자로 발간하여 한국 교회와 신학교 등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KIB에서 해마다 회지 발간과 재정 후원을 해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늘어난 부랑자들 돕기 시작

현재 이스라엘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예전보다 절인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

들은 마약 중독자, 이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안식일 오후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기다리며 길게 줄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끔 출석하는 텔아비브 한인 교회에서도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게 보이지만, 돈이 없고 일자라도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이 땅의 평안을 위해 날마다 두 손 모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무를 끊는 생활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기도 제목

1. 이스라엘 땅에 분노, 미움, 저주의 악한 영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화해, 용서, 평안이 임하도록
2.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마지막 언어훈련을 잘 감당하도록
3. 올해 9월 이후 저희 진로를 위하여

안드레 · 서석남 선교사

조문상/김정년(파송-싱가포르-BEE-동서울 공동체 마가 4, 5, 6순)
 - 초행길인 김 선교사의 네팔 사역(결혼, 성경연구방법, 자녀양육에 육신적으로 무리 가지 않도록
 -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시도록

장경임(파송-호주-WEC-고양은평 공동체 소망 5, 6, 7순)
 - 탈출과 유월 사태로 교통과 어려움에 처한 터키 쿠르드 족을 위해
 - 5월 초까지 터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 현/정미영(파송-인도네시아-한신선교회-서빙고 공동체 화평 3, 4, 5순)
 - 한나호 수리 장소가 속히 구해지도록
 - 선원 선교사와 일반 선교사들이 충원되도록

이영홍(협력-캄보디아-무소속-관악금천 공동체 충성 1, 2, 3, 4순)
 - 팔박받고 있는 은혜교회를 위해
 - 거대 은행의 부도로 교회 활동비를 찾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이은유(협력-동북아시아-TIM-마포 공동체 마가 6, 7, 8순)
 - 건강을 위해, 특히 기관지를 치유하여 주시도록
 - 임신 초기인데 태중의 아기가 건강하도록

Cumilius Gil(현지인-파키스탄-무소속)
 - 경제적 어려움에도 헌신하는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삶으로서 잔잔히 흐르다”

동북아 C국은 지난 2001년 11월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강대국으로서 본격적인 비상을 선언했다. 그러나 당국은 WTO가입과 곧 A시에서 열릴 올림픽 개최로 C국 선교 열기가 고조될 것을 우려해 사전 조치로 미등록 가정교회 및 성도들에 대한 압박과 제재 등 내부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주석은 '종교를 믿는 신자들은 먼저 국가를 사랑하고 사회주의 시스템과 공산당 통치를 지지하고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중남지역 가정교회 지도자에 대한 사형선고 및 감형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농장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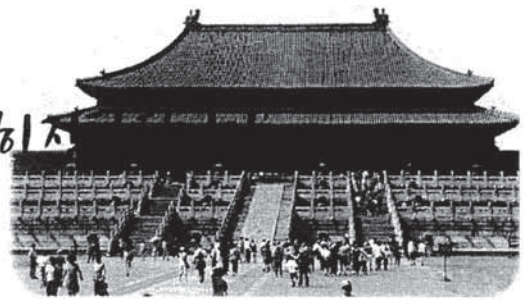
A시는 C국의 수도로서 정치,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다. 3천년을 이어온 역대 왕조의 도읍지로서 역사와 유적을 자랑할 뿐 아니라 인구 약 1천만 명의 국제도시로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시 외각 지역에 위치한 O농장 선교베이스

스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영적 상황이지만 평원에 위치해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한 지형적 특성으로 선교의 접촉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다나엘 선교사를 비롯하여 두가정이 1994년에 파송되어 총 8천 평의 밭에 옥수수 수와 선인장 농사를 시작하면서 모여드는 청년 일꾼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삶을 같이 해왔다.

선교사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본을 삶으로 보임으로써 마음의 문을 연 그들을 제자화하기에 이르렀고, 이제는 지역사회에 구제와 의료사역, 교육환경개선(교육자재, 재료, 설비 등)사역, 장학 후원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접적으로 확장하여 나타내 보이고 있다.

또한, O농장은 주변지역의 선교사들에게 안식처로 제공되기도 하며 더욱 효과적인 C국 선교를 위해 협력사역 등 공동사역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 선교사들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이 C국에 복음의 향기를 발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축복의 도구가 되는 작은 향기들

서로, 위로, 베드로, 유니게 선교사가정과 함께 일하는 현지인 일꾼들이 주님을 영접한 후 일대일제자양육을 거쳐 점차 가족과 주위를 변화시킬 복음의 일꾼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반면, C국의 빠른 경제발전 속도에 맞추어 소비자의 취향에 알맞은 농장 품목을 선정하는 등 사업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선교사들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이 A시에 복음의 향기를 발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며,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다른 사역지의 필요도 지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농장의 밭을 일구고 있다.

기도제목

-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노아가 자기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 농장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서거며, 헌신된 선교사들을 보내 주시도록
- 협력중인 가정교회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부흥되도록
- 새롭게 시작한 알로에 재배 사역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 선교사들이 영육 간에 건강하도록

〈섬김 공동체 : 용산공동체〉

01

정보의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네티즌에게 복음 전하는 인터넷선교학교 학생 모집

전세계 5억, 우리나라에만 2천4백만명의 네티즌이 있다.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역자를 훈련하는 '인터넷선교학교'가 5월 4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다.

인터넷선교학교는 인터넷 선교 전략, 상담과 제자 양육 등으로 구성된 이론 교육(필수)과 운영체제와 홈페이지 제작 방법을 배우는 기술 교육(선택)으로 진행된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론 교육과 기술 교육을 통합해서 받을 수 있다. 올해로 아홉 번째인 이번 학교부터는 장애우와 지방 및 해외 거주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이 신설되었다. 온라인 교육은 이론만 교육한다.

- 일시: 5월 4일~9월 17일 매주 월, 목 요 일 오후 7:00~10:00
- 장소: 디지털아카데미
- 교육내용: 이론교육(20회x3시간=60시간), 기술교육(12회x3시간=36시간), 온라인교육(18회x1시간=18시간). 공

동체교육(M.T.: 4회), 분과모임(5회x3시간=15시간)

- 모집인원: 이론교육 15명, 통합교육 30명, 온라인교육 20명(장애우 5명, 해외 및 지방 거주자 15명)
- 온라인교육대상: 장애우,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자, 해외거주자
- 교육비: 통합교육 45만원, 이론교육 35만원, 온라인교육 20만원(M.T.비용 별도)
- 한빛은행 254-031981-02-001 예금주 이재규
- 원서제출 및 마감: 1차 서류(입학원서) 4월 20일까지 swim.org/im/im9/index.html 2차 서류 및 면접(반명함판 사진(2매), 답안목사 추천서, 출석교회 주보, 개인신앙간증, 이력서 각 1부 방문 접수) 강남구 신사동 539-11 인우빌딩 1002호 세계인터넷선교학회 (511-3217, 3237, 이형석 팀장)

02

선교에 비전을 갖습니다

김홍주 목사



1. 섬기게 될 사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교역자님들을 보면서 본인의 사역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2. 저희 가족은 아내 김연화, 아들 김현식(6세), 딸 김현서(1세)가 있습니다.

3. 정해질 새로운 사역에 빨리 적응해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가 되려는 꿈이 있어서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를 배우고 가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목회를 하며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하게 될 사역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03

진실한 사역자 되겠습니다

안광국 전도사



저는 청년 여호수아와 안양안산공동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와 청년부 리더를 만나고 사역을 배우고 있어 아직은 살

모르지만 온누리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라 여겨집니다. 저를 처음 만나는 성도들이 어찌나 다정한지요.

중국선교사로 1년간 있었을때부터 두세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두려움이 앞서는 제게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를 통해 또 무엇인가 가르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중보되지 않은 민족을 향해 선교사로 나갈 비전을 가진 저를 가르치시고 더불어 아내(정선미)와 딸(안예린, 10개월)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격려해주시고 기도부탁드립니다.

- 시편 51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저를 아는 모든 사람앞에서 중심에 진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 온가족이 영적육적인 건강을 위해

'온누리 은혜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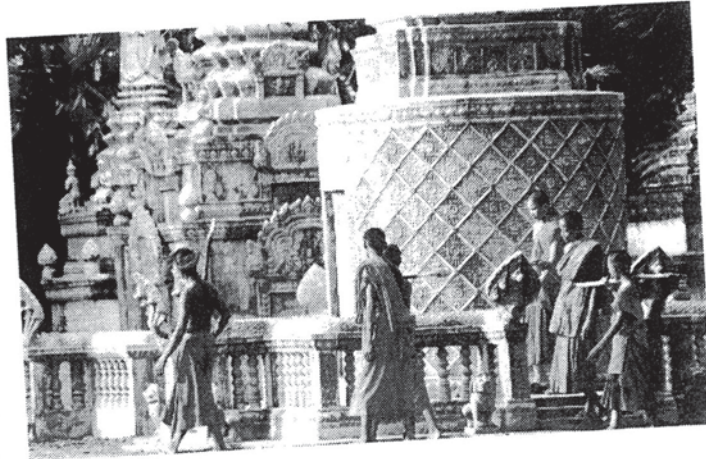
개혁 당시부터 핍박이 심했던 온누리는 해교회가 또 다시 충격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 동네 주민이 온누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적대시하면서 핍박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은혜교회 옆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주일 학교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는 같이 놀지도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는 외국의 가짜 종교이기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 종교인 불교를 믿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전에 개혁된 평화 교회에 두 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한 분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교회 동네 주민들이 예수를 믿는 두 사람에게 예수를 계속

믿으려던 동네를 떠나라고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교회



▶ 불교도들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해도 우리는 끝까지 영적으로 눈먼 이 캄보디아 불교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들을 핍박하고 고립시키고 돌을 던져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눈먼 이 캄보디아 불교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일 것이며 진리에 눈먼 사람들을 깨우칠 것이기에 힘겹게 직진 속에서 싸우고 있는 캄보디아 십자가의 군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캄보디아 First Overseas Bank Limited 가 파산하여 교회 활동비 미화 3,200불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은행을 이용했던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물론 저희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틀리는 말에 의하면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기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소망 교회에서 올림

이영룡선교사(관악금천공동체)

에 나오지 않지만 감사한 것은 핍박이 심한 중에도 나머지 한 분은 프놈펜 소망교회와

다. 캄보디아 불교도들이 아무리 교회와 성

*

Why Mission?
(온누리세계선교교회)
· 일시: 4월 13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8:00
· 장소: 서빙고 비전홀
· 강사: 선교 담당 교역자 및 선교사
· 내용: 미션 퍼스펙티브, 온누리 선교 사역 소개 및 실제
· 문의: 이영재 간사 (570-7801, 7803, owmc@onnuri.or.kr)

선교사훈련학교
(OWMITS ; Onnuri World Missions Training School)
· 일시: 7월 15일~12월 14일 (5개월 합숙)
· 장소: 경기도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강사: 미국 C&MA 소속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사
· 문의: 이영재 간사 (570-7801, 7803, owmc@onnuri.or.kr)

비전 2000 선교관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제13기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 12주 주말훈련,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선발: 1차 서류, 2차 면접
· 마감: 4월 14일
· 문의: 송지훈 간사(교 525)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 가능자
· 문의: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에델선교회
찬양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양재 비전홀
· 리더: 정정철형제, 강병만전도사
· 내용: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답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

서빙고 증보기도 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리더/권순호, 최승권 형제) 두란노빌딩 에델사무실(703호)
· 내용: 직장인과 청년들에게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한 증보의 끈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기도모임
*에델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6개의 기도모임이 각 지역에서 요일별로 있습니다.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실 분은 연락주시면 매주 발행되는 선교사 기도책자를 우편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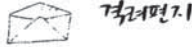
네팔어울 단기선교
7-8월에 네팔에 단기선교 가실 형제 자매를 찾습니다.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연락처: 김세정 자매 019-468-5417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0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국민은행 803-01-0216-582
한빛은행 576-252180-13-002
한빛은행 094-01-151313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동반자

양육자●



'일본 친구의 양육자가 되겠어요'

다복 언니에게
 일대일 양육을 통해 언니를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의 확신도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복 언니를 보면서 같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두 사람은 왜 이리 신앙에서 차이가 날까 궁금했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시작했을 때 제 자신의 불안정한 신앙 상태를 보이고 싶지 않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언니가 마음을 열고 아픔을 나눠 주었고, 일대일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었습니다.

일대일 양육시간이면 언제나 음식을 준비해오는 다복 언니를 보고 저도 언니를 만나러 갈 때면 슈퍼마켓에 들러 언니가 좋아하는 과자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준비가 제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언니가 일본어로 저를 가르치는 일이 무척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질문에 충실히 대답해 줘 고맙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천 서점에서 일본어판 일대일 교재를 보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육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두고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그 교재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일본 모교회의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서, 일대일 양육 교재를 구입하고도 양육자가 없음을 걱정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 친구의 양육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복 언니, 비전을 갖도록 해 줘 고맙습니다. 일본에 가서 언니를 닮은 훌륭한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무라세 미카



동반자 무라세 미카 성도(좌) 양육자 김다복 성도(우)

**"일본에서
 영적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건강한 양육자가 될
 미카씨에게 격려와
 사랑을 드려요"**

'사랑의 샘이 터졌어요'

미카씨에게
 하나님께서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러기에 더 사랑해야 하는 일본에서 미카씨를 보내주셔서 참 행복해요.

처음 미카씨를 만났을 때 그저 일본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 별다른 느낌은 없었어요. 일대일 양육을 통해 국적을 초월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그 즈음, 저는 개인적으로 좌절감에 빠져 무척 힘든 때였어요. 모든 것이 고갈돼 누구에게든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는 공허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미카씨를 만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샘이 터져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굳은 입을 열었을 때, 오히려 양육자인 제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처음 미카씨가 한국의 낮은 생활과 조용한 성격 탓으로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아 애를 먹었죠. 차츰 기도제목도 같이 나누고,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신뢰를 보였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지만, 입술을 통한 구체적인 영접이 없었던 미카씨가 의지를 갖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그 날을 영적 생일로 기록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부족한 일본어 실력으로 어눌한 말투에 설명이 부족해도 늘 따뜻한 이해심으로 들어주고, 최선을 다해 이해해 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순수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미카씨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가 끝나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안타까워요. 그러나 일본에서 영적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건강한 양육자가 될 미카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넉넉한 마음의 미소를 지어봅니다.

김다복(일본어예배부)

01

선교사 자녀에게 선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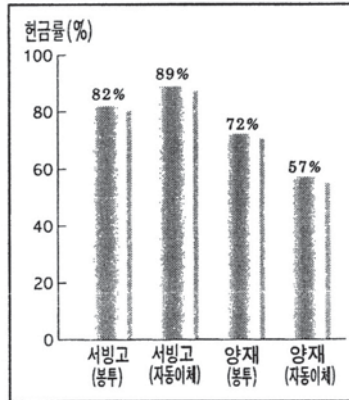
2천선교팀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선교사 자녀에게 선물 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2천선교팀은 "각 순이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어린이날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에게 하면 된다.

서철 chol@onnuri.or.kr

02

해외선교 작정 현금

'자동이체 신청하셨어요?'



2002 해외선교현금을 작정한 성도 중 평균 80%가 성실히 현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2 해외선교현금 1/4분기 현금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작정한 해외선교현금에 많은 성도가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성도들은 있고 지낼 수도 있어 해외선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도 성도의 주의를 요구된다.

6백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해외선교현금은 봉투에 현금을 넣어 납부하는 방식과 계좌이체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서빙고 경우 자동이체(89%)가 봉투현금(82%)보다 실 현금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양재는 봉투현금(72%)이 자동이체(57%)보다 높게 나타났다.

2천선교팀은 "많은 성도님들이 작정한 카드 제출로 자동이체가 완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선교에 쓰일 현금을 수고스럽더라도 작정 카드에 기록한 거래 은행에서 이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다윗학교' 학생·교사 모집

다윗학교에서 제13기 학생과 교사를 모집한다. 오는 21일(주일) 개강 예정인 다윗학교는 하나님 안에서 리더십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주일 오전 11시까지 교회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경배와 찬양, 공동체 훈련, 청소년 전문 강사진의 강의, 2~3명 단위의 소그룹 모임 등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방학중에 3일간 수련회와 해외전도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



의 뜻을 발견하도록 인도한다. 신청자는 원서를 교부받아 작성한 후 부모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 원서마감: 4월 21일
- 모집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비: 22만원
- 문의: 송지윤 간사(교525)

전성희 shee@onnuri.or.kr

04

'Why mission?' 개강

온누리 세계선교센터에서 주관하는 'Why mission?(온누리 세계선교학교)' 이 지난 13일(토) 개강했다. 1백여 명의 등록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날 강의에서 김사무엘목사는 '선교란?' 이란 주제로 "선교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전했다.

세계선교학교는 6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서빙고 비전홀에서 열린다.

- 등록 마감: 4월 20일(토)
- 문의: 이영재 간사(570-7801)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불기둥, 구름 기둥 따라 살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곳에 도착한 날이 1996년 3월 31일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6년 간을 부활로 시작하여 부활로 마치게 하신 주님의 성령에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9장 15~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지난 6년간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기에는 최적의 삶이었습니다.

3년 반 만의 첫 주문

저희가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할 때 만난 현지인 사업가가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지난주에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분은 저를 통해 정보를 얻고, 거래는 다른 사람과 했습니다. 저는 이용당했다고 판단하고 실망했지만, 그래도 친구가 되어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신뢰하며 첫 주문을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게 믿음을 주며 살아갈 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사업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이곳 비즈니스 사역에 기반을 놓을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저희가 섬기고 있는 U교회에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기존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교회에서 느끼는 용납과 사랑으로 쉽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껴면 교회를 떠나 버립니다. 사랑의 결핍과 가난 속에서 성장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T국 교회 내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만자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니

끝으로 지난해 10월 7일 새롭게 현대어로 번역된 표준 새번역 성경의 출판 감사 예배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12년간 진행



된 새번역 성경 작업을 위해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 분의 할머니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분은 지난 12년간 성경 번역 출판을 위해 사역하는 위원들의 사진을 갖고 다니며 그들을 보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보기도로 사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분에게 감사패가 주어질 때 모두 일어나 큰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마치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전 3:8)

지난번 기도로 부탁한 저희 아버지의 육창은 치유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하일 정진주 올림

기도제목

1.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2. 비즈니스 사역을 통해 이 땅의 경제계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3. 제자훈련사역에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운용/김연아 (파송-브라질-TIM-영도포·구로공동체 영도포 5~8순)
 - 상파울루에 급증하는 폭력이 사라지도록
 - 5월 현지인 순복음교회에서 있을 쿠티 세 미나에 기쁨 부어주시도록

이은혜 (파송-중동-YWAM-한강공동체 회락 4,5순)
 - 알베이트 대학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 모스크와 그리스 정교회뿐인 마프락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미정 (파송-영국-YWAM-강촌공동체 평강 1,2순)
 - 하나님께서 학업에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유영춘 (파송-스웨덴-YWAM-성남·분당공동체 분당 9,10순)
 - 동유럽 상담학교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하는 스위스 MMBC(성서적 상담의 방법과 모델 학교, 4/4~6/27에서 탁월한 상담자이신 주님과 늘 친밀하고, 상담에 대해 더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정용택/전순애 (후원-스리랑카-바울선교회-서초A공동체 배움 2~5순)
 - 교회 사역과 220명 수용 규모의 마약치료 센터 사역을 위해
 - 봉고 차량의 구입을 위해

이영숙 (후원-일본-국제제자선교회-강동·송파공동체 송파 7,8순)
 - 복음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 일본인 중심의 J-DOC가 점차 독립된 일본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03



섬김선교지 소개 8 : 이스라엘 <섬김 공동체 : 양천공동체>

말씀이 성취되는 때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에 총인구가 서울보다 적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세계는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근간이 민족간의 뿌리깊은 종교적 이념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최근의 격양된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인접 국가들, 유럽 연합, 중국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고 있다.

모여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2000년 동안 소수민족으로 지내온 이스라엘에 전체 인구 5백40만명 중 82%가 유대인이다. BC 1,400년경에 있었던 출애굽 이후, 19C 후반부터 현재까지 제2의 출애굽이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유대계 이주인의 물결은 1880년대 '시오니즘'이라는 민족적, 문화적 부흥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로 건국되면서 본격화되어 25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의 수를 능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칠 큰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날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주된 종교는 랍비 유대교이다. 이는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이블린 '토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민족적 회복을 기다리며, 지금 세상의 역할은 다음에 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회복을 기다리는 이방인선교사 온누리교회의 이스라엘 선교 기관인 KIBI(한·이 성경연구소)가 있다. KIBI는 이스라엘의 영, 육의 회복을 위해 1989년 12명의 사람들이 모여 중보함으로 설립된 초교파 기관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 사역', 극동 러시아지역 유대인 구호사역, 흠어

진 유대인 귀환을 위한 지원사업(REF) 등을 감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현지에는 1998년 안드레 선교사 가정의 파송되어 교회 협력 사역과 현지인 K 선교사 가정과 함께 '믿는 유대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2000년 류모세 선교사 가정도 파송되어 한의학을 통한 접근 선교를 시도하고 있다.

안드레 선교사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칠 큰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날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고백한다.

50여 년 전 국가를 건립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고 다시 회복케 하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위기와 곤고함 속에서 부르짖고, 돌이키도록 도와야 할 때이다.

기도제목

- 본쟁이 속히 종식되어 차별과 박해 속에 뿌리내린 향한 감동들이 치유되고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무너져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 극동지역 유대인구호사역, 믿는 유대인 사역, 의료사역에 많은 영적결실 있도록
-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헌신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자료제공/2천선교>

가랑비에 옷 젖는 기도

요셉청년부는 2부 새벽기도가 끝난 후 10분간 짧은 기도시간을 갖고 있다. 일본으로 파송될 김철희 전도사가 인도하는 이 기도회는 일본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다. 한동홀에서 모이는 이 기도회에서는 김전도사와 함께 파송될 6명의 지체들을 위한 중보와 일본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

✚ 러시아를 위한 중보 기도모임
 · 4월 모임: 4월 20일 오후 4:00 (매월 셋째주 토요일)
 ·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
 · 대상: 러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 연락처: 이경환 (016-297-2090)
 정명철(chom@daum.net)

✚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 일시: 4월 22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윤정현 자매(013-225-5018)

선교사훈련학교 (OWMTS : Onnuri World Missions Training School)
 · 일시: 7월 15일~12월 14일 (5개월 학습)
 · 장소: 경기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강사: 미국 C&MA 소속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사
 · 문의: 이영재 간사 (570-7801,7803, owmc@onnuri.or.kr)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람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rmon.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제13기 다윗학교 학생모임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 12주 주말훈련,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선발: 1차 서류, 2차 면접
 · 마감: 4월 21일
 · 문의: 송지윤 간사(교 525)
교사모임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 가능자
 · 문의: 권용강 전도사 (016-378-5851)

✚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 모집
 · 대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내용: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각 1명, 교사(유치원, 컴퓨터, 피아노) 각 3명
 · 기간: 4월 1일~6월 30일
 · 문의: 571-9535

네팔어를 단기선교
 7~8월에 네팔에 단기선교 가실 형제 자매를 찾습니다.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연락처: 김세정 자매 019-468-5417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의화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국민은행 803-01-0216-582
 한빛은행 576-252180-13-002
 신한은행 094-01-151313
 예금주 KTRI
 · 문의: 792-7075

01

선교사 훈련생 모집



온누리 세계 선교사훈련학교(OWMTS: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가 선교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성도를 찾고 있다.

OWMTS는 오는 7월 15일부터 미국 선교 전문훈련단체인 OC International과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등과 협력해 선교훈련이 진행되며, 국내외의 선교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5개월간 합숙훈련을 돕는다. 원서는 2천선교팀 사무실(선교관 2층)에서 교부하며, 마감은 5월 31일이다.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33, 679) owmc@onnuri.or.kr

02

‘의료인의 밤’ 준비중인 의료선교팀 안태환 집사



“약과 함께 복음 주자”

▽ 이번 의료인의 밤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온누리교회에는 간호사,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8백~9백명 정도 있다. 이번 의료인의 밤을 통해 평소 관심있는 의료인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롭게 헌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아웃리치 뿐만 아니라 각자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의료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각 공동체별로 의료인들이 참석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 아웃리치는 한달에 몇 번 정도 가는가?

정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는 것 같다. 이들은 대부분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으로도 가야한다는 마음도 있다.

▽ 현지 반응은 어떤가?

우리 나라 농어촌이나 해외에는 의료 시설이 열악하다. 우리 나라에서 작은 것이 해외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의료선교는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제시하는 복음도 잘 받아들이는 편이다.

▽ 의료선교팀 구성은?

아웃리치 A, B팀과 외국인 헬터를 돌보는 ‘안디옥’ 팀, 온누리선교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실 ‘여호와라파’ 팀 등 현재 4개가 활동중이다. 팀원은 각 팀당 40여명 정도다. 각자 근무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의료선교팀이라고 부르고 싶다.

▽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의료선교라고 해서 반드시 의료인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선교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보고 있는 안디옥팀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웃리치를 위해 번번히 장비를 빌어쓰고 있다. 이들에게 장비를 임대해 주거나 진료소를 찾아온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것도 의료선교다.

서철 chol@onnuri.or.kr



소망 갖게하는 중보기도와 사랑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에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잘 있습니다. 가족의 삶은 행복하고 좋은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2000년 9월 카자에서 집을 풀면서 어느 선교사에게 '앞으로 첫 기간인 4년간 아무 곳에도 나가지 않고 여기에 있을 거예요'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씀 드렸더니 "4년이 되었을 때 그 말을 하세요"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암 재수술

지난 구정에 6주 일정으로 알마타를 떠나 한국에 와서, 3월 5일 국립암센터에서 정기검사 결과 후 다시 암이라고 판명 받았습니다. 저의 수술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혹을 제거한 후 임파선 11개 정도 자르고 전위 여부를 검사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담당의가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들었습니다. 지금 수술보다 더 어려운 항암제 치료 중입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주사약이 새지 않고 잘 들어가도록, 투여한 약물이 몸 안에서 잘 순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의 혈관이 약한 편이고 두 번 수술로 양쪽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적어 항암제를 주사하는 날에는 특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랑에 큰 위로가 돼

항암제 치료기간 중에 저를 길러 주신 막내 고모와 둘째 언니가 같이 간호해 주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관



계를 회복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수술 당시, 각처에서 많은 지체들이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병실에 찾아오시고, 전화하시고, 많은 e-메일 등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가 유명 인사인 줄 알았답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랑과 관심들은 지켜보던 가족들에게 더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이 너무나 작은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항암제 투여 후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동안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가 생존하셨을 때 기도 친구이신 B-DTS의 문병현 장로님, 김요경 권사님의 배려로 석촌호수가 보이는 곳에서 편안하게 요양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정신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주변 분들의 배려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베푸신 덕분입니다.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고통 속에서 인내해야 할 시간이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과 사랑으로 아껴 주시는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마타에서 최 현 숙

(파송-중앙아시아-YWAM-이촌공동체)

선교사를 위한 기도

고려호수이/유한나(파송-중앙아시아-인터콥-성북공동체)
- 2, 3월 열린 예배세미나, 찬양집회 투어, 중보기도, 영적전쟁 세미나의 결실위해
- 아프간 마자리 샤리프의 이동 진료를 위한 클리닉이 완성되도록

정이레(파송-소아시아-ITM-동대문/남양주공동체)
- 무비자와 무허가 교육으로 인해 연행된 갈라디아 사역자 자녀 학교 교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위해
- 이번 일로 학교 정식 등록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기독교 학교들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황디모데/송예나(파송-소아시아-인터콥-동대문/남양주공동체)
- 갈라디아 방송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 방송국 사역 팀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길

조종환/임미경(파송-파푸아뉴기니-GBT-강남A공동체)
- 번역 사역자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각자 사역 마을에서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 과학티게 문맹퇴치 사무실과 사이드러 사무실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류모세-강사라(파송-이스라엘-TIM-양천공동체)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와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이영란(파송-동북아시아-TIM)
- 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힘을 얻고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신의 땅에서 생명을 꿈꾸는 두 교회는'

일본 헌법의 제1장 1조에는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리 전 총리는 일본을 '신(神)의 나라'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고이즈미 총리도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일본의 총리로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결행했다. 또한, 해마다 정월이면 8천만 이상의 일본인들이 신사나 사찰을 찾는다.

이처럼 독특한 천황중심사상과 국민정신이 뿌리 깊게 전승되어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는 선진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본의 혼탁한 영적 기운 속에서 소수의 크리스천은 일본인들의 비판을 받으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동경 온누리 비전교회

동경은 일본의 수도이자 세계적인 도시로서 태평양의 동부를 면하고, 서울의 3배의 면적에 인구는 1천2백만 명을 넘는다. 금융, 서비스업과 같은 제3차 산업이 고

도로 발달해 있으며 대규모 변화와 대 상업지역이 발달되어 있다.

동경의 중심 신주쿠에는 온누리교회가 2001년 4월에 개척한 동경 온누리 비전교회가 위치해 있다.

동경 온누리 비전교회는 '일본성도 1만 명 큐타운동'과 '100개 교회에 일대일제자 양육사역 보급'을 목표로 장재운·오공자 선교사가장이 파송되어 개척한 교회이다.

그들은 살아 있는 예배와 큐터, 일대일제자 양육 사역을 통해 우상숭배가 강한 일본의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또한, 물질중심사상과 이지메문화가 만연한 일본 문화 속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사역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가정집회사역에도 중요도를 두고 있으며, 북카페 운영을 통해서도 기독교화를 전진히 전하고 있다.

우에다 온누리교회

우에다는 일본열도의 중심부, 해발 400m

의 아름다운 고원에 있는 나가노현 내 작은 전원도시이다. 강한 불교지역인 우에다 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14만 명의 인구 중 교인 수는 불과 200여명이며 교회수는 10여개이다.

한 일본인 목사가 개척하다가 버려진 한 낡은 건물을 온누리교회에서 직접 개조하고 아름답게 단장하여 2001년 10월 우에다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우에다 온누리교회는 우상의 땅 일본, 불교의 도시 우에다를 환히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는 비전을 품고, 마을 문화센터와 마을회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변지역 사람들과 삶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개척되고 있다. 현재, 아미나까·조수정선 교사가장이 주면서 모인 15여명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기도제목

- (동경 온누리 비전교회)
-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며,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섬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사부부의 건강을 위해

(우에다 온누리교회)

- 모여든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자라나며, 우상과 온갖 영적 방해 속에서 강건한 영적 군사가 되도록
- 우에다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날로 부흥하도록
- 선교사부부의 강건함을 위해

01

“오직 교회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윤지준 대사(대 테러 및 아프간 문제 담당대사)가 지난 주일(14일) OEM(영어예배) 2시예배에서 탈레반 정권하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기독교인들이 겪은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윤 대사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과 인권문제는 북한보다 더 좋지 않다고 “오직 교회만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고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온누리교회는 한 성도가 헌금한 2천만원(미화 15,500불)을 당시 파키스탄 대사로 있던 윤지준 대사에게 전달했고 윤대사는 유니세프를 통해 난민들에게 전달한바 있다. 영어예배도 작년 11월 JOY Zone과 STAND, 성인예배에서 모금한 5백만원을 전달,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텐트를 사는데 사용했다.



인터뷰 : 윤지준 대사

▽ 영어예배에서 아프간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말씀하시게 된 취지는 무엇입니까?
작년 아프간 전쟁 기간중 영어예배 성도들

이 5천불을 모금해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현지에 있는 제게 보내왔습니다. 전쟁 중 여러 가지 일을 겪은 것, 현지 상황의 어려움, 크리스천이 당하는 문제에 대해 전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 아프간 전쟁 당시와 최근 방문시(3월 말) 난민들의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쟁당시 국내에 있던 아프간 국민은 폭격과 국지전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많았고 집과 직업을 잃고 있었습니다. 국외로 탈출한 난민들은 파키스탄이나 이란으로 향했고 난민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에 있던 사람, 탈출한 난민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카불시에만 치안이 되어있어 그곳만 다녀왔는데 3달 전보다 눈에 띄게 활기가 있었습니다. 길거리마

다 사람들이 넘쳐나 난민들이 국내로 많이 돌아왔음을 보여주었고 상점도 문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재건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 아프간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아프간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요?
회교 극단주의는 크리스천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난입해 총격을 난사한 사건 등 아직 위험한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회교도와 크리스천의 종교간 화합과 갈등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며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된 전쟁으로 가정과 사회, 마음이 괴멸해지고 메달렸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제가 필요합니다.

▽ 온누리교회에서도 아프간을 돕기 위한 시역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해주세요.

온누리교회도 아프간 난민들의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거쳐 정해질 것입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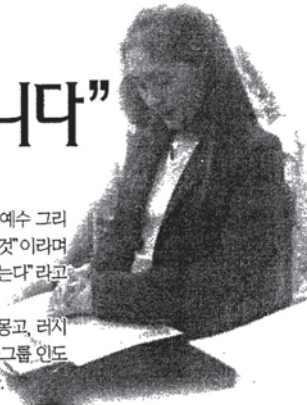
02

온누리 미션 / TEE를 마치고

“주님의 강한 군사 되겠습니다”

온누리미션에서는 지난 주일(14일) 오후 5시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수료예배를 드렸다. 수료생 10명과 그들이 맡게 된 소그룹원들 5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나눴다. 나봉균 전도사는 고린도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이 TEE를 배우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고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이라며 “그런 화생에 의해 세상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격려했다. 이번 수료한 10명은 미얀마, 네팔, 몽고, 러시아 예배 등 자신이 속한 각 예배에서 소그룹 인도자로 그룹원들의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



TEE란?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는 1963년경 중남미에서 시작해 현재 1백10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골로 돌아가 목회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시골에 신학교를 세우기에는 교사도 부족하고 배우는 학생의 지적수준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방식이다.

TEE는 중국, 몽골, 베트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회개, 충성 등 믿음의 기본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쉽기 때문에 양육자가 빨리 세워지고 전파성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6~7과까지 배우면 각 예배에 소그룹 인도자로서 설 수 있다. 온누리미션에서는 지체들이 공장 중심이나 생활권 중심으로 점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그룹 중심이면서 배운 것을 나누고 행하는 TEE양육체계가 적합해 채택하고 있다.



록 (네팔예배)

저이며서! 저는 히말리아가 있는 땅 네팔에서 왔습니다. 네팔은 힌두 왕국으로 저희 가족도 물론 힌두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 마음속으로는 그런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 다니다가 홍콩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95년 회년선교회에서 처음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통하여 제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96년 온누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해서 98년도 네팔 예배가 시작되고 저는 온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TEE 인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TEE는 소그룹을 형성한 후 가르치는데, 먼저 내용을 숙지한 후에 서로 느낀 것을 나눕니다. 내용 또한 주제별로 다양하고 특히 새신자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제를 통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팔형제들의 대부분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새신자들이므로 이들에게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네팔예배의 부흥 뿐만 아니라 네팔의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비전인 500/105백명 전도, 10명 세례, 3명의 신학생 지원을 이루기 위해 네팔예배 형제들이 잘 양육되어지기 바랍니다. 저도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져 네팔 땅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네팔 땅이 게릴라들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불안한 상태입니다.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

✳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4월 22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영아실

✳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 일시: 4월 22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아론기도실
-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 선교사훈련학교
(OWMTS :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일시: 7월 15일~12월 14일
- 장소: 경기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강사: 미국 C&MA 소속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사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문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서빙고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제13기 다윗학교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 12주 주말훈련,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선발: 1차 서류, 2차 면접
- 마감: 4월 21일
- 문의: 송지윤 간사(교 525)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 가능자
- 문의: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4월 25일(목)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2호
- 문의: KIBI (792-7075)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 모집

- 대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내용: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각 1명, 교사(유치원, 컴퓨터, 피아노) 각 3명
- 기간: 4월 1일~6월 30일
- 문의: 571-9535

2002년 해외선교현금

- 서울지역 33901-9529186
- 인천지역 010-33-23507-7
- 한국지역 011-023811-02-202
- 부산지역 803-01-0219-417
- 주말지역 341-03-006359
- 예배지역 온누리교회

극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 대상: 1인 1내복 803-01-0216-582
- 후원: 576-252180-13-002
- 문의: 094-01-151313
- 후원: 주 KIBI
- 문의: 792-7075

01



'의료인의 밤'에 초대합니다

치유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의료선교팀이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의료인의 밤을 29일(월) 오후 7시 서빙고 본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모임에서 각 공동체에 속한 의료인들은 공동체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에게 의료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전을 간구하게 된다. **관련기사 10면**

02

온누리선교사 훈련학교

선교사 훈련 후보생 모집

온누리 세계선교사훈련학교(OWMTS: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가 선교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성도를 찾고 있다.

훈련은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1단계는 Pre-English school로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교단의 영어 전문 강사가 6월 17일부터 한달간 합숙훈련을 실시한다.

2단계는 7월 15일부터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OC International과 파트

너십을 통해 선교훈련이 진행되며, 국내외의 선교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을 모시고 5개월간 합숙을 통하여 훈련이 진행된다.

3단계는 2년간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또는 온누리 선교베이스에서 선교현장 훈련(언어와 문화적응, 교회개척 및 사역준비)이 진행된다

원서 교부는 2천선교팀 사무실(선교관 2층)에서 교부하며, 접수 마감은 5월 26일까지이다.

자격요건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과

헌신이 있으며, 또한 Why Missions?(온누리 세계선교학교) 이상의 선교훈련을 받은 성도면 된다.

- 훈련비
- * 등록금 : 부부(160만원), 독신(100만원)
- * 월 생활비 : 부부(29만원), 독신(185,000원)
- * 자녀가 있을 경우 아래의 금액 추가(매월)
- 36개월 미만 : 2만5천원(놀이방)
- 4~7세 : 9만원(식비), 2만5천원(유치원)
- 초, 중, 고생 : 13만5천원(식비)
- 문의 : 이영재 간사(교 233, 679)
- owmc@onnuri.or.kr

03

이스라엘 선교부, 변제의식 재현



이스라엘 선교부는 지난 4월 5일 금박산 수양관에서 유월절 만찬 행사 중 세상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유월절 양을 변제로 드리는 의식을 재현했다.



송만석 장로가 예식을 인도하고, 한관홍 전도사가 대제사장, 권영석 집사 장성태 집사가 제사장, 장봉기 집사가 죄인의 역할을 맡았다. 이날 희생양은 특별 엄선한 1년 된 흠없는 숫양이 사용되었다.

04

만남 : T국 사역 정리한 김바울, 권사라 선교사

"그동안 후원과 기도에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기다 97년 9월 소아시아 T국으로 파송 받았던 김바울, 권사라 선교사가 4년 6개월여의 사역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김바울 선교사는 5월 2일 출국, 뉴질랜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T국 사역을 정리해주시시오.
- T국은 법적, 제도적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인데 얼마 전 선교활동이 TV에 방송돼 현지 교회 교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현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했고 정결하고 순결해졌습니다. 함께 소아시아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장애아동보호 모임인 '카멜린'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시오.

사역 중 기억에 남는 일은?
-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던 소녀에게 우리가 사랑을 부여하고 기도할 때, 앓고 일어나 견고 세례를 받는 '사랑의 기적'을 봤습니다. 또한 재정공급 등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누



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은?

-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민자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모슬렘 땅에서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4시 20분 '뽀뽀뽀' 알람 소리에 일어나 세수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지난해 기도로 얻은 자동차에 시동을 건 후 교회로 향합니다. 캄캄한 거리를 지나 교회 입구에 이르르면 경비 아저씨가 큰문을 활짝 열고 새벽 인사를 나눕니다. "케온아첸!" 항상 일찍 와 기도실에 불을 켜 놓고 준비하시는 스테판 팬디 부목사님과 함께 정해진 순서와 절차 없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송이 가정과 부목사님 가정을 위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니

새벽기도라는 개념조차 없는 방글라데시 땅에 수도 다카의 중앙에 위치한 교회에서 새벽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오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능력과 의지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새벽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 저희 가족이 예배드리는데 다 카 AG교회 스테판 팬디 부목사님께 이 부담감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놀랍게도 스테판 목사님도 기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 동안

각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새벽 5시, 다카 AG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첫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밤에 저는 무려 다섯 차례 나 잠에서 깨어나고 했습니다. 스테판 목사님 역시 잠을 설치신 듯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새벽의 중보자로 헌신하였습니다.

지원군이 되어주세요

두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하고 큰 사역이기에 지면을 통하여 지원군을 모집합니다. 새벽기도운동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방글라데시가 축복 받아 주님의 땅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 하나가 이 땅의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새벽을 깨울 기도의 용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기도운동을 통해 방글라데시 교회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심일조하여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큰 비전을 품고 이 사역을 시작한 저와 스테판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단기 여행으로 이 땅을 방문하여 새벽기도운동에 동참하실 귀한 지체들을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방글라데시와 서남아시아를 가슴에 품고 새벽을 깨우는 저희와 SAM 가족들이 되시길 기도 드리며 모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주안에서 이웃 마을의 송이가족이 사랑을 전합니다.

박영환 • 윤유희 • 박송

(기도제목)

- 현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기업이 세워질 수 있도록
- 방글라데시 교회에 새벽기도운동이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건강과 차량 운행 시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사람/김은혜(파송-아시아-YWAM-동대문/남양주 공동체)
- 학교 폐쇄 문제가 다른 선교사 자녀 학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 현지 언론이 기독교와 통일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황디모데/송예나(파송-아시아-인터콥-동대문/남양주 공동체)
- 안식년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하시길
- 복음을 전할 <라디오 세미나>의 새로운 송출기 구입과 스튜디오 확장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이명상(파송-스웨덴-YWAM-열린공동체)
- 인도 전도 여행 중 팀원들의 일치와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 가족들이 구원받고 회복되도록

조문상/김정년(파송-싱가포르-BEE-성동/평진 공동체)
- 3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네팔(결혼, 성경연구방법, 자녀양육), 스리랑카(갈라디아서, 로마서), 중동 사역을 위해
- 김 선교사가 초행길인 내팔 사역에서 육신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임창대/박인내(파송-동북아시아-HOPE-고양/은평 공동체)
- 현지 당국이 우리 사건을 1년 안에 종결하도록
- 다음 사역 방향에 부르심의 확신이 있도록

정 현/정미용(파송-인도네시아-한나선교회-서빙고 공동체)
- 한나호 재정 매니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



섬김선교지 소개 10 : 러시아/모스크바 <섬김 공동체 : 강촌공동체>

깨어진 러시아 가정에 '새 생명'을

오늘날 지구촌은 정신적 도덕적 타락과 함께 사회 기초 공동체인 가정의 흔들림으로 인해 '붕괴하는 사회'로 대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러시아의 높은 이혼율과 가정의 해체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지역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명제이다. 모스크바의 '새생명 가정상담연구소'는 러시아 전역에서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가정, 개인의 삶, 가치관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다.

무너지는 가정, 무너지는 사회
구 소련의 중추국이었던 러시아는 세계



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이다. 자연자원 풍부해 잠재적인 부가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중앙 집권적 통제 경제는 자연을 약탈, 오염시켰으며 그 폐해는 심각한 상태이다. 엄청난 투자와 잔혹함으로 강행된 산업화, 집단 농장, 비효율적 사회 구조, 생태학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날 경제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경제 자유화 및 국유 산업의 민영화 노력은 관료주의 체제와 기득권 세력 및 수구 세력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급속한 경제 쇠퇴로 고통을 겪고 있다. 또 인간을 '물질 덩어리'로 간주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 존엄성, 사회 도덕, 윤리 관념의 부재를 낳았다. 그 결과 현재 러시아 가정의 이혼율은 약 80% 정도에 이른다. 가정의 권위 실추, 혼전 동거, 비행 청소년 양산 등의 역기능 가정 문제와 매춘, 동

성애, 알코올, 마약, 살인 등의 사회 범죄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각종 병리 현상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 2000년 3월, 비영리 단체 새생명 가정상담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새 생명' 가정상담연구소 사역
새생명 가정상담연구소는 이혼을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부 세미나, 유아와 청소년으로 나누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태아 교육 세미나, 아버지 학교, 결혼 적령기의 미혼 남녀들을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프, 사춘기 청소년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청소년 수련회, QT 세미나, 문서출판 사역, 유학생 사역, 공휴일 사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러시아의 무너진 가정들을 향해 복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의 가정에 대한 치료도 절실하지만



미래 러시아 사회를 구성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2001년 1월에 있었던 상담원 건물 화재 사건의 어려움을 딛고 재봉헌 예배를 드린 김낙용/조길순 선교사는 빈곤한 생활고, 습관적인 정교회 신앙, 혼란스런 정체성의 삶에서 붕괴된 가정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이들이 미래에 러시아의 가정사역자와 말씀사역자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다.

기도제목

- 선교사 부부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러시아인들을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 신실한 동역자 및 통역자를 주시고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 현지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병자들을 고치고...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눅 10:9)

'2천/1만 비전' 이룩가는 'A팀'

1989년 3월 김국용, 양유식장로 등이 야고보서 5:15~16의 말씀을 기초로 온누리교회의료선교회를 창립하였다. 그때부터 국내 미자립교회에 의료선교를 시작하였고

1995년부터 스리랑카를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매년 해외 아웃리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1998년부터는 국내거주 외국 근로자진료사역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든 목회자나 선교사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다. 또한 병당한 주님과 진료를 통해 전도의 접촉점을 제공하며, 그분들을 세워드리며, 위상을 높여드리므로써 사역을 원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님의 역사



를 느꼈다. 사역을 통해 우리들이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 앞으로 의료와 전도사역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고자 한다.

"2천/1만 비전"을 이루며 가장 빨리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의료선교라고 생각한다. 각 공동체에 의료선교팀을 만들어 입양 미전도종족에게서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치료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의료선교에 많은 의료인이 동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최충길 집사 (의료선교 A팀장)

새 기쁨과 새 소망으로 설레는 '막져낸 쯔빵' B팀

우리 B팀은 2000년 여름 베트남 아웃리치 때 신문 홍보로 만들어진 막져낸 쯔빵팀이다. 의료 선교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한 팀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팀원들을 불러 주셔서 B팀이 만들어 졌고, 베트남 아웃리치 이후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다.

특히 올 해부터는 서빙고 청년 의료선교부와 하나가 되어서 팀 사역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집사님들이 여섯 분이어서 각 손을 만들어 청년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다. 우리 안에서 사랑과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과목 중에서 인기 있는 과목은 단연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이다. 노인들에게 축 처진 눈 윗 주름을 제거하는 쌍꺼풀수술도 해 주며 점과 사마귀 등을 빼주기도 한다. 치과에서는 임시 틀니도 만들어 주며 한방에서는 한약을 나누어 준다.

בל교와 유교가 뿌리 깊은 농촌에서 의료선교를 통하여 평소에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교회 문안으로 한 번 들어오는 의



미가 자못 크다고 현지 목사님들은 말씀하신다. 하루의 반나절 정도의 진료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짧은 사역에도 성경께서 역사 하시기에 불신자의 마음을 여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베풀기 보다는 도리어 우리 자신에게 많은 은혜와 회복이 있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전이 있다면 아웃리치 두 팀이 더 생겨서 총 네 팀이 매 주마다 농어촌과 공출사역지에 나가는 것이다.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신일철 집사(의료선교 B팀장)



교회 찾는 외국인 근로자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팀

여호와라파팀은 교회를 찾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지난해 9월 2일 서빙고성전 본관에 위치한 온누리선교재단 사무실 안에 진료실을 마련했다. 매주일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평균 10명 정도가 진료를 받는다. 첫째 셋째주는 치과, 둘째 넷째주는 내과 진료를 하고 있다. 이 외에 도움이 필요한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 환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네팔, 이란, 러시아, 몽고, 미얀마 등지에서 온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치과 진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내과 진료는 꾸준히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약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꾸준히 진료를 하기가 힘들어 어려움이 많다.

근로자들은 호흡기 질환, 천식, 궤양, 근육통, 갑상선, 혈압, 알레르기 등에 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의료장비가 부족해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어렵다. 또한 공간이 협소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사실, 격주로 진료를 하는 것은 진료 공간이 없기 때문인데, 조금만 더 넓은 곳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어서 힘을 얻고 있지만, 처방전 없이 꼭 필요한 약품을 구하기가 어렵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들의 진료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팀원들 모두가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

박병익 집사(여호와라파팀장)

외국인근로자 찾아가 치유와 복음 전하는 청년 '안디옥' 팀

여호수아 의료선교부의 안디옥 팀은 올해로 세 돌을 맞는다. 2000년에 우리 부서의 한 형제가 인도네시아 근로자 헬터에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해



여름 '의료선교부 아웃리치'를 계기로, 작년년부터 어느 정도 틀어 잡힌 의료사역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다.

안디옥 팀은 다른 팀과는 달리 청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재정상 어려운 점이 많다. 아웃리치 때마다 장비를 빌려서 치과,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한방진료, 이마용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급년부터는 심방과 찬양사역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작년까지는 매일 인천 안디옥 헬터만 방문했는데,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져 안산과 수원 헬터를 포함해 세 곳을 번갈아가면서 방문하고 있다.

안디옥 사역의 특징은 첫째,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병원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 받기가 쉽지 않은 것

이 문제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사님들과 연결되어 치료를 받기도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다수는 청년들이다. 그래서 의료혜택 이상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사역이다. 우리 팀도 청년들만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서로 깊게 교제하고 나누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언어의 장벽이 있다. 교제, 상담, 진료시 통역을 해주시는 분의 도움이 항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와 같이 특수한 여러 상황들을 좀 더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팀의 과제이자 기도제목이다. 한국 땅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예수님을 모르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치료하고, 교제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갈 때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변화된 현지어 선교사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안디옥 팀

*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4월 2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 대상: 황종연 목사
- 연락처: 김희수 팀장 (011-448-4262)

선교사훈련학교 (OWMTS ;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일시: 7월 15일~12월 14일
- 장소: 경기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강사: 미국 C&MA 소속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사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서빙고 302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주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제13기 다윗학교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 가능자
- 문의: 권용갑 전도사(016-378-5851)

요셉학교 교사 모집

- 문의: 송경부 목사(011-9638-0690) 김대진 간사(016-231-9269) 김창도 간사(011-271-4558)

2002 온누리 의료인의 밤

- 대상: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
- 일시: 4월 29일(월) 오후 7:00
- 장소: 부암
- 강사: 허용조 목사
- 대상: 의료인 및 의료선교에 관심있는 성도
- 문의: 최중길 A 팀장 (011-262-8193) 신일철 B 팀장 (016-509-9635)
- 주최: 온누리 의료선교 위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 모집

- 대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내용: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각 1명, 교사 (유치원, 컴퓨터, 피아노) 각 2명
- 기간: 4월 1일~6월 30일
- 문의: 571-9535

예절선교회

찬양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양재 비전홀
- 리더: 정장철 형제, 강병민 형제
- 내용: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돌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

서빙고 중보기도 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두란노빌딩 예절 사무실 (703호)
- 리더: 김순홍 형제
- 내용: 직장인과 청년들에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의 끈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기도모임.

*예절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6개의 기도모임이, 각 지역에서 요일별로 있습니다. 선교에 기도로 동참하실 분은 연락주시면 매주 발행되는 선교사 기도책자를 우편과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47-3146)

*** 러시아 여름아웃리치 지원자 모집**

-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 연락처: 이경환 (016-297-2090) 정병철(chormi@daum.net)

2002년 해외선교헌금

- 서울은행 33901-9529186
- 외환은행 010-33-23507-7
- 한빛은행 011-023811-02-202
- 국민은행 803-01-0219-417
- 조흥은행 341-03-006359
- 예금주 온누리교회

국동러시아 1인 1내복 보내기

- 국민은행 803-01-0216-582
- 한빛은행 576-252180-13-002
- 농협 094-01-151313
- 예금주 KIBI
- 문의: 792-7075

01

'의료인의 밤' 을 마치고

의료인 네트워크, 복음의 지경 넓힌다

4월29일(월) 의료인의 밤에 5백여 명의 성도가 참석해 의료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했다.

이날 베트남에서 사역중인 조바나 바 선교사와 연세의료원의 이철 장로는 아웃리치를 통한 의료선교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의료선교의 방법을 제시했다.

하용 조목사는 마태 복음 4장 23~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신 것을 조명하며, 모든 의사, 간호사, 약사에게 치유의 은사가 임해 만지기만 해도 병들이 떠나는 역사가 있다고 축복했다.

이날 모임에서 약 2백50명이 의료



선교에 여러 모습으로 동참하겠다고 결단했다. 의료선교팀은 각 공동체 별로 의료선교팀을 구성해 입양한 미전도종족과 국내 농어촌교회로 아웃리치를 떠날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전공분야 사역자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역과 교제의 지경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서철 chol@onnuri.or.kr

*

☘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 일시: 5월 16일(목) 오후 1:00~2:00
- 장소: 서빙고 403호
- 문의: 박은정(011-9733-1534)

☘ 두란노해외선교회 간사모집

- 자격: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 자, 운전 가능 자, 컴퓨터에 능한 자, 영어 구사자(1명)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 간증문
- 마감: 5월 19일
- 문의: 571-9535
timint@hotmail.com

선교사훈련학교 (OWMTS ;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일시: 7월 15일~12월 14일
- 장소: 경기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강사: 미국 C&MA 소속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사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서빙고 302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 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 제13기 다윗학교

- 학생모집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 12주 주말훈련,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선발: 1차 서류, 2차 면접
- 마감: 5월 12일
- 문의: 송지윤 간사(교 525)
-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 가능자
- 문의: 귀용갑 전도사(016-378-5851)

☘ 러시아 여름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지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 준비모임
-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 연락처: 이경환 (016-297-2090) 장병철(chori@daum.net)

2002년 해외선교헌금

- 서울은행 33901-9529186
- 외환은행 010-33-23507-7
- 한빛은행 011-023811-02-202
- 국민은행 803-01-0219-417
- 조흥은행 341-03-006359
- 예금주 온누리교회



성령의 바람 타고 전합니다.

‘살람, 네제시이즈(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2월 말, 또 다른 토기장이 사역의 하나인 가게를 열었습니다. 상가 한 칸에 토기장이(Potter-영어, Duluscu-아제리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한 주님이 주신 꿈을 보게 됩니다.

장사는 주말이나 휴일에 대목을 본다 고 말하지요. 가끔 이웃 사람들은 주말에 문을 열지 않으니 가게 유지가 되겠 나며 의아해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들은 일요일에 당연히 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별스럽게 보지는 않 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인 줄 아는 한 이슬람 이웃은 저희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께 서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아제리 민족을 위한 구원의 축복이 토기장이를 통해 크고 강하게 이뤄지길 소원합니다.

토기장은 바람 부는 도시에만 머물 게 아니라 성



령의 바람을 타고 카프카즈 민족들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훗날 이 도시에서 함께 한 자매들을 통해 문화 센터가 세워지고, 다른 토기장이들이 세워지고, 카프카즈 토기장이를 세우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이 일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와 대적들이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을 위해 동역자들님, 함께 뛰어 주십시오!

많은 동역자로 인해 감사

토기장이 사역이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처럼 통해 새로운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토기장이 사역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토기장이 사역을 붙잡고 있는 다른 동역자들을 보

새로운 교회모임 시작

작업실에서 일하는 베파와 주일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위한 만남은 아니지만 말씀을 나누고 아제리어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베파가 마음이 열려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일하는 이라데, 아르주, 케말레, 엘라네와 저를 맡처럼 아껴주시는 엘라네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엘라네의 가정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 안에 작지만 새로운 교회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는 그들이 보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아제리 민족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들이 잘 수습되고 가족들이 주안에서 안정을 찾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도 계속 무릎을 모아 주십시오.

동역자들, 이 봄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토기장이 프로젝트를 위해 중보 외에 다른 도움을 주실 분 연락주십시오. 2002년 4월 바람 부는 도시에서 안디옥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장리브가(파송-소아시아 K종족-WEC-고양, 은평공동체)
- 파송교회, 후원교회, 후원자들과의 아름다운 협력을 위하여
- 비자 연장, 건강(기관지, 폐),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WECer)
- 부모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천창길(파송-일본-TIM-한강공동체)
- 스태프가 지지치 않고 은누리교회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영적 충만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 설교와 찬양의 능력과 영적 통찰력이 깊어지도록

김다니엘/이한내(파송-소아시아-TIM-동대문/남양주공동체)
-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지만, T시에서 동업할 회사를 주시도록
- 난민 돕기 프로그램 책임자 사역에 지혜를 주시도록

김순중/천사랑(파송-소아시아-인터콥-광명/인천공동체)
- B 지역 복음화에 저항하는 '지역의 영'을 묶어주시도록
- B 교회 예배가 성령님으로 더욱 뜨거워지도록
-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민명훈(협력-한국-GMTC-열린공동체)
-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잘차 하고 싶은 선교사 케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배우도록
- 롬메이트, 교회, 선교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 기도의 삶이 깊어지도록



희망찬 미래를 여는 무지개, C시 유치원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을 수 있는 C국의 교육열이 요즘들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10년전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던 교육기관 운영권이 정부로부터 분리되면서 빛어지는 현상이다.

반면 C국 어린이들은 법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도, 교회에 갈 수도 없다. 정부가 어린이에게 종교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주일학교나 어린이 사역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몇몇 사역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5억명이 넘는 C국 어린이들은 지금 올바른 교육과 영적 공급이 매우 필요한 상태이다.

C시를 풍요롭게 하는 전문인 선교사들...

C시는 C국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A족 자치주 내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교육과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도시이다. 인구 30만 중 A족 동포 수는 40% 정도로 1952년에 A족 자치주로 성립되었다.

또한, C시에는 은누리교회에서 파송된 11명의 선교사들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병원, 대학교, 유치원 사역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N치과병원은 93년에 파송된 다니엘 선교사 부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보건위생 환경이 열악한 현지인들에게 구강치료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여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을 통해 영육의 필요를 동시에 채워 주고 있다. 나이가 현자인 의료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한 후 동역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주고 있다. 현재 닷, 여미미 선교사 등 5명의 전문인 의료 선교사들이 현지인 의료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

또한, A대학은 개혁 개방으로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 C국 젊은이들에게 바른 세계관에 기초한 과학기술 교육과 평생을 지켜갈 진리에 입각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자 복음적으로 설립된 우수 대학이다. 이곳에는 은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열리사선교사 가정과 한리선교사 외에 교수 요원으로 헌신된 많은 선교사들이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과

고 있다.

꺼질듯 꺼지지 않은 불, M유치원

C시 M유치원은 94년 당시 방직공장 소속 탁아소사역으로 시작되었다가 95년 11월 정식 유치원으로 개원되었다. 모여든 아이들이 베드로 선교사 부부의 헌신과 사랑으로 교육되면서 M유치원은 단기간에 5백여 명의 원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점차 C시내 여타 유치원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공산당 체제에서 설립된 방직공장이 개혁개방과 현대화에 적절히 부합하지 못하면서 경영부실과 부채가 가속화되었고 유치원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2002년부터 M유치원이 기존의 부속유치원 성격에서 좀더 주도적이고 복음적인 유치원으로 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단장하고 있다.

오는 8월에 개원을 앞두고, 복음과 함께 몬테소리 교육과 인성교육 등 올바른 창



의적인 교육 방침을 통해 C시와 주변지역 유치원의 주요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N국의 동포 원아들에게도 복음의 혜택을 전달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영세민 사역도 계획하고 있다.

기도제목

- N병원을 찾는 이들이 육신의 치료 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맛보도록
- A대학을 통해 C국을 복음화 하는 우수한 지도자들이 배출되도록
- M유치원 공사가 잘 이루어져 예정 날짜에 맞게 개원하며,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장소로 쓰여지도록
- 선교사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영육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상 일대일 강좌

일대일 양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온누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일대일과 큐티일 것이다. 일대일과 큐티는 온누리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온누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일대일 양육과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갔다.

일대일이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온누리 교회는 일대일의 정

신과 일대일의 희생과 어려움을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회의 리더쉽부터 일대일 사역과 양육에 많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도 한사람씩 부르셨다

그렇다면 왜 일대일 양육이 중요한가?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실 때, 집단으로 부르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부르셨다. 일대일로 만나시기를 원하셨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기드온등, 집단적인 만남보다는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셨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제자들과의 만남이 그렇고, 수가성의 여인이나 여리고의 삭개오, 거라사의 광인도 일대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런 점에서 일대일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일대일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

을 나누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에베소의 한 사람 한사람을 양육했듯이(행20:31) 일대일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한 방법인 것이다.

그럼, 일대일 양육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그것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한 최종적으로 일대일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 선교이다. 세계 선교의 비전은 온누리 교회의 비전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선교는 우리가 취사 선택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이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다. 일대일은 세계 선교

일대일의 가장 큰 목표 '세계선교'

를 이루는 도구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 있는 도구이다. 여러 선교지마다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일대일 교재가 있다. 그리고 그 교재를 통한 일대일과 지도자 훈련은 이미 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다. 일대일이 선교지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대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었고, 삶이 변화되는 과정 없이는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 일대일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열매들을 경험했다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함께 일대일 사역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은 일대일의 목표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임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일대일은 하나님은 온누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장이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제 온누리를 넘어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세계 선교에 나아가야 한다. '일대일로 세계로'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일대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박종길 목사

01

오늘, 온누리미션 특별 예배

온누리미션 미안마예배와 네팔어예배, 몽골어예배에서는 오늘(12일) 각기 특색 있는 예배를 드린다.

미안마예배는 오후 2시 선교관 304호에서 창립 6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미안마예배는 1994년 목동에서 품제우 목사와 12명의 버마 형제들이 모이기 시작해 1996년 5월 5일 온누리교회 외국어예배로 발족했다.

네팔예배는 침례를 받아야 정식 크리스천으로 인정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오늘 수닐 라이와 계비라 이 두 명의 침례식을 겸한 야외예배를 영종도에서 드린다.

몽골어예배는 오후 2시 선교관 301호에서 전도집회를 한다. 이번 집회는 워십댄스, 설교, 간증, 다과 순으로 진행된다. 설교는 5월 17일 몽골로 파송되는 권오문 선교사가 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온누리신문 축쇄판 8권 발간

온누리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유익을 위해 노력해온 온누리신문이 '축쇄판 8권'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누리신문 940여 페이지)을 발간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누리를 통해 역사하신 생생한 하나님의 모습, 주옥 같은 하용조 목사님의 강해설교, 성도들의 가슴몽클한 간증이 담겨있습니다. 500부 한정판으로 발간되었으며 온누리신문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가격: 1만8천원

· 판매 및 문의: 서빙고 2층 온누리신문사무실 (Fax 795-9251, chol@onnuri.or.kr)

03

2002 청년여호수아 선교대회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

청년여호수아 공동체(양재청년부)가 선교대회를 연다.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선교 집회,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 저녁집회, 입양식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대회는 여호수아공동체안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청년부 각 부서가 입양하여 기도하며 섬기기 위한 행사로 마련된다. 또한 곧 다가올 여름아웃리치를 위한 동기와 비전을 제시한다.

집회의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 24일 (금) 오후 7시 30분부터 김형익 선교사(GP

대표)의 '세계선교현황과 한국교회의 과제' 라는 주제로 첫날 선교집회가 시작된다.

△ 둘째날인 25일에는 오후 3시부터 선교 세미나가 7개 주제로 열린다. 이어 오후 7시부터 김사무엘 선교사를 강사로 '선교의 소명과 청년' 이라는 주제의 집회가 열린다. △ 주일인 26일에는 오후 2시부터 박종길 목사가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이날 각 부서별로 15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하는 입양식과 청년선교사 현황보고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비전 2천/1만을 이룰 주인공



인 청년부가 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미전도종족과 세계를 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준비하는 여호수아공동체는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선교

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청년부가 미전도종족 입양프로그램을 뿌리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홍미남 minami@onnuri.or.kr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프가니스탄은 652,000km²로 남한의 약 3배 되는 영토를 가진 나라다. 건조한 산악지역이나 비옥한 계곡이 있기에,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앙 아시아의 십자로’라 불린다. 위로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국과 접해있고, 오른쪽에는 파키스탄, 왼쪽에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동서양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마약의 실크로드 역할을 해 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으로 파키스탄과 이란에 650만의 피난민이 생겼고, 이보다 적은 수가 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서방세계로 흩어졌다.

1. 이 땅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1.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국가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 이로 인

해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렸다. 전쟁으로 약 80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60만 명이 장애자가 되었고, 70만 명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1천만에서 4천만 개 정도로 추정되는 지뢰를 제거하고 집, 학교, 농장과 그 밖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몇십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리며 더 이상의 독재가 없도록 기도하자.

2. 복음이 미치지 않은 88개 종족을 위해 기도하자

특히 다음 종족을 위해 기도하자.

- 1) 푸쉬툰족,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지대에 살며 호전적이고 복수하기를 좋아한다. 그들 가운데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을 뿐이다.
- 2) 북부의 우즈베크족, 투르크멘족.
- 3) 도시 지역과 북동부의 타지족.
- 4) 하자르족, 몽골의 후손으로 시아파 회교도인 이들은 차별 대우를 받아왔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다른 부족에 비해 열려 있다.
- 5) 구치족, 전쟁 전 250만 명에 달했던 중앙과 서부지역의 유목민으로 이들의 생활방식이 전쟁으로 파

괴되었다. 이 부족은 서로 관련없는 여러 부족과 언어를 대표하고 있다. 많은 수가 파키스탄으로 피난했다.

6) 서부의 차르 아이마크족과 남부의 발로치(Baloch)족과 브라휘족.

7) 누리스타니족, 카불 북부와 동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3. 5월 중에 두 팀으로 구성된 리더십의 정탐여행이 있다. (A팀 5/7~18, B팀 5/20~27)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모든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기도가 절박하다.

리더십들이 땅을 밟는 순간, 소망의 빛이 그 땅을 압도하여,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세력이 무너지게 기도하자.

생명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모든 영적인 세력들에게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VISION을 품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밟아야 할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사단이 훼방할 어떤 틈도 얻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4. 5월 2일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된다.

이 모임에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흘리시는 눈물을 우리도 흘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아프간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간구하자.
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선교지에서 온 편지

첫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동역자님들께

주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오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인내가 있어야 하는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어 한 알의 밀알이 되었을 때 영혼의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P교회 소식

T국의 영적 부흥을 꿈꾸며 두 달 전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교회, 영혼들, T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시작한 후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매주 새신자들이 찾아오고, 현지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들이 영혼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어 힌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P자매가 주님께 돌아와 새벽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를 통해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 받은 은사들을 위해 주일 새벽기도 말씀 중에는 자원하는 현지 형제 자매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알파쿠르스(복음에 관심 있는 무슬림들을 초대해 5주 동안 토론

하고 교제하면서 복음 전

하는 게 목적)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제1기 알파쿠르스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제2기 알파쿠르스를 섬기는 모습은 큰 기적을 보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2기 알파쿠르스를 통해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P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서 복음으로 변화하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며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P자매

몇 달간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P자매가 마침내 지난 2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자매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심을 자매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자매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캠퍼스 사역 계획

오는 6월 25일 외국인들을 위한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 젊은이들과 교제하며 이들에게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젊은이들을 통해 캠퍼스가 변화되고 나아가 T국 전역에 복음이 편안하게 증거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출발

이곳에서 사역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T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주님만 바라보며 경주하기를 새롭게 다짐합니다. 동역자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 올 수 있었습니다. 계속 T민족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 믿습니다.

T국 T시에서 채사라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지현/김정희(파송-스리랑카-TIM)
- 정기월(월별)로 투병 중인 이 선교사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박영근/추행란(파송-스리랑카-TIM-인양/안산공동체)
- 주일과 신실이 영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 학교 운영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민성기/최운숙(파송-스리랑카-TIM-서초B공동체)
- 호라나 교회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 민 선교사의 허리가 치유되도록

정소연/사시(파송-스리랑카-TIM)
- 가족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 언어(싱할리어) 학습에 진보와 사시 형태의 학업에 지혜를 주시도록

김가기/송두리(파송-미국-치과의료선교회)
- 금식기도에 동참자들을 붙여주시도록
- 자녀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아내의 건강과 새 기도 모임이 잘 이뤄지도록

한소망(파송-동북아시아-TIM-동작A)
- 이 땅이 복음을 듣는 옥토로 만들어지며, 이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 탐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돕고, 섬기는 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윤희(파송-일본-OMF-한강공동체)
- 16일부터 시작하는 한국어 강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동역자 이봉 자매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도록
- 31일에 있을 볼 콘서트가 잘 준비되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섬김선교지 소개 12 : 모잠비크 <섬김 공동체 : 서대문공동체>

복음과 배움의 모잠비크 '온누리 미션상업학교'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수세기 동안 식민지 생활, 전쟁 등을 거쳐 도입한 마르크스 경제 정책의 실패, 30년간 진행된 게릴라식 내전이 국토의 황폐화와 함께 국가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갔다. 거둬낸 가뭄이나 홍수로 민생고가 더욱 가중돼 외국 원조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82년 이후 공산 체제하에 달쳐 있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으나 선교사들의 활동은 안전한 도시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역 환경도 매우 열악한 편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질병,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과 생명, 재산에 대한 위협 등 현지인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고통과 빈곤을 통해 얻은 자유

모잠비크 공화국은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적도 남부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이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에는 가톨릭의 독점으로 기독교가 박해받았고, 공산 체제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다. 선교사들은 추방되었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투



▲ 현재 모잠비크는 조금씩 되찾은 자유로 인해 거의 모든 교회모임이 전례없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목되었으며 많은 교회 기관들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조금씩 되찾은 자유로 인해 이제 거의 모든 교회 모임에서 전례 없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온누리 미션 상업고등학교

모잠비크 마푸토시에는 7년전 온누리교회

에서 파송한 이반석, 최순석 선교사 가정이었다. 1999년에 이 선교사는 MRM (Mozambique Renewal Mission)을 설립해 유치원, 클리닉, 청소년축구팀, 농장, 거리 아이들 사역 등으로 모잠비크의 차세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2000년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고등학교 설립 허가를 받고 100ha를 제공받아 '온누리 미션 상업고등학교'를 건축, 개교하여 총 240명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방과 후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모잠비크 학생들은 해

마다 문교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진급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신이 열악하고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 진급생의 40%가 낙제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온누리 미션 상업고등학교에서도 첫째 많은 학생들이 낙제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이반석 선교사가 '길리암 바론 신드롬' 병과 심장 이상으로 갑작스레 전신 마비를 일으켜 온누리교회에서 합심하여 치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다. 간단한 심장수술과 임원치료 그리고 중보에 힘입어 거의 완쾌 단계에 있다. 기도하고 도와 주신 모든 동역자에게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도한다.

기도제목

- 국민들의 생활과 파괴된 경제가 재건되며 평화가 정착되기를
 - 이반석 선교사의 온전 팔(숨기)로 인해 붓고 통증) 패유를 위해
 - 학교에 신실하고 실력있는 건축 동역자와 교사들을 보내주시도록
 - 유치원 교사들과 원아들의 강건함을 위해(말라리아로 자주 고생)
- (자료제공/2천선교)

*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 일시: 5월 16일(목) 오후 1:00~2:00
 · 장소: 서빙고 403호
 · 문의: 박은정(011-9733-1534)

✳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5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401호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 (SAM)
 · 일시: 5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1호
 ·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 선교사훈련학교 (OWMTS ;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일시: 7월 15일~12월 14일
 · 장소: 경기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강사: 미국 C&MA 소속 선교사, 온누리교회 선교사
 · 원서마감: 5월 26일
간사모집
 · 대상: 유치원, 탁아 사역자(경험자 각 1명)
 · 자격: 선교에 헌신된 사람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서빙고 302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사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일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봄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제13기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고등학교 1학년
 · 훈련: 12주 주말훈련,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선발: 1차 서류, 2차 면접
 · 마감: 5월 12일
 · 문의: 송지윤 간사(교 525)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훈련가
 · 문의: 권용갑 전도사(016-378-5851)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교사(유치원, 컴퓨터, 피아노), 커피숍 각1명
 · 마감: 6월30일
선교지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 문의: 571-9535 (timint@hotmail.com)

러시아 여름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지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준비모임
 · 일시: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 연락처: 이경환 (016-297-2090) 정병철(chorn@daum.net)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

01

2002 청년여호수아 선교대회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



청년여호수아 공동체(양재청년부)가 선교대회를 연다. 오는 5월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3일간 선교집회,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 저녁집회, 입양식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대회는 여호수아공동체 안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청년부 각 부서가 입양하여 기도하며 섬기기 위한 행사로 마련된

- 다.
- △24일(금)
 - 오후 7시 30분 '세계선교현황과 한국교회의 과제' / 김영익 선교사(GP대표)
 - △25일(토)
 - 오후 3시 선교세미나(7개 주제)
 - 오후 7시 '선교의 소명과 청년' / 김사무엘 선교사
-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온누리세계선교사 훈련학교(OWMTS) '신청서 접수 마감 임박'

온누리 세계선교센터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위한 훈련 제1기 OWMTS 신청을 5월 26일에 마감한다. 모집대상은 대학을 졸업한 선교에 부르심이 분명한 성도, 기본적인 영어회화 능력을 소유한 성도다.

훈련 후보생들은 5월 27일 심리 테스트와 6월 4일 면접을 거쳐 6월 초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된 후 6월 17일까지 양지훈련원 입소를 마친 뒤 훈련을 시작하게 된다.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679, 233, owmc@onnuri.or.kr)

03

● 인터뷰 / 2002 청년선교대회를 준비하는 김영배전도사와 함께

'선교의 열정' 다시 타오르기를...



교회에 다양하고 많은 사역이 생겨 나면서 사실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조금씩 식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온누리교회에 하나님 이 주신 비전은 '선교'입니다. 청년들이 다시금 '선교'에 열정을 품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비전은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전도종족을 재입양하는 것은 청년부가 지금껏 미뤄온 미결과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100년전에는 한국도 역시 잊혀진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하는 민족이 되었지요. 우리는 복음에 빛진자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부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입양을 하고 나면 그 종족을 품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종족을 입양한 성인공동체와 연합하여 아웃리치도 가는 등 협력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7개 주제의 토요선교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제목 : ·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청년들이 소유하도록

· 그리고 입양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깊어지고 구체적으로 섬기도록

01

2002 청년여호수아 선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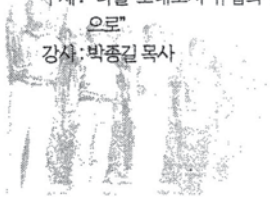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

▼ 선교집회 프로그램

• 24일(금) 오후 7:30~9:30
양재회락성전
주제: 세계선교현황과 한국교회
의 과제
강사: 김형익선교사(GP대표)

• 25일(토) 오후 7:00~9:00
양재 회락성전
주제: 선교의 소명과 청년
강사: 김사무엘선교사(은누리세
계선교센터 원장)

• 26일(주일) 오후 2:00
양재 사랑성전
주제: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
으로”
강사: 박종길 목사



▼ 청년선교 세미나

25일(토) 오후 3:00~5:00

강의 주제	강사
골방은 열방보다 크다	이경욱 선교사(인터콥)
누가 그들을 이곳에?(탈북자 사역)	심신복 전도사(김일성대 졸업)
왜 한국교회가 중국선교를 해야하는가?	박민구선교사(중국서북선교회)
외국인 근로자 사역의 선교적 가능성	김홍주 목사(은누리미션)
중동지역에서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	이정석선교사(WEC/치과의료선교회)
왜 유업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백인호교수(서강대 서양사학)
미전도종족 입양세미나	김창욱전도사(은누리 2000선교위원회)

▼ 부서별 입양종족

입양식: 26일(주일) 오후 2시에개회

입양 종족	입양 부서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문서출판부 · 영상선교부 · 이슬람권선교부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북한 선교부 · 중보기도부
터키 쿠르드족	문화선교부 · 영미유선교부 · 이슬람권선교부
멕시코 미해족	찬양선교부 · 성가대 · 중보기도부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족	내적치유부 · 공출가정선교부 · 이슬람권선교부
미얀마 인타족	모퉁이들 · 남아시아선교부
스리랑카 베다족	의료선교부 · 남아시아선교부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하나님의 가정문화부 · 중보기도부
중국하니족	청소년선교부 · 동아시아선교부
몽골 브라이트족	농어촌선교부 · 장애우선교부 · 동아시아선교부
터키 투르크족	일대일 양육부 · 예배사랑부 · 이슬람권선교부
말레이시아 이반족	새순청년부 · 남아시아선교부
중국위구르족	국악선교부 · 직장선교부 · 동아시아선교부
인도네시아 랑풍족	찬양위원회 · 남아시아선교부
케냐 스와힐리족	컴퓨터선교부 · 이슬람권선교부

*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5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401호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 일시: 5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1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 선교사 훈련학교 (OWMTS ;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일시: 6월 17일~12월 14일
· 장소: 경기 양지 은누리세계선교센터
· 강사: 미국 C&MA 소속 선교사, 은누리교회 선교사
· 원서마감: 5월 26일

스태프 모집
· 대상: 유치원, 탁아 사역자(경험자 각 1명)
· 자격: 선교에 헌신된 사람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간호사, 치과공사, 치과의사, 교사(유치원, 컴퓨터, 피아노), 커피 파출 1명
· 마감: 6월 30일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를
· 문의: 571-9535 (tmint@hotmail.com)

인터콥 5월 여성 월드 비전
· 일시: 5월 21일(화) 오전 10:00~오후 2:30 (6기 여성선교중보훈련학교 9주 차 open 강의 및 5월 월드비전)
· 강사: 하나님 선교사(터어기)
· 대상: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장소: 서빙고 101호
· 회비: 무료
· 연락처: 인터콥 본부 (796-3541 교2) 최백란 간사 (018-863-3452)

☘ 여름 캄보디아 아웃리치 팀 모집
· 일시: 7월 12~16일(17일 아침 도착)
· 모집분야: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등
· 마감: 5월 말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러시아 여름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지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준비모임
·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은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 연락처: 이경환 (016-297-2090) 장병철(chom@daum.net)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월드컵을 복음의 축제로!



2002 한일 월드컵을 '복음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온누리가 진형을 갖추고 킥 오프(Kick off)를 기다리고 있다.

복음선포의 선봉은 전도전략세미나와 전도부흥집회 투 톱이 맡는다. 전도전략세미나는 29, 30일 양일간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서빙고 경찬홀에서 열린다. 예수 전도단(YWAM) 사역자인 존 도우슨(John Dawson)은 전도의 중요성, 예수님의 전도방법, 실제적인 전도 전략, 성령님의 음성 분별하기, 잃은 자를 위한 전쟁 등의 내용을 강의한다. 밥 피츠는 30일 간의 '예배의 역할'을 인도한다.

전도부흥집회는 28일부터 30일까지 오후 7시 서빙고 본당에서 열린다. 이 집회에는 하용조 목사, 존 도우슨, 밥 피츠, 도너 조던(Donna Jordan), 이갈로 등 강사가 총 출동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갖는다.

미드윈드는 영어예배와 청년 대학부로 구성된 전도팀이 맡는다. 이들은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장과 도시를 찾아가 복음을 전할 전도팀을 구성하고 전략을 마련한다.

후방에는 중보기도팀과 집회가 있다. 2천

전도부흥집회, 다민족 초청 열린예배 등 외국인 전도에 집중 전도전략세미나, 월드컵 위한 9백60시간 '띠 기도' 시작

선교팀은 월드컵 본선에 오른 32개국을 위한 기도 책자를 제작, 오늘 배포하며, 온누리신문은 한 주간 중보할 나라들을 정리해 신문에 게재한다.

온누리 성도들은 9백60시간 띠기도를 시작한다. 매일 1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띠기도를 위해 서빙고와 양재 성전에 추첨함이 설치된다. 기도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추첨함에 서 플라스틱 축구공을 뽑아 열어본 후 기록된 날짜와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면 된다.

6월 8일 중국어예배는 중국인들을 초청해 서빙고 경찬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축구 경기를 중계한다.

6월 16일에는 우리 교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온누리미션에서 마련하는 다민족 초청 열린예배가 열린다. 서빙고 오후 4시 본당과 2천/1만 광장, 주차장에서 열리는 이 예배는 음식과 한국전통문화 공연, 경기 중계 등 행사로 열린다.

이 외에도 6월 한달동안 외국인들을 위해 주일예배 시간에 통역이 강화되며, 각종 기도회 시간에 월드컵과 복음증거를 위한 중보 시간이 마련된다.

서철 chol@onnuri.or.kr

2002 청년선교대회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



청년들의 식어진 가슴에 선교의 열정을 불붙이는 선교대회가 열렸다.

지난 24일(금) 선교대회는 김형익 선교사(GP대표)의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한 삶'라는 주제로 첫 문을 열었다.

김선교사는 이날 집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최고의 만족을 얻을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능력있게 사역할 수 있다"며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자

고 촉구했다.

25일(토)에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7개 세미나가 열려 전문적인 선교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오늘(26일) 오후 2시 예배에서는 박종길 목사가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보고와 함께 미전도 종족 입양식을 갖는다.

미전도 종족 입양을 통해 각 부서는 입양한 종족을 품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섬김의 방법을 계획하게 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2천선교팀 '여름아웃리치 지침 발표'

온누리 아웃리치 기본기획안

- a. 부서별 Out Reach 방향은 Vision 2000 기본방향과 하나됨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 * Vision 2000 성취를 위한 전략적 선교우선 대상
 - ① 미전도종족
 - ② 이스라엘
 - ③ 중국
 - ④ 일본
 - ⑤ 아프리카니스탄
- b. 부서별 섬김선교지역을 온누리 Mission Field로 하되 섬김 선교지 숫자는 부서별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필요시에 새로운 지역을 선교본부와 협의 개척한다.
- c. 사역은 선교지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연구, 정탐, 분석하여 지역별로 입양개념과 동일한 개장기적인 사역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 e. Summer School(영어, 컴퓨터, 한글 등), 의료봉사, 미용교실, 우물공사, Habitat 운동, 문맹퇴치 운동, 생활환경개선, 도로보수, 직업재활, 농업개발지도, 고아원/양로원 섬김, 하수도 개량 보수, 여성성경학교 등.
- d. 온누리 파송 선교사와 협력하여 추진하되 온누리 교회 선교사가 없는 지역은 타교회 선교사, 선교단체, 현지교회 지도자와 협력한다.
- e. 부서별 아웃리치팀 구성과 사역은 타부서와 연합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f. 청년+대학부+성인공동체+꿈땅

2천선교팀은 올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각 팀들을 위한 기본지침을 발표했다. 2천선교팀은 이번 아웃리치를 기획할 때 아래 지침을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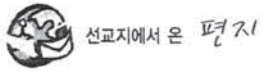
한편, 2천선교팀은 공동체 가족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고, 선교사들을 도우며,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팀을 위한 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 6월 11일~7월 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서빙고 소회의실

· 내용: 6월 11일 선교에 눈 뜨기
6월 18일 여름아웃리치 준비
6월 25일 중보기도의 능력
7월 2일 선교에 참여하기

서철 chol@onnuri.or.kr

01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집니다

부족한 저회들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누리의 영성으로 사역하는 부부

신장혁 형제와 김진희 자매를 이곳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부는 주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헌신된 분들입니다. 김진희 자매님은 2SM 센터에 일주일에 3,4일 자원봉사자로서 행정적인 일과 함께 선교사님들과의 여러가지 연락을 맡고 있습니다. 은누리교회의 영성과 비전이 세계 각처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가정(신장혁, 김진희, 석우, 윤지)의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2SM 센터에서는 지난 4월 4일부터 한인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모여 오전에는 제자 양육, 오후에는 위신과 특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는 6월 말 경에 함께 아웃리치를 가려고 합니다.

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는 분위기에 어색해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도 결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DTS의 간사들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존이나, 볼리비아 등지로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저녁에 Cotia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큐티 세미나를 갖습니다. 차양으로 이곳에서 1시간 20분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교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참석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에 PACA를 졸업할 예정인 성화가 대학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



부터의 분명한 응답에 따라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삶

브라질을 위해서 또한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과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02년 5월 11일
브라질에서 박운용 김연아 성화 성은 올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드보라(파송-동북아시아-TIM-강남B 공동체)
- 사역 용어를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게 언어에 진보가 있도록
- 다음 학기에 준비된 영혼을 만나며, 목자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배광숙(파송-동북아시아-TIM-마포 공동체)
- 필수업무로 투병 중인 형부를 위해

김마가/송재인(파송-한국-치과의료선교회)
- 한국 재입국에 문화충격을 잘 극복하고 적응하도록
- 선교단체 GO(Global Operation) 출범으로 새로운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리더십 형성을 위해

이훈/이향선(파송-캐나다-TIM-강촌)
- 원주민들에게 희망과 치유가 전해지고, 회복의 열매가 많이 맺도록

박운용/김연아(파송-브라질-TIM-영등포, 구로 공동체)
- 5월 27~30일 Cotia 목회자 큐티 세미나와 계속되는 세미나 요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빈민지역(파벨라)에 탁아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문성/김정년(파송-싱가포르-BEE KOREA-성동, 광진 공동체)
- 5월 19~22일 네덜 올라바리에서 성경연구방법 세미나와 카타르에서 정재호 집사가 4,5월에 할 사역을 위해

03

월드컵 출전국을 위해 중보합니다

< 5월 30일 (목) : 한국 >



· 주요 경기일
6.4(화), 6.10(월),
6.14(금)
· 국가개요

종교 : 기독교35.3%(개신교27.1%), 불교 27.7%, 유교1.2%, 회교0.06%, 무속신앙 10%, 신흥종교5.7%
· 기도제목

-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국교회의 영적인 각성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교회 안에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믿음과 수적인 증가, 인상적인 조직, 건물에 대한 교만함이 있다.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성공, 부, 명예를 구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
- 한국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자**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성숙했다. 선교단체와 선교사가 연합하여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목회 사역과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해 기도하자.
- 강력한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성경은 한국교회문화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다. 세계 성경의 약 80%를 만드는 주요 성경 생산자인 한국을 위해 기도하자.

< 5월 31일 (금) : 프랑스 >



· 주요 경기일
5.31(금), 6.6(목),
6.11(화)
· 국가개요

종교 : 기독교71.5%, 개신교1.77%, 무종교/기타19.2%, 회교7.7%, 유대교1.1%, 불교 0.3%, 중국 종교0.2%
· 기도제목

- 장벽을 무너뜨리자**
프랑스에는 복음을 막는 장벽이 많다. 주지주의, 합리주의, 만연한 신비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제도적인 가톨릭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 영적 회복을 위해**
개혁교회 목사들은 보통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고 일부는 정치에 몰두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가 쇠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견고한 복음주의 신자들이 많이 있다.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순교자였던 조상의 신앙과 헌신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 선교에 눈이 열리도록**
수많은 북아프리카인 들은 거의 회교도이다. 이들을 위해 단지 70명 정도가 전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약 30 만의 유학생들이 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단체와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6월 1일 (토) : 아일랜드 >



· 주요 경기일
6.1(토), 6.5(수),
6.11(화)
· 국가개요

종교 : 기독교 96%, 개신교 4%, 무종교/기타 3.6%
· 기도제목

-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일랜드에 일고 있는 영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일랜드는 교인에 비해 선교사 파송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가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나라에서 유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복음주의 가톨릭 운동을 이용해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하자.
- 이 나라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아일랜드는 인구의 반이 28세 이하인 젊은이의 나라이다. 그들은 복음에 가장 민감하다. 더 많은 아일랜드 젊은이들이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자.
- 선교사역에 열매를 맺도록**
선교사들은 아일랜드 26개 주에서 사역하고 있다. 독특한 아일랜드의 상황에서 조화롭게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6월 2일 (일) : 세네갈 <



· 주요 경기일
5.31(금), 6.6(목),
6.11(화)
· 국가개요

종교 : 회교 90.8%, 개신교 0.11%
· 기도제목

- 회교 공동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고도의 조직력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수피 회교공동체는 자신들이 전체 회교도의 85%를 차지한다고 단언하며 자신들이 타종교에 대해 관대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대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성도들의 양육과 전도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은 적지만, 신학교육을 받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토착인 전임 사역자는 많아야 100명 정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양육하며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어린이와 청년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많은 청년이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모인다. 보수적인 회교에 대한 이들의 헌신도는 그리 높지 않으며, YWAM, 기드온협회, 몇몇 교회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9·11 대참사'로 비로소 그 존재가

◁ 아프가니스탄 정탐기 ▷

1. '9·11 대참사'로 비로소 그 존재가 드러난 나라
2. 희망을 일구는 아프간 사람들
3.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프가니스탄 정탐 경로



아프가니스탄은 전쟁박물관(?)

"마인(mine, 지뢰)"
만년설이 덮인 힌두쿠시 산맥을 영상에 담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가는 김창욱 전도사를 향해 긴 수염에 검정 터번을 두르고 있는 사내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4시간마다 7명이 지뢰를 밟습니다. 오늘 혹은 내일, 그들 중 한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프간에는 빨간 페인트로 해골을 그려 놓은 이런 경고 팻말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다.

각 부족들이 다른 부족을 대상으로, 침략국가가 아프간을 대상으로 물어 놓은 1,000만개 이상의 지뢰는 아프간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다. 아프간에는 지뢰를 밟아 죽거나 팔, 다리, 눈을 잃은 사람들이 허다했다. 작은 도시 폴이콤폴리(Pol-e Khomri) 시장에서 만난 어느 사람은 의족 대신 몸 에다 삼을 묶고 그것에 의지해서 걷고 있었다.

카불(Kabul)에서 바그란(Bagram)으로 가는 도로 바로 옆에서는 군인들이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땅을 흘리고 있었다. 지뢰 제거 작업을 위해 아프간 땅을 밟은 캐나다 인들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며 그냥 돌아가 버린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아프간은 한마디로 전쟁박물관이었다.

카불로 달려갈수록 전장의 흔적이 선명했다. 마치 이정표처럼 길가에는 수많은 탱크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모두 부서져서 한 쪽으로 고꾸라져 있었다. 여기 저기 엎어지고 나자빠진 장갑차, 대포, 기관총, 트럭, 지프, 컨테이너들이 길에 널려 있었다. 드문드문 계곡에도 부서진 탱크가 코를 처박고 있었다. 뽕잎계 휴먼지를 뒤져서 쓴 이 무기들이 치열한 전투를 웅변하고 있었다. 오싹 소름이 돋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을까?"

아프간 여성은 얼굴이 없다

카불로 가기 위해서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야 했다. 워낙 험난한 길이라 진입로에서부터 총을 든 군인들이 통제했다. '통과'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만년설이 녹아 강물이 되어 흐르는 계곡물에 발을 담갔다.

거기서 아프간 아낙을 만났다. 둥글넓적한 바위에 걸터앉아 아이의 머리를 어루무듬고 있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얼굴이 없었다. 바깥 세계와 얼굴을 차단한 '부르카', 그 속으로 비치는 햇살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는 감옥의 창살을 떠올리게 했다.

이슬람 여성들은 초경이 시작되는 13살이 되면 이 유를 불문하고 집을 나설 때는 자신의 얼굴과 몸을 감싸는 긴 너울 차도르(chador)를 써야 한다. 부르카는 차도르와는 다르다.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를 모두 덮어 씌워버리는 데다 외부와의 유일한 통로인 눈 부분도 망사로 덮어 외부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얼굴은 물론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외부에 노출 시켜서는 안 되기에 이 같은 자루를 쓰고 다니는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장악한 1996년부터 그동안 제한적으로나마 주어졌던 여성의 교육, 노동, 여행, 위생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다. 직장과 학교에서 내쫓았다. 여성들은 가정에 갇혀 지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바깥출입을 하려면 부르카를 꼭 착용해야 하고 반드시 어린 아이라도 남자를 대동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탈레반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몸을 드러내는 것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하여 공중 목욕탕을 폐쇄시켰다. 종교음악이 아닌 그 어떤 음악도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상영도 금지시켰다. 정신을 타락케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종교경찰을 두어 감시했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쥔 그들이 만들어 낸 첫 작품이 부르카였다. 그들은 구원과 평화의 이름으로 씌워 테러를 자행했다.

카불로 가는 길은 정말 멀었다

더위와 기다림에 지쳐 이제는 짜증이 났다. 오후 2시, 3시, 5시... 약속시간이 계속 뒤로 밀렸다. 다시 막사를 찾았다. 약속한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고 묻고 있는데 통통한 사내가 들어섰다. 이 사내가 상사인 듯 이제껏 협상했던 녀석이 슬그머니 뒤로 빠졌다.

"오늘은 못 갑니다. 일요일 새벽 6시에 다시 오세요."

이를 뒤에나 보내주겠다는 말이다. 김창욱 전도사가 다시 설득하기 시작했다. 무전기를 붙들고 무엇



이라 외치는 소리를 "아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머리를 일으키며 웃는 극한 상황 속의 아프간 여러 종족의 남에게서 초소의 경이다. 묘한 승리감에 휴산을 계속 오르 보였다. 아프간의 바로 아래였다. 날지도 누런 황금색에 걸렸다.

해발 3,363m, 만었다. 이제 황혼은 은 어둠 속에 그 컴해지면서 세찬 아직 풀리지 않았고 있는 웃은 모두 깨운 담요까지 덮이지 않지 재채기를 거꾸 끼게 하였다.

침묵같은 어둠이 고 돌았다. 파도가 찰차는 요동쳤다.



들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 흩나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쩔 수 게서, 오랜 시간 같은 처지에 놓인 나사람들과 대화하게 하였던 하나 키 군인들의 마음을 돌려 놓으셨 흩바람마저 구수했다. 다보니 어느새 산마루가 저만치 병산이라 불리는 힌두쿠시의 정상 이 저물면서 황혼이 깃들었다. 붉 같지도 않은 오묘한 빛이 산마루

년설 아래에서의 일몰은 무척 짙 사라지고 거대한 힌두쿠시 산맥 립자를 물었다. 사위가 갑자기 컵 눈보라가 몰아쳤다. 막힌 터널은 나. 가방을 열어 주섬주섬 걸칠 수 내어 꺼입었다. 훗시나 하여 가져 가. 김창옥 전도사는 몸이 으스스 들었다. 배고픔은 추위를 더욱

꺾린 굵이 굵이 산길을 수십 번 돌 심한 바다를 향해하듯 소련제 승 굴긴 다리, 무너지고 패인 도로...

최악의 도로였다. 오후 11시 30분, 새벽에 출발하여 17시간 30분이 흘렀건만 이제 겨우 켈잔(Khenjan), 짐을 풀었다. 카불의 통금시간이 오후 10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 지쳤다. 마지막 이 샤프르(Mazar-e Sharif)에서 카불까 지, 지도에 나타난 거리는 분명히 서울에서 부산까 지의 거리에 못 미치는 430여km였는데 전쟁이 휩쓸 고 간 아프간의 길은 너무나 길고 험했다.



'아프간의 수도, 카불로 가는 길은 정말 멀었다.'

사막에서 동남이라도 해야지요

드넓은 소말리 평원을 벗어나 낮은 언덕을 넘자 고산준령으로 싸여 있는 넓은 분지가 나타났다. 이름 그대로 난공불락의 천연요새, 카불이 한 눈에 들어 섰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나지막한 흩집들이 아무 드 살지 않는 거대한 유적지 같았다. 카불로 진입하 는 도로 옆 담벼락 곳곳에는 총탄, 포탄자국이 선명 했다. 구 소련과의 전쟁 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건물 들이 늘어서 있었다. 무자헤딘 훈련 캠프, 군부대 같 은 건물을 지나자 초입에 시장이 하나 있었다.

부서지는 아침 햇살 아래 카불의 일상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거리는 차들로 뒤엎기고 시장은 생필품과 먹거리로 넘쳤다. 시가지 구석구석에는 노 짐상과 인파로 붐볐다.

겉보기엔 무척이나 평화스러웠지만 카불 시내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를 읽을 수 있었다. 어디 한 곳 성 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택가와 길 하나를 이 웃한 마을 전체가 폐허처럼 보였다. 대로를 따라가다 만나는 로터리를 끼고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의 잔해 가 풀풀 날리는 매연과 흩먼지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카불시내에서 4km쯤 떨어진 바코우(Bakow) 마을 을 찾았다. 텅 빈 유령의 마을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공동묘지로 길이 열리는 마을 전체가 흩들의 무덤이 었다. 허물어진 채 서있는 흩벽이 겨우 주저의 전해 임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살고 있는 집집마다 총 탄 자국과 불에 타 그을린 자국이 선명했다. 갈대와 풀로 엮어 만든 허름한 움막, 흩벽들을 쌓아올려 만 든 집에는 방 두 칸과 부엌 한 칸이 있었다. 열려 있 는 방에는 옷가지 몇 점이 걸려 있었다. 마당과 높이 가 거의 같은 방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다. 살림 의 전부였다. 이런 세대가 57구 정도 한 지붕 밑에 모여 살았다.

마을을 돌아서 나오는데 세찬 흩바람이 몰아쳤다. 황량해진 격전지를 쓸고 지나는 흩바람이었다.

사만간(Samangan)에 있는 난민촌은 강을 끼고 있었다. 물이라도 있어야 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가엔 아낙들이 물을 길거나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집이라야 천으로 덮은 텐트가 고작이다. 납 작한 천막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요즘은 구호품 도 귀해 '풀죽'을 끓여 연명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 이 남루한 땅을 뒤적이며 먹을 수 있는 들풀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어진 가뭄이 이들의 삶 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이제는 이 난민촌마저 살 곳이 못되어 떠나는 사람 이 많다고 했다.

'오늘은 흩바람이 찾아들어 하늘이 청명하네 여전 히 먹을 것은 없어요. 사막에서 동남이라도 해야지 요.'

아들이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다.

통계숫자로만 기억되었던 '아프간'

아프간은 전쟁과 폭력에 멍들어 있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다. 5분바 다 한 사람씩 죽어 갔다. 국민의 10퍼센트가 살해되 고, 30퍼센트 650여 만명이 난민이었다. 내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남부에서 북부로, 북부에서 남부로 쫓겨다니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도 지난 20년간 1분 당 한 사람이 난민이 되었다. 세계 헤로인 거래량의 80% 이상을 공급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했다. 엄청난 수익은 마피아의 몫이었다. 산업 시설은 모두 돌 덩이로 변했다. 1,000명당 152.8명 유아 사망률은 세계 1위, 평균 수명 45.4세, 문자 해독률 29%는 세 계 최저 수준이었다.

오랜 세월 되풀이되어 온 전쟁과 폭력이 낳은 이런 현실을 아프간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쟁과 폭력이 가져 온 불행에 익숙해져 있었다. 무 엇보다 전쟁과 무차별 공습보다 더 무서운 또 하나 의 폭력, 전 세계의 '무관심'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정말, 정말 마음 아프게도 다른 세계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 채 통계 숫자로만 기억되었던 아프간은 '9.11 테러 대참사' 로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 었다.

'이제 아프간을 위해, 복음 때문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화율 0%', '전쟁박탈권이 되어 버린 이 땅을 바라보며 차 리리 계속 '무관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답을 주 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 하면 돌들이 소리 지리리라"(눅:19: 40). 아멘.

(다음 주 신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5월 27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2호
 · 말씀: 박종길 목사
 · 문의: 김화주 팀장(011-448-4262)

✱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5월 30일(목)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2호
 · 내용: 정통 유대인의 생활을 그린 이스라엘 영화 카도쉬 상영 및 다과
 · 문의: KIBI (792-7075)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해정 간사(792-7075-6)

아람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교사(유치원, 컴퓨터, 피아노), 커피숍 각1명
 · 마감: 6월30일
선교자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 문의: 571-9535 (timint@hotmail.com)

✱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유급)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자로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현신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 은누리교회 성도로서 선교에 관심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 봉사내용:
 ·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 오후-자유시간
 · 저녁-예배나 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여름 캄보디아 아웃리치 팀 모집
 · 일시: 7월 12~16일(17일 아침 도착)
 · 모집분야: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등
 · 마감: 5월 말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러시아 여름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지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준비모임
 ·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은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 연락처: 이경환 (016-297-2090)
 정병철(chorri@dau.net)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Let the Nations Come 열방을 예수께로!



2002 월드컵 전도 부흥 집회

5. 28 ^화 ~ 30 ^목, 오후 7:00 ~ 10:00

열방의 이목이 한반도로 향하는 이때에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전도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열방에 주님의 축복을 전하고
중보의 지경을 넓히며
월드컵 아웃리치를 통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성공 월드컵을 위한 전도대회입니다.

- ▶ 강사: 하용조, 존 도우슨
- ▶ 중보기도: 도나 조단
- ▶ 예배인도: 밥 피츠, 이길로
- ▶ 장소: 온누리교회 본당



전도 전략 세미나

Outreach Strategy Conference

5. 29 ~ 30, 10:30a.m. ~ 5:30p.m.

- ▶ 강사: 존 도우슨 (John Dawson)
- ▶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
- ▶ 문의: 함지현 (TEL : 793-9686/교 646)
당일등록: 오전 9시30분부터 온누리교회 신관5층에서 있습니다.
등록비: 20,000원 (일일 등록 가능 10,000원)

- 5. 29 전도의 중요성 / 예수님의 전도 방법 / 실제적인 전도 전략
- 5. 30 예배의 역할 (밥 피츠) / 성령님의 음성 분별하기 / 잃은 자를 위한 전쟁

 온누리교회

OEM · 외국어예배 · 대학부 · 청년부

전국 주요 경기장에서 전도



중국-브라질 전 생중계, 5인 축구대회 개최
띠 기도, 새벽·심야기도회에 성도 참석 당부

21세기 지구촌 최대 축제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 온누리는 지난 5월 29일 서빙고 본당에서 아웃리치팀 발대식을 하고 경기가 열리는 주요 도시로 파송했다.
서울 종로, 상암동, 명동, 수원, 광주, 대구,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아웃리치팀을 파송한다. OEM(영

어예배)은 우리 나라를 찾은 축구팬을 대상으로 5인 축구 대회를 개최한다. 축구대회는 6월 5일, 10일, 14일 오후 1시부터 이촌 한강둔치에서 열리며, 예비모임은 정오에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한다.
대학부 요한공동체는 지난 5월

31일 상암동 구장에서 전도를 했고, 6월 9일과 25일에도 상암동 구장 주변에서 전도집회를 연다.
서빙고 청년부는 6월 13일 중국어예배팀과 협력해 중국-터키전이 열리는 인천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오후 1시30분부터 찬양과 위십, 마임, 태권무 등으로 복음을 전하며, 각국어로 제작된 전도지를 나누어 줄 계획이다.
양재 청년부는 다락방별로 전도팀을 구성, 인사동, 이태원, 덕수궁, 남대문, 상암동 등을 집중적으로 전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어예배는 지난 1일 인사동에서 전도대회를 했으며, 8일 오후 7시 서빙고 경천홀에서는 빅스크린을 통해 중국-브라질전을 중계하며, 중국인들을 전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12일과 13일 교회와 상암동에서 전도집회를 한다.
한편, 9백60시간 연속 띠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서빙고와 양재 성전 새벽기도회와 심야기도회(인도:강부호, 김영희 목사)에서 월드컵 전도를 위한 특별기도를 한다.
기도회 인터뷰 5면
서철 chol@onnuri.or.kr

아프간 사진전



아프간 사진전이 이번주 서빙고 성전, 다음주 양재 성전에서 격주로 열린다. 이 사진들은 제 1차 아프간선교 정탐여행에서 장선철 편집국장이 찍은 것이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아프간 상황과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모습이 130여 컷의 사진에 담겼다.
· 서빙고: 5월 31일~6월 6일
· 양재: 6월 7일~13일
전성희 shee@onnuri.or.kr

2천선교팀, 선교관련 세미나 마련

공동체·리더 선교훈련 시작

월드컵과 본격적인 아웃리치 계절인 여름을 앞두고 2천 선교팀은 온누리교회에 주신 '2천/1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두 가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온누리 리더십 선교캠프'

온누리 장로와 공동체 다락방장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양지 온누리선교훈련센터에서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장로와 공동체 다락방장은 일정을 고려해 3회 중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강사는 이재환 선교사다.
· 1기: 6월 13일(목)~15일(토) 13일 오후 1시 출발(개별출발시오

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2기: 6월 17일(월)~19일(수) 17일 오후 1시 출발(개별출발시오 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3기: 6월 21일(금)~23일(주일) 21일 오후 5시 출발(개별출발시오 후 7시까지 양지 도착)
· 참가비: 2만원
· 문의: 2천선교팀(교216, 239)

'제1기 온누리 선교세미나'

아웃리치를 준비중인 온누리 공동체를 돕기 위해 열린다. '도대체 뭘하지?'라는 주제로 김형익 선교사, 김마가 선교사, 주누가 선교사, 임도마 선교사는 생생한 선교 현장



의 모습과 함께 아웃리치 준비 요령, 선교사를 잘 돌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등을 나눈다.
한편, 2천선교 기도모임은 이 세미나로 대체한다.
· 일시: 6월 11일~7월 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황민식 간사(교 208)
서철 chol@onnuri.or.kr

01

시 론

선교는 눈물이다



박종길 목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먼 길을 헤매이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도 역시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성령님이 마음도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입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떠나는 것, 그것이 선교이다.

선교는 눈물이다. 선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사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처럼(눅 19:41),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했던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

냈다(행 20:31, 고후 2:4). 그렇게 선교는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삶의 조각들을 현지에 남기는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선교사는 눈물로 현지인의 발을 적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종말을 미리 보고 울었던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어느 선교사의 고백

지난 번 어느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다가 혹 선교지에서 어려운 점은 없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주저하시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겪었던 자녀의 아픈 이야기를 하시며, 선교사님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다. 눈물! 선교사님의

눈을 바로 쳐다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슴이 미어져오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어디 자녀의 문제만 눈물을 흘리게 되는가? 풍토병으로 인한 고통,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일상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하루 하루, 비자가 해결되지 않아서 비자가 우상이 되어가는 현실, 점점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관심 등등. 그러나 고통 없는 열매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선교가 어디 있는가!

선교의 새로운 방향

이제 월드컵과 함께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많은 공동체와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선교지를 경험하게 되고,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된다. 특별히 이번 여름 아웃리치는 단순한 방문이나 일방적인 복음 선포에서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며, 장기적인 관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실시되는 첫 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눈물이다. 주님이 흘리신, 바울이 흘린, 우리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흘린 눈물이다. 왜냐하면 선교는 눈물이기 때문이다.

02



■ 만남 : 월드컵 아웃리치 담당 강부호 목사

“지금이야 말로 기도할 때”

▷ 이번 월드컵아웃리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영어예배를 중심으로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예배팀과 청년 대학부가 아웃리치팀을 조직해 활동중이다. 이들은 월드컵 경기장과 주요 도시를 방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개막식이 열린 31일부터 팀이 활동하고 있다.

▷ 피 기도 외에 새벽기도회와 심야기도회에서도 중보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들었다

- 그만큼 이번 아웃리치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2천/1만 비전'을 주셨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외국으로 나갔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나라는 사실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 나라로 왔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이번이야 말로 복음을 전할 절호

의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기도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 기도에 동참해 '2천/1만 비전'의 주인공이 되고, 바람직한 개인기도 습관을 갖게 되길 바란다.

▷ 기도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 물론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전도지와 족성경을 후원할 성도도 필요하다. 각 순과 공동체에 서도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철 chol@onnuri.or.kr





‘희망’을 일구는 아프간 사람들

◁ 아프가니스탄 정탐기 ▷

1. '9·11 대참사'로 비로소 그 존재가 드러난 나라
2. 희망을 일구는 아프간 사람들
3.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나"

아프간 사람들의 아침시간은 무척 일렀다.

"알라후 아크바(Allahu Akbar)..."

새벽 3시 50분. 모스크에 있는 부속시설 높다란 뾰족탑 미나렛(minaret)을 통해 흘러나오는 아잔(adhan)이다. 무슬림은 예전한 아잔 소리에 알라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믿는다. 아프간 사람들 역시 아잔 소리를 들으며 알라의 계시가 가브리엘 천사의 낭랑한 목소리에 실려 무함마드의 권전에 닿았을 때의 황홀경을 맛본다고 한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 무에진(muazzin)이 육성으로 들려주는 아잔을 들으며 아프간 사람들은 새벽을 깨웠다.

부서지는 새벽 햇살이 시가지 구석구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이제 새벽 6시를 조금 넘겼는데도 아프간의 도시 시장은 노새, 마차, 자전거, 택시, 트럭으로 뒤덮이고 인파로 붐볐다. 생필품 가게, 먹거리를 파는 노점

상, 자동차 정비소, 자전거포, 목재상, 휴복들을 파는 건재상 주인들의 손이 바빠 움직였다. 외국인이 탄 차를 따라 아프간 동치 돈을 손에 든 암달러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 다녔다. 아이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날랐다.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서 만나는 사골은 아침 시간이 더 이른 것 같았다. 농부들이 무리를 지어 밭을 갈고 목화씨를 뿌렸다. 고개 속인 밀밭, 맛깔스런 향내를 내뿜는 석류밭, 탐스럽게 열매맺은 호두밭에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마을마다 무성한 아몬드나무에서 따온 오디를 한 대접씩 담아 둔 아이들은 휴식을 위해 잠시 멈춘 자동차로 달려들며 이방인에게 사달라고 채근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목초지를 찾아 가축 떼를 이끌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들의 발길도 보였다. 땀감을 가득 실은 나귀를 끌고 가는 일은 아이들의 몫이었다.

'남은 건 총과 휴편'이라는 폐허에서 살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은 참으로 부지런했다. 아프간 사람들의 아침시간은 무척 일렀다.

또 한 번의 부흥을 소망하는 아프간

늦은 봄 아프간의 하늘은 우즈베크와 아프간을 경계짓는 국경도시 테르미즈(Termiz)를 지나 사막을 달려 올 때 만났던 흙바람 회색 빛이 아니었다. 눈이 부시도록 청명한 푸른 빛 하늘이었다. 수없이 되풀이된 전쟁의 황

량함 속에서도 어김없이 봄은 무르익었다. 초원은 상상한 푸른빛이었다. 야생 양귀비가 빨간 자태를 드러내며 군집을 이룬 둔덕은 한쪽의 그림이었다.

"아프간의 그랜드 캐니언"

넓적넓적한 바위들이 층층이 포개져 산 중턱에 피처럼 둘러 협곡을 지나며 감혹 전 도시가 내뿜은 탄식이다. 아프간은 사막, 초원, 계곡, 숲, 만년설, 고원, 과수원, 들녘, 이들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준봉이 어우러져 참으로 아름답다. 은하수가 쏟아지는 밤하늘은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아프간에는 세계 고고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유적이 많다. 힌두쿠시 산맥 한쪽 단애에 세워진 석불이 있는 바미안(Bamian), '황금의 언덕'이라 불리는 탈라 테페(Tillya Tepe), '아리아인의 알렉산드리아'란 뜻을 지닌 헤라트(Herat),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칸다하르(Kandahar), 박테리아 왕국의 중심도시로서 대상무역로 번성하였던 발흐(Balkh), 무굴 제국을 일으킨 바부르(Babur)의 영묘가 있는 카불(Kabul)에는 황금유물이 많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아프간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자원이 엄청나다.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또 한 번의 부흥을 소망하는 아프간은 이런 자연환경을 산업자원, 관광자원으로 활용, 근대화를 꾀한다는 아무진 꿈을 키우고 있었다.

아프간의 진정한 의미는 '교육'이었다

여기 저기 엮여져 있는 장갑차, 대포, 지프, 지뢰가 길에 널린 아프가니스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는 아프간의 소망은 아프간 사람들의 부지런함도 아름다운 관광자원도 풍부한 천연자원도 아니었다.

아프간의 진정한 희망은 교육이었다. 학교 건물이 절대 부족하지만 모스크, 나무 그늘, 초원, 시냇가는 그대로 훌륭한 교실이었다. 칠판만 있으면 교사와 학생이 둘러앉는 곳이 배움터였다. 버려진 탱크 잔해는 아이들의 놀이구였고, 뒤집어진 차량의 편편한 면은 칠판으로 사용되었다. 얇기 좋은 돌을 모아 만든 의자에서 하루 3시간, 배움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다. 유니세프가 마련해 준 천막은 훌륭한 학교였다. 폭격을 받지 않아 결모양이 멸망한 도시 학교에서는 교실이 절대 모자란 건물용 여러 학년이 교대로 사용했다. 3부제 수업을 하고 있었다.

길가의 풀을 뜯어먹으며 말 그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난민촌의 굶주린 아이들도 배움에는 열심이었다. 굶을지언정 배움의 열정을 식힐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동과 갈대지붕만 있는 움막에서 선생님 따라 코란을 읽는 아이들의 외침은 합창이 되어 난민촌의 희망을 꽃피우고 있었다.

비록 유니세프에서 구호품으로 나눠 준 코란과 선생님이 들고 있는 얇은 필사본 한 권을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바라보며 아프간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을 견디며 내면서 힘껏 살아보겠다고 인간힘을 쓰고 있었다. 1천 3백년 이슬람의 결론이 전쟁과 폐허와 굶주림이기에 살아가지가 너무나 힘든 척박한 땅 아프간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희망을 일구하고 있었다.

생명이 없기에 결코 찾을 수 없는 이유들, 복음이 없기에 결코 일굴 수 없는 희망을...

(다음 주 신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아프간의 진정한 희망은 교육이었다. 나무 그늘, 초원, 시냇가는 그대로 훌륭한 교실이었다. 하루 3시간, 배움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다. 유니세프에서는 문구세트를 구호품으로 나눠주었다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미션 월드컵

"출전국을 위해 중보합시다"

960시간 띠기도
(5.22~6.30)

- 월드컵 전도축제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 이 기간을 통해 은누리교회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배우게 되도록.
- 개인전도를 통해 전 성도가 타 민족을 향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5/31~6/25 대학부, 청년부, 영어예배, 은누리미션 등 각 아웃리치 팀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열매가 있도록.

< 6월 3일 (월) : 카메룬 >



· 주요 경기일
6.1(토), 6.6(목), 6.11(화)
· 국가개요

1. 면적 : 465,000km². 북부는 비가 적은 건조지대, 중부는 초원지대이며 남부는 강우량이 많은 삼림지대.
2. 종족 : 260개가 넘는 언어, 500개가 넘는 종족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복잡한 나라.
3. 종교 : 기독교 63.2%(개신교 22%), 회교 24%, 부족종교 12%.

·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찬양하자 종교의 자유, 교회성장, 전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2. 교회의 영적 성장과 연합을 위해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선교사들의 1세기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기독교가 중부와 남부에서 우세하다. 90년대 이후 계속되는 교회변혁을 위한 복음화 비전과 연합을 위해 기도하자.
3. 성경번역을 위해 카메룬의 275개 언어 중 단지 32개만 성경 또는 신약이 번역되었고 125개 언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토착어 성경이 부족해 교회가 영적으로 빈곤하다. 성경번역 사역에 많은 사역자들이 동참하도록 기도하자.
4. 북부지역에 강한 복음 증거가 있도록 북부는 여전히 개척지로 기독교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지역에서 루터교 형제회 선교사들, 독일 침례교, 순복음 선교회의 공헌은 매우 결정적이며 이 나라의 어떤 지역보다도 교회의 성장이 빨랐다. 이런 새로운 교회가 회교도와 이교도에 대해 강력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도하자.

< 6월 4일 (화) : 우루과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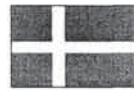
· 주요 경기일
6.1(토), 6.6(목), 6.11(화)
· 국가개요

1. 면적 : 176,000km².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 라플라타강 어귀에 위치.
2. 종족 : 스페인어 사용 92.9%(스페인계, 이탈리아계 25%), 기타 소수 종족 7.1%
3. 종교 : 기독교 61.1%(개신교 3.63%), 유대교 1.7%, 기타 37.2%.

· 기도제목

1. 사단의 세력이 꺾이도록 우루과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잘못된 영을 따르고 있다. 브라질의 심령술은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쳐 현재 등록된 마술 센터는 개신교회 수보다 많은 1,200개이다. 그 외에도 물문교, 여호와의 증인과 새사도교회 등이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다.
2. 개신교회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 1986년 이후 오순절교회와 침례교회의 성장이 갑자기 가속화되었다. 계속 모든 교회가 새로운 영적 관심을 잘 개발하도록 기도하자.
3. 훈련된 사역자를 주시도록 우루과이 선교는 개척단계는 지났으며, 미전도 지역이 거의 없다. 이제 교회의 충성된 사람들이 훈련되어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도록.
4.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단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교제하며 동역하도록 기도하자. 20세기 지도자 훈련과 세미나,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자.

< 6월 5일 (수) : 덴마크 >



· 주요 경기일
6.1(토), 6.6(목), 6.11(화)
· 국가개요

1. 면적 : 44,500km²,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의 유트란드 반도에 위치.
2. 종족 : 덴마크인 96.9, 기타 3.1%.
3. 종교 : 기독교 91.3%(개신교 90.1%), 회교 1%, 유대교 0.16%, 무종교/기타 7.5%

· 기도제목

1. 성령의 역사를 위해 인구의 90%가 교회와 공식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출석은 1%~4%밖에 되지 않는다. 세속주의와 뉴에이지로 돌아선 신자 가운데 성경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
2. 복음주의 신학생들이 속히 배출되도록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적이어서 복음주의 사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보수적인 루터파 신학은 사실을 확증하고 학생을 놀라고 있다. 이곳의 졸업생들이 사역을 준비하도록 기도하자.
3. 선교에 대한 관심이 높고 헌신하도록 선교에 대한 비전은 이웃 노르웨이에 비해 약한 면이다. 덴마크인 선교사 390명의 대부분은 복음주의자이지만, 1970년 이후로 선교사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후원과 관심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4. 교회의 영적 영향력이 자리도록 동양 종교 운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덴마크인 중 거의 1/3이 환생을 믿고 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이 가르침에 대항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회에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 6월 6일 (목) : 독일 <



· 주요 경기일
6.1(토), 6.5(수), 6.11(화)
· 국가개요

1. 면적 : 357,000km². 전략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함.
2. 종족 : 독일인 93.4%, 유럽인 집단 1.74%, 중동인 2.71%, 아시아인 0.25%, 기타
3. 종교 : 기독교 75.8%(개신교 37.1%), 회교 2.5%, 기타 0.1%

· 기도제목

1. 영적 질병, 영적 무지함이 깨지도록 영적 질병의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고독, 삶의 의미 상실, 공허함은 많은 사람을 슬, 마약, 점성술, 신비주의 그리고 뉴에이지적 사고로 몰고 갔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교회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2. 교회가 생명력을 되찾고, 지도자들이 변화되도록 독일 개신교회 교인의 5%, 카톨릭의 25%만이 활동적으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 새로 생기거나 독립적인 교회 그리고 몇몇 카리스마적 교회만 성장하고 있다. 전도활동을 약화시키는 개신교, 복음주의, 카톨릭간의 내부 분열이 없어지고 정의, 거룩한 생활, 복음전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3.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도록 선교에 대한 비전은 오랫동안 제한받았다. 큰 개신교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매우 적다. 교회가 다시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 6월 7일 (금) : 사우디아라비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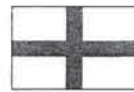
· 주요 경기일
6.1(토), 6.6(목), 6.11(화)
· 국가개요

1. 면적 : 240,000km². 아라비아 반도의 대부분을 차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전세계 석유 매장량 가운데 25%를 보유
2. 종족 : 토착인 75%, 아랍인 16%, 아시아인 7%, 아프리카인 1.4%, 서구인 0.6%
3. 종교 : 회교 93.4%, 기독교 4%(개신교 1%), 기타 1.4%, 힌두교 0.7%, 불교 0.5%

· 기도제목

1.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때 기독교 인구가 많았지만 1,300년 전 회교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추방당했고 지금은 자구상에서 복음화가 거의 되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 기독교 사역자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고, 일체의 '포교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기독교인은 누구도 회교의 성자인 메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하루 속히 이 나라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자.
2. 그리스도인의 안전과 법이 바뀌도록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우디인은 누구든지 사형을 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992년에 한 사우디인이 공개 참수형을 당했다. 믿는 자들이 보호받고 그 숫자가 증가하며 사우디에서 기독교가 합법화 되도록 기도하자. 그들이 안전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6월 8일 (토) : 잉글랜드 <



· 주요 경기일
6.2(일), 6.7(금), 6.12(수)
· 국가개요

1. 면적 : 130,400km²
2. 종족 : 잉글로색슨 92.1%, 아시아계 4%, 아프리카인 1.7%, 중동 0.45%, 기타 0.75%
3. 종교 : 기독교 65%, 회교 2.5%, 유대교 0.6%, 회교 2.5%, 힌두교 0.7% 기타 0.7%

· 기도제목

1. 교회가 회복되도록 65%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인의 10%와 어린이의 14%만이 주일 교회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성령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도록 기도하자.
2. 잉글랜드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잉글랜드인의 60% 이상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잉글랜드는 네 왕국(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중 가장 세속적이다.
3. 사역자들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맞설 수 있도록 잉글랜드의 도시들, 특히 런던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왔다가 곧 잊혀져 버렸던 영적인 패허의 땅이다. 죽어가는 회중, 닫혀진 교회 그리고 회교사원이나 힌두사원으로 변해가는 교회들... 많은 사역자가 세워져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맞서 사역하도록 기도하자.
4. 시골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시골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 세기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거주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금 낙담한 회중을 회생시키며 닫혀진 교회를 열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 6월 9일 (일) : 스웨덴 >



· 주요 경기일
6.2(일), 6.7(금), 6.12(수)
· 국가개요

1. 면적 : 450,000km².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 산악과 삼림이 많고 국토의 10%만이 경작지.
2. 종족 : 토착인 91%, 스칸디나비아인/발트인 3%, 기타 6%
3. 종교 : 기독교 64.1%(개신교 60.4%), 회교 0.8%, 유대교 0.19%, 무종교/기타 34.9%

· 기도제목

1. 영적부흥이 일어나도록 스웨덴은 유럽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세속화된 나라다. 인구의 5%만이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2. 교회가 복음에 바로 서고, 효과적으로 전도하도록 복지국가의 꿈이 사라져가면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있지만, 메시지는 복음 보다는 뉴에이지의 색채를 띠고 있다.
3. 신학생들을 위해 신학훈련이 가장 큰 기도제목이다. 대학에 2개의 주요 신학교가 있어 많은 목사가 훈련받았는데 이들이 받는 교육은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4. 선교에 헌신이 자리도록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수는 놀랄 정도이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거의 10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중 거의 절반이 오순절교회 선교사들로서 130명의 성인 교인 중 1명이 선교사이다. 청년들이 단기사역뿐 아니라 장기사역에도 헌신하도록 기도하자.

열방을 예수께로!

2002 Revival Meeting
Nov. 28 - 30, 7p.m.



이번 집회는 월드컵 기간 동안 있게 될 아웃리치를 위해 마련되었다. 출정식이 있었고, 일본어예배의 찬양, 밥 피츠의 찬양, 도너 도던의 중보기도가 있었다. 강사인 존 도우슨은 월드컵 아웃리치를 위한 전도전략 세미나를 인도했다. 첫날 집회에서 김사무열 목사는 "월드컵 기간 중에 한 성도가 한 일본인에게 복음을 증거해 달라"며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함께 중보했다.



강사 : 존 도우슨

첫째날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4:4)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일의 동시는 '시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 14:13,14) 하나님이 비기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그것을 갖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시기합니다. 신앙인들도 서로 시기합니다. 시기하면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시기하는 것이 조금씩 다

전도자의 자세

릅니다. 먼저 남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지금보다는 죄가 좀 덜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셔서 대화하셨지만,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 마음을 강박하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말했습니다. 아꿈은 요셉을 존중해주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맙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자신보다 못한 다윗이 자신보다 더 큰 명예를 누리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명예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아직 계시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계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시 중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는 아꿈의 아내 라헬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언니가 먼저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도 몸종 실바를 주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탁월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시기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 106편 16,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땅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단지 불평했을 뿐인데 왜 이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지도자가 갖는 특권을 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미리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을 미리암은 알고 있었지만, 질투가 생기는 순간 모세가 누리는 영광과 특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기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저주는 그 저주를 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시기했던 축복은 결국 얻지 못합니다. (겔 35:11)

월드컵은 자부심의 경쟁입니다. 열방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에서 여러분은 소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위대함과 능력과 힘에 위협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고귀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쓸 면류관은 잠시뿐입니다.

저는 1984년 올림픽준비위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6일 동안 성길 1만1천명의 사역자를 훈련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탈진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제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 때 하나님은 제게 와서 저에게 금메달을 걸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나는 정말 작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환경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제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인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불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공사중입니다. 내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01

2002 청년 여호수아 선교대회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청년 여호수아는 선교대회를 열었다. 온누리교회가 선포한 2천/1만 비전을 새롭게 하고 미전도종족을 재입양했다.

세번의 전체 집회와 선택식 강의 6개로 3일간의 행사가 치러졌다. 첫째날 김형익선교사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한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을 나누고 싶어질 때 바로 선

교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었다. 둘째날, 김사무엘 선교사는 "Why Missions?" 라는 제목으로 선교의 이유와 그 내용을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선택식 세미나는 다양한 주제로 열렸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게한 이경욱 사역자의 '굴방은 열방보다 크다' 라는 세미나에 가장 많은 수의 청년이 참여했다. 중보기도의 목적과 능력, 중보기도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 했다.

탈북자사역을 하고 있는 삼신복 전도사도 북한말씨를 사용해 참여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삼전도사는 북한동포의 문제, 북한선교의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홍주 목사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

의 선교적 가능성' 강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해야할 필요성과 현재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구체적인 현황 등 외국인 선교에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그외에도 >중동지역에서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왜 유럽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가 >미전도 종족입양에 대해 강의했다.

마지막 날(26일) 박종길 목사는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선교는 곧 섬김"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15개 미전도종족을 청년부 각부서가 입양했다. 청년부는 입양한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며 성인공동체와 연합하여 이웃리치를 계획하게 된다.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가 온누리교회의 2천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각인하고 헌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미전도종족을 입양하며

미전도종족의 베일 벗길 터

5월 26일 청년 선교대회 3일째 예배(주일예배)때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각 부서별로 미전도종족을 입양했다. 지금은 각 부서에서 입양한 종족에 대해 기도하며,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하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하면 생각나는 종족이 있다.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넓게 퍼져있는 플라나라는 종족이다. 그중 아다마우라 플라니 족과 약3년 동안 같이 일한적이 있었다.

플라니어 성경도 선물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누는 별 부담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종족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낄수 없었다.

귀국 후 온누리 교회에 다니면서 미전도종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플라니족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다. '자생적인 교회가 없고 스스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종족' 생각해 보니 그 종족 출신 교역자나 복음 전파자는 한명도 만난적이 없었다. 나의 선교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서울 시내에서 만난 외국사람들 중에 몇명은 미전도 종족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각 종족의 역사와 문화상 같은 지역에 산다해도 옆종족에 접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토렘이 다르고, 쓰디 쓴 본쟁의 기억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의 등잔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교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미전도종족 입양은 각 종족가운데 덮혀진 베일을 벗기고 보다 혁신적인 선교역사를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구자현 (2천선교다락방)

*

✦ 온누리리더십 선교 캠프
 · 대상: 장로, 공동체 다락방장
 · 1기: 6월 13일(목)~15일(토) 13일 오후 1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2기: 6월 17일(월)~19일(수) 17일 오후 1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3기: 6월 21일(금)~23일(주일) 21일 오후 5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7시까지 양지 도착) 중 택일
 · 참가비: 2만원
 · 문의: 2천선교팀(교 216, 239)

✦ 제1기 온누리 선교세미나
 · 일시: 6월 11일~7월 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황민식 간사(교 208)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자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현신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선교에 관심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매나 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9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해정 간사(792-7075~6)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간호사, 치과기사, 치과의사, 교사, 유치원, 컴퓨터, 피아노, 커피숍 21명
 · 마감: 6월30일
 선교지용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 문의: 571-9535 (amint@hotmail.com)

✦ 에셀선교회 에셀은혜학교 '성경속의 기도하는 자의 모습'
 · 일시: 6월 17일~19일
 오전 10:00~오후 1:00
 · 장소: 온누리교회
정기기도모임
 · 일시: 6월 10일(월)
 오전 10:00~오후 1:00
 · 장소: 선교관
찬양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양재 비전홀
 · 내용: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돌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

서빙고 증보기도 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셀 사무실 (703호)
 · 내용: 직장인과 청년들에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의 끈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기도모임
 · 문의: 이지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여름 캄보디아 아웃리치 팀 모집
 · 일시: 7월 12~16일(17일 아침 도착)
 · 모집분야: 의사, 간호사, 약사, 마용사, 자원봉사자 등
 · 마감: 5월 말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러시아 여름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지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준비모임
 ·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 연락처: 이경환 (016-297-2090) 정병철(chorn@daum.net)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튀김기
 · 문의: 이경희 간사 (교 514, 017-316-9787)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01



1958년, 28살의 나이에 살인 부족 아우카 인디언에게 죽임을 당한 선교사 짐 엘리엇의 삶과 신앙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선교가 무엇인지 가슴 깊은 곳에 각인시켜주는 책

전능자의 그늘
 엘리엇/복있는사람 / 12,000원

01

'월드컵중국연합선교단'

발대예배



월드컵 중국연합선교단이 오는 10일(월)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발대예배를 드린다.

이 선교단은 중국어문선교 등 교회 및 선교단체들이 처음 월드컵 본선에 참여한 중국팀을 응원하기 위해 방한한 약 5만명의 중국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임시 결성된 단체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국어에 배팅과 청년부(양재, 서빙고), 온누리미션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13일 선교단 2천여 명은 중국 대 터키전이 열리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도한다. 중국팀을 응원하고 바다페인팅해주면서 전도, 예수영화 CD와 복음소책자 전달등으로 전도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아웃리치 지역 발표, 기능스쿨 운영

여호수아 공동체(양재 청년부)가 여름 아웃리치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표1 참조)

여느 해와 달리 이번 아웃리치 지역 선정은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청년 여호수아에서 파송한 지체들이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다. 온누리 교회 선교베이스나 선교사, 협력사 역자가 있는 곳이 중심이 된다. 또 국내지역인 경우 지금까지 꾸준히 섬겨온 지역이 선정됐다.

또 땅밭이나 증보에서 진일보하여 봉사나 섬김을 중심으로 섬기게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해왔던 아

아웃리치 스쿨을 하루로 단축하고 기능스쿨을 개최한다.

기능스쿨은 아웃리치 현장에서 요긴한 강좌들이 열린다. 강좌들을 살펴보면 >발마사지 >마임&스킷드라마 >레크리에이션 >음식 만들기 >소그룹 찬양위한 기타교실 >전자침 >장식 >풍선아트 >촬영스쿨등이다. (표2 참조)

이외에도 지역을 미리 정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등 아웃리치를 위한 준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갈 것으로 보인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표 1 아웃리치 지역>

국내 지역				
NO	지역	교회명	일정	팀장(연락처)
1	전북 전주	동승교회	7.말~8.말	박기범(016-377-8884)
2	경남 합천	활망교회	8.초~중	홍보기도(017-220-3035)
3	경남 남해	광천교회	"	"
4	경남 통영	가배제일교회	"	"
5	전남 장성	평강교회	7.말~8.초	오상윤(019-9737-3376)
6	경북 안동	산양교회	7.말~8.초	이용재(016-9202-2242)
7	경북 안동	광역교회	8.1~8.4	직장선교(017-209-2414)
8	경남 하동	화개제일교회	"	"
9	경기 하동	안다움 쉼터	7월~8월	손종길(011-9872-5739)
10	전남 화도	노회도교회	7.29~8.3	이지연(011-9002-4627)
11	충북 천안	단비교회	7월~8월	농어촌선교(019-371-1296)
12	경남 산청	모래교회	7.19~7.24	유충선(011-244-4221)
13	경남 산청	상당교회	7.말~8.초	문서출(016-786-0681)
14	전남 화도	노회도교회	8.6~8.11	아수경(011-9099-0913)
15	육지도	육지서부교회	7.말~8.초	영상선교(019-323-5194)
16	충남 금산	기물리교회	"	김세중(017-264-2383)
17	강원 묵호	참빛교회	"	예배사랑(011-246-2251)
18	제주	활명교회	7월~8월	박재호(017-291-7877)
19	경남 산청	평지교회	"	강근식(016-9304-9276)
20	충북 음성	생평공동체교회	"	최소년선교(011-9767-0485)
21	경남 통영	도산제일교회	"	"
22	충북 단양	느티교회	"	공활가정선교(016-289-4121)
23	경남 통영	방주교회	"	"
24	경남 통영	용남교회	"	청년장애우(011-9875-9129)
25	경기 파주	적암중일교회	"	안재용(011-9908-3989)
26	강원 강릉	보광교회	8.중	임희조(017-704-1429)
27	경북 울진	성산교회	7.20~7.25	하·가·선(011-9954-1058)
28	제주	신도교회	8.3~8.9	"

해외 지역 (단위:만원)

NO	지역	기간	일정	비용
1	일본 오사카	7~8월	4~7	60
2	일본 동경	7~8월	4~7	60
3	일본 우에다	7.15부터	4~7	60
4	일본 삿포로	7~8월	4~7	60
5	모잠비크 마푸투	7~8월		200
6	러시아 모스크바	7~8월		120
7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7~8월말	7~10	110
8	캄보디아 프놈펜	7월중~8월말	7~10	100
9	방글라데시 다카	7~8월중	4~5	140
10	이스라엘 예루살렘	7월하순~8월	10	200
11	중앙아프리카 T시	7월말까지	7~10	120
12	중앙아프리카 B시	7중~8월	10~20	150
13	T국 A시, E시	A지역 참조	10~15	150
14	요르단 암만	7~8월		160
15	모로코	7~8월		180
16	스리랑카 콜롬보	7~8월	7~10	100
17	인도 벵갈	7~8월		120
18	A국 A	7~8월		70
19	A국 B	6~9월	7~10	100
20	A국 C	7.25~8.15	7~10	100
21	A국 D	7~8월	5~10	70
22	A국 E	7~8월		70
23	A국 F	8.5~15	7~9	70
24	A국 G	7.19~29	7~10	70
25	A국 H	6~8월	5~10	70
26	A국 I	7~8월		100
27	몽골 초야발산	7월중~8월	7~10	90
28	멕시코 오하카	7~8월	7~10	220
29	타타르스탄 카잔	8.2~9	8	140
30	예멘	7.27~8.4	9	180
31	영국	7.27~8.4	9	160

<표 2 기능스쿨>

제 목	일 정	장 소
발마사지	6.10 ~ 7.15(월) 20:00	온유, 절제성전
마임 & 스킷 드라마	6.17 ~ 7.8(월) 19:30	비전홀
레크리에이션	6.25 ~ 7.9(화), 20:00	콘서트홀
음식만들기	6.25 ~ 7.9(화) 20:00	식당
기타 교실(초, 중급)	6.13 ~ 7.25(목) 20:00	두란노홀
전자침	6.20 ~ 7.11(목) 19:30	화병, 인내성전
장식/데코	6.15 ~ 6.29(토) 17:00	경찬홀
풍선아트	6.24 ~ 6.25(월, 화) 10:30, 13:30, 19:30	
촬영스쿨	6.15 ~ 6.22(토) 15:00	시온홀

●양재 영어새벽예배 1주년 감사예배



'더 깊은 예배로 초대'

지난해 시작된 양재 영어새벽예배가 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한다. 이땅의 청년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며, 선교사들을 중보하며, 나아가 예배자들이 주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에 나아가 하신 새벽을 여는기도,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데릭 황(Derek Hwang(OEM)), 이은규 목사(Leo Rhee(OIC)), 손정훈 전도사(Francis

자하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오는 6월10일(월)부터 12일(수) 까지 '예수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열린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신 새벽을 여는기도, 열방을 품는 중보기도,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데릭 황(Derek Hwang(OEM)), 이은규 목사(Leo Rhee(OIC)), 손정훈 전도사(Francis Son(청년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전한다.
손정훈 전도사는 "영어 새벽예배가 더 깊은 예배와 기도로 세계부흥의 도화선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영어새벽예배는 매일 오전 6시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화평/인내성전에서 찬양, 말씀, 기도의 순으로 진행되며 특별집회기간에는 특송과 헌금시간이 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2천선교팀, 선교관련 세미나 마련

공동체 · 리더 선교훈련 시작

'온누리 리더십 선교캠프'
온누리 장로와 공동체 다락방장을 대상으로 공동체 리더 선교훈련이 2박3일간 양지 온누리선교훈련센터에서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장로와 공동체 다락방장은 일정을 고려해 3회 중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강사는 이재환 선교사다.

- 1기 : 6월 13일(목)~15일(토) 13일 오후 1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2기 : 6월 17일(월)~19일(수) 17일 오후 1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3기 : 6월 21일(금)~23일(주일) 21

일 오후 5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7시까지 양지 도착)

- 참가비: 2만원
- 문의: 2천선교팀(교 216, 239)

'제1기 온누리 선교세미나'
아웃리치를 준비중인 온누리 공동체를 돕기 위해 선교세미나가 열린다. '도대체 뭘하지?' 라는 주제로 김형익 선교사, 김마가 선교사, 주누가 선교사, 임도마 선교사는 생생한 선교 현장의 모습과 함께 아웃리치 준비 요령, 선교사를 잘 돌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등을 나눈다. 한편, 2천선교 기도모임은 이 세미나로 대체한다.

- 일시: 6월 11일~7월 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 9:3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황민식 간사(교 208)



아프간 기도모임시간 변경

아프간 기도모임이 시간을 변경해 6월 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선교관 304호에서 모인다. 아프간 기도모임은 아프간에 대해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구하고 있다.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슬람 사역'의 장기 안목

안녕하세요. 주안에서 문안합니다. 통상 3월부터 건기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비가 너무 자주 왔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건기가 시작되나 봅니다. 오전 11시부터 해가 질 무렵 오후 5시까지 실내에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한국의 시원한(?) 겨울철이 얼마나 그리운지요. 날씨가 더우니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온 지 만 4년이 지나면 서부터 쉽게 지치고 피로함을 느낍니다. 요즘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사역이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잠재된 테러 위험

오사마 빈 라덴의 추종 세력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거쳐 말레이시아에서 자주 비밀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과 비밀 경찰들이 배후를 조사하느라 한동안 신문지상은 시끄러웠습니다. 한편 이슬람 세력은 계속 미국을 비롯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교회를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잠재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저희를 긴장케 했던 사건은 어느 선교사님의 사역이 종교 경찰에게 발각되면서 여기

한인 사역자들의 명단이 노출된 것입니다. 아직 별다른 조치는 없지만 앞으로 사역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슬람권 사역에서 방법론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인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 사역의 길 열리길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동역자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진행된 이반족 제자훈련이 올해 5월에도 계획됐습니다. 그동안 함께 동역했던 현지인 교회측에서 여러 사정으로 당분간 사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제자 훈련을 함께 해 온 신실한 형제인데 마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좀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역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곳으로 이동해 오면서 거리가 멀어 사역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시 사려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길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하는 기쁨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로를 많은

지체들을 통해 부여하신 것입니다. 은수리에서 섬기던 장 집사님 내외, 일만사역자로 파송받은 신현두 성도님 내외를 통해 형제됨을 알게 하시고 함께 함에 대한 기쁨을 부여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분들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 타국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서로 본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국에도 머지않아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오겠지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주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2002년 5월 18일
위준호, 강문숙 드림

● 기도제목

1. 저희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 무릎과 알레르기
2.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
3. 이반족을 구체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좋은 사역들이 개발되어 더 많은 기도의 후원자들이 세워지도록.
4. 함께 사역해 오던 Stanly 형제를 위해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안다옥(파송-중앙아시아-인터콤-과천/수원 공동체)
-공예방 직원인 베파/이라데/할리데와 예배 가운데 참 회복을 경험하고, 교회 리더로 세워지도록
-회사 등록 절차가 간편해지고 설비비가 저렴해지도록
-장단기 동역자, 재료 구입을 담당할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김선광/구자현(파송-멕시코-TIM-영동포/구로 공동체)
-게베아의 새로운 사역에 기쁨 부으심이 있고, 오고가는 낭떠러지 길 교통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차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한 사역에 물질적 지원을 주시도록

박항기(파송-한국-GMP-서빙고 공동체)
-매일 주님의 힘과 지혜로 인력개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진디나오 성경 번역을 맡은 부선교사 부부가 언어를 잘 배우고, 그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정재순(후원-파푸아뉴기니-GBT-동작A 공동체)
-사역자인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갈 동안에도 강건함을 주시도록
-예람/예준/예현이가 파푸아뉴기니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정석천/신병연(후원-태국-한국기아대חק기 구-관악/금천 공동체)
-지금까지 받기만 했던 태국 교회가 주는 교회서 기쁨과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6월-8월의 단기팀과의 동역을 통해 효과적인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03



섬김선교지 소개 13 : C국 D시 (섬김 공동체 : 동작B공동체)

주님의 분부를 가르치는 '평화국제학교'

C국의 WTO 가입에 따라 개방되는 서비스 산업에 교육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 분야에서 합의 사항은 C국 학생의 외국 유학파 연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교육, 평생교육, 고등학교 교육은 부분적으로 개방하며 기타 회원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 설립에 공동 투자를 허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어 학습자와 교육 기관이 늘면서 한인 선교사들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한국어 교육을 통한 선교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D시 평화국제학교'도 그 중 하나다.

개방으로 운영 어려운 'D시 평화국제학교'

D시는 C국 화북지구 중앙지향시로 인구 1천만명의 대도시이다. C국 북부 최대 무역항이자, 철도 분기점으로서 육상 교통의 요지이다. 공업이 발달해 있고, 교육 문화시설 등도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D시 평화국제학교'는 국제언어연수학원, 한인 초등학교, 국제아동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여명의 다국적 선교사들이 교사로 동역하고 있다. 1995년 가장 먼저 창립된 '국제언어연수학

원'은 현지인을 위한 성인 문화교육, 외국어 교육 학원이다.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지 사정에 부합되고 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 C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인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복음 전파의 이점을 갖고 있다. 이곳은 해마다 아웃리치팀을 통한 문화교류 행사와 여름계절학교(Summer school) 개설 등을 통해 선교의 다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98년 설립된 '한인초등학교'는 현지 주재 한인 자녀 및 선교사 자녀를 위한 초등교육 학교이며, '국제아동학교'는 현지인 어린이들을 위한 외국어 교육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국공립 각급 학교내에 외국어 교과 과목이 신설되고 많은 사설 외국어 교육기관이 세워지면서 현지인 수강생들이 분산되고 있다. 학교 주변에 다른 한국초등학교가 세워져 '평화국제학교'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세상 끝날까지 준행할 'M28' 사역
'평화국제학교'는 마태복음 28장에 명시된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더욱 적극적으로



으로 감당하기 위해 학원 사역뿐만 아니라 이른바 'M28'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현지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공식 교회와 협력하여 성경학교와 교제를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근 소수종족지역 현지인들에게 영어 캠프와 극빈학생 구제 및 전도사역, 오지에서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방문교실' 사역 등을 현지 선교사와 협력으로 사역하고 있다.

기도제목

- 학생과 영어, 초등학교 교사가 채워지고 시설 보수를 통해 평화국제학교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정도 변화되도록
- 'M28사역'을 통해 훈련되는 현지인들이 모두 충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 50여명의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도록

(자료제공/2천선교)





미션 월드컵

“출전국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960시간 피기도
(5.22~6.30)

- 온누리교회 안에 기도와 전도를 통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월드컵 기간이 온누리 교회가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 아웃리치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을 향한 열정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 6월 16일(주일)에 있을 다민족 문화축제에 온 교회가 참여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 예정되었던 수의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고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 6월 10일 (월) : 파라과이 >



· 주요 경기일
6.2(일), 6.7(금), 6.12(수)
· 국가개요
1.면적: 407,000km. 파라과이강을 사이로 그란차코의 산림과 습지, 농장지가 동쪽의 비옥하고 발전된 곳과 구분되어 있음.
2.종족: 스페인과 구아라니 혼합 종족81.8%, 소수종족 1.5%,
3.종교: 기독교 98.2%(개신교 5.95%), 정령숭배 0.7%, 불교 0.2%, 무종교/기타 0.8%

· 기도제목

1. 정부를 위해 파라과이는 200년 만에 걸친 폭정, 전쟁, 정부의 무능력으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다. 정부가 민주주의, 진리, 정의, 종교적 자유에 기반을 둔 국가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2.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결박 로마 카톨릭 교회가 파라과이의 영적, 정치적 생활을 지배해 왔다. 미신을 믿는 전통, 잡신들의 속박과 관습은 많은 사람이 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3.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규모 전도집회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동역해 왔다. - 더 좋은 훈련과 사역의 준비를 위해, -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양육자에게 좋은 본을 보이도록, - 기도와 성경공부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 복음을 전지역 사회에 전할 수 있는 강한 용기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도록, - 선교에 대한 비전을 교회와 나누도록.

< 6월 11일 (화) : 남아프리카공화국 >



· 주요 경기일
6.2(일), 6.8(토), 6.12(수)
· 국가개요
1.면적: 222,000km.
2.종족: 흑인 72.5%, 백인 14.2%, 유색인(혼혈인) 10.1%
3.종교: 기독교 72.6%(개신교 38.4%), 회교 1.25%, 힌두교 1.7%, 아프리카 전통종교 17.75%, 무종교/기타 6.5%

·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대한 관심과 인종간, 교단간의 기도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신앙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성경에서 모든 주요 인종 그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몇몇 지역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2.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남아공화국 정치적, 영적 미래는 미지수이다. 인종간의 불신, 부정, 폭력, 협력, 상처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성경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며 온전한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도록 기도하자
3. 기독교 문서 보급과 열매를 위해 막대한 양의 인쇄물이 출판되고 있다. 비록 기독교 문서가 잘 보급되는 곳은 적지만 그 문서를 통해 영적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자.
4. 미전도된 지역을 위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인접한 모잠비크에도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자.

< 6월 12일 (수) : 아르헨티나 >



· 주요 경기일
6.2(일), 6.7(금), 6.12(수)
· 국가개요
1.면적: 2,777,000km. 다양한 기후, 강수량, 지형으로 남미에서 두번째 큰 나라
2.종족: 유럽인 84.5%, 아메리카 인디언 3.7% (18 민족), 중동인 4.6%, 기타 0.2%
3.종교: 기독교 95.5%(개신교 8.0%), 회교 1.5%, 유대교 0.7%, 정령숭배 0.3%, 기타 2%

·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찬양하자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의 놀라운 부흥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양한 방법의 복음전도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있다.
2. 영적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는 영적전쟁이 기독교 사역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죄의 노예된 상태와 주술적 행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3. 지도자들이 훈련되도록 교회의 지도력이 교회 성장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정, 시설, 교사의 부족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 사역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학교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몇몇 신학교는 말씀보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기독교인 지도자가 양육, 훈련되어 효과적으로 사역하도록 기도하자.
4. 선교사를 주시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개척과 선교비전을 나눌 선교사가 필요하다

< 6월 13일 (목) : 나이지리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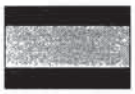


· 주요 경기일
6.2(일), 6.7(금), 6.12(수)
· 국가개요
1.면적: 924,000km. 남부의 열대림이 점차 북부의 사반대로 바뀜. 사막이 북부를 장식
2.종족: 426개 이상의 종족그룹.
3.종교: 기독교 50%(개신교 26.5%), 회교 40%, 전통종교 10%

· 기도제목

1. 주를 찬양하자 부정적인 정치와 경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과 역동성을 인해 주를 찬양하자.
2.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1) 회교는 북부의 체계적인 회교화와 남부의 밀도 있는 회교 선교사 활동을 통해 완전한 통제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북부 기독교인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많은 지역의 교회가 파괴, 폭동, 약탈 등으로 희생되어 왔고 많은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 중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령의 무기로 영적 전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기독교와 전통 미신이 혼합된 토착 영적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 인단이 유입되고 있다. 타협과 거짓의 영이 확연히 드러나 거부되도록 기도하자.
3. 기독교 방송매체를 위해 영화 '예수'가 19개 부족어로 이미 번역되었거나 번역되고 있다. 가능한 한 빨리 번역이 완성되고 TV로도 방영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6월 14일 (금) : 스페인 >



· 주요 경기일
6.2(일), 6.7(금), 6.12(수)
· 국가개요
1.면적: 505,000km. 이베리아반도와 지중해 발레아레스 제도의 주요 지역
2.종족: 스페인 91.6%, 바스크 5.7%, 집시 1.6%,
3.종교: 기독교 79.5%(개신교 0.89%), 회교 0.5%, 유대교 0.03%, 무종교/기타 약 20%.

· 기도제목

1. 영적 생명력의 회복을 위해 가톨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신자의 20%가 세속주의와 무관심으로 돌아갔고 성직자도 매년 2%씩 감소하고 있다. 교회 갱신운동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2. 지도자 훈련을 위해 높은 실업률과 소규모 복음주의 공동체는 회중으로 하여금 전일사역자를 후원하는 일과 주의 사역에 전념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OM과 YWAM의 사역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선교와 봉사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GEM은 14개의 신학교와 성경학교를 세웠고, TEAMO 교회개척 훈련을 위한 신학교를 시작했다. 졸업생들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하자
3. 학생복음화를 위해 1976년 12명의 복음주의 학생이 있었지만, 오늘날 6명의 간사가 섬기고 있는 FES와 관계된 5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대학이 15개이다. 현재 사역이 강화되며 다른 대학과 중등학교까지 확장되도록 기도하자.

< 6월 15일 (토) : 슬로베니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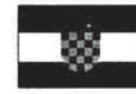


· 주요 경기일
6.2(일), 6.8(토), 6.12(수)
· 국가개요
1.면적: 20,300km.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인접한 고산 지역 국가.
2.종족: 슬라브계 97%, 기타 3%
3.종교: 기독교 82.5%(개신교 1.3%), 무종교/기타 17.5%

· 기도제목

1. 말씀을 통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슬로베니아는 강한 가톨릭 전통을 갖고 있다. 이들의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 슬로베니아 사람들에게 말씀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2. 성경 배포사역을 위해 성경배포가 주요 사역이다. 성서공회는 슬로베니아에 있는 50만 명의 학생과 모든 가정에 성경을 배포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기도하자.
3. 교회개척을 위해 슬로베니아는 종교 개혁 이래로 개신교에 의한 전도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복음주의 교회는 거의 없다. 지역 기독교인과 외국인 기독교인이 슬로베니아의 모든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연합하도록 기도하자.

< 6월 16일 (일) : 크로아티아 >



· 주요 경기일
6.3(월), 6.8(토), 6.13(목)
· 국가개요
1.면적: 56,500km. 다뉴브강과 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국가.
2.종족: 크로아티아인 78%; 세르비아인 8.6%; 집시 2.7%; 기타 10.7%
3.종교: 기독교 88.2%(개신교 0.6%), 회교 대략 5%, 기타 6.8%

· 기도제목

1. 치유를 위해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관계에서 쌍방간에 진행된 과거의 잔혹 행위에 관한 문제 등이 치유되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2. 난민들을 위해 난민 상황은 어려운 상태이다. 수 천명의 보스니아인과 70만 명에 달하는 크로아티아인 역시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쫓겨났다. 크로아티아 교회는 외국 단체와 함께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영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회교도 난민이 기독교 모임으로 인도되고 있다. 교회들이 깨어 서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기도하자.
3. 미전도된 지역을 위해 아드리아해 연안에는 복음주의 신자가 거의 없다. 이스트리아, 자고르제, 달마티아에 더 많은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이 있도록 기도하자.

아프간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하 용 조 목사

의외저 추수하게 되었도다

카불 시내 곳곳에는 역사상 수없이 되풀이 되어 온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4/5 이상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도처에 굶주린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헤매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과 난민의 도시 카불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회어저 추수하게 되었도다”(요4:35).

카불에서 정부 각료들을 만나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정치적으로 조지되지 않은 무정부 상태의 이 나라를 보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저절로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어찌할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셨던 것처럼 이런 탄식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이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폐허된 이 땅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먼저 출발하였던 1진은 2천선교를 책임맡은 김창욱 전도사와 온누리신문 장선철 국장이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육로로 카불까지 정탐하였습니다.

우리 2진은 파키스탄을 통해 아프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

“절망과 좌절과 죽음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 아프간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노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은 종교적으로 암흑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교회도 찾을 수 없는 100%

파키스탄에서 만난 사람들

잠시 머문 파키스탄에서 놀라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금년 3월 17일, 자폭 테러단이 예배 중이던 교회에 수류탄 네 발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피루성이 되었습니다. 다섯 사람이 죽었고 4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2차 수술을 받아야 할 닥터 크리스티입니다. 그의 부인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인데 파키스탄에서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분을 한국

금이 월 50달러입니다. 1천 5백만 원의 빚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분의 치료비 1천 5백만 원을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그 교회는 피아노도 마이크도 강대상도 모두 파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재건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프간에 헌신된 사람이 나와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호소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야 합니다. 어떤 도움도 다 필요한 곳이 아프간입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병원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번 주 비전헌금으로 파키스탄의 교회 건축, 닥터 크리스티 교수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는 일, 에드워드의 빛을 갠 일, 아프간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누리 성도 여러분,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헌신된 은누리 사람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 둘러싸인 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왜 그렇게 핍박받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기아와 질병을 통해 자기의 사랑이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며,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이 땅은 비로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으로 초청해 좋은 병원에서 재검진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빈민촌이었습니다. 폭탄 터질 때 딸이 죽자고, 아들은 발목을 잃었고, 본인은 정강이까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정부에서 치료비를 주지 않고, 교회 역시 담임목사가 없는 상황이고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이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둘째딸이 다니는 오일 컴퍼니의 보증을 받아 1천 5백만 원을 겨우 빌려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의 임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 아프가니스탄 정탐기 ▷

1. '9·11 대참사'로 비로소 그 존재가 드러난 나라
2. 희망을 일구는 아프간 사람들
3.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 벌써 몇 번째인가? 하란을 떠날 때 북으로 주신 언약이 남편 아브람에게 다시 임하였다는 말을 들으며 사래는 마음이 아팠다.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아가며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간절히 기다렸다. 그러나 굳게 닫힌 태는 열리지 않았다.

우르르 쏟아질 듯 하늘에 달려 있는 뭇별을 바라보며 사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곱씹었다. 남편에게 애급 태생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기로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달리 없다는 막다른 생각이었다.

이윽고 하갈이 잉태하였다. 아브람의 총애를 더욱 받게 된 하갈은 사래를 멸시하였다. 하갈은 주인과 여종의 자리를 바꿔달라며 원래 주인인양 행세했다. 사래의 반응 역시 극단적이었다. 잔잔하던 장막에 파란이 일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사래는 하갈을 혹독하게 다뤘다. 마침내 여주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하갈이 도망칠졌다.

하갈은 수르 광야로 가는 길에 한 샘에서 여호와와 사자를 만났다. “사래의 여종 하갈이”, 여호와와 사자가 불렀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창16:9~12).

다시 장막으로 돌아와 여주인앞에 무릎을 꿇은 하갈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은 하갈에게서 들은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들



7세기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아프간에는 4천 8백개가 넘는 모스크가 있다. 「성자의 묘」란 뜻의 마자리 이 사리파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최대의 모스크. 예언자 무하메드의 사위 하지라트 알리의 묘지가 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곳이다.

으셨다는 뜻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 후손이 모든 형제의 동쪽에서 살게 하였다. 아브람의 몸에서 낳 아들이 네 후사가 되리라(창15:4)는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었다.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창16:19).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어미 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었다.

이삭이 태어났다. 장막에는 이삭의 이름 그대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 이삭이 건 강하게 자라나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다. 그 동안 힘들었던 일과 안쓰러웠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다. 모두들 배부르게 먹고 흥겹게 놀고 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짓궂게 놀리며 희롱하는 것을 사라가 보았다.

분노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 부르짖

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창21:10)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득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매워 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장막을 떠나게 했다.

하갈은 고향으로 갈 생각이었다. 남쪽의 뜨거운 모래언덕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가족부대의 물이 다하였다. 눈길 닿는 것이라도 이글거리는 암석사막과 작열하는 태양뿐이었다. 모자는 모래 위에 드러누워 방생대곡하였다.

그 때 목마름과 공포의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창21:17,18).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자 샘물이 보였다. 그곳 비란광야가 이들 모자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마엘은 활쏘기의 명수이자 들나귀를 능숙하게 모는 사나이로 자라났다.

‘영제의 다리’를 넘으며...

전 국토가 전쟁박물관으로 변해 버린 아프간에는 이 ‘쫓겨난 아들’ 이스마엘의 정신적·종교적 후예들이 살고 있었다. 이미 7세기에 이슬람을 받아들인 이들은 아프간 곳곳에 4천 8백개가 넘는 모스크를 세웠다. 그래서 국민 전체의 99%가 무슬림이다. 그러나 1천 3백년 이슬람의 결국은 전쟁, 폐허, 굶주림, 질병, 죽음이었다. 1분마다 한 사람이 난민이 되고, 5분마다 한 사람이 죽어갔다. ‘이제 이대로는 안된다.’

새벽을 깨우며 남자들은 빵을 굽고 밭을 갈고 가게를 열었다. 여자들은 부르카를 벗어 던지고 영어를 배웠다. 칠판만 있으면 나무 그늘, 모스크, 초원, 시냇가가 배움터가 되었다. 아프간이 조용히,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근대적인 삶을 꿈꾸며 1천 3백년 단단히 걸어 잠근 문닫장을 열고 있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프간에서 우즈베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제의 다리’를 다시 넘어야 했다. 아프간과 우즈베크를 가르는 아무다리야강 흠퉁물을 바라보며 문득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떠올렸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창16:9).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에게 들려준 여호와 사자의 이 말씀이 바로 해답이었다.

이제는 아프간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되돌아가 복종하게 하여야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후사로 세워지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 부여하신 축복이 오직 복음으로만 온전히 성취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는 일이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증대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창17:20). 아멘.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기록 사진전' 자료 수집

'당신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1만사역본부 홍보지원팀은 우리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장한 과정을 돌아보며 비전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꺾대를 향해 가고자 오는 10월 첫째 주에 온누리교회 창립 17주년 기념 기록사진전 '빛을 따라서'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6월 16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5주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와 각 공동체 및 순, 사역팀 및 사역자, 파송 선교사 및 파송 사역자를 대상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성 있는 사진, 각종

행사 및 사역 현장의 사진(아웃리치, 순모임, 야외 예배, 사역지에 서의 기록), 자료 등을 모은다.

수집된 사진은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는 21세기를 맞아 온누리교회 17년 비주얼(visual) 역사를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온누리 포토뱅크' (photo bank) 구축에 사용된다. 전시된 사진은 데이터화되어 귀중한 자료로 영구 보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국 목사는 "행정적, 자료 정리 미흡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이번 사진전을 통해 기록 보완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내일을 위해 온누리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진전은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 놓치지 쉬운 부분을 보완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도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접수된 사진 원고는 접수증을 발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진전 기간 동안 회귀성과 역사성, 영성미, 재미있는 사진 등에 대한 시상도 한다. 사진 제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1만사역본부 홍보지원팀 홈페이지 www.freechal.com/onnuripr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접수 장소
 - 서빙고 성전: 주일 1층 로비, 평일 러빙핸드 사무실
 - 양재 성전: 주일 1층 로비, 평일은 사무국(숙소동 1층)
- 접수 방법 직접 제출 및 우편 접수(지방 및 해외), 제출 사진은 행사 후 반환 예정
- 문의 조요섭 간사 793-9686(교 533), 구은정 간사, 홍보지원팀 이정권 총무 017-717-1341
- 주최 1만사역본부 홍보지원팀

상암동 전도 아웃리치



월드컵, 복음의 축제



다윗공동체(서빙고대학부)

서빙고 대학부 (Professional 다윗 공동체)는 월드컵 개막식과 개막전이 있었던 지난 5월 31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월드컵 아웃리치를 가졌다. 워싱턴과 스킷팀, 외국어 사영리 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슬비를 맞으며 경기장 북문근처 광장에서 전도활동을 벌였다.



요한공동체(양재 대학2부)

세계인의 축제, 21세기 첫 월드컵이 5월 31일 저녁 7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막을 올렸다. 전 국민의 사선이 개막식과 개막전으로 쏠린 가운데 상암 경기장 주변은 세계인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요한 공동체에서는 5월 31일(금)오후에 개막식이 열리는 상암동 현장으로 아웃리치를 나갔다. 대학부 지체들은 평화의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룹별로 1:1 전도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복음전파를 위한 작은 행사를 시작하

였다. 대학부 이벤트 팀에서는 축구공 넣기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을 칠 기회를 제공하고 기념품과 함께 상경말씀 카드를 선물로 나눠줌으로써 거부감 없이 복음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보안 문제, 환경 보호 문제 등으로 경비가 심하여 준비해간 현수막도 걸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수월하지 않았지만,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며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심을 만방에 알렸다. 이번 월드컵 축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요한공동체에서는 6월 9일, 25일 예배 후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으로 계속하여 아웃리치를 나간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월드컵의 주인이 되십니다"

장지인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 외국인 전도를 다녀와서

모든 족족에게 필요한 구원

이태원에 외국인이 많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몰릴 줄이야. 6월 1일(토) 평소에 보던 이태원 거리와 정말 달랐습니다. 잠잠히 지나던 외국인들도 거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나온듯 하였고, 바디페인팅에 국가 응원복을 입고 활주하는 무리들도 보였습니다.

우리의 전도방법은 2명씩 짝을 이루어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이태원 모스크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던 이슬람권 팀에서 영어 찬양을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접근한 첫 외국인은 세네갈에서는 미전도 종족 울루프 족 출신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날 세네갈이 프랑스를 이겨 이변을 일으킨 직후여서 그런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고, 연락처까지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볼어권 아프리카에서의 경험, 무슬림과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 이 모든 것을 활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열방을 보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초대 교회사절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듯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이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가 체험하고, 각나라 각족속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 다시 나아가는 비전을 소원합니다.

구 자 현(여호수아 이천선교다락방)

유럽인에게 다시 전도해야



이인영 자매 (찬양 위원회)

청년 여호수아 목회지원 다락방 지체들이 경북공 입구에 모였다. 그간 해 본 전도와 다른 '외국인' 대상이라는 것이 조금은 더 긴장감을 주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준비한 사람을 잔뜩 가방에 넣고,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사영리를 들고 외국인들을 찾아 나섰다.

우리가 만난 외국인들은 다들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전하는 말을 다 듣고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개인적인 영접은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패턴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역시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도하면서 유럽, 또 미주지역 국가들이 다시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

을 경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도할 때에는 좀더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언어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전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도 소개할 수 있었을 좋았다.

그렇게 경북공 안을 돌면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나라를 이토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많은데 더욱 감사했다.

"동족에게 복음을"



김희진 자매 (금홍사역 다락방)

6월 1일 렉수궁 정문 앞! 비가 내렸다. 예상 밖의 날씨였다. 한 손엔 영어, 일어, 중국어 세 종류의 사영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엔 사랑꾸러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예상보다 외국인들이 많았던 터라 기쁨 오가는 그들이 보이면 얼마나 반갑던지...

땀을 흘리며 감사히 받는 외국인들, 사랑까지 받기는 미안한지 사영리만 받아 읽어보겠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서 버리는 아들. 예수가 주는 사랑이라면 사랑하겠다며 'Jesus candy, No thank you' 하고 단호히 눈길을 돌려버리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아마 모슬렘이었던 것 같다.)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것 같은 걸모습과는 달리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어찌 보면 그렇게 폐쇄적인지... 복음을 들고 구

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직접 실감했다.

드디어 시간은 흘렀고 마무리 기도를 위해 다시 모였다. 만났던 외국인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기도를 하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게 이렇게 힘든데 나와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은 동족들에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다.

살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려고 주님은 이번 월드컵 아웃리치를 내게 허락하셨다는 생각에 회개할 수 없었다.

*

☼ 온누리리더스 선교 캠프

- 대상: 장로, 공동체 다락방장, 교역자, 간사
- 1기: 6월 13일(목)~15일(토) 13일 오후 1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2기: 6월 17일(일)~19일(수) 17일 오후 1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3기: 6월 21일(금)~23일(주일) 21일 오후 5시 출발 (개별출발시 오후 7시까지 양지 도착) 중 택일
- 참가비: 2만원
- 문의: 2천선교팀(교 216, 239)

☼ 제1기 온누리 선교세미나

- 일시: 6월 11일~7월 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회비: 없음)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황민식 간사(교 208)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 (SAM)

- 일시: 6월 17일(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성전 선교관 301호
-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6월 17일(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5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해정 간사(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_hanmom.com

☼ 2002 여름 캄보디아 아웃리치 기도 및 준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서빙고 5층 경천홀 내 유아실
- 물품구함**
- 품목: 여름옷, 의약품, 영어책, 학용품, 현금 등
- 문의: 서세창(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 두란노해외선교회

-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 의사, 컴퓨터/피아노 교사 각 1명
-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선교자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 문의: 571-9535 (timint@hotmail.com)

선교사훈련학교 (OWMTS)

- 유아, 탁아 사역자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자로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현신자
-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 온누리교회 정도로서 선교에 관심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 봉사내용:
 -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나 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n.or.kr)

러시아 여름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사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 준비모임**
-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 연락처: 이경환 (016-297-2090) 정병철(chom@daum.net)

☼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CD player, VTR
- 문의: 이경희 간사 (교 514, 017-316-9787)

2002년 해외선교헌금

- 서울은행 33901-9529186
- 외환은행 010-33-23507-7
- 한미은행 011-023811-02-202
- 국민은행 803-01-0219-417
- 신협은행 341-03-006359
- 예금주: 온누리교회

*

오늘, “다민족 친구초청 잔치”

2천/1만 광장 - 음식 바자·각 민족 문화 공연 / 본당 - 국악 어우러진 '온누리 예배'

청년 대학팀 등 월드컵 아웃리치 팀이 전도한 외국인들을 위한 '다민족 친구초청 잔치'가 오늘 2천/1만 광장과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잔치는 전도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 교회 외국어예배를 소개해 외국어예배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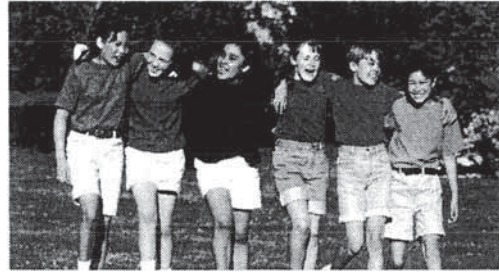
오후 4시 본당에서는 국악이 어우러진 예배가 드려진다. 잔치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주보가 다 국어로 제작되며, 영어로 예배가

진행된다. 강사는 이재환 목사다. 설교 후에는 외국어예배 별 리셉션이 열린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교관 3층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미용과 의료 진료를 실시한다.

이날 2부 예배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2천/1만 광장에서는 각 나라별 음식바자와 민족 고유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음식 바자〉
· 영어예배-핫도그,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즈, 음료수



· 중국어예배-만두, 탕수육
· 일본어예배-구동(일본식 쇠고기 덮밥), 팔빙수

· 온누리미션-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음식
서철 chol@onnuri.or.kr

불어성경공부 종강감사예배

3월 26일, 4월 12일 각각 시작한 초급반, 중급반 불어성경공부모임이 오는 6월 22일(토) 오후 5시 양선성전에서 종강 감사예배를 드린다.

불어로 선교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했던 이번 불어성경공부 모임은 초급반은 간단한 불어를, 중급반은 '성경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성경의 근원, 전래, 번역, 권위' 등을 공부했다.

성경공부 모임에 참여했던 최옥 형제는 "우리말에서 찾을 수 없는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와 치밀한 논리 전개를 보며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다"며 "불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불어권 선교에 대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을 알게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이길로 선교사 라이브 워십 셀레브레이션

청년여호수아 찬양인도자인

이길로 선교사의 라이브 워십 집회가 열린다.

오는 29일(토) 오후 6시 30분



이길로 선교사와 스티브 탐슨이 함께 하는 라이브 워십 집회 & 셀레브레이션은 회락성전에서 펼쳐진다.

두 번의 예수행진 앨범에 이어 세 번째 앨범에서 이길로 선교사는 새로운 출발과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는 리듬의 곡을 수록, 열방을 향해 나아갈 소망을 담는다.

기도, 예배, 찬양 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이날 인도는 이길로 선교사(‘예수행진’ 음반 제작자, ‘선교한국 2002’와 온누리 청년여호수아의 워십리더)가 맡고 게스트로 스티브 탐슨 부부가 출연하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문의: 정하리 (011-709-9831), 손미혜(019-498-7796)

01

온누리 세계선교사훈련학교 시작

온누리세계선교사훈련학교(OWMTS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가 지난 15일 서빙고 비전홀에서 입학예배를 드리고 17일부터 공식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OWMTS에는 21명이 참여했으며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온누리 리더스 선교캠프를 섬기고 있다. OWMTS는 이론과정인 1단계 훈련과 현상사역인 2단계 훈련으로 구성되며, 훈련을 마치면 수습 선교사로서 언어적응과 문화훈련을 받은 후에 2천선교 본부와 협의 하에 선교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33, 679)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제1기 온누리선교세미나 시작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공동체, 아웃리치 팀을 위한 선교세미나 '도대체 뭘하지?'가 지난 11일 시작됐다.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익 선교사(GP선교회)는 '내 인생에 선교 세우기'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다. 김선교사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지상명령이란 것을 크리스천이라면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이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선교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며 "복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온누리선교세미나는 7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교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9면>

서철 chol@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모슬렘 자녀도 기독교에 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저희 가정의 부족함은 채워지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저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람퐁족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시편 103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중되지 않으며 무슬림에게도 동일함을 찬양합니다. (롬 5:8)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창 17:20)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이며 영적인 축복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수마트라섬 남단 람퐁에는 1천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3백만명이 람퐁족이며 나머지는 타지에서 이주한 종족입니다. 주민 95%가 무슬림이며 람퐁족은 99.9%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주님께서는 람퐁족 만이 아니라 람퐁에 사는 모든 거주민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공감대 형성한 복음 전파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복음에는 거부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자바 지역에 2백만 이상 회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바화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융합한 복음을 들은 후 외국 스타일에 적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바 순다족에게는 실패했습니다. 수용자 중심의 복음이 아닌 전달자 중심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무시한 외국 스타일의 복음은 실패했습니다. 복음과 지역 문화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복음의 사실에 관심을 두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나타내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 지원해 결실 기다리자

수마트라 람퐁지역에서 설문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역의 방향을 조금씩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다수의 람퐁족들은 이주한 주민들보다 경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들을 향한 접촉점은 1)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경제적인 용로를 통해 다가가는 방법 2)교육 환경이 열악해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방법 3)의로 서비스의 혜택을 정기적으로 베푸는 방법 4)위의 3가지 방법과 병행하여 친분을 맺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람퐁지역에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다

섯군데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한 기독교 학교에 이슬람인들이 무려 50%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슬림이지만 교육의 시설과 질이 다른 종교보다 괜찮으면 자녀들을 기독교 학교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람퐁족들은 월 5천원(한화)이 없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 시설을 보충해 가난한 이슬람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후 결실을 기대해 봅시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후원자들의 가정에 가득하시도록 축복합니다.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기도제목

1. 새로운 비자가 순조롭게 발급되도록
2. 기독교 학교의 이슬람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및 시설 보충을 위해 많은 후원자가 생기도록
3. 가족의 건강 및 체력 강화를 위해

2002. 5. 30 인도네시아에서 이석희, 박혜숙, 기업, 보배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은혜(파송-동북아시아-WEC-강남B)
- 장기 사역지 결정과 비자 문제를 위해
- 기관지와 오른 손목 관절의 치료를 위해
- 외국인들을 유심히 관찰 중인데 보호하심, 담대함 및 지혜로움을 위해

조문성/김정년(파송-싱가포르-BEE KOREA-성동/광진)
- 6.16~7.2, 7.7~7.27에 카타르 사역과
- 6.16~7.6에 사우디아라비아 사역을 위해
- 새로운 거처와 김 선교사의 진로를 위해

장성근(조팻파송-필리핀-YWAM-관악/금천)
- 인도차이나 파송 계획을 진행하는데 NLT와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 사역 확장을 위해 인도차이나 FM 관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김 중/김 란(후원-동북아시아-고신선교부-용산)
- 미전도 종족 '나씨족'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은데,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 나씨족 극빈 15가정에 산양 10마리를 나눠주는 복지 사역을 통해 이들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영숙(후원-일본-국제제자선교회-강동/송파)
-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 K-DOC와 J-DOC가 연합하여 서로 유익을 주며 성장하도록

나오미(후원-보스니아-GMP-일산)
- 많은 분의 사랑이 보스니아 2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힘이 된 일로 감사
- 제니차 교회 교우들과 새로운 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연합을 이루도록



섬김선교지 소개 14 : 인도네시아 <섬김 공동체 : 노원의정부공동체>

동남아 회교권을 복음화할 '안디옥 국제교회'

20만 명의 화생자를 낳았던 동티모르가 지난달 20일 독립국가로서의 공식출범을 선언하면서 인도네시아 곳곳에서는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인구 2억의 세계 최대회교국 인도네시아에서 각기 고유한 문화와 종교를 고집하며 살고 있는 300여 종족 가운데 이처럼 심화되는 민족분쟁은 98년 의환위 이후의 극도의 경제난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당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힌두, 불교, 회교 왕국에서 식민지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화산군도로서, 말레이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적도선을 따라 약 5,000 km에 걸쳐 13,677개의 아름다운 섬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이들 중 약 6,000여개의 섬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주로 자바, 수마트라, 술라웨시, 칼리만탄, 이리안자야에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원래 남중국에서 온 몽골로이드계 말레이인과 인도-아리안계의 종족

국가들이었다. 5C 힌두왕국이, 7C 불교왕국이 흥왕하였고, 16C 후반 이슬람 왕국이 건설되면서 이슬람화 되기 시작하였고 1590년부터 350년간 네덜란드의 통치와 영국, 일본의 식민통치하에서 독립투쟁 끝에 1945년 자주독립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헌법은 5개의 기본 조항에는 5개 종교를 공식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 통일을 지향하여 다양한 민족그들들을 연합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기관이 점차 회교화 되면서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의 도전이 늘고 있고, 많은 곳에서 복음전파와 모임이 제한 받고 있다.

자카르타 안니옥 국제교회

인도네시아에는 20여명의 온누리 선교사들이 여러 종족들에게 접근하여 활발히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안니옥 국제교회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 동력화와 인도네시아 현지인의 제자화를 비전으로 99년 약100선교사 가정의 헌신으로 창립되었다. 현재 현지인 교회 2곳을 개척했고, 2곳의 예배처소와 헬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디옥 국제교회 AIC Cikarang



한국인 선교사들과 현지인 신학교와도 협력하고 있다. 약100선교사는 안디옥국제교회를 통해 제자화된 현지인들이 1차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하고, 나아가 동남아 회교권을 복음화할 것을 꿈꾸며, 법적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나 활동을 금하고 있는 현지상황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현지인들을 제자화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

기도제목

1. 7,000만의 인도네시아 회교도들이 참진리를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부흥이 계속되기를
2. 안디옥국제교회가 현지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 온누리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자료제공/2천선교)



미션 월드컵

“출전국을 위해 중보합시다”

960시간 띠기도 (5.22~6.30)

- 성령께서 월드컵에 오는 관광객의 마음을 예시고 육토로 준비 사기시도록
- 960명의 중보기도가 잘 활용되어 월드컵 아웃리치가 기도가 뒷받침 되도록
- 온누리 교회의 외국어예배 사역이 성도들에게 잘 인식되도록
- 모든 행사가 빠짐없이 정성껏 준비되도록

< 6월 17일 (일) : 멕시코 >



· 주요 경기일
6.3(월), 6.9(일), 6.13(목)
· 국가개요

1.면적: 1,973,000km². 남미에서 네번째로 큰 나라. 북부고원은 불모지, 중부고원은 화산대, 남부 산악지대와 열대림이 있고 국토의 10%만이 경작지
2.종족: 스페인/아메리카인 55%, 아메리카인 28%, 유럽/아메리카인 15.3%, 아프리카/아메리카 0.5%, 기타 1.2%
3.종교: 기독교 94.6%(개신교 5.2%), 유대교 0.1%, 기타 5.3%

- 기도제목
1.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멕시코는 복음주의자들을 핍박하고 있다. 최근 주로 남부 시골에서 폭동이 있었고, 교회와 가정파괴, 전체 복음주의 집단의 강제추방, 복음전도의 방해, 조직된 고소로 신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신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주의 은유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자. 또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완전하게 실현되도록 기도하자.
 2. 영적 지도자들의 훈련을 위해 지도자 훈련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열쇠이다. 사골교회와 도시빈민교회들을 위해 사역하는 건강한 목회자들이 확보되도록 기도하자.
 3. 선교의 비전을 위해 멕시코 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은 지난 10년간 성장하기 시작했다. 20개 나라에서 성기는 81명의 멕시코인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개척자들과 교회비전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자.

< 6월 18일 (화) : 브라질 >



· 주요 경기일
6.3(월), 6.8(토), 6.13(목)
· 국가개요

1.면적: 8,512,000km². 남아메리카의 면적과 인구의 절반을 차지. 세계에서 5번째 큰 나라.
2.종족: 유럽 53%, 아프리카 11%, 아시아 1.1%, 아메리카인 21.6%
3.종교: 기독교 92.4%(개신교 21.6%), 무속신앙 4.8%, 불교 0.2%, 회교 0.1%, 유대교 0.06%

-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찬양하자 브라질은 가장 큰 카톨릭 국가로 알려져 왔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이다. 복음주의가 크게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자.
 2.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심령주의가 브라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전통 기독교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1975년에는 42만 명의 영매가 최소 1만4000개 심령센터에서 일을 했다. 많은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이런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며 사단의 세력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기도하자.
 3. 선교사와 선교단체들을 위해 선교사들의 역할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었다. 오늘날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지도자 훈련, 선교사 훈련, 아마존 지역에서의 개척사역 등이다. 선교단체의 역할이 지체롭게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브라질교회에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6월 19일 (수) : 터키 >



· 주요 경기일
6.3(월), 6.9(일), 6.13(목)
· 국가개요

1.면적: 780,000km². 두 대륙(유럽 3%, 아시아 97%)에 걸쳐있는 나라. 이곳 전략적 위치는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지역.
2.종족: 투르크 76.1%, 쿠르드 19%, 난민 1.3%, 기타 1.8%
3.종교: 회교 99.8%, 기독교 0.2%(개신교 0.02%)

- 기도제목
1. 막히고 닫힌 땅-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터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국가로 남아 있다. 한때 기독교의 요새였으나, 지금은 강력한 회교 전파국이 되었다. 5,500만 명의 회교도가 복음을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
 2.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국민의 마음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깊이 자리잡고 있어 어떤 형태의 복음전도도 어렵다.
 3. 사역자들을 위해 모든 외국 선교사들은 오랫동안 경찰의 체포와 강제 추방의 위협 속에 지내왔다. 위협은 최근 정도가 더해지고 있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낙심치 않고 더 크고 도전적인 전략을 가지도록, 주께서 복음 전할 문을 열어 주시도록.
 4. 성경번역과 보급을 위해 성경번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소수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민감한 문제인데, 14개어로 번역이 대부분 서구와 주변 국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 이 땅을 덮도록 기도하자.

< 6월 20일 (목) : 이탈리아 >



· 주요 경기일
6.3(월), 6.8(토), 6.13(목)
· 국가개요

1.면적: 301,000km². 지중해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길고 산이 많은 반도
2.종족: 이탈리아인 92.1%, 기타 유럽인 1.75%, 중동/아프리카인 1.9%, 아시아인 0.1%
3.종교: 기독교 80.1%(개신교 0.82%), 회교 1.9%, 무종교/기타 17.7%

- 기도제목
1. 사단의 세력이 옹호도록 개신교 박해가 거의 800년 동안 지속되었고 신비주의 사상이 넓게 퍼져 있으며, 10만 명의 전임 주술사가 있다. 현재 이 들의 수는 카톨릭 신부보다 3배나 많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모든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2. 정부와 교회를 위해 악명 높은 시실리아의 마피아와 나폴리의 비밀결사 조직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다. 이 사악한 조직은 정부 관계자, 고위급 지도자, 교회의 권위자 심지어 로마 교황청까지 파과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 사회가 위와 같은 속박에서 풀려나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3. 선교사들을 위해 이탈리아는 전부터 선교사들의 사고율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고 선교사들의 10%는 보통 2차 사역기간 동안 되돌아 갔다. 선교사들이 그들의 사역지에서 영적인 능력, 정서의 성숙, 문화 적응력 그리고 하나님을 주신 담대함을 소유하도록 기도하자.

< 6월 21일 (금) : 에콰도르 >



· 주요 경기일
6.3(월), 6.9(일), 6.13(목)
· 국가개요

1.면적: 283,600km². 동부는 아마존 정글, 중부는 안데스 사야라 고원, 태평양 연안에는 비옥한 해안평야가 있음.
2.종족: 스페인어 사용 56.9%, 아메리카인 42%, 기타 1.1%
3.종교: 기독교 98.4%(개신교 3.8%), 무종교/기타 0.74%, 정령숭배 0.5%, 불교/중국종교 0.04%, 유대교 0.01%

-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찬양하자 1982년 이래 에콰도르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 받아왔다. 경제난과 함께 이상기후, 지진, 콜레라 전염병이 잇따랐다. 이런 재난은 에콰도르인을 복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으로 만들었다. 복음에 대한 개방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림을 하나님께 찬양하자.
 2. 지속적인 영적성장을 위해 2000년대 교회를 향한 도전들, 지속적인 수적,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자.
 3. 성경번역과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에콰도르는 WBT 선교사들이 초기에 입국한 나라로 20년간 거의 모든 방언으로 신약이 번역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번역 작업의 완성과 아직 번역이 필요한 두세 언어를 위해 기도하자. 이미 번역된 성경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기도하자.
 4. 청년들을 위해 청년 교육, 특히 성경적인 헌신과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자.

< 6월 22일 (토) : 중국 >



· 주요 경기일
6.4(화), 6.8(토), 6.13(목)
· 국가개요

1.면적: 9,573,000km².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나라로서 세계 최고의 산맥과 고원이 있다.
2.종족: 한족 92%, 소수종족 8%
3.종교: 무종교/기타 59.1%, 중국종교 27%, 불교 3%, 정령숭배 2.4%, 회교 2.4%

- 기도제목
1. 기도예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1977년 이래 중국 교회의 성장은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의 140년에 걸친 희생적인 사역, 수백 만의 중보자들, 그들은 오랫동안 지연된 영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기도예 힘썼다. 기도가 중국을 변화시키고 있다.
 2. 세계의 중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해외에 사는 중국인은 적어도 5,600만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에 속한 중국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중국의 영적인 복지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복음전도, 교회 개척, 원조제공, 기독교 문서 제공 등의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해외에 있는 중국인 교회의 성장,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사회에 대한 복음전도, 중국 관련 사역발전을 위해 기도하자.
 3. 사역자들의 안전과 전도의 문을 위해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역자들의 안전과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위해, 또 미전도된 내륙의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 6월 23일 (일) : 코스타리카 >



· 주요 경기일
6.4(화), 6.9(일), 6.13(목)
· 국가개요

1.면적: 51,000km². 비옥한 토지로 중미 지협을 연결
2.종족: 스페인어 사용 95%, 영어 사용 3%, 아메리카인 2.4%, 기타 1.57%
3.종교: 기독교 93.4%(개신교 10.7%), 중국종교 0.2%, 유대교 0.2%, 무종교/기타 5.8%

- 기도제목
1. 영적 추수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 담대한 복음증거로 복음주의자는 80년대 들어 2배가 넘었다. 그 결과 성령의 운동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다. 영적 추수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자.
 2. 지도자들의 영적 성장과 제자훈련을 위해 복음주의자들이 늘고 있다. 지도자들이 지혜와 바른 인격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효과적인 제자훈련을 하도록 기도하자.
 3. 알칸스2000 비전을 위해 '알칸스 2000'은 이 나라에서 성장하고 있는 선교운동의 초점이다.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코스타리카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4.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카톨릭은 그들의 특권적 위치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교회와 종파들로 하여금 전통적 교리와 정치적 활동으로 되돌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복음적인 카리스마틱 카톨릭교인들이 이런 경향에 대항하도록 기도하자. 대부분 명목상의 카톨릭교인인 코스타리카인들을 위해 기도하자.

청년 여호수아 /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미리 기도하면서 결정합시다'

이제 2002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부터 몇 가지 아웃리치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아웃리치 지역은 온누리교회와 베이스나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으로 제한하고, 사역의 방향을 단순한 복음선교나 방문, 땅밭기에서 섬김과 봉사로 전환하며, 일회성의 방문보다 계속 관계를 갖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길 목사

했습니다. 직장인이 대부분인 청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인 경우 비행기표와 비자, 인원 등 미리 정해져야 하고 비용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필요한 비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번을 떠날 것을 권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부담감을 팀원에게 주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마음을 미리 정하고, 재정을 준비하고 현지에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좋은 훈련이 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팀원들에게도 좋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교회의 방향과 청년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아웃리치와 해외 아웃리치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시간과 재정과 경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

2천/1만 비전에 맞추어 사역의 중심을 현지 베이스나 선교사님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두고, 아웃리치 지역은 교회의 선교베이스와 청년부 출신 선교사들이 계신 곳으로 합니다.

또한 팀의 최소인원은 5명으로 하고, 6월 30일까지 전체비용 중 반을 7월 13일까지 나머지를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케줄을 미리 정해 팀을 구성하고 그 팀원들간의 교제와 선교 현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성실한 준비를 갖추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리 각 지역을 정하기로

기능스쿨

'선교에 꼭 필요한 기능배워요'



여호수아 청년부는 아웃리치에 앞서 '기능스쿨'을 열어 단기선교현장에서 필요하게 쓰일 기능들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다.
▷발마사지, ▷마임&드라마, ▷레크리에이션, ▷음식만들기, ▷기타교실, ▷전자침, ▷장식/데코, ▷풍선아트, ▷촬영스쿨, ▷워십 댄스등 9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지난 10일(월) 발마사지 강의를 시작한 엄현정 집사(양재인내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의 발을 잡고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다."
○ 강의문의 : 양성애 간사(5670-7307)

2000년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중에 마땅히 한곳을 정할 수 없어 여러 아웃리치팀을 탐방하게 되었는데 팀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 재정 및 일정, 사역지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찬양반주자와 형제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현지에 피아노도 없고 피아노를 들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기타반주자를 찾고 있었다.

기타반주자를 구하는 것은 상당한 걱정거리였고 큰 기도제목이었다.

그 다음해인 2001년 아웃리치를 앞두고 새벽기도 중 하나님께서 기타스쿨을 열라는 마음을 주셨다. 청년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니 50명 정도의 지체들이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답을 주었다.

지난해에는 새벽에 기타교실을 열었는데도 26명이 등록했다. 인천에서부터 달려와 기타를 배우고 다시 인천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열

성적인 지체 또한 있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타교실은 아웃리치 때 기본적인 찬양을 반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기 속성인자라 진도가 조금 빠른 편이지만 매주 숙제를 잘 연습해 온다면 누구나 졸업할 즈음엔 좋아하는 찬양 몇 곡쯤은 반주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기타의 장점은 코드 몇개만 익히면 많은 곡을 반주할 수 있으며, 해외나 국내 아웃리치 시에 갖고 이동하기 간편하고 가정예배나 팀 기도회 등에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기타스쿨교실을 통해 많은 지체들이 찬양과 더 가까워지고, 배운 기타 솜씨를 영혼을 구원하고 찬양의 기쁨을 알리는 데 도구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2002년 아웃리치도 성공리에 잘 마치시길 기도한다

권도현(기타스쿨 찬양위원회)

요셉공동체

요셉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상 지역을 보수하고 현지 사역자들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과 사회를 변화시킬 좋은 모델을 연구하고 대안제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대도시 공흥 및 선교사역, 타문화권 정탐, 세계의 유수 기독교 연구기관을 탐방(Jubilee Centre, Licc, Oxfam 등)한다.

또한 NGO를 베이스로 한 지속적인 사역 NETWORK형성하고 각 지역에서 NGO사역과 예배사역을 목표로 한다.

<준비모임>

아웃리치 스쿨 - '나의 도시를 건축하라. 나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
요셉공동체는 Outreach을 위한 영적 행정적 준비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주간 아웃리치 스쿨을 열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선교(김형익 선교사) ▶실크로드 선교와 이슬람 이해(주누가 선교사) ▶NGO 운동의 내용과 구성(박태영 전도사)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박인용 목사) ▶Outreach와 현장 전도(김홍주 목사) ▶요셉 공동체의 vision과 outreach(박종렬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아웃리치 지역>

나라	1차 일정	2차 일정	3차 일정	일수 및 인원수
영국	6월20일~6월29일	"	"	9박 10일-미감
모스크바	7월21일~7월28일	7월28일~8월4일	"	7박8일-각 팀 15명
키르기즈	7월23일~8월1일	"	"	9박10일-미감
우즈베크	7월16일~7월29일	"	"	10박11일-미감
일본	7월23일~7월29일	7월30일~8월5일	"	6박7일-각 팀 15명
중국 천진	7월15일~7월21일	7월22일~7월28일	8월12일~8월17일	6박7일-각 팀 12명
중국 대련	7월22일~7월28일	"	"	6박7일-각 팀 12명
중국 북경	7월22일~7월28일	7월29일~8월4일	"	6박7일-미감
몽골	8월6일~8월12일	"	"	6박7일-20명
경북 봉화	7월15일~7월19일	7월22일~7월26일	"	4박5일-각 팀 50명
충남 예산	7월29일~8월3일	8월5일~8월10일	"	5박6일-각 팀 70명
충남 보령	8월14일~8월16일	"	"	2박3일-미감

요한공동체

'Go, World & make friends for Jesus'

요한 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의 방향을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복음이 자랄 토양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프로그램을 전한다'는 것으로 정했다.

요한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통한 복음전도'는 구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구제나 봉사 등 시각적인 전도에 힘쓰게 된다.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서동욱 목사는 "요한공동체 학생들이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도록 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웃리치 지역>

- 캄보디아 7월 15~23 빈민구제, 성경학교, 전도
- 몽골 7월 23~30 열린예배, 성경학교, 전도
- 중국 7월 22~30
- 낙도 8월 11~16 교회지원, 축호전도
- <아웃리치 준비일정>
- 6월 25~27 아웃리치를 위한 수련회
- 6월 30일 발대예배
- 7월 매주 수요일 낙도선교를 위한 기도회
- 7월 8~10일 까지 전체 아웃리치 기도회
- 7월 11~13일 캄보디아 기도회
- 7월 18~20 몽골과 중국위한 기도회
- 8월 9, 10 낙도 선교기도회

다윗공동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

<아웃리치 지역과 일정>

- 중국: 7월 14일~21일(7박 8일)
- 몽골: 7월 15일~22일(7박 8일)
- 일본: 7월 16일~22일(6박 7일)
- 태국: 7월 22일~31일(9박 10일)
- 국내 아웃리치
- 보길도: 8월 13일~16일(3박 4일)
- 문의: 조평산 형제 (018-378-5493)

바울공동체

바울공동체(양재 대학1부)는 2천선교본부와 비전을 같이하여 선교사를 돕는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다. 선교베이스의 사역을 돕고 현지의 사정을 배우고 살피는 것이 주요 사역이다.

<아웃리치 지역>

- 1차 7. 22~30 일본, 중국 80명
- 2차 8.1~10 중국, 대만 80명
- 3차 8.13~24 동남아, 유럽 50명

<준비일정>

- 6월 26, 27일 단기선교 팀종 캠프
- 7월 4~6일 단기선교참가자 캠프
- 지역 연구, 영적 훈련
- 7월 15~20일 여리고 기도회

“내 인생에 선교 세우기”



공동체와 아웃리치팀을 위해 열린 제1기 선교 세미나 “도대체 뭘 하지?”가 시작됐다. 더욱 뜻 깊은 아웃리치를 위해 선교세미나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 연재순서

- 1강. 선교에 눈뜨기
- 2강. 여름 아웃리치 준비
- 3강. 중보기도의 능력
- 4강. 도대체 뭘하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이면 그것은 일도 아니다. 선교는 지상 명령이고 최고의 가치다. 하지만 우리는 산만하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많은 말을 하지만 왜 하는가는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인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답하면 된다. 이 질문은 창조의 목적과 동기를 묻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세계는 무엇이며, 무엇이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했는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좋은 선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한다. 마지막 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 목적을 향해 나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동기로 세상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이다. 창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했을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다. 1,5절을 보면 창세 전에 세 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성령의 코이노니아(교통하심)’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서로 칭찬하고 계셨다. 칭찬 받을 것 밖에 없는 완전한 교제가 있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칭찬

을 받아도 기쁘다. 미루어 보면, 세 분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였다. 이것이 주님이 말한 기쁨이다.

슬픔은 식일 수 있지만, 기쁨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동반한다. 기쁨은 나누지 않을 수 없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기 원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도 기도는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은혜로 받는다. 우리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쁨을 주신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기쁨을 기쁨으로 받지 못한다. 죄초에 아담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담은 기쁨이 넘쳤다. 그러나 죄를 지은 뒤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담은 슬펐다. 우리는 죄를 지은 후로 하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축구 응원을 위해 30만 명이 모여 열광을 했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은 축구를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살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를 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꼭 빠지는 것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의무를 포함한다. 의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의무는 중요하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면 얼마나 하겠는가? 다만 의무를 기쁨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 알 수 있다. 죽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았던 죄의 몸

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요, 죄다. 선교사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해외선교사는 영역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각 분야에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작은 분야, 좁은 분야에만 집중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교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잔을 넘치게 주신다. 하나님은 장기 판의 말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위해 불렀고, 그 복을 나누기 위해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선교는 영혼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영혼 구원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선교의 동기는 기쁨이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예 너지가 넘치는 것이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

받는 것이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다.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가 선교의 연료가 된다. 예배와 감격이 없으면 선교도 없다. 선교의 연료는 예배다. 선교의 모든 것이 예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성을 한 것이 아니다. 회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다. 내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영광이요 특권이였다.” 이런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헌신’이란 말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 행복해서 나가기를 바란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종교다. 헌신했다는 것은 고약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라.

선교는 영혼구원이 목적이 아니다. 영혼구원을 능가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님이 부르실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선교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선교사로 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을 벗어버리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 선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는 이 열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의무로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고 말한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선교는 ‘끝장을 봐야 한다’,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의미가 없다. 선교는 끝을 봐야 한다. 이런 각오로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산다. 이것



· 의료 C팀 첫 아웃리치

나의 첫 의료선교와 그 은혜의 현장



내 그분들이 모두 다 온누리교회 의료사역팀 내과의사란 사실을 알고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의사들이 청소하고 협한 일을 마다않고 하는 이 의료선교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다. 아,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제들이구

나 온누리교회의 햇병아리 신자이자 매일 주님의 사랑을 먹고 크는 사람이다. 처음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 '야!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런데 이런 병아리에게 주님은 아주 큰 사역을 주셨다. 내가 비록 의사지만 의료선교는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로 여겨왔다.

아웃리치를 떠나는 날, '의사들이 30명이나 가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그냥 구경꾼으로 하나님께 보내시는 줄로 생각했다.

환자 차트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들의 영국식 영어를 참고 들어야하는 시간이 왔다. 그런데 우리 내과팀에 어떤 양전한 분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는 이분이 간호사이거나 생각했다. 또 한분은 마치 조수처럼 환자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약도 타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

나' 하는 마음이 들자 그 의료선교현장은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되었다.

나는 이번 의료 선교로 다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내 눈으로 보았다. '아! 이제는 이런 의료선교는 병원 문을 닫고라도 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은 멋쟁이다. 이런 하잘것 없는 나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알게 하신 주님께 그저 매일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박 태 흥

온누리교회에 출석한지 벌써 7년이 되 어가지만 그동안 교회출석만 했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 좋은 프로그램을 멀리하고 지냈다. 그러던 차에 온누리의 료인의 밤에 아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하목사님의 말씀과 영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새롭게 깨닫고 농어촌의료봉사를 하기로 아내와 함께 결심을 했다.

때맞춰 안태환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번에 의료선교 C팀을 새로 결성하여 파주에 있는 나이지리아 형제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으니 참석 하라고 하셨다.

6월 2일 아침, 우리 온가족은 예수향기회 버스를 타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징옥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생명의부활선교교회'로 향했다. 옆 좌석에 앉은 형제,

자매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 갈 즈음에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 앞에도 착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나이지리아 형제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곳의 나이지리아 형제, 자매들은 근처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그 형제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마주 잡은 손끝에서 느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장비나 약들이 넉넉하게 준비되지는 못했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했다. 진료가 무사히 끝나고 아쉬운 발길을 돌렸다.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리서 손을 흔들어주던 나이지리아형제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들도 여러 사람들을 품고 육체만이 아닌 영혼까지도 고칠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의료선교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현구 집사



▲ 의료 C팀은 나이지리아 형제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경기도 파주 '생명의 부활선교교회'로 6월 2일 첫 의료선교아웃리치를 다녀왔다.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
 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
 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
 파아노 교사 각 1명
 · 문의: 아하나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선교지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
 사사보, 회사안내 자료들
 · 문의: 571-9535
 (timint@hotmail.com)

인터콕
 6월 여성 월드비전
 6월 18일(셋째주 화요일)
 오전 10:30~12:30
 · 강사: 정이레 선교사
 (우즈베키스탄)
 · 장소: 은누리교회 선교관
 · 대상: 선교에 중보로 동역하길
 원하시는 20대 이상 그리
 스토인 여성
 · 문의: 인터콕 교육부 798-6001,
 796-3541(교 2번)
 최백관간사(018-863-3452)

에젤선교회
 에젤은혜학교
 '성경속의 기도하는 자의 모습'
 · 일시: 6월 17일~19일
 오전 10:00~오후 1:00
 ·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 강사: 김내현 장로, 박종길 목사
 주누가 선교사

찬양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양재 비전홀
 · 내용: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
 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돌아가는 주님
 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

서빙고 중보기도 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젤
 사무실(703호)
 · 내용: 직장인과 청년들에게 선교
 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의 끈
 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
 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
 는 기도모임.
 ·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
 자로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
 교현신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 은누리교회 성도로서 선교
 에 관심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나 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33, 679,
 owmc@onnuri.or.kr)

은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CD player, VTR
 · 문의: 이경희 간사
 (교 514, 017-316-9787)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은누리리더스 선교 캠프
 · 대상: 장로, 공동체 다락방장, 교
 역자, 간사
 · 2기: 6월 17일(월)~19일(수) 17
 일 오후 1시 출발(개별출발시 오
 후 3시까지 양지 도착)
 · 3기: 6월 21일(금)~23일(주일)
 21일 오후 5시 출발(개별출발시
 오후 7시까지 양지 도착) 중 택일
 · 참가비: 2만원
 · 문의: 2천선교팀(교 216, 239)

제1기 은누리 선교세미나
 · 일시: 6월 11일~7월 2일 매주 화
 요일 오후 7:00~9:30 (회비:없
 음)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황민식 간사(교 208)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 (SAM)
 · 일시: 6월 17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성전 선교관 301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6월 17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5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
 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송동 3층
 ·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러시아 아웃리치팀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사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준비모임
 ·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은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 품고 기도하는 청년
 · 문의: 이경환(016-297-2090)
 정병철(chorri@daum.net)

해외아웃리치
 · 일정: 7월 27일~8월 4일
 · 장소: 스리랑카
 · 사역내용: 진료, 이미술, 전도, 찬
 양, 워십, 어린이사역
 · 진료과목: 내과, 외과, 피부과, 치
 과, 치위생, 치기공, 한방, 간호
 · 예상경비:항공료 86만+기타
 · 필요서류: 여권소지여부 영문이
 름, 비자불요
 · 기도모임: 매주 목 오후 7:00~
 10:00 서빙고 아론기도실
 · 전체 문의
 최충길 팀장(011-262-8193)
 김준현 총무(011-9970-2630)
 엄성욱 간사(교 661)

캄보디아팀
 여름 아웃리치 기도 및 준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서빙고 경찬홀내 유아실
물품구함
 · 품목: 여름옷, 의약품, 영어책, 학
 용품, 현금 등
 · 문의: 서세창(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4567-118, 456-7118)

*

01

파키스탄어 5주년 기념 예배

파키스탄어 예배가 창립 5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빙고선교관 304호에서 열린다.

02

'중국 아웃리치'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중국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온누리 성도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했다. 이날 김중선교사는 '중국 아웃리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강의로 중국에서 1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며, 아웃리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일시: 6월 24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선교관 302호

서철 chol@onnuri.or.kr

03

'불어성경공부' 종강 감사예배드려

지난 22일(토) 양선성전에서 불어성경공부 모임팀이 종강감사예배를 드렸다.

불어성경공부 모임은 초급반은 간단한 불어를, 중급반은 '성경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성경의 근원, 전래, 번역, 권위' 등을 불어로 공부했다.

01

일본아찌오 교회로 파송되는 김철희 전도사

'영혼 위해 올 수 있는 사역자 되고 싶어'

하나님은 제가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신학대학교에 다니면서 언어와 문화를 접했고 한인 교회에서 사역하며 일본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한 후에 계획대로 다시 일본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 좋고 다양한 것을 잘 배웠습니다.

저는 일본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인사역자를 개발하고 청년사역위주로 교회를 발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역을 위해 큐티와 일대일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또 평신도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온누리교회처럼 일본에서도 평신도 사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 기술이나 시대에 맞는 발달하고 알기 쉬운 찬양사역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김철희 전도사

일본교회는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 하는 습성이 있는 일본인에게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합니다. '일본에 교회가 적어도 5%만 되어도 많이 믿게 될 것'이라고.

글로벌시대라고

일컫는 현대는 네트워크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국과 현지와의 긴밀한 협력사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셉청년부에서 사역한 경험으로 일본에서 뛰어난 감각과 세계관을 배양시킬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고립되지 않는 선교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위해 올 수 있는 사역자,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협력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온누리 리더스 캠프 마쳐

"2천/1만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이룬다"

온누리리더스 선교캠프 2기가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양지 온누리선교센터에서 있었다. 감사인 이재환 선교사는 "우리는 선교지를 품기보다 선교사를 품고 있으며,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선교 하기 보다 감



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는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 이 선교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훈련은 2천/1만 비전을 온누리 전 성도들과 구체적으로 나누기에 앞서 먼저 온누리 리더가 한 마음을 품고 헌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37에 걸쳐 교역자, 장로, 다락방장, 간사 등 총 2백14명이 훈련을 받았으며, 1,2기 1백19명은 89개 종족을 위한 '무릎선교사'로 헌신했다. (관련기사 7면)

서철 chol@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스리랑카로 ‘명’ 받았습니다. 충성!”

“충성! 이등병 000은 00년 0월 0일, 00로부터 00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군대에는 신고식이 있다. 전입신고, 전출신고, 근무교대신고, 휴가출발신고 등 여러 형태의 많은 신고식이 있다. 그 중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전입신고식일 게다.

군 전입 신고식

어려운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 지휘관에게 처음 인사하는 전입 신고식은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다. 여러 고참 병들이 전입병에게 신고식을 준비시킨다. 옷을 다려주는 고참, 이발해 주는 고참, 전투화에 끈을 내주는 고참, 신고식 내용을 암기시키며 자세를 교정시켜주는 고참 등 여러 사람들이 몇 분간의 짧은 신고식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전입신고 준비를 도와 주는 고참들 중에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끼어 있게 마련이다. 고의로 신고 내용을 틀리게 알려 주고 기합 주는 고참, 기합으로 인해 땀을 흘려 옷을 적시면 군복을 더럽혔다고 기합 주는 고참, 전투화를 닦아준 고참은 끈이 사라졌다고 기합, 그 광경을 구경하던 다른 고참들은 신병이 정신 못 차리다며 들고나면서 한 대씩 쥐어박는다. 어려운 전입 신고가 끝나면 내무반 전입

신고식을 갖는다. 이는 비공식 신고이므로 약명 높은 고참들이 있더라도 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훈련동안 얼마나 배가 고파왔으며 건빵과 밥을 몇 봉지 및 그릇씩 먹어는 일, 춤이나 노래를 시키며 왜 나보다 잘 하나며 관한 트집을 잡는 일, 복창이 작다며 계속 소리 지르게 하는 일 등 여러 형태로 괴롭힌다. 지금은 영내에서 사라졌지만 오래 전에 군 생활을 하신 분이려면 이런 기억들을 갖고 계실 것이다.

선교지에서 치른 혹독한 신고식

선교사로 헌신하여 훈련을 마친 후 파송 받아 이곳 스리랑카에서 주님의 군사로 여러 모양의 비공식 신고식을 치르며 예전 추억을 떠올려 본다. 더위와 모기의 신고식, 아직 치료약이 없는 맹기 열병으로 인해 몇 주씩 누워 있어야만 하는 신고식, 차비와 물건을 살 때 몇 배씩 바가지를 써야하는 신고식, 한번은 어느 지역을 가기 위해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탔다가 무척이나 친절(?) 열 좌석의 현지인 덕분에 잘 가고 있는 버스를 잘못 탔다며 떠밀리다시피 내려, 그 분이 알려주는 버스로 갈아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엉뚱한 시골에서 손질 몸짓으로 물어 물어 몇 시간을 헤매고 찾아갔던 신고식 등 여기서도 예전 군 생활 때 어렵게 했

던 고참들의 비공식 신고행위들이 북받쳐 럼 나탄다.

때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비공식 신고들이 나를 기다릴까” 하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염려보다 기쁨이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것을 얻으리라는 확신으로 이 땅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곳의 영혼들을 품으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깨어 있지 못해 받는 불필요한 신고식과 기합은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주의 군사 된 자격으로 주님께 멋진 신고식을 해보고 싶다.

“충성! 신고 합니다. 선교사 이지현과 가족들은 2002년 0월 00일부로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아 스리랑카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이지현/김점희(나래, 형석) 선교사 (lee153@hanmail.net)

기도제목

1. 나래와 형석에게 합당한 학교가 정해지며 언어의 지혜가 있기를
2. 가족의 건강과 현저적용 및 언어훈련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위한 기도

도육환/이경희(파송-스리랑카-TIM-서초B)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며, 주님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선교사 공동체, 현지인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 귀한 사역 이루도록
 -안식년을 위한 미국 비자 발급과 선교학 공부, 학비와 생활비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이승환/김은미(파송-스리랑카-TIM-서초A)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의 건강과 믿음 생활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 어린이집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과 신앙 성장을 위해
 -베다 방문 때 교통 안전과 특히 뱀에 물리지 않도록

이상오/박선희(파송-인도-TIM-서초B)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섬서 49도 기온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6월 6일 수료 이후 정착을 위해

류모새(파송-이스라엘-TIM-양천)
 -대학에서 동양 의학 관련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기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찬영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표적이 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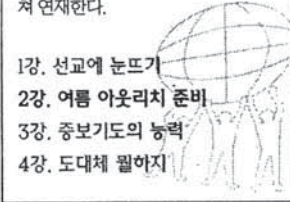
정 현/정미용(파송-인도네시아-한나선교회-서빙고)
 -언어(영어, 중국어)의 진보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중국계 선교사가 승선하여 중국인 사역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후임 치과 의사의 승선을 위해

>> 제2장 김마가 선교사(GO 선교회) <<

여름 아웃리치 준비

공동체와 아웃리치팀을 위해 열린 제1기 선교 세미나 “도대체 뭘 하지?”가 시작됐다. 더욱 뜻 깊은 아웃리치를 위해 선교세미나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 1강. 선교에 눈뜨기
- 2강. 여름 아웃리치 준비
- 3강. 중보기도의 능력
- 4강. 도대체 뭘하지



본문: 누가복음 10:1~9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아웃리치의 몇 가지 원칙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가려고 하시는 곳으로 제자

들을 먼저 보내셨다.(1절) 대부분의 단기팀은 인기 있는 몇몇 곳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월드A)보다 복음화가 되어 있는 지역(월드C), 복음화가 되어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지역(월드B)에 전 세계 선교의 89%가 집중되어 있다. 우리들도 같은 입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번쯤 해 봐야 한다. 아웃리치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경험과 훈련을 하는 것이다. 만약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평생을 바꿀만한 일이 일어난다.

둘째, 기도제목을 얻기 위해 가야 한다. (2절) 가장 좋지 않은 단기 사역은 단체 여행처럼 하는 아웃리치다. 가능하면 현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이 돌아올 때 여러분이 만났던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라. 현지인과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을 나누라. 그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민중

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다시 영향을 준다. 선교는 마치 회개와 같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바꾸어야 한다. 공허이 생긴다. 구하게 된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된다.

셋째, 고난 받고 생명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3절)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잡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선교의 적이 있다면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 월드 A 지역을 가면 겁에 질려 하는 일이 속소되기 마련이다. 그때 단기 팀이 가서 힘을 줘야 한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하더라도 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적다. 오히려 국제적인 영웅이 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넷째, 축복하라. (4-6절)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을 만난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



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라.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기도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해주겠노라 약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자신을 의지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 축복하라.

다섯째, 여러분의 돈을 쓰려고 하지 말라. (7절) 제일 잘하는 것은 현지인에게 얻어먹고 오는 것이다. 현지인의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공급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위험하다. 현지인에게 공급 받고 나면 정말로 현지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 때 공급해줘도 늦지 않다.

장라 서빙

01



인터뷰/ 리더스 선교캠프 강사 이재환 선교사

“크리스천의 존재가치는 선교에 있다”

어야 한다. 크리스천의 존재가치는 선교에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도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지?

»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성경이 새롭게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선교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 첫째 아담의 죄로 타락한 만물을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회복시키셨다. 타락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셨을 때부터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시작되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연관되어 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로 10:13)”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내는 선교사’ 보다 ‘가는 선교사’ 더 중요하지 않은지?

가는 선교사와 무릎선교사는 양쪽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 전 세계 2백30여 개 나라 중 크리스천 인구가 20%가 안 되는 나라는 60여 개 국에 불과하다. 이들

나라에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지만 그 국가들은 영적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즉 무릎선교가 필요하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 단 두 명이었다. 이것은 파송보다 무릎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다. 미전도종족, 이슬람 선교는 무릎선교사의 영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를 하러 나가야 한다는 의무와 죄의식을 가져왔다. 이제 가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내는 무릎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깨닫고 귀에서 아낌없는 후원을 해야 한다.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면?

웃을 입듯, 숨을 쉬듯 해야 하는게 선교라는 것이다. 교회에 있어서 선교는 숨쉬기다. 선교가 어렵고 힘든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겠는가? 우리는 성경으로 거듭난 주님의 종인이며 복음의 사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바라며 이 땅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선교사는 한가지 부르심(calling)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정보, 열정, 소명에 대한 확신, 헌신, 자질 등이 종합적으로 연합된 부르심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은 나가는 선교사와 무릎선교사 양쪽 다 해당된다. 특히 무릎선교사는 평생 못 만날수도, 못 볼수도 있는 종족과 지역을 품고 기도한다. 이 일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 때문에 기도하는 기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그 종족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를 모으고, 기도하고, 가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도모임에 자주 모이고 분기에 한 번씩 그 나라를 위해 금식기도를 하라. 특히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며 역라마단 운동에 동참하라. 선교지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악한 영의 방해는 심각하다. 이때 무릎 선교사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된다. 무엇보다 보지 못하는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품는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이 특권과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요나학교란?

» 요나서는 강력한 이방선교의 뜻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교의 계시이며 오늘날 선교의 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다. 요나 학교는 요나서 사건을 현대에 다시 조명해 선교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와 무릎선교사로 서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년 전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 5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고 했는데 ...

»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강조되

02



“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 10:15)

선교사로 헌신한 70여 명이 서로의 발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다.



“어린이의 잔치에서 마실 4번째 잔”

유월절 성찬에 나오는 포도주는 4잔이다. ‘감사와 찬양의 잔’, ‘산 잔’, ‘피의 잔’, 그리고 네 번째 잔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마시길 원하시는 잔이다. 따라서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는다. 이 잔은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선교적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무릎선교사”

요나 선교학교를 수료한 70여 명은 각기 한 종족을 품은 무릎 선교사로 헌신했다. 강부호 목사가 수료자를 대표해 무릎선교사 임명장을 받았다.



다시오실 주님 더욱 기다리게 돼

이번 학교에서 깊이 느낀 것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성경이 선교에 대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줄은 몰랐다. 선교 마인드로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선교는 지상명령이요 로마서가 선교의 지침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선교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선교는 영적전쟁이므로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임을 다시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리라 굳게 확신한다. 이런 훈련학교가 2천/1만 비전을 갖고 있는 은누리교회에 꼭 필요하다. 전 성도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사가 되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일 이 될 것이다.



김원규 장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에 위로

예전에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하나, 아니면 남이 있어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떠나는 것이 마땅하며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신 선교사님의 말씀에 그 갈등과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느낌이다.

기뻐한 것은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는 일임을 알게 된 것

이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번 요나선교학교를 통해 너무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반성도 했다. 선교는 열정과 함께 냉철하고 이성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크게 와 닿았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선교에 힘쓰고 싶다.



이시내 간사

열방를 예수께로 (Meet the

한반도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월드컵의 열풍, 특히 한국팀은 48년간 숙원이었던 월드컵 첫 승을 뽑아내고 16강에 이어 8강으로 승승장구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사람들이 축구의 열기에 휩싸여 있을 때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을 하나님께 보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갈급한 '온누리' 사람들이 있었다. 영어예배가 처음 품은 '월드컵 전도' 비전은 온누리교회 전체의 비전이 되어 영어예배를 주축으로 일본어예배, 중

국어예배, 온누리미션 등 외국어예배와 청년부와 대학부도 힘을 모았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새로운 선교 방법을 보여준 이번 월드컵 전도집회는 지난 16일,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대학부와 청년부는 30일까지 경기장 전도를 계속할 계획이다.

전성희 shee@annuri.or.kr



전도전략 세미나 경기장 전도



'기도와 세미나로 무장'

이영표, 송중국, 최태욱 세 온누리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헌수막 제자를 시작으로 온누리교회는 월드컵전도행사에 들어갔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존 도우슨, 밥 피츠를 초청해 '2002 월드컵 전도 부흥집회'와 '전도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2천 선교팀은 월드컵 본선에 오른 32개국 기도책자를 제작 배포했으며, 온누리 성도들은 9백 60시간 피기도에 동참했다.



다민족 친구 초청 축제



각 나라 전통의상을려 오는 성도를 만나 지체들, 외국인 형제 리미션과 여호와의피가 선교관 3층에서 동상담, 의료봉사를



'경기장으로 거리로'

5월 초 전도팀을 조직한 영어예배와 중국어예배, 일본어예배, 온누리미션, 대학부, 청년부는 31일 32개국 토너먼트 경기가 시작되자 서울, 수원, 대전 등 각 경기장으로 아웃리치를 나갔다. 중국어예배는 6월 8일(토) 경천홀에서 '중국 대 브라질전'을 지켜보았다. 브라질이 3번째 골을 넣자 망연해하는 중국응원단의 모습.



2천/1만광장은 일본, 중국, 미국,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몽골, 터키, 미얀마, 네팔 예배와 대학부가 준비한 규동, 만두, 땅수육, 햄버거, 키르(과일 디저트), 코코넛 밥 등 민속 음식 바자가 오전 10시 경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렸다. 오후에는 각국의 민속 춤과 각 나라 언어로 부르는 찬송, 대학부 워십 공연이 있었다.

01

nations)!



입고 예배를 보하는 외국어예배들을 위해 온누리림, 요셉 청년부 이이용봉사, 노력했다.



02

>> 영어예배 김인화 목사 인터뷰

헌신된 자들이 연합한 '축제'



Q 월드컵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처음 말한 곳이 영어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월드컵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어예배에 주신 비전과 아이디어를 온누리교회가 함께 공유한 축제였습니다. 작년 가을 영어예배 파트 교역자인 조슈아 전도사와 스튜어트 전도사가 '월드컵을 보러 오는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월드컵 전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경남 목사는 월드컵 전도 계획을 듣고 이 일은 영어예배 혼자 할 일이나 온누리교회 전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교역자들과 의논해 전교회 차원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Q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영어예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온누리교회 전체 비전으로 공유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월드컵 전도는 연초에 세워진 정규 행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분들이 여러 사역 때문에 바쁜 와중에서

도 동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Q 월드컵 전도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몇 번 그만둘지도 모를 고비가 왔는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사람들을 바꿔 전도축제가 가능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디자인실은 밤 새며 작업해주었고 대학부는 피기도 시간을 플라스틱축구공에 넣기 위해 밤을 샜습니다. 이런 헌신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 저희가 그러던 그림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조금 어설프게 준비되어도 계획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은혜 받았습니다.

또한 전부터 기도해 온 한국 교회가 연합하는 모델을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간 영어예배와 한국어예배 사이에 교제가 많지 않았고 함께 사역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이번 월드컵 전도 축제에서 한국어교회, 영어예배, 온누리 미션, 공동체가 함께 일했습니

다. 우리부터 시작해 연합하면 주변 교회, 나아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행사 계획을 확실히 세우지 않고 진행한 것입니다. 영어예배에서 주관한 길거리 축구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미리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 호응이 적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은사를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우면 효과적인 전도집회가 될 것입니다.

Q 월드컵 전도 축제가 온누리 교회에 주는 의의는?

이번을 계기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온누리 사시는 것을 보며 은혜 받았습니다. 또한 전부터 기도해 온 한국 교회가 연합하는 모델을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간 영어예배와 한국어예배 사이에 교제가 많지 않았고 함께 사역하는 일도 드물었지만 이번 월드컵 전도 축제에서 한국어교회, 영어예배, 온누리 미션, 공동체가 함께 일했습니

전성희 shee@onnur.or.kr

03

>> 상암동 경기를 다녀와서

응원 속에 느끼는 '형제애'

오늘은 16강 진출을 놓고 터키와 중국이 결전하는 날이다. 월드컵이 시작되면서 거리에 부쩍 많은 외국인들이 눈에 띈다. 터키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 나라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준 형제의 나라라고 하지만, 내게는 그들 역시 거리에서 스치면 '외국인'에 불과했다. 그렇게 여기던 터키를 응원하러 간다고 한다.

상암 경기장 평화의 공원!

선발대로 도착해서 공원의 정취를 한껏 느끼며 걸음을 옮겼다. 이미 그곳에는 '터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열심히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타지에서 승리를 염원하

며 해맑게 웃는 터키 서포터스들과 함께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며 응원 연습을 했다.

'오~! 필승 투르크~!'

요셉의 청년들도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평화의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외국인들에게 다국어로 쓰여진 책자와 책갈피 등을 나눠주었다.

노란 응원복을 입고 터키 국기를 앞세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터키인들은 너무도 기뻐했다. 걸모습도 다르고의 사소통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방인 우리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응원한다는 것이 소름끼치도록 행복

한 모양이다. CNN과 터키 국영 방송국에서도 요셉 청년들의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취재해갔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연합할 때 열정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던 몸도 어느덧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함께 기뻐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우리가 '투르키예'를 외칠 때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코렐리'를 외치고 있었다. 터키는 중국을 3:0으로 이겼다.

감격의 포옹과 투르쿨 연호하는 터키인들과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들의 숨결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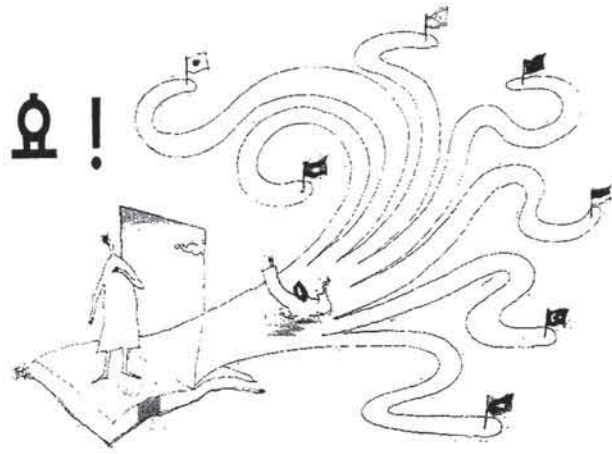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한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에 빚진 내가 그들을 이방인으로만 여겼음이 부끄러웠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이다. 형제애를 다지는 순수한 열정으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

박미선 자매
(요셉공동체 문화예술협회의)



Outreach

이렇게 준비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최정훈

아웃리치 기본 방향

- A. 부서별 아웃리치 방향은 비전 2000 기본 방향과 하나됨을 원칙으로 하며 추진은 부서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한다.
 - * 비전 2000 성취를 위한 전략적 선교 우선 대상 - ① 미전도종족 ② 이스라엘 ③ 중국 ④ 일본 ⑤ (아프리카)니탄
- B. 부서별 섬김선교지역을 온누리 미션필드 (Mission Field)로 하되 섬김 선교지 숫자는 부서별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필요시에는 새로운 지역을 선교본부와 협의 개척한다.
- C. 사역은 선교자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연구, 정탐, 분석하여 지역별로 입양개념과 동일하게 장기적인 사역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 예) Summer School(영어, 컴퓨터, 한글 등) 의료봉사, 미용교실, 우물공사, 해비타트(Habita) 운동, 문명퇴치 운동, 생활환경개선, 도로보수, 직업재활, 농업개발 지도, 고아원/양로원 섬김, 하수도 개량 보수, 여름성경학교 등
- D. 온누리 파송 선교사와 협력하여 추진하되 온누리교회 선교사가 없는 지역은 타교회 선교사, 선교단체, 현지교회 지도자와 협력한다.
- E. 부서별 아웃리치 팀 구성과 사역은 타부서와 연합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예) 청년+대학부+성인공동체+꿈향
 - *장점: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며 가족적인 분위기를 이룰 수 있다.
- F. 부서별로 동일한 선교지역은 같은 팀의 개념으로 준비단계에서부터 함께 계획하며 추진한다.
 - *부서별 팀장으로 시작해서 후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

- 등)
- B. 팀장 세우기 - 담당교역자 외 선교에 경험 이 있는 사람에 한해 팀장을 세운다.
 - i. 팀장이 할 일
 1. 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기도한다. - 이름, 주민번호, 여권번호, 직업, 주소록, 가족상황, 기도제목
 2.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역, 지원할 사항, 현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3. 자료: 기도편지, 개인 간증문 수집, 가이드북을 만들게 한다.
 4. 재정: 예산을 파악하고 회계 담당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
 5. 훈련: 팀 훈련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게 한다.
 6. 현지에서 현지선교사와 협력하여 사역을 진행한다.
 7. 돌아와서 평가 모임을 갖고 사역보고서를 제작하여 다음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선교여행 점검표

- A. 준비(4~6개월 전) - 일정, 여행지 결정, 선교사 선정, 주요 사역 및 방법 결정, 항공권 예약
- B. 모집(4개월 전) - 광고, 신청서 배부 및 접수, 서류 안내, 여권제작
- C. 훈련(1~2개월 전) -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전도훈련, 여행안내, 팀워크), 강사 선정, 여행자보험 가입
- D. 실시 출국, 입국
- E. 마무리(1개월 내) - 평가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서 작성, 사진/슬라이드, 선교지 물품정리, 자료집 발행, 마무리 모임

개인 짐꾸리기

여권(6개월 유효기간), 비자, 여권 사본과 사진 2장(분실대비), 대사관 연락처, 현지에서의 연락처, 비자확인, 세면도구, 여행안내서, 휴대용 가방, 손전등, 비상약품, 물티슈, 간편한 긴 옷, 짧은 옷, 내의, 샌들, 수영복, 선글라스, 우산/비옷, 신용카드, 한영성경, 전도지, 필기구, 사역에 필요한 물품, 문화소개용품(한복, 악기 등)

사역의 종류

노방전도, 의료선교, 어린이 사역, 세미나 및 지도자 훈련, 제자훈련, 구호봉사 및 각종 봉사활동, 선교사 자녀교육

아웃리치 주의사항

- A. 무리한 일정은 피하며 저렴하게 사역지로 이동한다.
- B.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므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단체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 C. 현지 선교사의 지도나 지시에 순종하며 현지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준다.

- D. 하루 일과가 끝나면 평가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 E. 선교사를 격려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준다. (편단, 선입견 금물)
- F. 개인적인 여행일지를 기록한다.
- G.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

보안지역에서의 아웃리치

- A. 보안지역으로 전화, 메일 등 소식을 보낼 경우(도청이 된다) 기록 용어와 선물 편지를 절대 삼간다.
 - 예) 선교사->선생님, 교회->회사, 공동체->부서 또는 팀
- B. 보안지역 안내
 - 공산권: 중국
 - 모슬렘: 중동 전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타르, 투르크메니스탄, 보스니아, 터키, 예멘, 요르단, 사우디, 파키스탄 등)
 - 기타 힌두, 불교권: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등
- C. 보안지역 여행시 단체행동은 삼가며 소수로 움직이며 의상은 눈에 띄지 않도록 평범한 복장으로 특별히 주의한다. (현지 선교사의 이야기 참고)
- D. 노방전도나 지나가면서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도록 한다.
- E. 현지인들에게 함부로 복음을 전하거나 다가가지 않는다.
- F. 보안지역을 다닐 경우 현지 사정을 파악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필요하다면 현지정탐훈련 등을 받아서 사전에 준비한다.)
- G. 현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명심하면서 움직이도록 한다.

아웃리치를 끝내고

- A. 선교보고회
- B. 자료집 발행
 - 자료집 구성: 선교사역지 개관 / 선교사역 목적 / 사역팀 구성 및 소개 / 사역결과보고 및 평가 / 현지인어소개 / 팀 평가서 / 현지 협력선교사의 평가서 / 자료 사진 20장 / 간증
- C. 정기적으로 연합팀으로 방문한다.
- D. 구체적인 선교로 결실을 맺으라: 지속적인 중보기도

팀 구성

- A. 참가자 모집
 - i. 기준: 10~15명이 적당하며 선교헌신자 또는 관심자에 한해 모집한다.
 - ii. 방법: 광고, 홍보물, 간증과 개인접촉, 예비 모임
 - iii. 훈련기간: 기본적인 선교교육, 팀워크 훈련,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주 1회씩 1일 교육 내지 1박2일 코스로 공동생활 훈련을 실시한다.
 - iv. 훈련내용: 전도하는 방법, 개인간증 준비, 문화에 대한 이해, 현지에서의 생활, 단체 생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섬기는 자세, 선교지에 대한 정보와 언어, 보고서 작성
 - v. 훈련과제: 기도후원자 모집, 선교사들에게 편지 쓰기, 노방전도, 개인 간증문 작성, 선교지역 연구 자료 수집, 정리(영상물, 현지인 사진이나 문화사진, 지역 상징 사진

< 예산 편성 지침 >

수 입		지 출	
참가비	1인당 경비 X 인원	항공료, 공한세, 출국세 여행자 보험	왕복요금 필수 1인당 1만원 이내
현금		장비 자료비 약품 체제비 식대	지역장비 구입, 수리, 사역물품 필요한 자료 제작 재료비 공동약품 숙소 사용요금 지역기간 중 식대
후원금		교통비 선물비 소모품 관광 현금 사진대금 보고서 제작비 훈련비	교통수단 이용, 유류대 현지 주민, 현지 목회자, 선교사 문구, 필름, 건전지, 물티슈 관광지 입장료 현지인 교회 방문시, 선교사 나중에 찾을 때 지불 정기 모임, 합숙 훈련비
합계		합계 잔액	

01

요한 공동체(양재 대학2부)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발



요한공동체 2002 여름 해외아웃리치는 이미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몽골, 캄보디아, 중국, 국내 낙도팀이 조직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이전에 다녀온 단기팀의 영상, 언어교육 자료, 현지 문화 상황과 선교지 중심의 기도 제목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 나라별로 시작되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희락성전에서 모이는 요한공동체 목요소망집회는 6~7월 두달 동안아웃리치를 위한 특별집회로 모이고 있다.

6월 한달 동안은 예배와 함께 선교 영상을 보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지난 7일에는 올 겨울 아웃리치 때 함께 사역했던 태국 최승근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함께 중보기도를 했다.

지난 14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하는 이영룡 선교사의 선교사역 보고를 가진 요한공동체는 21일에는 몽골편 영상(45분)을 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28일에는 중국관련 영상을 준비해서 함께 보며 기도한다.

7월은 선교 기초 이론을 세울 말씀 집회로 준비되고 있다. 이번 주일부터 선교에 관련

된 성경공부 'Go World'가 매 주일 예배 후 시작된다. 각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방법을 각각 소개하며 초대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선교의 성경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요한공동체는 6월30일 아웃리치 발대식 예배를 기점으로 아웃리치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7월 2일부터 요한 선교캠프를 갖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며 현지 선교사와 선교지역과 원주민을 돕는 아이디어 회의, 각각 별로 현지 언어와 그림으로 복음 내용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저녁집회에서는 '무릎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라는 타이틀로 집회를 갖게 된다.

이번 여름을 맞아 양재대학부 요한공동체는 7월에 몽골, 캄보디아, 중국, 그리고 8월에 떨어진 섬, 낙도로 선교를 나간다.

캄보디아로 가는 장지인자매(17기)는 "끝없는 내전으로 피폐해진 캄보디아를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 빈민구제, 찬양, 전도, 어린이 사역 등의 일들을 할 예정입니다"라며 기도를 당부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캄보디아에 소망을...

캄보디아에 흐르던 어둠의 세력을 끊고 영적인 기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며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소망의 기쁨이 흐르도록 가서 중보하고 싶습니다.

특히 칼링필드라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바라볼 소망을 주고 싶습니다.

성보영 형제(15기)

몽골이 하나님을 높이길...

얼마 전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몽골 사진집을 보게 되었어요. 갑자기 몽골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땅에서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심을 느낍니다. 그곳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을 보길 원하고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정성재 자매(14기)

동일한 하나님사랑 알리고파

이번 사역은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보여준다는 생각 보다는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열린 예배,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그들을 섬기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몽골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나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됨임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체험케 하고 싶습니다.

이상백 형제 (14기)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에 참여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뻘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은사들로 몽골 땅을 풍족케 할 것들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그리는 하나의 그림에 참여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행상을 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문국천 형제(17기)

03

상암동 월드컵 아웃리치

동역할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난 6월 13일 상암동 축구경기장에서 중국 대 터키 경기가 있던날 중국 연합선교회에 속한 온누리교회 각 부서가 함께 아웃리치를 갔다. 온누리 미션과 요섭, 여호수아 청년부가 함께 가서 웅원과 페이스페인팅, 전도지 나눠주기 등으로 전도했다.



이선미 자매

온나라가 월드컵의 열기가 움트기 시작하는 5월, 우리 교회에서도 '2002 월드컵 본선 32개국 매일기도정보'를 나눠 주었다. 당시 축구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던 나는 대표팀의 3명의 선수가 같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흥미로울 뿐이었다.

그래서 단순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공통기도제목과 그날의 국가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월드컵이 얼마나 좋은 선교의 기회이며, 하나님의 눈이 월드컵을 얼마나 관심있게 바라보고 계신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즈음 존 도우슨 목사님의 '월드컵 아웃리치 집회'에 참석한 후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나도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선거일인 6월 13일 양육다락방이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6월 10일 중국 아웃리치를 위한 연합집회가 서빙고 성전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참석했다.

그곳에서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선교전략에 "연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대하심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난 '상암 아웃리치'를 위해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6월 13일 부푼 마음으로 '상암월드컵경기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했던 일은 경기장 입구 주변에서 서서 중국팀을 응원하는 것이었는데, 중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응원이라는 단순한 활동을 통해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기대를 알게 하셨다.

한국이 드디어 8강에 진출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동역할 기회를 주신 감사와 기쁨, 그리고 우리나라와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04

단신

월드컵 아웃리치

양재 대학 1부 바울공동체는 6월 한달동안 매주 월드컵 아웃리치를 나가고 있다.

개막전일 인사동 전도를 시작으로 매주 예배 후 인사동과 이태원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찬양, 워십, 챔버, face painting, 누가 복음을 32개국어로 번역한 책자 나눠주기 등 다양한 전도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국의 월드컵 관광객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30일까지 계속될 이번 월드컵 아웃리치는 여름 방학 선교수련회로 이어지게 된다.



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대만 선교수련회 때는 바울공동체가 출발 한달 전부터 현지 교인들이 미리 한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홍보한 후 '열린 새신자 예배'를 함께 드린 다.

선교수련회 일정

6. 26~27 선교수련회 팀중 캠프

7. 4~6 Membership Vision Camp

7. 15~20 여리교 기도회

7. 22~27 일본 선교수련회

8. 1~10 대만 선교수련회

8. 13~24 유럽 선교수련회

8. 26~30 여름 선교수련회 성경통독캠프

여름 선교수련회

양재 대학 1부 바울공동체는 일본과 대만, 유럽으로 수련회를 떠난다.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한 현지 선교사가 있는 교회에서도 사역한다.

이번 월드컵 공동개최국 일본에서의 아웃리치는 다양한 전도 형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



미션 월드컵

“출전국을 위해 중보합니다”

960시간 띠기도
(5.22~6.30)

- 월드컵 기간 중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고 세계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 모든 사역과 리더십이 하나 되고 예수님 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 사찰에서 숙박하는 사람을 제한하고 불교가 참 진리가 아님을 깨닫도록
- 월드컵 조직 위원회가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축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 온 국민들이 월드컵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 6월 24일 (월) : 일본 >

· 국가개요

1. 면적: 372,300km² 태평양 북서부에 자리잡고 있는 네 개의 큰 섬과 3,000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13%만 경작 가능
2. 종족: 토착인 99.3%, 외국인 0.7%
3. 종교: (민족주의 신도 80%) 불교 58%, 신종교 24%, 기독교 2.5%(개신교 1.13%), 회교 0.2%

· 기도제목

1. 성령께서 개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개방과 무반응이 혼재해 있다. 절에서의 우상숭배, 가정에서의 조상숭배와 연합된 약령의 힘은 일찍이 결정적인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대부분은 종교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30%는 뚜렷하게 종교를 갖고 있지만, 10%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이다.
2.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의 미래는 목회자들이 많고 교회 지도자의 자질이 높아 매우 희망적이다. 좀 더 많은 독신 혹은 부부가 목회사역과 선교사역에 헌신하여 훈련받도록.
3. 선교사들을 위해 언어와 문자의 어려움, 문화의 복잡성,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의 당혹스러운 요소, 두루 퍼져있는 악령의 영향 등이 선교사들의 적응과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선교사들이 눈물겨운 단계에 있다.
4. 학생들과 학생 사역을 위해 학생 사역은 교회의 장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학생들과 학생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하자. 캠퍼스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 6월 25일 (화) : 벨기에 >

· 국가개요

1. 면적: 30,500km², 유럽의 십자로인 베네룩스 3국중 하나.
2. 종족: 플레밍 54.7%, 왈론 32.3%, 유럽공동체 시민 6%, 기타 6%
3. 종교: 기독교 89.3%(개신교 0.8%), 회교 3.1%, 유대교 0.32%

· 기도제목

1. 복음의 빛이 다시 한번 비치도록 지난 400년 동안 영적 어두움이 이 땅을 지배해 왔다. 과거 스페인의 탄압으로 16세기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600여 교회가 파괴되었다.
2. 모든 벨기에인에게 복음이 증거 되도록 교회는 2000년이 오기 전에 모든 벨기에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범교단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신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 이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비전을 잃지 않도록
3. 복음을 전하는 팀들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전도의 자유는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싸움이다.
4. 물려드는 회교도들을 위해 북아프리카인과 쿠르드, 투르크족의 합병 또는 불법 이민으로 급속히 늘고 있으며, 대부분 브뤼셀의 빈민가에 산다. 거의가 회교도로 복음주의자들에게 특별하고 긴급한 도전이다. 교회들이 깨어서 이들을 위한 전략들이 수립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6월 26일 (수) 폴란드 >

· 국가개요

1. 면적: 면적: 313,000km², 중부유럽의 평원
2. 종족: 슬라브 97.9%, 기타 2.1%
3. 종교: 기독교 97.6%(개신교 0.49%), 유대교 0.02%, 회교 0.01%

· 기도제목

1. 나라의 안정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되어 다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자. 무엇보다도 죄로부터의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이 나라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선포되고 환영받도록 기도하자.
2. 교회개혁을 위해 교회성장이 강한 곳에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전국적, 지역적 차원에서 긴밀하게 교제하고 협력하도록 기도하자.
3. 신학생들이 훈련되고 선교의 비전을 갖도록 지도자 성경훈련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1993년까지 20개의 시간제 성경학교나 성경통신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이 있었는데, 이 숫자는 개신교의 수가 적은 이 나라로서는 놀랄 만한 숫자이다. 졸업생들이 성경적인 충성과 영적 권능 그리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4.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폴란드의 신자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중부 유럽과 그 외의 곳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기도하자.

< 6월 27일 (목) : 러시아 >

· 국가개요

1. 면적: 17,075,000km², 발트해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11개의 다른 시간대를 갖고 있음
2. 종족: 슬라브 85.5%, 코카서스 2.2%, 터키/알타이 8%, 썸 0.38%, 기타 0.1%
3. 종교: 기독교 56.3%(개신교 0.7%), 무종교/기타 32.7%, 회교 8.7%, 샤머니즘/정령숭배 0.8%.

· 기도제목

1. 러시아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복음적인 기독교인은 늘고 있지만 공산치하의 여파로 불신이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남아 있고, 윤리적 타락과 우유부단함 등이 만연하다. 말씀에 사로잡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러시아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목회자를 위한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한 자질향상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수백 개의 외국 선교단체가 이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과 인력과 전문지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신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람, 특히 하리크리시나 추종자들이 70만에 달한다고 한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뉴에이지 사상에 젖어 있다. 여호와의 증인, 물문교, 통일교 등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 6월 28일 (금) : 튀니지 >

· 국가개요

1. 면적: 155,000km², 북부는 산악과 농경지역, 남부는 사하라 사막.
2. 종족: 아랍 98.3%, 베르베르 1.2%, 기타 0.5%
3. 종교: 회교 99.5%, 기독교 0.25%(개신교 0.005%), 무종교/기타 0.1%, 유대교 0.04%

· 기도제목

1. 다시 생명력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 나라는 일찍부터 기독교가 강성했고, 터틀리안과 키프리안 같은 지도자가 배출되기도 했다. 교회의 분리, 이단, 외세의 침입, 그리고 결국에는 회교로 인해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었다. 오늘날 겨우 50여 명의 토착 복음주의 신자들이 있을 뿐이며, 그들 중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나라에 다시 생명력있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2. 기독교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도록 토착 기독교인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다. 예수께 대한 깊은 헌신이 있도록 기도하자. 10년 이상 믿음을 지켜온 소수의 튀니지인 기독교인은 거의 없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세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지도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 토착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2개의 소규모 집단에 속한 지도자가 없다. 교회를 세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

< 6월 29일 (토) : 미국 >

· 국가개요

1. 면적: 529,000km², 인구와 국토 면적이 전세계에서 세 번째.
2. 종족: 유럽계아메리카 70.5%, 아프리카계 아메리카 12.1%, 남미계 9.4%, 아시아/태평양계 3%, 토착인 0.8%, 기타 4.2%
3. 종교: 기독교 86.5%(개신교 51.3%), 유대교 2.4%, 회교 1.8%, 무종교/기타 8.7%, 힌두교 0.2%

· 기도제목

1. 예수의 이름을 행하는 세력이 육이도록 미국의 영적 유산이 계속 침식당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의 영적 침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인본주의자, 동성연애자, 뉴에이지 운동 추종자, 낙태 옹호론자 등이 끊임없이 기독교 가치관에 도전해 오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세력이 무이도록 기도하자.
2.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흥이 일어나도록 영적 각성의 조짐이 보인다. 전국에 걸쳐 확산되는 기도운동, 수백만 명이 시 전체에 걸친 기도합주회, 예수대행진 그리고 그 지역 기도회와 기도행진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복음주의의 전국연합을 위해 교회 조직, 영적은사, 종말론,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정의,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방법 같은 이차적인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전세계 복음화 과업을 방해하고 있다. 5만명의 복음주의자들과 77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복음주의 전국연합을 위해.

< 6월 30일 (일) : 포르투갈 >

· 국가개요

1. 면적: 92,000km², 스페인과 함께 이베리아 반도의 15%를 차지.
2. 종족: 포르투갈인 96.6%, 소수 토착인 0.9%,
3. 종교: 기독교 96%(개신교 1.24%), 회교 0.2%, 무종교/기타 3.8%.

· 기도제목

1. 포르투갈의 영적 해방을 위해 오래된 이교도 풍습 가운데 마리아 숭배가 소위 "기독교인"인 것으로 여겨지며 전 인구의 약 90%가 영매와 마법사를 찾아가는 등 구습에 사로잡혀 있다. 설상가상으로 물질주의, 알콜중독, 마약중독, 뉴에이지 운동, 물문교와 여호와의 증인 등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
2. 성경과 신학 훈련을 위해 성경 훈련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전임 사역자가 부족하다.
3. 전임 사역자의 영적 자질이 성장하도록 교회는 1,168개인데 목사는 350명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카리스마틱 교회는 복음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음주의적인 회중을 분열시키고 파멸시켜 끝내는 사람들을 환멸과 타락에 빠지게 했다.
4. 이주인 노동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는 130만 명의 포르투갈인 이주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중 다수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일념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

*

제1기 은누리 선교세미나
 · 일시: 6월11일~7월2일 매주 화요일 오후7:00~9:30 (회비없음)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황민식 간사(교 208)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6월 24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선교관 302호
 · 강사: 김중 선교사
 · 주제: 중국 아웃리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연락처: 김화수 집사 (011-448-4262)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해정 간사 (792-7075~6)

아람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러시아 아웃리치팀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지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준비모임
 · 일시: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은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 품고 기도하는 청년
 · 문의: 이경환 (016-297-2090) 정병철(chorri@daum.net)

의료선교
A팀 국내아웃리치
 · 일시: 6월 23일(주일) 오전 9:00 출발(2천/1만광장)
 · 장소: 아름다운교회(일산시 풍동 안도현 목사 사무, 031-902-9090~91, 011-711-9091)

A팀 해외아웃리치
 · 일정: 7월 27일~8월 4일
 · 장소: 스리랑카
 · 지역내용: 진료, 이미용, 전도, 찬양, 위생, 어린이사역
 · 진료과목: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치위생, 치기공, 한방, 간호
 · 예상경비:항공료 86만+기타
 · 필요서류: 여권소지여부 영문이름, 비자불요
 · 기도모임: 매주 목 오후 7:00~10:00 서빙고 아론기도실
 · 전체 문의: 엄성욱 간사(교 661) 최충길 탐장 (011-262-8193) 김준현 총무 (011-9970-2630)

의료선교 C팀 아웃리치
 · 일시: 7월 7일 (주일) 오전 8:30 2천/1만 광장출발
 · 장소: 일산 한마음교회(박충섭 목사, 031-923-4647)
 · 문의: 안태환 탐장 (011-323-1515)

캄보디아팀
여름 아웃리치 기도 및 준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서빙고 경천출내 유아실

물품구함
 · 품목: 여름옷, 의약품, 영어책, 학용품, 현금 등
 · 문의: 서세창(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4567-118, 456-711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 의사, 컴퓨터/피아노 교사 각 1명

선교자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사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KIBI
이스라엘 선교의 밤
 · 일시: 6월27일(목)오후 7:30-9:30
 · 장소: 서빙고 302호
 · 내용:이스라엘 영화 카도쉬 상영
 간사모집
 · 문의: 792-7075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 자료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현신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
 ·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저녁-예배나 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은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CD player, VTR
 · 문의: 이경희 간사 (교 514, 017-316-9787)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

요한 공동체 ‘발대예배’

오늘(30일) 양재 대학2부 요한공동체는 여름 아웃리치 발대예배를 드린다. 몽골, 캄보디아, 중국, 낙도 네 지역으로 팀을 나누어 아웃리치를 가기로 하고 자료수집과 기도회등으로 준비하고 있는 요한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웃리치를 시작하겠다는 다짐이다.

오늘 오후 2시에 드려질 발대예배는 7월에 떠나는 선교지(캄보디아, 몽골, 중국, 낙

도)등 각 나라의 영상을보고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양재와 서빙고의 청년대학부도 기도모임과 함께 기능스쿨등 아웃리치를 준비하는데 분주하다.

각 부서 발대예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바울 공동체(양재대학1부) 7월 14일
- 여호수아공동체(양재청년부) 7월 14일
- 다윗공동체(서빙고 대학부) 7월 7일



- 요셉공동체(서빙고청년부) 7월 7일

홍미남 minam@onnuri.or.kr

파키스탄 5주년 기념예배

창립 5주년을 맞은 파키스탄 예배가 지난 주일 기념예배를 드렸다. 김 사무엘 목사가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크리스토퍼허 레바렌 형제가 통역했다. 예배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지난 5년 동안 파키스탄 예배의 성장을 돌아보며 5주년을 자축했다.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근심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로



동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성큼 다가와 이제 날마다 더위와 싸우게 되었는데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자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기도, 헌신, 재정 등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동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 은밀한 기도가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는 사람의 용모를 변화시킵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를 불굴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보상으로 능력을 갖게 합니다.

주를 위한 수고

요즘 중국에도 날마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자국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

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딤후 2:3, 4)' 하며 디모데에게 헌신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은 큰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효과를 낼 것입니다. 여러 동역자님 중에서 어려움이나 근심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곧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계속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번 훈련은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자이신데, 그 자녀들을 결코 궁핍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소유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날마다 살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주위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

씀을 목상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히 13:6)."

● 기도제목

1.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2.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를 만나도록
3. 필요한 재정들이 잘 채워져 사역과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4. 세 아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베드로, 유니게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영환/윤유희(파송-방글라데시-TIM-안양, 안산)
-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성을 쌓는 가정이 되도록
- 7월 언어공부 준비를 위하여

강에스데(파송-소아시아-YWAM-동대문, 남양주)
- 7월 3일 교회 개척팀에 합류하는데 새로운 리더와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 집을 구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한정국/이경애(후원-한국-UPMA-안양, 안산)
- 각 학교가 가을 학기 설계와 여름 사역 준비를 잘 하도록
- 미전도종족선교연대(UPMA) 홍보용 CD 가 잘 제작되도록

Gregg/Milee Wareham(단기-동북아시아-TIM)
- 산모와 태어난 둘째아들의 건강을 위해
- Milee의 이민 및 귀국 신청 작업을 통해 해외 사역에 필요한 다른 'parole visa'를 얻을 수 있도록

Mehboob Diashadi(현지인-서남아시아-온누리미션)
- 은혜의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고아들을 위해
-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부부를 사용하시도록

김미향(후원-중동-중동선교회-중종로)
- 집주인 부부와 영적 교제를 누리고, 영어가 통용되도록
- 삼급반에 잘 적응하고 선생님과 좋은 교제를 누리도록
-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말할 수 있도록

03

>> 제3강 주부가 선교사 <<

구하라! 열방을 주리라



공동체와 아웃리치팀을 위해 열린 제1기 선교 세미나 "도대체 뭘 하지?"가 시작됐다. 더욱 뜻 깊은 아웃리치를 위해 선교세미나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강. 선교에 눈뜨기
2강. 여름 아웃리치 준비
3강. 중보기도의 능력
4강. 도대체 뭘하지

열방을 얻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씨가 되는 '말씀' 뿐 아니라 밭이 되는 '환경'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맞는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은 힘있게 전달된다.

첫째, 세계는 지금 세계화 되어 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 법, 체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세계화는 인본주의적 세계화이고 그 이면의 이데올로기는 '휴머니즘'이다.

2천년 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시며 '휴머니즘 세계화'를 경고하셨다. 하나님보다 인간 이성 논리주의를 우선시하는 '휴머니즘'이다.

둘째, 문명충돌이다. 세계화와 문명 충돌은 상반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세계화되고 있지만 문화와 종교적인 면에서는 보수성과 폐쇄성이 더해가고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체험을 집단의 진리에 앞세운다. 때문에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독선이요, 편견과 왜곡이라고 반발할 수 있는 환경이다. 다원주의, 종교 근본주의, 세속주의 등 전세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환경이 팽배해 있다.

이 환경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의 수는 점점 늘어난다. 1989년 119개였던 지역이 지금은 140개 국을 넘고 있다. 이것은 전 후방이 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의 총체적 영적 전쟁에 맞서 선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과거에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를 했으나 지금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

다. 전 기독교 인력이 총동원 해야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 때 선교에 대한 부르심도 동시에 받는다. '선교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하는 차원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 핵심은 '중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기도 없는 선교는 불가능하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 바로 '중보'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기다'가 아닌 '견디다'로 표시되어 있다. 주님의 교회가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주님은 결정적인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땅

에서 매년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혀에 기도라는 열쇠를 얻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면 음부 권세를 지키는 지옥문이 건디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사가 40장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다. 정직하고 평탄케 하는 것은 회개이다. 회개를 통해 마음의 광야를 평탄케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써 준비된다.

준비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 확장되기 위해 움직이고 중보하고 노력해야 한다. 때로 환란과 어려움,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 강력한 무기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정리: 전성희

“하나님을 100% 믿으십시오”



서동욱 목사

요한공동체의 아웃리치 주제는 'Go World & Makes Friends for Jesus!' 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떠나기 원합니다. ('Go World'). 우리는 모든 일의 동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고자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날 먼저 사랑하는 주님처럼, 또한 나를 친구 삼으신 주님처럼, 이국 사람들의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Makes Friends for Jesus!')

우리는 몽골, 캄보디아, 낙도, A국으로 갑니다. 몽골(울란바트르 7/23~30)은 겨울 아웃리치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신 지역입니다. 몽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어린이 성경학교' '한인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수요일과 주일에는 열린 예배로 섬기게 됩니다.

캄보디아(프놈펜 7/15-23)는 이영룡선교사님의 10장 분량의 간증문과 사역 비디오를 보면서 1970년대말 킬링필드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품을 기다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60명 정도의 지체들이 빈민촌 곳을 일을 하고 어린이와 청년들 대상으로 열린 예배와 성경학교 등을 열어 현지 성도의 부

흥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낙도선교(전남 평일도 8/11-16)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복음화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갈 곳은 금곡교회를 중심으로 한 섬의 한쪽 마을로 100가구중 80~90가구가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C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요한공동체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신이 왜 계속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선교적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하나님나라와 다른 많은 영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앞서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공동체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용기있는 젊은이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온누리성도에게 기도부탁합니다.

- 요한공동체 지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아웃리치를 통해 '가르치는 은사'가 많이 개발되게 하소서.
- 건강하고 안전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의 역사만을 남기고 오게 하소서.

◆문의 : 서동욱 (011-9595-2994)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이은호 전도사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너희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쏟아 부는 너희를 보면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구나.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끄시는 곳은 일본, 대만, 유럽, 중국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우리는 이번 한일월드컵을 통해 서로 응원하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우리는 후쿠오카, 나리타에 세워진 온누리교회를 섬기러 간다. 일본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의 땅과 눈물을 쏟아주렴.

대만, 우리는 회은당교회와 함께 대만의 차세대를 공략할 것이다.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대만의 청년들, 대학생들의 모습을 꿈꿔보렴. 더군다나 하나님은 한류열풍을 주셔서 우리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들에겐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

유럽, 하나님의 공휴일이 필요한 곳.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필요를 잘 보고 돌아와주길 바란다. 최근 하나님이 유럽에 대한 공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앞으로 바울공동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유럽 모든 나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A국, 개원하는 유치원을 돕기 위해 가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 땅 어린이들이 새

로운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 너희들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 현지 선교사와 선교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이 축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맞출 수 있다면 너희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에게 순종하고 성결하렴. 현지인의 필요를 겸손하게 바라보고 기도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너희들도 월드컵에 관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마련했지. 참 지혜로웠다. 너희들의 그 열정과 헌신, 겸손과 순종은 일본, 대만, 유럽, 중국에 생명의 씨앗이 될 것이다.

- ◆ 후원계좌
우리은행 373-216240-02-101
예금주 유진영
- ◆ 문의
이은호 (011-741-0581),
이 일 (016-787-2125)

*

제1기 온누리 선교세미나
 · 일시: 6월11일~7월2일 매주 화요일 오후7:00~9:30 (회비 없음)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황민식 간사(교 208)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일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아람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러시아 아웃리치팀
아웃리치팀 모집
 · 일정: 8월초 예정
 · 지역: 모스크바 가정사역원 지원 준비모임
 · 일시: 셋째주 토요일 오후 4:00
 ·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커피숍
 · 대상: 러시아 품고 기도하는 청년
 · 문의: 이경환 (016-297-2090) 정병철(chorri@daum.net)

의료선교
A팀 해외아웃리치
 · 일정: 7월 27일~8월 4일
 · 장소: 스리랑카
 · 지역내용: 진료, 이마용, 전도, 찬양, 위생, 어린이사역
 · 진료과목: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치위생, 치기공, 한방, 간호
 · 예상경비: 항공료 86만+기타
 · 필요서류: 여권소지여부 영문이름, 비자불요
 · 기도모임: 매주 목 오후 7:00~10:00 서빙고 아론기도실
 · 전체 문의: 엄성옥 간사(교 661) 최충길 팀장 (011-262-8193) 김준현 총무 (011-9970-2630)

캄보디아팀
 여름 아웃리치 기도 및 준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서빙고 경찬홀내 유아실 물품구함
 · 품목: 여름옷, 의약품, 영어책, 학용품, 현금 등
 · 문의: 서세창(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4567-118, 456-711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 의사, 컴퓨터/피아노 교사 각 1명
선교지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 문의: 아하나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에zell선교회
찬양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양재 비전홀
 · 내용: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

서빙고 중보기도 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 내용: 직장인과 청년들에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의 끈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기도모임.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정기 기도모임
 · 일시: 7월8일(월)오전10:00~오후1:00
 · 장소: 서빙고 304호
 · 강사: 이상룡선교사(네팔)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자로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현신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
 ·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나 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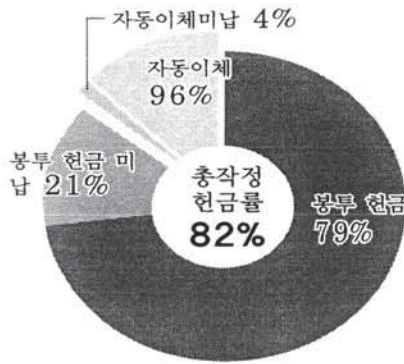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 장소: 은혜산부인과(796-2003) / 남기민 집사
 · 위치: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 시간: 매월 첫째 주일과 셋째 주 일/오후4:00~6:00

아프가니스탄 기도 모임
 · 일시: 목요일 오후 1:00~2:00
 · 장소: 선교관 403호
 *7월 4일은 장선철 편집장 '아프간 체험기' 특강이 열립니다.

*

50개국 선교사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상반기 선교헌금 82% ... 자동이체 납부가 편리



2002년 상반기 선교헌금은 34억 3천 8백여 만원으로 작정액의 82%가량 헌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천선교팀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서빙고 출석 성도의 87%, 양재 출석 성도 67%가 선교헌금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올해부터 채택한 선교헌금 자동이체제도가 헌금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로 헌금하는 경우 높은 헌금률(96%)을 보이는데 반해, 봉투로 헌금을 하는 경우 조금 낮은 것(79%)으로 드러났다.

2천선교팀은 연초에 작정을 하였으나 한번도 헌금하지 않은 2천여명의 성도가 선교헌금을 기억하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2년 7월초 현재 은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50개국 505명이다.

자동이체-서울은행 33901-9529186

홍미남 minam@onnuri.or.kr

2002

여름아웃리치를 위한 중보기도



7월부터 시작되는 2002년 여름 아웃리치팀을 중보할 중보기도 축제가 열린다. 오는 10일(수)부터 12일까지 서빙고 비전홀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오후 9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박인용 목사는 "여름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라며 "이번 아웃리치에서 젊은이들과 성도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와 열매맺는 가을을 맞이하길 바라는 기도를 할 것"이라며 많은 성도의 참여를 당부했다.

'Why Mission?' 졸업

제 1기 'Why Missions?' 졸업식을 겸한 선교캠프가 6월 29일 1박 2일간 양지 선교센터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미전도종족을 한 종족씩 입양했으며 마지막 성찬의 의미를 통해 주님이 바라시는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주님께 헌신할 것을 결의했다.

2천1만 비전을 품은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선교사 훈련 학교

'Why Missions?'은 지난 4월 13일 문을 열고 평신도를 대상으로 12주간 선교훈련을 했다.



의료선교팀 아웃리치

의료선교팀이 여름 아웃리치를 같이 할 동역자와 봉사자를 찾고 있다. 의료선교 A팀은 선교사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 스리랑카 와우니아 지역으로 7월 27(토)부터 8월 4일(주일)까지 아웃리치를 떠난다. B팀은 사이판 태평양 화인교회(담당 강창섭 목사)에서 조선족과 한족 외국인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7월 12(금)일 의료아웃리치를 할 계획이다.

· 모집분야

A팀: 내과, 외과, 피부과, 소아과, 약사, 치위생사, 청년 도우미 (최충길 팀장 011-262-8193)

B팀: 한의사, 산부인과, 치과 (신일철 팀장 011-9065-5018)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사람 세우는 일이 더 중요

다중언어번역팀의 기초작업

저희는 과히티계 꿈두이 마을에 문맹퇴치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할 집짓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건축자재를 구하는 것과 그것을 마을까지 운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다중언어번역팀은 4개 언어로 현지인주도의 성경번역을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현지인 번역사역자들을 제화하여 더 많은 언어그룹에서 현지인들에 의해 성경번역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맡기로 결심하는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확신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해 나갈 일들과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저는 물위를 건넌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빠져 가는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 무력감으로 위축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저는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이 막중한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기도가 'YES' 라고 응답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다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No'라고 대답하시거나 기다리라고 하실 때 더 큰 위로와 도전을 받

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축자재를 사이드르에서 산마울까지 올려갈 차량을 빌리기 위해 라갑농장의 매니저를 만나러 3월 25일 혼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문맹퇴치사역자인 루카스와 로벳에 의해 진행되는 교사훈련 과정을 격려하고 도울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짙은 구름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해 약속시간을 놓치고 다시 정한 약속시간에는 다리가 범람하여 차가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를 만나려는 길을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니저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데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번역사역자들의 그늘에 가려 있던 다중언어번역팀의 문맹퇴치 지도자들인 루카스와 로벳을 돕고 격려하시려는 것이었고, 건물을 짓는 일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문맹퇴치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아무 보수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이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동안 문맹퇴치 사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헌신된 교사를 발굴하여 훈련 시키려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습니다. 4명의 후보교사가 와서 훈련받기를 기대했으나 하나씩에서는 과히티계부족에서 6명 아사르부족에서 4명의 교사후보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는 오고 가는 산길에서 로벳 부부와 동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사역자로서 가정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 회복되어 가고 있는 로벳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돌아 온 뒤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는 번역사역자인 노엘, 로멘과 같이 동쪽의 먼 섬에 가서 알파벳웍샵(Alphabet Development Workshop)을 성공적으로 돕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고 일하고 먹고 하면서 다중언어번역팀이란 무형의 집을 조금 더 든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번역사역자 나피안, 로멘, 노엘, 마틴과 문맹퇴치사역자인 루카스, 로벳을 격려하고 섬기는 일에 코디네이터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들 6가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 다중언어번역팀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어렵지만 우리 주님의 섬김의 본을 생각하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2002년 6월 조중환, 임미경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임창대/백안나 (파송-한국-HOPE-고양,은평)
- 미 해결된 중국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조중환/임미경 (파송-파푸아뉴기니-GBT-강남A)
: 과히티계 문맹퇴치 사무실 건축과 다중언어번역팀 사역을 준비 중임.
- 사이드르에 다중언어번역팀 훈련센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길
- 과히티계 문맹퇴치 사무실을 건축 중인데, 현지인 목수와 형제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도록.

이명선(파송-스웨덴-YWAM-열린공동체)
- MRI경사결과 뇌허수체 일부가 부어 있다 는 진단을 받음. 건강과 소명을 위해

김사래(파송-소아시아-TIM-광명, 인천)
- 고아원 아이들이 교육과 치료를 잘 받도록

강철주/백승태(파송-한국-YWAM-인양, 안산)
- 제주 독수리 예수제자 훈련학교에서 30명의 학생을 훈련할 수 있도록.
- 3명의 간사가 더 필요함입니다.
- 백선교사의 건강 (고혈압, 코알레르기)

황디모데/송예나(파송-소아시아-인터콤-동대문, 남양주)
- 선한 마음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 MK학교의 정식등록 순조롭게 되도록

정현/정미영(파송-인도네시아-한나선교회-서빙고)
- 배안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 중국어와 영어의 진보로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게.
- 아기 툿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시도록

03

>> 제 4강 입도마 선교사 (GP 선교회) <<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까



- 공동체와 아웃리치팀을 위해 열린 제1기 선교 세미나 "도대체 뭘 하지?"가 시작됐다. 더욱 뜻 깊은 아웃리치를 위해 선교세미나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 1강. 선교에 느낀기
 - 2강. 여름 아웃리치 준비
 - 3강. 중보기도의 능력
 - 4강. 도대체 뭘하지

오늘은 아웃리치를 통해 어떻게 사역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선교현장에서 아웃리치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사에게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 소진만 가져온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아웃리치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웃리치는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이전에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몇 차례 선교대회에서 재헌신을 합니다.

여전히 헌신의 단계에만 머무는 사람이 90%이고 나머지 10%만 겨우 선교현장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웃리치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나마 선교에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한국선교는 도전과 헌신은 할 수 있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가이드가 되어 주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모임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선교사가 기도제목을 한국에 보내고 제출하려면 3개월이 걸립니다. 선교사가 진짜로 기도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워야 할 상대와 싸우지 못하고 영혼한 사람만 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가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꼭 필요한 기도제목과 선교지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히 기도하기란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웃리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현지에 가서 현지인을 보며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많지만 현지에 가서 하는 기도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

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선교라고는 하지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기도로 직격타를 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생활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에서 한자원 뛰어넘어야 합니다. 실제 기도는 현지의 막한 영을 대적하고 결박하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중보기도를 이제 바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선교사역자의 대적 세력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선교사를 위하여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웃리치의 오해도 이런 것입니다. 아웃리치팀이 현지에 가지만 사실 그 땅의 영혼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기전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 워십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합니다. 실상 그 워십의 동작들이 현지인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결코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해주어도 아무런 이해를 못지 못하고 그저 재미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웃리치를 갈 때 우리의 준비는 철저히 현지 선교사가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하되 현지에서 유효적절한 것으로 준비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웃리치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달리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며 조용히 기도할 때 그들은 변화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웃리치를 통해 얻은 선교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선교동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과 비전을 고취시켜 선교사 인력자원 개발과 그들을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는 후원동원자를 동원하는 일입니다. 세계선교는 지도자뿐 아니라 동원가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 재정후원자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고 선교지를 돌며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등 현장 단기 순회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을 선교에 접목시켜 세계 선교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외에도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연구하고 연구한 자료를 영역별로 분석하며 전 분야의 자원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정과 기도 후원자가 되는 법과 선교단체와 기관들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나라, '일본'이 깨어나고

조성록 목사 이임사



일본에서 지낸 11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떠오릅니다. 되돌아보면 개척 전도의 기간 8년과 준비기간 3년 모두가 회로애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에 대한 바울의 '결별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세번째 전도여행의 귀가 중 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구로 부르고 본인이 아시아에 도착한 이후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야기하며 본인은 장해진 길을 끝까지 뛰고 선교를 끝내기 위해서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격려하며 이단의 공격을 경계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심정도 바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쯔오 중앙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사람이 만든 나라와는 달리 결코 망하는 일이 없고 오질 발전을 위한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여 새로운 생명이 넘쳐 원래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향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품에 안고 있었던 복음주의 신앙을 계속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아낌없이 보내 주신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 땅에서 온 노인을 오랫동안 안수심으로 사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고독한 노부부의 개척 전도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아쯔오 은누리그리스도교회의 부흥과 저희 부부의 강건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재 순서>

1. 다섯 번째 은누리의 꿈, 아쯔오 교회 이·취임 예배
2. 인생의 답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 강물 되어 흐릅니다.

인구보다 각 종교별 신도 수가 훨씬 많은 우상 숭배의 나라 일본이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오사카 은누리교회', 다음 해 4월 '동경 은누리비전교회', 5월 '후쿠오카 은누리교회', 10월 '우에다 은누리교회' 창립 등 일본땅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결실을 맺고 있다.

일본 대도시교회의 모델이 되는 '동경 은누리비전교회', '오사카 은누리교회'와 농촌교회의 모델이 되는 '우에다 은누리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데 이어 지난 7월3일에는 중소도시의 모델이 될 '아쯔오 은누리그리스도교회' 이·취임식 예배가 있었다. 8년 전 이 교회를 개척한 조성록, 유은필 선교사가 안식에 들어가고 김철희, 최지형 선교사가 취임한 이 날 예배는 한국과 일본 각 처에서 찾아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다.

찬양, 김국용 장로의 기도, 아쯔오 성도들의 특별 찬미, 축사, 이·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 날 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는 '교회의 본질' (마

16:16~: 날 예배 구라자 소 소장 리치온 아찌 계기로 하용조 한 하나 이 어땀 '우상승 으로 두



▼ 김국용 장로의 록 목사와 아쯔오 은 임한 김철희 전도사 은누리 교회 이웃의 특송이 뜨겁다(☞ 과 이·취임예배 안

동경그리스도교학원원립연구소 구라자와 마사도리 소장 메시지

'겸손과 인내를 가르쳐 주신 조성록 목사님'



지난 91년 부터 조성록 목사님 부부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조목사님은 일본에 오시기 전 한국 군대에 굉장한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셨는데, 왜 일본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시나 생각했습니다. 조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겸손에 겸손을 더해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특별히 조목사님 부부에게 감명 받은 것은 일본의 문화를 전수하며 신학교에 입학해 사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조목사님으로부터 저는 겸손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내입니다.

월드컵에 대해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 팀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플레이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을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목사님은 후임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학교 입학식·졸업식에 항상 오셔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김철희 전도사님 내외가 이곳에 오신 것도 이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은누리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조성록 목사님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새로 오신 김 전도사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역하기를 믿고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다고모도요시 회장 메시지

'은누리와 하용조 목사를 만나면'



그동안 동경은누리교회, 우에다은누리교회, 아쯔오은누리교회를 보면서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열과 헌금을 생각하며 저는 정말 흥분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록 목사님, 김철희 전도사님과 같은 성령의 사람들을 뵈게 돼 감격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올 1월 수양회를 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가을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직원들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책 발간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출사에서 나온 책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두란노에서 나온 'livir life'로 전 직원이 큐티를 하면서 장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용 목사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축복합니다.

5, 6, 7월 이때는 모든 출판사의 매량이 줄고 경제적인 상태가 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생명의 말씀사의 때는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희

있다 ①

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히 이 생명의 말씀사 다고모도요시 회장과 사도리 동경그리스도교학원공립연구소 사하였고, 우에다 온누리교회로 이웃 개학생들의 찬양이 있었다.

누리그리스도교회' 이·취임 예배를 받기 위해 이국땅에 잠시 머물렀던 풀 통해 온누리에 부어 주신 일본을 향 품. '12개 일본 온누리교회 개척 비전' 실을 맺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나라, 일본이 깨어나고 있다'란 제목 걸쳐 살펴본다.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1(도), 안식에 들어가는 조성 그리스도교회 담임 교역자로 취를 축복하는 기도(2), 우에다 예배에 참석한 한동대 학생들(3) 온누리그리스도교회 헌판

서 누리는 축복'

은 짝짝 놀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두 번씩 하용조 목사님을 모시고 수양회를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같이 해서 성공했듯이 영적인 일도 같이 하면서 더욱더 놀라운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성경구절을 보셨죠. 다윗이 혼자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동역자와 함께였습니다. 그렇듯이 하용조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저희와 동역하여 일본 땅에 더 많은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찌오 온누리그리스도교회를 축복합니다.

하용조 목사 메시지

교회의 본질

● 본문: 마 16장 16절~20절

월드컵보다 더 놀라운 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최근에 한·일 월드컵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FIFA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좋은 점이 만나면, 우리는 하나 되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월드컵보다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의 그리스도인과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선교적으로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동안 조성록 목사님 내외분께서 양을 치는 목자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곳에서 11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 사역지를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일본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 아찌오에 교회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방법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일본의 교회에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성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 그 기쁨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교회는 축복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방법입니다. 나는 아찌오 온누리 그리스도교회에 오늘 같은 예배가 계속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자가 모자라 강대상에까지 자리잡은 성도들의 찬송으로 이 도시 아찌오가 짝짝 놀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이혼 직전의 부부가 다시 회복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선교사, 목회자, 일본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큼 훌륭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 일본을 변화시킬 인물이 아찌오 온누리 그리스도교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일본 온누리교회의 '놀라운 부흥'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희는 일본에 12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암 수술을 받고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한 달 반을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은 일본을 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제 동경온누리비전 교회입니다. 성도가 1백 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우에다에 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에다에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8개월이 됐습니다. 등록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



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16: 17, 18).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이요, 순결이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찌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금 여섯 번째 일본 온누리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섯 번째 교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멀리 오사

난 주일에 27명이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오사카온누리교회에 1백 명이 모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는 아찌오교회에도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본질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선교하기로 결정한 사람,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로 결정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진리는 교회란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 교파의 교회, 교단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위, 교회의 축복입니다. 마귀가 결코 조종할 수 없

카에서, 우에다에서 오셨습니다. 동경온누리비전교회 교인들이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23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한동대에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나라와 지역과 연령을 뛰어 넘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뜻을 따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눈물로 세우신 조성록 목사님 내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취임하는 김철희 전도사 내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곳에 의자가 5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부, 3부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 이들이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사탄의 세력을 꺾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기도모임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 (SAM)

/ 도육환, 박일규 선교사님과 함께
 · 일시: 7월 22일 (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소회의실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7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서빙고 305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일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의료선교

☞ A팀 해외 아웃리치

· 일정: 7월 27일(토)~8월 4일(주일)

· 장소: 스리랑카

· 기도모임: 매주 목 오후 7:00 ~ 10:00 서빙고 아론기도실

· 문의: 최충길 팀장
 (011-262-8193)

엄성옥 간사(교 661)

*급구: 소아과, 외과, 피부과, 약사, 치위생사, 청년도우미

☞ B팀 해외아웃리치

· 일정: 7월 12일 ~17일

· 장소: 사이판 태평양 화인교회 (강창섭목사)

· 대상: 조선족 및 한족 외국인 근로자 2만명

· 급구: 한의사, 산부인과, 치과

· 문의: 신일철 팀장
 (011-9065-5018)

캄보디아팀

여름 아웃리치 기도 및 준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서빙고 경찬출내 유아실

물품구함

· 품목: 여름옷, 의약품, 영어책, 학용품, 현금 등

· 문의: 서세창(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4567-118, 456-7118)

☞ 인터콧

7월 여성 월드 비전

· 일시: 7월 11일(목) 오전 10:30~12:30

· 장소: 서빙고 선교관

·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 여성

· 강사: 김추수 선교사(몽골, 시베리아 창/브리아트)

· 문의: 756-3541(교 2) 최백란 간사(018-863-345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피아노 교사 각 1명

선교지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 KIBI(이스라엘 선교부) 간사

· 대상: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문의: 792-7075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자로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현신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

·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나 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 SWIM(세계인터넷선교회)

직원모집

· 분야: 해외선교담당 (인터넷을 통한 선교에 헌신하실 분)

· 희망경력: 이슬람권 선교, 인터넷 선교사 교육, 총무 기획, 웹디자인

· 제출 서류: 목사님 추천서, 최종 학력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이력서(교회에서 활동한 경력 포함), 사진 2매, 신앙간증 및 인터넷선교에 대한 비전

· 접수방법: 1차 서류 접수 (마감 7월 15일)

· 문의: 정영선 실장
 (02-511-3217, 3237)
 Fax: 02-511-3237
 ysjjung@swim.org

☞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물품: 중고 컴퓨터 (펜터엄급 이상), 냉장고 (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탁아방용) 등

· 서적: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및 더욱 환영), 지역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 요셉청년부 키르키즈 아웃리치

· 물품: 의료 및 미용관련물품, 라면, 학용품

· 일시: 7월 21일(주일)~30일(화)

· 문의: 노지혜 자매
 (019-9730-4160)

*후원계좌 서울 22304-4843607

☞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중고 컴퓨터 팬티엄II 이상

· 용도: 외국인 근로자 셀터사용

· 문의: 이경희 간사
 (교 514, 017-316-9787)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기도모임

☞ 아프가니스탄 기도 모임

· 일시: 목요일 오후 1:00~2:00

· 장소: 선교관 403호

*7월 11일은 장선철 편집장 '아프간 체험기' 특강이 열립니다.

*

01



선교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사진 이남수 집사

02



무릎으로 가는 세계

만 4년째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큰 꿈을 꾸는 은누리교회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다. 이제 웬만한 선교사님 성함이나 프로필은 곧잘 말할 수 있고 선교에 대해서라면 그래도 말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친한 친구도 선교사로, 늘 기도를 함께 하던 언니도 선교사로 떠났다. 그래서 나도 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얼마전 리더십선교캠프에

가서야 나는 한번도 선교세미나에 참여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천명의 선교사를 보내려면 2만명의 무릎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로 시작한 이재환선교사님의 강의에서 나는 또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다. 첫 강의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시간이 있었다. 세계는 몇 개 대륙과 대양으로 구성되었는지, 아시아에 속한 나라는 어디인지, 유럽, 중동, 남미지역에 속한 나라는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가 없었다. 기껏 아는 몇 나라를 적어 놓고 보니 20여개 안팎...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나는 하나님에게 참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시에라리온에 사는 골라족을 위한 끊임없는 중보자로 살기로 약속도 했다. 이곳에 있지만 그곳을 위해 중보하는 나는 이제 '무릎선교사'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미전도종족을 위한 중보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에.

홍미남 minam@onnuri.or.kr

01

제4기 온누리리더스 캠프

다락방장, 장로 등 교회 리더를 위한 제 4기 온누리 리더스 선교캠프가 열린다. 2천/1만 비전의 재도전과 헌신을 위한 이 캠프는 오는 8월 19일부터 2박 3일간 열린다.

지난 1~3기에 사정상 참석치 못했던 리더를 위한 이 학교는 이재환선교사를 감사로 요나선교회, 무룡선교사 서약, 1만 사역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47기에 참석할 리더는 이번달 31일까지 2000선교사무실신청하여야 한다.

문의: 김동렬 간사
793-9688(교 239,209), 795-9085(직통)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선교사로부터 듣는

선교지 소식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은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도육환 목사와 박일규 선교사를 초청, 7월 22일(월) 오후 7시 선교관 소회의실에서 기도모임을 갖는다. 선교 사역보고, 서남아시아 선교의 현황, 2002년 여름 아웃리치 팀을 위한 중보기도 및 사역보고가 있다.

문의:윤정현(018-225-9018)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오늘 파송식

오늘 2부 예배시 2천선교사와 1만사역자 파송식이 있다. 안신기, 김동연 부부가 TIM 소속 이천선교사로 중앙아시아 A국에, 송병희 성도가 일만사역자로 B국에 파송된다. (관련기사 5면)

전성희 shee@onnuri.or.kr

04

2002년 여름, 복음으로 전세계 달군다

101팀 1,730명 35개국 54 지역으로 아웃리치 떠나



2002년 여름을 복음으로 온 세계를 또 겁게 할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2천 선교팀에 따르면 올해 해외로 아웃

리치를 떠나는 팀은 모두 101팀으로 1천7백30명의 온누리성도가 참여하고 있다. 2002 온누리 아웃리치팀은 스리랑카 등

총 35개국 54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한다. 또한 선교지를 방문, 선교사의 사역을 돕고 땅끝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2002년 여름 아웃리치는 특징은 예년에 비해 의료팀이 많아졌고, 성인공동체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강서김포 공동체가 브리아트족 선교지를 방문하는 등 모두 9개 팀 161명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성인공동체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과 섬김선교지를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여름 아웃리치 현황〉

부서	참가팀수(인원)
청년(서빙고)	14팀 (229명)
청년(양재)	30팀 (342명)
대학(서빙고)	4팀 (70명)
대학(양재)	6팀 (320명)
JDS(주간)	7팀 (98명)
JDS(야간)	11팀 (130명)
영어예배	6팀 (75명)
일어예배	2팀 (30명)
공동체	9팀 (161명)
파워웨이브	1팀 (19명)
꿈이자라는땅	3팀 (51명)
기타	8팀 (205명)
계	101팀 (1,730명)

01

청년여호수아 아웃리치 발대식

'나를 보내소서'



양재 청년부 청년여호수아공동체가 오늘(14일) 여름 아웃리치 발대예배를 드린다.

'나를 보내소서, 유업의 땅으로' 라는 외침으로 2002년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한 여호수아 청년부는

오늘 발대식에서 각팀을 소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와 축복하는 순서를 갖는다.

오늘 발대식은 '무명의 선교사' 라는 박종길 목사의 설교에 이어 2부에는 아웃리치 영상, 국악선교부의 찬양, 모듬이 돌의 워십, 아웃리치 탐장과 부팀장 소개, 중보기도와 축복 순으로 진행된다.

해외 23개 팀, 국내 45개팀 총 1천 2백명이 떠나는 청년여호수아 아웃리치는 지난 7월 4일 A지역에 간 팀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0일 F지역으로 다녀오는 팀으로 갈무리 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선교사역에 동참하세요

7월 초 현재 50개국 505명 선교사 파송
상반기 현재 82% ... 자동이체로 납부해주세요

2000선교팀에 따르면 2002년 6월말 현재 상반기 선교현금 작성액중 82%가량만 현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빙고 출석 성도의 87%, 양재출석 성도 67%가 선교현금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것(79%)으로 드러났다. 2천선교팀은 연초에 작정을 하였으나 한번도 현금하지 않은 2천여명의 성도가 선교현금을 기억하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2년 7월초 현재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50개국 505명이다.

한편 올해부터 채택한 선교현금 자동이체제도가 현금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이체로 현금하는 경우 높은 현금률(96%)을 보이는데 반해, 봉투로 현금을 하는 경우 조금

· 자동이체-서울은행 33901-9529186
· 문의: 김효람 (793-9686 교230)
홍미남minam@onnuri.or.kr

03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중보기도 축제 열려

2002년 여름 온 세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성도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축제가 열렸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오후 9시부터 비전홀에서 '기도의 여름, 권능의 여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기도축제는 박인용 목사가 진행하였다. 박목사는 10일 '성령이여, 새 길을 여시옵소서', 11일 '성령이여, 권능을 부으시옵소서', 12일 '성령이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인용 목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증인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 며 '성령을 받고 증인



이 되어야 우리가 밟는 땅이 새롭게 된다' 고 선포했다.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웃리치팀과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길, 죄를 용서하시고 권능을 주시길' 간구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4

2000/10000사역자 파송



안신기, 김동연 (안창준, 안세영)

● 이천 선교사

· 소속단체: TIM · 파송국가: 중앙아시아 A국
· 기도제목

1. A국에서 의료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기회를 열어주시길
2. 정착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길
3. 현지 적응을 잘하고 언어도 잘 습득할 수 있게 되길
4. 함께 동역할 교역호수아 선교사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길



송병희 (장영승, 장형근, 장서인)

● 일반 사역자

· 파송국가: B국
· 기도제목:

1. 남편이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도록
2. 모든 사람과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해결되도록
3.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4. 가족의 건강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지난 2월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서울에 와서 첫 예배를 파송 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지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고 지금도 그 선물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물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해진 제 자신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4차례 걸쳐서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주사를 한 번 맞을 때마다 예상보다 많은 고통을 치러내야 하는 치료였습니다.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것은 힘과 소망을 항암치료에 빼앗겨 약해진 제 자신이었습니다.

수술 할 때 만 해도 참 씩씩 했는데 그런저를 보는 것이 치료가 주는 고통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약해진 저는 절 사랑하시는 주님 분들이 제게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연속이틀 너무 믿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말이나 '너무 그곳이 커서 그

런가봐, 힘내라.'라고 이러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해지는 제 자신이 무서워서 많이도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식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바보 같은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날짜를 자신의 달력에 기록해서 일일이 날짜를 함께 세어 주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안부 전화를 받았는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에 놀라고 이렇게 끔찍한 고통의 치료 이후에도 전혀 삶이 안 빠지는 것에 또 한번 놀래요. 너무 그곳이 커서 연약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조차 없습니다. 지난 주부터 약 6주 동안 33회의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치료라 매 번마다 정확한 위치에 방사선을 쏘아야 한다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폐까지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가 필요합

니다. 항암 치료 때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많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이 치료는 7월 말에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고통과 시련을 넘은 선배를 닮아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그 민족을 사랑해서 내 삶을 다 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들 그 민족이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를 이런 저런 일들로 오히려 밀어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은 고통과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 또 연락드릴게요.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기도제목

1. 항암치료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2. 약 6주동안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폐까지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고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3. 항암 치료에 필요한 체력을 주시도록

최연숙 선교사

인디옥(파송-중앙아시아-인터콧-과천/수원)
-공예방 가게에 단골이 늘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아제르바이잔 민족에게 경제적 복이 있도록

박운용/김연애(파송-브라질-TIM-영등포/구로)
-브라질의 경제 위기 해소와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
- '여호수아 1기'팀 수련회와 아웃 리치. 8월에 있을 BEE 세미나, 7월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

김선광(파송-멕시코-TIM-영등포/구로)
-사역과 가정이 함께 발전해가도록
-언어 공부에 큰 진전이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와 동일한 가치관을 형성해갈 수 있도록

이명순(파송-스웨덴-YWAM-열린공동체)
-뉴스레터와 재정 관리를 성격 줄 부을 만들 수 있도록
-건강과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팀의 활성화, 그리고 귀한 분들이 이 팀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나오미(후원-중앙아시아-GMP-일산)
-훈련된 현지 교안들을 중심으로 근교 도시에 개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스니아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도록
-어린이/청소년 사역을 할 현직인 젊은 자매와 형제를 보내주시도록

Why Mission을 마치고



'세계적 규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부담감을 느낍니다. 선교에 대해 물을 때 대다수 성도는 선교 헌신자들을 보내달라거나 기금을 후원해달라는 요청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만 '선교'를 축소해 버린 채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장으로 섬기는 '복'

이런 분들께 하나님의 선교 마인드를 전하기 위해 "Why Missions?" (온누리세계선교학교)가 시작되었고 저는 제 1기 "Why Missions?" 조장으로 섬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여느 모임과 다르게 남녀노소, 학생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분들로 조가 구성되었습니다. 팀장님의

권유로 조장을 맡았지만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교회 간사님, 순장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등 워낙 교회 안팎의 선 분(?)들이 조원이 되었고 더구나 다른 조장님들은 모두 교회와 TIM의 간사님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새벽기도에 나와 조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분들 모두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들의 비전을 보고, 요셉같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원들 모두 참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매주 예세이와 3번의 독후감... 나이가 많은 집사님들에게 숙제를 독촉하기가 참 죄송스러웠는데 결실을 하고서도 예세이를 내는 열심파들도 있었습니다. 계근상은 단연 집사님들의 몫이었습니다. 등록을 포기했던 13번째의 조원이 갑자기 모임에 나타나 놀라기도 했

고 한 집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문집사님의 깜짝쇼로 시작된 간식 시간은 매주마다 한 명씩 간식을 가져와 다른 조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장으로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Why Missions?"에 부른 것은 우리를 단순하고 지루한 종교적 의무들을 행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놀랄도록 의미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려는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지닌 삶을 위해

조원 한 명 한 명마다 '세계적인 규모'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로 나가느냐 고국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겠지만, 우선적인 문제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 삶을 살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우리 조원들 모두가 이러한 비전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류석인 자매

나는 자칭 '동네 선교사'



김성란 집사

'선교'라는 말만 나오면 '나는 못하니까 당신만 가'라고 하던 남편이 공동체에서 지난 구정에 방글라데시 의료선교를 다녀온 뒤 남편의 마음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러던 중 온누리신문에서 "Why missions?"라는 것이 있다며 가보자는 제의를 하였다.

정작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나는 선교학교를 나오면 바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그럼 등록하지 말고 한번 가서 들여보자고 하였다. 결국, 김 사무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첫 강의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은 벅찬 감격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선교

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가는 것도 선교지만 보내는 것도 선교라는 것이 내게는 위로가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나를 통해 선교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느끼며 오히려 고난이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나름대로 일대일, 큐티 나눔방, 한 마음 코이노니아 등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 신앙의 자대로 인정하지 않으나 부끄러웠다.

이 모든 것들은 선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요즘 나는 자칭 동네 선교사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내 현 지점에서 선교사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한다.

01

온누리 TV

아웃리치 기획 특집

아웃리치 관련 정보 '풍성'

7월이 되면서 아웃리치의 열기가 후끈 달아 올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웃리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과 관련 교역자들을 위하여 온누리 TV가 아웃리치 기획 특집을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 특집에는 '특집 비전 트립', '아웃리치 선교지 기행', '아웃리치 기획 특강', '2002 아웃리치 24시 게시판' 등 4가지 큰 카테고리를 마련하여 그안에 동영상 자료와 더불어 아웃리치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준비하였다.

특히, '특집 비전 트립'에서는 아프리카니스탄에서 보내는 하용조 목사와 가수 유승준의 메시지와 함께 아프리카니스탄에 현 상황을 살펴보고 동시에 그들에 향한 비전을 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2 아웃리치 24시 게시판에는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나눔의 공간으로서 아웃리치를 준비과정과 현



지 소식, 국내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경험하고 만난 성령님의 역사 등 아웃리치를 통하여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

02

'온누리 라디오' 와 '아미 방송' 함께 선교

온누리 라디오에서 디지털 위성 라디오 방송인 아미위성방송과 공동으로 이번 2002 여름 아웃리치를 기점으로 아시아 선교를 위한 위성방송사역을 시작한다.

오는 7월 20일 그 첫 번째로 아프리카니스탄과 인접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으로 선교를 떠난다. 이 나라는 국교가 없는 국가이지만, 이슬람 국가를 원하는 저항세력으로부터 도전받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슬람에



특별히 기울여져 있고 샤머니즘과 우상숭배도 심각한 실정이다.

우선 온누리 라디오와 아미 위성방송은 위

성 수신기를 통하여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인 환경의 제약을 넘어서 선교사역을

을 넓히며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도전한다.

특히, 이번 온누리 라디오와 아미위성방송 키르기스스탄 선교에 앞서 현지 선교사님들께 보낼 위성수신기 구입을 비롯한 위성사역에 많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후원계좌:서울은행 22304-4843607

예금주 박성진

· 문의 : 019-9730-4160

*

기도모임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7월 15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305호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 (SAM)
 / 도옥환, 박일규 선교사님과 함께
 · 일시: 7월 22일(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비전 2008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일 2점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7: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생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캄보디아팀
 여름 아웃리치 기도 및 준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서빙고 경천출내 유아실
 물품구함
 · 품목: 여름옷, 의약품, 영어책, 학용품, 현금 등
 · 문의: 서세창(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4567-118, 456-7118)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중고 컴퓨터 팬티엄II 이상
 · 용도: 외국인 근로자 셀터사용
 · 문의: 이경희간사 (교 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 의정부 셀터
 · 물품: 2인용 식탁(의자 포함) 1개, 선풍기 3개
 · 문의: 박종진간사 (017-226-9207)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물품: 중고 컴퓨터 (펜티엄급 이상), 냉장고 (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탁아방 용) 등
 · 서적: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및 더욱 환영), 지역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 생활을 위한 도서관에 늘 어갈 도서임)
 ·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요셉청년부 내용물 아웃리치 영어캠프
 · 물품: 전통신물(작은것, 열쇠고리, 햇지 150개), 칼라페이퍼, 스테이플러(15), 풀(50), 연필, 볼펜(150개) 지우개(50개) 노트(150권) 색연필(70개) 복사지(A4), 기타 문방용품
 · 문의: 이주미(016-693-2663) / 7월 22일까지
 요셉청년부 키르키즈 아웃리치
 · 물품: 의료 및 미용관련물품, 라면, 학용품
 · 일시: 7월 21일(주일)~30일(화)
 · 문의: 노지혜 자매 (019-9730-4160)
 *후원 서울은행 22304-4843607

인도아웃리치팀 물품 구함
 · 물품: 학용품, 여름옷(작거나 싫증난 고무줄 치마, 셔츠, 바지, 원피스 등), 타올, 의약품, 부항기, 현금
 · 일시: 7월 21일, 28일(주일) 서빙고 성전 3부 예배 후 카페 테리아 자판기 앞, 양재성전 2부 예배후 사랑성전 현관밖
 · 연락처: 이은숙 (019-319-9230)
 *외환은행 121-18-35847-1 예금주 주인도(아영란)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 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선교사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사사보, 회사안내 자료들
 ·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 자료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헌신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
 ·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나 강의
 · 문의: 아영재 간사(교 233, 679, owmc@onnuri.or.kr)

SWIM(세계인터넷선교회)
 직원모집
 · 분야: 해외선교담당 (인터넷을 통한 선교에 헌신하실 분)
 · 희망경력: 이슬람권 선교, 인터넷선교사 교육, 총무 기획, 웹디자인,
 · 제출 서류: 목사님 추천서, 최종 학력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이력서(교회에서 활동한 경력 포함), 사진 2매, 신앙간증 및 인터넷선교에 대한 비전,
 · 접수방법: 1차 서류 접수 (마감 7월 15일) 2차 면접
 · 문의: 정영선 실장 (02-511-3217, 3237) Fax: 02-511-3237 ysjung@swim.org

기도모임
 아프가니스탄 기도 모임
 · 일시: 목요일 오후 1:00~2:00
 · 장소: 선교관 403호

*

01

**'무릎선교사'와 함께 하는
2000선교 연합모임**

2천선교팀은 지난 1기부터 3기까지 리더스선교캠프에 참석해 무릎선교사로 서약한 사람들을 초청해 7월 30일(화) '무릎선교사와 함께하는 2천선교 연합모임'을 한다. 참석자들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 선교사 및 선교사역 중보기도를 통해 각자 무릎선교사로서 서약한 내용을 되새기고 재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이재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한다.

· 일시: 2002.7.30(화) 오후 7시
· 장소: 한동홀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일본선교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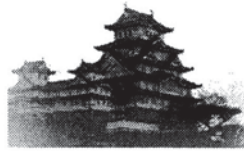
올해 온누리교회에서는 12팀이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어예배부는 일본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와 올 여름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가는 팀들을 위해 '일본선교학교'를 열고 매주 토요일 7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다.

13일 '일본 교회와 크리스천'을 시작으로 일본의 사회, 경제상황, 일본인의 정신세계, 일본 크리스천 교회의 상황에 대해 초지 히사시 전도사와 키타노 미노루 전도사가 강의했다. 27일은 마지막 강의로

김사무엘 목사가 '일본선교'를 주제로 어떻게 일본인에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테마로 강의한다. 일본어와 한국어로 찬송을 부르고, 각 팀은 방문예정인 교회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도 있다.

일본어예배는 일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 문의: 초지 히사시 전도사 (019-9752-0278)
황해경 간사 (교 702)



03

일만사역자 파송식

일만사역자 파송식이 오늘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에서 있다. 이인용, 장경희 부부가 서빙고 2부 예배시 일만사역자로 임명되어 미국으로, 신희숙 성도가 양재 1부 예배시 캐나다로 파송받는다.

*

KIBI
 이스라엘 선교의 밤 7월 정기모임
 · 일시: 7월 25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선교관 302호
 · 영상상영:
 -아랍 담카니의 전도장면
 -이스라엘의 형성과 주변국과의 분쟁역사를 엮은 자료
 -홍의봉 감독의 "통곡하는 자여! 이제는" 중 다큐멘터리 부분

기도모임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
 / 도육환, 박일구 선교사님과 함께
 · 일시: 7월 22일 (월)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 문의: 윤정현 (018-225-9018)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경희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일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캄보디아팀
 여름 아웃리치 기도 및 준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서빙고 경찬홀내 유아실

물품구함
 · 품목: 여름옷, 의약품, 영어책, 학용품, 현금 등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모집
 · 자격: MK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 헌신자(유치원, 탁아사역 경험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나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33, 679)

온누리 라파(의무실사역)
 · 일시: 매월 셋째주일 오후 3:30-6:00
 · 대상: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관련학과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
 *기타 A,B,C의료팀 (월1회) 아웃리치 사역에 동참할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문의: 박상호 총무 (2245-7260)
 안태환집사(011-323-1515)
 이경희 간사(교 514)

KIB(이스라엘 선교부) 간사
 · 대상: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있는 분
 · 문의: 792-7075

두란노해외선교회(TM)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분,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피아노 교사 각 1명

선교자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사사보, 회사안내 자료들
 ·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중고 컴퓨터 팬티엄II 이상
 · 용도: 외국인 근로자 헬터사용
 · 문의: 이경희간사(교 514)

온누리미션 의정부 센터
 · 물품: 2인용 식탁(의자 포함) 1개, 선종기 3개
 · 문의: 박종진간사(017-226-9207)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물품: 중고 컴퓨터 (펜티엄급 이상), 냉장고 (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탁아방 용) 등
 · 서적: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및 더욱 환영), 지역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 관에 들어갈 도서임)
 · 문의: 김태완간사(011-9972-9799)

요셉청년부 내몽골아웃리치 영어캠프
 · 물품: 전등선물(작은것, 열쇠고리, 뿔지 150개), 칼라페이퍼, 스테이플러(15), 풀(50), 연필, 볼펜(150개) 지우개(50개) 노트(150권) 색연필(70개) 복사지(A4), 기타 문방용품
 · 문의: 이주미(016-693-2663)

요셉 러시아 아웃리치B팀
 · 물품: 한국에 관련된 화보집, 한국어로 된 책자 (초보자용), 빔 프로젝터
 · 문의: 류재도 (011-9081-6654)

인도아웃리치팀 물품 구함
 · 물품: 화음표, 여름옷(작거나 싫증난 고무줄 치마, 셔츠, 바지, 원피스 등), 타올, 의약품, 부활기, 현금
 · 일시: 7월 21일, 28일(주일) 서빙고 성전 3부 예배 후 카페테리아 자판기 앞. 양재성전 2부 예배후 사랑성전 현관밖
 · 문의: 이은숙 (019-319-9230)
 *외환은행 121-18-35847-1
 예금주 주인도(이영란)

2002년 해외선교한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01

**'무릎선교사'와 함께 하는
2000선교 연합모임**

1기부터 37기까지 리더스선교캠프에 참석해 무릎선교사로 서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2천선교 연합모임이 7월 30일(화) 오후 7시 한동홀에서 열린다. 이재환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 선교사 및 선교사역 중보기도를 통해 각자 무릎선교사로서 서약한 내용을 되새기고 재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일시: 7.30(화) 저녁7시
- 장소: 한동홀

전성희 shee@onnuri.or.kr

*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 장소: 은혜산부인과(796-2003) / 남기민 집사
- 위치: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 시간: 매월 첫째 주일과 셋째 주 일/오후4:00~6:00

KIB(이스라엘 선교부) 간사

- 대상: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있는 분
- 문의: 792-7075

두란노

광고영업(남) 직원 모집

- 문의: 광고 영업팀 (974-5100) 교 451, adyon@tyrannus.co.kr

동서울 두란노

- 지원자격: 77년 이후 출생한 형제
- 제출서류: 이력서1통(연락처 명시), 자기소개서1통
- 문의: 이영훈 차장(4567-118)

두란노해외선교회(TNM)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 확한 분,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피아노 교사 각 1명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중고 컴퓨터 팬티엄II 이상
- 용도: 외국인 근로자 헬터사용
- 문의: 이경희간사(교 514)

온누리미션 의정부 헬터

- 물품: 2인용 식탁(의자 포함) 1개, 선풍기 3개
- 문의: 박종진간사(017-226-9207)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물품: 중고 컴퓨터 (펜티엄급 이상), 냉장고 (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파아노 (탁아방 용) 등
- 서적: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및 더욱 환영), 지역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 문의: 김태관간사(011-9972-9799)

요셉청년부 내용물아웃리치 영어캠프

- 물품: 전통선물(작은것, 열쇠고리, 뺨지 150개), 칼라페이퍼, 스테이플러(15), 풀(50), 연필, 볼펜(150개) 지우개(50개) 노트(150권) 색연필(70개) 복사지(A4, 기타 문방용품
- 문의: 이주미(016-693-2663)

요셉 러시아 아웃리치B팀

- 물품: 한국에 관련된 화보집, 한국어로 된 책자(대상: 글을 처음 배우는 유치원연령의 아이들, 한국어 배우게 될 외국인들)
- 문의: 류재도 (011-9081-6654)

인도아웃리치팀 물품 구함

- 물품: 학용품, 여름옷(작거나 싫증난 고무줄 치마, 셔츠, 바지, 원피스 등), 타올, 의약품, 부황기, 현금
- 일시: 7월 28일(주일) 서빙고 성전 3부 예배 후 카페테리아 자판기 앞, 양재성전 2부 예배후 사랑성전 현관밖
- 문의: 이은숙 (019-319-9230)

*외환은행 121-18-35847-1
예금주 주인도(이영란)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나님의 검은 전사 '세네갈'

아프리카 세네갈 풀라니 종족 마을은 다양한 계층에 여러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같은 풀라니 종족이면서도 세네갈 국적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989년 세네갈과 모르타니아가 강소유권 문제로 전쟁을 치른 후 모르타니아에서 추방당한 리와베(Riwaabe, 추방 받은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과 토지를 버려 두고 세네갈로 들어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종족이지만 세네갈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고, 외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 이용이 힘들고, 아이들은 교육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또 농토가 없어서 세네갈 풀라니 종족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추수 후 50%를 땅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현재 그들은 의존적이고 도움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변해 버렸습니다. 리와베 사람들을 보면서 국가가 이슬람인 모르타니아를 한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합니다. 자신들을 추방한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기보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리와베 사람들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세네갈의 축구 열기

2002 월드컵을 통해 풀라니 종족들이 한국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나가면 예전에는 중국인이나 미국인으로 일었지만,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단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축구에 지나치게 광적으로 몰입하는 이들을 보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식민지 기간에 서구 강대국들에게 받았던 억압과 울분이 축구를 통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인 제자훈련 시작

오래 전부터 성경 공부하며 만나왔던 두 사람이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마을에서 추방당할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을 죽이려는 무리가 생겨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더 많은 중보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사탄의 방해에도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잠엘, 티게레, 마담, 트라오덴두데, 우로 소기, 카넬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 테이프와 일대일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개인적인 구세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대일 제자훈련 교제를 풀라니 종족 언어로 번역 중입니다. 안식년 전까지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안식년 전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정리하고, 2기 사역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11월 중순쯤 안식년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역자의 수고로 여우는 열매

요즘 월드컵 한국 축구를 보면서 저희 가족들은 한국에 있는 그리운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또 저희를 생각하며 세네갈을 열심히 응원하며 세네갈이 마치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많은 동역자님들로 인해 아무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로 지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님들의 기도과 수고를 통해 세네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세네갈 풀라니 종족 마을 마담에서
이재일, 조순희/ 예림, 예랑 올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경수/황미옥(파송-미국-YWAM-강서, 김포)
-항 선교사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순수한 삶과 섬김이 되도록
-이 달에 필요한 \$3,500의 재정과 종교차 구입 재정이 채워지도록

김미선(파송-대만-경배와찬양-마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중국인을 향한 경배와찬양 사역이 주님의 때에 시작될 수 있도록

김스데반/조희(후원-중앙아-인터콥)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10,000)이 채워지고 잘 마무리되어 교회가 등록될 수 있도록
-현지인 주물맞이 인도하는 캠퍼스 기독교 모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김순중/천사량(파송-중앙아-인터콥-동서울서대문)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에 눈뜨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야 기도뿐 아니라 모든 기도에 목말라하고, 기도의 응답을 항상 체험하는 B교회가 되도록

유은영(파송-인도네시아-YWAM-이촌)
-성경적 상담학교에 입학하러 스위스 여행을 할 터인데, 주님께서 도와 주시고 배스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고국을 느껴요

MK NEST가 주최하는 제 9회 MK(Missionary Kids) 캠프가 초등부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양평 창신교회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캠프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대전 침신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열린다. MK 캠프는 선교사 자녀들이 고국의 문화를 느끼고 한국인으로서의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세계 각 선교지에 있는 MK를 초청해 1년에 한번씩 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부 60명, 중고등부 65명이 참여한다.

중고등부의 경우 22일부터 28일까지 1주간은 수련회를, 29일부터 8월 2일까지는 5개 팀으로 나눠 모국 탐방과 홈스테이를 통한 고국의 문화를 경험한다.

문의: 이훈 간사 011-9911-9410
전성희 shee@onnuri.or.kr

2천선교/1만 사역자 파송

만남 : 중앙아시아 A국으로 떠나는 안식년 선교사 가족

'떠나라' 음성에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곧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삶의 질을 보았던 것이다. 또 한가지 그에 충격받은 것은 본토를 떠나 선교지에서 그 민족을 품고 섬기고 있는 의료사역자들이었다. 그들은 안선교사에게 하

나님이 임재해 계신 삶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기쁨과 대가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후 하나님은 2년동안 안선교사에게 선교는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기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이제 안선교사는 중앙아시아 A국에 가면 의료선교를 시작할 터이다. 그곳 의료계를 이끌 리더를 양육하고 의료지원역할을 할 것이다. 안선교사는 계획하고 있는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함께 장기체류 비자획득과 아직 마련되지 않은 머물 처소, 아이들의 입학과 적응, 언어습득 문제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그들은 안선교사에게 하

이제 안선교사는 중앙아시아 A국에 가면 의료선교를 시작할 터이다. 그곳 의료계를 이끌 리더를 양육하고 의료지원역할을 할 것이다.

안선교사는 계획하고 있는 사역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함께 장기체류 비자획득과 아직 마련되지 않은 머물 처소, 아이들의 입학과 적응, 언어습득 문제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일만사역자 파송

● 이인용/ 정경희(이수현, 이재현)



미국 보스턴

1. 미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주위 크리스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2. 좋은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우리 가정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3. Nieman Fellowship 연수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4. 수현이의 건강이 회복되고, 수현, 재현이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5. 하버드 대학 교환교수로 간 친구 김형홍 교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 신희숙(조현국, 조희호, 조현호)

캐나다

1. 헤어져 있는 남편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2. 듣기, 말하기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3. 문화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4. 큐티 나눔방이 자생하고 잘 이루어지도록
5.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이상승배의 나라, '일본'이 깨어나고 있다 ②

<연재 순서>
 1. 다섯 번째 온누리의 꿈, 아끼고 교회 미·취임 예배
 2. 인생의 답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 강물 되어 흐릅니다.

눈물 흘리는 일본 사람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 일본은 무엇보다 '와(和)'를 중시하는 '와의 나라(和國)'이다. 그래서 일본인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다하는 도리임을 가르친다. '자신의 몫을 다한다'는 '이치닌 마에(一人前)'는 일본어도 모든 어린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익히는 일본인의 교육 현장 1장 1조이다.

그래서인지 일본 사람들은 좀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속마음에 있는 진짜 생각 '혼네(本音)'와 입 밖에 내어 말하는 실제의 말 '타테마에(立前)'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와(和)-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듯 속내를 전혀 눈치채기 어려운 섬나라 일본 사람들이 '혼네(本音)'를 드러내고 있다. 좀체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물을, 그것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생의 답을 찾은 기쁨의 눈물이 강물 되어 흐릅니다."

동경온누리비전교회 장재은 목사 부부가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가진 일대일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

감동이 있는 예배, 아름다운 교제

교회 창립 불과 1년, 동경온누리비전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흥이다.

일본인 45명, 한국인 6,70명이 드리는 예배는 감동적이다. 은혜 넘치는 예배, 살아 있는 예배가 입소문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체험을 하며 눈물을 흘린다.

교회가 창립되고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 굳게 닫힌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영혼을 두드리는 찬양, 감동있는 예배, 아름다운 교제가 준비되고, 일본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로 그들이 변하고, 상담, 심방, 큐티 사역이 열매를 맺으면서 부흥의 바람이 불었다.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영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감격으로 눈물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감동과 감격은 섬김과 봉사과 전도의 열매로 나타났다. 성도들이 교회 일을 무엇보다 즐거워한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한다. 특히하게도 동경온누리비전교회는 남자들이 기뻐하는 교회이다. 남자들이 먼저 나오고 여자들이 뒤를 이어 등록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가 일본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모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일본 땅 드시 도시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 영혼이 자유로운 12개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언제 보아도 해처럼 빛나는 장로사 부부



의 아무진 다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본 땅을 사랑하시어 치료자 잠시 머물렀던 하용조 목사에게 보여 주신 바로 그 비전이요, 환상이요, 꿈이었다. "저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려 왔습니다. 2주일 정도 머물러오 왔기 때문에 옷도, 숙우도 두 주일 분량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난해 4월, 동경온누리비전교회 창립 예배에서 선포한 하용조 목사의 메시지가이다.

'1천 성도 교회'를 꿈꾸며

장례식은 절에서 치르더라도 결혼식은 호텔 내 교회에서 치르고 싶다는 일본인들, 이들에게 있어 교회는 젊은 날의 멋진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한 명소에 불과하다.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런 일본을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본인 젊은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외대 형제를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속에 '1천 명 성도 교회'를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하용조 목사와 만난 그가 건물을 내어 놓았다. '오사카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재작년 4월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3,40명의 성도만 있어도 교회자람이 가능하다는 일본 땅에 1천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세워진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꿈이었다. 그 꿈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김사무엘 목사가 마련해 놓은 교회 발전 밀그룹에 따라 이영선 목사가 교회조직을 세우고 신인순 선교사, 천창길 목사가 동역자로 참여했다. 작년 11월 김사무엘 목사가 인도한 수련회가 부흥의 불길을 지켰다.

하며 세미나를 가진 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목회와 상담', '영성',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아웃리치', '새신자 관리', '하나님의 은혜' 등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특히, 지난 10월 창립한 우에다온누리교회는 이 세미나가 부흥의 불길을 지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의 타겟'이라 불리는 우에다에 세워진 시골교회, 창립 당시 한 명의 교인도 없었던 이 교회에 야마나카 전도사 부부가 전임교역자로 부임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붙었다. 온누리 목회자 세미나와 함께 영어교실, 찬양, 심방 사역이 꽃망울 맺히면서 아제는 27명이 예배하고, 아제는 기적같이 5명이 세례 받았다. 무엇보다 야마나카 전도사 부부가 지역교회와 아름답게 연합하고 있다. 저녁 초대를 받아 교제를 나눈 교회가 10군데를 넘는다.

아치온누리교회는 '성도 100명 교회'를 목표로 새 단장을 끝내고 지난 7월 3일이 '취임예배'를 가졌다. 후쿠오카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 창세기 강해 영상 테이프를 예배하며 부흥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오는 가을, 5백명이 참석하는 '온누리연합수련대회'이다. 오사카온누리교회에서 가질 이 수련대회에는 서울, 동경, 아치오, 우에다, 후쿠오카 온누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하용조 목사의 메시지를 들으며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울부짖는다.

"6개월마다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를 세우면 사람이 모이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온누리교회'란 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온누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3개월 동안 3~5인조가 파송되어 교회 사역을 도울 것입니다. 6번째 일본 온누리교회는 나고야에 세워질 것입니다."

아치온누리그리스도교회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만난 하용조 목사가 들려준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인구보다 각 종교별 신도 수가 훨씬 많은 이상 승배의 나라 일본이 온누리교회를 통하여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마음 속에 맺들었던 하나님의 응성이었다.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19), 아멘.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5백명 참석할 가을 연합수련대회

지난 4월초부터 온누리 교역자들이 두 사람씩 조를 이뤄 일본 온누리교회들 순회

01

제4기 온누리리더스 선교캠프

공동체 다락방장 및 장로 등 교회 리더를 위한 '제 4기 온누리 리더스 선교캠프'가 열린다. 오는 8월 19일부터 2박 3일간 2천/1만 비전의 재도전과 헌신을 위해 열리는 이번 캠프는 지난 1~3기에 참석하지 못한 리더 대상이다. 이재환 선교사가 주 강의를 진행하고, 무릎선교사 서약, 1만 사역 소개등 순서로 진행된다. 4기에 참석을 원하는 리더는 2000선교사무실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김동렬 간사 (795-9085, 793-9686 교 239, 209)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아웃리치로 '온-누리가 설렌다'



2002년 여름, 온누리 아웃리치팀이 뿌린 복음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다. 한 여름에 접어들면서 아웃리치를 마친 팀들의 감동이 전해지면서 감동과 은혜가 풍성하다.

지난 7월 중국과 일본, 캄보디아를 다녀온 팀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과 전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뜨거워졌음을 간증했다.

교회사무국 간사8명은 서안에서 출발해 카쉬가르에 이르는 실크로

드 대장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복음과 무역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차세대사역의 파워웨이브 중고등학생들도 전주대에서 파워스테이션을 열고 전주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나눴다.

양재대학부인 바울공동체와 요한공동체는 각각 일본과 캄보디아, 몽골등에서 복음을 전하며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국내외 3천여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번 여름 아웃리치는 8월말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7~10면)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나는 무릎 선교사' 재 확인

선교사역과 선교사를 위해 매주 화요일 모여 중보기도하는 해외선교 연합기도모임이 지난 7월 30일 무릎선교사로 헌신한 리더스캠프 1기~3기생들을 초청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환 선교사는 이사가 66장 19절~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 만이 아닌 모든 예수 믿는 자가 다 제사장 되길 원하신다"며 "이것은 만인 제사장, 곧 무릎 꿇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는 무릎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사 2천명을 보내려면 이들이 계속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뒷받침하는 2만명 이상의 무릎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밝

힌 이 선교사는 "중보기도는 산고의 사역이며 간절한 마음과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씀 후 두 사람씩 짝이 되어 상대방이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위해



기도하며 무릎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날 중국과 인도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네 팀을 축복하며 기도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성령의 단비'를 간구합니다



미움과 증오에 메마른 영혼

살름! 그동안도 평안하신지요?

무더운 여름 이스라엘 날씨는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을 상징하듯 그 강도를 더해가는군요. 갈릴리 수위도 점점 위험선으로 내려가 3년 전과는 다른 양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의 성지순례가 뜸해진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가끔 거리 전도단이나 소규모 순례객들만 눈에 띄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현실을 보며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또한 메마르게 하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 메마른 이곳 영혼들을 적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어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에서 오는 복음의 일군

이곳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나라에서 중보기도하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의 교회는 다른 유럽국가와 현저히 달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며 유대인교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우방이 되길 기도했는데 오히려 한발 앞서 서방

의 몇 나라가 먼저 앞장서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컨퍼런스, 세미나, 집회 등은 서방 교회들이 앞장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즈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에서 일꾼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큼 이스라엘은 최후의 보루요, 믿는 이에 게 없어서는 안될 구속사의 증거이며 유대민족이 돌아올 때는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을 세계 기독교인 모두가 성경과 설교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위해 나선 노선교사

몇 주 전에는 통곡의 벽에서 물이 새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가 가까웠다고 흥분했고 고고학 전문가는 벽 주변에 물이 생겨 밖으로 조금 흘러나왔을 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 봤는데 큰 벽들 하나가 전체표면이 물에 적셔진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보다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최근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이며 목회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여생을 바치고자 그나이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초급반부터 시작하는 모습과,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 한마디라도 전해보고 죽겠노라는 고백을 듣고 마음이 몽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뼈를 묻고 싶다는 한 젊은 청년, 남아공에서 온 전도사역자 그를,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며, 기독교의 유대인에 대한 교만함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며 인내하며 영적 빛진자로 섬기는 모습이 저에게는 위로와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안드레, 서석남 올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재일/조순희 (후원-세네갈-GMP-일산)
-삼바 참, 무스타바 바비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11월 중순 안식년이 시작되는데 항공료와 한국에서 머물 안식처가 준비될 수 있도록

강바나비/김은정 (파송-몽골-TIM-강서김포)
-8/15~17일 브라이드 마을 바잉동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길
-바잉을 지역어 들어간 장기 사역자 한 명과 몽골 사역자 1명의 정착과 동역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이곳을 방문할 세 단기팀의 안전과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최연호/강명옥(파송-남아공-Mercy ship-성북)
-비자가 손조름게 연장될 수 있도록
-차기 사공이 잘 되고 수리해야 하는데, 5년된 국산차(엘라트라, 약 700만원)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건강과 맑은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김안산/김수재(후원-일본-CCC-강동)
-저희 부부가 처음 사랑으로 일본 교회와 일본인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700여명의 한국 OOC 회원들과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벌인 전도활동을 통해 일본 열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계절이 임하도록

강옥현(단기-북아프리카-중동선교회)
-지친 육신이 회복되도록
-언어 공부에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현 지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03

우즈베키스탄 이웃리치를 다녀와서

JDS 마하나임팀

"새 땅으로 변하는 기적의 현장"



우리 마하나임 팀은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박 12일 동안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다. 보통 아줌마에 불과한 우리들이 3월에 예수 제자학교의 47기로 만났다. 그 동안 우리 모두는 여름 이웃리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하며 기도했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음식과 피기도로 무장했다. 일행 11명은 함께 한 주님과 12명(?)으로 첫 사역지에서부터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힘을 냈다.

그러나 타슈켄트 공항에 내리자마자 쯔뽀뽀는 우리의 힘과 기운을 빼게 만들었다. 47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더위에 수건을 걸치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땅과의 전쟁, 공포의 용단 담요 위에서의 식사, 엄청난 열병, 그 열흘 동안의 사역은 다양하고도 흥미진진했다.

대적의 눈을 가리고 경배 받으시다

첫 사역지 안다잔은 이슬람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전통적 생활모습이 강하게 남아있고, 경찰을 두려워하고 있다. 말과 행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었다. 남성의 95%가 의도하며, 이혼율이 높고, 미신에 많이 의존하는 도시였다. 우리 팀은 시청 앞 땅 밭기를 하고 곳곳에 말씀 씨를 심고 이 땅의 악한 영

을 대적했다. 땅 밭기를 끝낸 후 SUM으로 주님을 경배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우리 왕이여'를 담대함으로 찬양했는데 가까이 있는 경비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의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셨군요. 경비의 눈과 귀를 막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라고 우리의 담대한 선포에 감격해 하셨다.

보그스마산 정상에서 만난 하나님

안다잔의 보그스마산 정상에서는 작고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의 일에 도구로 쓰심에 모두 감격하였다. 이곳은 '노아의 방주'가 실려 모험으로 구름자에 놓여 있었다. "성경의 일점일획도 틀림 없는 모습을 눈 앞에서 보게 하시다니!" 모두는 아주 가까이 대면한 아버지께 의해 너무나 뜨거운 심정으로 정상의 사일 앞에서 산을 벗고, 찬양과 SUM을 울려드렸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장을 모두가 함께 한 성령으로 받게 하셨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딸들이, 나와 함께 한 너희들의 헌신을 내가 기뻐한다"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긴 노을과 함께 계속 이어졌다.

고아원에서는 엄마로서의 장기를 발휘해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는 찬양을 하고, 준비해간 풍선으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 주며, 안 통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속삭여 주었다.

시골 사역지에서는 각 팀마다 다양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한 팀은 한국에서 일하다 온 주민을 만나 의사소통에 어려움 없이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며, 5명이 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셨음을 모두가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악한 영이 떠나간 여자무당

선생님들이 섬기던 교회를 방문,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나누었고, 그들의 뜨거운 믿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서로를 품고 기도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자무당 호세

와 가장을 방문했을 때는 영적 싸움이 대단했다. 말문이 막혀있고, 몸이 부자연스런 그녀의 집에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며, 악한 영을 물리치며, 통곡하며 중보하였다. 그녀는 하얀 봉황새가 기도 받는 중 10마리가 떠난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임으로 하나님의 치유함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었다. 그 집의 더러운 그림과 물건을 떼어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였다.

이 외에도 캠퍼스 사역지를 돌고, 그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를 드리며, 우즈베크 온 땅을 주님이 이제 새 땅, 새 포도주로 만드시는 현장에서의 놀라운 체험들은 일행 11명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한 큰 증거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이번 이웃리치를 먼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신용애 저

양재대학부 요한 공동체

캄보디아, 소망의 언덕에 서라

양재대학2부 요한공동체는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46명의 지체들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소망교회(영통 선교사님)에 본부를 두고, 동서남북 네 곳에 세워진 개척 교회들을 방문했다. 대학부 지체들은 수백명의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를 드렸다. 아이들에게 박수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익숙치 않았지만 찬양과 율동을 통해 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

드라마와 인형극, 몇일 밤을 세워가며 만든 복음큐브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 또한 크메어로 말씀을 적은 카드와 사랑, 모아서 가져간 옷과 신발, 후원받은 장난감 등을 나누어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사역하러 오신 온누리 메디컬 팀과 함께 연합하여 페이스 페인팅, 환자를 돌보기도 했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단기 선교팀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에 많은 교회들, 아웃리치 팀



들이 방문하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있는 동안 예배의 능력이 퍼져나갔다. 무엇보다 캄보디아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끌어안고 기도하며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가

족임을 경험했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했다.

낙후된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매우 심하게 핍박을 받고있고 선교사님이 방문하지 않으면 먹게 없어서 그냥 굶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점수를 안주거나 배척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 중보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나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자유를 넘어서는 방종의 모습들도 돌아보게 되었다.

현지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연합하여 동네 청소, 집집마다 방문하며 전도 등을 하며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옥실배 백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음으로 기대한다.

장지인 자매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



이선향 자매 (대학부 15기)

캄보디아에 서의 첫날 밤. 까만 피부에 커다란 두 눈동자는 낮선 눈빛으로 우리를 주시했고, 그들의 한국어 찬양은 서툰기만 했다. 하지만 찬양이 이어지고 기도가 계속되자 낯설음은 사라졌고, 우리는 그 곳에 거주하는 우리의 지체를 안고 울었다.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런 착박한 곳에 내 지체가 있음으로 인한 감동 때문이었다.

매일매일 아픈 지체들이 속출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해서 우리를 더욱 기도하게 하였고 사랑하게 하였고 눈물 흘리게 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다. 또한 봉사를 하러 왔던 두 한국인 자매를 하나님께 돌

아오도록 하셨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나는 캄보디아 오기 전에 투덜거리고 칭얼거리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네가 여기서 태어났더라면, 너도 이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라는 선교사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삶 속에 부여주신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캄보디아 지체들의 섬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더욱 캄보디아를 사랑할거라고 다짐하였다. 언제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끝까지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키실 것이다. 캄보디아에 대한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지켜내실 것이라 믿는 것을 확신한다.

양재대학부 바울공동체

일본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바울 공동체 일본 아웃리치팀을 당신의 빛의 군사들이라 부르셨습니다. 1천만의 귀신이 있는 땅. 그리고 1%의 주의 백성들이 있는 땅 일본은 너무나 거대하고 검은 성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을 품고 기도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출발 전 여리고 기도회와 준비기도회를 통해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규수 대학과 히카다에서 찬양하며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일본은 노방전도가 안된다는 허탄한 신화가 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오카를 덮고 있는 사단의 양재산맥중 하나인 스미요시 신사를 명발기하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모리오카역을 출발한 우리는 해저

터널을 지나 하코다테역을 거쳐 최종목적지인 삿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총 36시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힘이 들었지만 도착하는 곳마다 예배하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 비행기로 귀국할때까지 끝까지 순전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팀 모두가 순종하며 지친 몸이지만 승리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7월 22일부터 시작한 8박 9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믿도있게 우리의 발걸음과 사역을 인도하셨고, 팀중들이 겸손히 당신의 음성을 구했을 때 신실하게 그리고 정말 지체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을 대적하며 취하기 보다는 사랑과 빛으로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군대장관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이었고 우리

는 다만 그분의 뜻을 구하였고 순종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웃리치가 끝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빛의 군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빛을 비추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분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마오 오사마테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지현 형제(대학부 13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일본은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었다. 그곳에선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내 속에 있는 연합함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듯이 일본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도 더 이상 일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고 나는 외치기 시작했다.

나는 선포했다. 너희가 내 말에 거역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일본에 대한 마음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말씀으로 나의 교만함을 한번 더 누르고 일본을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일본은 내가 도착했을 때와 떠날 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변한 건 내 안에 있는 일본을 향한 마음이었고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금방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땅을 향한 마음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 같이 대화하며 기다린다면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열흘간을 환난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까지 충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그 날에 그 땅에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한가나 자매(15기 팀중)

간사이아웃리치 = 실크로드팀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 '실크로드'

지경을 넓히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가 밟은 땅 만큼 넓혀지게 됩니다. 가십시오. 가서 지경을 넓히고 세계관을 넓혀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하 목사님께서 우리 팀을 축복하시며 주신이 메시지는 출발을 명하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곳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1만2백80km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실크로드! 장안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고도 긴 여정. 이 길을 따라 중국 비단이 로마로 전해졌고 중국에서는 로마의 화폐가 유통되기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 복음이 로마에서 중국까지 들어가게 하셨다.



실크로드의 기점 그리고 종점

먼저 우리가 밟은 땅은 옛날 장안이라 부르던 역사적으로 약 5천년동안 수도였던 서안이다. 97%가 한족이지만 전통공예품을 파는 시장에는 회족이 대부분이다. 회족은 당나라를 도우려 왔던 페르시아 군대가 서쪽 돌궐 세력에 막혀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한 민족이다. 그들은 모슬렘과 중국의 전통이 혼합된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여인들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남자들은 원형의 동그란 모자(타키야)를 쓰고 있다. 여는 모슬렘 사원과는 달리 중국식 한옥으로 된 건물을 회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우리는 돌아오는 날 서안을 다시 보기로 하고 기차를 타고 우루무치로 향했다.

신장 자치구

신장은 위구르 사람들의 땅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장에 이미 200만 명의 한족을 이주시켰고, 앞으로 약 1억 명의 한족을 이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신장에 있는 위구르인들 약 80만 명은 터전을 잃고 도시에서 짐차 시골로, 산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있다. 우리에게 신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던 선생님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위구르 사람들을 향한 그분들의 사랑과 눈물을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우리는 하나님께 신장을 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우루무치 지역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 위구르인 80만 명 중에 신자

는 20명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신장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어둠의 세력을 뚫고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 천 배, 만 배의 결실을 거두시도록!

호탄 그리고 카슈가르로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말에서 유래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타클라마칸 사막'을 버스로 이틀에 걸쳐 이동한 후 호탄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10시. 우리의 물결은 그야말로 가파르다. 이틀 동안 씻지도 못했고 얼굴과 머리는 모래로 푸석푸석... 말할 때마다 모래가 쌓인다.

꽃과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 김 선생님의 농장에서 잠시 여정을 풀고 예배를 드렸다. 7년 동안 위구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사역했지만 한 사람도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김 선생님은 한족 사역자들에게 영업을 맡겼고, 한족 형제 한사람과 OM사역자와 같이 일하고 있었다.

한족 사역자들이 위구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는 부탁을 받으며 '어떻게 위구르 사람들이 한족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일제 시대에 일본인 사역자가 전하는 복음에 우리가 마음을 열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의 공효이 호탄의 사역자들에게 넘치시기를, 또 호탄의 위구르 인들을 공효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사역자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간구했다.

카쉬 카슈가르

카쉬로 가는 버스는 그야말로 '총알'이었다. 거친 운전으로 길가면 나귀가 놀라 2미터 가량 낭떠러지로 수레와 함께 굴러 떨어졌고,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소년도 밀로 굴러 떨어졌다. 카쉬는 우리를 그토록 빨리 보고 싶어했다.

카쉬에는 일요일만 열리는 2천 년 전통의 재래시장이 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그곳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린 후 영적지도를 그리기 위해 땅 밟기를 했다. 이제까지 지나온 도시와는 사뭇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면서, 이 도시가 이방인인 우리를 반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1892년부터 1938년 약 47년간 스웨덴 선교사에 의해 성경이 번역되었고, 약 5백 명의 신자가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던 도시. 그리고 그 교회가 두 차례에 걸친 박해로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이곳 카쉬가 하나님께서 신장을 얻기 위해 복음의 씨를 심어놓으신 도시였음을 깨달았다.

비행기를 타고 카쉬로 떠나던 날, 한 간사님은 우리 팀이 둘로 나뉘어서 어떤 사람의 주검을 지키고 있는 꿈을 꿔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다. 우리는 카쉬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그 날 저녁 우리가 타기로 한 비행기가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켰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다른 비행기로 카쉬를 떠날 수 있었다. 카쉬는 우리를 붙잡았다. 남아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우리 중 누군가 이곳에 다시 와야 한

다는 부담이 생겼다. 카쉬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것을 아쉬워 했다.



아름다운 목장이라 불리는 도시 우루무치

우루무치는 '아름다운 목장'이란 뜻이다. 물질만능으로 망들어 가는 모습, 구석구석 소외된 위구르 사람들의 그림자를 안고 이름 만큼이나 우루무치는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다. 일년 내비 한 번 내리기가 힘든 땅인데, 우리가 땅을 밟는 동안 비가 내렸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실 것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을 때 까지,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이 땅을 아름다운 목장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한 확신으로 이 땅을 축복했다. 그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라고!

서안의 지하교회와 비전!

지하교회의 한족 리더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어둠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 그의 간증과 지하교회의 상황들, 당면한 문제들은 우리를 흥분과 숙연함으로 몰아갔다. 그는 서안 지하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전했다. 그리고 그 분열의 현장에서 눈물도 기도하고 함께 박해를 견뎌 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그는 참담 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안의 지하교회의 청년들의 비전을 들었을 때 나는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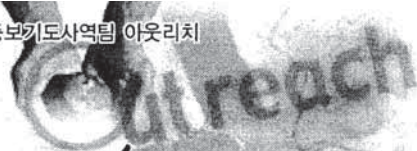
"복음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 복음을 세계로 전하자! 실크로드가 전도의 길이 되게 하자!" 이것이 우리들만의 비전인줄 알았다. 그러나 중국 지하교회의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듣고 놀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비전이였다.

우리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그 분께 올려드렸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실크가 아닌 복음이 이 길을 통해 온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할 그날을 꿈꾸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 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온 땅에 선포되는 그 날을 꿈꾸며...

신원석 간사(2천 선교)



▲ 좌로부터 원영기, 이시내, 신원석, 김 선생님, 김신순, 김성주, 이해진, 이정현
우루무치 지역에 있는 산에 올라 이 땅에 심긴 복음이 어둠의 세력을 뚫고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 천만 배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간증

복음 통일가를 함께 부를 그 날까지



7월 8일 중보기도학교의 판문점에서 시작된 북한을 향한 중보기도를 서막으로 중보팀 37명은 인천공항을 출발 심양에 도착해 존 로스 목사님이 세운 동안교회를 방문했다. 심양에서 단동을 거쳐 조선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던 존 로스 목사님의 헌신의 열매인 한국교회의 교인으로서 다시 역으로 그 땅을 중보로 섬기는 일은 참으로 감회가 깊게 느껴졌다.

심양에서 단동으로 우리를 안내한 바울형제를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다. 북한 김일성 대학 출신의 엘리트였던 바울형제가 중국에 건너와서 복음을 접하고 북한이 복음통일되게 하기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 보였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비참한 삶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단동을 보면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부후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단동과 먹을 것이 없어 군인들조차도 낚시를 하고 앉아있는 신의주 강변이 황막한 광경들은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하였다.

중보기도 멘토십학교 사역을 마친 우리 팀은 단동기차역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손을 흔들던 바울형제의 모습을 뒤로하고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힘차게 복음통일가를 함께 부를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며 북경을 향하였다.

이영미 성도

하요중보기도모임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부터 60대 권사님으로 구성된 37 명이 7월 15일부터 20일 까지 중국 단동한인교회와 북경을 다녀왔다. 단동한인교회는 교인이 약 70여명. 우리가 갔을 때는 주중 이어서 약 35명 정도의 교인이 참여했다. 단동에 도착한 오후 8시부터 시작해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저녁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기도멘토십 학교를 열었다. 단동 교인들은 이 학교가 열리기를 매우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짧은 기간이었지만 멘토와 메트리 간에 깊고 진지한 나눔이 있었다. 그중에는 조선족 4세인 자매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일도 있었다.

단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북한의 신의주를 서로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압록강 단교에서 북한땅을 바라보고 그 땅이 속히 복음으로 열리기를 기도하고 찬양했다. 압록강에서 배를 타고 북한땅에 아주 가까이까지 가서 북한주민을 보면서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안타까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북경에서는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 만리장성, 용경협, 이화원, 명 13능, 옹화궁을 돌아보며 명방기를 했다. 그들이 자기의 권리와 부를 위해 우상숭배하던 곳을 보며 아무리 크게 건물을 지어도 그 영화가 다 없어졌음을 보고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있음을 감사했다. 특히 감사했던 일은 우리를 가이드 해주던 조선족 자매가 우리를 가이드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일이다.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한인교회에 힘을 더하게 하시려고 단동과 북경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했다.

이한길 집사(서기)



▲ 압록강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복음이 없어 신음하는 북한 땅을 위해 중보기도의 소리를 높였다.

▲ 단동 한인교회 35명의 성도는 기도멘토십학교를 통해 힘을 얻었다.



*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306호
 ·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일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서빙고 자모실
 ·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n.com

캄보디아팀
여름 아웃리치 기도 및 준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서빙고 경천홀내 유아실
물품구함
 · 품목: 여름옷, 의약품, 영어책, 학용품, 현금 등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4567-118, 456-7118)

케냐 아웃리치 팀 (8월 9~19일)
 · 품목: 전자악기(일렉기타, 전자드럼 등) 제빵기계, 목공기계, 컴퓨터(펜티엄이상), 기독교관련 비디오 테입(영어판)
 · 연락처: 김미송 팀장 (017-204-5608) 최진혁 형제 (019-269-1159)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중고 컴퓨터 펜티엄II 이상
 · 용도: 외국인 근로자 웰터사용
 · 문의: 이경희간사 (교 514, 017-316-9787)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품목: 중고 컴퓨터 (펜티엄급 이상), 냉장고 (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탁아방 용) 등
 · 서적: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및 더욱 환영), 지역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 생활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사모집
 ·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 지역: 동아시아
 · 대상: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 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선교지물품 요청
 · 컴퓨터 관련: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 한국 문화 관련 소품 및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관련 도서들, 회사사보, 회사안내 자료들
 · 문의: 이하나 간사 (571-9535) timint@hotmail.com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 자격: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험자로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헌신자
Mission Builder(자원봉사자)
 · 자격: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
 ·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나 강의
 · 문의: 이영재 간사 (교 233, 679, owmc@onnuri.or.kr)

*

제4기 온누리 리더스 선교캠프

공동체 다락방장 및 장로 등 교회 리더를 위한 '제 4기 온누리 리더스 선교캠프'가 열린다. 오는 8월 19일부터 2박 3일간 2천/1만 비전의 재도전과 헌신을 위해 열리는 이번 캠프는 지난 1~3기에 참석하지 못한 리더가 대상이다. 이재환 선교사가 주 강의를 진행 하고, 무릎선교사 서약, 1만 사역 소개등 순서로 진행된다. 4기에 참석을 원하는 리더는 2000선교사 무실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김동렬 간사 (795-9085, 793-9686 교 239, 209)
홍미남 minam@onnuri.or.kr

KIBI 교육원

세미나 “그 날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림의 관계를 밝히는 세미나가 KIBI(한이성 경연구소) 주최로 시작된다.

“KIBI 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는 이 과정은 ‘이스라엘 비전스쿨’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토라, 성막, 제2의 출애굽, 현지 이스라엘 이해 등의 강의와 랍비 출신의 요셉 술람 목사와 유대인 목회자를 하는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의 특강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과정은 9월 2일~11월 25일 13주간 열리며 수강료는 5만원이다.

• 문의: 792-7075~6 Fax 793-1626

kibikorea@yahoo.com,

www.kibikorea.com

〈일정〉

- 9월 2일 개강 창조와 ‘그 날’ - 송만석 장로
- 9월 9일 토라를 연구하는 즐거움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 변순복 교수
- 9월 16일 토라의 가르침 : 하나님과 이스라엘 - 변순복 교수
- 9월 23일 성막 -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라 - 박인용 목사
- 9월 30일 랍비에게 듣는다 - 요셉 술람
- 10월 7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 변순복 교수
- 10월 14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법과 이웃 사랑법 - 변



요셉술람 키이스 인트레이터

순복 교수

- 10월 21일 랍비식 용서법과 예수님식 용서법 - 최명덕 교수
- 10월 28일 성지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해
- 11월 4일 제2의 출애굽은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리처드 고티어
- 11월 11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 이경욱 전도사
- 11월 18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 키이스 인트레이터
- 11월 25일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날’의 준비 - 송만석 장로

01



케냐에 부는 '월드컵 바람'

월드컵 축구, 월드컵 선교

얼마 안되는 지난 9년동안 아프리카 생활 속에서 오래히 동양인만 보면 '핑퐁' 아니면 '곤나찌와' 라고 인사하며 우리의 심기를 뒤집기 일쑤였던 이곳 현지인들의 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앞선 기술과 엄청난 물량 공세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일본인들이나 가공할 인제전술로 수적인 면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중국사람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명함도 내밀수 없었던 한국인들이 그야말로 물만난 물고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곳 동아프리카 해안 지역, 넓게 펼쳐진 백사장에는 오후 5시쯤 어린아이들이 어른 할것없이 새까맣게 진을 치고 둘러앉아 축구경기를 관람하느라 북새통을 이룬다.



그래서 독일이며 브라질 같은 축구 강국들의 유명한 선수 이름을 줄줄이 외워대는 이들 스와힐리 사람들의 축구에 대한 애착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월드컵 그 이후 요즈음 마을 앞 공터를 지나거나 길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말 한마디, 안 평화~(안정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월드컵이 일으킨 축구의 신바람 만큼이나 이 땅 아프리카에 예수의 바람, 거센 선교의 광풍이 불어온다면 얼마 좋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월드컵과 같은 선교의 환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손가락으로는 이를 잡을 수 없다

스와힐리 속담에 킨레레 키모자 하키분지 차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낙 지저분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을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오래 아이들이며 어른들이 남기고 간 이나 버룩이 온몸을 성하지 않게 하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한바탕 이 잡기 소동이 벌어지곤 하는데 '한 손가락으로는 이를 잡을 수 없다'라는 속담을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곤 합니다. 선교는 이를 잡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

손가락만으로는 할수 없는 이잡기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다른 한쪽 손가락이 없이는 원수마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먹고 삽니다.

태음력인 스와힐리력으로 7월은 라자브(Rajabu)라고 합니다. 지난 5월 모하메드의 생일을 기념하는 마올리다 행사를 뒤로하고 오는 11월초에 시작하는 '라마단'을 앞에 두고 이곳 스와힐리 사람들이 기지개를 펴는 달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김 선교사는 학생들의 코란학교 덕분에 오후 7시 반이후가 되어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홍성교사 역시 무슬림 여성과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하루 종일 씨름을 하다가 지친 마음으로 준비된 늦은 저녁 식사를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정말 시간의 흐름이 손살갈다그나 할까요. 덧없이 빠른 시간의 흐름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해질 때 그래도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유난히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케냐에서
김완영, 홍미숙 선교사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다니엘/이한나(파송-TIM-소아시아)
- 11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당이 집권을 하고 가장 합당한 인물이 수상이 될 수 있도록
- 8월의 여러 가지 일정들(2개의 아웃 리치 팀 방문/세자연장을 위한 3국 방문/이스탄불의 부흥회 참석/다른 분들과의 한 집 생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주아름/주사랭(단기-TIM-소아시아)
-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같이 할수 있는일로 감사
- 주님 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타기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도록
- 사업과 학업에 지혜와 건강주시도록

안드레/서석남(파송-TIM-중동)
- 끝없는 보복전이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생각을 갖도록
- 오랜 분쟁으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갈릴리의 미리암/다비드, 이레나/다나를 위해
- 다음 달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대담을 잘 하고, 성경께서 지혜를 주시어 잘 통과되어 학생비자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박성민/정희진(후원-GMP-에라과르)
- 청소년 특별 집회를 통해 11명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한 일로 감사
- 에스페란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AMEE 청년 제자훈련학교(8/19-23, 주제: 변화와 성숙)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며, 그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03

사이판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풍요속 빈곤, 사이판 조선족"

제비뽑기로 아웃리치 지역이 사이판으로 결정되자 회의적인 의견이 속속 나왔습니다. 워낙 휴양지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가는 아웃리치니 만큼 진정한 도움을 주기 원하는 마음, 사이판이 미국령이라 외국인 의사들이 진료를 할수 없다는 사실, 지난해 다녀온 다른 교회팀이 진료도 못하고 장비와 약품을 세관에 빼앗겼다는 얘기, 현지 교회의 의료선교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 모두 우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생기자 우리들이 무엇이 문제였나를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가 없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이판의 한족교회가 아파요'

그후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강목사님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사이판 봉제공장에 근무하는 조선족이 7천여명, 한족이 1만3천명, 하루에 12시간동안 에어컨도 틀지 않는 공장에서 일하는 그들은 병이나지 않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면 치료보다 본국으로 송환하고, 치료비가 비싸 치료를 받을수 없어 한족교회의 의료선교가 절

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외국인진료시 적발되면 입건된다는 사실을 알고 갈등하며 기도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이번 사역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가야하는지, 터구나 911테러 후 더 엄격해진 검열체계에 모두 X-ray에 통과될 지, 약분량, 7월에 재테러위험등 결정된 후에도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이 모든 문제들이 사이판 도착 후 한낱 기우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도리어 허탈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도착한 날부터 우리는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피부과, 성형외과, 한방, 치과, 미용.

1천여명 환자를 돌보며

4일동안 약 1천여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환자 중에는 교회 주변에 사는 차모르 원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낮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어서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료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진료가 끝난적도 있었습니다.

주일 날 저녁에는 다섯 교회 교인들과 근로

자들이 함께 모이는 연합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팀이 준비했던 워십, 태권시범, 합창, 간증 등으로 그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곳은 강대위 선교사님이 섬기는 한족교회를 포함하여 다섯 교회가 합력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섯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처럼 매일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찬양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없어 목사님들이 새벽예배부터 밤 모임후 그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오면 새벽 두시에 사역이 끝난다고 합니다. 외로운 자매들에게 부모가 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청년 자매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가져간 100원의 주석 성경이 모자라 한 목사님께서 잠언을 글로 먼저 써오신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잠을 자지않고 이틀만에 써온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주님께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았습니다.

사이판 교회의 아이러니

양육하고 보내는 3년만에 되돌려 보내는 목사님들의 사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 할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사이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한국에서 누구도 사역을 돕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답니다. 심지어 좋은 휴양지에서 무슨 사역이냐고 반질거리기도 합니다.

이번 의료사역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보게 해 주셨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팀원들 각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신 일 철 집사
(의료선교회 B팀 팀장)

아이들의 눈망울에 비친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7월 24일부터 7월30일까지 제가 섬기고 있는 요셉공동체를 중심으로 영어예배(OEM), 일본어 예배 등 총 16명 지체들이 내몽골 영어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영어캠프는 내몽골 북동쪽에 위치한 "하일라"라는 시에서 열렸고, 국제화평학교에서 하일라 지역 선교전략의 하나로 매년 여름마다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내몽골 대초원 국제청소년 문화교류 하계 영어캠프"라는 이름으로 제법 알려져, 올해도 최초 신청한 학생수가 2백 명이 넘는 정도로 인기 있는 캠프였습니다. 그만큼 중국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갈급해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갈급해하는 아이들

이번 캠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요셉과 OEM팀뿐만 아니라 KCM(Korean American Campus Mission)팀과 내시빌(Nashville)에서 온 단기선교팀, 그리고 국제화평학교 현지 선생님들까지 40명이 넘는 대규모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주셨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요셉과 OEM팀을 중보의 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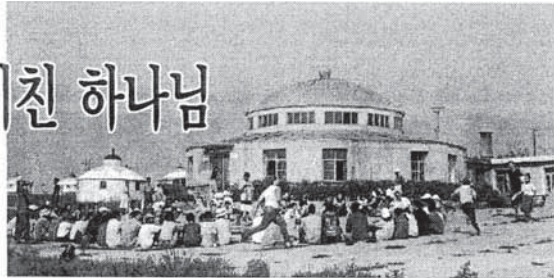
로운 선교활동이 어려운 중국에서, 더군다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한 해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나를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들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찬양하고 뛰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품고 안아주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



고,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 중에 장차 내몽골과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배우고 알게 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들의 삶에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마지막 날 밤, 하나님을 영접한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하겠다고 고백한 아이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중보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가장 만행인 피터가 마지막 작별인사를 대신해 외친 이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부디 이번 여름 우리가 만났던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보호아래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김희은 자매 (대표의장단 서기)

01

몽고 단기선교

“사인베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서빙고 대학부 다윗공동체는 7월 15일 (월)부터 22일(월)까지 7박 8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송용원 전도사와 17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몽골팀은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각각 어른 수련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 명밭기 기도, 각 가정을 방문해서 축복하며 전도하는 축호전도 사역을 했다.

사인베노! 이 말은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다. 처음엔 의아한 단어였지만 어느새 우리는 몽골 말에 동화되고 있었다. 이 나라 말을 접하고 또 배우기까지, 우리 팀의 피와 땀이 서려있어 몽골을 걸코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선교지의 땅은 아름답다

출발할 때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몽골 공항에 내려 처음 맡은 공기는 아직도 마음을 설레게 한다. 광활한 평야와 넓게 펼쳐진 하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지는 정말 아름다웠다.

한편으로 ‘우리의 선교로 이 땅을 변화 시킬 수 있을까?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몽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생겼다. 불안한 마음을 극복하려고 우리 팀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와 찬양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기도제목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될 정도다.

사역은 두팀으로 나뉘어 진행했다. 한 팀은 어른 사역을 하고 다른 한 팀은 어린이 사역을 했다.

어린이 사역을 담당한 나는 ‘우리 사역이 흥미와 재미 위주에만 머물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을 인도해 주셨고 그곳 아이들과 뜻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아이들의 기도하는 눈과 찬양하는 입술을 볼 때면 마음속에 감동이 일었고, 우리가 떠날 때 그들이 보내준 정성과 사랑은 몽골 팀 모두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게 했다.

1%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 타종교들과 잡신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주님을 알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 자기 나라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느낀 감동은 정말 타국에서 맛보기 힘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이기에 가능한 기쁨이었다. 날씨가 춥고 잠 자리가 불편해도 우리에게 상쾌한 아침을 주셨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도 배부른 은혜를 주셨으며, 문화에서 오는 차이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마음과 눈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느끼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 가려는 곳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주셨다.

다시 이 땅을 밟게 되리라

몽골은 내게 후회 보다는 ‘다시 이 땅을 밟게 되리라’는 기대가 더 큰 땅이다. 몽골에서 보낸 일주일의 내게 한달만큼이나 길었다. 썸머타임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몽골사람들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내 신앙이 한층 성숙할 수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아쉬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가 몽골에 머물렀던 일주일을 지켜 주셨고 앞으로 몽골 땅과 우리의 맘속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몽골 아웃리치가 나에게 신앙의 성숙과 앞으로의 내 미래와 비전에 정말 큰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김경미 자매 (대학부 바울)



02

■일본오사카 아웃리치팀

이천선교 중보기도부는 8월 12일(월)~ 18일(주일)까지 일본 오사카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지역을 방문해 명밭기를 한다. 말쑤카드와 4영리 카드를 이용 노방전도와 워십도 계획하고 있다.

*

제4기 온누리리더스 선교캠프

8월 19일~21일 / 양지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공동체 다락방장과 장로 중 1~3기 참석하지
못한 리더 대상
문의: 김동렬 간사(교 239, 209, 795-9085)

기도모임

소아시아 기도모임

8월 26일(월) 오후 7:00 / 서빙고 403호

바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의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
안타,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KIBI

제4기 KIBI 교육원

9월 2일~11월 25일(13주) 매주 월요일 오후
7:00~9:30 / 서빙고 온누리교회 / 5만원(이
스라엘 비전스쿨과 8월 23일까지 등록된 사
람은 4만원)
입금: 서울은행 33901-1033558
예금주 KIBI
문의: KIBI (792-7075-6)

아프가니스탄 긴급 구호 물품

의류, 신발, 운동기구(축구공, 베드민턴 라켓 등)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하는 의료지원단에서
사용할 물품입니다. (마감 8월 18일)
문의: 허태재(016-301-7973)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중고 컴퓨터 펜터업II 이상
용도: 외국인 근로자 쉼터사용
문의: 이경희간사(교 514, 017-316-9787)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중고 컴퓨터 (펜터업급 이상), 냉장고 (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
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탁
아방 용) 등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연
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
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
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
터/피아노 교사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력
증 소지자, 경력자

선교지물품 요청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한국 문화 관련 소품과 그림들, 화보, 관광여
행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를
문의: 이하나 간사
(571-9535, timint@hotmail.com)

에zell선교회

찬양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며 치유와 회복을 위
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답아가
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입니다.

서빙고 중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직장인과 청년들에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의 끈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느낄 수 있는 기도모
임입니다.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선교사훈련학교 (OWMITS)

유아, 탁아 사역자 / 유치원, 탁아 사역자 경
험자로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헌신자

01

제2기 Why Missions 개강

제2기 'Why Missions?' (온누리 세계선교학교)가 열린다.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선교사역의 구체적인 정보, 선교후원방법 등을 배우는 이 학교는 선교사 훈련 교재로 인정받고 있는 'Mission Perspectives'를 중심으로 국내외 선교사가 선교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교육을 한다. 특히 이번 2기에는 선교사훈련경험이 풍부한 미국 C&MA소속 선교사들이 훈련을 돕는다.

한편, 1기 동문회 모임이 오는 24일(토) 오후 6시 서빙고 순형홀에서 열린다. 1기 수료생들은 친목도모와 함께 2기 도우미를 모집해 중



족별, 사역별 모임을 구성한다.

Why Mi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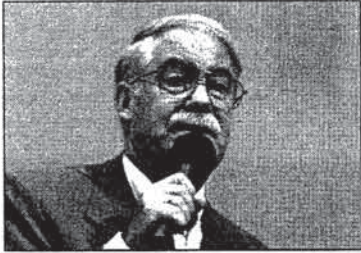
- 일시: 9월 7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4:00 / 양재 화평인내성전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일만사역자 파송

오늘(18일) 2부예배시 금영숙 권사, 장세영 집사, 박경숙 집사 등 3명을 일만사역 해외사역자로 파송한다.

골리앗이 왔다 '다윗'은 어디에 있는가?



리빙스턴 목사

본문 : 딤후 2:15, 행13: 21~22, 눅16:9

한국 선교사들은
서양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슬렘 영적 부흥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후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함박웃음을 지으며 여러분을 바라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슬렘 땅에 남아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알제리에 있는 크리스천 형제들,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낸 터키 형제들을 대신해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난받는 모슬렘 지역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세례'를 주었다는 이유로 순교한 이라크 목사님 일곱 분이 계시니, 미망인이 돼 홀로 남아있는 사모님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회교권 국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회교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종족입니다. 다메섹 지역 교회와 바그다드에 있는 형제들을 대신해서는 드릴 인사가 없습니다. 브루나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을 대신해서도 여러분께 드릴 만한 인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엔 '선교한국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선교를 하려는 청년·대학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두 가지 사건'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헌신하는 사건
첫번째 사건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들어 회개하 추수하게 된 곡식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선교에 도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코앞에 닥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투옥돼 있었습

니다. 그는 여러번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풀려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교수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감옥에 매여 있는 바울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본향에 가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죽은 후 구속역사를 이어 복음을 증거할 디모데와 같은 젊은이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삶의 마지막 점을 보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네 불신앙 때문에 못 하였구나"라는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서는 약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죄인들을 사용하신다'는 말로 학생들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는 그 날에 집중하라.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할 때 주님은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한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쁘다는 이유로 영원을 위한 삶에 투자하지 못한 후회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약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살던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종교를 믿을 수 있어?"라며 비웃음을 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위해 탁월한 기준 세운 다윗

우리가 어떻게 '인정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1~2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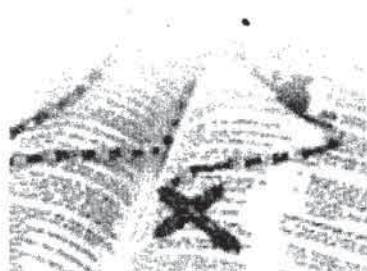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실패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한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흰칠한 키에 잘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언어 구사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정말 타고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실 때마다 사울은 "하나님! 제게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하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맞춰서 해석했습니다.

22절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기록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더는 사용할 수가 없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울 위에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다가 그들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2절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내 모든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생애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다윗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간음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살인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나쁜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다윗은 범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는 자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3미터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참 신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 때 이스라엘 병사들이 화가 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아닙



다.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일이 참 신이고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야"라는 말에 참을 수가 없어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간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둘째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동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의 참된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미스터 골리앗! 내가 너를 쓰러뜨릴 거야. 이것을 통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게 될거야. 온 세상이 이 땅 위에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라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년 다윗은 당시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모슬렘 끼을 '다윗'을 찾습니다

저는 '선교한국대회' 동안 학생들에게 "골리앗이 지금 다시 돌아왔는데, 이 세력을 쓰러뜨릴 다윗은 어디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교관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참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세뇌를 받습니다.

아주 사악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나쁜 크리스천들이 신약성경까지도 바꾸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쓰러뜨리기 같은 책으로 생각합니다. 모슬렘은 '모하메드'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모슬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어떤 기도회에 참석한 후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저는 '예쁜 자매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동기를 품고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모임에는 자매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슬렘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만 모인 기도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에서 "조지 보어 라는 스무 살 청년이 제게 "당신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까요?"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은 나라가 어디인지를 물었습니다. "리비아, 리비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리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철야기도에서 제 눈을 여시고 저의 꿈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천 명의 장기 사역자들이 모슬렘 국가에서 사역하도록 돕는 도구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는 대부분이 서양선교사들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모슬렘 국가들이 서양 사람들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그다드에 미국 선교사를 보낼 수 있을까요? 레이건

대통령이 카다피 대통령 관저에 폭탄을 터뜨린 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는 모든 서양선교사들이 철수했습니다. 오직 네 가정의 선교사들이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들은 바로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서양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과 같은 나라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 6)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하늘 아래 구원받을 도리가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여러분을 뜨겁게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눈을 들어 회개해 추수하게 된 곡식,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가 삼촌에게 얘기하고 삼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예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인생의 한 부분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알릴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금을 애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 원합니까? 무게가 15kg 정도인 금면류관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 면류관이 바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면류관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면류관은 여러분을 영원의 처소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프린터로 출력한 어떤 용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지를 들고 서 있을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용지에는 저를 교회로 인도한 자매님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저를 철야기도에 인도했던 형제님 이름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껏 도왔던 OM국제 총재 '조지 보어' 목사님 이름도 기록 돼 있을 것입니다. 아마 중국사람과 일본 사람과 터키 사람들이 들고 있는 용지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랍, 걸프에 있는 나라들에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에도 말레이종족을 위한 가정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브루나이에도 크리스천 두 명이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소말리아에는 5~6명의 크리스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모슬렘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국인 5%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교도 5%가 주님 앞에 돌아와 경배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위해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온 땅에 알린 다윗

'모슬렘 영적 부흥' 일으키는 일꾼으로 참여해야



사람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서 "잘하도다"라는 말을 듣기 원하십니까?

천국 사건

우리 생애에 일어나야 하는 두 번째 흥분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너희를 영원의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때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올 것을 말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어떤 성도가 다가와서

빌립보서는 선교사들을 도운 교회에 보내는 감사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빌립보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잠예)라는 말은 '모든 일을 함께 진행하는 가까운 관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저는 한 성도님께 선교사들이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여쭙었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어디서 사역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한 가정의 선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교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영광 / 조지 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슬렘 땅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자”

2천선교팀 - 선교사, 훈련생, 본부 관계자 모임 가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선교 일선에서 땀을 흘리는 선교사와 사역자가 지난 14일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냈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는 잠시 귀국한 선교사 11명,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훈련생 17가정, 2천 선교 본부위원, 우리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핏볼트리니티 신학생 13명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훈 선교사는 “내 삶을 돌아보건대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훈련생들을 격려했다. 김낙웅 선교사는 “화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더욱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정교회의 방해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을 거부 당하고 있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윤희 선교사는 “일본을 부흥시킬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훈련된 일꾼이 없을 뿐”이라며 일본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임 후 참석자들은 온누리세계선교센터 훈련생과 선교 정보를 주고 받았으며, 훈련생을 위해 중보했다.

서철 chol@onnuri.or.kr

Why Missions? 시작하는 김사무엘 목사

선교사역의 일꾼 되십시오

두번째 온누리세계선교학교 'Why Missions?' 을 곧 시작합니다. 지난 1기 1백여 명의 훈련생을 섬기면서 스태프들이 동일하게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도가 선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를 수료한 많은 성도가 '이게 선교군요'라며 감사했습니다.



둘째, 교회 안에 선교잠재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늘 부담감만 가지고 있던 성도가 이 학교를 통해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차분하게 단계별로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셋째,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1기에서 학교를 수료하고 장기훈련과정에 참여한 성도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인력을 동원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번 2기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해 영광스러운 선교사역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일만 사역자 파송



● 금영숙(미국)

1. 성령충만한 믿음생활을 위해
2. 영육간이 강건함을 위해
3. 모든 사역(일대일, 큐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 장세영, 박경숙(미국)

1. 현지에서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2. 언어습득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아이들(성규,익준)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01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해요”

13기 다윗 학교

13기 다윗학교 20명의 학생들은 훈련의 일환으로 태국과 방콕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난 7월 26일(금)부터 8월 5일(월)까지 10박 11일동안 전도훈련을 은혜가운데 마쳤다. 다윗학교 학생들은 태국 우돈타니와 방콕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고아원, 감옥 등에서 위신과 찬양으로 집회를 열어 복음을 전했으며 저녁에는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열었다. 공동체훈련과 영성훈련을 통해 청소년을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키우는 다윗학교는 지난 5월 25일 개강해 이번 아웃리치훈련을 끝으로 수료했다. 수료식은 지난 10일(토) 열렸다.



이 지 아 학생
(경복여고1)

제 꿈이었던 다윗 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서 무척 좋았어요. 여럿이 모이면 싫은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고,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서 버스를 갈아타며 오는 것도 전혀 불만스럽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한 공동체 활동도 너무 재미있고 행복했고, 특히 소그룹은 정말 편안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다윗학교를 다니며 저에게 알게 모르게 변화된 것

같아요. 나쁜 말버릇이나 사소한 거짓말이 없어지고 토요일을 기다리며 생활했어요. 주님은 저에게 QT로 다가오시고 생활에서 적용을 실천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웃리치 준비기간에 배운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아직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비전은 아니지만 사역이라는 게 힘들긴 해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학교, 교회, 고아원에서 사역할 때 박수소리와 영접하겠다고 손을 든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한데, 도움이 많이 못 돼 미안했어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우리 사역을 끝으로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어리고 예쁜 아이들을 왜

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보내는지 그렇게 될 주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주님은 QT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은 다 다르니까 나는 생각날 때마다 진정으로 태국을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이 태국아이들을 기억해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사역은 고아원입니다. 학교 아이들에 비해 아이들의 눈이 맑았지만 사랑이 부족하다고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이 끊이지 않고 제가 기도해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제가 다윗학교에 들어온 주목적은 비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직업까지 주님께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돈과 명예보다 주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시대의 한국의 은누리교회에 보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태국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곳에 살며 다윗학교라는 청소년시기에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일에 저희 모두를 써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02

요셉학교에 임하신 성령님

요셉학교 개강을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은 완전히 제로(0)였다. 교사, 아이들 모두 지원이 전혀 없었다. 몇 년 동안 끈게 달렸던 문을 다시 열어, 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그런데 1주일만에 아이들과 교사들이 물려들었고 정원을 초과하여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신기하게도 교사들이 각 분야에 너무도 딱 맞는 달란트를 가진 이들이 지원을 했다.

성령님과 함께 출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불러 주셔서 동참시키신다는 깨달음에 감

사와 기쁨으로 4월 20일 요셉학교 개강을 했다. “기독교적 세계관, 자아관 확립, 영적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37-49장의 요셉이야기로 12주에 걸쳐, 초등학교 5-6학년 22명과 교사12명이 주말마다 훈련과 격주로 합숙을 했다. 한주 한주 지나면서 주뱃주뱃이 담당함으로, 종알종알이 힘있는 찬양과 기도로, 세상문화에 놓렸던 아이가 요셉의 생각과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변화와 성숙을 감당하기에 교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했다. 12주의 훈련을 마치고 8박9일의 일정(7/29~8/6)으로 인도네시아

반동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외부인을 한번도 들이지 않은 순다족 마을에 들어가 함께 숙박을 하며 복음을 심었다.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노동력으로 봉사하며 잔디를 심었고, 현지 교회의 아이들과 일대일로 나눔 시간도 가졌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계획과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사단의 방해가 시작했다. 버스타이어가 펑크나고, 교통사고가 났고, 아이들과 교사가 아프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이 사단의 방해임을 거의 동시에 알았고 그래서 일정을 취소하고 성령집회를 열었다.

요셉이 깊은 구덩이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아이들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아이들의 눈물어린 기도에도 성령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다. 가는 곳과 사역마다 기쁨 부으심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 이제 20명의 요셉들로 변화된 아이들에게 세상은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

조병홍 교사



▲ 12주 과정의 훈련을 통해 요셉의 꿈을 품은 요셉학교 학생들은 아웃리치를 통해 성령님을 체험했다.

03

요셉학교를 마치며...

“치유의 하나님 만났어요”

요셉학교에서 나는 많이 변화되었어요. 매주 반별로 같이 성경공부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 나누었어요. 요셉에 대한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게되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인해 서로 관계가 좋았어요.



장현영 학생(1기)

아웃리치에 가기 몇 주전에 워십팀과 국악팀으로 나누어 팀별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아웃리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마지막 프로그램인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에 갔어요. 그곳에서 한 일은 아주 많았어요. 따만미니 공원관광, 구제사역, 수영장, 화산구경, 보육원 방문, 현지의 킹스키즈 모임, 현지예배, 쇼핑, 애찬식, 사파리 등... 그중 참 좋고 보람있었던 일은 순다족에 간 일과 성령집회였어요. 성령집회에서는 우라반 친구 2명은 첫날 방언을 받고 그 외에도 성령을 받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두번째 성령집회에서 나는 방언이 너무 하고 싶어 힘껏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선 방언 대신 환상을 보여 주셨죠. 방언의 선물이 하늘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다 멈춰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내게 방언보다 치유를 먼저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셨어요. 대체적으로 제일 편안했던 버스길에서 머미를 했던 저는 앞으로의 고생을 생각하며 버스를 탈 때마다 말마치 않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후 난 훨씬 꼬불꼬불한 길도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었어요. 아픈 선생님들과, 아픈 친구를 위해 때로는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곧 낫게 해주셨어요.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치유해 주신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

제4기 온누리리더스 선교캠프
 8월 19일~21일 / 양지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공동체 다락방장과 장로 중 1~3기에 참석하
 지 못한 리더 대상
 문의: 김동렬 간사(교 239, 209, 795-9085)

제 2기 Why Missions?
 9월 7일~ 12월1일 (12주간, 매주 토) 오후
 4:00~8:00 / 양재 화평인내
 대상: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owmc@onnuri.or.kr)

소아시아 기도
 8월 26일(월) 오후 7:00 / 서빙고 403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
 안남,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J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아프가니스탄 긴급 구호 물품
 의류, 신발, 운동기구(축구공, 베드민턴 라켓등)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하는 의료지원단에서
 사용할 물품입니다. (마감 8월 18일)
 문의: 허태자 (016-301-7973)

온누리미션 물품
 중고 컴퓨터 펜티엄II 이상
 용도: 외국인 근로자 셀터사용
 문의: 이경희간사(교 514, 017-316-9787)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중고 컴퓨터 (펜티엄급 이상), 냉장고 (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
 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락
 아방 용) 등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연
 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
 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
 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
 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
 증 소지자, 경력자

선교지 물품 요청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한국 문화 관련 소품과 그림들, 화보, 관광여
 행 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문의: 이하나 간사
 (571-9535, timint@hotmail.com)

에zell선교회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며 치유와 회복을 위
 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답아가
 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입니다.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의 끈을 이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직장인·청년 기도모임입니다.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선교사훈련학교 (OWMTS)
 유아, 탁아 사역자 / 유치원, 탁아 사역 경험
 자로 MK 사역에 비전이 있는 선교현신자

01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지원 확대

파키스탄 - 테러 피습 교회에 2만1천불, 비품 지원 아프간 - '동서 ...' NGO 결성 본격적 사역 전개할 터

2천선교팀은 파키스탄 교회에 후원금을 보내고, 지난 28일에는 의자, 피아노, 강대상 등의 물품을 선적했다. 이번에 온누리 성도들이 돕는 파키스탄 교회는 지난 3월 17일 예배 중 수류탄 테러로 파손된 교회다. 이 테러로 교역자와 성도 5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2차 아프간 정탐 때 하용조 목사 등은 현지를 방문,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었다. 후원금 2만1천불은 비

전헌금과 아프간을 위한 특별헌금으로 조성됐다. 현재 교회에서는 아프간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구성된 '동서문화개발교류회(DOC)'를 NGO로 등록해 본격적으로 아프간 사역을 전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아직까지 테러가 끊이지 않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며, 전 국민이 무슬림 지역인 아프간에서는 NGO가 아니면 활

동에 여러가지 통제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1차 5월 7일~18일, ▷2차 5월 20일~29일, ▷3차 7월 12일~22일 등 3번에 걸쳐 아프간 정탐을 다녀왔다. 한편, 현지 언론인 카불 타임즈는 6월 4일자 신문에서 "한국 대표 아프가니스탄 방문"이란 제목 하에 '동서문화개발교류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2천선교팀은 아프간 사역에 동참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서철 chol@onnuri.or.kr



02

4기 온누리리더스 캠프 마쳐

총 4회 2백21명 수료 점차 모든 성도로 대상 확대

제4기 온누리리더스 캠프에 참석한 온누리 리더 43명이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미전도 종족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할 것을 헌신한 '무릎선교사'로 헌신했다. 지난 지난 19일부터 열린 이 캠프에는 이영철 장로의 51명의 장로 및 디락방장,

교역자, 교회직원들이 참석해 이재환 선교사가 이끄는 훈련을 받았다. 이재환 선교사는 "2천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는 2만명, 20만명의 무릎선교사가 필요하다"며 무릎선교사가 될 것을 부탁했다. 한편, 지난 6월에 시작해 4회를



마친 리더스캠프 수료자는 2백21명이며, 2천선교팀은 이 훈련을 점차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일만 사역자 파송

● 신재명 배경순 (중국 상해)
· 기도제목

1. 중국에 있는 복정교역(주)사업체를 축복하시 주님께 영광드리시는 주님의 기업이 될수 있도록
2.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3.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예진, 우철)의 언어습득과 현지적응을 잘할수 있도록



● 김순예 (중국 청도)
· 기도제목

1. 우리 가족을 중국으로 가게 해주신 하나님 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수 있도록
2. 중국의 언어와 문화를 속히 익혀 그 땅을 품을 수 있도록
3. 한국에 남을 남편에게 동일한 은혜와 비전이 함께 할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아프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루리종족의 문명화를 위해 기도해야

저희 이동진료팀은 그동안 3차례의 아프간 사역과 UZ 사역을 매우 분주히 하고 있습니다. UZ 내에서도 그동안 미전도종족으로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던 루리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Samar 주위에 많이 모여 사는 이들은 인도에 노예의 후손들로 15세기 아무르 티무르에 의해 노예로 잡혀온 인도인들의 후예입니다. 이들은 마호메트도 예수도 들어본 적이 없는 무관심의 집단이요, 그저 아는 말이라고는 "한푼 줍소" 밖에 없는 참으로 무지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루리 회심자도 나왔지만 문제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양육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루리 종족 가운데 글을 읽고 자기 종족의 문명화를 위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간 의료 사역 지원

무더운 아프간의 여름은 자칫할 모르는 한국 젊은이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더욱 뜨겁습니다. 카불의 의과대학에서 의대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바로 지난 주 아프간을 방문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역적인 접근방법과 상황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일단 북부를 중심으로 사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의료팀은 지난 6월까지 5차례 이동진료 사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이곳 여러 국제 기구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오지로 깊이 들어가 아프간 구석 구석을 보면서 기도제목들을 찾고 그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 사역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공개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프간은 참으로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불이남 지역에서는 종족간의 갈등이 한번씩 표출되어 암살 사건들이 벌어지는 뉴스가 있지만 북부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 우대 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덕분에 많은 종보자들이 드나들 수 있어서 기도자들이 실제로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학 영어만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기 사역자라도

계속 공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건비와 월세만 해도 매일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도 기적입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의 공급이 연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 열방선전 병원의 개원

이제 저희 새 열방선전병원의 개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원에 즈음하여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연대 안교수, 미국인 안드레아가 들어오고 9월 첫주에는 간호사 김진숙 자매가 오게 되어 있어서 새 병원 팀은 제법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0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갖춘 병원 신축과, 부지 내에 저희들이 가장 갖고 싶은 '훈련센터'를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주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나와 여호수아

선교사를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

- 구바울 (파송/소아시아/YWAM)**
- 오래된 안질질환의 회복을 위해
- 이소마 (단기/동북아/TIM)**
- 관절염, 아들(의진) 구루병(비타민D결핍)으로 성장 멈춤)의 치료를 위해
- 송신애 (파송/동북아/TIM)**
- 허리 디스크의 회복을 위해
- 윤위로 (파송/동북아/TIM)**
- 작년 안면근육 마비의 온한 회복을 위해
- 아마나카/수정 (단기/일본/TIM)**
- 아마나카의 아파 피부질환과 조수정의 체중 저하 현상이 치료되도록
- 김선광/구자현 (파송/멕시코/TIM)**
- 만성설사, 어깨통증 아들(성욱) 위경련, 구자현의 체력저하의 회복을 위해
- 이명순 (파송/스웨덴/YWAM)**
- 두통과 뇌하수체 붓는 현상으로 검사 중인데, 좋은 결과와 치료를 위해
- 주지현 (단기/동북아/YWAM)**
- 갑상선종양 수술 치료중데, 온전한 치료를 위해
- 이반석 (파송/모잠비크/TIM)**
- 풍토병인 질에인베어(전신마비) 후유증으로 자유롭지 못한 오른팔의 완쾌 위해
- 김스데반 (후원/중앙아/인터콥)**
- 치질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매우 불편함, 속히 치료되도록
- 이선희 (파송/인도네시아/YWAM)**
- 열병, 장티푸스의 완전한 회복위해
*각종질병과 연약한 육신을 가진 모든 선교사에게 주님의 치료와 위로를 임하도록

Why Missions? (온누리세계선교학교)

'선교'는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

- 선교현장 경험과 성경적·문화적·전략적 선교이론 배워



그동안 온누리교회에서는 선교사훈련(MTS)등의 전문적인 선교현장자를 위한 훈련과 기초적인 평신도 선교강좌등의 기초과정은 있었으나 선교관심자 및 선교를 어렵게 여기는 자들을 위한 중간 과정이 없었다.

초보와 전문훈련 중간과정

'Why Missions?'은 선교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를 없애고 선교는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며 준비되고 실천될 수 있다는 이론과 실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겨났다.

이 학교는 온누리교회 성도의 선교의식 고취하고 선교관심자 및 헌신자들의 지속적 관리와 교육을 통해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의 양성, 선교현장자들이 선교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두었다.

이 학교에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평신도 선교교육과 훈련에 쓰여

던 Mission Perspectives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발간)을 가지고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통하여 선교기초를 잡아준다.

아울러 한국 현실에 맞게 한국 선교역사와 온누리교회의 선교전략

등의 과목을 기존의 과목들과 접목시킨다.

'선교' 직·간접적 체험

모든 과목은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의 선교이론과 함께 선교현장 경험에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적 적용

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일본에서 선교했던 김사무엘 선교사, 미국 O&MA의 Don Shaeffer같은 오랜 선교경험이 있는 분들이 강사진들로 나서게 된다. 아울러 'Why Missions?'기간 전세계에 있는 미전도종족에 대한 자료와 선교사역지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전공 및 은사를 활용하여 어떻게 선교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

제 2기 'Why Missions?'가 기존의 선교강좌와 다른 점은 '전문성'입니다. 그 동안 세미나 형식으로 선교의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을 배우는 기회가 많았지만, 온누리세계선교학교는 선교의 가장 기초적인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부터 살펴본 뒤 선교사역을 위해서 내가 국내에서 혹은 선교사로 혹은 중보기도자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묻고 상담받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계획

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면?

'Why Missions?'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 내년 3월부터 실시될 2기 OWMTS (온누리세계선교사 훈련학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Why Missions?'등문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사역별, 종족별 모임 가운데 일원이 되어 선교지 연구, 선교사 후원, 단기 선교, 선교 지원 사역 (컴퓨터 보내기, 의료 지원 사역, 법적문제 도움, 선교사 자녀 양육 등)을 준비하게 된다.

'Why Missions?' 등록 방법

개강: 9월 7일 오후 4시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회비: 3만원
사전등록: 선교센터 031-336-6350~2, owmc@onnuri.or.kr



▲ 선교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을 없애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줄 '제2기 Why Missions?'은 오는 9월 7일 양재 화평인내성전에서 시작한다.

고양은평 공동체...A국 O시 아웃리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 필요

올해 처음 우리 공동체는 A국 O시를 섬김 선교지로 후원하게 되었다. 그곳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현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기에 공동체 리더인 목사님, 장로님, 다락방장, 총무 등 7명이 방문하게 되었다.

이곳은 선교사님만 20여명이 계시는 곳이라 먼저 몇가지 방향과 목표를 정했다. 첫째 선교지 특수상황을 이해하고, 둘째 선교사님들을 격려 위로하며, 셋째 효과적인 섬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한달 전부터 순별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고 순 하나에서 선교사(자녀포함 27명) 한명에게 보낼 선물과 편지를 준비해서 선교사님들께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웠다.

선교지에 도착한 첫날, 선교 사역지 내곳을 방문하여 저녁 만찬 후 선물을 전달하고 한분 한분 애뜻한 기도제목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과 간증을 나누며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줄 몰랐다.

둘째날 우리교회 첫 순교자인 분의 묘소를 방문하고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현장을 목격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으며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나눠줄지 다시한번 신앙의 재정검과 큰 도전을 얻게 되었다.

셋째날 한인교회 사역자들과 스텝들을 만나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나라에 대한 현황을 들으며 보낸 자들이 왜 기도해야하며 어떻게 도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정한 감동의 시간이었다. 3년동안 15번 장소를 옮겨 예배를 드렸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간의 힘든 상황이 그려졌다.

이제는 장소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곳에서 250명이나 넘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날은 10쌍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마치고 수료하는 뜻깊은 행사도 있었다. 6년동안 모든 진액을 다 빼고 안식년으로 떠나는 목사님 가정을 보며 우리는 찬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넷째날 한국으로 돌아오며 우리공동체는 우리 방법대로 선교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지 선교사님들의 필요에 따라 섬기기로 몇가지 중지를 모았다.



'순과 계속적인 기도제목 공유하며 지속적인 기도로 후원한다', '단회성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관계를 유지한다', '본교회 상황과 기독교 정보를 제공하여(월간지 등) 소외감이 없도록 도운다.', '개인후원 관리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물품들 운반해준다', '현지인이 한국 연수시 홈스테이장소 제공과 주일 교회 안내 및 교재를 통해서 복음전파한다', '한인교회 교인들과의 교류로 실제적인 협력사역을 추구한다.' 등이다.

이번 선교지 아웃리치를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 공동체...몽골 아웃리치

약속의 땅 동굴에 드리워진 무지개

우리 요한 공동체는 이번 여름 캄보디아와 몽골 그리고 국내 낙도를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해 왔다. 먼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캄보디아 팀이 은혜 안에 1일정을 마쳤고 그 바턴을 이어받아 7월 2일부터 우리 몽골팀이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안개로 인해 비행기가 연착되면서 영적인 전례는 시작되었다. 다행히 비행기는 무사히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였고 생각보다 짧고! 선교사님의 마음을 받았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감사했다. 그렇게 순전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몽골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둘째 날 각 팀별로 맡은 사역을 배웠다. 수요일 목요일은 각 팀별로 중과 부, 여름 성경학교, 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섬기게 되었다. 우리 팀은 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 진행을 맡았는데, 하루는 식기가 늦어져 중고등부 수련장에 들어갈 차가 없어 저녁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련회장에 가길 바라셨다. 전날 한인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가져온 OHP를 중고등부 수련회장에 운반하는 차편으로 우리 팀이 수련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날 저녁,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헌언이 터지는 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우리의 사역은 각 팀별로 열매를 맺어갔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셨다. 몇몇 팀원들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우리는 전심으로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주일이 되면서 다들 건강을 되찾았다. 우리는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울란바토르 대학과 연세친선병원 등을 돌아보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향해 일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었다.

첫째 날 나는 쥘레와 오음바트 위해 기도했다. 다음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의 기도인도에 따라 아이들과 기도했다.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친友们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싶어했던 오음바트와 쥘레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게 아닌가? 나는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주님은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 중보하겠다고짐을 하며 공항까지 나온 몽골아이들을 뒤로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서울로 돌아왔다.



생각해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시간들이 없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조금은 멀게만 느껴지던 '선교'가 너무나도 친근하게 되었고,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말씀해주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예배와 관계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무엇보다 시간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 몽골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번 아웃리치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다.

이 상 백(대학부 요한공동체)

두란노 책소개

“검은색이 아름답다”



이재환, 선우순애 지음 | 신국판 | 240쪽 |

— 감비아 사람들을 향한 선교사 부부의 사랑고백 —

무더위로 무너지는 육신과의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선교사 부부의 끊임없는 다짐과 낮아짐은 간절함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된다. 또 변화하는 감비아 인들과 그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의 이야기는, 아프리카 모슬렘과 그 검은 대륙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한다.

아프리카의 가장 작은 나라 감비아에서 보낸 15년, 현지 검은 사람들을 향한 선교사 부부의 가슴 뭉클한 사랑 고백. “평화의 땅 감비아여, 사랑하는 만당고 족이여!”

● 특징

- 오랜 세월 감비아 사람들과 더불어 산 이들의 실제 삶을 통해 현지 문화와 관습을 알 수 있다.
-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도록 돕는다.
- 각 부마다 실리는 다양한 현지 사진들은 현장감을 더하며 생생한 이해를 돕는다.
- 생활 속의 에피소드들은 머리로 하는 선교가 아닌 삶으로 하는 선교를 보게 하며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선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 대표성을 띤 선교지 이야기들은 선교사의 삶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들은 “검은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체험했다. 1984년, 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 감비아 땅에 첫발을 디뎠던 이재환 선교사 부부는 15년간 감비아 부족민들과 더불어 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이재환 선교사 부부의 ‘가나안공동체’와 가나안종합훈련원은 감비아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영적·물질적 필요를 채우며 차츰 하나가 되어갔다.

감비아의 사회 문화적인 관습과 모슬렘이라는 철벽 앞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보던 이들의 배신 속에서, 말라리아와

*

제 2기 Why Missions?
 9월 7일~ 12월 1일 (12주간, 매주 토) 오후
 4:00~8:00 / 양재 화평인내
 대상: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owmc@onnuri.or.kr)

기도모임
소아시아 기도
 8월 28일(월) 오후 7:00 / 서빙고 403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
 인파,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 오후 7:3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온누리미션 물품
 중고 컴퓨터 펜티엄II 이상
 용도: 외국인 근로자 쉼터사용
 문의: 이경희 간사 (교 514, 017-316-9787)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
 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8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8월 29일 목 오후 7:30 / 서빙고 선교관 302
 호 / 극동 러시아 지역 탐방 보고, 구원의 나팔
 팀 전도 보고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
 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
 터/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
 증 소지자, 경력자

선교지 물품 요청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한국 문화 관련 소품과 그림들, 화보, 관광여
 행 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안내 자료를
 문의: 이하나 간사
 (571-9535, timint@hotmail.com)

인터콤 / 798-6001
갈렙네트워크
 9월 26일~12월 10일 매주 화 오후 7:00~10:00
 / 토 오후 4:00~9:00 / 28만원(부부는 50만원)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 헌신자와 관심 있는
 분으로 중장년층, 은퇴자, 증보기도 헌
 신자, 선교사 부모, 선교 교육 받기를 원
 하는 분.

인터콤 제7기 여성선교증보학교
 9월 30일~12월 16일 매주 월 오전 10:00~오
 후 2:30 / 선교관(서빙고) 403호 / 16만원
 미전도종족과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증보로
 동참하기 원하는 20대 이상 그리스도인 여성
 문의: 김정숙 간사(019-386-9635,
 796-3541 교 2)

*

01

제2기 Why Missions?

은누리성도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선교의 시각을 열어줄 제 2기 'Why Missions?' 가 9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양재 희락 성전에서 열린다. 선교에 대한 정보와 도전, 후원방법등을 강의할 이 세미나에는 미국 C&MA선교사 및 국내선교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또한 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를 위한 선교상담도 한다.

첫 강의인 7일은 누구나 참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오픈선교 집회로 마련한다.

•문의 : 김태완 간사

(031-336-6350)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청년 여호수아

아웃리치 감사예배

양재 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가 지난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웃리치 감사예배를 오늘 2시 양재 사랑 성전에서 청년부 예배시 드린다. 아웃리치 영상 상영과 회장 선포문, 아웃리치 간증 발표, 워십, 우슬초 합합댄스 순으로 진행되며 선



교사와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를 향한 중보기도 순서도 마련되어 있다.

전성희 snee@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기도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19기 홍콩 경배와찬양학교

홍콩에 온지 벌써 5년째 맞는 여름이지만 아직도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9.10.11일)에 있었던 제 19기 홍콩 경배와 찬양 학교에는 278명의 홍콩인들이 참석하여 '이 세대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현지 스태프들의 마음이 신실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매너리즘이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새 마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훈련생 중에 한 형제(마이클)가 있는데 이 형제가 자기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가운데 세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배와찬양 모임에 초청을 했었습니다. 2년전에 처음 그 누나가 모임에 왔을 때 예배 드리는 동안 부동자세로 그



도 제일 앞자리에 무서운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그러던 그 자매가 동생의 간곡한 부탁으로 경배와찬양 학교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2년 반 동안 토요일 헌신자 훈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에 두 눈에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ANI에서 훈련을 받으며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남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어느날 그 자매가 자기 언니를 모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언니(수미)는 18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위니자매와 같은 집에 살면서 예수 믿는 동생을 압박했던 사람이었지요. 두 동생(마이클, 위니)의 기도와 끈질긴 설득으로 목요일모임에 간간히 나오다가 이번 경배와찬양 학교에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사랑을 다

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부터 시작하는 토요일 헌신자 훈련까지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믿는 한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인지를 마이클 형제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요일모임 예배에 3남매가 함께 나란히 앉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마음이 듭니다.

홍콩에서 이 디모데, 오트, 성욱 & 은진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영룡(협력-캄보디아-무소속-관악/금천)
- 당기 열병에 걸린 랑홍/페톤/마이마이가 치유되도록
- 고아인 마이마이를 위해
- 당기 열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정하신(파송-중앙아시아-YWAM-성북)
- 기도의 짝을 만난 언어 선생 안에 주님이 강하게 임하시길
- 두 가정의 만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이들의 새 신앙이 잘 관리되도록
- 수리를 많이 하지 않고, 사람들과 잘 교제할 수 있는 적합한 집을 얻도록

박영환(파송-방글라데시-TIM-안양안산)
- 언어사역을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이를 통하여 2억의 서남아시아에 흩어진 병갈족을 품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박경수/황미옥(파송-미국-YWAM-강서)
-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 아내가 임신 8개월 가운데 감기 몸살로 앓아 고생하고 있는데, 아내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이디모데/오트(파송-동북아시아-경천-성동/광진)
- 9/7-12/14까지의 토요일 헌신자 훈련에 특히 20대 청년들이 많이 와서 젊음의 때에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헌신과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 수미 자매를 비롯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 훈련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배우며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03

청년 여호수아 오사카 아웃리치

'선교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지난 8월12일부터 18일 까지 여호수아 공동체 7명의 자매는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본을 가기 전에는 일본에 대해 싫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일본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일본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크리스천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선교의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들이 한해에 5만명 이상이 자살하고 10년 넘은 경기 침체, 1,000명 중에 3명정도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와 찬양중에 마음이 가난한자에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합을 알기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날때 우리는 사역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속에서 예배자로 서서 그 땅에서 기도하며, 전정터에서 군악대와 같이 선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는 워십과 찬양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

다. 그것은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70여절의 성경말씀을 2,000장 정도 책갈피로 만들어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사령리를 그림으로 풀어서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일본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토를 달아 연습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를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주면서 축복기도 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웃리치를 준비를 하면서 좀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더운곳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팀원들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하시고자 하는 충성이었구나'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가운데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



니다. 제 생각 가운데 선교의 선일전이라는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자, 잘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선교의 지름길이며 선교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계획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의 우리팀원들에게 매일 저녁 나눔의 시간속에 회복과 격려와 사랑이 우리가 낯의 고된 사역속에서 공동체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사랑의 현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선교는 아버지가 하십니다. 다만 아버지는 우리와 같이 있으시길 원하십니다. **강진애(중보기도부)**

중국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중국사람들이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중국에 갔을 때 기분이 아주 떨렸다. 왜냐하면 중국에 조 선족들도 있어서 전도사님, 교회, 예배, 찬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실수로 말할 뻔 해서이다. 자금성에 갔는데 큰 문 2개를 지나 더 큰 문 12개를 지났다. 그런데 자금성은 원래 금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밖에 없었다. 단둥에서는 호산장성에 갔는데 호산장성은 길이가 길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신기했다. 그리고 거기서 북한군인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마르고 이빨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불쌍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중국박물관을 많이 가서 참 좋았는데 진시

황릉의 병영총에는 가보고 싶었으나 못가서 섭섭하였다. 중국에는 옛날 문화유산이 많은 것 같다. 전쟁기념관을 보고 6.25전쟁때 많은 국가들이 참전했다는 걸 알았다. 단둥 한인교회에서는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창세기 말씀과 놀이를 복습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웠다. 특히 한인교회를 다니는 형아들을 잘 사귀어서 친하게 지낼수 있어서 좋았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국 아웃리치를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형(유년 2부)

*

제 27기 Why Missions?
9월 7일~12월 1일 (12주간) 토 오후 4:00~8:00 / 양재 화평인내 /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대상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owmc@onnuri.or.kr)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인바,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매주 수 오후 7:3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온누리미션 물품
중고 컴퓨터 펜티엄II 이상
용도 : 외국인 근로자 셀터사용
문의: 이경희 간사 (교 514, 017-316-9787)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 의사, 컴퓨터/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선교지 물품 요청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한국 문화 관련 소품과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 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문의: 이하나 간사 (571-9535, timint@hotmail.com)

인터콤 / 798-6001
갈렙네트워크
9월 28일~12월 10일 매주 화 오후 7:00~10:00 / 토 오후 4:00~9:00 / 28만원(부부는 50만원)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 헌신자와 관심 있는 분으로 중장년층, 은퇴자, 중보기도 헌신자, 선교사 부모, 선교 교육 받기를 원하는 분.

인터콤 제7기 여성선교중보학교
9월 30일~12월 16일 매주 월 오전 10:00~오후 2:30 / 선교관(서빙고) 403호 / 16만원
미전도종족과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중보로 동참하기 원하는 20대 이상 그리스도인 여성
문의: 김정숙 간사(019-386-9635, 796-3541 교 2)

에zell선교회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이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아가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기도모임입니다.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의 끈을 이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직장인·청년 기도모임입니다.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01

외국어 예배 추석성령집회

나그네와 함께하는 '중추절'

만물이 풍성한 가을 한가위가 두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오랜만에 만나는 고향친구들과 가족,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가위에도 외로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 바르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노동과 외로움에 지친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온누리미션은 한가위명절에 각 예배별로 성령집회를 연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나라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교제를 나눈다. 온누리미션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추석명절에 갈곳이 없다. 심지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들은 회사 식당을 열지 않아 굶기도 한다며 '명절마다 열리는 행사이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믿는 자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명절에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중국어예배팀들은 교회에서 1박 2일 행사를, 네팔어예배는 제



주도에서, 몽골어예배는 용인에서, 미얀마 예배팀은 강화도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파키스탄어 예배팀은 양화진 선교자모지를 돌아보고 한국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 묵상하는 등 모든 예배팀은 다시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기회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인도네시아예배와 터키어모임 등 8개 팀 3백 50여 외국인 근로자와 중국인 2백~3백 명 등 총 6백여명 가량이 모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누리미션과 중국어예배팀은 이 외국인 근로자 추석성령집회에 온누리성도의 관심과 후원,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 물품: 과일, 고기, 재정후원 등
- 자원봉사: 주방, 안내, 프로그램, 예배 도우미
- 온누리미션: 원영기 간사(016-352-3794)/후원: 33901-9522448(서울은행)
- 중국어예배: 정낙현 총무(011-723-0630) 후원: 33901-0474782(서울은행)

02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아웃리치 감사예배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는 지난 1일(주일) 양재 3부 청년부 예배에서 여름 아웃리치를 정리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는 ▷아웃리치 영상 상영, ▷청년부 출신 선교사의 인사말, ▷조영진 목사의 설교, ▷우슬초 워십 공연,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와 우슬초의 워십 공연 후 청년들은 박종길 목사의 인도에 따라 청년부 출신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지난 여름 국내 46개 팀, 국외 23 개팀, 총 1천3백 5십 여명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갈렙네트워크' 훈련생 모집

중장년층을 위한 선교프로그램 '갈렙 네트워크'가 9월 26일(목) 개강을 앞두고 훈련생을 모집한다. 갈렙네트워크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 원서 접수는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전국 6개 인터콥 지부에서 하고 있으며, 마감은 9월 14일이다.

- 문의: 인터콥 (02-798-6001, 02-796-3541 교 2)

안수집사 스쿨(SDS) 아웃리치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교회도 마음대로 세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여겼었다. 유럽에 위치한 그리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며 느낀 충격은 대단했다.

박인용 목사님과 안수집사 21명은 8월 20일 화요일 아침 10시30분에 우즈베크 항공으로 이륙해 타슈켄트를 거쳐 아테네에 도착하였고, 8월 27일까지 국토를 거꾸로 올라가 네압볼리를 지나 이스탄불까지 1,372km의 대 여정을 시작했다.

이튿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해 현지 선교사님을 만났다.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고린도 운하의 모습을 보고 아르고고린도로 향했다. 당대에 가장 음란하고 타락한 우상숭배가 행해졌던 고린도는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을 재현한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

바울이 서원이 있어 식발했다는

겐그레아 항구를 거쳐 다시 아테네로 향했다. 여신 아테네를 위해 제사하던 파르테논 신전은 보수 중이지만, 아직도 그 위용을 자랑하며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승리의 신들이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는 수천 년의 식민생활뿐이었다.

4일째에는 최대의 절경지인 메테오라에 도착했다. 박해받던 시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산꼭대기마다 세운 수도원들이 있는 곳이다. 이른(성인들의 성화)들이 온 내부의 벽을 울긋불긋 빼곡하게 채우고 있으며, 끊임없이 질식할 듯한 향을 피워낸다.

다음 행로는 기념 비석만 있는 베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아테네 다음가는 도시로 '하남의 승리'라는 뜻을 가진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아볼로니아, 암파블리를 둘러 마침내 빌립보에 이르렀다. 옛 마케도니아의 수도로서 번성했던 빌립보지만 지금은 유적터

만이 남아있다.

마지막 장소는 네압볼리(현재 지명은 카발라) 항구. 바울이 환상을 본 후 처음 도착한 유럽의 땅이다. 늦은 밤 바닷가에 나가 이 불이 달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하기를 소망하며 외치며 기도하였다.

다음 날은 주일이므로 호텔에서 예배를 드린 후, 성 니콜라스 교회를 찾았다. 바울의 입항을 담은 이콘이 바깥벽에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다. 주일이라 미사를 드리는 본당의 신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주여, 이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다음 날 오전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사원, 블루모스크를 잠시 둘러본 후 귀국에 올랐다. 그리고, 경유지인 타슈켄트에서 유럽 배낭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오는 온누리 대학부 50여명을 극적으로 만났다. 연합된 힘을 보여주며 타슈켄트에 천왕의 함성을 퍼뜨리자 당황한 공안 관계자들에 의해 서둘러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 SDS 21명은 복음의 물결이 그리스, 터키 등지를 덮는 환상을 보았다. 사진은 바울과 실라가 감행하던 빌립보 감옥. (위) 빌립보의 루디아와 그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문 밖 강가아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아테네에서 빌립보로, 그리스에서 터키로 이동시키시며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증할 곳에 그의 택한 자를

두심을 보여주시며 중보할 것을 당부하셨다.

김현주 오은주

가정사역본부 시애틀 아웃리치

“우리에게는 위대한 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사역으로 초대합니다”

미국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도시 시애틀(seattle)! 한인 형제교회 2여년 동안에 급격히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 기적의 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사무하시는 교회, 우리를 해외 사역 아웃리치 현장이다.

25개 부부 우리 사역 팀들은 1년 전부터 준비기도 모임을 가졌었는데 가장 큰 열려가 있었다면 짧은 2박 3일 동안 깊은 영적 교제가 쉽지 않을 것인 점과 오랜 교민생활로 인해 습관과 정서, 신앙적 상황이 우리와는 이질적 일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기도로 무장을 했으며 오직 배후에서 역사하실 성령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간구했다.

팀 리더들의 계속되는 금식기도와 철야, 매주 2-3회씩 기도모임을 함께 하면서 벌써 우리들은 깊은 영성과 은혜에 자리에 들어서 있었다. 우리 부부들은 우리의 기우를 넘어 오하려 더 큰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다. 50여 가정 어느 부부들을 막론하고 그들의 회개와 고백, 주체할 수 없이 흘러 온 몸을 적시는 통곡의 눈물은 곧 나의 고백과 눈물이 되었다. 함께 아파하며 위로를 나눌 때 성령님은 나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또 한번 용서와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주셨다.

사실 이번 아웃리치는 자신이 없었다.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러나 아내의 1년 전부터의 간절한 기도 제복이었고 또한 강권적 요구에 못 이겼다. 손녀가 첫 똥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한번 가 보지도 못했는데, 해외 사역이라는 것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아내를 얼마나 원망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니 맘이 기뻐서 밀려오는 것은 웬일일까?

이번 아웃리치가 해외 형제님 주매임을 섬기기 보다는 우리 부부, 아니 나 자신 이 더 더욱 큰 성감을 받고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에 감격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의지적인 헌신의 결단 이 있을 때, 은혜는 '맘'으로 우리 주님은 진실 것을 확인한다. 그 은혜는 나의 삶을 감사로 채워주시실 것이고, 기쁨으로 채워주시실 것이므로 가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높이 들어 세워주시길 믿는다. 할렐루야!

김갑선(강남 B공동체)

어둠 속에 빛이 있었고 빛은 어둠을 물리쳤다. 빛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25가정 (서울23, 시카고1, LA1)을 1년 동안 매월, 매주 각 가정과 교회에서 모여 주님께 무릎을 꿇고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철야를 하며 기도과 찬양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시애틀로 지원자 44가정을 모이게 하셨다. 여러 모양으로 모였지만 성령님의 손길을 모두에게 임하셨다. 또한 우리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상황에서 느낄 수 있었다. 짧은 2박3일의 프로그램의 일정이었

지만 감격과 기쁨의 눈물,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 서로의 얼굴에 흘렸으며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가 서로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상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존경하는 아름다운 부부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원자들과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에 만날 때에는 사역자로 만나기로 굳게 약속하며 사역을 마무리했다.

이제 교회내에서만 영향력을 내서는 안된다. 교회 밖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부부,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한다. 우리들의 비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들의 열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모든 분들을 초대한다. 이세상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애만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김민호 집사(진행총무)



▲ 가정사역본부는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시애틀 지역 44가정을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를 진행했다.

*

제 2기 Why Missions?
 9월 7일~12월 1일 (12주간) 토 오후 4:00~8:00
 / 양재 화평인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대상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owmc@onnuri.or.kr)

기도모임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9월 16일 (월) 오후 7:00 선교관 301호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 소아시아 기도모임
 9월 16일 (월) 오후 7:00 / 선교관 403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
 안바,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rimom.com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
 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
 터/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
 증 소지자, 경력자

선교지 물품 요청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한국 문화 관련 소품과 그림들, 화보, 관광여
 행 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를
 문의: 이하나 간사 (571-9535,
 timint@hotmail.com)

인터콥 / 798-6001
갈렘네트워크
 9월 26일~12월 10일 매주 화 오후 7:00~10:00
 / 토 오후 4:00~9:00 / 28만원(부부는 50만원)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 헌신자와 관심 있는
 분으로 중장년층, 은퇴자, 증보기도 헌신자,
 선교사 부모, 선교 교육 받기를 원하는 분.

인터콥 제7기 여성선교증보학교
 9월 30일~12월 16일 매주 월 오전 10:00~오
 후 2:30 / 선교관(서빙고) 403호 / 16만원
 미전도종족과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증보로
 동참하기 원하는 20대 이상 그리스도인 여성
 문의: 김정숙 간사(019-386-9635,
 796-3541 교 2)

온누리미션 물품
 중고 컴퓨터 펜티엄II 이상
 용도: 외국인 근로자 컴퓨터사용
 문의: 이경희간사(교 514, 017-316-9787)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
 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
 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
 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8-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

01

아프간 돕기 '러브 콘서트'



오는 28
일(토) 오후 7시 유
선식·한
상원 목사가 아프간

선교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러브 콘서트를 한다.

이번 콘서트는 '향수', '그리움', '가고파', '오 솔레미오' 등의 가곡과 '여호와 우리주여' 등의 곡이 마련되며 하용조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반주는 열린예배를 섬기는 이정근 집사와 오케스트라 팀이, 코러스는 청년부와 어린이 40여명이 맡는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제2기 선교세미나 열린다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입양한 종족과 선교지를 섬길 방법을 제시하고 성도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제 2기 선교세미나'가 열린다.

10월 1일(화) 오후 7시에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하나님의 관심/꿈(2000선교 및 온누리 입양종족 사역 소개)', '미전도종족 선교의 이해(What & Why)', '입양종족 선교전략(How I)', '증보기도전략(How II)' 등의 강좌가 준비된다.

• 문의: 김동렬간사(교 239)

03

1만 사역자 파송

오늘 서빙고 2부예배시간에 송영미(미국), 이성은(캐나다) 성도를 1만 사역자로 파송한다.

04

외국어예배 '추석성령집회'

인도네시아 등 3백50명 대상 중국어예배 후원 기다려

오는 20일(금) 중추절을 맞아 노동과 외로움에 지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온누리미션팀은 각 예배별로 성령집회를 연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음식물을 만들어 먹고 교제를 나눈다.

이번 집회에는 인도네시아 예배와 터키어모임 등 총8개 팀 3백 50여 외국인 근로자가 모일 예정이다.

중국어 예배팀도 20일(금) 오후 2시 두란노홀에서 추석성령축제를 연다. 중국인 2백~3백명이 모여 예배와 교제로 은혜를 나눈다.

온누리미션과 중국어예배팀은 이 외국인 근로자 추석성령집회에 온누리성도의 관심과 후원,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 물품: 과일, 고기, 재정후원 등
- 자원봉사: 주방, 안내, 프로그램, 예배 도우미
- 문의: 온누리미션: 원영기 간사



(016-352-3794)

33901-9522448 (서울은행)

- 중국어예배:정낙현 총무

(011-723-0630)

33901-0474782 (서울은행)

홍미남 minam@onnuri.or.kr

OUT Reach

2002년 아웃리치 결산 특집호



아웃리치 기획특집

제404호 2002년 9월 15일(주일) 5

아웃리치 보고서 (6~7p)

2002년 해외 아웃리치를 돌아보고 2003년 해외 아웃리치를 더욱 일차게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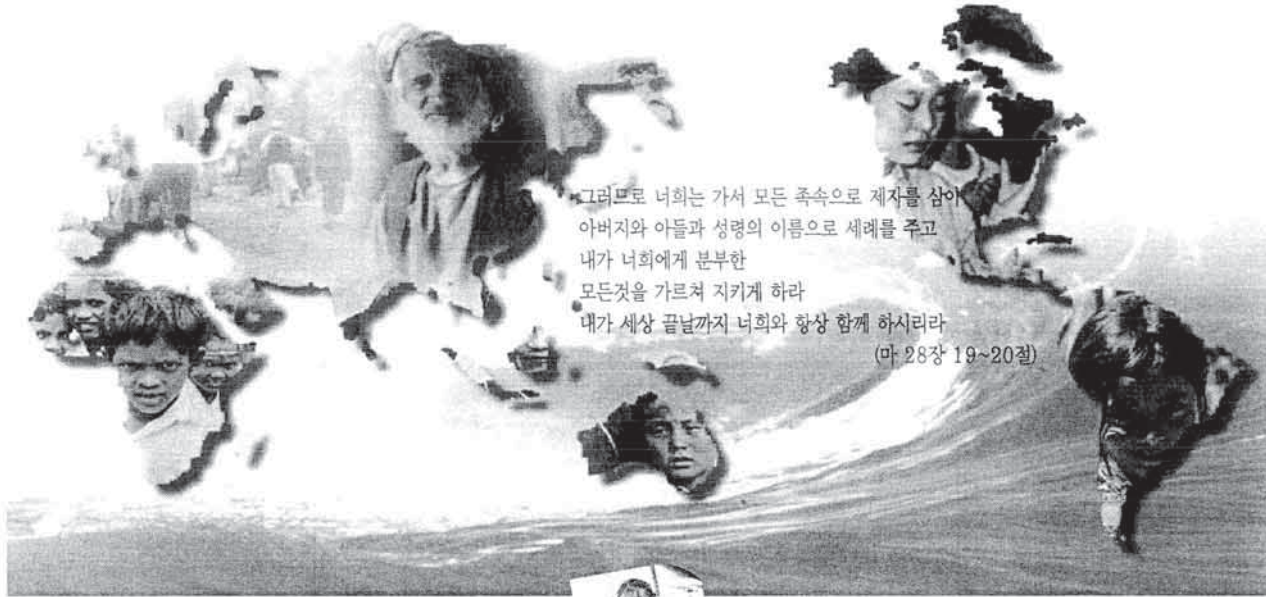
선교사에게 묻는다 (8~9p)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성도는 짧은 기간동안 큰 은혜를 받는데, 현지의 선교사와 현지성도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알아본다.



아웃리치 결산 좌담회 (10~12p)

각 팀을 대표하는 8인이 모여 2002년 온누리 아웃리치의 결실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조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 28장 19~20절)

스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장 8절)



여름 아웃리치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칠십 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종 각처로 돌씩 앞서 보내 시면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군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 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눅10:2~3)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따라 올 여름에도 추수에 참석한 온누리 일군은 공동체를 포함 청년부, 대학부, JDS, 꿈방 등 100개 팀 1,584명이나 되었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27개국 48개 지역으로 흩어졌다. 한 낮의 온도가 47도가 넘는 폭염의 땅,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을 느꼈던 매마른 사막 지역, 또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도 갔다.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아낌 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값은 우리 향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으로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려

온 각자 인생의 방향을 뒤돌아보는 축복된 시간들이었다. 또한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삶과 선교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과 선교라는 관점에서 존재가치를 재 조명하게 된 값진 시간이었다. 특별히 금년부터 아웃리치 방향을 하나님께서 온누리에 허락하신 2천/1만 비전에 맞도록 새롭게 정립하였다. 지금까지는 부서별 팀 중심으로 선교 현장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부분 복음을 외치는 사역 곧, 전도를 현장에서 체험해보는 정도의 아웃리치로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사역의 연속성도 결여되어 현지 선교사의 사역에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아웃리치 방향을 온누리 2천/1만 비전의 기본 방향과 하나님을 원칙으로 부서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

하게 되었다. 아웃리치 대상은 온누리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과 입양한 종족으로 제한했다. 출발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같은 지역 팀끼리 모여 먼저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고, 대상지역과 종족에 대해 연구, 정탐,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현지 선교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 온누리의 비전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 가고, 온누리 파송 선교사와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현지 선교사에게 위로와 격려로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온누리 선교사가 없는 지역은 2천 선교팀과 협력하여 사역지를 결정하는 교회 중심의 선교를 추진한다는 아웃리치 기본 개념을 조정하였다. 처음으로 적용한 정책이라 다소 불명함과 팀간의 의사 소통 제한은 있었으나 2010년까지 2천명의 선교사를 파

송하는 비전 성취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성경66권을 마무리하시면서 결론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22:20)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전까지는 기다리신다.(마24:14) 온누리 성도들이 아웃리치가 막 끝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2003년 아웃리치를 준비하도록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기를 축원한다.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김창욱 전도사(2천선교)

추수할 곡식이 '일꾼'을 기다린다

2002년 여름에도 변함없이 온누리 행진이 계속되었다. 27개국 48지역에서 1백개 팀 1천6백여 명이 복음을 전했다. 온누리신문은 2천선교팀이 수집한 해외 아웃리치팀 보고서를 토대로 2002년 여름 해외 아웃리치를 돌아보고 2003년 아웃리치를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2002 아웃리치 특징!

올해 해외 아웃리치의 특징은 사전에 2천선교팀이 아웃리치 매뉴얼을 제작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 매뉴얼에는 △아웃리치 기본 방향, △선교여행 점검표, △팀 구성, △예산편성, △집 꾸리기, △아웃리치 주의사항, △보안지역에서 아웃리치, △아웃리치를 끝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아웃리치 1백개 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이 아웃리치 매뉴얼을 따라 1백개 팀이 27개국 48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이번 아웃리치의 주요 대상국은 C국으로, 32개팀 3백28명이 복음을 증거했다.

이러 일본(14개팀), 몽골(6개팀), 터키(5개팀), 러시아와 스리랑카(4개팀)가 그 뒤를 따랐다. 공동체는 주로 입양한 미전도 종족과 섬김선교지로 떠났다.

올해도 역시 청년대학부가 가장 많은 팀을 파송했다. 청년대학부는 이번 아웃리치에 참여한 1천5백84명 중 8백61명을 보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어 JDS(1백91명, 12%), 공동체(1백31명, 8%), 영어일어예배(1백5명,

7%)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서인 '꿈이 자라는 땅' 과 중고등학생 부서인 '파워웨이브'도 81명이나 아웃리치를 떠났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교인이아웃리치를 떠난 셈이다.

중복 분류해보니 57개팀이 되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올해 아웃리치팀의 사역내용을 살펴 보았다.

(1) 땅밭기(정탐), 중보기도 사역

땅밭기(정탐, 중보기도) 사역은 거의 모든 팀이 했다고 봐야 하지만, 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구분했다. 이 사역에 속한 팀은 57개팀중 42%인 24개팀에 해당했다. 땅밭기는 선교 현지를 보며 비전을 키우는 '비전트립' 과 선교보안지역, 미전도종족 등 현지 상황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탐'으

에서 현지 교회 아이들과 함께 숙박을 하며 선교지를 체험하기도 했다. 화요중보기도팀은 7월 8일 판문점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한 후 C국으로 건너가 북한을 위한 기도를 이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역을 준비한 팀은 단순히 땅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영리, 성경책 등을 준비해 간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학교 자매 7명으로 구성된 청년여호수아 중보기도팀은 성경구절이 기록된 2천여 장의 책갈피를 손수 만들어 일본에 전했다.

(2) 전도 사역

중점적으로 전도사역을 한 팀은 23%인 13개다. 전도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언어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드라마와 위십은 청년대학, JDS, 꿈이 자라는 땅 등 거의 모든 팀이 준비해 선교 현장에서 공연했다. 현지어로 된 사영리, 성경책은 현지인들에게 정확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였다.

JDS 임마누엘팀은 몽골에서 축조전도로 28명을 영접시켰으며, 마하나팀팀은 우즈베크에서 5명, 에스더팀은 필리핀에서 노방전도를 통해 14명을 영접시켰다. 강서김포공동체가 방문한 몽골에서는 현지인 16명이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 과천수원안양안산공동체팀은 방글라데시 롬나파크(ROMNA PARK)에서 사영리연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3) 선교사 지원

선교사를 지원한 팀은 조사 대상 57개 팀 중 35%인 20개팀으로 나타났다. 선교사 지원사역은 부서의 특성을 살린 팀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의료선교팀은 사이판과 스리랑카 아웃리치에서 1천 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가장사역본부팀은 미국 시애틀에서 '행복한 부부학교'를 열었다. 23가정이 '형제교회' (권준 목사 담임) 50여 커플을 섬겨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청년대학부는 여성성경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던지, 교회건축 등을 도왔다. 서빙고 청년부는 몽골 교회 건축을 도왔고, 양재대학부는 역시 몽골에서 한인교회 여성성경학교를 열어주었다. JDS 십자가 군병팀은 T국에서 장애우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이러한 사역은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위상을 높여주고, 현지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있다.

2002 해외 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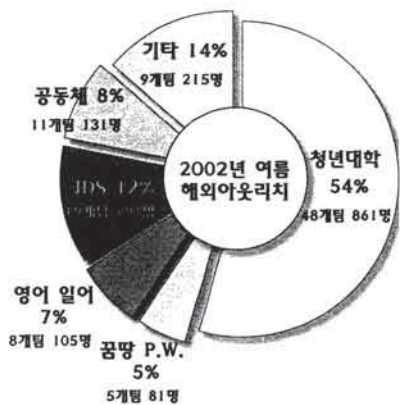
- ◎... 효율적 아웃리치 위한 아웃리치 매뉴얼 제작
- ◎... 27개국 48개 지역에서 1천6백여명 복음 증거
- ◎... 주요 사역 - 땅밭기, 중보기도, 전도, 선교사 지원

아웃리치팀 사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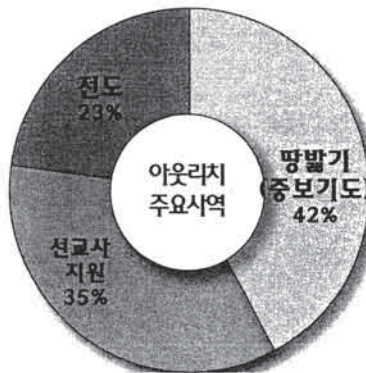
사역 내용은 크게 땅밭기(정탐)과 중보기도, 전도, 선교사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 팀이 한 가지 사역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년대학, JDS, 공동체, 꿈땅 등 이번 아웃리치팀의 보고서 30개를 주된 사역별로

로 구분할 수 있었다. 24개팀 중 90% 이상이 비전트립에 속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긴 땅밭기를 한 팀은 온누리교회 간사팀으로, 이 팀은 실크로드(중국 장안부터 카쉬카르)를 따라 10,280여 km를 행군했다. 안수집사스물은 아테네에서 이스탄불까지 1,370여 km를 행군했다. 요섭학교 학생 20명은 인도네시아 순다 지역



[그림 1] 2002 여름 해외 아웃리치 분포



[그림 2] 해외 아웃리치 팀 사역내용



2003 아웃리치, 이렇게 하자

아웃리치는 단기선교다. 짧은 기간에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2003년, 아웃리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선교에 대한 마음이다. 올해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한 1천6백여 명 가운데 성인 공동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8%에 지나지 않는다. 청년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아웃리치가 성인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로서, 온누리 전 성도가 아웃리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하고 동참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일본어예배 우에다 파프스 팀은 "공동체 안에서 선교에 대한 의식의 일치를 갖는 일, 즉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이 기도회, 회의 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아웃리치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둘째, 최소 2~3달 전에 아웃리치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번 아웃리치팀들이 호소하

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말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쉬웠다'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웃리치팀은 아웃

며, 비자 발급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현지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면 선교사와 선교 현지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아웃리치 팀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부서에 속해 구성하는 것이 좋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비전이 동일한 팀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2천선교팀에서 주관하는 기도회나 현재 자신이 속한 부서에서 주최하는 기도회에 참석하고, 온누리신문에 게재되는 선교사들의 소식을 눈여겨 보는 것도 지금부터 아웃리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다녀온 JDS 사본팀은 6명이 아웃리치를 갔는데 한 팀이 제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8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권면도 했다.

넷째, 아웃리치에 대한 목적과 기능을 좀

다섯째, 일정을 넉넉하게 짜야 한다. 스리랑카를 다녀온 JDS 이태림은 "단기 선교의 특성이 짧은 기간 동안 한 민족에 대하여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 많은 사역지를 방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동을 약간 줄이고 사역지 특성을 고려하여 한 곳에 머무르면서(이틀정도) 사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사역 이외의 기도회, 평가, 교제의 시간들을 여유있게 가져 팀의 화합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지인의 집에 1박 2일 정도 머물수 있다면 선교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것을 함께 나누고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많은 팀들이 선교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의료선교 스리랑카팀 "현지에 필요한 약품과 어린이를 위한 분유를 많이 가지고 가지 못해 아쉬웠다"고 했고, 노원의 정부 공동체 인도네시아팀도 "처음 방문이라 방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호소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팀별 자료를 공유하게 되면 아웃리치 준비에 더욱 효과적이지만, 사실상 선교보안지역에 많아 공식적으로는 하기 어렵다. 2천선교팀은 이를 위해 올해 아웃리치팀의 보고서를 수집해 '선교 백서' 발간을 기획하고 있으며, 청년부와 대학부도 자체적으로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일곱째, 지속적으로 선교지를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라. 아웃리치를 다녀온 선교지와 선교사의 기도 제목을 받아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라. 해마다 성탄절이되면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을 위해 선물을 마련해 보내주는 것도 선교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



서철 chol@onnuri.or.kr

2003 해외 아웃리치

- ◎... 성인공동체 아웃리치 참여율 높여야
- ◎... 2~3달 전 팀 구성, 선교사역 실질적 도움 되도록 준비
- ◎... 지속적인 사역 위해 자료 수집·공유 해야

리치를 한달 남짓 남겨두고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리다 보니 무리하게 사역을 준비하고, 팀워크가 온전하지 못했다.

양재 청년 영성선교부 김상종 팀장은 "아웃리치 준비기간이 1달 정도로 너무 짧았는데, 최소한 2달전에는 팀장과 부팀장이 세워져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며 "좀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1월부터 지역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3달 전부터 준비하면 팀원들의 팀워크를 훈련할 시간이 충분해지고, 출국에 따르는 여권과 비행기 좌석확보에도 유리하

더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세미나와 학교를 개설해야 한다. JDS 몽골 임마누엘팀은 "현지언어를 좀더 준비해 갔으면 현지인과 교제하는데 도움이 되었겠다"며 현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청년대학부는 아웃리치를 위한 앞두고 수련회, 기도회, 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부서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2천선교팀은 이를 위해 1년에 4회 선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평소 각종 사역팀에서 운영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의 이웃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음 질문은 이차원 선교사가 진행하는 '오나 선교학교'에서 사용하는 질문이다. 하나님 사랑하신이 세상을 우리는 얼마나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1. 5대양과 6대주 (7대주?)
2. 이 땅에 몇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까?
3. 몇 개의 종족이 존재합니까?
4. 몇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까?
5. 알고 있는 나라의 이름을 기록해 보십시오.
 - *아프리카(Africa)
 - *남미(South America)
 - *아시아(Asia)
 - *중동(Middle East)
 - *유라시아(Eurasia)
6. 얼마만큼의 미전도종족이 남아있을까요?
7.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8. 어느 나라가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일까요?
9. 10/40 Window 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10. 10/40 Window 에 있는 4개의 종교를 적어 보십시오.
11. 10/40 Window 안에 있는 나라들을 기록하십시오.
12. 이슬람 국가들은?
13. 힌두교 국가들은?
14. 불교 국가들은?
15. 정령 숭배하는 나라들은?
16. 미전도종족을 입양한다는 뜻은?

아웃리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10계명

- ① 최소 2~3달 전에 팀을 조직하라.
- ② 정확한 현지 사정을 파악하라. 평소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하는 현지 소식에 귀를 기울이라.
- ③ 선교사와의 협력 하여 사역을 준비하라.
- ④ 최소 팀원은 8명 정도가 좋다.
- ⑤ 한 지역에 최소 2박3일은 머물면서 현지인들과의 교제 시간을 늘려라.
- ⑥ 아웃리치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라. 평범기, 정탐, 사역 중 어느 것이 필요한(더 효율적인) 지역인가?
- ⑦ 간단한 인사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를 익혀라.
- ⑧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보고서를 만들라. 이것은 다음 팀에 귀중한 자료가 되며 또 하나의 사도행전이 된다.
- ⑨ 지속적인 후원(기도, 물질)을 하라.
- ⑩ 자신의 은사를 따라, 혹은 관심있는 것중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이상 만들라.

- 온누리신문 제공 -

“아웃리치, 선교사에겐 충전지입

2002년 여름에도 1천 584명 온누리 성도가 1백개의 팀을 이루어 해외 선교지를 방문했다. 해마다 떠나는 아웃리치에서 대부분의 성도는 선교지의 현장을 보면서 선교의 필요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선교에 헌신하는 성도도 있고 간접적으로라도 선교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 삶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렇듯 아웃리치참석자들은 짧은 기간동안에 큰 은혜를 받는데 현지의 선교사와 현지성도에게는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 올해 아웃리치를 떠난 1백여 팀을 맞이한 선교사는 모두 98명이었으며 이들은 아웃리치팀을 맡게는 6팀, 적게는 1팀 정도를 섬겼다. 아웃리치 팀을 맡아 섬겼던 선교사에게 이번 여름 아웃리치에서 유익했던 점은 어떤 것이며 다음해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 유의할 점과 필요한 것에 대해 물었다.

“여름 아웃리치 팀이 선교사나 선교지에 어떤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영적인 부분(43%), 선교적 부분(28.5%), 정서적부분(28.5%)을 꼽았다. 영적인 부분 못지 않게 선교적인 부분이나 정서적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선교사들이 분석한 여름 아웃리치이다.(그림 1)

선교에 새 장을 열어줍니다.

이번 아웃리치가 신앙적으로는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 를 묻는 질문에는 아웃리치 팀으로 인해 현지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43%), 전도에 열정을 갖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이 생겼다(43%)라고 대답했다. 이 결과는 아웃리치가 단기사역이지만 현지의 성도에게 영적인 도전과 유익함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찬양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거나 신앙적 열심이 많아졌다고 대답도 있었다.(그림 2)

특히 방글라데시 박영환 선교사는 “새벽기도가 부흥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박선교사가 올해 현지인 사역자와 함께 새벽기도모임을 시작했으나 모이는 사람이 없어 힘겹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 아웃리치팀이 다녀간후 새벽기도모임에 오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금은 5-6명이 새벽기도모임에 나오지만 내년에는 3백명의 성도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

도와 전도할 수 있기를, 더불어 모슬렘을 향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내전이 있었던 스리랑카에서도 의료선교사역

“
선교사에게는 위로와 소망,
현지인에게 복음전한 여름 아웃리치,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어
전문적 사역을 해줄 것 부탁
”

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박영환 선교사는 내전을 겪으면서 마음과 생활이 모두 파헤쳐진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여름 아웃리치팀이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을 주민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어린이를 포함 2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외에 유익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아웃리치

사역을 통해 현지인의 마음이 열렸다 는 대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43%). 그리고 ‘선교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28.5%)와 ‘필요한 물품이 조달되었다 (28.5%)’순으로 대답했다.(그림 3)

특히 우즈베크와 같이 생필품이 부족한 나라에는 아웃리치 팀이 가지고간 물품이나 선물들이 선교사의 전도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 불편한 지루, 옷 한가지가 현지인을 만날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지인과 좋은 교류를 갖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대답해 선교현장에 작아보이지만 큰 힘을 실어주는 아웃리치 있음을 알수 있다.

아보면서 현지인 동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전도해야 할 지역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웃리치 팀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 현지인들이나 사역자들이 힘을 얻기도 했다. 일본 우에다로 간 청년 아웃리치 팀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에다 온누리그리스도교회의 청년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

선교사 개인에게 미친 유익을 묻는 질문에는 영적·물질적 후원자가 생겼다(43%)와 현지인과 관계가 좋아졌거나 위상이 높아졌다(43%)고 대답했다.(그림 4)

여름 아웃리치는 선교사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사 자신이 섬



선교사 정체성 회복과 신앙의 도전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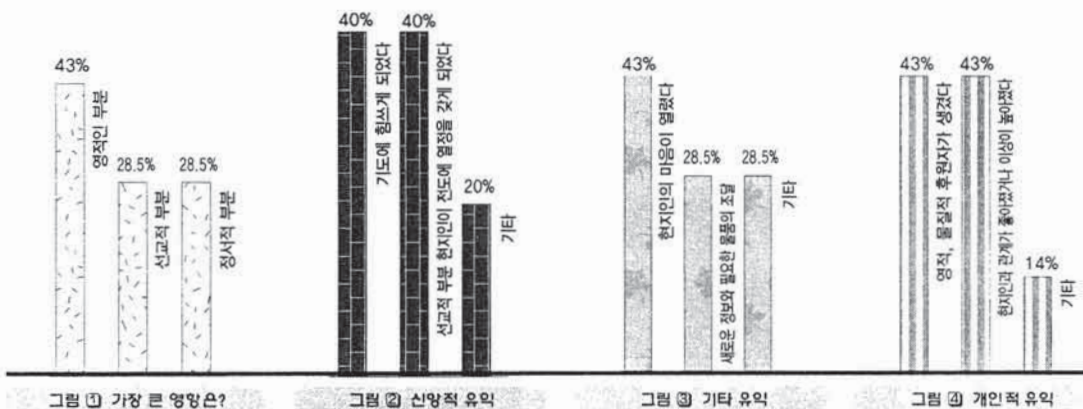
평소에는 바빠서 새로운 지역에 가보기가 어려운 선교사들에게는 아웃리치팀과 함께 주변 지역을 정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선교사역의 확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을 구석구석 찾

기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섬길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사역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환상을 갖게 했다. 아웃리치 팀이 가진 열정덕분에 선교사들은 도전을 받았고 무엇보다 모국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나 모국어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았다. 방글라데시 박선교사는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현지인 리더십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아웃리치 팀이 다녀간 후 선교사들은 현지인 사이에서 위상이 높아져서 선교하기 좋아졌다고 한다. 현지인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협력하게 되었다거나 아웃리치를 통해 영적·물질적인 후원자를 얻게 된 것도 선교사에게 큰 유익이다.

전문지식, 현지상황에 맞는 연계 프로그램 필요

“이번 아웃리치팀이 예년에 비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헌신·봉사의 자세’,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열성과 적극성’, ‘기



<2002 아웃리치에 대해 선교사에게 묻는다>

니다”

도와 찬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현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팀원이 있다' 순으로 대답했다.

2003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열성과 사랑, 헌신은 없어서는 안될 주요 항목이다. 다음 아웃리치에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에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열성과 적극성',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사역준비', '앞팀과의 연계 및 지속 프로그램' 순으로 대답했다.(표 1)

이 외에도 '현지상황에 맞게 준비해줄 것', '현지사역자와 상의해줄 것',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와 줄 것' 등을 부탁했다.

T국의 심하일 선교사는 "여러 아웃리치를 일회로 끝내지 말고 올해 갔던 곳에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가서 그곳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역하는 것이 좋다"며 "매년 새로운 팀이

- 2003년 아웃리치에 바란다**
- 1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 2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 3위 무엇이든 하겠다는 열성과 적극성
 - 4위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사역준비
 - 5위 앞 팀과의 연계 및 지속 프로그램
 - 6위 현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팀원

가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의 할 것은 현지에 가기 이전에 아웃리치 갈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그곳에 맞는 사역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자와 사전에 상의 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도 현지 실정에 맞는 것을 준비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강좌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선교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아웃리치 팀원간의 관계갈등이다. 팀원간에 의견이 일치 되지 않으면 사역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기 전에 관계형성을 충분히 하고 가야 한다. 한편, 한 선교사가 5명 정도를 섬기다 보면 거의 두달 가량은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한 채 아웃리치 팀만 섬기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2003년 아웃리치를 계획할 때 선교사의 행편을 잘 살피고 조율하며 양보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마남 minam@onnuri.or.kr

선교사의 아웃리치 제안

러시아 조필순 선교사

최선을 다한 아웃리치 팀 모두 아름답습니다



올해 러시아에는 아웃리치 팀 4팀이 다녀갔습니다. 그중에는 청년부, 교사들, 그리고 JDS훈련생들이 있었는데 각기 연령이나 사역방법만큼 다양한 위로와 회복을 저희 두 선교사에게 주고 갔습니다. 어떤 팀은 내적 치유, 어떤 팀은 용기를, 어떤 팀은 즐거움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같은 비전을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팀은 예수제자학교팀입니다.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왔는지 팀장에게 100%순종하는 모습과 부채춤을 최선을 다해 모셔주 준비하는 모습이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부채춤을 선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루종일 만난 사람 10여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밤에는 모여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국하는 그들을 보며 성실해 할 우리에게 장미꽃과 케익으로 저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가득 담은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워스테이션 팀도 능력있는 찬양집회를 열었는데 말도 잘 안듣고 말 씀꾸러미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었

다'며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준비해서 왔으면 하는 것과 특정 나라나 지역을 정해놓고 꾸준히 섬길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방전도가 불가능한 러시아 특성을 감안하여 사이닝글로리라면지, 영어 캠프, 찬양사역, 영아부 캠프등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크 최현우 선교사

우즈베크의 여름은 한국인이 점령합니다

아웃리치팀이 다녀간 후에 온누리교회 성도가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을뿐더러 파송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했습니다. 또 선교사역에 필요한 물품도 조달되었습니다. 이곳은 생필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 한 자루, 옷 한가지도 현지인을 만날 구실을 마련해 줍니다.

이번 해에는 예수제자학교팀에 많이 방문했는데 땅밭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지인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중보기도할 제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주 유익합니다. 더구나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아웃리치 팀들은 오히려 잘

하는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개척지를 그들이 발견해 내기도 합니다. 청년부에서는 팀들은 고아원에서 약 3일간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유발시키고 사역자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웃리치 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더 팀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휴양지가 아니라 생각을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서로를 배려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사단은 이 틈새를 공략합니다. 더구나 우즈베크는 이슬람세력이 많고 공개적인

전도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영적전쟁은 더욱 심각합니다.

요즘 우즈베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즈베크의 여름은 한국인이 점령한다' 한국인이 단기선교여행을 많이 와서 생긴 말입니다.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단기선교를 나가는 것도 온누리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앞을 내다보고 진취적으로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 부흥의 가장 큰 이유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웃리치 팀이 가는 열방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일본 조슬의 선교사

일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떠나는 여름 아웃리치는 현지 선교사와 현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선교사에게는 힘을 불어넣고 현지인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줍니다. 이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역형태도 좀더 잘 좀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일본선교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아웃리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사람들은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또한 상대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조심스럽고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하

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오고자 하는 팀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교회는 주로 1년 계획을 1,2월경에 수립하고 3월에 성도에게 발표합니다. 그러므로 그 계획은 그다지 변경없이 1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계획이 끼어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현지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리고 할 수 있으면 사전에 현지답사와 만남을 가지고 서로 지속적

인 교제와 기도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땅밭기 중보기도나 노방전도입니다. 물론 그런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알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신자들로 생각합니다. 노방전도도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아웃리치를 지속적인 연계를 맺어 매년 찾아오는 아웃리치나 한가지 사역을 꾸준히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002 아웃리치를 마무리하며 ...



2천비전으로 가는 교두보, '아웃리치'

장선철 많은 성도들이 아웃리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금년 여름에도 예년처럼 3천여 성도가 국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2002 온누리 아웃리치'의 결실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조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웃리치의 의미, 영적유익, 성경적 배경은 무엇인지요?

서동욱 대학생들이 해외로 아웃리치를 나가는 것에 대해 주위 성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저희 스스로도 짧은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가는 아웃리치가 선교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심을 발견하면서 큰 은혜를 맞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하나님께는 세계 각 지역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도전됩니다. 비록 준비를 많이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결실이 어렵다는 일본에서도 눈물 흘리며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을 만납니다. 몸끝에서는 교회에 행패를 부리던 아이가 선교학교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제한되고 미미한 대학생들의 사역이지만 저희를 통해 변화되는 영혼과 선교지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웃리치를 인간적 관점에서 평가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땅끝선교'란 자상명령을 삶으로 체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는 점

이 아웃리치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욱 아마 '미복음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선교 차원에서 아웃리치를 생각한다면 최초로 아웃리치팀을 파송한 곳은 안디옥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웃리치' 하면 여름을 떠올리는 것은 학생들이나 직장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아웃리치는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타민족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아웃리치의 사전적 의미는



이제는 장기성을 가지고 아웃리치에 임해야 합니다. 사역중심, 선교지 중심, 연속적인 사역은 선교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활동'입니다. 미국의 경우 여름휴가에 멕시코 등지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여러가지 포괄적인 활동을 아웃리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봉사뿐만 아니라 미전도 종족 정탐, 선교사 위로해주기 등 아웃리치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태영 '아웃리치'라는 말은 1946년 시작된 미국 엘버나(Urbana) 선교대회와

80년대 유럽에서 일어난 '러빙유랍'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젊은이들이 선교에 도전을 받고 각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그 개념과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에 있는 국제 단체들이 80년 대부터 '선교 한국'이라는 주제로 알바나대회 같은 선교대회를 열어 선교 동원사역이라는 개념으로 아웃리치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요나를 불러 보낸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의 환경을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투쟁하는 곳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와, 선교지 현장의 분위기와 감동을 내 삶에 연계하는 것이 단기 아웃리치에서 평신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선철 이번 2002년 아웃리치를 어떻게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박태영 작년에 저희는 해외 150명, 국내 150명, 약 3백 명이 첫 번째 아웃리치를 나갔습니다. 해외는 땅 밟기 수준이었고 국내는 해비타트를 위주로 참가했습니다. 서빙고 청년부는 현재 예배 공동체 인원이 8백 명 정도 되는데 올해는 17개 지역으로 670명 정도가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요셉 청년부는 지난해에 이어 주제를 '나의 도시를 건축하라 나의 백성을 자유케하라'로 정했습니다. 단지 나가는데 만족하고 외치는 데 급급한 아웃리치가 선교지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것을 보며 저희는 이번엔 아웃리치의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현장 만족 중심적인 서비스입니다. 단기사역은 문자 그대로 단기에 끝납니다. 하지만 그 아웃리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지에 있는 장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청년부는 일상적인 사역이나 복음전도보다 그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접근을 통해 저희가 문을 열어 장기 사역자들이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효과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개인중심의 흥분과 감동만이 아니라 영적, 사역적 상호효과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가 선교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준다든지, 교회나 지역 사회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선교지

에 나갔습니다. 올해는 국내나 국외 모두 한 지역에 최소 2개에서 4개 팀을 지속적으로 보냄으로 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선교지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지속력 있는 사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이런 세 가지 구상을 가지고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계획했습니다.

이승배 저희 공동체의 입양 종족이 터키 쿠르드족이라 작년에는 쿠르드족 정탐을 했습니다. 올해도 연속적으로 쿠르드족 정탐을 하려고 했으나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철수하고, 저희 공동체가 단독으로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식구들이 선교에 대해 더 알아가고 관심이 많아지도록 하려면 가까운 곳이라도 아웃리치를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담당 교역자와 결정하고 저희 광명인천 공동체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15명이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공동체가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어려운 점은 대부분 공동체 가족들이 다녀온 사람들의 행사 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교회에 2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아웃리치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장선철 기획에서 실행단계 다녀온 후 피드백 하는 단계까지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참여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었던군요. 이촌 공동체는 어떠셨습니까?

김창욱 저희는 공동체 전체가 아웃리치는 개념을 공유하기 위해 종강예배 때 아웃리치 파송예배를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했는데, 이것은 안수하는 교회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파송한 팀을 공동체가 책임지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파송식은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 직접 가지 못할 뿐 나도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게 해 줍니다.

여기도 정탐을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한 것 같이, 아웃리치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함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함께 갔다왔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또한 순장 중 아웃리치를 가지 못한 분에게는 그 지역 특산물이나 종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선물로 주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박명숙 저희 JDS는 매년 3월초부터 7월 초까지 강의와 시나리오를 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합니다. 5월 초에 아웃리치 팀을 조직하고, 수업 외에 20회 정도 모여 예배 드리고 홍보하며 현장에 도움이 될 사역을 준비합니다.

JDS의 경우에는 떠나기 전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두고 며칠씩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도 부담되고 주부가 1백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나가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는 아웃리치 개념으로 나가지만 집에서는 단순한 여행으로 여기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사 남편이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을 하실 것이라 믿고 중보하며 나갑니다.

서동욱 저희 대학부는 원래 한 지역에 2백~3백 명씩 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천 선교위원회와 하용주 목사님이 방향을 잡아주셔서 선교지, 선교사, 성경 중심으로 아웃리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아웃리치를 진행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획일화 된 방법으로 선교지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장선철 2002 아웃리치 는 2천1만 비전에 맞춰 새롭게 정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2002년 아웃리치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욱 올해 아웃리치는 비전 2천에 초점을 맞춰 꿈이 자라는 땅부터 성인 공동체까지 교회 부서가 한 목표, 한 방향으로

수리해 선교사가 사역하고 아웃리치 팀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꾸밀 생각입니다.



선교지, 선교사님과 잘연계해 현지 사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면 아웃리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명숙 우즈베키스탄으로 아웃리치 팀을 간 팀은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프간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팀들이 우즈베크에 들어와 저희 JDS 두 팀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이 받아주셔서 따로 따로 가려던 두 팀 22명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가서보니 기온은 섭씨 45도, 속소는 이리저리 옮겨야 했고 현장 상황을 생각한 것보다 열악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을 동안 하나님께서 각 지역마다 준비해 두신 영혼이 있었습니다. 모슬렘이 생행하는 지역이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동네 사람이 모여오면 학생들은 하나님을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무당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몇 번 교회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서로 중보하던 중 무당이었던 사람이 봉황 열 마리가 떠나가는 환상을 보았다는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동욱 저희는 처음에 아웃리치 인원을 최소 단위로 쪼개서라도 모든 선교지에 아웃리치팀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것이 그 시기와 형편에 따라 달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팀의 규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태국에서 6, 7개 캠퍼스를 다니며 태국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이들이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적으로는 복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결국 불교가정, 불교 사회 속에 다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갔을 때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끝선교'란 지상명령을 삶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 아웃리치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았습니다. 캄보디아 이영룡 선교사님은 여름 두달, 석달 내내 계속 단기 선교팀을 받아 5개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저희는 1주일 동안 그 마을 사람을 만나고 왔지만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세달을 계속적으로 단기선교 팀을 만나게 되

는 것입니다. 수십 명씩 매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선교사님을 돕는 사역과 함께 때로는 단기선교팀이 전체적으로 한 마을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부딪치는 일이 함께 일어날 때 선교의 상승효과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택영 금년 산בל로 마을 전체가 쑥 대밭이 된 예산 지역은 무속신앙이 강하고 무속신앙을 통해 농사를 짓고 양돈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무당이 곳을 하다 불이나 마을이 불에 타고, 수천 마리의 양돈 그곳에 개착한지 7년된 교회가 단 하나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인분을 붓고, 교회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갔습니다. 50명 쯤 구성된 세 팀을 1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계속 보았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부서지고 불탄 집, 쓰러진 양계장과 돼지우리를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탄 농작물을 거두고 뿌리까지 다 타 5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과수원을 뒤집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예산 지역 사람들이 '교회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곳'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담임목사님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쓰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도와 줄 것이 없느냐고 묻기도 하고,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무너진 지역사회가 교회 중심이 되어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장선철 금년 아웃리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아웃리치가 어떻

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김창욱 전도사님부터 돌아가며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욱 부서는 다르지만 전 교인이 함께 동참해서 한 방향으로 나간 것이 금년 아웃리치의 특징입니다. 특정민단의 선교가



선교 훈련을 받은 청년부와 대학부, JDS 분들이 공동체에 많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닌 전 성도의 힘을 함께 모으는 것이 아웃리치라는 선교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아웃리치를 진행하며 아쉬운 점들도 많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비전 2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가는 선교사가 처해있는 선교현장을 보고 옴으로 다시 무릎을 꿇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3만 성도 전체가 참여해 비전 2천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박명숙 작년까지 JDS가 선교지를 선별해 아웃리치를 나가고 2천선교팀에 보고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2천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선교사님과 2천선교팀과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교지에 저희 팀과 청년부, 대학부 등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선교지 현장에 동시에 몰리니까 무척 힘들었습니다. 몽골 초이발산에 계신 선교사님 말씀이 이번엔 받은 아웃리치 팀은 3월부터 선교사님과 얘기가 되어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좀 더 빨리 아웃리치를 나갈 지역을 선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동욱 대학부는 선교에 대해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인도차이나 반도 불교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계속적으로 접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는 선교사님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선교 접근이 필요합니다. 곧 임박한 통일에 대비해 젊은 세대가 통일을 준비하고 복음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하류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아웃리치에서 좀 더 많은 것

을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이나 유럽지역으로 학생들이 가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도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섬기는 것, 통일을 준비하는 것, 비전을 키우는 것 이 세 가지가 계속 맞물려 함께 가야 합니다.

박태영 저희 공동체는 현장 중심 사역뿐만 아니라 '비전 리서치'라고 각 세계에 있는 우수한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단체나 회사를 방문해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한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독교 차원에서 어떻게 세계화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NGO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브래드 컨퍼런스라는 회사의 경영철학을 배웠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사회를 향해 어떻게 이윤을 분배하고 재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승배 공동체에서 아웃리치를 나갈 때 제일 장애가 되는 요인은 휴가 때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가 기간을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선교지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JDS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매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DS 자매님들이 선교지에서 다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아웃리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공동체가 아웃리치를 가면 장기사역자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는 사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자비망으로 선교지에 왕래하며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물질로 돕는 것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아웃리치의 사

역이라 생각합니다.

장선철 내년 아웃리치를 위해 더 제안하실 것은 없는지요?

이승배 공동체 입장에서는 청년부나 대학부, JDS처럼 훈련 받은 분들이 공동체에 많이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체가 아웃리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선교지에서 사 용해야 할 용어는 단기간의 훈련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장로님, 디락부장님, 손장님들이 아웃리치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2천선교에서 여는 학교나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박명숙 일차적으로 2천선교에서 선교지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는 구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지 선교사님과 각 교회 부서간에 아웃리치 목표나 방향에 더 원활한 의견 및 정보 교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2천 팀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지 사역에 필요한 기능 사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과 잘 연계되어 정보가 교환되면 아웃리치를 준비

모임에 들어가 내가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자리가 옮겨질 때 그것이 선교가 되고 교회 주인, 선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웃리치가 단기성이 아닌 장기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중심이 아닌 사역중심, 선교지 중심으로 내년에는 올해를 바탕으로 해 연속적인 사역을 하면 선교지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동욱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마련해 누구든지 들어와 아웃리치 준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공동체, 청년부, 대학부, JDS팀이 다 함께 참여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일정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욱 그것이 기본 방향이지만 저희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선교지 중 보안을 요구되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이나 전문가는 늘 보안을 유의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은 흥분되어 기다리지

현장 중심 사역뿐만 아니라 기독교세계관을 연구하는 세계 우수한 단체나 회사를 방문해 현실적 대안을 찾는 '비전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 동원사역, 홍보, 세미나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창욱 2천선교에서는 1년에 4회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계속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교 현장 보고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인 화요 기도모임이 매주 있고 종족별, 지역별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온누리신문에 기도모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도

못합니다. 10년 노련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래지향적인 선교를 위해 보안의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천본부에서는 이번 2002년 아웃리치에서 사역한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묶어 탐방로 나눠주려 합니다. 어떤 부서는 어떻게 사역 했는지 보면서 도전을 받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선철 오랜 시간 이야기 나누며 제가 느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2천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2천 비전을 향해 아웃리치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1회성으로 끝났던 아웃리치가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심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

2000 선교

제 2회 은누리선교세미나 / 입양 종족 세미나

10월 1일~10월 22일(4주간) 매주 화 오후 7:00~9:30 /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은누리 공동체, 선교사역자, 선교관심자, 아웃리치 참가자,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자, 청년대학생 등 대상

강의 내용
- 하나님의 관심, 꿈(최바울 선교사)
- 미전도 종족 선교의 이해(한정국 선교사)
- 입양종족 선교전략(조용백 선교사)
- 중보기도전략(주누가 선교사)
공동체 사례발표 [동작 A(하나족), 김윤식집사]

아프간 사역자 모집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등
문의: 신원석 간사(교216)

기도모임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9월 16일(월) 오후 7:00 / 선교관 301호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소아시아 기도모임

9월 16일(월) 오후 7:00 / 선교관 403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 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간사 모집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 · 애정 · 경험이 있는 분
문의: 양승순 전도사(016-756-7458)
김창도 간사(011-271-4558)

은누리미션 추석 성령집회

물품: 과일, 고기, 재정후원 등
자원봉사: 주방, 안내, 프로그램, 예배도우미
문의: 원영기 간사(016-352-3794)
*서울은행 33901-9522448

중국어예배 추석 성령집회 물품

문의: 정낙현 총무 (011-723-0630)
*서울은행 33901-0474782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노트북

햇블트리니티에 유학한 외국인 신학생이 쓸 노트북을 구합니다. (워드만 되도록 좋습니다.)
문의: 원영기, 박종진 간사(교 731, 732)

은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방장고(대형 방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선교지 물품 요청

168pin DIMM RAM 32MB 이상 여러 개, 한국 문화 관련 소품과 그림들, 화보, 관광여행 관련 도서를, 회사 사보, 회사 안내 자료들
문의: 이하나 간사(571-9635, timint@hotmail.com)

인터넷 / 798-6001

갈렙네트워크
9월 26일~12월 10일 매주 화 오후 7:00~10:00 / 토 오후 4:00~9:00 / 28일(부부는 50만원)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 헌신자와 관심 있는 분으로 중장년층, 은퇴자, 중보기도 헌신자, 선교사 부모, 선교 교육 받기를 원하는 분.

인터넷 제7기 여성선교중보학교

9월 30일~12월 16일 매주 월 오전 10:00~오후 2:30 / 선교관(서빙고) 403호 / 16만원
미전도종족과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중보로 동참하기 원하는 20대 이상 그리스도인 여성
문의: 김정숙 간사(019-386-9635, 796-3541 교2)

에펠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진행합니다.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사랑과 중보의 끈을 이어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직장인 · 청년 기도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펠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자원봉사자

 은누리미션 추석집회 차량운전 봉사자
교회-행사장 왕복 차량운전 / 9월 20일(금)~21일(토) (1박2일) / 용인 에버랜드 유스호스텔(몽골어예배) / 1중보통(봉고)15인승 운전 경력자 2명
문의: 박종진 간사(790-6052, 017-226-9207)

*

01

우리교회 초청, 은퇴 선교사 방한

한국, 필리핀 등 25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20명 대상



2000년에 이어 올해도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든(은퇴선교사 안식처) 소속 선교사 20명이 우리 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에 우리나라를 찾는 선교사들은 한국전쟁 당시 대구 계명대

등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윌리엄 그럽(William A. Grubb) 선교사를 비롯 시리아, 필리핀, 인도, 중국 등지에서 평균 25년 이상 선교사역을 감당하다 은퇴한 80세 이상 선교사들이다.

특히 존스코트(John Scott)와 가일 스코트(Gail Scott)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부모가 복음의 불모지에 뿌린 아름다운 열매를 이번 방문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은퇴선교사들은 10월 5일(토) 입국, 우리교회 창립기념행사에 참가한 후 한국 성지 및 기독교 학교, 선교사 설립기관, 판문점, 민속촌, 비원 등을 방문한 뒤 13일(주일) 출국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온누리 미션 추석 잔치

“늘 한가위만 같아라”



지난 추석명절, 온누리미션에 속한 7개 언어별 예배팀은 각기 다양한 추석행사를 열었다.

러시아어 예배는 내적치유집회(크리스해리슨강사)를, 몽골어 예배는 체육대회 및 에버랜드를 다녀왔다. 이란어

예배팀은 고향음식을 함께 만들어 만찬을, 파키스탄어 예배는 서울투어를, 미얀마어예배팀은 강화도를, 네팔어 예배팀은 제주도를 다녀왔다. 터키어 예배팀은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국땅에서 수고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추석명절에 고향 형제들과 함께 식사와 웃음을 나누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번 추석행사로 인해 새힘을 얻었다”며 “명절인데도 집에 가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참 고마웠다”고 고백했다.

관련기사12면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스라엘을 가리는 수전이 벗겨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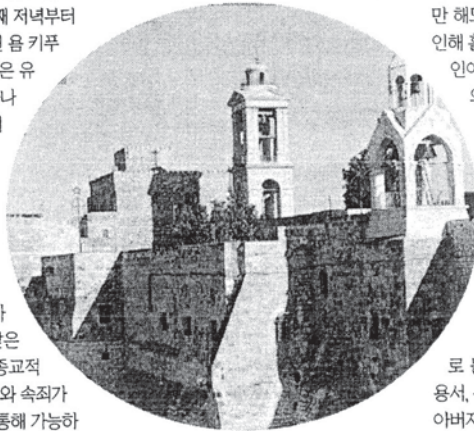
살롬 알레헴!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며칠전 유대력으로 이스라엘의 신년이 밝았습니다. 유대인의 신년은 유대달력으로 일곱째 달인 '티쉬리' 월의 첫째, 둘째 날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말 또는 10월초에 해당합니다. 신년의 아홉번째 저녁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 욘 키푸르,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24시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로 지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도 금식에 동참했더니 이곳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제가 금식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들과 진지한 종교적인 대화를 했는데 진정한 회개와 속죄가 메시아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미가서, 다니엘서 등의 이야기에는 이들이 대꾸없이 잠잠히 듣더군요.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반감과 오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때로 과연 이것을 옳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언젠가 이땅에 성령의 역사로 이들을 가리고 있는 수전이 벗겨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 온가족은 오늘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초막절 전야제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 최고의 명절로 불리는 초막절



이 되면 전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중보자들, 이방인 크리스천이 이곳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14장 6절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해마다 초막절을 축하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묵상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환상과 비전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로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세계를 뒤흔들던 반유대주의로 인해 홀코코스트와 같은 박해를 받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 회개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한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들을 이 땅, 시온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 이땅을 축복하며 이땅을 중보하며 이땅의 영적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제목

1. 말세의 때에 전세계에서 시온으로 물러드는 이방인 크리스천의 회개와 용서, 축복의 역사를 통해 탕자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2. 개인레슨으로 한의학을 가르치며 교제하는 유대인 한의사 엘리를 위해, 초막절 후 요셉술람 목사님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3. 찬영(8세), 현지(4세)의 초등학교, 유치원 생활의 적응을 위해
4. 10월 중순, 새학기에 지난해의 4배분 량에 해당하는 학점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류모세, 감사라 올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이지현/김정희(파송-스리랑카-TIM-서초A) - 어머니 뇌졸중으로 3차 수술을 마쳤음.
- 김순중/송신애(파송-동북아시아-TIM-성동광진) - 송 선교사 허리디스크
- 김서로/윤위로(파송-동북아시아-TIM-용산) - 윤선교사 안면근육 마비
- 박성근/김인옥(파송-멕시코-TIM-성남분당) - 스트레스성 파로, 오른쪽 상반신 통증
- 정진숙(파송-싱가폴-YWAM-동작A) - 망막 수술 후 회복 중. 망막이 붙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 심하일/정진주(파송-소아시아-YWAM-동대문남양주) - 저희의 성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 취업 비자와 거주 허가증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11월 3일 조기 총선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채사라(파송-소아시아-인터콥-광명인천) -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진 파티교회가 믿을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 타국의 모범교회가 될 수 있도록
- 타기와 파티교회, 그리고 이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 능력 있는 중보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욱 기쁨 부어 주시도록
- 이명순(파송-스웨덴-YWAM-열린) -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 스칸디나 반도 땅의 부흥을 위해
- 안미선(파송-중앙아시아-인터콥-과천수원) - 수가성의 자매를 통해 수가성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왔듯이, 안 선교사를 통해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미전도종족'과 '섬김선교지'라는 말은 더 이상 은누리공동체에 낯선 말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5일, 은누리 공동체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섬김서약식'을 통해

15개 미전도종족과 14개 섬김선교지를 입양했다. 하지만 미전도종족을 처음 입양한 것은 지난 96년,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며 투르크족, 위그루족, 하니족, 베다족, 우즈벱족, 아제리족, 브라이트족, 이반족 등 8개 종족을 한양대 체육관에서 입양했다. 이어 미전도종족은 7개가 늘어 15개가 되었고, 섬김선교지도 14개로 늘어났다. 하나님께서 은누리에 주신 은혜였다.

처음 입양한 뒤로 6년이 지났다. 기도,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데 2천선교팀은 은누리가 입양한 미전도종족과 섬김선교지를 공동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모형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마련했다. 섬김에 대한 성경적,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장기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이 세미나는 최바울, 한정국, 주수가, 조용백 선교사 등 4명의 강사가 미전도종족과 선교지를 섬길 수 있는 방안, 세계 선교

의 흐름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10월 8일에는 중국 하니족을 섬기고 있는 동작A 공동체의 사례가 소개된다. 동작A 공동체는 하니족을 꾸준히 방문, 현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문화축제를 열어 마을 단위로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섬김의 장을 넓히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은누리 전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2천선교팀은 공동체 선교담당자는 꼭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누리 공동체를 위한 선교 세미나

미전도 종족 · 선교지, '어떻게 섬길까?'



제2기 은누리 선교세미나

- 일시: 10월 1일~22일
-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소회의실
- 강의 일정
- 10월 1일 하나님의 비전
- 10월 8일 미전도종족 선교이해
- 10월 15일 중보기도전략
- 10월 22일 입양종족 선교 전략
- 문의: 김동렬 간사(02-239)

'보름달' 처럼 꽉찬 '하나님 사랑'

러시아어 예배

내적치유 집회로 치유하시는 주님 만나

러시아어 예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석 기간(20~21)동안 한동홀에서 집회를 가졌다. '크리스 해리스' 목사를 강사로 하여 예배 구성원들의 내적 치유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다.

이번 내적치유집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러시아어예배를 담당한 이준 전도사가 집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던 중 크리스 해리스 목사가 이준 전도사에게 바이러스 메일을 받고 항의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준 전도사는 오해를 풀어주면서 집회에 강사로 초청하게 된 것이다.

이번 내적 치유 집회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한국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예배의 감격을 누렸다.



이란어 예배

말씀과 기도, 찬양의 은혜 넘쳐

지난 9월 20, 21일 양일에 걸쳐 행사가 있었다. 2천만광장에서 이란사람들이 좋아하는 양고기 바베큐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넌'이라는 전통 음식을 형제들이 직접 요리해 나누어 먹었다. 대부분 음식은 자원봉사자들이 섬겼다.

행사를 도왔던 대학부 형제, 자매들 대부분은 올해 이란에 아웃리치를 다녀온 터라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었다. 이번 행사에는 약25명이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싶은 형제들이 모였다. 이란영화 '천국의 아이들'도 보았고, 특히 이란에서 오신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다른나라 예배처럼 다양한 행사는 없었지만 말씀과 기도, 찬양에 은혜가 넘쳤다.



몽골어 예배

전통음식 먹으며 풍성한 교제·사귄 나뉘

은누리교회 몽골어 예배에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0, 21일 양일간 예배랜드 캐빈 홀 브리지(통나무집)에서 추석 수련회를 가졌다. 몽골인 30명, 한국인 자원 봉사자 8명 등 총 38명이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다.

대부분 한국에 근로자 신분으로 온 이들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수련회에는 은누리교회 처음 나오는 몽골인들도 약 20명 가량 되었다. 첫째날은 두 번의 집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둘째날은 한 번의 집회와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모든 진행 과정이 몽골인 리더십에 의해 이루어졌고 매 식사가 몽골 전통 음식인 양고기를 비롯해 몽골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의미가 있다. 몽골어 예배팀은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몽골인들이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다.

파키스탄어 예배

평소 볼 수 없던 서울 명소 찾아

파키스탄어 예배에 나오는 파키스탄인들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은누리교회 선교관에 모여 집회를 열고 낮에는 서울 시내를 여행했다. 한국에 와서 매일 장시간 노동하는 이들은 서울을 둘러볼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추석행사로 서울의 명소를 둘러보았다.



또한 저녁 집회를 통해 말씀과 중보기도로 무장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 시내 관광 중 양화진 순교자 묘지를 방문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배경이 순교자들이 흘린 땀과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열매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이슬람국가에서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그 땅과 백성을 변화시켜야 할 주체여야 한다는 소명을 상기했다.

네팔어 예배

'제주도 여행' 통해 복음 전해

네팔어 예배팀은 복음을 듣지 못한 형제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섬김을 통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다.

함께 가겠다는 신청이 쇄도했고 한번도 보지 못했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결국 33명이 제주도에 가게되었고 그 중에 20여명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면이 있는 친구들이 짝을 이루었고 저녁 시간에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렸다. 처음에는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낯설어하던 형제들이 나중에는 격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 다들 제주도 방언을 흉내내며 멋진 장면들을 연출했고, 얼굴에는 모처럼 환한 기운이 가득했다. 이를 이라는 시간이 숨들릴틈없이 지나가고 안전하게 하나로 돌아와서 함께 가지 못했던 친구들과 밤이 늦도록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이번 여행을 통해 1명의 형제가 세례를 받았다고 했고, 함께했던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계기를 만들었다. 원도교가 생활과 역사와 모든 사고를 지배하는 네팔사람들에게 이곳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소수의 증인을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했다.

미얀마어 예배

강화도 가을 들녘에서 하나님을 찬양

추석 연휴 기간 미얀마 형제들은 강화도를 여행하고 하나로, 학교 운동장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눴다. 여러해 동안 한국에 체류했지만 여행다운 여행 한번 못했던 이들은 강화도에서 무르익는 가을 들녘과 시원한 바다를 보며 동심에 잠기며 고향산천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

마음에 담고싶은 풍경, 친구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아 하나로 돌아왔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고, 밤이 깊도록 간중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며 모두가 '아멘'을 연발했다. 장기간에는 땅이 날 정도로 웃음 바다를 이루었다. 몇몇 형제들은 코미디언이 아니었나할 정도였다. 날이 새는 줄 모르게 유쾌한 시간을 보낸 후 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해 축구를 했다. 이국땅에서 고향 형제들과 함께 식사와 웃음을 나누고, 마음껏 뛰어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다.



터키어 예배

축구와 송편빚기로 기쁜 추석 보내



터키어 예배는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8월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5-6명이 함께 모여 축구 등 체육대회를 했다.

이들은 광장교회 청년부와 영락교회 대학부와 축구와 족구를 하며 송편도 함께 빚었다. 저녁 헌신예배에는 간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다. 9월 22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된 이 행사로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9월 30일(월) 오후 7:00 서빙고 온누리 302호
 말씀: 박종길 목사
 문의: 김화수 팀장 (011-448-4262)

제 2회 온누리선교 세미나/ 입양 종족 세미나
 10월 1일~22일 (4주간) 매주 화 오후 7:00~9:3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온누리 공동체, 선교사역자, 선교관심자, 이웃리치 참가자,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자, 청년대학생 등 대상
 강의 내용
 - 하나님의 관심, 꿈(최바울 선교사)
 - 미전도 종족 선교의 이해(한정국 선교사)
 - 입양종족 선교전략(조용백 선교사)
 - 중보기도전략(주누가 선교사)
 공동체 사례발표 [동자 A.(하나족)]

아프간 사역자 모집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등
 문의: 신원석 간사(교216)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안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스텝 모집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 · 애정 · 경험이 있는 분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김창도 간사(011-271-4558)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노트북
 햇볼트리니티에 유학한 외국인 신학생이 쓸 노트북을 구합니다. (워드만 되도 좋습니다.)
 문의: 원영기, 박종진 간사(교 731, 73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인터콥 / 798-6001
인터콥 제7기 여성선교중보학교
 9월 30일~12월 16일 매주 월 오전 10:00~오후 2:30 / 선교관(서빙고) 403호 / 16만원
 미전도종족과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중보로 동참하기 원하는 20대 이상 그리스도인 여성
 문의: 김정숙 간사(019-386-9635, 796-3541 교 2)

에젬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젬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해외선교 헌금 입력 아르바이트
 컴퓨터 사용 가능자, 성실 · 정직 겸비한 온누리 등록교인, 타이핑속도 빠른 분/ 주 2일 근무
 문의: 김효람 간사(교 230)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

01

만남 / 불어권 모임 준비중인 최옥 형제

불어권은 '선교사각지대'

첫 모임 10월 10일 7시30분 자비성전

'불어권 선교'를 위해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불어권 중보기도 모임'이 2002년 10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양재 햇빛회관 자비성전에서 열린다. 불어권 중보기도모임은 2001년 늦가을 김치수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불어성경공부'가 그 모태이다.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최옥 형제에게 '불어권 중보기도 모임'에 대해 들어본다.

◎.. 불어권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 프랑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견할 수 있다. 중세 기독교 국가의 모델이었지만 현재 영적 빈곤에 처한

프랑스와 이슬람세력이 강하게 퍼져있는 불어권 지역인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한다. 이들은 언어적 지리적으로 영어권보다 멀게 느껴지는 '선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구체적인 모임계획은?

첫 한 달 정도 불어권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를 운영하며 참석자들에게 불어권을 소개하며 함께 중보기도 할 것이다.

◎..모임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불어권 선교헌신자들과 관심자들을 연결하고 기도로 섬기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한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

전성희 shee@onnuri.or.kr

불어권 세미나 일정

날 짜	모임 주제	강사/발제자
10월10일	여는 모임 불어권 지역의 이해	최 옥
10월17일	미정	문형선
10월24일	불어권 아프리카 소개	외부강사
10월31일	북아프리카 소개	허경은 집사
11월7일	프랑스 문화와 신앙	백인호 집사
11월14일	백인호 교수와 함께	김치수 목사

·문의 : 최 옥 (청년/대학부) 011-9783-3417
허경은 집사 (성인공동체) 018-263-1841

02

입양종족 섬김 방법 세미나 시작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섬길 방안을 모색해보는 선교세미나 '선교, 어떻게 해야하나'가 지난 1일(화) 첫 강의의 문을 열었다. 이날 최바울 선교사(인터뷰)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곧 미전도 종족

입양을 말하는 것이며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며 "교회의 지상과제인 선교는 좀더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교세미나는 앞으로 3주간 △미전도종족선교를 통한 교회의 이해(한정국 선교사), △미전도 종족선교와 중보기도전략(주누가 선교사), △종족입양 이후의 성공적인 선교전략(조용백 선교사)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추워지는 몽골에 후원의 따스함 가득

살림!

사랑하는 동역자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몽골에 온지 도 벌써 1년이 넘어 가는군요. 이곳은 제법 추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때 추워서 히타를 꺼내고 떨던 생각이 납니다. 이달 15일부터는 보일러가 들어오는데 아직 까지 그렇게 추운걸 모르고 지내는 것을 보니 이제 몽골 날씨에 많이 적응되어 가나 봅니다.

한국은 수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온 국민이 동참하여 복구작업과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 돕는 모습이 우리 민족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8명이 은누리교회 후원으로 대학진학

바쁘던 여름사역도 다 끝나고, 지금은 사역의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몽골에 온지 1년만에 아직 언어도 서투르고, 경험도 없는데 주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적게는 3일 보통은 일주일씩 함께 했던 4팀들, 고등학교에서 70세 권사님까지 섬기며 조금이라도 더 몽골을 알리고, 몽골과 사역들을 품고 돌아가서 중보자로, 후원자로,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며 섬겼던 시간들... 주

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밝은 미래 학교에 금년 졸업생 10명중 8명이 대학교에 입학했고 한 명이 기술 학교를 갔습니다. 국립대학에 3명 그리고 우수 사립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고아이고 경제력이 없는 편모가정의 아이



들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경제적으로 도저히 대학 진학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학교를 방문했던 사랑의 손길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입학금을 전원이 후원 받았습니. 특히 은누리 김포 강서 공동체팀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대학 4년의 학비와 생활비 보조와, 기도의 후원자로 각각 연결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입학한 대학교에 등록금

을 내리 다니며 '이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당당하게 다니겠다' 생각하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밝은미래 학교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제 밝은 미래 학생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면 당한 아이들이 아니라 비전이 있고 꿈을 키워나가며 이 나라에 크리 스천 지도자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도 무사히 지나도록

저는 이번 2학기에도 계속 한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운영을 맞아 우수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우수한 인재들을 계속 공부 할 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후원자들을 세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 안에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이 있고 제대로 시설을 갖춘 학교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집도 이사할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동역자님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몽골에서 한샘물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옥연/김정숙(파송-도미니카-TIM-여의도)
- 주일학교 예배를 도울 수 있는 분반 선생을 주시도록
- 현지 언어에 숙달하도록
- 장기안목을 가진 후임 사역자가 오도록

김선경(파송-멕시코-TIM-영동포구로)
- 마티아스, 게베아, 셀스동네(아우틀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 치아파스와 할리스크(이번에 추방된 동네)의 박해가 속히 그치도록,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 저의 건강과 강일영 선교사 가족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선교에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조중환/임미경(파송-파푸아뉴기니-GBT-강남A)
- 현지인 번역사역자들의 훈련과 SII 지역센터의 기능을 하게 될 사이드로 다중언어 번역팀의 훈련 센터 건축에 필요한 것들이 적절히 공급되도록
- 가정이 다중언어 번역팀과의 효과적인 팀워크를 형성하고, 과학적이 언어 습득에 진보가있도록

허남석(후원-미국-경천)
- 현지 형제/자매들과의 기도모임, 3개월간의 공동체 훈련준비 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도록
- 목회 정규모임에 필요한 새로운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 경배와찬양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고, 이 시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영적 부흥이 오레곤에 있도록

제 1기 은누리세계선교사훈련학교(OWMTS)

“예수님 닮은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지에서 하루는 시작되었다. 아침 5시 30분에 찬물에 세수를 한 뒤 5시 50분쯤 옷을 갈아입고 아침 경건회가 있는 강의실로 간다. 벌써 양지의 날씨는 춥다. 여름이 지난지도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아직도 양지 훈련원 주변에 반나무에서 떨어진 밤송이들이 보인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새로운 성인학습법 적용

아침 6시부터 조별로 모여 Q/T를 한다. 처음에는 졸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속내를 내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Q/T가 재미있어졌다. 하루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원장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다. 7시 30분까지 개인기도시간과 Q/T나눔을 마치고 8시부터 우리는 아침식사를 한다. 아침은 늘 우리의 대모이신 흥권사님

의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어쩔 때는 과일도 때론 호박죽이나 전복죽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아침시간이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타문화권의 교회개척'이라는 주제로 일본에서 18년간 교회개척 사역을 하신 미국 C&MA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훈련원에서의 강의는 늘 그렇지만 감사 한 사람의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 대부분 토론과 세미나 형식으로 시간들이 진지하게 진행된다. "새로운 성인학습법의 적용"이라고 훈련 시작부터 목사님들과 간사님들이 의견을 묻고 참여하게 하

는 시간들이 때론 부끄럽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전 자연스럽게 공명한 점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다.

동료 훈련생들은 오늘도 매우 실제적인 질문들로 선교사님을 괴롭혔다. 선교비를 어떻게 쓰는지, 언어는 현장에서 어떻게 습득했는지, 선교 현장에서의 자녀들의 현지어 습득이라든지, 교회개척시의 지도자 훈련에 어떤 교재가 좋은지 등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선교사님은 정말 겸손하고 성실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주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교 현장에 가더라도 늘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자신도 선교지에서 이미 18년간 사역을 했지만 늘 안식년마다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고 한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과 배움

오후에는 대부분 훈련원 주변을 청소하

든지 요점처럼 밤이 많이 떨어질때는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낸다. 훈련원 주변의 많은 정원들과 앞길에 아젠 정이 들었다. 내가 살고 닦고 한 길들이 때문이다.

이제 조금있으면 여길 떠나 각자 선교지로 나아가야 겠지만 말이다. 선교란 아마 이런 길들을 닦고 청소하는 것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의 시간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모든 센터의 가족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같이 공동체적인 시간을 갖는다.

오늘은 협력에 대한 주제로 게임을 했다. 게임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팀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의견을 나누고 같이 함께하는 것이 각각의 경쟁보다는 훨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강의해주신 강사님과의 아쉬운 이별을 했다.

훈련센터에서의 하루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시간들이다. 아젠 사역지로 나갈 준비가 시작된다. 앞으로 있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길 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 했다.

교회안에 있는 지구촌선교지 「온누리 미션」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사역 역시 더 좋은 환경과 섬김으로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온누리미션 사역이 그것이다. 온누리미션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종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쉼터 운영을 통해 침식제공, 일자리 소개, 의료수단 제공, 임금체불해결, 법적 문제해결 등 금융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처음 온누리미션을 시작하게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는 군포, 군포 미얀마인타, 의정부 등 세곳으로 늘어났다.

97년 3월에 개원한 군포쉼터에는 네팔, 몽골, 이란, 파키스탄, 조선족 등 주중 평균 10여명 주말에는 25~35명 가량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곳 군포쉼터에서는 실직자 구제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해주고, 의료지원, 상담 등 외국인의 어려운 사정을 돕고 있다. 또한 그룹으로 성경공부나 토요예배를 드려 복음을 전하고 있다.

98년 대림동에서 군포로 지역을 옮긴 미얀마인을 위한 군포 미얀마 쉼터에는 평일에 4~5명 가량이, 주말에는 20여명이 찾아와

언어별 예배 인원 현황

국가	인원
미얀마	45명
우르드어	20명
네팔어	30명
몽골어	20명
러시아	40명
이란	20명
계	175명

삼과 이국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가 개원(의정부시 의정부 2동 571-9번지 소망빌라 C동 302호 소재)하여 올해 러시아인의 예배가 생겨나는 등 점점 사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 쉼터는 포천, 송우, 가산, 동두천, 덕정리, 은현면, 백석등의 지역에 있는 성유, 가구, 도금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보금자리이다. 2000년 한 선교단체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의정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약 2~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에는 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필리핀, 네팔 심지어 이집트인까지 일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4명

이 사고 보상중이나 실직한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팔을 다쳐 이곳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러시아인 알리형제는 매일 쉼터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 가서도 쉼터에서처럼 가정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온누리미션은 처음 금융사역으로 시작하였으나 6개의 언어별 예배공동체가 형성되어 온누리미션을 거쳐간 현지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전도와 양육, 선교하는 그룹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총 57명이 거듭났다.(그림 3) 또한 99년에는 온누리미션에서 훈련받은 4명의 귀국하는 현지인을 선교사로 허임, 현재 파키스탄 및 네팔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쉼터는 교회와 세상의 교량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 근로자 대부분은 복음을 듣지 못한 무슬림국가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 간접선교의 역할을 한다. 쉼터에 오는 사람중에는 크

리스천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찾아온다. 쉼터는 그들의 파란치가 되어주고 섬겨주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있다.

온누리라파

말일국했거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데, 이들 대부분 3D업종에서 일하고 있어서 사고의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이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알게 된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사역을 시작했다. 지난해 9층 복지재단 내부에 작은 의료실을 마련하여 매주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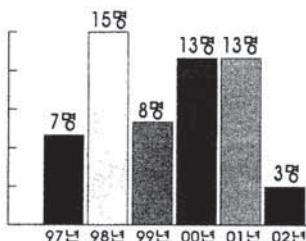
‘온누리 라파’ 사역이라고 이름한 이 사역에 수혜자는 평균 매주 10명 안팎이다. 주로 이곳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질환중 내과진료가 가장 많다. 위장이나 소화기등에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생긴 질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상선이나 치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관절염이나 근육통등의 질환치료를 위한 정형외과나 산부인과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의사들이 그들을 돕고 있다. ‘온누리 라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병을 치료하며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하고 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온누리미션은 99년 한국에 있는 동인 온누리미션에서 봉사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4명을 온누리교회선교사로 파송했다. 좌로부터 아방목사(미얀마), 길목사(파키스탄), 매복형제(파키스탄), 개비라이 목사(네팔)



[그림 3] 온누리미션 외국인 연도별 세례자 수

회교권 선교 교두보 될 아프간·파키스탄 사역



9·11 테러로 주목을 받은 나라. 슬한 침략을 아프간인들의 처절한 보복 정신으로 막아낸 '침략군들의 무덤', 1천명당 1백65명의 유아사망률, 평균수명 46세, 1인당 국민소득 8백불, 인구 68%가 문맹인 나라. 23년 넘게 총성이 그치지 않은 나라. 이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다.

우리교회가 처음 아프간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11월 어느 한 집사의 헌금이 헌지에 전달되면서부터다. 파키스탄의 윤지훈 대사를 통해 유엔난민 고등판무관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2천만원(미화 15,500\$)가 전달되었다. 이 때부터 우리교회는 전쟁이 휩쓸고 간 아프간을 도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정탐팀을 구성,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협력자들을 찾아보았다.

세 차례 정탐으로 아프간 도움 구체적 방법 모색

1차 정탐은 5월 7일~18일에 있었다. 김창욱 전도사(2천선교)와 장선철 편집장(은누리신문)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통해 아프간 카불과 마자르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 정탐팀은 우즈베크 병원, 마자르 지역 초등학교, 난민촌, 카불 대학, 유니세프 지원학교 등을 방문했다. 정탐이 끝난 뒤 은누리신문 특집호와 사진전을 통해 아프간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2차 정탐은 5월 20일~29일에 있었다. 하용조 목사, 박종렬 목사, 이재훈 목사 등 5명이 중국에서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에서 다시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로 향했다. 특히 2차 정

- 아프간 지원 주요 일정**
- * 2001년 11월 7일 이○○ 집사 2천만원 헌금
 - * 2002년 5월 7일~18일 아프간 1차 정탐
 - * 2002년 5월 31일~6월 13일 아프간 사진전
 - * 2002년 5월 20일~29일 아프간 2차 정탐
 - * 2002년 6월 4일 현지 카불 타임즈 동서문화개발교류회(BCC) 소개
 - * 2002년 7월 12일~22일 아프간 3차 정탐
 - * 2002년 7월 30일 동서문화개발교류회(BCC)가 NGO로 등록
 - * 2002년 8월 11일 비전헌금
 - * 2002년 9월 28일 아프간 위한 Love 콘서트

탐팀은 파키스탄 방문시 알라에다 자살테러로 인해 5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당한 PIOC(Presbyterian International Church)를 방문, 두 사람을 심방했다. 닥터 크리스티는 한국으로 초청해 치료를 받게 해주고, 폭탄으로 인해 팔은 족사하고, 아들과 자신은 다리를 잃은 에드워드의 수술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교회 복구를 위해 2만1천불과 의자, 피아노, 강대상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 정탐에서 아프간 정부 각료 5명을 만났는데, 이는 아프간 각료들을 6월 경 한국으로 초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3차 정탐은 7월 12일~22일 김중원 목사, 박용룡 장로, 김광선 장로, 손기철 집사 등 4명이 파키스탄과 아프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두 차례 정탐에서 얻어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아프간 헌신자를 발굴함과 동시에 현지인 동역자를 찾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프간 위한 헌신자 필요

아프간을 돕기 위해 은누리 성도들은 헌금으로 동참했다. 올해 8월 11일 비전헌금으로 7천여 만원이, 9월 28일 열린 아프간을 위한 LOVE 콘서트로 1천여 만원의 헌금이 모였다. 하용조 목사는 'LOVE 콘서트'에서 아프간 현지인 청년을 한동대학교에서 공부시키는 방안을 이야기 했다. 즉, 아프간 정부에서 추천하는 청년 30여명을 한동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1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야 합니다. 어떤 도움도 다 필요한 곳이 아프간입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병원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은누리 성도 여러분,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헌신된 은누리 사람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서철 choi@annuri.or.kr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 성격을 띠었다.

세 차례 정탐 후 교회측은 아프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전략을 수립중이다. 아프간 정부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우리교회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한 '모텔 마을'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카불 반경 1~2시간 거리 내의 한 마을을 지정해 학교를 세우고, 보건소를 건립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등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새마을 운동'을 재현한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NGO가 필요한데, 교회는 동서문화개발교류회(BCC)를 설립 지난 7월 30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NGO 등록 신청을 마쳤다.

또한 아프간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전산화를 지원하고, 카불 대학 정보센터와 전문 서적을 지원한다는 단기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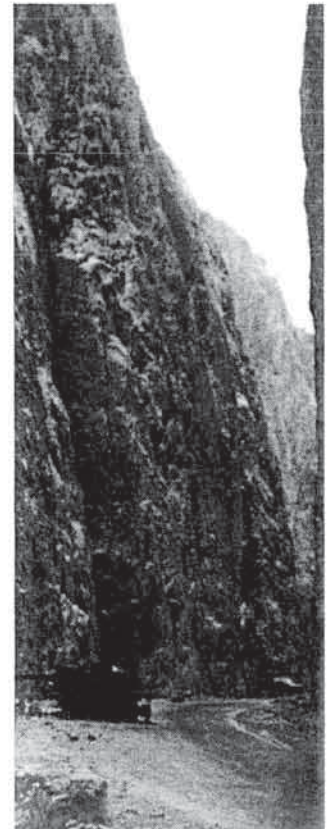
명을 공부시키는데 1년에 약 9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말한 하용조 목사는 "우리가 이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들은 우리가 예수를 말하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은누리 성도들이 이들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도움을 구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은누리는 아프간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이제는 헌신자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더욱 많은 은누리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아프간 정탐 후 하용조 목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호소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파키스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 지난 6월, 2차 정탐의 열매로 아프간 각료들과 한국에서 만났다. 아프간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9월 2일 카불 시내에 한국대사관이 업무를 시작했다. '유한 듀엣'의 'LOVE 콘서트'에서 하용조 목사는 아프간 청년을 한동대에서 공부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전도종족 · 섬김선교지에 새 비전 제시

온누리교회는 지난 96년, 한양대 체육관에서 열린 창립 11주년 기념 선교대회에서 터키 투르크족, 중국 위구르족, 중국 하니족, 스리랑카 베다족,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족,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몽골 브리야트족, 말레이시아 이반족 등 8개 미전도종족을 처음 입양했다. 다음해인 1997년 창립 기념주일에는 인도네시아 람공족, 케냐 스와힐리족, 미얀마 인타족, 멕시코의 타라후마라족과 미해족, 등 6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했고, 1999년 10월에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족을 포함 총 15개 미전도종족을 온누리공동체가 재 입양했다.

그리고 지난 해 10월, 일본 오사카, 우에다와 후쿠오카, 러시아 모스크바, C국 A~E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스라엘,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14개 섬김선교지를 공동체가 입양해, 총 29개 미전도종족과 선교지를 온누리공동체가 섬기게 됐다. 이것은 온누리공동체가 1994년 선포된 '2천1만 비전'의 주체로 등장한다는 신호탄이었다.

입양종족 섬기는 '온누리 공동체'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이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복음화될 수 없는 종족 집단이며,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종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종족을 입양한다(종족입양, Adopt-A-

People)는 것은 미전도종족을 달아서 그 종족 가운데 자립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미전도종족과 섬김선교지가 늘어나는 것은 온누리공동체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96년 17개였던 공동체(당시 명칭은 다락방)는 97년 14개, 99년 15개, 2001년 30개로 늘어났다. 공동체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섬겨야 할 미전도종족과 섬김선교지가 많아지고 있다. 즉, 온누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온누리 공동체는 이렇게 입양한 종족과 선교지를 꾸준히 방문하고 현지 선교사 또는 협력자를 통해 그 종족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촌공동체는 카라칼팍족을 위한 의류를 지원하고 현지 교회와 협력해 효과적인 복음 증거법을 찾고 있다. 미얀마 인타족을 섬기는 중중로 공동체는 올해 초 인타족을 방문, 인타족을 전도하고 인타족 어린이 10여명을 수도 양곤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돌아왔다. 중중로 공동체는 올해 말 다시 인타족을 방문할 예정이다.

성북공동체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순장에게 이메일로 전달



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찾은 선교사와 순식구들이 만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사마르칸트 교회에 건축 자금을 지원해왔는데 오는 10월 16일 헌당예배를 위해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동작A 공동체의 하니족 사랑은 특별하다. 동작A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로 하니족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는 하니족 마을에 들어가 민속 의상을 입고 잔치를 여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서막하고 배타적인 하니족의 마음의 벽을 많이 허물게 되어 최근에는 이웃마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올 여름에 청년부와 함께 네 번째 잔치를 열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니족 학생 70여명에게 장학금을 주어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동작A 공동체는 지난 여름 하니족을 방문해 학용품 나누어 주고 학생들과 교제했다. 이 장학금 마련을 위해 하니족이 재배한 차(茶)를 들여와 판매했는데, 각 순이 참여한 지난 해에는 160여만원, 올해는 150여만원을 현지에 전달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하니족을 위한 기도모임이 열리고 있어 하니족이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서김포 공동체는 지난 여름 몽골을 방문해 현지 선교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한글학교와 컴퓨터 강좌 등을 도왔다. 그리고 현지인 16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또한 앞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고양은평, 과천시원안산, 노원외정부 공동체도 지난 여름 선교지를 방문해 선교사와 현지인들을 위한 마음을 품고 돌아왔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때까지

미전도종족을 입양한지 6년째에 접어들면서 거의 모든 공동체가 현지를 방문, 현지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동역할 선교사와 현지 교회를 찾고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지 어린이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그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해 선교사를 위로하고 변화하는 현지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 미전도종족과 선교지를 입양한 온누리 공동체는 입양 후 꾸준히 현지를 방문,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고 있다.

애쓰고 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를 순예배로 초청해 선교에 대한 관심과 사명감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온누리 공동체는 선교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선교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다. 각 공동체는 선교담당자를 선정해 공동체 내 선교사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선교지원자의 활동 여부에 따라 공동체 내의 선교활동이 달라진다. 아직 선교담당자가 선정되지 않은 공동체도 있다.

문제는 사람이다. 임명된 선교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공동체는 선교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가 입양한 미전도종족과 섬김선교지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도와야 할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다행히 각 선교단체의 노력으로 많은 자원들이 나오고 있다.

요나 선교학교에서는 모든 성도는 '무릎선교사'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릎선교사란 한 가정(또는 개인)이 한 나라(또는 미전도종족, 선교사)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자신이 먼저 미전도종족과 선교자를 품고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서철 chol@onnuri.or.kr

미전도종족 현황 온누리신문 홈페이지
(www.onnuri.or.kr/news)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홈페이지
(www.aap.or.kr)

〈온누리 공동체 섬김 미전도종족 · 선교지〉

권역	공동체	교역자	해당 지역	
A권역	이촌	김창욱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	
	강촌	김동국	러시아 모스크바	
	중중로	민병호	미얀마 인타족	
	용산	송경부	중국 북경(C국 A시)	
	성동 광진	여성민	중국 단둥(C국 B시)	
	동대문 남양주 노원 외정부	신도배	터키 쿠르드족	
B권역	성북	김종민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족	
	강남A	김종원	말레이시아 이반족	
	강남B	박달희	중국 연길(C국 C시)	
	서초A	곽성환	스리랑카 베다	
	서초B	박인용	스리랑카	
	강동송파 성남분당 과천수원 안양안산	나봉균 김치수 신기섭 안광국	중국 대련 한인교회(C국 E시)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방글라데시	
C권역	서빙고	김성원	인도네시아 람공족	
	영등포구로	최원준	멕시코 미해족	
	여의도	전병택	미정	
	동작A	유선식	중국 하니족	
	동작B	박철용	중국 천진(C국 D시)	
	관악 금천 광명인천	이기원 한관홍	캄보디아 터키 쿠르드족	
D권역	일산	이상규	케냐 스와힐리족	
	고양은평 마포	공진수 이재훈	중국 대련 베이스(C국 E시) 중국 위구르족	
	서대문 양천	김영희 이상록	모잠비크 이스라엘	
	강서김포	한상원	몽골 브리야트족	
	지역 공동체	열린 리빙랜드	한홍 김동국	일본 동경 / 우에다 없음

01

해외 아웃리치

해외 아웃리치를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 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대부분 공동체나 선교팀은 의료사역이나 전도사역 같이 아웃리치 기간 봉사하고 온다. 금년도 아웃리치는 꿈팡부터 대학부, 청년부, JDS, 영어예배, 공동체 등 1백 개 팀 약 1584명이 27개국, 48개 지역으로 나갔다.

의료선교 아웃리치 팀

의료선교 A팀은 스리랑카와 우니아 지역으로 7월 27일부터 8월 4일(주일)까지, B팀은 7월 12(일)부터 언제까지 사이판 태평양 화인교회 조선족과 한족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사이판에서 4일 동안 약 1천명이 환자를 돌봤다. 낮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저녁 7시 진료를 시작해 새벽 1시까지 진료해야 했고 새벽 4시에 진료가 끝난 때도 있었다. 의료 C팀은 8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북 순창 임마누엘 교회로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영어예배 캄보디아 팀은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공동체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가 입양한 섬김선교지와 미전도 종족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다. 강남 A 공동체와 강남B 공동체는 섬김선교지인 A국 유치원 개원을 도왔다. 8월 개원식에는 강남 A, B공동체 식구 14명이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개원식에 참여했다. 무지개 유치원 설립을 위해 공동체 식구들이 동참해 현금을 했고 가난한 집 아이가 유치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몇몇을 후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성남분당 공동체는 섬김선교지인 방글라데시 다카 지역에 올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의료사역과 전도사역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요한 공동체는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몽골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중고등부 수련회', '어린이 성경학교', '한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열린예배로 섬겼다. 앞으로 해외 아웃리치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선교사 중심, 사역 중심으로 나가게 된다. 아웃리치를 가기 전 충분히 준비해 선교지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

제 2회 온누리선교 세미나/ 입양 종족 세미나
10월 1일~22일(4주간) 매주 화 오후 7:00~9:3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온누리 공동체, 선교사역자, 선교관심자, 아웃리치 참가자, 선교사를 위한 정보 기도자, 청년대학생 등 대상
강의 내용
- 하나님의 관심, 꿈(최바울 선교사)
- 미전도 종족 선교의 이해(한정국 선교사)
- 입양종족 선교전략(조용백 선교사)
- 정보기도전략(주누가 선교사)
공동체 사례발표(동작 A(하나족))

아프간 사역자 모임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등
문의: 신원석 간사(교216)

비전 2000 선교사 정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소회의실

☞ 소아시아 기도모임

10월 21일(월) 오후 7:00 / 서빙고 401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안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정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스텝 모집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애정·경험이 있는 분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김창도 간사 (011-271-4358)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노트북

헷볼트리나티에 유학온 외국인 신학생이 쓸 노트북을 구합니다. (워드만 되도록 좋습니다.)
문의: 원영기, 박종진 간사(교 731, 73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원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외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인터콥 / 798-6001

제1기 InterCP 남성비전 스쿨
10월19일~12월21일(총 10주)/ 마감 10월12일(토) / 미전도종족 선교관심자와 헌신자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길 원하는 직장남성(35~55세) 대상
접수: www.intercp.net
문의: 김경애 간사 796-3541(교 226번, 011-318-4087)

에zell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찬양정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정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불어권 중보기도모임

‘불어권을 품고 내딛은 첫발’

불어권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하는 ‘불어권 중보기도모임’이 10일(목) 오후 7시 30분 자비성전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보기도 후 간단한 자기소개와 비전을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눴다. 한국 불어권 선교회의 허태준 전도사는 “2년 후 아프리카로 떠나는데 이곳에서 기도하는 중 귀한

동역 이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어 선교권 기도모임은 불어권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불어권인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 있는 미전도종족을 섬기고 있는 무릎 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길 원하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시론

“선교사들을 기억하자”



박종길 목사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프츠다. 세상의 많은 만남과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보다 더 귀한 만남은 없다.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뜨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헌신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선교사다.

선교-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

선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다.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사람의 패역함과 불신앙, 교만은 끝없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탕자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 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불신자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온 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선교사다. 비록 잊혀지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향

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듯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분들이 선교사다. 그래서 선교사에게는 주님의 향기가 난다. 주님의 고통과 눈물이 느껴진다. 초라해 보일 때에도, 결코 작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선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것은 그들을 파송하기 위한 것이다. 회여져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면서 일꾼이 없어서 눈물 흘리신 주님의 안타까움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런 주님의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다. 선교사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소유한 분들이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 비록 자주 소식을 접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함께 고통과 눈물을 흘리지는 않지만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준다.

선교사와 함께하는 선교

선교관 1층 커피숍 안쪽의 작은 방에는 고 박모세 선교사의 사진이 있다. 박모세 선교사는 중국 모처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다. 그분이 순교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셨

을 때, 선교사님을 추모하러 온 중국인 제자들의 눈물을 본 적이 있다. 거룩한 순간이었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사셨던 선교사님의 사랑이 그들의 눈물 속에 녹아 있었다.

지난 주 교회 창립 17주년 행사로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든(은퇴선교사 안식처)소속 선교사 20명이 초청되었다. 한 분 한 분이 소개 될 때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몇 번이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야 했던 진한 감동은 주님을 위해서 사셨던 선교사님들의 삶이 있기 때문이었다.

보통 선교사에게는 영광의 상처가 있다. 그것이 몸에 있는 병이든, 마음에 있는 상처든, 자녀들이 감수해야 되는 고통이든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얻게 된 흔적들이 있다. 그리고 그 흔적으로 인해서 복음은 땅 끝까지 증거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선교사가 있다. 누가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명령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신 분들이 있다. 비록 우리가 선교사를 나가지는 못해도, 선교사와 현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 그것 역시 선교라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는 분이나 보내는 우리에게나 모두 소중한 사역이다. 선교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짙어질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열망과 열정을 담아 선포하고 삶을 나누는 선교사님이 더욱 더 소중해지는 가을이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자!

'타오르는 복음의 횃불' 온 세계에 전하십시오

웨스트민스터가든(미국 LA)에서 은퇴선교사 윌리엄 그럽(William A. Grubb)선교사와 19명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의 초청으로 지난 5일(토) 한국에 입국, 8박 9일 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한다. 이번 행사는 창립17주년을 맞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은퇴선교사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은퇴선교사 20명은 창립기념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둘러보았다. 이어 세계날(7일)부터 한국을 알 수 있는 곳, 기독교단체 및 기념관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우리교회 다 민족위한 예배 큰 감동

지난 7일(월) 오전에 온누리신문, 빛과 소금, 온누리인터넷방송, 기독교보사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선교사들은 크게 한국교회의 발전상과 온누리교회의 예배에 대한 느낌, 그리고 선교의 주지사항에 대해 주로 말했다.

특히 대구 계명대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윌리엄 그럽(William A. Grubb)선교사는 "한국교회가 급성장한 것과 믿음과 교회가 튼튼해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림픽의 횃불처럼 이미 오래전에 띄운 불씨가 아직까지 활활타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46년간 복음을 전했던 해리엇 존슨(Harriet A. Johnson) 선교사는 "한국은 일제통치와 한국전쟁 속에서 힘든 시간



◀ 한국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선교지에 몸을 묻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헛되지 않은 그들의 순교에 감사드렸다. 또한 한국교회가 더 부흥하고 선교하도록 중보기도했다.

을 믿음과 기도로 이겨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고 있는 점은 괄목할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온누리교회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에는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열정적인 예배가 참으로 좋았다"며 "특히 여러 민족을 위한 예배가 있으며 그들만의 문화가 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교회 2천 선교비전에 대해 들었다며 △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찾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 △ 선교지의 문화를 잘 이해할 것, △ 먼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것, △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말없이 언제 어디서나 섬기고 사랑할 것 등 선교할 때 반드시 생각할 사항을 권면했다.

이제 안심하고 쉬 수 있어

사우디에서 20년간의 선교사역을 한 플로렌스 안타블린(Florence G. Antablin)선교사는 "온누리교회와 한국을 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며 "세계선교가 여러 민족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마음편히 은퇴하고 쉬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또한 안타블린 선교사는 사우디에서 복음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적었던 것을 회상하며 선교사역은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교사인것으로 간주하여 핍박을 받았던 이야기와 부모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어 민속촌과 한국인순교성자인 절두산, 외국인선교사 묘지인 양화진, 밀알장애인학교, 순교자 기념관, 연세대, 이화여대, 비원순으로 관광을 마쳤다.

관광하는 도중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에는 한국에 대한 인상과 선교의 역사에 대해 나누기도 했는데 특히 할아버지가 한국선교사였던 존 스코트(John R. Scott)성도는 한국 기독교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의미물 되새겼다. 존 스코트는 "한국 1900년



▲ 은퇴선교사들은 절고 열정적인 온누리교회의 예배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민속촌과 연세대, 이화여대 등을 돌아보고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대 8천명가량의 순교자가 나왔다. 이런 뜨거운 믿음이 한국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통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한국교회에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특히 10일(목)에 방문한 선교사 훈련생들이 훈련받는 양지선교훈련센터에서의 시간은 은퇴선교사들에게 뜻깊은 자리였다. 선교를 시작하려는 사람과 선교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만남이기 때문이었다.

● 인터뷰 ●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땅 '한국'

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25년간 인도와 미국에서 의사 역할을 해왔고 병원과 의과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이번에 선교 사님들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동행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일생을 사시고 웨스트민스터 가든에 머물다가 두달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특별한 당부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강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Dr. John Rodas)는 일제시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연세대학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일제치하에 사역하면서 일본 고관을 만나 그들과 협상하며 사역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한국에서의 추억을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도와주



존 스코트 (John R. Scott)

시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인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평생 한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신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살던 이 땅에 오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35년간 평생을 바친 땅, 바로 그 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에만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도 어머니와 함께 왔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제가 이곳에 온 것에 감격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국의 발전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보며 기쁩니다. 그분들의 전생을 바친 헌신이 참으로 명예롭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극진히 환영해 주시고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려는 후보생과 은퇴선교사의 만남은 격려와 위로, 사랑이 가득했다. 선교사후보생들은 일생을 바친 은퇴선교사들에게 꽃을 달아주기도 하고, (위) 순교자 기념관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약속하며 사진을 찍었다.(아래)



선교사 선·후배의 만남

이날 황종연 목사의 선교센터에 대한 소개에 이어 선교사 훈련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더불어 카리칼콧족, 중국, 인도등을 품고 기도하며 그곳으로 파송되어 사역하기 원한다는 소망을 담아 자신을 소개했다. 선교사훈련생들은 35년 이상 자신의 생애를 헌신한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가슴에 꽃을 달아주며 축복의 찬양을 불렀다. 대구 계명대등에서 선교사로 수고한 윌리엄 그림선교사는 "내가 선교사로 훈련받을 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참여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며 "충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권면했다.

이어 선교사들과 선교사 훈련생들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선배선교사의 경험을 묻고 후보선교사에게 길을 안내하기 위함이었다. "선교사로서 가장 기쁨을 때와 선교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은퇴선교사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과거의 즐겁고 영광스러웠던 기억을 쏟아냈다. '자

신이 은퇴한 후 자신의 자리를 지켜줄 현직인이 있을 때', '현직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할 때'가 단연 최고 기쁨의 고백이다. 아랍어를 배워야 했던 윌리엄 안타블린(S. William Antablin) 선교사는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웠으나 배울수록 오히려 선교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친밀하게 느껴져서 보람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본인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힘들었다며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도전했다.

자녀가 더 훌륭한 선교사

또한 선교사 자녀에 관한 이야기가 회두가 되었는데 "선교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자녀들이 아프고 질병에 걸렸을 때가 힘들었다"며 "마음을 하나님앞에 내려 놓으라"라는 찬양으로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비트리스 스티븐슨(Beatrice Scott Stevenson) 선교사(91세)는 자신이 중국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낳기 때문에 자녀가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고했다. 한편, "어린이는 아주 어린지만 융통성이 좋아서 오히려 쉽게 현직이들과 교제하고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더 훌륭한 선교사"라며 "자녀 때문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사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좋

은 선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선교사가 살고 있는 모습에서도 영향을 받고, 선교사의 삶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기도 한다"며 잠깐 3장 5~6절 말씀을 의지하며 살 것을 권했다.

앤드류 가트레즈(Andrew P. Gutierrez) 선교사는 "젊은 여러분을 보니 나의 과거가 생각난다"며 "제자살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

은퇴선교사들은 방문기간 내내 한국의 교회상황에 대해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평균 80세 이상이 고령임에도 모든 광에 참여, 선교사로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적게 20년, 많게 55년 동안 생애를 선교에 헌신한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만 이드러나는 천군의 모습이 보였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인터뷰 / 사진 촬영 자원봉사를 하며 ●

"선교사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일주일"

마침 9일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중에 온누리신문에 은퇴선교사들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JDS 훈련중인 저는 노인들이라 부족이라도 해드리려고 자원봉사를 자원했는데 일주일동안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전문기도 아닌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평생 선교사로 사셔서 그런지 물어서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80대 노인인데 파곤해 하지 않고 인상 찌푸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피자 한조각에도 '원더풀'을 연발할 뿐 아니라 미국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맛있다'며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좋은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비싼 음식은 과분하다며 간단한 샌드위치 등



정경기 집사 (서대문공동체)

을 주문하곤 하셨습니다. 한번은 밤늦게 아이스크림이 드시고 싶었는데 가게에 갔는데 아이스크림이 3달러였습니다. 모두들 망설이다가 사지 않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11일) 미혼모들을 돌보는 애원관에 가서 사역현장을 보고 모두들 50달러씩 현금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나를 위해 3달러정도만 투자하는 것이 쉽지, 50달

러를 현금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돈도 많지않으실텐데 말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선교사님들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텐트와 같은 것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들 덕분에인지 아마추어인 제 사진도 만족스러우리만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밤 8시까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아내와 함께 사진을 인화해서 분리하고 나면 새벽이 되곤 합니다. 귀국하실 때 앨범을 한권씩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받는 분들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부족하고 몸은 힘이 들지만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된 것이 제게는 축복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은퇴선교사들의 보금자리 웨스트민스터 가든(Westminster Gardens)



웨스트민스터 가든은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산 가브리엘(San Gabriel)산맥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은퇴마을은 1946년 12월 프랭크 슈(Frank Shu)가 1백만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슈는 장로교 선교사 윌리엄 부스(William C. Booth)의 제자였다. 그는 부스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부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기업인으로 크게 성공하게 된다.

슈가 불혹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은퇴하여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 현금하게 되었던 것. 지금의 물가로 환산하면 이 돈은 1천만 달러(한화 약 1백20억 원)에 해당

하는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재장로교 선교부로 전달했다. 윌리엄 부스 선교사는 많은 생각과 숙고 끝에 은퇴선교사 마을인 웨스트민스터 가든을 출발시켰다. 프랭크 슈가 80세때 웨스트민스터 가든을 찾기 까지 40년 동안 아무도 그 기부금의 주인공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예수님의 설립자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이자 1950년대에 한국에서 선교한 바 있는 트레이 박사도 이 마을에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웨스트민스터 가든은 1950년 12월에 최초의 거주자들을 맞이했고 이후 5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역한 1천명의 사역자들에게 참된 가정의 구실을 해왔다. 이곳에는 20년 이상 선교사역을 해 온 65세 이상인 선교사가 걸 수 있다.

은퇴선교사들은 이곳 가든에서 의료혜택과 재활치료를 받을 뿐 아니라 예수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T국 총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에도 이곳을 방문한 이웃교회 팀들과 함께 지방을 여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귀한 분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이 땅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 사랑의 수고와 축복의 말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좋은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을 밟고 가신 분들이 이 땅과 민족을 잊지 않고 평생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 열린 제자훈련

올해 초부터 제자 훈련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 미니 디테스(DTS)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사역자들의 헌신과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그리고 교회의 지원을 하나로 만들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말과 7월 중순 사이에 에베소에서 3주간의 미니 디테스가 있었습니다. 현지인 12명과 다른 나라 학생 9명으로 모두 21명이 수료했습니다. 주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진행한 학교는 섬기는 사역자들의 기대보다 넘치는 축

복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잠기며,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였습니다. 또 죄의 고백과 용서, 자유와 회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훈련 후에 저희 회사에 훈련부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팀을 중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다양한 훈련사역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T국 선교 방향을 결정하는 총선

이곳은 지난해 IMF 경제 위기를 맞이하면서 연일 부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문을 닫게 된 공장들과 가게들, 실업자와 빈곤은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과 공무원의 부정 부패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은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됨으로 정국이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국회는 11월 3일 조기 총선을 결정하고 선거 정국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는 선거 못지 않게 중요한 선거입니다. 향후 5년간은 T국의 장래에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유럽 연합(EU) 가입과 경제 회복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유럽 연합이 가입이 이루어지면 T국 복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초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과 성실로 국가를 다스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비전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된
심하일, 정진주 올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주복/김신애(파송-동북아-TIM-동작B)
-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기를 찾고 재정적으로 자족할 수 있도록
- 급변하는 시기에 필요한 교사와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은혜(파송-동북아-WEC-강남B)
- 기관지와 오른쪽 손목 관절의 치료를 위해
- 새로운 사역지에서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 2004년까지 200명의 중보 기도자를 주시도록

김요한/정도래(후원-인도네시아-OMF-노원의정부)
- 비자 연장이 11월 10일 전에 조속히 이루어져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 마리아 자매의 건강회복을 위해
- 12월 중순부터 2003년 1월 13일까지 있을 한국인 무슬림 사역자(후보자 포함)를 위한 제2회 바울루스 겨울 훈련 학교를 위하여

홍은선(후원-미국-GBT-성남분당)
- 카메룬에서 사역할 예정인 사이락 아론/수잔 선교사, 남궁 은/은주 선교사가 불어에 능통케 되도록
- 새로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신 홍예스더 간사와 존스 유진 선교사를 위해
-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영숙(후원-일본-국제제자선교회-강동송파)
- 삿평고의 프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호시 에이지 상의 구원을 위해
- 구도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 성령 충만한 제자 훈련을 위해

03

우에다 온누리그리스도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일본 복음화 문을 여신다”

우에다 온누리그리스도교회는 일본의 나가노현에 위치한 인구 약 15~20만 가량의 농업위주의 도시, 우에다에 설립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27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올해 1월부터 저희 부부가 부르심을 받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부어주시는 은혜는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에다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우에다 교회의 부흥

4월 12일~6월 25일 나가노 목회연구원 설립기념 특별세미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부목사님 22명이 매주 와서 섬겨 주심으로 우에다는 말씀과 은혜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우에다에는 크고 작은 1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많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방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가운데 변화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미야모토상 시마상 한다

상이 지금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꾼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 성도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두 번 이상 있는 큐티 나눔은 자신의 삶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고 치유받는 은혜로운 모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0.3%의 아주 적은 수의 크리스천이 있는 미전도 국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의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 교회의 중요한 부분은 일대일 제자양육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육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저희 부부 밖에 없어 한주에 10번 정도 만나는데 전혀 지치지 않을뿐 아니라 성도를 통해 제가 도리여 뜨거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양육을 마친 분들이 다시 한명의 양을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는 20명~25명 정도의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어린이예배(pappus club)는 11~12명의 어린이들이 교회의 테라스와 어린이방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저녁에는 six, twenty two(경배와찬양)로 드리며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와 함께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은 나가노에서 드문 현상입니다.

일본의 문이 활짝 열려요

일본인들에게 가장 맞는 전도방법, 일본인들이 교회에 와보고 싶게 하는 것 등등 온누리교회는 참으로 일본선교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의한 교통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머지 않아 일본 복음화의 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온누리성도 여러분, 아직 미약한 개척교회지만 사람이 풍성한 공동체, 예배 위에 찬양과 기도로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에다에서
조수정 선교사 올림

하나님의 꿈, 온누리교회 17주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온 온누리 교회가 지난 주일 창립 17주년을 맞았다. 지난 주일 각 예배에서는 연합 성가대, 유치부 합창단, 한상원·유선식 목사의 특별 찬양이 있었고, 서빙고 열린예배에서는 L-발레 공연 후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잘랐다. 특별히 웨스트 민스터 가든 선교사 20명이 방문해 온누리과 한국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17년 동안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

◀ ▲ L-발레는 '행복한 가정, 깨끗한 사회, 건강한 세상'을 표현했다. 공연과 함께 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온 온누리의 영상이 소개되어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잔치를 위해 생일 케이크가 등장했다. 하용조 목사와 전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케이크를 잘랐고, 이어 축포가 터졌다. 박강성 성도는 '겨울 아이'를 편곡해 창립 기념 축하곡을 노래했다.

▶ 서빙고와 양재 성전에서는 국수와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참여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생일을 축하했다.



웨스트 민스터 선교사 방한

▲ 온누리교회 초청으로 한국 방문 중인 웨스트 민스터 선교사들이 양재 사랑성전에서 열린 감사예배에 참석, 온누리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 하용조 목사가 선교사를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선교사들은 손을 들어 표시했고 성도들은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박수했다. 선교사 중 대구에서 선교한 윌리엄 그럽(William A. Grubb) 선교사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창립 17주년 축하 17m 김밥 만들기



- ▲ 90여 장의 김을 일렬로 붙여 준비한 17m짜리 김.
- ▶ 옆구리 터지지 않게 꼭꼭 눌러 김밥을 말고 있는 하용조 목사와 교역자, 장로, 성도.



"파판~ 17m 김밥 완성입니다!"



- ▲ 17m 김밥을 처음 시식하고 있는 어린이, 웨스트 민스터 선교사들도 "Delicious(맛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 ◀ 김밥을 말며 재료를 먹는 하용조 목사를 보고 웃는 성도.

*

제 2회 은누리선교 세미나/ 입양 종족 세미나
 10월 1일~22일(4주간) 매주 화 오후 7:00~9:3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은누리 공동체, 선교사역자, 선교관심자, 이웃리치 참가자, 선교사를 위한 정보 기도자, 청년대학생 등 대상
 강의 내용
 - 입양종족 선교전략(조용백 선교사)
 - 종보기도전략(주누가 선교사)
 공동체 사례발표(동작 A(하나족))

아프간 사역자 모집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등
 문의: 신원석 간사(교216)

☞ 불어권 종보기도
 10월 10일~11월 14일 매주 목 오후 7:30
 은누리교회 양재 자비성전
 문의: 최욱 (011-9783-3417)
 허경은 집사(018-263-1841)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일시: 10월 21일(월) 오후 7:00
 장소: 서빙고 선교관 3층 302호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비전 2000 선교사 종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소회의실

소아시아 기도모임
 10월 21일(월) 오후 7:00 / 서빙고 401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사 위해 기도하실 분(미안다,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 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종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스텝 모집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애정·경험이 있는 분
 문의: 양승순 전도사(016-756-7458)
 김창도 간사(011-271-4558)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노트북
 핫블트리니티에 유학한 외국인 신학생이 쓸 노트북을 구합니다. (워드만 되도록 좋습니다.)
 문의: 원영기, 박종진 간사(교 731, 732)

은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 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인터콥 / 798-6001
제1기 InterCP 남성비전 스쿨
 10월19일~12월21일(총 10주)/ 미전도종족 선교관심자와 헌신자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길 원하는 직장남성(35~55세) 대상
 접수: www.intercp.net
 문의: 김경애 간사(796-3541, 교 226)

에젬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월요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찬양종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종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젬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등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4:00~6:00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01

2천선교사 1만사역자 파송

오늘 서빙고 2부예배(오전 9시)에는 2천선교사와 1만사역자 파송식을 한다. 오세동 선교사는 이스라엘로, 원경진/이순재(원유호, 원우선) 사역자는 뉴질랜드로 떠난다. **관련기사 12면**

02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오세동 선교사는 지난 3년 반 가량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셸터사역을 해왔다. 약 1년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2년 반 가량은 '베이트 샬롬'이라는 셸터를 열어 아웃리치팀을 훈련하고 가이드하며 중보기도사역을 해왔다.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언어실력도 모자라고 생각이나 주제가 한정되어 유대인과 만나도 오래 교제할 수가 없었다. 오세동 선교사는 군생활을 통해 언어실력도 높고 자신이 크리스천인 것을 아는 그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기대

2천 선교사 인·터·뷰

“장기사역 위해 이스라엘군 입대합니다”

오세동 선교사는 “이스라엘에서 3년반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선교를 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이방인이라는 인상 때문에 깊이 있는 교제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오 세 동 선교사

오세동 선교사는 이스라엘의 장기 선교사역을

위해 군입대를 지원했다. 일년전에 군입대 지원했었는데 한번 거절 당했지만 이번엔 허락을 얻었다.

군생활 4년을 거치면 이스라엘국민과 동등한 법적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군생활동안 함께 자고 먹고 생활하면서 더 깊은 교제를 할수 있고 군을 제대하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수도 있다.

오세동 선교사는 비자문제 등으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이스라엘에서는 한시적 사역외에는 할수 없다고 판단, 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오세동 선교사는 “위험한 것으로 따지면 한국도 마찬가지다. 폭탄테러가 나긴해도 한국에서 보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인 전선희(72년)선교사와 딸 오영은(2001년생)과 함께 가는데

족이 건강하기를, 군생활중 기도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에 더많은 중보기도자가 있기를, 기도후원자와 재정후원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또한 군생활에 잘 적응하고 입대부터 제대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도부탁했다.

- 소속단체: TIM
- 국가: 이스라엘
- 사역내용: 이스라엘 군입대 (공동체 사역)

홍미남 minam@onnuri.or.kr

●웨스트민스터 가든에서 날아온 편지●

'아낌없는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안에서 형제자매된 은누리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여러분의 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보여주시신 친절하고 아낌없는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좀처럼 받기 어려운 호의의 표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친절에서 나온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와 아름다운 선물들에 저희 모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흔하지 않는 체면을 했고, 깊은 영감을 일으키는 여러 특별한 장소들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할렐루야를 외치고 경배의 찬송을 함께 울려드리며 화답하는 찬양으로 인해 저희 모두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8,9)

라는 진실하고 영원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사랑과 관대함이라는 선물입니다.

저희 모두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받아 주십시오. 선교사로서 우리의 마음은 주의 복음을 지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갈망합니다.

은누리 세계 선교 훈련 센터에 장학 기금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사랑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가든의 선교사 일동



Dear friends of the Onnuri Community Church, our Brother and Sisters in Christ:

Since we have been in your beautiful country you have honored us with your love, freely and graciously given.

Seldom have we received such expressions of gratitude and honest thanks! You have overwhelmed us with your warm hospitality and beautiful gifts - offered with humble grace. You have taken us to many special places, providing rare adventures and deep inspiration.

As we have entered into worship with you we have been caught up in mutual praise, shouting our "Hallelujahs" and singing out our hymns of adoration

together.

It has been glorious! Yet in the midst of our joy we are reminded of a scripture that gives us a true and eternal perspective(1 Cor 2:8,9)

No eye has been
No ear has heard
No mind has ever conceived
What God has prepared for us!

We are taking home the beautiful gifts you have given us. But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t we will carry back to our fellow Christians in America. It is the intangible gift of Holy Love and Generosity that has blessed our lives!

Please receive this expression of our love and gratitude. As missionaries, our hearts yearn for those young people who are preparing to go out into the world as emissaries of the Gospel of our Lord. Therefore, we are giving a gift toward a Scholarship Fund to the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Center.

Lovingly in the bonds of Jesus Christ Grateful missionaries of Westminster Gardens.

S. W.M Antablin
October 12, 2002



선교지에서 온 편지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저희가 이곳 부스터 베이스에 올 때는 개척한지 3개월 된 베이스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환경적응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차별이 심한 남아공

이곳 남아공은 인종차별로 유명했던 곳인데, 그것은 이곳 선교단체 안에서도, 그리고 크리스찬에게서조차 알게 모르게 차별당하고, 특히 언어가 능숙하지 못하다고 어련에 취급당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가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며, 배려 받지 못한다는 것이 외국생활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또 주변의 가난한 지역으로 인해 옷가지를 단난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곳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서 실망도 많이 하고 혼동된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사랑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느낀 것은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과 우리가 받은 은사를 좀더 전문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알면서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안타까워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앞으로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던 중 부득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YWAM에서 하는 스쿨이 아니라 케이프타운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상담학과정을 정규과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4-5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이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상황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섬기기 위해 과감히 결정하고 믿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더 깊이 남아공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선교의 연속이라 생각하고 기도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곳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함에 갈급해 있고, 그것을 공급해 줄만한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제자화를 위하여 신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시키는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의 교육열은 매우 높고, 교육수준 또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astor라고 부르는 목사 혹은 전도사의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YWAM에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있지 못하다는 것과, 과거의 잘못된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

을 상담해주고 돌봐 줄만한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지속적인 제자화와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면서도 지역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것이지만, 공부 후의 구체적인 사역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항상 잊지 않도록 또 좋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4년간 머문 이곳 YWAM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2. 가려고 하는 코너스톤 크리스찬 칼리지 준비가 잘 되도록.
3.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4. 도시인 케이프타운은 재정이나 치안적으로 어려운데 안전을 위해

최연호/김명옥

(파송-남아공-Mercy ships-성북)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훈/이향선(파송-캐나다-TIM-강촌)

- 이곳에 머무는 동안 섬기는 사역들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 자녀들(현주/현진/현경/민우/소현)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 장기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김사랑(파송-소아시아-TIM-광명인천)

- 더 부지런하고 늘 깨어있어 오직 주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 사라이 고아원에서 사역하는 카멜레온 모임 가운데 기쁨 부어 주시고 이 땅의 장애인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더욱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 학과 공부와 언어에 지혜를 주시고, 같은 과 친구 중 F 자매, E 자매, S 자매, T 자매와 계속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박경수/황미옥(파송-미국-YWAM-강서김포)

- Campus service maintenance 사역에 기쁨 부어주시고, 함께 일하는 스텝과 리더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 향 선교사 무릎 수술과 자연 반만을 위해 호놀룰루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위해

김요엘/이모영(후원-중앙아시아-인터콤-과천수원)

- 새롭게 비전 받고 나가는 G12 교회 개척 비전에 기쁨 부어주시고, 토크 사역자 모든 사역자들에게 헌신된 12제자들을 붙여주시도록
- 모임 사역자가 인도하기 시작한 현자인 중보기도 모임에 기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 미국에서 공부하는 범종과 민정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

㉔ 제 2회 은누리선교 세미나/ 입양 증축 세미나
 10월 22일 화 오후 7:00~9:3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대상: 은누리공동체, 선교사역자,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웃리치 참가자, 선교사를 위한 증보기도자, 청년대학생 등

㉕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개강좌
 10월 28일(월) 오후 7:00/ 경천홀
 주제: 중국인의 디지털 생활
 강사: 김용준 교수(성균관대)
 문의: 오주영 간사(016-349-7203)

아프간 사역자 모임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등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㉖ 2002 역라마단 연합기도회
 은누리교회 양재 은유절제 성전
 11월 2~30일 매주 토 오후 6:30
 문의: 유미숙 자매(016-325-1273)

불어권 증보기도
 10월 10일~11월 14일 매주 목 오후 7:30
 은누리교회 양재 자비성전
 문의: 최옥 (011-9783-3417)
 허경은 집사 (018-263-1841)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일시: 10월 21일 (월) 오후 7:00
 장소: 서빙고 선교관 3층 302호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소회의실

소아시아 기도모임
 10월 21일(월) 오후 7:00 / 서빙고 401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안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치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스텝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애정·경험이 있는 분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김창도 간사 (011-271-4558)

㉗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노트북
 햇빛트리니티에 유학온 외국인 신학생이 쓸 노트북을 구합니다. (워드만 되도록 좋습니다.)
 문의: 원영기, 박종진 간사(교 731, 732)

은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4:00~6:00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㉘ KIBI / 792-7075
10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10월 31일(목) 오후 7:30 / 서빙고 302호
 강사: 리처드 고티어 (에벤에셀 총재)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 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제1기 InterCP 남성비전 스쿨
 10월19일~12월21일(총 10주) / 미전도종족 선교관심자 외 헌신자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길 원하는 직장남성(35~55세) 대상
 접수: www.intercp.net
 문의: 김경애 간사 (796-3541, 교 226)

에zell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증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증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자원봉사자
㉙ 일어예배 유치부(프치 파프스)에서 반주로 봉사할 교사
 토요일 오후 1:00~4:00
 문의: 기타노 전도사(019-255-5874)
 황혜경 간사(교 702)

*

01

선교사에게 ‘성탄 선물’ 보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계절이 왔다. 2천 선교팀은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을 선교사들과 나누기 위해 선교사들의 주소를 공개했다.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은 입양 미전도 종족 및 선교지 등 낯선 선교현장에서 성탄을 맞이할 선교사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담은 선물을 보내는 운동이다. 우리교회는 올해 10월 현재 49명의 선교사를 파송, 50개국에서 5백7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2천선교팀은 이 5백여 선교사를

실용적이며 재치있는 선물 적합

선교보안 지역인지 꼭 확인

성탄절 1달 전 선물 준비해야

각 공동체의 순별로 연결해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선교지에 보낼 선물은 우편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것을 감안, 성탄절에 앞서 한달전에 보내야 한다. 또한 부피가 크거나 깨지는 것은 피해야 하

고 실용적이며 재치있는 선물이 좋다.

가장 주의할 것은 보안지역인가를 살펴서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보안지역일 경우 기독교관련 음반이나 서적, 액세서리(예:십자가목걸이)는 피해야 한다.

선우순애 선교사(이재환 선교사 사모)는 “아주 작은 선물일지라도 선교사가 그 땅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9면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역라마단 기도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

이슬람의 라마단기도(11월 6일~12월 5일)에 맞서 이슬람의 정체를 알리고 이슬람권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역(逆)라마단기도 운동’이 펼쳐진다.

2천선교팀(문의 김경민 간사 교 209)은 10월 29일과 11월 5일 화요중보기도모임(오후 7시, 소회의실에서 김마가 선교사의 ‘이슬람의 이해와 역라마단 기도 안내’, 김동문 선교사의 ‘이슬람의 두 얼굴’ 등 역라마단운동의 이해와 기도방법을 배우고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호수아청년부 이슬람권 선교부(문의 유미숙 자매 016-325-1273)는 ‘2002 역라마단 연합기도회’를 11월 2일~30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30분 양재 온유절제성전에서 연다. 이 기도회는 이슬람이 퍼져있는 지역 전체와 중앙아, 카프카즈, 페르시아차,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 등 지역별 중보기도를 한다. 1,3주에는 ‘국제정세와 이슬람’(최바울선교사), ‘이슬람의 견고한 진’(주누가선교사)라는 강의가 마련되었다.

관련기사 11면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중사모 공개강연회

중국인의 디지털 생활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최하는 공개강연회가 10월 28일(월) 오후 7시 서빙고 경천홀에서 열린다.



‘중국인의 디지털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강연회에서 김용준 교수(사진,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는 중국의 경제상장에 이은 생활의 변화, 특히 디지털 생활로의 변화와 영적 상황을 가능한다.

• 문의: 김희수 팀장 (011-448-4262)

01



● 선교지에서 받은 기억에 남는 선물 이야기

'사랑의 선물' 을 선교사들에게



김창옥 전도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글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16:3-4)

로마서 16장에는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의 이름과 섬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매 비비,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등 34명은 신본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며 성별도 직업도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의 아름다운 동역자요,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바울의 보호자로서, 때로는 함께 옥살이를 같이 하였고 또한 많은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니다.

이들의 헌신과 섬김이 바울로 하여금 북

음을 아시아와 유럽에 전하게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될 그들, 그러나 부르심에 용기를 내고 떠날 수 있음은 보내는 손길이 있고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도와주었던 주옥같은 이름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시대에 온누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Vision 2000' 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돕는 공동체 모든 분들의 이름임을 확인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지난 17년 동안 500여 명의 선교사를 따로 세워 안수하여 50개국에 파송했습니다. '안수 하였다' 라는 의미는 그들과 함께 나아가며 동역하겠다는 뜻입니다. 매년 가을 잎 붉게 물드는 이때가 되면 하

나님의 나라를 위해 길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과 함께 나눌 성탄의 선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기, 곧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선교사와 함께 나누는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되새기면서 기록한 사랑 담긴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 오손도손 손 식구들이 둘러앉아 준비한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 이를 받는 선교사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을 보내주신 동역자를 위해 감사의 눈물과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따뜻한 그 사랑을 간직 하고파 예쁜 카드를 보고 또 보면서 보내주신 분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김 한톨에 묻어온 사랑에 감사하며, 한 톨의 위로 편지에 가슴 뭉클 하면서 사랑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외우곤

합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정성어린 선물은 선교사 자신이 교회와 성도로부터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랑 받고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귀한 나눔입니다. 또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밑거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 전하시는 열방에 흠어진 선교사들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나눔 때 기쁨은 배가됩니다. 샬롬!!

02

"열사의 땅에 도착한 바삭 말린 떡국 떡"

저희는 감비아에 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면, 김, 오징어, 학용품, 책, 테이프, 비디오 등 이런 소포를 받으면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우 순애 선교사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삭 말린 떡국 떡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한국음식을 그리워 하지 않고 살았지만 1년에 딱 한번 먹고 싶었던 것이 떡국이었습니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인지... 그런데 어느 해인가 하나님께서 바삭 말린 떡국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바삭 말렸는지 딱딱한 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달 이상 걸려 도착한 것이었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하루정도 불린 후 떡국을 끓여서 먹으며 한국의 설날을 기억하였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떡국이 또 있었을까요?

주님의 정성과 사랑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재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까지 들어와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용기를 얻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방울과 볼펜"

올해 어린이 날 즈음 꿈이 자라는 땅과 예절 선교회에서 제 딸 선물이 왔습니니다. 제 딸 아이는 6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였는데 머리핀과 머리 묶는 끈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딸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강일영 선교사

(미전도종족, 미해족)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보내주신 선물이 누가 같이 사는 미해족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며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니다. 성도님이 선교사에게 선물을 보내실 때 '이건 너무 약소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보내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성도 여러분

이 보내 주시는 것은 작은 것이더라도 받으면 무척 기뻐했습니다. 보내주신 물건이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일지라도 저희를 더 풍성하게 해주었고, 선교지 사람들과 나눠 쓰며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볼펜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이 물건을 누가 보냈고 왜 보냈는지 설명하며 나눠줬더니 그들이 한국이나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생각하고 정성껏 보내신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항상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03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면 대환영"



박은연 선교사(브라질)

외국에 떨어져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듯이 한국이 그립습니니다. 물건의 종류나 값어치보다도 한국에서 왔다는 것, 그리고 잊혀지지 않겠다는 것이 더 기쁩니다. 브라질 도시의 경우는 웬만한 물건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니다만,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한국을 더욱 그리워하고 있어 염서에 성경구절 하나를 적어서 보내주시더라도 선교사에게는 큰 감동과 힘을 줍니다. 그리고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이면 선교사에게는 더 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니다.

한번은 아는 분이 김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선교센터에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을 받으시고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 가정의 50가정 정도 되는데, 지난 추석에 된장과 고추장을 박스에 포장해서 선물을 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보내시는 사랑은 사역에 힘을 더합니다"



박향기 선교사

95년 성탄에는 김과 북어와 마른오징어를 선물로 보내 주셔서 저를 도와주시며 훈련시켜 주셨던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모처럼 한국의 음식을 대하며 감사했습니다. 주위 선교사님들도 성탄 선물을 정성껏 보내주시는 저희 교회를 자랑스런 교회로 생각하셨지요. 한 해에는 숙웃과 양말을 보내 주셔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일부는 저의 무슬림사역 디렉터이신 캐나다 선교사님 가정에 성탄선물로 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작년에는 몇 권의 책, 한국 차와 CD를 보내 주셔서 다른 선교사들과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정성껏 직접 만든 성탄카드를 보내 주어 무척 기뻐하고 힘이 많이 났습니니다.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선교사도 드문 오지에서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우편물을 받을 때마다 혼자자 아니며 교회가 저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고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역의 열매는 기도와 선물로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의 상금이요 열매입니다.

"귀한 선물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에 가져온 짐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올해 우리 집에 무엇을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분명히 수신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그 짐이 도착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박스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서적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용품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아호!!! 아이들과 나는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터트렸습니다. 타향에서 한국 물품을 선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을 주님은 아십니까?(물론 아실 것입니니다) 특별히 강준민 목사님의 비전에 관한 책은 목마른 나의 갈증을 채워주었습니다.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이름이었지만 그분이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통해 우리 가족은 사역지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니다.

연락이 되면 통화라도 하고 싶습니니다. 지금도 그 분이 누구이신지 연락이 되면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니다. 고마운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 이정훈님께 "정말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송예나 선교사(미국)

“이곳에서 선물 준비하세요”



오늘(27일)부터 시작하는 '선교사에서 성탄절 선물보내기 운동'에 맞춰 선교사에게 보낼 물품을 구입할 장소 및 곳을 소개한다. 이번 운동을 위해 약 한달간 정상가격보다 약 10~20% 가량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온누리인터넷방송 테이프실

- 가격 : 주제강의, 저녁집회, 특강은 개당 1,500원 25% 세일
- 품목 : 98예수 공동체축제(JCC)-주제강의, 특강, 저녁집회-공동체와 하나님나라 등 99년 VLO(비전과 리더십축제) - 주제강의, 특강, 특별세미나, 저녁집회 99년 온누리사역축제 - 주제강의, 저녁집회, 특별세미나, 특강 2000년 온누리사역축제-주제강의 저녁집회, 특별세미나 2002 성령축제-하나님의 음성듣기 (단 2002년 성령축제(하나님음성을 들으십시오)는 9천원, 99년성령축제(바람처럼 불처럼)는 1만5천원입니다.)
- 기간 : 10월 27일~11월 말
- 문의 : 방우승 간사(796-2022)

농어촌 선교부

- 품목 : 밀치 1kg(1만8천원), 고추가루 3근 (1근도 판매, 2만1천원), 김(1만원), 품목 셋트(5만원)
- 문의 : 엄성욱 (교 661), 011-9767-1515

이명희 집사(017-742-0999)
· 판매처 : 11월 둘째주까지 매주일 오전 8:00~오후 2:00, 농어촌장터

온누리서점

- A 세트(도서 및 설교테이프) / 2만 5천원 <검은색이 아름답다>, <파인애플 스토리>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듣기> 말씀 테이프
- B 세트 (찬양CD) / 1만 8천원 평안을 나에게, 웅기장이 워십 2
- 기간 : 10월 27일~11월 말
- 문의 : 서정 이상호 차장 (교 140, 796-2310)

번동코이노니아

- 품목 : 잠옷(2만2천원), 앞치마(8천원)
- 판매처: 10월 27일(주일) 서빙고 성전 선교관 1층 커피숍, 11월 10일(주일) 양재성전 1층 전시실 바자회
- *약 10% 할인가격
- 문의 : 송덕숙 총무 (985-3609, 011-9767-1515)

두란노몰(www.duranmall.com)

두란노 온라인사업부인 두란노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준다. 우선 구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기본 적립금을 구입하는 성도와 함께 동일한 금액을 선교사에게 적립해준다.

단체로 구입하여 상품가격이 많을 경우 선교사에게 더 많이 적립(15만원 이상 1만원, 30만원 이상 2만원 적립, 50만원 이상 3만원)해주고, 구입하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적립금을 선교사에게 줄 수도 있다.(선물받는 선교사의 이름, 주소, 이메일등을 알려주면 된다.) 이 외에도 단체로 구입할 경우 할인도 된다.

- 물품 : 손안에 비전성경, NTV 오디오바이블(64CD), 살롬성경통독 테이프, 정독성경테이프(신, 구약) 지갑세트, 장지갑, 반지갑벨트세트, 장지갑벨트세트 아이리스펜, C-Pen, 플러스데크, 어학반복기, 메모리 폼 베개, 저주파 자극기
- 헤드 어쿠스틱 기타 및 통기타, 성찬기 세트, 찬송가 카세트, 휴대용 찬양반주기
- 가정용 예배상, 기도노자, 알로에 아보레센스, 서류가방, 대웅제약 키토산 알파, 청심혈
- 구입문의 : 조병훈(794-5100(724)), E-mail: hoon@tyrannus.co.kr

온누리신문 축쇄판

온누리신문 축쇄판 3~8권 각 1만5천원
· 구입처와 문의: 온누리신문

동서울 두란노

선교사에게 음반을 보내기 원한다면 동서울 두란노에 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서울 두란노는 11월 7일 크리스마스 뮤지션 전문매장 'CCM 갤러리'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11월 7일~9일 모든 음반을 10% 할인해 준다. 온누리신문에 있는 쿠폰이 있다면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쿠폰이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받을 수도 있다.

CCM 갤러리는 최신 발매된 8백 여개의 앨범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청음기 25대를 보유하고 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4천개의 앨범을 들을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음반 20% 할인쿠폰 및 응모권

(할인기간 11월 1일~9일)

이름
전화번호
E-mail

1. 선물 준비

● 방법

1) 주소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한다. 상당히 많은 국가가 우편이 원활하지 않고 손실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선교단체에 문의하도록 한다. 때로는 선교본부에서 인편을 이용하기도 한다.

2) 편지쓰기: 11월 중에 보내야 성탄절에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편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성의껏 준비한다. 교회소식이나 한국소식을 함께 전해도 좋다.

3) 선물준비: 선물은 부피가 크거나 무겁거나 깨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가볍고, 실용적이며, 본국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선교사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재치 있는 선물이면 좋다.

예쁜 포장지로 포장하고, 다시 소포포장을 한다. 정기구독 잡지나 책을 선물하는 경우 내용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지역에 따라 보안이 요청되는 지역은 카드나 편지 등을 기록할 때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선물

: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한다.

1)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인형 등), 옷, 장갑, 모자 등, 쿠키 서적, 컴퓨터 게임 SW,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2) 선교사 부인을 위한 선물: 화장품, 스킨케어, 내의, 양말, 장갑, 한국 고유의 차(종이팩), 기록과 관련된 소품, 여성 잡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에 좋은 것 등.

3) 선교사를 위한 선물: 선물용 학용품(필기구, 수첩 등), 서적(기록과, 일반서적), 넥타이, 양말, 손수건, 지갑, 성가 테이프, 시사잡지.

4) 기타
공동 : 의류, 장갑, 핸드크림, 신앙서적, 잡지, 일반서적, 문구류, 내의, 여행용티슈, 물티슈, 2003년도 다이어리, 달력, 태월, 영양제, 삼푸, 차약, 차모과차, 유아차 등, 찬양 음반, 비디오 등

음식물 : 고춧가루, 미숫가루, 카레가루, 멸치, 미역, 김 등 건어물, 국수류(당면, 냉면), 고추장, 된장, 라면, 과자류(쿠키, 견, 사탕), 건과류

남성 : 화장품, 남방, 면도기
여성 : 화장품, 여성잡지, 악세사리, 생리

대, 스킨케어, 향수

5) 발송: 항공편과 선편을 구분하여 발송한다. 충분한 날자를 고려한다.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골고루 선물이 가도록 배려한다.

* 보안지역 선물제의 품목 : 기록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사리 등

2. 보안지역 유의사항

*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록교적인 선물과 편지 내용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이름 표기도 선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예) 선교사 → 선생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등

● 보안지역 안내

공산권 - 중국
모슬렘 - 중동 전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타르, 투르크메니스탄

보스니아, 터키, 예멘, 요르단, 사우디, 파키스탄 등)
기타 힌두, 불교권 -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등
· 문의: 2천 선교 신원석, 황민식 간사

3. 우편요금

주소록에 선교단체 이름으로 표기된 부분은 소포 포장을 하여 우편요금과 함께 소속 선교단체로 전달합니다 (주소가 2천선교로 표기된 곳은 교회 2천선교회로) (지역별 우편요금 안내 - 항공요금으로 0.5kg 기준)

- 1지역(동북아) - 9천원
- 2지역(동남아) - 1만원
- 3지역(북미, 중동, 유럽) - 1만3천원
-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 1만7천원
- ※ 우편요금 안내 : 우체국 홈페이지 <http://seoul.koreapost.go.kr>
용산 우체국 전화: 797-0659

중량단계 (kg)	지역별 요금(원)			
	1	2	3	4
0.5까지	9,000	10,000	13,000	17,000
5.0까지	20,700	28,000	54,000	76,000
10.0까지	33,700	50,000	86,200	136,000
15.5까지	50,200	74,200	112,500	202,000
20.0까지	63,700	94,000	133,200	256,000

이혼 공동체: 김향옥 전도사 - 우즈벡 카라칼파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생령 1,2,3순 강윤영/정주자 OCC 미국
P.O.Box 395 Orangeburg, NY 10962 U.S.A
생령 4,5순 김영민/박화진 인터파 중양아 (110-761) 서울 종로구 신촌로 27가 89-27 피어선빌딩 1009호 한국인터파서 본부 / 전화: 725-6055-6 이혼정

일곡 1,2순 김주영/이은혜 인터파서 미국
555 PIERCE STREET APT #1330, ALBANY CA 94706, U.S.A
일곡 3,4,5순 배시몬/김로자 OM 중앙아 "SOON-HO,BAE FOK CULTURE CENTER C.P.O. BOX 2013 BISHKEK 720000 KYRGYZSTAN"
포도 1,2순 서광/양혜원 인터파 중양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포도 3,4순 이아교보/루디아 인터파서 중앙아 (110-761) 서울 종로구 신촌로 27가 89-27 피어선빌딩 1009호 한국인터파서 본부 / 전화: 725-6055-6 이혼정

포도 5,6순 김합순 이한우/송용희 인터파서 미국
Lee Chan Wo 1594 North Allen Ave. Pasadena, CA 91104 USA
감람 2,3,4,5순 최현숙 YWAM 중앙아 (095-812)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82-1 제주 열방대학 내 동쪽저 학교

한강 공동체: 박형준 목사 - 일본 오사카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사방 1,2순 권윤일/다케다카구미 OMC 일본
서울 동작구 흑석동 152-1 개나리101호
사방 3,4순 김은영 TIM 일본
201, ASUTARIKUMARUYAMA (B) 2-11 MINAMI 3 ZYOU NISI 25 CYUNUME CYUOUOKU, SAPPORO, HOKKAIDO, JAPAN 064-0803
쌍방 5,6순 A함인 김경길/조호숙 TIM 일본
東京都新宿區 市谷 本町 3-25 1階 東京シラ/VISION 教会 日本
소망 2,3순 민명홍 GMTIC 한국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GMTIC 본부 / 전화: 2649-3197 백인숙 간사

쌍방 4,5순 최정갑/황미혜 TIM 일본
Osaka Onnanu Christ Church Ueroku Bldg. 3F 6-23 6-Chomae Uehonmachi Dennoji-ku Osaka Japan (543-0007)
희망 2,3순 정지민/김은옥 OMF 일본
"B-1 Townhouse Ko Yama, 4-5-20 Edaminami Tsuzuki Ku, Yokohama 224-0007 Japan"
희망 4,5순 최희순 도문길/황영애 GMP 한국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62-5 GMP(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 / 전화: 031-419-6792
희망 2,3순 조유희 OMF 일본
#201 Marubeni Hattausu, Kita 2Jo, Nishi 13 chome, 1-50, Chuou-Ku, SAPPORO, 060-0002 JAPAN
희망 4,5순 이은혜 YWAM 중동
2000선교부(전화: 793-9686(교 216))

한촌 공동체: 김동욱 목사 - 러시아 모스크바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안성 1,2,3,4순 김남용/조진삼 TIM 러시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유우 1,2순 김성찬/김주향 인터파 중양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영 3,4,5순 홍순하 이훈/이항선 TIM 캐나다
12644 McDonaid Rd. Domain, Manitoba R0G 0M0 CANADA
충성 2,3순 전영수/장민희 한국국제교회 러시아
52-28, ROOSKAYA ST. VLADIVOSTOK RUSSIA JIBON YOUNG SOO
충성 4,5순 황순희 제미정 YWAM 영국
(471-742)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주공 1단지 108-1403
평강 2,3,4순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8동 106호 / 전화: 955-7894

중동 공동체: 민병오 목사 - 미얀마 인타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종로 1순 이방 현지인 미얀마
C/O U Nho Hang Fishery Popartment Nyangshwe S. Shart State Myanmar
종로 2,3순 최다나엘/김택 TIM 캐나다
315 Woodland Acres Cres, Maple Ontario Canada L6A 1G1
종로 4,5순 김미향 중동선교회 중동 (143-183)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482-5 머릿돌 교회 6층 중동선교회 본부 / 전화: 3436-3347
종로 6순 홍순하 백인숙 GMTIC 한국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GMTIC 본부 / 전화: 2649-3197 백인숙 간사
중화남 2,3순 변희숙 WEC 한국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승진빌딩 4층 WEC 국제선교회 / 전화: 529-4552
중화남 4,5순 이대경/박현선 TIM 캐나다
#115 TOWNHOUSE APARTMENT 1ST ANDREW'S HALL, 6040 IONA DRIVE VANCOUVER, BC V6T 2P8 CANADA
중화남 6,7순 이태영/송현복 GMTIC 한국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GMTIC 본부 / 전화: 2649-3197 백인숙 간사
중화남 8,9순 정철화/조경자 GBT 푸퉁아기
P.O. BOX 24, SIL UKRRUMPA, EHP444 PAIPIA NEW GUINEA

용산 공동체: 송경복 목사 - 아시아 A 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용산 1,2,3순 김서로/은위로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4,5,6순 김스태반/민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7,10순 석광훈/임기영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11,12순 성다윗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13,14순 유진광/신승진 HOPE 동북아 (135-6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52호 HOPE 본부 / 전화: 533-6057 전연주 간사
용산 15,16,17순 최상윤/허은정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성경포진공동체: 여성민 목사 - 아시아 B 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성경 1,2,3순 김순중/송지수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성경 4,5,6순 소현수/박호경 2C동태선교회 동북아 (143-873)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70-2 현대상가 4층 21c 동북아선교회 / 전화: 444-0585
광진 1,2,3순 강성실/최은혜 HOPE 한국 (135-6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52호 HOPE 본부 / 전화: 533-6057 전연주 간사
광진 4,5,6순 아리몬츠/박영희 TIM 홍콩
"ARIE,YUNG HEE,DANIEL MUNTZ,HONG, 102 SHATINTAU VILLAGE, SHATING, NT,HONG KONG S.A.R"
마가 1,2,3순 이다모데/이오롯 경찬 홍콩
Timothy & Ruth Lee-Room 702-705, 7/F, Corn Yan Center, No.3 Jupiter street, North Point, Hong Kong
마가 4,5순 조문상/김영련 BEE 싱가포르
10 Gilstead Rd, Bouiah House #02-10 Singapore 309064
누가 1,2,3순 신명기/민에스터 GBT 동북아 425-600 안산 우체국 사서함 131호 성경번역 선교회
야베스 1,2,3순 박찬수 인터파 동북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야베스 4,5순 김홍/김린 교통신교동 동북아 (122-943) 서울 은평구 진관동 406-9

동대문 남양주: 신도배 목사 - 터키 투르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동대문 1,2,3순 김진영/임은경 C&M, 소아시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온누리 2000선교위원회 / 전화: 795-9065
동대문 4,5,6순 김다나엘/이하나 TIM 소아시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개혁 1,2순 김에스터 YWAM 터키 2000선교부(전화: 793-9686(교 216))
중앙 3,4,5순 최현외/김명옥 Mary Shirh 남아공
"YeonHo & MyoungOk Choi YWAM Worcester, P.O. BOX 926 Worcester 6849, South Africa"
구리 1순 무함메드 투르크
온누리 미션으로(793-9686(교 216))
귀 2,3순 배미 2순 심하일/정진주 YWAM 소아시아 2000선교부(전화: 793-9686(교 216))
병 3,4,5순 배미 1순 이사방/김은혜 YWAM 소아시아 2000선교부(전화: 793-9686(교 216))
마리아 2,3,4순 정이레 ITM 소아시아 (158-074)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81-12 2층 ITM 본부 / 전화: 695-1451
마리아 5순 무함메드 투르크
온누리 미션으로(793-9686(교 216))
마리아 6,7,8순 황다모데/송예나 인터파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노원외교부 공동체: 최성림 목사 - 인도네시아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공공 5,6순 김연수/최애숙 GBT 인도네시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리 성원아파트 102-1004
상계 3,4,5순 김의경/박연화 GBT 인도네시아
425-600 안산 우체국 사서함 131호 성경번역 선교회
월계 1,2,3순 김요한/맹도브라 OMF 인도네시아
JL. Rungkut Asri/Lor IV R L I D / No.16 Surabaya 60293 Indonesia
월계 4,5순 박관구/안은숙 TIM 인도네시아
"JACARTA ANTIOCH INTL COMMUNITY-JALAN PERMATA HIJAN RAYA BLOCS KAV 4&5 GROGOL UTARA JAKARTA SALATAN, INDONESIA"
외곽 3,4순 홍기선 서재춘/아선희 YWAM 인도네시아
P.O BOX 1332 BANDUNG 40013 INDONESIA
중계 2,3순 손창환/안은숙 OMF 인도네시아
(143-203)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596-6 삼진빌딩 501호 OMF 본부 / 전화: 02-455-0261

하계 1,2,3순 이우영/김조은 HOPE 인도네시아
JL. BAGUSRANGIN NO 5 BANDUNG 40132 INDONESIA

성북 공동체: 김동민 목사 - 우즈벡 우즈벡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강북 1순 고영호/유연나 인터파 중양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강북 2순 안상기/김동연 TIM 중앙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강북 3순 성기호/김희우/유연나 인터파 중양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성북 2순 최현우 TIM 중앙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북 3순 강요한/유미라 인터파 중양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성북 4순 정하진 YWAM 중앙아
POSTPACH 203 ATTN:HWAN SOOK JUNG(BESHARIK), CH-4950 HUTTWIL SWITZERLAND
성북 5순 안상기/김동연 TIM 중앙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북 6순 박상호/최미옥 인터파 중양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성북 7순 고영호/유연나 인터파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성북 8순 최현외/김명옥 Mary Shirh 남아공
"YeonHo & MyoungOk Choi YWAM Worcester, P.O. BOX 926 Worcester 6849, South Africa"
성북 9순 김스태반/민 TIM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동방 1,2순 김스태반/민 TIM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동방 3순 김요한/유미라 인터파 중양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동방 4순 최현우 TIM 중앙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동방 5순 박상호/최미옥 인터파 중양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파본부 / 전화: 796-3541 1#
동방 6순 최현우 TIM 중앙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동방 7순 정하진 YWAM 중앙아
POSTPACH 203 ATTN:HWAN SOOK JUNG(BESHARIK), CH-4950 HUTTWIL SWITZERLAND
동방 8순 안상기/김동연 TIM 중앙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강남A 공동체: 김동원 목사 - 말레이시아 이반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말음 1,2,3순 위요한/이유나 TIM 말레이시아
"No. F-13, Menara Impian Jalan Sultan Taman Tar Ampeng 68000, Selangor Malaysia"
말음 4순 새 1순 찰스 김 무소속 미국
525 E.SEA SIDE WAY #704 LONG BEACH, CA 90802
사방 2,3,4,5순 조종환/임기영 GBT 푸퉁아기
"Mr. & Mrs. Joong-Hwan Jo / SIL P.O. Box 83, UKARUMP EHP 444 PNG"
소망 1,2순 정규재/박정신 GMP 한국 (158-803) 서울 양천구 목2동 231-163 144호 GMP / 전화: 02-653-4270
상 3,4순 윤 1순 정성일/황영옥 OMF 한국 (143-203)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596-6 삼진빌딩 501호 OMF 본부 / 전화: 02-455-0261
운주 2,3순 임용식/안재영 경찬 싱가포르
Singapore Post Center/Post Office, P. O. Box 447, Singapore 914015 / 전화: 65-6280-1550
운주 4,5,6순 한성준 경찬 대만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신앙 본부 / 전화: 796-9700

강남B 공동체: 박달환 목사 - 아시아 C 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안성 1,2순 김스태반/정하나 GBT 동북아 425-600 안산 우체국 사서함 131호 성경번역 선교회
한 3,4순 김옥희 GMP 일본
"4-28-16, DAISAN, KANEKO 102 AYASE ATACHIKU TOKYO 120-0005 JAPAN"
강북희망 1,2순 김홍선/정애리 GMP 일본
日本 東京都 新宿區 戸山 2- 33-1007
강릉희망 3,4,5순 다미야세이코 TIM 일본
"Amano blg 2/2237-16, kay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마리아 1,2,3순 최애숙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희망 1,2,3순 배종환/박은영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희망 1,2,3순 이우규/김숙일 OMF 일본
26-1, Kita 4jo Nishi 11 chome CHUUKU SAPPORO, JAPAN
송파희망 1,2순 이영숙 국제제자선 일본
"902-1-18-16, EBISU SHIBUYAKU TOKYO, JAPAN"
송파희망 3,4,5순 허정란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한 3,4순 홍순하 김사라/막다워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충성 2,3,4순 김은혜 WEC 동북아
C/O Mike Galpin P.O.Box 358 CHIANGMAI 50000 THAILAND
희망 1,2,3순 유레베카 경찬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신앙 본부 / 전화: 796-9700
희망 4순 최희 1순 유진성/윤미리 HOPE 동북아 (135-6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52호 HOPE 본부 / 전화: 533-6057 전연주 간사
희망 2,3,4순 김도복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초A 공동체:곽성환 목사 - 스리랑카 바다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나해 1,2순 박영근/추행란 TIM 스리랑카
"TIM INSTITUTE(PV)LTLD, Millagahawatta Bolatte Ganemulla, Sri-Lanka"
해 3,4,5순 최이슬/김은미 TIM 스리랑카
"TIM INSTITUTE(PV)LTLD, Millagahawatta Bolatte Ganemulla, Sri-Lanka"
드림 2,3,4,5순 박일규/신인순 TIM 스리랑카
"TIM INSTITUTE(PV)LTLD, Millagahawatta Bolatte Ganemulla, Sri-Lanka"
드림 6순 배종환 김영근/추행란 TIM 스리랑카
"TIM INSTITUTE(PV)LTLD, Millagahawatta Bolatte Ganemulla, Sri-Lanka"

서초B 공동체: 박인용 목사 - 스리랑카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배움 2,3,4순 정용택/진순애 바울선교회 스리랑카
"490-1A, HAVELOCK RD, COLOMBO 6, SRI LANKA"
배움 5,6,7순 레베카 TIM 스리랑카
"TIM INSTITUTE(PV)LTLD, Millagahawatta Bolatte Ganemulla, Sri-Lanka"
섬길 1,2순 김에스터 OCC 파키스탄
창남연기군 금남연 공묘리 113번지
섬길 3,4,5,6순 이지현/김경희 TIM 스리랑카
"TIM INSTITUTE(PV)LTLD, Millagahawatta Bolatte Ganemulla, Sri-Lanka"

서초C 공동체: 박인용 목사 - 스리랑카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은혜 1,2,3,4순 도유환/이경희 TIM 미국
"1594, North Allen Ave. Apt. #5 Pasadena, CA, 91104 USA"
축복 1,2,3,4순 민성기/최윤숙 TIM 스리랑카
"TIM INSTITUTE(PV)LTLD, Millagahawatta Bolatte Ganemulla, Sri-Lanka"
축복 5,6,7순 강요한/박선희 TIM 인도
"No. 429, 3rd Cross, 4th Block, 1st Stage, HBR Layout, Bengaluru 560043 INDIA"
행복 1,2,3순 김교신 연인외선교회 한국
(408-827) 인천시 북부평구 부평6동 616-1 안디옥 선교회
행복 4,5순 조윤정 YWAM 스위스
Yune Joeng Cho, JEM Chatel CH-1186 Essertines-sur-rolle SWITZERLAND
행복 6,7순 지구이/장미 YWAM 인도
2000선교부(전화: 793-9686(교 216))

강릉송파공동체: 나봉길 전도사 - C국E시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강릉 1,2순 김안선/김수자 OCC 일본
3-33-9-101 EHARACHO NAKANOKU TOKYO JAPAN 165-0023
강릉 3,4순 김옥희 GMP 일본
"4-28-16, DAISAN, KANEKO 102 AYASE ATACHIKU TOKYO 120-0005 JAPAN"
강릉희망 1,2순 김홍선/정애리 GMP 일본
日本 東京都 新宿區 戸山 2- 33-1007
강릉희망 3,4,5순 다미야세이코 TIM 일본
"Amano blg 2/2237-16, kay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마리아 1,2,3순 최애숙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희망 1,2,3순 배종환/박은영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희망 1,2,3순 이우규/김숙일 OMF 일본
26-1, Kita 4jo Nishi 11 chome CHUUKU SAPPORO, JAPAN
송파희망 1,2순 이영숙 국제제자선 일본
"902-1-18-16, EBISU SHIBUYAKU TOKYO, JAPAN"
송파희망 3,4,5순 허정란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남분당공동체 : 김치수 목사 - 멕시코 타라후마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평 1A, 8, 2, 3, 6	A 김일영/고영주	TIM	한국
평 4, 5, 6, 8	박성근/김인옥	TIM	멕시코
*Sung Koun Park AP/12-2-30, Puebla, Pue. C.P. 72131 Mexico			
분당 7, 8, 9	신기숙	경찬	미국
739 NE 90th D-7, Portland, OR, 97220 U.S.A			
분당 9, 10, 11	유영춘	YWAM	스웨덴
UNGDOM MED UPPGIFT YWAM RESTENAS 32200 459 96 LJUNGSKILE SWEDEN			
분당 11, 12, 13	홍요셉/장정애	TIM	멕시코
7161 MILLS ST. CHULA VISTA, CA 91913 USA			
성남 1, 2, 3	홍은선	GBT	미국
*Miss Sunny Hong/WYCLIFFE BIBLE TRANSLATORS Korean Relations office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미리안, 용인 1, 2, 3, 4, 5	최보인/천정옥	GMP	한국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62-5 GMP(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 / 전화: 031-419-6792			
용인 2, 3, 4, 5	최광규/주선자	GMP	도미니카
*Kwang Kyu, Choi / APARTADO POSTAL 25114 EMBAJADOR SANTO DOMINGO, REPUBLICA DOMINICANA			
용인 4, 5, 6, 7, 8, 9	이승현	TIM	도미니카
C/O LYNX P.O. BOX 407652 FT. LAUDERDALE			

Ukarumpa EHP 445 PNG

998 10, 11, 12

정민영/이재진 GBT 한국

*Mr. & Mrs. Min Young Jung / 6612 Mountain Cedar Lane Dallas, TX 75236 USA / 전화: 1-972-283-4966

998 13, 14

권애진 경찬 싱가포르

Singapore Post Centre/Post Office, P. O. Box 417, Singapore 914015 (전화 796-9700)

998 15, 16, 17

허남석 경찬 미국

(11820 S.W. 7th St. Beaverton, OR, 97006, USA/전화: 1-503-626-8907)

동독A공동체 : 유선시 목사 - 중국 하미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말을 1, 2, 3, 4	한소량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5, 6, 7, 8	이보라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1, 2, 3, 4, 5	한다니엘/정진화	경찬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말을 5, 6, 7, 8	정진숙	YWAM	싱가폴
YWAM GEYLANG P.O. BOX 25 SINGAPORE 913801			
말을 3, 4, 5	정재순/홍정옥	GBT	미국
JeSoun & JungOk Chung / SIL P.O. Box 217, Ukarumpa EHP444, Papua New Guinea			
말을 5, 6, 8	김소영	경찬	영국

998 10, 11, 12

윤영숙 YWAM 캐나다

706 Reggae Court Spring Lake, NC 28390-3026 USA

수원 1, 2, 3

이우민/오미경 GBT 중앙아

425-600 안산 우체국 사서함 131호 성경번역 선교회

수원 4, 5

이철우/김경영 OMP 필리핀

*TIS, P.O. BOX 80642, Davao City, 8000, PHILIPPINES

왕인 1, 2, 3

이원희/김순자 인터람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1#

인제 2, 3

박희정 YWAM 남아공

29 Roseville Rd. Pulham, London SW6 7BN U.K.

왕 4, 7, 12, 13

임창대/박인나 HOPE 동북아

(원동문화개발기부) 서울 강남구 수서동 7 5 0 - 1 (일요일은 오후 2시까지) / 전화: 445-0390

왕 4, 5, 6, 7, 8

김한나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왕 3, 4, 5, 6, 7, 8, 9

이요셉/김수일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왕 2, 3, 4, 5

이요한/김은주 TIM 영국

*Regents Theological College English Language Centre, London Road Nantwich, Cheshire CW5 6LW, England

미프공동체 : 이재훈 목사 - 중국 위구르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마태 1, 2, 3	이베드로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마태 4, 5, 6	김미선	경찬	대만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마태 7, 8, 9, 10	배광숙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마태 3, 4, 5	윤경숙	경찬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마태 6, 7, 8, 9	이꽃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시대문공공동체 : 김영희 목사 - 모잠비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창 1, 2, 3, 4	고진우/혜연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언히 1, 2, 3	오대일/엘렌	YWAM	미국
David and Ellen Ross 13717 Cascadian Way Everett, WA 98208 USA			
창 4, 5, 6, 7, 8, 9	이성우/김영미	GBT	중앙아
425-600 안산 우체국 사서함 131호 성경번역 선교회			
창 3, 4, 5, 6, 7, 8, 9	정보인	경찬	영국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창 2, 3, 4, 5	이아브라함/유사라	국제선교회	말레이시아
332B-19 GCB court Jalan Ampang 50450 KL, Malaysia			

왕권공공동체 : 이양욱 목사 - 이스라엘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말을 1, 2, 3, 4	류도혜/김주희	TIM	이스라엘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5, 6, 7, 8, 9	윤서현/서석남	TIM	이스라엘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3, 4, 5, 6, 7, 8, 9	오세동/정선희	TIM	이스라엘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1, 2, 3, 4, 5	Kath Intrator	메시안신학	이스라엘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35-135 영진빌딩 302호 KIBI / 전화: 792-7075			
말을 5, 6, 7, 8, 9	이민복	JOY	중동
JOY 선교회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274-6 / 전화: (02) 929-3652-4			
말을 4, 5, 6, 7, 8, 9	김성현	Mary Ships	미국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48-3 성북APT 101 / 전화: 02-762-5957			

강서김포공동체 : 한상현 목사 - 동글 브리아트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말을 1, 2, 3, 4	김배배/김조현	TIM	몽골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5, 6, 7, 8, 9	이철희/원근복	TIM	미국
16124 Rosecrans Ave. Apt #19J La Mirada CA90638			
말을 8, 9, 10	한병률	인터람	몽골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0#			
말을 11	김성현	인터람	몽골
*RHEE CHANG OK, U-B 210201 P.O. BOX 102 BAGANJUU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말을 5, 6, 7, 8, 9	박경수/황미옥	YWAM	미국
Abe Park or Kyungsoo Park 75-5851 kuakuni hwy #296 kailua kona HI 96740 U.S.A			
말을 3, 4, 5	오석환/제니우	CKAA	미국
13444 Moore Street Cerritos, CA 90703 USA			
말을 5, 6	오연수	YWAM	미국
(152-035) 서울시 금천구 시흥 5동 220-106			

원림공동체 : 한홍 목사 - 동경/우에다

말을 3, 4, 5, 6, 7, 8, 9	정재운/오광자	TIM	일본
日本東京都 新宿区 市谷 本村町 3-25 1階 東京シラ / VISION 教會			
말을 2, 3, 4, 5, 6, 7, 8, 9	김희와/오광자	영광순	일본
김희희/최희영 TIM 일본			
*YACHIO JUO CHRIST CHURCH AMAND BLDG. 2, 3FL., 2237-16 kayaba yachiyo-shi chiba-ken Japan			
말을 3, 4, 5, 6, 7, 8, 9	이영순	YWAM	스웨덴
RESTENAS 32200 45993 LJUNGSKILE YWAM, SWEDEN			

과 함께 하세요

FL33340 S.D.R.D

서빙고공동체 : 김성원 목사 - 인도네시아 발롱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온유 1, 2, 3	이석희/박세욱	TIM	인도네시아
Komplek Bukit Permata Jl. Merbuk Blok I/29 Cibubur Jakarta - Timur Indonesia 13720			
온유 3, 4, 5	이승현/김영오	YWAM	인도네시아
P.O. BOX 1332, YWAM, Bandung 40013, INDONESIA			
온유 5, 6, 7, 8, 9	김순기/이은수	TIM	뉴질랜드
144 HUTCHINSON RD HOWICK, AUCKLAND N.Z.			
온유 9, 10, 11, 12	박재희	GMP	한국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62-5 GMP(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 / 전화: 031-419-6792			
온혜 3, 4, 5	안미희	YWAM	인도네시아
수원시 팔달구 영동동 국동아파트 615-303 (전화: 031-203-8524)			
온혜 6, 7, 8, 9	유영연	YWAM	인도네시아
EUNICE Eun-Young Yoo(SBS) Schulen fur Jungerschaft Dort303 3226 wuler bei soedorf SWITZERLAND			
온혜 9, 10, 11, 12	임연신	GBT	인도네시아
(430-0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67-24 한남 APT 106호			
말을 3, 4, 5	정현/정미옥	한나선교회	인도네시아
(135-604) 서울 강남 우체국 사서함 409호 한나선교회 본부 / 전화: 515-6336			
말을 6, 7, 8, 9	전환호/김혜란	창조과학회	인도네시아
*J.I. Rungkut Mopan Barat Al No. 11, Surabaya 60293, Indonesia			

영봉포구공동체 : 최원준 목사 - 멕시코 미헤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구로 1, 2, 3, 4	김선광/구자현	TIM	멕시코
*RIO GRU/JALVA #108, Inaac. LOS SAUCES OAXACA, OAXACA, C.P. 68010			
구로 5, 6, 7, 8	김수선	TIM	나리구아
*36 Station Road, Padiham, Burnley, Lancs, BB12, 8EP, England			
말을 1, 2, 3, 4	박성민/정희진	GMP	에콰도르
CASILLA 17-17-752 C.E.Q. QUITO ECUADOR			
말을 5, 6, 7, 8	박은용/김연아	TIM	브라질
*25M 선교센터: Rua Jos Paulino 874/ 22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CEP 01120-001			

여의도 공동체 : 전병택 목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여의도 1, 2, 3, 4	이옥연/김정숙	TIM	도미니카
*e/o LYNX P.O. BOX 407652 FT. LAUDERDALE FL, 33340 Santo Domingo, Rep. Dominicana			
여의도 5, 6, 7, 8	마리토/이종은	베다니 College	네덜
*Makto and Chong-oun Fukuzawa P.O. BOX 8975 EPC 1623 Kathmandu, Nepal			
여의도 8, 9	심재옥/장선애	GBT	파라과이
*Mr. & Mrs. Jae Wook Shim / Box 252, SIL,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동독B공동체 : 박철용 목사 - 아시아 D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말을 1, 2, 3, 4	김천준/김지혜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5, 6, 7, 8	최선호/김윤오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3, 4, 5, 6	유정근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1, 2, 3, 4	이주복/김신애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5, 6, 7, 8	이영란	TIM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관악급현공동체 : 이기현 목사 - 캄보디아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말을 1, 2, 3, 4	권능/오성명	GO	몽골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1#			
말을 5, 6, 7, 8	박성희/박종은	YWAM	미국
1306 MILL CREEK BLVD, N202 MILL CREEK, WA 98012 USA			
말을 3, 4, 5	보나렌 볼라타디 MUP	캄보디아	
C/O BRIAN MAHES PO BOX 2178 PHNOM PENH CAMBODIA			
말을 6, 7, 8	안영희/한경선	필리핀선교회	한국
(151-01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1 필리핀선교회 본부 / 전화: 879-1192			
말을 9, 10, 11, 12	이영복	필리핀선교회	캄보디아
P.O. BOX 38 PHNOM PENH CAMBODIA			
말을 3, 4, 5	정운길/허정옥	GP	태국
*Rev. Un Kil Jung 2270 Hassell Dr. #107 Hoffman Estates, IL 60195 U.S.A			
말을 6, 7, 8, 9	심원희	경찬	캄보디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말을 2, 3, 4	정석천/신병영	국제기어	태국
*Rev Seok Cheon, Jung P.O. Box 1144 Ramkamheang Bangkok 10241 Thailand			
말을 5, 6, 7, 8	장성근	YWAM	필리핀
YWAM P.O. BOX 252 BAGUIO CITY 2600, PHILIPPINES			

과천수원공동체 : 신기섭 전도사 - 아제르바이잔 아제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과천 1, 2, 3	오하늘/김소량	인터람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1#			
과천 4, 5, 6	김요셉/이로임	인터람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1#			
과천 7, 8, 9	안디옥	인터람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1#			

안양안산공동체 : 안광국 목사 - 방글라데시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광명, 영등포, 용인	박영화/윤복태	TIM	방글라데시
PO BOX 6036? Gulshan Dhaka Bangladesh			
신분 1, 2, 3	한우민/강영희	KDAB	방글라데시
H-459 R-B DOHS BARIDHARA DHAKA BANGLADESH 1206 HAN YOU-MIN			
말을 4, 5, 6	강철주/백신애	YWAM	한국
(695-812)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82-1			
안산 1, 2	박우열/이현영	GP	방글라데시
HN5, RNI, Sector 6, Uttara, Dhaka			
안산 3, 4	홍영순/김숙경	GMP	일본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62-5 GMP(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 / 전화: 031-419-6792			
평촌 1, 2	한정국/이재민	UPMA	한국
(138-20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7-3 UPMA 본부 / 전화: 402-4967			
평촌 3, 4	김남수/이덕선	GBT	파라과이
*Mr. & Mrs. Nam-Soo Kim / Box 18, SIL, Ukarumpa EHP 444 Papua New Guinea			

광명인선 : 한관훈 전도사 - 터키 쿠르드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광명 1, 2, 3, 4	김순중/천시랑	인터람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1#			
광명 5, 6, 7, 8	장영일	WBC	소아시아
(197-199)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승진빌딩 4층 WBC 국제선교회 / 전화: 529-4552			
말을 9, 10, 11, 12	손승민/송이레	인터람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1#			
부천 2, 3, 4	김민기/송두리	GO	중앙아
동작구 신대방1동 경남교수 APT 102-1902			
부천 5, 6, 7, 8, 9	박성원/장혜정	TIM	미국
*Seong hyun Park #8 Hammond St. #1 Cambridge, MA 02138 USA			
말을 9, 10, 11, 12	황재사라	인터람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0#			
부천 2, 3, 4, 5	김시랑	TIM	소아시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79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을 6, 7, 8, 9, 10, 11, 12	이병	TIM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인터람본부 / 전화: 796-3541 0#			
안산 1, 2, 3	손승택/윤영아	경찬	싱가폴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안산 6, 7, 8	김은혜	YWAM	미국
75-5851 KUAKINI HIGHWAY KAILUA-KONA, HAWAII 96740 USA			



“무슬림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슬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들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무슬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무슬림에 대한 오해나 우리 안에 있는 편견,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꺼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 강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요 14:12~14)

무슬림들은 전능하고 지존한 유일신의 존재를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존재이고 개인적인 구원자로 그분을 알거나 관계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히 8:8-9) 우리는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온전한 계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1. 하나님을 이해하고 두려움에서 놓임받도록

무슬림 세계관은 초자연적인 존재들, 즉 천사와 진(jinn)이라고 불리는 악령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진은 큰 두려움의 대상이고 병이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미신은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을 통제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삶을 살게 만든다. 많은 무슬림들에게 영향을 주는 두려움에 대적하여 기도하라.(요일 4:18)

갈 4:22~25절에는 이삭이 노예상태를 낳는 결과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이슬람은 순종을 뜻하고 무슬림은 그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은 예수를 통해 종에서 아들과 딸로 변화받는다(갈 4:7).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을 무슬림들이 알게 되도록 기도하라.(마 18:3)

이슬람은 낙원에 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엡 2:8-9). 그러나 이



것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많은 무슬림들이 죄 사함의 근거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회개나 용서의 필요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선 겸손히 행해야 하고(벧전 5:6) 회개해야 하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친다.(마 6:14~15) 그들이 죄의 확신을 가지고 되고 진정한 회개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

신과 나누시도록 요청하라.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초자연적인 만남의 결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꿈과 환상을 경험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확신을 가져오실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요 16:8)

용서할 수 있게 되도록 그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기도하라.

2.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무슬림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치시도록(롬 8:26) 하고 그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당

라마단(무슬림들의 한달 동안의 금식)이란?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라마단은 아주 특별한 달이다. 그 이유는 내적 성찰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절제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마단 30일동안 해 뜰때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 담배, 부부관계등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또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말을 삼가해야 하고 향수 냄새를 맡거나 심지어는 화를 내거나 부정직한 것을 보는 것조차 삼가 해야 한다. 라마단이라는 말은 대지를 불태우는 뜨거운 열과 그 메마름을 뜻하는 아랍어의 어근 라미다 혹은 알-라마드에서 파생되었다.

무슬림들은 평소에도 자발적인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라마단 기간중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번째 달이다. 그 달의 시작은 달의 모양과 천문학적 계산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슬람 월력은 매년 11일 내지 12일이 빨라지므로 매년 라마단 기간도 바뀌게 된다.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은 타라위라는 특별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 기도는 20개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함께 모여 한달동안 코란전체를 낭독하게 된다. 라마단의 마지막 열흘은 특별 축복의 기간이라 부르는데 특히 27일째 되는 권능의 밤은 코란의 첫게시가 있었던 날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많은 무슬림들은 이 마지막 열흘을 더욱 신성히 여겨 밤새 기도하며 코란을 낭독한다. 라마단은 금식을 푸는 축제인 사흘동안의 금식 종료절을 지키면서 끝마치게 된다.

*

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개강좌
 중국인의 디지털 생활(Chinese Digital life)
 10월 28일(월) 오후 7:00/ 경찬홀
 강사: 김용준 교수(성균관대)
 문의: 오주영 간사(016-349-7203)
 김화수 팀장(011-448-4262)

아프간 지역자 모집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등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㉕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이슬람 이해와 역라미단 기도 안내
 10월 29일(화)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강사: 김마가 선교사
 문의: 795-9085

㉖ 2002 역라미단 연합기도회
 은누리교회 양재 온유·절제 성전
 11월 2~30일 매주 토 오후 6:30
 인도: 최바울, 주누가 선교사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선교부
 (www.loveisl.org)
 문의: 유미숙 자매(016-325-1273)

불어권 중보기도
 10월 10일~11월 14일 매주 목 오후 7:30
 은누리교회 양재 자비성전
 문의: 최옥 (011-9783-3417)
 허경은 집사 (018-263-1841)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안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정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 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스텝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애정·경험이 있는 분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김창도 간사 (011-271-4558)

요셉학교 교사
 문의: 김지연 전도사 (017-263-3476)

㉗ 은누리미션 파키스탄어예배
 전기보온밥솥(중고) 1개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노트북
 랩톱노트북에 유학은 외국인 신학생이 쓸 노트북을 구합니다. (워드만 되도록 좋습니다.)
 문의: 원영기, 박종진 간사(교 731, 732)

은누리 세계선교센터
 -종교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KIBI / 792-7075
10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10월 31일(목) 오후 7:30 / 서빙고 302호
 강사: 리처드 고티어 (에벤에셀 총재)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8-6001
제1기 InterCP 남성비전 스쿨
 10월19일~12월21일(총 10주)/ 미전도종족 선교관심자와 헌신자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전하길 원하는 직장남성(35~55세) 대상
 접수: www.intercp.net
 문의: 김경애 간사 (796-3541, 교 226)

에젤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젤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2002, JDS 아웃리치 결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예수제자학교(JDS)의 하이라이프는 아웃리치다. 강의실에서 배우고 들은 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1천5백84명이 참여했는데, 이중 JDS는 청년대학부(8백61명)에 이어 2위(1백92명)를 차지했다.

JDS 저녁반은 총 열팀 94명을 파송했다. 이들은 C국과 T국을 찾아 선교사를 위로하고 사역을 도왔다. 주간반은 총 아홉팀 88명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북음이 증거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사역을 도왔다.

가나인 JDS의 여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아웃리치를 뒤돌아 보며 C국을 다녀온 김현정 팀장은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출발한 21일부터 돌아온 31일까지 매일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시고 하루 하루를 보내며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며 탐원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그 순간들이 지나가는데 아쉬웠다. 꿈같은 10일이었다

누가 아웃리치를 힘들다 했는가? 버스를 60시간이 넘게 타고 농부들의 담배 냄새, 밭 냄새, 어린아이 귀저기의 똥 냄새, 갓은

냄새들과 벼룩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 모두 아이들 같이 키득거리며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거야? 를 연발했다. 비가 새는 버스에서 우산을 펴두고 몸이 젖어도 우린 마냥 해피게 웃었다.

우리 팀 하나하나 그들이 많았기 기도하며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자매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님께 감사했다.”

예수제자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일상의 삶에서 떠난 아웃리치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했다. 또한 지구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훈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름 아웃리치는 학생들의 삶을 새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철 chol@onnuri.or.kr



JDS 주간반

- 샤론팀(말레이시아 / 팀장 여경자)
- 예수향기팀(스리랑카 / 팀장 방현순)
- 여호수아팀(러시아 / 팀장 차진애)
- 임마누엘팀(몽골 / 팀장 윤서연)
- 이레팀(스리랑카 / 팀장 전인진)
- 마하나임팀(우즈베키스탄 / 팀장 신용애)
- 생수의 강팀(우즈베키스탄 / 팀장 최중임)
- 에스더팀(필리핀 / 팀장 박아영)
- 베데사다팀(C국 / 팀장 김현정)

JDS 저녁반

- 인도팀(인도/ 팀장 강경연)
- 아이템(일본 우에다 / 팀장 김정희)
- JESUS 마쓰리팀(일본 오사카 / 팀장 북무석)
- 여호수아팀(스리랑카 / 팀장 정영기)
- 일심동체팀(C국/ 팀장 정수업)
- 천사모팀(C국 / 팀장 정도운)
- 프아유팀(C국 / 팀장 황용영)
- 부활팀(T국 / 팀장 이종배)
- 드림팀(T국 / 팀장 백옥녀)
- 십자가 군병팀(T국 / 팀장 문지현)

*

아프간 사역자 모집

아프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덧입고 현장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기도모임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이슬람의 두얼굴”
11월 5일(화) 오후 7:00 /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강사: 김동문 선교사(이슬람의 두얼굴, <사담 후세인>의 저자)
문의: 795-9085

2002 역라미단 연합기도회

11월 2~30일 매주 토 오후 6:30 / 온누리교회 양재 온유 · 절제 성전 / 인도: 최바울, 주수가선 교사 /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선교부 (www.loveisl.org)
문의: 유미숙 자매(016-325-1273)

볼어권 중보기도

10월 10일~11월 14일 매주 목 오후 7:30
온누리교회 양재 자비성전
문의: 최욱 (011-9783-3417)
허경은 집사 (018-263-184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안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치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봄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스텝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 · 애정 · 경험이 있는 분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김창도 간사 (011-271-4558)

요셉학교 교사

문의: 김지연 전도사 (017-263-3476)

온누리미션 파키스탄어배

전기보문방송(중고) 1개

외국인 신학생을 위한 노트북

햇빛트리나이에 유학온 외국인 신학생이 쓸 노트북을 구합니다.
문의: 원영기, 박종진 간사(교 731, 73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터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한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임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교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명확한 자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8-6001

제1기 InterCP 남성비전 스쿨
10월19일~12월21일(총 10주) / 미전도종족 선교관심자 와 헌신자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길 원하는 직장남성(35~55세) 대상
접수: www.intercp.net
문의: 김경애 간사 (796-3541, 교 226)

에zell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01

1만 사역자 파송식

오늘 서빙고 1부예배(오전 7시)
시 황의서(국내), 황규호, 한복수
(미국)성도를 일만사역자로 파송
한다. **관련기사 5면**

02

EEF 한국지부 창립

유대인 귀환 사역 지원 · 자원봉사자

EEF 한국지부 창립식이 지난 11월 4일(월) 서빙고 비전홀에서 있었다. EEF(Ebenezer Emergency Fund)는 성경의 예언 성취를 위해 구소련연합에 사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돕고 있는 기독교 단체로 1991년에 창설, 현재 구소련 내 40여 개의 사무실과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의 지부를 운영하며 국제적인 협력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온누리교회와 교회 내 이스라엘 선교부, KIBI 등에서 조금씩 참여,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오다가 이번에 본부(영국)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인 한국지부를 창설하게 되었다(대표 : 송만석 장로).



고티어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과 또 돌아오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일들을 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송만석 장로도 한국지부 창립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역에 참여하라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성도들의 동참으로 한국교회가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 문의 : KIBI(792-7075)

03

파송받는 1만사역자

“기도해 주세요”



황규호(미국)

1.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2. 주님과 몸뚱이교회를 더욱

욱 잘 섬기도록

3. 이를 위해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도록
4. 세계 합당한 교육과 훈련, 사역의 기회를 위해



한복수(미국)

1. 미국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2.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3. 두 아들의 앞날을 위해
4. 새 환경의 적응에 주님이 인도하시길
5. 주님의 섭리하심을 위해



황의서(국내-시립대 교회개척)

1. UC-시립개척이 잘 이루어지도록(UC-대학교회)
2. 대학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3. UC-비전이 전국과 세계에 대학 교회설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4. 교수들간의 교제가 주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5. UC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선교지에서 온 **평지**

몽골내 소수민족 바양을기 카작족 사역



바양을기는 몽골의 가장 서쪽에 자리해 울란바토르에서 1,700킬로 떨어진 곳으로 소수민족인 카작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접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카작인들이 대부분이고 90%가 모슬렘인 지역입니다. 모슬렘인 관계로 아직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들만 몇몇이 있을 뿐, 아직도 한국 선교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양을기에 가기위해 일정을 맞추었는데 비행기 표가 없었습니다. 1천7백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을 차로 가면 밤낮으로 4일을 달려야 합니다. 목요일에 아웃리치를 떠나는데, 화요일까지도 방법을 못 찾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개인 항공사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 찾아가 취지를 말하고 물었더니, 발 벗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운행에 1만불인데 4천불까지 할인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 선교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가격이었지만, 경비와찬양에서 준비한 아웃리치 예산은 2천불 정도였

기 때문에 모자란 재정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천불이면 하이트 교회의 몇 달 예산인지만 쉽게 결정할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면 감행하겠노라고 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큐티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니...' 이 말씀을 본 순간 숨이 멎는줄 알았습니다. 바양을기에 이르러 닫혀 있던 그 땅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통장잔고를 토크털어서 가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조그만 비행기가 착륙하니 여러 사람이 모여 들었습니다. 나는 연세 병원에 있는 외과의사인데 진료해주러 왔다며 '도지사를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마침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도지사를 잘 안다며 소개해주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문을 열어 놓으신 하나님
다음날부터 도립 중앙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자체 방송 시설로 진료한다고 방송도 해 주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믿음이 이겨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바양을기에서 저는 본의아니게 유명해져, 병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언젠가 다시 올거냐고, 기다리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저는 이일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약 재정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치 않았다면 이 일들을 경험할수 있었을까? 사역을 잘 마친것도 감사하지만, 저의 믿음이 더 자란것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박관태 사역자 (몽골)

기도제목

계속되는 경제와찬양 사역을 위해 바양을기 사역을 위해
-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가운데, 한 영혼 한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땅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위한 기도

- 박성근/김인옥(마승-멕시코-TIM-성남분당)**
-센트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센트럴 교회 담임 목사 아들 마누엘이 10월 달에 자신의 집도 비워서 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인교회가 선교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스페인어 실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의 방향에 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좋은 찬양사역자와 동역자를 주시도록
-내년 3월 오게될 시카고 남부교회의 의료 선교사역이 잘 준비되도록

한샘물(마승-몽골-인터콤-강서김포)

- 밝은 미래하고 건축 부지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사랑을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전할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주시도록

한유민/강영희(후원-방글라데시-회선선교회-안양안산)

- 방글라데시에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자훈련/번역출판 사역에,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항상 충만하도록

문하림(협력-중동-중동선교회-일산)

- 영육간에 강건하고 출국 준비를 잘 하도록
-후원 교회와 후원자를 일깨워 주시도록
-모든 필요가 은혜 가운데 채워지도록
-가정 복음화(형제들 가정)를 위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 투명, 성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역력마단 기도' 세미나

이슬람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슬람이 지키는 다섯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생에 한번 메카에 순례를 다녀와야 합니다. 두번째는 암송과 기도를 하루에 다섯번 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헌금을 잘 해야 합니다. 네번째가 한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입니다. 다섯번째가 지하드(성전입니다).

이슬람은 점차 메카로부터 전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로, 중앙아시아와 필리핀 등 동쪽으로 세력을 펼쳐나갑니다. 지금 전 세계 이슬람 인구는 13억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슬람은 종교가기 보다는 사회세력입니다.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울마공동체는 신약에 모두 평등하며 형제라고 생각하며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라마단입니다. 전세계 13억인구가 라마단 기간만 되면 동일한 기간에 금식합니다. 해가 뜰때부터 질때까지 금식하면서 그들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이 기간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때 먹는 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은

아프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거짓의 영입니다. 이슬람은 성경의 내용 90%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만 바꾸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막 죽으려는 순간 유다와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만 살짝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리아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를 다신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이슬람에게 주소서

속임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모르며 그들은 계속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두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커다란 장벽은 서구 기독교입니다. 이슬람들은 서구 사람



들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미국 등 서구 열강들이 그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를 서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기독교와 서구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서구라는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편견을 갖지 않고 죄에서 해방시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그들이 영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영적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도 악마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적 세력에 대해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가야 합니다

네번째로 무슬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10/40장은 천산남로에 해당하는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북아프리카 등 몇몇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슬람보다 더 훨씬 강하게 그 지역 토착신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특별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곳에 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곳을 위해 투자하는 재정도 아주 적습니다. 사실 아무 열매가 없는 지역에 투자하기는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많은 헌신자들이 정착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피흘림이 있어야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곳에 많은 사역자들이 갈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김가가 선교사(GO)

제1회 일본 온누리 공동체 수련회

복음화 위해 '일본 온누리교회가 모인다'

제 1회 일본 온누리 공동체 수련회가 11월 27일(수)~29일(금)까지 2박 3일간 시즈오카현 후지 하코네랜드에서 열린다. 일본에 있는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우에다, 아치요 5개 온누리교회와 한국 온누리교회뿐 아니라 온누리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교회들이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온누리 공동체 수련회에 대해 일본 크리스천 신문에서 나간 기사를 보고 많은 일본 교인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 한 교회에서 15명이 단체로 신청한 곳도 있고 10명 이상 신청한 곳도 서너 교회가 된다. 성도수가 40명 정도면 자립교회, 1백명 정도 되는 교회는 대형교회로 분류되는 것에 비춰보면 이 수련회에 대한 일본교회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생명의 말씀 사에서도 10여 명이 참가한다.

하용조 목사가 주강사로 메시지를 전하고 김사무엘 목사는 매일 새벽기도에서 '생명의 삶'을 본문

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수련회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우에다 교회 세시모 부인을 비롯한 5~6명이 세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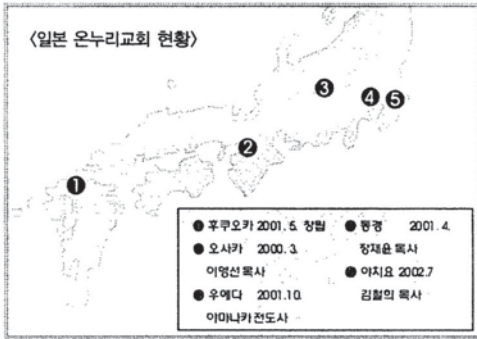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장재운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본 각처와 서울에서 하코네로 모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많은 인원이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이 없고 회비만으로 치르는 행사라 부족한 많은 부분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수련회가 열리는 시즈오카현 후지 하코네랜드는 6백여 명이 한꺼번에 머물 수 있는 장소다. 후지산 경관도 감상하고 세미나도 하고 온천도 할 수 있어서 일본 대학생이나 회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장 목사는 "이 수련회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수련회가 아니라 매년 한 두 차례씩 열려 일본 복음화의 기초가 될 수련회로서 계속 이어져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일본 온누리공동체 하코네 수련회 일정표

시간	11월27일(수)	11월28일(목)	11월29일(금)
6:00		새벽기도	새벽기도
7:00		세면, 온천	세면, 온천
8:00		조식	조식
9:00			
10:00		집회2	집회4
11:00			
12:00		중식	세례식
13:00			중식
14:00			폐회식
15:00	등록	특강	광고
16:00			
17:00	오리엔테이션		
18:00	석식	석식	
19:00			해산
20:00	집회 1	집회 3	
21:00			
22:00	기도, 휴식, 온천	기도, 휴식, 온천	
23:00	취침	취침	



27일 하코네에서 만납니다

일본선교를 향한 사명 재확인

11월 27일부터 2박 3일동안 일본에 있는 5개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을 모시고 첫번째 '복음성회'를 갖게 됩니다. 3년전 후쿠오카 온누리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치바의 아치요 교회까지 5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평균 반년 만에 한 교회씩 문을 연 셈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계획한 적도 없었고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총으로 일본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김 사무엘 목사 (일본어예배)

신 부름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하코네에서의 성회는 일본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저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를 쓰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5개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서울에서 온 일본어 예배부의 성도들, 그리고 온누리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했던 분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선은 감사로 오실 하용조 목사님, 총 진행을 맡아 수고하실 장재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충만한 성회 되도록

일본 선교를 위하여 부르신 사명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12개의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에 주님의 축복이 계속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성회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년에 하나씩 교회가 서다

4백 여년 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혹독한 압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전파가 절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개신교 선교사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선교를 시작한 지 1백5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믿고 있는 미전도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인 동경과 상업 중심지인 오사카를 비롯한 5개 지역에 온누리교회가 개척되었음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별한

일본 복음의 부흥을 일으킬 계기

이번에 일본 국내에 있는 5개의 온누리 교회(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우에다, 아치요)가 오는 11월 27~29일 2박 3일 예정으로 제1회 합동 수련회를 시즈오카현에 있는 후지 하코네 랜드에서 엽니다. 이 수련회에는 온누리교회와 협력 관계에 있는 일본 교회 및 선교단체 분들도 참가합니다. 2백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용조 목사님이 강사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일본어 통역은 김 사무엘 목사가 담당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의 일선에서 예배부의 성가대와 모세대학 실버 성가대도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 참가해 주신다고 듣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장재운 목사 (동경 온누리교회)

최근, 일본 교회에 적극적으로 QT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본인 성도를 접하며 흥분분위로 기적이나 환상을 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QT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리스도인 대개가 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성장이 느린가?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른가? 궁금해하며 온누리교회의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배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되는 수련회

한국인과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한일 성도가 주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된다는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감사 위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공훈하심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를 향한 일본 교회의 관심

이 수련회를 통해, 일본 온누리 공동체가 주안에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또 일본 국내에 있는 5개 온누리교회가 성령의 사역으로 일본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고 일본 선교의 한 부분을 담당해 많은 일본인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003년 2월10일~6월21일
마감 : 2003년 1월 12일
* 제3기 - 2003년 8월4일~12월20일
마감 : 2003년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 기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문의 : (031) 336-6350/2
접수 : Fax (031) 336-6354
owmc@onnuri.or.kr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전반기 - 2003년 1월 6일~1월30일(4주)
접수 마감 : 2002년 12월 22일
* 후반기 - 2003년 6월23일~7월19일(4주)
접수 마감 : 2003년 6월 16일
* 훈련내용
온누리 펌버십훈련, 선교일반, 개인 영성훈련, 선교 베이스 소개와 사역
* 지원 자격 :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 유치원 · 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문의 : (031) 336-6350-2
접수 : Fax (031) 336-6354
owmc@onnuri.or.kr

아프간 사역자 모집
아프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2002 역라마단 연합기도회
11월 2~30일 매주 토 오후 6:30 / 온누리교회
양재 온유·절제 성전/ 인도: 최바울, 주누가 선교사/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선교부 (www.lweisl.org)
문의: 유미숙 자매(016-325-1273)

불어권 중보기도
10월 10일~11월 14일 매주 목 오후 7:30
온누리교회 양재 자비성전
문의: 최옥 (011-9783-3417)
허정은 집사 (018-263-184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외국인 근로자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실 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노트북(중고)
햇블트리니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신학생이 사용할 노트북을 구합니다. (타이핑만 할 수 있어도 됨)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등)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과공사, 치과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자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798-6001
제1기 InterCP 남성비전 스쿨
10월19일~12월21일(총 10주)/ 미전도종족 선교관심자 외 헌신자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길 원하는 직장남성(35~55세) 대상
접수: www.intercp.net
문의: 김경애 간사 (796-3541, 교 226)

에젤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젤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

선물 보내셨어요?

성탄절 맞이 순연결 선교사에게 선물보내기 캠페인

1. 선물종류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선교사 자녀(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인형 등), 옷, 장갑, 모자 등, 컴퓨터 서적, 컴퓨터 게임 S/W,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선교사 부인: 화장품, 스카프, 내의, 양말, 장갑, 한국 고유의 차(종이팩), 기독교 관련 소품, 여성 잡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에 좋은 것 등.

- 선교사: 선물용 학용품(뿔기 도구, 수첩 등), 서적(기독교, 일반 서적), 넥타이, 양말, 손수건, 지갑, 성가 테이프, 시사잡지.

- 기타

공동: 의류, 장갑, 핸드크림, 신앙 서적, 잡지, 일반서적, 문구류, 내의, 여행용티슈, 물티슈, 2003년도 다이어리, 달력, 타월, 영양제, 샴푸, 치약, 차(모과차, 유자차 등), 찬양음반, 비디오 등

음식물: 고춧가루, 미숫가루, 카레가루, 멸치, 미역, 김 등 건어물, 국수류(당면, 냉면), 고추장, 된장, 라면, 과자류(쿠키, 껌, 사탕), 건과류

남성: 화장품, 남방, 면드기

여성: 화장품, 여성잡지, 액세서리, 생리대, 스카프, 향수

* 보안지역 선물제외 품목: 기록관

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사리 등

2. 방법

연결된 선교사들의 이름과 주소,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10월 27일자 온누리 신문 또는 온누리 신문 홈페이지 검색 ([http:// www.onnuri.or.kr/news](http://www.onnuri.or.kr/news) 10/27일자 검색)

• 문의: 신원석, 황민식 간사
(내선 216, 208번)

3. 선물 발송

선물내용을 순원들과 기도하며 정한다음 우체국으로 가서 선교지 주소로 직접 발송합니다. 이때, 보내실 카드 내용에 순장님의 주소,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주시면 선교사들과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안지역

신문에 기록된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보내시면 됩니다.

5. 우편요금

(항공요금으로 0.5kg기준)

1지역(동북아): 9천원

2지역(동남아): 1만원

3지역(북미, 중동, 유럽): 1만3천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1만7천원

11월 중에 보내셔야 성탄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003년 2월10일~6월21일
마감 : 2003년 1월 12일
* 제3기 - 2003년 8월4일~12월20일
마감 : 2003년 7월 13일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 가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문의: (031) 336-6350-2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전반기 - 2003년 1월 6일~1월30일(4주)
접수 마감: 2002년 12월 22일
* 후반기 - 2003년 6월23일~7월19일(4주)
접수 마감: 2003년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문의: (031)336-6350-2 Fax (031)336-6354
owmc@onnuri.or.kr

아프간 사역자 모집
아프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소아시아 기도모임
11월 18일(월) 오후 7:00 선교관 401호
(저녁 예찬을 함께 하며 친교를 나눕니다.)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11월 18일(월) 오후 7:00 선교관 302호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2002 역라마단 연합기도회
11월 2~30일 매주 토 오후 6:30 / 온누리교회
양재 은유·절제 성전/ 인도: 최바울, 주누가
선교사/ 주최: 청년여호수아아슬람선교부
문의: 유미숙 자매(016-325-127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속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2002년 12월 27일~2003년 1월 1일(마감 12월7일)
주최: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역팀
기도모임: 12월7일부터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자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마용사
물품후원: 의약품, 여름옷, 슬리퍼, 학용품, 칫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노트북(중고)
햇빛트리너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신학생이 사용할 노트북을 구합니다. (타이핑만 할 수 있어도 됨)
문의: 원영기 간사(교 730)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악어방음)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터키 아웃리치
2003년 1월말~2월초 / 터키에 관심이 있거나 터키를 위해 기도하는 전 성도 대상
문의: 최봉천 총무(011-352-6519)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4:00~6:0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2003 선교캠프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2월 31일(화)~1월 3일(금) 호서대아산캠퍼스
강사: 최바울 선교사, 강요한 선교사, 황디모 데 선교사, 심명철 선교사 등
접수: www.missioncamp.net
(마감: 1차 11월 23일, 2차 12월 14일)
문의: InterCP (796-3541 교 6)
missioncamp@hanmail.net

에zell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

01

일본 은누리공동체 수련회

서울과 일본 은누리, 그리고 일본 교회 리더십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우에다, 야치요 은누리교회 성도와 일본교회 리더십은 서울 은누리성도와 함께 27일부터 29일까지 하코네 랜드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약 2백50명이 참여할 이번 수련회 주강사는 하용조 목사다.

02

역라마단 기도 '마지막 피치를 올려라'

13억 이슬람교도의 라마단 기도에 대항해 11월 2일부터 5번에 걸쳐 매주 토요일 열린 역라마단 기도모임 마지막 기도집회가 11월 30일(토) 오후 6시 양재 온유절제성전에서 열린다.



은누리대학청년부가 역라마단 마지막 기도모임에 참여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이 싹트도록 함께 중보한다.

03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선교사에게 카드와 선물을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중사모)은 25일(월) 오후 7시 서빙고 선교관 401호에서 중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위한 카드와 선물을 만든다.

중사모 정기 모임인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예배와 중보기도를 한 후 중국 베이스별로 선교사에게 보낼 카드와 선물을 만든다. 박종길 목사는 "함께 모여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카드에 따뜻한 글 한 마디씩 적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며 중국에 있는 선교지나 선교사를 섬기는 서빙고, 양재 공동체 순식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 문의: 김화수(011-448-4262)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에zell선교회 '기적' 음반 출시

"선교하는 모든 이를 축복합니다"

'에zell인의 밤' - 12월 9일 오후 7시 서빙고 경찬홀

선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선교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



깨어나서도 오직 선교만을 외쳤던 코스타리카 윤천석 선교사의 이야기다.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고 후원하는 에zell선교회에서 선교사들의 이야기

를 담은 음반 '기적'을 출시했다.

타이틀곡인 '내가 외로울 때'는 일본에서 사역중인 장재윤 목사의 이야기가 동기가 된 곡. 선교 현장에서 이방인이라는 생각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하고 있다.

'기적'이라는 곡은 교통 사고로 사랑 판단을 받은지 40여분 만에

에zell선교회는 이 앨범을 통해서 선교사에게는 위로, 한국

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사로, 중보자로, 돕는 이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에zell선교회는 12월 9일(월) 오후 7:00 서빙고 경찬홀에서 '에zell인의 밤' 행사를 연다. 에zell선교회에 관심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792-1628, 793-1738
794-5100(교 621)

01

강화도 선교지를 다녀와서...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찾아서



최경자 코치

우리 초등 4부는 11월 9일과 10일, 일박 이일 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잠시

떠나 가을 열매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강화도의 일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선교유적지 답사를 통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배웠다.

강화도는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곳으로 외세 침략지, 마리산, 단군신화 속 하늘에 제사 지내는 우상유물이 있는 곳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선교답사를 통해 나는 깜짝 놀랐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강화도 땅에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령의 역사(요 14:16)가 일어났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강화도에 들어온 복음은 비천한 자로부터 지역 영향을 끼치는 자, 유교학자, 도학자, 인정받는 부유층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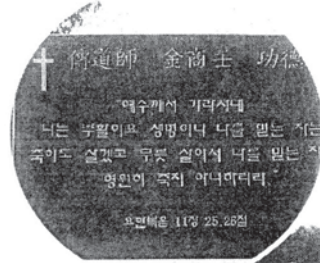
강화의 어머니 교회인 교신교회(1893년) 첫 교인은 시루미 출신 이승환이었다. 그는 인천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중 존스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다. 어머니를 제쳐

놓고 먼저 구원 받을 수는 없다며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에게 전도하여 세례를 받으시게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외인의 출입을 반대하던 김초시가 만일 외인이 들어간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불을 지르라고 해 두었던 터라 이승환이 밤에 자신의 어머니를 업고 존스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는 배로 가서 배 위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 후 김초시는 존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가 바로 김상임 전도사이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강화도 도민 70%가 기독교인이 된 때도 있다고 한다. 현재 2대째 장로가 군수로 선출되어 장로가 아니면 군수가 될 수 없다는 설도 있을 정도이다.

'복음이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못하고 어찌 믿겠는가' 라는 성경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이토록 강화 땅, 아니, 오늘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었고 다시 다른 민족에게로 나가는 교회가 된 것이었다.

강화의 선교유적지를 보며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게 된 것을 감사했다. 초등 4부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차세대 세계 복음화 및 미전도 종족에게로 나아가는 일꾼들이 꿈꾸는 공동체가 되도록 소망한다.



▲ 교신교회 김상임 전도사 추모비
▶ 새벽 찬양 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풍선을 날렸다.



▲ 초등 4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교신교회, 성공회 강화성당 등 강화도에 남아있는 선교 유적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노력을 되새기고 2천1만 비전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이루기 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02

하나님의 역사가 깃든 강화도

김은명 학생

학교에서 돌아와 들뜬 기분으로 짐을 싸고 교회로 출발했다. 오늘부터 1박2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을 둘러보는 것이다. 먼저 강화도에서 했던 많은 프로그램 중 세족식을 비롯한 2가지 일이 기억에 남는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서로 섬기라는 뜻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나도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느낌으로 발을 씻겨드리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게 처음이라서 왠지 어색했고 이제는 집에서라도 많이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은 강화도의 유적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게 모두 강화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니 신기했다. 다음날 아침, 짐을 모두 싸고 유적지를 직접 둘러보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먼저 강화도에서

세례를 처음 받았다는 이승환이 어머니를 업고 걸어갔던 길을 아버지께서 나를 업고 가셨다. 그때는 그 길이 깎뿔이어서 발이 푹푹 빠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길을 어머니를 업고 걸었다니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흥천교회, 흥천교회는 김용하라고 하는 강화 6군자라는 소리를 들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서 은혜를 입어서 교회를 짓게 되었다. 그리고 김용하의 친구인 전병규가 김용하를 말리러 왔다가 자신도 은혜를 입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게

하게 아님이 싫다. 그의 잘 마무리를 풀어 지었다는 망월교회와 성공회 강화 성당 등 1박2일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게 나갔는지,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하고 하나님께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03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

박현숙 (초등4부 전우주 학부모)

초등 4부의 어린이, 학부모님, 교사님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 보너스의 시간이었다. 1박2일 여행은 조촐하지만 마음 속 깊이 잊지 못할 잔잔한 감동으로 새겨졌다.

교회에서 개최한 어린이 캠프에 학부모로서 초대 받기는 처음이라 떠나기 전 마음이 많이 설레었다. 숙소에 1진으로 미리 도착한 선생님들이 정성 어린 기타 반주가 곁들여진 열렬한 환영의 축복 송으로 우리를 맞이하여 다소 서먹서먹한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가운데 넉넉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김형희 전도사님의 인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족식을 했다.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내 욕심으로, 세상 방법을 따라 양육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

부모라는 감사함보다 잘못된 권위로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을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자녀들은 기억 나는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서로의 발을 닦아 줄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강화도 여러 선교



유적지를 방문했다. 현지의 윤여균 목사님께서 설명해주시는 유래를 들으며 직접 보니 우리 선조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 순교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우리 나라에도 바울, 에스테르 만큼이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실존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긍지가 생겼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셨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잡았다. 강화도에서 최초로 세례 받은 이승환 모자를 생각하며 시골 한적한 길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업어 주기도 하고,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가족간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 우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 주신 초등4부 전도사님, 코치님, 교사님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

아프간 사역자 모집

아프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현지에서 사역할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003년 2월 10일~6월 21일

마감: 2003년 1월 12일

* 제3기 - 2003년 8월 4일~12월 20일

마감: 2003년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 기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전반기 - 2003년 1월 6일~2월 7일

(구정 연휴주간은 쉽니다.)

접수 마감: 2002년 12월 22일

* 후반기 - 2003년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2003년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 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Fax (031) 336-6354

owmc@onnuri.or.kr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11월 25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2호

말씀: 박종길 목사

연락처: 김화수 팀장 (011-448-4262)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중국 선교사를 위한 선물과 카드를 준비하시니 중국 지역을 섬기는 공동체나 순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2000선교 이슬람 이해와 역라마단 기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2002 역라마단 연합기도회

11월 30일(토) 오후 6:30 / 온누리교회 양재 은유·절제 성전/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선교부

강사: 주누가 선교사(GO)

문의: 유미숙 자매(016-325-127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2002년 12월 27일~2003년 1월 1일(마감 12월 7일) / 주최: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역팀

기도모임: 12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름옷, 슬리퍼, 학용품, 치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타이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외과,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2003 선교캠프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2월 31일(화)~1월 3일(금) 호서대 아산캠퍼스

강사: 최바울 선교사, 강요한 선교사, 황디오데 선교사, 심명철 선교사 등

접수: www.missioncamp.net

(마감: 1차 11월 23일, 2차 12월 14일)

문의: InterCP (796-3541 교 6)

missioncamp@hanmail.net

에젤선교회

☞ 에젤인의 밤

12월 9일(월) 오후 7:00 서빙고 경찬홀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젤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빙고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

01

캄보디아 아웃리치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 선교팀은 오는 12월 27일부터 1월 1일까지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번 아웃리치팀은 아웃리치를 위한 물품과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관련기사 20면**

02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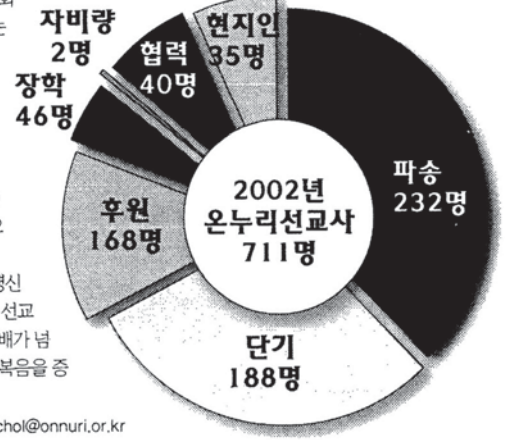
온누리선교사 파송 52개국 7백여 명

2002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교회가 파송·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는 총 7백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천선교팀에 의하면 7백11명중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총 2백32명이며, 단기선교사 1백88명, 후원선교사가 1백68명, 장학 선교사 46명, 협력 선교사 40명, 현지인 35명, 자비량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분별로 보면 목회자가 85명, 평신도가 6백26명으로 나타나 평신도 선교사의 수가 목회자 선교사에 비해 7배가 넘었다. 이들은 전 세계 52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서철 chol@onnuri.or.kr





“하루에 일곱 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일본교회가 비상을 꿈꾸고 있다. 하나님 보여 주시는 환상 앞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과 일본 5개 온누리교회 가족들이 하나되기 위해 기획하였던 하코네랜드 '온누리공동체수련회'에 관동, 관서 지방 각처에서 일본교회 리더십들이 달려왔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듣고 밤을 새워 강을 건너고 산을 넘었다. 일본 성도들이 그만큼 목말랐고, 거듭나고 싶다는 간절한 표징이요, 일본교회가 '바로 그 교회', 온누리교회를 닮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본, 서울 온누리 가족들과 일본 교회 리더십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본교회 부흥'을 앞당기기 위해 하나되어 울부짖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그 울부짖음은 곧바로 말씀으로 응답되었다. 하나님은 '다가올 일본의 영적 부흥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보여 주셨다. '크고 비밀한 일'이

있었다. 네 번에 걸친 하용조 목사의 예언자적 메시지는 흥분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감동의 눈물이 샘물이 되어 일본의 상징적 존재인 후지산 산자락 빼곡히 들어선 삼나무 숲 계곡을 흘러 감동이

년에 1백 개, 1천 개씩 불어나야 합니다. 예전에 서울에는 하루에 7개씩 개척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일본에도 하룻밤 자고나면 7개씩 교회가 생기길 바랍니다."

을 것을 믿습니다. 일본의 그 수많은 빠지고 내은 사인 불빛이 모두 심자의 붉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일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에다, 동경온누리교회 성도가 '자살 직전에 만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행복할 사람으로 바뀌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한 세례식은 또 한 번 넘치는 감동과 은혜의 자리였다. 하용사는 1년에 2개 교회 개척, 2003년 1천명이 참석하는 수련회, '목회사관학교'를 통해 일본의 영적 지도자를 길러 낼 것을 약속했다.

'하코네 수련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다. 실버 성가대 어르신부터 일본 어린이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일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영적 부흥의 결정적 집회로 영원히 기억 될 '하코네 수련회'에서 마지막으로 하용사가 선포한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행3:6). 아멘

하용조 목사의 예언자적 메시지... 일본 교회 리더십 '하나님의 비전' 품어

되었다. 그 은혜의 감물은 맑은 날 후지산의 그림자가 비친다는 아름다운 아시노코-호리병 모양으로 생겨 끝과 끝이 보이지 않는 하코네 호수를 가득 채웠다.

하용사의 말씀은 일본교회를 깨우는 메시지로, 일본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온누리교회는 여러분을 섬기고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일본에 상징적으로 12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12교회는 120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문 여는 교회와 문 닫는 교회를 합하면 '제로'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개척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1

하용사는 목회자도, 교인도 없이 그냥 교회만 세웠던 우에다 온누리교회가 이번 수련회에서 교인 일곱 명이 세례를 받고, 30여명이 모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가고 있다면서 일본 땅에 왜 교회를 계속 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했다.

마지막 날, 세례식을 앞두고 일본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었다.

"저는 일본의 교회가 일어나 견고 뛰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은행이 일어나 걷는 것처럼 나사렛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본 사회를 뒤집

편집국장 장 선 철

첫째날 집회

저희들은 일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성록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일본에 오셔서 정말 많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후 후쿠오카에 작은 교회가 생겼고 오사카 교회를 세우는 도중 제가 암에 걸려 계획한 일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일본에 와서 치료를 받던 중 나까지마 권사님을 만났고 개척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이 다 부르트고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픔속에 태동한 교회가 바로 동경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교회설립을 결정하고 20일 만에 세웠습니다. 동경교회를 여는 날 우에다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고, 개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또 아찌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30, 40명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태어나는 것

저는 우리 일본 온누리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마치 아기를 낳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성장하기전에 둘째 아기를 낳고 둘째가 크기 전에 셋째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아프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어려움을 겪지만 자라납니다. 그것이 교회성장의 원리입니다.

우에다온누리교회는 목사도, 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집에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한 어저씨가 서울에서 찾아와 열심히 교회를 짓는 것을 보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우에다 교회의 첫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부인, 누님도 여기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아사히 신문 사장과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저를 소개한 성도는 아사히 신문 사장을 전도하고 싶었기에 저를 그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저는 아사히 신문 사장이 과연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을까 반신반의 했지만 식사를 마치고 아사히 신문을 나오며 '몇 번 더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자던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일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에다교회와 일본에 있는 교회들을 보며 그것을 느꼈습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복음이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소리없이 변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

람이 있고 교회에 와서 충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가 다릅니다. 나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몰라도 찬송이 흥얼 흥얼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날마다 생각할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다림, 감격, 기쁨이 매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본문 : 사도행전 1장 4절~11절



하 용 조 목사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대망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길 대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변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여 오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여행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이 세상을 여행하는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석, 돈, 권력이 나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누리교회 모세 대학에서 많은 어른들이 오셨습니다. 제 앞에서 식사하신 분은 78세였습니다. 그 분이 "목사님이 저희보고 일본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죠? 그 환상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환상을 가지면 젊어집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성령님의 음성을 들기를, 세례를 받기를, 꿈이 새로워지길, 주님이 내일 오시길 기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한 분은 성령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세례는 부르짖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힘을 주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부르짖으십시오. 온누리교회가 창립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지하실을 빌려서 12명이 시작했습니다. 17년간 불을 지피니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저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대망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길 대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눈동자가 변할 것입니다. 모든 좌절이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여 오십시오. 할렐루야.

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면서, 조국을 잃으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약속대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두 번째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가지 기다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게 들은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요한복음 14~16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떠나야 오게 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집회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넘어도 전도가 안됩니다. 교회도 잘 가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전도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교회에 오는 사

성령이 임하면 상상 못할 비전을 갖습니다. 안될 것 같은데 되고,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항상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느낍니다. 예수가 어쩐지 좋고, 교회가 어쩐지 좋고, 교인들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는 곧 재림하신다'는 생각이 밤을 먹어도, 잠을 자도, 직장에서 일해도 항상 자신을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별한 성령을 받은 결정적 증거는 이것입니다. 방언, 예언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고, 불쌍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개인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개인전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천국입니다. 마음이 외롭고 슬프니까?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생겨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성령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먼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 강당으로 들어오면서 보니 동경 큐티방 멤버 자매님들이 모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니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큐티방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은 삶이 변하는 것

교회는 조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 쉽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써 봉사하지만 그 속에 강한 사랑, 따뜻한, 축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 예수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 믿고 한참 있다가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설교하고, 따라다니지만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3년간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지만 성령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분이 오시는 데 만나고 경험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성령충만은 인격의 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할 곳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율법파, 은혜파가 대립했고 이단이 들어오고 은사주의가 들어와 복잡했습니다. 음란한 스캔들이 난무했고 우상숭배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고, 순교를 하고, 로마제국을 뒤엎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일본 교회를 보면 '이런 연약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사용해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보며 이것은 100% 하나님 작품이라고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번 교회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부족한 것, 싸우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동행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변덕이 많고, 새 일을 많이 벌리는 부족한 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핑개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높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싶으면 성령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생각하고 오로지 그 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것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진행되는 역사 속의 모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 중 75세 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C국에서 지금까지 사역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제게 '목사님 저는 6,7년 사역한 이 사역지를 젊은 선교사에게 넘겨주고 내용골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거기 머무르면서 내 인생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75세 된 그분에게 누가 그런 비전을 줬을까요?

젊은이가 선교사로 떠납니다. 좋은 직장을 버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구약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본문 : 사도행전 2장 1절~13절



"그분은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비전과 환상을 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걸어가던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광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적같이 하나님이 일을 만드십니다. 일본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생각하면 그때마다 어떤 분이 1억, 2억씩 주십니다. 다음 교회를 세울 돈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예산에는 없던 돈입니다. 누군가가 보내주신 것이지만 그 분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사카 교회 지붕을 고칠 때도 그랬습니다. 성도 자녀 하나가 백화점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자식의 장례식 치른 후 그 분이 1억을 가지고 '일본에 써주세요'라며 찾아왔습니다.

이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 목사님의 하나님과 성령님은 특별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구원이 아니듯이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든 인류, 민족, 방언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고 매력 있는 좋은 것입니다. 성령 받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술 취한 사람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3천명이 모이고, 세계와 구제,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18절, 26절, 15장 26~27절, 16장 7절, 12~15절등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경험 못한 분입니다. 그 분을 경험하면 그런 영적 경험이 자꾸 생깁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14~16절에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오래 전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니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땅에서도 오시고 하늘에서도 오십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불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방법은 터치(만짐)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과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 충만해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체험으로 오십니다. 바람이 불때 나무 같은 사람은 흔들리고 종이 같은 사람은 날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담벼락은 아무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현상은 다릅니다. 현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은 성령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집회입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을 오늘 중 보기도 해주십시오.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의 사명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는 어떻게 받으니까? 첫째 모여야 합니다. 물론 혼자 받을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한 곳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두 번째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분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걸어가던 사람이 뛰어갑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됨을 이루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강조하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하나의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상적 교회는 가능한가?'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가?'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밀물처럼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2천년이 지난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성도를 만나며 저도 그들도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가 자라는 것을 보며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 목사가님이 일본에 와서 설교를 하지만 앞으로는 일본 목사가님이 일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일본에 12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 12교회가 120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절대적으로 개척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일본 교회 개척을 도울 것입니다. 일본땅에 교회와 성도가 함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향한 꿈

이상적 교회는 가능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에 세운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비전과 강한 믿음을 환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처음에 일본에 교회를 세울 때는 이런 모임을 상상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3백명이 모였습니다. 내년에는 7백~1천명이 모일 것입니다. 일본에 개척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나면 일곱 교회가 새로 생기고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에다 교회는 세운 지 1년 밖에 안됐습니다.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이 그냥 교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우에다 교회 교인 일곱 명이 새벽에 세례를 받으려 옵니다. 주일에는 30명이 예배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중국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기록한 편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기록합니다. 돈으로 산 교회, 교단이나 교파가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본문에는 몇 가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시는 곳입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참 교회는 성령 받은 지도자와 성령 받은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없어도 사람이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는 물질을 지원하고 나왔습니다. 서로 필요를 채우고 상처를 싸매 회복시켜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섯째, 참 교회는 성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합니다. 교회가 이사하면 따라갑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으면 교회 근처에서 사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벽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대 교회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여섯째, 진짜 교회는 주변 사람에게서 칭찬을 듣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요즘 교회를 세우려 하면 주민들이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칩니다.

일곱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일본에 교회가 생기고 교인이 자꾸 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집중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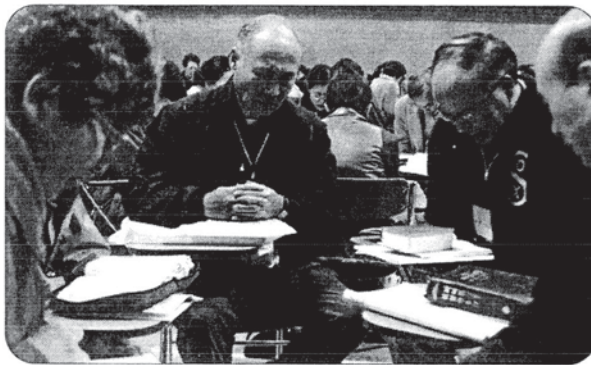
이것이 이상적 교회의 일곱가지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소망하기에 예수님이 보여준 사도행전 교회에 집중합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면 어디든지 뛰어갈 것입니다. 제 직업을 원하면 직업을,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다드리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제 일생의 목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본문 : 사도행전 2장 42절~47절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성도를 만나며 저도 그들도 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도가 자라는 것을 보며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다. 교회를 통해 세상은 변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도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완전한 인간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자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교회도 모르고 성격도 못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교회 일꾼을 삼으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둘째,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하동굴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신학교도 목사나 장로도, 성경책,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북한의 지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교회가 중국 지하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이상적 교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 진짜 교회는 성령이 계신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통치하

둘째, 참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도가 함께 애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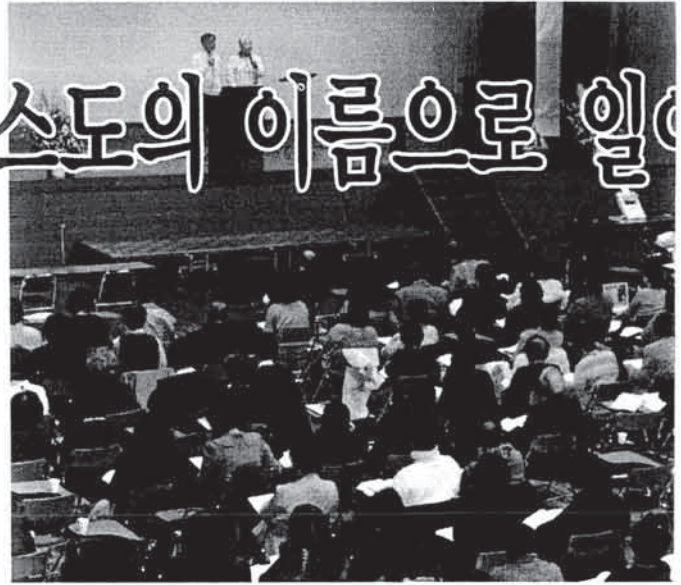
셋째, 기사와 표적, 기적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앞은뻥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넷째, 서로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44, 45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



◀ ▶ '다가올 일본의 영적 부흥'이 선포되는 하코네 수련회는 회개와 결단의 순간들이었고, 넘치는 감동과 은혜의 자리였다.



◀ ▶ 실버는 기기 위해 하 일을 사도행전



◀ ▶ 일본의 상징적 존재인 후지산이 바라 보이는 언덕에서 '일본의 복음화와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하루에 일곱 개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선포했다.



▶ ▶ '자살 직전에 만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행복'을 간증하는 세례식은 또 한번 넘치는 은혜의 자리였다. 차세대 사역의 가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있다.



대를 비롯한 온누리 가족과 일본교회 리더십들이 '일본교회 부흥'을 앞당기어 울부짖었다. 하나님은 하용조 목사를 통해 '일본을 향한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보여주셨다.



'믿음으로 바뀌주신 하나님' '성을 강조한 하용조 목사

【 선택식 강의 】



생활습관병(강진경 연세 세브란스 병원장)

과거 성인병으로 불렸다가 1997년 개명된 생활습관병, 이 병은 약 70~80%가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다. 생활습관병을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다양한 영양 섭취,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는데 강진경 병원장은 예수님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가족 안의 커뮤니케이션, 자녀교육 (이기복 권사)

건강한 가정은 가족간의 건강한 대화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현대 사회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 건강한 대화는 비난형, 포기형, 주의산만형, 초이성, 이중 구속 등 역기능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말과 마음이 일치하고 나와 내가 같은 위치에서 의견과 감정을 나누는 대화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과잉보호, 조건부 사랑, 완벽주의 같은 잘못된 사랑을 주는 대신 비조건적, 무조건적인 성경적 은혜의 사랑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들은 과거 삶의 문화를 버리고 구원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괴로움 모두를 다 아신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흠뻑 부어주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건없는 사랑을 흠뻑 자녀에게 주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강한 가정으로 가꿔야 한다.



큐티(이종실 전도사)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하루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을 살며 던지게 되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종실 전도사는 큐티를 통해 그분의 지혜로운 음성들을 듣는 법을 강의했다.

선교(김종원 목사)

주님은 곧 오신다. 김종원 목사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를 하며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영적 분별력(박종렬 목사)

영적 분별력이란 우리 인간이 영적 실체를 인격적 차원에서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보이는 세계에 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영적인 실체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을 통해 내 영과 마음이 감동하므로,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는 이웃과의 관계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환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1:24)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 인간의 내적 생명력을 강건케 한다.

리더십(한홍 목사)

리더에게 능력있는 리더십만큼 간절한 것은 없다. 세상 어떤 리더십도 성경의 능력이 기쁨부으신 리더십을 따라갈 수 없다. 한홍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마음 상한 자에게 위로, 낙담한 자에게 승리와 비전을 주는 기쁨부으심을 받은 자의 능력,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배(조효영 전도사)

조효영 전도사는 구원의 감격을 인해 찬양한 미라암과 상한 심령을 치유 받은 사마리아 여인,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린 여인 등 성경에 나타난 여성 예배자를 살펴봄, 우리도 옥합을 깨뜨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란다 말했다.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집회였습니다. 은혜는 누군가 수고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 내년에는 목사님과 교인이 함께 단위 교회 중심으로 모이면 좋겠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감당 못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전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영혼을 붙잡는 능력이 생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지남처럼 끌어올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나눔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소유의 능력이 아니라 나눔의 능력이 생깁니다.

세 번째 능력은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병을 치유하고 정신적 질환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영적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의 능력, 나눔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지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2절을 보십시오.

계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앓은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사도행전의 성령받은 사람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회 민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앓은병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던. 우리의 절망이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던.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다 고쳐주십니다. 다 회복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자기 스스로 성전에 갈 수 없는 앓은병이던 사람들이 메고와 성전 미문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면서 앓은병이던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앓은병이던 그 사람을 돈벌이

베드로와 요한은 응답했지만 앓은병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며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 우리를 주목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

다. 저는 가끔 '나는 은누리교회만 잘 목회하면 되는데 왜 일본의 작은 교회 때문에 고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일본에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교회들을 격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심장부가 흉해처럼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나면서 앓은병이가 일어나 걷는 것처럼, 초대교회 지하 동굴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로마를 뒤엎은 것처럼

나사렛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본 사회를 뒤엎을 것입니다. 일본에 부흥을 주옵소서. 작은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

룻밤 자고 나면 일곱 교회가 생기게 하옵소서. 일본 곳곳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교회가 생기게 하옵소서. 세상 목적이 문에서 하나님께 되게 하옵소서.

앓은병이가 걸을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종일 구걸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히 성전에 들어갈 꿈을 꾸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을 얻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비명에 가까운 외침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상에 억압된 여러분의 가정과 전통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제 정신이 되고, 남편 다식이 있던 여자가 환희의 얼굴을 회복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마음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일본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별처럼 교회가 생겨 날 것이다.'

빠징고대신 십자가 빛이 가득하길

서울 시내를 통과하는 고속도로를 달려 보면 네온사인으로 만든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둠 밤을 비추는 십자가의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일본에는 빠징고 네온사인이 많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빠징고 네온대신 십자가의 불빛이 일본의 밤 하늘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환상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믿음을 갖는다면, 환상을 가진다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일본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일본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작은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기르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본문 : 사도행전 3장 1절~10절



"일본에는 빠징고 네온사인이 많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빠징고 네온대신 십자가의 불빛이 일본의 밤하늘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환상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는 사람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돈입니다. 돈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자리까지 갈 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목적은 돈, 권력,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앓은병이는 베드로를 보는 순간 구걸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4절~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손을 내밀어 일으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둘째까지는 잘하지만 세 번째는 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앓은병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짓눌렀던 일본 교회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일본의 교회가 일어나 걷고 뛰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가 교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회 앞에 교회는 어쩔 줄 몰라합니다. 우리는 숫자도 작고 사회에 내밀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주일마다 교인이 몇 명만 더 와주어도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백 년간 짓눌려있던 것과, 나면서 앓은병이던 자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저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 설교하셨습니다”

제 나이는 63세, 곧 64세가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이나 신을 믿지 않았습니

다. 1961년 대학을 졸업, 광고 대리점에 취직했습니다. 저널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제 꿈과 관련이 있는 광고업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을 좋아하고 꼼꼼했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품에 관련된 전문잡지를 만드는데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

편집장에서 창업자로

다. 그 회사에 입사해 25년간 편집장으로 있으며 잡지용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55세가 되었을 때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영문을 잘 모른 채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마케팅에 대한 회사를 설립하고 3년째 되는 해 화장품 정보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존했던 많은 회사가 예산을 축소했고 일이 제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회사를 운영하고 조금씩 성장시켜 가며 지금에 이르렀습니

다. 그러나 창업한지 9년째 되는 올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한 견적서를 보지만 모두 돌아오고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사 운영자금도 점점 고갈되어 갔습니

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친구,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은행 융자, 거래처에 돈을 갖고, 집 월세를 내는 모든 일이 어렵게 됐습니

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어 올해 1월에는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꼈습니

교회에 오자 마음이 평안해져

다. 자살을 결정하고 죽을 장소를 찾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

다. 마치 길 잃고 헤매는 양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죽지 말라”고 친구는 말했고 친구의 권유에 따라 전 회사와 제 개인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런



야마오카 요시오
(동경 온누리비전교회)

가운데 동경 비전 온누리교회 성도인 사와다니 상으로부터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와다니 상은 제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중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다 읽고 싶어

진정한 의미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려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옆에 계시다는 확신은 절 안심시켜주었습니다.

매일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나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직 다 읽진 않았지만 빨리 다 읽고 말씀 모두를 이해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과 삶의 길을 완전히 바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마칠겠습니다.



모리 이즈미
(우에다 온누리교회)

“교회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식사도 물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 받은 상태로 올 3월 우에다 온누리교회에 갔습니

다. 제가 갔을 때 전도사님께서는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노래들을 때가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고 구원 받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앉아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교인들이 빙 둘러 모여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얼굴로 땅만 보고 있는 저를 여러분이 손을 펴고 웃으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외롭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절 환영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

왜? 이런일이...

다. 2002년 올해 들어 저희 가정의 모든 사정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작년 3월 제 남편은 직장을 잃고 새 직장을 찾았지만 1년 반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부터 모아 온 몇 천만엔의 돈을 싸퉁의 외국인 여성과 다 써버리고 퇴직금도 일부만 남기고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곳인 아버님도 제 불행과 같이 올 5월에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며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교회가 유일한 제 희망이

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들여보니 제 자신이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받고 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리고 얼어붙은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 그 위대함과 놀라움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게 안심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 두 딸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저는 이번에 제가 어려웠을 때 뒤에서 저를 도와줬던 장남과 함께 세례를 받기 위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서도 사탄의 공격은 참 컸습니

다. 구원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장아장 걷는 어린 크리스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큰딸은 NTT녹음을 하는 곳에서 올 9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가까운 장래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 제 차녀는 와세다 대학에 추천되었습니다.

우에다 온누리교회가 없고 어마나까 전도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살아서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모든 민족이 모여 찬양할 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들 중 대학입학 수능에 참여한 분들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약 2개월이 넘는 한국에서의 안식월은 저희 가족에게 참 좋은 기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한국을 체험하고 한국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저희 부부에게도 신뜻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목었던 잠실과 양재동의 전경이 지금도 눈 앞에 아른거립니다.

포근한 모국에서 두달의 삶

저의 본적지인 이태원동에서 평화문 방향으로 가는 길 중에 남산을 타고가는 비교적 가파른 경사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소월길'입니다. 제가 이 곳 사역자에 오기 전에도 길 양옆의 가로수와 봄철의 예쁜 꽃들이 좋아 많이 애용했었던 길인데, 이번에도 서울 가서 작정하고 그 길로 차를 몰아 달려 보았습니다. 여전히 2차선의 좁은 길 양 옆의 가로수와 낮익은 풍경들은 변함없이 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돌아 포근한 모국(母國)이었습니다.

돌아 온 이 곳 T국은 이와는 좀 다른 정서입니다. 2달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T국어. 돌아 오는 비행기 안에서 T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의 정체성이 살아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짐을 들고 도착했을 때 또 다른 하나의 세계가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새로 알게 된 찬양악보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 중 한 자매님이 바이얼린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은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 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가져 받은 귀한 사랑 그누가 대신 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 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집을 정리하기도 전에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을 해 보았습니다.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만들어진 찬양이었습니다!(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

셀수없이 많은 T국인 찬양할 그날까지

B교회는 지난 달까지 현지인들이 잘 안 나오다가 최근 두 사람이 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진지한 자세가 좋은데 회교가 강한 도시에서 자라나 많은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충만한 예배를 위해 우리 B교회 사역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모임이지만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민족이 모여 찬양할 그 때를 그리며 그곳에 온전해 있는 셀 수도 없는 무수한 T족을 그려 봅니다.

주님의 평강이 동역자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김순중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스대반/조희(후원-중앙아시아-인터클-성북)
출산준비 (예정일: 12월 17일), 두 번 유산 후 주신 아기인데(둘째) 순산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조문상/김정년(파송-싱가폴-BEE-성동광진)

1. 계속 이어지는 네팔에서의 사역을 위해
2. 내년 2월 싱가포르에 있을 BEE 연회를 잘 준비하도록
3. 네팔에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주시도록
4. 배비첸 형제(인도인: 학생비자신청절차)와 꾸마른 형제(스리랑카인: 후원), 휘엔 자매(베트남인: 입학허가)의 싱가포르에서의 신학 훈련을 위해
5. 장환이의 학업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현/미용(파송-인도네시아-한나선교회-서빙고)

1. 식당부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2. 의료사역과 중국인사역이 계속 이어지도록
3. 아기 뜻이 성장하면서 사소한 사고가 잦아지는데, 모든 위험에서 지켜지도록
4. 한나호의 선교사 충원과 타와우사역
5. 임산중인 자매의 건강과 태교를 위해

김다니엘/ 이한나

(파송-소아시아-TM-동대문남양주)

1. 새 정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2. 성직들에 교회와 세워지는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3. 거주증을 얻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길이 열리도록

역라마단 기도

“진실을 덮은 미혹·거짓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제26일 / 12월 1일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의 국민을 섬기는 정치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로 국민들을 잘 다스리도록 위해서 기도하자.
2. 극소수의 교회들이 강한 압박으로 압박 받는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3. 젊은 세대들 안에 그들이 위치와 사회 안에서의 바른 역할을 찾아일하도록 기도하자.

제27일 / 12월 2일 권능의 밤

(무슬림들의 권능의 밤을 우리도 동일한 날로 지정하여 특별 기도의 밤으로 기도하자)

1. 그 밤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많은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도록 기도하자. (이사야 52:10, 59:1)
2. 잘못된 꿈이나 능력을 야기시키는 어두움의 권세를 대적하며 (엡 6:12, 시 44:4~7) 기도하자.



3. 무슬림 속에서 일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특별한 기회를 좋은 소식을 나누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마 3:16-17)

제28일 / 12월 3일 스리랑카의 무슬림들

1. 스리랑카의 무슬림들의 삶 안에 효과 있게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든지 기회를 포착하여 그들의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인도의 교회들이 스리랑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출 사역자들과 많은 전도자들을 그곳에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계시를 통하여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자신을 무슬림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진리를 구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자.

제29일 / 12월 4일 이탈리아의 무슬림들

1. 이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을 이해하려는 더 깊은 열망을 갖게 되어서

무슬림들을 전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기도하자.

2. 지극히 적은 전임 선교사들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자.
3. 사랑으로 우정 전도를 통하여 무슬림들에게서 신뢰를 얻도록, 우정 전도만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며 그들을 사랑과 용납함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적대감으로 굳어진 마음을 녹이도록 기도하자.

제30일 / 12월 5일 마필라의 무슬렘

1.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방문해서 마필라 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2. <예수> 영화가 말리야람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마필라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훈련받는 사람들을 계속 늘어나게 하시고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01

“캄보디아 아웃리치에 참여하십시오”

캄보디아 아웃리치는 영어예배에서 1999년 캄보디아 이영통선교사님의 선교지를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로 지금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 두차례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을 청소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현지 의료지원이 절실함을 느끼고 2001년부터는 의료선교



로 성격이 전환되었으며, 작년에 관악공동체에서 이영통선교사를 임양하신 뒤로 사역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는 주간에는 빈민촌과 프놈펜 외곽지역을 방문, 의료선교와 미용선교를 하게 된다. 어떤 지역은 그마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의료진료를 하는 마을도 있다. 밤에는 빈민촌 소망교회(선교 베이스)에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 QT 지도, 태권도교육, 워십교육, 찬양악기지도 등 분반활동을 한다.

의료아웃리치이지만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의사, 간호사(특히 치과의사분과

치과 위생사님),약사, 미용사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하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할 수 있다. 많은 의약품을 구입해 가야하므로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여름의류, 슬리퍼, 학용품, 어린이영어소설책, 의약품, 칫솔, 치약 등의 물품 후원이 필요하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다면 홈페이지(www.hopecambodia.com)에서 기도제목을 보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제목

1. 이번 아웃리치에 하나님도 꼭 필요한 분을 보내주시길 수 있도록
2. 현재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 건축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 내년 봄에 한국으로 견학을 올 약 50명의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서 세 창 형제

02

“선물 보내셨어요?”

성탄절 맞이 순연결 선교사에게 선물보내기 캠페인

1. 선물종류

-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선교사 자녀(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인형 등), 옷, 장갑, 모자 등, 큐티 서적, 컴퓨터 게임 S/W,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선교사 부인: 화장품, 스카프, 내의, 양말, 장갑, 한국 고유의 차(종이팩), 기독교 관련 소품, 여성 잡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에 좋은 것 등.
 - 선교사: 선물용 학용품(필기도구, 수첩 등), 서적(기독교, 일반서적), 넥타이, 양말, 손수건, 지갑, 성가 테이프, 시사 잡지.
 - 기타

- 공동: 의류, 장갑, 핸드크림, 신앙서적, 잡지, 일반서적, 문구류, 내의, 여행용티슈, 물티슈, 2003년도 다이어리, 달력, 태월, 영양제, 샴푸, 치약, 차(모과차, 유자차 등), 찬양 음반, 비디오 등
- 음식물: 고춧가루, 미숫가루, 카레가루, 멸치, 미역, 김 등 건어물, 국수류(당면, 냉면), 고추장, 된장, 라면, 과자류(쿠키, 껌, 사탕), 건과류
- 남성: 화장품, 남방, 면도기

여성: 화장품, 여성잡지, 액세서리, 생리대, 스카프, 향수

* 보안지역 선물제의 품목: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사리 등

2. 방법

연결된 선교사들의 이름과 주소,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10월 27일자 온누리 신문 또는 온누리 신문 홈페이지 검색 (<http://www.onnuri.or.kr/news/10/27일자검색>)

• 문의: 신원석, 황민식 간사 (내선 216, 208번)

3. 선물 발송

선물내용을 순원들과 기도하며 정한 다음 우체국으로 가서 선교지 주소로 직접 발송합니다. 이때, 보내실 카드 내용에 순장님의 주소, 연락처, 메일주소를 적어주시면 선교사들과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안지역

신문에 기록된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보내시면 됩니다.

5. 우편요금

(항공요금으로 0.5kg기준)

- 1지역(동북아): 9천원
- 2지역(동남아): 1만원
- 3지역(북미, 중동, 유럽): 1만3천원
-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1만7천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일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여, 온누리TV가 세가지 테마로 각 주제에 맞게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다. 특별히 이번 테마 기획 프로그램에서는 이 계절에 소홀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하여 한번 더 상기 시키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다.

▶ 레마 1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테마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선교에 대한 온누리TV의 비전을 보여준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위한 보이지 않은 도움의 손길 등을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선교사들의 돕는 배필(에zell 선교회) : 뜨거운 중보기도의 사람들과 사역 이야기
- 웨스트민스터 가든에서 온 사람들 : 한국엔 온 은퇴선교사들
- 일본을 품은 사람들(하나님의 나라, 일본): 일본의 5개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들
- 땅 끝에서 온 편지: 선교사님들의 고백

▶▶ 레마 2

3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챔피언”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30대 남성을 위한 전도 집회를 다시 한번 온누리TV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2월 테마 기획의 한코너를 장식할 이 프로그램은 첫째날 “The Power”, 둘째날 “The Pro”, 셋째날 “The Passion”의 집회를 모두 방영할 예정이다.



▶▶▶ 레마 3

이스라엘, 그 땅을 향하여!



온누리교회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인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현 상황과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 볼 수 있는 시간이다.

-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 성령집회 : 성령충만한 삶
- 요셉 술람 목사와의 대담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

*

아프간 지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003년 2월10일~6월21일
 마감: 2003년 1월 12일
 * 제3기 - 2003년 8월4일~12월20일
 마감: 2003년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 기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전반기 - 2003년 1월 6일~2월 7일
 (구정 연휴주간은 쉽니다.)
 접수 마감: 2002년 12월 22일
 * 후반기 - 2003년 6월23일~7월19일(4주)
 접수 마감: 2003년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 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Fax (031) 336-6354
 owmc@onnuri.or.kr

☞ 소아시아 기도모임
 12월 9일(월) 오후 7:00 선교관 301호
 주제: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강사: 이경옥 선교사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12월 16일(월) 오후 7:00 선교관 3층 302호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2002년 12월 27일~2003년 1월 1일(마감 12월 7일) / 주최: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역팀
 기도모임: 12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름옷, 슬리퍼, 학용품, 칫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c21@hotmail.com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동아시아 지역 선교사모집
 유치원교사 3명, 영어교사 2~3명, 한국어교사 2~3명, 간호사, 치기공사, 치과의사, 컴퓨터, 피아노 교사 각 1명
 대상: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한 사람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2003 선교캠프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2월 31일(화)~1월 3일(금) 호서대아산캠퍼스
 강사: 최바울 선교사, 강요한 선교사, 황디모데 선교사, 심명철 선교사 등
 접수: www.missioncamp.net
 (2차 마감: 12월 14일)
 문의: InterCP (교 6)
 missioncamp@hanmail.net

☞ 북카프카즈 소수민족 및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카프카스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콥 표용진 간사(교 230)

☞ 아제르바이잔 난민의료사역 의료진 및 의약품 모집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아제르바이잔내 난민촌 일대
 경비: 약 140만원 내외
 마감: 2002년 12월 10일
 전체문의: 인터콥 표용진 간사 (230번)

에젤선교회
에젤인의 밤
 12월 9일(월) 오후 7:00 서빙고 경천홀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젤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자원봉사자
☞ 온누리 라파(의무실)사역
 오후 4:00~6:00
 셋째 주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관련학교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
 장소: 서빙고 예배당 본관 1층 복지재단 사무실
 문의: 엄성욱 간사(661)

일어예배 유치부(프치 파프스)에서 반주로 봉사할 교사
 토요일 오후 1:00~4:00
 문의: 기타노 전도사(019-255-5874)
 황해경 간사(교 702)

Mission Builder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 강의
 문의: 이영재 간사(교233, owmc@onnuri.or.kr)

*

01

에젤인의 밤 열려

에젤선교회가 송년모임인 '에젤인의 밤'을 연다. 오는 9일(월) 오후 7시 경찬홀에서 열리는 이 모임은 한 해동안 해온 사역보고와 2003년 사역계획을 밝히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

이날 김사무엘 목사의 설교와 김내현 장로의 에젤의 비전발표와 함께 에젤협력 찬양팀인 C2R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7면)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파프스클럽 뮤지컬 공연



파프스 어린이들이 부모를 초청해 12월 14일(토) 오후 7시부터 경찬홀에서 프치 파프스는 말씀과 찬양으로 꾸민 연극을, 파프스는 '세 개의 숲'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한다.

'세 개의 숲'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세 어린이가 세 개의 숲을 헤매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해가는 이야기이다.

2백 명 이상의 미신자가 참석할 이번 축제를 위해 일본어예배팀은 "프로그램과 스태프의 움직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제 2기 'Why Missions?' 95명 수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제 2기 'Why Missions?'가 지난 30일 종강했다. 지난 9월 7일부터 12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95명의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성경적인 강의와 함께 선배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었다. 미국의 C&MA 소속 선교사들과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의 간증은 선교에 꿈을 가진 성도들에게 크게 도전을 주었다. 이외에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임, 무릎선교사에 대한 간증과 헌신, 관심있는 종족별 모임을 가지고 선교의 꿈을 새롭게 했다.

(관련기사 6면)

04

대학부 요한 공동체

인도차이나에 성령의 불을

요한 공동체는 2003년 1월 겨울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한 이번 겨울 아웃리치는 '성령의 도화선을 설치하자'란 주제로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5개국에 복음을 전한다.

공동체 전체가 태국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한 후 5개국 5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하고 다시 태국에서 집결한 후 돌아온다.

대학부 서동욱 목사는 "인도차이나는 불교권이며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다. 저희 대학부는 인도차이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3, 4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한 주제처럼 성령의 도화선을 설치하는 밑거름이 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웃리치의 준비와 재정적 필요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 기간: 1월 20일~29일

· 문의: 서동욱 목사(011-9895-2994)

전성희 shee@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기도' ... 가장 먼곳을 가장

저희들은 지난 10월 31일 한국을 떠나 미국에 잠시 머문 뒤 11월 13일 브라질에 돌아왔습니다. 한국 방문 동안 기도 선교사 여러분과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의 브라질 사역을 중간 점검하고 다음 사역 준비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라질과 남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지만 기도로 더욱 가까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교회 교사 수련회 인도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15일은 공화국 탄생 기념일로써 공휴일이었습니다. 저와 김연아 선교사는 하루동안 쌍파울로 시내 봉해치로에 위치한 한인 선교교회(이광렬 목사 담임)에서 교사수련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번 교사 수련회는 교사들의 영성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갖도록 하기 위한 큐티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사의 대부분인 4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유익하고 은혜스러운 시

간이었습니다. 교사들이 머리만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손과 발이 되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2003 큐티 캠프' 일정이 발표

그동안 1년 가까이 준비해오던 2SM에서 주최하는 큐티 캠프가 내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처음 하는 이번 큐티 캠프는 저희 부부가 강사로 3박 4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예정인데, 쌍파울로에 거주하는 한인 1.5, 2세들을 말씀으로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가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한인 청년으로서 금년 12월 31일까지 2SM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아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언어도 한국어와 포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큐티 캠프에는 내년부터 훈련에 들어갈 여호수아 2기 학생들이 초청될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여호수아 2기 개강 수련회를 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에 다시 들어오는 여정 속에서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개척자로서의 긴장감을 느껴보았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현실적



인 문제와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들로 잠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박운용 김연아 선교사 올림

기도제목

1. 브라질과 남미의 안정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2. 필요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겸손한 나귀가 되도록
3. 2SM 사역의 정착과 재정공급을 위해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안디옥(파송-중앙아시아-인터콤-과천수원)
 - 2003년에도 영적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 날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바람이 많은 이곳 바쿠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 아제리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획을 주시도록
 -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예파, 할리데, 세바, 아르주, 이라테)을 기억해 주시도록

이명순(파송-스웨덴-YWAM-열린)
 - 이 땅의 부흥과 교회의 연합, 특별히 교회 안의 거룩함을 위해
 - 가족들의 구원과 성령세례를 위해
 - 성경연구학교 간사를 마치고 다음 발걸음을 위해 기도 부탁

이석희(파송-인도네시아-TIM-서빙고)
 - 람퐁에서 여학생 전용생활관을 얻었는데 이곳에 입주하는 여학생들이, 나니, 엔당, 에페이 균형있게 잘 자라가도록
 - 람퐁에서의 거주지 확보를 위해
 - 람퐁선교에 톨타임으로 동역할 수 있는 현지인 선교사를 보내주시도록

권윤일/다케다 기꾸고(후원-일본-기성회와선교회-한강)
 - 10월부터 시작된 담임목사의 부재기간에 오카자키 교회의 대행목회를 무사하게 할 수 있도록
 - 사탄의 여러 가지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 매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 일본어의 숙달, 특히 일본어 설교를 위해

'제 2기 Why Missions?' 를 마치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김묘정 자매

벌써 1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Why Missions' 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선교사의 구체적인 전략 사항에 대해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음성 가운데 선교사로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마치면서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에게 무릎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처럼 죽어가는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만, 내가 없어서 이 선교의 역사를 늦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후보생의 간증을 들으며, 그리고 양화진에 주님의 이름으로 '1백 번의 1천번의 목숨이 주어질지라도 한국사람들을 위해 바치겠다'는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고백들을 보며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라는 말씀을 보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으며,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중세의 암흑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계셨고 모든 역사의 태동은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영적 불모지인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라는 말씀처럼 매일의 삶이 순교로 이어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의 간증에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어떻게든 준비시키고, 보내시고, 세우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살고 있는가?였습니다. 이것을 나의 삶과 과제로 남고 나의 최대 목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편 27편4절의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곧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함께 거하며,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전에 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라는 말씀처럼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백정식 형제

선교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 인 기회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세미나에 참석해 자기사명선언서를 작성하면서 아내와 함께 정년퇴직 후에 부부해의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인천 송의감리교회 해외선교훈련원의 1년 과정을 마치고 인도 봄베이로 단기선교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인도 남자분과 결혼을 한 공작자선교사님과 함께 봄베이 외곽을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빈민촌과 산동네, 목사님이 운영하는 판자촌의 가설교회와 도심의 크리스천 유치원, 양계농장 주인인 인도분이 순교한 농장 지도원 등을 방문하며 인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이후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를 느끼고 온누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3년동안 순장 학교를 마치고 이제 'Why Missions?' 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대학까지 성장하도록 뒷바라지 한 후 약 10년 내에 자비량선교사로 인도에 신학과와 경영학과를 가진 자그마한 대학을 하나 세우고, 섬

기다가 돌아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언더우드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자그마한 학교가 오늘날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것처럼 작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Why Missions?' 에 출석을 하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선교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 다. 나는 20대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참으로 귀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도에 계시는 공작자 선교사님은 제가 10년 후에 인도에 가겠다고 하면, "집사님 늙어서 무얼 하려고 그렇게 늦게 오느냐"고 농담을 하시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교관이 되겠다고 했다가 되겠다고 한 것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해보입니다. 저는 언제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도하며 준비할 뿐입니다.

선교사 잊지 않고 기도, 사랑선물 보냅니다

27개 기도방서 2백여명 중보기도자들 기도 및 재정후원



에zell선교회는 선교사들의 내면적 필요를 충족시켜 그들에게 새 힘을 주기위해 95년에 설립됐다. 히브리어로 에zell은 '돕는 손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에zell선교회는 선교사 파송보다는 각 교회와 교단 및 선교단체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들을 기도와 재정으로 돕고 있다. 선교사들이 혼자서 아님을 알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에zell의 중요한 사역

에zell에는 27개의 기도방에 2백여명의 기도자들이 있다. 이 기도방들은 한국의 각 지역과 미국, 필리핀에도 있다. 중보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내셨다 주신 것을 경험하고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 기도제목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한다. 재정적인 후원은 2년씩 매달 1백달러씩 하고 있으며 선교사님들의 상황에 따라 연장 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 70여명의 선교사님들을 재정으로 후원하고 있다. 1백30여명의 선교사님들을 재정지원이 끝나도 계속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

에zell의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는 선교사와 그 자녀들의 생일에 선물과 카드를 보내는 일이다.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성어린 카드를 직접 만들기도 해 보낸다. 어린이날

에는 모든 선교사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에 맞게 선물을 준비해 발송하고, 가을이 되면 고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낙엽과 단풍을 예쁘게 만들어 보내기도 한다. 또한 크리스마스때에는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선물을 각 기도방별로 준비해 보내고 있다.

현재에서의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라고 한다. 파송될 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랑 속에서 선교지에 나가지만 몇 년이 흐르면 후원이 끊어지고 점점 잊혀진 사람이 된다는 것과 현지에서도 마음을 터놓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때문에 이 작은 선물과 카드 한 장에 선교사들은 많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다.

선교지 방문

에zell 선교회는 일년에 두 세 차례 선교지를 방문한다.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 협력 목사인 크리스 해리슨과 내직치유세미나와 QT세미나를 통해 계속적 영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 영적성장이 있도록 격려하며, 외향적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도록 삶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필리핀 현지 오캄포 목

사와 함께 야외 찬양집회를 가졌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중보자를 위한 영성훈련

에zell은 QT, BEE 세미나들을 통해 중보자들이 영성훈련을 한다. 해마다 '에zell 은혜학교'를 진행하며 크리스해리슨 목사, 박종길 목사 등 협력목사들, 선교사님들을 통해 중보기도자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에zell선교회는 한달에 한번 매월 둘째 월요일 오전에 정기 기도모임을 한다. 중보기도자들 모두가 선교사님들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 생생한 선교지 소식과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중보하는 시간이다.

에zell의 비전

에zell은 평생을 오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고 노년에 은퇴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갈 곳 없는 선교사들을 위한 머물 곳을 제공하고 싶은 비전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에덴동산 조성계획 (Eden Missionary Town Building Project)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다. 에덴동산은 크게 3가지 사역으로 준비중이다. 첫째 'Missionary Silver Town (MSTI'

이다. 이곳은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과 아파트, 선교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사의 건강을 책임질 병원이다. 둘째, 'Missionary Training School (MTS)'이다. MST에 머무는 선교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후배 선교지 망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선교사 교육, 양성 기관, YWAM 또는 다른 선교 단체들과 초 교파적으로 협력, 위탁 운영도 한다. 셋째, 'Christian Theme Park (CTP)'이다. 기독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세상에 전파 할 수 있는 기독교를 주제로 한 놀이 공원이자.

또한 에zell선교회는 MK(선교사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 MK스쿨 설립을 계획, 선교사들을 위해 자녀 학교를 만들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zell의 사역을 드러내지 않는 사역이다.

어린이날, OMC, 윌로우 크릭 세미나 등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슨일이든 해야 한다고 에zell은 생각하고 있다. 세계를 품고 선교사님들이 나아가듯이 에zell선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과 영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 갈 준비가 되어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부르셨습니다

에zell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돕는 손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zell선교회는 선교사님을 직접 파송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허입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아전군이라면, 우리는 후방에서 돕는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병처럼 숨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도 중보기도가 가장 강력한 후원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 시작된 기도방은 현재 27개로 늘어났습니다. 2백여명의 기도회원들이 요일별로 모여 선교님들 한분한분의 이름을 부르며 강력한 기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zell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리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지만 기도하며 고된 의미있는 선물들을 통해 그분들이 결코 외롭지 않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아름다운 사역에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용사뿐 아니라 숨어서 조용히 선물하나를 포장하고 발송해 드리는 꿈과 예쁜 마음을 가진 에zell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zell이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교사안식센터와 선교사 자녀학교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내현 정로
에zell선교회 이사장

중보기도모임

에zell의 가장 주요한 사역인 중보기도 모임을 현재 27개가 매주 모인다. 이 모임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만드는 에zell 소식지(선교사들의 편지를 모아 만든 기도책자)에 실린 선교사들의 기도제목

을 놓고 기도한다. 중보기도모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자신은 갈수 없는 곳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 무릎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

요일	기도방	리더	시간	장소
월요일	물대동산	이명미	오전 10-12시	광명시
	겨자씨 2	김정순사모	오전 10-12시	잠실
화요일	임마누엘	문혜영	오전 10-3시	은누리교회
	스바나	신혜영	오전 10-12시	은누리교회
	달리다금	박현숙	오전 10-12시	용산 산천동
수요일	생수	김경옥	오전 10-12시	자양동
	두란노	두란노 직원	오후12-1시	두란노서원
	오른도어	김혜영	오후 2시-4시	목동
	양재햇불	황주현	오후12-1시	양재동
목요일	겨자씨	안이환	오후 7-9시	두란노-에zell사무실
	미라나타	백은선	오전 10-12시	충북제천
	사랑	김성순	오전10-1시	일산
	아가페	정지현	오전10-1시	일산
	에스터	허수영	오전10-1시	일산
	나오미	최은미	오전10-12시	은누리교회
	베다니	김광조	오전10-2시	양재 햇불성전
	양재찬양중보	정장철	오후 7-9시	미국
	축복	장인선	오전10-12시	미국 시카고
	야베스	김혜남	오전 10-12시	광진구
아도나이	박성욱	오전10-12시	인천	
헬사바	이영애	오전 10-12시	일산	
마리아	박미숙	오전10-12시	이촌동	
셀라	강효경	오전10-12시	양재동	
하사모	서석순	오후7시	필리핀	
세바자	주진우	오전10-2시	일산	
금요일	왕같은제사장	허보영	오후7-9시	두란노-에zell사무실
서빙고 청년	권순호			
토요일	여호와삼마	김득찬	오전10-2시	신정동



“축복의 통로되어 땅 끝으로 간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을 넘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내년을 계획하는 이 즈음, 유난히 설레는 가슴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온누리세계선교사 훈련학교(OWMTS;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선교센터 1기 훈련생들이다. 지난 6월 훈련을 시작,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26주를 보내고 드디어 12월 14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 강의가 한창인 OWMTS 현장을 찾았다.

OWMTS의 하루는 채 해가 떠오르기도 전인 오전 6시에 시작된다. 유난히 상쾌한 공기, 추워보이긴 해도 웬지 든든한 나무를 지나 새벽 미명에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성경을 펴고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보내면 맛있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오전 8시, 훈련생들을 위한 따뜻한 한 식사가 마련되어 있다. 식사는 혼자 식사와 이인과 집사가 마련하고, 설거지는 훈련생들의 몫이다. 순번제로 주방과 식당을 정리하고 그릇을 닦는다.

기대와 설렘으로 훈련 마치

6월 17일 리더십 선교훈련학교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한 훈련이 어느덧 25주가 흘렀다. 그동안 동료 선교사, 선교단체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법, 선교학, 관계훈련, BEE 등을 통해 선교사에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지난 11월부터는 영어 훈련을 하고 있다. 강의는 오전 9:30~오후 12:30, 오후 2:00~4:00, 오후 4:00~6:00, 오후 7:30~9:00 등 총 네 번 진행된다. 오전에는 모두 모여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A,B팀으로 나누어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

훈련생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센터 안에 있는 탁아방에서 탁아방 선생님께서 간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에서 아이들은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서로를 배운다.

요즘 훈련생들은 영어를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훈련생들을 위해

▲ ▶ 훈련을 받는 동안 아이들은 탁아방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 이날 아이들은 졸업사진(?)을 찍었다.

훈련생들이 살고 있는 7동 센터. 가족이 함께 온 훈련생은 1층에, 싱글 훈련생들은 2층에서 살고 있다. 훈련생들을 위한 휴게실과 드레스룸이 건물에 있다.

예비된(?) 강사를 만나 대화는 물론 영어 찬양도 함께 배우고 있다. 이날 주제는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친구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훈련생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은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다. 대부분 선교보안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요즘 훈련생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있다. 출국을 할 수 없다면 다음 훈련생들을 위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나와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들의 기도 제목이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갖고 다음 주에는 3일간 금식기도에 들어간다. 6개월 간의 훈련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2년간 선교베이스에서 활동할 준비를 한다. 이들은 선교베이스에서 섬기



▲ 25주 훈련일정을 마친 OWMTS 1기생 17명이 영어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주 3일 금식기도로 훈련을 정리하며 선교지를 향해 나간다.

면서 그곳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교지로 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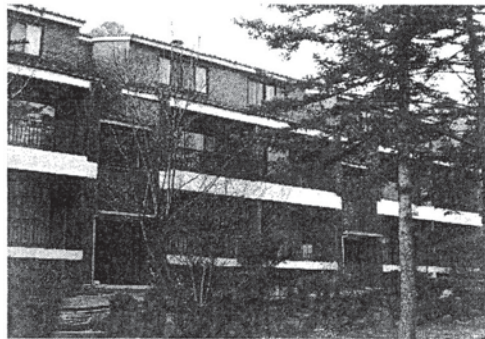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다려

그동안의 훈련을 받은 소감을 물었다. “저는 성별 신나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게 감사해요. 그런데 6개월을 돌아보면 쉬운 훈련은 아니었

던 것 같아요. 체력에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 제가 어떻게 이 훈련을 했나 싶어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김정희 자매)
“새벽부터 밤을 만들어 주시는 혼자자권사님과 이인자집사님의 식단은 단순 끼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6개월간 정말 때 식단마다 감동적인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특히 혼자자권사님의 아침마다 펼쳐지는 식사메뉴는 오병이어의 기적과같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김선복 자매)
오는 14일 수료식을 앞둔 훈련생들의 마음은 벌써 선교지에 가 있었다.

서철 choi@onnuri.or.kr



OWMTS 훈련 과정

주	날짜	테마	강의 내용
1	6/17~21	성경	리더십 선교훈련학교
2	6/24~28	M.T.	Life Mapping
3	7/1~5	M.T.	TNT
4	7/8~12	커뮤니케이션	동료, 현지인, 교회, 선교단체 등
5	7/15~19	가정	자녀교육, 부부생활, 가정상담, 도덕
6	7/22~26	Life Style	선교사의 삶, Lordship, 팀워크 등
7	7/29~8/2	선교학	선교신학, 선교역사, 한국선교사, 교리
8	8/5~9	관계훈련	관계훈련
9	8/12~16	문화	상황화, 티문화, 사역사례 등
10	8/19~23	전도, 리서치	생활전도, 전도실습(지역 리서치, 전략 수립, 전도실습)
11	8/26~30	전도 아웃리치	실습
12	9/2~6	성령	9/1~4 성령집회, 월/화/아웃리치 발표, 수(C&MA강사)
13	9/9~13	성경탐구 40일	팔~금
14	9/16~19	연휴	추석
15	9/23~27	타문화교회개혁	교회개혁 이론, 타문화교회개혁, 양육(일대일, 제자도)
16	9/30~10/4	선교동원/창조과학	화~수: 창조과학 금:TIM/2천선교
17	10/7~11	멘토링/리더십	은퇴선교사 방문
18	10/14~18	BEE	갈라디아서
19	10/21~25	비교종교학	이슬람, 힌두교, 천주교, 불교 등
20	10/28~11/1	TEE	
21	11/4~8	선교역사/전략	
22	11/11~15	영어/C.L(BEE)	
23	11/18~22	영어/C.L(BEE)	
24	11/25~29	영어/C.L(BEE)	
25	12/2~6	영어/C.L(BEE)	
26	12/9~13	기도원/수료준비	

*

아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003년 2월10일~6월21일
 마감: 2003년 1월 12일
 * 제3기 - 2003년 8월4일~12월20일
 마감: 2003년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 기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전반기 - 2003년 1월 6일~2월 7일
 (구정 연휴주간은 쉽니다.)
 접수 마감: 2002년 12월 22일
 * 후반기 - 2003년 6월23일~7월19일(4주)
 접수 마감: 2003년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 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2002년 12월 27일~2003년 1월 1일(마감 12월 7일) / 주최: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역팀
 기도모임: 12월7일부터 매주 토요일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름옷, 슬리퍼, 학용품, 칫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온누리미션 물품
 의정부샬터에서 쓸 사무용 책상, 온누리미션에서 쓸 병동고(200리터 이상), 외국인 신학생들이 쓸 노트북
 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517,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특이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소아시아 기도모임
 12월 9일(월) 오후 7:00 선교관 301호
 주제: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감사: 이경욱 선교사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12월 16일(월) 오후 7:00 선교관 3층 302호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속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1년 이내 요청)

인터컴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2003 선교캠프
"여호와와 나의 내게 임하셨으니"
 12월 31일(화)-1월 3일(금) 호서대인산캠퍼스
 강사: 최하늘 선교사, 강요한 선교사, 황디모 데 선교사, 심명철 선교사 등
 접수: www.missioncamp.net
 (2차 마감: 12월 14일)
 문의: InterCP (교 6)
 missioncamp@hanmail.net

북키프카즈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키프카즈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컴 표용진 간사(교 230)

아제르바이잔 난민의료사역 의료진료, 의약품 모집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아제르바이잔내 난민촌 일대
 사례: 140만원 내외

에젤선교회
에젤인의 밤
 12월 9일(월) 오후 7:00 서빙고 경찬홀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젤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Mission Builder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 강의
 문의: 이영재 간사(교233, owmc@onnuri.or.kr)

동대문 남양주 터키 아웃리치
 2003년 1월말~2월초 / 터키에 관심이 있거나 터키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 대상
 문의: 최봉천 총무(011-352-6519)

2002 의료선교 송년예배
 12월 22일(주일) 오후 6:00, 서빙고 시온홀
 대상: A, B, C 사역팀 및 온누리리파사역팀
 문의: 엄성욱 간사(교 661)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

01

소아시아 공동체

송년·성탄 기도 모임

소아시아 공동체는 오는 16일(월) 오후 7시 서빙고 401호에서 송년·성탄맞이 특별 기도회를 한다. 이번 기도회의 강사는 신도 배 목사이다.

02

해외선교헌금 해주세요

2002년 해외선교헌금작정 34억7천7백60만2천8백원

11월30일 현재 헌금 25억7천738만원

9억7천60만2천8백원

2천선교팀에 따르면 올해 해외선교헌금은 1만1천1백26명이 참여해 34억7천7백60만2천8백원을 작정했는데, 11월 30일 현재 해외선교헌금 작정액의 74%인 25억7천만원이 헌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선교헌금을 작정한 1만1천1백26명 중 11월 30일까지 한번도 헌금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가 2천3백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천선교팀은 2002년을 마무리 하는 12월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선교헌금을 다 채워주기를 당부했다.

서철 chol@onnuri.or.kr

03

일만사역자 파송

오늘 서빙고 2부 예배시 김상진 오지연(미국) / 빌 해라 유수정 부부가 1만 사역자로 파송된다.

● 김상진 오지연(미국)

<기도제목>

- 학업과 언어에 지혜를 주시도록
-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주시도록
- 제주도에 계시는 양가 부모님의 건강과 가족 구원
- 항상 성령충만하여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 빌 해라(Bill Harrah) 유수정 (미국)

<기도제목>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섬기게 될 사역지를 위해
-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 가족의 건강을 위해

2000비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1

남미에 있는 아우카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현지에 들어갔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이들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한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거룩한 사명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잃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잃어서는 안 될 것 그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 목숨을 다하여 추구해야 할 목표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자기의 목숨을 투자하여 이루어야 할 목표를 발견하고 이의 성취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구체적인 목표를 발견했고 이들을 위하여 자신이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 투자하는

는 것을 투자하여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참 지혜로운 투자를 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똑

같은 고백을 달리 표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 사무엘 (은누리 세계선교센터 원장)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교사였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이와 동일한 고백으로 조선을 위하여 그의 피를 흘려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이제 17명의 첫 수료생들 배출하는 저희들은 여러분들 일생에 바울의 고백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고백처럼 사는 귀하고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분 한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2

'2천선교사 파송의 꿈' 이루어집니다

은누리선교센터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12월 초까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5백명이 넘고, 현지 선교사를 포함하면 7백 명이 넘습니다. 이번



황 중 연 목사

1기는 17명이지만 내년에는 장기 선교사만 60여명을 훈련할 계획입니다. 단기선교사도 6개월씩 2회를 하면 수십명이 될 것입니다. 1년에 1백명이 넘는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예전에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제는 어렵잖게나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훈련은 마치지만 아직도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러나 출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부는 C&MA교단의 베이스로 가고, 일부는 우리 교회의 선교 베이스로 갑니다. 어디

를 가든지 사역보다는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믿기론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보다는 '이제 내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욕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제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어떻게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03

"주님의 초대에 참여할 뿐"



이경화 자매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말씀하셨다. 그 일을 계기로 본인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으로 믿고 인도네시아에 가기로 결정했다. 훈련 첫째 주에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며 축복했던 시간이 좋았다. 4년 후, 다시 모여 그런 나눔을 하고 싶다.

기도제목

1.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저와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2. 매일 생명력 넘치는 QT생활을 하며, QT를 나눌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3.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과 사랑과 복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후원방법

후원관리자: 고명진(019-251-2489)
서울은행 52601-3064204, 국민은행 092-24-0096-625 예금주: 이경화

04

"위대한 하나님의 일 체험하고자"



김정희 자매 (인도네시아)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내 평생 가장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인도는 율리암 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며 떠났던 곳이고 수많은 종교가 혼재한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다. 선교학을 공부하며 무슬림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싶다.

기도제목

1.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흘러 넘쳐나길.
2. 뉴델리 국제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제자훈련을 하려는데,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고 영어가 힘들지 않도록.
3. 신실한 기도와 재정 후원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방법

kimluth@yahoo.co.kr.

05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손정은 자매 (폴란드)

예수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 나 자신을 드리고 싶었다. 지난 6개월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믿을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첫 두주간 하나님은 강의에 앞서 섬김을 가르쳐주셨다. 그 후 매 시간마다 본인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하며 하나님의 크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훈련을 받는 중 폴란드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나아가고 있다.

기도제목

1. 매일 생명력이 있는 QT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누리도록.
2. 신실한 후원관리자와의 만남과 기도모임이 이뤄지도록.
3.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후원방법

서울은행 52604-3063702 예금주: 손은정

06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갑니다"



최주연 자매 (미정)

1990년에 은누리교회에 오면서 선교에 대해 많이 듣게 되었고 경배와 찬양 수련회를 여러번 가면서 1992년 선교에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다. 그 후 서울현신 자훈련학교 1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재확인했다. 1기 'Why Missions?' 를 통해 OWMTS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훈련을 통해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QT를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공동체를 통해 함께 생활하는 지혜

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훈련센터의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마음에 항상 가득차도록.
2. 예수님을 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길.

후원방법

서울은행 52601-3066803
heartart@dreamwiz.com

01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영애 자매 (C국)

선교사님의 간증, 중보기도모임, 비전트립 등을 통해 8~9년의 지속적이고 점차적이며 구체적으로 C국으로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단기 사역을 하던 중 장기사역전환을 위해 이 훈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선교역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많은 선배선교사님들과의 교제,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만남 등 하나님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만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단기 사역 가운데 맞춤옷 같은 Y시

에서의 사역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기도제목

1. 가족 구원을 위해. (부모님, 언니, 동생 가족)
2. Y시 병원: 함께 사역할 사람들(치과의사, 치기공사)을 이끌어 주셔서 병원이 교육센터가 되고 현지치과의사들에게 복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후원방법

외환029-18-43925-3심영애 / 권영순 011-9049-4619

02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김길환, 이은하, 김주는 가족 (인도)

1997년에 인도로 처음 단기 선교를 갔다. 2000년에는 아내와 함께 1년간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비전들을 갖게 되었다. 선교사로 준비되기 위해 기도하던 중 인터넷으로 OWMTS 모집광고를 보게 되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배움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다.

기도제목

1. 1월중 인도 봄베이로 갈 예정인데, 준비가 잘 되도록.
2.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3. 문화적응과 언어습득, 그리고 현지인과 사역자들과의 좋은 만남과 관계를 위해.

후원방법

서울은행 52601-3065808 김길환

03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늘어나길”



김동훈, 김현심 부부 (T국)

6개월 동안 많은 변화와 기쁨과 감동이 있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많은 헌금에는 인색하지 않으시면 은퇴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이 기억에 남는다. T국의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무슬림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길 소원하며

내 자신을 드린다.

기도제목

1. 장기VISA를 받을 수 있도록.
2. 가족모두가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특히 자녀 요셉과 요한)
3. T국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어서 장기사역(10년~20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연결되기를

후원방법

서울은행 33904-0805615 예금주 김동훈

04 “미래 저희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조요섭, 서상명 부부 (T국)

T국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신하며 OWMTS로 한발짝 앞으로 나아왔다. 38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다가 강의를 해주신 John & Betty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충격과 분이 되어 주었다. 그외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미래의 우리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T국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많은 흔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변

화시키신다면 이곳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복음화될 것을 믿는다.

기도제목

1. 훈련학교를 마치고 현지에 나가기 전까지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2. 정착비와 생활비 후원자가 생기도록.
3. 가족 모두의 건강함을 위해. (특히 아내)

후원방법

농협 100083-52-065601(예금주 홍명표), 서울은행 33904-0902808(예금주 조요섭), 물품들(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05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



김선복 자매 (C국)

1990년에 C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땅을 마음에 두게 되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감사할 수 밖에 없었다. 감사와 스테프를 통해 존귀하게 대접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감했으며, 양지의 아침공기는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듯한 '영적산소'와 같았다. 홍무자권사님의 즐거운 헌신과 이인자집사님의 식단은 끼니를 채우

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기도제목

1. 언어훈련(2년)의 기간동안 현지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2. 기도와 재정의 후원을 위해서.
3.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즐겁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방법

하나은행 233-117163-00108 예금주 김선복 ksbvbsb@hanmail.net

06 “성장과 연단의 시간에 감사”



이정철, 이미경 부부 (우즈벡)

TIM간사로 섬기다 자매와 함께 훈련에 참석했다. 훈련 중 자매의 유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동체의 사랑 속에 회복되었고, 성장과 연단의 시간에 감사할 수 있었다. 처음 우즈벡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99년 단기선교를 통해서였고 그후 그 땅의 청년들에 대한 부담이 생겼다. 사마르칸트는 교육도시로 전략적인 캠퍼스사역의 거점도시이다. 우리는 내년 1월 중순경

에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도제목

1. 계속해서 후원교회와 후원자, 중보기도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2. 우즈벡어와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는데 집중해서 현지어를 배울 수 있도록.

후원방법

두란노해와선교회 지로이영, 두란노해와선교회(02-571-9535) 개인연락처 017-717-4475, 017-707-2763

07 “카라칼팍족이 예수로 회복되기를”



류명인, 송수영 부부 (우즈벡)

훈련 기간 동안 여유 있게 면 앞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고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고 자신을 리드하는 연습을 했다. 무엇보다도 훈련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라칼팍족'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진 후 젊은 층에서는 경제적인 궁핍과 영적인 궁핍 속에서 미래

에 대해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진리를 기다리며 목말라하고 있다. 그 민족이 예수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

기도제목

1. 카라칼팍스탄 정부가 예수그리스도 복음에 문을 활짝 열도록.
2. 나 자신을 이기고 부활의 믿음으로 매일 매일을 살도록.

후원방법

서울은행 25504-1908802 예금주 : 송수영

08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김경희 자매 (아프가니스탄)

훈련을 받기 전에는 선교에 대해 큰 틀만 알고 있었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그 틀 속에 선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공동체 생활을 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신앙 색깔과 기질, 자라는 환경들이 달라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다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세밀하심 인도하심에 매번 감격과 놀람으로 새로 시작되는 한 주 한 주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깊어질 수 있도록
2.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동역자, 기도편지 관리자, 중보기도 및 재정 후원자)

후원방법

서울은행 (52601-3064001 예금주 김영희)

'한국에서 일본 복음화 꿈꾼다'

일본어예배는 2천 1만 명의 선교적 비전을 따라 1990년 1월 일본인 전도를 위한 한글강좌, 같은해 6월 일본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토요학교 개교 등을 일거름으로 10월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어예배가 시작되었다.

평생에 두 번,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교회에 간다는 일본인에게 친근한 교회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2002년 한 해 동안 한글강좌, 파프스 클럽, 각종 세미나와 축제를 통해 일본인들의 굳은 마음에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해 일본어예배가 해온 노력을 살펴본다.

2002년 예배의 변화

2002년은 작년부터 일본어 예배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사무엘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예배의 영성을 다듬어가는 한해였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메시지의 감동을 통해, 순결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 9월 부터 결성된 일본어 예배부 성가대는, 본당 3부 예배부의 멤버였던 김형석 성가사님의 지휘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약 50여명이 모여 매주 예배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대일의 정착, QT의 생활화

올해 초 일본어 예배부가 세운 목표는 바로 일대일의 정착과 QT의 생활화였습니다.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일대일 제자훈련이 조직화 된 것은 올해 초로 주일 오전 예배 후 많은 일본어 예배부의 성도들이 커피숍에 모여 열심히 훈련에 정진하는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는 또 양육자 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 주님의 은혜가운데 20여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올 8월에 이루어진 QT 강조기간을 계기로 생명의 삶을 통한 일본어 QT가 일본어예배 전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쁘띠(프랑스어로 작고 귀엽다는 뽀뽀)팝스, 팝스 클럽

프치 팝프스, 팝프스 클럽은 서울에 사는 일본인 어린이들과 일본어를 하는 한국인 어린이들에게 일본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 들어가 민들레의 흙씨처럼 선교사로 살도록 하기 위해, 프치 팝프스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팝프스 클럽은 2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프치 팝프스는 평균 20명, 팝프스 클럽은 45명 정도의 친구들이 매주 성구를 암송하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을 전도도 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프치 팝프스에서 '밤 잠기



등 매일 이벤트를 통해 부모님이 교회에 오시도록 합니다.

12월 14일(토)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큰 이벤트인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프치 팝프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찬양과 암송성구로 구성했고, 팝프스 클럽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어린이들



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교회에 불신자가 2백 명 이상 오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였습니다.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기도해 주십시오.

YJCF

연세대학에서 매주 수요일에 이루어지는 YJCF는, 서울에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크리스천이나 미신자인 청년들이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일본어 예배부의 김영성 집사님이 전하는 젊은이들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메시지가 호평을 받으면서, 미신자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감동을 받는 만남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4학기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는 이 모임에, 필요에 따라 봉사자를 보내주시는 주님의 채우심이 있어, 즐겁고 의미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글 강좌 - 1년간의 은혜의 결음 -

일본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 한글 강좌의 존재는 일본인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1년간 씩 읽히던 수가 희망자가 있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와 봤다는 사

람들도 많고, 주 2회 다니는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변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글을 배우는 것만 아니라 한국을 알고,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기 위해 한국 요리 교실을 열기도 하고, 버스로 모두 레스토랑에 가서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맛 보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장으로 서 강사를 초청해, 행복한 가족 관계를 위해 여성으로, 아내로, 어머니로서 활력 있는 삶을 위한 세미나도 2회 가졌습니다. 한글 강좌에서 어린이들을 섬기는 스텝들의 모습과 모든 활동을 통해 성령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생긴 것은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에 일본의 다섯 교회에서 모여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 하였습니다. 즐겁고 생명력 넘치는 캠프에 아이들은 기뻐하였고, 진정 의미 있는 아웃리치의 모습을 제시하는 교본이 되었습니다. 또 올 8월에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아웃리치를 떠날 팀을 대상으로한 '일본 선교 학교'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어예배부 소속 일본인들이 일본선교에 뜻이 있는 한국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어예배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 첫발을 내딛은 것이었습니다.

2002 Korea-Japan World Cup

올해 한국에서 개최된 월드컵은, 일본어 예배부로 하여금 직접 전도에 나가야 한다는 도전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께 기도하며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까 달은 것입니다. 전도 리더십 세미나에도 참가하고, 이번 전도를 위한 별도의 자료까지 일본에서 구입하여 나선 노방전도에는, 일본어 예배부의 청년에서 어른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가 모여, 작업하는 태양 아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온누리교회 전체에서 이루어진 다민족 축제는, 특별찬양과 일본 전통음악에 복음을 실은 노래 그리고 맛있는 규동(소고기) 덮밥을 판매하며, 교회에 일본어 예배의 존재를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선교예의 도전

이번 여름 일본어 예배부에서는 지금껏 그 예가 없던 형식의 아웃리치 팀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팝스 클럽의 스텝들이 한국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

한글강좌에 감사하며

'외로움 대신 기쁨 준 교회'

그동안 연라 못 드러서 죄송합니다. 싱가포르에 이사 온 지 벌써 2개월이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우리 딸 하나와 함께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이나 육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셔서 매번 정말 즐거웠고 공부도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알기 전까지는 집에서 낮에는 딸 하나와 함께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만, 교회에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고서부터는 친구도 많이 생기고 매일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이전에 누군가 말했듯이 저에게도 교회는 문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교회는 누구에게든 열려 있는 곳으로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기쁘게 맞아주는 좋은 곳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주시는 크리스천 신문(복음판도) 평소의 제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여러모로 생각하게 해주는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온누리

에서 알게 된 여러 선생님들 비롯해 많은 친구들은 저와 하나의 보물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시일에 또 만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갈 때는 선생님께 연락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교회에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모쪼록 여러분들께 안부 전해주시고, 다시 편지 하겠습니다.

본시 미키, 하나 드림

*

아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003년 2월10일~6월21일
 마감: 2003년 1월 12일
 * 제3기 - 2003년 8월4일~12월20일
 마감: 2003년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 기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전반기 - 2003년 1월 6일~2월 7일
 (구정 연휴주간은 쉽니다.)
 접수 마감: 2002년 12월 22일
 * 후반기 - 2003년 6월23일~7월19일(4주)
 접수 마감: 2003년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 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성탄 송년 기도회
 12월 16일(월) 오후 7:00
 말씀: 신도배 목사
 (저녁 애찬을 함께 나눕니다.)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12월 16일(월) 오후 7:00 선교관 3층 302호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선교관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2002년 12월 27일~2003년 1월 1일(마감 12월 7일) / 주최: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역팀
 기도모임: 12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름옷, 슬리퍼, 학용품, 칫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온누리미션 물품
 의정부웰터에서 쓸 사무용 책상, 온누리미션에서 쓸 냉동고(200리터 이상), 외국인 신학생들이 쓸 노트북
 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517,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리카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공중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1년 이내 요청)

인터캠프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2003 선교캠프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2월 31일(화)~1월 3일(금) 호서대아산캠퍼스
 강사: 최바울 선교사, 강요한 선교사, 황디모 데 선교사, 심명철 선교사 등
 접수: www.missioncamp.net
 문의: InterCP (교 6)
 missioncamp@hanmail.net

북카프카스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카프카스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캠프 표용진 간사(교 230)

에젤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젤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Mission Builder
 봉사내용: 오전-선교훈련 보조사역 참여
 오후-자유시간, 저녁-예배, 강의
 문의: 이영재 간사(교233, owmc@onnuri.or.kr)

동대문 남양주 터키 아웃리치
 2003년 1월말~2월초 / 터키에 관심이 있거나 터키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 대상
 문의: 최봉천 총무(011-352-6519)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통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

01

중사모 연말모임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후 중사모)이 올해 마지막 정기 모임을 23일(월) 오후 7시 서빙고 선교관 302호에서 모인다. 중국 땅에서 연말연시를 보낼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와 선물교환 등이 준비되어 있다.

02

사역본부	사역팀	담당간사
2천선교본부	2000선교 TDM 선교센터 온누리미션	김경민, 신원석, 김효람, 황민식 • 이영재, 김태완 원영기, 박종진, 이경희

03

“남은 여생 복음전파에 헌신합니다”



손 정 래

나의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정속에 추운 겨울에도
꽃이 피는 봄에도 무더웠던 한
여름에도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
을에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장로

되길 소망합니다.
늘 영으로 깨어 있어 교회와 사
역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싶
습니다.
앞으로 세계와 북한을 향한 복
음전파에 제 인생의 남은 시간
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싶습
니다.



선교지에서 온 펄스

'몸이 아픈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던 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눈의 문제로 인해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두 눈의 치료과정과 몸상태를 보고 드립니다.

이곳 건립 기도원에 들어와 안정을 취한지 1년이 넘는 가운데 그동안 두 눈 망막을 위한 검진과 치료를 4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쪽 눈 다 망막 중심부에 문제가 생긴 것이어서 수술시도는 어려웠습니다. 중심부를 잘못 건드리면 실명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움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안약을 먹으며 기약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왼쪽 눈에서 시작하여 몇 개월뒤엔 오른쪽 눈마저 어려워지면서 지난 10여년간 현장사역속에 몸 전체가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망막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눈과 몸 전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눈의 안정을 위해 오전 오후 많은 시간 누워서 보내야 했습니다.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위와 장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소화기능장애로 오랜시간 죽을 먹으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과로가 남긴 대가가 어떠한지 처절히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역하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름이 오면서 몸을 움직이며 몇십분씩 걸어보았는데 조금만 무리하면 곧바로 망막과 시신경에 무리가 와서 중단을 했다가 가을부터 몸상태가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아 다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중에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11월말 현재 눈의 시력은 90% 가까이 돌아왔지만 조금 먼거리는 아직 선명하지 않고 왼쪽눈은 아직 제 색상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며 두 눈 다 선들은 휘어져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1~2개월 경과를 지켜보면서 최종검진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상태가 되면 맨먼저 선교현장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형제들을 너무

오랫동안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주신 몸을 잘관리하지 못해 주님께 그리고 몸된 교회에 어려움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저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구바울 선교사(파송-소아시아-무소속)

'중영수술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장 내시경을 전체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랫쪽에서 종양을 하나 제거했고, 이번에 윗부분에 하나 더 있어서 마치 절개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악성은 아니고, Tubular Adenoma(선종)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5-7년후에 암으로 발전하는것이 나쁘다.

다행히 잘라낸 후에는 별 이상은 없다고 하나 앞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선종이 한번 발병했던 사람은 대장암 발병 확률이 높다고 주의하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영려해 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로이 잘 마쳐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위준호 선교사

(파송-말레이시아-TIM-강남A)

선교사를 위한 기도

위준호/김문숙(파송-말레이시아-TIM-강남A)
- 얼마전 위 선교사가 대장 부근에서 두 개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재발 방지와 건강회복을 위해
- 강선교사는 두번째로 아기를 유산하고 회복 중인데 영육이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

구바울(파송-소아시아-무소속)
- 과로 인해 두 눈의 망막이 손상되었습니다. 4차례에 걸친 치료를 받는 동안 소화기 장애도 겹쳐 죽을 먹으며 투병 중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김만복/박화진(후원-중앙아시아-인터서브-이촌)
- 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박인내(파송-동북아-인터콥-성동광진)
- 도시의 조그만 민족학교에서 특별활동반(무용, 컴퓨터, 축구, 영어등)을 가르치는데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 언어의 지혜를 주시도록

안드레/서석남(파송-이스라엘-TIM-양천)
- 예루살렘의 평안과 메말라기는 영혼이 소생할수 있도록, 총리 선거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도록
- 캠퍼스 사역에 기름부어 주시고 준비되고 헌신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계비라(현직인-내팔-은누리미션)
-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 하나님께서 사역비를 채워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도록

아프간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북위 29도와 38도 사이에 위치하며 서남아시아에 속한 나라로서 서쪽의 이란 동쪽의 파키스탄 그리고 위쪽에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등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잠재적으로 많은 침공을 예견하고 있었으며 실제 이들의 삶이 전쟁의 연속이었음을 알고 있다.



이로 나라가 분열하여 여러가지 재앙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나라전체가 기근과 전쟁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지난 6년동안 자행된 탈리반 정권의 억압정치와 9.11테러 이후 미국과의 전쟁은 아프간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현지 이곳은 국민대다수가 절대 빈곤층이며 70% 이상이 문맹이고 성인 50% 이상이 실업상태이며 대부분의 기간산업과 시설이 파괴됨으로 정치 상황 또는 아직 불안하여 국민들을 돌볼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파괴된 아프간의 재건을

위해 그 나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한국을 비롯 각국의 NGO들이 동참하고 있다.

은누리교회 네번째 방문

두란노해의선교회(TIM)도 (사) 동서문화개발교류회라는 NGO를 아프간에 설립, 아프간의 험벗고 주린 사람들을 돕는다. (사) 동서문화개발교류회는 회원단체 후원, 모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의료품 및 의료인을 모집해 의료지원팀을 파견한다. 그리고 생필품등을 긴급 구호품으로 지원하여 급한 필요를 채워준다. 이외에도 의료, 교육, 농업 관련 관계 장관, 지원단체, 등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현지 인원 파견과 현지인들에 대한 한국 초중교육 및 관련물품, 서적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으로 네번째 방문을 하는 팀은 아프간에서 NGO등록과 농촌지역선정, 병원사업 지원선정, 현지 사무실과 현지인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만·남 / NGO 설립 위해 아프간 가는 손정래 장로

"복음의 생명 넘치도록 기도 바랍니다"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아프간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사단법인 동서문화개발교류회를 NGO로 등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NGO로 등록되면 아프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프간 현지상황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한 세 차례 방문이 동서문화개발교류회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NGO등록을 마치면 한 지역을 선정해 우리의 새마을 운동과 같이 그 지역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의료, 교육, 주거환경을 개발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강일영 선교사, 김영국 선교사가 함께 카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팀이 1월 중순 김중원 목사님과 김창욱 전도사님이 방문할 것입니다. 지역을 선정할 때는 4-5개 지역을 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할 때 카불대학에 한



컨테이너 분량의 농업관련 서적을 지원하며 아비스나 병원에 담요 3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컴퓨터도 20~30대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에서 공부할 학생들을 5명 정도 한국으로 초청해 아프간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키울 예정입니다. 1명이 공부하는데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1년에 1만불 정도가 소요되는데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파트너를 신실한 사람 만나 NGO 등록을 신속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팀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서철 chol@onnuri.or.kr

*

아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송년 기도 모임
 12월 23일(월) 오후 7:00 서빙고 401호
 말씀: 박종길 목사
 문의: 김화수 집사(011-448-4262)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제2기 - 2003년 2월10일~6월21일
 마감: 2003년 1월 12일
 *제3기 - 2003년 8월4일~12월20일
 마감: 2003년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기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전반기 - 2003년 1월 6일~2월 7일
 (구정 연휴주간은 쉽니다.)
 접수 마감: 2002년 12월 22일
 * 후반기 - 2003년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2003년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 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 2천선 기도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목요일 오후 1:00~2:00 / 서빙고 403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2002년 12월 27일~2003년 1월 1일(마감 12월 7일) / 주최: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역팀
 기도모임: 12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름옷, 슬리퍼, 학용품, 칫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온누리미션 물품
 의정부셀터에서 쓸 사무용 책상, 온누리미션에서 쓸 병동고(200리터 이상), 외국인 신학생들이 쓸 노트북
 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517,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종교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용)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활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1년 이내 요청)

KIBI
송년 이스라엘의 밤
 12월 26일(목) 오후 7:00 서빙고 시온홀(선교관 지하 2층)
 내용: 7시부터 저녁식사(부페), 예배(말씀 이양목 목사), 특별국악찬양, 2002년 KIBI사역 및 회계 보고 등
 문의: KIBI (792-7075~6)

인터캠프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2003 선교캠프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2월 31일(화)~1월 3일(금) 호서대 아산캠퍼스
 강사: 최바울 선교사, 강요한 선교사, 황디모 데 선교사, 심명철 선교사 등
 접수: www.missioncamp.net
 문의: InterCP(교 6)
 missioncamp@hanmail.net

북카프카즈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카프카즈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캠프 표용진 간사(교 230)

에zell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동대문 남양주 터키 아웃리치
 2003년 1월말~2월초 / 터키에 관심이 있거나 터키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 대상
 문의: 최봉천 총무(011-352-6519)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

01

With 2003 해외선교헌금작정

1월 5일과 12일 주일예배 시간에 '해외선교헌금'을 작정한다. 해마다 온누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함으로써 한해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해외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다. 2천선교팀은 특별히 금년부터 해외선교헌금 작정에 'WITH2003'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WITH' (함께)는 온누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불꽃으로 온세상을 밝히고 있는 온누리교회 5백여 명의 선교사들

과 함께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올해 해외선교 헌금 작정액은 34억7천만원. 올해 처음으로 자동이체작정을 실시하여 헌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실 헌금액은 81.5%인 28억원에 그쳤다. 2002년 해외선교헌금의 73%는 50개국 5백여 명의 선교사 생활 후원금, C국 유치원 건립, M국 대학지원, A국 농장지원과 국제학교, 아프간 의료지원 등 각종 선교지 사역비로 집행

되었다. 2천선교팀은 2003년에 이스라엘 개척선교와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역을 본격화하며, 우상의 나라 일본에 총 12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3년 선교헌금 38억원이 작정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2천선교팀은 "한 주간 기도로 한해를 정리하고, 1월5일과 12일에 감사와 헌신으로 'WITH2003' 작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02

의료선교팀 송년의 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웃리치 A,B,C팀과 여호와라파팀, 안다옥팀이 모두 참석해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었다. 이날 이양목 목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자”고 말했다.

의료선교팀은 지난 22일(주일) 오후 6시 서빙고 시온홀에서 '송년의 밤' 모임을 했다. 이날 모임에는

서철 chol@onnur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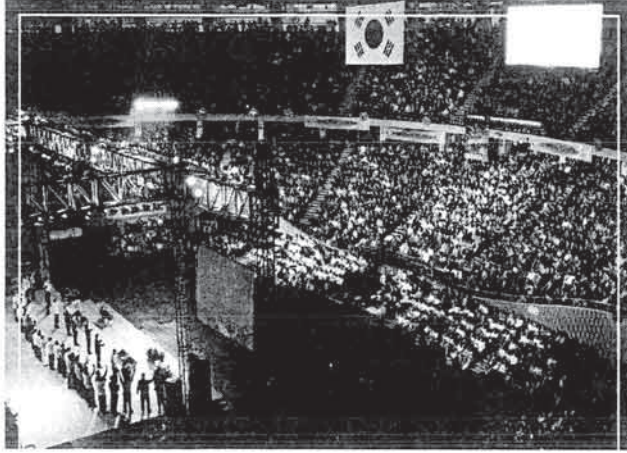
〈의료선교팀 2002년 아웃리치 내역〉

	A팀	B팀	C팀
2월	전북 군산 새희망교회		
3월	파주 연풍감리교회	일산 한마음교회	
4월	의료인의 밤	이천 대포리교회	
5월	충북 보은 예수마을	변동 코이노니아	
6월	일산 아름다운교회	이천 대포리교회	파주 생명의부활교회
7월	스리랑카 아웃리치	사이판 중국교회	일산 한마음교회
8월			순창 임마누엘교회
9월	양지 뱀열교회	용인 백향목교회	태안 주님의교회
10월	변동 코이노니아	삼척 고천교회	파주 생명의부활교회
11월	신생교회	일산 한마음교회	파주 드림교회

2002 온누리

행복한 가정 · 깨끗한 사회 · 건강한 세상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건강한 세상을 위한 첫 걸음은 삼일절 장심집회였다. 1만여 명의 온누리 성도는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를 위한 '가정 사회 세상 밝히기 위한 10계명'에 서약했다. 이어 2002년을 뜨겁게 달군 월드컵을 위해 온누리 성도는 960시간 띠기도를 시작했고, 교회를 개방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했다. 러빙핸즈는 4월과 9월 교회 인근 지역을 청소했고, 청년대학을 선두로 온 성도들의 힘을 모아 수해주민들을 도왔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문을 열었고, 장애우와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운영을 시작했다. 탈북자들을 위한 체육대회와 북한 어린어린이들에게 내복을 보내는 일을 돕기도 했다.

일본복음화를 향한 열정



일본 복음화를 향한 열정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한 해였다. 올 초 온누리 공동체 교역자 24명이 일본에 세워진 5개 온누리교회를 순회, OT와 일대일, 선교, 내척치유 등을 강의하며 시작된 '온누리교회 사역과 프로그램을 일본 교회와 함께 하자'는 움직임은 11월 열린 '일본 온누리 공동체 하코네 수련회'에서 꽃을 피웠다. 하코네 수련회는 서울, 일본 5개 온누리교회 그리고 일본 현지 교회 교인 2백 5십여 명이 함께 했다. 하용조 목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다가올 일본의 영적 부흥에 대해 선포했다. 또한 7월 3일에는 일본에 12개의 온누리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다섯 번째 발걸음으로 일본 아치 온누리그리스도 교회(아치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아프간 · 파키스탄 지원



지난 해 9.11 테러 이후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 온누리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정당을 통해 아프간인들을 도움 방법을 찾았다. 지난 12월 19일에는 현지에서 NGO 등록을 위해 손정래 장로가 아프간 현지로 떠났다. 현지에서 그들을 도움 방법을 찾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콘서트 등을 통해 힘을 모아 아프간을 지원했다.





새신자 및 맞춤전도

지나해 4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비상구'를 시작으로 전락적 맞춤전도집회가 열렸다. 특히 올해 60대, 50대, 30대등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가 순서대로 열렸다.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던 60대를 위한 전도집회 '앙코르'에서 254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들 가운데 80명이 세례를 받았다. 또한 5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브라보'는 7월 8일부터 3일간 열려 142명의 결신자중 39명이 세례를 받았다. 지난 12월 9일부터 3일간 열렸던 3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험미안'에서는 7백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3백 10명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표현을 했다.

여성사역 꽃 피웠다



올 한해 여성사역은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연초에 양재성전에도 여성사역팀을 새로 만들어 빠른 시간내에 정상게도에 올랐다. 예배 및 문화사역, 여성사역자학교, 큐티나눔방등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양재와 서빙고에서 펼쳐졌다. 특히 4월 30일 하루동안 펼쳐진 여성비전대회를 발판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성사역 축제'를 열었다. '성령으로 Make-up하자'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온 1천 8백명의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신들의 모습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했다. 한편, 여성사역팀에 속하지 않았으나 여성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열렸다. 여성이혼자치유학교(DRS) 2년 열려 이혼한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안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문제, 자녀양육문제등을 검토했다.

30개 지교회 위한 첫걸음

12월 15일, 공간적 한계를극복하기 위한 '30개 지교회'의 첫 열매인 부천 온누리 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렸다. 창립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는 "부천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성경적 가정세우기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온누리 가정사역축제 '클릭 홈'에서는 부부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뤄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을 도왔다.

2002 온누리 행전

- 1월 13일 2002년 온누리교회 조직 발표 -12개 사역본부 175개 사역팀으로 사역 확장
- 1월 13일 9시에 뜨는 별 예배 시작
- 2월 1일 안수집사 띠기도 시작 -2인1조 39개 팀
- 2월 10일~12일 중국어예배 성령집회
- 2월 16일 하용조 목사 온누리기도 모델 제안
- 2월 19일 맞춤전도 '비상구' 51명 세례
- 2월 23일 리더십목양대회: 하용조 목사 트리니티 신학교로부터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
- 3월 1일 삼일절 참살 집회: 1만명 참석, 가정 사회 세상 밝히기 위한 10계명 선포
- 3월 17일 새가족 저녁반 신설
- 3월 28일~30일 부활절말씀집회 '가상칠안'
- 3월 29일 방배동 약속의 땅 매각
- 4월 1일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예배
- 4월 15일 6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앙코르'
- 4월 21일 건강한 교회 만들기 10계명 발표
- 4월 29일 의료인의 밤-아웃리터 C팀 조직
- 4월 30일 여성비전대회
- 5월 7일~18일 아프간 1차 정탐
- 5월 13일~15일 온누리 가정사역축제 '클릭 홈'
- 5월 20일~27일 아프간 2차 정탐
- 5월 24일~26일 청년 선교대회
- 5월 26일 월드컵 본선 32개국을 위한 기도책자 발간 온누리성도 960시간 띠 기도
- 5월 28일~30일 월드컵 전도부흥집회
- 5월 31일 아프간 사진전
- 6월 6일 다민족친구초청잔치
- 6월 25일 화요성령집회시 대한민국:독일 경기 관람
- 6월 26일 QTN농부 축제-QTN농부 순장 세우기
- 7월 3일 일본 아치요 교회 이취임예배-성서목 목사 이임, 김철희 최지영 선교사 취임
- 7월 7일 삼암동 주차장 사용
- 7월 8일~10일 5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브라보'
- 7월 12일~22일 아프간 3차 정탐
- 8월 4일 주일예배, 새벽기도회에서 QT간증 시작
- 8월 4일 30번째 등록교인 탄생 -박복희 자매
- 9월 1일~4일 하용조 목사 성령집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 9월 17일 '브라보' 39명 세례
- 9월 28일 아프간 돕기 한성원 유선식 목사 콘서트
- 10월 5일 은퇴선교사 20명 입국
- 10월 6일 창립 17주년 기념예배
- 10월 12일 Holy Fire 청년 대학 연합 집회
- 10월 14일 부천 온누리교회 첫 새벽예배 시작
- 10월 19일 토요일예배 시작
- 10월 23일 강인원 박강성 하나로 후원 '드림콘서트'
- 10월 24일 제1기 출산예비학교
- 10월 25일 탈북자 체육대회 지원
- 10월 27일 선교사에게 성탄선물 보내기 캠페인
- 11월 1일 장애우 노약자 위한 저상버스 운행시작
- 11월 4일 EEF 한국 지부 설립
- 11월 6일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중보기도회
- 11월 11일~13일 온누리여성사역축제(OWMC)
- 11월 11일 연말 특별 40인 새벽기도회
- 11월 18일~20일 키이스 인터레이터 목사 성령집회
- 11월 20일 미8군 군악대 연주회
- 11월 25일 대학청년 연합 수재민에게 김치 전달
- 11월 27일~29일 일본 온누리공동체 하코네 수련회
- 11월 29일 세라핌 찬양단 콘서트
- 11월 30일 경배와찬양학 설명회
- 12월 1일 2003년 성인사역 조직 발표 - 목회 기획, 공동체 등 7개 사역본부 담당교역자 발표
- 12월 8일 2003년 32개 공동체 담당교역자 발표
- 12월 9일~11일 30대 남성을 위한 전도집회 '챔피언'
- 12월 15일 부천온누리교회 창립예배
- 12월 19일 대선을 위한 기도회
- 12월 19일 순정태 장로 등 아프간 사역 시작 (NCO 등 록 등)

건강한 세상을 위해 '거룩한 리



**'거룩한 리더십'을 세울 것을 다짐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 새 정부를 위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깨끗한 사회, 건강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만 순장,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온누리에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 것입니다. 지난 삼일절 잠실실내체육관 집회에서 맛보았던 감동과 은혜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날 '건강한 세상 만들기 10계

명끝까지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일본의 영적 부흥 선포, 아프간 도와

-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온누리의 관심

이 하나되기 위해 기획한 수련회였는데, 소문을 듣고 일본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7백~1천명이 모여 일본의 영적 부흥을 선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발을 닫게 해 주시고, 그들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에 걸친 아프간 정탐, 3천장 담요 지원, 파키스탄 교회 지원 등에 이어 곧 아프간에 NGO 등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내년에는 본격적인 아프간, 파키스탄 사역이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축복

- 올해 특별히 새길만한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사역과 전도사역입니다. 금년 여성사역에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성사역축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천5백 여성 리더십이 모여 여성사역의 획기적인 부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사역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에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맞춤전도집회입니다. 초신자 2천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 약 4분의 1인 4~5백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02년 한 해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바로 그 교회' - 온누리비전을 구체화, 가시화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신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달려온 풍성한 결실 건강한 세상 향해

- 지난 1년 동안 온누리 성도는 한마음이 되어 '건강한 세상'을 향해 달려 왔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 이 비전이 온누리에 안겨 준 풍성한 결실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목표를 향해 달려오면서 하나님은 온누리교회가 이제는 교회 밖의 세상을 바라보며 보다 적극적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의 영성, 성령 중심의 영성, 공동체 중심의 영성, 선교중심의 영성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성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



▲ '건강한 세상'을 향해 달려온 온누리 2002년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신 은혜의 한 해다.

명'을 선포했습니다.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장애우 노약자 위한 저상버스 운행, 러빙핸드 거리청소, 탈북자 체육대회 지원, 월드컵을 위한 피기도 및 주인과 하나된 응원 참여, 강원도 수재민 돕기 등 온누리가 세상을 품고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누리에 주신 또 다른 모습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 일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 2002년은 일본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해였습니다. 일본에 12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이 있었는데, 벌써 5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요코하마와 나고야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코네 수련회에 일본교회 지도자, 성도 3백여명이 모였습니다. 원래 서울, 일본 온누리 성도들

더십을 세우십시오'

2010년, '2천1만 비전' 완성

- 온누리 '2010비전'에 대한 성도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 '2010비전'이란 2010년까지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을 말합니다. 2003년~2005년 1단계, 2006년~2007년 2단계, 2008년~2009년 3단계, 2010년 4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비전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국내에 30개 지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일본 12개 교회를 포함 미국 등 해외 교회 개척 사역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차세대를 위한 수련관이 안성에, 전문적인 노인복지 사역을 위한 실버타운이 이천에 세워질 것입니다. 양지 선교훈련원, 남한산성 영성훈련원에서 '2010 비전'을 이뤄갈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 낼 것입니다.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교회성장개발진위원회'가 조직될 것입니다.

2003 온누리 -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

- '2010 비전'의 원년인 2003년, 새 해 온누리교회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새해 온누리교회 목표는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리더십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온누리가 직면한 세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리더십', '공간', '사역'의 한계입니다. '제한된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1만순장 프로젝트'입니다. 2천1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순원을 1만순장으로 세우는 비전입니다. '1만순장 프로젝트'를 통해 리더십의 깊이를 더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제한된 리더십'이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천온누리교회'와 같은 지교회 3개 정도를 세울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디지털 스쿨, 디지털신문을 통해 당면한 '사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누리 사역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서는 '조직의 단순화', '사역의 일원화', '예산의 창의적 운영', '교회의 국제화'란 네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국제화 예배 신실과 함께 새로운 꿈 - '글로벌 온누리 축제'

- '교회의 국제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 전 세계로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온누리 예배, 온누리 사역을 국제화하여 해외에 소개하고, 전 세계 교회와 보다 긴밀히 네트워킹하는 비

교회내 선교 역량 통합- 선교지 개척, 확장 사역 힘써

- 내년에는 교회 내 선교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2000 선교사 파송' 비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선교지를 개척, 확장하는 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아프간, 이스라엘에 신규 선교지를 개척하고, 일본, 미국교회 개척을 통해 선교지를 확장할 것입니다. 나아가 선교지 사역 활성화를 위해 이제까지 이뤄져 온 선교사역을 정비, 보완할 것입니다. 특별히 2008년에는 온누리 파송 선교사 지역별 네트워크, 온누리미션, BEE 사역 활성화, 선교사 양육의 글로벌화, 선교

서 목사님께서는 '100만 큐티운동'을 강조 하셨습니다. 아마 10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땅은 새롭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성도 가운데 10%인 100만 명이 큐티를 생활화한다면 분명히 이 땅은 변화할 것입니다. '100만 큐티 운동'은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의 사람'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는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100만 큐티 운동'은 큐티로 성도에게는 영적 성숙을, 한국교회에는 부흥을, 이 땅에는 꿈, 소망, 사랑이 샘솟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꽃피우자는 운동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온누리교회와 두란노가 하나되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중보기도와 성령사역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100만큐티운동본부'의 재조직, <생명의삶>의 대대적인 혁신, 큐티 목회자 기초양육 스쿨 개설, 대학 캠퍼스 큐티 운동 확산, 교도소·군 부대 등 특수 선교 계층 큐티 운동 확산, 큐티를 통한 영적 부흥 운동 국제화 등의 사역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온누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의 축복을 누리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큐티를 통해 비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나라, 교회, 일만순장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 새해를 맞는 성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예수 공동체의 지체로서 '거룩한 리더십'을 세울 것을 다짐하십시오.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 새정부를 위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가정, 깨끗한 사회, 건강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일만순장,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대담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 '2010 비전'의 원년인 2003년 온누리 교회 목표는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이다. 새해를 맞아 온누리는 '조직의 단순화', '사역의 일원화', '예산의 창의적 운영', '교회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했다.

전입니다. 세계와 온누리를 네트워킹해서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아랍어권과 사역을 나눌 것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예배와 긴밀히 협력하며, 서빙고 본당 주일 오후 4시 국제화 예배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나아가, 빠른 시일 안에 세계의 지도자들을 초청,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 컨벤션, 글로벌 온누리 축제를 개최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지 운영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사역 결산제, 선교 헌금 자동이체, 스태프 전문화 등이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청년·대학부를 비전 2000의 중심축으로 구성하고, 공동체별 선교지와 입양종족 사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인 사역 동력화를 이룰 것입니다.

큐티는 건강한 세상의 지름길

- 지난 두란노 창립 22주년 감사예배에

*

아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216)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003년 2월10일~6월21일

마감: 2003년 1월 12일

* 제3기 - 2003년 8월4일~12월20일

마감: 2003년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전반기 - 2003년 1월 6일~2월 7일

(구정 연휴주일은 쉽니다.)

접수 마감: 2002년 12월 22일

* 후반기 - 2003년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2003년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 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 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일 2천선교 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온누리미션 물품

의정부셀터에서 쓸 사무용 책상, 온누리미션에서 쓸 냉동고(200리터 이상), 외국인 신학생들이 쓸 노트북

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517,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2003 선교캠프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12월 31일(화)~1월 3일(금) 호서대 아산캠퍼스

강사: 최바울 선교사, 강요한 선교사, 황디오

데 선교사, 심명철 선교사 등

접수: www.missioncamp.net

문의: InterCP (교 6)

missioncamp@hanmail.net

북카프카즈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카프카스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콥 표용진 간사(교 230)

에젬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젬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월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소
평 2층(온누리교회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동대문 남양주 터키 아웃리치 준비모임

2003년 1월 3일(금) 오후 7:30

대상: 아웃리치 신청자

장소: 추후 연락

문의: 최봉천 총무(011-352-6519)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2002년

2002 1 6 ~2002 12 29
370 ~418

2003년

2003 1 5 ~2003 12 28
419 ~469

01

해외선교헌금작정

5월과 12월 서빙고 양재 부천예배 시



1월 5일과 12월 주일예배 시간에 '해외선교헌금'을 작정한다. 해마다 온누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함으로 한해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해외선교헌금'을 작정하고 있다. 2천선교팀은 2003년에 이스라엘 개척선교와 아프가니스탄 현지 사역을 본격화하며, 우상의 나라 일본에 총 12개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03년 선교헌금 38억원이 작정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02

'예배시간 바꿉니다'

양재 - 공사로 인해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등 변경
 부천 - 성인 2부, 초등부, 유치부 오전 11시30분
 서빙고 - 오후 4시 국제영어예배(본당), 성인 5부(경천홀)

국제 영어예배

우리교회의 프로그램과 영성을 세계에 알릴 뿐만 아니라 각종 좋은 영상과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한 '국제영어예배'가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시작한다. 성인 5부는 경천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일본어예배

일본어예배의 9시 예배와 오후 3시 비전예배가 오늘부터 한 예배로 합쳐져 오전 11시 30분 소회의실에서 드리게 된다. 일본어예배는 일본 선교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온누리 일본선교회를 1월 12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주는 오후 4시 국제영어예배를 같이 드린다.

*

온누리국제영어예배
 We are the window
 1월 5일부터 주일 오후 4:00, 서빙고 본당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003년 2월10일~6월21일
 마감: 2003년 1월 12일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2003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1월 30일(목)~2월 2일(주일)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벌옷, 슬리퍼, 학용품, 칫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영어2부 일본어반 교사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금)부터 매주 금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 선교훈련, 선교사후원기도 및 점검, Outreach
 1차훈련: 요나선교학교 및 선교증보 (3월 14일~6월 27일: 15주)
 2차훈련 (9월 5일~12월 5일: 12주)
 회비: 1만원(간식, 교재비)
 문의: 장현주간사(교252)



선교지에서 온 편지

전쟁 고철이 아프간 살립니다

저희에게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2002년의 해가 거의 기우고 있습니다. 이곳 U국은 지난 7년간 어느 때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병원 후원의 밤

병원을 이전하고 지난 11월 30일 서울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저희 병원 후원을 위한 "실크로드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 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관심을 갖고 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저녁은 실크로드와 이 지역에 널리 흩어져 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민족들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팀은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Air Mobile Clinic"의 비전이 전달되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공기가 마련되는대로 전 아프간을 마음대로 다니며 아프간과 페르시아 장 전체의 역사를 바꾸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더욱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ANF network을 만들어 한국의 여러 선교병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곳 실크로드와 이슬람 지역의 민족과 국가들에 의료를 이용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추수하는 일에 전략을 공유하는 비전이 구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사역의 진행

저희 병원 의료팀은 이번 연말 연시를 고통받는 아프간 백성들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현지인 의료인 2명을 포함한 5명 도합 7명의 의료진이 10일간 마자리 사리프와 세브르간에서 진료 사역을 하고 그 동안 계획하던 클리닉을 만들 구상을 하고 올 계획입니다.

항공 이동진료의 비전을 위해 세브르간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곳에 활주구가 있는 공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기증받은 의료기자재가 있어서 현지 병원에 적절하게 기증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직접 진료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클리닉을 열어서 환자들을 추후 관찰하며 사역을 펼



쳐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간 전 지역에 널려있는 탱크나 비행기 등의 고철 무기들을 수거해서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건설이나 건축에 사용하려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구상 중에 있어서, 1월에는 이 관계의 한국 사업가들이 아프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쟁을 상기시키는 많은 잔재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면 참으로 큰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잘 성사되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여호수아 선교사

(파송- 중앙아시아-인터콥-성북)

선교사를 위한 기도

황디모데/송예나(파송-소아시아-인터콥-동대문남양주)
- 교회이름을 "세린치"(기쁨)를 바꾸었습니다. 새 이름으로 태어난 "기쁨구원교회"를 위해

전광호/김해린(파송-인도네시아-청조과회화-서빙고)
- 새 학기 시작될 페트라 대학 창조과학과의 강사(인담토 박사님, 이부 안나, 그리고 저)와 수강생을 위해
- 모슬렘 종교권으로 사역이 확대되고, 창조과학을 구심점으로 대회의 문이 열리도록

이명순(파송-스웨덴-YWAM-열린공동체)
- 성령님과 동행, 주님을 만나도록
- 통역에 기쁨부으시도록
- 가도모임 통해 스칸디나비아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 가족들의 구원과 성령세례
- 영육간의 강건함

한익권(파송-몽골-인터콥-강서김포)
- 몽골의 춥고 가난한 겨울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담대하게 지낼수 있도록.
- 허리 디스크로 인해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 주님이 주신 새 비전이 잘 준비 되도록

김사라/박다윗(파송-동북아-TIM-강남B)
- 양육, 교제중인 지체들이 위구르의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진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 올해 사역을 은혜안에 잘 마무리하도록
- 아침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 현지 언어 숙달 위해

선교사에게서 온 성탄 카드

먼 땅에서 온 '기쁨의 소식'



"예수님 내심을 축하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되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우심에 제가 많은 힘을 얻었음을 고백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복된 삶과 가정의 평안 누리며 감사와 기쁨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한나 선교사

(파송-동북아-TIM-고양은평)

"포근한 사랑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심으로 인해 제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귀한 헌금, 따뜻한 스웨터(입으면 정말 포근해요), 그리고 사랑의 격려등 모든 것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에 만배로 갚아주시길 가정과 사역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혜 선교사(파송-영국-YWAM-광명인천)

"종사권 비신권린 비아권 멘드 후크기"

(꽃들의 달성탄절과 새해에 기쁨을 전합니다)

센베노! 주님안에서 성탄과 새해의 인사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전합니다. 2003년은 내 몽골에 흩어져 있는 예비된 영혼들의 손에 번역된 쪽복음이 전해지는 감격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늘 후원해 오신 교회와 성도님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내몽골쪽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승리에 찬 소식이 오고가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에스더, 동천과 동화가족

(후원-동북아-GBT-성동광진)

"꾸밈없는 몸짓으로 사랑전합니다"

울 한 해도 사랑으로 보살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이곳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그보다 더 보람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인도 벵갈로르에서 이상우 박선희

(파송-인도-TIM-서초B)

"성령안에서 통성한 교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방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올 한해도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부러지는 복음의 씨앗과 그 열매들 모두 동일한 감격으로 저희와 함께 거두시길 소망하고 함께 거두는 기쁨이 내년에 더 풍성하길 기도해 봅니다. 저희들을 후원해주시는 한분 한분 없이는 이 모든 열매들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저희와 한 팀으로 서서 기도와 사랑으로 신실하게 후원해 주신 한분 한분을 진심으로 다 시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한해, 더 큰 열매와 주님안에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더욱 넘치기를, 그분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한 중보와 승리의 소식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성령안에 교제함의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박찬덕, 박은하 선교사



01

7개 본부 조직 및 사역

구분	분과명	본부교역자	본부장로	기획팀	비고
1	목회기획본부	김동국 목종필 이기원 박영길 이종실 조효영	김국홍	김동국 박종필 김국홍 김의복 이상록 조항진 박종기 김경선	
2	공동체 사역본부	김동국 박영길	조항진 신만인 주수일 허영오	김동국 박종필 이기원 박영길 신만인 주수일 허영오 전상현 심희민 양우석	
3	차세대 사역본부	신도배	김영수 김영석	신도배 김현철 김정숙 김치영 김영수 김영석 임안인	
4	대학·청년사역본부	박영환	김종인	박영환 서재원 손정현 김종인 이상필 최도성 이 불	
5	2000선교본부	김정숙	정현국	김종인 정현국 한용기 손기철 이승배 조성래 유성열 김성철 정성환 서두원	
6	국제화본부	한 흥	박용국	한 흥 박용국 김원근 우광범 손한기 피터 월디	
7	전도사역본부	이재훈	손한기	이재훈 조효영 손한기 이 불 조정민	

02

사역본부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선교본부 및 2000선교	기획팀	김정숙	유현덕	하용기 유현덕	정대서	이승배	조성래 유성근 손기철 이영식 장성환 서두원	
	실행팀			현영찬	나승주	홍정 홍영욱	구지범 문이신 서정식 박무식 안상현 홍범식 강경연 김치연 윤수경 박미정 이희숙 이아록 신용애	
				신교지원	김윤식	자주한 안태환 박영준 안희철 정원덕 김완성 한종대 조동국 시 마 박영숙 김현정 어경자 박아영 전제상 방현순 천대우 김영주 윤선숙 김영하 구자현 어상희 동희옥 이우경 이혜정 김기호 최희영 신혜선 김진연		
				홍보	장신철	한백진 한정이 구태본 김숙경 이윤래 정영기 윤정희		
	공동체 선교팀			이국주	김희수	김철일	최창규 김선래 김신호 안태환 박일화 박영걸 정원덕 이종대 조덕환 홍시경 김경하 유병실 이시영 이종우 김영수 권종기	
	중보기도팀				유재천	이현숙	이용욱	문상아 민경익 유숙진 박은정 이명선 김정자 심순희 손창은 이재석 신남순 박욱자 김용숙
	온누리이선			김홍주 통제우 발길 이 준	원우현 심상달 황지연	박성우	김준상	황재익 김영석 신문순 김정숙 이민철 최창규 민동권 조성래 김건오 김진연 강부내 만비르상만 록 요셉 윌리엄 이희숙
	KIBI			이양록	송만석	장성태	장종기	권영석 한창중 김혜리 김원선 안규덕 이일순 전호진
	TIM			김종현	손정래	박인영	이하나	박소영 방지숙 박기창 김신순 김일영
선교훈련센터	황종연 김사무엘	황용오 이민희	김용준	이용대	김화수 김원일 송창도 천대우			
BEE KOREA	김사무엘	김내한	조성래	최남식	백인호 박기성			

03

4. 국제화본부

사역본부	사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국제부	기획팀	박용국 김원근 우광범 손한기 피터월디 한 흥				
	영어에베(서빙고)	한흥 추요셉 최정국 (파트) 알버트 리 / 론 서튼 스투어트 리드 프워 드론버그	박용국 김원근 우광범	노홍규 피터 월디	김재희	강 밀러 앤디 정 브라이언 고 이미지 지미 김
	영어에베(양재)	이은규 (파트) 조수아 김 / JP 박	유유하	제임스 강	커티스 장	박진천 박성철 폴 김
	일어에베부	김사무엘 초지 히사시	유병진	신인호	이안철	박진모
	중국어에베부	황종연 (파트) 염문홍 윤덕혜	김성수	김현철	장낙현	김광수 백은희 안영신 김은하



26억2천4백여만원 작정 목표액의 69%, 오늘 2차 작정

지난 주 1차 해외선교헌금작정에 6천6백69명이 참여해 26억2천3백72만원이 작정되었다. 이 금액은 목표액 38억원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늘 서빙고 양재, 부천 각 예배에서는 2차 작정을 한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성도는 선택한 은행을 방문해 자동이체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작정서 참조)

대학부 겨울 아웃리치

“겨울에 일으키는 성령의 불길”

■ 요한공동체

대학부가 겨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요한 공동체는 1월 20일부터 29까지 '성령의 도화선을 설치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으로 간다. 태국에서 1박 2일간 수련회를 한 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5개국으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떠난다. 요한공동체는 1월 14일(화) 선발대를 파송한다. 또한 13일부터 아웃리치를 통해 인도차이나 반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길 기도하는 여러교 기도회를 시작한다.

■ 바울공동체

바울공동체는 1월 20일부터 29

일까지 대만으로 1백여 명이 아웃리치를 간다. 바울공동체는 3년째 대만을 품고 아웃리치를 떠나고 있다. 올해는 대만 회은당교회 본당에서 열린전도집회를 열고 현지교회 두군데서 사역한다. 캠퍼스 노방전도와 팽팡기, 대만 현지교회 찬양팀 돕기 등을 하며 불교권인 대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돌아온다.

■ 다윗공동체

다윗공동체는 박관태 선교사와 함께 몽골 서쪽에 살고있는 B쪽을 향해 아웃리치를 떠난다. 1월 21일(화)부터 2월 4일(화)까지 12명 소수정예의 학생들은 B쪽에게 의료 선교, 전도, 주일학교사역, 열린 공



간에서 청소년 캠프사역을 한다.

한편 국내 겨울아웃리치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예정된 제주도 아웃리치에는 30여명이 참여해 미자립교회인 표선명강교회를 방문, 시설 보수와 전도, 겨울 성경학교, 땅밭기 기도회를 한다.

또한 작년 수해지역이었던 삼척시 미로면을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교회가 원하는 노력봉사를 할 삼척아웃리치는 오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진행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일본어 예배

“온누리 일본 선교회”



일본어예배는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일(주일)부터 매주일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온누리일본선교회'의 첫 문을 연다. 첫 강사로 하용조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온누리일본선교회는 '일본 부흥을 위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자'는 목표로 일본을 향한 선교비전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기도하며 실천하기 위해 신설됐다. 상반기(3월~7월)에는 일본선교학교를, 하반기(8월~11월)에는 선교의 시점에 대한 세미나 및 언어훈련을 할 예정이다. 온누리일본선교회는 선교사와 사역자를 파송하고, 일본선교를 위해 중보하며 집회안내와 통역 등으로 일본에 있는 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일본선교회는 홍보, 회계, 찬미팀, 통역 등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황혜경 간사 / 교 702)

흥을 위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자'는 목표로 일본을 향한 선교비전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기도하며 실천하기 위해 신설됐다. 상반기(3월~7월)에는 일본선교학교를, 하반기(8월~11월)에는 선교의 시점에 대한 세미나 및 언어훈련을 할 예정이다. 온누리일본선교회는 선교사와 사역자를 파송하고, 일본선교를 위해 중보하며 집회안내와 통역 등으로 일본에 있는 교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일본선교회는 홍보, 회계, 찬미팀, 통역 등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 황혜경 간사 / 교 702)

국제영어예배

“온누리 향해 문 열다”

첫 집회, 2천여 외국인 참석 '2천/1만 비전' 품어

Joy Zone - 오후 4시 선교관 4층
영어 중고등부 - 오후 12시 경찬홀

국제화 예배가 온 누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다. 지난 주일(5일) 오후 4시 국제화예배에는 중국어 예배팀, 일본어예배팀, 수많은 외국인들과 온누리성도들로 본당을 가득 메웠다.

국제화예배 시작을 축하하는 중국어 예배팀 찬양 '부활(Rivival)'과 전통의상으로 색다른 무대를 마련한 일본어 예배팀 찬양 '여기 사랑이 있네'로 예배를 시작했다.

이날 하용조 목사는 사도행전 2장 42~47절의 성경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며 "국제화예배가 기쁨부음이 있는 예배,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



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제화예배를 맡은 한홍목사는 "국제화예배를 통해 온누리교회의 좋은 영성을 전 세계에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국제화예배는 본당에서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영어 어린이예

배(Joy Zone)은 같은 시간 선교관 4층에서, 영어 중고등부예배는 12시 경찬홀에서 드려진다.

한편, 국제화예배가 본당에서 시작됨에 따라 오후 4시에 드리던 성인예배는 선교관 경찬홀로 자리를 옮겼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1

2003년 온누리 조직 추가 발표

2000선교본부 기획팀

윤현덕 하용기 손기철 이승배 조성래 유성열 김성철 정성원 서두원

2천선교 실행팀 선교지원 실행위원

차준한 안태환 박영준 안희철 정원익 김완성 한종대 조종국 시 마 박명숙 김현정 어경자 박아영 전제상 방현순 천대우 강영주 윤선숙 김영하 구자현 어상희 동희옥 이우경 이해정 김기호 최희영 신혜선 김진연 현철선

의료선교

담당교역자 백상욱
담당장로 김국용

>A팀

팀장 김준현
총무 박명률
실행위원 최충길 김종태 차원제 이희춘 육동신 서효석 오현미 이공임

>B팀

팀장 신학철
총무 이재화
실행위원 신일철 백제현 장혜경 이호규 임병훈 최용석

>C팀

팀장 안태환
총무 장인규
실행위원 정현구 조혜숙 이영주 이인숙 장미영 오창현 김호겸 김정숙 최보란 옥태훈 이종순

>라파팀(의무실)

팀장 박병익
총무 박상호
실행위원 최수정 남주언 정수봉 이성화 이순자 윤지은 남기민 정혜숙 조경애 조은희 강성원 이정희 진미령

02



국제화사역본부

국제화된 온누리 영성 세계와 나눈다

본당 5부예배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드려



국제화 사역본부란?

올해 온누리교회 네 가지 사역방향중 하나인 '교회의 국제화'를 담당하는 본부다. 온누리교회가 18년간 쌓아온 프로그램과 사역, 영성을 국제화해 해외에 소개한다. 온누리교회는 이전까지 OMC, VLC 등을 통해 한국 내 교회와 미자립 교회 등과 함께 나누었지만 올해부터는 세계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려 한다.

새해를 맞아 온누리교회 각종 사역, 프로그램, 영성을 국제화해 세상과 함께 하기 위해 국제화 예배가 탄생했다.

또한 전세계 교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아랍어 권과 사역을 나누려 한다.

국제영어예배

국제화사역본부는 온누리 영성을 국제화해 세계와 나누기 위한 첫 걸음으로 국제영어예배를 시작했다. 2003년 1월 5일(주일)부터 본당 4시예배는 영어예배가 중심이 되어 일본어예배와 중국어예배가 함께하는 국제예배로 드려졌다. 예배 모든 진행은 영어로 하고 중국어와 일본어로 동시통역된다. 이는 기존에 있던 영어예배를 활성화한 것으로 현재 국제어로 쓰이고 있는 영어를 통해 온누리예배의 영성이 인터넷을 통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어 4시예배는 경찬홀에서 드린다.

세계와 함께하는 온누리교회

국제화 사역본부는 2003년 한 해 동안

영어, 중국어, 일본어예배 간의 협력을 긴밀히 한다. 온누리교회 사역 내용을 중국어와 일본어로 바꾸어 영상, 책자, 실제 도우미를 통해 항상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온누리교회와 관계를 갖기 원하는 해외 교포교회 및 외국교회, 아시아권 교회들과 협력해 나간다. 유학생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케어 네트워크(Global Care Network)를 구축한다.

또한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전도해 국제영어예배에 초청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영어예배 가장 많은 본부를 차지하는 20~30대 싱글 중심인 기존 영어예배 타깃층을 확대해 30~40대 기혼전 문인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한 켤레 신발에 담은 복음”

사철 더운 이곳에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23일 교회에 모여 주님탄생 축하예배를 드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선종기도 없이 땀을 닦아내며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를 마친 후 온몸이 땀 범벅이 되어 헛 크리스마스를 만끽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방을 하나씩 선물했으며 학생들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 만남은 '바다고기'

얼마전 반다라람퐁에서 동행자 2명과 함께 배를 타고 6시간에 걸쳐 타부안이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땅을 밟자 동네 꼬마들이 무수히 물러왔습니다. 32살의 독실한 회교신자인 젊은 촌장은 그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의 매성고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면서 이곳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잠시 그 집을 떠나 그 날 저녁 몇몇 가정을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촌장가 정과는 달리 모두 친절했으며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그들과 한국어와 람퐁어를 비교해가면서 의미를 나눌 때 정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바다고기'가 람퐁어의 의미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득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서 우리들의 만남이 '바다고기'인가 물었을 때 그들은 '바다고기'가 아니라고 말해 한바탕 웃음바다 가 되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라

그들이 종교에 대해 물어왔을 때는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기독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자못 진지했습니다. 인간미에 호감을 느끼고 악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들도 마음을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산 교훈이었습니다. 압둘이라는 50대쯤의 지역장과 사귀었



는데 그 출발 아침에 저의 신발과 가방을 유심히 보더니 신발을 바꾸어 신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발은 다 떨어져 신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만 신발을 바꾸면 나날 오래 기억하겠다는 말에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걸옷까지 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신발을 바꾸어 신었습니다. 비록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돌아왔지만 나의 마음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 신발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 따부안 섬마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기도합니다.

이석희 선교사

(파송-인도네시아-TIM-서빙고)

선교사를 위한 기도

황디모데/송예내(파송-소아시아-인터콥-동대문남양주)
-교회개혁 사역이 더욱 강력한 성령의 기쁨 부으심 속에서 진행되어 교회 안정과 제자양육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복음방송국의 사역방향 확립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방송국의 현지인 형제자매들이 사명감을 품고 사역할 수 있도록

채사라(파송-소아시아-인터콥-광명인천)
-거주중(비자 문제)을 받기 위해 선물의 집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를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돕는 이들이 세워지도록
-중보 기도와 전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지도록

정환숙(파송-중앙아시아-YWAM-성북)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며 떡을 때는 은혜 속에 깊이 동참하고, 교회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에 소망을 갖도록
-교회에 생소했던 사람들 안에 말씀이 뿌리내리도록

한성훈(파송-몽골-인터콥-김서김포)
-밝은미래학교의 건물을 신축하고, 미션 스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03년도 3회 졸업생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 보조금 후원을 위한 후원자 연결, 그리고 10명의 대학생과 신입생들을 위한 장학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김순중/천사람(파송-소아시아-인터콥-광명인천)
-현지인 지도자로 양육하고 있는 타메르와 이브라힘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이브라힘의 양육자인 블린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 1기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시작

-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 헌신자, 경험있는 평신도 사역자 참여

혈간카드, 파란카드, 모빌, 기차소리 호각, 양복 옷걸이, 동그라미와 문어발... 선교사 훈련과 전혀 연관이 없는 자료가 있다.

1월 6일 영하 15도를 넘는 추위 속에서 경기도 양지 세계선교센터의 강의실 한 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손에 쥐고 마냥 행복해 하며 자신의 젊음을 발산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선교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motto 아래 영하의 날씨를 녹이는 선교사 훈련학교의 모습이다.

한달간의 집중훈련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1월 6일부터 단기 선교사 훈련 학교 (Short Term Missionary Training School : SIMTS)를 시작했다. 이번 학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사용하여 선교현장에서 장기 선교사와 사역 베이스를 돕고 단기간이지만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전문인 단기 선교 사역자를 배출하는 학교로서 4주간 진행된다. 이제 21세기 선교의 현장은 고도로 훈련되고 평생을 헌신할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선교사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직종의 헌신된 전문인 및 일선에서 은퇴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경험있는 사역자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교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단기사역자를 전문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이 학교를 개설한 것이다. 교과내용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 역사적 기초, 인간관계 연습, 자아성찰, 팀워크 다지기, 위기관리 등 선교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적용할 때 필요한 부분과 단기 사역자들에게 자칫 결핍되기 쉬운 기초적인 개념들을 정리해준다. 이러한 단기사역자들을 양성함으로써 비전 2000의 근간을 평신도들이 이루길 원한다.

현재 훈련받고 있는 15명의 학생들은 학교를 수료하면 대부분 온누리교회 선교베이스내 유치원 교사, 한국어 교사, 컴퓨터 기술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오는 2월부터 파송되며 교회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2년정도의 사역을 하게된다.

온누리세계선교사훈련학교

“2기 훈련생 모집합니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는 온누리세계선교사 훈련 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OWMTS) 2기훈련생을 모집한다. 온누리교회의 비전 2000을 이끌어갈 국제적인 선교 리더십의 양성을 목표로 미국의 전문 선교단체인 C&MA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OCI(Oversea Crusade International)와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진행하는 이번 학교는 2월 10일부터 5개월간 진행하며 선교훈련을 마치면 온누리교회 비전 2000의 주역으로 선교현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모집 마감은 1월 16일이다.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3)
· Homepage : www.owmc.or.kr
· E-mail : owmc@onnuri.or.kr

01



2000선교

'온누리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창립 18주년 선교대회 'Shout 2003' 개최, 70명 선교사 파송 이스라엘 'Korea Forest', 아프간·일본 등 선교지 확장 힘써

201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 내 선교의 역량을 통합, 집중하고 있는 2천선교본부의 2003년 추진전략은 '모든 성도의 선교동역자화'이다.

1. 전교인 선교동역화

2천선교본부는 올해 70명의 선교사를 파송(2002년 61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교지 개척, 확장, 선교지 사역활성화, 선교사 양육 글로벌화, 선교지 운영 및 지원체계화, 전교인 사역동역화, 온누리미션/BEE사역활성화등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전교인 사역 동역화를 위해 청년대학부를 중심으로 선교대회 및 아웃리치를 통한 선교동원을 하게 된다. 오는 10월 18주년 창립예배에는 'Shout 2003'이라는 주제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선교대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선교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의 가이드북 발간, 배포 순장과 순원을 위한 선교교육 등 성도들에게 선교의식을 고취시킨다. 또

한 무릎선교사 운동을 펼쳐 교회 모든 리더는 1인 1종족을 입양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한다. 이들을 위한 연합집회를 연 2회 열어 비전을 새롭게 하고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2. 선교지 개척 및 확장

선교지 개척 및 확장사역으로는 첫째, 이스라엘에 'Korea Forest'라는 100만명의 땅에 나무심기 10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동시에 이스라엘 연구소를 마련, 선교배이

스를 구축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유학생을 초청 교육시키고 아프간주재 NGO 네트워크를 모색한다. 한편 12개교회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도 올해 교회개척을 추가하게 된다.

한편, 선교지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디렉터를 임명하여 서로의 사역을 돕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교사의 회복 및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별 리트릿을 갖도록 한다.

3. 선교사 양성

선교사 양육을 맡고 있는 선교사훈련학교에서도 장기 선교사 훈련과 단기선교사훈련학교를 각각 2회씩 실시하여 선교사를 양성한다.

특히 우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 출신으로 현재 햇빛트리니티신학교에 와 있는 학생을 선출, 선교사로 양육하여 선교사

글로벌화를 꿈꾼다.

이와 함께 온누리미션사역과 BEE(성경연장교육)사역도 확대된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온누리미션에서 지도자를 발굴, TEE, BEE등으로 양육하여 2년 가량 사역을 하도록 한다. 그 후 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계획이다.

선교사나 목사 등 교역자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 평신도로 목회자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BEE교육은 베트남,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현지사역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교사역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되는 선교현금은 올해 38억을 예산하고 있다. 2000선교본부를 맡고 있는 김창욱전도사는 "무릎선교사, 선교훈련학교, 각종선교세미나등을 통해 온누리 모든 성도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에 동참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대학청년 사역본부

'연합된 힘으로 2천1만 비전 추구'

교회의 2천 1만 비전을 향해 사역의 통일성을 집중하고 동시에 각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학청년 사역본부는 올해 기존 부서 및 순장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순 공동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청년 사역본부는 앞으로 공동체 인원이 3백명 이상이 되면 새로운 공동체로 분할, 독립한다. 현재 대학청년 사역본부는 대학부(다윗, 바울, 요한) 3개 공동체와 청년부(요셉, 갈렙, 여호수아, 느헤미야, 누가) 4개 공동체를 합쳐 총 8개 공동

체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 훈련의 강화

토요일예배, 주일예배, 대학부, 청년부 등 시간과 장소, 설교자는 달라도 같은 설교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대학청년 공동체가 같은 영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대학청년 공동체는 공통 커리큘럼을 가지고 GBS를 실시한다. 바울 아카데미와 일대일 양육자반을 개설해 순장 계속교육을 돕는다. 바울 아카데미는 2천 1만 비

전을 성취할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2003~2004년 2년동안 JCDC와 JCVC로 리더십을 양성하며, 대청 모든 리더에게 성경을 한번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 10월 19일 시작한 서빙고 토요일예배에 이어 올해 느헤미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양재 토요일예배가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양재 회락성전에서 시작된다.

현장중심 사역으로 적극적 사회참여

대학청년은 통합된 조직을 활용,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역의 힘을 집중시킨다. 온누리미션과 협력해 쉐터나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현장으로 나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한다. 해비타트, 공홀, 교육선교, 지역봉사 등 재난구호를 위한 NPO(non-profit organization)사역을 통해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한다.

준비된 청년 선교사 양성

2천선교본부와 협력해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한다. 특히



대청연합은 올해 견습선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것은 선교에 비전이 있는 청년들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온누리 선교배이스에 파송, 현장 사역을 돕는 것이다. 현지 언어훈련, 문화적응훈련 등을 통해 견습선교사를 다녀온 후 장기적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연합사역일정

- 3월 3일(월)부터 5일(수) : 성령집회
- 4월 4일(금)부터 (6일)주일 : 에스라(Ezra)집회
- 10월 대학청년 연합집회상암동 경기장

전성희 shee@onnuri.or.kr

청년·대학부 예배

	구분	시간	장소	
대학부	서빙고	다윗	14:00	두란노홀
	양재	바울	11:30	회락성전
		요한	14:00	회락성전
청년부	서빙고	갈렙	16:15	두란노홀
	양재	요셉	17:00(토)	본당
		느헤미야	3월중 신설예정	
		여호수아	14:00	사랑성전
	부천	누가	14:00	대예배실

· 문의 : 양성애 (570-7307), 윤서희(교744)

※

2000선교

아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216)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2기 - 2월10일~6월21일(마감: 1월 12일)
 * 제3기 - 8월4일~12월20일(마감: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학습훈련)
 2) 2단계 - 선교 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메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 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 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6-9085

☞ 소아시아 공동체 1월 정기기도모임
 1월 20일(월) 오후 7:00 선교관 401호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SAM) 모임
 1월 20일(월) 오후 7:00 선교관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 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출발이 연기됐습니다.
 1월 30일(목)~2월 2일(주일)
 주최: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 역팀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복옷, 슬리퍼, 학용품, 칫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영어2부 일본어반 교사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 회비 1만원(간식, 교재비)
 내용: 선교훈련/선교사후원기도 및 섬김 / Outreach
 1차훈련: 요나선교학교 및 선교중보(3월 14일 ~6월 27일: 15주) 2차훈련 (9월 5일~12월 5일: 12주)
 문의: 장현주 간사(교25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엔터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타이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 물품
 햇빛트리나티 외국인 신학생 - 노트북
 네팔 헤브론 교회 - 전도용으로 쓸 오토바이 (100cc 이상), 노트북
 중고 봉고차

☞ 자원봉사자
 설날연합집회(1월 31일~2월 2일)에서 드림과 키보드 등으로 섬기실 분.

☞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전선 (02-790-6062)

해외아웃리치
 2003년 1월 15일~2월 중순 / 지역: 유럽, 뉴질랜드, 호주 / 대상: 아버지학교 수료자
 문의: 박영미 간사(3785-0696)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 의사 / 간호사 / 치기공사 / 컴퓨터 교사 /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 유치원교사(문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북카프카즈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카프카스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콥 표용진 간사(교 230)

에펠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펠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선교본부에서 섬기실 분
 분야: 전산 1명, 디자인 1명(학사 이상 또는 자격 중 소지자)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월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산동아쇼 핑 2층(온누리교회 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 온누리국제영어예배
 주일 오후 4:00 서빙고 본당
 "Breaking the Jar" (Mark 14:3-9) / John Hahn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01

선교사 13명 올해 첫 파송

2천선교 헌금 36억원 작정... 목표액의 98%

올해들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오늘 파송되는 선교사 13명은 지난해 문을 연 '온누리 세계선교사훈련학교' (OWMTS) 수료생이다. 이들은 인도, 중앙아 등으로 파송된다. 파송식은 양재 1부예배시(오전 9시), 서빙고성전에서 3부예배시(오전 11시 30분)에 각각 열린다.

한편,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2003년 선교헌금 작정에 1만76명 성도가 참여, 목표액 38억원의 96%인 36억5천5백67만9백16원을 작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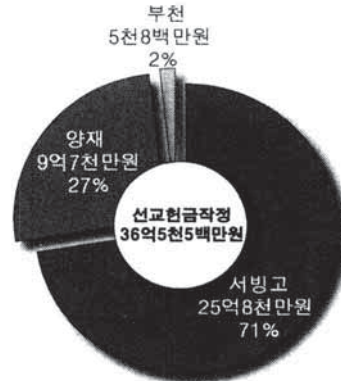
성전별로 보면 서빙고성전에서 25억8천7백92만8천원(6천7백32명 참여), 양재성전에서 9억2천1백

99만9백16원(2천5백76명 참여), 부천성전 5천8백56만원(2백19명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김창욱 전도사는 "온누리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아직 작정에 참여하지 않은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와 청년대학부가 오늘 한번 더 작정할 계획이다.

2천선교팀은 자동이체로 헌금을 작정한 성도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새



선교헌금 봉투는 서빙고와 양재 성전 로비에 오늘부터 비치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외국인 근로자 위한 설 잔치

온누리미션, 중국어예배 소속 7백여 나그네 섬길 자원봉사자 모집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이하기 위해 온누리미션 및 중국어예배팀의 손길이 분주해 지고 있다. 명절휴일동안 갈 곳 없는 외국인들을 위해 집회 및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오는 설 명절에도 온누리미션 5백여명의 근로자를 초청해, 예배 및 교제, 성경공부,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풍성하고 은혜넘치는 잔치가 마련된다. 온누리미션의 선행사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교회, 하나로 등에서 열린다. 이외에도 2백여명의 재한 중국인을 위한 중국인을 위한 성령축제도 마련된다. 중국인 성령집회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다.

한편, 이들 축제를 돕고 후원해줄 온누리성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섬겨줄 자원봉사자와 재정후원으로 도울 수 있다.

- 온누리미션
 - 자원봉사자(식당봉사, 행사도우미, 드럼, 기타, 키보드반주자)
 - 재정후원-서울은행 33301-9522448
 - 문의: 원영기 간사(016-352-3794)
- 중국어예배
 - 자원봉사자:식당봉사, 행사도우미



- 재정후원: 서울은행 33301-0474782
- 문의: 정낙현 총무(011-723-0630)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온누리일본선교회」 창립예배

일본 선교를 위해 중보하고 선교사 파송을 위해 준비하는 온누리일본선교회가 12일(주일) 오후 3시 선교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일본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일본선교회 창립을 축하하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사역자가 되어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전도하고, 양재, 부천과 앞으로 설 온누리 30개 지교회에 일본어예배부를 세우고,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일본인들을 네트워크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했다.

온누리일본선교회는 상반기(3월~7월)에 '일본 선교학교'를, 하반기(8월~11월)에 '선교의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

일본선교회는 집회 안내, 통역 등으로 일본선교를 위해 일할 사역자



를 양성하고 장,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 일본 부흥을 위해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온누리일본선교회 스테프 모집〉

- 모집분야: 인터넷(컴퓨터관련), 간식준비, 일본과 연락, 디자인, 찬양봉사, 회계, 광고, 통역 등
- 문의: 키타노 전도사 (019-255-5874)

*

2000선교

아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3기 - 8월4일~12월20일(마감: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가기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집수 마감: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K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2년도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35-9085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1월 20일(월) 오후 7:00 선교관 305호
주최: 소아시아공동체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SAM) 모임
1월 20일(월) 오후 7:00 선교관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아웃리치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1월 30일(목) - 2월 2일(주일)
주최: 영아메,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역팀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복약, 슬리퍼, 학용품, 칫솔, 치약, 비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6)

☞ 다윗공동체 아웃리치 후원
1월 21일~2월 4일(14박 15일)
몽골내 바양을기 마을 (울란바토에서 비행기 4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카작족이 많이 사는 마을)
- 필요한 물품
침낭 6개 (영하 20도에서 견딜 수 있는 것), 현 지인들에게 쓸 선물: 50-100명 분 (ex. 장난감, 옷, 신발, 생필품, 화장품, 생선), 한백 450개 정도, 플라스틱 필름 300장, 의약품 (비상 구급약/해열제, 종합 감기약, 진통제 등), 카작어 성경, 카작어 찬양, 카작어 4명씩 컵라면 5박스, 핫반 100개 등
문의: 김진실(011-9722-5927)
*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물품들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세탁해서 2월 9일 되돌려 드립니다.

영아2부 일본어반 교사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교육

☞ 터키어 초급반 과정(5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서빙고 성전 (장소 추후 공고)-1월 23일 오리엔테이션
주관: 소아시아공동체
문의: 이영미 자매(016-259-9138)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 화비 1만원(간식, 교재비)
내용: 선교훈련/선교사후원기도 및 섬김/Outreach
1차훈련: 요나선교학교 및 선교중보(3월 14일~6월 27일: 15주)
2차훈련: 9월 5일~12월 5일: 12주)
문의: 장현주간사(교25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한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 온누리미션

물품
중고 봉고차,
웹터에서 사용할 중고 컴퓨터(펜티엄 II 이상),
핫볼트리나리 외국인 신학생 - 노트북,
네팔 헤브론 교회 - 전도용으로 쓸 오디오바이(100cc 이상), 노트북

자원봉사자
살남연합집회(1월 31일~2월 2일)에서 드림과 카보드 등으로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해외아웃리치
2003년 1월 15일~2월 중순/ 지역: 유럽, 뉴질랜드, 호주/ 대상: 아버지학교 수료자
문의: 박영미 간사(3785-0696)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외과/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컴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북카프카즈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카프카즈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컴 표용진 간사(교 230)

에펠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펠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847-3146)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선교본부에서 섬기실 분
분야: 전산 1명, 디자인 1명(학사 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자원봉사자

☞ 중국인 성령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1월 31일~2월 1일에 열리는 축제별 도움 봉사자 30명을 모집합니다.
문의: 장난현 총무(011-723-0630)
후원: 서울은행 33901-0474782 예금주 온누리교회-중국어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월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소동 2층(온누리교회 옆)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온누리 라파(의무실)사역
오후 4:00~6:00
셋째 주일: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관련학교 재학중인 학생도 가능
주소: 서빙고 본관 1층 복지재단 사무실
문의: 엄성욱 간사(661)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전료
은혜산부인과(796-2008)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

대학청년부 선교베이스로 떠난다

선교지 언어·문화 체험 통해 장기선교사의 꿈 키울 수 있는 '견습선교사' 훈련 시작

대학청년부사역팀은 선교에 비전
을 가진 젊은이들이 선교지역에
서 현지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고
선교사역을 도우며, 장기 선교사로
준비할 수 있는 '견습선교사' 제도
를 마련하고 대상자를 찾고 있다.

견습선교사는 3개월, 6개월, 12
개월 단위로 선교지에서 선교 베
이스사역을 지원하게 된다.

견습선교사는 ▷첫째 주 선교사
의 영성과 삶, 선교와 문화, 기질 테
스트, ▷둘째 주 내적치유, 선교지

의 영적전쟁, 위기관리, ▷셋째 주
요나 선교학교, 온누리교회 선교정
책, ▷넷째 주 견습 선교사의 후원
모임, 기도학교 등 1개월간 훈련을
받는다.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
지 훈련을 마치면 3월 22일 서빙고
토요예배와 3월 23일 양재 주일에
배에서 각지역으로 파송된다.

견습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대학
청년은 2월 16일(주일)까지 신청서
1부, 추천서 2부(담당교역자, 부서
리더십), 신앙간증문(지원 동기)을

로비 안내데스크 또는 이메일 (kkybybb69@empal.com)으로 신
청하면 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대학 청년 견습선교사

- 파송지역 : 동아시아 A국, 일본, 몽골, 스리랑카, 홍콩, 중앙아시아(아프가니스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모잠비크 등
- 분야 : 재무담당자, 건축 및 수리, 전기, 배관, 보일러 기술자, 교사

- (과학, 음악, 체육, 보조, 영어, 특수, 한글, MK, 컴퓨터, 축구, 태권도), 의사, 간호사(일반, 수술실, 중앙공급실), 방사선 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의공 기술자, 치위생사, 치기공사, 디자인, 컴퓨터, 영상, 음악, 음향, 녹음기술, 공과대학, 경배와 찬양 기능사역자, 예배 인도자, 뮤지컬, 스킷, 현장중보기도자 등
- 문의 : 양성애 간사 (570-7307) 윤서희 간사 (교 744)

아프간 선교의 문 열었다

'동서개발교류회' NGO등록

지난 15일, 사단법인 동서개발교류회가 아프간 현지 NGO로 등록됐다. 지난해 12월 아프간을 방문한 손정래 장로와 강일영 선교사는 NGO 등록증과 보고서를 2천선교본부로 보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정래 일행은 ▷아비스나 병원에 담요와 난방과 기구를 지원했고, ▷카불대학에 도서와 컴퓨터를 지원하는 것을 협의했으며, ▷아프간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C.T.C(Culture Training Center)에 방문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동서개발교류회는 3~4월 경 현지 사무실을 개설해 아프간



▲ NGO 등록증

현지 지원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된다. 한동대학교로 초청해 교육할 현지인 대상자를 선발하고, 새마을운동과 같이 지역 개발 사업 대상지도 선정하게 된다.

한편, 오사카 온누리교회(이영선 목사)는 지난 20일 아프간을 위한 현금 8만6천엔을 2천선교팀에 전달했다.

서철 chol@onnuri.or.kr

외국인 설 잔치 열린다

온누리미션, 중국어예배 등 7백여 명 위한 도움 절실



명절휴일동안 외국인을 위한 집회가 열린다. 온누

리미션은 5백여 명의 근로자를 초청해, 예배 및 교제, 성경공부,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풍성하고 은혜넘치는 잔치를 마련한다. 이번 설 행사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교회, 하나로 등에서 열린다.

중국어예배는 2백여명의 재한 중국인을 위한 중국인을 위한 성령 축제를 한다 중국인 성령집회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린다.

온누리미션과 중국어예배는 이번 설 축제를 후원해줄 온누리성도 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온누리미션

- 식당봉사, 행사도우미, 드럼, 기

타, 키보드반주자

- 재정후원 서울은행 33901-9522448

• 문의 : 원영기 간사 (016-352-3794)

■ 중국어예배

- 식당봉사, 행사도우미
- 재정후원: 서울은행 33901-0474782

• 문의: 정낙현 총무 (011-723-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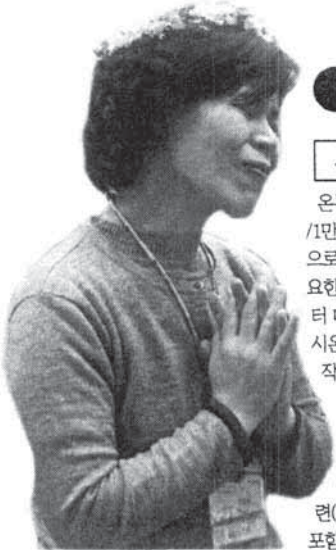
번동코이노니아 바자

오늘 서빙고 커피숍에서 번동코이노니아의 '설 맞이 바자'가 열린다.

온누리 여성이십니까?

“거룩한 리더십이 되십시오”

여성사역팀은 여성이 2천/1만 비전의 주인공임을 일깨우며, 사역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든든한 힘과 용기를, 재충전이 필요한 여성에게는 안식과 비전을 심고 있다.



“기도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목표

서빙고 - '무릎선교사 훈련'

온누리여성사역(서빙고)은 '2천/1만 비전'을 위해 고티에서 무릎으로 열방을 경영하는 여성들이 필요한 때임을 자각하고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시온홀에서 '무릎선교기도'를 시작한다.

이 모임은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교사 초청 모임, >아웃리치, >선교훈련('요나선교학교')과정(15주)이 포함되어 있다. 말 그대로 '여성 기

도선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모임을 위해 30여명의 스태프가 모여 기도하고 있다.

사역을 맡은 이종실 전도사는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여성사역의 마지막 단계는 “선교”라고 말하고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2백명의 기도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도사는 “이 기도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며 온누리 여성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장현주 간사(교 252)

양재 - 주중 중보기도 모임

올해 양재 여성사역의 가장 큰 변화는 주중 중보기도 모임이 생기는 것이다. 이 모임은 권사들을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양재 콘서트홀에서 정해진 기도제목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주중 중보기도모임을 위해 '여성 중보기도 캠프'는 박종렬 목사를 강사로 2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양재 온유절제성전에서 열린다. 중보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

주중 1회 이상 기도로 헌신하는 중보기도 팀을 만든다. 양재 여성사역은 여성 중보기도가 작은 씨앗이 돼 양재에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주중중보기도 요일별 기도 내용

- 월: 예배와 비전, 사역을 위한 기도
- 화: 2000선교비전과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 수: 수요일예배와 사역을 위한 기도
- 목: 남편과 자녀, 가정을 위한 기도
- 금: 환우를 위한 기도
- 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



선교지에서 온 편지

‘극단 무슬림에서 보호하소서’



밤새 내리던 비가 아침부터 하얀 눈으로 변해서 모처럼 겨울다운 설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편지를 써서 보려내는 순간 사용하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한동안 한글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 썼던 편지를 덧붙이고 수정하여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변함없는 통치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보스니아 교회 상황

라마단 금식기간 중 보스니아 전체 교회적으로 역 라마단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이 기간 중 몇 도시에서 무슬림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무슬림 개종자들 중 한때 교회 모임에 소홀했던 형제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나짜 교회의 예르젯 쉘스, 세미르, 니노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지도자들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수도 사라예보에서는 개신교 필름프로젝트로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여러 극장에서 <예수>를 비롯한 23개의 기독교 영화를 상영, 수 천명의 관객이 다녀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전야의 총격

성탄절은 크로아티아계 주민들에게는 중요하고 큰 명절이어서 대부분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보냅니다. 코니짜라는 도시(대부분 무슬림)에 전쟁 후 몇 년만에 귀환한 크로아티아계 가정의 아침 방문 중인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괴한이 침입해 총으로 가족과 친척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범인은 20대의 극단 무슬림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의 후원을 받는 구호단체의 직원이며 보스니아 무자메딘으로 활동하는 청년은, 전에도 기

독교에 대한 증오심으로 몇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NATO군이 TV로 열심히 'Mir' (영화)를 홍보하고, 모든 주민들이 영화를 원하지만, 이 나라에서 세 종족간의 얽힌 증오심이 해소될 길은 여전히 멀어만 보입니다. 게다가 전쟁 후에는 이란에서 파송된 극단 시아파 무자메딘들이 재정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을 미혹하여 마음을 부추기고 무슬림 전사들을 만들고자 획책하고 있어서 일반 무슬림들조차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자 발급을 위해

거주 비자(2월 8일 만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주 비자를 받은 후 구호 사역허가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작년 7월에 신청한 후 아직까지 사역허가서를 받지 못해 경찰서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취소됐습니다. 다시 처음 비자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

는 데 연 초라서 서류들이 잘 준비되지 않아 일 단 날짜가 지난 서류들을 준비해서라도 제출하려고 합니다. 모든 정에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담당자의 마음(미라씨)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서류를 속히 처리하고 순직하게 새 비자를 발급해 주십시오.

나오미 선
(보스니아)



선교지에서 온 편지

‘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메르하바(안녕하세요). 지난 한해 동안 저와 터키민족을 위해서 기도 해주신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25일부터 1월6일까지 한국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파디메 자매를 주님과 다른 사역자에게 맡기고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냈던 일

인천 공항에 내리면서 느낀 것은 영적인 자유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으로 심을 누리지 못했지만 여러 동역자님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터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흥분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믿기에 더욱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약하지만 영혼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주셨기에 반드시 저와 동역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저희 사역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 뒤에 숨어있다가 공항에서 저를 껴안고 우는 파디메를 보면서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토록 저를 사랑으로 기다려준 현직인이 있기에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스탄불의 삶

새벽에 울리는 애잔 소리에 눈을 뗐습니다. 이곳이 한국이 아닌 터키 이스탄불이구나! 다시 영적 전쟁터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제 옆에는 파디메가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볼 때 “그래 끝까지 사랑하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이민족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새롭게 느껴지면서 이 뜨거운 마음이 식을까봐 파디메 자매와 함께 새벽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하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이들의 모습에 다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도서관 가서 파디메와 저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예비하신 사람일까 하고 둘러보았습니다.

전에는 저 혼자 전도하러 다녔다가 이제는 제 옆에 든든한 현직인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도하다가 거절당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오는 자매의 모습이 얼마나 아담담인지 오전에 두 명의 영혼을 만났고 탁심(명동처럼 변화기)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터키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난 ‘셀마’라는 자매를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

습니다. 셀마와 1년반 정도 교제하지 못했는데 자매를 만나려고 많이 찾습니다. 파디메와 저는 이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영화 <예수> 상영

초대하고 주일 예배에도 초대하였습니다.

셀마가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적인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파디메가 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놀라는 것은 파디메가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일입니다. 아주 확신 있고 정확하게 자기의 체면을 이야기하면서...

셀마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파디메가 한 일을 영대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인내하며 감동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주님이 파디메를 사 하셔서 셀마가 구원 가운데 들어오도록...

인카운터 세미나와 파티교회 수련회

2월3일~6일까지 터키 현지인 지도자 1백 50명과 한국인 사역자 50명 참석을 목표로 인카운터 세미나와 2월13일~16일까지 파티교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적인 방벽이 많지만 이 세미나와 수련회를 통해 이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참석한 모든 이의 주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이 마나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선포해주시고, 티교회의 부흥이 터키의 부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채사라 선교



“지금 이 시간, 선교사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도의 중보기도다. 민족 명절인 '설' 을 앞두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은누리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가 더욱 필요한 때다. '보내는 선교사 가 되어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와 간구가 넘치는 선교사 역에 동참해보자.

김길환/이은하 (자녀-주은/파송-인도-TIM)

1. 성령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도록
2. 언어를 잘 습득하고 문화 적응을 잘 하도록
3. 가족 건강(딸 주은이가 변을 잘 볼 수 있도록)
4. 출국하기 전까지의 모든 준비를 위해 (비자와 정착금 확보)
5. 인도의 부흥을 위해

김정희 (파송-인도-TIM)

1.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한 주의 사랑을 전하도록
2. 현지 적응(언어습득) 및 정착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3. 국제학교와 대학에서 영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이성령 (단기-동북아-인터콥)

거의 매일 아프면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행하심,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일로 감사드립니다.

1. Y 자매가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2. 만나는 20여 명의 친구들 가운데 신실된 자를 구별해서 진실된 만남을 갖도록
3. 방학기간 동안 언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김선복 (파송-동북아-TIM)

1. J대학(2년간)에서 언어공부의 기쁨으로 심을 위해
2.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3. 먼저 예배자로 중보기도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4. 본인의 건강과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심영애 (파송-동북아-TIM)

1. 앞으로 3~4개월 더 머무는 동안 일대일 지도자훈련 등을 겸손히 배우며 준비되도록
2. 성령님께 민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조문상/김정년 (파송-싱가폴-BEE KOREA-성동광진)

지역비를 전부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 한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일로 감사드립니다.

1. 사역을 위해
 - 1/18~2/3 사우디아라비아(알코바, 리아드(조문상))
 - 1/27~31 베트남 하이퐁(백인호)
 - 2/3~7 베트남 까빠(백인호)
 - 2/11~14 BEE 연회(싱가폴)
 - 2/24~27 네팔 레당(라타)
 - 2/24~27 네팔 올라바리(조문상)
 - 2/28~3/3 네팔 다라, 뼈타리, 뼈프타(조문상)
 - 3/4~7 네팔 카트만두(라타/조문상)
2. 내년 2월 싱가포르에서 있을 BEE 연회를 잘 준비하도록
3. 베비형 현재(인도인/학생비자 신청절차)의 싱가포르에서의 신학 훈련을 위해
4. 현지인 사역자들의 사역비 후원을 위해
5. 김 선교사와 장환이의 학업을 위해
6.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박영환/윤유희 (파송-방글라데시-TIM-안양안산)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장기 비전의 기도 속에 선교사 파송이란 기도가 함께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1. 복음을 잘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2. 현지 교회, 단체를 잘 섬기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3. 예수만 바라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윤정숙/정홍경 (단기-동북아-선교촌)

그 동안 준비해왔던 가정교회 창립모임을 드리게 된 일로 감사드립니다.

1. 이 모임을 이끌 H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2.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현재 함께 하는 4명의 멤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되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고, 아버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3. 현재 가장 활동적인 번개 극단으로부터 모임이 안전한 가운데 아무런 방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아버지께서 두 분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이 땅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깊이 헌신



-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배양될 수 있도록.
5. 현재 정 선교사가 공부하고 있는 홍콩 학교 학사과정을 올해 안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지혜와 속도 주시길
6. 그 동안 부분적으로 참여해왔던 OO훈련 학교를 올 3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참여할 자들을 불러주시고 운영자들과 교사들에게 아버지의 인도함이 있도록

이정렬/이미경 (파송-중앙아시아-TIM)

1.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역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심어 있도록
2. 언어와 문화적응을 잘 하며, 우즈베키 민족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3.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우즈베키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4.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김옥희 (후원-일본-GMP-강동송파)

1.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2. 성령의 역사로 성도가 일치하도록
3. 다이스케/겐이치로 군이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정성천/신병연 (후원-태국-기아대책기구-관악금천)

1. 태권도/어린이 사역으로 동역하던 박필순 선교사께서 허리디스크 치료차 한국을 방문하여 수원에 있는 장안연세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주에 수술할 예정인데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2. 새롭게 정착할 주리와 태은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지난 1년 넘게 기도하며 준비해오던 태국기아대책기구 출범을 위한 축하음악회가 방콕은혜교회에서 26일 열리는 데 태국교회가 받는데서 주는 기쁨과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도록
4. 음악회에 초청된 은누리 교회 제4부 성가대를 위해
5. 단기 선교팀으로 참가하는 팀원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

심재욱/장선애 (후원-파푸아뉴기니-GBT-여의도)

성경 학교의 제자 훈련을 마친 학생을 통해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1. 위병성경농업학교 학생들이 방학동안 복습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을 잘 감당하고, 그들의 가족이 말솜으로 변화되어 동역 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2. 성경학교에서 가르칠 좋은 형제들이 일어나고, 두 권의 세안(SEAN: Study Extension of All Nations) 교재가 잘 출판되고, 계속 공부할 책들이 잘 준비되도록
3. 지역의 영적/사회적 지도자가 될만한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쉬운 영어 주석이 영국 워크리프 성경번역선교회 지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속히 완성되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전체 교육과정을 잘 세우도록
4. 성경학교를 계속 지도할 성경 실력이 있고 믿음과 지도력이 있는 좋은 사람들을 세우고, 시메아를 중심으로 구약 번역을 위한 2~3개의 번역팀이 구성되도록
5. 안식교와 전통 신앙, 그리고 사이버 종교들이 무너져 성경을 통한 부흥이 이루어지고, 남쪽 방언을 쓰는 안식교 사람들이 변화되어 자기 말 성경을 읽는데, 관심을 갖도록.

*

2000선교

아프리카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 등을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216)

선교사 훈련학교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n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37기 - 8월4일~12월20일(마감: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 - 선교 훈련(6개월 합숙훈련)
2) 2단계 - 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 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2 선교 연합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6-9085

NI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1월 27일(월) 오후 7:00 선교관 3층
말씀: 박종길 목사
문의: 김화수 팀장(011-448-4262)

NI 이스라엘 선교의 밤
1월30일(목) 오후 7:30 서빙고 302호
문의: KIBI 사무실 (02-792-707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아프리카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속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아웃리치
2002년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1월 30일(목)~2월 2일(주일)
주최: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사역팀
모집: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물품후원: 의약품, 여름옷, 슬리퍼, 학용품, 치솔, 지갑, 바누
문의: 서세창 (016-218-4499)

영어2부 일본어반 교사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교육
터키어 초급반 과정(5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서빙고 성전 (장소 추후 공고)
주관: 소아시아 공동체
문의: 이영미 자매(016-259-9138)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 화비 1관(간식, 교재비)
내용: 선교훈련/선교사후원기도 및 섬김/Outreach
1차훈련: 요나선교학교 및 선교증보(3월 14일~6월 27일: 15주)
2차훈련 (9월 5일~12월 5일: 12주)
문의: 장현주간사(교252)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중고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방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 (탁아방 용)
-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원 간사 (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온누리교회

NI 온누리미션
물품
중고 붓고차, 헬터에서 사용할 중고 컴퓨터(펜티엄 II 이상), 햇빛트리니티 외국인 신학생 - 노트북, 네발 헤브론 교회 - 전도용으로 쓸 오디오(100cc 이상), 노트북

자원봉사자
살남연합집회(1월 31일~2월 2일)에서 드럼과 키보드 등으로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교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해외아웃리치
2003년 1월 15일~2월 중순/ 지역: 유럽, 뉴질랜드, 호주/ 대상: 아버지학교 수요자
문의: 박영미 간사(3785-0696)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문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리카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역 분야 각 2명
* 스페인: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콤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북카프카스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팀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카프카스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콤 표용진 간사(교 230)

에젤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예젤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선교본부에서 섬기실 분
분야: 전산 1명, 디자인 1명(학사 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자원봉사자
중국인 성령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1월 31일~2월 1일에 열리는 축제를 도울 봉사자 30명을 모집합니다.
문의: 정낙현 총무(011-723-0630)
후원: 서울은행 33901-0474782 예금주 온누리교회-중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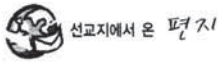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일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소평 2층(온누리교회 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서빙고 예배 봉사자
NI 일본어예배
피아노 반주자
문의: 조지하사사 (019-9752-0278) 황혜경 간사(교 702)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일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

01



이방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땅 '이스라엘'

중동전쟁의 분위기속에서 치러진 총리와 국회의원 120명 선출에 우익성향인 리쿠드당이 37석을 차지하여 사문정부가 계속 연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각 구성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의 연정불합선언을 미루어 볼 때 리쿠르당은 종교정당과 연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팔레스타인과 관계나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가 더욱 악화되고 선교의 문도 더욱 닫히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종교정당인 사스당이 이번 선거기간 TV방송을 하였고 코서(정결음식) 아닌 식품을 파는 것과 러시아식품점의 돼지고기, 메시아니즘이슈들의 예배장면과 세례주는 모습을 방영하면서 자기들을 지지해주면 전통과 문화를 깨는 이런 것을 정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비종교인들은 대부분 이들 종교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모암새와 유대전통적인 전례와 풍습은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정당의 영향력이

복음화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새벽에 회당가는 종교인들의 열심을 보며 때론 저희들의 새벽기도가 얼마나 낙담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아침 큐티를 통하여 열왕기상 8:41~43절을 보게 되었는데 이방인인 나를 위하여 솔로몬이 이미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이 있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로만 살 수 있는 나라

41절에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란 말을 보며 이스라엘 땅에 온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도록 솔로몬이 기도로 이미 하나님께 부탁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합렘루아!

그래서 저는 '기도의 집'을 이곳 예루살렘에 마련하여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냥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각종 사역을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살면 살수록 기도 없인 살 수 없는 나라임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영적긴장감 없이 느슨하게 살아가는 자칫하면 봉변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막내아들 성환이(2학년)가 학교에서 예수

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친구들과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생님의 중재(?)로 논쟁이 중단되었지만.... 벌써 성환이는 이곳 아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선불리 말했다가는 봉변당할 수도 있음을 저희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에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경환이와 경진이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체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이들의 향후 진로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안드레·서석남 선교사 올림



▲ 이스라엘 선교 수련회를 간 양재 대학부 지체들이 이스라엘 시내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회복, 아람권의 회복, 열방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 기도 제목 /

1.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정치인이 많이 생겨 반선교법이 입안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새로운 정부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2. 기도센터가 설립되고 기도용사들이 와서 IS를 위해 기도의 단을 쌓으며 온 이스라엘 땅 곳곳에 순례하며 땅받기 기도하는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3. 학교에서 만나는 게나디라는 청년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리(19세) 학생의 영혼 구원과 미국에 가 있는 아이미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도록
4. 매일매일 삶에 성령충만함이 있고 아이들의 향후 진학과 진로를 위해

02

대학부 바울 대만아웃리치

하나님이 대만을 살리시리라!

대학부 바울 공동체 1백여 명이 1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대만을 품고 타이페이로 겨우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도교와 미신이 혼합된 독특한 불교문화가 지배하는 대만, 인구 중 불과 5%만이 기독교인인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는 1월 20일(월) 서울을 떠나 9박 10일간의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오후 7시 타이페이시에 도착해 회은당교회에서 짐을 풀었다. 바울 공동체가 대만을 품고 3년 전부터 아웃리치를 올 때마다 들리는 곳이다. 다음날 대만대학교를 시작으로 타이페이 시내 노방전도, 타이페이시와 용산사 명불기, 회은당교회와 회은당 지교회인 유썬우, 신타이편당 교회에서 열린전도집회를 4차례 여는 등 빽빽한 일정이 계속됐다.

노방전도에 나선 우리 지체들은 위심을 드리고 찬양을 불렀다. 우리와 동행한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은호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설교를 대만인들에게 통역해 전했다. 회은당교회 청년 몇몇도 우리와 함께 전도에 나섰다.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집회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대만인들이 매번 1백 명을 넘었다.

대만 아웃리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다. 전도집회를 하는 교회에 종이 찾아와 돈을 주기도 하고 무당이 교회 뒤편에 앉아 전도집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아웃리치 6일째, 몇몇 지체에게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었다. 전도사님이 그들을 한 사람씩



▲ 바울 공동체는 대만대학교와 타이페이 중심가 등을 돌며 노방전도를 했다. 사진은 타이페이 중심가인 서문명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지체들.

붙잡고 기도했지만 사단의 공격은 심했다. 결국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남겨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후 전도집회를 위해 전도하러 나섰다. 그때가 집회 30분전이었다. 기도도 준비도 제대로 못한 채 힘든 마음으로 시작한 집회였는데 사람들이 버스도 대절해 온 것처럼 교회당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그날 10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셨고 성령을 기쁨부어 주셨다.

대만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대만 현지 사역, 그리고 한국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 비행기 티켓부터 한 지체, 한 지체의 재정 문제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다. 대만 현지 교회인 회은당과 주안에서 믿음의 토대에서 이루어진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하였고 현지 지체들의 섬김으로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번 동계 대만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천국잔치가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었다.

수련회가 우리 삶의 작은 축소판이듯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누리며 또 전하게 될 것이다. 동계 대만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는 것처럼 바울 공동체의 사역도 끝이 없음을 고백한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 받은 바울 공동체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주선미·김현지
(바울공동체 문서서기단)

03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영룡(협력-캄보디아-빌리온 선교회-관악금천)

-앙코르와트 사원을 둘러싼 태국과 캄보디아간의 유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박성근/김인옥(파송-멕시코-TIM-성남분당)

-성삼위일체 교회가 서서히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감사드리며 성전을 사용하는 법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서 광/양혜련(협력-중앙아시아-인터콥-이촌)

-유라시아문화센터 비전을 지난 해에 나눈 후에 이것을 두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만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양 선교사가 한 달 동안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렸는데, 완전에 하여주시도록

강성실/최은희(후원-한국-HOPE-성동광진)

-연장신학교육원 2기생을 모집하여 훈련중인데, 학생들이 이 교육을 잘 소화하여 현지에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교재를 번역/출판하는데, 적절한 동역자와 필요한 사무실, 현지 직원을 보내주시도록

*

2000선교

아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들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교 216)

선교사 훈련학교
은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 제3기-8월4일~12월20일(마감: 7월 13일)
* 훈련단계
1) 1단계-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은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집수 마감: 6월 18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www.onnuri.or.kr(은라인등록가능))
접수: onnuri@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2월 17일(월) 오후 7:00 선교관 305호
주최: 소아시아 공동체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
2월 17일(월) 오후 7:00
선교관 지하2층 출기도실
말씀: 도육환 목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담은샘)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영어2부 일본어반 교사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아웃리치

2003년 의료선교팀 아웃리치
2월 16일(주일) 오전 7:30
출발장소: 이천만 광장
사역장소: 대전 순복을 삼천교회 / 정영태 목사(042-477-3004)
문의: 안태환 집사(011-323-1515)

터키어 초급반 과정(5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서빙고 성전 (장소 추후 공고)
주관: 소아시아 공동체
문의: 이영미 자매(016-259-9138)

일본어 증급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선교관 302호
강사: 강영애 교사
문의: 016-752-0377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 화비 1만일(단식, 교제비)
내용: 선교훈련/선교사후원기도 및 섬김/Outreach
1차훈련: 요나선교학교 및 선교중보(3월 14일~6월 27일: 15주)
2차훈련(8월 5일~12월 5일: 12주)
문의: 장현주간사(교252)

은누리 세계선교센터
-중고 컴퓨터(엔터업급 이상), 냉장고(대형 냉장고, 5년이상 안 된 것), TV(20인치 이상, 5년이상 안 된 것), 비디오, 디지털 피아노(탁아방 용)
-신앙서적 (선교관련 주제 더욱 환영), 지역 연구 관계 서적 등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도서판에 들어갈 도서임)
문의: 김태완 간사(011-9972-9799)

2002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예금주 은누리교회

은누리미션
물품
중고 봉고차,
텔레에서 사용할 중고 컴퓨터(엔터업 II 이상),
셋톱트리니티 외국인 신학생 - 노트북,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은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
(교514, 017-316-9787)
은누리미션직통 (02-790-605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6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콤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북키프카즈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3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키프카즈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콤 표용진 간사(교 230)

제8기 여성선교중보학교
3월 3일(월)~5월 26일(월) 총 12주 오전 10:00~2:30
대상: 열방을 향한 중보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여성
훈련비: 16만원
연락처: 796-3541(교환224) / 011-9887-5139 성정희 간사

에델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델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
선교에 부르심이 있는 선교본부에서 섬기실 분
분야: 전산 1명, 디자인 1명(학사 이상 또는 자격증 소지자)
문의: 이하나 간사(571-9535)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월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 소미 2층(은누리교회 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일본어 선교회
피아노 반주자
봉사시간: 주일 15:00
문의: 초지희사서 (019-9752-0278) 황혜경 간사(교 702)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01

2천선교사 파송

선교사 파송식이 오늘 양재 9시 예배와 서빙고 11시 30분 예배에서 있다. 이번에 파송되는 선교사는 온누리 세계선교훈련센터 OWMIS) 단기 훈련 수료생이다. TIM 소속 4명, 타단체 2명 총 6명이며, 선교사 구성은 가족 1팀에 미혼 4명이다. 이들은 동북아 A 지역, 몽골, 아프리카 차드, 네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Why Missions?' 3기생 모집

온누리세계선교학교
3월 15일 개강, 온라인 접수

선교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선교에 대한 이론과 실제 훈련,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 주는 'Why Missions?(온누리세계선교학교)'가 오는 3월 15일 개강을 앞두고 제3기생을 모집한다. 온누리선교 담당 교역자, 선교사, 미국 C&MA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선교에 대해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강의하고 온누리 선교정책 및 훈련과정, 선교의 올바른 후원 및 증보기도 방법을 소개한다.

훈련 중 선교캠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와 양지 순교자 기념관 방문 등을 하고 수료 후 'How Missions?' 과정을 등록해 여름아웃리치를 갈 수 있다. 접수는 온누리세계선교센터 홈페이지(www.owmc.or.kr)에 서접수양식을 다운받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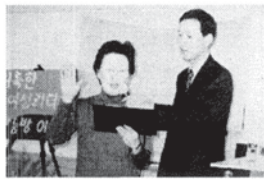
- ◆ 제3기 Why Missions? ◆
- 3월 15일~6월 8일(12주) 매주 토요일 오후 4:00~7:30 서빙고 비전홀
- 등록비 : 3만원
- 문의 :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owmc@onnuri.or.kr)

03

양재 큐티나눔방 미전도종족 입양

양재 96개 큐티나눔방은 지난 14일 미전도종족 입양식을 통해 각 나눔방마다 미전도종족을 입양하고, 무릎선교사로서 큐티나눔방을 할 때 미전도종족을 위해 중보할 것을 다짐했다.

양재 96개 큐티나눔방은 지난 14일 미전도종족 입양식을 통해 각 나눔방마다 미전도종족을 하나씩 입양하고, 무릎선교사로서 큐티나눔방을 할 때 미전도종족을 위해 중보할 것을 결의했다. ▶



04

온누리미션 '설' 축제 마쳐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렸던 온누리미션 설행사가 몽골어예배 53명, 이란어예배 50명, 러시아어예배 40명, 파키스탄어예배 50명, 네팔어예배 100명, 미얀마어예배 40명 등 약 330명의 외국인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쳤다. 온누리미션은 "이번 행사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주신 온누리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05

1만사역자 파송

열린새신자예배와 찬양팀 '브니엘'에서 활동하던 오문목 집사·이재선 집사 부부가 해외 1만사역자로 파송됐다.



■ 기도제목 ■

1.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2. 동역자들과 좋은 만남을 위해.
3. 맡겨진 의학 수업을 잘 받아 더욱 나은 의술을 베풀게 되길
4. 자녀들이 적응을 잘하고 학업도 잘 할 수 있도록.
5. 주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격할 수 있도록.

인터뷰 / 손정래 장로 (두란노 해외선교본부 TIM)

‘물고기’와 ‘잡는 법’ 모두 주어야 합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은 1월 15일 아프간에 (사) 동서문화개발교류회라는 NGO단체 등록, 아프간 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 일을 위해 지난 12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1달간 아프간에 다녀 온 손정래 장로로부터 현지에서 본 아프간 모습에 대해 들어본다.

▶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요?

-한 달 간 현지에서 경험한 아프간은 밖에서 본 것보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생활하는데 별 불편은 없지만 전기 시설 부족으로 절전 지역이 많아 전자제품 사용이나 문화혜택을 누리기 힘듭니다. 외국인들에게 해가 떨어지면 외출을 삼가도록 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카불등 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도 활기를 띠고 유엔 등 서방세력에서 원조가 들어와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3, 4월 경 현지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현지 지원 사업을 하실 텐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카불 대학에 도서를 지원하고 문화정보부 산하 문화센터에 미술 재료나 도구 지원 뿐 아니라 컴퓨터 교실도 열려고 합니다.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치면 향후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해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건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 학생 4명을 초청해 한동대학교에서 대학, 대학원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이미 초청 의뢰를 해 놓고 교육부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에게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보다 기술이나 직업 훈련 등 장기적으로 그들이 재건하고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이 이라크 전을 준비하면서 중동지역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큰 변수입니다. 현재까지 NGO단체나 민간단체에 대한 테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게 되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져 미국 우방국이나 관련 단체를 공격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 민간단체를 향한 직접적 공격이 없더라도

다른 곳을 향한 테러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테러가 잦아지면 찾아질수록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은누리교회 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식량, 의료 지원으로 난민촌을 돕는 것 같은 당장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긴급구호 사업과 의료시설지원, 교육, 주거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 아프간이 스스로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장기사업,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누리성도에게 당부할 말씀은?

-우리로 6.25를 겪은 나라로서 전쟁의 참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립니다. 전쟁의 아픔을 아는 우리가 아프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결국 선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현재 아프간 젊은 층은 영어, 컴퓨터 등 서방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지금이 복음을 전할 찬스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많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영어, 의료, 농업, 금융 사역 등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프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역자로 헌신할 은누리 성도를 기다립니다.



▶NGO등록을 위해 아프간을 방문한 TIM은 아비스나 병원에 담요와 난방기구를 지원했다.



단기훈련 수료생 선교사 파송 / OWMTS

“선교지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파송지역 : 네팔

- 네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 현지문화적응을 위해
- 함께 하는 현지인과 하나됨을 위해



김성순

인력들의 든든한 반석, 평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 하나님의 임재 하에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역과 공동체에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나타나기를
- 가정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연합, 나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 파송지역 : 몽골

-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도록
- 현지에서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하나됨을
- 가족의 건강과 특별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최현민

-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 언어훈련과 문화적응을 위해



김신순

▶ 파송지역 : 동북아시아

- 사역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학원 선교베이스가 선교



김상태/이상자

▶ 파송지역 : 아프리카 차드

-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 사역의 기쁨부으심과 문화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 아프리카 차드의 영적 부흥과 선교베이스의 모든 스테프들과 하나됨을 위해



문행선

소아시아 북음 방송국 방송정지 통보

간경기도목

“또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아시아 북음 라디오 방송국 'S'에 갑자기 방송 위원회로부터 방송을 중단하라는 통고가 왔습니다. 우리 방송국 주파수가 군의 무선 방송채널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군 참모 본부에서 방송위원회에 연락, 방송위원회의 이름으로 저희 북음 방송국에 방송 정지가 통고되었고, 현재 (월 오전10시 이후부터-현지시각) 라디오 방송국 'S'는 방송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우리 주파수가 군무선 방송채널을 방해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사해서 바로 방송정지 명령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무기한 방송정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현재 A시에서 북음 방송국을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이 금식과 중보기도에 임했습니다.

또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지요. 작년 재판에 이어 또 시작된 이 싸움!! 끊임 없는 사단의 계략과 방해로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언제나 승리로 이끄신 우리 주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소아시아

아 땅은 우리 주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님, 긴급한 이때에 우리 함께 무릎 꿇고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금식하며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방송정지가 풀려 북음방송이 A시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소아시아 땅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며... 이빛 선교사 올림

북음 라디오 방송국 'S'는?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중진되기를 소망하며 2001년 9월 소아시아 A국에 세워졌다. 소아시아 A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명시된 헌법 국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기독교 방송국의 존재를 금지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송국이 설립 되었을 때부터 국민 98%가 이슬람교도인 모슬렘 사회로부터 끊임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 북음 라디오 방송국은 작년 요한복음 3장을 읽었다는 이유로 방송규제 위원회로부터 하루간 방송정지 명령을 받아 행정소송 끝에 재판에 승소한 일도 있다.

01

잠깐 인터뷰 | '온누리 BEE'의 송경부 목사와 윤현덕 장로와 함께

평신도 사역자로 리더십과 선교를!



송경부 목사

'온누리 BEE'가 새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BEE(Biblical Extension by Education; 성경연장교육)는 선교 현지 목회자를 재교육시켜 현지인들을 양육하기 위해 탄생한 과정으로서,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특징이다.

'온누리 BEE' 담당인 송경부 목사와 윤현덕 장로를 만났다.

BEE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송: BEE는 일반적인 다른 세미나와 달리 쌍방향적인 과정을 통해 공부 내용을 서로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삶과 사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온누리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윤: BEE가 탄생한 배경처럼, BEE는 교회 내 평신도를 리더로 양육하는 데 적합하고 대학원 과정의 성경공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BEE 사역을 해오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3월에 시작되는 과목은?

송: BEE는 20여 과목이 있는데 '온누리 BEE'에서는 우선 8개 과목을 개설하게 됩니다.

윤: 처음 BEE 과정을 시작하는 성도는 우선 갈라디아서(7주)와 로마서(8주)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 후에는 성경연구방법 I(8주), 그리스도인의 생활(12주),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10주), 그리스도인의 결혼(8주)과 하나님의 말씀 전달(6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BEE를 통해서 가르침의 은사와 비전을 갖고 발견하신 분들은 별도의 과정(ITIS, 인도자 훈련 학교)을 거친 후에 인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국내외 해외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윤현덕 장로

*

2000선교

아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793-9686 교 216)

선교사 훈련학교

3월 3기 Why Missions?
(온누리세계선교학교)
3월 15일~6월 8일 (12주) 매주 토 오후 4:00 ~ 7:30 서빙고 비전홀
등록비: 3만원 (당일등록 가능)
내용: Mission Perspectives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출간) 내용 중심의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 강의, 온누리선교기관 소개, 온누리 선교정책 및 훈련과정 소개, 선교사 간증 및 선교현장 소개, 선교의 올바른 후원 및 홍보기도 방법 소개 등
강사: 온누리선교 담당 교역자, 선교사, 미국 C&MA 선교사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owmc@onnuri.or.kr)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제3기~8월4일~12월20일(마감: 7월 13일)
훈련단계
1) 1단계-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집수 마감: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2월 17일(월) 오후 7:00 선교관 305호
주최: 소아시아 공동체

3월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
2월 17일(월) 오후 7:00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말씀: 도육환 목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일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홍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홍보기도(암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BEE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성경연장교육)
월요 홍보기도
매주 월요일 오후 2:00/ 서빙고 403호

토요 홍보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15/ 서빙고 303호
문의: BEE Korea (749-9480)

교사·봉사자 모집
서빙고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주말학교 교육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사 또는 봉사자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00-6:30
문의: 양승순 전도사(016-756-7458) 06gmtc@hanmail.net

영어2부 일본어반 교사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터키어 초급반 과정(5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서빙고 성전 (장소 추후 공고)
주관: 소아시아 공동체
문의: 이영미 자매(016-259-9138)

일본어 중급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선교관 302호
강사: 강명애 권사
문의: 016-752-0377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내용: 선교훈련, 선교사 후원기도 및 성경, Outreach
1차 훈련(요나선교학교-3월 14일부터 15주)
2차 훈련(선교종보-9월 5일부터 12주)
회비: 1만원(1차훈련기간까지-교재, 간식비)
문의: 김중연 집사(793-9686 교667) 장현주 간사(793-9686 교25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 의사/간호사/치기공사/컴퓨터 교사/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응급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북키프로스 소수민족과 난민 의료사역 의약품
기간: 2009년 1월 31일~2월 7일
사역지: 러시아내 북키프로스지역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문의: 인터콥 표용진 간사(796-3541 교 230)

에필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필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6947-3146)

일본어 선교회
피아노 반주자
봉사시간: 주일 15:00
문의: 초지희사시 (019-9752-0278) 황혜경 간사(793-9686 교 702)

온누리 국제 영어예배

주일 오후 4:00 서빙고 분당
Power of Prayer(2Chronicles 7:14) / John H. Hahn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주님을 닮아가는 젊은이들의 행진

요한공동체는 1월 20일부터 29일 까지 "성령의 도화선을 설치하자"는 목표로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 다녀왔다. 또한, 다윗공동체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삼척, 제주도, 그리고 몽골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라오스에..

요한 (라오스) - 14기 김미경

이번 대학부는 태국 남부, 북부,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전혀 들어본적 없던 라오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으며 아웃리치를 향했다.

아웃리치로 찾은 새로운 모습

이번 아웃리치는 평소 대학부에서 보았던 모습과 참 많이 달랐다. 수많은 사람의 영접과 대학부 특유의 우렁찬 거리찬양은 없었지만, 팀원들을 보다 더 섬겨주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특히 그 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맡고 돌아왔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돌아왔다.

라오스에서 얻은 은혜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라오스를 향한 사랑과 또한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을 얻고 돌아와서 감사하다. 특히,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헌신하는 모습과 라오스 팀을 섬겨주시는 손길을 잊을 수 없다. 두 분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국 땅에서도 진하게 느껴지고 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

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일 4장 12절
아웃리치 가기 전에 팀에서 요한 일서, 이서, 삼서를 보았다. 그 중에서 붙잡았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심을 누릴 수 있고, 잘 알지 못했던 라오스 땅을 밝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요한 (태국) - 12기 김기람

아...역시...아웃리치는 새롭다. 늘...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같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잠길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쁨을 다시 맛보았다. 나보다 날 더 잘 아시는 주님...내가 미련하기에...하나님의 지혜대로 좋은 것들을 부어주셨다.

달고 울 수밖에 없었다. 생각지 못한 사람과 방법으로 세움 받고 위로 받고 채움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자 하는 소망...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닌 그분의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것 또한 내게 놀라운 축복이었다.

주님과 동행한 태국 아웃리치

콜럼을 받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음성에 귀 기울이던 때... 기대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며 사역하던 아웃리치 기간...등 매 순간 이미 내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

하나님의 부름 받아

아직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가장 감사한 건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다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자 한다. 그분의 음성에서 즐겁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진지한 시간들을 지켜 나갈 것이다.



◀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곳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요한 젊은이들.

밭길 닿는 곳에 주님의 손길을 전하자!

다윗공동체 아웃리치 - 허원희전도사

서빙고 대학부 다윗공동체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삼척, 제주도, 그리고 몽골 땅으로 아웃리치를 나갔다. 총 57명의 젊은 다윗들은 지역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과 봉사, 마을 전도 등을 했으며 몽골 팀은 카작족, 토오족에게로 가서 청소년 캠프, 의료사역을 도왔다.

선교사의 발이 닿지 않은 몽골 서쪽 바양을기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슬림들에게 영적 감동 감화를 주어 걸신자를 무려 8명이나 얻는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영하 35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춥지 않게 사역을 감당했고, 갔다 온 모든 지체들이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기도 했다.

제주 아웃리치는 총 21명의 예비 리더십들이 참여하

였는데, 흡사 일본과도 같은 영적 불모지에서 많은 밭박과 거절, 거센 영적 반발들을 당하면서 열심히 노방 전도와 방문전도를 했다.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노력봉사와 함께 차를 타고 제주 영적 거점들을 방문하여 워십과 땅밭기 기도등을 하며 제주 전역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삼척팀은 지난 여름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지역의 교회와 주민들을 위로하는데 1차적 목적을 가졌고, 바자회, 학생 수련회 인도, 찬양집회, 지역 주민과의 교제로 바쁜 4박5일의 일정을 보냈다.

다윗 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를 계기로 방문한 지역을 위해 더욱 중보하고 장기 선교의 발판을 삼고 2월말에 있을 예

수님과 더불어란 주제로 열릴 말씀집회로 영적 결실을 얻으려 하고 있다.



▲ 젊은 다윗들은 차를 타고 제주를 방문해 워십과 땅밭기 기도를 했다.

01

이스라엘 선교의 밤

‘이스라엘 선교의 밤’이 2월 27일(목) 오후 7시30분 선교관 302호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에서는 전문이 감도는 중동지역을 위한 특별 중보기도를 한다.
문의: KIBI (792-7075)

03

1만사역자 파송

최연우 / 이양실 (미국)

■ 기도제목 ■

1.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2.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 온누리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그곳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이진엽 (아프가니스탄)

■ 기도제목 ■

1. 날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그 땅과 아프간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2. 현지 법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의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며 현지 사역자와 잘 연합하며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3. 날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승리하도록.



외국인 목회자와 선교사가 바라본

‘목회사관학교’

해외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이번 목회사관학교에 참석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그들이 멀리서와 목회사관학교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7주 간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일본인 목회자,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누리과 일본 교회의 네트워크 꿈꿨습니다”



시바타 마끼
(나카츠 센조교회) 사역방법을 많이 배웠는데, 개인적으로 기도, 일대일, 큐티 등을 지도하고 싶다. 지도자의 영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목회사관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아버님께 듣고 자진해서 2월달부터 참석했다. 사역에 어떤 도움이 되겠나?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회사관학교를 마친 느낌은? 목회사관학교가 시작되면서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웠다. 특히 사이닝 글로리아에서는 모든 것에 더욱 즐거웠다.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기쁨과 환희가 솟아오른다. 앞으로 은누리교회와 일본 교회가 네트워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호화로운 입원생활(?)이었습니다”



구라치 케이 전도사
(야마토 갈보리교회) 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았다. 또한 성도를 배려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다. 나 또한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배운 점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하나님을 정중하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강의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섬기길 원한다. 7주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지난 7주를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를 믿으라,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겨라, 내가 모든 것을 인도한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이번 사관학교에서도 역사하셨음을 믿는다. 7주간 훈련은 호화로운 입원생활이었으며, 온누리교회는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일본 교회를 진단하시고, 메스를 가하셨다고 믿는다.

“기대 이상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마구찌 전도사
목회사관학교를 마친 느낌은? 온누리교회 온 지도 오래 됐고, 축제 때 번역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탄 교역자들 보다 온누리교회를 많이 아는 편인데도 다시 한번 온누리교회를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본 목회자들이

이번에 한국에 온 일본 목회자를 간단히 소개하면? 순수한 일본인은 10명 정도다.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일본 생명의 말씀사에서 추천한 분을 포함하면 총 16명이다.

온누리교회에서 훈련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 목회사관학교가 저와 일본 목회자들에게 기대이상으로 큰 도전을 주었다. 가장 인상깊은 것은? 이어령씨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통역은 기계적으로 말을 옮기기 쉽기 때문에 머리에 오래 남지 않는데 이어령씨의 간증은 감동적이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어령씨의 간증을 통해 들었다.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적이 있었는지 되묻는 게기가 되었다. 큰 충격이었다.

“주님이 내 힘임을 다시 고백했습니다”



배홍일 선교사
목회사관학교가 선교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마지막 주에 참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들은 성령론과 성령사역은 모든 목회와 사역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온누리교회를 섬기다 3년째 선교를 하고 있

는데, 그동안 사역보다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한 것 같다. 덧없는 인간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고, 행복이고, 꿈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너머에서 오는 기쁨, 힘, 즐거움 때문에 마냥 행복하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

는데, 그동안 사역보다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한 것 같다. 덧없는 인간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했다.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고, 행복이고, 꿈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너머에서 오는 기쁨, 힘, 즐거움 때문에 마냥 행복하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

'선교, 구체적으로 배운다'

제 3기 Why Missions?

1. 강의 프로그램 소개
2. 선교로 초청합니다. 김사무열 목사
3. 'Why Missions?' 이렇게 섭니다

온누리교인에게 선교에 대한 소명과 선교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Why Missions?' 가 제 3기를 맞이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Why Missions?' 는 선교 현장에 나가려는 성도에게 선교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선교사를 후원하려는 성도에게는 후원 방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교육내용

제 3기 'Why Missions?' 는 미국에서 평신도 선교교재로 널리 활용되는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원장 Ralph Winter 선교사)의 'Mission Perspective' 를 교재로 채택했다. 강의

와 조모임으로 교재내용을 충실히 소화하고 반영해, 세계 선교의 흐름과 다양한 선교적 접근 방법들을 배운다.

또한 선교에 헌신한 1기, 2기 'Why Missions?' 졸업생이 조장으로 섬기며, 조원들과 실질적 문제에 대한 진솔한 토론과 나눔을 할 계획이다.

훈련 기간 중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 2번의 캠프가 있다. 선교소명, 헌신, 제자도, 세계선교현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들으며 선교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원들과 자연스럽게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외 선교진로 상담시간에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나 선교담당 교역자들에게 개인의 영적 문제나 진로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온누리선교 총동원 '온누리선교 Day'
3기의 특징은 '온누리선교 Day' 가 신설된 점이다. 학기 중 2번 개최되는

'온누리선교 Day' 는 'Why Missions?' 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교우도 참가할 수 있다. 이 날은 공개강좌와 나눔, Q&A시간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온누리선교기관 소개, 선교사 훈련소개, 선교사 간증과 문답시간, 중보기도와 후원사례 발표, 전문인 사역현장 소개와 문답 시간 등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온누리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와 스텝들이 대거 참가하는 '온누리 선교 총동원의 날' 이다.

'Why Missions?' 학생들은 졸업 후 종족과 사역모임 연결로 온누리교회 선교 네트워크를 이루고 선교 사역자로 서게 된다.

- 일시: 3월 15일 ~ 6월 8일 (12주, 4월 5일 휴강)
- 매주 토요일 오후 4:00 서빙고 비전홀
- 등록비: 3만원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기사(031-336-6350~2)
owmc@onnuri.or.kr



▲ 아웃리치가 연 성경학교에 참석해 찬양하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들

학사일정

날짜	주제
3/15	입학식, Why Missions?
3/22	1차 선교캠프
3/29	선교의 역사적 관점 1
4/12	선교의 역사적 관점 2
4/19	한국 선교 역사(양화진 방문)
4/26	선교의 문화적 관점 1
5/3	선교의 문화적 관점 2
5/10	온누리선교 Day (온누리 선교는 누가 이루어 나가는가?)
5/17	선교의 전략적 관점 1
5/24	선교의 전략적 관점 2
5/31	온누리 선교 Day 2 (온누리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6/7~8	2차 졸업캠프 (양지)

긴장기 도래

“전쟁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살롱!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 분쟁과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위험한 상황들이 줄곧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로인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 주신 교회와 TIM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발발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이미 방독면과 해독주사가 지급 되었고 국방장관은 이라크의 공격이 있을시 보복공격을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다면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 확실하며 미사일(생화학)공격과 아랍테러리스트들의 활동도 예상됩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텔아비브 지역으로 걸프전 때도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해 이스라엘정부와 한국대사관은 방독면 조기 구입과 만약을 대비한 피신처 마련, 생필품 비축과 의약품 구비, 필요에 따른 예방접종, 신속한 대피를 위한 가재도구 사전정리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현 위치를 고수하고 만약 위험에 처하면 이곳보다 안전한 에일랏, 아쉬돗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선교사 세 가정 모두 전쟁과는 상관없이 이곳에 계속 거주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안드레선교사

이곳 이스라엘에서는 ...

미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주재 각국 대사관들은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의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 이스라엘 대사관도 지난 2월 11일 '이라크의 대이스라엘 공격에 대비한 안전 대책' 을 발표했다. 더불어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4개 지역 우리교민에게 2월 20일까지 철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온누리 대형 견습선교사

“선교 현장에서 준비되는 선교사”



온누리 대학청년이 견습선교사 제도를 실시하고 2010년까지 2000명 선교사 파송'이라는 2천1만 비전에 걸인차 역할을 할 제 1기 견습선교사를 모집했다. 1차, 2차 면접을 거친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24일(월)부터 견습선교사 훈련에 들어간다.

견습선교사란?

동아시아 A국, 일본, 몽골, 스리랑카, 홍콩, 중앙아시아(아프카니스탄),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모잠비크 등 온누리교회 선교베이스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장기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역이다. 선교사를 섬기는 현장 체험으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확인하고 현지 문화와 언어를 배워 장기 사역자로 준비하는 훈련이다.

훈련과정

견습선교사 신청자들은 오는 24일(월) 오후 7시 30분 서빙고 304, 305호에서 예배를 드린 후 3월 14일까지 3주간 견습선교사 훈련을 받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4박5일간 합숙하는 훈련과정은 ▶ 첫째 주 : 라이프맵(Life Map :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준비 과정), ▶ 둘째 주 : 선교이론, 성경적 선교, 역사적선교, 선교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셋째 주 : 한국 순교지 탐방, 온누리교회 선교정책, TIM선교사관리, 대형견습선교사의 비전 순서로 진행된다.

훈련을 마친 후 3월 22일 오후 5시 서빙고 토요일예배와 3월 23일 오후 4시 양재 대학 청년예배에서 견습선교사 파송식이 있다.

*

 **2000선교**

이프간 사역자 모집
의사,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농업 전문가, 교사들 찾습니다.
문의: 신원석 간사(793-9686 교 216)

선교사 훈련학교
제3기 Why Missions?
(온누리세계선교학교)
3월 15일~6월 8일 (12주) 매주 토 오후 4:00 ~ 7:30 서빙고 비전홀
등록비: 3만원 (당일등록 가능)
내용: Mission Perspectives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출간) 내용 중심으로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 강의, 온누리선교기관 소개, 온누리 선교정책 및 훈련과정 소개, 선교사 간증 및 선교현장 소개, 선교의 올바른 후원 및 증보기도 방법 소개 등
강사: 온누리선교 담당 교역자, 선교사, 미국 C&MA 선교사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owmc@onnuri.or.kr)

온누리 세계 선교사 훈련학교
(Onnuri World Missionary Training School)
제3기-8월4일~12월20일(마감: 7월 13일) 훈련단계
1) 1단계-선교 훈련(5개월 합숙훈련)
2) 2단계-선교현장 훈련(2년)
※ 지역: C & 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와 온누리 선교베이스
* 지원 자격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가기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집중 마감: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월 24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말씀: 박종길 목사
연락: 김화수 팀장(011-448-426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증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사 또는 봉사자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00-6:30
문의: 양승순 전도사(016-756-7458) 06gmtc@hanmail.net

영어2부 일본어반 교사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 일본 선교 학교
3월 2일-7월 매주일 오후 3:00-5:00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대상: 일본 선교에 비전과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문의: 황혜경 간사(793-9686 교 702) 기타노 전도사 (019-256-5874)

일본어 증급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선교관 302호
강사: 강영애 겸사
문의: 016-752-0377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내용: 선교훈련, 선교사 후원기도 및 섬김, Outreach
1차 훈련(온누리선교학교-3월 14일부터 15주)
2차 훈련(선교증보-9월 5일부터 12주)
회비: 1만원(1차훈련기간(7차)-교재, 간식비)
문의: 김중현 집사(793-9686 교667) 장현주 간사(793-9686 교25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리카: 의료, 교육, 농업/공출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제8기 여성선교증보학교
3월 3일(월)-5월 26일(월) 총 12주 오전 10:00~2:30
대상: 열방을 향한 증보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여성
훈련비: 16만원
연락처: 796-3541(교황224) / 011-9887-5139 성정희 간사

에델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증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증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델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일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빌딩 2층(온누리교회 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 온누리 국제 영어예배
주일 오후 4:00 서빙고 본당
Famous last words (Matthew 28:16-20) / Tony Flews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흥신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일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

일본선교학교

일본선교에 실질적 도움 드립니다

일본어예배는 일본선교에 뜻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일본선교 학교를 연다. 오늘(2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매주일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일본선교 학교는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선교학교는 온누리교인

뿐만 아니라 일본선교에 관심이 있는 타교회 교인도 등록 가능하다. 3월 '소명', 4월 'STAND UP', 5월 'DISCIPLE SHIP(제자훈련)' 등 달마다 테마에 따른 교육내용을 정하고 있고 언제든지 와서 들을 수 있게 열려있다.

키타노 전도사(일본어예배)는 "일본어예배는 일본인 교역자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성과 문화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본어예배가 쌓아온 일본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나눠 일본을 품고 있는 분께 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 702)
키타노 미노루 전도사
(019-255-5874)
/ 전성희
shee@onnuri.or.kr

온누리공동체 선교사역자들의 만남

선교비전을 품는 공동체



2천선교 주최로 각 공동체를 대표하는 선교사역자들이 지난 2월 26일 오후 7시 소회의실에 올해 처음으로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창욱 전도사는 2천 선교사역팀의 2003년 사역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한 후, 공동체 선교사역자의 정의와 비전, 온누리 2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 선교사역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온누리라파 진료소 이전

진료 자원봉사자 모집



온누리라파가 진료소를 서빙고 선교관 지하 1층 상담실 옆 사무실(구 디자인실)로 이전하고 오늘(2일) 오후 3시 개원예배를 드린다. 진료시간은 전과 동일한 주일 오후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이나 오늘은 예배 후 4시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온누리

라파는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주일 무료진료를 해왔다. 박상호 총무는 "진료실이 전보다 넓어서 격주로 진료하던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사역을 이제부터는 매주 진료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온누리라파는 주일 진료사역에 동참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1달에 한 번 주일 오후 3시 반부터 3시간 봉사하면 되며 모집분야는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치위생사 등 치과관련 봉사자, 접수 봉사자 등이다.

• 문의: 박상호 총무(2245-7260)
/ 전성희 shee@onnuri.or.kr

2천선교사 파송

김바울, 이하은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가 지난 주(23일) 부천 온누리교회 11시 예배에서 동북아시아 C국으로 파송 받았다.



김바울, 이하은 선교사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속으로 가족과 함께 파송되었으며 C국에서 교육문화사역을 할 사역할 예정이다.

기도제목

- 사역과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 학원 베이스가 선교인력들의 든든한 반석, 평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 C국의 언어, 문화, 풍습, 생활습관에 무리없이 동화되고 C국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 연합하는 나눔공동체를 이루도록
- 어머니 박혜원 권사의 건강과 영혜, 신혜, 선우 세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계좌: 서울은행 23907-5275201 (예금주: 김성태)
국민은행 345-24-0001-766 (예금주: 김성태)

주님의 지혜로운 일꾼으로 초대합니다

제 3기 Why Missions?

- 1. 강의 프로그램 소개
- 2. 선교를 소개합니다. 필수부품 선교사
- 3. Why Missions? 이렇게 섬깁니다

뉴욕의 빈민가가 있는 브루클린 지역에 짐 심발라 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2001년 9월 11일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 6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중에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신 잠언 10장 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와 목회 현장을 심각하게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 날 아침 9시가 조금 지나서 무역 센터의 두 건물이 무너지고 5천여 명이 살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

에 온 교회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쳐서 네 번이나 예배를 드렸고 6백여명이 새롭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도 영적 추수꾼으로 영혼을 전지는 일에 열심을 다해 섬기면서 지금과 같은 추수 때에 잡자는 자가 되어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hy Missions?" 3기가 이번에 시작됩니다. 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라는 명령으로 선교를 주셨을까요?

지난 2천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선교가 교회의 존재와 부흥의 원인이요, 동력이요, 목적이 되었을까요? 왜 온누리 교회가 2천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할까요? 지금 하는 일을 다 정리하고 미전도 종족으로 떠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일까요? 이 선교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들을 심각하게 토론하고 기

도하며 "주님의 지혜로운 일꾼"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12주의 훈련학교를 개강합니다.

지난 달에 저는 이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임재 하심과 그분의 사명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교회에 수 천명이 모였습니다. 두 시간 이 넘도록 예배와 찬양과 중보와 찬양과 중보와 찬양을 하며 오직 한가지를 선포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선교"였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가 왜,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위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초청합니다. 12번의 토요일 오후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으로 투자하십시오.

/ 김 사무엘 선교사



▲ 성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제자됨을 확인하고 있는 'Why Missions?' 훈련생들.

01

02

간증기도마당

함께 무릎 꿇어 주십시오

이반석/최순덕(파송-모잠비크-TIM-일산)

-말라리아 무병중입니다. 현재 호전 중이지만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상임(파송-동북아-TIM-동작A)

-임신 중인데 자궁에 근종이 생겼습니다. 아이와 근종이 함께 자라고 있어 유산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와 산모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드레/서석남, 류모세/강주희, 오세동/전선희 (파송-이스라엘-TIM)

- 이라크전 발발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미사일 공격(성화학)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외국인들에 대한 방독면, 생필품, 의약품 구비와 안전지역으로 대피할길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온누리 선교사 세 가정의 신변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 이라크에서는 ...

이라크에 대한 전쟁 긴장도가 시시각각 높아진다. 세계 각국과 자국 내 이라크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항해 이라크전 반대하는 민간단체 자원자들이 이라크로 모여들고 있다.

온누리교회 화요기도모임팀을 비롯한 30여명도 이라크 평화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으나 전쟁이 나면 외국인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라크로부터 비자신청을 거절당한 상태다.

03

화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2천비전을 중보한다"

이번 주 화요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은 매일 마지막 주 2천 선교본부 6개팀이 함께 모이는 '선교본부 연합기도모임'으로 진행했다.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지난 후 복한 땅과 아브라함의 땅을 주님께 회복시키길 기도하며 모임은 본격적 궤도에 올랐다.

오늘은 IAM(The International Assistance Mission) 소속 Harri Lammi가 모임에 참석해 아프가니스탄 사역보고를 했다. 5세 미만 유아사망률이 35%에 이르고 전체 인구의 10%만이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그의 보고를 듣고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그 땅의 회복을 위해 눈물어린 기도를 올렸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이 지난 1월 아프간 NGO등록을 마치고 3월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더욱 뜨거웠다.


화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은 교회 창립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임이다. 1994년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2천명 선교사 파송, 1만명 사역자를 세운다'는 '2천1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 화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은 2천선교본부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 모여 중보하고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문을 열어 한 주 동안 선교사, 미전도 종족,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뒤편이해 도 이 모임의 핵심순서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다. 한 주간 세계각국에서 선교사들이 2천 선교본부로 보낸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이날도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 사역을 위해,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도록 기도제목이 적힌 소식지를 보며 부르짖었다.

특히 매일 마지막 주는 2천선교, 세계선교훈련센터(OWMTC), 두란노해외선교회(TIM), BEE KOREA, 온누리미션, KIBI 등 2천 선교본부 전체가 모여 연합기도를 한다. 2천선교본부를 이루고 있는 6개 팀의 아름다운 협력으로 교회 2천 비전을 이뤄가도록 중보한다.

선교사 한 명을 위해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무릎선교사 열 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과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가는 선교사를 위해 화요중보기도 모임은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중보기도로 든든히 받쳐 줄 것이다.

*

 **2000 선교**

선교사 훈련학교
제3기 Why Missions?
(온누리세계선교학교)
 3월 15일~6월 8일 (12주) 매주 토
 오후 4:00 ~ 7:30 서빙고 비전홀
 등록비: 3만원 (당일등록 가능)
 내용: Mission Perspectives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출간) 내용 중심으로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 강의, 온누리선교기관 소개, 온누리선교정책 및 훈련과정 소개, 선교사 간증 및 선교현장 소개, 선교의 율바른 후회 및 중보기도 방법 등
 강사: 온누리선교 담당 교역자, 선교사, 미국 C&MA 선교사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 기도모임은 화요 2찬성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양재 숲속동 3층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함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숲속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사 또는 봉사자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00-6:30
 문의: 양승순 전도사(016-756-7458)
 06gmtc@hanmail.net

영어2부 일본어반 교사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내용: 선교훈련, 선교사 후원기도 및 섬김, Outreach
 1차 훈련(요나선교학교-3월 14일부터 15주)
 2차 훈련(선교준보-9월 5일부터 12주)
 회비: 1만원(1차훈련기간까지-교재, 간식비)
 문의: 금중연 집사 (793-9686 교667)
 장현주 간사(793-9686 교252)

무릎선교기도 헌신예배
 3월 7일(금) 오전 10:00 서빙고 시온홀
 문의: 금중연 집사 (793-9686 교667)

두란노해외선교회(TIM)/ 571-9535
선교사 모집
 * 중국: 치과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리카나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업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콤 (전문인 국제 협력단)/ 796-3541
제2기 남성비전스쿨
 3월 8일(토)~5월 24일(토) 총 12주 오후 4:00-9:00
 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남성(35세~55세)
 훈련비: 17만원
 연락처: 796-3541(교원225) / 019-433-4634 윤영덕 간사

에zell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온누리미션 아르바이트
 분야: 웹디자인 1명, 프로그래머 1명
 문의: 윤유석 자매(016-261-2984)

자원봉사자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일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소
 평 2층(온누리교회 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온누리 국제 영어예배
 주일 오후 4:00 서빙고 본당
 1st Century Model for 21st Century Service (Act 16:1-10) / James Hudson Taylor III

의료선교 라파 진료실 이전 예배
 3월 2일(주일) 오후 3:00 선교관 지하1층 상
 담실 내 온누리 라파 사무실
 기타: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축하 해주십시오.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일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01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실 확장 이전



온누리라파 개원예배가 지난 2일(주일) 열렸다. 2달여 공사 끝에 개원한 온누리라파 진료실은 선교관 지하 1층 상담실 옆 사무실(구 디자인실)에 위치해 있다.

온누리라파는 온누리미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주 오후 4시부터 무료로 진료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매달 첫째, 셋째 주에 치과와 내과, 둘째, 넷째 주는 이비인후과이다.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면 현재 격주로 진료하는 과목

을 매주 진료하고 안과 등도 신설할 계획이다.

온누리라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이며 모집분야는 내과, 가정의학, 이비인후과, 치과, 치위생사 등 치과관련 봉사자 등이다.

• 문의: 박상호 총무
(2245-7260)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무릎으로 선교의 문 연다

80여 여성 '무릎선교 기도' 훈련 시작

온 누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기도로 후원하기 위해 여성들이 무릎을 꿇었다. 지난 7일 서빙고 시온홀에서 여성 80여 명이 '무릎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 김동국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리는 생각보다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며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김중원 목사, 황종연 목사, 김창욱 전도사는 안수하며 '기도의자'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3월 14일부터 15주간 '요나선교학교' 훈련을, 9월 5



일부터 12주간 '선교중보' 훈련을 하게 된다. 훈련에 동참을 원하는 여성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장현주 간사

(793-9686 교 252)

/ 서철 chol@onnuri.or.kr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달 반 동안 아들 다니엘의 한글공부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귀한 자매님이 다녀갔습니다. 이곳에 오는 경비를 벌기 위해 한 학기를 휴학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먼 곳까지 와서 다니엘을 행복하게 해 주었던 전미선 자매님께 감사하고 저희 가정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내년 9월에 사역자 자녀 학교에 입학하려면 영어로 입학 시험을 봐야 합니다. 수업을 따라갈 정도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입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이 현지인 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부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이슬람 종교 교육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자녀 교육 문제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자녀학교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이후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지로 이곳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여러 나라의 도움으로 정부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올 9월부터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정(50만불)과 건물이 속히 구해지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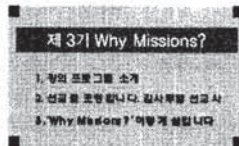
그리고 아들 다니엘이 세 가지 언어를 해야만 하는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장래에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아이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언어가 한글과 한국 역사인데 주변에서 한글로 된 동화책이나 테이프 등을 모아서 연락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연락처: 김혜숙: 019-551-1778
석종현: 019-437-5337

2003년 2월 24일
이사랑, 김은혜, 다니엘 올림

2000선교본부 Vision 2000 선교사역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은퇴선교사 예우, MK(Missionary Kids) Home schooling 등 장기 선교 정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선교의 열정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Why Missions?'를 준비하는 조장들의 모임이 있다.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회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장은 회원들과 토론도 하고 자신이 겪은 체험을 함께 나누며,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강의를 되도록 이끌어간다. 이들 조장은 'Why Missions?'를 수강한 1기, 2기 선배들이다. 이들은 'Why Missions?' 강의를 통해 선교에 대해 배웠고 이 감격을 봉사로써 돌려주려 한다.

조장들이 'Why Missions?'에서 가장 크게 배운것은 선교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것이다. "선교사" 하면 전기불도 안들어오는 오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투사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는 나라, 도시, 직장, 내 이웃이 모두 선교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김영효 조장은 말한다. 김지은 조장은 "짧은 나중 속에서도 서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선교의 열정을 발견하고 증보하고 격려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조모임을 회상한다.

"마음을 같이 하는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싶다", "복음에 빛진 자로서 섬기며 돕겠다", "구체적인 선교 계획을 세우고 동역자를 만나고자 한다"

다"며 조장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회원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Why Missions?'이 열린다면 이들은 각 조에서 회원들과 삶을 나누며 회원들을 증보하게 될 것이다.

김선군 조장은 "나 중심이 아닌 회원들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해 만지고 계획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증보하며 섬기겠습니다"며 포부를 밝혔다.

◆ 제 3기 Why Missions?를 개강합니다 ◆

- 기간: 3월 15일~6월 8일(12주)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4:00~7:30
- 등록비: 3만원(당일등록 가능)
- 강사: 온누리선교 담당 교역자, 선교사, 미국 C&MA 선교사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 간사



▲ 제3기 'Why Missions?'을 설립 조장들.

헌신

하용조 목사 / 사도행전 1:6~8

우리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증인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말하는 순교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거룩한 리더십에 대한 부담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리더십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치유'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처가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날 에스겔 36장 26 절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리더십의 두 번째 단계는 어제 말씀드린 '능력'입니다. 세상은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고,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참된 지도자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 내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할 때, 그가 비록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영적 리더십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은 거룩한 리더십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거룩한 리더십은 '헌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 인생을 약탈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착각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 지도자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삶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바로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최후의 명령을 따르는 방법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최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그 자신이 치유를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경험한 사람, 자신의 삶을 예수님처럼 헌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행 1:4-5) 저는 이 말씀을 최후의 부탁의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최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

막 부탁을 하나 더 하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붙들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교회와 사람에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며 너는 생명을 걸고 전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 생각, 열정, 전문성을 가지고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온누리교회를 18년 동안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자연히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새신자에 대한 관심이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올 해부터 열린 새신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아닌, 교회와 예수님을 오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안티 크리스트찬 사이트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이 기독교를 무성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만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개인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때'에 집중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빨리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나 하나 사람의 관심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 주권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언제나 그 몫을 묻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아주 극단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말론자들입니다. 요즘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과 북한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보다 먼저 선교해야 할 곳에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예언을 풀어서 말하면 그 말을 믿고 그 곳

◀축제의 마지막날, 교역자들이 모두 나와 찬양을 인도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김종민 목사가 주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간증을 했고 찬양도 드렸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하목사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로 전해졌다. 첫째 날, 둘째 날과 마찬가지로 설교가 끝난 뒤에도 성도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가 축제의 마지막 밤을 밝히고 있었다.



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재산을 날린 일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8절에 집중하십시오. 시간과 죽음, 때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순교자처럼 증인의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성령집회의 결론이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받고 능력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에 들어가라

8절에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임태했습니다. 그의 공생애의 출발이 성령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설교, 그의 기적, 그의 행동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내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나 지나 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든 것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제한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슬슬 피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박히기를 주여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박힐 때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 온전히 못 들어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살아면 성령의 소욕이 밀려납니다. 이 둘이 싸움이 벌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절반쯤 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갈

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찌니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다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고, 열등감, 패배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었다, 울었다 끊임없이 두 세계를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속 성령 충만하십시오. 끝까지 계속 하십시오. 도중에 육체의 뜻에, 육체의 소욕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성령은 계속 충만하게 되며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에 간혀 있을 수가 없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가게 만듭니다. 안주하고 기득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기를 꺼려했던 그 지역에, 나를 가게 합니다. 성령이 계속 임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복음의 네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신의 본거지요, 유대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땅끝까지는 모든 미전도 종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이 명령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더 간단해 지고 쉬워졌습니다. 며칠 전 꿈속에서 내가 죽으면 뭘 하겠느냐? 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내 시간, 내 은사, 내 열정,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천국에 가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의 이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게 그것을 원하십니까.

증인은 누구입니까? 더할도 말할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목숨을 걸고 말하는 순교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목숨을 걸도록, 사람 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역사가 살아납니다. 구원과 통일이 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족의 영혼 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통일과 축복과 구원이 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지 마시고 예수 믿다 죽으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복음전하다 죽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중공정부로부터 단동에 정식 교회인가 허가를 받았습시다. 오늘 우리 헌금을 단동에 교회 세우는 데 쓰려고 합니다. 일본 요코하마에도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시골에, 섬에, 외로운 곳 병든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삼일동안 성령집회를 했습니다. 치유의 말씀, 기름부으심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이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취재·말씀요약

/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성령의 능력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 해낼 수 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은혜받았다', '그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밤새워 기도했다', '그 때 나는 나가서 목이 쉬도록 전도했다', '나도 능력이 있었고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났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당신은 이미 넘어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충만해 진다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능력 안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부드럽게 거들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계속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날로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미미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계속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자꾸자꾸 커집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과 예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문안

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바울을 골방 먹이기위해 시기와 경쟁으로 위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죽이려고, 무시하려고 전도해도 좋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생길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함쳤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남이 전도한 사람을 건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꼭 차길 축원합니다. 수평이 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돈과 인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믿지 않는

01



**주님의 임재가
당도에도 세워지리**

성령축제 마지막 날 주님의 임재를 온누리 성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당동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주님의 뜻에 온누리 성도들은 기뻐하며 당동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 헌금과 기도로 축하하였다. 이에 김수정 자매의 아름다운 성가로 온누리 성도들의 가슴은 다시 축축한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

02

양지 선교 센터에도 모였어요

이번 집회는 양지 온누리선교센터에도 중계되었다. 선교센터에 있는 훈련생, 스태프, 추계리 주민 등 50여명이 선교센터 강의실에서 집회에 참석해 한 믿음과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했다. 첫날 양지에 있었던 성도들은 하용조 목사님이 서빙고와 부천은 환영했는데 자신들은 불러주지 않아 다소 섭섭했다고 한다. 하용조 목사는 둘째 날 양지에 계신 성도들을 환영한다며 더욱 큰 축복으로 화답했다.

03

동대문 남양주 공동체 터키 아웃리치

터키 하늘에 그린 **하나님의 꿈**

동대문 남양주 공동체 리더 34명은 지난 2월 1일부터 10일까지 터키를 방문했다. 2001년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한 동대문남양주 리더들은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의 역사를 보고, 터키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왔다.

2003년 1월 3일, 아웃리치를 위해 첫 모임을 했다. 이날 터키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님이 터키 지역의 생생한 정보를 주셨다. 2차, 3차 준비모임에서 워십연습과 중보기도에 힘을 쏟았다. 간단한 터키어도 배웠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2월 1일 터키를 향해 비행기에 올랐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2월 2일, 아웃리치팀은 '다소 교회'로 출발하기에 앞서 교회 창립을 위한 헌금을 했다. 아다나에서 약 40km 떨어진 '다소(TARSUS)'란 '기쁨'이란 뜻이라고 한다. 지금은 작은 시골 도시지만 바울이 생존하던 로마 시절에는 길리기아성의 수도였고

동서양의 문화를 골고루 갖춘 발달된 도시였다. 약 200~300년 전 이곳에 아르메니아인들이 군락을 이루고 살았었다고 한다. 그 당시 그들이 세운 교회가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려워지자 주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선교사님께 매달 일정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교회 건물로 사용해도 좋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슬람 국가 안에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다소의 바울 기념교회'는 크지는 않았지만 작은 정원과 카페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팀들은 하나 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온누리교회가 고스란히 터키 땅에 옮겨온 듯 했다.

2월 4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자리로 보이는 거대한 터를 보았다.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지켜서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곳으로 이동했다. 지금 이곳의 이름은 '알라쉐히르'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인구 1천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다. 교회 터에는 6세기 경에 건축된 요한의 기둥이 6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기둥 3개만 남아 있었다.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고 책망 받은 사데 교회 역시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진으로 무너진 성벽과 산등성이만 멀끔하게 서 있을 뿐, 교회 자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간이 만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 것



▲ '다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바울기념교회. 동대문남양주 공동체 리더들은 이곳에서 터키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도 없다는 것을 실감케했다. 이세벨을 허용했다고 해서 책망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와 사데 중간의 아키사르라는 도심 판복판에 돌 기둥만 남아 있었다. 버가모교회는 형태가 제일 많이 남아 있었다.

더 큰 비전을 주신 하나님

2월 5일,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를 찾았다. 아웃리치팀은 2만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원형 극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던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서머나교회는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시내 한복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요한계시록 7대교회 순례

를 마친 아웃리치팀은 그리스 아테네로 향했다.

2월 6일, 사도 바울이 18개월간이나 사역했던 고린도교회를 찾았다. 고린도 유적지에 도착했을 때 제법 많은 비가 내렸다. 우리팀 모두 우산을 들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 말씀으로 권면했던 현장에 와서 그때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았다. 당시 세계적인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번영을 누리며 타락에 빠졌던 고린도.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선교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를 품은 아이들'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마치고

“꿈은 이루어진다”



양승순 전도사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즐거워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신나고 특별한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따라 갔다 왔지요.”
 “앞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 가면 되겠지요.”
 우리 '세계를 품은 아이들' (이하 세피아)은 이렇게 신나게 지난 2월 18일~27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캄보디아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난 가을 학기 인도차이나반도를 선정하여 그 지역에 속한 나라의 문화와 종교 등을 배우면서 아웃리치 갈 나라를 인도차이나반도 나라 중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캄보디아는 치안의 상태가 어려운 곳, 킬링필드 족, 죽음의 땅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다. 우리가 가기 직전에도 태국과의 갈등으로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이 캄보디아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곳은 캄보디아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 나라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캄보디아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30%나 성장했다. 여러 방면에 긴급한 도움과 필요가 있는 나라이고 인도차이나반도중에서 북음전파가 합법적인 나라라는 말에 우리는 캄보디아를 아웃리치 장소로 결정했다.

하나님의 꿈을 알게 돼
 우리 세피아 들은 캄보디아를 품고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그 곳에 가서



킬링필드, 고아원, 킬링필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지의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고아원의 어린 이들과 식물원으로 소풍을 가서 작은 운동회를 열고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 되고, 준비해 간 도시락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다. 고아원어린이들과 손잡고 눈물도 간절히 기도할 때 세피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 어린이들 뿐 아니라 우리 세피아들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 MK)들과의 만

남이었다. 우리는 MK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2박3일동안 캠프를 했다. 세피아들은 MK들과 함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성경의 인물 요셉을 배우며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우리를 위해 꿈꾸고 계신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세피아에게 특별한 기대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

2000선교

선교사 훈련학교
제3기 Why Missions?
 (온누리세계선교학교)
 3월 15일~6월 8일 (12주) 매주 토
 오후 4:00~7:30 / 서빙고 비전홀
 등록비: 3만원 (당일등록 가능)
 내용: Mission Perspectives (US CENTER FOR WORLD MISSION 출간) 내용 중심으로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 강의, 온누리선교기관 소개, 온누리선교정책 및 훈련과정 소개, 선교사 간증 및 선교현장 소개, 선교의 올바른 후원 및 중보기도 방법 등
 강사: 온누리선교 담당 교역자, 선교사, 미국 C&M 선교사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 강사 (031-336-6350~2, owmc@onnuri.or.kr)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6월 16일
 *지역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강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영희 강사(031-336-6350)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3월 17일 (월) 오후 7:3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기도실 (http://www.timweb.org 약도 참조)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arm.com

공평·파워웨이브

세계를 품은 아이들 모집
 모집인원: 30명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서류제출기간: 3월 18일~27일
 회비 1학기당 8만원5천원(복, 가솔학기)여행비 별도
 면접: 3월 29일 오후 3:00
 개강일 4월 12일 오후 4:00
 선교관 미전도종족실
 담당: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yss06@ongjo.net)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사 또는 봉사자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00~6:30
 문의: 양승순 전도사(016-756-7458)
 06gmtc@hanmail.net

영이2부 일부어반 교사
 주일 오전 11:30
 문의: 김정순 전도사(011-9161-8707)

일부어 중보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선교관 302호
 강사: 강명애 강사
 문의: 016-752-0377

여성서역 무용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몬홀
 내용: 선교훈련, 선교사 후원기도 및 섬김, Outreach
 1차 훈련(온누리선교학교-3월 14일부터 15주)
 2차 훈련(선교중보-9월 5일부터 12주)
 회비: 1만원(1차훈련기간까지-교재, 간식비)
 문의: 금중연 집사 (793-9686 교667)
 장현주 강사(793-9686 교25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중국: 치과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문태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중출사역 분야 각 2명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인터콥 (전문인 국제 협력단) / 796-3541
제2기 남성비전소
 3월 8일(토)~5월 24일(토) 총 12주 오후 4:00~9:00
 대상: 선교에 관심있는 남성(35세~55세)
 훈련비: 17만원
 연락처: 796-3541(교원225) / 019-433-4694 운영역 강사

제7기 해외지역연구소를 훈련생 모집
 3월 7일~5월 30일 매주 금요일
 오후 7:00~10:30 이화여자대학교
 내용: 선교적 지역연구 접근법과 세계를 바라보는 성경적 접근법
 문의: 지역연구팀 이경석 강사 (796-3541 교227, 019-535-8074)

공개강의
 3월 11일 (화) 오후 7:00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민민희교수(한동대 국제어문학부) 제목: 전략적 선교와 지역연구

에zell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강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온누리미션 아르바이트
 분야: 웹디자인 1명, 프로그래머 1명
 문의: 윤유석 자매(016-261-2984)

자원봉사자
온누리리파 의료사역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1달에 한번 주일 오후 3:30~6:30
 모집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치위생사 등 치과관련 봉사자, 접수 봉사자 등
 문의: 박상훈 총무(2245-7260)

순장사관학교 피아노 반주자 모집
 시간: 주일 오후 4:00~7:00
 문의: 한호용 (016-276-5252)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일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소秉 2층(온누리교회 앞)
 전화: 김진성 집사(794-6097)

온누리 국제 영어예배
 주일 오후 4:00 서빙고 분당
 Anointed by His Spirit (Isaiah 61:1~3) / John H. Hahn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사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동산구 동부이촌1동 LC플라자2층
 매일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견습선교사 21명 선교지로 간다

3월 23일 파송예배... 현지 선교사와 동역하며 비전 키워

견습선교사로 자원한 대학 청년 연합 젊은이 21명이 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지난 14일 졸업했다. 전날 삼척 현장에서 새벽에 돌아온 견습선교사들은 오후 12시 30분 선교관 귀빈실에서 2천 선교본부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고 김창욱 전도사로부터 온누리 선교비전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들은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졸업예배를 드려 공식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졸업을 앞둔 견습선교사 21명이 2000선교위원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비전을 나누었다.

'견습선교사'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써 선교 비전을 가진 젊은이가 선교 현장에 파송돼 기존 선교사를 도우며 선교지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를 습득해 장기 선교사로 준비되는 과정이다.

대청연합, 2천선교본부, 두란노 해외선교본부(TIM), 온누리세계 선교센터(OWMC)가 연합해 견습선교사를 훈련하고 지원한다. 22일(토) 오후 5시 서빙고 토요

예배와 3월 23일 오후 4시 양재 대학청년예배에서 견습선교사 파송식이 있다.

〈견습선교사 인터뷰 6편〉
/ 전성희 shee@onnuri.or.kr

현대 히브리어·토라 세미나

KIBI 교육원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그리고 모세 오경을 좀 더 올바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 히브리어 강의'와 '토라강의'를 개설한다.

○ 토라

4월 3일~6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후 7:00~9:30 서빙고 선교관 403호 / 변순복 교수(유대교 정통 랍비 대학원 졸업)

○ 현대 히브리어 강의

4월 4일~6월 27일 매주 금요일 오후 7:00~9:30 서빙고 본관 2층 영아실 박미선 교수(명백대학교 겸임교수)

○ 문의: KIBI(792-7075-6/ kibikorea@yahoo.com)

*

2000선교
선교사 훈련학교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집수 마감: 6월 16일
*지역: 지역별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하고 헌신할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0514)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3월 17일(월) 오후 7:3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기도실 (<http://www.timweb.org> 약도 참조)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루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함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함은샘 (016-9377-6384)
spring.hanmom.com

☞ 소아시아(터키) 기도
3월 17일(월) 오후 7:00 선교관 305호
주최: 소아시아 공동체

온누리미션
☞ **몽골 예배 캠프형제를 위한 바자**
3월 30일(주일) 오전 9:00~오후 5:30

☞ **네팔 예배**
매월 셋째 주일 함께 전도하실 분(수원, 인천, 안산 등 공단지역)

☞ **여호와의라 자원봉사자 모집**
매주 월 외국인 지체들을 지하1층 치료실까지 안내하실 분

온누리라파 의료사역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1달에 한번 주일 오후 3:30~6:30
모집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치과, 치위생사 등 치료관련 봉사자, 접수 봉사자 등
문의: 박상호 총무(2245-7260)

☞ **온전 봉사자 모집**
매주 월 오전 12:30~오후 2:00 김포 서플 (1층 보통)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793-9686 교 514)

외국인 근로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월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소秉 2층(온누리교회와)
전화: 김진영 집사(794-6097)

꿈땅·파워웨이브
세계를 품은 아이들 모집
모집인원: 30명
대상: 허나눔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서류제출처: 3월 18일~27일 서류제출처: 꿈땅사무실 안경지 간사
회비 1학기당 8만원(5천원(월, 가을학기)여행비 별도)
연접: 3월 29일 오후 3:00
개강일 4월 12일 오후 4:00
선교관 미전도종족실
담당: 양승준 전도사 (016-756-7458, yss06@onggo.net)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사 또는 봉사자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00~6:30
문의: 양승준 전도사(016-756-7458) 06gmtc@hanmail.net

일본어 중급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선교관 302호
강사: 강명애 교사
문의: 016-752-0377

여성사역
☞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내용: 선교훈련, 선교사 후원기도 및 성경, Outreach
1차 훈련(요나선교학교-3월 14일부터 15주)
2차 훈련(선교중보-9월 5일부터 12주)
화바: 1만원(1차훈련기간까지-교재, 간식비)
문의: 김동연 집사(793-9686 교667)
장현주 간사(793-9686 교252)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중국: 치과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문태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공출사역 분야 각 2명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에셀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셀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
(교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리빙 (02-790-6052)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796-2003) / 남기민 집사
홍사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견습선교사

'아프간을 품고 떠납니다'

견습선교사 21명이 다음 주 TIM 선교베이스와(C국 7명, 일본 4명, 아프간 3명, 스리랑카 3명), 그 외 우즈베크, 캄보디아 등으로 파송된다. 이 중 아프간을 품고 떠나는 구자현 형제, 오명진 자매, 최소연 자매를 만나봤다.

▶이전에 어떤 일을 하였고 아프간에서 돕게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명진 자매(요셉) - 백혈병을 연구하는 병원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고 아프간에서 농작물관련 리서치와 농장 개혁 및 제반시설에 관련된 일을 할 예정입니다.
구자현 형제(여호수아) - 컴퓨터 관련 일과 월간 농업기술, 4새벽나라에 만화를 연재했습니다. 아프간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가르치게 됩니다.
최소연(다윗) - 서양화과에 재학 중이고요, 저도 문화센터 미술 강사로 갑니다.

▶견습선교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오 - 대형 연합수련회 때 견습선교사에 대해 슬라이드를 봤는데 초청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도해왔고 제가 결정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으

로 다스려주시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구 - 훈련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 들어왔



▲ 좌부터 최소연 자매, 구자현 형제, 오명진 자매

습니다. 아프간이 북음화되면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 모슬림이 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프간에 지원했습니다.
최 - 올 겨울 몽골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4번이나 아프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5번째 아프간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견습선교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마음을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1기 견습선교사로서 어떤 각오로 사역에 임하실지 말씀해주세요.
오 -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기대됩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최 -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그들을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 - 그 땅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만화라는 새로운 매체와 선교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고, 한 명이라도 제자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 현재 심경은?
오 - 굉장히 두려우면서도 기대됩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아프간으로 떠나는데 두려움은 없는지요?
구 -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가운데 들어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적당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손정래 장로 TIM

아프간에 대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쌓이니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좋은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문화센터 그림교사, 컴퓨터 교사, 농촌 빌리지 등 각 분야에 시기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대형 자원이 유입됐습니다. 1기 견습선교사를 시작으로 2기, 3기가 계속 이어져 실질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된 대학원생 젊은 선교인력이 준비되어 선교지로 나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큼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서길 기대합니다"

김영배 전도사

선교사로 지원하는 자는 부족하고, 선교의 열정은 불타지만 마땅히 갈 곳을 못 찾는 청년을 보고 이들이 돌을 연결할 수 있는 견습선교사제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시도라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대형선교위원회와 2천선교본부, TIM, OWMC가 연계해 가능했습니다. 견습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섰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현지에서 선교사에게 순종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굳건히 서길 기대합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경수/함미옥

(파송-미국-YWAM-강서김포)
-출산시의 봉합 실수와 산후조리 미흡으로 황 선교사가 수술(3/11)할 터인데, 빨리 회복시켜 주시도록
-5월 학기 Bilingual DTS(18-30세)와 재정을 위해

오하늘/김소망

(협력-중앙아-인터콤-과천수원)
: 그렇게 기다던 입국비자를 위한 초청장을 받은 일로 감사
-T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두려움의 영 들을 물러가며, 새로운 소망의 빛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박사무엘/이현영

(협력-방글라데시-GP-안양안산)
: 방글라데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게 해주신 일로 감사
-병원 사역과 복음 사역에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 받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무슬림 전도에 담대함과 열매를 주시도록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
-중고 자동차(7인승 봉고 5년/1만2천 달러)를 주시도록



기도 모임 탐방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열방을 향해"

력을 물리치길 기도한 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로 들어갔다. 선교사님의 건강, 성령충만함, 사역,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산으로 오른 기도는 다시 온 세상을 향해 퍼져간다. 예절 30개 기도방의 부흥과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길 바라며 세상을 품는 기도를 올린다.

선교사 이름만 봐도

1시간 정도 계속된 기도가 끝나자 예절에서 나뉜 순식사를 펼쳤다. 소식지에 써 있는 각 선교사의 기도 편지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모두 읽는다.
"이분 새로운 분이죠?"
"네 이분도 새로 오셨네요"
몇 년씩 선교사들이 보내는 선교편지를 읽다보니 이름만 봐도 누가 누군지 금세 안다. 선교사 기도제목들 모두 읽은 후 기도제목 하나 하나를 놓고 입술을 연다. 마지막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도 마무리를 하고 기도방 식구와 그 가족을 위한 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모임을 마친다.

기도는 깊이를 더해가고

기도모임은 찬양 후 기도리더의 인도에 따라 정결한 마음 주시길 원하며 회개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는 마치 산을 오르듯 높은 곳으로 흘러갔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모임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

골방에서 문을 닫고

임마누엘 기도모임은 영락교회, 목동교회 등 기도모임 리더와 식구 중 몇 명이 타교로 교인인 초교파 기도모임이다. 기도모임 식구인 정진숙 집사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불현듯 들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싶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예절 임마누엘 기도방으로 이끌었다. 예절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정집사는 선교사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다보니 자신의 딸이 아이를 갖는 응답도 받았다고 한다.
이곳에 나오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매어놓았다고 대답하는 그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이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마태복음 6장 6절처럼 골방에서 부르짖는 이런 작은 기도모임이 곳곳에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마지막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01

만성 신부전증을 알고 있는 은누리미션 갈트형제

“두렵지만 주님 때문에 괜찮아요”

“갈트 형제의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갈트형제는 돈을 벌기 위해 낯선 한국에 도착했다. 몽골에 있을 때부터 많이 아팠던 갈트 형제는 작년 11월에 갑자기 대로변에서 쓰러졌다. 길 가던 사람이 갈트 형제를 발견 인근 동대문운동장에 있는 국립의료병원으로 옮겼다.

검사 결과는 만성 신부전증, 몸에 적합한 신장을 찾아 신장이식 수술을 할 때까지 투석으로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야 한다. 1주일에 3일, 5시간이 걸리는 투석을 하면 식사를 한 상태에서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견딜 수 없다.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동생 아치트가 한국에 들어왔고 지난 4일 조직이 맞는 지 알아보는 신체검사와 조직형 검사, 피검사를 했다. 조직이 맞을 확률은 75%로 확실한 결과는 이번 주 중에 나온다.

그러나 조직검사 결과 외에도 어려움은 산적해 있다. 최성룡 교수(구로고대병원)의 주선으로 5

천여만 원에 이르는 수술비를 2천 5백만 원에 하기로 했지만 그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도 큰 일이다.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당장 수술비도 걱정일텐데 갈트 형제의 눈은 반짝 반짝 빛나고 미소는 환하다. 수술을 앞둔 마음이 어떠냐고 묻자 갈트 형제는 “괜찮다”고 말한다. 몽골에 있으면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죽었겠지만 한국에서 쓰러졌기에 병명도 알 수 있었고, 은누리미션 이경희 간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선생님께 늘 감사한다. 선생님께서 검사할 때 늘 도와주시고 병으로 인해 선생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서 기쁘다”

갈트 형제는 “종생과 신장이 잘 맞길, 수술비가 잘 마련되길” 기도 부탁했다. 몽골 예배는 3월 30일(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갈트형제를 위한 바자를 연다.

후원계좌: 하나은행(구 서울은행)
33904-1740119 이경희-은누리미션
/ 전성희 shee@onnur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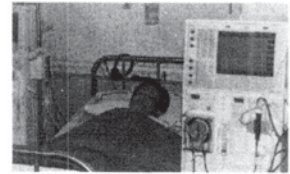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중순 몽골어 예배 채찍계 자매로부터 갈트 형제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방문해 처음 만났다.

무료로 투석을 해주는 분이 계셨지만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갈트 형제는 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을 위해 남동생이 한국에 들어왔다. 조직검사도 중요하지만 혈액형이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갈트형제의 혈액형은 O형. 남동생인 아치트에게 혈액형을 물어 보니 A형이라고 대답했다. 아치트의 혈액형 검사를 다시 받기로 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A형이 변하여 O형이 되게 해 주세요”

30분 후 의사선생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치트의 혈액형이 A형이 아니라 O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 동안 아치트는 자신의 혈액형을 A형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할렐루야!

조직형 검사를 통해 조직이 맞다면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갈트 형제

구로고대병원 최성룡교수님께서 수술을 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5천만원 이상의 수술비가 들지만 교수님의 도움으로 2천5백만원까지 수술비를 줄일 수 있었다.

이제 갈트형제는 만성신부전증이 완전히 치료되어 새 생명을 얻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가족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 영적으로도 새 생명을 얻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들을 위해 은누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경희 간사



02

“사람을 키우러 그들 곁으로 다가 갑니다”

1993년 성수동 사역을 시작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온 은누리미션은 초기 공출사역 중심에서 선교사역으로 사역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은누리미션 담당목사인 김홍주 목사(은누리미션 담당목사)로부터 2003년 은누리미션의 비전에 대해 듣는다.



김홍주 목사

◎ 올해 은누리미션의 비전은? 은누리미션은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해서 돕고 품을 것이지만 사역의 방향을 공출에서 선교로 서서히 전환하려 한다. 전도, 양육, 파송 세 단계에 중점을 두고, 헬터 사역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올해 사역방향은 사역을 전문화하고 현장성을 갖자는 것이다. 외국인 스스로 찾아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언어로 양육해야 한다. 이제는 은누리미션 사역이 주는 사역이 아니라 키우는 사역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도-외국인 전도는 외국인과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누리라파를 통한 의료진료와 임금체불, 인권 문제 등의 상담, 체육대회를 여는 등 다방면으로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 헬터 사역은 좋은 접촉점이다. 동포끼리 모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간, 선교현장의 전조기 역할 을 하는 것이 헬터이다.

양육-일대일과 TEE, BEE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대일교제는 이란어를 제외한 파키스탄, 미얀마, 몽골등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핫볼트 리니티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신학생을 은누리미션 사역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양육에 힘을 쏟을 것이다.

파송-은누리미션의 궁극적 목표는 이 땅에 찾아온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은누리 영성이 가득해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은누리미션에서 양육받고 본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네팔의 게비라이 목사, 미얀마의 아망 목사, 파키스탄의 예블, 길 목사 등 은누리미션 출신 사역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

◎ 기도제목은? 은누리미션 사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은누리미션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봉사하고 수련회나 행사 때 함께 참여했으면 한다.

은누리미션 사역은 각 방면에 걸쳐 체계가 많이 잡힌 편이다. 각 나라 종족, 언어별로 사역자가 세워져있고 제자를 양육해 재 파송 하고 있다. 은누리미션이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한국 교회에 모델로 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 은누리미션 연혁 ◆

- 93년 12월 성수동 사역역으로서 시작
- 94년 12월 영동포 헬터, 미얀마 중심 예배 및 하나로에서 일대일 시작, 주일예배 드림
- 96년 5월 5일 미얀마어 예배 위원회 발족
- 97년 1월 외국인 근로자 열린예배 발족
- 97년 3월 1일 군포헬터 오픈
- 97년 4월 5일 네팔어 예배 발족
- 97년 5월 우르두어 예배 위원회 발족
- 97년 7월 7일 몽골어 예배 발족
- 2000년 2월 이란 예배 모임 시작
- 2000년 5월 7일 러시아어 예배 발족

◆ 은누리미션 각 예배 안내 ◆

은누리미션에는 각 나라 언어별 7개 예배가 있다. 각 나라의 언어와 찬양으로 진행되는 예배는 각 예배 담당 집사와 간사,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 예배, 네팔어 예배, 파키스탄 예배, 러시아어 예배 등은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져 설교와 양육,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배	시간	장소	참석인원
미얀마어 예배		선교관 304호	약 40명
우르두어 예배	오후 2:00-4:00	선교관 303호	약 30명
네팔어 예배		선교관 403호	약 30명
몽골어 예배		선교관 301호	약 20명
러시아어 예배	오후 4:00-6:00	선교관 301호	약 50명
이란 예배		선교관 302호	약 20명
중국동포 예배	오후 4:00-6:00	선교관 304호	약 10명
인도네시아어 예배(힐력)	오전 11:00-오후 6:00	수원, 안산, 인천	약 350명

01

'이스라엘 선교의 밤' 중동과 이스라엘 위해 기도

3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이 3월 27일(목) 오후 7시30분 서빙고 선교관 302호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평택대학교와 장신대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미섭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같이 중보한다.
· 문의: KIBI 사무실 (792-7075)

02

4월 여성 큰 예배

“세계를 품은 어머니”



조길순 선교사

양재 여성사역팀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20분 사랑성전에서 '여성 큰 예배'를 드린다.
'큰 예배'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여성사역자를 초청해 어머니, 아내, 며느리,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예배는 '세계를 품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조길순 선교사(사진, MOSKOREA NEW LIFE 가정사역연구소장)가 러시아 선교지에서 체험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조 선교사의 세 딸(김지현, 김지영, 김지영)이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된다.
/ 서철 chol@onnuri.or.kr

03

“부름 받고 나갑니다”

견습선교사, 대청예배에서 파송식

짧은 열정으로 선교지에서 봉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대학청년 연합 제 1기 견습선교사 파송식이 어제(22일) 오후 4시 서빙고 토요예배에서 있었다. 견습선교사로 나가는 요셉 공동체 소속 5명을 위해 예배에 모인 청년들이 중보자로 섰다. 견습선교사 파송식은 소속별로 각 공동체에서 하며 오늘(23일)

은 다윗공동체 소속 3명이 오후 4시 서빙고 비전홀 예배에서 파송받는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30일(주일) 오후 4시 예배에서 파송식을 한다.
3월 30일 박재형 형제가 A국으로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견습선교사 21명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선교베이스(A국 7명, 일본 4명, 아프간 3명, 스리랑카 3명)와 우즈베크, 캄보디아 등 선교지로 나간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4

현대 히브리어·토라 세미나



KIBI 교육원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인, 그리고 모세 오경을 좀 더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 히브리어 강의'와 '토라강의'를 개설한다.
○ 토라 4월 3일~6월26일 매주 목요일

일 오후 7:00~9:30 서빙고 선교관 403호 / 변순복 교수(유대교 정통 랍비 대학원 졸업)
○ 현대 히브리어 강의 4월 4일~6월 27일 매주 금요일 오후 7:00~9:30 서빙고 본관2층 영아실 박미섭 교수(평택대학교 겸임교수)
○ 문의: KIBI (792-7075-6/ kibikorea@yahoo.com)

05

'누가 헌신자 훈련학교' 졸업식

지난 3월 16일, 부천 온누리 교회에서 '누가 헌신자 훈련학교'(LDTS)를 졸업식이 열렸다.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5주동안 '청년 누가 공동체' 약 20여 명의 리더들은 한웅재 전 목사(꿈이 있는 자유)의 '하나님과 거니는 연습' 등 10번의 특색 있는 강의와 소그룹별 모임과 숙박을 하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



했다.
/ 한송현 ruby@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아랍권에 주님의 섭리가 임하길”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A국에 귀환하였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보살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미감정에 들끓는 아랍지역

현지에 돌아와서 보니 국내에서 생각하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이라크와 미국간의 전쟁 소문으로 온 아랍 나라들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모이면 화제가 전쟁 이야기이며 미국을 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전쟁을 미국과 이라크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과 아랍,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전쟁으로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대부분이 "미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책임을 빈라덴(테러)과 결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모슬렘과 관련해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는 반미 감정이 확산되어 미국 사람들은 시내에 마을 놓고 다닐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상품 불매

운동까지 벌여 자동차의 경우 미국 차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한 채 비상시 탈출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가 위축

연합 사역의 중요성

그동안 이곳 사역자들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과 거의 상관하지

적용, 사역방법 등이 미숙해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고 이 분들을 돕는 것도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다른 사역자들과 연합하고 이끌어 주는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마련되어 있고 추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답답합니다. 주께서 어서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 주셔서 이곳이 속히 복음화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아내는 그동안 배워온 미용기술로 현지 미용실에 참여했습니다. 미용실은 A국 부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많은 여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역의 전망이 밝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장을 열려면 준비기간이 최소 일 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꾼과 사업장도 확보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일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포화를 받은 탱크는 고철로 변했지만 다리를 잃은 이라크 주민은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되고 경기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저의 일도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하심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지 사정을 모른채 열정이 앞서 현지 종교법을 어겨가며 사역을 강행해 추방 당한 선교사, 언어훈련 및 문화

2003년 2월 24일

A국에서 임방홍, 김혜경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명순 (파송-스웨덴-YWAM-열린)

- 전 교회 차원으로 스웨덴 교회들이 3/9일부터, 프랑스가 3/11일부터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이 부흥하고 이런 기도 모임들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김은혜 (파송-동북아-Wec-강남B)

-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집이 결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에 성령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도록

이디모데 / 오정미 (파송-동북아-경산-성동광진)

- 3월부터 매주 수요일 중문대학생 7명과 영성 훈련을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들을 훈련하여 캠퍼스를 변화시킬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도록

고여호수아 / 유한나 (파송-중앙아-인터콥-성북)

- Encounter 집회에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길,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 정결함을 입고 치유를 받으며 새로운 비전을 받고 돌아가도록

- 요사이 정부의 감시가 심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03



기도 모임 탐방 / 양재찬양중보팀

“찬양으로 열방을 중보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이라크전이 발발한 20일(목), 양재 찬양중보기도팀을 찾아 나선 길에 중보팀보다 먼저 만난 것은 벽을 타고 공간 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찬양이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음과 파괴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리더의 인도에 참석자들은 전쟁과 환란이 임한 그 땅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다.

음률에 기도를 실어

오후 7시 30분 시작한 찬양은 한 시간 동안 계속된다. 오늘은 홍콩에서 온 이정형제로부터 금권만능주의인 홍콩인들의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틈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 공산세력 아래서도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선교지에 대해 배우는 지역 리서치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라크에

이어 쿠웨이트에 대해 공부했다.

양재 찬양중보팀은 2년 전 중보 기도 리더인 정장철 형제의 음악작업실에서 처음 모였다. 찬양중보팀은 온누리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 예배 사역자, 찬양 봉사자, 중보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찬양과 예배로 그들을 돕고 있다. 올해 초 중국으로 1차 사역을 갔다 왔고 앞으로 네 차례 더 아웃리치를 갈 계획이다.

찬양중보팀은 지역 언어로 열방을 만들어 그 지역의 찬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중국 농촌지역을 다니며 찬양을 가르치고 몇 달 뒤 그 지역을 방문하면 사람들이 악보를 볼 줄 몰라 전혀 다른 멜로디로 찬양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들을 보며 찬양앨범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는데 올 초 한국을 방문한 중국 선교사 분과 의견이 맞아 중국어로 앨범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예배사역자에서 중보사역자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다 응답받은 기도 제목도 많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은 오지 사역에 나섰던 남미 윤천석 선교사가 벼랑에서 떨어져 소천했다고 긴급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30분 후, 선교사님이 회복되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느껴졌죠.”

기도모임 정장철 형제의 고백이다.

양재 찬양중보팀은 선교사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길,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찬양하며 우리는 기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 전성희 shee@onnuri.or.kr

“하나님이 온누리에 주신 부흥을



하용조 목사

'30개 지교회'는 그동안 온누리교회가 시행해왔던 목회 철학, 목회 프로그램, 양육·전도·선교·공출 등의 사역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지역교회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마 가까운 날, 온누리 지교회를 통해 중·소형 교회에 일맞은 전도집회 프로그램, 새신자예배 프로그램, 일대일 프로그램 등이 개발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온누리교회와 함께 '세상을 변화키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이 온누리 30개 지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지요, 꿈입니다.

- 지난 주일예배에서 '30개 지교회 비전현금 작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들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 반갑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온누리에 부어 주시는 축복, 은혜, 비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누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매 주일 동서남북 온 누리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 전 세계의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때, 온누리의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교회가 이 부흥을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런 온누리의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습니다. 2천명의 선교사를 땅 끝 모든 족속에게 파송하는 비전입니다. 멀지 않아 이뤄질 통일을 대비하며 북한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나갈 1만명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극대화할 '2010' 프로젝트

- '2천 1만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년 초 '온누리 비전 2010'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온누리의 모든 사역과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온누리에 물 붓듯 부어 주시는 부흥과 비전, 꿈을 이루자는 데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비전 '2010'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010'이란 2010년까지 2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4단계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가 제1단계로 1만 사역자의 개념 정리 및 훈련, 지교회 10개 설립, 센터와 본부

정비, 안성, 양지, 남한산성, 이천의 훈련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역이 추진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역이 결국엔 하나님이 온누리에 주신 부흥을 극대화하자는 데 목표가 있지요.

온누리에 주신 꿈 밀거름 될 '30개 지교회'

- '30개 지교회 비전' 역시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교회'에 대한 개념이랄까, 지역교회와의 갈등 등을 놓고 여러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 지교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 등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금년 들어 하나님께서는 1만 순장과 30개 지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국내에만 지교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미 일본에 5개 교회를 세우셨고 올해 6월 중순경에 요코하마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 주십니다.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어 단종에도 올해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전쟁 중이지만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5개의 지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천, 수원에도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개 지교회'는 온누리에 주신 하나님의 꿈, 환상, 비전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밀거름이 될 것입니다. 땅 끝 모든 족속과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일들이 지교회를 통해 더욱 넓고 깊게 확산되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전체 교회의 93%가 넘는 성도수 3백 명 미만의 연약한 교회를 돕고 온누리 비전과 꿈과 사역을 나누며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 맺을 것입니다. 나아



“30개 지교회 극대화해야 합니다”



가 하나님이 주신 '2천/1만 비전'이 아름답게 꽃피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일들이 실현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지역에 있는 중·소형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온누리가 세우는 지교회는 이런 지역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교회 설계에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한국형 중·소형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중·소형 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돕고 싶습니다. 성령의 강한 영적 바람이 중·소형 교회에 일어날 때 이 땅에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지교회를 통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협력하여 이런 일을 이루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온누리 30개 지교회는 지역사회에 부흥을 가져오고, 지역 교회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전현금으로 복음의 인프라 구축

- 온누리가 누리는 비전, 꿈, 복을 이 땅의 모든 교회, 특히 성도 수 300명 미만의 교회에 나누기 위한 프로젝트의 하나가 '30개 지교회 비전'이라고 이해하면 될는지요? 그런데, '30개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 따로 비전 현금을 작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요? 방배동 땅의 매각 대금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큰 성전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공사를 진행했다면, 500억~600억원의 공사비가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를 끝내고 허가까지 받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지어야 할 건물인데, 주민들과 부딪치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덕스럽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주셨습니다. 30개 지교회를 세우는 꿈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햇빛회관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성전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방배동 땅은 3백65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중 2백30억원은 햇빛회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세금으로 사용했고, 그동안 누적됐던 교회 부채 65억원을 갚았습니다. 한동대학교와 선린병원에 20억원을 기증했고, 55억원은 세금, 설계비 등 각종 경비로 쓰였습니다.

방배동 땅으로 햇빛회관에 큰 성전을 마련했고, 빛도 값있고, 한동대학교와 선린병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난 18년 동안 가르치고 고치고 베를고 섬기는 교회 사역

과 살림을 해 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비전을 이루는 데는 교회예산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지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10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30개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300억원이 필요하고, '30개 지교회 비전현금'을 작정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요즘 건물들을 세울 때 한 평당 건축비가 3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온누리 모든 성도가 한 평 건축비 정도의 현금 300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지역에 있는 중·소형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돕는 지교회를 세우고, 2천명 선교사, 1만명 사역자를 키우며, 인터넷을 통한 복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성도가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때

-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교회를 떠나시지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번 클라이막스 집회를 마치면 저는 한 달 동안 건강관리를 위해 교회를 떠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건강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섬 없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기적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 세계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오는 한 달 동안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후 5일 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4월 27일 '30개 지교회 비전현금'을 작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온누리 성도와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보며 나아가야

-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은?
▶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부요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질러 가시고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부흥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한 부흥, 이 민족을 위한 부흥, 세계 선교를 위한 부흥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독교, 살아있는 기독교, 생명력 있는 기독교의 참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나라, 그 민족, 그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대담 / 장선철 편집장
jsc@onnuri.or.kr



정예나 (초등6학년)

먼저 지난 한해동안 세품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캄보디아아웃리치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세품아에 대한 엄마의 설명을 듣고 호기심을 갖게 되어 친구 윤경이와 함께 세품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가야한다는 것이 제겐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짜증도 많이 내고 심술도 부리는 등 엄마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학교와 학원의 공부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TV만 보던 제가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지만 세품아 훈련을 받으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놀기도 하고 몰래 수다를 떨기도 했지만 성경말씀도 배우고 조별협동심을 기르게 되었으며, 워십시간에는 단순한 울동이 아닌 뭉뚱으로 예배를 드리는 법도 배웠고, 재미있는 일도

'세계를 품은 아이들'을 졸업하며

“의료선교사의 꿈을 주셨습니다”

많았습니다.

또한 2박3일 기도캠프에서 기도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아베스의 기도캠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수업까지 빠져가며 양재 햇빛성전에서 2박3일 동안 기도캠프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저에게도 아베스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언뜻 보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크게 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품아를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성숙해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캠프에 가는 조차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방법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캄보디아아웃리치를 다녀와서 더 절실하게 느낀 것 있지만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한층, 아니 두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웃리치 때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의 참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같은 조 조원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도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저에게 꼭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의료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지로 나가고 싶습니다. 1백여년 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큐티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 받는 예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를 품은 아이들' 모집

“세계를 품은 아이로 커갑니다”

- 부 서 : 세계를 품은 아이들
- 인 원 : 30명
- 학 년 : 초등학교 5 - 6학년
- 장 소 : 선교관 4층 미전도종족실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 회 비 : 학기당 8만5천원 (여름 캠프, 아웃리치비용 별도)
- 모집기간 : 3월17일 - 3월29일

- 훈련기간 : 봄학기-4월12일부터 (13주간)
가을학기-9월 20일부터 (14주간)
- 면접날짜 : 3월29일 (토) 오후3시
- 지원방법 : 부모의 동의와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어린이, 서류제출 뒤 면담을 통해 결정
- 프로그램 : 성경, 타문화 교육, 문화원경학, 선교사와 자녀들과 현지인 초청 간증집회, 체험캠프, 워십댄스, 수화찬양, 드라마배우기, 해외 비전여행(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하는 캠프)
- 원서교부처 : 선교관 4층 꿈이 자라는 땅 사무실
담당간사안경지 (011-898-3300)

< 찬양의 오독경 >

허드슨 테일러의 열 번째 이야기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그 열 번째 이야기를 방송한다. 선교지에서 만난 여인, 마리아!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막는 주님의 반대로 허드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선교에 헌신한 허드슨과 마리아의 가슴 아픈 사랑을 들어본다.

*

2000선교
선교사 훈련학교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6월 16일
 *지위 자격: 선교에 대한 부름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3월 31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4호
 말씀: 박종길 목사
 연락처: 김화수 팀장(011-448-4262)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온누리미션
☑️ 몽골 예배 갈트형제를 위한 바자
 4월 13일(주일) 오전 9:00~오후 5:30
 안산 등 공단지역

네팔 예배
 매일 셋째 주일 함께 전도하실 분(수원, 인천, 안산 등 공단지역)

여호와와 자원봉사자 모집
 매주일 외국인 지체들을 지하1층 치료실까지 안내하실 분

☑️ 온누리라파 의료사역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 4:00~6:00
 모집분야: 치과 의사, 취위생사 등 치과관련 봉사자
 문의: 박상호 총무(2245-7260)

운전 봉사자 모집
 매주일 오전 12:30~오후 2:00 김포 서플 (1층 보통)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793-9686 교 514)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일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산동야소 평 2층(온누리교회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세계를 품은 아이들 모임
 모집인원: 30명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서류교부기간: 3월 18일~27일
 서류제출처: 꿈평사무실 안경희 간사
 회비 1학기당 8만원5천원(봄, 가을학기)여형비 별도
 면접: 3월 29일 오후 3:00
 개강일 4월 12일 오후 4:00
 선교관 미전도종족실
 담당: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yss06@ongio.net)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사 또는 봉사자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00~6:30
 문의: 양승순 전도사(016-756-7458)
 06gmtc@hanmail.net

일본어 중급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선교관 302호
 강사: 김영애 권사
 문의: 016-752-0377

여성사역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홀
 내용: 선교훈련, 선교사 후원기도 및 섬김, Outreach
 1차 훈련(요나선교학교-3월 14일부터 15주)
 2차 훈련(선교중보-9월 5일부터 12주)
 회비: 1만원(1차훈련기간까지-교재, 간식비)
 문의: 금중연 집사(793-9686 교667)
 장현주 간사(793-9686 교252)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571-9635
선교사 모집
 *중국: 치과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아프가니스탄: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역 분야 각 2명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에젤선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 오후 7:3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젤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
 (교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62)

☑️ 온누리 국제 영어예배
 주일 오후 4:00 서빙고 본당
 Walking on the Water (Matthew 14:22-33) / John H. Hahn

☑️ 이스라엘 선교의 밤
 3월 27일(토) 오후 7:30 서빙고 선교관 302호
 강사: 박미선 교수
 문의: KIBI 사무실 (792-7075)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일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

30개 비전교회를 위한

‘ACTS 29’ 발표



서빙고 양재성전을 비롯, 국내외 30개 비전교회를 통해 2010년까지 2천/1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ACTS 29'가 발표되었다. 'ACTS 29'란 30개 비전 교회 개척을 통해 '2천/1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작정 헌금을 뜻한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씌어져야 한다. 'ACTS 29' 기획 담당 이재훈 목사는 "ACTS 29 헌금은 온누리교회의 2천/1만 비전이 사도행전 29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적인 헌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용조 목사는 건강관리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온누리신

문과의 인터뷰에서 "30개 비전 교회란 18년간 온누리교회가 시행해왔던 목회철학, 목회프로그램, 양육, 전도, 선교, 금홍 등의 사역을 국내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해 해당지역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세워지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하목사는 "중소형교회에 알맞은 맞춤전도집회, 새신자 열린예배, 일대일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각 지역의 특성, 중소형교회에 알맞은 선교프로그램과 사역자 훈련을 통해 2천/1만 비전에 동참하는 선교지향적인 교회를 만든다. > 해

당지역교회와 긴밀한 협력사역을 일구어 사도행전적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한다 등을 목표로 제시하며, "30개 비전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3백억원 정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누리 모든 성도가 국내외의 수많은 중소형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돕는 30개 비전교회를 세워 이를 통하여 2천명의 선교사, 1만명의 사역자를 키워내는 '2010 온누리 비전'을 이루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물결이 한국과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라

며 많은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4월 8일부터 온누리 리더십 설명회가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장로 권사 : 4월 8일(화) 오후 7:30 서빙고 비전홀 >사역팀장 : 4월 9일(수) 오전 6:30 양재 온유절제 >인수집사, 순장, 여성리더십 : 4월 10일(목) 오후 7:30 서빙고 비전홀, 양재 온유절제 > 'ACTS29' 헌신예배 : 4월 17일 오후 7:30 서빙고 본당

‘무릎 선교사 연합기도모임’

2천선교본부는 오는 4월 15일(화) 오후 7시 한동홀에서 온누리교회 전 무릎 선교사를 초청해 '무릎선교사 연합기도모임'을 연다. 강사는 이재환 선교사다.

KIBI '이스라엘 선교의 밤'



현대 이스라엘의 생활상에 대한 박미섭 교수의 강의를 듣고 이라크전으로 긴장상태에 있는 중동지역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이스라엘 선교의 밤' 행사가 27일(목) 선교관 302호

에서 열렸다. 이스라엘에서 11년간 유학한 박 교수는 성경과 뉴스로만 접하던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의 명절과 음식, 언어 등 생활습관과 현대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스라엘의 밤은 KIBI(한국 이스라엘 성경연구소: Korea Israel Bible Institute) 주최로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양재 수요일예배 '4월 여성 큰 예배'

“세계를 품은 어머니”



조길순 선교사

양재 수요일예배는 오는 4월 2일(수) 오전 10시 20분 사랑성전에서 '여성 큰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큰 예배'란 현재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여성사역자를 초청해 어머니, 아내, 며느리, 그리고 하나님

의 딸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예배는 '세계를 품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조길순 선교사(사진, MOSKOREA NEW LIFE 가정사역연구소장)가 러시아 선교지에서 체험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예정이다. 또한 조 선교사의 세 딸(김지현, 김지영, 김지영)이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된다. 한편, 양재 수요일예배는 지난 3월부터 라준석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4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9일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창2:18~25) · 4월 16일 / 인생 막장 앞에서 있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시다(룻4:13~22) · 4월 23일 / 배짱 만만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다(단1:8) · 4월 30일 /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보게 하시다(계21:1~4) / 서철 choi@onnuri.or.kr

특/별/기/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3월 20일 오전 5시 35분(한국시간 오전 11시 35분, 이후 한국 시간), 이라크 바그다드에 미국이 쏜 대공화기 발사음과 함께 화염이 솟았다. 12시 15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식 개전을 발표하고 공식적인 이라크전이 시작됐다. '중동지역에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온누리신문은 요르단 암만에 거주하고 있는 중동지역 전문가 김동문씨로부터 귀한 글을 받았다.

▲ 28일 이라크군과 미·영 연합군간의 치열한 교전이 지속되고 있는 남부 바스라 지역에서 한 이라크 가족이 손을 꼭 붙잡고 파괴된 이라크 T-55 전차를 뒤로 한 채 전쟁을 빠져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전세)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충격과 공포가 닥치고 있다. 당초 미국은 대대적인 공습을 통해 이라크인들 가운데 충격과 공포를 조장하여 투항과 반 후세인 전선의 강화, 친미적 민심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기상 악화와 이라크 민간인들과 정부군의 저항에 밀려 고전을 겪고 있다. 최소한 당초 예상하였던 전쟁 기간보다 장기화될 것이 예외이고 있다.

전선에 부는 모래폭풍

이번 이라크 전쟁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느끼게 된 몇 가지가 있다.

날씨는 이라크 편이었고 반전 편이었다. 공교롭게도 부시가 최종 선포고와 비슷한 연설을 하기 전후하여 요르단과 쿠웨이트 등 미국의 교두보로 사용할 전선에 이상 기후가 감지되었다. 요르단의 경우는 강한 모래폭풍이 불어 시야를 어둡게 했다. 이 때문에 부시는 처음 추진하려던 전면적인 대규모 공습을 포기하여야 했다. 아닌 봄에 눈발이 쏟아지는 요르단, 강한 모래폭풍으로 미군의 보급로가 차단되는 등의 악전후가 발생하는 쿠웨이트. 미군의 대규모 전면 공습을 막아선 것은 인위적 자막의 폭풍이 아닌 자연의 맞바람이었다. 전 세계인들 사이에, 한국인들 사이에서조차 번져가던 반미 정서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은 아니겠는가?

어떤 전쟁도 필요악일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은 하나님에 선교의 빛장을 열기 위하여 의도하신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전쟁도 결코 필요악일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전쟁이라는 악을 의도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닫힌 아슬람지역 선교의 빛장을 열어젖히고자 독실한 신앙인 부시를 통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 없다. 이미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 기회도 강제로 박탈당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의 죽음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소수의 돌아오는 자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할 만큼 이들의 목숨이 무가치한 것일 수 없다.

전쟁의 상흔 감싸안기 원하는 주님

전쟁이 있다. 당연히 발생하여야 할 난민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라크 난민을 교섭하고 이라크에 머물던 제3국인

들조차 거의 움직임이 없다. 이상징후이다. 그래서 요르단 접경 지역에 설치된 난민촌은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제 바그다드 시가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여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를 미룰 수는 없다. 이곳 요르단에서는 이미 사랑의 오아시스 팀(문의 yahiya@hanmail.net)이 엔지오 등록을 마치고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난민이 나오지 않으면 이라크 내에서의 이재민 사역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거룩한 이름으로든, 어떤 거룩한 신분으로든, 어떤 명분으로도 이번 이라크 전쟁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인들이 요구하지 않은 이라크인의 자유를 위하여 그들을 전쟁으로, 미국의 힘으로 구속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쟁의 상흔을 감싸 안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참전 군인들의 표정을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난다.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고한 희생자가 줄고 전쟁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요르단 암만에서 김동문

◆ **이라크 전쟁의 역사**

이라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을 잇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겪는 수난의 땅이다.

-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인 침공
-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대왕 동방 원정
- 637년 바그다드 남쪽 카디시야 전투에서 이슬람제국 제2대 정통파 칼리프 우마르(634~644)가 이란의 사산왕조를 멸망시킬
- 657~745 모하메드 이후 이슬람제국의 통치권 둘러싼 내전
- 11세기 중기 이후 셀주크, 몽골, 티무르의 지배를 받음
- 1258년 몽골군 바그다드를 침략, 아바스조 왕국 멸망시킴
- 1401년 사마르칸드를 거점으로 한 몽골의 티무르에 점령
- 1534년~제1차 세계대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영토로 합병(약 400년간)
- 제1차 세계대전 1917년 3월 영국 바그다드 침공
- 제1차 세계대전후(戰後) 영국의 위임통치령
- 1932년 독립 (왕정: 메카의 하심가(家)의 파이살 국왕)
- 1958년 7월 이라크 혁명으로 공화정을 수립, 장군 카셈이 이끄는 청년장교들이 왕정 타도
- 1968년 바스당이 정권 장악
- 1979년 사담 후세인 대통령 취임
- 1980년 이란 침공
- 1990년 8월 쿠웨이트 침공
- 1991년 걸프전

이라크는?

- ◆ **군토** =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 타그리스·유프라테스 유역에 발달한 메소포타미아평원과 북동부 쿠르디스탄산지(山地) 남서부는 사막지대로 경토가 이루어져 있다. 국토의 12%는 경지이고, 약 1/10은 스텝지대이다.
- ◆ **기후** = 사막성 건조기후로 여름철은 더위가 극심하고 5~10월에는 거의 강수량이 없다. 바그다드의 7월 평균 기온은 34.3℃이고 1921년 7월 8일 바트라에서 관측된 58.8℃는 세계 최고기록이다.
- ◆ **역사** =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실형문자를 최초로 창안한 사람들이 살았다.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수메르·바빌로니아·아시리아 등 고대국가가 흥망했고 8세기 중기 아바스왕조 시대에는 쿠파, 바그다드 등이 수도(首都)가 되어 이슬람 여러 나라의 중심으로 중요한 지위를 누렸다.

“온누리교회 영성을 세계로 수출한다”



한홍 목사

1월 5일 오후 4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영어로 전 예배를 진행하는 국제영어예배가 시작했다. 온누리교회의 영성과 프로그램을 영어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전 세계에 전하고자 시도된 국제영어예배, 국제화사역 담당목사인 한홍 목사를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국제사역본부의 올해 비전에 대해 들었다.



▷ 국제화 사역본부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국제화 사역본부는 온누리교회가 18년간 쌓아온 180여개의 사역과 영성을 영어를 통해 수출하자는 생각하으로 시작했다. 이때까지 영어예배 출석 성도가 8백명 정도였는데 본당으로 옮기고 나서 매주 2천3백여 명씩 출석하고 있다.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도 많지만 주로 주한 외국인, 미군 장교, 외국인 기업인, 1.5세 외국인 자녀들, 15개국에 넘는 영어권 사람들이 나온다. 백인, 흑인, 유럽인들이 할 것 없이 골고루 섞여있어 열방이 모여

예배드리는 듯한 감동이 있다. 국제영어예배는 구도자를 품는 온누리교회 열린예배 특유의 감각과 영성있는 성령예배 감각을 접목하고 서양의 자유로움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 국제영어예배는 허드슨 테일러 3세나 짐 그래함 목사가 국제화예배에서 설교한 것처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가 설수 있는 한국 교회 강단을 제공하고 있다.
▷ 예전 영어예배와 국제영어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 이전까지 영어예배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쳤다면 국제영어예배는 온누리의 영성을 영어라는 도구로 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온누리교회 기존 강

당에서 드리는 설교,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영성을 영어예배에 접목시켰다. 또한 열린 예배를 하며 배운 노하우를 살려 예배 기획의 치밀성이 좀더 보완되었고 대학생과 청년 중심이었던 영어예배가 결혼한 사람과 장년 CBO층을 많이 끌어안은 것도 큰 차이점이다.
▷ 국제화사역본부는 영어예배, 일본어예배, 중국어예배 등 외국어 예배가 연합해 사역한다고 알고 있다. 연합사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 일본, 중국, 미국은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져왔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일본에 12개 교회 설립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일본어예배

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한다. 일본과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어교육의 열풍이 강렬하다. 이번 여름부터 일본과 중국으로 가는 단기선교팀에 영어예배가 합류할 것이다. 그곳에서 영어로 BBS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국에서 하는 것과 다른, 색다른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년에 두세 번 이상, 일본어예배와 중국어예배가 함께 특송도 하고 간증도 나누며 예배를 드린다. 일본어예배와 중국어예배 교역자와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사역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연합사역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기도 하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 영어예배

리더십 수련회

“거룩한 지도자로 섬기기”

영어 예배 소그룹 리더 70여명이 3월8일(토) 남한산성에서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수련회를 가졌다.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남한산성에 도착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각 팀별로 나누어서 모임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20년 동안 OMP선교사로 섬겼던 Ridge Orr선교사가 실제 사역 현장에서 겪은 좌절과 실망 그리고 그런 시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

Ridge Orr선교사님의 강의 이후 추요섭 목사가 ‘헌신’의 중요성과 각자 맡은 그룹의 멤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늘 변함없이 꾸준한 섬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재미있는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소그룹을 인도하면 안 된다.’의 간단한 예들을 보여주기도 했다.

점심 식사 후, 각자 사역별 7개 팀으로 흩어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홍 목사의 인도로 성찬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마쳤다.

◆영어 예배 시간

- 서빙고 - 주일 국제영어예배 / 오후 4시 (본당)
- 양재 - 오전 11시 (양재온유절제성전)

□ 일본어예배

“이제는 그물을 내릴 때”

여성전도집회 클라이막스에 일본인 8명이 참석했다. 테이블리더로 이들을 섬겼던 이영효 자매(일본어예배)는 클라이막스를 통해 일본어예배는 그동안 펼쳐놓은 그물을 걷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활주일예배 일본인을 초대할 전도집회를 하려고 한다.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

부활절 칸타타

“다시 사신 주”

일본어예배는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사신 주’라는 제목의 부활절 칸타타로 오전 11시 30분 예배 전체를 작은 음악회로 꾸민다.

“다시 사신 주”는 총 8곡과 연극, 일본어예배 성도 인터넷, 영상메시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김형석 성가사(일본어예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누리성도 모두가 기도해 주” 부탁했다.

◆일본어 예배시간

- 일본어예배 / 오전 11시 30분 (서빙고 소회의실)
- 온누리일본선교교회 / 오후 3시 (서빙고 소회의실)



□ 중국어예배

“새신자반 과정 정비”

중국어예배가 새신자반 과정을 정비하고 4월 둘째 주부터 4주 과정 새신자반 교육을 시작한다. 유물상과 진화론에 익숙한 중국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4주 동안 교육한다. 바뀐 새신자반 교육의 특징은 1명이 그주 들어온 새신자를 맡아 4주간 가르친다는 것이다.

중국어 예배는 새신자 과정과 조모임 활성화를 위해 현 12명 조장을 40명 정도로 늘려 양성할 계획이다. 조장들은 4월 셋째 주부터 TEE 훈련을 받고 5월 셋째 주부터 헌신한다.

중국어예배 세례식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님입니다”

3월 16일(주일) 오후 1시 반 순영홀에서 중국어예배 세례식이 있었다. 중국어예배는 1년에 한 번 세례식이 있다. 올해는 총 7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중 4명이 유학생이었다. 중국어예배 이일호 형제는 “대부분이 불법체류 노동자들이라 3년 이상 체류자들은 모두 강제 출국되어야 하는 입장이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정이 예배 가운데 뜨거웠다”고 세례식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어예배 시간

- 오후 / 1시 30분 순영홀

01

개편 Special 프로그램

1)아웃리치 잉글리쉬 (4월 1일 업데이트)



온누리TV에선 아웃리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기회를 마련한다. 선교지와 아웃리치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맞추어 영상으로 배우는 크리스천 영어 프로그램.

02

찬양의 오솔길 -

허드슨 테일러의 열한 번째 이야기



회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신부 마리아와 중국 예복을 입은 신랑 허드슨 테일러! 선교지에서 만나 주변의 거센 반대를 뚫고 드디어 결혼식장에 선 두 사람.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낸 두 사람의 결혼을 살짝 들여다본다.

*

2000선교

선교사 훈련학교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경재 간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중국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3월 31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4호

말씀: 박종길 목사

연락처: 김희수 팀장(011-448-4262)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말은샘)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온누리미션

종교 예배 길트형제를 위한 바자

4월 13일(주일) 오전 9:00~오후 5:30

네팔 예배

매월 셋째 주일 함께 전도하실 분(수원, 인천, 안산 등 중간지역)

여호와라파 자원봉사자 모집

매주일 외국인 지체들을 지하1층 치료실까지 안내하실 분

온누리라파 의료사역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한 달에 한 번 주일 오후 4:00~6:00

모집분야: 치과 의사, 취위생사 등 치과관련

봉사자

문의: 박상호 총무(2245-7260)

운전 봉사자 모집

매주일 오전 12:30~오후 2:00 김포 서릉 (1층

보통)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793-9686) 교 514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월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소

평 2층(온누리교회 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

사 또는 봉사자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00~6:30

문의: 안승순 전도사(016-756-7458)

06gmtc@hanmail.net

일본어 중급반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선교관 302호

강사: 강명애 권사

문의: 016-752-0377

여성사역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매주 금요일 오전 10:00~12:30 서빙고 시온

홀

내용: 선교훈련, 선교사 후원기도 및 섬김,

Outreach

1차 훈련(요나선교학교-3월 14일부터 15주)

2차 훈련(선교중보-9월 5일부터 12주)

회비: 1만원(1차훈련기간까지-교재, 간식비)

문의: 금중연 집사(793-9686) 교667

장현주 간사(793-9686) 교252

*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571-9535

선교사 모집

*중국: 치과 의사/ 간호사/ 치기공사/ 컴퓨터 교사/ 한국어교사 각 1명, 영어교사/ 유치원교사(몬테소리) 각 3명, 피아노 반주자/ 교육전도사 각 2명

* 아프리카: 의료, 교육, 농업/금융사역 분야 각 2명

* 스리랑카: 영어유치원 교사 2명

간사 모집

선교현장, 영어, 컴퓨터, 운전가능자 (형제

문의: 박인영 (794-1063)

인도를 위한 중보기도 (인디모)

4월 10일(목) 오후 7:30 서빙고 출기도실

문의: 김베드로 (796-5615, 109-240-9224)

에집트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모임

월~토요일 각 지역 24개 기도방에서 진행

찬양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중보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

집 사무실(703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

(교514, 017-316-9787)

온누리 국제 영어예배

주일 오후 4:00 서빙고 본당

Sacrifice : Who's Gonna Do the Dying?

(John 12:23-26) / John H. Hahn

NACTS 29 리더십 설명회 및 헌신예배

장르 권사

4월 8일(화) 오후 7:30 서빙고 비전홀

사역팀장

4월 9일(수) 오전 6:30 양재 온유절제

안수집사, 순장, 여성리더십

4월 10일(목) 오후 7:30 서빙고 비전홀, 양재

온유절제

ACTS29 헌신 예배

4월 17일(목) 오후 7:30 서빙고 본당

외국인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은혜산부인과 (796-2003) / 남기민 집사

용산구 동부이촌1동 LG플라자2층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오후 4:00~6:00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을

각 순마다 연결선교사... 보안지역 확인해야 4월 중순 선물 보내야 어린이날 도착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행사가 2천선교본부 주관으로 열린다.

'어린이날 선물보내기'는 각 공동체가 자신과 연결된 미전도종족 및 선교지, 선교사 자녀를 위한 선물을 보내는 행사이다. 올해 강남 C, 서초C, 수원 세 공동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선교사와 순의 배

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선물은 실용적이며 부파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준비하고 항공소포 소요기간 1주일을 예상해 어린이날에 도착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보낸다. 선물을 고를 때 선교지 기후, 선교사 자녀의 성별, 연령을 고려하고 보안지역의 경우 가독교 관련 선물은 피해야 한다.

2천선교팀은 "어린이날 선물 보내기는 유, 초등부 자녀(1991년 이전 생)를 둔 선교사에 국한했으나 선교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차

원에서 모든 선교사에게 선물을 보내주면 좋을 것"이라며 "특히 전쟁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연결 선교사주소 6,7면〉

- 문의: 황민식 간사 (733-9836교209)
- *선물 종류: 의류, 어린이 스포츠 용품(운동복 등), 화장품, 어린이 잡지, 신앙서적, 문구류, 영양제, 컴퓨터 S/W,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라면, 피자류, 사랑류 등.
- *선물구입 사이트 안내 두란노 물 - <http://www.duranomall.com>

어린이 전문 쇼핑 - <http://www.toyandbaby.com>
어린이 도서, CD, 비디오 관련 - <http://www.booktoy.com>

*보안지역 유의사항
보안지역으로 보낼 선물은 모두 선교단체로 보낸다. 보안지역의 선교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선교사 → 선생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등)

*보안지역: 공산권(중국, 모슬렘(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타르, 투르크메니스탄, 보스니아, 터키, 예멘, 요르단, 사우디, 파키스탄 등 중동 전지역), 기타 힌두, 불교권(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등)

온누리마선 "인도예배 시작"

인도예배가 이번 주일(6일)부터 매주일 오후 2시30분 서빙고 선교관 302호에서 열린다. 트리니티 인도인 신학생 5명을 포함한 인도인 2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트리니티 신학생인 아치트 목사(MOIRANGTHEM, AJIT SINGH, 목회학)가 말씀을 전한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던 미얀마예배는 근포 하나로로 이 전해 지난 3월 30일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전성희 shee@onnuri.or.kr

무릎선교사 연합 기도모임

2천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의 모든 '무릎선교사'를 초청해 함께 기도하는 '무릎선교사 연합기도모임'을 오는 4월 15일(화) 오후 7시 서빙고 한동홀에서 연다. 강사는 이재환 선교사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온누리라파 "의료 상담 시작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주일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온누리라파가 온누리성도를 위한 의료상담을 4월 6일(주일)부터 시작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며, 내과는 매주일, 이비인후과와 치과는 첫째·셋째 주일,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는

매달 첫째 주일 오후 4시~6시 선교관 지하 1층 로템의 집(상대실)에서 진료한다.

한편, 온누리라파에서는 진료와 상담으로 봉사할 의료진, 특히 치과의사, 치과 종사자를 모집한다.

• 문의: 박상호 총무(2245-7260)
/전성희 shee@onnuri.or.kr

1만 사역자 파송

오늘 서빙고 2부 예배시 이영우·고인선 부부가 1만사역자(해외사역자)로 파송된다.

이영우·고인선 / 캐나다

◆ 기도제목 ◆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기록해지도록.



이영우



고인선

- 그곳에서 주어지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 두 자녀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그곳에서의 건강, 학업 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임·교육

FACTS 29 리더십 설명회 및 헌신예배

장로 권사 4월 8일(화) 오후 7:00 서빙고 비전홀

사역팀장 4월 9일(수) 오전 6:30 양재 온유절제

인수집사, 순장, 여성리더십 4월 10일(목) 오후 7:00 서빙고 비전홀, 양재 온유절제

ACTS29 헌신 예배 4월 17일(목) 오후 7:30 서빙고 본당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 4월 21일(월) 오후 7:00 선교관 지하1층기도실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인도를 위한 중보기도(인디오) 4월 10일(목) 오후 7:30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김베드로 (796-5615, 019-240-9224)

이촌공통체: 김창욱 전도사 - 우즈벡 카라칼파크

순 선교사 자녀현황 사역지
 이촌 1,22,23순 배시문/김로자 중앙아
 SCOUN-HO,BAE FOK CULTURE CENTER C.P.O.BOX 2013
 BISHKEK 720000 KYRGYZSTAN
 이촌 2,11,6순 김영민/박화진 송리,미소(남93,여96) 중앙아
 한국인터서브
 이촌 3,5,18순 최연숙 중앙아
 YWAM 본부
 이촌 4,10,21순 강용원/정주자 미국
 P.O.Box 385 Orangeburg, NY 10962 U.S.A
 이촌 6,12,24순 류다영/송나나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촌 7,13순 아야코루다 다윗(남91) 중앙아
 한국인터서브
 이촌 8,14순 서광/양혜원 유진(남98) 중앙아
 인터컴
 이촌 9,19,20순 이찬우/송용희 재형,윤정(남91,여92) 중앙아
 Lee Chan Woo 1564 North Allen Ave. Pasadena, CA 91104 USA
 이촌 15,17순 남진성/이혜숙 성은(여91) 미국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동원빌라 203호 (전화:02-309-4048)

한강 공통체: 송대현 전도사 - 일본 오사카

사랑 1,2순 권순일/다케다카미코 영송,영수
 (남94,97)
 서울 동작구 흑석1동 152-1 개나리102호
 사랑 3,4순 김은영 일본
 201, ASUTARIKUMARUYAMA (B) 2-11 MINAMI 3 ZYOU NISI 25
 CYONUMECYUOKU,SAPPORO,HOKKAIDO,JAPAN064-0803
 사랑 5~7순 김정길/조호숙 일본
 2419-2 YAMAGUCHI TOKOROZAWA S-ITAMA JAPAN
 소망 1,2순 민명홍 일본
 GMTC
 소망 3~5순 천창길/황미혜 일본
 FUKUOKA-ken KATSUBASHI KATSUBARUKITAMACHI 3-50
 #12 MARUFUZI B/D3F FUKUOKA CNNURI Church
 소망 6,7순 정지문/김은옥 오영애 일본
 B-1 Townhouse Ko Yama, 4-5-20 Edaminami Tsuzuki Ku,
 Yokohama 224-0007 Japan
 화평 1,2순 도문갑/황영애 일본
 GMP
 화평 3,4순 조슬희 일본
 #201 Maruberi Haitusu, Kita 2Jo, Nishi 13 chome, 1-50, Chuo-
 Ku, SAPPORO, 060-0002 JAPAN
 화평 5,6순 이은혜 중동
 YWAM

강촌공통체: 김홍민 목사 - 러시아 모스크바

양선 1~4순 김낙웅/조길순 러시아
 Nokolchermuskinskaya Bldg23, House 255 Moscow, Russia
 은유 1,2순 김성찬/김주향 여진,여은(여94,94,97) 동북아
 인터컴
 은유 3~5,홍성 1순 이훈/이향선 캐나다
 BOX 106 DOMAIN MANTOBA ROG 0M0 CANADA 144
 홍성 2,3순 전영수/장현미 러시아
 52-28, ROSSKAYASTI, VLADIVOSTOK, RUSSIA, BCN YOUNGSCO
 홍성 4,5,평강 1순 제미정 영국
 (471-742)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주공 1단지 108-1403 / 전화: 031-
 551-1303
 평강 2~4순 주홍중/최경숙 향안,영우,주영(남91,93,97) 한국
 (132-762)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A 8동 106호 / 전화: 955-
 7894

중동공통체: 이상준 전도사 - 미얀마 인타족

종로 1순 아망 미얀마
 COUNP Hing Fishery Department Myangshwe S Shant State Myanmar
 종로 2,3,7순 최다나엘/김택 캐나다
 315 Woodland Acres Cres, Maple Ontario Canada L6A 1G1
 종로 4,5,8순 김미향 중동
 중동선교회
 종로 6,중환남 1순 백인숙 한국
 GMTC
 중환남 2,3순 변희숙 한국
 WBC 국제선교회
 중환남 4~7순 이대경/박현신 예배,경배(여93,남97) 캐나다
 #115 TOWNHOUSE APARTMENT ST. ANDREWS HALL, 6040
 IONA DRIVE VANCOUVER, BC V6T 2E8 CANADA
 중환남 8,9순 정철화/조경자 GBT 파푸아뉴기니
 P.O. BOX 24, SIL, UKERUMPA, EHP444 PAPUA NEW GUINEA

용산 공통체: 송경부 목사 - C국 A시

용산 1~3,7,22순 김서로/윤우로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4~8순 김스데반/린 하일(남98)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9~2순 성다윗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13,14,18,19순 유진광/신승선 주찬(남94) 동북아
 HOPE
 용산 15~17,20,21순 최상운/허윤정 주은,주영,경찬(여96,남90)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성통광진 공통체: 여성민 목사 - C국 B시

성통 1~3순 김순중/송지수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성통 4~6순 소현수/박호경 동북아
 (423-800)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5-28번지 광복교회 4층 / 전화:
 2066-5585
 성통 7~9순 강성철/최은희 평강,혜성(남93,96) 한국
 HOPE
 성통 10~12순 아리문초/박영희 다나엘(남87) 홍콩
 ARIE, YUNG HEE, DANIEL MUNTZ HROC, 102 SHATIN TAU
 VILLAGE, SHATING, NT, HONG KONG S.A.R
 성통 13~15순 이광호/오정미 성욱,은진(남96,여98) 홍콩
 Timothy & Ruth Lee-Room Rm. 702-705, Cum Yan Centre, No.3
 Jupiter St, North Point, HK
 광진 1,2,11,12순 조문삼/김정년 싱가포르

10 Gilestead Rd, Beulah House #02-10 Singapore 309064
 광진 3~5,17순 신광기/민예스터 동화(남96) 동북아
 GBT
 광진 6~8,15,16순 박인숙 동북아
 인터컴
 광진 9,10,13,14순 김중/김란 동북아
 (122-943)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06-9

홍대문남양주 공통체: 이대영 전도사 - 터키 투르크족

동대문 1~3순 김진영/임은경 소아시아
 2000 선교
 동대문 4~6순, 과학현순 김다나엘/이한나 소아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중환 1~1~4순 강에스터 터어키
 YWAM
 중환 2-1,~4순 최연호/김명옥 남아공
 Standard Bank 36 Adderley Street Worcester 6850 South Africa
 구리 1,마리아 5순 무함말/김두스 소아시아
 은누리 미션
 구리 23,남양주 1순 심하일/정진주 소아시아
 YWAM
 남양주 3~6순 이서랑/김은혜 석은(남97) 소아시아
 YWAM
 마리아 1~4순 정이래 소아시아
 (158-074)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81-122층 TTM 본부 / 전화: 695-1451
 마리아 6~8순 황다모테/송애나 다빈,시영(남93,96) 소아시아
 인터컴

노원외정부 공통체: 최성일 목사 - 인도네시아

월계 1~4순 김요한/맹드브라 하경,하예(여96,96) 인도네시아
 Jl. Rungkut Asti/Lor IV RL/D/No.16 Surabaya 60283 Indonesia
 공통 1순,성계 2순 김연수/최애숙 진영(여96) 인도네시아
 GBT
 공통 2,3순 이경화 인도네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하계 1~3순 이우림/김조은 인도네시아
 JI. BAGUSRANGIN NO 5 BANDUNG 40132 INDONESIA
 중계 1~3,노혜순 손창남/안은숙 인도네시아
 OMF
 노원 2,성계 1,3순 김의정/박연화 송민(남91) 인도네시아
 GBT
 성계 4,5,평강 1순 서재춘/이선희 종민(남90) 인도네시아
 P.O BOX 1332 BANDUNG 40013 INDONESIA
 의정부 2~5순 박관구/안은숙 인도네시아
 JAKARTA ANTOCH INT'L COMMUNITY-JALAN PERMATA HIJAN RAYA

BLOK S KAV 4&5 GROGOL, JI.ARA JAKARTA SALATAN, INDONESIA

성북 공통체: 백성욱 전도사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족

강북 1,성북 7순 고여호수/유한나 중앙아
 인터컴
 강북 2,3,성북 1,5순 안신기/김동연 창준,세영(남94,여96)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북 2,도봉 4,6순 최현우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북 3,도봉 3순 강요한/유마리아 혜진,원석(여91,남92) 중앙아
 인터컴
 성북 4,도봉 7순 정하진 중앙아
 POSTFACH 218 ATTN: HWANSOCK, JUNG BESHARBU, CH-6860 HUTTWIL, SWITZERLAND
 성북 6,도봉 5순 박상호/최미옥 유린,소원(남90,여92) 중앙아
 인터컴
 성북 8순 최연호/김명옥 남아공
 Standard Bank 36 Adderley Street Worcester 6850 South Africa
 성북 9,도봉 1,2순 김스데반/조희 하린,하원(여98,02) 중앙아
 인터컴
 성북 10,11,도봉 8순 이정열/이미경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서빙고 공통체: 김광복 목사 - 인도네시아 팔공족

은유 1,2순 이석희/박혜숙 보배(여92) 인도네시아
 Komplek Buca Permis JL. Merbuk Blok 1/20 Clubur Jakarta-Timur Indonesia 13720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유 3,4순 김종만/황심실 주영(여93) 인도네시아
 P.O. BOX 1332, YWAM, Bandung 40013, INDONESIA
 은유 5~8순 김순기/이문수 뉴질랜드
 144 HUTCHINSON RD HOWICK AUCKLAND N.Z.
 은유 9,은혜 1,2순 박재희 한국
 GMP
 은혜 3~5순 양미희 인도네시아
 P.O. BOX 1332 BANDUNG 40013 INDONESIA
 은혜 6~8순 유은영 인도네시아
 Eunice Eun-Young Yoo(SBS) Schulen fur Jungerschaft Dort303
 3226 wiler bei sodorf/SWITZERLAND
 은혜 9,화평 1,2순 임연심 인도네시아
 GBT
 화평 3~5순 정현/정미용 정택,영(20010217) 인도네시아
 (135-60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3호 한나선교회 본부 / 전화: 515-6836
 화평 6~8순 전광호/김혜란 인도네시아
 Jl. Rungkut Mapan Barat Al.No.11, Surabaya 60283, Indonesia

영등포구공통체: 최현준 목사 - 멕시코 미해족

구로 1~5순 김선광/구자현 멕시코
 RIO GUADALUPE #103, FRACC. LOS SAUCES OAXACA, OAXACA CP 68010 Mexico
 구로 6~10순 김수선 나카리구아
 35 Station Road, Padtham, Burnley, Lancs, BB12, 8EP, England
 영등포 1~4순 박성민/정희진 세영(여97) 에콰도르
 CASILLA 17-17-752 C.E.Q. QUITO ECUADOR
 영등포 5~8순 박은용/김연아 브라질
 25M 선교센터, Rua Joas Paulo 874/22, Rm. Petró, São Paulo, SP Brasil CEP 01120-001
 영등포 9~13순 김성태/이성자 중국 천진
 두란노해외선교회

여의도 공통체: 전병택 목사 - 몽골

여의도 1~4순 이옥연/김정숙 도미니카
 Lee Apartado Postal #225 San Francisco de Macoris Dominioana Rep
 여의도 5~7순 마키토/이종은 후쿠자와시은,호신,서남(남96,98) 네팔
 Makto and Chong-un Fukuzawa P.O. BOX 8975 EFC 1623 Kathmandu, Nepal
 여의도 8,9순 심재욱/장선애 파푸아뉴기니
 Mr. & Mrs. Jae Wook Shim / Box 252, SIL, Ukarumpa EHP 445 PNG
 여의도 10~12순 정민영/이재진 한국
 Mr. & Mrs. Min Young Jung / 6612 Mountain Cedar Lane Dallas, TX 75235
 USA / 전화: 1-972-283-4939
 여의도 13,14순 권애진 싱가포르
 Singapore Post Centre Post Office, P.O. Box 447, Singapore 914015 /
 전화: 796-9700
 여의도 15~18순 하남석 미국
 11820 S.W. 7th St. Beaverton, OR, 97006, USA (전화: 1-503-626-8807)

동적A 공통체: 박인용 목사 - 중국 하니족

말씀 1~4순 한소망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씀 5~8순 이보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씀 9~11(사랑 6순) 심영애 동북아
 경배와 찬양
 사랑 1~4순 한다나엘/정진화 평호영호(서울96,96,00)여과 동북아
 경배와 찬양
 사랑 5,7,8,12순 정진숙 싱가포르
 YWAM GEYLANG P.O. BOX 25 SINGAPORE 913801
 소망 3,4순 정재순/홍정옥 예주(여남92,96) 미국
 JeSoo & JungOk Chung / SIL P.O.Box 217, Ukarumpa EHP444, Papua New Guinea
 소망 5순 김소영 영국
 경배와 찬양

동적B 공통체: 박철용 목사 - C국 D시

인애 1~4순 김천준/김지혜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인애 5,6,8,11,12순 최선호/김용호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인애 7,8,11,14순 이주복/김신애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부평2~5순 김사람 소아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부평6,7,11,12순 이빛 소아시아
 인터콥
 부평8~10,12순 김동훈/김현심 요섭,요한(남93,00) 소아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인천 3~5순 손승택/윤영아 희원(여98) 싱가포르
 경배와 찬양
 인천 6,7순 김은혜 영국
 22d Howards Road Plaistow London E13 8AY, ENGLAND

일산 공통체: 김홍주 목사 - 케냐 스와힐리족

말씀 1~4순 김완영/홍미숙 케냐
 P.O. BOX, 1261 MALINDI KENYA AFRICA
 말씀 5~7순 쿤하림 중동
 (143-19)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482-5 마릿동 교회 6층 중동선교회 본부 / 전화: 3436-3348
 말씀 8~10, 사랑 1순 나오미 중앙아 Naomi Park / H.O Professionals International Postanski Fah 249 72102, Zaria Bosnia and Herzegovina
 사랑 2~4순 엄기정/이해정 지호,지현(남98,99) 중동
 (463-81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5 현대빌딩 5층 OM / 전화: 031-713-5775
 사랑 5,6순 오한나 한국
 경배와 찬양
 사랑 8, 사랑 12순 이동원/문귀향 지비티 튀니지아

GBT
 홍제 1~4순 이아브리함/유시라 뉴질랜드
 30 White Heron Drive Royal Heights Auckland New Zealand
 홍제 5,6순 이반석/최순덕 모잠비크
 C.P. BOX 1303 RENEWAL, MISSION MAI UTU, MOZAMBIQUE

양천 공통체: 이양목 목사 - 이스라엘

말씀 1~4순, 은유 4순 류무세/강주희 찬영, 현지(남96,99) 이스라엘
 두란노해외선교회
 말씀 5,6, 사랑 12, 은유 6순 안드레/서석남 성원(남95) 이스라엘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3~6순, 은유 5순 오세동/정선희 영은(여00) 이스라엘
 두란노해외선교회
 소망 1~4순 Keith Intrater 이스라엘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35-135 영진빌딩 302호 KIBI / 전화: 792-7075
 사랑 5, 여생애 은유 1~3순 임봉추 중동
 (130-032)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6 JOY 선교회 / 전화: 929-3652-4

강서김포 공통체: 한상원 목사 - 몽골 브리아트족

셋말 1~4순, 김포 1,2순 강내현/김조편 산길(남98) 몽골
 Kang Barnabas P.O. BOX 355 070,000 DOPHOD MONGOLIA
 셋말 5~7순, 김포5순 이철희/원은복 옥현선용, 해인(남93,96,98) 미국
 16124 Rosecrans Ave, Apt #D9 La Mirada CA 90638
 셋말 8~10순, 김포3순 한샘물 몽골
 Bright Future School P.O Box 305 Ulan Bataar 38 Mongolia
 셋말 11, 사랑 1,2,3,4순 이창욱 몽골
 (137-806) 서울 서초 반포4동 108-5 반포맨션 101호 총회세계선교부 / 전화: 593-0479
 여생애 은혜 1,2순, 김포6순 박경수/황미우 아람사루, 아람(여96,97,98) 미국
 Abe Park or Kyungsoo Park 75-5851 kuakini hwy #296 kailua kona HI 96740 U.S.A
 은혜 3,4순 오석환/제니오 미국
 13444 Moore Street Cerritos, CA 90703 USA
 은혜 5-8순 오연수 미국
 YWAM

열린 공통체: 이재훈 목사 - 일본 동경/우에다

드라마 무대지원 밴드순 장재윤/오공자 일본
 東京都 新宿区 山手町 3-25 2F 東京オンニ ビジネス 教会
 브뤼셀 김포 2순 장재윤/오공자 일본
 東京都 新宿区 山手町 3-25 2F 東京オンニ ビジネス 教会
 풀은친구들 지원, 홍보순 이명순 스웨덴
 RESTENAS 32200 45963 LJUNGSKILE YWAM, SWEDEN

가정사역 공통체: 공진수 목사 - 일본 아미모/후쿠오카

가정MB 1~7, 말씀 1~5순 김철희/최지형 일본
 YACHIO JUO CHRIST CHURCH AMAND BLDG, 2,3FL, 2237-16 kayada yachyo-shi chiba-ken Japan
 사랑 1~5, 소망 1~5순 천창길/황미혜 일본
 FUKUOKA-ken KATSUBASHI KATSUBARUKITAMACHI 3-50 3rd MARUFUZI B/D3P FUKUOKA ONNURI Church

- ◆ 한국인터서브 본부: (110-76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7가 89-27 피어선빌딩 1009호 / 전화: 725-6005-6 이현정 간사
 - ◆ YWAM 본부: (051-858)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1-343층 / 전화: 873-41921
 - ◆ 두란노해외선교회: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 전화: 794-1064
 - ◆ 인터콥본부: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빌딩 3층 / 전화: 796-3541 1#
 - ◆ GMT본부: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 전화: 2649-3197 백인숙 간사
 - ◆ GMP: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62-5 / 전화: 031-419-6792
 - ◆ WBC 국제선교회: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승진빌딩 4층 / 전화: 529-4552
 - ◆ HOPF본부: (135-610) 서울시 강남구 우정국 사서함 1052호 / 전화: 533-6057 전연주 간사
 - ◆ GBT: (425-824)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62-5호 / 전화: 031-418-5324
 - ◆ OMF본부: (143-203)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596-6 삼진빌딩 501호 / 전화: 455-0261
 - ◆ 경배와 찬양 본부: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가산빌딩 / 전화: 796-9700
- ※ 양재 소속 공동체(감남, 서초, 강동송파, 성남분당, 과천시원, 안양안산) 순연결 선교사 주소는 다음주 누리신문에 게재합니다.

어린이 축복합니다

양선 3~6순 우동환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양선 7,8,11,14순 이영란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관악권 공통체: 이기원 목사 - 캄보디아

관악 1~3순 심원희 캄보디아
 경배와 찬양
 관악 4~6순 정석현/신병연 태국
 Rev. Seok Cheon, Jung P.O. Box 1144 Ramkamheang Bangkok 10241 Thailand
 관악 7~9순 장성근 필리핀
 YWAM P.O. BOX 252 BAGUIO CITY 2600, PHILIPPINES
 관악 10~12순 박성화/박종운 미국
 1306 MILL CREEK BLVD, N202 MILL CREEK, WA 98012 USA
 관악 13~15순 보니 랜 블레이크 캄보디아
 C/O BRIAN MAHES PO BOX 2178 PHNOM PENH CAMBODIA
 관악 16~19순 양영희/한경신 한국
 (051-01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1 빌라온선교회 본부 / 전화: 879-1192
 관악 20~22순 권능/오성령 인애, 경영(여96, 남 97) 몽골
 Dean of Academic & Student Affairs Director of Biosci. & Food Res. Center Mongol International University (MIU)
 관악 23~26순 김정희 인도
 두란노해외선교회
 금천 1~4순 이영룡 국진, 성진(남91,95) 캄보디아
 P.O BOX 38 PHNOM PENH CAMBODIA
 금천 5~8순 정운길/허정옥 미국
 Rev. Un Kil Jung 2270 Hessel Rd, #107 Hoffman Estates, IL 60196 U.S.A

광명인현 공통체: 신기섭 전도사 - 터키 쿠르드족

광명 1~4순 김순종/천사랑 단비, 해나(여92,93) 소아시아
 인터콥
 광명 5~8순 장리브가 소아시아
 WBC
 광명 9,10, 부천 1순 손충성/송이레 수아, 수빈(여98,02) 소아시아
 인터콥
 부천 2~4순 김마가/송두리 중앙아
 (137-042)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주공2단지 215동 104호 (전화: 019-661-0907)
 부천 5~8순 박성현/정혜경 다니엘, 메루(남94,02) 미국
 Seong Hyun Park 88 Hammond St, #1 Cambridge, MA 02138 USA
 부천 9,10, 부평 1순 채시라 소아시아
 인터콥
 부평 11~6순 김현수/홍성애 도연, 소정, 유진(여96,98,01) 소아시아
 WBC

고양권 공통체: 이형식 목사 - C국 E시

고양 1~1~6순 임창대/박인나 동북아
 (135-220) 서울 강남구 수서동 750-1 남서울 은혜교회 내 원동문화회 발기부 / 전화: 445-0390
 고양 2~1~4순 김광희/안경심 은혜(여00)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고양 2-5~8순 이재환/선우순애 미국
 (137-846)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900-1 목화빌딩 3층 Come Mission Korea / 전화: 585-0697
 은평 1~1~6순 김한나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영 1-7,2,2,2,2,4~6순 이요한/김은주 양선(남96) 영국
 Regents English Language Centre London Road, Nantwich, Cheshire, England CW5 6LW John Lee (Ki-Hoon)
 은평 2-7~1순 위진경 동북아
 경배와 찬양

마포 공통체: 김봉원 목사 - 중국 위구르족

마포 1~3,8순 이베드로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마포 4~6순 김미선 영국
 경배와 찬양
 마포 7,9,10,12순 배광숙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마가 3~5순 윤경숙 동북아
 경배와 찬양
 마가 6,7순 이빛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서대문 공통체: 손신국 목사 - 모잠비크

충정 1~4순 고진우/혜현 진우(남00)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충정 5,6순 정보인 영국
 경배와 찬양
 연희 1~3순 오대원/엘렌 미국
 David and Ellen Ross 1371 Cascadian Way Everett, Wa 98208 USA
 연희 4,5순 이상우/김영미 하람, 여람(남90,96) 중앙아

01

온누리가 이어가는 Acts 29

헌신예배 - 4월 17일 오후 7:30 서빙고 본당 하용조 목사 메시지 비디오테이프 배포

“온누리교회가 시작되지 18년이 됐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입니다. 건강한 30개 비전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2천/1만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빙고와 양재에서 열린 'ACTS 29' 설명회에 참석한 온누리 리더들은 하용조 목사가 선포한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했다.

이번 설명회는 > 하용조 목사 메시지, > 약속의 땅 매각 회계보고, > 30개 비전교회 현황, > 질의 응답, > 기도회 순으로 진행했다. 30개 비전교회의 첫 모델인

부천온누리교회 담당 신기섭 전도사, 박형민 집사, 강경희 집사는 이 설명회에서 “온누리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함께 부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동현 집사(여의도 5순)는 “이번 설명회가 'ACTS 29'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듣고 나니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헌금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교인들도 있을 테고 형편이 어려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오늘 모임이 리더십 대상의 설명회였다면



큼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일형 집사(노원외곽부 중계 2순)는 “2천/1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헌금해야 한다고만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장로, 권사, 사역팀장, 안수집사, 순장, 여성리더십 등 온누리

리더들은 4월 17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ACTS 29'를 위한 헌신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작정한다.

한편, 'ACTS 29'를 각 순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10일 순예배를 위한 'ACTS 29' 하용조 목사 메시지 테이프를 배포했다. 수령하지 못한 순장은 서빙고 로비와 양재 사랑성전 로비에서 받으면 된다.

/ 서철 전성희 최윤경

02

2천선교 “선교헌금봉투는 주일 헌금함에”

2천선교팀은 선교헌금봉투 분실을 막기 위해 선교헌금을 반드시 주일 예배 때 헌금함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헌금이 든 선교헌금봉투를 로비 봉투꽂이에 넣어 도난당하는 일이 있다”며 “2주가 지나도 봉투꽂이에 헌금봉투가 돌아오지 않는 성도는 2천선교팀에 문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김효람 간사
(793-9686, 교 230)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어린이날 선물 보내기

2천선교팀과 온누리 공동체는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보내자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선물을 받는 대상은 유·초등부 자녀(1991년 이후생)를 둔 선교사로 한정했으나, 선교지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2천선교팀은 모든 선교사에게 선물을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의: 황민식 간사
(793-9686, 교 208)
<순연결 선교사주소 14면>
/전성희 shee@onnuri.or.kr

05

선교사 파송식

2천 선교사 파송식이 오늘 양재 2부 예배(오전 9시)와 서빙고 3부 예배(오전 11시 30분)시 있다. <기도제목 2면>

03

‘아프가니스탄과 생명을 나눈다’

TIM • 2천선교팀 의료사역, 중보기도, 이•미용 봉사자 모집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2천선교팀은 전쟁으로 황폐한 아프가

니스탄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동역자를 모집한다. 아프가니스탄 아웃리치팀은 5월 18일(주일)부터 26일(월)까지 8박 9일간 온누리교회가 후원하는 아

프간 농촌 마을과 카불 인근 난민촌에서 의료 사역을 중심으로 이•미용, 중보기도 사역을 한다. 신청은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마감은 5월 4일이다.

○사역분야: 의사(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등), 간호사, 약사, 치과위생사, 이•미용사, 중보기도자 등

○문의 및 접수: 두란노해외선교회 (794-1063)
/전성희 shee@onnuri.or.kr

2천 선교사 파송



이경화 선교사 - TIM / 인도네시아
 - 참된 예배자로 섬겨 예배자를 찾는 사람이 되도록
 - 영향력 있는 현지인 가정에 머물며 복음과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 언어공부에 진보가 있도록



김현수/홍성애- WEC / 소아시아
 - 자녀들이 문화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 영적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 가족구원과 건강을 위해

/전성희 shee@onnuri.or.kr

'세계를 품은 아이들' 개강예배

2천만 비전을 따라 어린이들을 선교교육으로 훈련하는 '세계를 품은 아이들' 이 지난 4월 12일 개강예배를 했다. 오후 4시 미전도 종족실에서 드린 개강예배에는 신입생 30명, 재훈련에 참석하는 졸업생 10명과 교사·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세계를 품은 아이들'로 커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세피아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함께 참가해 축가와 워십댄스로 후배들의 훈련을 축복했다.

/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기도 모임 탐방 / 강남B공동체 큐티나눔방

“태중에 아이를 품듯”

‘은골록족’ 발음하기도 까다로운 이 종족이 강남B공동체 큐티나눔방이 입양한 미전도종족이다. 이 종족을 입양하고 나서 그들을 알기 위한 정보를 찾는데 중국 오지에 있는 워낙 작은 소수 민족이라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 고생하기도 했다. 티벳 자치구에서 여러 종족 중 하나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종족은 이제 큐티 나눔방 식구들에게는 품 안의 자식이 되었다.

나눔방장 이유연 집사는 “처음엔 너무 생소했죠. 이런 종족도 있었나? 했더니 까요”라며 은골록족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를 회상한다.

중국 티벳 자치구에 살고 골록어라는 언어를 쓰며 인구 10만 명인 은골록족. 멀리 떨어진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듯 큐티 나눔방 식구들은 하루 두 번 그들의 품안 자식을 위해 무릎 꿇는다.

그러나 무릎 선교사로서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본 적도 없고 대답하는 목소리

도 없는데 계속 기도하는 것은 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 주일에 한번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은 서로에게 힘이 된다.

“공동체에서 항상 입양한 종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의무감으로 그냥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큐티방에서 기도하니 무척 가깝게 느껴져요. 그들을 만나고 싶어 찾아가기 위해 회비도 모으고 있지요.” 홍경희 집사는 말한다.

매주 큐티 나눔을 하기 전과 큐티 나눔을 끝내고 나서 은골록족을 위해 무릎선교사 지침서를 꺼내 순서에 따라서 기도한다. 현재 큐티나눔방에서는 은골록족 안에서 영적 지도자가 나오길,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의 닫힌 문이 열리길,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며 그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길, 그들



▲ 은골록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강남B 큐티나눔방원들.



고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골록어로 성경번역이 되길 중요 기도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다.

큐티나눔방 식구들은 오늘도 기도한다. “자식이 태중에 있듯이 은골록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생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 전성희 shee@onnuri.or.kr

선교사를 위한 기도

정석천/신병연 (후원-태국-국제기아대책기구-관악금천)

- 8월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한 본관 앞마당 공사와 조그마한 식당, 양호실, 교무실 등 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필요한 자원 확보와 후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 매주 17곳에서 이루어지는 토요 골목주일학교에 동참할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이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Ya Maung (현지인-미안마)

- 인타족을 위한 제1차(4/23-27, Taungyi), 제2차(5/5-17, Emmaus 침례교회) 훈련 모임을 위해

손충성/송이레(후원-소아시아-인터콕-광명인천)

- 파티교회 수련회, 인카운터집회, 제자삼기 세미나 등을 통해 파티교회와 새롭게 개척될 교회가 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서 같이 성장해가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무릎 선교사 연합기도모임'

2천선교팀은 은누리교회 전 무릎 선교사를 초청해 '무릎선교사 연합기도모임'을 연다.
 · 일시: 4월 15일(화) 오후 7시 서빙고한동홀
 · 강사: 이재환 선교사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을

강남A 공동체: 박종길 목사 - 말레이시아 이반족

순 선교사 자녀현황 사역지
 믿음 1~3, 사랑 5, 6순 위요한/요한나 말레이시아
 No. F-13, Menara Impian Jalan Sultan Taman Tar Ampang 68000, Selangor Malaysia
 믿음 4, 사랑 1순 찰스킴 미국
 525 E. SEASIDE WAY #704 LONG BEACH, CA 90802
 사랑 2~4, 7~9순 조중환/임미경 사라, 예림(여97, 03) 파푸아뉴기니 GBT
 소망 1, 2순 정규채/박정신 한국
 GMF
 소망 3, 4순 정상엽/황혜경 순지(여92) 한국
 OMF
 소망 5~7순 엄홍석/안재영 준형(남02) 싱가포르
 Singapore Post Centre Post Office, P.O. Box 447, Singapore 914015 / 전화: 65-6280-1550
 은유 5, 6순 김성순 네덜
 G.P.O. Box 10034 Kim Nepal (RCK)

강남B 공동체: 박달희 목사 - C국 C시

충성 1순 김사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충성 2~5순 김은혜 동북아
 WBC
 화락 1, 화평 4순 유진삼/윤미리 동북아
 HOPE
 화락 2~5순 김드보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화평 1~3순 유레베카 동북아
 경배와 찬양
 화평 5~9순 김선복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강남C 공동체: 신도배 목사

사랑 1, 2순 김드보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3순 김선복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4, 양선 3~5순 김사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5, 양선 1, 2순 김스타만/장한나 드보라, 마리아(여93, 96) 동북아
 GBT
 사랑 6순 유레베카 동북아
 경배와 찬양
 은유 1순 정상엽/황혜경 순지(여92) 한국
 OMF
 은유 2, 3순 엄홍석/안재영 준형(남02) 싱가포르
 Singapore Post Centre Post Office, P.O. Box 447, Singapore 914015 / 전화: 65-6280-1550
 은유 4순 김성순 네덜
 G.P.O. Box 10034 Kim Nepal (RCK)

서초A 공동체:곽성환 목사 - 스리랑카 베다족

나눔 1, 2, 6, 7, 배움 1순 박영근/추행란 주열, 신실(남91, 여94)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tte Ganemulla, Sri-Lanka
 나눔 3~5순 이승환/김은미 주은(여96)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tte Ganemulla, Sri-Lanka
 나눔 8순 이지형/김정희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tte Ganemulla, Sri-Lanka
 배움 2~4순 정용택/전순애 사랑, 바니, 바울(여92, 96, 94) 스리랑카
 490-1A, HAVELOCK RD, COLOMBO 6, SRI LANKA
 배움 5~8순 레베카 스리랑카
 39, Anura MW, Anderson Rd, Dehiwela, Sri Lanka
 은혜 1~4순 김길환/이은하 주은(여01) 인도

서초B 공동체: 박형준 목사 - 스리랑카

서초 11~14, 34~36순 도옥환/이경희 은송(여91) 미국
 1594, North Allen Ave. Apt #5 Pasadena, CA, 91104 USA
 서초 15, 16순 조운정 스위스
 YWAM
 서초 17, 37순 민성기/최운숙 주희(여95)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tte Ganemulla, Sri-Lanka
 서초 21~24, 41~44순 이상우/박선희 인도
 No. 429, 3rd Cross, 4th Block, 1st Stage, HBR Layout, Bangalore 560043 INDIA
 서초 25~27, 46순 김교신 한국
 (403-827)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16-1 안다옥 선교회 / 전화: 032-512-4746
 서초 31~33, 47, 48순 이정미/지우기 데이빗(남92) 인도
 #422 7 th A main, 1st block, HRBR Layout Kaliyanagar, Bangalore-43, INDIA

서초C 공동체: 김명배 전도사

은혜 1~3순 김길환/이은하 주은(여01) 인도
 두란노해외선교회
 드림 1, 7~9순 이승환/김은미 주은(여96)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tte Ganemulla, Sri-Lanka
 드림 2~5, 10순 박일규/신인순 지영(여94)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tte Ganemulla, Sri-Lanka
 드림 6순 박영근/추행란 주열, 신실(남91, 여94)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tte Ganemulla, Sri-Lanka
 섬김 1, 2, 7순 강에스터 한국
 (339-835)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2구 113번지 / 전화: 011-759-1039
 섬김 3~6순 이지형/김정희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tte Ganemulla, Sri-Lanka

김홍순과 공동체: 나봉근 전도사 - C국E시

강동희라1, 2순 김종선/정애리 성민(남00) 일본
 東京都 新宿区 北新宿 4-30-2 東京基督教會 日本
 강동희라 3, 7, 화평 4순 김신순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미리아1~3순 최혜양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화평 1~3순 배승일/박은영 하영, 하린(여94, 97)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양선 1~4순 이수구/김숙일 일본
 26-1, Kita 4jo Nishi 11 chome CHUUKU SAPPORO, JAPAN
 송파충성 1, 2순 이명숙 일본
 902.1-18-16, EBISU SHIBUYAKU TOKYO, JAPAN
 송파충성 3~7순 허정란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1, 2순 김안신 일본
 3-33-9-101 EHARACHONAKANOKU TOKYO, JAPAN 165-0023
 사랑 3~6순 김옥희 일본
 4-28-16, DAISAN, KANEKO 102 AYASE ATACHIKU TOKYO 120-0005 JAPAN

성남분당 공동체: 유선식 목사 -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분당 1~3순, 16순 강일영/고영주 인성, 소망(여01, 남03)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분당 4~6, 14, 15순 박성근/김인옥 멕시코
 Sung Keun Park APTD 2-30, Puebla, Pue. C.P 72131 Mexico
 분당 7, 8순 신기숙 사무엘, 수지(남99, 여00) 미국
 739 NE 90th D07 Portland, OR, 97220, USA
 분당 9~11순 유영춘 스웨덴
 YWAM
 분당 12, 13, 생년 1, 2순 홍은선 미국
 Miss Sunny Hong/ WYCLIFFE BIBLE TRANSLATORS Korean Relations office P.O. BOX 628300 Orlando FL 32862-8200, USA
 마리아, 평택, 용인 1순 최보인/천정옥 천희애, 하영(남91, 98, 여94) 한국
 GMP
 광주 1순 최승민/배원실 나이지리아

PMB 2009, Jos, Plateau State Nigeria
 용인 2, 3순 최광규/주선자 도미니카
 Kwang Kyu, Choi / APARTADO POSTAL 25114 EMBAJADOR SANTO DOMINGO, REPUBLICA DOMINICANA
 용인 4~6순 이철영/이순영 요셉, 수연(남92, 여97) 도미니카
 4680 NW74th Ave., #37709 MIAMI, FL, Republica Dominicana 33166-6447

과천수원 공동체: 강철희 목사 -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과천A1~3순, 과천B6순 오하늘/김소영 시은(여02) 중앙아
 인터넷
 과천A4~6순, 과천B7순 김요엘/이모임 중앙아
 인터넷
 과천A7순, 과천B1, 2순 안다옥 중앙아
 인터넷
 과천B 3~5순 윤영숙 캐나다
 706 Reggie Court, Spring Lake, NC 28390-3026, USA
 과천B8순, 의왕1~3순 김선숙 중앙아
 인터넷
 과천B 9순, 의왕 4, 5순 장미정 남아공
 29 Rosaville Rd, Fulham, London SW6 7BN U.K.
 과천B10순, 수원B 4, 5순 손은정 폴란드
 두란노해외선교회
 수원A 1~3순 이수만/오미경 중앙아
 GBT
 수원A4순, 수원B1~3순 이철우/김민경 상옥(남93) 필리핀
 KTS, P.O. BOX 80842, Davao City, 8000, PHILIPPINES

안산안산 공동체: 안광국 목사 - 방글라데시

서평촌 1~5순 박영환/윤미리 송(여98) 방글라데시
 PO BOX 6066 Gulshan Dhaka Bangladesh
 서평촌 6, 신촌 1~3순 한유민/강영희 방글라데시
 H-459 R-B, DOHS BARIDHARA DHAKA BANGLADESH 1206 HAN YOU-MIN
 신촌 4~8순 강철주/백신애 한국
 (605-812)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82-1
 안산 1, 2순 박무열/이현영 방글라데시
 HN5, RN1, Sector 6, Uttara, Dhaka
 안산 3, 4순 홍영순/김숙경 선교, 의복 천희애(남94, 96) 일본
 GMP
 동평촌 1, 2순 한정국/이경애 한국
 (138-20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7-3 UPMA 본부 / 전화: 402-4967
 동평촌 3, 4순 김남수/이덕신 파푸아뉴기니
 Mr. & Mrs. Nam-Soo Kim / Box 18, SIL, Ukarumpa EHP 444 Papua, New Guinea
 동평촌 5, 6순 박무열/이현영 중흥, 주영(남96, 01) 방글라데시
 HN5, RN1, Sector 6, Uttara, Dhaka

- ◆ 한국인터넷서본부: (110-76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1009호 / 전화: 725-6065-6 이현정 간사
- ◆ YWAM 본부: (051-658)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1-34 3층 / 전화: 873-41921
- ◆ 두란노해외선교회: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 전화: 794-1064
- ◆ 인터넷본부: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89-5번지 유한빌딩 3층 / 전화: 796-3541 1#
- ◆ GMT본부: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 전화: 2649-3197 백인숙 간사
- ◆ GMP: (425-600) 경기도 안산시 시2동 1362-5 / 전화: 031-419-6792
- ◆ WBC 국제선교회: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승진빌딩 4층 / 전화: 529-4552
- ◆ HOPE본부: (135-61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52호 / 전화: 533-6067 전연주 간사
- ◆ GBT: (425-824) 경기도 안산시 시2동 1362-5호 / 전화: 031-418-5324
- ◆ OMF본부: (143-203)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596-6 삼진빌딩 501호 / 전화: 455-0261
- ◆ 경배와 찬양 본부: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 전화: 796-9700

*

 **2000선교**

선교사 훈련학교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
 * 후반기 - 6월 23일~7월 19일(4주)
 접수 마감: 6월 16일
 * 지원 자격: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고
 헌신한 사람으로서 2년 정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며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 분야: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피아노 교
 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양육, 노동,
 컴퓨터분야 등)
 전체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www.owmc.or.kr(온라인등록가능)
 접수: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 (SAM)
 4월21일(월) 오후 7:00선교관 지하1층기도실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풍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mom.com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온누리미션
네팔 예배
 매월 셋째 주일 함께 전도하실 분(수원, 인천, 안산 등 공단지역)

여호와의파 자원봉사자 모집
 매주일 외국인 자체들을 지하1층 치료실까지 안내하실 분

온누리라파 의료사역 자원봉사자 모집
 시간: 한 달에 한번 주일 오후 4:00~6:00
 모집분야: 치과의사, 취위생사 등 치과관련
 봉사자
 문의: 박상호 총무(2245-7260)

운전 봉사자 모집
 매주일 오전 12:30~오후 2:00 김포 서를 (1종
 보통)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793-
 9686 교 514)

외국인 근로자대상 척추건강 카이로프랙틱
 매월 둘째, 넷째 주 오후 4:00~6:00 신동아소
 편 2층(온누리교회 앞)
 전화: 김신영 집사(794-6097)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
 주일학교 교육과 선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교
 사 또는 봉사자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3:00~6:30
 문의: 양승순 전도사(016-756-7458)
 06gmtc@hanmail.net

2003년 해외선교한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
 (교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모임**

ACTS29 헌신 예배
 4월 17일(목) 오후 7:30 서빙고 본당

 **모집**

선교헌금 전화 아르바이트 모집
 인원: 2명 (서배)
 기간: 4월16일~19일 오전 9:30~오후 5:00
 문의: 김효람간사 (793-9686 교 230)

일본어예배 탁아 봉사자
 주일 3부 (오전 11:30) 예배 시간에 일본 어린
 이 탁아를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일본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문의: 황혜경간사 (793-9686 교702, 016-
 9302-1346)

01

ACTS29 헌신예배

“이제는 섬기고 나눠야 합니다”

하목사, '기도와 헌신으로 사도행전 이어갈 것' 당부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목사, 선교사,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력, 재력,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서빙고 본당에서 가진 'ACTS29' 헌신예배에서 하용

조 목사는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생산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순장, 팀장, 여성 리더십 등 온누리 리더들은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마음을 다졌다.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교회를 비웠던 하용조 목사는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18년간 부어주신 은

혜를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면서 4차 수술을 받았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건강을 되찾았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한편, 이날 부천 온누리교회 신기섭 전도사는 부천 온누리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과 주변교회와의 관계, 비전 등을 함께 나누었다.

〈관련기사 8~10면〉

/ 서철 cho@onnuri.or.kr



02

무릎 선교사 연합 기도모임

“골방에서 열방 품는 선교사”

최전방에서 싸우는 선교사들에게 든든한 병참기지가 되어주는 무릎선교사들이 지난 15일 한동홀에 모였다. 이재환 목사(전 감비아 선교사)는 “헬라어에서 '중인'과 '순교자'의 어원이 같다”고 말하고 “로마서 16장에 있는 수많은 무릎선교사들로 인

해 바울이 선교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 금식, 눈물로 선교지가 열린다”고 말한 이재환 목사는 “무릎 선교는 감정이 아닌 의지로 해야 한다”며 각자 기도 처소



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기도하길 당부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아프가니스탄 아웃리치팀 모집

두란노해외선교교회와 2천선교팀은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아웃리치팀을 모집한다. 아프간 아웃리치팀은 5월 18일(주일)부터 8박 9일간 아프간 농촌과 가볼 인근 난민촌에서 사역한다.

- 사역분야: 의사(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등), 간호사, 약사, 치과위생사, 이/미용사, 중보기도사 등

• 마감: 5월 4일(주일)

• 문의 및 접수: 두란노해외선교교회 (794-1063)



단동교회

“민족 복음화를 꿈꾼다”

4주년 기념예배

중국 룽녕성 단동시에 위치한 단동 한국 인교회(가칭)가 창립 4주년을 맞았다. 창립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김중원 목사와 김창욱 전도사, 김성철 집사가 4월 6일 열린 기념예배에 참석했다. 김성철 목사는 단동교회 담임 목사가 설립한 후 김중원 목사가 “음부 권세를 이기는 능력있는 교회, 천국 열쇠를 맡은 교회”가 되길 축사하고 김창욱 전도사는 격려사에서 “필리핀비아 교회처럼 인내로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축원했다. 예배에는 성인과 중고등부 등 단동교회 성도 150여 명이 나와 함께 기뻐했다.

단동교회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교회로는 최초로 정식 교회로 허가했고, Acts29를 이루는 온누리 30개 비전교회 중 하나인 단동교회는 온누리 파송 선교사 김영철 목사가 1998년 가정

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국경도시에 자리한 단동교회는 청년들을 제자화하여 민족을 복음화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현재 단동교회는 압록강변 4층 건물 중 2,3층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2층에는 사무실, 식당, 소그룹 모임실이 있고 3층에는 150석 규모의 본당과 담임목사실, 기도실이 있다. 중국 정부가 단동 교회를 외국인교회로 승인했기 때문에 한국인, 즉 중국 정부에서 볼 때 외국인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단동교회 교인 대부분은 사업 때문에 중국으로 온 사람과 유학생들이다.

비전교회로서 서기까지

목회사관학교와 Acts29를 발표하며 단동교회는 온누리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선포됐다. 김창욱 전도사는 “단동교회가 Acts29를 이루는 비전교회로 성장하도록 온누리교회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해줄 것”이라고 말

했다.

단동교회에는 단신으로 유학 온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차세대 사역이 필요하다. 또한 교인 자녀를 위한 선교도 운영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고 비전 있는 교사를 구하고 있다.

단동 교회는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민족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는 센터 기능을 할 것이다.

김중원 목사는 “단동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인을 위한 교회라 다른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대신 교회안에서는 어떤 종교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우선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주일학교, 청년, 성인예배 등 예배 처소를 확고하게 세우고 민족 복음화를 지혜롭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말했다.

단동교회가 온누리 비전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단동 베이스 연혁

- 1998.6.1 단동상주가정교회로 시작
- 1999.4.4 단동 한인 교회 창립예배
- 1999.6.28 단동 개발구 L-72 203호 로이전
- 1999.7.14-18 온누리교회 의료선교단 34명, 단동시립병원에서 시민대 상무료진료
- 2000.1.23-27 사랑방(한인교회) 초신자 10명 단기 일대일제자양육 및 QT 훈련
- 2000.5.3 북한 교아원에 '사랑의 방' 보내기 운동 시작
- 2000.7.14-19 2차 의료선교단 36명 안내 및 의료활동 허가 획득(단동, 관전, 전양3곳)
- 2001.6.17 현장소(L-72 101호)로 이전
- 2002.12.26 단동교회 허가

/ 전성희 shee@onnuri.or.kr



기도 모임 탐방 / TIM한남동 기도모임

선교사의 산실

한남동 주춧돌, 유리창 너머 깔끔하게 손질한 정원이 보이는 마루에 긴 상이 차려졌다. 비빔밥과 김치, 불고기, 식혜, 굴 등 기도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 집주인이 정성껏 대접한 음식이다. 정갈한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최후의 만찬이 걸려있는 큰 방에 사람들이 방석을 놓고 둘러앉아 찬양으로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두란노해와선교회가 주최하는 한남동 기도모임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5시 한남동 이삼자 권사의 집에서 모인다. 1988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를 맞는 기도모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삼자 권사가 기도모임 장소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한을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내가 선교지는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사를 위한 후원 기도회를 열고 기도로 선교사들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게 기도모임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모임은 ‘기도의 불을 끄고 싶지 않다’는 이삼자 권사의 소망대로 이권사가 참석하지 못할 때도 계속 이삼자 권사의 집에서 모이고 있다. 현재 보통 30여 명이 참석하며 한 때는 1백명 가까이 참석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남동 기도모임은 장로, 권사, 목사 등 교회 내 선교에 관련한 지도자들과 입국한 선교사,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들이 참석한다.

이번주는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낙웅 선교사와 제 1기 온누리 세계선교사 훈련학교를 마치고 폴란드로 출발할 전하라 선교사가 참석했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김중원 목사는 “여기 나와 있는 기도제목 이면의 것, 선교사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시간,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기도책자 페이지 번호를 부른다. “10, 11, 12, 13...” 기도책자에는 팀이 파송한 모든 선교사의 이름과 기도제목이 1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써있다. 각자 자신이 맡은 페이지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다.

이삼자 권사는 말한다.

“이 기도모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열흘 전부터 기도로 이 모임을 준비하고 동역자들이 오는 것을 보면 대문에서부터 반겨 맞지요. 제게서 이 잔을 옮기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이 기도모임을 계속할 것입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 기도모임에서 폴란드로 떠나는 전하라 선교사를 축복했다.

긴급 기도 제목

골목주일학교 아이들을 학교로

살롱.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봄기운이 가득하겠군요. 이곳은 점점 더워지고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콕은혜학교와 방콕은혜교회, 그리고 태국주일학교연구원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콕은혜 학교 스텝과 선교사들이 함께 하는 토요일 골목주일학교는 앞으로 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리라 믿습니다.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핏박과 모욕이 쏟아졌지만 매주 17개 골목 길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비가와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음과 사람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도했던 이 모임은 하나님의 참 은혜였습니다. 전도자들이 목이 마르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그 눈동자는 힘이 있습니다. 매주 2백50에서 3백명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함께 나온 부모들도 경청합니다.

이제 2달에 한번 정도 이들을 학교로 초청하는 전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송과 비용 등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동참할 동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 76개 도에 유치원, 선교원 설립을 통한 어린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원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준비된 자들이 와서 훈련 받고 이 땅을 일구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님. 이 일을 위해 식탁을 대하기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주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동역자님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하며 이만 줄입니다. 싸웠디 크람!

· 연락처 : graces2000@clickta.com, www.wmission.net/silajung, 001-661-341-4260(직통)

살롱.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한국은 지금 봄기운이 가득하겠군요. 이곳은 점점 더워지고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콕은혜학교와 방콕은혜교회, 그리고 태국주일학교연구원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콕은혜 학교 스텝과 선교사들이 함께 하는 토요일 골목주일학교는 앞으로 태국교회에 큰 도전을 주리라 믿습니다. 2년 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핏박과 모욕이 쏟아졌지만 매주 17개 골목 길바닥에 돛자리를 깔고 비가와도,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음과 사람들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도했던 이 모임은 하나님의 참 은혜였습니다. 전도자들이 목이 마르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지만 그 눈동자는 힘이 있습니다. 매주 2백50에서 3백명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함께 나온 부모들도 경청합니다.

이제 2달에 한번 정도 이들을 학교로 초청하는 전국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송과 비용 등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동참할 동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 76개 도에 유치원, 선교원 설립을 통한 어린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치원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준비된 자들이 와서 훈련 받고 이 땅을 일구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님. 이 일을 위해 식탁을 대하기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주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동역자님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하며 이만 줄입니다. 싸웠디 크람!

· 연락처 : graces2000@clickta.com, www.wmission.net/silajung, 001-661-341-4260(직통)

01

“영혼을 낚으러 공단으로 갑니다”

기도모임 · 양육 · 예배처소 될 안산 쉼터 5월 개원



“안산에 가보셨습니까? 서울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몇 명 만날까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산 거리에는 가득 있습니다.”

팔딱거리는 고기를 본 낚시꾼의 눈이 이보다 더 반짝거릴까? 온누리미션 이준 전도사는 눈을 빛내며 안산에서 만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꺼낸다.

온누리미션은 올해 2월 외국인 밀집지역과 거리가 먼 의정부 쉼터를 정리하고 3월 안산에 새 보급지리를 만들었다. 온누리미션은 올해 지역 방향인 전문화와 현장성에 맞춰 안산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가까이 쉼터를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5월 중으로 정식 개원할 예정인 안산 쉼터는 러시아인이 중심이 된 쉼터로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기도모임, 교육, 양육을 시작할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다.

안산노동자 센터 통계에 의하면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작년 7월 현재 3만2천7백 명이다. 이중 러시아인은 자진신고한 사람이 5월 현재 109명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실제 체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공단을 중심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이질감을 느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보다 그들이 사는 곳에 다가가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 쉼터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킨다. 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제공하는 공휴사역과 그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쉼터제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가 되어가는 예배 처소의 세 가지 기능을 한다.

온누리미션은 초창기의 공휴사역에서 외국인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선교사로서 고국에 돌아가도록 하는 선교사역 쪽으로 사역 방향의 중점을 옮기고 있다.

이준 전도사는 “제자 양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성경공부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쉼터는 이방 나라에 지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포들끼리 모여 휴식을 얻는 교제 공간에서 나아가 찬양하고 성경공부를 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배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가서 제자삼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온누리미션은 그물을 던지기 위해 고기가 모여 있는 깊은 곳으로 향한다. 그들이 내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하게 영혼을 낚아 귀향시킬 기대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 온누리미션 쉼터 연혁 ◆

- ◇ 1994년 12월 / 군포에서 미안파쉼터 시작 (미안파인 중심)
- ◇ 1997년 03월 / 군포에서 군포쉼터 시작 (몽골, 네팔, 기타 종족을 수용)
- ◇ 1997년 7월 / 원당 파키스탄 쉼터 마련
- ◇ 2000년 11월 / 의정부에서 의정부쉼터 시작(경기 북부 외국인 중심)
- ◇ 2002년 12월 / 군포 미안파 쉼터 정리
- ◇ 2003년 02월 / 의정부 쉼터 정리하고 안산으로 전략적으로 이동
- ◇ 2003년 03월 / 안산 원곡동에서 안산 쉼터 시작

◆ 온누리미션 쉼터 현황 ◆

- ◇ 군포 쉼터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7-2번지 동현빌라 501호
 - 문의: 031-454-3887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네팔어 예배(일립 목사)
- ◇ 안산 쉼터
 - 위치: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748-14번지 402호
 - 문의: 031-492-6585
 -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러시아어 예배(이준 전도사)

02

러시아어 예배

‘돈을 얻으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외국어예배는 공휴이 아니라 선교 사역입니다. 빵을 주면 빵만 먹고 가지만 복음을 함께 주면 복음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다.”

2000년 5월 7일 러시아어예배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온누리미션에 소속되기 이전인 98년 3월부터 러시아어예배를 위해 중보기도모임을 이끌어 왔던 이준 전도사는 외국어예배는 선교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외국인이 오면 항상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인가? 고국에 돌아가서도 예수를 믿을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한다는 이준 전도사는 러시아 지체들이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고국에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양육자로 서기 위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일대일 교제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국

인들이 배우기 힘들어 다른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했다. 그러던 중 쉽게 배울 수 있고 소그룹 토론 중심이며 초신자도 지도자 훈련을 거쳐 바로 인도자가 되어 초신자를 지도할 수 있는 TEB를 선택하게 됐다.

“양육 받는 사람이 매주 나오지 못하면 리더들이 안타까워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저만 발을 동동 굴렀었는데 그들이 모임에서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쁩니다.”

15명에게 TEB양육을 한 지마 형제(트리니티 신학생)는 “돈을 얻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을 얻었다며 고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간증을 한 사람을 봤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중요한 돈과 시간을 드리는 그들을



보면 기쁩니다”고 말했다.

러시아어 예배는 이번 여름 고향으로 아웃리치를 가려 한다. 이전에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고향에 갔지만 이제는 고향 교회를 섬기겠다는 목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청년부와 협의해 블라디보스톡에 가려 한다. 그곳은 교회와 예배는 있지만 양육이 없어 러시아어 예배는 대상으로 양육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어예배는 러시아어 찬양 테이프를 제작하려 한다. 20일 바자에서 수익금 중 일부는 갈트 형제를 돕고 나머지는 전도용 러시아어 찬양 테이프를 만드는데 쓸 예정이다.

03

“갈트 형제에게 새 생명을”



몽골예배와 러시아어예배가 부활절인 오늘(20일)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갈트 형제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음식바자를 한다. 2천/1만 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떡볶이, 순대, 부침개, 핫도그 등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갈트 형제의 신장이식 수술비에 사용한다. 바자 장소 한 옆에서는 갈트 형제의 사진과 투병일지도 전시한다.

갈트 형제는 동생 아지트와 신장조직 검사결과가 맞지 않아 사랑의 장기운동본부를 통해 아지트의 신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자신에게 맞는 신장을 이식받는 교환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04

네팔예배 노방전도



네팔 예배는 오늘(20일) 한국에 온 동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 노방전도에 나선다. 하루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민속 악기, 플랭카드와 전도지를 준비해 군포와 영동포 일대에서 노방전도를 한다. 노방전도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며 다음 일정은 5월 18일이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이제는 나눠야합니다 물 붓듯 부어주신 하나님



하용조 목사

‘아름은 늘 새로운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쉬고 어제(16일) 저녁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없는 한 달동안 'Acts 29'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은 알고 계셨겠지만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네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쉬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하면서 소홀했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C.C.C.에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도의 열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산, 서울역, 사직터널, 대학로, 인천 등을 다니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이후보다 그 당시 전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아픔은 저에게 늘 새로운 신호탄입니다. 이번에 받은 네 번째 수술도 새로운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30개 비전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야겠다는 동기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목회철학을 깊이 생각하게 한 존 스튜어트 목사와의 만남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광곡식, 구봉서씨 같은 분들을 만나 7년 동안 연예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 저에게 대중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문화사역을 많이 하게 된 것도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본당 무대를 이렇게 만든 것도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성숙한 크리스천 문화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만이 대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간을 다쳤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저에게 목회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사임하고 제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신 환경직 목사님의 권면에 따라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제 목회철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 사회가 가진 많은 아픔과 문제점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품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웍(WEC)'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교의 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교 들어

갈 무렵 선교사로 헌신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마다 건강이 늘 발목을 잡아서 가지 못하고 목회 현장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니 문이 열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1984년에 온누리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세우면서 1년 동안 고민했던 것은 교회 본질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었습니다. '서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비전교회를 왜 세워야 하느냐?'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1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세울 것을 환상으로 보여 주시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 오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때 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렵게 보였던 환상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2천/1만 비전'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2천/1만 비전'을 선포할 때만 해도 초점이 확실히 맞혀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니까 문이 하나씩 열리고 기적될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꿈, 비전입니다.

온누리교회를 열 두 가정과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 2천명의 젊은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젊은이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제 생명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의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커질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대교회들의 꿈을 꾸어 본 적도 없고,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되리라고는 상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꿈,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갖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대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 꿈, 비전이 점점 구체화 되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안 보내셨을까?' 그리고 건강치도 않은 몸

을 질질 끌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저를 끌고 가실까요?

사실, 지금 저는 쉬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일을 벌리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동대 사건에 개입하게 하셨을까요? 왜 200억원이나 되는 헌금을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무섭게 공격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그 때 가장 부흥했고, 순결했고, 거룩했습니다. 사실 그 때, 우리는 무리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동대학교는 살아났습니다. 총장님이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학교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하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2만 명 초대교회는 결국 작은 교회로 다 흩어졌습니다.

'2천/1만 비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이 온누리교회에 선포되고 온누리교회가 그 비전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1990년대 성령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구름 떴처럼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감동을 받습니다. 18년 짧은 세월동안 온누리교회에 순수하고 거룩한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분, 헌금하는 분, 정말 헌신된 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사에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부흥을 이루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허락하신 부흥은 사도행전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 베드로의 설교에 3천명이 모였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남자만 5천명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있었던 성도들의 숫자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입니다. 그 당시 많은 병이 일어나서 걷는 사건을 비롯한 황홀한, 감동적인, 기막힌 기적과 이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이 붙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런데 5장, 6장에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의 행진에 제동이 걸립니다. 고난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7장에 스테반이 순교합니다. 8장에 빌립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 에티오피아 내사에게 전도합니다. 유대인들이 겹잡을 수 없이 예루살렘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결국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는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흥을...

9장에 가면 바울이 나타납니다. 10장에는 고넬료가 나타납니다.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2만 명이 모이던 예루살렘교회는 다 흩어졌습니다. 작은 교회로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3년 전에 간암수술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번에 받은 네 번째 수술까지를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입했던 고난과 관련지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아,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흩어지지 않으면 핍박이 오겠구나!'

정말 온누리교회는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리더님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과 축복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 귀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들 사이가 나쁘다든가, 알력이 있다든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지만 내부적으로 얼굴 붉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건물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숫자가 있습니까? 사람, 조직, 방법이 있습니까? 많습니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것 일까요? 왜 자꾸 저를 수술시키시는 것 일까요? 사도행전을 놓고 볼 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지난 18년 동안 물 붓듯 부어 주신 부흥과 축복은 우리끼리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30개 교회도 좋고 300개 교회도 좋습니다. 이제는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누리교회에 전도, 양육, 선교, 성령, 예배, 찬양, 공동체, 일대일, 큐티 등 엄청난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한 개교회가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많은 축복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교회는 큰데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는 힘, 소프트웨어, 인력 등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가진 복을 어떤 형태로든지 선교지에, 한국교회에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은 끝납니다. 여러분, 저, 장로님, 목사님, 모두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제 온누리 리더들은 모두 흩어져야 합니다

7년 된 교인은 교회를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만 막상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갈 데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원, 부천, 동경, LA로 가십시오. 이제는 온누리로 모이는 것을 그만하고 흩어 지자는 것입니다. 흩어지기 위해 비전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남은 생애는 이제 작은 교회들을 돌보며 다니는데 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역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 가서 집지어 주고, 설교해 주고, 사람들 키워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온누리 리더들은 이런 의미에서 다 흩어져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떠나십시오.

새벽기도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본의 아니게 온누리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었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대형교회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몸집이 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도 필요하지만 구축함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단위는 중소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미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을 어디든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천명 선교사를 땅끝까지 파송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번에 'Acts 29' 문제로 고민하기 전까지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뭘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가르치고, 내적치유, 일대일, 큐티, 구제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을 주님 오실 때 까지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2천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2천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전도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낮은 교회,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열명은 전도합니다. 새 교회가 자꾸 나와서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굳어있고,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해야 하고 서울, 일본, 미국에서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일입니다.

대형교회는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 겨우 몇 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모델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형 교회를 변화시키든지,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온누리교회 7년 된 교인들이 갈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 고이면 씩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자꾸

개척하고 또 개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목사가 나오길 원합니다. 많은 선교사가 나오길 원합니다. 정말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온누리교회는 고인 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력, 재력, 모든 좋은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신호탄이 바로 'Acts 29'입니다. 4월 27일 우리는 첫 번째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번 부활주간 일주일동안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액수가 얼마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30개 비전교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전세계 곳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헌신자가 되어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십시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고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다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트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해롯의 찢은옷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안다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언제 일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누리 왕국을 만들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9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역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온누리교회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씩을 개척하십시오.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 한 사람씩 교회를 개척하면 2만개 교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움 대신 사랑이, 전쟁 대신 평화, 절망 대신 희망이, 좌절 대신 소망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

'세계를 품은 아이들' 캄보디아 아웃리치 소감문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김정환(세문아 6학년)

지난 2학기에 우리 세문아가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인도차이나반도에 대해 공부 하던 중 한자님께서 캄보디아로 장소를 인도해주셨다. 그래서 2월18일부터 27일까지 9박10일 동안 우리 세문아와 선생님들(32명)은 함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캄보디아로 출발했다.

8시간 만에 도착한 캄보디아는 밤이었고, 무척 더웠다. 다음 날 우리는 킬링필드에 갔다. 그곳은 캄보디아인들에게 큰 상처가 있는 곳이다. 킬링필드는 크메르정권의 지도자인 공산당들의 말을 거역한 사람들을 학살하여 묻어둔 곳이다. 그곳에는 8천여명의 사람들이 묻혀있었는데 지금은 그 뼈들이 기념탑에 보관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했다.

우리는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습해간 워십, 연극을 공연하고 찬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풀살링 고문 박물관에도 갔었는데 그곳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예전에는 고등학교였다고 한다. 그곳에는 고문의 흔적과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곳에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MK(선교사 자녀)들과 캠프도 가졌는데, 함께 2박3일간 재미있게 뛰놀며 지냈다. MK들을 보니 대견스러웠다.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잘 참아내고 있었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았다. MK 캠프 후 우리는 앙코르와트로 출발했다.

그곳은 힌두교 사원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옛날에 그 큰 돌들을 어디서 옮겨왔을까? 그곳은 옛 앙코르제국의 웅장함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웅장하고 신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몇몇의 아이들은 악령을 보았다. 사단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고 악령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그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많은 상처를 가진 캄보디아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이 치유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사히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누리 라디오



찬양의 오솔길 - 허드슨 테일러의 열네번째 이야기

1866년 5월 런던의 동인도 선창. 허드슨 테일러, 그의 아내 마리아와 네 명의 자녀, 그리고 중국을 향한 선교열정에 불타오르는 열여섯 명의 선교사들. 결국 중국 선교사역을 위해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된다. 드디어 중국에 도착한 그들! 그토록 갈망하던 선교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4월 21일(월) 오후 7:00 서빙고 305호
주최: 소아시아 공동체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
4월 21일(월) 오후 7:00 선교관 지하중기도실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인디모)
5월 1일(목) 오후 7:30 서빙고 홀기도실(예정)
문의: 김베드로(019-240-922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함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 은누리 세계선교센터 간사
자격: 대동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현재 재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바전
미감: 5월 20일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 은누리미션 간사
선교경험자, 영어가능
이경희 간사 (793-9686 교 514, 017-316-9787)

☞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모집
선교헌신자, 영어, 컴퓨터, 운전 가능자, 현재
문의: 794-1063

☞ 이스라엘 선교의 밤
4월 24일(목) 오후 7:00 서빙고 403호
강사: 변순화 교수
주최: 아람의 가정사
* 이 강의는 공개강좌로 진행됩니다. 성경책 지참.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은누리교회

01

오늘, Acts29 헌금 작성

“이제는 온누리 부흥 나날 때” ... 하 목사, ‘전 성도 기쁨으로 참여 할 것’ 당부

‘2천/1만 비전’을 이뤄가는 사도 행전적인 비전교회 설립을 위해 오늘 서빙고, 양재, 부천온누리교회 예배시 온누리 전 성도가 ‘ACTS 29’ 헌금을 작성한다.

‘ACTS 29’는 ‘2천/1만 비전’을 꿈꾸는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이다. 이번 ‘ACTS 29’를 위해 온누리 리더들은 지난 4월 8일

~10일에 모임을 했으며, 17일에는 서빙고 본당에서 헌신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부활절 특별새벽 기도회’에서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며 “이제 온누리교회는 받은 복을 나누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어 하목사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안디옥교회처럼 온누리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비전 교회를 세워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자”며 전 성도가 ‘ACTS 29’ 비전 헌금에 기쁨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3면>

/ 서철 chol@onnuri.or.kr



▲ 4월 8~10일 모임과 17일 헌신예배에서 온누리 리더들은 ‘ACTS 29’를 위한 꿈을 키워왔다.

02

갈트 형제를 위한 바자

신부전증 환자인 갈트 형제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온누리미션 몽골어예배와 러시아예배가 벌인 음식 바자가 많은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갈트형제의 아버지와 동생은 “봉사하는 분들과 성도님께 감동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수익금 280만 원은 갈트형제 후원에 쓰인다.

03

‘아프가니스탄을 주께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던 지역, 전쟁으로 문이 열렸지만 폐허화한 국토에서 상처를 안고 사는 아프간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할 아웃리치팀을 모집한다. 두란노 해외선교회와 2천선교팀이 주관하는 아웃리치팀은 온누리교회가 후원하는 아프간 농촌지역과 카

불 인근 난민촌을 중심으로 5월 18일부터 8박9일간 의료사역, 이마용사역, 중보기도 사역을 한다.

• 마감: 5월 4일(주일)

• 문의: 두란노 해외선교회

794-1063

/ 전성희 shee@onnuri.or.kr

04

Why Missions? 공개 강좌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Why Missions?’ 공개강좌를 5월 10일(토)과 31일(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서빙고 비전홀에서 한다. 이날 강좌는 ▷온누리선교정책, ▷선교훈련의 노하우, ▷선교지를 향한 중보기도의 실제, ▷올바른 선교후원과 동역의 방

법 등을 온누리교회 선교 경험자와 중보기도와 후원에 경험이 있는 평신도의 생생한 체험과 간증으로 진행한다.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 간사 (031-336-6350

~2) www.whymission.com

/ 전성희 shee@onnuri.or.kr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cts29' 행진은 계속해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

“내 생애에 나의 헌신, 기도, 현금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라...” 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향,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십시오.

▶ 십자가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면 부활은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온누리 성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 감동,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부활절 새벽기도회가 지닌 의미, 결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부활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뿌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이 지상에 계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자리에 모여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이 50일은 기막힌 환상,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 오셨습니다. 벽 사이를 뚫고 들어오기도 하고, 제자들과 밥을 먹고 얘기하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땅에 머문 그 시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요, 신령한 몸과 육신의 몸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

님과 천국에서 함께 할 시간을 지상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새벽기도로 온누리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삶을 체험하고, 부활의 믿음과 비전을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함께 나누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온누리에 주님 또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 '치유'와 '비전'

▶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마지막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멀어질까 따뜻한 사랑으로 챙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훌쩍 떠나 가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치유'입니다. 그리고 불안, 두려움, 패배감에 젖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을 주시며 치유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성령을 받고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온누리에 주신 부흥과 복을 나누기 위해 헤어져야...

▶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온누리의 꿈과 비전이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 온누리교회의 꿈은 부활하신 주님의 삶과 비전을 땅 끝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온누리교회를 창립 할 때부터 지금까지 꿈꿔왔던 '2천/1만 비전'과 일치합니다. 예루살렘교회처럼 성령님의 기쁨부심으로 온누리교회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출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 세계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 출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선교의 기지였으며 수많은 다른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았든 온누리교회는 예루살렘교회와 같은 복을 받아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린 부흥과 복을 땅끝까지 나눠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와 함께 비전을 나누는, 안디옥교회와 같은 '30개 비전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 '30개 비전교회'의 꿈은 2천 명의 선교사와 함께 미전도종족이 사는 오지에 2천개의 교회를 세우는 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천/1만 비전'을 극대화 할 Acts29 현금

▶ 오늘 'Acts29 현금' 작정이 있습니다. 'Acts29 비전'과 함께 작정 현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Acts29'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해 '30개 비전교회'를 세우는 온누리의 비전입니다. '30개 비전교회'로 바로 그 교회의 꿈, 온누리교회의 '2천/1만 비전'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Acts29 현금'은 이런 일을 열매 맺을 씨앗이며, 결정적인 헌신이 될 것입니다. 300억 원을 목표로 합니다. 30개 비전교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현금이 필요합니다. 'Acts29 현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30개 비전교회'를 선포했던지 처음에는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헌신예배와 이번 부활절 새벽기도회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과 현금을 내 놓고 마산, 전주, 광명, 홍콩, 러시아에 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든 영역에 생기가 돌고, 비전이 생기며, 삶의 질이 변하는 이런 변화가 바로 부활 신앙이요, 부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9장',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 'Acts29' 비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날, 모든 성도의 바람인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어느 곳에서 하고 싶으십니까? '내 생애에 나의 헌신, 기도, 현금으로 적어도 1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라...' 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교회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향,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 일을 위해 성도님들께 세 가지들을 당부합니다. 첫째, 헌신하십시오. 나의 직업, 시간, 돈, 건강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 나누십시오. 나누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행동해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의미가 퇴색합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옮겨질 때 이 영광스러운 사도행전 29장의 행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첫 신탁탄이 'Acts 29'입니다. 30개 비전교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전 세계 곳곳,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온누리교회에서 30개 비전 교회를 넘어 2000교회로 나아가며 새롭게 쓰는 '사도행전 29장', 그 놀라운 축복과 감동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대담 /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



하용조 목사

본문 : 고린도전서 15장 3~11절

사도행전적 교회란 안디옥교회처럼 비전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목사, 장로, 평신도 리더들이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부흥을 나눌 때 은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영원히 안고 가야 하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런 부활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에 지성의 대표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통해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활 신앙이 학문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죄로 인해 절망하여 죽어 가는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하면 설득력이 강합니다.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2천년 전에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사” 바울은 성경에 근거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일 점, 일 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뤄집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지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두 제자들에게 전해 모두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목격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러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정말 돌문은 굴러졌고 주님의 시신은 오간 데 없이 수의만 곱게 개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고 못 자국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열심히 증언했지만,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 자국이 선명한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비애를 안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기쁨과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4복음서에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 6절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일곱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인간 같지 않은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하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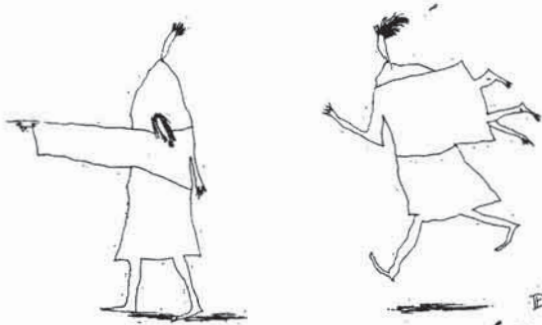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곧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사울은 누구보다 박식하고 지성이 탁월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란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이라고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 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4~8).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허다한 무리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일러스트레이션 최 정 훈 / www.illustrationworld.co.kr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부활하신 주님 명령 따라 온누리에 주신 축복과 부흥을 ‘Acts29’ 비전으로 땅끝까지 나눠야

가지 명령을 받고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 기적을 일으켰으며로 마를 바꿨고 세상을 바꿨던 것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 세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품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조직했던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시는 온누리교회

지금부터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실 때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2천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송, 환희, 비전, 믿음을 가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부활의 비전, 희망, 믿음, 기쁨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또한 사람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37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있을 때 회심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던 그 날 밤이었습니다. 당시에 잘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그 밤에 찾아오신 주님은 흰 옷을 입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두 손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가 상하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2천년 동안 기다려 왔다’고 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저는 요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3년 후, 저는 폐결핵에 걸려 휴학을 하고 병원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쯤 제가 처음 만났던 그분과 똑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게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겠느냐며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후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온누리교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2천년 전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두 손에 못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린 후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온누리교회는 큰 부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교회가 비정상적으로 급성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천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남자만 5천명이 모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에서 3만의 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 말씀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계속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 말씀부터 예루살렘교회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 리더들은 붙잡혀서 감옥으로 가고, 성도들은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의 정점에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안디옥교회입니다.

회심한 바울은 자진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교회에 가서 목회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 2,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사령탑은 안디옥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추구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먼저 예루살렘에 대형 교회가 있었고, 다음으로 안디옥에 중·소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목회 중심이었고, 안디옥교회는 선교 중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저는 요즘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는 목회의 질정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양재와 서빙고에 큰 공간을 주셔서 주일에 3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찾아와 예배합니다. 온누리교회에는 잘 훈련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

이나 다른 자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각종 사역과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는 막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교회에 3천, 5천, 3만 명을 보내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왕국을 만들어 기득권을 갖고 안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편하게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해 성도들을 각지로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를 생각하는 동안, 오래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아픈 이유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 네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에 한계를 주시는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건강상 교회를 많이 비우는 데도 이상하게 온누리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는 핍박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뿔뿔이 흩어져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7년 된 성도들은 온누리교회에서 떠나라고 말했지만,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천국을 만들어선 안됩니다. 이 점이 저의 마음에 가장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비전교회 세워야

여기서 우리가 큰 교회로 만족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편안하게 누리면 될 것을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지를 정탐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란 예루살렘교회가 안디옥교회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 리더십들이 스스로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부흥을 나눌 때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개 비전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30개 비전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천명의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선

교지에 2천 개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사가 활동을 마치고 나면 남은 것은 교회뿐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사라지더라도 교회는 계속됩니다. 한국은 교회가 너무 많아 문제이지만 선교지에는 너무 없어 문제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심어야 합니다. 제가 일본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성도는 없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마지막 목회라는 사명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완성된 교회에서 누리며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돌보며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30개 비전 교회를 위해 헌금하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명의 일부를 떼어 주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담당할 안디옥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삶과 피와 열정과 헌금 등 모든 것들이 드러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꿈이 마음속에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직장을 통해 누구나 예의 없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 주일 아침을 맞아
주님의 축복, 감격, 기쁨, 희망,
부활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슬픔, 좌절, 고통, 절망이 떠나고
부활의 환희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01

긴급 기도 제목

'사스'에 노출돼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발생,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사스가 창궐하는 지역에서 떠나고 있다.

2천선교본부에는 지난주 홍콩 차이나 하이락센터에 거주하는 박영희, 아리문츠 선교사로 부터 긴급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가 왔다. 하이락센터를 사스가 발생한 지역을 방역, 치료하는 임무를 맡고 중국에서 온 의료진들의 숙소로 지

정했다는 것이다.

사스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은 사스 환자를 치료한 의료인과 환자와 동거하는 가족 등 환자와 직접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이다.

박 선교사는 "현재 한국 교민들이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곳에 남으라는 감동을 주셨기에 여기서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사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보해달라"고 요청했다. 2천선교본부는 박영희, 아리문츠 선교사의 사스의 위험에 노출해 있는 선교사를 위해 온누리 성도가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스 위험지역에 있는 선교사>

- C국 남부: 이정미, 유정은, 김선복, 김은혜, 한다니엘/정진화, 김서경, 정혜주, 김영수/김란
- 홍콩: 아리문츠/박영희, 이광호/오정미
- 싱가포르: 엄홍석/안재영, 조문상/김정년, 손승덕/윤영아, 권애진, 채영권
- 말레이시아: 이창호/유재연, 정은숙, 위준호/강문숙

02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지 2천여 년이 지난 지금, 이방 한국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간구하는 기도가 울려 퍼진다.

새벽기도가 끝난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간구하는 사람들이 서빙고 자모실로 모인다. 기도할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한 부씩 가지고 자리에 앉아 찬양으로 마음을 모은다. 참석자들은 7시부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한다. 송만석 장로가 기도인도를 하기 전 "요즘 날씨가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하는 변동은 있지만 봄이 오는 대세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며 운을 뗐다. 송 장로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의 마흐무드 압바스 총리, 자병자와 새로 구성될 내각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약속한 성령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수록 기도하자"고 했다.

송장로의 인도에 따라 무릎을 꿇은 30여 명이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길, 믿는 유대인을 보호하시길 기도하고 극동 러시아 사역과 유대인 귀환사역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은 1990년 2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는 12명이 모여 시작했다. 이 모임을 통해 1994년 KIBI(Korea Israel

Bible Institute)가 설립됐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

하라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라"는 예레미야 16장 15절에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 후원 사역을 하고 있다.

KIBI는 믿는 유대인 사역 지원,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을 이스라엘에 정착시키는 유대인 귀환사역, 이스라엘 문서발간 사역 등 이사가 40장 1절의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역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매주 토요일 모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은 지난 14년 동안 추석, 설 등 명절에도 한 번도 쉬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선교관 403호에서 '이스라엘 선교의 밤'도 열리고 있다.



03

KIBI 유월절 행사 / 유월절 제사의식 재현

"우리를 위한 죽음, 그 현장에 서다"



장경은 집사 (양천공동체 소망산)

토요일 오후, 나는 어린 염소 한 마리가 죽는 현장에 있었다. 그 양은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마지막까지 "메~" 하고 울부짖던 처절한 울음소리가 지금도 내 귓전을 맴돈다. 염소는 피를 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뿔과 머리, 다리가 잘려 나갔다. 대제사장 역을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양이 흘린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 껍질을 들고 서셨다. 아! 이제야 무언가 알 것 같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피와 물을 흘리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님.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선택하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 본다.

내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껍질을 벗기 원하시는 주님. 나는 내 뿔로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남을 공격하며 상처를 주었다. 그렇게도 고개 숙이기를 거부했던 내 머리를 보시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쉽게 세상으로 달려나갔던 내 다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

다. 같이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결하게 씻기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버스에 올라탔다.

잠자리에 들면서 "이처럼 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내 이웃도 똑같이 용서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달여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금 내가 들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시면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유월절 제사의식' 재현에 두려움과 호기심, 기대감을 가지고 양지로 향했다. '음매애~음매애~'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어린 염소를 바라보며 갑자기 '꼭 이런 행사를 재현해야 하나' 하는 마음과 함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다. 내 마음과 눈엔 눈물이 흘렀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어린 염소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공포에 휩싸인 그 분위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염소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 그런 어린 염소의 죽음을 보기위해 앉아있는 나를 비롯한 우

리를 모두가 잔인한 것 같아 괴로웠다.

'유월절 제사의식'이 시작됐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염소는 아무런 반항도 없이 죽임을 당했다. 거꾸로 매달린 채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았다. 그때부터 염소를 불쌍히 여기던 마음이 바뀌어 거룩한 유월절 제사의식으로 다가왔다. 피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졌고, 껍질이 벗겨지고, 뿔과 네다리가 잘렸다. 내장까지 남김없이 꺼내어 깨끗이 씻기어 모두 번제단에서 태웠다.

우리의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린 양이 죽었듯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항도 못하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이 성경 속에서 내 눈앞으로 강하게 다가와 내 마음과 영혼 깊이 새겨졌다.

이제 내 기억에는 그 어린 염소는 없다. 그날 죽음을 당한 염소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장숙 집사 (양천공동체)



▲KIBI회원과 양천 공동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일(토) 양지 선교센터에서 유월절 제사의식을 재현하는 유월절 행사를 했다. 유월절 제사의식을 하기 원하는 공동체를 지원한다. (KIBI 사무실 792-7075~6)

復活

그 아침의 초대

다섯째날 / 부활과 선교

하용조 목사 / 마태복음 28:16 ~ 19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두 통의 편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편지는 이육연 장로님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이분은 공군 대령으로 예편하시고 지방에서 방송국 책임자로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미니카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온누리교회가 이 교회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께서 본인이 그곳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보낸 편지입니다.

"온누리교회와 하목사님을 통해 선교사의 꿈을 품게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선교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2년 전 떠나올 때 '가셔서 잘 쉬다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하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영과 육이 많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보내놓고 기도로 후원 해주신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하신 것입니다. 주일이면 어른과 아이들 30여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수요 순례는 두 손으로 나누어 1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이 되어 주셨고, 손과 발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위대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고 감격할 뿐입니다. 이제 저희는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후임자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어에 능통하고 어린이 사역에 비전이 있는, 온 가족이 도미니카를 뜨겁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협력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가 이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5월 하순경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는 선교사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는 자리에서 보내는 자리로 옮겨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이번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미니카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ACTS29'를 위해 써달라며 어저 3천불과 함께 돈과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계산하며 망설이고, 이것주세요 저것주세요 하고 구하기

만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편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할 메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을 위해 보내주시는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이 땅에 계셨던 40일 동안의 클라이맥스는 제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6~17절을 읽겠습니다. "열 한 제자가 갈릴라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명령, 비전, 선교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열 두 제자가 아니라 열 한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빠진 한 제자는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를 버린 사람입니다. 같은 비전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다른 길로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을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기적을 체험하고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앞에 계신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미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사랑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을 다 안 후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다 깨달은 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비전을 다 본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다 의심하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네 가지 사명

18절~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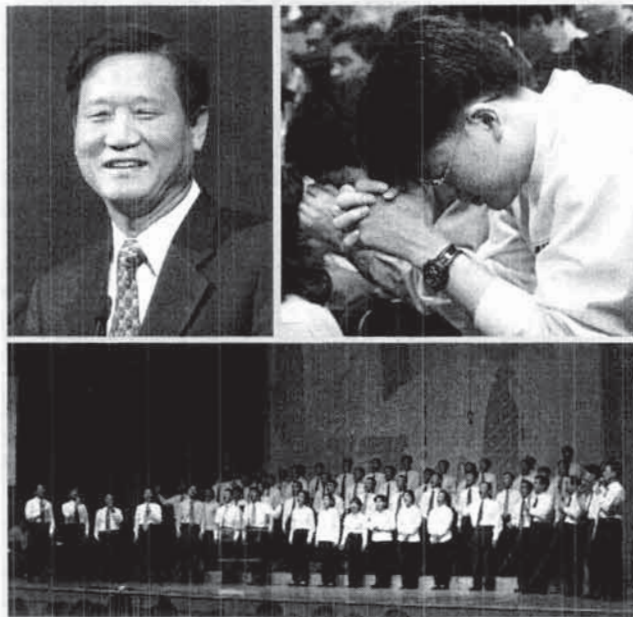
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제 길로 갔습니다. 남은 열 한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며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절대 권위를 부여 받았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이러한 권세와 권위로 너희에게 명령한다. 비전과 사명을 주겠다."

가라

첫째 사명은 '가라'입니다. 일단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무작정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몹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늘 밤을 새고 아침에 잠깐 잠을 잤기 때문에 더욱 몸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밥 맛도 없고, 삶의 의욕이 없어졌습



을 위하여 하실 일을 모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셨고, 우리는 멀리 계셨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와 사탄도 함께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삼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총체적인 승리,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남은 일은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할 일 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리그레엄에게는 텀플턴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리그레엄과 은혜를 받고 비전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리그레엄은 죽는 순간까지 같은 길을 걸었지만 빌리그레엄만큼 영적 능력을 갖고 있던 텀플턴은 시험에 들어 유명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빌리그레엄이 텀플턴을 생각하며 평생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 한 가지 사실을 16절에서 발견합니다.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두 100% 확신하고 따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하고, 어떤 때는 초초해 하고, 방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니다. 그 입에는 이미 시와 찬송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치료를 받았습니니다. 잠도 폭 자고, 폭 쉬었습니다. 몸에서 병이 떠나가고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잘 먹으니까 걷게 되고, 온 몸이 힘이 생겼습니다. 자연히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감동이 생겼습니다. 건강해지니까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상처 받은 사람, 병든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꿈을 꾸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라' 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두 번째 사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구제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 인생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례를 주라
세 번째 사명은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제자 삼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함께 와서 세례를 축하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의 절정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감격과 축복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번째 사명은 세례를 주고 끝내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양육, 내적치유 등 제자를 삼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 부탁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온누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큰 비전을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정리됩니

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십시오. 돈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았고, 칼에 맞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헌신하십시오. 본인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땅끝으로 가기 위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유로울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만사행통 할 것입니다.

비전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과 이 비전을 나누십시오. 제자들은 이 비전을 갖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데살로니가로 흩어졌습니다. 제가 70년대에 바울 전도여행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복신한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가는데도 힘이 드는데, 당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옥 속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해 했을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사물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정리 서철 chol@onnuri.or.kr

죽었던 우리 찾아와 생명 주시고 '가라' 명령하시는 예수님

성령 의지해 자끝까지 흠어져 다시 오실 주님위해 비전 나눠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주님의 명령,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이 명령, 이 사명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우리 인생

다. 왜 내 문제가 커 보일까요? 큰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으로만 오르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 눈치보고, 돈을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높은 곳에 가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결혼, 자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됩니다. 가져도 되고, 갖지 못해도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자

'ACTS 29'를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학성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다 작년 3월에 귀국하여 온누리교인이 되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과정(경영학)을 마치고 마지막 박사 과정 도중에 평소 어머니처럼 여겼던 언니가 2년 전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로 그동안 제 자신만을 위해 앞을 향해 달려가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거듭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이 나의 참기쁨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귀국 이후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직 피할 길은 집 가까이 위치한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거의 24시간 문이 열려있으니 언제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침 예배에 참석해서 9시에 뜨는 별 예배까지 드리고 간 적도 있

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든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해보려고 애쓰고 있던 중, 왼쪽 다리에 종기가 생겨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학비 3천불을 드립니다'

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육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퇴원해 기도하며 다른 병원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시련 중에도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주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4월 20일) 부활절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ACTS29'를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전에는 'ACTS29'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비로 비축해둔 \$3,000을 비상금으로 간직하고 있었

"근육암이라는 시련 중에도 평강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주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습니다. 이것을 'ACTS29' 헌금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제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 저는 더 이상 주님의 일에 방관자로 있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편지를 쓴 이유는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ACTS29' 헌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서 계산하며 망설이고, '이것주세요, 저것주세요' 하고 구하기만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유옥규 (한강 소망 6순)

해외 선교사 건강관리 체계 구축

연세의료원 - 온누리교회 선교사, 가족 진료비 50% 지원 협약 체결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건강 관리를 위해 온누리교회는 지난 21일 연세의료원과 해외선교사 건강관리 지원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된 내용은 ▷해외선교사의 건강 관리와 진료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 ▷해외선교사의 건강관리비 지원, ▷협력교회의 지정 표시 등이다.

이 협약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146명과 가족 278명이다. 이들은 연세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인 세브란스병원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등에서 선교사 담당 진료의

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에는 우리교회 뿐만 아니라 사랑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등 17개 교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대상자는 선교사 302명, 선교사 가족 608명 등 총 910명이다.

선교사 건강관리 지원 내용과 이용 절차

선교사 건강관리 지원업무는 연세의료원 원목실(02-361-5037)과 의료선교센터(02-361-5038)에서 담당한다.

지원내용은 의원원과 계약된 교회와 선교단체의 모든 해외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배우자와 미혼자녀까지 포함해 치료와 검진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범위는 재료를 제외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50%(보철, 교정의 경우 20%)와 선교사와 배우자에 한해 기본 건강진단검사의 50%가 지원되며, 검진과 치료는 의료원 산하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다.

지원형태와 검진절차는 연세의료원에서 분기마다 지원금을 파송교회에 선교비로 지원되며, 소속교회나 단체에서 '병·의원 진료의뢰서(1·2차 진료기관외뢰서)'를 지참한 후 원목실을 통해 검진을 원하는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파송 선교사 건강관리 지원 협약 운영 배경

연세의료원이 파송 선교사 건강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2년 해외선교사 주제 의료선교주간 행사에서 파송 선



◀▲지난 21일 온누리교회와 연세의료원은 '해외선교사 파송교회 건강관리지원 협약'을 맺었다. 위 사진은 허용조 목사(좌)와 강진경 의료원장(우).



교사 본인과 가족의 건강관리, 파견 지역 풍토병 교육, 정신의학적 도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그동안 외국 파송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는 파송교회와 선교사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기독교계 또는 의료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 파송시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되어 진료비 부담 때문에 수술 등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행사 참석자들은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1차 진료는 대부분 파송교회 소속교인의 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3차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

움이 있으므로 연세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주시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기독교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사명실천의 일환으로 팀을 구성했다.

1년 여의 작업 끝에 진료절차와 관리 등 해외선교사 건강관리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선교활동이 활발한 교회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낸 결과 사랑의교회 등 17개 교회에서 참여의 뜻을 보내와 이번엔 선교사와 가족 등 910명을 대상으로 첫 사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 서철 cho@onnuri.or.kr

[파송선교사 주요 진료과별 담당 진료의사]		
부서	신촌세브란스	영동세브란스
내과	한광협 전재운 이상인(이관식)	장준 안철민(김형중)
소화기	장준	안철민(김형중)
호흡기	민유홍	하성규(박형천)
혈액종양	최규현	하성규(박형천)
신장	박용범	김동수
류마티스	김동수	박민수(손영모)
심장	전우택, 민성길	김찬형
정신과	김동수	윤동섭(이희대)
소아과	김순일	이두연(이교준)
외과	장병철	서경(이병석)
흉부외과	김영태	박윤길
산부인과	박은숙	급기창
재활의학과	서창욱	이재범(성공제)
방사선종양학과	서창욱	최홍식(정명현)
안과	서경	김경희(김기영/최광희)
이비인후과	이호기	김경희(김기영/최광희)
치과	김경희(김기영/최광희)	
△그외 용인세브란스, 치과대학병원,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등		

선교사 지원협약 체결 메시지

'선교사와 가족에게 도움주고 싶습니다'



강진경 의료원장

지난 2002년 연세의료선교주간을 설정해 의료선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계에서 기대하는 연세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118년 전 의료의 불모지인 이 땅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을 위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를 돕기 위해 1년 반 동안 준비했습니다. 선교

사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본인들과 남아있는 가족들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사전에 건강교육을 하고, 안식년에 귀국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하게 파송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병원 경영이지만 우리 병원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한다'는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원이 선교에 도움이 되고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가족을 격려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를 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허용조 목사

요즘 많이 부르는 복음사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베풀어 주는 50% 감면 혜택은 연세의료원 식구들에게 주는 혜택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교

사님들을 연세의료원 식구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의료 서비스 보다 그 사랑의 치유가 먼저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모델이 계속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선교나 목회나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해야 하고,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팀워크를 개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병원이 팀워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모임
 4월 28일(월) 오후 7:00 서빙고 신관 304호
 말씀: 박종길 목사
 연락처: 김화수 팀장(011-448-4262)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인디모)
 5월 1일(목) 오후 7:30 서빙고 홀기도실(예정)
 문의: 김베드로(019-240-922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랍은생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아시아아탐사세미나
 '21C세계선교와 한국교회' (미전도종족선교
 접근전략)
 6월 23일~7월 5일 소아시아 예배소 /안디옥
 강사: 한국교회 지도자, 전략가, 현지교회지
 도자, 선교사 등 다수
 신청마감: 5월 10일(토)
 참가자격: 지역교회 교역자, 선교위원, 선교
 단체 지도자
 참가비용: 약 \$2,100(신청서류 제출과 함께
 등록비 20만원 입금요)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여권 사진2매
 신청서류 제출처: 전문인국제협력단
 문의처 및 제출처: 전문인국제협력단
 Inwon CP 796-3541(교 225번)
 운영팀 간사 (019-433-4694)
 후원: 국민일보, 극동방송, 목회와 신학, 신앙
 계, 크리스천 루터이

은누리 세계선교센터 간사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형제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마감: 5월20일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은누리미션 간사
 선교경험자, 영어가능
 이영희 간사 (793-9686 교 514, 017-316-
 9787)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모집
 선교헌신자, 영어, 컴퓨터, 운전가능자, 형제
 문의: 794-1063

탁아자원봉사자
 일본 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한글강좌,
 아이들을 돌보실 분
 아이들을 돌보실 분
 시간: 매주 월, 금 오전 9:50~오후12:30 (4월
 21일 시작)
 문의: 황혜경 간사(793-9686 교 702)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9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은누리교회

*

01

Why Missions 공개강좌

온누리 선교 정책 소개



평신도를 위한 선교학교 'Why Missions?' 가 오는 5월 10일(토) 선교에 관심있는 온누리성도를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서빙고 비전홀에서 공개강좌를 한다.
10일에는 '온누리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주제로 김창욱 전도사가 온누리교회 선교정책과 2천선교위원회, 김사무엘 목사(온누리세계선교센터 원장)가 온누리 선교사 선발과 훈련을,

김중원 목사가 온누리교회 선교사 파송과 사역관리를 소개한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온누리교회 선교관련 봉사자, 선교위원들과 다과를 나누고 선교에 대해 궁금한 점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교준비의 실제 등을 상담하고 교제할 수 있다.

31일(토)에는 선교의 구체적 참여방법과 활용에 대한 두 번째 공개강좌를 한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루이스 부시 목사(AD2000&Beyond 총무)가 10/40 창 지역 선교에 대해 강의했다.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김태완 간사/owmc@onnuri.or.kr

02

'사스지역 선교사 위해 중보해주십시오'

2천선교본부는 사스 위험지역에 사는 선교사 107명(동북아 84명, 동북아B 4명, 몽골 12명, 싱가포르 7명)에게 사스 안내문과 방진 마스크와 비타민 등을 넣은 선물세트를 보낸다. 2천 선교본부는 "사스지역 선교사와 연결된

순 중 아직 어린아날 선물을 보내지 않은 순은 사스 예방 물품을 함께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 공동체에서 중보해달라"고 부탁했다.

• 문의: 황민식 간사
(793-9686 교 208)

03

ACTS29 헌금 작성

'30개 비전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2천/1만 비전'을 이뤄가는 'ACTS29'를 위한 헌금을 지난 주일(4월 27일)에 이어 오늘 주일 예배시간에 작성한다.

*

2000선교

Turning Point

(단기선교훈련) 훈련생 모집
6월 30일~7월 25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마감: 6월 16일
자격: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피아노 교사, 문화사업, 개인전도, 제자 양육, 노동, 봉사, 컴퓨터 등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취업용: 보건소 진단서는 제외), 추천서 2부 (규정양식에 의거)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6-9085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인디모)
5월 1일(목) 오후 7:30 서빙고 홀기도실(예정)
문의: 김베드로(019-240-922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소아시아팀사제미나

21C세계선교와 한국교회 (미전도종족선교 접근전략)

6월 23일~7월 5일 소아시아 에베소/안디옥 강사: 한국교회 지도자, 전략가, 현지교회지도자, 선교사 등 다수

신청마감: 5월 10일(토)
참가자격: 지역교회 교역자, 선교위원, 선교단체 지도자

참가비용: 약 \$2,100(신청서류 제출과 함께 등록비 20만원 입금요)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여권 사진2매
문의처 및 제출처: 전문인국제협력단
inter CP 796-3541(교 225번)

운영역 간사 (019-433-4694)
후원: 국민일보, 기독교방송, 목회와 신학, 신앙계, 크리스천투데이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간사
자격: 대졸자, 선교현신자, 선교경험자, 형태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마감: 5월20일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온누리미션 간사
선교경험자, 영어가능
이경희 간사 (793-9686 교 514, 017-316-9787)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모집
선교현신자, 영어, 컴퓨터, 운전 가능자, 형태
문의: 794-1063

(성경을 기초로한) 일본어 중급반
매주 화요일 10:00~12:00 서빙고 302호
간사: 강영애 권사
문의: 강영애 권사 (016-752-0377)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801-93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국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사도행전 29장”



하 용 조 목사

본문 : 사도행전 13장 1~3절

30개 비전교회 헌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디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게로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도행전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지난 18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누리교회가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헌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 열한명을 불러 모으시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동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며칠 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능력과 비전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라” 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제자들은 두 가지 명령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곧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님의 강령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심히 놀라고 기뻐하며 이성과 인격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면,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환희, 감격,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면에서 옛날과 달라졌으며 힘써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예루살렘교회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를 하면,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3천명이나 세례를 받았습다. 기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일사 안으며 함께 춤을 쳤습니다. 1966년에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너무 기뻐서 아무나 붙잡고 껴안으며 악수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엄청난 흥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남자 성도가 5천 명이라 했으니 전체 성도는 아마 2만 명은 족히 넘었을 것입니다.

지금 온누리교회는 성도 3만명이 예배하기 위해 주일에만 두 시간 간격으로 일곱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의 질서와 헌신이 따라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루살렘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체계가 잡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 공동체는 기적처럼 움직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특이한 것은 지도자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평신도 지도자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명한 순교자 스테반이 등장합니다. 한 교회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필요 합니다. 한 민족에게도 순교자는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초대 교회에 있는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사람이 많아도 순교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생

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 단둥에서 선교사 한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순교자들이 도처에서 나와야 합니다. 8장에서 유명한 전도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9장에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지성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도에 바쳤습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평신도였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히브리즘과 헬라이즘, 유대인과 헬라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온누리교회도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들을 통해 역사에 남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든 전도자든 평신도든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헤어질 때

한편, 사도행전에 예루살렘교회가 핍박을 받는 사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핍박은 한마디로 복입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복의 서곡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리더십, 경제, 통일, 질서 등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복의 서곡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나 고난 앞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자신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선교, 전도, 헌신의 영적 리더십으로 곧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논리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핍박을 받고 활활이 불어졌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18년만에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2천만 순교를 부르짖었고 기도하며 여러 사역들

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핍박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도들을 흠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흠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흠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 소망 등을 나누고 흠여질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흠여짐은 외로움이고 나눔은 고통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수도에 있는 대형 교회라면, 안디옥교회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교회의 중심에는 안디옥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출발은 안디옥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스스로 생겼고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하면서 눈물겹도록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안디옥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에 인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과 기도로 이뤄집니다. 안디옥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었고, 바나바의 사랑을 계속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안디옥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바나바와 바울은 1, 2,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은 안디옥교회로 돌아오지 못

성령님 음성에 순종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처럼 30개 비전교회로 사도행전 이어가야

일러스트레이션 최 정 훈 / www.illustration.co.kr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코 환영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살의 소망을 잃고 마음의 사형 선고 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변했습니다. 유럽, 미국도 변하게 했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따르라'

저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30개 비전 교회의 기점을 만들고 계심을 느낍니다. 예루살렘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이지만, 안디옥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2천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30개 비전 교회로 2천 개 교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비전에 포함돼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모든 지역의 민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자주 건강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생겼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일로 갈등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건강에 한계는 와서 많이 갈등했습니다. 이를 두고 오랜 시간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모델로 해서 따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18년 동안 고백해 온 이전만 비전은 말뿐인 믿음의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가진 것 모두를 투자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땅, 북한, 중국, 일본 등이 살아날 것이고 나아가 세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기에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꿈에 그러던 로마로 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로마로 가야 한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의 뜻

을 사도 바울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중앙아시아와 에게해를 지나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테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등지를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시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기아와 질병에 상관없이 마음속에 계속 불타오르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려는 열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열정보다 세 배가 큰 열정이 온누리교회에 부여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멋진 행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여행 경비를 들이지 않고 후송하는 자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나고, 독사를 만나고, 위험을 만났을 때도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묶어두었다가 로마에서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집니다. 28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말씀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도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

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28장 30,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30개 비전교회는 시작일 뿐

저는 사도행전의 끝이 조금 섭섭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세례식을 행하고 성만찬을 나누며, 손을 만들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개척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유럽을 형성하였고 종교 개혁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에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사도행전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마다 기분이 좋고 재미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고 싶은 교회와 사람, 역사,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신호로 대형 교회를 짓지 말고 선교지와 교회가 없는 곳과 사도행전적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2, 3년 동안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 단둥,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고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고 해도 예전처럼 말리지 않고 세우라고 합니다.

어제 장로님에게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온누리미션에서 네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조국에 교회 세우기 위해 5만 달러를 작성하고 벌써 1만 2천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도와주고 목회자를 훈련시켜 주다

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지난 주 부활절에 한 자매님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매님은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과정에 있다가 2년 전에 언니가 대장암으로 죽는 바람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근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다리를 절단할 지도 모를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매님이 유학 시절에 모았던 비상금 3천 달러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자매님이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도 근육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매님은 현금과 함께 편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자 온누리 신문에 사연을 게재하게 했습니다.

또 분관 1층 사이닝 글로리 식당에서 책임을 맡으셨던 집사님이 일본에서 지내시다가 눈막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집사님이 비전 헌금하는 날이라고 딸에게 1천만 원을 보내 오셨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시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집사님을 생각하며 저는 그 현금을 받아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성하는 30개 비전 교회 헌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도행전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지로 떠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8년 동안 온누리교회에 대가없이 많은 복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이제 온누리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되게 하시고, 헌신과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1



아프리카 자선음악회

5월 17일(토) 오후 6시 양재 사랑성전에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어린이를 돕기 위한 음악회가 오는 5월 17일(토) 오후 6시 양재 사랑성전에서 열린다. 테너 최승원, 이동현, 바리톤 우주호가 출연하는 이번 음악회의 입장권은 서빙고, 양재 서점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시에라리온은 2003년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가 밝힌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1천명당 3백16명). 또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1천명당 5명, 북한은 1천명당 55명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 서철 chol@onnuri.or.kr

02

러시아어예배 창립 3주년

러시아어예배가 창립 3주년을 맞아 5월 4일 오후 4시 선교관 302호에 러시아어예배와 온누리미션 지체 80여 명이 모여 창립 3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온누리 미션은 안산 쉼터 러시아어 예배

를 위해 이준 전도사를 안산 쉼터로 파송했다. 러시아어예배는 2000년 5월 7일 창립예배를 드렸고 현재 약 70명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장점을 기르십시오”



루이스 부시 목사 (현 AD2000&Beyond 총무)

세계교회의 21세기 선교방향에 대해 논의한 월드 인콰리(World Inquiry) 국제대회(5월 7~9일, 용인 휴먼센터)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루이스 부시목사(현 AD2000&Beyond 총무)를 만났다. 국제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 총재로 있으면서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을 통해 10/40 창에 있는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강조해 온 루이스 부시목사는 지난 3일 평신도를 위한 선교학교 'Why Missions?'에서 선교의 당위성과 선교 방향성에 대해 강의했다. <관련기사 6면>

◎ 10/40 창에 있는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강조해 오셨는데 그동안 성과를 말씀해주십시오.

... 첫째 미전도종족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교회와 서로 협력해 일을 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협조체제 가운데서 동서남북에 있는 교회가 서로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둘째는 10/40창에 있는 미전도종족을 위한 중보기도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미전도종족을 향해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고 많은 교회가 미전도종족을 임양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넷째는 한 번도 예수님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말씀 뿐 아니라 구조활동, 공휴 사역으로 말과 행동이 하나로 증거됨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던 10/40창에 있는 많은 민족과 나라에 교회가 꽃이 피듯 일어났습니다.

◎ 21세기 선교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다가올 수 년 사이 지금까지 해온 선교정책과 방

향에 대단히 색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변천기입니다. 지금 있던 자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징조는 많이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월드 인콰리 국제대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 이 선교정책에 따라 한국교회와 온누리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 교회의 장점을 살리십시오.
- 창조성과 실력을 키우십시오.
- 은사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를 만드십시오.
- 열린 마음 자세를 가지십시오.

... 첫째 교회 실력을 기르십시오. 자신이 잘 하는 강점을 키우십시오. 예를 들어 온누리교회는 체계적으로 제자양육을 잘하고 있는

데 그런 것을 키우십시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창조성과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서방 교회나 비서방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를 만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마음 자세를 가지십시오.

/ 전성희 shee@onnuri.or.kr

사스지역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기도제목

- 사스(SARS)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오염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소서.
-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별되어 그 땅 백성들이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소서.
- 선교사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박관태/정수경 (단기-몽골-TIM)

사스 때문에 정부가 교회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이때 교회가 더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30분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흠뻑이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국인 선교사들이나 현지 지도자들이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가 더욱 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교제가 더 깊어지고, 교회의 기본단위가 되는 소그룹들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실/최은희 (후원-동북아-HOPE-성동광진)

현지교회모임이 부흥하고, 동부모임의 건강한 가정들이 성감에 지지 않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내길 기도합니다. 아파트에서 지도자 훈련모임을 하는데 보안문제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사역자들과 훈련생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모임



“온누리미션은 불교나 이슬람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서 예배 안에 영적전쟁이 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일 정도로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이경희 간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모임이 온누리미션 사역을 하며 ‘기도해야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 생겨났다고 말한다. 임금문제, 취직문제 등 실질적인 기도제목이 많아서 기도응답도 즉각 일어난다. 이 간사는 “매주 취직자라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것이 응답된다”며 ‘97년에 온누리미션에 외국어에

“기도해야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배가 10개 생기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현재 9개 예배가 생겼다”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이라고 고백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선교관 306호에서 온누리미션 담당 목사인 김홍주 목사, 온누리미션 간사, 담임 장로, 외국인 사역자와 내국인 사역자들이 모여 기도모임을 한다. 기도모임은 찬양과 말씀, 기도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큐티 본문(출 26:1~14)으로 김홍주 목사는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방 5미터의 좁은 성막에 내려오셨다”고 말하는 김목사는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닮아 외국인 근로자 형제, 자매가 아파하는 지리로 낮아져 겸손하게 섬기면 열매가

맺힐 것”이라며 온누리미션이 낮아지는 사역을 하길 권면했다.

설교가 끝난 후 각 사역과 예배별 월터 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예배 부서가 다르다 보니 이 기도모임

에 와서야 온누리미션 사역자가 다 모인다. 담당 간사와 사역자가 기도제목과 함께 상황을 설명하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서로 나누고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한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몸을 정결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 찾아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기 위해 사역자들은 매주 자신을 정결히 정비하고 있다.

김홍주 목사는 “외국인 사역자와 함께 기도모임을 진행하다보니 언어 때문에 매끄럽게 진행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외국인들이 참석해 찬양, 말씀, 간증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회망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루이스 부시 목사 세미나



선교는 왜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1:7)

둘째, 예수께서 피를 흘려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지혜와 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엡 1:8)

다섯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한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선교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반드시 짧아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9절) 일곱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부르는 부르심 때문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늘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첫째, 여러분이 세운 리더가 부담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인 하 목사님이 가진 부담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부담으로 가져야 합니다.

둘째, 부흥의 현장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돌아켜보면 선교는 반드시 부흥에서부터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경고’는 영어로 ‘비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전을 성취하는데 여러분이 부딪힐 장애물을 예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소명을 이뤄나가다 보면 반드시 반대 세력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세계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선교가 시작하는 모든 일을 방해합니다.

셋째, 이 비전이 성취할 역사를 바라보아

목시를 편에 파내어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선교입니다. 한 사람이 비전을 받으면 많은 사람에게 그 받은 비전을 전파해야 합니다. 만약 환상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면 결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전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꽃이 필 것입니다.

다섯째, 내일을 향해 움직여야 합니다. 예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미래, 그것이 곧 선교의 종착점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과 19절처럼 모든 민족이 모이고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여 마지막 축제를 드립니다. “보좌 위에 앉은 어린 양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 이것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광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개인적인 작은 선교가 같은 원칙 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축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선교에 마지막 때에 와 있을 것입니다. 선교의 마지막 때에 처한 우리가 오늘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일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그 날은 모르지만 그 날이 오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 정리 : 전성희 shee@onnuri.or.kr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쇠신되고 새롭게 됐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부담을 계시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셋째,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 변두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특이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한 작은 결정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해도 믿어지지 않을 놀라운 일을 내 생전에 하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압의 세력이 행어올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넷째, 이 비전의 개화입니다. 비전이 개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의 음성 듣는 순종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

 **2000선교**
Turning Point (단기선교훈련) 훈련생 모집
 6월 30일~7월 25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마감: 6월 16일
 자격: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미아노 교사, 문화사업, 개인전도, 제자 양육, 노총, 봉사 컴퓨터 등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취업용; 보건소 진단서는 제외), 추천서 2부 (규정양식에 의거)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 소아시아 선교의 밤
 5월 14일(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5호
 말씀: 최바울 선교사 / 간증: 현지인
 출연: CCM가수 워킹
 주최: 온누리교회와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 Inter CP
 문의: 017-278-3376 / 011-266-3297(섬김팀)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
 5월 19일(월) 오후 7:30 선교관 B1 기도실
 말씀: 박영환 선교사(방글라데시)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5월 26일(월) 오후 7:00 양재 시온홀
 주최: 소아시아 공동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매주 수요일 오후 7:00 /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R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간사
 자격: 대졸자, 선교현신자, 선교경험자, 형제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마감: 5월20일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온누리미션 간사
 선교경험자, 영어가능
 이경희 간사 (793-9686 교 514, 017-316-9787)

두란노 해외선교회(TNM) 간사모집
 선교현신자, 영어, 컴퓨터, 운전가능자, 형제
 문의: 794-1063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신한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

인도예배 시작

매주일 오후 2시30분 서빙고 302호

인도예배(Onnuri India Service)가 지난 주일(11일) 발족예배를 드리고 온누리미션 내 외국어예배로 정식 출범했다. 서빙고 선교관 302호에서 오후 2시 30분 열린 창립예배에 2천선교팀과 온누리미션 지체 60여 명이 참석해 케이크를 자르며 예배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심상달 장로가 대표기도를, 베이컨 브리치 목사(트리니티 신학교 구약학 교수)가 설교를, 김창욱 전도사가 축사를 했다. 김홍주 목사와 온누리미션 장로, 예배 참석자들은 앞으로 인도 예배를 섬길



담당 교역자 이지트 목사와 김준상 집사, 그 외 인도예배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지트 목사와 인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지난 4월 6일부터 인도예배 창립을 위한 기도모임을 해왔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한국에 있는 4천 인도인 전도하겠습니다”



이지트 목사

신학공부를 하려고 6개월 전 한국에 와보니 한국에 있는 많은 인도인들

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한국에 오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제게 “인도에

배를 시작해보면 어떻겠나?”라고 권유하셨고 작년 10월 양재성전에서 인도인 신학생 5명이 모여 인도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서빙고에 장소가 생겨 정식 인도예배가 발족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려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많은 인도인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인도예배를 받아주셔서 기

쁩니다.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인도인이 4천 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학생들과 함께 이들을 찾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인도예배와 인도인을 위해 많은 온누리 성도님께서 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십시오”

단기선교훈련생 모집

온누리세계선교학교가 제 2기 단기선교사 훈련을 준비하고 선교에 비전을 가진 성도들을 초청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뜻을 발견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단기선교사 훈련은 6월 30일부터 온누리세계선교센터(경기도 용인 양지 소재)에서 4주간 진행한다.

심리상담, 공동체 훈련, 단기사역의 실제와 위기관리, 선교학 기초 등 선교훈련을 받고, 훈련학교를 마친 성도는 견습 선교사나 단기 선교사로 허입되어 선교지로

파송된다.

온누리세계선교학교 관계자는 “선교에 비전이 있고 단기 선교사로 선교현장에서 섬기고자 하는 성도와 선교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장기 사역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접수마감: 6월 16일(월)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owmc@onnuri.or.kr

• 홈페이지: www.owmc.or.kr

/전성희 shee@onnuri.or.kr

1만사역자 파송



임문섭



고일욱



이토타이치



김경옥

오늘 서빙고 2부 예배(오전9시)에서 임문섭 고일욱 부부(미국),

이토 타이이치 김경옥 부부(일본)를 1만해외사역자로 파송한다.

아웃리치 기능스쿨 개강

대학청년부에서 여름 아웃리치를 대비해 “아웃리치 기능스쿨”을 개강한다. 이번 스쿨은 아웃리치에 가서 효율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을 배우며 전도에 대비한다.

기능스쿨에서는 워십댄스, 전자침, 발마시지, 촬영, 찬양인도법,

풍선아트 등 여러 분야를 마련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청년들과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

• 문의: 여호수아 궁홀다락방

권혁준(019-223-5685)

/ 한승현 ruby@onnuri.or.kr

온누리가 이어가는 사도행전

Acts 29

http://www.onnurinews.com

2003년 5월 18일(주일) | 제437호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 1:4)

- 도미니카 선교 마친 이육연 선교사의 고백 -

“천국의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육연 선교사

‘빠스돌 리’ 도미니카로 떠나다

예수 여덟의 나이에 초보선교사로 떠난 이육연 장로. 그가 도미니카 선교사가 될 줄은 본인을 비롯해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그의 새로운 출발은 도미니카의 한 성도의 기도로 시작된다.

하나님은 1969년 말 도미니카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던 한 성도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성도는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자신의 교회를 부탁했다. 곧이어 당시 두란노해 외선교회(TIM) 총무인 이육연 장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선교사를 찾기 시작했지만 교회가 외진 곳이라서 자녀 교육 문제를 염려한 선교사들이 선택 지원하지 않았다.

“마침 극동방송에 다니면서 시작한 신학 공부를 마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나 보고 가라는 뜻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1984년 30년 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해군 대령으로 예편, 대전극동방송 초대 국장, TIM 총무로 섬기던 이육연 장로는 2001년 5월 27일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해 6월 15일 초보 선교사가 되어 도미니카로 떠난다. 1934년 4월 15일(음)생인 이육연 선교사는 예수 여덟이 되는 해 미지의 땅 도미니카를 밟은 것이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다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2시간 30분가량 떨어진 마교리스 교회. 그곳에는 20~3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협력선교사인 이철영 선교사가 한국으로 떠난 뒤에는 직접 에스파니아어로 설교를 해야 했다. 영어로 설교문을 만들고 에스파니아어로 번역을 맡았다.

일주일일 종일 설교준비를 해야 했다. 두 동네에서 외진 교회를 찾아온 아이들을 위해 찬송을 부르고 급식을 했다. 급식 때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손을 벌리는 어린이들로 전정터와 같았다. 아이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를 찾아왔다. ‘빠스돌 리’(이 목사님)하며 찾아온 아이들은 물, 빵, 주스, 과자 등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이선교사는 놀면서 다친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머리도 깎아주었다.

어느 날 이선교사와 나이가 비슷한 ‘모레노’라는 노인을 만나 전도했다. 미국에서 노동을 했던 모레노는 한 주일로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왔다. 모레노는 도미니카 초보선교사의 기쁨이 되었다. 이어 도미필라, 이벨리세, 난, 로버트 성도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다.

이웃 마을에서 오는 아이들은 예배가 거의 끝날 때 도착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선교사는 이웃 마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다. 아이들 이야말로 도미니카의 씨앗이었다. 생명이었다. 학교도 없는 이곳에 교회는 이 아이들의 미래였다.

가슴에 묻은 사람들

이선교사는 장모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소식에 한국에 들어올 것을 결심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모레노에게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겨우 입을 열어 말을 꺼내자 아이들은 이선교사를 붙잡고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죄책감이 들었다. 늘 넉넉하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한 것, 선교사로서 도미니카 땅에 뼈를 묻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눈물이 흘렀다. 군인인 자신을 뒷바라지 하며 거의 40년간 부모님을 모신 아내(김정숙 사모)에게 차마 선교지에 가자고 말할 수 없어 주저하던 일, ‘앵’이라고 불리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모기에게 물려 빨간 반점이 온 몸에 자주 생기기 시작했던 일, 갑자기 몸이 아파 현지에서 수술을 받았던 일, 병원에 계신 장모를 남겨두고 떠나 남들에게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선교지로 떠나야 했던 일, 이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렀다.

분향을 향한 소망

이육연 선교사는 1시간 가량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줄곧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무엇이 평범하게만 보이는 이 노인을 울게 하는 것일까?

“교회와 아이들, 모레노가 마음에 발붙입니다.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선교지로 떠날 때 문지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천국의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문지기가 되어 그 아이들, 모레노를 천국에서 제일 처음 맞고 싶습니다.”

노 선교사의 눈에 빛이 보였다. 건강도, 상황도, 나이도 상관없었다. 그 마음은 도미니카 어느 시골 교회 어린아이들, 모레노와 함께 뜨거운 햇살 아래 뛰고 있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진리, 생명에는 다른 것이 넘볼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이육연 선교사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서철 chol@onnuri.or.kr



“황폐한 아프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싼다”



을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현지를 정탐하기로 했다.

아프간 정탐

2002년 5월 7일 김창욱 전도사(2천선교)와 장선철 편집장(온누리신문)으로 구성된 1차 정탐팀이 아프간을 향해 출발했다. 1차 정탐팀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통해 육로로 아프간 국경을 넘어 카불과 마자르 지역에 들어가 우즈베크 병원, 마자르 지역 초중학교, 난민촌, 카불 대학, 유니세프 지원학교 등을 방문하고 18일 귀국했다.

2차 정탐은 5월 20일~29일 하용목 목사, 박종렬 목사, 이재훈 목사 등 5명이 파키스탄과 카불을 다녀온 것이다. 이 정탐에서

부 공무원 23명이 코이카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온누리교회는 민간회를 마련,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의료상 자동 선물을 주며 환대했다.

2002년 8월 비전헌금으로 파키스탄 파이씨교회에 의자, 피아노, 신시사이저, 강대상 등 물품을 지원했고 카불 병원에 담요, 난방기구를 지원했다. 9월에는 아프간을 위한 사랑의 콘서트를 열었다.

본격적인 아프간 NGO 사역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 손정래 장로와 장기선교사 1명, 견순선교사 3명이 아프간으로 떠났다. 이들은 아프간 정보문화원 산하 문화센터에서 미술, 컴퓨터를 강의하고, 한 마을을 지정해 마을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학교 시설 보수, 보건소 형태의 시설을 만들어 의료진료, 식수 부족 해결을 위한 우물 개발 등 새마을 운동처럼 환경을 개선해 타 지역에 이런 사역이 확산하길 기대한다.

아프간 NGO 사역

두란노해외선교부는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를 2003년 1월 1일 아프간 현지 NGO로 등록했다. 손정래 장로와 장기선교사 1명, 견순선교사 3명으로 구성된 아프간 NGO 개척팀이 출국했다. 개척팀은 아프간에 NGO 사무실을 얻고 수리 중이다. 5월 20일 오후에는 아프가니스탄 문화정보부 장관이 배석해 문화센터 컴퓨터 기증식을 한다. 컴퓨터 10대, 프린터 2대, 스캐너, 미술용품 등을 문화센터에 기증하고 화장실과 교실도 수리한다.

아프간 문화센터는 현재 학생들의 영어교육과 미술교육에 중점을 둔다. 문화센터 컴퓨터반은 50명 정도가 수강하지만 컴퓨터는 한 대도 없다. 강사는 궤도에 그쳐서 설명을 한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컴퓨터를 기증하고 보관 관리해 지속적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역에 헌신된 일꾼과 현지 동역자를 찾는 일이다. 또한 온누리 성도가 지속적으로 아프간에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관심과 중보를 끊이지 않고 보내는 것이다.

/전성희 shee@onnuri.or.kr

현재 이라크 사후 복구를 지켜보면 얼마 전 아프간의 처지가 떠오른다. 영국에서 독립 후 내전과 소련과의 전쟁, 탈레반의 공포정치, 2001년 아프간 전쟁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끊임없이 이어진 폭동, 살육, 전쟁으로 아프간 국토는 황폐해졌고 인권은 유린당했다.

연달아 날아 온 전황 소식 뒤로 아프간 난민 어린이 40여 명이 난민촌에서 한파에 얼어 죽은 사건을 비롯해 아프간의 참상이 세계에 전해지자 이 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손길이 모였다. 온누리교회도 아프간을 섬기기로 하고 4차례에 걸친 탐방,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 현지 NGO 사역 등록, 카불 아비스나 병원에 담요와 난로를 보내는 등 아프간을 돕고 있다.

온누리교회 아프간 사역

2001년 11월 한 집사가 아프간에 전해달라며 2천만 원을 헌금했다. 온누리교회는 당시 파키스탄 대사인 윤지준 대사에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에 헌금과 함께 미화 1만5천5백 달러를 전달했다. 우선 온누리교회는 효과적으로 아프간

알카에다 자살테러로 5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당한 파키스탄 PIC(Protestant International Church)를 방문했고 아프간 정부 각료 5명을 만났다. 2차 방문 후 PIC교회에 비전헌금을 했고 7월경 아프간 각료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3차 정탐은 7월 12일~22일에 있었다. 김중원 목사, 이윤룡 장로, 김광선 장로, 손기철 집사가 파키스탄과 아프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두 차례 정탐에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2002년이 며칠 남지 않은 때에 동서문화개발교류회를 아프간 현지 NGO로 등록하려고 손정래 장로가 아프간 4차 정탐을 갔다. 2003년 새해 첫날 온누리교회는 아프간 NGO 등록에 성공했다.

그외 사역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는 2002년 7월 30일 코이카(KOICA)를 통해 NGO에 등록했다. 2002년 7월 아프간 차관급 주요인사 방문이 있었고 10월 농업지도자, 11월 여성지도자, 2003년 3월 공무원 행정연수과정 참석자, 4월에는 상무

■ 아프간 현지 손정래 장로와 인터뷰



순조롭게 사역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4월 16일 아프간 현지에 도착한 우리는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 아프간 현지 사무소와 숙소를 개설하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문화센터에 교실 2개와 컴퓨터, 만화, 미술 3개 과목을 허가받았습니다. 10세부터 16세를 대상으로 6월 말경 개강할 것입니다. 5월 20일에는 컴퓨터 기증식이 있습니다. 둘째, 한동대에서 유학할 아프간 학생 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개선 사업을 할 농촌 마을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7, 8월 경에 확정할 것입니다. 5월 19일부터 의료선교아웃리치팀이 아프간 농

촌마을 다니며 의료사역을 할 것입니다. 가지고 오는 여러 의약품이 잘 도착하고 아프간 의료 사역 활동 허가를 순조롭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부관계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세명 모두 현지에 적응하느라 배앓이를 했습니다. 물도 다르고 좋지 않은 공기와 아침·저녁 15도 이상 나는 일교차 때문에 기침이 심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 우리가 조금만 얘기해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과 사역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현지인을 잘 만나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성령충만하도록, 그리고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아프간 지원 주요 일정 ◆

- * 2001년 11월 7일 이○○집사 2천만원 헌금
- * 2002년 5월 7일~18일 아프간 1차 정탐
- * 2002년 5월 20일~29일 아프간 2차 정탐
- * 2002년 5월 31일~6월 13일 아프간 사진전
- * 2002년 6월 4일 현지 '카불 타임즈'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 소개
- * 2002년 7월 12일~22일 아프간 3차 정탐
- * 2002년 7월 30일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가 NGO로 등록
- * 2002년 8월 11일 비전헌금
- * 2002년 9월 28일 아프간 위한 Love 콘서트
- * 2002년 12월 20일 KOICA 아프간 지원 사역비 동서문화개발교류회에 배정
- * 2002년 12월 20일~2003년 1월 17일 아프간 4차 방문
- * 2002년 1월 1일 아프간 현지 NGO 등록
- * 2003년 4월 12일 아프간 NGO 개척팀 출국
- * 2003년 5월 18일 아프간 단기 의료 아웃리치팀 출발(5/18~26, 8박9일)

초대교회의 소박함과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헤브론 교회의 역사

온누리 네팔예배를 인도하던 개비라이 목사가 1998년 귀국해 두 번째 개척한 것이 헤브론 교회다. 첫 번째 교회는 자기 집 옆에 벽돌로 된 80명짜리 단층건물을 짓고 시작했으나 후임교역자와 갈등으로 자신이 지은 교회를 양보하고 다른 마을의 논 2백 평을 사서 지은 교회다. 헤브론 교회를 지어주고 든 1천5백만 원은 개비라이 목사와 네팔예배에서 성금5백만 원과 개비라이 목사의 소식을 들은 한 성도가 7백 여 만 원으로 마련했다.

성도들이 직접 벽돌을 쌓아 지은 건물은 이전 교회에 비해 규모가 작고 시설도 부족하지만 고난을 겪은 후라서 그런지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가족을 포함한 12명에서 시작한 교회가 3년 만에 등록교인이 2백 명으로 늘었다. 이는 국교가 힌두교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헤브론 교회는 건물이 작아 교자 30

여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 교인이 교회 문 밖 마당에서 찬양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역 내용

헤브론 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사역, 여성사역, 청년부, 산골마을 전도, 사역자 양성 등 풍성한 사역을 하고 있다. 토요일에, 주일학교, 청년부, 새벽기도,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이 교회 내에서 계속 열리고 일대일과 TEE, BEE 세미나로 양육사역도 활발하다. 네팔어로 된 BEE 교재로 99년 1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강의를 개설했다. 조문상 선교사가 BEE 세미나를 강의하고 있다. 네팔어로 번역한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도 한국에서 가져가 일대일양육을 했다. 주중에는 네팔 고지 산 속 마을을 찾아다니며 전도한다. 파스를 지역과 파블레중 지역에서 복음 전도자 2명이 사역하고 있다. 개비라이 목사와 이들은 걸어서 1,2주일이 걸리

는 산 속에 다니며 BEE 세미나를 인도하고 양육을 한다. 미전도종족인 디말족을 선교 대상으로 전하고 선교사역을 시작했다. 헤브론 교회 교인들은 가난하지만 교인 중 80%가 십일조를 낼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있다.

개비라이목사는 자신이 받는 선교비를 전임사역자 두 명에게 나눠주고 함께 사역한다. 1명은 파블레중을 한 명은 디말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 네팔은 한국 교회처럼 당회장 중심사역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사역하므로 집사적 5, 6명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헤브론교회는 실라스, 건가, 수실 세 젊은 사역자가 행정, 컴퓨터 등 개비라이 목사의 사역을 돕고 있다.

주변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헤브론교회

네팔은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으나 기독교를 전도하거나 포교하

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전도하다 적발되면 징역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에는 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없다. 헤브론교회가 BEE 세미나를 시작할 때 헤브론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근 30개 지역 교회 지도자를 초청해 1달여 교육을 했다.

동네팔에는 카스트 4세에도 속하지 않는 불가촉천민으로 구별해 천시하는 디말족이 있다. 헤브론 교회는 자기 교회 부흥에서 그치지 않고 디말족을 품고 선교사역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헤브론교회에 이 12명이 나와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처럼 헤브론 교회는 신학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네팔에서 온누리교회 양육프로그램과 세미나를 전파하고 교회 부흥을 선교로 확장해 주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역교회에도 전을 주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헤브론교회 개비라이 목사'



개비라이 목사

네팔 오지에서 출생. 청년시절 복음을 받아들여면서 가족과 고향의 배타적 정서에 부딪쳐 자기 가족을 데리고 울라바리 지역에서 6개월간 신앙훈련과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울라바리에서 교회를 개척하던 중 1989년 네팔 개신교 핍박기에 신앙을 거부하지 않는 죄로 감옥에 투옥됐던 적도 있다.

- 1994년 한국 외국인 노동자로 입국. 네팔에서 신앙생활을 한 형제 3명과 함께 한국에서 근로자 생활을 하는 네팔 형제를 돕는 모임을 결성.
- 1998년 12월 네팔로 귀국
- 1998년 11월 헤브론교회 개척

'내가 본 개비라이 목사'

개비라이 목사님은 본국에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나, 한국 노동자로 오셨을 때나, 귀국해서나 힌두교 국가에서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선한 제자로 섬기고 계십니다. 한국에 계실 때를 회고해보면 항상 순화한 성품으로 형제들을 섬기셨고 전도와 예배를 성실히 섬기는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형제들과의 깊은 관계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현재 온누리교회 네팔예배가 생명력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영기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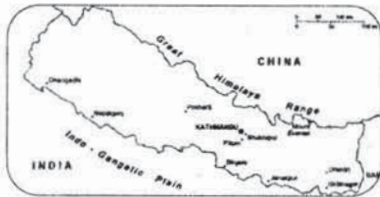
▣ 네팔 복음화를 꿈꾸는 사람

넴방 형제

동네팔 파블레중 지역 림부족 출신인 넴방 형제는 그 지역 유지 아들이다. 3년 전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자기 부족 전도에 사역해줄 복음전도자 2명을 림부족이 거주하는 산지에 자비로 파송했다. 넴

방 형제는 개비라이 목사님께 복음전도자를 보내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며 그들의 사역비를 후원하고 있다. 부인과 함께 기독교도가 됐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박해받고 핍박받지만 림부족을 위해 굶고 없이 기도하고 사역하고 싶다고 말한다.

■ 네팔이란?



- 면적: 14만7181km²
- 인구: 2천528만4천명
- 인구밀도: 171.8명/km²
- 정식명칭: 네팔왕국(kingdom of Nepal)

- 수도: 카트만두
 - 공용어: 네팔어
 - 히말라야 산맥 남사면에 동서로 길게 위치해있다.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마나슬루 등 8천m가 넘는 고봉들을 8개나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많은 산악인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다. 네팔의 우기는 6~9월이고 1월 평균기온은 11℃, 7월평균기온은 25℃이다. 전국도 중경지는 17%, 초원은 15%이며, 산리지대가 절반에 가까운 42%를 차지한다.
 - 주민
- 남방 인도 아리아계가 80%로 주류를 이루고 북방으로부터의 몽골계(系)·티베트 인종이 17%를 차지한다. 주요

종족은 부티아족(族), 마가르족·구롱족, 네와르족·구르카족, 랍차족·림부족 등이다.

• 사회

종교는 헌법에 국교로 명시한 힌두교가 86%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불교(8%), 이슬람교(4%)를 믿는다. 주민의 생활양식은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힌두교도의 카스트제도(신분제도)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신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1963년에는 카스트제도를 폐지하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사회 내에는 여전히 카스트 의식과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성인(成人)의 문맹률은 1997년 현재 60%에 달하고 있다.

우리 사역이 아프간선교 밑거름 되길...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치유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프간을 회복시키려고 아프간 단기 의료 아웃리치팀이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의료선교를 떠난다. 의사, 간호사, 약사, 통역, 중보기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카불 인근에서 치과와 내과 의료진료를 할 예정이다. 아프간을 향한 첫 아웃리치팀이기에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현지 정탐과 정보수집도 한다.



▲ 아프간 아웃리치팀은 아프간의 영혼을 위해, 의료 사역을 하기 전 스스로가 먼저 충만하도록, 진료할 의사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기도했다.

◎ 아프간 아웃리치를 결심한 동기는?

박지용 : 일본에서 3년간 살면서 주위에 교회도 없고 환경도 안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국해 아프간 아웃리치팀 모집을 보고 취직하기 전에 갔다 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료 아웃리치라고 해서 제가 참가할 자격이 되는지 걱정되더군요. '물이라도 나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노현숙 집사 : 예전부터 동남아분들을 보면 무척 반가웠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프간 아웃리치를 하기 전부터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전에 예배 중 하용조 목사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아프간을 섬기려 하고 있고 아프간으로 갈 헌신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다 신문에 난 아프간 아웃리치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 아웃리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렵돈'을 말씀하시며 없는 가운데 헌신하라고 하시고 저의 순종에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채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도저히 간다고 말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주시듯 조금씩 채워주셔서 딱 아웃리치 갈 만큼의 비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두희 : 제가 시골에서 어렵게 성장한 영향인지 예전 군의관으로 있을 때부터 의료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68년 병원을 개업한 후부터 제 병원에 찾아오는 교역자, 신부님, 수녀님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병원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쉬고 있는데 아들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알려주더군요.

장진희 : 뉴욕에서 직장을 다니다 몇 달 전 한국에 파견 나왔습니다. 장래문제로 고민하다 청년부 새벽기도 수련회에서 한홍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인생에서 작전 타임을 할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고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까 하고 생각하던 중 온누리홈페이지에서 아프간 아웃리치 광고를 보고 기간이 맞아 선택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40일 새벽기도를 나간 것도, 선교를 가는 것도 처음입니다. 제가 조종하던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부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순간, 매일 하루하루가 바로 소중한 체험입니다.

◎ 가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박지용 : 아프간 아웃리치 팀은 의료사역과 그 외 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사역 파트는 의사와 간호

사, 치위생사, 약사로 치과와 가정의학(내과)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며 그 외 사역팀은 생활과 간식, 중보, 통역을 맡습니다.

어린이 사역같이 다른 사역도 할까 했는데 아프간 정부에서 의료사역을 원하고 있어 아마 다른 사역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힘을 의료에 집중하려 합니다. 의료 사역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박성현 : 현지 상황 리서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의료사역을 하는 곳도 베이스와 문화센터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아프간에서 이런 아웃리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의료부분만 해도 수많은 약과 병이 있는데 아프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약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료사역을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할 것이고 저희가 모은 정보들이 앞으로 아프간 사역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장진희 : 저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많지만 그쪽 주민들의 문화쇼크를 우려해 못가지고 가는 물품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료를 보여줄 때 흔히 사용하는 빔프로젝터도 그쪽 사람에게는 낯설기 때문에 궤도로 대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장기간 사역하는 선교사님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구영 : 2년 전 아프간 전쟁이 나기 직전인 탈레반 정권 시절 아프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탈레반 정권에서 모든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성은 부르카를 벗고 맨얼굴을 드러내지 못했고 남성은 자기 마음대로 수염을 깎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 없어서 몰래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아프간 주민들은 순박하고 대접하기 좋아하는 성품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간은 우리나라 1백년 전과 참 비슷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가 쓰개치마쓰고 다니는 여성들을 보고 느꼈던 것과 제가 아프간에서 느낀 것이 비슷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백년 전 외국인 선교사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들고 가려 합니다.

◆ 기도제목 ◆

- 일회성이 아닌 평생 아프간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많이 생기길
- 아프간에 온누리교회와 병원이 설립되길
- 아프간이 중증 지역 복음화의 통로가 되도록
- 여러 공함을 거쳐 가니 사스나 그 외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 각 팀원이 자닌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쓰는 도구가 되고 서로 연합하도록
- 아웃리치 팀원 각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1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족 이촌/김창욱전도사

입양년도 1999년
위치 우즈베키스탄 서쪽 아랄해 남부의 키즐곰(Kyzyl Kum) 사막지역
언어 카라칼파크어(제1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제2언어)
인구 약 45만명 **종교** 이슬람

선교사 류다익·송근나
영적상황 아랄해의 사막화로 호흡기와 목, 눈, 질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2 일본 오사카 은누리교회 한강/송태현전도사

연혁 2000년 3월 5일 창립예배
지역내용 오사카 은누리교회
교회규모 건물 390평 약 70명 출석
위치 킨메프 우에즈마찌역 5분 거리
선교사 이영선, 세시모코고
영적상황 일본은 가정마다 가미단(神團) 신도신자들이 산을 모셔 놓는 것을 두고 있고, 8천만명이 신사참배자인 우상의 나라다. 한 일본 성도의 헌납으로 창립된 오사카 은누리교회는 복음화를 0.02%인 일본에 복음의 불을 밝히고 있다.

3 러시아 모스크바 강촌/김종민목사

연혁 2000년 5월 NEW LIFE 가정사역인 개원, 2001년 1월 28일 화재, 10월 28일 재건축 재봉헌예배
위치 레닌스키 거리 중심가(공항에서 40분 거리)
선교사 김나용·조갑순
기도제목 사회의 거짓과 부정, 부패가 사라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4 미얀마 인타족 중종로/이상준목사

입양년도 1997년
위치 미얀마 북동부 산주의 나이웅에와 인레호수 주변
언어 미얀마어 **인구** 약 15만명
종교 소승불교, 정령숭배
선교사 아망(현지인)

영적 상황 모든 집에는 불상이 있고, 어린이는 일찍이 간 수도생활을 하며, '나트'라는 악령을 믿는 전통 신앙도 유지하고 있다. 식수는 인레호수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해 급격히 오염되고 있다.

5 스리랑카 베타족 서초A/곽성환목사

입양년도 1996년
위치 스리랑카 캔디에서 비벌러로 70Km 떨어진 북동쪽 정글
언어 싱할리어와 베타방인의 혼합
인구 4,000명 **종교** 정령숭배, 불교
선교사 이승환·김은미, 밀턴

영적상황 조상에 대한 잘못된 제사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축장의 바른 법이 지규적이다. 최근 불교도들의 방해는 이들을 향한 복음 사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6 스리랑카 서초B / 박영준목사

연혁 1999년 10월 20일 서남아 선교센터 기공예배, 2001년 6월 개인 사역내용 현지인 기술 및 인성교육 등
선교사 이승환·김은미, 박일구·신인순, 박영근·추행란, 민성기·최은숙, 이상우·박선희, 사시·정소연, 정용택·전순애, 김상현
영적상황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강력한 불교국, 기독교 인구는 0.8%이나 대부분 도시마다 교회가 있다. 기존 신자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7 아프가니스탄 강남C/신도백목사

2002년 7월 30일 동서문화개발교회(ECC)가 NGO로 등록
2003년 4월 12일 아프간 NGO 개척팀 출국
대표 : 손정태 장로 (총 5명-장기 1명, 견습선교사 3명 포함)

기도제목 'Acts 29'에 발맞춰 아프간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현재 교회 개척팀이 진행하는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프간을 위해 준비하는 예비선교사들과 중보기도팀들이 일어나도록.

8 C국 C시 강남B /박담희목사

연혁 1995년 11월 무지개유치원 개원
규모 1,2층 건물(120평), 자료실 25평, 수용인원 100-110명
지역내용 유치원사역과 유아교육 자료실
선교사 최**·박**·성**·방**·전**·박**·배**·이**·한**·방**·심**

기도제목
 ·유치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되고, 선생님들의 하나됨과 강건함을 위해
 ·자료실이 좀 더 체계화되어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9 말레이시아 이반족 강남A /박종길목사

입양년도 1996년
위치 동말레이시아 사라와주
언어 이반어(제1언어), 말레이어(제2언어)
인구 약 56만명
종교 정령숭배

선교사 위요한/강요안나
영적상황 이들은 모든 생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정령숭배적 관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 교육의 기회가 적은 젊은이들에게 기술과 교육이 시급하다.

10 브라질 서초C/김영배전도사

위치 상파울로
연혁 1999년 2SM 시작
지역내용 BEE, QT, 문서사역, 여성사역, 두란노사역, 협력사역
선교사 박운용 김인아
영적상황 경제적인 불확실 속에서 지속되는 영적갈망이 증폭되는 상황에 갖가지 이단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2SM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일으켜 미래의 진정한 리더십을 배출하는 창구가 되도록 기도하자.

11 몽골 브리야트족 강서김모/김경래목사

입양년도 1996년
위치 몽골 북동부 국경 저지대
언어 브리야트몽골어(제1언어), 몽골어(제2언어) **인구** 약 62,000명
종교 라마불교, 샤머니즘, 무교
선교사 강바나바·김조세핀

기도제목
 ·무속신앙과 불교의 영향력 가운데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문화센터, 교회사역을 통해 양육중인 이들의 신앙이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12 C국 E시 강동송파 /나봉균전도사

연혁 1993년 음악학원 개원, 1998년 5월 한국문화원 개원.
지역내용 한국문화 보급, 대학내 한국어과, 유치원 사역, 교회개척 사역 등
선교사 김**·이**·김**·이**·권**·김**·안**·홍**·신**·이**·김**·이**·허**·안**·최**·최**·하**·김**·박**·전**·이**

기도제목 한국문화원 등 교육문화사역이 선교의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3 멕시코 티라후마라족 성남분당/유선식목사

입양년도 1997년
언어 티라후마라어(제1언어), 스페인어(제2언어)
인구 약 80,000명
선교사 김선광 구자연, 강일영 고영주, 장문연

영적상황 예배당 아래 우상을 묻어두거나, 교회제단에 이교적 희생제물을 물레 드린다. 99%의 문맹률은 복음전파에 큰 장애가 된다. 간통과 마약,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14 아르메니아인 아제리족 수원원인 /김치성목사

입양년도 1996년
위치 아르메니아인 전역
언어 아제리어 **인구** 약 650만명
종교 이슬람교
선교사 안다득, 조수신나, 오하늘·김소망, 이수만·오미경

영적상황 기독교가인 아르메니아의 오랜 민족본정으로 이들에게 기독교는 수세기동안 지독한 적이 되어왔다. 높은 실업률과 오랜 부패의 짐이 압박하고 있어 경제상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

15 이스라엘 양천 /이양목목사

지역내용 극동지역 구오사역, 믿는 유대인 지역, 의료사역
선교사 안철수/서석남, 류성훈/강주희, 김일선, 케이스트린테이트
영적상황 유대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집단 활동은 자유롭다. 아랍과의 충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양측은 전국도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KIBI(한 이성경연구소)는 1989년 설립된 초교파기관으로 이스라엘의 영·육적 회복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16 모잠비크 서대문/손진국전도사

199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잠비크 미션 상업고등학교'를 세우고 운영 중
2000년 11월 '은누리 미션 상업고등학교' 정식 등록
선교사 이반석 최순덕, 박일구 신인순
신민주주의와 30년간의 내전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입은 이 땅을 공황이여겨주시도록, 모슬렘의 영향력이 확산되면서 미션 상업고등학교가 영적전경 가운데 바로 세워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17 중국 위구르족 마포 /김중원목사

입양년도 1996년
언어 위구르어(제1언어), 중국어(제2언어)
인구 약 750만명 **종교** 이슬람교
선교사 김**의 6명
영적상황 고대에는 샤머니즘, 경교, 배화교, 불교를 거쳐 11세기부터 정종 이슬람이 되었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족 우선정책으로 여러 소외속에 독립을 위해 저항하고 있는 등 한족과의 유혈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18 C국 E시 고양은평 /이형석목사

연혁 1993년 음악학원 개원, 1998년 5월 한국문화원 개원
지역내용 한국문화 보급, 대학내 한국어과, 피아노학원, 커피숍, 베이커리, 유치원 사역, 교회개척
선교사 김** 외 20명

기도제목
 ·한국문화원 등 교육문화사역이 선교의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하나됨을 위해



“공동체가 섬기는

● C국 A시 용산/송경부목사

연혁 1994년 개장
 사역내용 알로에 재배 등 농장사역
 규모 8천평건물 34동 현지인 인원 28명
 선교사 김**, 윤**, 최**, 허**
 영적상황 개방과 물결과 함께 실용주 의적 경제정책이 채택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 다. 교회에 많은 필박이 있었으나 지하교회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

● 중국 단둥시 한인교회 성동광진/여성민목사

연혁 1999년 4월 4일 창립예배
 2003년 1월 5일 단둥 개인예배 (단둥시 개발구)
 교회규모 27명, 약 140명 성도 예배 참석
 선교사 김영질 송지숙 김기택
 예배 시간 주일 오전 11:00, 유초동부 오전 9:4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 순례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 터키 투르크족 동대을 남양주/이대영목사

입양년도 1996년 위치 터키 전역 언어 터키어 인구 약 4천6백만명 종교 이슬람 선교사 김다나영 이한나, 주시랑 주마음, 김사랑, 김바나바 김드브라, 황도모데 송애나, 강애스더, 이사랑, 김순중 천사랑, 심하일 정진주, 이빛, 정이래, 채은정, 손충성 송이래
 영적상황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98.2%가 모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국가라고 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노원의정부/최성림목사

연혁 1999년 9월 5일 자카르타 안 디옥 국제교회 창립예배
 선교사 박관구 안은숙(안다육국제교회), 김종만-황신실, 강은영, 양미희, 서재춘-이선희, 김의경 박연화, 김연수-최애숙, 손찬남 안은숙, 김종성-명운영, 이우림-김조은
 영적상황 열성적인 회교도에게 직위를 주는 정책으로 국가기관이 점차 회교화되고 있는 등 기독교인에 대한 외부의 도전이 높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족 성복/백상욱전도사

입양년도 1996년 위치 우즈베키스탄 전역 언어 우즈베크어 인구 1,430만명 종교 이슬람 선교사 최현우, 이영명 이영물, 고이호수아 유환나, 강요한 유은희, 김스태반 조희, 박주만 최보라, 윤생열, 정하신
 영적상황 수도 타슈켄트는 중앙아 회교도의 본거지로 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구 소련 체제에 익숙해 있어 급속한 개방화와 자본주의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경제사정을 안기고 있다.

● 인도네시아 랑풍족 서빙고/김동국목사

입양년도 1997년 언어 랑풍어(제1언어), 인도네시아어(제2언어)
 인구 약 200만명(토착랑풍)
 종교 이슬람교
 선교사 이석희·박태숙
 영적상황 하루 5회씩 알라에게 기도하며, 종족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며 정부와의 관계도 원만치 못한 상황이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빈부의 차가 크다.

● 멕시코 미에족 영동포구로/최원준목사

입양년도 1997년 언어 미에어(제1언어), 스페인어(제2언어) 인구 약 8만명 종교 정명승배와 혼합된 카톨릭
 선교사 김선광·구자연, 강일영·고영주, 장문연
 영적상황 예배당 아래 우상을 묻어두거나 교회 계단에 이교적 희생제물을 몰래 드린다. 99% 문맹률은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되며, 간통과 마약,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 몽골 어의도/전병택목사

수도 울란바토르 위치
 선교사 박관태 정수경, 한영훈 오수정, 최현민, 이현성, 김지연 한익진, 권오문 김은정, 이상욱, 고재형 허성태, 다래수령
 영적상황 몽골은 사회주의의 영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대응 방식도 단순 과격하여, 전체 공공집회를 금지시키며 갖가지 제한사항이 많다.

● 중국 하니족 동직사/박인용목사

입양년도 1996년 언어 하니어(제1언어), 중국어(제2언어) 인구 약 140만명 종교 정명승배, 조상승배
 선교사 한**, 이**
 영적상황 악귀를 쫓고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구미'와 김을를 점치는 '니미'라는 박수가 있다.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보다는 노동력으로 보고 있다.

● C국 D시 동직B/박철용목사

연혁 1994년 국제 언어훈련학교 개교, 1998년 한인 초등학교 개교
 규모 언어학교: 480명, 초등학교: 1,020명(전체 590명)
 사역내용 외국어 교육 및 한인 초등학교 생 기독교교육
 기도제목
 · 언어학교가 선교의 좋은 접촉점이 되며, 초등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 선교사들이 성령충만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관قم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 방글라데시 안양안산/안광국목사

사역내용 문서출판 사역, 청소년 양육 및 개발 사역
 선교사 박영환-윤막대, 한유민-강영희
 영적상황 세계 극민국 중의 하나로, 과잉인구와 홍수, 폭풍 같은 자연재해의 고통이 있다. 가난을 벗어날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국민소득 \$130) 1971년 내전시 파키스탄의 잔혹한 탄압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회교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었으나, 더욱 극단적인 회교도들이 기독교 복음증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네팔 곡천의왕/강철희목사

연혁 1998년 11월 네팔예배를 인도 하던 케리바이 목사님께서 귀국하여 동네팔 울라바리에서 교회개척(헤브른 교회) 성도수 180명
 선교사 케리바이 허말라나 에베레스트 산으로 잘 알려진 나라, 힌두교가 국교이며 세계 10대 빈민국 중에 하나인 나라. 계급제도가 있어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헤브른 교회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구원이심을 선포되기를 기도하자.

● 일본 아치오/후쿠오카 가정사역/공진수목사

연혁 아치오 은누리그리스도교회 2002년 7월 창립 성도 수 30명
 선교사 김철희 최지형
 연혁 후쿠오카 은누리교회 2001년 5월 창립 성도 수 17명
 선교사 천창길 황미혜
 영적상황 개방과 무반응이 혼재해 있는 땅. 절에서의 우상숭배, 가정에서의 조상숭배와 연합된 악령의 힘은 지금까지 결정적인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일본 교회는 성장했지만, 부흥의 때를 찾지 못하고 있다.

● 일본 동경/우에다 열린/이재훈목사

연혁 2001년 4월7일 동경 은누리 비전교회 창립예배
 선교사 장재운-오공자(동경), 하용조-이향기(우에다)
 영적상황 가정마다 가미단하(神神) 신도 신자들이 신을 모셔 놓는 것을 두고 있고, 8,000만이 신사참배자인 거대한 우상의 나라이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나, 새로 동국한 천황과 연관되어 있는 국수주의적 신도(神道)가 0.02%의 복음적 신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 케냐 스와힐리족 일산/김홍주목사

입양년도 1997년 위치 케냐 동부 해안 언어 스와힐리(제1언어), 아랍어, 영어(제2언어)
 인구 약 11만2천명 종교 이슬람교
 선교사 김완영-홍미숙
 영적상황 정통적이고 강한 이슬람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문화,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다.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올바른 계몽운동이 요구된다.

● 터키 쿠르드족 광명인헌/신기섭전도사

입양년도 1997년 위치 터키 동남부와 대도시(이스탄불, 이즈미르, 아다나)
 언어 쿠르드어(제1언어), 터키어(제2언어) 인구 약 2천만명
 종교 이슬람교 선교사 주사랑
 영적상황 이슬람종교교육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 쿠르드족임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언어, 교육, 출판물판매 등 터키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선교 접근이 매우 어렵다.

● 캄보디아 관악금천/이기원목사

연혁 97년 빈민촌 선교사각, 2001년 10월 2일 소망교회 헌당 예배
 위치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사 이영봉, 보니 린 플렉카드
 영적상황 풍부한 농업 잠재력은 전쟁, 대학살, 정치적 고립, 사회주의 관료제 등으로 땅이 황폐되고 인원이 유린되어 겨우 생계만을 위한 농업으로 줄어들었다. 기독교인들에게 공개적인 예배가 허용되고 있으나 강력한 불교인구 가운데서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다.

● 케냐 스와힐리족 일산/김홍주목사

입양년도 1997년 위치 케냐 동부 해안 언어 스와힐리(제1언어), 아랍어, 영어(제2언어)
 인구 약 11만2천명 종교 이슬람교
 선교사 김완영-홍미숙
 영적상황 정통적이고 강한 이슬람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문화,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다. 동성연애로 인한 에이즈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올바른 계몽운동이 요구된다.

● 터키 쿠르드족 광명인헌/신기섭전도사

입양년도 1997년 위치 터키 동남부와 대도시(이스탄불, 이즈미르, 아다나)
 언어 쿠르드어(제1언어), 터키어(제2언어) 인구 약 2천만명
 종교 이슬람교 선교사 주사랑
 영적상황 이슬람종교교육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 쿠르드족임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으며, 언어, 교육, 출판물판매 등 터키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선교 접근이 매우 어렵다.

● 캄보디아 관악금천/이기원목사

연혁 97년 빈민촌 선교사각, 2001년 10월 2일 소망교회 헌당 예배
 위치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사 이영봉, 보니 린 플렉카드
 영적상황 풍부한 농업 잠재력은 전쟁, 대학살, 정치적 고립, 사회주의 관료제 등으로 땅이 황폐되고 인원이 유린되어 겨우 생계만을 위한 농업으로 줄어들었다. 기독교인들에게 공개적인 예배가 허용되고 있으나 강력한 불교인구 가운데서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다.

● C국 D시 동직B/박철용목사

연혁 1994년 국제 언어훈련학교 개교, 1998년 한인 초등학교 개교
 규모 언어학교: 480명, 초등학교: 1,020명(전체 590명)
 사역내용 외국어 교육 및 한인 초등학교 생 기독교교육
 기도제목
 · 언어학교가 선교의 좋은 접촉점이 되며, 초등학교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 선교사들이 성령충만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 비전에 순종합니다 ”



김주태 선교사는 평신도로, 일반사역자로 페루에 건너가 선교활동을 시작해 아마존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지금은 선교사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아마존 지역에서 의료선교와 빈민촌 사역을 하고 있다. 김주태 선교사는 3여년 동안 선교활동을 하면서 이곳이나 그곳, 어느 곳이든 동일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주태 선교사의 말에 온누리교회의 비전, Acts29 비전이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아마존에 피운 사랑으로 널리 알려진 김주태 선교사(37). 그가 언제부터 아마존과 남미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김주태 선교사는 부모님이 15살에 사다 주신 슈바이처 전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막연히 슈바이처 삶의 상분의 일 만이라도 되어야지 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이미 그 때 하나님께서는 김주태 선교사의 삶을 예비해두셨던 것이다.

동생의 차사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녔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1993년 한국에 잠시 여행을 오게 되면서 라고 말했다. 김주태 선교사는 그 시간이 자신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했다. “저는 그 때에 주님을 만났고, 내 모든 생각, 가치관, 생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성령의 힘, 주님의 힘으로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선교사의 눈빛에서 그때의 다부진 결심의 흔적이 엿보였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에 남게 된 김주태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한국에서 내 말씀을 먹여라”였다고 한다. 한국에 남아있던 3년간의 골드타임에 김주태 선교사는 불타는 치유와 기쁨부음으로 앞으로 자신의 새로운 진로를 놓고 기도했다.

김주태 선교사는 92년에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가면서 선교에 구체적인 비전을 품게 되었고 의사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 때까지 김주태 선교사는 북한과 중국에 선교 비전을 품었고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미전도종족을 향해 기도했다. 이런 김주태 선교사에게 주님은 영동하게도 남미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쪽 문화를 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

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비전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남미에 가게 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막상 남미에 가기로 결심은 했지만 김주태 선교사에게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김주태 선교사는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왜 남미인지 알려주세요. 남미는 500여년 전에 가톨릭 문화가 전해졌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남미입니까?” 주님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해주셨다. 남미는 이미 종교가 자유롭고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김주태 선교사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미대륙과 남미교회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선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해아림을 깨달은 김주태 선교사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미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네 삶 속에서 내가 행한 것을 나누어라”고 말씀하셨다. 김주태 선교사는 주님의 음성에 깊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내 안에 주님이 행하신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서 나를 매일 새롭게, 감동하게, 순종하게 만든 것은 큐티였습니다.” 이 때부터 김주태 선교사는 큐티의 모든 자료를 모았다고 한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로 김주태 선교사

는 남미 문화에 가장 잘 맞는 큐티 교재를 만들었다. 그것을 갖고 페루로 향했다.

페루 아마존으로 간 김주태 선교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예비하심에 눈물 흘렸다고 한다. 페루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다. 김주태 선교사가 갖고 간 큐티를 그곳 교회에 보여주자, “바로 이거다. 우리가 원하던 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김주태 선교사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큐티로 어느새 그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였다. “일주일동안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서로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은혜를 받았습다. 감동, 치유, 눈물이 거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김주태 선교사는 그때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환한 웃음을 보여주었다.

부부, 자녀, 가정의 영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합니다”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잠시 한국에 돌아온 김주태 선교사는 또 다시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예비하심에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한국에 돌아와 온누리교회의 Acts29 비전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페루에 여러 지교회와 세워졌던 것이 생각나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시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교회구나. 지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 하길 바라시는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습다.”

처음 김주태 선교사가 페루로 갔을 때는 목사도, 전도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흥을 이뤘다고 사역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김주태 선교사는 말한다.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가 있고,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있어야 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무릎선교사, 중보기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물음에 “저와 아내는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마존에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알고 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김주태 선교사와 그의 가정의 중보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되새겨 주었다.

김주태 선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예수님이 떠올랐다. 김주태 선교사는 어느덧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아마존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김주태 선교사와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의 사역에 기도로 힘을 보태기로 다짐했다.


/한승훈 onnuri.or.kr

큐티농방 리더 및 큐티 사역자 기도모임
김주태 선교사 소그룹 모임
김주태 선교사 (011-9923-2091
/doctormazon@hotmail.com)

■ **찬양의 오솔길 - 이경진선생**
허드슨 테일러 열여덟번째 이야기 '여성이기 때문에?'

1880년대! 미혼여성과 여성의 독자적인 선교활동이 제한을 받던 시대에 사회적 분위기를 깨고 CIM 소속 여성 선교사들은 중국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여성 사역자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존중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사역자들은 중국인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여성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2000선교**

Turning Point (단기선교훈련) 훈련생 모집
 6월 30일~7월 25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마감: 6월 16일
 자격: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제자 양육, 노후, 봉사, 컴퓨터 등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취업용: 보건소 진단서는 제외), 추천서 2부 (규정양식에 의거)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와실
 문의: 795-9085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
 5월 19일(월) 오후 7:30 선교관 B1 기도실
 말씀: 박영환 선교사(방글라데시)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5월 26일(월) 오후 7:00 양재 시온홀
 주회: 소아시아 공동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함은생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rmon.com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간사
 자격: 대졸자, 선교현신자, 선교경험자, 형제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마감: 5월20일
 문의: 이영재 간사(031-336-6350-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간사모집
 선교현신자, 영어, 컴퓨터, 운전 가능자, 형제
 문의: 794-1063

온누리미션
반주자를 찾습니다
 아랍어예배 (피아노 또는 기타) 매 주일 오후 4:30 ~ 6:30 서빙고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피아노) 매 주일 오후 2:00~4:00 서빙고 선교관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자원봉사자 모집
 온누리미션 외국인지체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를 가르쳐 주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매 주일 1시간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물품구함
 봉고차, 노트북, 냉장고(300리터 이상)
 문의: 황호상 간사(017-290-7856)

자원봉사자
일본어예배 어린이 교사 모집
 유치부: 토요일 오후 1:00 시작
 초등부: 토요일 오후 12:30 시작
 대상: 일어 가능, 어린이 사역에 마음이 있는 신부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702)

언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올 여름 아웃리치를 가시는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언어: 몽골어, 러시아어, 네팔어, 이란어, 파키스탄어, 인도어, 미얀마어
 담당: 이경희 간사(017-316-9787)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01

공동체 선교사역자 모임

공동체 선교사역자들이 5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선교관 304호, 305호에 모인다. 2천선교본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서는 'ACTS 29' 를 위해 변하는 공동체 선교정책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모임은 △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편지, △ 변경된 각 공동체 선교정책 설명, △ 각 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논의 순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황민식 간사(793-9686 교 208)에게 하면 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이라크·아프간 단기선교팀 모집

평신도 선교사역자를 훈련하는 'Why Missions?' 이 올 여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하며 팀원을 모집한다. 구체적인 선교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취지로 '제 1기 How Missions?' 로 명명한 이번 단기 선교는 'Why Missions?' 1기, 2기 수료생과 현재 3기 수료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단기 선교는 20명씩 두 팀으로 구성했다. 이라크팀은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팀은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현지를 방문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신청서(센터 소장 양식), 여권(출발일을 근거로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진 6매, 신앙간증문을 제출하면 된다. 단기선교 관련 문의는 온누리세계 선교센터 (031-336-6350~ 3)로 하면 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와이 미션' 공개강좌

온누리세계선교센터가 두 번째 '와이 미션 (Why Missions?)' 공개강좌를 한다. 31일(토) 오후 4시 서빙고 비전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온누리 선교는 누가 이끌어 가는가?' 는 주제로 ▷ '선교적 중보기도와 후원' 홍정희 집사(에zell선교회), ▷ '평신도의 선교사역' 정재호 집사(BEE KOREA) 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4

■ 신앙의 오욕각

허드슨 테일러 열아홉번째 이야기 '피의 핏박'

887년 허드슨 테일러가 속해 있던 CIM선교회는 1년에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서양열강들의 세력 확산은 의화단에 의한 외국인 대량학살으로 이어진다. 허드슨 테일러 19번째 시간은 목이 베여 '피의 핏박'이라는 비참한 상황 속에 중국 땅에서 처참히 죽어가야 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

2000선교
 **2000선교**

Turning Point (단기선교훈련) 훈련생 모집
 6월 30일~7월 25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마감: 6월 16일
 자격: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제자 양육, 노동, 봉사, 컴퓨터 등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건강진단서(취업용: 보건소 진단서는 제외), 추천서 2부 (규정양식에 의거)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모임
 5월 26일(월) 오후 7:00 서빙고 신관 304호
 말씀: 반종길 목사
 문의: 김화수 팀장(011-448-4262)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SAM)
 5월 26일(월) 오후 7:30 두란노해외선교회 기도실 (약도 참조: <http://www.timweb.org/>)
 말씀: 박영환 선교사(양양글라데시)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5월 26일(월) 오후 7:00 양재 시온홀
 주최: 소아시아 공동체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인디모)
 6월 5일(목) 오후 7:30 서빙고 풀기도실(예정)
 문의: 김베드로(019-240-9224)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이람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rmon.com

에펠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로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펠 시트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5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5월 29일 (목) 오후 7:00~9:30 서빙고 선교관 403호
 공개강의: 변순복 교수의 토라강좌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반주자를 찾습니다
 이란어예배 (피아노 또는 기타) 매 주일 오후 4:30~6:30 서빙고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피아노) 매 주일 오후 2:00~4:00 서빙고 선교관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자원봉사자 모집
 온누리미션 외국인지체들에게 바이올린, 피아노를 가르쳐 주실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매 주일 1시간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자원봉사자
일본어예배 어린이 교사 모집
 유치부: 토요일 오후 1:00 시작
 초등부: 토요일 오후 12:30 시작
 대상: 일어 가능, 어린이 사역에 마음이 있는 신부
 문의: 황혜경 간사 (799-9686 교702)

언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올 여름 아웃리치를 가시는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현지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언어: 몽골어, 러시아어, 네팔어, 이란어, 파키스탄어, 인도어, 미얀마어
 담당: 이경희 간사(017-316-9787)

(성경을 기초로한) 일본어 중급반
 매주 화요일 10:00~12:00 서빙고 302호
 강사: 강영애 권사
 문의: 강영애 권사 (016-752-0377)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3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01

2천선교사 파송



오늘 양재 오전 9시 예배와 서빙고 오전 11시 30분 예배에서 츠지 히사

시 목사와 츠지 나오코 사모를 일본 요코하마 교회로 파송한다. 츠지 목사는 99년 9월부터 일본어예배를 섬겼다.

02

2003년 아웃리치 기본방향

전 공동체가 섬김선교지로

2003년 아웃리치는 선교지역선정과 팀구성, 아웃리치 스쿨, 각 공동체 아웃리치, 연합선교 보고대회 4단계로 진행된다.

선교지역 선정, 팀 구성

지역 = 온누리교회 각 부서(꿈땅, 대/청년, 성인)는 교회의 정책방향에 맞게 아웃리치 지역을 선정하며 공동체는 지정된 입양 종족/섬김 선교지로 아웃리치를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교지 대상지역 37곳 중 온누리 선교사가 아직 파송되지 않은 멕시코(타라후마라족)와 사스 위험지역 등 아웃리치를 하기 어려운 지역은 본부와 협의 후 타 지역으로 선정한다.

팀구성 = 목회자와 팀장, 부팀장, 회계, 서기, 중보기도, 영상, 의약품 담당 등 아웃리치 동안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사역별로 팀을 구성한다.

동일 지역으로 가는 팀들은 연합팀을 구성해 준비 단계부터 함께 아웃리치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아웃리치 세미나

공동체 성도들이 선교사를 잘 도와 현장에서 열매 맺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제 3기 온누리 아웃리치 세미나가 6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소회의실에서 3주간 열린다. 김중원 목사, 김창욱 전도사, 김마가 선교사, 조용백 선교사가 편성, 준비부터 현장 사역, 아웃리치 이후 관리까지 아웃리치를 준비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내용을 강의한다.

아웃리치

사역 = 7월과 8월 중 각 부서별로 계획해 추진한다. Summer School, 요리실습, 심

자수, 뜨개질, 부녀자 교육, 김치 바자를 통한 노방전도, 해비타트

운동, 선교사 자녀 여름성경 학교, 고아원/양로원 봉사, 생활환경개선, 각종 문화사역 등 해당 지역 선교사가 요구하는 사역 내용을 확인하고 가서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또한 이번 아웃리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선교지의 유익성과 장기성을 고려하고 다음 연도 사역을 예측하며 계획한다.

예방접종 =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나가는 팀은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말라리아 경우 어떤 지역은 먹는 약이 아닌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하는



▲ 지난 2001년 2천선교대회에서 공동체가 입양한 선교지를 온전히 섬기겠다고 서약하는 온누리 성도.

곳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공항 검역소, 병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 **황열:** 아프리카, 남미 - 출발 10일 전
말라리아: 아프리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동남아, 중남미, - 출발 1, 2주전 / 귀국 후 4주간

연합보고대회

여름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9월 경 모든 공동체가 모여 연합 보고대회를 연다. 꿈땅, 대학부, 청년부, 성인 공동체 중 6개 팀이 선교지에서 한 사역보고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을 영상자료와 함께 발표한다.

*

2000선교

Turning Point (단기선교훈련) 훈련생 모집
 6월 30일~7월 25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마감: 6월 16일
 자격: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제자 양육, 노중, 봉사, 컴퓨터 등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취업용 건강진단서 (보건소 진단서는 제외), 추천서 2부 (규정양식에 의거)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2기 견습선교사 모집
 훈련기간: 6월 30일~7월 26일 양지선교센터
 서류: 대학 청년홈페이지 견습선교사 신청서류 다음받기
 접수: 각 공동체 예배시 로비 데스크
 문의: 이준 전도사 (011-9636-9608)
 TIM 최영란 간사(794-1063-5)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TIM 월요기도모임 -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
 6월 2일(월) 오후 7:00 양재 화평인내성전
 문의: 박소영 간사(794-1063-5)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인디모)
 6월 5일(목) 오후 7:30 서빙고 홀기도실(예정)
 문의: 김베드로(019-240-9224)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rmon.com

에펠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펠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웃리치
2003 의료선교 D팀 캄보디아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7월 16일~20일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후원물품: 여름옷, 의약품, 슬리퍼, 학용품
 마감: 6월 14일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yahoo.co.kr)

극동러시아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극동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지역의 EEF(Ebenezer Emergency Fund: 유대인 귀환사역 국제단체)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Fishing trip(유대인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7월 30일~8월 6일(7일) 극동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사역내용: 유대인 가정 방문, EEF-Fishing trip(유대인 귀환사역) 체험, 교회방문
 참가신청: KIBI, EEF-Korea (792-7075 / kibikorea@yahoo.com)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외국인 근로자진료를 위한 봉사자
 간호사, 의사, 약사, 치과 의사, 치과관련종사자
 자료 한달에 한번 주일 오후 4:00~6:00
 문의: 박상호 (온누리라파림장 /2245-7260)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세문의: 이경희 간사 (교 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01

요코하마 온누리 그리스도교회

6월 11일 창립예배

일본교회의 부흥을 위해 12개 교회를 세우자고 지난해 11월 말 하코네 수련회에서 하용조 목사가 비전을 발표한 후 처음으로 일본 요코하마 온누리 그리스도교회가 창립 태이프를 낳는다.

6월 11일(수) 오후 4시에 열리는 요코하마 온누리 그리스도교회 창립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하용조 목사와 선교본부, 복지재단 등 관계자 27명이 참석한다. 하용조 목사는 창립메시지를 선포한다.

요코하마 중심지 이마시타에

위치한 요코하마 온누리 그리스도교회는 우에다, 나고야에 이어 우리 교회가 여섯 번째 세운 교회다. 우리 교회는 요코하마 교회 담임 교역자로 지난 1일 일본어예배를 섬기던 쓰지 히사시 목사를 파송했다.

요코하마는 일본에서 처음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들어온 도시로 유명하지만 350만 인구 중에 복음화율은 1%에 불과하다.

• 요코하마 온누리 그리스도교회 주소: Yokohama-shi, Naka-ku, Yamashita-cho, 162-1 Hiei-Bldg, 201&202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온누리 세계 선교학교 단기 선교 훈련생 모집

온누리세계선교학교가 제 2기 단기선교사 훈련인 '터닝 포인트' (Turning Point) 훈련생을 모집한다. 6월 30일부터 심리상담, 공동체 훈련, 단기 지역의 실제와 위기관리, 선교학 기초 등 선교훈련을 받고 훈련학교를 마친 성도는 견습 선교사나 단기 선교사로 허입해 선교지로 파송된다. 마감은 6월 16일(월)이다. 문의는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owmc@onnuri.or.kr, 홈페이지: www.owmc.or.kr)로 하면 된다.

03

파키스탄어 예배 6주년

파키스탄 예배(우르두어 예배)가 창립 6주년을 맞아 오늘 오후 2시 선교관 301호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김사무엘 목사가 축하 설교를 하고 크리스토퍼 목사가 통역한다.

파키스탄 예배는 97년 7월에 원당에 쉼터를 만들며 시작해 현재는 군포 쉼터와 백석 공장 기숙사에서 주말모임을 하고 있다. 주일에는 약 30명이 모여 오후 2시 선교관 303호에서 예배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양재 공동체가 달라진다

지역별 새벽기도회 처소 마련, 적극적인 주차 봉사, 여름 아웃리치 준비

양재 은누리교회 소속 공동체가 기도, 섬김, 선교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안양안산, 강동송파, 성남분당, 과천의왕 공동체는 6월 중으로 지역별 새벽기도회 처소를 만들어 7월 첫주부터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체 교역자들이 인도할 이 기도회는 공동체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 A, B, C와 서초 A, B, C는 예전처럼 양재 사랑성전에서 새벽기도회를 한다. 공동체 교역자들은 매일 기도회 참석자들을 안수하며 중보기도를 한다. 매수요일은 장로와 교역자들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또한 각 공동체는 주차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각 공동체는 한 달씩 번갈아 양재 은누리교회

로 오는 차량의 주차를 돕는다. 한편, 2003 여름 아웃리치는 국내와 해외 공동체에 배정 미전도 종족과 나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각 공동체는 운영위원회 모임을 소집 6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서철 chol@onnuri.or.kr

“함께 달려가요”

은누리미션, 외국인근로자 체육대회 열어



은누리미션 8개 예배와 트리니티 외국인 신학생이 참여한 은누리미션 체육대회가 지난 주일(1일)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오전 10시 20분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체육대회는 오전에는 소고춤, 네팔 라이족 전통무용, 특송 등 문화행사를 했고 오후에는 모세, 바울, 다윗, 요한 4팀으로

나뉘 축구, 발야구, 족구, 이어달리기 경기를 했다. 하용조 목사는 대회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섬기기 위한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2천선교 다락방 등 6백여 명이 참석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의료선교팀 주최

해외 아웃리치 단기선교학교

의료선교팀은 여름 해외아웃리치를 위한 '단기 선교 학교'를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선교관 101호에서 연다.

강의는 △ '세계 선교와 ACTS 29' (김중원 목사), △ '선교와 문화적 이해' (여성민 목사), △ '현지 조사 및 현지 이해' (황종연 목사), △ '의료선교의 실제' (안태환 집사), △ '공동체성과 팀사역의 정신' (백상욱 전도사) 순으로 진행된다. 팀 워크와 사역방법 뿐만 아니라 의료선교팀이 단기 선교사로서 선교적 소양을 준비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선교팀은 올 여름 5개 팀으로 나뉘어 아웃리치를 준비중이다. 각 팀은 내과, 치과, 가정의학, 한방, 피부과, 간호사, 이·미용, 약사, 봉사조 등 아웃리치에 동참할



은누리 성도를 찾고 있다. 관심있는 성도는 목회지원실 신양훈 간사(793-9686 교 637)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기기도회는 6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출기도실에서 열린다. 각 팀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A팀 : 8월 11일~16일 방글라데시 B팀 : 7월 13일~18일 미얀마 C팀 : 7월 30일~8월 4일 필리핀 캄보디아의료선교팀 : 7월 16일~21일 캄보디아 청년여호수아 의료팀 : 8월 9일~16일 인도(캘커타)

/ 서철 chol@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늘나라에 가니 죽어도 행복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프놈펜 소망교회 출신의 '디나' 형제는 지금 백혈병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6개월간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했지만 한달에 700불씩 들어가는 병원비가 없어 오늘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빈민촌에 '소망교회'를 개척할 때, 디나 형제는 저와 같이 날마다 기도 하면서 이웃에 복음을 전한 11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게도 신실한 그가 이제 그의 모든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맡긴 채 힘들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아들에게 끊임없이 수혈하여 준 소망교회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디나 형제의 부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18살의 디나 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기에 오늘 소망교회로 데려 왔습니다. 프놈펜으로 오려고 평화교회를 떠나는 순간 동네의 모든 주일 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이 큰 길에서 눈물을

도 자매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프놈펜으로 오는 차안에서 쓰라이 자매에게 예수님을 다시 전하자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제 자신은 살아도 죽어도 행복하

고 있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므로 그렇게 슬프지 않다고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적 최전선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셔서 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캄보디아의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삶을 마감하기 전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자신에게 닥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터에는 이렇게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외로운 디나 형제와 슬픈 쓰라이 자매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캄보디아에서 울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5월 30일 캄보디아에서
이석희 · 박혜숙 선교사



△ 캄보디아 빈민촌에는 많은 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들을 위한 물품지원과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 사진은 올해 초 영애에배팀의 캄보디아 아웃리치.

디나 형제와 쓰라이 자매

캄보디아 '영락평화교회'에 쓰라이라는 24살 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도 유방암으로 밥도 먹지 못하고 겨우겨우 물로

흘리며 쓰라이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캄보디아 의사들이 쓰라이 자매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하기에 가족들

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분노와 절망으로 몹시 괴로웠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



서평촌 다락방 연합예배



고 도착한 사람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한편에서 박영환 선교사와 백승모 다락방장이 예배 순서를 의논하고 있었다. 오늘 예배는 서평촌 다락방이 섬기는 박영

지난 5월 30일(금) 오후 7시 군포 하나로 청소년센터는 안양안산 공동체 서평촌 다락방 연합예배 준비로 분주했다. 음식을 준비하고, 방석을 깔

사물 눈에 담는다. 박영환 선교사의 사역소개는 순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했다. 박 선교사는 창세기 7장 1절 '너와 네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는 말씀 한 구절을 품고 95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겁도 없이(?) 선교사로 헌신한 일부터 다가 AG 현지 교회와 함께 모슬렘을 전도하고 일대일 양육을 하는 일, 방글라데시 한 청년이 예수 영화를 상영하다 파한에 납치당해 순교한 현지 상황까지 방글라데시 선교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선교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제목으로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예배를 드릴 것'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것'을

“우리는 같은 비전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박영환 선교사

여름에 많은 분들이 방글라데시로 아웃리치를 와서 모슬렘 전도와 양육에 힘써주시고, 방글라데시의 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현장과 공동체가 이어지다”

환, 윤유희 선교사(방글라데시)를 초청한 '선교사 초청 순예배' 이기 때문이다.

연합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는 기존 순예배 형태를 간소하게 한 것으로 순별 소개, 새순원 환영, 찬양과 간증, 말씀 묵상 나눔을 했다. 2부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박영환, 윤유희 선교사가 팔송이가 인사하자 서평촌 다락방 식구들은 따듯한 박수를 보냈다. 서평촌 다락방이 섬기는 선교사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순원 대부분 처음이다. 백승모 다락방장이 "우리 서평촌 다락방이 섬기는 선교사님이나 얼굴을 잘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순원들은 다시 한 번 박 선교

설교했다. 박 선교사는 "바울이 이방인을 사랑해 헌신했듯이 여러분이 올 여름 아웃리치에 방글라데시에 와서 모슬렘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교하고 또한 한국에서도 후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예배 후 박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길 순원 모두가 축복 기도를 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방글라데시 선교현장, 말로만 들던 선교사역이 박 선교사가 가족을 축복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눈앞에 지금이순간 펼쳐진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 방글라데시는?

인도반도의 북동부에 있는 나라. 인구 1억 4천만, 인구밀도는 889.5명/km²(2001)으로 세계 1위의 인구 조밀국이다. 수도는 다카이며, 공용어는 벵갈어를 사용하고 있다.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하였다. 국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주민이 대다수(86.6%)이며 그밖에 힌두교도가 12.1%, 불교도가 0.6%, 그리스도교도가 0.3%를 차지한다. 외국의 원조가 정부 재정지출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인구증가율과 세계 최고의 인구밀도, 잦은 홍수로 경제생활이 궁핍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다.



온누리 선교베이스 · 교회비전 · 공동체 섬김선교지 중심으로 시행

이번 2003년 여름 아웃리치는 온누리 선교 베이스가 있는 곳, 교회 비전에 적합한 곳, 공동체 섬김 선교지 중심으로 전 공동체가 나가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대부분 아웃리치팀들이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 7,8월에 집중해서 떠난다. 그러나 7, 8월은 여름휴가기간, 성수기이므로 항공편이나 비자,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야 한다.

1. 선교여행 점검표

여행 일정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준비사항을 체크한다.

1) 준비

단기 선교를 떠나기 위해 팀원들과 일정, 여행지를 결정한다. 선교지에 도착해 연합할 선교사와 미리 연락하고 가서 할 주요사업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여행지와 일정, 팀원이 정해지는대로 여권, 비자를 발급받고 항공권을 예약해야 한다. 여행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2) 훈련

선교지에서 할 훈련일시와 장소, 내용, 강사를 정한다. 훈련 내용은 전도훈련, 여행안내, 팀워크 훈련 등으로 구성한다.

3) 실시

아웃리치 준비가 완료되면 대상 지역으로 출국하고 사역한 후 입국한다.

4) 마무리

아웃리치를 다녀온 평가보고서와 재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사진과 슬라이드 등 선교 자료와 선교지 물품을 정리한다. 정리한 자료로 자료집을 발행하고 마무리 모임을 한다.

2. 팀구성

1) 참가자 모집

- 팀원: 광고, 홍보물, 간증, 개인집축, 예비모임으로 선교현신자 또는 관심자에 한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10-15명 정도가 적당하다.
- 훈련기간: 기본적인 선교교육, 팀워크훈련, 영성훈련이 필요하다. 주 1회씩 1일 교육내지 1박2일 코스로 공동생활 훈련을 실시한다.
- 훈련내용: 전도하는 방법 / 개인간중 준비 / 문화에 대한 이해 / 현지에서의 생활 / 단체생활 / 영적전쟁에서의 승리 / 섬기는 자세 / 선교지에 대한 정보와 언어 / 보고서 작성
- 훈련과제: 기도후원자 모집 / 선교사들에게 편지 쓰기 / 노방전도 / 개인 간중문 작성 / 선교지역 연구 자료 수집, 정리(영상물, 사진- 현지인 사진이나 문화사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등)

2) 팀 구성

각자 주어진 은사에 따라 직책을 결정한다.

직책	기능
• 목회자	교회 Out Reach 방향에 맞게 사역계획을 수립, 팀의 영성훈련을 담당
• 팀장	팀 사역계획, 준비총괄
• 부팀장	훈련프로그램을 진행, 팀들의 인적사항을 파악 (이름, 주민번호, 여권번호, 직업, 주소록, 가족상황, 기도제목)
• 회계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항목별 예산을 집행
• 서기	가이드북, 기도편지, 간중문, 아웃리치 평가서를 작성
• 중보기도	팀과 팀원들의 기도제목을 정리 후 모임 시 기도, 중보기도 요청
• 물품담당	팀과 팀원들의 짐 목록을 정리/선교지 보낼 물품준비
• 영상담당	아웃리치 기간 중 사진과 영상 준비
• 의약품담당	약품들을 준비/선교지 약품도 준비
• 사역담당	현지 선교사와 협력할 사역을 준비 및 진행 (Summer School, 의료, 미용봉사, 각종 문화사역 등)

3. 예산편성

항공료, 공항세, 출국세, 여행차 보험 등 개인 참가비와 자료비, 체제비, 교통비 등 사역에

서 쓸 비용을 미리 예상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한다.

4. 개인 짐꾸리기

아웃리치 당일 급하게 짐을 챙기다보면 필요한 물품이 빠져 있어 현지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첩에 필요한 물품을 메모하고 가방에 한 가지씩 미리 미리 챙기는 여유가 필요하다.

- 개인물품: 여권(6개월 유효기간), 비자, 여권 사본과 사진(2장(본실대비), 대사관 연락처 현지에서의 연락처, 비자확인, 세면도구, 여행안내서, 휴대용 가방, 손전등, 비상약품, 물티슈, 간편한 긴 옷, 짧은 옷, 내의, 샌들, 수영복, 선글라스, 우산/비옷, 신용카드, 한영성경, 전도지, 필기구, 사역에 필요한 물품, 문화소개용품 (한복, 악기 등)
- 여권 만료1년전에 여권을 갱신해야함
- 비자
 - 비자가 필요한 나라: 네팔, 대만, 러시아,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 30일 / 남아공, 60일 / 인도네시아, 90일 / 태국,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영국, 터키, 이스라엘, 모로코

단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항공권을 예약해야 한다. 여행사의 한 직원은 "되도록 빨리 신청하라"며 최소한 6월 중순까지는 예약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는 일본에 20여 팀이나 나가기 때문에 일본 항공편을 미리 신청하고, 8월부터 미국 비자신청절차가 까다로워지므로 미국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팀은 6월 중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온누리 부서별 아웃리치 현황 ◆

선교지역	공동체 (7·8월)	기타부서/일정
동북아	홍산, 성동광진, 동직AB, 고양은평, 강남B, 강동송파	대청(7월말), 공평(8/11-16)
중앙아시아	이촌, 성북	공평(7월말), 대청(8월초), JDS(7월말)
일본	한강, 열린, 가정사역	공평(8/18-22), 파워웨이브(8/12-20), 대청(7/30-8/6, 8월초), 영어예배(7/21-28), 일어예배(7/15-20), JDS(7/25-8/20)
러시아	강촌	
소아시아	동대문남양주, 광명인천	JDS (7월말), 대학부(7/14-23)
미얀마	중종로	
인도네시아	노원의정부, 일산, 서빙고	
캄보디아	관악금천	대학부(7/23-31), 영어예배(7/28-8/5)
몽골	여의도, 강서김포	공평(8월초), 대청(7/21-8/2, 8월초)
이스라엘	양천	대학부(7/14-23)
아프가니스탄	강남 C	대청(7월말), 선교훈련센터(7/17-26)
스리랑카	서초 A,B	
네팔	수원용인	
방글라데시	안양안산	
아제르바이젠	과천의왕	
멕시코	영등포구로	
브라질(2SM)	서초 C	
모잠비크	서대문	JDS(7/25-8/1)
인도		파워웨이브(8월초), 대청, JDS(7월말)
이라크		대청(8월초), 선교훈련센터(7/21-8/1)
카자흐스탄		대청(7월중)
영국		대청(7월말-8월초)
모로코		대청(7월중)
우크라이나		대청(7월중)
태국		대학부(7월중순)
이집트		대학부(7/14-23)
대만		대학부(7/21-26)

일본을 향한 21세기 선교 전



유병진 장로
(관동대학교 총장)

“먼저 부흥을 경험한 나라로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이다. 우리에게는 비록 일본에게 지배당한 아픈 기억이 있으나, 복음의 종주국으로 복음을 들고 일본을 깨워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

들어가면서

교회의 본원적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명하신 선교 사명의 완수에 있다. 그 동안 한국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는 말씀에 순종, 헌신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 사역자들을 파송해 왔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가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이 21세기의 주요 선교지 가운데 하나임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적인 복음의 열정으로 일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오사카, 후쿠오카, 동경, 우에다, 아찌오에 이어 오는 11월 여섯 번째로 창립하는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는 해외 선교를 향한 한국 기독교 복음 사역의 성과를 드러내는 하나의 귀중한 모범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대표적인 복음 전파 미개척지인 일본을 향한 꾸준한 선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 결실을 위한 바람직한 21세기 일본 선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1세기 일본 선교 전략

일본의 종교적 현황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라는 4개의 거대 섬과 3천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남북 길이 3000km, 총면적이 377,748km²인 한반도 약 4배 크기의 섬나라이다. 인구 약 1억 2천 500만 명에 국민 일인당 GNP가 2만 3천 달러를 넘어 선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은 19세기 초부터 천황을

신성시하는 종교적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래 1868년 메이지 유신, 제 2차 세계 대전 중 정복에 의해 국가적 천황 숭배 종교가 자리를 잡았다. 제 2차 세계 대전의 패전 이후 천황을 숭배하는 신도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 특혜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 숭배는 아직도 일본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천황 숭배 중심의 종교 생활은 신사(神社)에서 참배하는 신토(Shintoism),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는 종교 의식, 가가호호 섬기는 토속적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종교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종교적 의례는 확고한 신앙의식이 아닌 군국주의적 민족의식, 원시적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일본인들은 극히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종교에 무관심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상황

일본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1549년 8월 15일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코 사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해 당시 일본의 실력자 다이묘로부터 선교의 허락을 받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의 싹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도쿠가와 시대에는 약 20만 명의 순교자가 나오는 등 박해가 절정에 달했다.

1859년 미국 선교사들의 입국으로 시작된 개신교 선교 활동도 초기에는 30여개 교단이 뿌리를 내릴 만큼 성공을 거두었으나 1941년 천황이 모든 개신교단을 “일본기독교단”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고 천황 숭배와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서 성장을 멈췄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천황제, 신사 참배, 토속적 우상 숭배, 그리고 경제적 발전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 오늘날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0.2~0.4%에 불과하게 되었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개신교 교회는 7,642개로 인구 16,431명당 1개 교회로서,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9개, 교회가 단 하나 뿐인 도시가 80여 지역이었다. 또한 일본 전국 읍 소재지 2,519개 가운데 70%에 교회가 없으며, 주일 예배 출석자는 26만 명

으로 한 교회당 평균 출석자 수는 35명이다.

일본 선교와 교회 성장의 장애 요인

오늘날 일본의 개신교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46년 이후 새로운 해외 선교 단체가 들어옴으로 130여 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3,000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으나 선교의 열매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토록 많은 교단과 교파의 선교사들이 전심전력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결실이 적은 이유, 즉 일본 선교의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일본인 특유의 집단주의이다. 일본인들은 민족의식이 강하고 타민족,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이다. 그들은 19세기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문명의 이기적인 측면은 수용하되 내용 자체는 거부했을 정도로 ‘토착화’ 과정을 견디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타성이 천황주의,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선교를 방해하고 있다.

둘째, 일본에는 토속적 미신, 다시 말해 다신교적 종교 행태가 만연해 있다.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800만의 신들이 있다고 믿어왔다. 일본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고도의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종교 문화적으로는 원시 초기의 단계에 있는 매우 특이하고 아이러니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창가학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물문교와 같은 신종교 단체와 기독교 이단들이 일본인들에게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여 온전한 기독교 복음 전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독특한 차별적 감정이 있다. 중국인들의 중화(中華) 사상과 유사하게 일본인들은 과거 식민 통치의 역사를 반추하며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저들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배울 수는 없다는 민족적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가 일본인을 전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일본 선교를 위한 효과적 전략

한국과 일본은 19세기 중반 이후 비슷한 시기에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세계 각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할 정도로 부흥을 이루었으나 일본은 기독교인이 겨우 0.2~0.4%대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열악하다. 먼저 부흥을 경험한 나라로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이다. 우리에게 비록 일본에게 지배당한 아픈 기억이 있으나, 복음의 종주국으로 복음을 들고 일본을 깨워야 할 선교적 사명이 있다. 이를 위해,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 문명과 극도로 다

략

원화된 21세기의 세계 문화 속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을 선교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과거 일본에 대한 피해 의식과 그에 따른 적대적 감정을 버리고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 또한 선교 대상지는 경제적 낙후지역이아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 대국 일본을 복음화하면 그들의 자본, 상품을 통해 세계 복음화가 더욱 급속하고 용이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일본 선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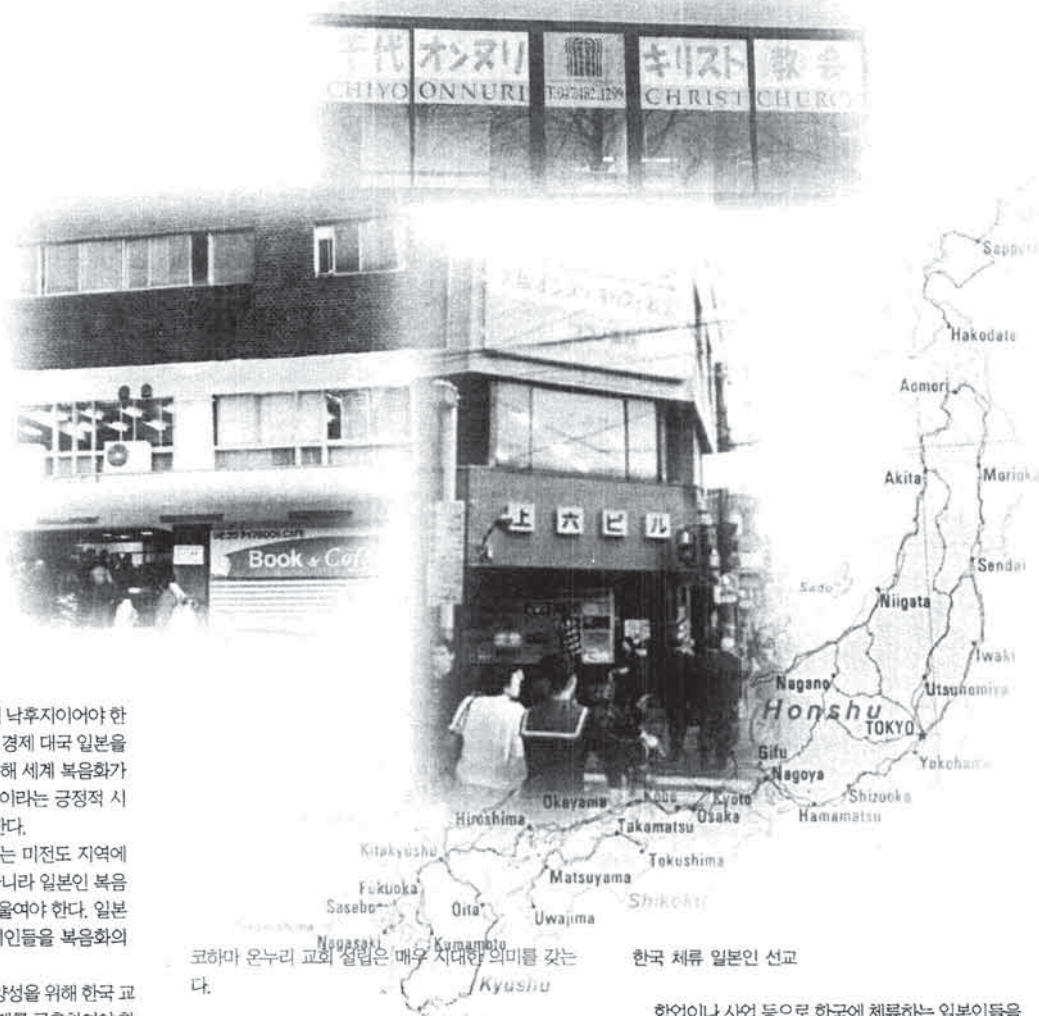
둘째, 일본 전 지역의 68%나 되는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되 교회의 개척 뿐 아니라 일본인 복음 사역자 양성에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선교의 궁극적 종착지는 일본 현지인들을 복음화의 일군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일본 현지인 복음 사역자 양성을 위해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 교회 백주년 기념관에서 가진 '99 일본 선교 대회'에서 합의 도출된 주요 결론은 "새 천년의 일본 선교는 일본인들이 주를 이루고 한국인들이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제안한 세 가지의 전제 조건 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일본 선교를 위해 선교 대상을 먼저 설정하되 세 가지 차원, 즉 조총련을 포함한 재일 교포, 현지 일본인, 한국 체류 일본인으로 분류하여 선교적 전략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재일 교포 선교

재일 교포 선교는 그동안 터부시 되어왔던 조총련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는 것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조총련 선교는 북한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995년 조사에 따르면 재일 교포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 불법 취업 등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교포까지 합하면 대략 12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복음으로 민단과 조총련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일본의 사회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재일 교포들이 앞장서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한 선교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향한 전도 사역과 교회의 설립은 일본 선교를 위해 그 어느 사역보다 중요한 급선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동경, 우에다, 야쓰오, 오사카, 후쿠오카에 이어 2003년 6월 급변 여섯 번째로 이루어진 오



코하마 온누리 교회 설립은 매우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

현지 일본인 선교

일본 선교는 한국인 선교사가 아닌 일본인이 중심이 된 토착 교회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할 당시 선교 원칙으로 세웠던 네비우스 원리 (the Nevius principle), 즉 자치(自治), 자급(自給), 자전(自傳)의 선교 방법에 따라 일본의 토착 교회가 직접 선교의 선봉에 나서도록 돕는 일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의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일본 선교의 모델을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에 집착하며 주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겼다. 그리고 교회 운영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과 말씀의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말씀과 교육에 기초한 영적 성장의 차원과 관련한 선교 사역만을 수행함을 뜻한다. 또한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 복음 사역자들의 목회적 미비점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영적 훈련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 체류 일본인 선교

학업이나 사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을 선교하는 일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일본 선교의 지름길이자 한일 관계를 더욱 뜻있게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어 예배 개설, 일본어 예배에 일대일 제자 훈련과 같은 후속 프로그램을 연관하여 더욱 강화하는 프로그램 등은 한국 체류 일본인 선교에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다.

나오면서

21세기 효과적인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 대상 지역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어야 하며, 경제 대국 일본은 선교와 무관하다는 생각과 과거 한국을 식민 통치하고 착취했던 나라이기에 일본을 꺼려하는 일종의 선입견, 고정관념인 '요나식 발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사회 경제적 힘, 가치, 역사적 사실이 기준이 되거나 장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성도는 '선교지가 아닌 것 같은', 또는 무의식적으로나마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꺼려지는' 일본 선교를 통하여 오히려 귀하고도 온전한 선교 사역의 모범과 열매를 맺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조총련을 포함한 재일 동포들을 위한 교회 개척과 목회, 현지인 토착 교회들의 독립적 성장을 위한 영적 지원, 그리고 한국 체류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어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을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일대일대외협력사역

전남해남서 중국단동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웃리치가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2002년 7월25일 여섯 명의 일대일일만사역자들은 중국 당동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그들이 장도(長途)에 오르면서 준비한 여행가방 한 짐을 가득 채운 건 옷이나 여행용품이 아닌 현지서 전해 줄 일대일양육교재와 성경책이었다.

그들은 왜 중국행을 선택했을까? 여름휴가마저 선택 반납할 수 있었던 사정을 물어보단면 틀림없이 ‘그곳에 일대일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에베레스트산을 두 번이나 등정하고 돌아온 영국의 산악인 멜러리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왜 산에 오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저기 산이 있으니까요”라고 대답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일대일은 그 명령에 따르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방식이다.

일대일에 목마른 주변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일대일을 포기처럼 여겨, 불편함을 물렸던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대일은 온누리교회만이 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지방으로 해외로 나가 뿌리는 씨앗이 되어 한다.

헌신된 마음으로 부르는 곳 어디든지...

최근 2년 간 일대일사역팀은 공식적으로 50여명의 일대일 일만양육사역자를 파견해 30여 차례의 대외양육을 완료했다. 가깝게는 서울근교에서 멀리 전남 해남의 땅 끝마



을까지 전국방방곡곡 일대일을 요청한 교회로 달려갔다. 지난해 중국 단동한인교회를 방문했던 것은 해외사역으로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였다.

이렇게 대외양육을 할 수 있는 우리교회 일대일일만양육사역자는 631명이나 된다. 5회 이상 일대일을 했고 공동체가 추천한 분들로,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평신도들이다.

그들은 자비량 원칙에 따라 교회나 일대일사역팀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지 않지만 헌신된 마음만으로 부르는 곳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한 교회를 섬겨 그 곳에 일대일을 뿌리내리면 그들은 또 다른 교회들을 섬길 것이다. 일대일의 재생산 원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일대일로 세계로’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어진다.

일대일사역팀 박준영/parkjy@kmi.co.kr

일대일대외협력사역은 이렇게

- ▲ 일대일대외사역요청서 양식에 따라 E-mail 또는 Fax로 접수
- ▲ 교회 담임목사님이 직접 요청하고 먼저 양육 받아야 접수 가능
- ▲ 파송인원, 일자, 대상, 연령, 지역 등 기본적인 조사실시
- ▲ 담임 목사님을 포함 5명 이내 인원 파송
- ▲ 서울 및 근교지역은 직접 파견하고 지방의 경우 협의
- ▲ 파송 사역자의 모든 소요 경비는 자비량 원칙
- ▲ 평신도가 큐티하지 않는 교회는 우선 큐티세미나 개최
- ▲ 파송 교회는 일대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2001년 10월 서울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곳에 왔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대사관의 한 직원 부인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몇 달 동안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에 교회에 나갈 것을 권했지요. 그랬더니 집안이 불교라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성경공부조차 남편한테 쫓겨난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순간 에스더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부인이 가르쳐도 당시 남편이 쫓아내셨느냐?”

일단 말은 그렇게 하고 왔지만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믿음 좋은 다른 부인과 상의했을 때, 그는 예수 안에서 부인들이 하나되기를 위해 기도해왔으며 당사 부인들을 모아 성경공부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일 뒤 많은 부인들이 모였고 일대일을 시작했습니다. 일대일을 여러 명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지만 다른 부인들이 도와주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

교회 프로그램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놀랄 정도로 배운 것들이 적재적소에서 기억나는 겁니다.

준비 또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책장에 꽂혀 있거나 했던 강해설교와 많은 신앙

에스더가 일대일 한다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한 사람 개별적인 양육은 할 수 없어도 그 사람들이, 제가 대사부인이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오는 데 한 사람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대일은 서울에서 딱 한 번 해 본 경험이 전부여서 서툴렀지요. 처음엔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고 지난 7년 간 한 국에서 했던 성경공부와 여러 가지 온누리


서적들을 모조리 독파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사람을 놓고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사부인이라는 체면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공부할 때 세 명이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천주교 신자였고, 믿음이 식은 분이었고, 전혀 믿지 않았던 분들이 일대일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일대일을 시작하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믿지 않던 제 어머니가 너무나 잘 믿게 되신 겁니다. 이왕 시작한 길에 집안일 도와주는 아줌마들에게도 공부할 시켰는데 편찮으신 저의 어머니도 누워서 같이 듣고 배우 시고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아셨고, ‘예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를 18번으로 찬양 할머니가 되어 하루에 한시간 이상 찬양을 하신답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고 너무나 전도하기 무서웠던 어머니, 그 분의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이 좋은 간증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서 공부한 것을 기록도 하시고 저희 이모님께 전화로 전도까지 하십니다.

일대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며 또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신앙이 정말 한 단계 올라선 기분입니다. 그래서 감히 권해봅니다. 일대일 양육을 하시라고요.

서초공동체 배영민 집사

*


Turning Point (단기선교훈련) 훈련생 모집
 6월 30일~7월 25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마감: 6월 16일
 자격: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제자 양육, 노총, 봉사, 컴퓨터 등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취업용 건강진단서 (보건소 진단서는 제외), 추천서 2부 (규정양식에 의거)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2기 견습선교사 모집
 훈련기간: 6월 30일~7월 26일 양지선교센터
 서류: 대학 청년홈페이지 견습선교사 신청서류 다운받기
 접수: 각 공동체 예배시 로비 데스크
 문의: 이준 전도사 (011-9636-9608) TIM 최영란 간사(794-1063-5)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6월 23일(월) 오후 7:00 장소는 추후공고
 주최: 소아시아 공동체
 문의: 017-278-3376(엘마안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 기도모임은 화요일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에펠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펠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2003 의료선교 D팀 캄보디아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7월 16일~20일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후원물품: 여름옷, 의약품, 슬리퍼, 학용품
 마감: 6월 14일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yahoo.co.kr)

극동러시아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극동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지역의 EEF(Ebenezer Emergency Fund: 유대인 귀환사역 국제단체)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Fishing trip(유대인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7월 30일~8월 6일(7일) 극동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사역내용: 유대인 가정 방문, EEF-Fishing trip(유대인 귀환사역) 체험, 교회방문
 참가신청: KIBI, EEF-Korea (792-7075 / kibikorea@yahoo.com)

자원봉사자
☞ 일어 예배 유치부 반주자 모집
 일어 유치부 예배(토요일 오후 1:00)에서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일어를 못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맹신자 (019-390-2481) 황해경 간사 (793-9686 교 702)

☞ 일어 예배 탁아 봉사자 모집
 매주 월, 금 오전 9:40부터 미지 않는 일본 주부를 위해 선교사의 심정으로 일본 어린이를 위한 탁아봉사를 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쿠가 지에코 집사 (019-234-0688) 황해경 간사 (793-9686 교 702)

외국인 근로자진료를 위한 봉사자
 간호사, 의사, 약사, 치과 의사, 치과관련종사자로 한달에 한번 주일 오후 4:00~6:00
 문의: 박상호 (온누리라파팀장 / 2245-7260)

2003년 해외선교한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 (교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직통 (02-790-6052)

ACTS 29 한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조흥은행 398-03-013049
 외환은행 010-33-23153-5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예금주: 온누리교회
 * 현금방법
 계좌이체: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
 이체시 이름 뒤에 주민번호 앞 4자리 숫자를 입력
 현금봉투: 본당 입구 비치된 봉투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입 후 현금함 이용

01

온누리 세계선교훈련학교 수료 예배

온누리 선교사 훈련학교 훈련생 14명이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마치고 21일(토) 오후 4시 서빙고 한동홀에서 수료예배를 드린다.

수료예배는 황종연 목사가 사회를 보고 ▷훈련생 일대기를 그린 영상 상영, ▷간증, ▷하용조 목사 설교, ▷수료증 수여, ▷교역자 장로 안수기도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평신도선교훈련학교 '와이미션' 수료생 50여 명도 함께 수료예배를 드린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파키스탄어 예배 6주년 감사



서는 것을 꿈꾸라"며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 을 주었다. 심상달 장로(온누리미션 담당)는 "6년을 맞 는 파키스탄 예배 가 말씀과 양육, 신 앙으로 계속 성장 하고 커가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파키스탄어(우르두어) 예배 6주년 기념예 배가 지난주일(8일) 오후 2시 선교관 303호 에서 열렸다. 김사무엘 목사는 설교에서 "파 키스탄에 온누리교회보다 열 배 큰 교회가

참석자들은 예배 후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지난 5월 25일 동작8공동체는 C국 D시 선교사역을 후원하기 위해 음식 바자를 했다. 이 바자를 섬긴 김영신 자매는 "가족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나오는 무관한 것 같았던 선교지가 무척 가깝 게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아프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

아프간으로 간 첫 번째 아웃리치팀이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의사, 간호사, 약사, 통역, 중보기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아웃리치팀은 TIM NGO등록을 마친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와 함께 아프간 카불 인근 마을에서 의료사역을 했다.



◁ 김중원목사를 비롯한 12명은 카불 인근 탐다라, 두가하바마을에서 700여명을 진료했다.



△ 학교시설 보수, 의료진료, 우물개발 등 마을 환경조성 사업을 하게 될 후보지 두 곳을 놓고 조사 연구하고 있다.

▽ 아프간 문화센터 컴퓨터와 미술용품 기증식이 5월 20일 열렸다.



오랜 전쟁으로 너무나 황폐해진 땅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곳의 영혼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지 제게 보게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약을 받아가고자 애쓰는 그들, 지금까지 얼마나 목마르고 애타게 도움을 기다렸을까...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치료해 줄 수 있도록 시간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게 마음 아팠습니다.

의료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나라가 가르쳐 준 열심 아닌 노래를 열심히 따라 부르며 좋아하던 아이들, 목이 아프면서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역을 해주었던 사야르, 알리, 사이르, 유니스프, 운전기사야저서, 그 누구보다도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짧은 8일간의 일정 속에서 그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눈물 흘렸지만 이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부족한 저희들을 섬겨주시느라 고생하신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께, 그리고 힘들었지만 서로 아끼고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은

아프가니스탄 사업보고

“아프간에 한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손정래 장로

“아프간인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서문화개발교류회(이하 ECC) 현지 사무소 개설과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지난 4월 12일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손정래 장로가 5월 30일 귀국했다. 손 장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 후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사무실과 숙소를 갖춘 ECC 현지 사무소를 5월 1일 개설했다. 문화정보부의 문화센터 지원사역으로 5월 20일 컴퓨터, 미술용품 등의 물품 기증식을 했다. 기증식에는 아프간 문화정보부 차관과 관계자, 문화센터 관계자와 한국순님 등 모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한동대로 갈 유학생을 면담하고 환경개선 사역을 할 농촌마을 후보지도 조사했다.

이번에 의료아웃리치팀이 탐다라와 두가하바마을에서 7백여 명을 진료했다.



▲ 아프간 카불에 개설한 ECC사무소(원인)와 숙소

중요한 것은 ECC에 한국인 예배가 생긴 것이다. 올해 첫 주부터 NGO단체 크리스천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ECC센터 숙

소동 내에 정식으로 예배실을 마련하고 25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앞으로 할 일은?

6월 22일 사역을 위해 다시 아프간에 간다. 7월 1일 개강하는 문화센터와 유학생 초청문제, 가을에 시작할 농촌마을 사역 등을 진행하며 여름에 오는 아웃리치팀이 사역을 잘 이루도록 도울 것이다. 문화센터에는 현재 3백여 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미술, 컴퓨터, 그래픽 등 수준 높은 교육을 하면 더 많은 청소년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사무소 주소
152 Str.5 Qala-e-Fatehullah
Kabul City Afghanistan

01

'여름 아웃리치 이렇게 준비하자'



박관태 선교사
(몽골/ TIM)

단기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변화"이다. 선교지에서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

것이 단기선교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전도종족을 찾아가자

단기 선교는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종족 (untargeted people)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몽골에는 20여 개의 소수 민족과 곳곳에 미전도종족이 숨어 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100여 개의 교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아웃리치가 도시에만 국한되어 있다. 모슬렘인 비앙올기의 카자족, 순록을 키우며 사는 차튼족,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브리아트족을 향한 사역이 지금 온누리 선교사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단기팀 사역 역시 이러한 흐름과 목표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지속적인 사역이다. 아웃리치는 현지 선교사가 가서 길을 열어놓고, 아웃리치팀과 함께 그 길을 넓히고 굳혀 최종적으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몽골의 모슬렘 종족인 카자족 사역이 지속적인 사역의 좋은 모델이다. 먼저 의료팀이 들어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형태로 선교를 시작한 다음, 단기팀이 카자족의 10대들과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역은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후레 대학에서 컴퓨터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있다. 선교란 한번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듯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이어져 가야 하는 긴 여정이다. 그러기에 단기선교를 통해 단번에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려하기 보다는 한 나라, 한 종족, 한 지역을 품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전문성 살린 아웃리치 준비하자

둘째, 아웃리치 사역을 전문화해야 한다. 현지 사역자로서 아웃리치팀이 선교지의 어려운 곳을 들어주는 사역을 해주

면 좋을 것이다. 선교지의 필요에 따라 현지 선교사들은 할 수 없는 특화되고 전문화된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성경집회, 전문 의료사역, 가정훈련학교나 결혼훈련학교 등의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한국 요리강습, 교회 건축 협조, 찬양 콘서트 등 아이들은 얼마든지 있다. 공동체 단위로 팀이 구성되는 것도 좋지만, 의료팀, 이마용팀, 건축팀, 컴퓨터 교육팀, MK 사역팀, 영상 미술팀, 각종 세미나 관련팀 등 전문 사역팀이 구성되어 수시로 출동 가능한 체제를 이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 병원은 추석 연휴 때마다 고대 구로병원 수술팀이 온다. 여름에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교제하고, 선교사도 지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다.

교회에 힘을 실어주자

한 영혼이 자라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동안 보아왔다. 따라서 단기팀이 효과적으로 사역지를 돕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를 기반으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각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돕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풍부한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한 현지교회를 돕는 것은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된다. 아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현지인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영향력은 일년 이년 지속되어 열매 맺곤 한다. 작년에는 다윗공동체와 JDS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련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작년의 그 팀이 올해 다시 오지 않느냐고 물어보곤 한다. 또한 교회에 따라 교회 건축이나 성전을 꾸미는 일을 돕거나 전도를 통해 교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 선교사들은 우스개 소리로 여름 단기팀 사역을 '여름장사 내지는 '여름농사' 라고 부른다. 힘든 데도 안할 수는 없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하지만 주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확신하기에 뜨거운 열정과 기도로 몽골을 찾은 많은 성도를 올려보며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선물이기 때문이다.

02

2003 온누리 아웃리치 스쿨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 낚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13) 이번 2003년 여름에는 온누리 선교 베이스가 있는 곳, 교회 비전에 적합한 곳, 공동체 섬김 선교지 중심으로 전 공동체가 아웃리치를 떠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아웃리치를 준비하면 될까? 아웃리치 스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 온누리 아웃리치 세미나 - 열매 맺는 아웃리치

2천선교팀은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소회의실에서 '온누리 아웃리치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실제로 아웃리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교사들을 초청, 현지 상황과 단기선교팀의 전략 등을 강의한다.

6월 24일 <편성, 준비, 실시단계>

(아웃리치 기본방향)김중원 목사, 김창욱 전도사

7월 1일 <열매맺는 아웃리치> 김가파 선교사 현장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역소개

7월 8일 <현장중심의 사역> 조용백 선교사 현지 중심의 열매 맺는 선교지향 아웃리치 이후의 관리
문의: 황민식 간사 (793-9686 교 208)

■ 의료선교 아웃리치 스쿨 -

해의 아웃리치 단기선교학교(의료선교팀 주최)

의료선교팀은 어제(14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서빙고 101호에서 '의료선교 아웃리치 스쿨'을

시작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팀 등 의료선교를 위한 시제적인 부분을 다룬다.

6월 14일 '세계 선교와 ACTS 29' (김중원 목사),

6월 21일 '선교와 문화적 이해' (여성진 목사),

6월 28일 '현지 조사 및 현지 이해' (황중연 목사),

7월 5일 '의료선교의 실제' (안태환 집사),

7월 12일 '공동체성과 팀사역의 정신(백상욱 전도사)' 외 문의: 신양훈 간사 (793-9686 교 637)

■ 대학청년부 아웃리치 스쿨

서빙고와 양재 청년부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아웃리치 스쿨'을 연다. 일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빙고 청년부

6월 18일 서빙고 비전홀 / 최봉오 전도사(BBB 대표,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부 파트교역자) - 성령으로 증거하는 방법, 전도훈련 1

6월 25일 양재 화평 성전/ 박종렬 목사님(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담당교역자) - 아웃리치를 떠나는 대청의 결단과 각오

6월 27일 서빙고 한동홀 / 최봉오 전도사(BBB 대표, 온누리교회 전도사역부 파트교역자) - 전도훈련2, 전도훈련3

문의: 윤서희 간사 (793-9686 교 744)

양재 청년부

6월 18일 국내스쿨- 강동진 목사(농촌지역교회의 현실과

요청사항) / 해외스쿨 - 김홍주 목사(해외 단기선교의 자세와 준비사항)

6월 25일 국내 스쿨, 해외 스쿨 - 박종렬 목사님(아웃리치를 떠나는 대청의 결단과 각오)

대학부는 6월 25일(수) 오후 1시부터 아웃리치를 위한 모임을 한다. 오후 3시에는 도배, 사진, 수지침, 어린이성경학교 등 기능별 특강도 있다. 오후 7시에는 연합집회가 열린다.
문의: 양재 청년부 성화진 간사(570-7307)

■ 꿈땅 아웃리치 스쿨

꿈이 자라는 땅은 4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30분에 모여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다르항으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꿈땅은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다.

6월 14, 21일 내적치유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박) / 이도원 목사

6월 28일 태권무와 부채춤 배우기

7월 5일 양화진 방문 (속박) / 이용남 선교사

7월 12일 전도와 선교 / 김현실 목사

7월 19일 초등1부 캠프 (속박)

7월 26일 모듬활동

8월 2일 애찬식 (LOVE FEAST) / 출정식

문의: 민경민 전도사 (019-603-9475)



요코하마가 '영적 개항의 도시' 로 가

하용조 목사, 하코네에 이어 또 한 번 일본의 ... "밤하늘의 별과 같이 교회가 충만할지"

때에 따라 주신 말씀 그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큐티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 그대로 요코하마온누리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동경온누리비전교회의 오공자 사모와 성도들의 신앙고백이다. 2003년 새 해를 맞으며 동경온누리비전교회 장재운 목사와 성도들은 교회 창립에서부터 꿈꿔왔던 '교회 개척' 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개항할 당시 많은 문물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한 까닭에 곳곳에 미국적인 정취가 묻어나는 국제적인 항구도시 요코하마를 놓고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출애굽기' 말씀을 큐티하기 시작한 2월초부터 이 꿈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났듯이 요코하마에서도 가장 좋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40번 이상을 동경과 요코하마를 오가며 교회가 세워질 터를 찾았다. 그러나 건물주마다 용도가 교회용, 임차하려 온 사람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보증인 세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임대를 거절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 개척을 인도해 주셨다.

"그들이 열림에 이르니 거기 물설 열돌과 종려 칠 십 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출15:27).

지난 4월 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열림에 이르러 장막을 치는 말씀을 큐티하는 날, 드디어 요코하마에서도 가장 좋은 터에 자리 잡은 건물 2층 50여평을 계약했다. 부동산업을 하는 사와다니(남, 65세)를 비롯 전 성도들이 발 벗고 나선 결실이었다.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출40:2).

말씀에 의지하여 6월 11일을 창립일로 선포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2개월 동안의 산고 끝에 드디어 '요코하마온누리교회' 가 아름답게 세워졌다. 때에 따라 주신 말씀 그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였다.

잃어 버린 일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요코하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욱 장로의 대표기도는 요코하마온누리교회 창립예배에 참석한 1백여 명의 한결같은 소망이요 바

램이었다.

한국과 일본 온누리 공동체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우에다, 후쿠오카, 동경, 아치오, 오사카, 고베, 나라... 일본 각 처와 서울에서 단숨에 요코하마로 달려왔다. 이른 새벽 여명을 가르며 기쁨으로 현해탄을 건넌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넌다. 일본 생명의 말씀사, 요코하마영사관, 오비린 대학에서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누리 가족과 하나되어 요코하마온누리교회 창립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최우선 경영전략' 으로 성공한 가네보 회사의 CEO였던 미타니 야스토 부부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넘쳤다.

일본 온누리 여섯 개 공동체 목사 부부들이 특별한 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자 이곳저곳에서는 손수건으

다. 요코하마라는 장소를 주신 것도, 이 집을 얻게 된 것도, 장소를 주신 것도, 초지 히사시목사님을 보내주신 것도 모두가 다 기적같은 일입니다."

하용조 목사의 메시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과 힘이 넘쳤다. 하용조 목사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행2:1-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민족과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일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을 전하며 작년 하코네 수련회에 이어 또 한 번 일본의 영적 부흥을 예언하며 선포하였다.

"성령이여, 요코하마에 부흥을 주옵소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요코하마에 교회가 충만할지어다!"

'제2의 비상' 을 꿈꾸는 요코하마

우리에게는 '2002년 월드컵 결승전이 치러진 도시로 잘 알려진 요코하마의 항구 주변에는 일찍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인 개항항답게 이슬람풍의 녹색 동형 건물, 유럽풍의 빨간 벽돌 창고, 서양식 석조 건물 등 미국적인 건물 많이 들어와 있다. 해안에 접해있는 영국풍의 공원과 멋진 조화를 이루는 베이브리지, 외국인 묘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차이 나타운, 17.5 만㎡의 대지 위에 만들어진 대규모의 일본식 정원 산케이엔(三溪園)은 일본의 관문' 요코하마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런 요코하마가 미래의 항구도시 '미라토 미라이21' 건설과 함께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미라토 미라이21' (港未來21, MM21)은 이름 그대로 요코하마가 21세기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24시간 활동하는 국제문화도시, 21세기 정보도시, '물과 자연과 역사와 함께하는 인간환경도시'를 테마로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미라토 미라이21'에는 요트의 뜻을 연상하게 하는 퍼시픽코(Pacifico) 요코하마, 일본 최

대급의 북 요코하마 마를 지탱 '제2의 요코하마' 유명한 패지척에 '다. 하나님 거쳐 지든 아버지'와 이 한 시류 부하며 혼 '하나' 해아할 것 를 담임목

일본의 ?

창립이 요코하마는 은혜의 다음 1층에서 나 였다. 한: '이:2' 임을 자랑 21에 있지 요코하 있게 도 도록 요: 씬을 주: 헤의 말씀 사다. "그:4' 성막에 4 에 있고: 의 온 족 (출40:34



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12개 일본 교회 개척', 참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그 비전이 하나 하나 이뤄지고 있는 감격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뜨거운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었다.

"하나님은 한국 땅에 교회가 생기면 앉아서 기뻐하시고 일본 땅에 교회가 생기면 일어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코하마온누리교회가 생긴 것은 기적입니

답입니다

부흥 선포 어대!

Zone1 퀸 스퀘어, 일본 최고의 고층빌딩 드마크 타워가 마치 거대한 도시 요코하고 있는 마스코트 같이 우뚝 서 있다. 1상 을 꿈꾸고 있는 요코하마의 중심부에 니리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는 요코하마의 거리인 모토마치(元町)에 자리잡고 있다. 토 미라이21, 차이나타운, 해양공원이 있! 일본 생명의 말씀사 요코하마 지점장을 나라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는 교하마가 고향인 아내를 둔 일본인 젊은 초지 히사시를 온누리교회로 보내셔서 공 받게 하셨다.

일본인을 위해 일본인이 어떻게 목회를 지를 모델로 보여 주시기 위해 그 젊은이 로 세우셨다.

한 행복은 '오직 예수'

를 마친 날 밤부터 이틀 동안 성령의 비가 적셨다. 일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시 었다.

일본에서 가장 높다는 랜드마크 타워 69 다보는 요코하마는 짙은 운무에 잠겨 있 감을 내다 볼 수 없었다.

이들이 소망하는 부흥이, 세계 최강대국 는 일본의 진정한 행복이 미라토 미라이 구나!

가 꿈꾸는 '제2의 비상' 이 '오직 예수' 에 하마가 '영적 개항 도시' 로 거듭 날 수 있 마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시 하나님께서 말 ; 요코하마온누리교회를 탄생하게 한 은 요, 교회와 일본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회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 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8). 아멘.*



1월 편집국장
@onnuri.or.kr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일본 가득 풍성한 열매 맺길'



마루야마 전무
(일본 생명의 말씀사)

요코하마온누리교회의 탄생을 축하 합니다. 하 목사님과 알고 지낸지 2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은 해를 누립니다. 한국에서 온누리교회의 좋은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일본에 12 개 교회를 세우는 온누리 비전에 따라 요코하마에 여섯 번째 온누리교회가 세 워지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사카온누리교회 담임이신 히사시 목사님의 아버님은 저희 생명의말씀사 요코하마 지점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전도 목회를 하십니다. 저 회 회사에서 현신자가 나오고, 또 그아들이 목회자가 되어 이렇게 요코하마온누리교회를 맡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 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온누리교회의 비전, 사역을 배우고 함께한 순수 한 일본인이 목회를 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요 코하마온누리교회가 일본 온 천하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일본을 복되게 하십시오'



정정검
(주요코하마 총영사)

요코하마 교포들을 대표해서 창립 예배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하용 조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일본 현지인 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코하 마는 개항 도시입니다. 일본의 정신적,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 한 요코하마는 한국과 매우 중요한 관 계를 맺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곳에 서울 온누리교회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 음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일본을 더욱 복 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코하마온누리교회 초지 히사시 목사와 함께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초지 히사시 목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온누리 성도와 함께 교회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립 예배를 갖고 아마 남다른 감회가 있으시 라라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으로 보살 피 주신 온누리 성도님들, 일본어예배 가 족들, 하용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정 말 한국에서, 온누리가 저에게 보내 주신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요코하마에 오기 전에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에 나오는 교회는 특별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젊 고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코 하마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본의 관문인 이 요코하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 레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3백, 5백 명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 교회가 참 예쁩니다. 교회의 규모를 소개해 주시죠.

"전체 면적이 50평입니다. 그 중 35평을 본당으로, 15평을 사무실, 유아실로 사용 할 것입니다. 본당에는 84개의 의자를 갖 다 놓았습니다. 아직 성도는 한 사람도 없 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의자들이 모자라 적어도 100개의 의자를 채워 넣어 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 3백, 5백 명 성도들의 아름 다운 신앙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양케트 조사로 주민들의 영적 욕구를 목회에 반영

- 어떤 목회를 꿈꾸고 계신지요?

"우선 요코하마 주민을 대상으로 양케 트 조사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기독교 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들 의 영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이들을 어떤

계 도울 것이지를 조사하여 요코하마 온 누리그리스도교회의 목회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인을 위한 '온누리 교회', '바로 그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 다. 그 꿈을 향한 첫걸음으로 우선 전도사 역, 가정 사역, 캠퍼스 사역을 시작할 것 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전도에 나서이지 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 요코하마온누리교회가 요코하마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도, 가정, 캠퍼스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온누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 고 싶은 기도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코하마온누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척교회에 필요한 하나 님의 일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 고 승리하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 교회에 도전이 되는 '선한 영향력' 기대

나가야시 목사(인터내셔널교회)

하용조 목사님과 많은 장로님, 그리고 3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온누리교회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교회입니다.

요코하마에 그런 온누리 교회가 생긴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 곳에서도 서울 온누리와 같은 사역, 프로그램, 세미나가 생겨

일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요코하마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암을 통해 일본에 보내 주신 이 시대의 사도 바울

이운구 장로 (고베 동부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12개 일본교회 개척'이라는 꿈을 주시고, 하목사님을 통해 이 꿈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왜 일본에 많은 곳 중에서 요코하마에 교회를 창

립하는 비전을 하목사님께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며 그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가까이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투병생활과 교회 개척활동을 지켜볼 때 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떨립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하심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용조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이 간암을 통

해 일본에 보내 주신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12개 일본교회 개척'이 가시적으로 이리교회 창립예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이 교회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가 큼니다

김사무엘 목사

요코하마는 일본에 서양문화가 들어 올 때 개항한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외국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선교사들은 이곳을 통해 제일 많이 들어 왔습니다. 요코하마는 문물을 개방한 이후 지역을 정해서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차이나 타운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외국사람들에게 상당히 개방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일본 온누리교회를 열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요코하마온누리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츠치 히사시 목사 내외가 이곳 출신이고 온누리에서 4년 동안 훈련받고 파송받은 첫 일본목사이기에 이 분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의 참 모습이 이 곳에서 이루어지

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큼니다.

지금은 정해진 신자가 한 사람도 없고 선교적 차원에서 이제부터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모셔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큼니다.

오늘 교회 창립예배에 서울과 일본 각 처에서 많은 사람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코하마온누리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개 일본교회 개척'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

정인순 장로

후쿠오카, 오사카, 동경, 우에다, 아치오 온누리교회에 이어 요코하마에 온누리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창립예배를 드리며 특별한 기쁨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 교회가 탄

탄해지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서입니다. 요코하마 중심가에 자리잡은 교회 주변에는 사무실 건물, 주택이 많이 있으며 차이나 타운이 가까이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음 전파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요코하마온누리교회는 우에다온누리교회와 함께 일본인을 위한 예배와 사역을

일본인이 이루어가는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어 꿈으로 주신 'Acts 29'의 일환인 '12개 일본교회 개척'의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맛보며'

박형규 장로 (일본어예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온누리교회에 일본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12개 일본교회 개척'의 꿈을 이뤄 나가시고 계십니다. 후쿠오카, 오사카, 동경, 우에다, 아치오

에 이어 이곳 요코하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번 창립예배로 확인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번에 창립하는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는 일본교회 개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온누리가 배출한 일본인 목사가

일본인을 위한 목회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예배에서는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통해 요코하마가 일본 영적 부흥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며 각종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요코하마은누리교회 창립예배 메시지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황요조 목사

하나님은 한국 땅에 교회가 생기면 앉아서 기뻐하시고 일본 땅에 교회가 생기면 일어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코하마은누리교회가 생긴 것은 기적입니다. 요코하마를 장소로 주신 것도, 이 집을 얻게 된 것도, 초지 목사님을 보내주시신 것도 모두 기적입니다.

일본인 초지 목사님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트리니티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던 한국말도 알게 되었고 예쁜 두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교회에 담임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찾기가 힘들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을 통해 일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오사카교회, 동경교회, 우에다교회, 야치오교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에다 교회를 보니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에다 교회의 야마나카 목사님은 일본 사람이고 부인은 한국 사람입니다. 동경은누리교회 장재운 목사님과 오펜자 사모님은 한국 사람인데, 알고 보니 사모님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장목사님은 일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창립예배를 드리는 요코하마에는 일본인 부부가 목회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여섯 개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 교회는 모두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을 위한 교회입니다. 저는 일본인이 일본인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아치오 교회 이후 그동안 6개월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금년이 지나기 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역사를 초월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싸우고 갈라서서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대, 한 민족, 한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설교하고, 성령으로 세례 받고,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요코하마 교회가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 성령이 기쁨 부으시는 교회,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아 교회가 흠어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흠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어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흠어졌습니다. 그 결과 로마가, 유럽이,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요코하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오비린(櫻美

본인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을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70, 80세가 되었는데, 모두들 그 사람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울에 그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을 받은 그 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이렇듯 사람을 바꿉니다. 민족과 역사를 초월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이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요코하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세례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요코하마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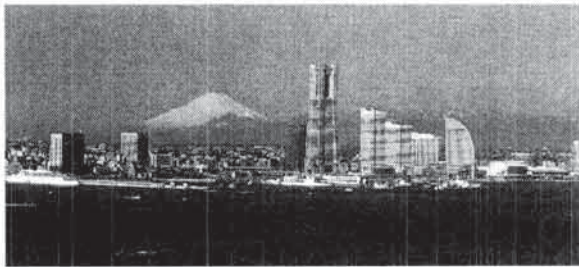
선교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요코하마

동경에 은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기 위해 일본에 왔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연이어 우에다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기적 같습니다. 아치오에 교회가 생겼고 이번에는 요코하마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요코하마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요코하마는 항구도시입니다. 아마 선교사가 이곳을 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는 선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일본에는 약 100개의 기독교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요코하마에 부흥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결혼한 아기를 낳듯이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낳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동경교회가 요코하마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하며 고생했습니다. 이제는 요코하마 교회가 성장하여 또 다른 아기를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본땅에 교회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 요코하마는 미래의 항구로서 '미라토 미라이21' 건설과 함께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요코하마가 꿈꾸는 '제2의 비상' 이 '오직 예수'에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곳에 요코하마은누리교회가 세워졌다.

세워지면 민족과 사회가 변합니다. 가정과 자녀가 변합니다.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고, 경제와 기술이 발전한다고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은 파괴됩니다. 진정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요코하마에 교회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저는 10년 후를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 오고 그들이 일본을 바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林)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학장님을 비롯하여 학교 지도자들을 만나 두 시간이 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습다. 80년 전 시미즈 야스미즈 설립자가 미국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은 그는 중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 학교를 세워 중국 사람과 비참한 환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본식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한국 사람에게 한국식으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일본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80년 전 미국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일본땅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희망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이 일본에 돌아와서 세운 학교가 오비린대학입니다.

한국 사람을 위해 이렇게 희생한 일

*



2000선교

Turning Point

(단기선교훈련) 훈련생 모집

6월 30일~7월 25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마감: 6월 16일

자격: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제자 양육, 노동, 봉사, 컴퓨터 등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취업용 건강진단서 (보건소 진단서는 제외), 추천서 2부(규정양식에 의거)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2기 견습선교사 모집

훈련기간: 6월 30일~7월 26일 양지선교센터

서류: 대학·청년홈페이지 견습선교사 신청서

서류 다운 받기

접수: 각 공동체 예배서 로비 데스크

문의: 이준 전도사 (011-9636-9608)

TIM 최영란 간사(794-1063-5)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사회의실

문의: 795-9085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6월 16일(월) 오후 7:30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기도실

말씀: 도옥환 목사, 신인순 선교사

문의: 윤정현(018-225-9018)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6월 23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5호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엘마인팀 (017-278-337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일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에텔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텔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웃리치

2003년 터키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8월 11일~8월 20일(9박10일)

*성지순례 7박8일 일정도 있음.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이영미 자매 (016-259-9138)

의료선교 B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13일~18일

지역: 미얀마(양곤)

사역분야: 한방, 안과, 치과, 미용, 찬양

문의: 신화철 팀장(011-701-5437)

박성현 자매(011-9731-0258)

의료선교 C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30일~8월 4일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섬 이슬람 지역

모집분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치과, 한방, 약

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비용: 약 75만원

문의: 안태환 팀장(011-323-1515)

홈페이지(www.onnuri.or.kr/rafa) 게시판

참조

2003 의료선교 D팀 캄보디아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7월 16일~20일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후원물품: 여름옷, 의약품, 슬리퍼, 화장품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yahoo.co.kr)

의료선교팀 단기선교학교

6월 14일~7월 13일 매주 토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101호

내용: 세계선교와 ACTS 29(김종원 목사), 선

교와 문화적 이해(여성민 목사), 현지

조사 및 현지 이해(황중영 목사), 의료

선교의 실제(안태환집사), 공동체성과

팀사역의 정신 외(백상욱 전도사)

문의: 신양훈 간사 (793-9686 교 637)

극동러시아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의

EEF(Ebenezer Emergency Fund:유대인

귀환사역 국제단체)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Fishing trip(유대인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직접 몸으로 체험

하게 됩니다.

7월 30일~8월 6일(7일) 극동러시아 하바롭

스크

사역내용: 유대인 가정 방문, EEF-Fishing

trip(유대인 귀환사역) 체험, 교회방문

참가신청: KIBI, EEF-Korea (792-7075 /

kibikorea@yahoo.com)

일어 예배 주일 탁아 봉사자

주일 오전 11:30 일어 예배(서빙고 사회의실)

때 탁아 봉사 해주실 분

봉사시간: 오전 11:20 ~ 오후 1:00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 702)

요시하라 전도사 (019-699-5331)

일어 예배 유치부 반주자 모집

일어 유치부 예배(토요일 오후 1:00)에서 반

주로 봉사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일어를 못

하시는 분도 환영 합니다.

문의: 맹신자 (019-390-2481)

황혜경 간사 (793-9686 교 702)

일어 예배 탁아 봉사자 모집

매주 월, 금 오전 9:40부터 믿지 않는 일본 주

부를 위해 선교사의 심정으로 일본 어린이를

위한 탁아 봉사를 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쿠가 지에고 집사 (019-234-0688)

황혜경 간사 (793-9686 교 702)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전체문의: 이경희 간사

(교514, 017-316-9787)

온누리미션지부 (02-790-6052)

ACTS 29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조흥은행 398-03-013049

외환은행 010-33-23153-5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예금주: 온누리교회

* 헌금방법

계좌이체: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

이체시 이름 뒤에 주민번호앞 4자리 숫자를

입력

헌금봉투: 본당 입구 비치된 봉투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입 후 헌금함 이용

01

*

아웃리치 세미나

공동체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와 동역해 현지 중심의 열매 맺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누리 아웃리치 세미나가 6월 24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중원 목사, 김창욱 전도사, 김마가 선교사, 조용백 선교사가 아웃리치 기본방향, 열매 맺는 아웃리치, 현장 중심 사역으로 나뉘어 아웃리치의 준비부터 선교지 현장 사역까지 실제적인 사역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세미나에 관한 문의는 2천선교 황민식 간사(793-9686 교 208)에게 하시면 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2000선교

Turning Point (단기선교훈련) 훈련생 모집
6월 30일~7월 25일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소재)
자격: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거나 훈련받기를 원하는 사람
분야: 유치원/초등학교/피아노 교사, 문화사역, 개인전도, 제자 양육, 노동, 봉사, 컴퓨터 등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격증 사본, 취업용 건강진단서 (보건소 진단서는 제외), 추천서 2부(규정양식에 의거)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2기 견습선교사 모집
훈련기간: 6월 30일~7월 26일 양지선교센터
서류: 대학·청년홈페이지 견습선교사 신청서
접수: 각 공동체 예배시 로비 데스크
문의: 이준 전도사 (011-9636-9608) / TIM 최영란 간사(794-1063~5)

제1회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선교세미나
7월 9, 10일 오후 7:00~10:00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제: 무슬림에게도 교회개척운동(부제: 이슬람 상황화와 전략코디네이션)
강사: 김요한 선교사(OMF, 동남아 1국에서 상황화 사역 담당)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450~3)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6월 23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5호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엘미안팀 (017-278-337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정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 spring.hanmom.com

6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6월 26일(목) 오후 7:00~9:30 서빙고 선교관 302호
강사: 변순복 교수 '토라강좌' 김바울 선교사(이스라엘) '이스라엘 성지순례'

에zell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웃리치 2003년 터키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8월 9일~18일(9박10일)
지역: 장예고아원사역, 지방정탐, 선교사방문 (성지순례 7박 8일도 가능)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마감: 6월 30일
문의: 이영미 자매(016-259-9138)

의료선교 A팀 여름 해외 아웃리치
8월 11일~17일
지역: 방글라데시
분야: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약사, 이.미용, 기타 자원봉사자
문의: 김준현 (011-9970-2630)

의료선교 B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13일~18일
지역: 미얀마(양곤)
사역분야: 한방, 안과, 치과, 이.미용, 찬양
문의: 신화철 팀장(011-701-5437) / 박성현 자매(011-9731-0258)

의료선교 C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30일~8월 4일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섬 이슬람 지역
모집분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치과, 한방,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비용: 약 75만원
문의: 안태환 팀장(011-323-1515) / 홈페이지(www.onnuri.or.kr/rafa) 게시판 참조

2003 의료선교 D팀 캄보디아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7월 16일~20일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후원물품: 여름옷, 의약품, 슬리퍼, 학용품
문의: 서세창 (016-218-4499) / josephse21@yahoo.co.kr

의료선교팀 단기선교학교
6월 14일~7월 13일 매주 토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101호
내용: 세계선교와 ACTS 29(김중원 목사), 선교와 문화적 이해(여성민 목사), 현지 조사 및 현지 이해(황중연 목사), 의료선교의 실제(안태환장사), 공동체성과 팀사역의 정신(백상욱 전도사)
문의: 신아훈 간사 (793-9686 교 637)

극동러시아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의 EEF(Ebenezer Emergency Fund: 유대인 귀환사역 국제단체)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Fishing trip(유대인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7월 30일~8월 6일(7일)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내용: 유대인 가정 방문, EEF-Fishing trip(유대인 귀환사역) 체험, 교회방문
참가신청: KIBI, EEF-Korea (792-7075 / kibikorea@yahoo.com)

자원봉사자 온누리미션
영어로 일대일 성경공부 해주실 분
문의: 790-6052

일어 예배 주일 탁아 봉사자
주일 오전 11:30 일어 예배(서빙고 소회의실) 때 탁아 봉사 해주실 분
봉사시간: 오전 11:20 ~ 오후 1:00
문의: 황해경 간사 (793-9686 교 702) / 요시하라 전도사 (019-699-5331)

일어 예배 유치부 반주자 모집
일어 유치부 예배(토요일 오후 1:00)에서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일어를 못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맹신자 (019-390-2481) / 황해경 간사 (793-9686 교 702)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ACTS 29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조흥은행 398-03-013049
외환은행 010-33-23153-5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예금주: 온누리교회

***헌금방법**
계좌이체: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
이체시 이름 뒤에 주민번호와 4자리 숫자를 입력
헌금부투: 본당 입금 비치된 부투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입 후 헌금함 이용



“자녀교육이 큰 문제입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어느새 여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었는데, 벌써 1년 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한국 생활도 이제 안정이 된 듯 합니다. 그래도 아직 9년이란 공백을 느끼곤 합니다.

엄기정 선교사는 장신대학원에 입학하여 열심히 신학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어 인천 제삼교회에서 초등부를 맡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랴, 사역하랴, 얼굴 볼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간이 조금 좋지 않은 상태인지라 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엄기정 선교사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학업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엠 선교회에서 엠케이(MK: Missionary kids, 선교사 자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분당)과 집(인천)이 멀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파트타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K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엠케이 네스트(MK

nest)에서 주관하는 ‘엠케이 사역자 선교 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엄마로서, 오엠선교회 내에 엠케이사역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 시작한 사역이지만, 이 교육을 받으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느끼던 엠케이 사역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경적, 심리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또 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도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하면서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웠기에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을 조금은 느꼈지만, 사전 교육이 없어서 너무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을 하는 오엠 선교회도 단기 선교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떠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교육은 닥치면 바로 해결되는 문

제가 아니라, 피교육자의 상황에 맞는 이해와 가치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잘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선교사 개인 뿐만 아니라, 파송단체와 교회가 함께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오엠 선교회가 단기 사역자 뿐만 아니라, 장기 사역자를 더 깊이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 사역자 자녀를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엠케이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엠케이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는 동역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3. 5. 28
엄기정, 이해정 선교사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사무엘/이현영

(협력-방글라데시-GP-안양안산)

- 프람폴라 기독교병원을 펍박하는 무리를 성령님께서 제압하시고 박 선교사가 1년 동안 원장대리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방글라데시 청년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김나바바/강도보라

(파송-소아시아-TIM-광명인천)

- 요셉이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 시킬 것인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도록

- 6월말까지 장기적으로 거주할 좋은 집을 예비해 주시도록

김만복/박화진

(후원-중앙아시아-한국인터서브-이촌)

- 장인께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속히 회복되시도록

- 6월 말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한국에서의 일(가족 건강체크, 후원 교회 방문, 사역 자료 및 동역자 개발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안디옥

(파송-중앙아시아-인터콥-과천수원)

- 남은 안식일 기간동안 아제리 민족을 나누고, 중보자/재정후원자들을 붙이시도록

동작A공동체 - 미전도 종족 섬김 보고서

“소나기보다는 지속적인 가랑비를”



△ 동작A 공동체가 후원하는 H족 장학생들

동작A공동체가 미전도종족인 동북아 지역의 H족을 입양한지 4년이 되었다. H족이 사는 곳은 아시아 대륙을 좌우로 대칭시켜 볼 때에 중앙 축에서 남서쪽에(가운데 축 맨 아래쪽-살짝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밑으로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기후는 아열대지역으로 종족 인구는 약 14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맨 처음 아웃리치 때 그 땅을 밟은 그 순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밟게 하셨는지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 나아가고자 하셨다.

동작A공동체에서는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아웃리치를 다녀왔으며, 처음 두 번은 정탐과 비전트립으로, 그 이후부터는 (1) 동일한 지역을(2)주기적(3)장기적인 안목으로(4)현지요구에 충족하는 사역을 하기로 하였다.

우리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던 중 H족의 총명한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마저 박

탈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웠고, 그로 인해서 비전을 상실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에 공동체에서는 2001년부터 초중고생 아이들 7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에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친교가 깊은 마을과는 고유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축제와 민속춤을 서로 소개하며 함께 어울려서 추는, 인종과 국경을 허무는 문화사역을 해 오고 있다.

미전도종족 섬김은 전 공동체의 몫

이를 위해서 때로는 공동체 뿐 아니라 그 곳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청년단체들과 연합한 아웃리치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더 효율적인 현장사역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보기도가 우선해야 했다. 첫째 두 번째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에 H족 중보기도 모임을 결성해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품고 기도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모인 기도 모임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진행해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전도종족을 섬기는 일은 아웃리치를 다녀온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써 공동체 모두가 품고 가야 할 우리 모두의 기도제목이고, 공동체 모든 지체들은 그 종족을 향하여 세워져야 할 무릎 선교사들이다.

동작A 공동체가 H족을 섬기면서

계속 기도해야 할 제목

- (1) H족을 더욱 더 이해하도록
- (2) H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하도록
- (3) H족 현장에 자립 교회가 세워지도록
- (4) 현지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며
- (5) 공동체에 속한 많은 지체들이 그 땅을 위한 사역자로 세워지고 무릎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6) 더 많은 아웃리치 팀이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01

2003년 해외아웃리치

“33개국 55개 지역으로 떠난다”

일본 28팀, 중국 13팀, 보스니아, 모잠비크 등 1백4팀

올 여름 온누리 성도가 33개국 55개 지역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떠난다. 6월 24일 현재 여름 아웃리치를 떠난다고 밝힌 팀은 공동체 35개, 꿈땅 4개, 파워웨이브 2개, 청년부 21개, 대학부 9개, JDS 10개, 영어예배 10개, 일어예배 3개, 선교센터 2개, 의료선교 5개, 기타 3개 등 1백4팀, 1천3백13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3 해외 아웃리치는 지정된 입양 종족이나 섬김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지의 유익과 장기성을 고려한 선교지에서 열매 맺는 사역

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1백4팀은 선교지에서 할 여름성경학교, 문화사역, 의료사역, 세미나 등을 준비하며 기도로 무장하고 있다.

올해 특이한 점은 연합팀이 9개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와 꿈땅, 공동체와 청년, JDS와 파워웨이브 등 다양하게 조합한 연합팀들은 소망하는 선교지를 바라보며 팀구성, 사역준비, 중보기도 모임을 함께 하고 있다. 성동광진, 서대문, 꿈땅, JDS 네 팀이 연합한 모잠비크 팀 여성민 목사는 “함께 가



니 각 달란트대로 선교지에서 요청한 의료사역, 영어캠프 등 폭넓은 사역을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9월 5일(금) 모든 공동체가 모여 아웃리치 연합보고대회를 연다.

한편,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kr)는 여름 아웃리치팀

들을 위한 기도편지 코너를 마련한다. 팀원들의 사진과 아웃리치 지역, 사역, 기도제목, 후원계좌 등을 적어 목회지원실 이혜진 간사(793-9686 교 234, dreamhj@onnuri.or.kr)에게 보내면 된다.

관련기사 7~11면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중국어예배 세례식

오늘(29일) 오후 1시30분 서빙고 순형홀에서 중국인 2명이 세례를 받는다. 이들은 작년 2월 민속의 날 중국인성령축제 때 교회에 나와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다. 주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는 황천 형제(가명)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겠다”고 했고, 신학을 하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다는 강은 자매(가명)는 “남편과 같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 후 열리는 TEE 리더십 세미나 수료식에서 한국인 26명, 중국인 13명 등 총 39명이 수료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무릎선교사 헌신예배



지난 20일(금) 오전 10시 서빙고 시혼홀에서 여성사역팀의 무릎선교사 헌신예배가 있었다. 이번 예배에서 여성사역자 70여 명은 3월7일부터 시작한 무릎선교사훈련을 마치며 하반기 입양종족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했다.

박종길 목사와 김창욱 전도사는 이 예배에서 ▷ 입양한 종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 닫힌 복음의 문이 열려 사역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 종족 내에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릎선교사들은 하반기부터 정기적인 기도모임으로 본격적인 무릎선교사 활동을 한다.

/ 서철 cho@onnuri.or.kr

“땅 끝으로 가는 선교사 위한 훈련소”

전인격 선교사 양성하는 '장기선교사 훈련학교' 3기 훈련생 모집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사명을 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마지막 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 양지에 위치한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이 선교지에서 잘 적응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돕기 위해 '장기 선교사 훈련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이미 1기, 2기를 통해 온누리교회의 2천 비전을 품은 선교사 30여 명을 배출한 이 학교가 8월부터 시작하는 3기 생을 모집한다.

장기선교사훈련학교란?

'장기 선교사 훈련 학교' (OSOM: Onnuri School of Missionary)는 선교현장에서 장기로 사역할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전문 선교사 훈련과정이다.

1단계로 국내에서 5개월간 훈련하고 2단계로 선교현장에서 2년간 언어습득과 문화적응을 하는 인턴십 과정을 거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누리세계 선교센터에서 합숙해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선교사로서의 현장에서 필요한 사역실제와 사역원리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키우게 된다.

특히 선교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미국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OC International 등의 단체들과 협력해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지도자를 양성한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는 훈련생을 위한 온누리 세계 선교센터 유치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OSOM은 수료생들에게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교사 파송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특전을 주고 있다.

훈련내용

OSOM은 관계에서 깨진 자신감을 먼저 회복시켜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유된 선교사역자를 양성한다. 심리검사, 진단상담 등으로 자기 모습을 정확히 인식하여 문제 치유를 돕고 성경적인 건강한 인간관계의 모델을 제시해 선교사들이 가진 인간관계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고쳐나가는 관계증진 훈련을 한다.

선교사들은 바뀐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병리 현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경험있는 선교사들의 지도와 격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선교를 1백여 년 이상 해온 미국 C&MA의 선교사들이 현장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사역의 노하우를 전한다. 또한 현장 적

응과 언어훈련, 사역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선교지에서의 첫 2년간을 온누리교회 선배 사역자들이나 미국 C&MA 선교사 선배들과 2년간 인턴십으로 사역할 수 있다.

실용적이고 체험적인 선교훈련도 받게 된다. 선교 현장에 적용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선교사로서 실제적인 사역 감각을 키울 수 있다. 생활워킹 훈련, 멘토링, 상담, 게임, 팀워크 다지기 등으로 강의를 통해 들었던 부분을 실제 생활 속에서 찾아 자기 주변의 동료들과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현장에서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 훈련 교육과정인 TEE, BEE와 교회 개척의 실제와 지도자 양육에 필요한 리더십, 멘토링 등을 배워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며 양육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한다. 각종 팀워크 훈련, 게임, 영화시청, 노동 등을 통해 몸으로 선교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티엔티(TNT: Training and Teamwork) 시간을 통해 선교 현장에서 팀 사역의 실재를 직접 경험하며 팀 내에서 자신의 은사와 역할 모습 등을 확인하며 선교 현장의 상황에 직접 적용시켜 볼 수 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제 3기 장기 선교사 훈련학교 (OSOM)

- 기간: 8월 4일~12월 20일
- 장소: 경기도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OWMC)
- 마감: 7월 13일
- 제출서류: 센터 소정양식시원서(온라인등록),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 각각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진단서(보건소 제외) 1부, 추천서 2부(센터 소정양식 사용)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owmc@onnuri.or.kr)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 품습니다”

선교사로 일생을 살기로 헌신하고 제 2기 장기선교사 훈련학교 오에스오엠(OSOM: Onnuri School of Missions)에서 2월 10일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훈련을 마친 14명이 지난 6월 21일(토) 한동홀에서 수료예배를 드렸다. 수료예배에는 하용조 목사가 참석해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평신도 선교훈련학교인 와이미션(Why Missions) 수료생 52명도 이날 함께 수료했다.

장기선교사 훈련생들은 자기 인생 지도를 그리는 라이프 맵핑(Life mapping)으로 선교훈련을 시작해 그동안 관계훈련, 생활전도, 타문화 교회 개척 등 현장중심의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선교훈련을 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와 미국 C&MA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선교현장에서 인턴십으로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에 적응을 하는 현장 훈련을 하게 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수료자 기도제목



전주남

- 중국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중국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북한 등 육로로 이어지는 나라들을 통해

- 중국인들이 선교사로 나가길 기도합니다.
- 아프가니스탄 헤라트 지역에 의료 복구제 사역이(7월 29일~8월 12일까지) 있습니다. 준비와 재정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소서.
- 선교는 선교사 한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 재정 관리 후원자들을 세워 주시고 동역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심채림

- 저는 싱가포르에 가서 BEE 인도가 과정을 밟고 동시에 언어(영어)훈련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 가운데 기쁨 부오심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훈련이 끝나고 출국(7월 18일)하기까지 4주의 시간을 짜임새 있고 알차게 보내도록.
- 필요한 준비를 적절히 잘 할 수 있도록.
- 싱가포르 현지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류주현, 박미경

-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도록

-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도록
- 하임, 제민이가 좋은 학교를 만나 학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임진혁, 조홍화

- 중국 땅에 있는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 제자 삼게 하시고 국내 외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 협력하게 하소서.

- 후원, 협력교회들과 잘 연결될 수 있고, 또 기도와 재정의 공급이 차고 넘치도록.
-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도록.
-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소서.



한경인

-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 선교지의 일들을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생의 동역자를 주시도록.



우동완

-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식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 가정의 복음화(부모님, 형님)가정이 주님을 영접하고 누님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 안식년 기간 동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도록.



이유진

- 선교지로의 연결과 사명이 분명해지도록.

- 동원 교회의 파송 절차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최영승, 이영란

-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서 삶이 되도록.

-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되도록.
- 언어 연수하러 천진으로 가는 데 잘 정착하고 공부에 지혜를 주시도록.



박수진

-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거하도록.

-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 많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도록.
- 현지에서 만나게 될 동역자들과 현지인들을 만남에 축복을 더하시도록.



이원상, 김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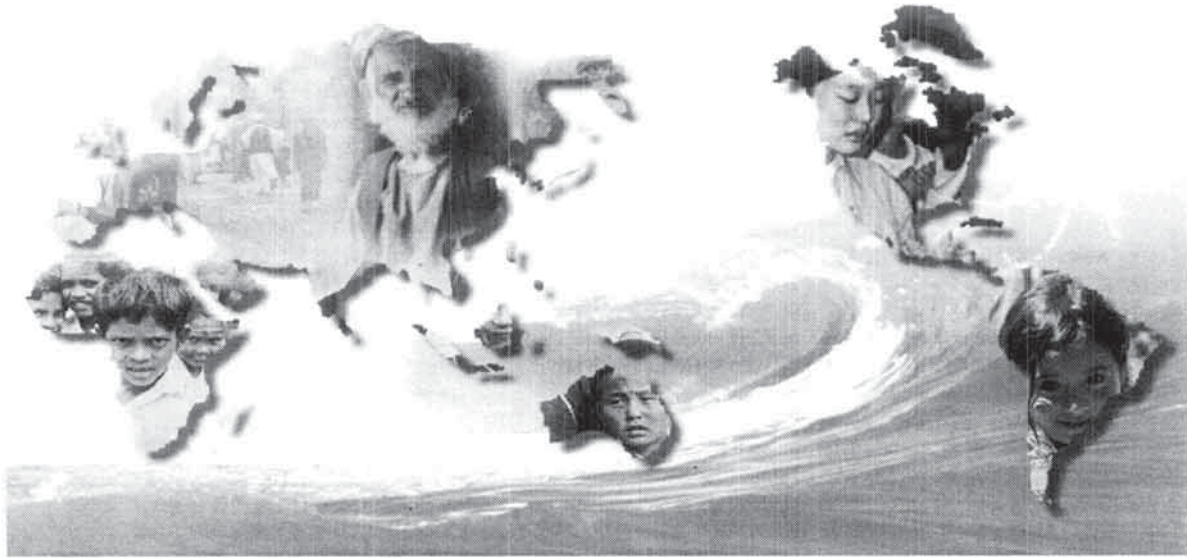
- 매일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 순종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 러시아 유대인 귀환 사역(7월 16일~10월 16일)과 이스라엘 장시 사역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2003 아웃리치

OUT Reach



“선교는 축복입니다”



김창욱 전도사

온누리교회의 머릿돌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마 28:18~20)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온누리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의 선교 정책에 따라 올해 2003 여름 아웃리치에 33개국 55지역 104팀 1313명이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 국내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팀도 많이 있습니다.

2003년 해외 아웃리치 기본 방향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아웃리치는 대체로 부서 중심이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도전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웃리치는 아웃리치팀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지만 현지 선교사와 선교지에서는 힘들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작년부터 아웃리치 방향을 부서중심에서 교회중심, 우리 중심에서 선교지 중심, 단회성에서 장기성으로 방향을 돌려 '선교사 2천명을 파송하고 선교지에 교회 2천 개를 세우자'는 비전 2천에 온전히 중점을 두려합니다.

한 번 아웃리치를 다녀온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아웃리치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아웃리치에 반영해 사역을 펼쳐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선교사가 하지 못한 일을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선교지에 열매 맺는 아웃리치를 한다는 기본 방향에서 아웃리치를 기획해야 합니다.

가기 전부터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공동체요, 종족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름휴가 때 한 번 갔다 온다는 선교여행의 개념으로 가면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효과적으로 힘껏 도와주고, 돌아와서는 다음 아웃리치 전까지 중보기도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내는 선교사와 떠나는 선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Acts29를 이루길 바랍니다.

아웃리치 지역 선정에서도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 2000에 따라 입양종족, 섬김 선교지를 중심으로 정했고 꿈광, 대학청년 연합, 의료선교 등 각 부서별로 아웃리치 스쿨을 열고 있습니다. 성인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난주부터 '열매 맺는 아웃리치'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아웃리치 실제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웃리치를 하고 돌아와서 9월경 아웃리치 보고대

회를 할 것입니다. 금년 아웃리치를 평가하고 그 평가로 내년 아웃리치를 보완해 준비하고, 아웃리치가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다녀온 사람이 선교 헌신자가 되는 선교사역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첫 단추

이번 아웃리치에 연합팀을 구성해 준비 단계부터 동일한 마음으로 한 목표에 힘을 모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온누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각 부서, 개인이 쓰는 것보다 모든 부서와 인원이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첫 단추를 아웃리치에서 시작하고 각 다락방별로 Acts29중보기도 모임을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비전 2000이 선교에 관련된 한 두 사람만의 비전이 아니라 전 교인이 갖는 비전임을 깨닫고, 이 동일한 비전을 위해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2천 교회를 개척하는데도 이번 아웃리치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선교는 복입니다. 전 공동체에 준 복이고 가는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번 아웃리치 통해 복이 갑절로 늘어나는 체험을 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01

단기선교를 위한 5가지 비타민



1. "마음가짐"이라는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

단기선교 성공 여부의 50%이상은 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가서 일부터 고생할 각오를 하라. 놀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고 가라. 실 생각은 아예 집에 묶어두고 가라.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할 각오를 하고 가라. 그리고 자기 것을 챙기기 전에 남의 것을 먼저 챙겨주는 결심을 하고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많이 배운다.

2. "팀워크(Team work)이 제일"이라는 비타민을 챙겨라

단기선교는 결코 개인 사역이 아니다. 각 개인의 재능이 드러나는 사역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팀이 움직이는 것이다. 팀 리더의 결정에 절대 순복하라. 자기 사역이나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팀의 연합과 일치에 초점을 맞추라.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것보다, 다투고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자기를 얹고 섬기는 것이 빠른 길이다. 사탄은 전도여행팀이 구성된 즉시 팀의 동료나 리더의 단점이 보이는 최고급 안경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것이다. 절대로 쓰지 말고 단호하게 사탄에게 반납하라.

그리고 팀워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역할 분담을 잘 나누어야 한다. 서로의 역할이 혼돈스럽지 않게 하고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멤버들이 역할을 하나 이상씩 다 맡도록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역할에 소외된 자가 없게 하라.

3. "타문화 적응"이라는 비타민을 꼭 먹어라.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을 싫어한다. 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아이들이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네팔이나 힌두권지역의 많은 종족들은 '예'와 '아니오'라는 대답을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동의할 때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리고 반대할 때 고개를 끄덕인다. 이것을 몰라 고생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지역의 문화를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가는 것이 선교여행을 망치지 않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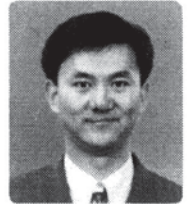
4.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비타민은 "중보기도"다.

단기선교는 사역이다. 그러나 사역이 기도보다,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 항상 앞서서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려라. 필자는 단기선교여행의 많은 경험으로 이 비타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했다. 가기 전 적어도 두 달 전부터 선교여행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팀에서 시작하라. 가서도 중보기도와 매일의 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도도 주님에게

세 가지를 들어라. 첫째는 "하나님, 이번 여행으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 이번 여행으로 이 사역 팀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번 일로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이다.

5. 마지막 비타민은 "동원자료 작성"이다.

선교여행은 여행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다녀온 감격을 자기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이번 여행을 보내신 이유는 가지 못한 남은 자를 깨우기 위해서이다. 교회에 돌아와서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이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팀에는 반드시 카메라맨, 촬영 담당자, 사역 일지 기록자 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행 자료를 다녀온 후 한달 이내로 만들어라. 간단해도 좋다. 조금은 서툴러도 좋다. 오히려 그것어 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의 집사는 자들을 깨워라.



조용백 선교사(TMI 대표) godfaith@tmi.or.kr (www.tmi.or.kr)

02

아웃리치 갔을 때 지켜야할 에티켓

"아웃리치 떠나기 전 알아둬시다"



권정로

지역마다 그곳의 기본적인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 현지 교회와 선교사는 그것에 순응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아웃리치팀이 나가서 그것을 무시하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행동하면 현지 주민과 한국교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입힌다.

현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항의가 직접적으로 없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나는 자주 현지인들에게 불만을 듣는다.

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실수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을 모두를 자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리치 가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

목소리, 의상, 행동, 뒷정리, 공공질서 등을 유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례합니다"를 현지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아래는 외국에 나가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1. 공공장소에서 : 근엄하고 무뚝뚝한 표정을 짓지 말고 항상 미소를 띠어야 하고, 길이나 통로에서 상대방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거슬릴 정도의 큰 목소리로 말하면 안된다.
2. 특송, 위십을 할 때 : 온누리 청년부의 특송예배는 보수적인 지역에 너무 자극적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위십은 현지 문화와 달라서 현지 보수적인 문화에 실례가 될 수 있고 현지 목회자, 선교사에게 큰 곤란을 줄 수 있다. 사전 확인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3. 식사시 : 소리 내며 먹지 말아야 하며, 입속에 음식물이 있는데 큰 소리로 이야기 말아야 한다. 밥그릇은 반드시 입 바로 밑에까지 가져가 흘리지 않도록 하며 먹는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4. 복장 : 지역마다 그곳의 문화와 분위기에 맞게 입어야 한다. 배낭여행 복장을 하고 싶으면 사전에 확인

한 후 물어야 한다. 현지인들에게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면 "Korea Fighting!", "Korea-Japan", 민족주의적인 문구, 너무 붉거나 자극적이거나 원색적인 티셔츠 등은 자제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 고려한 아웃리치

위 지적 사항을 세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웃리치 다녀 온 후 현지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문제를 안겨주고 왔을 가능성이 많다. 아웃리치에서 종중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곳에서 공들여 쌓아 놓은 열매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이다.

"전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남의 나라 문화를 무시하는 버릇부터 좀 고쳐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항상 매사를 현지 측에 사전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마다 그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자.

아웃리치도중 매일 저녁 "현지 문화를 어진 사례"를 주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무기명으로 서로 지적해주는 방법도 바람직 할 것이다.

“기쁨 두 배 은혜 두 배 아웃리치 만들기”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성도가 늘고 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틈마다 자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진, 영상이다. 이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간단한 촬영법을 소개한다.

해변가에서의 촬영

바닷가는 뜨거운 태양 빛과 눈부시게 반사하는 모래사장 때문에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출이 과다하게 나온다. 따라서 필름은 자동카메라 전용이라는 ISO 400짜리 고감도 필름보다는 ISO 100 짜리 보통 필름을 선택한다.

표정이 좋은 사진을 얻으려면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한 낮 보다는 태양 빛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아침이나 오후가 좋다. 끝없이 넓은 푸른 바다의 수평선 속에 자기의 모습을 담고 싶을 때는 화면의 1/3정도 크기로 상반신만 꼭 차게 넣고 수평선과 평행되게 찍으면 힘이 있고 시원한 사진이 된다. 사람은 화면 한 가운데만 두지 말고 좌



요즘 나오는 디지털 캠코더는 대부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좋은 영상물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하는 사람이 잘 찍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상 촬영에도 '원판 불변의 법칙' 이 있어서 찍을 때 잘 찍어야 한다. 나중에 화면을 수정하려 하면 시간이 많이 들고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되도록 낮에 찍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빛이다. 일반적인 캠코더는 대부분 소형이기 때문에 렌즈가 작다. 이 말은 빛에 대한 수용력이 작다는 것이다. 빛을 많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화면이 어두워져서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으로 개인(합기)을 올려주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화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교지에는 전력 상

우 어느 한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해안에서는 일출을, 서해안에서는

‘감동있는 사진 촬영법’

일몰을 배경으로 촬영하면 멋진 풍경사진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출인데 자동카메라의 경우에도 노출을 인물에 맞추지 말고 태양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면 한 가운데 붉은 태양이 바닷 속에서 떠오르거나 바닷 속으로 저물어가는 모습에 사람이 까맣게 실루엣으로 남아 멋진 사진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이 실루엣이 아닌 제대로 나오기를 원할 때는 태양의 노출과 같은 광량의 플래시를 터뜨려 주어야 한다.

산에서 촬영

산을 오르다가 멋진 나무를 만나면 우선

어느 위치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가를 돌아보고 주위와 가장 어울리는 각도를 찾아야 한다. 나무를 배경으로 사람을 찍을 때 초보자들은 나무 밑에 사람을 세워놓고 나무 전체가 나오도록 하느라 멀리서 앵글을 잡는다. 이럴 경우 사람은 작게 나와 표정이 없고, 나무 그늘에 가려서 노출 부족이 되어 얼굴이 어둡게 된다. 제대로 하려면 사람을 최대한 카메라 가까이 세워놓고 나무와 사람이 어울리게 앵글을 잡은 뒤 광선 상태를 보고 촬영하면 된다.

계곡사진의 경우 눈에 보이는 전경을 다 사진에 담으려면 사진에 힘이 약해진다. 아름답게 보이는 부분만 클로즈업하여 촬영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폭포사진에서 멋을 부리려면 셔터스피드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카메라와 삼각대가 필요하다.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장착한 후 셔터스피드를 저속을 촬영하면 폭포가 안개처럼 처럼 나오는 환상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실내에서 촬영

아웃리치 현장에 도착해 숙소를 정한 후 방에 들어가서 창을 열어보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배경과 사람이 나오는 사진들을 찍고 싶어 한다. 그러나 초보자들은 배경은 제대로 나오고 얼굴은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람의 눈은 방안의 노출과 바깥의 노출의 차이를 사람의 눈을 자동적으로 보정해 주지만 카메라는 스스로 보정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과 밖의 노출을 일치시켜주어야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온다.

우선 밖의 노출을 측정하여 조리개 수치를 정한 후 그와 같은 조리개 수치에 맞게 스트로보를 터뜨려주면 된다. 예를 들어 바깥의 노출이 1/125초에 조리개 16이라면 스트로보에 f16이 되게 조정하여 사용 안과 밖의 노출이 일정하게 되어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주제를 갖고 주위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이 사진의 소재가 된다. 평범한 시각과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아름다운 사진거리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사물을 입체적으로 보고 전체 보다는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바라보면 아름다운 것이 나타난다. 좋은 사진은 아름다운 마음과 창조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지는 기다림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남수 집사
(‘빛과 소금’ 포토 디렉터)

황이 좋지 못한 곳이 많아서 실내를 촬영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낮이라면 창문을 다 열고 조명도 다 켜고 밝은 곳을 찾아 찍는다. 인터뷰는 가능하면 낮에 밝은 곳에서 해야 한다. 밤에는 조명을 최대한 확보하고 트라이포트(카메라 삼각대)를 이용해서 셔터속도를 좀 낮추고 촬영을 하면 비교적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않는 의자, 집들도 정면보다는 45도에서 임의로 방향성을 부여해서 찍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고 힘있는 영상을 만들어 준다. 흔들리는 영상 또한 주의해야 한다. 영상이 흔들리면 보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찍을 땀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고감도 필름 보정장치와 그것을 기억해서

되도록 가까이 가자

마지막으로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소리(녹음)이다. 특히 인터뷰할 때 마이크를 따로 사용하면 좋지만, 카메라에 내장된 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면 될 수 있는 한 조용한 곳에서 가까이 가서 소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가까이에서 찍는 것을 싫어하는데 설득하는 것도 촬영 기술의 하나다.

좀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꼭 생각하면서 찍어야 한다. 기계적으로 기록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찍는 순간에도 순간순간 영상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촬영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상은 어둡고 긴장된 사건 현장의 영상이 아니다. 웃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노인들의 밝은 모습 등이 더욱 감동을 준다. 이런 모습들이 담ाय을



여름 아웃리치가 은혜가 되길 기대한다.
양성수 간사
(은누리교회 영상실)

‘생동감있는 영상 촬영법’

여기서 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뒷 배경이 밝은 곳에서 그늘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찍을 때 반드시 역광기능을 꼭 사용해야 한다. 캠코더마다 이 기능이 있으니 매뉴얼을 참고해서 익혀야 한다.

트라이포트를 사용하지

두 번째는 구도와 흔들림이다. 모든 피사체에는 방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걸어가는 사람은 방향성이 확실하기에 그 사람의 진행 방향에 여유를 두고 여백을 주면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움직이지

보정하는 이차 보정장치를 마련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눈을 믿으면 안 된다. 반드시 트라이포트를 이용해야 한다. 사물을 따라다니며 이리저리 촬영하는 것도 쓸모가 적은 영상을 만들게 된다. 사진 찍는 후 나중에 편집할 때 연결하면 멋진 영상이 된다. 한번에 많은 부분을 보여줄 때는 트라이포트를 이용해서 상하좌우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스케치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페닝과 킬링이라고 한다.)

01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모잠비크연합팀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성동광진 공동체, 서대문 공동체, 꿈이 자라는땅, 예수제 자학교(JDS) 이렇게 네 공동체가 연합해 모잠비크팀을 구성했다. 여성민 목사는(성동광진 담당교역자) 저희 공동체가 모잠비크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동안 모잠비크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해 오던 분들을 함께 만나게 하셨다고 말했다.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성동광진, 서대문, 꿈땅이 1차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예수제자학교 팀이 2차로 모잠비크에 들어간다. 다함께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가 들어가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교지에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팀을 돌려나왔다.

1차로 들어가는 팀은 영어캠프와 주일학교, 의료사역을 하고 2차 팀은 교회 건물기회, 디자인 협력 등 건축사역을 한다. 서대문공동체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장기 사역을 위

한 정보를 수집한다.

모잠비크팀은 모여서 기도제목을 나누며 사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거기 전까지 홍역 콜레라, 말라리아 약도 먹어야하고 준비할 것이 많다.

연합팀이라 준비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다는 질문에 여성민 목사는 오히려 더 좋으며 “저희 공동체만 갔으면 선교지에서 요청한 사역 중 영어캠프밖에 못했을 텐데 연합하니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고 좋아졌다”며 연합팀을 자랑했다. 그리고 의료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의사, 간호원들이 많으면 도움이 되니 함께 참여하실 분은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모잠비크팀은 7월 6일(주일에 모잠비크 학교 기자재 구입 비용을 위해 2천만평장에서 바자를 열 계획이다.

문의: 여성민 목사(011-474-8011)



02

동러시아 아웃리치팀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는 아웃리치

KIBI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7일간)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비로비잔 등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가정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을 성취하여 흠어진 유대인을 고토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그 동안 KIBI 운영위원들이 사역현장을 탐방하는 목적으로 수차례 그곳을 방문하였지만 이번 피싱트립(Fishing Trip)은 유대인 귀환사역 현장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뜻깊은 아웃리치이다. 유대인 귀환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아웃리치는 Fishing Trip(어부사역, 예레미야 16장16절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수십년을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곳에서 러시아인으로 살아온 유대인을 고기를 낚듯이 찾아내고, 또 그들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이번 아웃리치를 주관하는 EEF(Ebenezer Emergency Fund)는 유대인귀환사역을 하는 기독교단체이다. 온누리교회는 10여년동안 EEF사역에 협력해오다 2002년 11월 4일, EEF Korea를 설립했다. EEF Korea는 지난 3년 동안 극동러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위한 무료급식사역과 EEF 극동지부 사역을 지원해왔다.

- ◇ 문의 : KIBI(792-7075/6, kibikorea@yahoo.com)
- ◇ 아웃리치 일정 : 7월 29일부터 8월 5일(7일) 극동 러시아 하바롭스크 유대인 가정 방문, EEF - Fishing Trip (유대인 귀환사역) 체험, 교회 방문 (자세한 일정은 아웃리치 가서 상황에 맞게 이루어짐)
- ◇ 아웃리치 경비 - 110만원

03

터키 아웃리치팀

소아시아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아시아(터키)공동체에서는 2003년 여름 터키 아웃리치 참가자를 모집한다. 소아시아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은 누구나가 참가할 수 있다.

개인 참여가 원칙이고 10인 이상 그룹으로 참가를 희망할 경우, 한 팀으로 구성해 별도 운영한다.

신청 마감은 6월 30일까지지만, 그 이후에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는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 된다. (7월 15일까지 항공권을 구입하면, 팀 합류 가능)

이번 아웃리치를 주관하는 소아시아(터키)공동체는 회원수가 150여명에 이르며,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열리는 정기기도회 행사에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 터키 땅과 그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번 여름 터키 아웃리치는 작년에 이어서 소아시아(터키)공동체가 두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총 9박 10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처음 이들은 앙카라 소재 국립장 애고아원에서 기쁨사역과 현지 카멜렌 본부팀과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 앙카라에서 사역중인 온누리 파송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는다. 또 이슬람 세력이 견고한 지역을 선정해,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지방 정탐과 그 지역 종교기도 시간도 마련한다.

현지인 자택을 방문해 홈스테이로 그 민족을 이해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와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1. 일정별 세부사항

- 1) 9박 10일 일정 (공동체 기본 일정)
 - ◇ 기간 : 8월 9일(토) ~ 8월 18일(월) 9박 10일간
 - 8월 9일 / 인천공항 출발 > 이스탄불 도착 > 국내선 이동 > 앙카라 도착
 - 8월 10일 ~ 11일 / 앙카라 국립장 애고아원 기쁨사역, 현지인 교회 방문, 선교사 방문
 - 8월 12일 ~ 14일 / 다양한 루트의 지방 정탐을 통한 땅밭기 사역, 현지인 가정 방문
 - 8월 14일 ~ 15일 / 지중해 도시 안탈리아에서 휴식, 지중해 크루즈
 - 8월 15일 ~ 17일 / 이스탄불 선교사 방문과 사역현장 답사, 도시정탐 및 귀국 항공편 탑승
 - 8월 17일 ~ 18일 / 귀국
- ◇ 경비 : 항공료 [미화 약 450달러 예상, 국제선 (인천-이스탄불) 왕복요금 + 터키 국내선 2회 요금 (이스탄불-앙카라, 안탈라-이스탄불)] 와 일정비용 (미화 약 550~600 달러 예상)
- 2) 성지 순례 7박 8일 일정 (기본 일정 중 이스탄불 2박 일정이 빠지고, 16일 귀국)
 - ◇ 기간 : 8월 9일(토) ~ 8월 16일(토) 7박 8일 일정



- ◇ 성지 순례 일정 : 탐을 구성한 뒤, 탐과 현지 선교사와의 협의 후 추후 결정.
- ◇ 경비 : 항공료 제외 하루 일인당 70불 ~ 80불선 (작년 대비 현지 물가 100% 상승)


2. 문의

- 1) 전화 : 이영미 자매 핸드폰 016-259-9138, 직장 02-511-2722
- 2) 메일 : 유주석 총무 kardelen@hanmail.net
- 3) 아웃리치 지원서 발송 : 문의하신 분들에게 일정표와 지원서 양식을 메일로 발송.
- 4) 준비 모임 참석 : 지원서 접수 후 전화와 메일로 준비모임 일자 통보.

3. 참가자 유의사항

모든 일정 계획과 준비 모임은 소아시아 공동체의 인도에 따라야 하고, 경비는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출발부터 귀국까지 모든 일정을 팀과 함께 해야 한다. 준비모임에 4회 이상 불참하면 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 경우 항공권 해약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

 **2000선교**

제1회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선교세미나
 7월 9, 10일 오후 7:00~10:00 서빙고 시온홀
 주제: 무슬림에게도 교회개척운동들(부제: 이슬람 상황화와 전략코디네이션)
 강사: 김요한 선교사(OMF, 동남아 1국에서 상황화 사역 담당)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450~3)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두란노해외선교회 월요선교사 중보기도모임
 7월 7일(월) 오후 7:00 양재 온유절제성전
 문의: 박소영 간사(794-1063~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정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rn.com

에zell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웃리치
2003년 터키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8월 9일~18일(9박10일)
 사역: 장애고아원사역, 지방정탐, 선교사방문 (성지순례 7박 8일도 가능)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마감: 6월 30일
 문의: 이영미 자매(016-259-9138)

의료선교 A팀 여름 해외 아웃리치
 8월 11일~17일
 지역: 방글라데시
 분야: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약사, 이.미용, 기타 자원봉사자
 문의: 김준현 (011-9970-2630)

의료선교 B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13일~18일
 지역: 미얀마 (양곤)
 사역분야: 한방, 안과, 치과, 이.미용, 찬양
 문의: 신학철 팀장(011-701-5437)
 박성현 자매(011-9731-0258)

의료선교 C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30일~8월 4일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섬 이슬람 지역
 모집분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치과, 한방,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비용: 약 75만원
 문의: 안태환 팀장(011-323-1515)
 홈페이지(www.onnuri.or.kr/rafa) 게시판 참조

2003 의료선교 D팀 캄보디아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7월 16일~20일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후원물품: 여름옷, 의약품, 슬리퍼, 화용품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yahoo.co.kr)

의료선교팀 단기선교학교
 6월 14일~7월 13일 매주 토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101호
 내용: 세계선교와 ACTS 29(김중원 목사), 선교와 문화적 이해(여성민 목사), 현지 조사 및 현지 이해(황종연 목사), 의료선교의 실제(안태환집사), 공동체성과 탐사역의 정신 외(백상욱 전도사)
 문의: 신앙훈 간사 (793-9686 교 637)

극동러시아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의 EEF(Ebenezer Emergency Fund: 유대인 귀환사역 국제단체)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Fishing trip(유대인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7월 30일~8월 6일(7일)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사역내용: 유대인 가정 방문, EEF-Fishing trip(유대인 귀환사역) 체험, 교회방문
 참가신청: KIBI, EEF-Korea (792-7075 / kibikorea@yahoo.com)

일어 예배 주일 탁아 봉사자
 주일 오전 11:30 일어 예배(서빙고 소회의실) 때 탁아 봉사해주시길 분
 봉사시간: 오전 11:20 ~ 오후 1:00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 702)
 요시하라 전도사 (019-699-5331)

일어 예배 유치부 반주자 모집
 일어 유치부 예배(토요일 오후 1:00)에서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을 구합니다. 일어를 못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문의: 맹신자 (019-390-2481)
 황혜경 간사 (793-9686 교 702)

온누리미션 자원봉사자
 영어 일대일 지도해주실 분을 구합니다. 한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쳐주실 교사를 구합니다.
 봉고차, 냉장고 구합니다.
 트리니티 신학생 TEE세미나 간식을 섬겨주실 자원 봉사자 구합니다(7월 14~8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6:00~9:00)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ACTS 29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조흥은행 398-03-013049
 외환은행 010-33-23153-5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예금주: 온누리교회
 * 헌금방법
 계좌이체: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
 이체시 이름 뒤에 주민번호와 4자리 숫자를 입력
 현금봉투: 본당 입구 비치된 봉투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입 후 헌금함 이용

*

01

“복음들과 젊은 온누리가 간다”

대학 청년, 국내 6개 지역 해외 10개국 아웃리치

온누리의 젊은이들이 해외와 우리나라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찾아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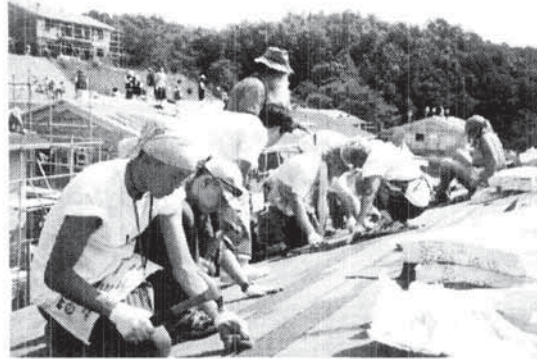
올 여름 대학청년이 찾아가는 곳은 국내로는 삼척(8월 11일~16일, 8월 13일~16일), 문경(7월 23일~8월 3일), 봉화(7월 30일~8월 3일), 삼천포(7월 21일~7월 25일), 예산(7월 30일~8월 3일), 보령(8월 13일~15일) 등 6개 지역이다.

해외는 인도네시아(6월 29일~7월 6일), 카자흐스탄(7월 8일~7월 18일), 우크라이나(8월 1일~8월 7일), 중국(단둥, 하니족, 천진 8월 1~7일), 보스니아(8월 3일~11일),

일본(아찌요 7월 12~18일), 몽골(7월 20일~27일), 아프가니스탄(8월 3일~11일), 이라크(7월 21~8월 1일), 우즈베키스탄(7월 18~25일) 등 10개국이다.

국내팀은 대부분 낮에는 큐티세미나와 학부모 스쿨, 청소년 캠프를 하고 저녁에는 성령집회를 한다. 특히 대학청년은 삼척에서는 수해 복구사업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작년에 이어 계속하게 된다. 문경(점촌)에는 18개 팀이 들어가 땅밭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한승현 ruby@onnuri.or.kr



▲ 올 여름 대학청년은 국내와 해외로 아웃리치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중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이들을 위해 온누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02

중국인 2명 세례



중국어예배 지체 2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 고백하고 지난 주일(29일) 세례를 받았다. 황종연 목사가 세례를 집도했고 중국어예배 성도는 모두 이들을 축복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이라크에 복음의 씨앗 심는다”

에zell선교회 - 7월 6일, 13일 이라크 교회 건축 위한 바자

연합 아웃리치팀 - 의약품, 학용품, 샌들 등 물품 모집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라크를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한 온누리 성도의 손길이 분주하다.

에zell선교회는 이라크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바자를 한다. 오늘(6일)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바자가 있으며, 다음 주일(13일)에는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동시에 열린다. 김사무엘 목사는 “자금은 이라크인들과 우리의 것을 나눠야 할 때”라며 성도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문의는 에zell선교회 이진희 간사(792-1628, 016-357-1172)에게 하면 된다.

와이미선수로, 청년부, 부친 공동체 연합팀 13명은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라크 남부나 시리아와 바스라 일대로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라크전 당시 치열한 전투가 잦았고 병원이 폭격을 당해 아직까지 넘치는 환자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팀은 이번 아웃리

치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파병 한국군인들을 도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팀은 사용할 기초 의약품과 영문의학서적,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전할 샌들, 슬리퍼, 모자, 학용품 등을 기증할 성도를 찾고 있다.

물품은 서빙고 2천선교사무실로 갖고 오면 된다. 문의는 김태완 간사(031-336-6350~2)에게 하면 된다.

/ 서철 chol@onnuri.or.kr

01

일만사역자

조정민
홍지혜
(미국)



기도제목

- 처음 받은 선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 이 땅에 남아 계시는 어머니께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피터 웰디
금종연
(미국)



기도제목

- 가족 모두 성령충만 하도록.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 새로운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잘 섬기도록.

이덕한
홍정희
(미국)



기도제목

-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 자녀들이 낯선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위 세 가정은 지난 6월 22일 파송되었습니다.

02

무슬림 전도법 소개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무슬림에게도 교회개척 운동을'이라는 주제로 7월 9일(수)과 10일(목) 오후 7시부터 서빙고성전 시온홀에서 이틀간 세미나를 한다.

김요한 선교사(OMF 선교사, 동남아시아 I국에서 상황화 지역 담당)가 이슬람 문화에 따른 복음전도형태와 이슬람 지역 교회개척 운동과 전략 코디네이터에 대해 강의한다. 이슬람 복음화에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세계선교센터(031-336-6350~3)에 문의하면 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사사키 준' 콘서트

일본어예배가 일본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일본선교학교'에서 지난 주일(6월 29일) 사사키 준(사진)을 초청해 콘서트를 했다. 이날 참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미, 영광, 주 예수'를 부르며 다윗처럼 춤추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누렸다. 일본선교학교에서는 이번 주 조윤희 선교사가 '단기선교의 마음가짐'을 강의한다.

사사키 준은 일본 레인보우음악회사 대표로 음반 'Send Me'



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OCM가수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신교지에서 온 편지

“현지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동산에 도착한 후 만 9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년으로 현지를 떠난다고 하니 많은 추억들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선교역사에 큰 변화를 본 10년!

무엇보다도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아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현지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국 사역, 장단기팀들의 활발한 전도, 성경배포, 현지인들과 사역자들이 연합하는 교회개척과 다양한 사역들...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들과 현지인 교회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민족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천명이 넘는 현지인 교회가 우뚝 세워져 이 나라 전역에 주님의 빛을 선포 할 것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날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

입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 동역자들과 개척하며 사역하던 O교회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소아시아 전역 기독교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미디어의 집요한 공격을 받는 핵심에 저희 가정과 교회가 노출되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핵심 형제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한걸음씩 물러섰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O교회를 두고 떠나는 저희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결음마를 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마치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가는 부모된 마음이라 할까요? 감사한 것은 저희 팀 사역자들이 세번치 교회사역에 동역하면서 사역 인수인계를 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기존 현지인들과 저희 팀 사역자들이 좋은 연합과 동역을 이뤄가면서 O교회가 계속 성장

해가고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더불어 이 민족을 섬겨 주신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동역자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저희 가정이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국내로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동역자님들을 뵙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실 날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희에게 형제민족이 된 이 민족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품고 섬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3년 6월 17일 갈라디아에서
황디모데, 송에나, 다빈, 시영 울림

02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방금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믿어 주셔서 현재는 통증은 멎은 상태입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뱃속까지 아픈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목상하였습니다. 어제 아침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는가?”

그러자 제 마음속에는 평강과 성령님이 다스리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속에 있는 돌들이 부서져서 소변을 통해 나올 것을...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사하게 해 주셨음을...

현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놓고 현지 교회목사님들과 함께 기도중입니다. 이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더드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참 행복한 선교사임이 분명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 있도록, 아내와 송이의 강건함을 위하여, 이 땅의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환 선교사

박영환 선교사(파송-방글라데시-TIM-인양안산)는 7월 3일 Baraka Kedney 병원에서 콩팥에 있는 결석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 자택에서 요양중이다.

03

연재 / 아웃리치팀을 위한 은누리 선교세미나 - '열매 맺는 아웃리치' ①

◆ 연재순서 ◆

- 제1강 아웃리치 준비
- 제2강 열매 맺는 아웃리치
- 제3강 현장중심의 사역

민수가 13장 1절에서 24절에서 모세는 각 두령과 족장을 뽑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다. 아웃리치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선교지에 있는 영적 세력을 깨뜨리고 정복하기 위해 그 땅을 탐지하는 것이다. 아웃리치팀은 그 땅에서 얻은 정보를 돌아와서 보고해야 한다.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길 바란다.

아웃리치 점검표

우선 여권과 비자, 항공권을 챙긴다. 공동체 대부분이 떠나는 7,8월은 비행기표를 구하기 힘들니 항공권 예매부터 해야 한다. 아웃리치를 갈 지역 선교사와 연락해 가서 할 사역과 가지고 갈 물품을 정하고 매주 일정한 시간에 모여 훈련한다.

모국어로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해외에서 외국어로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가기 전까지 적어도 3,4명에게 전도하라.

아웃리치를 나갈 때 사영리를 준비한다. 영어도 좋고 그 나라어로 된 사영리를 준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영어 사영리

를 내가 먼저 읽어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이해 못한다고 하면 그 나라 언어로 된 사영리를 주고 읽어달라고 한다. 내가 준다는 태도는 그 나라 사람의 자존심을 해칠 수도 있지만 읽어달라 고 부탁하면 100% 도와준다. 또한 외국에서 한 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으니 한국어 사영리도 함께 준비하면 좋다.

사스 때문에 현재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

안해서 미처 말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

예산편성

비행기 값, 숙식비, 약품비, 선교사 선물, 그 지역 박물관이나 유적지 입장료, 현지 주민 선물비 등을 잘 따져서 예산을 편성 하되 약간 풍성하게 준비하라. 가서는 아껴쓰고 남는 것은 현금하는, 나누는데 풍

아웃리치 준비

김중원 목사(TIM)



이 별로 없다. 이때 들어가야 한다. 그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함께하고 기쁨 때 함께 기뻐할 때 선교지 사람이 감동받는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곳에 내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하면 내 생각 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 대로 행할 수 있다.

팀구성

팀장, 부팀장, 회계, 서기 등 능력과 은사대로 각 담당을 맡는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선교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 1주일에 2번 만나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이 미

성한 아웃리치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지역으로 갈 경우 구걸하는 아이들을 위해 잔돈을 많이 준비한다.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아웃리치는 효과가 없다. 같은 지역을 적어도 4-5년 동안, 가능한 자주 가면 더 좋다. 한 미전도종족을 맡았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조를 짜서 가면 좋을 것이다. 아웃리치가 닥쳐서 비용을 만들면 힘들니 아웃리치 계를 만들어 1년 전부터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개인 짐꾸리기

마구 던져도 부서지지 않고 내용물을 보

호하는 튼튼한 가방을 준비하고 그 지역의 기후, 강수량 등 정보를 얻어 짐을 챙긴다. 급하게 짐을 챙기면 꼭 빼놓는 것이 있으니 필요한 물품을 미리 챙겨라.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분실시를 대비해 여권 복사본과 비자 복사본을 준비한다.

아웃리치 주의사항

현지 선교사의 지시에 100% 순종하라. 선교사의 지시와 여러분의 뜻이 맞지 않으면 무를 꿇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선교사를 많이 위로해 드려라.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싸 안아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선교지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다.

보안지역에서의 아웃리치

보안지역에서는 전화가 도청되니 조심한다. 가능하면 아웃리치 기간동안 전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 색깔에 맞는 옷을 입고 가라. 그 지역 선교사에게 무슨 색깔이 좋은지 조언을 받아라. 흰색이나 어두운 색 옷은 어디서나 무난하다. 이슬람권에서는 여성들이 머리에 스카프를 하고 다니는 것도 좋다. 현지 선교사 이야기를 늘 명심하며 움직여라.

/ 정리 전성희 shee@onnuri.or.kr

“일본 가정에 하나님의 웃음 넘치길”



신현일

키미와 아이사레루 타메니 우마레타 키미 노 쇼가이와 아이데 미테이루...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고코로니 간샤오 모 짜나가라 슈노니와니 하이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위의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감격스런 2박 3일간의 꿈을 떠올린다. 히라가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어를 발음 나는 대로 한글로 적어서 찬양을 연습했다. 연습할 때는 다들 답답해 했는데, 일본에 도착해 혀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발음도 일본사람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찬양팀 스스로도 놀랐다. 환상의 찬양팀이 오사카를 녹인 것이다.

눈물의 '혼인갱신서약식'

공진수 목사님의 '피플퍼즐'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딱딱했던 지원자의 얼굴들이 서서히 풀리더니 워크숍 때는 부부가 서로 성

격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해하고 발표도 했다. 생일과 결혼기념 축하잔치 역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사랑의 대화 속에 눈물과 감동이 넘쳐 났다. 이안철, 고토 야스코 부부의 간증을 들으면서 지원자나 사역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 세족식 때 여기 저기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그동안 아팠으면...' 하는 생각으로 뒤에서 사진을 찍던 나도 눈물을 흘렸다.

혼인 갱신 서약식은 한마디로 축제였다.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그리스도안에서 혼인을 새롭게 서약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때도 주례 앞에서 서약문을 읽으면서 많은 부부들이 눈물을 흘려 글을 잘 읽지 못했다. 그리고 결혼 축하 파티와 기념 촬영이 이어졌다. 조별모임은 각자를 드러내고 공감하는 좋은 기회였다. 아쉬운 것은 모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오기 2시간 전 일본인 부부의 간증은 우리가 왜 일본땅을 품을 수

밖에 없는가의 정답을 제시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해 왔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많은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분이 자기의 부인과 자녀에게 남편과 아버지로서 권위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모습을 고백했다. 결국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자기 자신의 가정을 무너졌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 일본을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 간증을 듣고 우리가 오사카 땅에 있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다.

2박3일 동안의 오사카를 생각하면 꼭 꿈을 꾸는 것 같다. 이 꿈을 생각하면 생각

할수록 감동이 있고 웃음이 있고 눈물이 있던 꿈이다. 이 땅의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많은 부부들이 치유 받고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우리 행복한 부부학교는 계속 될 것이다.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펼쳐질 행복한 부부학교를 상상하며... 할렐루야!



△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오사카에서 열린 '행복한 부부학교'는 일본인에게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일깨워 주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렸어요

제5기 여성사역자 학교 학생들은 예수원과 은성수도원, 캐나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예수원 A팀 15명 6월 9일~11일 △예수원 B팀 20명 6월 11일~13일 △은성수도원 20명 6월 16일~18일 △캐나다 27명 6월 8일~16일은 지난 6월 19일 서빙고 한동홀에서 은혜를 나누었다.



조윤순 (11조) 캐나다팀

크신 하나님 찬양

열흘간의 긴 여행은 지병이 있고 주변 상황이 어려운 나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웃리치를 가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퀘벡

리로 떠났다.

나는 평소 남편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다른 좋은 점들이 많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아웃리치 중에 마음이 변해갔다. 나처럼 이렇게 병 많은 여자를 누가 사랑할까?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지 잘 한다고 격려해주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며 연약한 나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 말과는 나하고 살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계속되는 여행 중에 침묵 묵상은 절정이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각 속의 하나님이셨지만, 위대한 자연을 보며 눈으로 보고 실감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크셨다. 큰 산과 울창한 숲, 아름다운 호수 등 감히 인간의 머리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정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다.

다른 지체를 보며 고쳐야 할 내 모습을 보게 하였고, 예민하고 까다롭던 내 성격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01

“온누리미션, 궁금할 때 클릭하세요”

온누리미션 홈페이지가 6월 1일 개장했다. 2년 준비기간을 거쳐 올 3월 본격적인 구축작업 끝에 완성한 온누리미션 홈페이지. 홈페이지 작업을 한 김영석 집사와 윤유석 자매를 만나 온누리홈페이지 제작과정에 대해 알아봤다.

일단 온누리성도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때였던 것 같아요”라며 윤유석 자매가 홈페이지를 만든 때를 회상한다. 2년 전 구상했지만 미뤄오기만 했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김영석 집사가 전체 감독을 하고 이경희 간사가 홈페이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모았으며, 윤유석 자매가 동영상 편집부분과 코디네이션을, 청년 여호수아의 장석경 자매가 디자인을 맡았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부터 목표는 정해져 있었다. ‘온누리성도에게 온누리미션에 대해 제대로 알리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절대로 사랑과 관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성도가 온누리미션을 잘 알도록, 온누리미션 7개 외국어예배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홈페이지의 목적입니다”라고 김영석 집사가 말한다. 윤유석 자매도 “온누리미션이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의 공휴사역이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해 현지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는 것, 파송된 현지인 사역자들이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자는 목적이 가장 컸다”고 말한다.



온누리미션 목소리를 모으는 사이버 공간

온누리미션 홈페이지는 온누리미션 소개, 각 예배소개, 선교사역, 공휴사역,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꾸며져 있다. 이중 가장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은 게시판이다.

“중보기도와 자유게시판이 활발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찾아와 기도제목을 올리면 기도하겠다는 답글이 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 5월 청년부에서 도와준 외국인 체육대회 이후 청년부 지체들의 글도 많이 늘었다고 윤유석 자매는 말한다.

현재 온누리미션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현장으로 예배 장소를 옮기고 있다. 홈페이지는 이렇게 사역지에 흩어져있는 예배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기지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게시판들 통해 이뤄진다.

“사이트를 보고 외국에서 연락이와 TEE, BEE를 하고 싶다고 교재를 보내달라거나, 중보기도실에서 외국 현지 상황을 함께 나누기도하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의료사역팀 자매들의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온누리미션 사역이 이전에 없었던 힘을 받아 이뤄지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김영석 집사는 말한다.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온누리미션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다. 선교지에 나가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온누리미션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의 비전과 소식,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어판 제작도 기획하고 있다.

김영석 집사는 소망한다. “현재 온누리미션 홈페이지는 태동기입니다. 첫 번째 목적대로 온누리성도에게 제대로 온누리미션 사역을 알린 후 각 나라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들어와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온누리미션 홈페이지가 시작은 미비하지만 선교의 열매를 맺는 홈페이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온누리미션 홈페이지 주소 : www.onnuri.or.kr/om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네팔어예배

생명력 넘치는 말씀충만

오늘(6일) 오후 2시 선교관 306호에서 네팔어예배를 한다. 드림 대신 민속악기 리듬에 맞춰 찬양하는 예배이다.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예배는 설교 본문을 읽는 5분을 제외하고 1시간 타악기 장단에 따라 찬양을 부른다.

네팔 예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여성도가 머리 위에 쓴 손수건이다. 캐리커 문양이 있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짙은 손수건도 있다.

“성당에서 미사포를 쓰는 것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성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에 쓰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 자유롭게 예배드리라고 말했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자와 남자 따로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성경에 쓰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지요.” 원영기 간사가 말한다.

이처럼 네팔 예배는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치지

않는다.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복음을 받고 실천 양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네팔 예배 행동 양식은 자신들이 돈을 모아 자국에 교회를 설립하려는 꿈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2003년에 이를 비전에 대해 기도하는 시간에 카트만두에 교회를 세우자는 의견이 나왔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다. 네팔 예배는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가 되어야 실행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데 몇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 안전에 그날 모든 사람이 찬성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다가도 고국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힘듭니다. 네팔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족들이 가족구성원에서 내치는데 그러면 원래 자신이 속한 카스트 신분을 잃어버리기에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네팔에 돌아가서도 예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5천만 원 정도가 드는 설립비용 중 1천 2백만 원 정도(네팔 돈 70만 루피)를 현지에서



냈습니다.” 자콥 형제가 말한다. 네팔어예배는 앞으로 카트만두 뿐 아니라 네팔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이 있다.

“부산 사람이 서울에 오기 힘든 것처럼 카트만두 지역에 오지 못하는 형제를 위해 네팔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94년 네팔 형제 4명이 모여 시작한 네팔어 예배는 97년 군포엘터에서 예배를 드려다 98년 온누리교회로 들어왔다. 현재 약 30명이 예배에 나온다. 2002년 네팔어예배는 네팔 형제 5백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명에게 세례를 주는 한편, 네팔 현지인 3명을 발굴해 인도 신학교에 유학보내고 학비를 후원했다. 2003년 네팔어예배 비전은 네팔어예배 6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2명이 세례를 받게 하는 것, 카트만두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온누리미션 단신

네팔 연합예배

온누리교회, 군포교회, 주안장로교회, 주빌레미션교회가 연합하는 네팔 연합예배가 오늘(6일) 오후 3시 군포교회에서 열린다. 네팔 연합예배는 네팔 지체들의 연합과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네 교회가 돌아가며 예배를 맡아 섬기고 있다. 오늘 열리는 연합예배는 온누리미션 네팔어예배를 섬기는 빌립 목사가 설교한다.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두란노해외선교회
월요선교사 중보기도모임**
7월 7일(월) 오후 7:00 양재 온우절제성전
문의: 박소영 간사(794-1063-5)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7월 21일(월) 오후 7:30 장소는 추후공고
내용: 박일규, 민성기, 이승환 선교사 사역보고
문의: 윤정현(018-225-9018)

☞ 양재 하나 공동체 모임 (북한선교모임)
매주 일 오후 1:30~4:00 양재 온누리교회 트리니티 502호
문의: 노규석 전도사 (011-9918-462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시온홀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rumom.com

창조과학 선교팀 기도모임
매주 주일 오후 1:30~3:30 서빙고 본관 5층 옥탑 첫째방
문의: 011-9752-6038

온누리세계선교센터

☞ 제1회 선교세미나
7월 9, 10일 오후 7:00~10:00 서빙고 시온홀
주제: 무슬림에게도 교회개척운동을(부제: 이슬람 상황화와 전략코디네이션)
강사: 김요한 선교사(HOMP, 동남아 1국에서 상황화사역 담당)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450~3)

☞ 이라크 난민사역을 위한 물품 모집
난민사역: 7월 21일~8월 1일 남부 나시리아, 바스라 일대
필요한 물품: 어린이 샌달 혹은 슬리퍼, 모자, 학용품, 영문 의학 서적, 기초 의약품 등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 훈련간사 모집
업무: 선교사훈련과 관련된 훈련 및 행정
자격요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선교경험이 있고 운전면허(1종) 소유한 형제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

에젬선교회

☞ 이라크 위한 바자
7월 6일 양재온누리교회 (1부~7부 예배)
7월 13일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1부~7부 예배)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016-357-1172)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젬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웃리치

의료선교 A팀 여름 해외 아웃리치
8월 11일~17일
지역: 방글라데시
분야: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약사, 이.미용, 기타 자원봉사자
문의: 김준현 (011-9970-2630)

☞ 의료선교 B팀 해외아웃리치
7월 13일~18일
지역: 미얀마 (양곤)
사역분야: 한방, 안과, 치과, 이.미용, 찬양
비용: 90만원
문의: 신학철 팀장(011-701-5437)
박성현 총무(011-9731-0258)

의료선교 C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30일~8월 4일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섬 이슬람 지역
모집분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치과, 한방,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비용: 약 75만원
문의: 안태환 팀장(011-323-1515)
홈페이지(www.onnuri.or.kr/rafa) 게시판 참조

2003 의료선교 D팀 캄보디아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7월 16일~20일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후원물품: 여름옷, 의약품, 슬리퍼, 학용품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yahoo.co.kr)

극동러시아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의 EEF(Ebenezer Emergency Fund: 유대인 귀환사업 국제단체)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Fishing trip(유대인이 고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7월 30일~8월 6일(7일)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사역내용: 유대인 가정 방문, EEF-Fishing trip(유대인 귀환사업) 체험, 교회방문
참가신청: KIBI, EEF-Korea (792-7075 / kibikorea@yahoo.com)

온누리미션

☞ 자원봉사자, 물품
영어 일대일 지도해주실 분
한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칠 교사, 봉고차, 냉장고 구입니다.
트리니티 신학생 TEE세미나 간식을 섬겨주실 자원 봉사자(7월 14~8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6:00~9:00)
인도예배에서 피아노 반주하실 분
온누리미션에서 동역할 파트간사
문의: 황호상 간사(017-290-7856)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ACTS 29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조흥은행 398-03-013049
외환은행 010-33-23153-5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예금주: 온누리교회
* 헌금방법
계좌이체: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
이체시 이름 뒤에 주민번호앞 4자리 숫자를 입력
현금분투: 본당 입구 비치된 봉투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입 후 헌금함 이용

*

01

2천/1만 비전 위해
다락방이 기도한다



온누리 공동체는 다락방별로 한달에 한번 선교사를 중보하는 기도 모임을 하기로 하고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사진)

하용조 목사는 발간사에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며 “다락방 기도모임은 2천/1만 비전의 영적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다락방은 아웃리치가 많은 7월과 8월 중 날짜를 정해 모임을 시작하고, 9월부터는 한달에 한번 기도회를 연다.

/ 서철 chol@onnuri.or.kr

02

2천선교사 파송

오늘 양재 2부 예배(오전 9시)와 서빙고 3부 예배(오전 11시 반)에서 이원상, 김혜정, 최영승, 한경원 선교사 파송식이 있다. 온누리 세계선교사 장기 훈련학교 2기생인 이들은 TIM 소속으로 이스라엘(이원상, 김혜정 선교사 부부)과 동북아(최영승 선교사, 한경원 선교사)에서 사역하게 된다.

03

아웃리치 물품 배포

온누리복지재단은 이번 여름 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팀에게 여성의류와 샌들을 선착순 배포한다. 문의는 김정진 간사(793-9686 교 412)에게 하면 된다.

만남 이라크 아웃리치 떠나는 홍의택 집사

“모든 것 맡기고 떠납니다”



홍의택 집사 (부평 1순)

홍의택 집사(부평 1순)에게 2003년 여름은 아주 특별하다. 다른 성도들이 아웃리치를 떠나 는 것을 보면서 '빛진 자'의 부담 을 갖고 있던 그가 TV에서 보던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이라크 로 아웃리치를 떠나기 때문이다. 홍집사를 만나 감추인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빛진 사 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올해는 꼭 가보겠다고 결심했는데 사스 때문에 아웃리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신기섭 전도사님이 이라크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주변에 뜻이 맞는 분들이 있어 팀에 합류했습니다.

◎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사실, 이번 아웃리치를 앞두고 다니던 직장을 정리했습 니다. 문제가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날 제가 안 정적으로 생각했던 직장이 '갈데아 우르' 처럼 느껴졌습니 다. 하나님께서 제가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부담 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웃리치팀에 합류하면서 모든 것 을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번 아웃리치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 니다.

◎ 기도제목은?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아웃리치 비용(약 250만원)도 조금 부담스럽습니 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는 대로 가길 원합니다.

/ 서철 choi@onnuri.or.kr



이라크 아웃리치팀

7월 21일~8월 1일 나시리아, 바스라 일대
김태완 김선교 김민정 박영혜 이흥우 조현경 이재석
요시하라 마니부 홍의택 신기섭 양재광 이창호

◆ 기도제목 ◆

1. 이라크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2. 나시리아 지역에서 대인봉사와 의료봉사 그리고 복음전도 활동을 할 계획,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3. 바그다드와 모술에서는 정탐과 선교사역지 방문을 할 예정, 현지 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돌아오도록
4. 팀원들중에 재정적으로 혹은 직장에서의 휴가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5.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심씨 50도 이상의 날씨와 전혀 다른 음식과 환경에서 모든 팀원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6. 부천 온누리 교회 쿠르드족 정탐 팀들이 쿠르드족 지역 슬레이마 니아, 모술, 카루쿠크 등지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 이라크로 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라크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 사람들이 "왜 하필 이라크로 가느냐?"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라크에 가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저는 여기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라크에 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 이번 아웃리치를 떠나기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해마다 아웃리치를 떠나

연재 / 아웃리치팀을 위한 온누리 선교세미나 - '열매 맺는 아웃리치' ②

◆ 연재순서 ◆

- 제1강 아웃리치 준비
- 제2강 열매 맺는 아웃리치
- 제3강 현장중심의 사역

여호수아 1장 11절에 '열게 하시는'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취하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며 모세가 강조하는 것과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모세 시대에는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가서 취하라'는 것이다.

새 시대에는 새 비전이 있다

서로 다른 세대에는 다른 비전과 임무가 있다. 우리 이전 세대는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비전이였다. 우리 뒷세대가 그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했기에 우리는 그 결과물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를 보고 있다. 그러나 새 시대에는 새 비전이 있다. 단기와 장기 선교를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세대의 임무는 10/40창에 있는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변해야 한다. 선배의 모습을 닮으려 해서 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고 우리가 움직이려는 선교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기대해야 한다.

단기 선교팀이 해야 할 일

단기선교팀이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첫째, 팀장이나 팀원 누구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무도 말려선 안 된다. 과거의 경험을 내세워 새로운 시도를 막

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관념적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자기가 느끼는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아웃리치 팀이 오면 지도 한 장과 생활하는데 기본이 되는 생존 언어 십여 가지를 가르쳐주고 '어느 지역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외라' 같은 임무를 준다. 이 임무를 하고 오면 생존 언어 열 가지로 3개월은 이곳에서 살겠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급

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우리가 선교지에 무언가 해주고 온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먹을 것이나 돈 등을 잔뜩 들고 가서 현지인에게 항상 주려고 한다. 그 이면에는 '우리 교회가 낫고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다. 현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보면 그들이 우리와 똑같이 돕고자 하는 사람이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럴때 우리는 베푸는 것이 아닌 존귀한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셋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 정탐꾼은 추적대에게 쫓기는 처지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흥미롭다. 보호하고 있는 라합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쫓기는 정탐꾼은 구해주마고 말한다. 이미 이 성을 다 점령한 사람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을 초월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아웃리치를 가면 돌아올 날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혀 가야 한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이 변할 것을 기대하라. 돌아오려는 자는 그 땅에 관심이 없다. 땅을 밟으며 기도를 넓히고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하는 영적 욕심을 가져라. 그리고 아웃리치에서 돌아와 그 땅을 위한 일군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 정리 : 전성희 shee@onnuri.or.kr

열매맺는 아웃리치

김기가 선교사(GO선교회)



지 마라. 때로 사고를 칠 수도 있지만 그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단기팀이 선교하는 것을 보며 정체해 있던 현지 선교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선교지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런데 '불안'은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두려움은 우리의 움직임을 묶고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

두려움에는 이라크의 무정부상태 같은 실질적인 위협의 두려움도 있지만 대부

박한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 때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구체적인 확신과 기쁨을 얻는다.

셋째, 선교지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라합'은 기생으로 당시 그의 도움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 우리의 선입관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7월 21일(월) 오후 7:00 서빙고 영아실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엘마안팀(017-278-3376)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7월 28일(월) 오후 7:30 서빙고 본관 2층 유아실
 내용: 박일구, 민성기, 이승환, 이상오 선교사 사역보고
 문의: 윤정현(018-225-901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벤델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속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이라크 난민사역을 위한 물품 모집
 난민지역: 7월 21일~8월 1일 남부 나시리아, 바스라 일대
 필요한 물품: 어린이 샌달 혹은 슬리퍼, 모자, 학용품, 영문 의학 서적, 기초 의약품 등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훈련간사 모집
 업무: 선교사훈련과 관련된 훈련 및 행정
 자격요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선교 경험이 있고 운전면허(1종) 소유한 자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

에짚선교회
☞ 이라크 위한 바자
 7월 13일 서빙고, 양재온누리교회 (1부~7부 예배)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016-357-1172)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짚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웃리치
의료선교 A팀 여름 해외 아웃리치
 8월 11일~17일
 지역: 방글라데시
 분야: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약사, 이.미용, 기타 자원봉사자
 문의: 김준현 (011-9970-2630)

의료선교 C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30일~8월 4일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섬 이슬람 지역
 모집분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치과, 한방,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비용: 약 75만원
 문의: 안태환 팀장(011-323-1515)
 홈페이지(www.onnuri.or.kr/rafa) 게시판 참조

의료선교 D팀 캄보디아 여름 아웃리치
 7월 16일~20일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자원봉사자
 후원물품: 여름옷, 의약품, 슬리퍼, 학용품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yahoo.co.kr)

극동러시아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의 EEF(Ebenezer Emergency Fund:유대인 귀환지역 국제단체)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Fishing trip(유대인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7월 30일~8월 6일(7일)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내용: 유대인 가정 방문, EEF-Fishing trip(유대인 귀환지역) 체험, 교회 방문
 참가신청: KIBI, EEF-Korea (792-7075 / kibikorea@yahoo.com)

온누리미션
☞ 자원봉사자, 물품
 영어 일대일 지도해주실 분, 한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칠 교사, 봉고차, 병창고 구합니다.
 트리니티 신학생 TEE세미나 간식을 섬겨주실 자원 봉사자(7월 14~8월 4일 매주 월요일 오후 6:00~9:00)
 인도예배에서 피아노 반주하실 분, 온누리미션에서 동역할 파트간사,
 문의: 황호상 간사(017-290-7856)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ACTS 29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조흥은행 398-03-013049
 외환은행 010-33-23153-5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예금주: 온누리교회
 * 헌금방법
 계좌이체: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
 이체시 이름 뒤에 주민번호앞 4자리 숫자를 입력
 현금봉투: 본당 입구 비치된 봉투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입 후 헌금함 이용

*

“생명의 복음 열방에 전한다”

대학청년, 국내 93팀 해외 32팀 ... 2천3백98명 아웃리치 떠나

온누리대청연합이 2003 여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나간다. 국내 93개팀, 해외 32개팀 등 1백 25개팀 2천3백98명의 젊은이들은 개척교회 지원, 전도, 건축, 노력봉사, 외국인 근로자, 빈민 금융사역 등 전심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주일(12일)에는 대청아웃리치를 위해 온누리 성도는 비전 헌금 1억여 원을 모았다. 이 헌금은 꿈땅, 파워웨이브 아웃리치 후원, 이라크 교회 개척지원, 성인

공동체와 대청이 함께하는 삼척, 문경, 삼천포 전도 프로젝트, 대청 아웃리치 지원 등에 사용된다.

박종렬목사는 “이번 아웃리치로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젊은 지도자가 되고, 한결 깊어진 영성과 세상을 보는 영적 통찰력이 넓어지고 깊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온누리 성도에게 “이번 비전 헌금과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송현 ruby@onnuri.or.kr



▲ 지난 주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청년들은 아웃리치를 위한 바자를 했다. 이날 청년들은 비전헌금에 감사하며 축복송을 부르며 성도들에게 화답했다.

2천선교, 선교사역 소개

지난 7월 16일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린 '해외선교회 홈커밍데이'에서 김화수 집사(2천선교위원장)가 '섬김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온누리교회 선교상황과 공동체 섬김을 소개했다.

선교사를 잘 섬기려고 마련한 이 자리에서 김집사는 미전도종족 입양, 중보기도 모임으로 선교사를 돕는 방법 등 온누리공동체의 선교후원 사역을 소개했다.

전성희 / shee@onnuri.or.kr

몽골 연합예배 현장

“하늘나라에서도 나담축제를”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몽골 독립을 기념하는 '나담축제(Naadam)'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 '뎡게링 울싱 나담(하늘나라의 나담)'을 주제로 온누리교회와 장총교회, 서울 중앙침례교회, 부천몽골교회, 문화교회 등 11개 교회 몽골인 244명이 13일 오후 6시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다.

6시 저녁 식사 시간, 우리나라 튀김만두와 비슷한 고기로 속을 채운 '호소루', 우유에 녹차를 넣어 끓인 차 '수테체', 쇠고기국, 샐러드와 과일이 나왔다. 오랜만에 맛보는 몽골전통식으로 요기를 한 후 시온홀에 모였다. 가운데 공간을 남기고 삼면으로 의자를 배치한 후 놀이 한마당이 벌어졌다. 화살대신 빨대 멀리 던지기, 림보, 판자 뒤집기 등 동시에 다섯 개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을 둘러싸고 구경했다.

몽골 전통악기인 호치르에 맞춰 찬송가를 부르며 사람들은 예배 분위기로 젖어들었다. 손기태 선교사(DMN: Diaspora Mongolian Network 공동대표)는 "이스라엘에도 나담과 비슷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다"고 소개하



고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목숨을 구하고 자유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양 예수를 믿고 영생과 자유를 얻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결산의 시간, 몽골인들 40여 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열릴 나담축제를 소망했다. 이날 헌금은 신부전 수술을 받은 갈트 형제에게 전해졌다.

한국에 온지 2년 반만에 처음으로 나담축제를 즐기게 되어 좋다는 마이에르 자

르갈라씨는 "그동안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이니 기쁩니다. 특히 음악회가 좋았습니다"고 말했다.

나담은 '휴식'이나 '놀이'란 뜻으로 몽골 건국기념일인 7월 11일부터 3일간 전국적으로 각종 연회, 군중대회,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로 몽골인들은 신년인 신짚(12월 31일)과 함께 큰 축제로 여기고 있다. 전성희 / shee@onnuri.or.kr

“축제 같은 예배 꿈꾸며”



이해동 간사 (장총교회 몽골어 예배, DMN 총무)

첫 몽골 연합예배는 2000년 9월 추석에 열렸습니다. 세 교회에서 35명 정도가 모였는데 오늘은 2백여 명이 넘게

와서 기쁩니다. 몽골에서 나담축제 기간에 술을 마시고 지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고민한 후 이 축제를 영적인 것으로 풀어나가자고 기획했습니다. 즐거운 축제 분위기에서 점점 예배로 빠져들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고 즐기는 대예배는 몽골인들이 잘 모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소그룹 모임이 약합니다. 앞으로 몽골 연합예배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고 싶습니다.

“같은 민족 만나니 기뻐요”



나라 자매

한국에는 4년 전에 왔는데 같은 민족 사람을 많이 만나니 좋습니다. 몽골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19살 난 아들이 있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들과 함께 오고 싶습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아리왕 / 김혜정
(아브라함 / 그레이스) - 이스라엘
“탁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돌아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찾도록 돕겠다는 소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리왕 간사를 키비(KIBI 이스라엘 선교회) 기도모임과 키비 간사로 사역 하시며 소명대로 한단계 한단계 인도하셨다. 그리고 사역을 하며 김혜정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다. 김 선교사는 94년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했다.

이 선교사와 김 선교사는 3개월간 러시아에서 유대인 귀환사역을 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한국 이스라엘 문화센터에서 문화사역을 하게 된다. 러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비공식적으로 2백만명 정도 있다고 한다.

“극동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은 신발이 하나 밖에 없어 가축이 번갈아가며 신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귀환 사역을 돕고자 합니다.”

◇ 기도제목 ◇

-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겸손히 순종하도록
-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대인을 계속 품을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최선 / 이룸 (동북아)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꿈을 꿔서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면서 시편 2장 말씀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룸 선교사는 어릴 적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순종해 5년 전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속 단기선교사로 나갔다. 그곳에서 같은 비전을 가진 형제를 평생 동반자로 만났다. 최선 선교사와 이룸 선교사는 이제 장기선교사로 전향해 같은 비전을 향해 함께 나간다.

이룸 선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지역에 관심이 많았고 단기 선교사로 갔을 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가’라 느꼈어요”라며 선교지에 깊은 애정을 말했다.

최선과 이룸 선교사는 현지 온누리교회 선교 베이스와 협력해 사역하고 훈련을 받는다. 최선 선교사는 태권도로, 이룸 선교사는 교육 쪽으로 전문인 사역을 할 것이다.

“Acts29 방향에 따라 교회가 명하는 대로 순종해 나갈다. 가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

-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 현재 6주인 벅속아이가 건강하도록
-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현지화 된 현지인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한영훈(동북아)

“이젠 완전히 주님께 헌신해 나갑니다.”

6살 때 커서 사모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14살 때 ‘내 삶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두 번째 서원하고도 1987년 예수전도단 집회에서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도망 다녔다며 웃는 한영훈 선교사, 그러나 그 얼굴에는 주님께 삶을 헌신한 사람의 평강과 영혼의 빛남이 있었다.

2000년 3월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속으로 동북아에 3년간 단기 선교사로 사역한 한영훈 선교사는 장기선교사 훈련학교(OSOM)에서 훈련을 받고 장기 선교사로 전향했다.

“장기선교사 학교에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5년을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 현지화 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꼭 그 선교사님들처럼 현지화되고 싶습니다.”

한영훈 선교사는 현지어를 습득해 현지인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 기도제목 ◇

-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예배자가 되길
-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 땅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 언어습득을 빨리 습득하고, 꾸준함과 성실함을 주시도록
- 평생 동역자를 주시도록

◆ 연재순서 ◆

- 제1강 아웃리치 준비
- 제2강 열매 맺는 아웃리치
- 제3강 현장중심의 사역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 땅은 한국, 미국, 아프간 같은 실제적인 땅의 뜻도 있지만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 같은 관념적 땅도 의미한다.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1차적 전도라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정치, 예술, 문화 영역 등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돕는 것까지가 완전한 선교다.

우리는 모두 전문인

이렇게 전도하기 위한 무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성(spirit)이다. 둘째는 전문성(specialty)이다. 영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방언이나 지혜 등 은사를 주신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달란트를 주신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다. 선교는 목사나 교인 일부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2백여 국을 다니며

선교의 판도를 보게 하셨다. 옛날에는 영성이 준비된 목사가 신학을 배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선교였지만 오늘날 선교의 판도는 90퍼센트 이상이 전문인 선교다.

전문인 선교는 의사나 변호사, 정비사 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선교지에는 작은 배움이라도 갈급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선교가 professionalism이 아닌 speciality인 이유이다.

단기선교는 토네이도 미사일

하나님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단기선교여행에서 크게 역사하신다. 단기선교는 토네이도 미사일이다. 선교지에 장기선교사를 보내 선교지에 심어놓는 것은 로마시

도로 기간을 반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종교전문가인 목회자를 제외하고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98퍼센트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98퍼센트가 깨어나서 하나님께를 위해 일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길 원하신다.

평신도에게 아웃리치를 가서 전도라고 하면 할 때는 뜨겁지만 돌아와서 한 달 후면 그 열기가 식는다. 그러나 전문인 선교를 하고 돌아온 사람은 선교지 상황 때문에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일만 하고 돌아왔어도 선교를 향한 열정이 6개월을 간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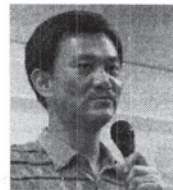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영적 전도만 하라고 이 땅에 부르시지 않았다. 자기 직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전도를 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나 돌아와 생활에 연결되지 않아 금방 식는다. 그러나 직업현장에서는 자기 일을 하며 선교지에서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하며 선교지 상황이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을 목상하며 삶이 바뀐다.

선교지에 다녀오면 사람이 바뀐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멀리 보며 일을 하게 된다. 내 앞만 바라보면 날개가 퇴화해서 날 수 없다. 앞만 보면 비전은 퇴화하고 한 달란트를 물어놓은 땅만 보인다. 내 앞만 바라보는 닭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멀리 쳐다보는 독수리가 되길 축원한다.

정리 / 전성희 shee@onnuri.or.kr

현장중심의 사역

조용백 선교사 (TIM선교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면 선교지에선 탁월한 전문가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탁월한 전문가다. 인간의 관점은 1등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59등도 60등을 위해 존재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등위 간 격이 좁으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가르치는 것보다 아마추어 기술자가 더 잘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 전문 선교의 출발인 것이다. 전문선교는 상대적이다. 세상이 나를 필요하게 여기면 나는 전문인이다. 이것이 바로 전문인

다. 현대 전쟁은 정탐을 보내고 전략적 거점지를 안 후 그곳에 미사일을 쏘 80%를 없애고 다음 보병을 보낸다. 이것이 최소를 투자해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선교지도 처음 사전조사를 하고 태권도 유아교육 등 그곳 사람들이 가장 온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력을 아웃리치팀에 넣어 보내 영적 교두보를 만든다. 단기선교를 5, 6년 해 입양한 선교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후 장기 선교사를 보낸다. 그냥 사역할 경우 장기선교사가 모슬렘에 15명 모으는 사역이 15년에서 20년이 걸리지만 단기팀이 가서 밭을 일구놓으면 7~8년 정

2003 Afghanistan



너무 아름다웠기에 시기의 대상이었던 도시, '카불'

□ 다시 찾은 카불 □

1. 너무 아름다웠기에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 '카불'
2. 북음으로 아프간을 세우는 은누리 사람들
3. 끝까지 남은 자들이 뿌린 씨앗이 움트고 있다

중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개가 부정적이다. 문명세계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 경계 밖에 놓여 있는 땅, 여행길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땅, 문명과 문화로부터 동떨어진 땅, 인접한 국가들의 역사책에 잠시 등장하는 유목민의 땅,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종족상잔의 유희가 남지한 땅,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땅, 문명간의 충돌이란 핵폭탄의 뇌관이 되는 땅...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지닌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을 잠시 둘러보고 떠난지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뇌리에 새겨져 있는 카불의 이미지는 절망이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럴 수가?' 라는 당혹감, 두려움, 놀라움, 엄청난 충격이었다.

전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국, 침략군의 무덤이 되어버린 돌사막과 비워진, 흙먼지 풀풀 날리는 척박한 광야, 수십 년 전쟁으로 전쟁 박물관이 되어버린 국토, 부르카를 뒤집어 쓴 채 평생을 얼굴 없이 살아가는 아낙네들, 부서지고 녹슨 탱크 위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 아사에 직면한 난민촌의 신생아들, 5분마다 한 사람이 죽어가는 아프간 사람들의 처절한 고통, 국민의 10퍼센트가 살해되고 30퍼센트가 난민이 되며 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나라...

그 땅에서 잠시 희망을 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이요, 소망이 없는 땅이었다.

비행기로 힌두쿠스 산맥을 넘는 남다른 감격

1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로 입성하는 길은 너무 멀었다. 모든 비행이 통제된 전시 상황이라서 우즈베키스탄을 통

» 8면에 계속



» 7면에서 계속

해 입국하여야 했다. 타슈켄트에서 국경 도시 테르미즈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했으나 국경 검문소를 넘어 아프간의 북부도시 마자르 이 샤르프까지는 육로를 이용해야 했다.

우즈베크와 아프간을 가르는 형제의 다리를 건넜다. 아프간 땅에 들어서면서 만난 것은 오랜 전장이 낳은 상흔이었다.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부서진 장갑차, 탱크, 무너진 건물의 총탄 잔흔, 폭격에 파이고 부서진 길, 다리, 끊었을 것 같은 시막 길에서 언제 나타났는지 달리는 차를 향해 절하며 두 손 벌리는 걸인들, 황량한 모래밭만에 난민들이 모여 사는 텐트촌을 한 손에 날려버릴 것 같은 먼지바람, 가도 가도 끊이지 않는 진회색 구름... 왈각 치수는 눈물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아프가니탄의 북부 요충 도시인 마자르 이 샤르프에 여장을 풀 때까지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

탈레반 잔당이 남아 있어 아직은 위험하다는 카블로 입성한다는 기대감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녘에 길을 나섰다. 마자르 이 샤르프에서 카블로 가는 길은 외길이었다. 처음엔 멀리 앞쪽으로 눈 덮힌 힌두쿠시 산맥이, 좌우로는 넓은 평야와 과수원이 보이는 녹색 지대를 달렸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사위는 온통 회색빛 돌산이었다. 길은 어느 새 험한 계곡길로 바뀌었다.

관문을 통과하듯 산맥을 관통하는 여러 개의 터널을 통과해 부서진 다리를 건너고 끊기고 파인 절벽 길을 한나절을 돌고 돌아 고산 분지로 들어서면 그곳에 카블이 있었다. 거리는 약 400여 킬로미터. 정상적인 도로면 승용차로 5시간 30분이면 족히 닿는 거리를 1박 2일 동안 달렸었는데, 그 길을 이번에는 뉴델리 공항에서 출발한 아리아나 항공편으로 2시간만에 손쉽게 올 수 있었다.

만년설이 석양에 눈부셨던 아름다운 계곡, 그러나 갑탄도 잠깐, 칠후 같은 어둠에 휩싸이면서 엄습해 온 두려움, 추위, 배고픔... 그런 아픈 기억을 담은 힌두쿠시 산맥을 비행기 조그만 창으로 내려다보는 감회가 유별났다. 발 아래로 재의 언덕, 돌의 계곡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졌다. 그 오랜 세월, 슬픈 외침 가운데서도 아프가니스탄을 끝까지 지켜준 것이 바로 이 험난한 지형이었다.

비행기가 카블 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갑자기 낮췄다. 험산준령으로 둘러싸인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블은 분명 천혜의 요새였다.

화려하나 혼란스러운 5천년 역사 속에서 최대의 모슬렘 제국이 된 아프간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버

린 도시, 카블.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지만, 작년 이맘때 카블을 떠나면서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이 말이 사실임을 안 것은 카블을 다시 찾은 이튿날 나들이 길에서였다. 아프간의 옛 궁전, 궁전 터, 정원, 저택의 위용은 전쟁박물관 같았던 아프간을 목도하며 느꼈던 때와는 또 다른 신선한 충격이었다.

기원전 1500년경의 인도 시가집인 「리그베다」에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가 무척이나 오랜 카블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시내 중심가를 흐르는 카블강, 과실이 무성한 과수원, 비옥한 들녘, 이들 위로 끊없이 이어지는 준봉들... 여기에 쾌적한 기후까지 곁들여졌으니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계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고백하였다고 한다.

무굴 제국을 일으킨 바부르(Babur)도 카블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인도를 정복한 후에도 끝까지 카블에 머물기 원하여 실제로 이곳에 잠 들었다. 바부르 정원 안에 있는 바부르 영묘가 그의 무덤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는 5천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화려하고 혼란스러운 역

사는 이 땅에 고대에는 아리아나로, 중세에는 코라산으로, 현대에 와서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불리는 등 여러 이름을 안겨 주었다. 정식 명칭은 아프가니스탄공화국이다. 아프가니스탄이란 아프간 족의 땅이란 뜻으로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신장 자치구에 접해 있다.

기원전 2000년 경, 아리아인 족들이 이 땅을 '아리아나'라고 불렀는데, 카블도 이 시기에 도시로 형성되었다. 험한 지형, 혹독한 기후,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 때문에 이 땅을 넘보던 정복자들은 모두 실패하고 돌아갔다. 침략군의 무덤, 아프가니스탄 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고 한다. 기원전 500년 경부터 다리우스 황

제가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대부분 지역을 차지해 페르시아제국을 아프가니스탄으로 확대했지만, 지금의 칸다하르와 쿠에타 지역 부족들의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렸다.

아프간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우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기원전 329년,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었다. 오랫동안 그리스를 괴롭혔던 페르시아 제국을 쓰러뜨린 여세를 몰아 알렉산더 대왕은 아프간을 찾았다. 대왕은 아프간에서 제일 먼저 밟은 땅을 '아리아인의 알렉산드리아'란 뜻으로 헤라트(Herat)라 불렀고, 그 남쪽에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다. 그 도시가 파슈투어로 '알렉산더'란 뜻을 지닌 지금의 칸다하르(Kandahar)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계속 북진했다. 카블을 점령하고 발흐(Balkh)까지 내달렸다.

박테리아 왕국의 중심 도시였던 발흐는 대상무적이 변성했다. 대왕은 이 발흐에서 박테리아 왕국에서 제일 아름답다는 왕의 딸 록사네(Roxane)를 아내로 맞

았고 이방 여인의 매혹적인 유혹으로 왕과 신을 동일시하는 토착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다.

대왕의 지배는 비록 짧았지만 카블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박트리아에서 남으로는 칸다하르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 화려한 헬레니즘 문화를 심었다. 침략군들의 표적이 되었던 휘황찬란한 박트리아 황금 장신구, '꽃피는 땅(the Garden Land)'이라는 뜻의 '간다라(Gandhara) 미술'이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

기원후 50년, 쿠산제국이 들어서며 불교문화가 융성했으나, 6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현재 아

프가니스탄 전역을 다시 지배하였다. 7세기에는 아랍인들이 이슬람을 들여오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화 되었고, 10세기에 이슬람 문명의 중심 국가로, 18세기 후반에 최대의 모슬렘 제국이 되었다.

수많은 외침과 내란 속에 말라버린 카블강, 무너진 옛 궁전

아름다운 아프간 땅이 결정적으로 황폐화하기 시작한 것은 1219년, 대륙을 휩쓸었던 칭기스칸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부터였다. 요새 속에 갇혀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주사위를 던져 누구는 흡혈을 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누구는 흡혈을 당해 죽기로 결정하면서까지 생을 지킨 끈질긴 민족 파슈툰족은 칭기스칸 군대에 끝까지 저항했다. 그 전투에서 칭기스칸은 파슈툰 병사가 쓴 화살에 손자 모트칸을

» 9면에 계속



>> 8면에서 계속

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식일 수 없었던 칭기스칸은 성안에 있는 생명은 땅 속에 사는 개미 한 마리까지 모두 멸절시켰다. 그러나 칭기스칸도 아프간에서 물러나야 했다. 자존심이 상한 칭기스칸은 아프간의 모든 관계 시설을 파괴하였다. 이전에 그렇게 비옥하던 땅이 사막으로, 흙 돌산으로,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칭기스칸 이후 아프간의 슬픈 외침의 역사는 끊이지 않았다. 1370년 티무르의 타메르라네, 1504년 무굴 제국, 1736년 페르시아가 아프간 정복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들 침략군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울창한 숲, 풍요한 마을, 과수원과 수확을 앞 둔 논과 밭에다 불을 놓았다.

카불이 아프간의 수도가 된 것은 1776년.

그때까지만 해도 카불은 실크로드의 동서를 잇는 융성한 대상도시였다. 남부 칸다하르에서 북동부의 카불로 수도가 바뀜으로써 아프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파슈툰족 만의 아프간이 아니라 타지크, 우즈베크인들과의 화합에 기반을 둔 아프간으로의 변화였다. 통치체제와 언어, 교육 분야에서는

앞서가던 페르시아의 것을 따랐다. 아프간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카불은 옛날의 풍요로운 모습이 아니다. 파괴가 오랫동안 자행됐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영국, 제정 러시아의 외침이 결정적이었다.

1839년, 아프간은 영국과 첫 번째 전쟁을 치렀다. 1842년 1월 영국군과의 전면전에서 영국-인도군 1만 6,500명의 병사 중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 조랑말을 타고 잘랄라바드에 도착했다. 제1차 아프간 전쟁에서 혼쭐이 난 영국군은 그 양감으로 아름답고 유서 깊은 시장, 카불바자를 초토화했다. 황폐해진 카불 바자가 복구된 것은 1940년대였는데, 지난 80년대 초 소련군의 폭격으로 시 전체가 망가지고 말았다.

1843년, 영국군을 물리친 아프간은 독립국이 되었으며 도스트 모하마드 칸이 망명에서 돌아와 1863년까지 왕위를 유지했다. 1865년, 러시아가 침입하여 1873년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국경선이 확정되었으며, 1878년에는 두 번째로 영국이 침입했으나 격렬한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2년 후 철수하였다. 1885년, 다시 러시아군이 침략해 판지데 오아시스 지역을 점령했으나 곧 물러섰고, 1921년에는 세 번째 영국과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승리, 외교권을 되찾았다.

외침이 조금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부족 간의 대립으로 내란이 끊이지 않았다. 1996년 9월 27일, 탈레반이 랍바니 정부를 타도하고 카불을 장악함으로 아프

간은 점점 더 황폐해졌다.

지난 역사 가운데 끊임없었던 외침, 내란, 탈레반의 정권 장악은 아프간의 문화 유적, 카불의 아름다운 정원, 궁전, 로맨틱한 카불강, 6천점에 이르는 문화재를 소재하고 있는 카불 박물관을 모두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생동감이 넘치는 회색빛 도시, 카불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1년 만에 다시 찾은 카불의 거리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 보였다. 온 도시를 뒤덮은 파괴의 흔적이 너무 선명해서 그렇게 보였다. 폭격에 부서진 건물, 무너진 담장, 병 둘러 벽, 파인 도로, 카메라를 갖다 대면 서로 짝어 달라고 모여드는 아이들, 얼굴에는 하나같이 핏가루 같은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방울이 늘어붙은 두 손을 내밀며 '원 달러, 원 달러'를 마치 주문인양 되뇌이며 달라붙는 집안들, 거리를 순시하는 미군 장갑차, 완전 무장한 민병대원들...

거리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넘쳤고 흙먼지, 자동차 매연으로 앞이 뿌옇게 보였다. 카불 중심지를 관

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카불은 분명히 1년 전에 비해 달라지고 있었다.

부산스런 거리에는 활력이 넘쳤다. 차들이 엄청나게 늘었다. 노새와 마차, 자전거, 택시, 트럭, 버스가 뒤엉켜 도로가 비좁았다.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오랜 시간 정체되었다.

동네 곳곳에 놀이터가 세워졌다. 흙바람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파하면 동네 놀이터에서 시이스,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활기차게 놀았다. 부르카를 벗어 던진 젊은 여인들은 낯선 남자에게 눈웃음을 치며 거리를 과감하게 활보했다.

거리에는 가게가 줄지어 있었다. 자전거포, 과일가게, 채소가게, 옷가게, 가전제품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비디오 가게에 사람들이 몰렸다. 시장마다 각종 생필품과 먹거리들을 팔러 나온 노점상들과 인파로 붐볐다. 피자집, 대형식당, 세차장, 중고 자동차 매매장이 곳곳에 들어섰고 공원이 하나 둘 세워졌다.

무엇보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카불에는 레미콘 소리가 우렁찼다. 삼질 소리, 망치 소리는 아프간의 재건을 알렸다. 끊긴 다리를 연결하고 파인 도로를 메우고 있었다. 무너진 담장을 세우며, 부서진 집을 고치고 있었다. 1층 집이 2층으로, 2층집이 3층집으로 올라가고 있었으며, 군데군데 세워진 4~5층 아파트를 말끔하게 꾸미고 있었다.

카불은 여전히 회색빛 도시, 죽음의 도시 같았으나 생동감이 넘쳤다. 희망의 생을 펴뜨릴하고 있었다. 화려했던 옛 카불의 푸르름을 꿈꾸며 나무를 심고 있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마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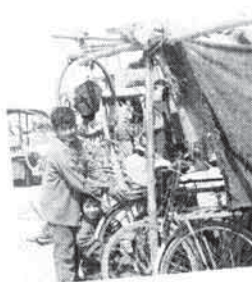
복음이 없기에 궁정이 무너지고 정원이 황폐해질 수 밖

에 없으며 안타까워하는 김창욱 전도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정말 아프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온누리 사람들을 카불로 보내시어 카불의 새벽을 기도로 깨우게 하소서. 말씀으로 무너진 회색빛 도시 카불을 새로이 세우시며 찬양으로 아프간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은혜를 베푸소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 다음 주에 계속 연재합니다.

/ 편집국장 장선철
jsc@onnuri.or.kr



통하는 카불강은 썩어가고 있었다. 카불을 둘러싼 계곡에는 웅성한 흙집들이 딱지닥지 붙어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때묻은 기름통에 펴뜨릴하며 물을 채웠다.

부르카는 여전히 아프간의 옷입이었다. 부르카를 벗은 여성이 늘었지만 외지인의 눈길이 닿자 얼굴을 '차도르'로 가렸다. 양복을 걸친 몇몇 사람들이 보였으나 여전히 남자들은 베란툰분을 입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이 한 건물을 교대로 쓰고 있는 도시 학교 바닥에는 여전히 거적이 깔려 있었고 실내는 흙먼지가 자욱하고 진흙탕으로 질퍽했다. 학교 건물 안 뜰에 그늘을 만든 차양막 하나와 바깥 천막이 교실이었다. 인산인해 병원은 환자들이 맨 땅에 아픈 몸을 맡기고 하염없이 진료 차례를 기

“현지인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 여름. 타는 듯한 햇볕만큼이나 복음의 열기 또한 뜨거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동역자님들 모두 그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

얼마 전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함께 공부하는 학생과 우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스 때문에 정부 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했다는 얘기를 하기에 기독교인이라고 물어보았더니 지금까지는 안 믿었는데 올해 들어서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림 함께 성경공부를 해 보지 않겠냐고 했더니 너무나 고마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과 일대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정부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주일 예배 말고는 특별한 성경공부나 훈련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신앙이 어느 이상 자라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가정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조직이 드러나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연결되지 않으면 스스로 그런 모임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훈련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이곳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새삼 기억하며 훈련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연습을 계속하면서 지금은 자매 여섯 명과 형제 한명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성악과 학생들이 4명, 음악교육과 학생들이 2명, 그리고 한명은 전통악기를 다루는 학생입니다. 이번 7월 말 특별 경배와찬양학교에 맞춰서 이 학생들이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기도 가운데 학생 3명이 지난달 말에 비자를 받았고 다른 4명도 다음주에 비자를 신청합니다. 사스와 여러상황 때문에 사실 한국 비자를 받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어쩌면 이번의 훈련과 복음의 일정이 이들에게는 일생에 한번 뿐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방해도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 오기로 한 학생들 중 한명이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지금 허리를 못 쓰고 있는 중이고, 또 한 명은 몸이 안 좋아서

며칠째 누워 있고, 또 한 명은 갑자기 집에서 가지 말고 집에 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더욱 기도하라는 징후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기도부탁도 드리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훈련을 마칠 때까지 학생들의 마음과 육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여름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이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와 동역자님들께도 올 여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7월

레베카 선교사(파송-동북아-경천-강남B)

밝은미래 학교 졸업생이 대학교에 전원 합격했습니다

젊지 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 주소서' 하며 몽골 땅을 밟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여름 처음으로 몽골에 발을 내딛었을 때, 타임머신을 타고 60년대로 돌아온 황당함과 여기서 앞으로 살아야 한다는 막막함에 "주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며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몽골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몽골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긍휼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밝은미래학교 학생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입학금을 들고 이 대학, 저 대학으로 기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희망도 없어 보이는 채행바트는 집이 없어서 시장 처마 밑에서 식구들과

살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키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고 20살에야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요리사가 되어 돈을 벌어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에서 청소하며 먹고 잡니다. 이 아이가 국립 전문대학에 250명 중 30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10학년 졸업반인데 동생 8명을 돌보며 밤에는 바에서 밤새워 일하고 낮에는 학교 가서 졸면서 공부하던 학생이 있습니다. 보다 못해 일을 그만 두게 하고 근로장학금을 주며 공부시켰습니다. 졸업하면 엔지니어로 확실하게 생활이 보장되는 국립 건축 대학에 합격해 더욱 기쁩니다.

한 학생의 장래가 보장되는 순간 너무 기뻐 '주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입학금을 내고 학생 증명서를 받아 들고 '나도 대학생 됐다'며 기뻐하던 모습에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공사판으로 일하러 가는 그 아이의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에는 기쁨과 눈물이 비쳤습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사연 많은 밝은미래 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에 전원 합격했습니다. 대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아이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밝은미래 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많은 후원자의 사랑으로 벌써 3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1,2회 졸업생은

믿음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그들의 삶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섬겨야 할 단기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신용산 7층 아웃리치팀 18명이 울란바타르에서 500키로 떨어진 아르 항가이로 지방 사역을 갑니다. 라마 불교의 영이 강하고 조금은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지역으로 외국 팀은 처음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전도사역과 집회를 할 때 팀이 기도와 진행을 잘 준비하고 이들의 사역으로 그 지역이 복음화 되고, 현지인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온누리 공동체팀이 힌타 아이막의 북쪽 브리아트 쪽에 계로 갑니다. 울란바타르에서 여러 도시를 거쳐 북쪽 국경대 닷들로 가는데 좋은 차량과 운전 기사를 만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이동 할 때 주님 보호로 건강을 지켜 주시고, 힌타의 브리아트 쪽에게 복음의 씨앗 뿌려지고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팀들을 섬기며 지방 사역에 함께 동행 하려 합니다. 학교 수업과, 팀들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 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고, 차량과, 숙소등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님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을 보내며 한샘을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7월 21일(월) 오후 7:00 서빙고 시온홀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엘마안팀(017-278-3376)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7월 28일(월) 오후 7:30 서빙고 본관 2층 유아실
내용: 박일규, 민성기, 이승환, 이상오 선교사 사역보고
문의: 윤정현(018-225-9018)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7월 28일(월) 오후 7:00 서빙고 순영홀
설교: 박종길 목사
문의: 김화수 팀장(011-448-426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벤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에zell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웃리치 의료선교 A팀 여름 해외 아웃리치

8월 11일~17일
지역: 방글라데시
분야: 내과, 외과, 피부과, 치과, 약사, 이.미 용, 기타 자원봉사자
문의: 김준현 (011-9970-2630)

의료선교 C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30일~8월 4일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섬 이슬람 지역
모집분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치과, 한방,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비용: 약 75만원
문의: 안태환 팀장(011-323-1515)
홈페이지(www.onnuri.or.kr/rafa) 게시판 참조

극동러시아 아웃리치
아웃리치는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의 EEF(Ebenezer Emergency Fund: 유대인 귀환사업 국제단체) 책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Fishing trip(유대인이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7월 30일~8월 6일(7일)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내용: 유대인 가정 방문, EEF-Fishing trip(유대인 귀환사업) 체험, 교회방문
참가신청: KIBI, EEF-Korea (792-7075 / kibikorea@yahoo.com)

후원

☞ 중국어예배 여름수련회 후원
중국어예배에서 8월 9일, 10일 1박2일로 여름수련회를 합니다. 힘든 일과 일상에 지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573-810008-54805 하나은행
예금주: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ACTS 29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조흥은행 398-03-013049
외환은행 010-33-23153-5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예금주: 온누리교회

*** 헌금방법**
계좌이체: 본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
이체시 이름 뒤에 주민번호 앞 4자리 숫자를 입력
현금봉투: 분당 입금 비치된 봉투에 이름과 주민번호 기입 후 헌금함 이용

*

“장·단기선교사 27명 배출”

2기 ‘터닝포인트’ 한달 훈련 마쳐 ... 8월 말 파송예배

은누리단기 선교사를 위한 학교 2기 터닝포인트가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 서빙고 순형홀에서 수료식을 했다. 이날 청년대학부 견습선교사 12명을 포함해 타단체 소속 장기 선교사, 단기선교사 등 27명이 수료했다.

수료식은 하용기 장로의 기도, 황종연 목사의 경과보고, 수료생의 간증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병희 자매는 “훈련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기쁨과 평안으로 만드셨다. 훈련 기간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다. 문지혜 자매는 “선교를 배우

겠다는 생각으로 견습선교사로 지원했지만 훈련을 마치고 나니 선교에는 ‘견습’이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선교사로 첫 출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박종길 목사는 발립보서 2장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다. 박목사는 “영적·경제적 우월감으로 가르치려 하기보다 겸손하게 현지인에게 배우고, 권리를 포기하며,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내로 하나님을 섬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라는 말로 수료생들을 축복했다.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

일 숙식하며 은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 진행된 ‘터닝 포인트’는 4주간 ▷라이프 맵핑(Life Mapping), ▷자신 파악과 대인관계 워크숍, ▷선교 역사 및 선교 기초, ▷선교 실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2기 터닝포인트 수료자〉

구영난 권영희 권은순 김병희 김인경 김경희 문지혜 박명선 박숙현 변화현 선순희 송진숙 신양순 심다나 윤화정 이상백 이상진 이기정 전제상 조은희 최영은 최상락 최양혜 탁연주 한윤미 허성민 홍수희

/서철 chol@onnur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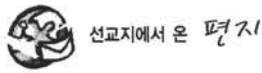
▲ ‘터닝포인트’ 수료생 27명은 교역자와 선교위원들의 안수를 받았다. 이들은 8월 말 파송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선교지로 떠난다.

이스라엘 선교의 밤

7월 29일(화) 오후 7시30분 서빙고 선교관 306호에서 ‘이스라엘 선교의 밤’이 열린다.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열리는 이번 모임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무궁화 나무의 비밀’이라는 비디오를 시청한 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다.

/ 서철 chol@onnuri.or.kr



“현지 제자들과 만드는 현지어 성경”

1기 사역을 돌아보며

파푸아뉴기니는 호주의 오른쪽 위에 위치한, 면적이 한반도의 2배가량 되는 큰 섬으로 인도네시아와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과하티계 부족 성경번역에 참여했던 현지인 언어조력자중 3명과 이웃부족인 아싸로에서 이주한 1명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이웃의 마디, 무라다약, 구야, 아싸로 네 부족을 위해 현신해 성경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이 사역을 인계받아 여러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저희 팀을 다중언어번역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팀에는 문맹퇴치를 위해 훈련을 받아 부족어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들을 발굴 훈련하는 일에 헌신한 현지인 사역자가 두 명 더 있습니다. 현지인 67명과 저희가정이 한 팀으로서 5개 부족의 성경번역과 문맹퇴치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번역사역자들 4명은 각 사역지를 방문해 성경공부를 통한 제자화와 언어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역부족에 들어가 살기 위해 사역마을에 살 집을 마련하고 밭을 얻어 작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하티계 부족 지역에 번역과 문맹퇴치 센터 겸 교회 훈련 공간으로 쓸 2층 목조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1기 사역을 하며 이런 성과를 얻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오

랫동안 각 부족이 섬겨온 악령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과 성경번역보다는 외국인 성경번역 팀과 더불어 들어 올 자본으로 지역사회개발을 기대하는 부족 사람들의 동기가 순수해져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나오도록 현지인 사역자들을 진정으로 돕는 관계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 된 여러분의 '기도'

2기 사역의 목표는 2005년 7월까지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각 부족에서 제자들이 생겨나고 현지인 사역자들을 도와 신약번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번역을 위해 필요한 언어학적인 분석과 문화인류학적 관찰 기록을 정리하고 각 부족에 대한 선교 전략의 소중한 자료가 될 지역정보들을 수집 정리할 것입니다. 저는 과하티계 언어를 숙달하고 성경번역자문 전문인이 되기 위해 훈련하며 동시에 현지인 사역자들을 자문해 주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역이기에 일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갈 영역도 많습니다.

이번이 첫 한식년이었는데 선교지에서 겪었던 긴장감을 풀고 재충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후원교회방문과 기도동역자들을 만나 그동안 사역경험과 삶을 나눌 때 저희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들



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사시는 여러 동역자들의 간증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딸 사리가 처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학교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 태어난 예린이가 엄마의 기도처럼 잘 먹는 아이이고 건강한 아이여서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만나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여러 동역자님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중환, 임미경

2003 외국인 근로자 쉼터 아웃리치 - 대학부 공동체 다윗



“우리가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그들 옆에 있어 준 것뿐, 오히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많이 배우고 사랑을 받다가 돌아왔습니다.”

군포쉼터 아웃리치를 다녀온 노현지 자매(다윗공동체)가 말한다. 지난 19일(토)과 20일(주일) 온누리 서빙고 대학부 다윗 공동체 소속 11명이 군포 쉼터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토요일 오전 10시 서빙고교회를 출발해 안산 안다목교회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공장 현지를 돌아보고 오후에는 군포 쉼터에서 네팔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다음날 영등포역에서 네팔인 전도했다. 안산안다목 미션의 박제성 목사님과 온누리미션 원영기 간사에게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네팔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땠냐는 질문에 “네팔어로 찬양하고 설교하는 내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들리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지만 목사님 억양이나 고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고 계신지 대충 감이 잡히던데요.” 하며 웃는다.

길거리나 교회 내에서 스쳐지나가며 막연히 대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이들과 직접 접해 1박 2일이란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

“되 섬김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소외받고 아픈 사람이기에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그들을 알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선조가 미국 하와이 옥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한국 독립자금을 보낸 이야기를 들을 때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존경심을 갖는 것처럼 한국에서 번 돈을 자기 고향에 보내고, 교회를 짓고 한다는 그분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현지 자매의 말이다.

무엇보다 변한 것은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해외 아웃리치를 두 세 번 다녀왔다는 이소는 자매는 “이번 국내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돌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방문하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다시 쉼터를 방문하고 주일 선교관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려 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 분들을 양육하고 돌본다는 마음으로 이들과 교제하려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기적이라 할 만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굳이 선교전방에 가길 원한다면 이곳은 선교 전방으로 충분합니다.”



허원희 전도사

모슬렘지역은 선교하기 힘든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인 사역을 하다 배운 것이 그분들이 회심해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들이 선교사 수십 명을 파송하는 것 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외국인 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영접하게 될거라는 기대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학부 네 팀이 매주 쉼터로 갑니다.

“외국인 선교, 교제로 시작합니다”

방학동안은 대학부의 주일 예배가 힘들더라도 대학부 지체를 다 보내서 섬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오시고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외국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또래라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장을 견학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힘들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껏 단계니까 앞으로 온누리미션과 협의해 일정과 재능을 모아서 우리 장점을 외국인 근로자 선교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개학 후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며 비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카자흐스탄



박현신
(요셉공동체)

카자흐스탄에 올린 찬양

6시간 정도 걸리는 카자흐스탄. 도착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하느라 힘들고 어려웠

이번 아웃리치의 사역 내용이 출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사역으로 바뀌어 정신없이 준비하며 출국했습니다.

지만 마음에는 감사 또 감사가 생겼습니다. 알마타에서는 먼저 텔런트 최민수씨의 누님이신 최연숙 선교사님이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곳의 사역은 주민호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살렘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살렘 교회는 규모가 꽤 큰 교회로, 카자의 국방부 건물 한 층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청년들의 찬양인도는 온누리 찬양팀의 열정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뼉치며 뛰면서 찬양하던 모습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팀들이 준비한 워십과 러시아어로 준비한 축복송을 부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심방하며 땅밧기 하는 팀과 다른 팀은 위그

로라고 소수민족들을 찾아가 그곳 아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소수민족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위그로민족은 주로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이고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은 민족들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모든 게 인맥과 돈으로 한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아이들이 인정받고 성장하기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일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더나기 전에 손 한번 더 잡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칩켄트로 13시간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칩켄트 임마누엘교회. 칩켄트는 알마타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 기온이 보통 섭씨40~50도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뼈 속까지 뜨거운 정도였지요. 하지만 이곳 역시 청년들의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보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 청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순결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축복이..

카자흐스탄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들의 순박함, 그리고 대조적이게 느껴지는 타락함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열방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한 나라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이 땅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아프간을 세우는 온누리사람들

□ 다시 찾은 카불 □

1. 너무 아름다웠기에 시기의 대상이었던 도시, '카불'
2. 복음으로 아프간을 세우는 온누리 사람들
3. 끝까지 남은 자들이 뿌린 씨앗이 움트고 있다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일라를 향한 신앙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뜻밖이었다

"아, 아아, 아~"
카불의 새벽을 깨우는 아잔(azhan)으로 개강식이 시작되었다. 조금 전 까지만 해도 아프간에서 가장 좋은 컴퓨터, 만화, 미술교실을 개강한다는 기쁨에 들떠있었던 식사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

간절함을 뛰어넘어 피를 토하듯 깊은 한을 쏟아 내는 젊은 여인의 낭랑한 목소리는 처라리 전율, 그 자체였다. 그러나 알라의 계시가 귓전에 닿는다고 믿는 이들은 파도마냥 밀려 왔다 사라지는 아잔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져 들었다.

"알라는 위대하나이다(Allahu Akbar). 알라 외에는 신이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창조주이며 자비로우며 은혜로우며 최후의 심판 날에 왕이신 알라께 찬미하나이다. 저희들은 당신만을 숭배 하오며 당신께만 구원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알라는 위대하나이다. 인도해주소서, 알라는 위대하나이다..."

크고 청아한 목소리만 지니고 있으면 누구든지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에진(muezzin)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부 고위 각료가 참석한 공식 식사에서 젊은 여인이 알라의 사자(rasul allah)가 되어 아잔을 울조리는 것은, 모든 공식적인 행사를 일라를 향한 신앙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뜻밖이었다.

생업을 위한 발걸음으로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카불 시장이었기에 이제는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하루 다섯 차례 절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사라졌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아프간의 심장인 카불, 부루카를 벗어던진 여인들이 가장 많이 활보하는 이 대도시에서도 여전히 무슬림의 강은 건널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었다.



▲ 컴퓨터, 미술, 만화교실 개강식은 축제의 자리였다.



식순에 따라 마함마드 아민 무니시프 문화정보부 차관이 축사를, 김창욱 전도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육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 29: 18)

뒤풀이 가수 공연까지 있었던 컴퓨터, 만화, 미술교실 개강식은 아프간의 큰 사건이었다

뜻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김창욱 전도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동안에 젊은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지런히 손을 들었다. 열심히 메시지를 받아 적는 그들의 맑은 눈동자는 사슴을 닮았다. 먼 하늘을 바라보는 사슴의 맑고 애잔한 눈동자였다.

옛 아프간의 풍요로움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한다는 김창욱의 운동자들이 모여서 갖는 컴퓨터, 미술, 만화교실 개강식은 축제의 자리였다.

정부 고위 인사, 문화센터 원장, 마을 유지, 수강생, 수강생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문화원에서는 뒤풀이 공연을 위해 가수를 초대했다. 민속 악기를 두드리며 노래하는 가수는 식당의 흥을 돋웠다.

현재 300여명 청소년이 다리어, 재봉, 그림을 배우고 있는 문화센터에 최신 시설을 갖춘 컴퓨터, 만화, 미술교실이 개설되고 개강식을 갖는 것은 아프간의 큰 사건이었던 것이다.

컴퓨터와 만화교실을 맡아 지도할 구자현 선교사, 미술교실을 맡아 지도할 최소연 선교사와 아프간 젊은이들의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선택 마련해 준 나라, 어찌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믿는 한국에서 온 이방 선생님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표정이 너무 맑고 순수하다.

"열심히 배우겠다는 김창욱의 운동자..."

2003, 아프간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 갈망이었다.

허물어진 건물을 세우고 끊긴 다리를 연결하고 파인 도로를 새로 닦는 몸부림이, 직사광선을 겨우 가릴 천 조각을 차양막 삼아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는 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심이, 도무지 자랄 것 같지 않은 메마른

>> 9면에 계속



>> 8면에서 계속

땅에다 '푸르름을 심자, 옛 가뭄을 심자.'며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일이 모두 이 갈망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셔야 한다...'
아프간 사람들의 눈에는
갈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갈망의 눈빛을 어제도 만났다.
카불 주 지사의 고향 마을인 카불에서 북쪽으로 25킬로미터 떨어진 시골마을을 찾았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같은 개발을 통해 아프간 농촌 재건의 모델이 될 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리서치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을이다. 인근 3킬로미터 안에 이보다 규모가 작은 4개 마을이 있어 이 마을에 학교, 진료소, 우물이 들어서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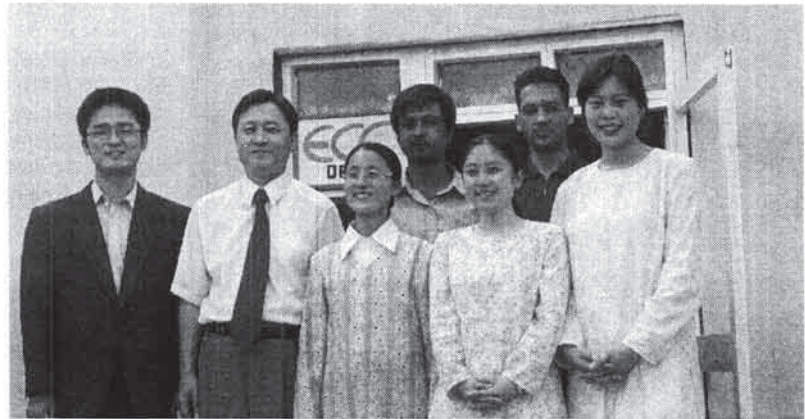
마을 입구에 주 지사의 집이 있었다. 주 지사, 마을 대표, 마을 개발 위원회 위원... 모두들 가장 멋지고 깨끗한 옷을 차려 입고 주지사 집으로 모였다.

'이 마을에 필요한 것은...?'
마을 개발을 놓고 나누는 이야기에 이들은 너무나 진지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셔야 한다...'
이들의 눈빛 역시 갈망의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프간 최초의 프레스 센터(press center)가 들어서
는 문화정보부 건물 1층에는 아프간 최고의 미술가들



▲ (상) 아프간 전통 스포츠 '부즈카시(buzkashi)' 경기 그림
(하) 농촌 개발 모델로 리서치하는 시골 동네의 아이들



▲ 구자현(컴퓨터, 만화), 손정래 장로(ECC 현지 대표), 김영희(의료), 최소연(미술), 오명진(농촌개발) 선교사와 현지 직원 두사람(뒷줄)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프간 정부는 우리에게 컴퓨터를 지원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전세계 기자들이 주재할 프레스 센터 메인 홀의 벽을 찬란한 아프간 문화를 꽃 피웠던 역대 왕들의 초상화로 채운다는 이들 화가의 눈동자 역시 '실크로드의 또 하나의 중심 도시 카불'을 소망하는 갈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이들 초상화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착박한 고원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인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프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말을 잘 타고 용감한 사나이 중의 사나이들이 벌이는 전통 스포츠 '부즈카시(buzkashi)' 경기 그림이었다. 칭기스칸, 영국, 러시아, 탈레반 정권... 술한 외침과 내란 가운데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벌어져 이 경기의 그림이 비록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래도 카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들의 갈망을 웅변하고 있었다.

**아프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릴 온누리 사람들**

2년 전, 전 세계를 경악케 했던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과 아프간을 위해 기도해오던 어느 한 사람의 헌금으로 시작된 아프간 사역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작년 5월 1차 아프간 정탐에 이어 네 번에 걸친 방문을 통해 올해 1월 1일 ECC(동서문화개발교류회)란 이름으로 아프간 현지 NGO 등록을 끝냈다. 보름 뒤, NGO 등록증을 교부받으며 첫 번째 사역으로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카불 제1의 병원인 아비스나 병원에 담요 250장과 난방기구 20대를 전했다.

지난 5월 1일, 카불 시내 중심가에 ECC 현지 사무소와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를 개설하면서 아프간 사역의 밑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농촌마을 개발, 교육, 의료사역이다. 이런 밑그림에 따라 한국 유학생을 선발하여 한동대학교에서 수학하게 하는 사역, 문화센터 사역, 거리 학교 사역, 단기 의료 사역, 심장병 어린이 수술 사역, 프레스 센터 지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아프간을 세우기 위해 온누리 사람들, 손정래 장로, 김영희 장기 선교사, 구자현, 오명진, 최소연 단기 선교사, 아프간에서 기업을 일구고 있는 이진엽 형제가 찬양, 기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라..."
찬양으로 카불의 새벽을 깨우며 말씀 묵상으로 무장한 온누리 선교사들의 하루는 너무 짧은 것 같았다. 현지어를 배우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을 찾아 리서치하며, 정부 관리들과 만나 협의하며, 아웃리치 팀과 함께 사역하며... 몇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사역을 감내하면서도 선교사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에 넘쳐 있었다.

미워했던 아버지, 사랑했으나 헤어져야 했던 사람, 불확실한 소망... 카불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마음이 사랑으로, 불확실함이 확신으로 변하는 복을 누린다는 온누리 선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풍성한 아프간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온누리 사람들은 아프간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릴 충성된 사자들이었다.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아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 25:15), 아멘.

>> 다음주에 계속 연재합니다.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7월 28일(월) 오후 7:30 서빙고 본관 2층 유아실
내용: 박일구, 민성기, 이승환, 이상오 선교사 사역보고
문의: 윤정현(018-225-9018)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7월 28일(월) 오후 7:00 서빙고 본관 2층 순영홀
설교: 박종길 목사
문의: 김화수 팀장(011-448-4262)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8월 7일(목)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00-9:00 서빙고 유아실
문의: 이요셉(016-346-8460)

양재 하나 공동체 모임 (북한선교모임)
매주일 오후 1:30~4:00 양재 온누리교회 트리니티 502호
문의: 노규석 전도사(011-9918-4628)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에zell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아웃리치
의료선교 A·C팀 해외아웃리치 봉사자
7월 30일~8월 4일
지역: 필리핀 민다나오섬 이슬람 지역
모집분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치과, 한방, 약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비용: 약 75만원
문의: 안태환 팀장(011-323-1515)
홈페이지(www.onnuri.or.kr/rafa) 게시판 참조

7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7월 29일(화) 오후 7:30~9:30 서빙고 선교관 306호
주요내용: "이스라엘 독립과 무궁화 나무의 비밀" 비디오 시청 후 중보기도

일어예배 토요일 어린이예배
운전해 주실분
8월23일부터12월6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어예배 어린이예배 운전으로 봉사해 주실분을 모집합니다.
자격: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30~2:30, 3:30~5:00
연락처: 오카·사오리 (016-733-4511)
맹신자 (019-390-2481)

온누리미션
1. 한글학교에서 외국인들을 가르쳐주실 교사를 구합니다.
2. 인도 예배 피아노 반주 봉사해주실분 찾습니다.
3. 온누리미션에서 함께 동역할 파트간사를 구합니다.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황호상 간사(017-290-7856)

무릎선교기도
9월 5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 종족기도실
등록: 당일등록 / 회비 2만원 (12월 5일까지 3개월간)
문의: 이경애 집사 (793-9686 교667)
장현주 간사 (793-9686 교252)

 **후원**

중국어예배 여름수련회 후원
중국어예배에서 8월 9일, 10일 1박2일로 여름수련회를 합니다. 힘든 일과 일상에 지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573-810008-54805 하나은행
예금주: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

'2천/1만 비전' 이 여물어간다

아웃리치팀 중심 선교사 위한 기도 모임 늘어

온누리 2003년 여름 아웃리치로 '2천/1만 비전'의 꿈을 키우는 온누리성도가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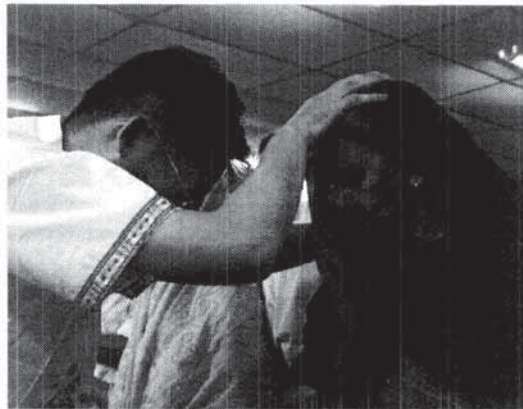
8월 10일 현재 60여 팀이 해외 아웃리치를 마쳤고, 이 팀들은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자체 평가회를 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로 했다.

가장 많이 시작된 것은 중보기도회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천선교사를 위한 기도 모임 외에 각 팀 별로 선교지에서 본 현지인들, 선교사와 가족을 위한 기도모임이 열리고 있다. 이런 모임들은 앞으

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다락방중보기도회'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아웃리치의 은혜와 감격을 나누고 있다. 대학청년 홈페이지를 비롯해 온누리공동체 홈페이지에는 아웃리치에서 누린 은혜를 나누는 글과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kr) '2003 아웃리치' 배너를 클릭하면 온누리신문에 소개된 아웃리치 자료도 볼 수 있다.

/ 서철 cho@onnuri.or.kr



▲ 일산공동체 방글라데시 아웃리치팀이 모슬렘 개종자를 위해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아웃리치 이후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모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끝까지 남은 자들이 뿌린 씨앗이 움트고 있다’

□ 다시 찾은 카불 □

1. 너무 아름다웠기에 시기의 대상이었던 도시, '카불'
2. 복음으로 아프간을 세우는 은누리 사람들
3. 끝까지 남은 자들이 뿌린 씨앗이 움트고 있다

주일예배 드리는 아프간 사람들, 그들은 슬로몬이 고백한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였다.

타지인인 프레드(Frad, 48세)가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영어를 배우면서 예수를 소개받고 주님을 영접했다. 탈레반 정권의 서술이 시퍼렸던 6년 전의 일이다. 아들에게 전한 복음은 아내, 딸, 남동생, 조카에게 빠른 속도로 전해졌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말씀이 그대로 이뤄졌다. 다른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을 달려갈 때 프레드 형제 두 가정은 매주 금, 일요일 두 차례 무릎 꿇고 가정예배를 드렸다. 한 달에 한 번은 프레드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주일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을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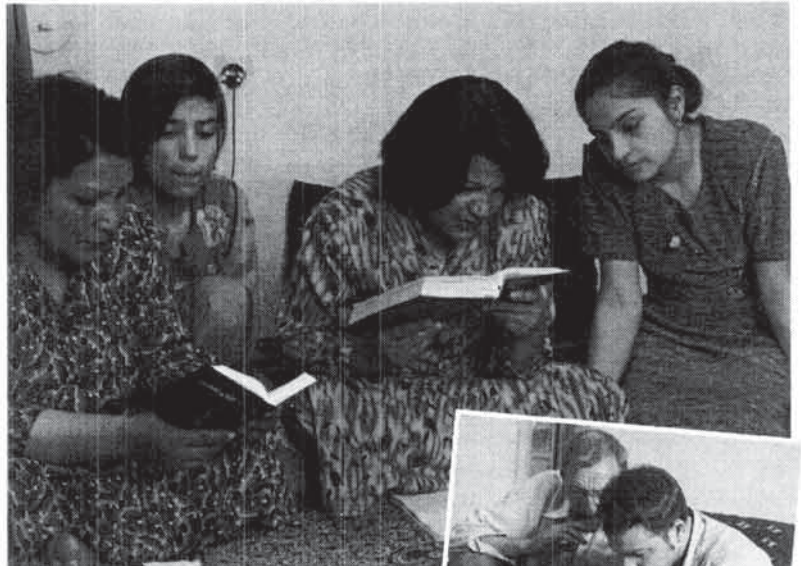
탈레반 정권에서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넘겨받았을 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끝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이 주는 평강이었다. 말씀은 기쁨이요, 자유요, 넉넉한 승리였다.

금요일 아침, 프레드 형제의 주일예배에 초대받았다. 마침 선교사 부부가 예배를 인도했다.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서 순간 알 수 없는 흥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축축하게 마음을 적시는 파도, 그 물결은 감동의 밀물이요, 감격의 썰물이었다.

고르고 골라 가장 깨끗한 웃음으로 같이입고, 다소곳이 앉아 예배 인도자를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 종긋 세운 귀, 미소가 가득한 입술... 그랬다. 이들의 모습은 슬로몬이 고백한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였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를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 양 끝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를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4:2, 3).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프간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꾸



▲ 찬양, 간증, 말씀, 은혜가 넘친 프레드 형제 가정 예배.

만 눈물이 나왔다. 입에서는 오래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품었던 그 엄청난 감동으로 밤새 부르고 불렀던 찬양이 맴돌았다.

"꼭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몇 번을 찬양했다.

선교사는 지혜롭고 자상했다 10년 동안 카불에서 복음을 전한 '진짜 선교사'였다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모두 함께 찬송을 마치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프레드가 쪽지를 꺼냈다. 한 달 동안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접 작사·작곡한 찬양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육이 구르듯 낭랑한 다리어가 감미롭다 못해 황홀했



다. 육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악기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 이야기, 말씀으로 부부가 하나 된 이야기, 예수 믿는 직장에서 연약한 아프간인을 섬기는 이야기... 예배를 위해 특송을 했던 동서사이인 두 여인이 진지하게 고백하는 간증에는 사랑이 넘쳤다.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 넘실댔다.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 순서였다.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본문이었다. 성경을 프레드의 아내가 읽었다.

'척박한 땅, 소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을 것 같은 카불 땅에 부르카를 벗어 던진 아프간 여인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 9면에 계속



» 8면에서 계속

불과 1년 전 이 때, 김창욱 전도사와 카불 숙소에서 숨죽여 주일예배 드렸던 기억이 새로웠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지혜롭고 자상했다. 쿠바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진 그는 미국 자매와 결혼, 10년 전에 카불에 왔다.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열군데를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적 지도자를 키우고 있었다. 현지인만큼이나 완벽한 다리어로 시종일관 대화하듯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얼굴에 빛나는 광채로 눈이 부셨다.

10년 동안 양말을 신지 않은 맨 발로 아프간 남정네가 입는 똑같은 옷을 입고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이는 선교사는 진짜 '선교사 중의 선교사'였다.

탈레반 정권하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목 베임을 각오하지 않으면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파슈툰, 타지크, 하자라, 우즈베크... 등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아프간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유일한 요소는 국민 99%가 신봉하는 이슬람이다. 약 1,300년 전 힌두쿠시 산맥 양쪽에 이슬람이 도래한 이후, 대부분의 왕조는 이슬람을 통치 기반으로 삼았다. 하지만 20세기 초 국왕 아마눌라 칸은 여성에게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슬람을 도외시한 이 개혁은 종교, 종족 지도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반란으로 해외로 망명했다.

왕위를 이어 받은 무함마드 자히르 사는 40년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였으나, 1973년 쿠데타로 왕정이 전복되면서 아프간의 현대사는 끊임없는 전쟁과 내전으로 얼룩졌다. 쿠데타에 성공한 무함마드 다우드는 친 소련 정책을 폈다. 그의 독재정치는 극

단적인 좌익 지식인, 군부, 전통적인 종족 지도자들의 반발을 샀다.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로 변모해 가던 아프간은 좌익 정당들 간의 내분으로 정치적 혼란을 거듭, 결국 1979년 12월 소련군의 침공을 당했다. 이때부터 1989년 2월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한 무자히딘(전사들)과 소련군 사이에 피로 얼룩진 전쟁이 9년간 계속되었다.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내전이 계속되어 아프간은 깊은 전쟁의 늪에 빠졌다. 1992년경 파쉬툰족이 주축을 이룬 탈레반 그룹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내전 양상은 급변했다.

탈레반은 자신들의 최종 목표는 엄격한 이슬람법을 적용한 이슬람 정부를 탄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96년 9월 카불을 점령하면서 실질적인 집권 세력이 된 탈레반 정부는 이슬람법을 근간으로 법을 시행하였다. 전혀 통치 경험이 없었던 탈레반 정부는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에 집착, 상식 밖의 정책을 폈다.

일체의 가무와 오락은 물론 이슬람을 주제로 하지 않은 영화, 비디오 상영까지 금지시키고, 투석, 손목 절단, 태형 등 이슬람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내렸다.

미얀마와 함께 세계 마약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아프간, 그 마약 재배의 주범인 탈레반 정권하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 베임을 각오하지 않으면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아프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카불에 '남은 자'를 두셔서 기도, 찬양,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하셨다.

아프간의 남은 자들이 하늘보좌를 움직여 온누리가 아프간을 품고 구체적인 사역을 하게 했다



▲ 목베임을 각오하고 뿌린 씨앗은 아프간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고 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사 10:22).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을 남겨 두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를 행하고(습 2:3),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껌뚝을 담지 않는(습 3:13)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은혜와 연약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다. "아픔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의



▲ 다리어 성경은 남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족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미 5:7~8).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의 가족(창 6:8~22)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과 두 딸(창 19:12~28)이, 바로의 엄명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모세(출 2:1~10)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 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민 14:29~30)이, 아람 시대 때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왕상 19:18)이, 오늘날 신실한 성도(롬 11:5)가,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계 20:15)가 남은 자이다.

오늘 만난 선교사 부부, 프레드 형제 11명 가족들, 카불 내 200여 아프간 크리스천, 그 수는 알 수 없지만 아프간 전역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 이들이 남은 자였다.

"아, 그렇다! 목 베임을 각오한 아프간의 남은 자들이 뿌린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온누리교회가 아프간을 품고 구체적으로 사역하게 했구나! 프레드의 발견을 ECC로 향하게 했구나!"

아프간의 남은 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움트면서 하나님은 온누리 사람들을 이곳으로 달려오게 하셨다. 아프간의 남은 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아프간의 옛 영화를 꿈꾸게 하셨다. 초장의 양 떼 같게 하시며,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셨다.

"내가 정녕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 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 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임"(미 2:12).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사 28:5). 아멘.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온누리 아웃리치팀 “하나님 사랑으로 일본 뒤덮다”



깨끗한 거리, 철저한 준법정신, 현대 첨단 산업을 이끄는 나라... 일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다. 부유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그곳, 일본에서 선교하는 한 분은 이렇게 말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온누리 성도들이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올해 우리교회

에서 96팀이 28국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떠났다. 그 중 4분위 1이 넘는 26팀이 일본을 향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본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깝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꿈의 자리는 땅에서 성인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간 일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일본에 전해졌다.

현지 성도와 삶을 나누다 -한강용산공동체 오사카 아웃리치팀

한강공동체와 용산공동체는 7월 24일(목)부터 27일(주일)까지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선 부부, 나이 지긋한 어른까지 오사카 아웃리치팀은 한 공동체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모습이었다.

땅밭기, 노방전도, 주일예배 봉사 등 다양한 일정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토요일 하루를 차지한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소풍’이었다. 한강용산 공동체 40여명,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 80여명, 모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배에 120여 명이 출석하는데 소풍에 80여 명이 신청한 것을 보면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 소풍에 보인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소풍 참석자들은 부부는 부부끼리, 개인은 개인끼리 16개 그룹으로 나뉘어 유원지를 구경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다. 이 교제는 다음날인 주일 큐티 시간에도 계속 됐다.

이영선 목사는 이번 아웃리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며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한강용산공동체 아웃리치팀이 40대에서 60대 중년이 많다는 데 착안해 그들과 우리교회 성도들이 만나 간증과 삶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영향력을 직접 우리 교회에 전달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이 교제로 아웃리치 때 소외됐던 교회 성도들이 일본에서 신앙을 지키며 힘들었던 삶을 위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대일 지도자 반 강의로 큰 인기였

다. 15주에 걸쳐서 해야 하는 강의를 일본 현지교회 사정에 맞추다보니 이를 간 하루 다섯 시간 씩 해야 했다. 다섯 시간씩 번갈아가며 강의한 송경부 목사와 송대현 전도사는 강의가 끝난 후 다리가 후들거리고 다음날 몸살을 앓을 정도로 탈진했지만 일본 성도들에게는 소중한 기회였다.

“강사님들이 피곤하지만 않았으면 더 듣고 싶었다”는 시미즈상은 “강의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며 “지도자반 강의를 모두 강의하고 가르쳐주시는라고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구석구석 세심함으로 돌본다 -제이디에스(JDS) 우에다 아웃리치팀

우에다 교회를 찾아가는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인 주일에 우에다 교인들을 섬기기 위한 준비 때문에 제이디에스 아웃리치팀은 바빴다. 종이를 오리고 붙이며 주일학교 어린이들 선물 포장하라, 성도에게 김치볶음밥을 대접하려고 오십여 명 분 김치와 고기를 썰라, 성가연습하라 분주했다.

3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여성 10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7월 25일(금)부터 30일(수)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왔다.

오마즈리라는 일본 전통축제가 있던 주간이라 사단의 영적 공격이 거센 탓에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 아마나카 전도사는 “교회가 자리잡은 후 성도가 제일 적게 온 주일”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를 채워준 것이 제이디에스 아웃리치팀이다.

주일 예배 때 씬 공연, 찬양,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등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 어머니의 포근

함으로 아무 말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우에다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분홍색과 흰색 종이를 오려 만든 토끼 모양상자와 연두색과 초록색 종이를 만든 개구리 모양상자에 선물을 담아 줬다. 아이들은 신기한 표정에 눈을 뗐졌다. 선물이 마음에 든 듯 상자를 열었다 닫았다. 친구와 서로 비교해보며 손에서 떼지 않는다.

예배 후, 우에다 교회 교인들은 제이디에스팀이 대접하는 김치볶음밥을 먹으며 한국의 맛과 그들의 섬김을 맛볼 수 있었다. 일본인이 먹기에 좀 맵지 않을까 팀원들은 걱정했지만 교인들은 맛있게 먹었다. 어린 이들은 한 그릇 더 뽕뽕치기도 했다.

또한 제이디에스팀은 식당, 방, 화장실 등 교회 청소를 마무리한 후에야 숙소로 돌아갔다.

이들에게 조수정 선교사가 붙여준 별명이다.

“무엇을 부탁해도 잘 해내는 제이디에스!”

젊음과 패기로 뭉쳤다 -청년대학부 갈림 공동체

아찌온누리교회에 갔을 때 갈림 아웃리치팀은 동경으로 서바이벌 정탐 중이었다. 교회에는 그들을 인솔해왔던 서재범 목사가 남아서 아찌 온누리교회 감철희 목사와 견습선교사들과 ‘목회 전략 회의’를 한창 하고 있었다. 아찌 온누리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 어떤 목회전략으로 나가야 할지 각자안을 내고 토의했다.

서재범 목사는 “성도의 관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비칠지 생각하며 목회를 해야 한다”며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고 자꾸 오고싶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자 감철희 목사가 바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교회 입구와 사무실, 교인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다.

필요하다면 기탄없이 해주는 사람이 담긴 조언,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성을 간직한 사고,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즉시 움직이는 힘을 보여 청년의 특징인 젊음과 패기를 볼 수 있었다.



이 젊음과 패기로 뭉친 갈림 공동체 아찌 온누리치팀은 서재범 목사를 포함한 13명이 7월 23일(화)부터 29일(수)까지 내치 치유 세미나, 김치바자, 교회 안내지 돌리기, 동경 씬과 전도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결어만 있어도 힘이 되는 사람들 -아웃리치팀

동경을 찾았을 때 영어예배 아웃리치팀은 거리 노방전도를 나가 만나지 못했다. 이외에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일본 아웃리치 팀들이 일본에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팀의 특성을 살려 열심히 사역한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이 준비해 간 다양한 사역은 일본 복음화를 위해 소중한 거름이 됐다. 그러나 아웃리치 팀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먼 타국에서 홀로 외롭게 선교하며 영적 전쟁에 지친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다.

아찌 온누리교회 최지형 사모가 갈림 아웃리치팀 계시판에 남긴 글이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제대로 인사를 못 한 것 같네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에 저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주셨어요. ... 목사님을 비롯해 일본 부흥을 위해 땀 흘리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결어 잊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들, 이들이 아찌 온누리치팀이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김창열 성도
(한강 공동체)

“슈와 스바라시이! 슈와 스바라시이!”
(주는 오묘하시다! 주는 오묘하시다!)
일본 오사카 변화가의 난바 역전에, 온누리 성도들의 성가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인들이 놀란 듯 걸음을 멈춥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사마와 아나타오 아이시테 이마스(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노방전도로 씨를 뿌리고

온누리 한강공동체와 용산공동체의 오사카 아웃리치 3박4일(7월 24일~27일)은, 이처럼 노방전도로 막을 올렸습니다. 노래를 마친 성도들은 구역을 나누어 전도지를 돌립니다. 어떤 이는 의아해 하면서도 전도지를 받아갑니다. 어떤 이는 쌀쌀한 표정으로 끝내 전도지를 뿌리칩니다. 쑥스럽고 면구스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방전도는 24~25일 이틀 동안의 '과제'였습니다. 그 사이 열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돌리는 전도지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야말로 노방(길가)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노방전도를 다 마치고 나서는 "나는 심었으니...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겠노라!"라고 했던 사도바울의 말씀(고전 3:6)을 가버늘 마음으로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롬 1:16)는 말 뜻도 알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노방전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웃리치 제3일(26일)과 제4일(27일)은 오사카와 서울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 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26일 성도들은 고베 시립공원에서 합동 소풍을 갔습니다. 일행은 오사카 성도 2~3명, 아웃리치 팀 2~3명씩 그룹별로 점심을 함께 하고, 간증과 기도모임을 했습니다. 그룹별 모임은 처음 한동안 서막한 듯 했으나, 찬송가 몇 장 부르는 사이에 교회 밖에서



▲ 오사카 성에서 한강·용산공동체 오사카 아웃리치팀.

송가도 제가끔 일본말과 한국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위화감은 없었습니다. 예배 분위기는 서울 온누리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기도제목인 나고야 비전교회 개척도 앞당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속에 막을 내린다

예배와 큐티 나누기를 마치고 곧 작별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아웃리치 팀은 오사카 형제자매들을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노래하며 환대에 감사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사카 성도들은 같은 노래로 화답하며 눈물을 펄펄 쏟았습니다. 이쪽도 눈물을 가늘 같이 없습니다. 3박4일의 짧은 만남이 이렇듯 격정어린 작별로 이어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사카 아웃리치는 이런 감동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생각할수록, 한 치 차질도 없었던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 3박4일의 감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슈와 스바라시이! 슈와 스바라시이!”

슈와 스바라시이!

서는 생각 못할 그런 친근감이 감동했습니다. 성도들은 흥취를 잃지 않음과 나누고 중보기도로 서로 격려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실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27일은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아웃리치 팀은 아침 11시 일본말 대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오후 4시 30분에는 한국말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주(7월 20일) 예배 참석자는 각 121명과 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 교회치고는 만만치 않은 교세라 하겠습니다.

예배는 오사카 이영선 목사님이 사회자 겸 통역자로 1인 2역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한

예배가 끝날 무렵 아주 뜻 깊은, 그래서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예이다(23세), 니시무라(30세) 두 형제가 헌신을 결심하여, 신학을 공부하러 한국으로 유학 간다는 발표가 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호명을 따라 단상에 오른 두 헌신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났던(창 12:1~4)을 되새기며 결심을 다짐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두 헌신자는 오사카 온누리가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오사카 온누리는 빠른 시일 안에 현지화와 자립을 달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사카 모든 교우의

일본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심희돈 집사
(용산 공동체)

청명한 날씨, 잘 정돈된 청결한 도시,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우리가 아웃리치를 위해 택한 곳인지, 관광 온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교지와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척박하지도 않으며, 생활수준이 높은 일본 땅. 그렇기에 이곳이 오히려 복음이 스며들기 어려운 영적으로 피폐한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그들보다 열세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지만, 영적 무지 가운데 일본을 놓아두신 것은 가장 가까운 우리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 땅을 향했습니다.

비록 3박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속성으로 익힌 일본어 찬양과 전도회화 몇 마디로 이틀간의 노방전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며, 선교지 사역으로 일체감과 자신감을 얻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오사카 성도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귀엣말(?) 씩씩한 권사님들의 활약은 가히 발군이었으며, 오사카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며 우리 신앙 생활을 이끌어 주시는 장로

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고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인솔하신 송경부 목사님과 송대현 전도사님이 그곳 성도님들을 위해 하루 5시간이 넘게 한 일대일 교육과 주일 설교는 그곳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과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사역하시는 이영선 목사님과 사모님, 주일예배 때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헌신을 서약하는 두 일본 젊은 청년을 만난 것은 또 다른 복이었으며, 우리 아웃리치 팀들의 불평이 없도록 극진한 대접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오사카 온누리교회 간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강공동체와 용산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되어 오사카를 품고 바자회를 시작으로 아웃리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교회와 헌신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한 그곳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중보하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세계를 이끄는 국가의 하나로 많은 내재한 힘을 갖고 있는 이곳 일본땅이 복음화될 때 그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일 것입니다.

회복과 격려의 시간



송대현 전도사
(한강 공동체)

이번 아웃리치는 시작부터 참 특이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영선 목사님께 준비된 아웃리치 일정을 듣는 순간, 마치 이번 아웃리치가 여행같은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영선 목사님도 이런 아웃리치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하셨다. 그런데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정확한 것이로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아웃리치팀들이 와서 일을 하고 사역을 도우며 교회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가지만 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교회 성도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아웃리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생각하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바자에서 얻은 수익금 전달하며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꿈꾸고 있는 나고야 선교지 교회 개척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3박4일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가장 큰 꿈(교회를 세우는)'을 잉태하고 나누어 갖는 복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2003년 여름 캄보디아 의료선교



김관경 (의료선교팀)

7월 16일부터 21일 까지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를 다녀왔다. 내겐 두번째 캄보디아 방문이었다. 나를 비롯해 팀원들 대부분이 적게는 두번, 세번에서 아홉번까지 캄보디아를 지속적으로 품은 사람들이었다. 마치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캄보디아는 점차 국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캄퐁참이라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우린 김준수 선교사님과 고은영사모님, 그리고 4개월 된 딸 그레이스가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베델선교센터에 여장을 풀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고 우릴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첫날 오전엔 쏘다이 마을에 갔다. 그들을 만들어 줄 건물도 없고 그냥 흩바람 날리는 마른 풀밭에 의자와 평상을 깔아다 놓고 진료를 해야했다. 처음있는 일은 아니지만 마음이 가라앉았다. 우리는 다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다. 진료

하면서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과 찬양을 전했다. 한편에서는 머릿니를 없애는 샴푸로 아이들의 머리도 감기고 옷가지와 치솔, 비누 등을 나눠줬다. 한명 한명 불 들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라는 짧은 캄보디아어로 이야기하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뜨거운 햇볕에 장시간 있는 탓인지 결국 한 팀원은 점심에 구토를 해서 쉬어야 했다. 모두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우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약속한 사역지인



▲ 캄보디아 의료선교팀은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며 머릿니를 없애는 대신, 주님의 사랑을 담아주었다.

“캄보디아 - 그 땅에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론놀지역으로 갔다. 이런 팀원들의 모습을 보며 한 팀원은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의사, 간호사, 약사 선생님들과 도우미들이 의료사역을 하는 옆쪽에서는 아이들을 60-70명쯤 모아 놓고 캄보디아 형제, 자매들과 유치원사역을 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 삶 얻는 새생명교회

둘째날 오전에는 나환자촌에 진료를 갔다. 처음엔 겁이 난게 사실이지만 어려움 없이 무사히 사역을 마쳤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새 삶을 얻기를 바란다. 취지에서 이를 지어준 새생명교회. 진심으로 그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새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랐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온누리 파송 견습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였다. 견습선교사로 섬기는 자매님이 우리의 방문으로 새 힘을 얻은 것 같아 기뻐했다.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의료선교에는 앙코르 유적지를 방문했다.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그 위로 나무들이 자라난 유적지를 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최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한 아픔의 역사를 보여주는 킬링필드 박물관에도 갔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끔찍한

역사가 보여지고 있었다. 주일에는 현지 목사님의 설교로 캄보디아사람들과 예배를 드렸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하나님의 미소가 캄보디아에

5박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활쾌고 지나간 땅 캄보디아. 이제 그곳에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말씀하신 회하여 추수할 때가 된 듯했다. 캄보디아에 생명의 기쁜소식이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덮일 날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 하나님의 미소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왜 캄보디아에 갔는가?



현혜원 (캄보디아 의료선교팀)

한번쯤은 해외선교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채 일상을 보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캄보디아라는 땅을 밟게 되었다. 올 2월, 처음 아웃리치를 떠나려고 할 때는 많은 설렘과 기대로 흥분되어 있었다. 여행이나 관광이 아닌 선교가 목적이기에 심적인 부담 또한 컸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출국 전까지 많은 준비와 기도를 한 팀원들이 상호간의 이해 그리고 열정과 협력을 통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

지난 7월, 두 번째 여름 아웃리치 참가를 결정하면서 처음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질문은 다음 아닌 '나는 왜 그 곳으로 가려하는가?' 였다.

아직 스스로의 신앙에서조차 확고한 믿음도 없는 내가 캄보디아라는 곳에 가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 그러나 캄보디아 땅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제 자신의 오만함에서 시작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미약한 저를 캄보디



아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저를 통해 당신을 그 땅에 나타냄을 이루시는 커다란 축복을 주신 것이었다.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다리를 잘라 달라고 하는 환자, 고열에 일주일간이나 시달리는 어린 아기, 손가락마저 붓도록 떨어져나가는 머리마저 매만지기 힘들어하는 할머니 등 차마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주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뜨거운 피약병 아래서 찬양을 하던 어린

친구들의 땀방울만한 모습 속에, 진료 대기 중 캄보디아 현지 장로님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던 캄퐁참 주민들 모습 속에, 그 웅장한 앙코르 문명의 결정체인 앙코르와트에서조차 분명히 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무더위, 이틀모를 수많은 벌레들에 휩싸인 사위장, 열대지방의 뜨거운 햇살 한 점 피할 수 없었던 어렵고 힘든 사역현장이었지만 동반한 어린 두 딸을 포함하여 팀원 어느 누구하나 불평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저마다의 가슴속에 담겨져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01

온누리 라디오

■ 8월의 테마기획 '선교'
열방을 향한 5분기도

아웃리치의 계절 여름, 8월의 테마 기획 '선교'! '열방을 향한 5분기도'에서 선교사들이 말하는 각 나라의 절실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 본다.

아버지의 눈물이 뿌려진 그 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기획된 '열방을 향한 5분기도' 시간에 열방을 품고 기도해 보자.



02

■ 시청자가 만드는 아웃리치 보고서

월드미션넷에서 아웃리치 준비과정부터 아웃리치 현장까지의 감동과 축복을 다시 한번 만나 볼 수 있도록 '시청자가 만드는 아웃리치 보고서' 코너를 만들었다. 아웃리치를 위해 준비하였던 과정과 직접 보고 느낀 현지 소식, 국내를 비롯한 세계 도처에서 만난 성령님의 역사와 그 현장의 감동을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한번 느껴 보자. 사진은 온누리TV의 월드미션넷-아웃리치 갤러리에 직접 올릴 수 있으며 아웃리치 영상은 본인이 직접 편집 완성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면 온누리TV에서 일정기간 볼 수 있다.

* 테입 종류: 디지털 6mm 테입

* 접수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박람회당 201호 경영기획팀 담당자앞

* 문의: 02-796-9800 (#143)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 모임(SAM)**
8월 18일(월) 오후 7:30 온누리교회 선교관(추후안내)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8월 25일(월) 오후 7:00 서빙고 시온홀
주최: 소아시아 공동체
문의: 소아시아 공동체 엘마안탐 (017-278-3376)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00~9:00 서빙고 유아실
문의: 이요셉 (016-346-8460)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벨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P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에젬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젬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일어예배 토요일 어린이예배
운전해 주실 분
8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어예배, 어린이예배 운전으로 봉사해 주실분을 모집합니다.
자격: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30~2:30, 3:30~5:00
연락처: 오카 사오리 (016-733-4511) 맹신자 (019-390-2481)

온누리미션
1. 함께 사역할 파트간사를 구합니다.
2. 네팔예배에서 컴퓨터와 OHP 기계를 구합니다.
3. 한글학교 교사를 구합니다.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황호상 간사(017-290-7856)

교육

☑ **무릎선교기도**
9월 5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 중족기도실(9월5일 개강예배는 시온홀)
등록: 당일등록 / 회비 - 2만원 (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 667)
주관: 여성사역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01

2천선교사 파송

오늘 양재 2부예배(오전 9시)와 서빙고 3부예배(오전 11시 30분)에서 김인경, 허성민, 선순희, 박숙현 선교사 파송식이 있다. 이들은 2기 단기선교사 훈련학교(Turning Point)를 마쳤다.
(관련기사 2면)

02

무릎선교 증보모임

서빙고 여성사역팀은 9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2천명의 선교사를 기도로 섬길 '무릎선교 증보모임 훈련'을 시작한다. 이 훈련은 12주간 진행되며, 문의는 이경애 집사(793-9686 교 667)에게 하면 된다.

03

파송선교사 기도제목



김인경
(일본-TIM)
•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선순희
(미국-YWAM)
•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 항암제를 먹지 않아도 될만큼 주님의 손길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길
• 아버지(선광수, 현 74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성민
(일본-TIM)
•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 헌신과 봉사와 협력의 정신으로 사역하도록
• 언어의 지혜와 문화적응을 위해



박숙현
(영국-경배와 찬양)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 언어의 지혜를 주시도록
•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영혼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에도 몇 번씩 연락을 드리고픈 마음이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앉아서 한 분 한 분에게 제 근황을 알려 드릴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회복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

지난 3월부터 제주도에서 한 중독상담학교 전도 여행은 잘 마쳤습니다. 5월 말에 중독 학교의 책임자인 다브 박사님이 마무리 평가를 하시러 잠시 방문해 학교에 좋은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학생들과 저는 '초급 단계 중독 상담자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중독 상담 학교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중앙아시아

K국에서 중독과 내적 치유를 열어주는 각 교회들에게 약 1 주씩 '중독과 회복 지원그룹에 대한 도구'를 전해줬습니다. 전도여행은 주로 강의로 진행했고 총 6백 명인 현지 사역자와 각 교회 구역장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밀한 중독'이라는 '굴레와 속박'에서 회복과 자유를 원하는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6월 말은 윤주형 부부를 중심으로 한 서울 화요모임 찬양팀 46명과 한국 와이엠(YWAM)에 대표로 새로 부임하신 문희곤 형제님 부부가 함께 알마타에 오셔서 찬양과 예배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200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은 이 예배의 물결이 K국에 이어 이웃나라 B시로 넘어가 첫 번째 예배 세미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앙아시아에 예배의 물결기가 흘러가듯이 말입니다.

독립 사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상담팀이 지난 4월 28일 국제 카작 와이엠에서 독립된 사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팀이 독립하는 날 지체들과 주변 분들에게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상담팀이라 매우 감사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 팀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은 지난 97년부터 4년간 이 땅을 신실하게 섬겨 준 스위스 로잔상담학교 S, K, L 자매의 사랑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교회 사역자님들에게 '기독교 상담의 내적 치유사역'을 협력해 드리므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강건한 공동체가 되도록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 센터를 마을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채 중독과 학대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역을 하려면 기동력인 차와 팀이 머무 수 있는 집과 사무용품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 조사와 팀 안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상담 팀은 단합하고 기대를 나누며 기도 가운데 하나씩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시 외곽 K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찾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월과 9월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A시에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아셈(파송 - 중앙아시아 K국 - YWAM)

제 3기 장기 선교사 훈련학교

“종의 리더십, 몸으로 배웁니다”

주책이 웅기종기 붙어있는 서빙고동, 이곳 독거노인 댁에 도배공사가 한창이다. 곰팡이가 핀 벽지를 걷어내고 그 부분을 깨끗이 쓸어낸 후 방수지를 바르고 그 위에 초배지와 벽지를 덧바른다.

“뚝바로 붙여, 이쪽이 뜨겁아, 빗자루로 잘 쓸어봐”

두 명이 풀칠한 초배지 양 끝을 잡아 천장에 대고 한 명은 들른 곳이 없이 잘 붙도록 빗자루로 쓸어내린다. 도배하는 숨 쉴까 약간은 어설퍼 보이는 이들은 온누리 선교센터 장기선교사 훈련생들이다.

강의실 밖 섬김의 현장으로

선교사 훈련생들은 훈련 둘째 주 과정

인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맞춰 8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한남동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섬겼다. 카리스마로 남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섬기며 헌신적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써주신다는 서번트 리더십을 이론이 아닌 몸으로 익히기 위해 현장에 뛰어든 것이다. 노동으로 섬김 훈련을 하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다.

제 3기 장기선교사 훈련생 20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남동 복지관에서 식당봉사, 물리치료봉사, 치매노인 돌보기, 미용봉사 등을 했다.

“하지 않던 일이라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긴 하죠.”

피약벌이래서 두 시간동안 반찬통 설

거지를 하고 난 다음날, 병원 신세를 저야한 자매도 있었다. 그러나 훈련생들은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섬김의 기쁨을 깨달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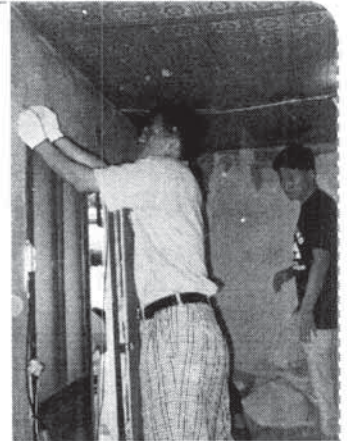
몸은 지쳐도 마음엔 기쁨 가득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단지 봉사에 그치지 않는다. 물리치료실에서 사이클을 하는 할머니 곁에 앉아,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어주며 그들은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된다.

단기 선교사로 중국에 다녀온 후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훈련학교에 들어왔다는 서문휴상 훈련생은 “어르신들을 대하기 좀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함께 대화하는 것도 재밌고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을 만지고 변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즐겁다”고 말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머리를 쓰는 일을 했는데 이곳에서 단순노동을 하며 노동의 기쁨을 알게 됐다”며 웃었다.

8월 4일 시작한 장기선교사 훈련은 앞으로 성경, 관계훈련, 전도, 리서치 등 5개월 간 합숙훈련을 마치고 12월 20일 수료식을 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Why Missions? (평신도 선교훈련) 4기 모집

- 일시: 2003년 9월 27일~12월 20일 (매주 토요일 12주간)
- 장소: 온누리교회(양재 성전 두란노홀)
- 내용: 선교의 성경적·역사적·문화적·전략적 관점 학습, 선교기관 소개, 선교사 간증, 선교사와 만남, 조별 나눔, 선교사 모지 방문 등
- 등록비: 3만원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owmc@onnuri.or.kr, TEL: 031-336-6350~2)

2003
Out Reach
이라크

“바벨론이여, 너는 거룩한 성읍이 되라”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김사무엘 목사를 비롯한 16명은 이라크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전쟁의 상처와 아픔에 처한 이라크 민족을 위로하고, 앞으로 사역을 위한 현장 조사를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웃리치팀은 모술팀, 바스라팀 등 4개 팀으로 나누어 이라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주요일정

7월 22일 오후 9시경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 미군 탈퇴 공군 베이스내 서회 부대에 도착했다. 다음 날 오전 나시리아 지역을 탐방하고 바그다드로 출발해 저녁에 도착했다.

25일 오전 바그다드 왓시리아 복음주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후 담임목사나쉬완(Nashwan) 목사 부부를 만났다. 저녁에는 바그다드 최대 모스크 카드미야에 가서 땅밭기기도를 했다.

26일 새벽, 모술팀(부천 온누리교회)이 북부로 출발했다. 바그다드 잔류인원들은 현지 시장을 탐방했다. 저녁에는 사랑의 오아시스 선교사와 대화했다.

28일 모술팀은 오전에 슬레이마니아를 탐방하고 오후에 바그다드로 이동했다. 바스라팀은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다.

31일 오전 장애인 협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나시리아 주재 외국 NGO(IMAC, GOAL) 실무자를 만났다. 저녁 현지인 Haider 형제 가정을 방문했다.

8월 1일 오후 쿠웨이트 현지를 탐방하고 저녁에 쿠웨이트에서 출발했다.

이라크 현지 상황

현재 이라크 내 미국의 점령이 깊어지면서 이라크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군은 사담후세인을 찾으면 미군에 협조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으로 믿고 사람을 찾는 작전을 수행중이다. 하지만 작전 중 이라크인들과 충돌해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라크 중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일지리가 없고, 고용된 사람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 바트당 잔류 세력들은 사담시절 비축했던 재정으로 사람들을 사들여 그들이 연합군에 반격을 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관련 건물들은 파손되었지만 나머지 일반건물들은 파손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제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긴급구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현지 사역자들의 의견이다.

의료, 보건, 교육 등 사회전반 기초 시스템은 무정부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어져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원유생산은 시작해 매일 수백억 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정치만 안정되면 3

년 안에 국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산유국의 지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 달 내에 바그다드에 공함이 개설되어 바그다드-모술-바스라 국내선이 연결될 예정이다.



▲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 길대아 우르. 바람이 부는 사막에서 팀원들은 이라크의 부흥을 기도했다.

현지 교회 상황

사담 후세인 시절 정부가 공인한 복음주의 교회는 바그다드 2개, 북부 모술 1개, 쿠르드 지역 키르쿠크 1개, 바스라 1개 등 총 5개였다. 이외에도 17개 기독교관련 정파들이 교회를 갖고 있는 상태다.

그리스도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3~5%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출생으로 그리스도인이 증거하는 비율이 회심으로 증가하는 수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현재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전파에 대한 법적 제재가 사라지고 모슬렘들은 기독교 신앙에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어가 교회들의 교회개척 열기와 복음전파 열정이 어느 때 보다 강하다. 바그다드에 신학교 건립을 추진중이고 외국 교회들이 앞다투어 자기 교단 소속 교회를 건립하려고 투자

와 인원파견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핍박을 피해서 외국에 피신했던 기독교인들도 귀향하고 있다.

북부 쿠르드족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도 쿠르드인 신자들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교회들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유지되길 기도하고 있다.

이라크 아웃리치 팀

김사무엘 목사, 신기섭 전도사, 요시하라 마 나부 전도사
김영숙, 정진희, 김태완, 김선군, 조현경, 이재석, 김민정, 박영혜, 이흥우, 백정석, 홍의택, 양재광, 이창호



이재석 형제

이번 아웃리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라크 아웃리치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영혜자매의 비자가 나오지 않아 팀원 모두가 애매우 있을 때에는 시편121편의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셨음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였다.

임마누엘 하나님 신뢰하게 돼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 기간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 중에서 이번 아웃리치에

서 알게 된 점을 정리해보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번 이라크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한지붕 네 가족’이 과연 온전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을지 의심도 했고, 전쟁 상황속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염려도 했었지만, 두 가지 모두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둘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안위해 주시도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 분은 우리가 나시리아, 바그다드, 모술, 키르쿠크, 바스라에 머무르는 동안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가족들을 지켜주셨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나시리아에서 컨테이너가 제 날짜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그다드의 일정도 엉망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일정이 바뀌어 복음주의 교회를 만나게 된 일, 숙소가 머물면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된 일 등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히려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라크를 덮은 사랑

넷째, 하나님은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처음에 우리는 과연 이라크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심했다. 비밀경찰하에 혹독한 종교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이라크에 교회적 믿음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비롯기라도 하듯 이라크에는 다섯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게다가 매우 복음주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해서 또 한 번 놀랐다.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어두운 암흑기

에도 그분은 소리없이 때를 기다리셨고, 당신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이번 이라크 아웃리치에서 깊이 깨달았다.

다섯째, 하나님은 내 생각의 깊이를 더해 주셨다. 이라크에 가기전에는 모슬렘들에게 오해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내가 경험해본 모슬렘들은 마음이 많이 열려있었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이번 아웃리치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일 것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성취하는 아웃리치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시는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한 멋진 아웃리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라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이라크 교회 건축 위한 바자, 현지 교회 8천4백불 전달

“초콜릿으로 이라크에 교회를 세우세요”
지난 7월 6일과 13일 서빙고와 양재 성전에서 이라크 교회를 돕기 위해 펼친 바자성금이 김사무엘 목사를 통해 이라크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라크인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 일의 시작은 에셀선교회 이사인 한 선교사가 지난 5월 전쟁 직후인 이라크에 다녀와서 한 상황보고에서였다. 이라크 현지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라크 땅을 흔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돌아온 선교사는 부정부상태인 지금이 복음을 전달하기 적합한 시기라는 말을 전하며 에셀인에게 도전을 줬다.

하나님께서 이라크 땅을 어떻게 만지고 역사하시는지를 듣고 도전을 받은 에셀인들은 이라크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했고 ‘후세인 정권하에서 핍박받던 지하교회를 지상으로 올려세워 등록교회로 만들자’는 비전을 에셀기도방에 함께 나눴다.

이라크에 교회를 짓는 데는 4천5백만 원 정도가 든다. 에셀인들이 계속 이라크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았지만 액수가 부족했다. 그때 에셀(두란노)강의를 들은 한 타교회 사모가 자기 교회에서 초콜릿 바자를 했었다며 저렴한 가격에 초콜릿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줬다. 에셀 선교회는 7월 6일 양재, 13일 서빙고와 양재성전에서 이라크 교회설립을 위한 초콜릿바자를 열었다(아래 사진). 성도들은 이 비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었다. 에셀선교회는 그동안 모은 헌금과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초콜릿 바자 판매이익금을 이라크 아웃리치팀 김사무엘 목사와 에셀 선교회 선교사에게 전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교회의 탄생

김사무엘 목사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들어



▲ 에셀선교회는 초콜릿 바자판매대금을 이라크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현지인 목사에게 전달했다.

가자마자 헌금을 전달할 교회를 물색했다. 이라크 전체에 교회가 5개가 있고 그 중 2개가 바그다드에 있다. 이라크인의 도움을 받아 새로 개척한 바그다드에 세 번째로 생긴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로 향했다. 김 목사가 찾아간 때 담임 목사가 없어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호텔 연락처를 적어놓고 돌아왔다.

저녁에 호텔로 이라크인 목사가 찾아왔다. 그 사람은 레바논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90년 바그다드에 돌아 왔는데 후세

인시대라 종교탄압이 심해 유치원을 경영하며 10여 년간 비밀히 지하교회인 가정교회 셀모임으로 성경공부모임을 이끌어왔다고 한다. 이제 자유가 선포되고 교회를 할 수 있어 장소를 마련해 볼까 나올 전인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린 것이다. 첫 예배 때 3백명이 상이 몰려왔다.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랍 국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 김사무엘 목사

목사는 “교인들이 무척 갈급해한다. 교인들이 들어갈 장소가 없으니 앞으로 제 2, 제 3의 교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 일교는 나뭇에 없는데 아탄났다. 김 목사님이 가지 말고 있어 달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에셀선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이 이 목사에게 전해주라고 준비된 것이라는 확신이 왔다. 김 목사는 헌금을 꺼내 “목사님, 이 헌금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름도 모르는 이라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 모은 헌금입니다.”라고 말하고 이라크 목사에게 전했다.

그 자리에서 두 목사는 전쟁의 포화 속에 교회를 이루려고 고군분투하는 주님의 종을 위로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그 먼 나라 한국에서



▲ 그동안 외부와 단절되었던 이라크 북동부의 쿠르소족 거주 지역인 술레이마니아 지역.

이라크까지 헌금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때문에 두 종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아랍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교기지

헌금전달 후 김 목사는 요르단 암만으로 갔다. 이곳에서 이라크계 수단, 이집트, 시리

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줄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번에 가서 두 가지 기도제목이 생겼다. 첫째, 한인교회 개척이다.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모임인 중동실업인연합회에서 바그다드에 한인교회를 개척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한인들이 중동에 많이 진출해있는데 이들 크리스천들이 예배 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제목은 한인 교회가 설립되면 이곳을 센터로 하는 아랍인 목회자 훈련원을 세우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다. 지금 이라크는 열려있다. 바그다드에서 제일

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에서 온 아랍계 목사들에게 교회성장세미나를 인도했다. 김 목사는 이들에게 일대일과 큐티를 영어로 소개했다. 세미나가 끝나자 아랍계 목사들은 자기 교회 주소를 적어주며 ‘우리는 한국교회처럼 성장하고 싶다. 평신도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 다음엔 무엇을 배워야하는가?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니 가을에 또 세미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목사가 경험한 아랍 국가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해있었다.

“아랍인들에게 모슬렘이니 이슬람국가니 공격할 필요 없이 기독교 교회가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공급해야 합니다. 아랍 국가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에 찌든 사람이기에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김사무엘 목사는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기 전 미군정하인 지금이 그들에게 이런 하나

오래된 교회에서 이 건물에 한인교회가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를 하라고 한다. 교회 건물이 준비되었고 중동실업인연합회에서 설립에 필요한 재정을 뒷받침해주기로 했다.

김 목사는 이 교회가 생기면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20여 국 3억 아랍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래서 아랍 20여 국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목회자 세미나, 사이닝 글로리, 일대일, 큐티 등 온누리가 가진 노하우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각자 자기 나라로 들어가 지역 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바그다드에 목회자 훈련원을 세웠으면 하는 비전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Acts 29’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목사는 말한다. “지금 이라크만이 대상이 아닌 아랍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교기지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교인들 모두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2003
Out Reach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를 깨우는 모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한복음 4:23~24)

이 말씀이 방글라데시를 뒀고 있다. 일산공동체 12명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와 치타공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예배자를 찾고 계셨다.

벵골의 나라를 밟다

방글라데시는 면적 14만 7570km²(남한의 1.5배)에 인구는 1억 3127만명(2001년)인 나라다. 인구밀도가 889.5명/km²(2001년)으로 남한의 2배다. 정식명칭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이다.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국에서 독립한 후로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의 동(東)파키스탄주(州)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하였다.

이 ‘벵골의 나라’ (방글라데시는 ‘벵골의 나라’ 라는 뜻에 도착한 우리들을 제일 처음 맞이한 것은 무더위였다.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우기인데, 전 국토의 2/5가 침수(浸水)되고 이 기간 동안 연간 총강우량의 75%의 비가 내린다. 건기는 11월~2월까지만이다. 건기가 끝날 무렵에는 사이클론(벵골만 태풍)이 종종 내습한다. 1991년 4월 내습한 사이클론으로 13만 8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다고 했다.

더위에 눌렸는지 다카 시내의 사람과 차가 뒤섞여 북새통이었다. 우리 팀을 태운 차는 그 속을 질주해 왔다. 박영환 선교사의 인도로 방글라데시 성서교회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하자 모두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다. 벵골의 나라에서의 첫 인상은 그처럼 강하게 팀원들에게 새겨졌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박영환 선교사는 방글라데시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방글라데시에는 한국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 선교사라는 말은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저는 송이 아빠라고 불러주세요. 이 나라의 87%가 모슬렘입니다. 힌두교가 12%고, 기독교는 0.2%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이 땅을 밟은 지 2백년이 지난 지금, 0.2%라는 수치가 너무 적게 보여 안타까웠다.

일산공동체는 첫날부터 ‘다카 AG교회 (Dhaka A.G. Church)’의 목요청년예배에 참석했다. 3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벵갈어로 쓰여진 찬양이 OHP로 나오고, 드림과



▶▶ 모슬렘 개종자들의 예배는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 개종 후 가족에게 꽃겨냥 이들은 교회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피아노를 이용해 뜨겁게 찬양을 했다. 우리 팀원들은 놀랐다. 모슬렘 국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부를 수 있다니! 이들이 모두 모슬렘에서 개종한 청년들이라니!

놀람은 계속되었다. 모슬렘 공식 휴일인 금요일 오전, 모슬렘을 위한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 예배에도 30명 가량 모였다. 이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2~3명이 모여 서로를 중보했다. 담임목사인 아사 케인 목사(Asa M. Kain)는 한국에서 온 우리 팀을 축복하며 우리 팀과 한국을 중보하자고 했다. 이 곳에 와서 우리가 뭔가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셨다.

모슬렘 예배 후 드린 영어예배는 ‘온누리 예배’ 였다. 방글라데시인을 비롯해 미국, 영국, 홍콩, 일본, 한국 등 세계 각지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치타공 ‘베들레헴 교회’ (Bethlehem Church)에서 드린 주일 예배에도 모슬렘인 20여명이 모여 함께 예배했

다. 찬양과 경배, 말씀과 기도는 모든 믿는 자의 공용이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누비시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셨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 57:5)

선교사의 눈물에 미래가 있었다

한달에 한번 ‘2천기도모임’이 열린다. 박영환 선교사를 포함해 2000년에 방글라데시로 파송받은 선교사네 가정이 모인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늘 기다려져요. 한국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가요. 우리 모두 파송받은 단체는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OO목사와 이OO목사가 출장 중인 관계로 이날(8월 1일)에는 박영환 선교사 가정과 김OO선교사 가정만 참석했다.

김선교사가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996년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 방글라데시에 와서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자옥한 안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저는 차마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4년간 준비를 하고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김선교사가 말을 잊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울먹였다. 김선교사 부부가 함께 울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눈물에 배어 있었다. 현재 신학교를 세워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선교사가 있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을까.

이러 최근 신장결석 수술을 받은 박영환 선교사를 모두 뜨겁게 기도했다. “새벽기도회를 통해 많은 힘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 교회에서 방글라데시 첫 번째 부부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월 6일 X레이를 찍어 남아있는 결석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결석이 다 깨어져 깨끗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게 해주

십시오.”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선교사와 성도들의 눈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8월 6일 검사결과 박영환 선교사의 신장은 결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아웃리치

일산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다섯 번 이상 준비모임을 했다. 7월 26일과 27일에는 1박 2일로 수련회도 했다. 워십과 태권무를 준비하고, 간단한 방글라데시 언어를 익혔다. 선교사님 자녀를 위한 선물과 헌금을 준비했다. 주변에서 아웃리치를 위해 옷, 신발, 학용품 등을 헌물해 20kg짜리 선물 보따리가 10개를 넘었다. 그렇게 아웃리치가 준비되고 있었다.

이 즈음 방글라데시 현지 교회 교역자들은 우리 팀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맛을 준비를 했다.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 이곳에서의 일정, 그리고 숙소 등을 제공했다. 우리 팀이 도착했을 때 현지교회는 우리를 성대하게 맞아주었다. 바쁜 일정에도 교회의 비전을 나누어 주었고, 방글라데시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유재천 장로가 운영하는 ‘유진 LED’는 아웃리치팀 숙소가 되었고, 베들레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태권무로 복음을 전하는 무대가 되었다. 박영환 선교사가 벵갈어를 유창하게 하게 하셔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셨다.

팀원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다. 일산공동체 아웃리치팀 12명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게 하셨다. 사영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전했다. 십자가와 죄사함을 위해 가슴으로 기도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밤이 늦도록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도했다. 그리고 서로를 ‘선교사’라고 부르며 비전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알 수 없던 섭리를 하나씩 발견하며 말을 잃었다. 하나님은 현지 교회와 한국 은누리교회 일산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셨다. 이 사랑은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기도모임으로 이어질 것이다. 팀원들은 앞으로 방글라데시를 향해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한다.

“잇솔(알라) 몽골모이 띠니아 맛데 몽골모이”(좋은 하나님 참 좋은 나의 하나님)아멘.

/서철 chol@onnuri.or.kr

렘 개종 성도의 기도”



■ 일산공동체 이웃리치팀, '벵골의 나라' 를 밟다 ■

“모슬렘을 찾으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일산공동체의 중요한 전환점 될 것



김홍주 목사/김연화 사모

김홍주: 방글라데시는 모슬렘 국가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다락방별로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방글라데시와 박영환, 박무열 선교사님과 많은 현지 리더님들을 기도하겠습니다.

김연화: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르는 영혼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성령의 비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찬양



유병설 팀장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슬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지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동체가 더욱 기도하고 후원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벵갈족 구원위해 기도하리라 다짐



권일성

방글라데시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벵갈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현지 선교사의 애로점과 선교사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벵갈족의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리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잊지 못해



박두원

첫 이웃리치였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열악한 환경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웃리치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구세주임을 알릴 방법 찾아야



송병준/김채희

송병준: 팀원들이 더욱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모슬렘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분명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채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원 사이에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도 감사합니다. 평가회 때 팀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평소 애가 아픈 일이 많아 걱정했는데, 현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웃리치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이경수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웃리치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맞이 하려고 한 달 정도 금식기도를 했다는 이곳 현지 교회에 감사드리고 노전기 집사님 가족의 활동(태권무)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웃리치를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감동... 눈물이 많아진 것 같다



노전기/노현준/노현우

노전기: 두 아들과 함께 왔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웃리치가 앞으로의 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준·현우: 연습할 때보다 많이 틀린 것 같아 아쉬워요. 태권무를 조금 더 잘 준비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모든 온누리 성도는 선교지로 나아가



정승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되어야만 끝이 올 것이라는 말씀에 조금이나마 동참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부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온누리 모든 교인이 선교지로 나와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8월 18일(월) 오후 7:30 온누리교회 선교관
 문의: 윤정현 자매(018-225-9018)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8월 25일(월) 오후 7:00 서빙고 시온홀
 문의: 소아시아 공동체 열매안팀
 (017-278-3376)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00~ 9:00 서빙고
 유아실
 문의: 이요셉 (016-346-8460)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 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벨엠피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에zell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일어예배 토요일 어린이예배
 운전해 주실 분**
 8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어
 예배, 어린이예배 운전으로 봉사해 주실분을
 모집합니다.
 자격: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30~2:30, 3:30~
 5:00
 연락처: 오카 사오리 (016-733-4511)
 맹신자 (019-390-2481)

온누리미션
 1. 함께 사역할 파트간사를 구합니다.
 2. 네팔예배에서 컴퓨터와 OHP 기계를 구합
 니다.
 3. 한글학교 교사를 구합니다.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황호상 간사(017-290-7856)

무릎선교기도
 9월 5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 종족기도실(9월5일 개강예배
 후 시온홀)
 등록: 당일등록 / 회비 - 2만원 (신사,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 667)

안식년선교사 숙소, 차량, 핸드폰 구함
 안식년 선교사에게 1년 정도 '숙소를 제공하
 시 분과 차량 및 중고 핸드폰을 대여해주실분
 을 찾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 박희창 간사(794-1063)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

01

삿뽀로 성도 간증

오늘 오후 3시 서빙고 소회 의실에서 일본 삿뽀로 니시교회 성도 간증이 있다. 니시교회는 9년 전부터 우리 교회와 협력해 서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오늘 모임에서 니시교회 성도들은 일본에 교회 네 곳을 개척한 이야기 등을 간증한다. 또한 주수일 장로가 일본에서 가정사역을 하며 느낀 점과 박영기 목사(삿뽀로 성서교회)가 어떻게 일본교회와 협력하며 사역해야 하는지를 소개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부천 일만사역자 파송



그동안 부천은누리비전교회를 섬기던 임진혁, 조홍화 가족이 일만사역자로 8월 24일에 C국으로 파송된다. 임진혁, 조홍화 가족은 카운슬링센터를 세우는 계획도 갖고 있다.

기도제목

1. C국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 사랑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길.
2. 준비된 현지동역자와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3. C지역에 계획중인 학교사역(선교 베이스)에 동역자와 재정을 준비하여 주시도록.
4. 가족 모두의 건강(특히, 12월에 출산예정인 둘째를 위해)

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어둠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기도모임 식구들에게

7월18일에 다시 교단총회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8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 거리를 두말 없이 와서 회의에 참석해 준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며 떠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피부색은 달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임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공중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종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종교청이 승인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금씩 진척되는 선교사역

선교 사역은 조금씩 진척이 있습니다. 3월에 있었던 시카고남부감리교회의 의료선교와 6월에 있었던 미국 산호세 새누리선교교회의 단기 선교활동은 주민들에게 저희 교회를 알리고 교회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집집을 방문하면 저희 교회에 와겠다고 하고 반가워하며 주일에 꼭 교회에 가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주일이 되면 나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굴레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곳 주민들의 삶은 무질서와 무도덕, 자기중심주의, 금전제일주의로 푹푹 묻혀있어 선한 미덕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타성에 젖은 삶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 그들이 자라서 교회의 일군이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 루이스와 후안 라파엘이 열심히 성경공부에 참석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물질적인데 집중되어 있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둘이 열심인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지 모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후안 라파엘이 발 뒤꿈치 뼈가 아래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살을 파고 들어 몹시 아파하며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뼈를 깎아내도 다시 자라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아픈 발을 치료해 주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달에서는 고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부모형제 자매와 여러분들을 뵈고 회포를 풀고, 또한 필요한 자료들을 모



▲ 의료선교와 단기선교로 주민들이 부에블라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됐다.

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리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03. 7. 26 멕시코 부에블라에서
박성근 김인옥 은서 지훈 올림

기도제목

1. 종교청이 교단총회에서 한 결정(에우헤니오 목사님이 교단대표이며 이 성전의 관리자임과 저를 포함 3명의 새로운 목사들이 이 교단에 편입을 허용)을 승인하도록
2. 은서의 대학 등록금과 노트북(은서의 노트북을 본 선교사가 사용하고 새 노트북을 사도록 할 예정임)이 기간 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2003
Out Reach
몽골



“몽골 초원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다”

7월 21일 3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울란바타르에 내려 다시 50분 가량 떨어진 가초르 트라는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다. 선교관은 몽골 아웃리치를 떠나는 길에 숨진 한국의 꽃다운 나이의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한 사람의 죽음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다.

몽골 변화에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수련회 프로그램은 주제강의, QT의 의의와 적용, 중보기도의 이론과 연습 등의 강의와 침례식, 성찬식, 찬양과 기도회, 그리고 참여와 교제 등으로 이루어졌다.

개회 예배에서 전병택 목사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회장 인근 강에서 예배, 간증, 침례 순으로 진행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은 본인과 우리 모두의 죄사함과 구원의 의미를 감동적으로 심어주었다. 또 유월절 의식을 재현하며 양을 잡는 것을 보았다. 성경 말씀대로 잠잠히 작은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 마음이 평해왔다.

셋째 날에는 찬양과 기도회 시간 중에 정전이 되어 집회장이 한참동안 깜깜해졌다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는 순간 불이 들어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몽골지체들과 아웃리치 팀원들의 뜨거운 찬양과 워십 댄스으

몽골 해외선교아웃리치를 가기로 작정한 후 제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쫓겨를 괴롭게 왔던 허리통증이 도져 선교봉사를 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조금만 무리하는 날이면 허리가 아파 다음 2~3일은 힘들었던 기억들이 생생해 주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아웃리치에 다녀와서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받아들이는 몽골

혹시 예배와 말씀에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까 우려했었는데 몽골인들이 순수하고

침례식과 성찬식의 감동

침례식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1년에 한번 침례식을 한다고 하는데 총 15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의식으로 주님의 죄 사함과 구원의 의미를 생생하게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침례식 후 양을 잡아 고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박관태 선교사님께서 양은 지독한 근시라 살아생전 땅만보고 살다가 죽는 순간 하늘을 한번 본다고 하셨는데 땅만 보고 사는 제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 괜시 눈물이 났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성찬식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몽골 초원 적시는 성령의 단비

박현주 집사(구로 7순)

말씀에 몽골인들은 순수하고 뜨겁게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들은 무척 놀랐다. 유목민의 기질이 강한 그들과 함께한 저녁 부흥 집회는 말씀과 기도, 찬양가 어우러져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느꼈다.

몽골 형제자매들은 중보기도 특강과 QT 강의로 강하게 말씀을 받아들여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귀한 영혼들임을 깨달았다. 선택적 강의에 마련된 요리, 태권도, 풍선 아트, 종이 접기에도 많은 흥미를 보였다. 수련회를 하면서 참가자 모두 성령에 의한 회복과 변화로 몽골의 복음화, 선교를 향한 비전과 열정을 품게 하였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이르 교회 성도 15명의 침례식을 수련

로 참석자 모두의 마음을 녹이셨다. 몽골 땅과 이웃나라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가 되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심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참 평안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몽골 아웃리치는 협력해 온전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안 귀한 시간이었다. 지구 곳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먼저 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

아웃리치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국내에서 중보기도로 도우신 공동체의 모든 분들, 온노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몽골의 평원에서 늘 조금하고 목마른 내게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보람찬 별생(좋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뿐이다.



놀라움, 감동, 감사 가득한 아웃리치

박동우(영등포 1순)

뜨겁게 말씀을 받아들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 저녁 부흥 집회에서 말씀과 기도, 그들의 찬양과 울동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봉역을 담당하신 몽골인 오유나 자매와 매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사이에는 영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박한 일정에도 몽골 형제, 자매들은 지치지 않고 예배 할뿐 아니라 중보기도 특강과 QT강의에도 뜨겁게 말씀에 몰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며 장차 이들을 사용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짐작케 하였습니다. 미니 체육대회도 웃음과 기쁨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마치고 성경퀴즈대회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잘 문제를 맞추어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나눔에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의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은혜와 감사로 이어진 아웃리치

주님께서 4박 5일간의 아웃리치를 세세히 준비하시고 이끄시며 당신의 영광 중에 마무리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몽골의 소중한 지체들과 헌신적인 선교사들, 그리고 아웃리치 팀원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아웃리치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큰 은혜와 기쁨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울러 아웃리치를 함께 동참하시고 중보기도로 계속 도우신 공동체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Out Reach
필리핀

민나오에서 드리는 편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선교팀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4박 5일동안 필리핀 민나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의료팀, 이마용팀, 주일학교사역팀, 중보기도동 등 38명이 참여해 민나오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민나오 땅을 사로잡고 있던 불신과 반목의 영을 비롯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갔으며, 의료팀의 의료사역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낫고 불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마용팀은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신속하게 가장 아름다운 머리를 만드는 재창조사역을 연중했으며, 주일학교 사역팀의 헌신과 선교사들 뽑치는 언어구사력으로 이곳의 1천여 선교 꿈나무들에게 선교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중보기도 팀의 사역을 통하여 차도르를 둘러싼 마라나오 무슬림종족 여인들과 순진한 따가울로 산족 마을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민나오 개혁신학교 학생들은 통역과 자원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님을 닮은 화생정신과 봉사정신을 배우게 되었고 국경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였으며,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도도 교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확장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단기 사역은 짧은 감이 있었지만 결코 짧지 않은 총체적 사역을 폭넓게 감당하므로 사역을 극대화 할 수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달려오셨음에도 개인과 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랠트 들을 심분 발휘해 가장 힘든 여건 속에서 영적으로도 어려운 무슬림 마을(이슬람 베르데)에서의 사역을 철인같이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결단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뿌려주신 복음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가운데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번 왔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팀별로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신다는 소식을 안타깝게 팀장님을 통해 들으니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을 다 아시고 기뻐 받으셨습니다. 저들의 지속적인 인도와 교제 및 훈련을 통해 준비하시어(드라마팀, 복음전도팀, 간증자팀의 보안) 민나오의 10개의 초등, 고등학교와 10개의 무슬림 및 산족마을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이번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찬양과 기도를 드림

때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 마음에 넘치는 긍휼의 마음을 부여 주셨고, 저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줄 모르게 하였고, 제 귀는 탄식하는 영혼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손과 발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지체들을 섬기는데 더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의료선교원들을 성숙한 지체들로 훈련하였으며 물심양면으로 기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하용조 목사님과 은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시간과 재물, 몸과 마음을 드려 희생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시는 안태환 팀장님을 비롯한 38명 전 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민나오 땅을 사랑하셔서 의료선교사역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상영규, 조미순, 효찬, 은송 드림



정현영 (교과, 어린이사역, 통역)

다바오의 첫 인상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바오에 도착해서 내가 드린 첫기도였다. 필리핀 항공이 불안해서 타고 있는 내내 '무사히 도착하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만 주문처럼 외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습한 여름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처음 와보는 나라에 대한 설렘과 호기심, 더위에 대한 걱정, 과연 잘 온 것일까 하는 의구심, 내가 필리핀 의료 선교를 시작하며 처음 갖는 느낌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첫 사역지로 떠났다. 행여나 원래 까만 피부가 더 타지나 않을까 하면서 썬 크림을 잔뜩 바르고 나온 나는 어떤 아이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알릴까 하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바자오 부족을 만나

그날 우리가 방문한 바자오 부족은 수상 가족에서 생활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씻기는거녕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은 우리를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허술해 보이지만 제법 튼튼하게 지어진 집들 사이에 있는 작은 강당에서(원래는 이슬람 교회라고 한다) 의료진들이 병원 태세를 갖추고, 어린이 사역 팀은 사역을 위한 장소를 찾아 나섰다.

운동장에서 사역을 하려고 들었기 때문

함께 뛰며 찬양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다. 열심히 울동하며 아이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언니들과,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모여든 아이들이 신나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을 벅치게 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참 잘 따라주었고,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잘 집중 해주었다.

“아이들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에 더위와 제한 없는 공간에 의한 무질서한 사역이 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장소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곳은 5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지만, 실내인데다 의자와 칠판까지 있어서 생각도 못했던, 사역하기에 완벽한 공간이었다.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하는 내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걱정할 걸 걱정하지아 임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한 뒤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체험해

영접 기도를 할 때엔 모두 눈을 감고 기도를 따라 하도록 했는데, 통역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서 애를 먹었다. 아이들 한명 한명을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되었다. 그크고 예쁜 두 눈을 감고 작은 두 손을 모아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기도를 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풍선을 불어야 하는데 또 눈물이 나오는 바람에 나는 한번 더 애를 먹었다.

그 후에도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은 늘 예비된 장소, 아름다운 아이들, 감동적인 시간들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고, 나는 때면 통역하다 울고, 풍선 만들다 울고, 기도해 주다 울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했다.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기도를 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내가 축복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다.

학교 숙제로 써야 하는 글은 한 장을 채우기가 벅찬데, 이번 선교를 다녀온 내 마음을 표현하지만 책이라도 써낼 수 있겠다. 사실 고3이 되어 공부한답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지만, 이번 필리핀 의료선교를 통해 나는 여태껏 그 어느 일주일에 공부한 양보다, 아니 18년 동안 배운 모든 것보다도 더 많고 값진 것들을 배웠다. 세상에 어떤 고3이 여름방학에 해외로 의료선교를 다니느냐며 걱정 받 놀림반으로 웃는 친구들을 보며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건지 알겠나?' 하며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주님의 비전과 사랑 확인한 시간

여름캠프와 해외 아웃리치로 선교의 새힘 얻어



김현실 목사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 님을 찬양했습니다. 설레임을 안고 흠여 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전국으로 세계로 아웃리치를 나가 '우리장 예수님'을 전 하며 선교 현장에서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시한 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찾아오신 하나님

"말할 수 없어요!" 심각하게 대답하는 아이를 붙잡고 왜 그러냐고 캠프 기간동안 무슨일이 있었느냐고 다그치는 부모의 물음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꿈땅의 여름 캠프 기간동안 아이들의 심 령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열정이 선교 현장 마다 이어졌습니다.

선교의 열정 중심

몽골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워십댄스와 태권 무를 했던 문화공연에서는 150여명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김치 사역으로 몽골의 고위층 인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모 잠비크에서는 4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함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 인지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반석 선교사님의 열정과 사역의 열매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동북아 A국에서는 묶였던 찬양이 열리고 가족집회를 는 부모와 아이들간의 화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북아 A국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과 강 건너 보이는 북한 땅을 향한 안타까움과 새로운 선교의 열정 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각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확신과 그 사랑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것

우리의 가슴속에는 채 가지지 않은 흥분과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 가슴벅차 했던 열 굴, 뛰며 찬양하던 아이들의 목소리, 눈물흘리며 기도하던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아프리카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팔뚝 여기저기 남겨진 벌레 물린 흔적들... 이 모든 것이 다 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선교의 현 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룬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능력이었으며 교사들의 헌 신과 열심 그리고 힘을 다해 섬겨 주셨던 자원 봉사자 여러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분들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부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아웃리치의 열매 를 다시금 기대합니다.

단동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안주희 (초등3부 코치)

"동북아시아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북아 A국에서의 첫날

서너시간을 버스로 달려 도착한 A국은 마치 6,70년대 영화 세트장 을 옮겨 놓은 듯 아주 소박하고 작은 도시였다. 우리 팀 은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A국교회로 갔다. 이미 교회는 여름성경학교 준비로 분주했고 반갑게 맞아주시는 교 인들과 짧게 인사하고는 곧바로 여름성경학교 교사강 습회를 시작했다. 처음엔 다소 긴장되고 딱딱한 분위기 로 강습회를 시작했지만 김현실 목사님의 재미있고 은 혜로운 강의로 우리들은 금방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었 다.

이들간의 은혜로운 여름성경학교

그렇게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 새벽 5시 새벽기도를 드 렸다. 떠지지 않는 눈을 비벼가며 교회로 향하는 새벽공 기는 적당히 시원했다. 자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 던 개인기도시간은 A국과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 통한 마음을 몰 보듯 부여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성경학교 내내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고백하던 사랑스런 아이들, 선생님들의 기도하 자는 말에 교회 바다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5 살 꼬마의 믿음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마

음과 내 맘이 일치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목숨을 건 짧은 만남

A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 팀은 배를 타고 압록강을 돌며 강변(?)기도를 했다. 압록강은 생각처럼 그리 크 지 않았지만 한강 넓이보다도 못한 거리를 두고 우리의 조국을 바라만 보아야 하니 우리 모두는 안타까운 마 음을 감추지 못했다. 최대한 북한 쪽 가까이로 배를 돌 려 지나가면서 강가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과 손을 흔 들고 인사하기도 했다. 던져주는 과자를 받아먹으려고 북한 군인들의 눈을 피해 자기기를 훨씬 넘는 강을 숨 가쁘게 헤엄쳐 오는 10살 남짓 어린아이들을 눈앞에 두 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전한 한마디는 "애들아, 꼭 예수님 믿어라"였다.

조금은 우스운 상황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 뭐라 말할 수 있었을까...

수풍뎀으로 올라가는 배 안에서 우리는 그저 북한 땅 을 바라보며 말없이 기도하고 있었다.

찬양예배가 되어버린 저녁식사

A국교회 전도사님의 초청을 받아 저녁을 먹으러 A국 요리집에 갔다. 저녁식사가 다 끝나갈 무렵 성가대 가운



을 입은 식당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찬양 을 불러주었고 감사의 뜻으로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한국어로 불러주었다. 그렇게 시 작된 찬양은 끝이 날 줄 몰랐고 맛있는 저녁식사 시간이 서로를 기도하고 목사님의 축도까지 이어지는 예배로 변해버렸다.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아주 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었던 감격스런 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생각해보면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도우려 했던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았으 니 말이다. 이 마지막 때에 A국의 조선족을 통해 A국과 북한 땅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 마음을 나누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을 기대한다.

“주님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4개월간의 아웃리치 스쿨을 마치고, 8월 7일 42명의 꿈 땅 어린이와 교사는 몽골로 향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사는 몽골은 라마불교와 토속 샤머니즘의 지배아래 신음과 고통으로 얼룩진 땅이다. 우리의 사역은 몽골 제2의 도시인 다르항에서 시작되었다. 높은 산에 올라 이 땅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하에 놓여질 것을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문화공연으로 은혜 전해

우리는 세그만달 교회, '부흥'이라는 뜻의 이 작은 교회가 다르항 지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접한 몽골 동북부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했다.

어렵잖아 200여명의 몽골인들을 초청한 문화공연에서 꿈땅 어린이들이 그 동안 기도와 땀으로 연습한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아마도 몽골인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되리라. 빈민가를 돌며 '주님이 땅에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 굶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기도드렸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알통블락에서 우리는 2차 문화공연을 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결심했고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러시아 땅을 밟고 이곳을 넘어 오기는 것들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러시아와 몽골을 기도했다.

28명의 어린 친구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일을 자랑스러워 하며 자신을 사용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다. 지역 유지들의 부인들을 초청한 '김치 세미나'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고, 우리 어

린아들과 몽골 어린이들의 친선 축구경기도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 자녀들과의 만남

아쉬움을 남기고 우리는 울란바타르로 떠났다. 그곳에 있는 울란바타르 한인교회는 몽골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 교회다. 이곳의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1박2일간의 캠프를 위해 우리는 '서 지역기법 수양관'으로 이동했다. 대부분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인 한인교회 어린이들은 항상 심심하고 외롭다. 함께 해 줄 친구도 없고, 아빠 엄마는 현지인 선교에 너무 바쁘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야외학습과 실습을 하며 풍선아트와 말타기를 했던 시간들은 서로에게 멋진 추억이었을 줄 믿는다.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사명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며 어린이들과 교사들을 권면해 주신 한영훈 선교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는다. 선교의 은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강조하신 말씀과 선교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원주민과 함께 살아가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힘주어 역설하신 선교사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가슴을 찌르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 주시는구나!' 하며 감탄했다.

7일간의 이 선교 여행이 일회적일 수 없고, 주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 멈출 수 없는 사명이고 기쁨일 것이다. 그 동안 아웃리치 스쿨과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와 재능, 시간의 헌신으로 함께 섬겨준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과 위리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임태영 총무

꿈이 자라는 땅 초등1부 몽골 아웃리치팀

- >> 선생님
김남균, 박성우, 김희미, 김동경, 민경민, 박해선, 송승우, 최은경, 정현준, 남선희, 이혜선, 임태영, 박숙희, 김영민.
- >> 어린이
민경찬, 황동환, 곽동현, 김유홍, 최재홍, 박예찬, 궁중서, 간대영, 유지민, 조승현, 이광현, 윤 현, 조현준, 강예은, 구승모, 오하연, 김성민, 서준호, 류태현, 이동희, 방은정, 김민형, 권지현, 김나영, 박해수, 조혜수, 임재원, 조하람.



2003 몽골 아웃리치를 마치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였던 몽골아웃리치 스쿨을 하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신앙 훈련과 공헌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알아 갈 수 있었다.

공항으로 떠나던 이른 새벽, 몽골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속에 나는 어느새 작은 선교사가 된 것 같았다.

몽골에 도착한 후 우리는 아웃리치를 시



김나영 (초등 1부)

작했다. 기도로 시작하여 찬양하며 땅 밟기를 했던 일들, 그리고 비록 12대0으로 지기는 했지만 몽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웠던 축구시합.. 그리고 많이 땀 흘렸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던 2번의 문화공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함께 몽고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주일학교의 몽고 어린이들과의 만남

은 언어는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했던 여름성경학교는 여행에서의 피곤함 까지도 참아내며 의젓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다.

이번 몽골아웃리치에서 나는 "선교"를 다시 한번 결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모

"선교 준비 다짐합니다"

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선교는 아직은 어리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선교를 실천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큐티와 기도생활을 해야 하고 학교공부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아웃리치 기간동안 엄마, 아빠와 동생이 써준 편지를 읽었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이 떠오른다. 내가 흘렸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과 기도로 나를 후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더 의젓한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조하람 (초등 1부)

4월 달부터 시작한 우리의 몽골 아웃리치 훈련은 무척 힘들기도 했고, 재미있기도 했다. 매주 토요일 날 친구 생일잔치도 못가서 가는 것이 참 싫었다. 그러나 막상 몽골에 가보니 내가 배척지 않고 열심히 훈련을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다. 떠날 때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무척 울었다. 하지만 나는 전도를 재미있게 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비행기 안에서 내려

"희망의 빛 될 거예요"

하는 태권무와 위십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옛날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걸고 열심히 전도 해주신 것이 생각났다. 나도 그런 선교사님들처럼 몽골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

몽골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빨링 거스'라는 말과 비슷하게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지개'라고 한다. 몽골 사람들은 우

보니 하늘 아래로 드디어 몽골땅이 보였다. 몽골에 도착한 후 바로 다르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다. 몽골의 교회는 어렵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르항에 있는 한 건물에서 태권무와 위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다. 나는 '몽골 사람들이 우리가

리나라 사람들을 '희망의 빛'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 같다. 나도 이 말처럼 몽골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싶다. 캠프하이어를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커 나가겠다고, 동생을 잘 돌봐주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친구를 때리지 않고, 씩씩한 하나님의 용사를 조금씩 클 것이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매일 기도 할 것이다.

우에다 간증

제이디에스(JDS) 아웃리치팀 중 '승리의 깃발'은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우에다 온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여성 10명으로 구성된 '승리의 깃발'은 '너희는 가서 도우라'는 말씀처럼 어린이사역, 교회 미화, 전도지 배포, 주일 점심 섬김, 위십 및 섬(SUM) 발표, 교회 주변 지역 명발기와 중보기도로 섬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팀원: 노정희, 박종숙, 장명순, 신신자, 장경례, 박미숙, 김정임, 허오옥, 이혜경, 권선희



노정희 (우에다팀)

“요로시꾸 오네가이시마스.(잘 부탁드립니다)” 우에다 역전에서 전도용 티슈를 나누어주며 하던 말이다. 우에다 교회 아마나까 전도사님은 티슈를 줄 때 얼굴을 보지 말고 손을 보고, 예수라는 말이 나오시는 되도록 삼가라고 했다. 'Jesus loves you' 라는 글귀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주어야 할 정도로 예수님 전하는 게 조심스러웠다. 참으로 한국과는 다르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과거 역사 때문에, 나는 늘 일본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었고 그들의 섬세하고 치밀한 민족성이나 문화적 특성에도 거리감을 느꼈다. 4개월 제자학교 과정 중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지만 일본이 대상이 된 것은 뜻밖이었다.

2개월 간의 준비 기간은 참으로 길고 힘들었다. 나이도 형편도 생각도 다른 자매 10명이 모여 사역의 방향, 내용을 정하고 준비해 가는 일은 때로 '천로역정'의 크리스천의 행로를 생각나게 했다. 난관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 옛사람을 못박지 않

면 주님이 드러낼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우에다에 도착한 다음 날 저녁, 사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문해 보았다. 나는 여기에 왜 왔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일, 이곳 분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밥 나눠 먹고 교회 청소하는 일이 나와 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스쳐갔다. 곧바로 다른 자매나 일본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한 내 약함을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그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드러나시길 간구하며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했다. 알고보니 나 뿐 아니라 모든 자매들이 나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없겠기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인내하며 먼저 양보하며 먼저 섬기기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드디어 세째날, 주일 저녁에 워십댄싱을 하는데 성령이 뜨겁게 임해서 눈시울이 뜨거운 채 춤을 추는 우리와 보고 있는 일본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다. 아마나까 전도사님은 감격해 하셨다. 이어 팀장님의 간증과 전도사님의 간증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임했다. 성령의 역사는 다음 날로도 이어져 팀원 한 사람씩을 둘러싸고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 치유와 회복,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감사드렸다. 우리의 굳었던 마음은 앙탈처럼 부드러워졌고 서로를 볼 때 너무나 서로가 사랑스러웠다.

“일본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나까 전도사님은 한일 간 영적인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두 나라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그 말은 우리의 모습에 비춰봐도 진실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함을 보았다. 품고 용납하려고 할 때, 그 작은 움직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던 옛모습을 자복한다.

이제 일본을 비판하고 혐오했던 나의 옛 모습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주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기려고 한다. 그들의 섬세하고 예절 바른 모습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귀해 보인다. 간지럽던 일본말도 매력있게 느껴진다. 일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한일 간 오랜 분노와 오해가 풀리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에다에서 만난 사랑하는 자매들을 천국에서 서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만나게 해주세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8월 25일(월) 오후 7:00 서빙고 시온홀
문의: 소아시아 공동체 엘마란팀
(017-278-3376)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모임
8월 25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3호
설교: 박종길 목사
문의: 김화주 팀장 (011-448-4262)
*저녁식사가 준비됩니다.

8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8월 26일(화) 오후 7:30~9:30 서빙고 선교관 306호
문의: KIBI(792-7075)

두란노 해외 선교회 월요기도모임
9월 1일 오후 7: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양재 온누리교회
문의: 박소영 간사(02-794-1063~5)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00~9:00 서빙고 유아실
문의: 이요셉 (016-346-8460)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뽀얏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rmon.com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훈련스태프와 유치원스태프 구함

1. 훈련스태프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형제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2. 유치원스태프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자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문의: 김태완 간사(031-336-6350-2)

에젠틸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젠틸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Inter CP

제3기 남성비전스쿨
9월 20일~12월 6일(12주) 매주 토요일 오후 4:00~8:30 믿음의 교회(2호선 방배역 4번 출구)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관심자 및 헌신자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길 원하는 직장 남성(35~55세까지)
교육 및 훈련내용: 미전도종족과 전문인선교, 세계화경과 선교적 접근전략 등
훈련비: 19만원
주최: 전문인국제협력단 인터컴(InterCP)
1차마감: 9월13일(토)
접수와 문의: 박종화 간사(02-796-3541 교 225, 011-9863-9199) www.intercp.net

제12기 갈렐미션스쿨
매주 토요일 오후 4:00~8:30(15주) 신반포교회 (고송터미널역)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관심자 및 헌신자로 중장년층 및 은퇴자
교육 및 훈련내용: 미전도종족과 전문인선교, 세계화경과 선교적 접근전략 등
1차마감: 9월13일(토)
접수와 문의: 홍미경 간사(02-796-3541 교 225, 019-682-3375) www.intercp.net

무릎선교기도

9월 5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 종족기도실(9월5일 개강예배는 시온홀)
문의: 영일등록 / 회비 - 2만원 (식사,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 667)

중국인 추석성령집회 후원

온누리 중국어예배는 9월 10일, 11일 이틀간 두란노홀에서 추석성령집회를 합니다. 중국인 노동자, 유학생, 주재원 등 300명을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방,도우미와 안내 등 봉사자를 해주시분 30명을 구합니다. 아울러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예금주: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
하나은행 573-810008-54805
문의: 차명선 간사 (793-9686 교 707)

*

01

‘이라크에 비전교회 세운다’

ACIS 29 비전이 이라크로 뻗어 나간다.

김사무엘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번 아웃리치팀이 바그다드를 방문했을 때, 현지에서 중동 실업인 연합회로부터 바그다드에 한인교회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아웃리치 기간동안 이라크 현지 교회 목회자들은 온누리교회가 자신들을 지원해주고, 양육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의 절절한 목마름에 이라크에 온누리비전교회를 개척해하기로 결정했다.

김사무엘 목사와 노규석 전도사를 중심으로 이라크 비전교회 준비팀은 10월 7일 첫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한인교회개척, 현지리



▲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온누리비전교회가 세워진다. 사진은 지난 7월 이라크 아웃리치에서 방문한 현지 교회

더 양육, NGO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이 지역에 함께 할 동역자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는 노규석전도사(011-9918-4628)에게 하면 된다. /한승현 ruby@onnuri.or.kr

02

부천, 외국어예배 기도모임 시작



주일 오후 4시, 부천 온누리비전교회 2층 예배당에 성도가 모여 외국어예배 준비기도를 한다. 부천, 인천 지역은 유난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이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천 온누리 성도들이 모였다. 처음에 모인 성도수는 10명 남짓이지만 그 기도의 불길은 거세지고 있다. 두 번째 모임부터 조금씩 참석자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어예배 기도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은 부천 온누리비전교회 외국인 예배에 생명의 말씀을 전할 교역

자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영어로 찬양을 섬길 지체들과 예배 후 간식대접을 도와주실 봉사자들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다.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백정석 집사는 “경인지역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고 주님 품으로 빨리 인도할 수 있도록 9월 안으로 외국인 예배가 생기길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승현 ruby@onnuri.or.kr

안산 러시아어예배 창립

안산 은누리 러시아어 제2예배가 창립했다. 지난 8월 24일 안산 갈보리교회 본당에서 서빙고 러시아어예배와 한국 자원봉사자, 요셉청년부 등 170여 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김홍주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서빙고 교회가 개척해 안산 러시아어예배를 만든 것처럼 안산도 안다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수원이나 김포, 의정부, 일산에 교회를 개척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안산 러시아어예배는 지난 5월 서빙고 러시아어예배에서 파송된 이준 전도사와 고려인 리더십

이 4개월간 준비해왔다. 그동안 요셉 청년부가 월데이 아웃리치로 안산에 와 축구대회, 여러 행사 레크레이션, 한글학교, 예배 섬김이, 전도지 붙이는 작업등을 섬겼다. 이준 전도사(러시아어예배 담당)는 "이 예배가 성장해 장차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전교회로서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인 사오십 명이 모이는 안산 러시아어예배는 안산 갈보리교회 본당을 빌려 매주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린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은누리미션 추석전도집회

추석 연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게 해 줄 은누리미션 추석전도집회가 7개 외국어예배별로 열린다.

은누리미션 김홍주 목사(은누리미션 담당)는 "외국어예배 노동자들이 은누리교회의 비전에 따라 한국에 와서 힘들게 노동해 번 돈을 자기 땅, 자기 부족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금하며 기도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겨주길 부탁했다.

은누리미션은 추석전도집회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은누리미션 김연화 간사 (790-6052,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예금주-은누리교회)에게 하면 된다.

한편, 중국어예배는 민속명절에 외롭게 지낼 중국인 노동자, 유학생, 주재원 등 3백여 명을 초청해 두란노홀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한다. 중국어예배는 행사를 위한 후원자와 주방 도우미와 안내 등 봉사를 할 자원봉사자 30여 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문의는 차명선 간사(793-9686, 교 707)에게 하면 된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08-54805 예금주-은누리교회 중국어예배)

/ 전성희 shee@onnuri.or.kr

외국인 추석전도집회 일정

- 네팔예배 9월 10일(수)~13일(토) 서빙고 한동홀
- 파키스탄과 인도 예배 9월 11일(목)~12일(금) 1박 2일간 양지 세계선교센터 수련원
- 이란예배 9월 10일(수)~12일(금) 서빙고 콘서트홀
- 러시아어예배 9월 11일(목)~13일(토) 서빙고 시온홀
- 몽골예배 9월 10일(수)~12일(금) 양평 서울중앙 침례교회 수양관
- 미얀마예배 9월 10일(수)~14일(주일) 군포 하나로센터
- 중국어예배 9월 10일(수)~11일(목) 서빙고 두란노홀



선교지에서 온 편지

“기도용사 3만 명을 주십시오”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 안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각종 여름 행사로 더욱 뜨거워졌을 사랑하는 교회와 소중한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기 만해도 기쁩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저희는 이 도시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져 이 나라의 전역에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전적으로 기도로 동역해 줄 기도원의 삼백 용사와 같은 '기도특공대 3백 명'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백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슬람과 여러 미신, 정령숭배를 통해 역사했던 마귀의 입들이 무너져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지요.

캠퍼스 사역

언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캠퍼스 사역을 위해 대학교에 입학할 것과 현지인 교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0여년 이 지난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쁜 인도하심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공부하고 지난 6월 22일에 시험을 치렀는데 주님의 은혜로 중등 지역과 이 나라 전역에서 가장 독특한 인재들이 모인다는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서 캠퍼스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음을 알았

습니다. 이곳에서 진리에 대해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많은 젊은이들과 각 영역의 지도자가 되어 이 민족에게 영향력을 줄 사람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해지는 진리의 복음을 나눌 축복과 기회의 문들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시지요.

또한 9월 11일 전까지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이나 가까운 나라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올 1월부터 저희 팀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개척을 시작했지만 국제 팀이라서 지상 교회로 드러나기까지는 당분간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학습자의 태도로 현지인들과 여러 민족의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배우며 그들의 문제와 삶의 실제에 관해 얘기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전락들을 이 민족을 위해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지요.

장애고아원

이 나라 사람들은 친족간에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낳은 아이들 중에서 지체 부자유자나 정신장애자, 뇌성마비 등 장애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어린 아이를 낳으면 알라의 저주라고 여기고 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하나 뿐인 장애 고아원에 자원봉사자로 도움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남자 성인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가 대부분 여자



▲ 일산아웃리치팀이 방글라데시에게 축복기도를 하고있다.

들이기에 제대로 돌볼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불붙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장애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결정했는데 다녀올 때마다 제가 오히려 장애인들에게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의 구원과 부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또한 저희들을 짐작히 신뢰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교회와 저희들 삶에 소중한 기도 동역자님들께 저희 가족들은 언제나 짧은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8월 6일 이사람, 김은혜, 다니엘 올림

일본어예배 / 니시교회 방문 간증

일본 삿포로 니시복음교회 성도들이 24일(주일) 오후 3시 일본어예배에 참석해 니시교회에 역사한 하나님의 손길과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간증했다. 니시교회는 9년 전부터 온누리교회와 협력해 서로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 외 6월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서 은혜를 받은 다지 형제의 간증, 주수일 장로의 부부 가정세미나 소개, 박영기 목사(삿포로 성서교회의 일본 선교 감의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일본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본 땅에 일어나길 중보했다.



스기하라 아라와 성도(삿포로 니시복음교회 임원)

1991년 8월 수련회에서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을 받고 교회에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94년 10월 조종희 선교사가 교회에 와서 교제하며 한국과 관계가 깊어졌다. 1995년 5월 니시교회 교인 25명이 한국 서울에 있는 일곱 교회를 방문했다. 그 중 하나가 온누리교회였다.

그때 허용조 목사가 '교회에는 목회 철학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 그 마음을 가르쳐달라고 하니 '그럼 교회에 오십시오' 하시기에 95년 8월, 8명이 약 1주일 간 온누리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그 후 주수일 장로님이 2박3일로 니시교회에 와서 가정세미나를 해주셨고 허용조 목사님도 몇 번 와서 설교를 해주셨다.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 목회철학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동안 니시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다.

첫째, 헌신자 두 명이 나왔다. 타짜바나 목회자와 오사와 목회자는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서 전도사역을 하고 있다. 둘째, 큐티를 나누는 순모임이 15개 생

있도록 설교를 쉽게 하고, 어린이들도 부를 수 있는 찬송가로 선곡하고 있다. 여섯째, 니시교회가 독자적으로 울



“교회에는 비전이 있어야합니다”

겼다. 부인회 순모임도 있다. 셋째, 한국 OXX가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뉴라이프 훗카이도' (아웃리치 사역팀)로 매년 니시교회에 아웃리치팀이 열 명 정도 온다. 넷째, 교인들이 '뉴라이프' 처럼 조직을 만들어 다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 뉴라이프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린이들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두 사역한다. 지금까지 6개 교회를 섬겼다. 다섯째, 주일 제1부 예배를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바꿨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천국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배로 누구나 아이들을 수

해 4월부터 삿포로 중앙에 교회를 개척했다. 2년 전부터 개척조사, 검토 위원회를 만들어 준비했다. 작년 10월 총회를 열어 모두 개척하자고 결의한 후 명칭도 '개척준비위원회'로 바꿔 실제적인 개척준비를 했다. 그때 삿포로 교회 개척위원회 위원장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였다. 평신도가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된 것이다. 니시교회는 이 개척교회에 전도사와 성도 10명을 파송했다. 창립한지 4개월째인데 많은 때는 20명이 와서 축복을 누리 고 있다. 일곱째, 3년간 다니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삿포로 훗카이도 성서학원에서 작년 단기신도 1년 과정이 생겼다. 작년 그 과

정을 배운 평신도 5명 중 3명이 니시교회 성도다. 올해도 2명이 배우고 있다. 여덟째, 9년 전 니시교회는 교인이 80명이었다. 지금은 120명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린이들도 45명이 모인다. 우리는 이전 10년간 교회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돌아보다. 앞으로도 니시교회는 더 성장하기 원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 다섯 가지 기도제목이 있다. 먼저 어린이 사역을 위한 전임 교역자를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크리스천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양육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척교회들이 복 받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교회 목표를 위해 매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까뎀베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대문공동체 열명이 모잠비크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반석, 최순덕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까뎀베(Catembe)땅을 밟고 온 그들은 이제 한 번 더 무릎 꿇는다. 그 땅 향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자신 향한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

아웃리치 왕초보들, 그러나...

7월 20일 **주미 모임** / 서대문공동체가 모잠비크 아웃리치 준비 모임을 시작한 것은 7월 13일, 이후 준비상황을 나누고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며 매주 모였다. 멤버의 평균 연령은 사십대 후반, 게다가 대부분 아웃리치 초보들... 먼 나라 모잠비크로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고 싶은데, 그 열정은 이십대 청년을 능가한다. 기도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8월 8일 **파송예배** / 저녁 7시 30분, 파송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유아실에 공동체 식구들 30여 명이 모였다. 떠나는 이들과 남는 이들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손신국 전도사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



▲ 중학교에 도착해 학용품을 나눠주고 또 무릎꿇어 기도 사명을 전했다.

리도 이제 가지 사역을 흉내라도 내보려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이들의 바람과 사정상 갈 수 없는 이들의 격려가 오갔다. 떠나는 사람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 아웃리치팀이 만든 형형색색 풍선에 아이들이 함박웃음을 짓는다.

8월 12일 **침례** / 여행가방 12개 분량의 짐을 썼다 하기를 여러 번, 옷으로 가득 채웠다가 뒤늦게 의류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의류품을 구해 다시 나눠 넣느라 벌어진 일이다. 다른 공동체에서 오신 '집 꾸리기 전문가' 집사님이 팔을 걷어부치셨고, 덕분에 짐은 깔끔하게 완성! 매일 저녁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 모임이 열렸던 집사님 댁 마뻬바 댁에는 가방의 바퀴 자국이 흔적처럼 남았다.

복음 담은 의약품, 사랑 담은 풍선

8월 14일 **강장 강동 마푸토 공항** /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도착한 것은 한국을 떠난 지 약 스물다섯 시간이

지난 뒤였다. 17시간의 비행에 홍콩과 요하네스버그에서 갈아타느라 보낸 시간이 8시간... 슬레임으로 상기했던 얼굴들이 피곤으로 녹초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마푸토 공항에서 세관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탓에 숙소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했다. 7월 24일에 성동광진 공동체, 7월 31일에 JLS가 다녀간 후 세 번째로 돌아닥친 단체 손님인지라 모잠비크 공항 측에서 의심을 한 것이다. 선교사가 공항 사무실에 붙잡혀 있는 두어 시간 동안, 일행은 피곤도 잊은 채 나직히 찬송가만 읊조렸다. 결국 짐가방 몇 개를 열어 보이고 이반석 선교사를 공항에 남겨 둔 채 먼저 출발, 사역지인 까뎀베로 향했다(다행히 비자 문제는 잘 해결되었다).

"제가 서대문공동체 출신이에요, 서대문공동체에서



손신국 전도사 인터뷰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소한 7박 8일의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 직장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장시간의 비행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다락방장들의 찬성으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멤버 대부분이 아웃리치가 처음이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모두 100% 순종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높이고 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회를 보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두 분이 교회였고 그곳 아이들도 교회였으며 같이 간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곧 교회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공동체는 모잠비크의 이반석·최순덕 선교사와 계속 교제할 것입니다. 또 바자를 통해 은누리미션상업고등학교 재학생 건축 현금을 할 예정입니다. 내 안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전교회의 그림도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땅 전체를 놓고 볼 때 많은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아프리카를 밟고 오게 하신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 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둘러앉은 자리에서 최순덕 선교사는 목이 메었다. 중보기도자를 세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던 터라 이들의 방문이 더욱 반갑고 감사했던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반석 선교사의 고백을 들으며 아프리카에서의 첫 밤을 맞았다.

8월 15-16일 물리계 학생들, 영학생 아이들 / 이반석·최순덕 선교사가 세운 온누리미션상업고등학교와 에피토사중학교에서 의료 사역과 전도 사역을 했다. 상업고등학교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에피토사중학교로 가는 길은 가깝고도 멀었다. 낡은 대형 트럭을 타고 달리다 보니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모래 먼지가 심하게 일었고, 첫날 돌아오는 길에는 그마저도 멈춰 버렸다. 모래 길에 바퀴가 빠졌기 때문이다. 발이 폭폭 빠지는 길을 한참 걸은 후에야 다른 트럭을 빌려 탈 수 있었다.

중학교에 도착한 팀원들은 각자 흩어져 준비해 간 학용품을 나눠 주고 포르투갈어로 된 사영리를 펼쳐 들었다. 똥가어가 생활어인 아이들이기에 의사소통이 쉽지는 않았지만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다. 외워 간 몇 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팀원들의 노력에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 또한 진지해진다. 이방인들이 열심을 다하여 전하는 복음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책상 앞에 앉아 의약품을 배급하는 간호사 두 사람 앞에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20m였던 줄이 종일 그 상태 그대로... 하루 동안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수지침 사역을 펼친 집사님 책상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오가는 길에 집 한 채 보기 힘들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모여드는지 신기할 뿐이다. 그들은 맨발로 두세 시간씩은 보통으로 걸어다니는 모양이다.

오랜 내전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고 여자들만 남은 사회 상황과 일을 여자가 도맡아 하는 관습 때문인지 환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다. 관절염, 두통, 위염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아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때문에 생긴 피부병이 많다.

몇몇 팀원들은 줄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 “데우스 페 아미(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데우스 페 아벤소우(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를 말해 주며 기도하던 입에서 뜨거운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 영혼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전해져 주름진 흑인 여인네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악몽을 꾸고 가슴이 아프다는 이들에게는 약보다도 기도가 더 특효약일 듯 싶다.

아이들에게는 형형색색 풍선이 단연 인기다. 왕관 모양을 만들어 머리에 씌워 주자 무표정하던 얼굴이 금방 환해지며 성큼 앞으로 다가온다. 저녁 집회도 아이들의 명랑함으로 순식간에 분위기 업! 어떤 노래든 쉽게 따라 부르고 리듬에 맞춰 춤도 잘 추는 이들의 음악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느새 현지인들과 팀원들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미소가 번지고 같은 목소리로 “예호바이므네(좋은신 하나님)”를 목청껏 불러 본다.

순 전도사의 ‘다윗과 골리앗’ 설교 후, 창세기 스토리를 영화화한 성화를 상영했다.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이곳 아이들은 아직 애니메이션보다 실제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더 좋아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에피토사중학교에서는 발전기를 돌려 (예수) 영화포르투갈어를 올렸다. 상업고등학교에서는 여러 번 영화를 보여 줬지만 이곳에서는 영화 상영이 처음인지라 어른들까지 다 모였다. 영화에 빠져든 이들은 상영 시간 내내 쥐죽은 듯 조용하다.

밤늦은 시간 숙소 뒤뜰에서는 대하, 랍스터 파티가 열렸다. 바다를 접한 나라 모잠비크는 수산물이 풍부하다고 하더니, 그 크기가 맛이 한국산의 몇 배다. 은하수 선명한 하늘 아래, 하루의 고단함을 그분 앞에 내려 놓는다.

아카펠라 예배, 하나가 된 예배

8월 17일 세미 교회 / 이반석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씨미(Nsimé) 교회로 향했다. 이 선교사가 까뎀베 지역에서 재건축해 준 다섯 교회 중 첫 번째 교회다. 스위스 여선교사 루이스 페르나도(Louesse Perrenoud)가 세우고 순교했던 이 눈물의 교회를 이반석 선교사가 99년도에 새로 지었다. 가장 아끼는 까플라(여자)들이 치마처럼 두르는 것들 한껏 차려입고 오는 여인네들이 최 선교사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최 선교사도 이날은 그들처럼 까플라를 돌렸다. 이 선교사가 시작 종을 울리자, 아이들, 여자들, 남자들이 각각 구분해 않는다. 아웃리

치 팀원들의 특송과 인사가 있었고 교회 리더가 나와 이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했다. 예배는 1부, 2부로 나뉘어 드렸다. 1부는 선교사가 전한 방식 그대로 경건한 장로교 예배였고 2부는 그들의 방식대로 춤과 노래가 있는 예배였다. 흥겨운 아프리카 리듬에 맞춰 타원으로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반주의 아름다운 아카펠라가 즉석에서 예배당을 가득 채운다. 먼 나라에서 온 이들을 환영하는 그들의 화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8월 20일 동아동 / 한국에 돌아온 날은 계속되던 비가 잠깐 그쳤을 때였다. 많은 비가 내렸다는 얘기에 가물어 메마른 아프리카 땅이 떠올랐다. 안타까움, 아쉬움과 함께.

8월 28일 개간에게 / 저녁 7시 30분, 한동홀에서 서대문공동체 식구들이 다시 모였다. 개간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모잠비크 아웃리치 보고가 있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여러분의 피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열명만 모잠비크를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일이 그곳에서는 큰 일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 그 아이들을 함께 품고 기도합니다.”

모잠비크 영상과 사진을 보며 서대문 공동체는 하나가 되었다. 아웃리치는 그들의 모잠비크 사랑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여름이 저무는 이때, 그들 안에는 같은 꿈, 새로운 꿈이 고개를 들고 있다.

/ 김현정(2천선교·홍보) jeong917@netian.com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두란노 해외 선교회 월요기도모임
9월 1일 오후 7: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양재
온누리교회
문의: 박소영 간사(02-794-1063~5)

인디모 (인도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9월 3일 수요일 오후 7:00~9:00 서빙고 홀
기도실
문의: 이요셉 (016-346-8460)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애플
문의: 김은영 (011-474-5478)

북한 선교 모임 (하나 공동체)
매주일 오후 1:30 양재 트리니티 502호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훈련스태프와 유치원스태프 구합

1. 훈련스태프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형제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2. 유치원스태프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자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문의: 김태완 간사(031-336-6350-2)

Why Missions 4기 훈련생 및 조장과 섬김이 모집

1. 훈련생
9월 27일~12월 20일 매주 토요일 오후
3:45~8:00
자격: 선교에 대한 감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
회비: 3만원(식사 및 간식비)
등록방법: www.owmc.or.kr에 접속해서서
로그인 왼쪽 하단 Why Missions
등록안내 클릭후 접수
문의: 조요섭간사(031-336-6350-2)

2. 조장 및 섬김이
자격: Why Missions 및 How Missions 수
료자, 조장 및 섬김이로 도움주실 분
문의: 조요섭간사 (031-336-6350-2)

후원

셸터 새단장을 위한 후원
셸터 새단장을 위한 후원을 기다립니다(수도, 벽지, 장판, 인테리어, 정수기 설치 등)
문의: 황호상 간사(017-290-7856/790-6052)

선교사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구합
선교사에게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를 기증하
실분을 찾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 박희창 간사(794-1063)

중국인 추석성령집회 후원
9월 10일, 11일 이틀간 두란노홀에서 중국인
노동자, 유학생, 주재원 등 300명을 초청해
추석성령집회를 합니다. 주방 도우미와 안내
등 봉사원 해주시분 30명을 구합니다. 아올
터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예금주: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
하나은행 573-810008-54805
문의: 차명선 간사(793-9686 교 707)

양재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Fairly in the prayer meeting at Yang-jae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유점제출
영어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무릎선교기도

9월 5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 종족기도실(9월5일 개강예배
는 시온홀)
문의: 등록/회비 - 2만원(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 667)

요나 일본선교학교

9월 7일~11월 30일 매주일 오후 3:00 선교
관 2층 소회의실
대상: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 (한국어
통역 있음)
문의: 기타노 미노루 전도사
(019-255-5874)
황혜경 간사(793-9686 교 702)

01

2천선교사 파송

선교사 파송식이 9월 14일 양재 2부예배와 서빙고 3부예배에서 있다. 최상락, 윤화정 선교사(소아시아), 탁연주, 김경희 선교사(말레이시아), 권영희(동북아시아) 선교사가 파송 받는다.

02

부천 외국인예배 시작

9월 14일(주일) 오후 4시 부천은누리교회에서 외국인예배가 시작한다. 이날 예배는 추석을 기념하고, 외국인 성도가 모여 교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부천외국어예배는 이 예배를 섬길 봉사자를 찾고 있다. 문의는 백정석 집사(011-446-7490)에게 하면 된다.

03



온누리미션 추석전도집회

“하나님과 함께 추석명절 보내요”

한가위가 이번 주로 다가왔다. 오곡백과와 송편, 명절음식 등 풍성한 먹을거리와 3일이나 계속되는 휴일도 좋지만,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다는 자체만으로도 한가위는 즐겁다. 그러나 고향에 가족을 두고 낯선 한국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내야 하는 추석 명절은 쓸쓸하기만 하다. 온누리미션과 중국어예배는 올해도 허전한 이들의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 줄 추석 행사를 마련했다.

온누리미션 추석전도집회
파키스탄과 인도, 네팔, 이란, 러

시아, 몽골, 미얀마 온누리미션 7개 외국어예배는 10일(수)부터 14일(주일)까지 서빙고 성전, 양지 세계선교센터, 서울중앙침례교회 수양관, 군포 하나로에서 추석 전도집회를 한다. 네팔, 이란, 몽골, 미얀마예배는 자국 목회자를 초청해 고향 소식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조국에 복음을 전파할 비전을 키운다. 온누리미션은 추석전도집회를 도와줄 자원봉사자와 후원금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온누리미션 김연화 간사(790-6052,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

810031-74605 예금주-온누리교회)에게 하면 된다.

중국어예배

중국인 추석 성령집회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를 주제로 9월 10일(수)과 11일(목) 이틀간 열린다. 중국인 노동자, 유학생, 주재원 등 3백여 명을 초청해 조별 운동회, 공연, 만두 빚기를 하며 교제를 나누고 10일 저녁에는 성령집회를 연다. 중국어예배는 행사를 위한 후원자와 주방 도우미와 안내 등 봉사할 자원봉사자 30여 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문의는 차명선 간사



▲ 작년 파키스탄 예배는 온누리선교관에서 집회를 하고 낮에는 서울 영소를 둘러보며 추석연휴를 보냈다.

(793-9686 교 707,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08-54805 예금주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에게 하면 된다.

04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다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모임 시작

무릎으로 선교사와 미전도종족을 섬기는 '무릎선교기도모임'이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서빙고 시온홀에서 시작했다.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무릎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결단했다. 첫 모임은 1부 예배와 2부 아웃리치 보고회 순

으로 진행했다. 특히 2부에서는 총복보은예수마음팀, 땅밭기 A·B팀, 태백예수원팀이 아웃리치 사역을 보고하고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서빙고 여성사역팀은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는 여성' 2백명을 목표로 무릎선교기도모임에 동참할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 모임은 9월 18일부터



서빙고 미전도종족증보기도실에서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장현주 간사(793-9686 교 252)에게 하면 된다.

/ 서철 cho@onnuri.or.kr



기도의 동역자님께

복음 안에서 동반자 되어 저희들이 필리핀에 파송받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무릎으로, 물질로 선교에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필리핀에 파송 받고 2년 간 현지 언어를 익힌 후부터 지금까지 코이노니아 신학교에서 가르치며 현지인 목회자들을 진리 가운데 세워왔습니다. 10년 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교사가 3명뿐이었고 작은 건물 한 층을 월세 내어 방 하나를 책꽂이로 2등분 해 강의실과 도서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 오엠에프에서 재정 보조를 받아 7년 전 도시 한복판에 이층짜리 가정집을 사서 강의실 3개와 도서실,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비록 조그마하지만 신학교의 면모를 제법 갖추게 된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이 속속 교수로 자원하고 학위를 갖춘 현지인 교수들도 계속 발굴하여 지금은 한 학기당 15개 이상의 학교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약 60~70명 정도가 등록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점점 성장하여 이제는 증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

“선교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삽니다”



고 문교부 학력인가와 아시아 신학 연맹 가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선교사는 안식년을 마치고 2기 사역부터는 교무처장(Academic Dean)으로 이 모든 행정적인 일들까지 맡아 강의와 행정 사역 등 신학교 사역만으로도 박탈 정도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신학교가 성장했습니다

저희들이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바오에 있는 여러 신학교 교수들의 학적 능력을 개발시켜 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 도전을 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신학교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학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올해 초에 다바오 신학 교육자들 협회(Davao Theological Educators' Fellowship)을 세웠습니다. 처음은 이철우 선교사가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모임이 자립하면 현지인 지도자에게 물려줄 계획입니다. 세 달에 한 번씩 다바오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신학 강좌를 들고 신학교 개발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다나오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학생들과 교회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모임을 구성했는데 앞으로 모임을 통해 각 신학교 교수들이 연합되고 학문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신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서 학비를 받고 현지 교회와 현지 이신님들의 재정적인 후원도 있지만 이것은 학교 재정의 반 정도입니다. 그 재정으로 직원들 월급과 현지인 교수들의(7명) 월급을 다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지요. 그러므로 모든 선교사 교수들은(5명) 자원봉사입니다. 선교사 비자로는 월급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신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다면 선교사가 아니겠지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선교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과 대답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 아닐까요. “선교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이다.” 사람이나 환경을 의뢰하는 것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만이 스스로 담당해 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빕니다.

주인에서 동역자된 이철우, 김문경 선교사 드림

모잠비크 아웃리치 보고



백승철 전도사 (서빙고 유채부)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세계 5대 최빈국 중의 하나이다. 뒤늦게 '포르투갈'로부터 1975년에 독립한 후, 20년간의 내전을 치른 척박하고 가난한 땅이

다. 98년, 온누리 교회가 파송한 이 반석, 최 순덕선교사가 '까뎀베'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현재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받은 7만 5천 평 부지에 온누리 미션 상업 고등학교를 설립했다. 현재 인근 30만 평 땅에 중학교를 건축하고 있으며, 모슬렘이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하여 기독교 병원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치원, 클리닉, 청소년숙구림, 농장, 거리의 아이들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이번 아웃리치 팀은 성동광진공동체, 의료사역, 꿈방, 영어예배가 연합한 총 2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월 24일부터 9박10일로 다녀왔다. 비행기 두 번, 버스로 9시간, 그리고 배까지 타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수도인 마푸토는 문명사회였지만, 바로 바다 건너편인 '까뎀베'는 자연 그대로였다. 짙은 만든 음악과 신발

이 없는 아이들, 머리에는 기계충에다 이, 벼룩까지 있었다. 병원에 가도 약이 없었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였다. 많은 생필품을 힘겹게 가져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은 시미교회 사역으로 시작했다. 약 300명의 현지인들과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 현지인들의 타고난 음악성은

있었던 것이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의료팀은 진료하고 꿈방은 어린이들에게 여름성경학교를 열었다. 현지어 찬양을 부르고, 드라마와 풍선아트로 어린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유감없이 나타났으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 춤을 추며 아프리카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시미교회는 100년 전에 스위스에서 오신 Louese Perrenoud 라는 상급 여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다. 그분은 64세 때, 가톨릭교도에 의해 살해당하셨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오늘날의 시미교회가 있게 했고, 이반석선교사님을 이곳에 오시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분이 살던 집터에 서서 100년 전에 원시마을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던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보았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부어지고

이들을 위해 기쁘게 해주었다. 박성일목사님의 말씀선포로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적이 있었다.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며 아름다운 아프리카 하늘 아래 어린이들과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 집사님들은 준비, 정리, 진행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지역별로 교회를 중심으로 의료사역, 여름성경학교, 미용, 영어캠프, 노방전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는 700여명이 모였다. 현지어 찬양, 장기자랑, 집사님들도 몸 찬양, 드라마 '헨즈'가 공연되었고, 여성민 목사님

의 말씀선포로 절정을 이루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아프리카 밤하늘에는 '예수' 영화가 상연되고 모잠비크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었다. 하나님께 사는 모잠비크의 마지막 밤을 이렇게 베풀었다.

우리는 아웃리치를 통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웬지 낯설지 않은 모잠비크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

2003
Out Reach
몽골

바양을기에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간사, 청년, 대학 3부서가 연합하여 구성된 2003 몽골 바양을기 여름 아웃리치팀 25명은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9박 10일 동안 몽골에 다녀왔다.

8월 12일 조금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울란바토르에 내렸다. 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박관태 선교사님 일행을 만났다. 여름 내내 기도과 땀으로 준비한 열흘 동안의 멋진 아웃리치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열정과 현실의 간격

울란바토르에 있는 하이크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후 숙소를 배정받고 울란바토르 대학을 찾아 저녁을 먹었다. 그것이 열흘 동안 우리 팀을 힘들게 한 몽골음식과의 첫 만남이었다. 몽골음식 특유의 향과 양고기 냄새는 '거룩한 선교열정'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어설픈 생각을 뒤엎는 '선교지의 현실' 바로 그것이었다.

사역의 열매를 보기 이전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땅에 서있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을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드린 '살'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13일 박관태/한영훈 선교사님이 일하시는 연세친선병원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후의 이야기와 주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을 나누어주셨다.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도전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었다. 꼭 선교사로 헌신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말이다.

하이크교회에서 드린 몽골인과의 첫 저녁 예배! 그 것은 언어와 인종을 넘어선 완벽한 주안의 하나됨 이었고 낯선 땅, 작은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감동의 교제였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찬양 받으셔야 한다. 그 찬양과 성령의 강이 바양을기 땅까지 흐르길 기대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4일 바양을기에 가려면 흙드까지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다시 차를 타고 가야한다. 델크딩, 델크딩... 요란한 굉음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은 짧은 안식으로 들어갔다. 흙드에서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러시아 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땅위로 휴먼지를 뚫고 10시간을 달려 바양을기에 도착했다. 구름으로 덮인 산 아래로 바양을기 도시가 보인다. 옆에 계신 권선교사님이 선창을 한다. "이 산지를 내

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심..." 함께 불러본다. 우리의 얼굴이 붉어진다.

16일 바양을기에서 첫째날, 바양을기 사람들은 몽골 안에 있는 이방인이다. 카작인 그들은 도시 분위기도 얼굴색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 울란바토르와 달리 바양을기는 모슬렘의 영향을 받고있다. 우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침 QT 우린 요엘서 2:28-32절 말씀을 나누었다. 본격적인 바양을기 사역을 선포

가 죽어야 한다는 영화내용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한다. 이어서 영화 '미션'의 주요장면을 짧게 보여준 후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박 선교사님이 황급히 달려오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마지막 3일째에 보여주기로 했던 영화 예수의 클라이맥스 십자가 사건 장면을 보여주기로 했다. 예수님께서 못박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는 군데군데에서 고통스러운 소리로 나왔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서 박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시작된다. "우리의 아픈 대신 죄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하면서 작지만 뜨겁게 기도했다.

오후에 여름학교를 했다. 어린 이방인 미술반과 리코어반, 청소년반인 컴퓨터반과 영어반, 청년반인 문화영상반으로 5개 반을 구성했다. 2시를 알리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모르게 아이들이 하나씩 들쭉 모여들기 시작했다. 첫날 94명이 모였다. 스랍들의 표정도 현지 아이들의 표정도 호호하다.

첫 번째 전도집회, 시작 전 중보기도팀은 의자 하나하나를 붙잡고 이 자리에 앉는 사랑마다 주님을 알 수 있기를 기도했다. 우리의 소개에 이어 천지창조 영상, 워십과 스킷, 간증,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이어진다.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공연장에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지 기도하면서 다음날을 기대해본다.

17일 둘째날 바양을기에서 우리 팀은 막굴라라는 아주머니 가정과 호텔에 베이스캠프를 쳤다. 박 선교사님께서 막굴라 아주머니의 아들 세력의 병을 수술해 주신 인연으로 알게 된 가정으로 아웃리치 팀이 갈 때마다 베이스 역할을 해주던 곳이다. 이 가정을 통하여 바양을기에 복음의 확장되기를 기도한다.

저녁 전도집회에서 '존귀' 영화를 상영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선 또 다른 누군가

가 죽어야 한다는 영화내용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한다. 이어서 영화 '미션'의 주요장면을 짧게 보여준 후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박 선교사님이 황급히 달려오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마지막 3일째에 보여주기로 했던 영화 예수의 클라이맥스 십자가 사건 장면을 보여주기로 했다. 예수님께서 못박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는 군데군데에서 고통스러운 소리로 나왔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서 박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시작된다. "우리의 아픈 대신 죄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2천년 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찬양이 깔린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는 선포와 함께 몇몇 사람들의 손이 올라가고 손을 든 사람들은 무대로 초청되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모슬렘권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 생각났다.

바양을기에서 마지막 날, 아침 기도회 시간에 박 선교사님이 금식을 선포하셨다. 이 땅의 모슬렘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더욱 품어본다.

섬머스쿨 마지막 날, 어제 120명이 왔는데 오늘은 2백여 명이 왔다. 대강당에 모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했다. 영어반과 리코어반 아이들의 발표시간이 있었고,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감사메시지도 전했다. 답가로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설명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한국에서 왔으며 다음에도 오겠다고 했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한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을 추억으로 담고자 방법으로는 사인이 최고라고 생각했나보다. 우리의 사인은 'JESUS CHRIST!'였다.

마지막 저녁 전도집회, 3백여 명이 극장 전체를 배우고 있다.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예수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졌다.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끝나가고 천지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룬 스킷이 이어졌다.

박 선교사님의 메시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신 분이냐고 백백분,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무대 앞으로 초청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낀다. 여기저기서 작은 소리와 함께 무대로 올라온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한다. 몇몇 아이들의 눈엔 눈물이 흐른다. 우리도 함께 껴안고 기도한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세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합니니다.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우리의 1차 베이스 캠프였던 막굴라 아주머니 아들인 세력이 '자기집을 교회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다. 아멘! 할렐루야! 막굴라 아주머니 집에서 저녁을 감사하게 먹고 흥분 속에 막굴라 아주머니에게 세례식을 베풀었다. 바양을기에 첫 교회, 가정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하나님 축복해주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오레 계속되었다.

요엘서 2장 32절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들을 각 민족에 준비시켜 놓으셨고, 이곳 바양을기에도 하나님을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때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살아계신 신실한 하나님은 '이땅에 잃어 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영원불멸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세 가지 공동 기도제목 모두 응답해주셨다.

우리의 사도행전은 이제부터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기를 소원합니다.

/ 황민식 간사 (2천선교)

“증보자로 섬니다”



이길홍
(마포 요한 5순)

자녀를 포함한 마포공동체 22명은 지난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양종족인 위구르족에 다녀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이슬람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는 위구르인에게 “6박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결국 입양한 위구르인들을 품기 위해서는 현지에 방문하여 적합한 선교도구의 정착점을 개인별, 공동체별로 발견하고 위구르인을 위한 확실한 증보기도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

오는 것만으로 위로받는 선교사

위구르족이 사는 곳에 도착하자 김사라, 김드보라, 박안나 선교사님이 “이곳에 청년들은 매년 왔지만 성인공동체가 온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1천만 명이 조금 넘는 위구르인 중 그리스도인은 2백여 명 내외로 추정한다고 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변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슬람의 영이 가득한 그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현지 선교사님의 수고를 보며 이렇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느껴

져 정말 잘 왔구나 생각했다.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지 지하교회를 방문하여 방음장치를 한 일, 현지인 교회 형제인 집에 방문하여 정성껏 준비해 준 식사를 그들의 생활 풍습에 따라 손으로 식사한 일, 그 가족을 위해 축복하고 사진 찍으며, 춤도 함께 했던 일 등 모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사막에 가서 사람을 태우려고 무릎 꿇는 낙타를 보며 ‘낙타무릎처럼 기도하라’는 의미를 현장에서 느꼈다.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각별로 다른 지역으로 갔다. 서투른 위구르어 몇 마디로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집안에 초청받아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복음을 모르는 이민족을 위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또한 몇 번씩 비행기를 갈아타고 야간

기차를 12시간 타며 K시에 가서, 그들의 예배시간인 금요일(8일) 오후 3시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때 지켜냈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아웃리치 남자 용사들은 이 땅에 이슬람의 영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넘쳐나기를 증보기도 했다.

선교지를 돕는 공동체의 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는 말씀을 붙들고 ‘아웃리치에 동행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부족한 면을 아들이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은 복음을 모르는 이민족을 위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중한 경험들이었다. 또한 몇 번씩 비행기를 갈아타고 야간

라’ 말씀을 모두 체험했고 마포공동체가 하나 됨을 느꼈다.

2천1만 선교사로 헌신한 박안나 선교사의 간증과 증보기도의 시간, 자녀 딸 예은이의 세례와 성찬식, 우루무치에서 떠나는 날 공항에 예비해 놓으신 장소에서의 TIM소속 김사라, 김드보라 선교사의 간증과 증보기도, 서로 열차 안았던 위로와 격려의 시간,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타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파송된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며 위로와 격려를 한 일, 현지 열매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도록 작은 도움을 준 일, 열매교회에 다니는 위구르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들은 모두 힘을 합친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하여 마포공동체는 거지의 영인 이슬람이 선한 위구르 민족을 붙들고 있는 안타까움을 품고 적극적인 증보기도자로 서게 됐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분들을 중심으로 선교집중점과 사역도구를 생각하고 척박한 땅에 복음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현지 지하교회가 성장하도록 후원하기 위해 공동체 내에 위구르족을 위한 선교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 이것이 이번 아웃리치를 통한 선교 사역 방향의 열매이다.

마포공동체의 ACTS 29를 향한 발걸음은 은은히 행진으로 계속 될 것이다.



▲ 위구르 마을을 방문해 전자침을 놓고 기도하는 아웃리치팀.



김정욱
(마포 마태5순)

은누리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사역 팀을 섬기면서도 선교사역은 특정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던 중 무릎선교 사역을 하며

선교에 대한 훈련을 받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비전과 강한 사랑을 품게 하였고, 네팔의 카요르트 종족을 품고 무릎선교사로 임명장을 받았다. 그런데 막상 뜨거운 눈물과 음식과 기도로 품고 섬겨야 할 그 땅이 인터넷의 내 용만으로는 절박하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았다. 그 땅을 보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공동체에서 위구르땅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 그동안 우리공동체에서 입양한 종족을 위해서도 정말로 절박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못했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위구르땅을 받게 되었다.

로 위구르땅을 받게 되었다.

낙타의 무릎을 보며

위구르땅을 밟자 크게 세 가지들 느낄 수 있었다.

첫째로 무릎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느꼈다. 위구르 사막을 왕래하는 낙타가 있었

이에 꼭 필요한 증보자가 되리라.

두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다. 팀을 짜서 전도여행에 나서 마차로 1시간 거리를 달려가는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때 우리 가장 가까웠던 마부를 보면서 여리고 정장 때 기생 라함이 구원받았던 것을 떠올렸다. 높고 낮음과 직업의 귀천을 가리

음이 생겼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 선교사로서 기도하며 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다.

각기 다른 자질 대로 조화롭게

세 번째로 우리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ACTS 29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되었다. ‘각기 다른 남녀노소 22명으로 구성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풍성하게 수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였는데 마포공동체 순장님들이 아낌없는 사랑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진행시키시는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마포공동체 사랑합니다!’

이제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증보하고 찬양하며 재정과 기술로 학문과 섬김으로, 각자의 자질대로 모든 것이 조화롭게 합쳐져서 마포공동체의 선교 사역에 크게 사용되시길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낙타처럼 무릎 꿇겠습니다”

다. 낙타가 부리는 주인의 신호에 무릎을 그 자리에서 반으로 철저히 꿇는 그 모습을 나는 처음 보았다. 낙타 무릎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다 해어진 무릎만 생각했지 그렇게 꿇고 내려앉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도 즉각적으로 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이제는 나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갈증 없이 무릎을 꿇고 그 무릎이 해지도록 열방과 하나님사

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생각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그 영혼이 꼭 구원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중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 마부의 얼굴이 환하고 선명하고 크게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결코 그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믿

2003
Out Reach
요한공동체

주님 음성에 순종했고, 주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요한 공동체는 몽골, 태국, 일본, 중국, 캄보디아, 안산, 마산, 경주 8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열방에서 주님을 전하고 돌아온 150여명의 요한 지체들은 이번 아웃리치로 선교적인 삶에 깊은 도전을 받았다.



/ 태국 / 선교의 새 꿈을 품었습니다

20기 양주연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에서 저에게 큰 기적보다는 작지만 소중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말씀과 삶, 다른 팀원들의 고백,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로 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저는 그 동안 선교를 너무 추상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를 전쟁과 비교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제가 선교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선교를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그냥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도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선교에도 단계가 있고 그에 따른 전술과 전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느낀 것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태국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캄보디아 / 그 땅을 향한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18기 김미정

이번에는 팀끼리 있는 시간을 줄이고 계속 선교사님, 사모님, 캄보디아 지체들과 함께 했다. 선교사님, 사모님과 얘기도 더 많이 하게 됐고 깊은 교제로 그분들의 생각과 어려움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현지 지체들과도 더 많이 알게 돼, 지체들의 집에 가서 가족들과 친척들도 만났고 그들의 어려움과 신앙생활을 알게 되었다. 그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더 깊게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눔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더욱 견고케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다.

우리는 프놈펜 대학, 교회주변지역, 프첸 퐁 지역에서 땅 밟기하며 전도했다.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불씨들에 감사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현지 전도사님과 지체들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내 모습을 뒤돌아보았다.

5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오면서도 너무나 아쉬웠고 계속 그 땅에 남고 싶은 마음도 컸다. 이런 마음이 캄보디아를 향한 사랑과 중보가 더욱 깊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 몽골 /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17기 김진하

몽골에 아버지의 복음을 뿌리내리기 시작 한 울란바트르의 하이루 교회.

경배와 찬양 집회, 하이루 교회, 바잉홀의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이끌고 계신 교회... 닷들의 현지인 교회를 보면서, 차가어워 마을에도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교회가 생길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골 전체에 아버지의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

몽골의 아이들과 우리 몽골 팀이 원을 만들어 손을 잡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잡은 손길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자신의 삶 전체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이끌어주셨던 한영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어디서든 선교사로



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다.

한영훈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로마서 12:1~2)을 떠올리고 가슴에 새겼다. 내 삶이 온전히 아버지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자이지만, 언제나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랑해주시는 아버지를 잠잠히 바라본다.

/ 중국Y지역 / 매순간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기 이규호

아웃리치 기간동안 틈틈이 있었던 개인 시간에 난 조용히 하나님과의 1:1을 할 수 있었고, 사십이 시간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적한 자연 속에서 흠뻑 흐르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또한 백두산과 두만강 일대 땅 밟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백두산을 오르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절실하게 찬양하게 되었다. 두만강 일대를 돌 때는 정말 가까이에서 북한을 볼 수 있었다. 남이라고만 생각했던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선교의 마음과 중국에 기대를 품었다. 주님께선 이처럼 열방 곳곳에서 주를 증거하는 종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아웃



리치를 다녀와서 느낀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찾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 남은 내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 숨쉬고 매순간 주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고 싶다.

/ 오끼나와 / **마음이 가난한 자 되겠습니다**

15기 서동일

현지에서 만난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다. 그분들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2시간 거리를 달려오셨다. 말씀을 사모하여 큼지막한 녹음기를 꺼내들고, 녹음을 하면서 말씀 내내 눈시울을 붉힌 아주머니... 그들에게서 난 가난한 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정말 무박하게 생긴 큼직한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우리는 얼마나 세련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지 생각했다. 조금만 불편하고, 힘이 들 것 같은 일들에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왔는지... 세련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박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라야 하는 믿음이다.



난 그 녹음기 아주머니가 부러웠고 내 자신을 회개했다. 나도 열정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그건 바로, 가난한 마음에서 출발한다.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더욱 더 마음이 가난해질 것이다.

/ 경주 /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19기 마혜미

저희들은 경주 남부교회에서 나지레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들을 섬기고 경주역과 천마총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가서 직원 분들이 할머니들과 이야기나누기를 권했을 때,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할머니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섬기러 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할머니들께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한번 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하며 다가서도 외면하시던 할머니도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 나눌 때에는 빙그레 웃어주셨습니다. 그때 어찌나 기



쁘던지... 전 요양원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힘드실 텐데도 열심히 찬양하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면서도 열심히 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마산 /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20기 이동현

출발하는 날 아침 아웃리치에 대한 생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착한 다음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쉽게만 보였던 것들이 어찌 저의 연약한 모습에 부딪혀 어려워졌고, 그런 것들로 좌절하며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나의 고민과 마음속 부담감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 할 때 마다 적절한 상황 등을 붙여 주셨습니다. 함께 했던 형들, 누나들 그리고 소망원 아저씨, 사모님, 주위에 같이 지냈던 모든 분들이 제게 힘과 용기가 되어 모든 일정과 상황들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팀모임 이후 밤늦은 시간 팀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사역은 아웃리치의 핵심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



님이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보내신 것에는 뜻과 목표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마음가짐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주님과 가깝게 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영광스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요한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 안산 / **주님이 부르시는 곳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15기 염귀화

주님은 연약한 나를 팀장으로 부르셨고 아웃리치 과정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은 내게 사교 전환의 기회를 주셨다. 내가 팀장으로서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었고 평생토록 배워야 할 리더십, 평생토록 가꾸 나가야 할 관계, 하나님, 헌신, 섬김을 얻었다.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던 사역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추추게 하셨다. 한없이 부족했던 재정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편안한 것을 보고 싶다. 우두뿤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 정치, 문화,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잃어버린 영



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로 편안하여 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주셨다. 그분 앞에 더 겸손하고 정결한 그분의 종이 되고 싶다. 좀더 기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길 것이다.

'무지개 빛깔처럼 다양한 은혜 속으로'



서동욱 목사

-2003 요한 아웃리치의 가장 큰 비전은?

Acts 29! 우리들이 사도 행전을 이어 쓴다는 생각에 요한 지체들은 흥분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이번 아웃리치도 사도행전 시대부터 계획된 성령님의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에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힘을 냈습니다.

-아웃리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양재 대학부 요한공동체는 여름 아웃리치를 6개월 이상 준비했습니다. 순 편성도 아웃리치 비전에 맞춰 구성했습니다. 다락방(우리는 이를 '목장'이라 함)의 이름도 아웃리치 비전대로 "일본, 중국, 몽골, 동남아(태국, 캄보디아), 국내, 향유목함" 6개로 나눴습니다. 순모임 때마다 우리는 아웃리치를 나갈 지역과 사역을 놓고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150여명의 지체들은 해외 5개 지역과 국내 3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나가려고 현지어를 배우고 봉사할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일주일 내내 매일 저녁 여리고기도회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그릇대로 신실하게 무지개처럼 다양한 빛깔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 곳으로 아웃리치 갔던 만큼 남다른 감동이 있었을 텐데?

몽골에 간 15명의 지체들은 그 중 5명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수년간 릴레이로 다시 몽골에 들어갈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중 한 지체는 지난달 몽골어에배를 섬기러 들어갔습니다.

또, 태국 코랏 아웃리치는 이번 9월에 2명의 요한 지체가 선교사역을 도우러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교 지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들과 계속 연락하며 중보기도로 지속적인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요한 지체들이 선교적 삶에 깊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5년, 10년 후 세계 속에 흩어져 사역할 은누리교회의 2000 선교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웃리치 이후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은 세계지도를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한 지역 한 지역 예수 복음으로 새롭게 길을 내시고 빛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 일에 부름 받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한 여름 피약법에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는 큰 사명으로 가는 작은 시작입니다. 이제 요한 공동체 지체들은 Acts 29, 선교사적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될 요한 지체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승현 ruby@onnuri.or.kr

극동 러시아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아버지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십시오”

극동 러시아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로 매주 토요일 아침 이스라엘 기도 모임(KIB)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이스라엘 기도모임은 올 여름극동 러시아 아웃리치 피싱 트립(Fishing trip: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다니는 일)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밑미가 심해 차를 오래 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 선뜻 간다고 하기 힘들었다. 두 아이의 생활도 걱정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습니다

하바로프스크 공항에 도착하니 염려와 걱정 대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백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극동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돕고 있는 이리나 파벨 부부와 사역자들을 만났다. 처음 그들을 만났지만 함께 히브리 찬양, 러시아 찬양, 한국어 찬양을 함께 부르며 천국의 한 백성임을 느낄 수 있었다.

하바로프스크에서 저녁 기차를 13시간 동안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일이 걱정이었지만 올해 새롭게 생긴 논스톱 기차는 깨끗하고 편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서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모두 여섯 가정을 방문하며 선물을 주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유대인인 마이클은 왼발이 없는 장애우로 그림을 그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우리들에게 별 관심이 없는 듯 우리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림을 사라고만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지금 찾으시고 있다며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권했다. 우리 모두 이들 부부를 향해 축복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와 남루한 차림의 마이클을 꼭 안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나자 할머니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혼자 살고 계셨다. 경찰인 아들이 죽은 뒤 혼자 외롭게 사서서인지 우리를 한 명씩 꼭 안아주며 자고 가라고 권했다. 나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가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잠시나마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었다.

형제 이스라엘과 다시 오실 예수님 맞기 위해

하바로프스크에서 버스로 약 3시간 동안 달려 마지막

지역인 비로비잔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도 유대인 할머니 사시는 두 가정을 방문하고 축복송을 부르며 꼭 부동겨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확인했다. 불에 한없이 뽀뽀해주며 사랑을 전하시던 할머니를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로비잔 사역자 발레리나와 라이샤 할머니 그리고 안드레이에게는 나의 혈육 이상으로 관심과 사랑이 남아 있다.

비로비잔 지역은 유대인 자치주로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귀환을 돕는 손길도 많이 필요하다. 라이샤 할머니는 비로비잔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다.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해온 안드레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 그는 우리를 위해 밤새 만두를 튀겨 사랑이 담긴 간식을 준비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인 예배에 참석했다. 소수가 모인 예배였지만 소박함과 진실이 느껴지는 예배였다. 한 가 족이기에 그들은 러시아어로 우리는 우리말로 함께 찬양할 수 있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함께 찬양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임여진 성도 (서초C)

*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9월 22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101호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소아시아공동체 엘마안팀
 (017-278-337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 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벨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우누리 세계선교센터 훈련스태프와 유치원스태프 구함
 1. 훈련스태프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형제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2. 유치원스태프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자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문의: 김태완 간사(031-336-6350-2)

Why Missions 4기 훈련생, 조장, 섬김이 모집
 1. 훈련생
 9월 27일~12월 20일 매주 토요일 오후 3:45~8:00
 자격: 선교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
 회비: 3만원(식사 및 간식비)
 등록방법: www.owmc.or.kr에 접속해서서 로그인 왼쪽 하단 Why Missions 등록안내 클릭후 접수
 문의: 조요섭 간사(031-336-6350-2)
 2. 조장 및 섬김이
 자격: Why Missions 및 How Missions 수료자, 조장 및 섬김이로 도움주실 분
 문의: 조요섭 간사(031-336-6350-2)

☞ 제12기 intercp 감렘미션스쿨
 9월 20일~12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00~8:00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헌신자 및 관심자로 장년 및 은퇴자
 접수와 문의: 홍미경 간사(02-796-3541 교 225, 019-682-3375) www.intercp.net

에zell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지역 28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서빙고 청년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00 서빙고 두란노빌딩
 에zell 사무실 (704호)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 무릎선교기도
 9월 5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종족중보기도실
 등록: 개강후 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양재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Early in the prayer meeting at Yang-jae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유정제홀
 영어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선교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무릎선교기도
 9월 5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 종족기도실(9월5일 개강예배는 시온홀)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 667)

요나 일본선교학교
 9월 7일~11월 30일 매주일 오후 3:00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대상: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 (한국어 불어 있음)
 문의: 기타노 미노루 전도사
 (019-255-5874)
 황혜경 간사(793-9686 교 702)

01

성북공동체

아웃리치 함께 갑시다

성북공동체가 섬김섬교자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아웃리치를 떠날 팀원을 모집한다.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7박8일간 성북공동체는 타슈켄트와 사마라칸트 지역을 돌며 현지 선교사를 위로하고 선교를 향한 비전을 키운다. 성북공동체는 우즈베키스탄을 입양하고 이번 세 번째 방문인데, 2000년 전달한 선교헌금 1만불은 우즈베키스탄 초대 교회인 우미드교회(소망교회)를 짓는 기초 자금이 되기도 했다. 아웃리치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하영철 장로(924-4096, 019-294-5716)에게 하면 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부천 외국인 근로자예배 시작



지난 9월 14일(일), 부천 온누리 비전교회가 외국인 근로자예배를 시작했다. 이 날 방글라데시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처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으며, 부천 온누리 성도 3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예배 중

보기도를 이끌어 온 백정석 집사가 예배를 인도했으며 영어로 '생명의 삶'을 나누었다. 특히 추석을 맞아 고향 생각에 외로운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에게 부천 온누리 성도들이 풍성한 마음으로 그들의 허전함을 채워주었다. 또 특

별히 스태프들이 정성껏 준비한 뷔페 음식도 근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백정석 집사는 "지난 외국인 근로자예배 신문기사를 보고 여기 저기에서 도움이 손길이 모여준 비기도모임에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제목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며, "첫 예배를 빨리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주님과 성도들의 관심 덕분이다"는 말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천 외국인 근로자 예배는 매주일 오후 4시 부천 2층 예배당에서 열린다. 문의는 백정석 집사(011-446-7490)에게 하면 된다.

/ 한승현 ruby@onnuri.or.kr

03

수원 영어예배 창립

오늘(21일)부터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도 영어예배를 드릴 수 있다. 수원 영어예배는 서빙고 영어예배(1988), 양재 영어예배(2002)에 이어 세 번째 생기는 영어예배다.

수원영어예배 창립예배인 오늘 예배는 오후 2시 수원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리며 최정규 목사가 설교한다. 오는 28일부터는 매주일 오후 2시 수원 비전홀

에서 열리며, 칼 밀러(Carl Miller) 목사가 예배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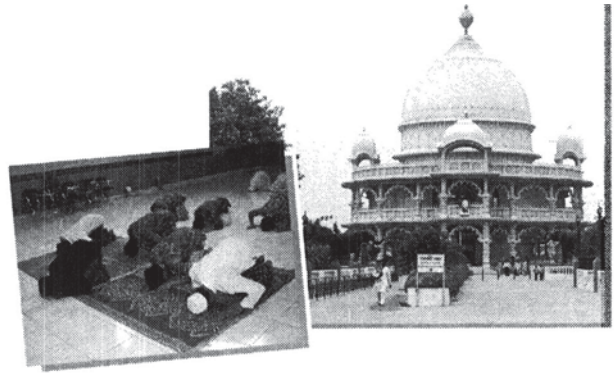
첫 예배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11시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수원 영어예배 준비모임이 있었다. 칼 밀러 목사가 진행한 준비모임에는 6명의 사역자와 예배 참가예정자가 모여 수원 영어예배의 진행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모슬렘 빙산을 녹이시는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연합해 나타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게 이방 종교 사람들의 도움으로 크게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선교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의 방향성은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해받은 성령 치유의 사역집회

며칠 전 A지역에서 영적, 육적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체육관에 모였고 '귀머거리 듣고, 눈먼 자 눈뜨고 앉은뱅이 일어나'는 주제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잔치는 종교적 배경을 막론하고 누구나 초대했기 때문에 회교도들이 많이 모였고 치유함도 많이 받았습니 다. 그러자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사역을 보고 시기했던 바리새인처럼 이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이 시기해, 이 집회는 원래 계획했던 5일을 채우지 못하고 분개하는 모슬렘 데모 대에 의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곳에서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모임이 해산된 지 나흘 후인 독립 기념

일, 수도에서 가장 큰 모스짓(회교사원)에 이 나라 이슬람 지도자들 대부분과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전국으로 생중계 된 이 집회에서 종교 지도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죄, 나라의 죄, 조상의 죄, 사회의 죄 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회교도들 집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니느웨에 멸망선포가 있을 후, 그 성의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언 수면 밑으로 흐르는 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A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회교 지도자가 "이번 A지역에서 한 사역집회는 어떤 특정한 종교집회라기보다는 하나님(알라)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집회였고 거기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공적으로 발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그 집회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잘못된 처사였다."고 아울러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그 데모를 주동했던 한 회교단체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과를 표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회교도와 모든 백성들이 그 사역집회에서 일어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신 사과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 종족이 복음화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만 일어나서도 안됩니다. 지속적인 복음 제시와 양육으로 지역 사람들의 세계관과 삶이 변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빙산의 수면 아래에 분명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믿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무장하고 특별히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지 교회들이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S종족인들을 위해 문을 열고 지속적인 가르침과 양육으로 S종족인들의 삶과 세계관이 변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김

4기 와이미션(Why Missions?) 훈련생 모집

평신도에게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와이미션 4기가 9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열린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요선 간사(031-336-6350-2)에게 문의하거나 www.owmc.or.kr 에서 접수하면 된다.

선교에 대한 열망과 선교사가 되겠다는 비전은 있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해야할지 몰랐다. 그러던 중 순장 모임에서 소개 받은 '와이미션(Why Missions?)'은 내게 주님의 신실하시고 섬세하신 인도하심이였다. 교회 안에서 선교훈련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선교하는 교회였기에 파격적으로 저렴한 훈련비 등이 그러했다.

주님의 신실한 인도로 만난 와이미션

선교는 하나님께 먼저 사랑으로 선교 당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김사무엘 목사님의 강력한 첫 개강 메시지를 잊을 수가 없다. "주님! 제가 드디어 이 자리에 있군요" 하고 매시간 평평 눈물을 쏟던 일, 선교사들의 삶과 눈물이 배어있는 생생한 강의와 양화진 탐방, 무릎 선교사로 헌신했던 마지막 M.T, 열심히 강의 에세이와 독후감을 쓴 기억이 새롭다.

1기로 졸업한 후 2, 3기의 조장으로 섬기면서 더욱 구체적인 선교지침을 배울 수 있었고, 같은 마음(Vision)으로 모인 조 지체들과의 뜨거웠던 교제와 중보 역시 많은 배움과 도전이 있는 시간들이었다.

'왜? 어떻게? 이렇게!'

그러는 중에 하우미션(How Missions?)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것은 와이미션을 마친 훈련생들이 아웃리치라는 형식으로 실제 필드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우미션을 준비하는 내 마음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끊임없이 질문했었다.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이 과연 내 관심과 소원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선교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실까? 나는 너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직장을 내려놓고 이라크를 향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아웃리치에서 내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응답해주셨다.

나는 보았다. 알라가 쓰레기만 모아 버려둔 땅이라는

아프간'에서 나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탈레반 정권 동안 한번도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시원스런 호수가 있음을 보며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 땅 흘러감을 보았다. 그리고 '보았니? 딸아. 내 영광 가운데 너도 참여치 않았니?' 하고 나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제발 잘 사용해 주세요!!"

"주님 잘 사용하소서"

지금 나는 '이라크 교회 개척팀'과 한 팀을 이루어 훈련받고 있다. 훈련을 받으면서 나와 같이 헌신한 한 사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팀으로는 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인생 지도그리기(Life Mapping)를 통해 인생의 행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삶의 새로운 전환점(Turning Point)으로서 내 삶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한다.

그 분이 함께 가시고 이미 앞서 행하셨기에 이제 두렵지 않다. 우리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섬기려고 떠나려 한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What Mission)이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지금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김경희



▲ 사막처럼 삭막한 이라크땅에 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우미션팀들과 함께 ECC의 담장에 그린 해바라기 벽화(김경희 자매: 왼쪽에서 네 번째)

01



▲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서회부대를 방문, 부대 안에 막사 교회인 '갈대아 우르 광야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

이라크에 온누리비전교회가 생긴다.
 김사무엘 목사는 노규석 전도사와 함께 이라크 교회 개척을 위해 9월 18일 바그다드로 출국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라크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김사무엘 목사는 중동실업인연합회측으로부터 한인교회를 개척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줄곧 한인교회 개척을 준비해왔다. 이라크의 한 장로교회는 주중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사무엘 목사는 12월 창립예배를 드리기 위해 현지에서 실제적인 준비를 할 예정이며, 단기선교사 6명도 10월초 출국한다.
 이들 개척팀은 10월 중 들어올 평신도 사역자들의 숙소와 이라크에서 펼칠 NGO구호사역을 준비한다. 이라크 비전교회는 현지 장로교회 건물을 사용하게 되며 이라크 교회 현지인 리더십을 양육할 계획이다.
 한편, 2천 선교본부는 이라크에 개척되는 한인교회 초기 개척 사역을 도와 줄 성도를 모집한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라크에 거주하며 교회 개척 준비부터 교회 설립에 힘이 되어 줄 성도를 30여 명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는 신원석 간사(793-9686 교 216, 019-377-9480), 황민식 간사(793-9686 교 208, 016-748-8723)에게 하면 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이라크 온누리비전교회

이라크에 천국의 문을 연다

《 기도해주세요 》

'개척팀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김사무엘 목사

지금 이라크만이 아닌 아랍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교기지의 그림이 보입니다. 아랍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20여국 3억 아랍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랍 20여국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세미나, 사이닝 글로리, 일대일, 큐티 등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 훈련원도 세우길 원합니다. 교회개척과 NGO 구호사역, 숙소를 알아보는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라크 개척팀의 안전을 기도해주십시오. 잠자리, 숙소, 식사, 40도가 넘는 뜨거운 기온 등 악조건을 이기고 개척팀이 잘 적응하도록, 이라크 사람들과 관계유지를 잘 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온누리의 영성이 이라크에 흐르길 기도합니다'



노규석 전도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교의 꿈을 키워왔는데 이번엔 이라크 교회 개척을 위해 파송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를 통해 온누리의 영성이 이라크에 흐를 수 있도록, 팀원들의 안보를 위해, 팀원 영육간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같이 가는 팀이 하나되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02

파송 선교사 인터뷰



최권능, 윤예지, 다니엘, 요한 (소아시아-인터콥)

소아시아로 단기선교를 갔을 때 최권능, 윤예지 선교사는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흥시키려고 날 부르시는구나' 직감했다. 경배와찬양 훈련을 받으며 선교에 헌신했던 두 선교사는 97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간 소아시아 아웃리치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소아시아를 회복시키신다"

"소아시아로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는 비전과 부르심을 받고 장기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최선교사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고, 윤 선교사는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지역 아이들에게 음악 레슨을 하며 하나님께서 사역을 인도해주시길 소망한다.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독립적 교회가 세워지고 12명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저희 부부와 8살, 5살인 아이들이 현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도록, 그리고 저희 가족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해주십시오."



권미향 선교사 (동북아시아-경찬)

96년 1월 경배와찬양 학교에 참석해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권미향 선교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던 우선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겠다 결심하고 토요헌신자 훈련을 받았다. 그러던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지역 아웃리치를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한 달

"고이와 객을 위한 사역을 하렵니다"

가까이 생활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선교에 헌신했다.

"선교에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이와 과부, 객을 돌보는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중 방치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싶습니다." 권 선교사는 "선교지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살 수 없는 곳이기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처음 개척하는 지역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이끌어주시길" 중보 부탁했다.



탁광복, 김기쁨 선교사 (말레이시아-HOPE)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하루 다섯 번씩 헛되이 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한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면 모슬렘들에게 참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겠다고 고백했고, 모슬렘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탁 선교사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대학에서 문화인류학 관련 교수사역을 통해, 김 선교사는 모슬렘 여성들에게 한국요리와 웹 디자인 등 가정사역과 관련하여 복음의 접촉점을 찾은 예정입니다.

탁 선교사와 김 선교사는 사역의 최종 목적을 교회 개척에 둔다. 모슬렘 가운데 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길 소망한다.

"성령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도록, 저희 가족이 선교지에 잘 적응하고 좋은 공동체와 동역자를 만나도록, 선교지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온누리미션 추석잔치

“성숙한 제자로 커 갑니다”



한국에서 나그네 된 온누리미션 외국인 형제들이 이번 추석명절에 자신의 본향에는 가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추석을 보냈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는 온누리교회와 양지세계선교센터수련원, 서울중앙침례교회수양관, 군포하나로센터에서 추석행사를 했다.

네팔예배는 군포교회, 주빌리선교회, 주안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연합으로 10일부터 2박3일간 한동홀에서 1백여 명이 모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제로 6차례 말씀 강의를 했다. 파란교회 망갈 만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이란어예배는 엡슨(Edison) 목사를 초청해 서빙고 304호에서 2박3일간 추석 집회를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예배는 11일부터 13일까지 두란노홀에서, 몽골예배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중앙침례교회 수양관

에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11일과 12일 양지세계선교센터 수련원에서, 미얀마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군포하나로센터에서 추석 행사를 했다. 올해도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간식준

비, 설거지, 이부자리 관리 등을 도왔다. 그러나 외국어예배 지체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섬기며 예전보다 자립한,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오유나(Oyuna) 재 (몽골예배)

“하나님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재한 몽골인 2003 추석수련회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중앙 침례교회 수양관에 서 ‘디아스포라’는 주제로 열렸다. 총 13개의 교회에서 몽골인 3백30여 명이 참석했고 몽골에서 어뜨경바이르 목사(아리웅온네스 교회 담임)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는 모두 90여 명이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중 대부분은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

람들도 수련회에 많이 보내주셨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넘쳤다. 많은 몽골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들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쁘게 손뼉 치며 노래를 불렀으며 함께 춤추며, 기쁨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힘을 얻었다.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담손히 치로나 선물 또는 도움을 받으려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님께서 우리들

에게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흠어져 있는 몽골 사람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도 주셨다.

섬도 없이 우리를 위해 봉사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같은 생각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주안에서의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이곳 한국 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이번 수련회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어예배 추석잔치

“결신 시간에 일어난 사람이 19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꽃은 40송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줄만 달아줬어요. 믿음의 없는 우리들은 모두 놀래버



렸습니다.” 황종연 목사(중국어예배 담당교역자)가 말한다. 중국어예배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라는 주제로 10월(수)과 11월(목) 연 한가위 전도집회에 주재원, 유학생, 근로자 등 중국인 2백 3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어예배 사모십 명을 제외한 모두가 온누리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들이었다.

190명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장순천 전도사(중국어예배)는 “오리엔테이션부터 사람들을 4조로 나눴습니다. 조원들끼리 교제하며 탐워크를 다져 새로 온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편안한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며 이번 집회의 특징을 말했다.

조별로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조끼를 입은 참석자들은 10일 오후 용강중학교에서 줄다리기, 달리기, 응원 등 운동회를 했다. 중국식 탕수육 ‘궈바호뎡’, 왕새우튀김, 양송이볶음, 쇠고기고추

볶음 등 고향 음식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2003년 새롭게 바뀐 고용허가제 설명도 들었다.

이광재 전도사의 색소폰 연주, 김은희 재배의 찬양과 열린예배팀의 스킷드라마도 큰 호응을 얻었다.

친구를 따라 왔다는 정영장 씨는 “한국에 온 지 1년 됐는데 일하느라고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며 “동포들과 함께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서 좋다”고 말했다.

예배는 9시가 넘어 시작됐다. “우리 모두는 길과 진리, 생명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라고 설교를 시작한 황종연 목사는 “우리가 찾던 길과 진리,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찾고 계신다”며 예수님께 나오길 당부했다.

이어진 결신시간에는 19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중국어예배는 전도집회 결신자를 제자로 양육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돌볼 예정이다. 황종연 목사는 말한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기까지 돌보는 것이 저희 중국어예배의 비전입니다.”

JDS 부부팀 아웃리치

“일본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JDS 부부팀은 지난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동경 오메, 하치오치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찬양, 위식, 간증으로 일본 성도와 함께 하고, 김치, 비빔밥 교실 등의 사역을 했다. JDS 부부팀은 메이지신궁, 천황의 묘지가 있는 타마고로 등에서 땅 밟기 기도를 했고, 우연히 일본 천황을 만나 인터뷰도 했다.



이승훈 팀장

아웃리치 장소를 결정하기가 힘들었다. 일본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많은 아웃리치팀이 와서 우리 팀을 흔쾌히 받아들 줄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JDS 팀장님께서 동경 YM 베이스를 소개해 주셨다. YM의 유형진 선교사를 통해 영성준 목사님을 소개 받아 주일 예배사역, 김치교실, 비빔밥교실, 문화사역 등 각 사역을 준비했다.

하치오치교회 예배

8월 10일, 우리 팀은 하치오치교회 켄지 목사님의 9인승 승합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연휴 행사차량 때문에 정체가 심해서 예배시간을 10분이나 넘겨 교회에 도착했다. 30여 명의 교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핸드벨 연주곡이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 인 점이 뜻밖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팀은 초승달 대형으로 서서 일본어로 한마디씩 인사말을 하고, 찬양, 위식, 간증을 했다. 찬양은 일본어로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했는데, 현지교회와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 노인들만 고집 있는 이가 없는 하치오치교회에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춘 힌찬 찬양이 무척 새롭고 감동스러웠다는 말씀을 한 장로님이 나중에 해주셨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의 음악에 맞춘 위식댄스에서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체험했다. 원불교 신자였던 유인옥 자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용의 신앙간증을 했다.

일본인과 접촉점이 된 요리교실

교회와 주민의 접촉점을 자연스럽게 마련해 교회에 덕을 끼치겠다는 목표로 김치교실과 비빔밥교실을 열었다. 사역에 앞서 우리 팀은 요리교실 사역의 의미를 되새겼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신선한 내용의 선교 프로그램 발굴이 중요한데 요리교실이 이런 프로그램의 실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했다. 한편 요리법을 가르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 주신 자유함 속의 겸손을 사역의 기본 자세로 삼았다.

11일, 김치교실은 정미원 자매를 중심으로 자매들이 연합하여 현지에서 배추를 구입, 밤늦게까지 준비했다. 최혜경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셔서 김치교실은 원만히 진행되었다. 참가자 18명은 자신이 담긴 김치를 갖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팀은 돌아가는 분에게 교회입구에서 축복송을 불러주었다.

12일에는 비빔밥교실을 열었다. 정경옥 자매를 중심으로 자매들이 연합하여 준비했는데 전지크기로 준비한 화려한 레스피는 참석자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직접 만든 비빔밥을 함께 먹으며 교제했다. 현지교회의 요청으로 오후 시간에는 참석자를 모시고 팀이 준비해간 특별찬양을 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눈사를 붙히며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다.



천황과의 만남, 천황거주지에서의 중보기도

비빔밥교실 후에 켄지 목사로부터 천황의 유래와 전개 과정, 일본인에게 천황의 의미 등의 강의를 들었다. 2차 대전 이후 히로히토 천황이 '천황은 신이 아니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게 천황의 이미지가 깊이 뿌리박혀 있으나, 이 생각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다. 강의 후 오후 4시쯤 천황의 묘들이 있는 타마고로를 찾았는데 아쉽게도 참배시간이 지났다고 했다.

다음 날(13일) 우리 팀은 메이지신궁을 찾았다. 이곳은 한일합방을 주도한 천황의 신사인데 우리 팀은 타마고로에서 하지 못한 기도를 메이지신궁을 돌며 했다. 마지막 코스로 천황이 살고 있는 황거를 둘러보기 위해 지친 다리를 끌며 동경역에서 황거 쪽으로 걸었다. 황거의 정원이 시작되기 직전 거리에 20~30명의 사람들이 방송 카메라들과 함께 응성 거렸다. 천황 내외가 산책을 나와 경호원들과 행인 몇몇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메이지신궁에서 천황의 허상을 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눈앞에 천황이 있는 것이었다! 신기할 일이라 여겼다.

그런데 우리더러 천황부부와 인사하고 인터뷰를 해 달라고 했다. 엉겁결에 한 형제에게 등 떠밀려 천황과 수인사하며 의례적인 말들을 나누었다. 김석인 형제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일본 선교여행을 왔다고 우리를 소개하였다. 천황내외가 가고 나자 NHK와 후지TV에서 천황 만난 소감을 묻는 인터뷰를 했다. 생방송 되고 밤 11시에 재방송이 된다고 했다.

우리 팀은 천황을 만난 일에 자못 흥분했다. 나도 내심 놀랐지만 금세 자책감이 찾아왔다. 천황에게 복음의 '복' 자도 꺼내지 못한 나의 경황없는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복음의 징표를 가지고 복음에 준비된 자여야 된다는 바울 사도의 질책이 함께 눈에 밟혀왔다. 우리들은 황거의 정원 한 켠에 앉아 천황의 허상이 일본인의 가슴에서 깨어지고 천황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꿈꾸며 중보기도를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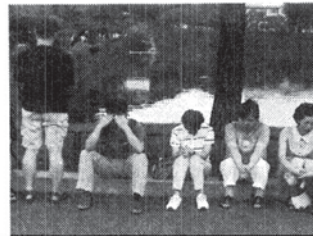
더욱 커져가는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오는 날(14일) 새벽부터 비가 퍼부었다. 나라타 공항까지 배운 나온 염 목사님 내외와 작별하고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했는데 항공기에 문제가 있으니 모두 내려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우리는 사전에 결함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항 한 켠에 둘러앉았다. 우리는 아웃리치 이후의 마무리 사항들을 논의 하는 회의시간으로 활용했다.

5박 6일간의 짧은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감당하기 힘든 은혜를 주셨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낚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시편 46:10)라는 말씀을 아웃리치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팀원들간의 연합이 더욱 공고해지는 아웃리치, 준비한 것보다 100배 풍성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웃리치, 하나님의 마음을 맛 본 아웃리치였다.



▲ JDS팀은 동경 아웃리치에서 우연히 일본천황을 만났다. 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기도하며 요리교실, 땅 밟기 기도사역을 했다.



“광활한 땅에 하늘의 은혜를 채우라”

2003년 8월 12일 김평래 목사, 김은화 사모, 전영수 팀장, 조혜숙, 이명자, 문장혜, 김선심, 이해성, 우승구, 이은정, 박지연 그리고 김선심 집사의 딸 김민지 어린이 총 12명은 몽골 땅으로 떠났다. 이들은 한 달 전부터 몽골어 찬양, 드라마 연습, 몽골 전도용 회화, 기도회 등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이해성

몽골 사역지 방문

오전 7시30분 몽골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아웃리치팀은 오전 11시경 몽골에 도착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쾌청하고도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이 반겨주었다.

몽골은 인구의 80% 이상이 라마 불교와 토속신앙을 믿고 있다. 브리야트족은 몽골 인구중 6% 밖에 되지 않는 소수민족이다. 1997년 강서김포공동체는 이들을 입양했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브리야트족을 방문했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뒤섞인 혼란 속에 방치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밝은 미래학교'는 말 그대로 밝은 미래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다. 우리팀은 제일 먼저 이 학교를 방문해 함께 식사하며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학생들을 만났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몽골의 영적 고지인 자이승(전승기념탑)이었다. 이곳은 토속무속신앙인 어머 돌무더기가 있어 몽골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와 자신들의 소원을 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이상승배의

터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를 했다.

8월 13일 둘째날 새벽 4시30분에 일어나 우리의 목적지인 빈드르를 향해 출발했다. 비포장도로를 12시간 걸려 가는 길이었다. 몽골 대자연의 푸름 속에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위로 한가로이 거니는 소, 말, 낙타 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가다 서는 곳이 화장실, 우리 스스로 만든 즉석 휴게소 등 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특히 지평선 끝에서 지평선 끝으로 이어지는 쌍무지개는 천사들이 내려온 것 같이 아름다웠다.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한지 13시간 만에 도착한 빈드르리는 전기와 전화도 없고 물도 귀했다. 밤늦게 강한대 선교사를 만나 숙소에서 몽골식 고기만두를 먹은 뒤 각자 개인 침낭 속에서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했다.

현지 주민 15명이 결신하다

8월 14일 셋째날, 오전 6시지만 어둠 속에서 랜턴을 비춰가며 QI를 나누었다. 식사 전 우리 모두 라마 사원 앞에서, 학교와 기숙사 앞에서 땅밭기를 하며 하루 빨리 이 땅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땃들사역팀, 바트쉬레트팀, 빈드르잔류팀 등 세 조로 나뉘어 사역을 시작했다.

땃들사역팀은 트레터로 차를 견인해 어농강을 건넜다. 캄캄한 밤길을 한참 달려 오후 10시30분쯤 땃들 진흥하이르 교회에 도착했다. 선발대와 교회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후 진흥하이르교회에서 다음날 해야 할 사역들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땃들 밤하늘은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반짝거리는 별천지였다.

8월 15일 새벽부터 내리는 비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땃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사역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진흥하이르 교회 교인들과의 예배를 드렸고, 오후에는 2개조로 나누어 전도사역과 미용사역을 했다.

저녁에는 교회에서 현지주민을 초청해 집회를 했다. 집회를 위해 굶어진 빗길 속에서도 우의를 입고 가정을 방문해 전도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발길을 재촉했다. 교회에서는 인기 만점 미용사역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밀려들었다. 전도팀은 사명리로 전도를 했다. 많은 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복음의 씨앗이 몽골 땅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드디어 저녁 7시 초청집회가 시작되고 대원 중 불교신자였던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간증, 우리팀 귀염둥이 10살 민지의 편지 낭독, 현지 몽골

사역자 어기의 찬양, 드라마 '산', 김평래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 말씀을 거처며 성령이 역사하시어 모두 15명이 결신을 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8월 16일 다섯째날 이제 땃들을 떠나 울란바토르로 떠나야만 한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출발하려는데 진흥하이르교회 성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했다. 울란바토르에서 빈드르까지 13시간 왔고, 빈드르에서 땃들까지 4시간30분 걸려 왔던 이 광활한 대지를 다시 거슬러 울란바토르로 가야 했다. 무려 18시간이나 멀찍거리는 차를 타고 가야함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힘들어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에서 발견한 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음으로 마냥 기쁘고 감사가 넘칠 뿐이었다.

어농강에 도착했을때 밤새 내린 비로 물이 불어감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2시간이나 더 돌아서 가야했다. 이동시간이 20시간으로 늘어났지만 감사했다. 우리는 오는 도중 몽골에서 보기 힘들다고 하는 하얀 늑대를 볼 수 있었다. 하얀 늑대를 보면 행운이 온다고 믿는 몽골인들이었다. '하나님, 하얀 늑대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운을 몽골인들이 갖게 해주세요.'

8월 16일에 떠난 팀은 17일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울란바토르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우리는 오전 11시에 울란바토르 하이르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힘있는 찬양이 넘치는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다.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길

아웃리치 마지막 날인 18일, 비행기 좌석이 부족해 한 팀은 오후 4시경, 또 한 팀은 오후 7시 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팀원 모두는 커다란 비전을 품을 수 있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귀국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분이였다. 이번 아웃리치는 강서김포공동체가 현금과 기도로 후원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빈드르 지역에 교회 처소가 빨리 마련되고 사역자가 파송되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 몽골이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 전도팀은 비를 맞으며 땃들 지역에서 전도를 했다. 빈드르리는 미용 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9월 22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101호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소아시아공동체 열매안팀 (017-278-3376)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9월 22일(월) 오후 7:30 서빙고 아문기도실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모임
 9월 29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4호
 말씀: 박종길 목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베넬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 서빙고 301호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에zell선교회 정기모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24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에zell선교회 사무실 두란노빌딩 704호

선교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9월 29일~10월 1일 사랑의교회
 강사: 제임스 엔젤(Dr. James Engel), 헨리 헤이버(Henri Haber), 울프강 라이더너(Wolfgang Riedner)
 참가비: 5만원(점심, 교재포함)
 마감: 9월 20일
 주최: GMF MAK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우물선교기도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총중보기도실(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부천 외국인예배
 매주 일 오후 4:00 부천온누리비전교회 2층 예배당
 *외국인 근로자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백정석 집사 (011-446-7490)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훈련스태프와 유치원스태프 구할

1. 훈련스태프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형제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2. 유치원스태프
 자격: 대졸자, 선교헌신자, 선교경험자, 자매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비전
 문의: 김태완 간사(031-336-6350-2)

Why Missions 4기 훈련생, 조장, 섬김이 모집

1. 훈련생
 9월 27일~12월 20일 매주 토요일 오후 3:45~8:00
 자격: 선교에 대한 감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
 회비: 3만원(식사, 간식비)
 등록방법: www.owmc.or.kr에 접속해서 로그인 왼쪽 하단 Why Missions 등록안내 클릭후 접수
 문의: 조요섭간사(031-336-6350-2)

2. 조장과 섬김이
 자격: Why Missions 및 How Missions 수료자, 조장과 섬김이로 도움주실 분
 문의: 조요섭간사 (031-336-6350-2)

제12기 intercp 갈렙미션스쿨
 9월 20일~12월 27일 매주 토요일 오후 4:00~8:00
 대상: 미전도총족 선교헌신자와 관심자로 장년 은퇴자
 접수와 문의: 홍미경 간사(02-796-3541 교 225, 019-682-3375) www.intercp.net

*

01

제4기 와이미션(Why Mission?) 시작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하는 와이미션 4기가 9월 27일(토) 입학 예배를 드리고 12주간 항해를 시작했다. 김사무엘 목사가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를 강의한 후 지난 와이미션 졸업생인 김경희 졸업생이 간증을 했다.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조를 나눈 후 조별모임을 한 후 중보기도와 축도

로 첫 강의를 마쳤다. 와이미션은 12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45분 양재 두란노홀에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현황과 전략적 선교, 선교사의 부르심과 삶, 선교캠프 등을 공부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수원교회 첫 영어예배



수원온누리비전교회는 지난 주일(21일) 첫 영어예배를 드렸다. 오후 2시 수원교회 본당에서 시작한 영어예배는 칼 밀러 목사(Carl Miller, 수원영어예배 담당)

가 인도했으며 외국인 성도를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다. 칼 밀러 목사는 "서빙고와 양재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수원교회 영어예배는 소그룹 모임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비전을 나누었다. 이 날 설교는 최정규 목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전했다. 예배 후에는 다과와 함께 참석자 모두가 교제를 나누었다. 앞으로 수원 영어예배는 매주 일 오후 2시 비전홀에서 열린다.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03

"흠, 스위트 흠"



일본 교회 부흥 비전을 선포했던 작년 11월 하코네 부흥성회에 이은 제 2회 온누리 축제가 10월 29일(수)부터 31(금)까지 일본 도쿄하시

에서 열린다. 온누리 축제는 동경, 오사카, 우에다, 아찌오, 요코하마 등지에 있는 일본 온누리교회 뿐 아니라 일본 현지교회 목회자와 성도도 함께 참여한다. 올해는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일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용조 목사와 오오가와 목사(일본 갈보리채플 담임)가 집회 설교를 하고 선택강의 시간에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학교를 진행한다.

일본 온누리축제에 참석하기 원하는 성도는 2천 선교사무실(서빙고 선교관 2층)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10월 18일이며 소요경비는 70만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2천 선교 이윤정 간사(793-9686 교 209)에게 하면 된다.

◎ 이번 수련회의 방향은?

올해 수련회의 테마는 '가정'이다.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가정회복에 중점을 뒀다. 일본에서 가정 회복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선택식 특강 시간에는 김성목 장로가 아

명왔지만 올해는 더 많은 일본인이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 하코네 수련회와 다른 특징은?

작년 하코네 집회는 하용조 목사가 집회 메시지를 모두 전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인 '갈보리채플' 담임 목사

린다.

◎ 성도들에게 한 말씀

작년 하코네 집회 직후 한 일본인 성도는 '지식적인 일본 성도에게 은혜의 파이프를 놓았다'고 표현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련회는



일본교회 수련회 준비하는 장재운 목사와 함께

"일본을 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버지학교, 이기복 권사가 어머니 학교, 공진수 목사가 결혼학교를 맡아 진행한다. 결혼학교는 결혼하고 5년 이내인 부부를, 아버지학교는 남성, 어머니 학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느낌으로 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성찬식과 세례식도 준비했다. 때문에 작년 하코네 수련회에는 일본인이 2백 여

이며 일본 기독교계에 영향력이 있는 오오가와 목사님이 함께 메시지를 전한다. 갈보리 채플은 1천 명이 모이는 교회이며 이번 9월 15일에 신주쿠에서 가까운 하찌다이에 1년 365일, 매일 예배를 드리는 '동경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창립했다. 이곳에서는 매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오후 5시에 예배를 드

'가정'이 주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가정은 문제가 많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집회다. 그렇기에 한국 성도들도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일본을 조명해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일본에 마음을 품는 계기가 될 이번 수련회에 한국 성도가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기독병원' 이름으로 자리 잡아 갑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께 인사드립니다.

고람톨라 기독병원의 이전 이름은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 Program-Karamtola' 이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병원 같지도 않고, 기독교적인 분위기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가까이 사는 마을 주민들도 이곳이 병원인줄 모르고 먼 병원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써넣기로 했습니다. 고람톨라 기독병원(Kalamtola Christian Hospital)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글라데시인 이사는 '크리스천'이란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압박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한편에선 병원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크리스천임을 한번도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주장해, 결국 압박을 예상하면서도 크리스천이란 글을 넣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기독병원이란 것에 반감을 나타내긴 하지만 직접적인 압박은 없으며 점차 이 이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슬렘 나라에서 '크

리스천 병원'이란 이름 하에 병원을 운영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

병원에 수술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크고 작은 수술 약 170건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 탈장, 맹장염, 언창이, 유방종양, 항문 질환 등을 직접 척추 마취까지 하면서 수술하고 방글라데시인 의사 품거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수술실을 세팅하고 수술실 간호사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진료비가 싸고, 외국인 의사가 있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우므로 저렴하게 치료를 해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적은 월급 때문에 하소연 할때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 주고 싶어도 40명이나 되는 직원의 월급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환자들에게 받는 진료비를 올리면 환자

들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턱이 높지 않은 좋은 기독병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공휴일은 금요일입니다. 때문에 저희 병원도 평일인 일요일에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동안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특별히 주일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람톨라 마을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병원에는 현지인 전도사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바수멜과 쇼븐, 데이빗 전도사가 전도에 사용할 성경과 전도지, 작은 선물을 준비해 거의 매일 전도 활동을 합니다. 전도한 환자의 집에 심방가는 일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마을에도 교회가 생기길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드리며 항상 저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사무엘, 이현영, 준용, 주영 드림

기도제목

1. 고람톨라 기독병원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여 구제하는, 살아있는 기독병원이 되길. 그 이름을 대적하고 핍박하려는 우리들을 성령님이 제압하여 주시길.
2. 수술환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3. 9월 중에 현지 지역 단체의 사업 승인과 제 노동 허가가 속히 나오도록.
4. 10월 20일~24일 태국에서 열릴 지 피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5.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양재 중등부 인도 비전여행 소감문

양재 중등부 학생 11명과 선생님 5명은 지난 8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인도의 마드라스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 인도 전도여행팀은 벵갈로르 지역의 기독교교회와 커피하우스, 교아원 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 인(양재 중등부)

인도는 세계적인 문화의 나라입니다. 그 문화를 관광 하려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힌두 사원을 갔다 올 때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힌두 사원의 입구에 높이 16m정도의 금탑이 있었는데 이것이 100% 순금으로 만든 탑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탑을 만들 때 든 돈이 하나님을 위해 쓰였으면 더욱 더 나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갔는데 인도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 하는 것을 보고 인도 아웃리치에 있는 스케줄을 따라 봉사하며 전도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발에 뽕증이 심해서 봉사를 모두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상처도 입었지만 항상

형, 누나들이 저를 위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형, 누나가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에 기운을 내고 활동 했습니다. 여자학교, 교아원, 인도 교회에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힌두 사원을 갔다 올 때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힌두 사원의 입구에 높이 16m정도의 금탑이 있었는데 이것이 100% 순금으로 만든 탑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탑을 만들 때 든 돈이 하나님을 위해 쓰였으면 더욱 더 나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소그를 때 도망만 다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욱 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가까이 갈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큰 것을 얻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박준석(양재 중등부)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십니다. 인도에도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기도중에 저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습니다. 화나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행동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의 모습에서, 소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능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능력을 사용할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드미션 넷 'POWER LINK'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

'내가 원하는 선교 정보와 사이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성도는 이제 월드미션넷 파워링크(mission.onnuritv.com)에서 고민을 해결할 수있다.



선교정보와 기독교정보를 한 곳에 담아내는 '선교 페이지 파워링크'로 월드 미션넷이 종합 선교 정보 사이트로 거듭났다.

ARS 선교후원 사이트
"이라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메말라 버린 불모의 땅, 이라크!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ARS 선교후원 사이트는 성도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진다. 모금한 선교현금은 '이라크 현지 교회 개척지역'과 '구제지역'의 소중한 선교재원으로 활용한다.



*컨텐츠:이라크 현지 동영상(15분), 현장 갤러리, 선교지 정보, 중보기도게시판 등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모임
9월 29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304호
말씀: 박종길 목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태완,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TIM(두란노 해외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월요기도모임
10월 6일(매달 첫째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온우선교회
문의: 박소영 간사(794-1063~5)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애플
문의: 김은영 (011-474-5478)

6기 인터넷 청소년 비전 스쿨
10월 11일(토)~11월 22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3:00~6:00
대상: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해 알기 원하는 신대 청소년(중1~고3)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묵상, worship, 공동체훈련,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21세기 세계의 모습과 다양한 선교방법
접수와 문의: 강유미 간사 (796-3541 교 6, 016-645-4221) intercp-yo@hanmail.net

에펠선교회 정기모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24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에펠선교회 사무실 두란노빌딩 704호

선교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9월 29일~10월 1일 사랑의교회
강사: 제임스 엥겔(Dr. James Engel), 헨리 하이버(Henri Haber), 울프강 라이더너(Wolfgang Riedner)
참가비: 5만원(점심, 교재포함)
마감: 9월 20일
주최: GMP, MAK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793-1738, 011-9947-3146)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우절제홀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 금요 특별 중보 기도 "이스라엘회복을 위한 강령의 기도"
9월 26일, 10월 3일 오전 6:30 양재 온우홀
강사: 송만석 장로(KIBI)

부천 외국인예배
매주 일 오후 4:00 부천온누리비전교회 2층 예배당
*외국인근로자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백정석 집사 (011-446-7490)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9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9월 30일(화) 오후 7:30~9:30 서빙고 306호
내용: 9월 4일 우크라이나 오뎃사 항구를 출발, 8일 이스라엘 하이파에 도착하는 배를 타고 이스라엘에 다녀온 EEF Korea/ KIBI대표이신 송만석 장로와 김혜리 권사 보고 중보기도
문의: KIBI(792-7075)

장막절
기념행사 10월 12일, 세미나 10월 9일~10일
문의: KIBI (792-7075~6)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람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인디모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
10월 2일 목요일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00~9:00 서빙고 유아실
문의: 이요셉 (016-346-8460)

일어 예배 수련회 탁아봉사자
10월 3일 오후 7:00~4일 오후 6:00 1박 2일 수련회를 위한 탁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접수 시간은 100분 정도입니다. 1박을 하게 됩니다. 일어를 할 수 없어도 됩니다.
문의: 황혜경 간사(793-9686 교702)

01

선교센터 이슬람선교세미나

세계 선교에서 최후의 보루가 될 이슬람 선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앞으로 비전을 알아볼 제 2회 이슬람 선교세미나가 15일(수) 오후 6시 30분 서빙고 한동홀에서 한다.

남아공 출신으로서 국제 OMF 이슬람 선교 디렉터이며 풍부한 상황화 사역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드니 윌부이(Sydney Witbooi)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이슬람 선교 사역 경험과 전도방법 등을 듣는다. 자세한 문의는 온누리세계선교센터 김태완 간사(011-336-6350~2, www.owmc.or.kr)에게 하면 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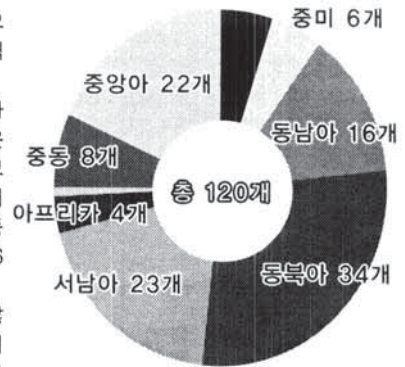
선교지 교회 20개국 120개

9월 26일 현재 온누리교회가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지교회는 20개국 77개지역 120개 인것으로 집계됐다.

2천선교팀에 따르면 온누리출신 선교사가 세운 교회는 74개, 협력·후원 선교사가 세운 교회는 4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34개로 가장 많고, 서남아시아 23개, 중앙아시아 22개 순이다. 그리고 동남아시아(16개), 중동(8개), 남미(6개), 중미(6개), 아프리카(4개), 유럽(1개)이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 보면 스리랑카가 22개로 가장 많고, 중국(18개), 우즈베키스탄(14개), 인도네시아(12개), 일본(11개), 도미니카(6개), 터키(5개) 순이다.

/ 서철 chol@onnuri.or.kr



선교지 교회 현황 (9.26 현재)

03

지구촌 곳곳에서 쓰는 Acts29이야기



‘흙씨’ 발간

선교의 황금기, 복음의 추수기를 맞아 지난 18년 동안의 온누리 선교 역사와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들의 이야기, 선교 정담기를 엮은 책자 ‘흙씨’가 발간됐다.

커버스토리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이 땅을 품으라-몽골’, ‘우상숭배의 나라 일본이 깨어나고 있다’, ‘선교의 산실-온누리 선교기관, 한남동 기도모임’, 고 박승철 선교사, 조성록 선교사, 이육연 선교사 인터뷰 등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선교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2천선교본부는 ‘흙씨’를 온누리비전교회와 선교지, 각 공동체에 배부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이라크 한인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물품모집

이라크 북음와의 첫 발을 내딛은 이라크 한인교회가 크리스마스 행사물품을 모집한다.

이라크 한인 교회는 이라크에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에 이라크 성도들에게 생필품과 어린이 용품 등을 나눠 줄 계획이다. 후원 물품은 성인과 어린이 옷, 신발, 가방, 주방용품, 장난감, 학용품 등이며 가능한 재고품이나 새 것이 좋다.

은누리 성도가 보내는 선물을 이라크 현지인들이 크리스마스에 맞춰 받으려면 10월 말 경엔 보내야 하므로 10월 26일까지 약한 컨테이너(약 5톤 분량) 분의 현물을 받는다. 물품을 보내기 원하는 성도는 2천선교본부 신원석 간사(795-9085 교 216)에게 전화 접수 후 가져오면 된다.



이라크 한인교회는 이번 10월 6일 이라크로 들어가는 견습선교사 6명과 10월 10일(금) 첫 예배를 드리고 12월 5일(금) 이라크 한인교회 개척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은 겨울 의류와 교육기자재, 학용품, 장난감을 후원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두란노 해외선교회 최진혁, 박희창 간사(794-1063~5)에게 하면 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우리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

KIBI 10월 11일~18일 장막절 행사

키비(KIBI: Korea Israel Bible Institute)는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빙고 2천/1만 광장에서 장막절 행사를 한다. KIBI는 이 기간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장막과 장막절 행사 물품을 전시하고, 12일에는 장막절 영상방영, 히브리 찬양, 전통 유대인 복장 기념촬영, 음식 바자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

또한 10월 9일(목) 서빙고 경천홀과 10일(금) 서빙고 시온홀에서 오후 7시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양목 목사), △열방에서 모시는 하나님(송만석 장로), △맑은 물로 씻기시는 하나님(김해리 권사), △생기를 대언케 하시는 하나님(이경옥 선교사)강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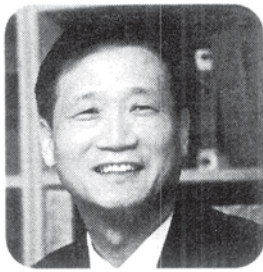
키비는 “이번 장막절 행사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임을 깨닫고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키비 사무실(792-7975)로 하면 된다.

/ 전성희 shee@onnur.or.kr

◆ 창립 18주년기념 특 / 별 / 대 / 담 ◆

‘나누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부흥하는 중소형교회 모델’로 지역교회와 네트워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갈 ‘비전교회’



하용조 목사

온누리교회가 설립 18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청년으로 자란 온누리교회를 바라보시면 특별한 감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교회 설립 18주년을 맞아, 온누리가 넘뜰한 청년으로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온누리교회는 변화와 성숙,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로 자랐습니다. 열여덟살이 되었다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보다는 이웃을, 한국사회와 교회를, 민족과 역사를, 그리고 열방과 미전도 종족을 더 깊이 생각하며 품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물 붓듯 부어 주신 꿈과 비전과 축복을 모든 성도와 교회, 그리고 열방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한 청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와 교회... 교회의 꿈은 성도를 통해 아직도 진행 중

온누리가 추구하는 변화와 성숙은 생명력이며, 나눔과 섬김은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원천적인 힘인 창조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창조력이 넘치는 교회라 믿습니다. 지난 9월 목양대회에서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을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꿈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꿈꾸는 교회’란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꿈은 이루어졌지만 교회의 꿈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요즈음 저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희생이요 자기포기입니다. 십자가의 결론은 죽는 것입니다. 성장한 우리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선포하신 교회, ‘성도들이 연합한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천국열쇠를 소유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요, 온누리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춤 추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변화, 성숙, 나눔,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춤추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 춤추는 교회란 성령님께서 춤을 추시는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회,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세계 받기를 원합니다.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거룩한 교회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꺾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성도는 모두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으로 순교하여야 합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온누리 교회에서 고 박승철 선교사를 이어 순교자가 계속하여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바치고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 춤추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춤추고 사랑과 구제, 봉사 헌신으로 온누리를 춤추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성도님들 모두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형교회의 부흥이 한국의 부흥 가져와... Acts 29는 지역, 미전도종족 섬기며 나누는 비전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춤추시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이뤄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Acts 29비전이라 생각합니다. Acts 29의 본질, 비전교회, 협력교회, 2000 교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Acts 29는 어느 한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공유해야 할 비전입니다. 온누리교회만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 선포하신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모든 교회가 공유하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 Acts 29의 본질입니다.

이런 Acts 29 비전을 나누는 것이 비전교회입니다. 비전교회는 동일한 목회철학과 사역을 나누는 교회이며, 협력교회는 교파가 다를지라도 Acts 29 비전을 같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협력교회일 수 있습니다. 비전교회는 이런 일을 같이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2000개 교회는 선교지교회입니다. 선교지교회가

» 7면에 계속



» 6면에서 계속

성숙하고 자립하면 비전교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재생산할 수 있을 때 비전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는 선교지교회입니다. 20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Acts 29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 온누리 성도는 떠나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야 합니다.

대형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량적으로, 숫자적으로, 조직적으로 커지는 교회는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교회는 자기 정체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누리에 부흥을 주셔서 사람들이 몰려 왔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누어야 한다는 분명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 주셨습니다. 흠여지는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이제는 지역으로, 땅 끝으로 흠여져 작은 형태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지역교회, 미전도 종족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ACTS 29 비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부흥은 대형교회가 아니라 중소형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중소형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중소형교회로 패러다임을 바꾼 비전교회는 '부흥하는 중소형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교회와 네트워크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리더십의 부재가 나라 형편 어렵게 해...
이제 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야**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면 마음이 답답해 집니다. 정치, 경제, 교육 등 나라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한마디로 '리더십의 부재' 문제입니다. 나이가 편향된 리더십과 극단적인 보수·개혁이 문제입니다. 보수와 개혁은 건강한 사회의 기둥이며 서로 보완관계에 있을 때 건강한 사회를 창출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보수와 개혁은 서로 극단적인 방법으로 적대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을 잃어버린 사회가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젊은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어야 하는데, 어른을 몰아내고 젊은이들만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시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편향된 리더십이 아닌 통합된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보수와 개혁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는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의 개혁, 즉 리더십의 개혁과 교회 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해야 할 일은 차세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교육에 뛰어 드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세대를 공교육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누리교회가 사회 정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 도덕,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후반기 목회... 대심방, 일본 온누리 수련회, OMC, 차세대 사역 강화

후반기 목회 주안점과 주요 목회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전도집회 '프로포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곧 전교인 대심방을 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영적인 부분을 보살피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0월 말에는 일본온누리수련회가 있고 11월에는 온누리 사역축제(Onnuri Ministry Celebration: OMC)가 열립니다. 온누리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나누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12월에는 성탄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후반기 목회에서는 차세대 사역을 강화할 것입니다. 꿈땅, 파워 웨이브를 Acts 29 비전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깊은 기도, 영성있는 기도로 거듭나야...
섬기고 나누는 기쁨의 창립 주일 보내길**

요즈음 목사님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현재는 건강 상태가 좋습니다. 음식을 조절하면서 주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온누리교회 설립 18주년의 기쁨을 모든 성도와 함께 나누며 이 자리를 빌려 한 사람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와 영성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창립기념주일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등 온누리 모든 리더십이 청바지를 입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을 섬길 것입니다. 국수 배달, 주차 봉사, 교회와 거리 청소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누고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담: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

 **2000선교**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선교세미나
 10월 15일(수) 오후 6:30 서빙고 한동홀
 제목: 이슬람 상황화 세미나2
 (이슬람 선교의 실제)
 강사: Sydney Witbooi 선교사 (OMF SEAM Director)
 내용: 이슬람 선교의 가능성과 현황, 모슬렘에게 접근방법, 상황화 사역의 실제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www.owmc.or.kr, 031-336-6350~2, owm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29 바그다드 증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서빙고 커피숍
 대상: 이라크와 중동 모슬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
 활동: 이라크 교회개척팀을 위한 증보기도, 장단기 선교사들을 위한 증보, 이라크 정치·경제·종교 상황을 위한 증보기도 등
 문의: 이흥우 (011-9958-962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쿠르드 증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벨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TIM
TIM(두란노 해외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월요기도모임
 10월 6일(매달 첫째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 온유성전
 문의: 박소영 간사(794-1063~5)

물품후원
 여러분의 후원이 '아프가니스탄'에 새 생명을 돌게합니다.
 후원물품: 의류(겨울), 교육기자재(학용품), 장난감
 마감: 10월12일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TIM) 794-1063~5
 최진혁, 박희창 간사

KIBI
장막절
 기념행사 10월 12일, 세미나 10월 9일~10일
 문의: KIBI (792-7075-6)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인터컴
6기 청소년 비전 스쿨
 10월 11일(토)~11월22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3:00~6:00
 대상: 미전도종족선교에 대해 알기 원하는 십대 청소년(중1~고3)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묵상 / 예배 공동체 훈련 / 증보기도와 영적전쟁 / 선교지문화, 지역연구와 종교연구 / 21세기 세계의 모습과 다양한 선교방법-미전도종족과 전문인선교
 문의: 강유미 간사 (796-5274, 016-645-4221)

에젠티선교회
정기모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증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24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증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에젠티선교회 사무실 두란노빌딩 704호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종족증보기도실 (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 (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부천 외국인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부천온누리비전교회 2층 예배당
 *외국인근로자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백정석 집사 (011-446-7490)

*

이라크 한인교회

크리스마스 물품모집

이라크 한인교회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현지 성도에게 나눠줄 생필품과 어린이용품 등 후원물품을 모집한다. 품목은 성인과 어린이 의류, 신발, 가방, 주방용품, 장난감, 학용품 등이다.

물품은 새 것이나 재고품이 좋다. 크리스마스에 맞추기 위해서는 10월 말경 컨테이너 선적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2천 선교팀은 10월 26일까지 헌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물품을 보내기 원하는 성도는 전화로 접수 후 헌물하면 된다.

• 문의: 신원석 간사
(795-9085 교 216)

일본 온누리 축제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하시에서 제2회 온누리축제가 열린다. 2천선교팀은 '예멘의 가정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여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할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 문의: 이윤정 간사
(793-9686 교 209)
/ 전성희 shee@onnuri.or.kr

온누리 onnuri

티베트를 다녀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티베트에 세계의 악령들이 다 모여 있으며 티베트에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한다. 라마승 뿐 아니라 티베트인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이마부터 몸의 다섯부분이 닿는 새벽 절을 7백회, 오후에도 7백회를 한다. 라마승들의 믿음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고 혹독하다. 그들이 눈 위에서 기도하면 그가 앉은 히말라야의 눈이 녹는다. 그들은 포탈라궁의 통곡의 벽에 기대어 오늘도 초점 잃은 허무한 시선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 네팔, 부탄, 티베트 등 극도로 폐쇄된 고원의 산악지대에서 소외되고 감추어진 채로 시들어 가는 영혼들을 찾아가 손을 내민 신이산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다. 암으로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100일을 보낸 몸으로 히말라야 사역에 투신했다. '내가 살아 있는 이 한 죽 산자와 같이 죽음을 맞이 하리라'는 각오로 산소가 68%밖에 없는 고산지대 티베트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 1990년 처음 티베트사에서 보여주시 악령의 때들이 불살라 지는 환상을 영혼 깊숙이 간직한 채로.

▼ 힌두의 사원에 들렸을 때의

일이다. 음란한 그림들이 벽을 장식하고 사두라는 사람들은 벗은 몸에 이상한 형태로 색깔을 칠한 채 도를 닦고 있었다. 갑자기 울분이 치밀어 여신상 계단위로 뛰어 올라갔다. "이 거짓 우상에 속지 마시오. 이것은 나무로 만든 조각일 뿐이요." 하마터면 몰매를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었다. 독수리에 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천장대에 갔었다. 인간 백정들은 시체 네 구의 가족과 뼈를 분리하여

독수리 떼에게 던져 순식간에 치워 버렸다.

김승처럼 험악한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예수님 음성이 들렸다. "네가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네가 이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순간 선교사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양재 사랑성전 1층에서 신이산 선교사의 티베트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 hjkang714@hanmail.ne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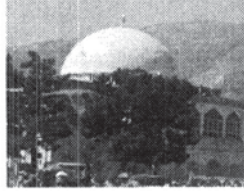
한국어 말하기 대회

온누리미션 한글학교는 한글날을 맞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오늘(12일) 오후 1시 서빙고 선교관 302호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동안 한글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을 선보이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글학교 학생 13명이 '나의 한국생활'이라는 주제로 각자 5분 정도씩 발표한다. 온누리미션 한글학교는 교장 김정숙 집사를 포함해 19명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문의: 김정숙 집사
(016-792-5801)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선교센터 이슬람선교세미나



온누리세계선교센터가 제2회 이슬람 선교세미나를 15일(수) 오후 6시 30분 서빙고 한동홀에서 연다. 이번 세미나는 남아공

출신으로서 국제 OMF 이슬람 선교 디렉터이며 풍부한 상황화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드니 워부이(Sydney Witbooi) 선교사가 강사로 나와 이슬람 선교사업 경험과 전도방법 등 자신이 경험한 선교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 문의: 김태완 간사(온누리세계 선교센터 011-336-6350~2, www.owmc.or.kr)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KIBI 장막절 행사

주님의 인도하심 감사해요



한국이스라엘성서연구회 '키비'(KIBI:Korea Israel Bible Institute)는 장막절 기간인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빙고 2천/1만 광장에서 다양한 장막절 행사를 한다. 이 기간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장막과

장막절 행사 물품을 전시하고, 12일에는 장막절 영상 상영, 전통 유대인 복장 기념촬영, 음식바자 등을 한다.

장막절은 우리나라 명절인 추석처럼 추수가 끝난 후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대표 절기다.

· 문의: 키비 사무실(792-7975)
▷ 관련기사 13면
/ 전성희 shee@onnuri.or.kr

초원 너머 하늘에 언약의 무지개를 보라

≡ 중앙아시아 북음화의 교두보, 몽골

초이발산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몽골은 가도 가도 연갈색 초원이었다. 글자 그대로 광활한 대지였다. 국가 면적이 남한의 16배인 1,566,500 km², 남북 거리가 1,263 km, 동서 거리가 2,405 km에 이른다는 통계수치가 실감났다.

사머니즘에 젖어 있는 초원의 나라

동부 몽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인 초이발산은 60~7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듯, 영락없는 우리 농촌의 옛 모습이었다. 땅이 바뀌어도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했다. 배가 고프기에 땅이 있으면 흙을 뒤엎어 씨앗을 뿌리고 가축을 길러 젖을 짜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

마을을 조금 벗어나 초원이 끝 간 데 없이 펼쳐졌다. 경이로움 그 자체였기에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풍광이었다. 초원은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연의 위대함을 담고 있었다. 넓디넓은 초원을 가로지르며 헤틀렐 강이 흐르고 있었다. 파란 물감을 뿌려 놓은 하늘에서 빛나는 9월의 햇살이 잔잔한 물결에 번들거리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지곤 했다. 벌판 끝에 매달린 듯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겹쳐져 있는 산 능선과 하늘에 등실 떠 있는 흰 구름, 그리고 광활한 초원이 조화의 극치를 이뤘다.

초원의 향기에 취한 듯 말들이 무리지어 달렸다. 말감기에 머무는 한 줄기 바람에도 목동은 행복을 느끼는 듯 했다. 지평선 끝으로 유목민의 주거용 천막인 게르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다. 마을 한가운데 라마 사원이 있었다. 문을 들어서자 우리나라 절의 대웅전에 해당하는 게르가 있었다. 앞뜰에 있는 누각 안에는 불경이 새겨진 통, '전경(轉經)'이 있다. 사람들은 이 통을 돌리면서 불심을 심고 있었다. 전경이 한 번 불경을 읽는 것과 같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중앙에 거대한 불상이 자리 잡은 게르 안에서는 낮은 책상을 놓고 라마승이 점을 치고 있었다. 대낮인데도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 지어 앉아 있었다. 라마 불교와 사머니즘이 혼합되어 있는 몽골인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었다.

마을 시장 옆에는 커다란 무당나무가 서 있었다. 곧게 자란 아릅드리 나무 꼭대기는 줄기가 뻗어 마치 몽둥그려 놓은 것처럼 둥글게 얽혀 있다. '위하늘무당나무'인데 나무 끝에 푸른 색 비단 천인 '하닥'이 걸려 있다. 몽골에서 피란색은 귀함과 승배를 나타낸다. 경

주에서 우승한 말에게는 파란 천을 감아 주는데 주인은 그 천을 가보로 삼아 대대로 보관한다. 위하늘무당 나무 밑에 또 하나의 사원이 지어져 있었다.

몽골은 사머니즘이 번성한 지역 중 하나다. 혹독한 생활환경이 자연스럽게 사머니즘에 젖어들게 하였다. 유목민 특유의 다양한 종교적 심성도 사머니즘에 녹아들었다. 사머니즘은 몽골 역사 초기부터 16세기까지 몽골의 가장 중요한 종교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기 몽골제국 시절에는 국가 무당이 막강한 세력을 누렸고 사머니즘은 국가 종교로 인정되었다. 지금도 몽골 어느 곳을 가든지 '어워'라는 상황당 같은 것이 널려 있다.

다시 불기 시작한 불교의 바람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 중심가에서 만나는 몽골은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동구권 전역에 불어 닥친 공산주의의 쇠퇴는 1920년대 이후 구소련의 영향 아래 있던 몽골에도 여지없이 큰 변화를 가



▲ 몽골사람들은 한국인을 '무지개' 한 뜻인 '술흥고스'라고 부른다.

져 왔다. 현대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게르와 러시아식 옛 건물인 현대식 건물로 대체되고, 슈퍼마켓, 호텔, 디스코텍, 나이트클럽이 들어섰다. 문명의 이기를 맞본 시골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으며, 밤마다 거리에는 고급 외제차가 질주하고 유흥가는 불야성을 이뤘다.

몇 년 사이 대학이 다섯 개로 늘어나고 초중등학교가 많이 세워졌다. 이런 연유로 과거에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약 98% 이상의 몽골인이 키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를 배우고자 밤을 새우며, 컴퓨터, 생명과학 등 최첨단 학문을 익히기에 열심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길들여졌던 사회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서구식 자본주의를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면서 식료품, 교육비, 주택비 등 소비자 물가가 50~150배나 올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 사회주의 제도 아래에서의 생활을 동경하고 있다. 유목문화가 지녔던 전통적 가정 가치관이 몰락하고 이혼, 성매매, 알콜중독,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변화 중의 하나는 6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놀려 숨죽이고 있던 라마 불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몽골은 티베트와 비슷한 불교국가였다. 당시에는 '살아있는 부처'를 의미하는 보그드 칸(Bogd Khan)이 세속적 지도자인 동시에 정신적 지도자로서 몽골을 다스렸다. 19세기 초반에는 몽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교에 종사했다는 역사학자들의 주장처럼, 공산 정권 이전의 불교는 몽골 부족들을 묶어 주는 가장 분명한 끈이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었다.

1930년대 중반, 지금까지도 민족의 영도자로 추앙되는 초이발산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문화혁명으로 800여 곳의 사원이 파괴되었고 수만 명의 라마들이 처형되거나 구소련 군대로 강제 징집되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몽골에서 사찰 운영이 허용된 곳은 '지극한 기쁨이 넘치는 위대한 곳'이라는 뜻을 지닌 울란바타르의 간다안(Gandaan) 사원뿐이었다. 그런데 옛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일어난 민족주의 부흥의 물결이, 몽골에서는 전통 종교인 라마교를 권장하고 서양 종교인 기독교의 폐해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몽골 전역에 사원이 급속도로 복원되고 있다. 불교를 국교처럼 여겼던 1930년대를 부활시키려는 듯 사람들은 사원과 라마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라마교도들은 라마교를 국교화하려 하며, 정치가들도 이념적 공백을 민족의 전통 종교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이 수시로 라마 사원을 방문하고 중요한 불교 행사에 참석하며, 여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임에는 항상 라마 지도자들이 배석하고 있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몽골에서 대규모

≫ 7면에 계속

» 6면에서 계속

집회를 열고 있다.

온누리선교사로 날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울란바타르 중심지를 벗어나자 몽골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북적대던 도시와는 전혀 다른 평원지대와 맞닿았다. 끝없는 고원이 다시 시작되었다. 드넓은 벌판, 분지가 있는가 하면 낮은 오름이 있었다.

도시를 빠져 나가는 언덕에 '어워'가 있었다. 어워는 돌을 쌓아 올린 일종의 제단이나 돌무더기다. 언덕을 넘는 사람마다 안녕과 안전을 비는 까닭에 어워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바치는 물건은 높이 쌓여간다. 어워에 꽂아 놓은 나무 꼭대기에는 파란색의 '하닥'이 걸려 있었다.

파르티잔으로 가는 초원길 80km, 포장된 길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길도 뚜렷하지 않은 초원길은 꽤나 먼 길이었다. 실제로 한 시간 반이나 달렸으니 결코 만만치 않았다. 달리는 차를 향해 꼬질꼬질 때문에 아이들 손이 흔들었다.

파르티잔은 이동을 일삼던 유목민이 만든 시골 마을이었다.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 울란바타르 중심가에 있는 하이르교회의 딸 교회이다. 현지인 한 가정의 파송되어 관리하고 있는 파르티잔 교회에는 어른 15명, 교회학교 아동 40명이 몽골의 복음화를 놓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작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했는데, 이웃리치 나온 온누리교회 요셉청년공동체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이 있었다.



▲ 도르도트 그리스도교회 가정예배에서 초이발산 복음화를 위해 합심 기도하고 있다.

하이르교회는 지난 1999년 11월 9일 TIM이 파송한 이철희 선교사가 개척하였다. 이철희 선교사가 안식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면서 연세치선병원 의사인 박관태 선교사에게 이양하였고, 2명의 현지인 설교자와 5명의 풀타임 리더가 교회 운영을 맡고 있고 4명의 단기선교사가 동역하고 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울란바타르 도심 한복판에 찬양이 울려 퍼졌다. 연세

치선병원 의사인 한영훈 선교사와 경배와찬양 파송 이현성, 김지연 선교사는 울란바타르 40개 교회 젊은 이들을 모아 몽골 경배와찬양 새노래 테이프 녹음을 위해 2월부터 매주 1, 2회 3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하이르교회는 파르티잔교회와 함께 서부 몽골의 주요 도시인 비양을기에 딸 교회인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교회 지도자 한 명과 청년 열 명이 예배하고 있는데, 소수 민족인 모슬렘 카작족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이다.

하나님은 온누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통해 몽골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셨다. 권오문 선교사에게 '밝은미래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몽골국제대학교 설립에 앞장서게 하셨다. 고재형 선교사를 몽골국제대학교 교수로, 최현민 선교사를 MK 교사로 헌신하게 하셨다.

초이발산에는 강한대 선교사를 파송하여 문화센터,



▲ MK스쿨에서는 큐티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교회를 개척하게 하였고, 이를 거점으로 온누리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인 브리아트족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제자학교, 요셉청년공동체, 김포강서 공동체로 하여금 바잉돈, 도르노트, 헤티, 차강아워, 바잉울 지역을 정탐하고 교회 개척에 헌신하게 하셨다.

한국 교회에게 맡겨진 민족

몽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일체의 우상종교를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매, 굳게 닫힌 몽골의 문을 열기 위해 사회주의를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몽골의 복음화는 내몽골 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 소수 민족 선교의 전진 기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몽골은 중앙아시아 부족 중에서 국가를 형성한 대표적인 민족으로, 몽골 선교의 성과를 중앙아시아 선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바이칼 호수 근방과 서부 몽골 알타이 산맥 일대에 산재한 소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선교센터들 만들기에 유리하고,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서 사역할 선교사들이 훈련받고 연구 조사하기에 용이하다. 무엇보다 몽골은 오랫동안 고립돼 있던 나라로, 32년간 절대적인 정치 지도자 아래 있다가 최근에 권력이 이양되었다. 이런 면에서 북한과 여러 가지로 유사점을 가지고 있어 몽골의 복음화는 북한 선교에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최근 한국과 몽골 사이에는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몽골 정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한국을 배우고 있으며 자국을 원조하는 6대 우방 국가 가운데 한 국가로 소중히 여긴다. 몽골과 한국은 문화, 인종, 역사, 풍습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어 서로 형제와 같은 친밀감을 느낀다. 또 같은 어족(語族)에 속하기 때문에 문법과 어순이 유사하여 서로의 언어를 쉽게 익힐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몽골의 침략을 받은 과거가 있으나 몽골에 피해를 입힌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몽골인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 정치적, 역사적 장애가 별로 없다. 몽골인은 자존심이 강해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민족이나, 한국인은 의모, 생활 습관, 문화, 역사적 배경 등으로 인해 거부감 없이 쉽게 접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몽골의 복음화는 먼저 복음을 받아 축복을 누리려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몫이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몽골 사람들은 한국인을 '솔롱고스'라고 부른다. '무지개'란 뜻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그 무지개를 몽골인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급격한 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도덕적, 영적 공황을 겪고 있는 몽골이 무지개의



▲ 몽골, 시베리아, 중국 등 110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몽골국제대학(MIU).

참 뜻을 깨닫도록 온누리가 지속적으로 선포하여야 할 메시지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창 9:7, 13). 아멘.



/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라



정호진
키비 회원, 이스라엘문화원 이사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삼대절기가 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다. 성경에서는 이 삼대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죽으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유월절은 부활절로 칠칠절은 오순절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나 장막절은 잊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린다

장막절은 히브리어로 쉰쑤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장막 또는 초막이라는 뜻이다. 장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티쉬레이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킨다(유대인은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4일 저녁부터 8일간을 지킨다). 유대달력은 우리 음력과 비슷하여 보통 우리의 추석 때가 장막절 시기이며 금년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던 때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각 가정마다 집 앞 마당이나 베란다에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이 장막절 기간을 보낸다. 장막은 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나뭇가지들을 엮어놓아 장막 안에서 열키셀기

한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 안은 각종 과실과 그림으로 장식한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요셉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 나눈다.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장막

장막절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추수감사절의 의미이다. 이스라엘에서 이 시기는 포도, 올리브 등 많은 과일들을 추수하는 시기이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장막절이 지나서 우기가 시작된다. 때문에 장막절에는 한해의 농사에 대한 감사와 비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린다.

둘째,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다. 유대달력으로 정월 초하루 설날은 티쉬레이 1일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때부터 10일까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한 해 동안의 잘못을 회개한다. 특히 10일째 되는 날은 속죄일로 온종일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그리고 이달 14일 저녁부터 장막절 명절을 지키는 것이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장막을 세운것을 시작해 이 장막절에 행해진 것이다. 즉, 속죄일에 심계명을 받고, 용서와 구원에 감사하며 15일부터 장막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셋째, 성경말씀을 받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다. 장막절의 8일째 되는 날은 '쉬미니 아째레트'로 불리며 이날을

'심카토라'의 날로 부른다. 유대인들은 토라(모세오경)를 54주로 나누어 매주 1주 분량을 읽는데, 이 날 토라의 일년 치를 다 읽은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

'호산나 라바' 다시 오실 메시아어

넷째, 장막절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다. 장막절 7일째는 '호산나 라바'라고 불린다. 큰 구원의 날이란 뜻이다. 이날 유대인들은 종려나무가지 등을 준비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직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이 이 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다. 장막절은 말씀되시며 영원한 안식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념해야 하는 절기다. 장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2000선교**

은누리세계선교센터 선교세미나
10월 15일(수) 오후 6:30~10:00 서빙고 한농홀

제목: 이슬람 선교의 실제
강사: Sydney Witbooi 선교사 (OMF SEAM Director)
내용: 이슬람권의 사역현황, 실제, 질의 응답

문의: 은누리세계선교센터
(www.owmc.or.kr, 031-336-4350~2, ownc@onnuri.or.kr)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6085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10월 20일(월) 오후 7:00 양재 두란노홀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소아시아공동체 엘마안탐(017-278-3376)

☞ ACT29 바그다드(Baghdad)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내용: 1) 이라크 현지 정보 공유와 중보기도
2) 바그다드 은누리비전교회 개척팀을 위한 중보기도
3) 올해말 "Christmas in Baghdad"를 위한 준비기도
문의: 이흥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벤틀빌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TIM
☞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7:30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지은 (011-9965-0921)

☞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10월 20일(월) 오후 7:30 선교관 B2층 홀기도실
말씀: 민성기 선교사

물품후원
여러분의 후원이 '아프가니스탄'에 새 생명을 들게합니다.
후원물품: 의류(겨울), 교육기자재(학용품), 장난감
마감: 10월12일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TIM) 794-1063~5
최진혁, 박희창 간사

KIBI
장막절 기념행사 10월 12일, 세미나 10월 9일~10일
문의: KIBI (792-7075~6)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에젠티교회
정기모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은누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24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에젠티교회 사무실 두란노빌딩 704호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종족중보기도실 (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 (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은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 악기 가르쳐 주실 분
파키스탄예배에서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말 가능
주일 오후 5:00~6:00 서빙고 301호
문의: 790-6052

☞ 홀스테이 해주실 분
기간: 10월 15일~21일
대상: 인도 IOCR 무용단원들(10명)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 중고 컴퓨터 2대 헌물 받습니다
팬티엄2이상 중고컴퓨터
문의: 김연화 간사(790-6052)

☞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번 은누리미션 한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합니다.
10월 12일 주일 오후 1:00~2:00 신관302호
문의: 김정숙 집사(016-792-5801)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은누리교회

은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은누리미션

양재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매주 월~금 오전 6:30 은유절제홀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A/S 000-700-1660
국민은행 803-01-0217-473
예금주: 은누리교회 (인터넷)

*

01

2천선교사 1만사역자 파송

오늘 2천선교사 파송식이 서빙고 2부예배와 양재 3부예배에서 있다. 오늘 파송하는 선교사는 전 생명, 구원해 선교사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한다.

성도를 1만사역자(C국)로 파송한다. 지난 10월 12일 한석완 조미희 가정도 부천 3부예배(오전11시30분)에서 1만사역자로 파송받았다.

서빙고 2부예배에서는 김경현

▷관련기사 3면

02

제2회 일본은누리축제 **도요하시 수양회**

제2회 일본은누리축제가 오는 10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도요하시에서 열린다.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하용조 목사와 오오가와 목사(일본 갈보리채플 담

임)가 집회를 인도한다. 수양회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는 2천선교 사무실(선교관 2층)에서 오늘(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 문의: 이윤정 간사 (793-9686 교 209)

03



아프가니스탄 심장병 어린이 새 생명 찾아 한국 온다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 NGO단체인 동서문화개발교류회(이하 EOC) 초청으로 아프가니스탄 심장병 어린이 2명이 심장수술을 받고 새생명을 얻기 위해 한국 땅을 밟는다.

초청된 어린이는 모다시르(Modasir, 남)와 디다(Dida, 여)로 보호자 2명과 함께 입국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컴퓨터와 의료, 농촌 개발 활동을 하는 EOC는 지난 5월 단기 의료선교팀이 농촌진료를 하던 중 심장병 어린이와 첫 대면을 했고 수술성공가

능성을 위해 지난 7월 심장병 전문의를 현지로 불러 1차 진단을 했다.

이번 아프간 심장병어린이초청은 은누리교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공장기회사인 뉴하트 바이오가 함께 동참했다. 어린이들은 약 1달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후 흉부외과 전문의 원용순 교수의 지도 하에 뉴하트 바이오의 TPLS(생명구조장치)로 수술한다. 아프간 심장병 어린이초청수술은 심장병어린이돕기계획

(EOC Save Hearts Project)의 일환으로 계속되며 EOC는 추이를 지켜본 후 금년 말이나 내년에 또 다른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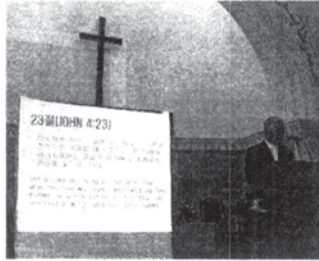
EOC는 아프간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한달간 10월 20일(월)에서 11월 20일(목)까지 병원에서 간병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조절할 수 있다.

• 문의: 최 준 혁 (794-1063, 019-269-1159)

/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이라크교회 개척예배 드리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첫 한인 교회 예배가 드리졌다. 이라크 한인교회는 김사무엘 목사, 노규석 전도사 등 온누리 선교사들과 김

중원 목사, 중동실업인 연합회 임원들 40여 명이 참여해 10월 10일(금) 이라크 장로 교회에서 오후 1시 개척 예배를 드렸다. 이라크 교회 목사들도 예배에 참석해 축하했다.

김사무엘 목사는 "아름다운 성소에 찬양이 가득했고 40여명이 참석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넘쳤다"며 바그다

드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라크 한인교회는 12월 5일(금) 창립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한편, 이라크 한인교회는 올 크리스마스 행사로 이라크 현지인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모집하고 있다. 성인과 어린이 의류, 신발, 가방, 주방용품, 장난감 학용품 등을 후원할 성도는 10월 26일까지 2천선교 신원석 간사에게 전화접수 후 헌물하면 된다.

• 문의: 신원석 간사(795-9085, 793-9686 교216)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 파 송 |

◆ 2천 선교사 ◆ 전생명, 구원해, 주영(여), 승표(남)/중앙아

-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선교지에 서도록
-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고, 언어습득을 잘 하도록
- 홀로 되신 아버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주실 중보기도자 3백 명을 세워주시도록



◆ 일반사역자 ◆ 김경현/C국

- C국에서 치과병원을 함께 경영할 합당한 파트너를 주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 C국 치과계에 영향력있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 각처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한석완, 조미희, 천준(남)/미국

-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03

제 2회 이슬람 상황화 세미나

교회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오는 것,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남녀, 손을 씻지 않은 채로 성경을 펼치는 것 등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모슬렘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비친다.

온누리선교센터 주관으로 열린 15일(수)이슬람 상황화 세미나에서 국제 OMF소속 시드니 워부 이(Sydney Witbooi) 선교사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본질"이라며 "웃, 음식, 다른 것에 집중해 정작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모슬렘에게 다가가는 방법인 상황화는 본질을 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모슬렘지역에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 등 이슬람 선교를 하며 부딪히는 문제를 토의하는 참가자들.

이슬람 선교에 관심이 있어 세미나에 왔다는 권영국 권사(부천꿈마을 열림 감리교회)는 "전도 쪽지를 나눠주고 교회에 인도하는 전통적 방법으로는 모슬렘들의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올바른 선교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성경을 번역하며 믿음도 늘어갑니다

저희 가족은 올해 안식년을 맞아 저희를 후원하는 한국과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며 차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부터 저는 혼자 선교지로 돌아와 그동안 가장 하고 싶던 일인 성경번역을 마음껏 하면서 일과를 즐기고 있습니다. 성경번역을 돕는 두 형제와 새벽에 한 시간동안 성경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낮에는 하루종일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 분량은 적으면 20절, 많으면 30절 정도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단어, 개념을 만나면 주님께 지혜와 영감을 달라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는 겨자씨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자료를 찾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보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왕권, 찬양, 영광, 뿔나무, 레위인, 이스라엘 만의 독특한 습관 등 특수 용어나 미지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을 돕는 두 형제

형제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자세히 이해하면서 흥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도 깊어지는 듯 합니다. 번역이 끝날 때까지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형제들은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가롯 유다는 최후에 어떻게 되는지 다급하게 물어 봅니다. 옛세마네 동산에서 애쓰며 마음 아프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번역하면서 한 형제가 자기 가슴도 막 아파진다고 고백해올 때 저도 함께 감격에 젖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진행하며 24시간 한 집에 살다 보니 난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 받는 이 형제들이 저를 통해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 나라에서도 가장 밑바닥 삶을 살던 이 두 형제 앞의

제 모습은 가난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저는 두 달 간 살며 일할 것들을 아주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싸 들고 왔지만 이 형제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제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큰 책임감과 부담감도 느낍니다.

불 같은 시험을 이기도록

얼마전 아파트 문지기가 한 형제를 불되고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집요하게 물기에 형제는 화를 내며 "성경 배우러 왔다. 고발할테냐?"고 욕박질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더 큰 사태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약 보름 정도만 더 있으면 모든 일정이 끝나므로 그때까지 아무일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오는 위협과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안에서 오는 공격

입니다. 때로 저희들 사이에서 이해 부족이나 의사전달의 오해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기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일할 의욕을 잃어 세상으로 관심이 향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모두 불 같은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주부터 다른 민족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번역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기도 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의 초벌번역을 점검합니다. 작업에 많은 진보가 있도록,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좋은 번역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제도적으로 반대하는 현 정부의 악한 세력에서 보호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방에서 김스데반 올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서툴지만 아름다운 말

"저의 이름은 자팔입니다. 저는 음..."

이말 수가. 자기 차례가 되기 직전까지 다른 참가자가 발표하는 것도 듣지않고 선생님과 열심히 연습했는데 말문이 막혀버렸다. 난처한 듯 서 있는 자팔 형제를 도우려고 선생님이 옆에 섰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됐거든요, 여러분이 양해해주세요."

원래는 자기소개와 한국어에서 느낀 점들을 혼자서 발표해야 하지만 힘들어 하는 자팔 형제를 위해 선생님이 질문을 한다.

"이름이 뭐예요?" "자팔"

"어디 사세요?" "안산이요"

점점 힘을 얻은 자팔 형제가 말한다.

"한국 와서 친구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보내는 힘찬 박수와 응원에 자팔 형제가 병긋 웃는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온누리미션 한글학교가 매년 한글날을 맞이해 여는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10월 12일(주일) 오후 1시 선교관 302호에서 열렸다. 한글학교에서 우리말을 배우는 외국인 근로자 학생 10명이 참여해 '나의 한국생활' 이

라는 주제로 그동안 배운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조사가 빠지고 발음도 부정확한 서툰 한국어지만 발표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구사한 사람에게도 쏟아 놓지 않던 박수 보따리를 풀었다. 맨 처음 발표한 자비드 형제(네팔)는 "아까는 너무 떨어서 제대로 못했다"며 다시 도전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가장 큰 박수를 받은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산투 형제였다. 한국에 온지 7년째인 산투 형제는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투 씨입니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바다로 만들었지만 한국에 와 있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어머니께 쓴 편지를 발표하며 좌중을 숙연하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하시길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어머니 기도로 한국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많이 보고싶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어머니 곁에 없어서 죄송해요. 동생들 결혼시키고 이제 두 동생만 결혼시키면 되요. 어머니 잘 먹고 몸 건강하세요. 제가 돌아가서 어머니 건강할 모습만 보면 행복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한글을 배우고 복음을 받다

한글학교 교장을 맡고있는 김정숙 씨는 "한글을 배워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뿌듯하고 가르친 보람이 있어 즐겁다"며 "한글학교는 외국인 근로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치며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복음을 접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하고 "이방인인 나그네를 돕고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온누리교인들이 이땅의 나그네 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봐주고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산투 형제

한달 전부터 선생님과 준비했고 지난 주 방글라데시어로 편지를 써와서 선생님과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일이 일찍 끝나면 집에서 연습했어요. 발표하기 전 긴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못했어요.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1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0선교**

기도모임
N **중보기도팀 연합모임**
 10월 21일(화) 오후 7:00 서빙고 한동홀
 문의: 황민식 간사(793-9686 교 208, 016-748-8723, mshwang@onnuri.or.kr 팩스 795-9086)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10월 20일(월) 오후 7:00 양재 두란노홀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소아시아공동체 엘마안팀 (017-278-3376)

ACTS 29 바그다드(Baghdad)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내용: 1) 이라크 현지 정보 공유와 중보기도
 2) 바그다드 온누리비전교회 개척팀을 위한 중보기도
 3) 올해말 "Christmas in Baghdad" 를 위한 준비기도
 문의: 이홍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밭길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TIM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일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7:30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지은 (011-9965-0921)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10월 20일(월) 오후 7:30 선교관 B2층 홀기도실
 말씀: 민성기 선교사

N **자원봉사자**
 심장병 치료를 위해 방한한 아프간 어린이를 간호할 봉사자를 찾습니다.
 기간: 10월 20일부터 약 한달 간 (봉사시간 조정 가능)
 문의: 최진혁 간사(794-1063-5)

KIBI
장막절
 기념행사 10월 12일, 세미나 10월 9일~10일
 문의: KIBI (792-7075~6)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에젠티교회
정기모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24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에젠티교회 사무실 두란노빌딩 704호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종족중보기도실 (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 (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일 마지막 수요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악기 가르쳐 주실 분
 파키스탄예배에서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어 가능
 주일 오후 5:00~6:00 서빙고 301호
 문의: 790-6052

홀스데이 해주실 분
 기간: 10월 15일~21일
 대상: 인도 IOCR 무용단원들(10명)
 문의: 이경희 간사(017-316-9787)

중고 컴퓨터 2대 헌물 받습니다
 펜타엄 2이상 중고컴퓨터
 문의: 김연화 간사(790-6052)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양재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유절제홀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부천 온누리 화요중보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30 본당
 인도: 박인용 목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도를 위해 송내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N **캄보디아 아웃리치**
 12월 15일~20일
 문의: 오재성 목사(042-825-3642)

*



어느 날 우리는 1년씩 바닥을 기며 순례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이 머무는 천막에 들렀다. 천막 안은 지쳐서 쓰러져 있는 티벳 순례자들로 가득했다. 모두 병자들의 모습이었다. 티벳인들은 1년에 한번 강물에 몸을 담그는 의식 외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부족한 산소와 심한 추위로 온 몸이 갈라져

트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산다. 천막 안은 심한 악취와 이와 벼룩이 가득했다. 간호사 출신인 제인선교사(신이삭선교사 사모)는 약과 붕대를 가지고 다가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다. 기침과 관절염으로 죽은 듯이 누워있는 사람, 그중에 노파 한분이 다리가 아파 꼼짝 못하고 앓고 있었다. 그의 발을 벗겨 보았다. 평생 씻지 않은 발은 겹겹의 때로 폼아 가는 상처가 보이지도 않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기사사에 가서 물통에 따뜻한 물과 세수대야를 가져다가 노파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 한참 후 때가 불면서 더러운 악취와 함께 때가 대야에 가득 했다. 제인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비누칠을 하여 때를 벗기고 씻어가는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 새양말을 신겨 주었다. 비스듬히 누워 자신의 발을 맡겼던 노파가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고맙게 나를 치료해 주느냐"고 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티벳 형제가 말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 예수... 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처음 듣는 이름이 가슴에서 토해 내고 있었다. 약이라야 아스피린과 서너가지 정도 의 상비약이 전부였지만 사람으로 만져 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 할 때마다 기적으로 90% 이상이 치료되었다. 그들은 제인 선교사를 천사라

고 불렀다. 미국에 돌아와 있을 때에도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의사는 고칠 수 없다고 했지만 제인선교사의 기도와 치료라면 고칠 수 있다고 전화를 했다. 빨리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살려 달라고 숨넘어 가는 간청을 했다. 한 영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의 밀알로 썩어 육십배 백배의 결실을 기대하며 급하게 티벳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신이삭선교사 간증집> / hjkang714@hanmail.net

“심장병 아이들 도착하다”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가 초청한 아프간 심장병 아이들이 20일(월) 한국에 도착했다. 디다(여, 5세)는 이모의 품에 안겨 모다시르(남, 5세)는 아버지가 마는 카트를 타고 12시 20분 경 출국 검사대를 나왔다. ECC 한국 직원과 김창욱 전도사의 환대를 받은 어린이들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직행해 입원수속을 했다. 21일(화) 심장초음파 검사를

비롯 정밀 검사를 받은 후 모다시르는 폐동맥 판막이 좁아 생기는 폐동맥 협착증, 디다는 동맥관개존증으로 진단결과가 나왔다. 모다시르는 지난 22일(수) 혈관 내기구를 넣어 좁아진 판막을 넓히는 혈관 조형술 시술을 받았고 디다는 다음주 화요일 원용순 교수(흉부외과 전문의) 집도하는 수술을 받는다. 원용순 교수는 “디

다는 태어나면서 막혀야 할 동맥관이 제대로 막혀있지 않아 생긴 병이며 이 틈을 막는 수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CC는 아프간 심장병 어린이 돕기 계획(ECC Save Hearts Project)은 온누리교회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공장기회사 뉴하트바이오가 함께한다. /전성희 @onnuri.or.kr



아사둘라(모다시르 아버지)

모다시르가 태어난 지 열흘 정도 됐을 때 불편해하며 울어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카불에 있는 병원으로 갔고 심장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수술할 수 있는 기구나 의학적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니다. 부모로서 제일 바라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그 외에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까? 카불에 있을 때는 아이를 돕고 싶었지만 도움 길이 없어 절망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01

중보기도팀 연합모임

모임은 열 넷, 기도는 하나

흠어진 기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세계 곳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Acts29의 원동력이 되자는 '중보기도팀 연합모임'이 지난 21일(화) 오후 7시 한동홀에서 열렸다. 2천선교본부 주관으로 열린 연합기도모임에 교회 내 14개 기도모임이 모였다.

중보기도팀 연합기도모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다 은퇴한 이육연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아웃리치 결산 영상상영, 중보기도 모임 소개,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참여 하자는 밀알 한 알의 믿음을 품고 늦은 나이에 낮은 선교지로 갔다"고 말씀을 시작한 이육연 선교사는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교사는 선교지에 빠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강상 문제와 어머니 병환 때문에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눈만 감으면 선교지에 세운 교회와 교인들이 어른거린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 선교사처럼 열방에 흠어져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교사들



을 중보하고 섬기는 중보기도 모임 14팀 소개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다른 기도모임의 기도제목을 집중해 들으며 자신들이 관심 있던 지역이 아니었지만 뜻을 모아 함께 중보했다. 또한 이번 모임처럼 교회 내 중보기도를 하나로 모으는 연합모임을 지속해 교회 내 중보기도가 부흥하길 기도했다.

▶ 중보기도팀 소개 6면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부천 외국인 예배 주님 사랑은 담요를 타고

부천 온누리비전교회에서는 따뜻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겨울 옷가지와 이불 등을 구한다.

부천 외국인 근로자 예배를 백정석 집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겨울 나기가 힘들다"며 인도네시아 근

로자들의 어려움을 전했고 "어려운 때지만 서로 나누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많은 후원자들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 온누리비전교회 외국인 예배에 나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성인 성도들에게 가을, 겨울 옷과 이불(담요)등을 후원해주실

성도분들을 부천 온누리 비전 교회 목회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 대상: 인도네시아 성인 성도
- 품목: 가을, 겨울옷, 이불(담요)
- 문의: 부천온누리비전교회 목회지원실 (032-325-8707)

/한승현 ruby@onnuri.or.kr

03

'Acts29 이젠 랍비가 말한다'



네티비아교회 담임)가 'Acts29 이젠 랍비가 말한다'는 제목으로

탈무드와 히브리 원전에 해박한 유대인 랍비 출신 요셉 술람 목사(이스라엘 세미나를 한다. KIBI 주관으로 열리는 이 세미나는 11월 5일(수) 서빙고 시온홀과 6일(목) 경천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두 차례씩 모두 네 차례 열린다.

• 문의: 키비 (02-792-7075) /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온누리미션/네팔세레



면소바 자매

네팔 예배 3명이 지난 주일(19일) 세례를 받았다. 네팔예배 지체들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면소바 자매, 거루나 자매, 어니쉬 형제가 세례 받은 것을 축하했다. 필립 목사(네팔예배 담임)가 의왕시 부곡동 왕송호수에서 세례를 집행했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 된 저는 약 1년 반 전에 한국에 오길 결심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됐는데 마침 사장님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 비전이 있어 근처 외국인교회에서 협력하고 계셨습니다. 사장님을 통해 외국인교회를 접했지만 그곳에는 네팔어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미션 네팔어예배

지체들이 한 달에 한번씩 인천, 안산, 수원 등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우연히 받았습니니다. 온누리미션 네팔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양육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과 외로움, 공허함에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의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보로 그 땅을

기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고국에서 보낸 7개월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으로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신 성도님과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좀더 깊이 교제하지 못한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을 접고 또 다른 부르심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그 지역을 소개해 드립니다.

양육하려고 배웁니다

제 관심사였던 중국인 사역에 전문성을 갖추려고 말레이시아 신학원(STM)에서 중국어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나호 선상 사역을 하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인 제자 양육을 하려면 더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일로 선상 생활이 어려워졌기에 진로를 바꿔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하는 말레이시아 신학원은 수도에서 지하철로 2시간 가량 떨어진 쉐랑방에 있습니다. 1979년 초교파적으로 설립한 이후 줄곧 말레이시아의 복음화와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주로 본국 화교와 인도계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근래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인도, 중국 등 아시아 제 3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어 세계 선교 지도자 양육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교인 모슬렘(50% 이상) 포교에 방해되는 종교는 정치적 차원에서 암암리에 성장을 막고 있으므로 신학원에 영어부와 중국어부는 있지만 정착 있어야 할 국어 말레이시아어부는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인구 중 33%가 화교로 약 5백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제가 대부분 화교 중심이어서 화교 교회는 물질적, 인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편입니다.

다. 그러나 모슬렘이 국교이다 보니 복음을 접할 역사에 비해 정도와 세계 선교에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성장 또한 더딤니다.

복음이 열매 맺는 좋은 땅

저희들이 그 땅에 파수꾼으로 들어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모슬렘 진영과 맞서 중보로 그 땅을 기경하여 복음의 씨앗을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도록 무릎으로 섬길 것입니다. 특히 신학교 교수진들과 교회 강단을 맡은 학생들이 성령의 바람 앞에 주저하지 않고 지혜롭게 자국 선교와 영적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중국 교인들이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말레이어)에 능통한 장점을 살려 동남아시아에 흩어진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미전도 종족에 헌신하도록 기도 그 땅을 섬길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의 생활과 학업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고 성령에 민감하여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26세 이상은 유학 비자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는 신학을 공부하니 더더욱 거절 대상이겠지만 비자와 정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이 그 땅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충족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월 29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고국에 있는 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 볼지 못한 점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결실의 가을입니다. 동역자님과 성도님의 가정과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윤택해지는 계절이 되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각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이만 줄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대방 2003년 10월 18일
정현, 미용(웃, 나단) 올림

중보기도모임 소개

▣ 서남아시아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홀 기도실)
남아시아 주요 전략 도시 10군데에 선교센터 설립, 한국인 장단기 선교사 1백명 파송, 남아시아를 위해 헌신적으로 중보기도할 동역자 1천명을 세우리라는 비전을 품고 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 윤정현 지매 018-225-9018

▣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서빙고 구 신문사실)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 선교에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95년 처음 모여 8년째 기도모임을 계속하고 있다. 매주 25명에서 30명이 모여 한주간 북한 동향을 정리해 그 주 헌안을 놓고 기도한다.
• 김현철 부장 019-525-7574

▣ 아프가니스탄 기도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서빙고 301호)
아프간에 교회가 개척되도록, 아프간 엔지오 단체인 동서문화개발교류회(ECC)가 아프간 회복에 큰 역할을 하도록, 현지 선교사와 건승선교사의 안전과 영적 강건을 위해 기도한다.
• 이현숙 집사 018-236-5830

▣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서빙고 자모실)
1990년 2월 이스라엘을 품은 12명이 모여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길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을 통해 설립한 키비는 믿는 유대인 지원, 유대인 귀환사역, 이스라엘 문서발간 사역들을 하고 있다.
• 장성태 집사 792-7075~6
KIPI 사무실 016-204-2772

▣ 소아시아 중보기도모임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 두란노홀)
소아시아 중보기도모임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돌보고 이슬람 장애인을 돕는 카델린 사역을 한다. 소아시아 선교사라면 선교단체가 달라도 극진히 섬겨 깊은 교제를 나눈다.
• 이경학 집사 019-306-9022

▣ 멕시코 중보기도모임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6시 (서빙고 홀 기도실)
강동송파공동체에서 사역하던 교역자를 멕시코로 파송하며 97년 처음 모였다. '기도는 여기서 하는데 역사는 멕시코에서 생긴다'며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할 중보기도자 12가정을 주시도록 기도한다.
• 김철주 집사 011-207-6167

▣ 인도를 위한 중보기도모임

-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서빙고 홀 기도실)
인도 중보기도모임은 복음 서진화의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 부흥을 기도한다. 11억이 사는 인도에 온누리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현재 2명뿐이므로 앞으로 인도 파송 선교사가 10명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
• 박일화 집사 017-205-2541

▣ Acts29 바그다드 중보기도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TIM 사무실)
평신도 선교훈련인 Why Missions 졸업생들이 단기선교로 이라크 정탐을 다녀온 후 올해 8월 21일부터 중보기도팀을 결성하고 이라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바그다드를 위해 기도한다.
• 이흥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 창조과학 선교팀 기도모임

-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5층 옥탑방)
1980년 김영길 총장을 비롯해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사단법인 창조과학회를 설립했다. 창조과학 선교팀 기도모임은 창조과학회가 하는 사역(세미나, 캠프, 출판, 인터넷 티비 등)을 중보한다.
• 김낙경 팀장 011-242-7877
김성철 총무 011-9752-6038

▣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이룬기도실)
모잠비크와 케냐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사람들이 아프리카 50여 국을 품고 8월 25일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현재 12명이 모잠비크와 케냐에서 선교하는 온누리 선교사를 위해 중보한다.
• 김지은 011-9965-0921

▣ BEE 기도모임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15분(서빙고 303호)
BEE는 양육기관이 없어 교회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교회가 탄압 받는 곳을 찾아가 양육하며 섬기는 움직이는 신학교다. 해외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열매 맺는 세미나가 되길 기도한다.
• 정재호 011-630-7421
BEE Korea 02-749-9480

▣ 몽기모(공공을 위한 기도모임)

- 매달 첫 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이번 주는 서빙고 식당)
강서김포 공동체가 올 여름 몽골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받은 은혜를 품고 돌아와 '이 마음을 잊지 말고 간직하자'고 만든 모임이 몽기모다. 아웃리치에서 부린 씨앗을 양육할 사역자가 하루 빨리 파송되길 기도하고 있다.
• 이해성 011-412-0518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슬람의 대표적 절기인 라마단이 다가왔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13억 이슬람 교도들은 30일 간 금식하고 쾌락을 절제하며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이슬람 교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기 라마단에 관해 알아보고 절대신에 대한 두려움을 품은 13억 모슬렘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하는 역라마단 기도모임을 소개한다.

라마단이란?

라마단이라는 명칭은 아랍어로 '타는 듯한 더위와 건조함'을 뜻하는 '라미다(ramida)' 또는 '아라마드(arramad)'에서 유래했다. 이런 의미에서 라마단이란 금식 때문에 위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다.

'라마단'은 이슬람력(헤즈라력)으로 9번째 달을 말하며 이슬람 신자들에게 부과된 5대 의무(메카순례, 하루 다섯 번 암송과 기도하기, 헌금, 금식, 성전-지하드) 중 하나인 금식(아랍어로 '싸움')을 하는 달이다. 이슬람력은 음력으로 양력보다 매년 10일 정도가 짧기 때문에 라마단을 시작

하는 시기가 매년 10일 정도씩 빨라진다. 전 세계가 같은 날 시작하지도 않는다. 지역마다 라마단 달이 시작하는 첫 초생달이 떠오르는 시점에 시작하는데 올해 라마단은 10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매년 모슬렘은 라마단 30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의 믿음에 집중해 본능적인 욕구와 싸워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 따라서 라마단은 이슬람교의 중요한 행사이다. 이들이 이때 금식을 하게 된 것은 마호메트가 코란(수라 2:183-187)에서 명했기 때문이다. 그 기원은 유대교의 대속죄일 금식이라고 한다("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고통을 할지니- 레16:31"). 모슬렘은 모하메드가 바로 이 라마단월에 코란에 포함되어 있는 신의 계시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믿으며, 보통 매일 코란을 30번 이상 읽으려 노력한다.

고통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모슬렘들은 라마단 기간 금식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 라마단 한 달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쾌락을 절제한다. 그리고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라마단의 낮 시간동안 공공장소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팔거나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 군인, 여행자, 임산부, 병자의 경우 금식에서 제외되나 이들은 라마단에 참여하지 못했던 기간만큼 나중에 보충해야 한다. 보통 여자 아이들은 7살 때부터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8

살 때부터 라마단에 참가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금식을 종식하는 기도와 함께 'iftar'라 불리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친구, 이웃, 가족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인다.

라마단 기간 중 무슬림은 'tarawih'라 부르는 저녁 기도를 강조한다. 이것은 연속되는 20개 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달 동안 코란 전체를 공동으로 암송한다. 무슬림들은 마호메트가 라마단에 히라산에서 명상하던 중 특히 27일째 되는 밤 첫 계시를 받았다고 믿으며, 이때를 '능력과 거룩한 밤'(Laylat al-Qadr)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날은 밤새 깨어서 축복과 용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헌신적인 무슬림들은 마지막 10일 동안 아주 높은 영적인 열정을 가지며, 27일째 밤에는 밤을 새며 기도하고 코란을 암송한다. 그리고 이때 환상이나 계시가 임하면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열린 마음을 이용해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신다.

13억 이슬람 교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 이슬람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은 영적으로 놀림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슬람 교도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고난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단 절기와 같은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합하여 영적 세력을 꺾고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역라마단 기도운동'을 한다. '역라마단 기도운동'은 이슬람권에 복음의 돌파구를 열 것이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역라마단 기도모임

여호수아 공동체
'2003 무슬림을 위한 연합기도회'
청년 여호수아 2천 선교 다락방은 11월 1일(토)부터 22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역라마단 기도모임을 한다. 양재 성전 매점 원형룸에서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한다. 라마단에 대해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 모두 환영한다.

예수전도단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예수전도단이 11번째 해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올해 10월 26일 시작한다. 이 기도운동은 예수전도단이 발행하는 라마단 기도소책자를 구입해 기도제목을 보며 기도하면 된다. 소책자는 2천원이며 예수전도단에 문의해 구입하거나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강남 여의도 순복음

여호수아 공동체는 10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양재 두란노 홀에서 열리는 전체 기도회에서 역라마단 기도를 한다.
• 문의: 최욱 다락방장 (011-9783-3417)

제 2성전 오후 6시 30분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책자를 구입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 예수전도단은 26일 경 기도제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계획이다.
• 문의: 예수전도단 (873-4192,3) www.ywamkorea.org

투르크에서 온 기도편지



투르크메니스탄은 10월 6일이 지진 추모일이었습니다. 55년전 1948년 아쉬하바드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16만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때 현 대통령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죽어 고아가 되었지요. 아울러 무슬림들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중의 하나인 라마단 금식 10월27일부터 시작되어 30일간 계속됩니다. 해마다 라마단에 동참하는 투르크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마단을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을 어둠 가운데 묶어가고 있는 이슬람의 거짓된 세력이 파하여지도록, 지진을 통해 투르크멘 사람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죽음과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도록, 투르크멘의 독재의 상황이 바뀌어지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투르크메니스탄에는 김요엘/이모임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 루흐체시메시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투르크멘에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고 있다.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 29 바그다드(Baghdad)증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
번지 두란노 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내용: 1) 이라크 현지 정보 공유와 증보기도
2) 바그다드 온누리비전교회 개척팀을
위한 증보기도

3) 올해말 "Christmas in Baghdad"
를 위한 증보기도

문의: 이흥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

10월 27일 (월) 오후 7:00 서빙고 304호

설교: 박종길 목사
문의: 김화수 팀장(011-448-4262)

쿠르드 증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뽀얏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증보기도(말은생들)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rmon.com

TIM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일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7:30 서빙고 아
론기도실
문의: 김지은 (011-9965-0921)

인디모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

11월 6일 목요일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00~9:00 서빙고 2층 유아실
문의: 016-346-8460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10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10월 28일(화) 오후 7:30 서빙고 비전홀(B2)
내용: 3개월동안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EEF
사역(유대인 귀환사역)을 하고 돌아온
이원상, 김혜정 선교사 사역 보고/간증,
장막질 행사 결산, 이스라엘 회복을 위
한 기도
문의: KIBI(792-7075~6)

케냐 아웃리치

꿈광/청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
치를 떠납니다

12월 24일~2004년 1월 4일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서빙고(장소시간추후
공고)

물품구함: 여름 헌 옷(아동, 성인), 장난감, 인형
등

문의: 이명열 (011-202-5386)
정영원 (011-1707-6299)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Christmas in Baghdad

12월 21일 ~ 2004년 1월 1일 (서울도착)
주최: 온누리 바그다드 한인교회, 온누리세
계선교센터

비용: 150만원 (예정,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
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 서울 - 카타르 도하 - 요르단 암만 - 바
그다드 - 니스웨 - 모슬 등지 여행

접수마감: 11월 15일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자격: 온누리 교인으로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에서 실시한 Why Missions? 졸업생
이나 이와 동등한 훈련을 받은 온누리
교회 성도

"OPEN HOUSE"

11월 7일 (금) 오후 4:00~7:00 (저녁식사 보
함)

내용: 선교사 훈련학교 소개, 선교사 훈련 시
설 공개, 선교사 후보생들과의 만남, 훈
련과정 안내와 질의응답, 선교사 파송
문의

문의: 강자형 간사 (031-336-6350~2)

제3기 Turning Point (단기선교사 훈련)

2004년 1월 12일 (월) ~ 2월 6일 (금)
원서마감: 2003년 12월 14일 (주일)

대상: 단기 선교사로서 2년정도 현장 선교경
험과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온누리교
회 성도

훈련내용: 선교의 성경적, 문화적 기초, 대인
관계, 장기 사역과 단기 사역자의
관계, 선교전략과 실제

제4기 OSOM (Onnuri School of Missions, 장기선교사 훈련)

2004년 2월 16일(월)~6월 18일(금)
원서마감: 2004년 1월 25일(주일)

대상: 장기선교사로 사역지에 나가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훈련내용과 강사: 홈페이지 (www.owmc.
or.kr) 참조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whymissions@empal.com)
(홈페이지: www.owmc.or.kr)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
도종족증보기도실 (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 (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물품구함

컴퓨터(노트북포함), 차량(봉고차)12인승이상
가능)지원합니다.

문의: 황호상(017-290-7856), 온누리미션
사무실(02-790-6052)

헬터에서 사용할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문의: 이경희 간사
(017-316-9787/796-6052)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유절제홀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
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부천 외국인예배

매주 일 오후 4:00 부천온누리비전교회 2층
예배당

문의: 백정석 집사 (011-446-7490)

*외국인근로자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외국인예배 스폰서 구함

대상: 인도네시아 성인 남녀 성도용
품목: 가을 겨울옷과 이불(담요)

문의: 부천온누리비전교회 목회지원실
(032-325-8707)

캄보디아 아웃리치

12월 15일~20일
문의: 오재성 목사(042-825-3642)
함께 하실 분은 대전온누리교회 사무국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재성 목사(042-825-3642)
후원헌금: 하나은행 149-910033-91407(예
금주:지이령)

01

바그다드에서 크리스마스를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이라크의 온누리 바그다드 한인 교회에서 성탄절을 보낼 아웃리치팀을 모집한다. 아웃리치팀은 12월 21일 서울을 출발해 바그다드 한인교회에서 이라크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성탄절을 보낸 후 니스웨 성과 모술 등을 돌아보고 내년 1월 1일 서울로 돌아온다. 'Why Missions?' 졸업생이나 이와 동등한 훈련을 받은 온누리교회 성도에 한해 11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선교사 이렇게 훈련 받네!

온누리 파송선교사들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 선교 훈련생들은 훈련기간 중 어떤 곳에서 숙식 할까? 평소 궁금하게 여기던 선교사 프로그램과 시설, 선교사 훈련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오픈 하우스가 11월 7일(금) 오후 4시에 열린다. 선교 후보생들과 만

남, 훈련과정 안내와 질의응답, 선교사 파송 문의도 할 수 있다. 오는 7일(금) 오후 3시 서빙고에서 양지로 출발하는 차편도 준비한다.

• 문의: 강자형 간사
(031-336-6350~2)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온누리미션 몽골 큐티세미나

큐티세미나를 들으며 큐티 이론을 배워온 몽골어예배가 이번 주일(11월 2일) 워크숍을 마친 후 본격적인 큐티나눔을 시작한다. 몽골어예배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주일 몽골어예배가 끝난 후 한 시간 가량 피현희 전도사가 강의하는 큐티세미나를 공부했다.

통역을 맡은 오유나 자매는 "피현희 전도사님이 몽골 선교사로 있을 때 해주셨던 큐티 강의를 좋아해서 온누리 몽골어예배에서도 강의해주시길 부탁했다"며 "몽골어예배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큐티가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몽골어예배에는 큐티를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고 말했다.

카트나 자매는 "큐티를 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세미나를 들으며 왜 큐티를 꼭 해야 하는지 알았고 큐티를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배웠다"며 앞으로 깊은 큐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몽골어예배는 몽골어로 번역한 생명의 삶으로 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적용해 큐티를 나눌 예정이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역라마단 기도모임

2003 대형, 무슬림을 위한 연합기도회

여호수아 공동체를 중심으로 온누리 대학청년부는 10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양재 두란노홀에서 역라마단 기도를 시작했다. 대학청년들은 13억 무슬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한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11월 1일

(토)부터 22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양재 성전 매점 원형룸에서 오후 6시 30분에 역라마단 기도모임을 한다. 대학청년부 역라마단 기도팀은 라마단에 대해 기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도 기다리고 있다.

• 문의: 최옥 다락방장
(011-9783-3417)



'폭연 속에서도 사역의 길이 보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동역자분들께 이라크 개척팀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북부지역 정탐 아웃리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정탐하는 동안 바그다드와 모술에서 수 차례 폭탄 테러가 있

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던 모술 호텔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고 저희가 없는 동안 바그다드에서는 라쉬드 호텔과 적십자 본부 등 여섯 곳에서 동시에 자살 폭탄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 바그다드 베이스에 혼자 남아 계셨는데 폭음이 굉장히 컸으며 검은 폭연이 하늘로 치솟는 것을 목격하셨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모술로 가는 길에도 미군 헬기가 추락 당하고 미군이 공격 당했다는 소식을 싸엔엔을 통해 들었습니다. 매일 매일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욱 동역자분들의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김사무엘 목사님께서서는 허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번 북부지역 정탐 여행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3일에 한국으로 들어가실 예정인데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라크 북부지역 정탐을 했습니다

저희 개척팀이 다녀온 이번 북부지역 정탐 여행에서 얻은 큰 수확은 북부 지역, 모술과 키루크의 교회를 방문하고 현지 목회자들과 만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쿠르드족 지역에 들어가 믿는 쿠르드족을 만나고 쿠르드족 사역의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교회들 중 바그다드를 제외하고 북부 모술과 키르쿱, 남쪽 바스라에만 복음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쿠르드족이 다스리고 있는 도후, 에르빌, 술레마니아 세 도시에는 개신교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0% 모슬렘 지역입니다.

'술레마니아'에서는 쿠르디스탄 국제 학교를 방문했는데, 이 학교는 이라크인 '요시프' 목사님과 미국계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만든 학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 학교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교사 중 상당수가 크리스천이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곳 교장과 교감 선생님 모두 믿는 쿠르드인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내년 4~5월쯤 쿠르드인 교회를 세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다면, 쿠르드족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작은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이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요시프'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믿는 쿠르드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쿠르드족 사역을 이곳 이라크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쿠르드족 사역 가능성이 보입니다

독특한 것은, 이라크 사람과 쿠르드 사람의 언어와 국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쿠르드족 지역은 자체 군대와 경찰력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달라서 이라크 안에 있지만, '쿠르디스탄'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쿠르드족 사역을 이라크 땅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다드에서 노규석 전도사



"의료선교사를 꿈꿨습니다"



정예나 (세종아 졸업생)

세종아에서 훈련 받고 지난 2월 캄보디아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이후 부모님을 따라 적도의 나라 필리핀으로 1년간 단기선교를 하고 있는 초등3부 정예나예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가족을 필리핀으로 보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겨울 1월 4일까지 저희 가족은 선교단체 인터뷰가 주최하는 수련회에 간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 해외선교에 헌신하실 분들은 모두 일어서시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우리 아빠는 회사에 다니시기 때문에 해외로 선교 나가실 형편이 못되어 처음에는 일어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3천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거의 다 일어서는 바람에 아빠 생각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가면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일어 서셨다고 해요.

2월 중순에 아빠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회사에 1년간 휴가 신청을 하셨는데 경쟁자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휴가를 받게 되었지요. 아빠는 처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으로 보내셨어요. 아빠의 결정에 따라 저희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호기심에 필리핀으로 왔지요. 필리핀은 정말 더웠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더위와 모기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고, 영어나 그 나라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정말 너무 힘이 들었지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매주 토요일과 주일, 빈민촌에 사는 필리핀 어린이들을 만나면서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빈민촌 어린이들은 너무 불쌍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 집의 방1칸 정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갑니다. 먹을 것도 없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낡은 티셔츠에 운동화가 없어 고무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하수가 없어 마을길을 따라 시커멓게 썩은 물이 흘러내리는 도랑 옆에서 흠뻑 놀이를 하며 논답니다.

저는 10년 전에 필리핀에 와서 활동 중인 이한나 선교사님의 선교훈련센터에 살면서 영어공부도 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예배를 드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는 성경집회에서 새로운 찬송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30분 이상 혼자 큰소리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요. 태권도 사범 전도사님의 지도로 한국에서 유학 온 10여명의 언니, 오빠들과 함께 태권도 연습을 하고 매주 토요일에는 빈민촌에 가서 필리핀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줍니다. 태권도는 필리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우리들이 빈민촌에 가면 너무 반가워하며 100여명의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들이 1시간 이상 태권도를 가르치고 나면 필리핀 전도사님이 30분 정도 현지 친구들에게 성경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준비한 과자와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주일학교에 나오도록 전도하지요. 6개월 동안 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지저분해서 함께 하기가 힘들었지만 이제 가까운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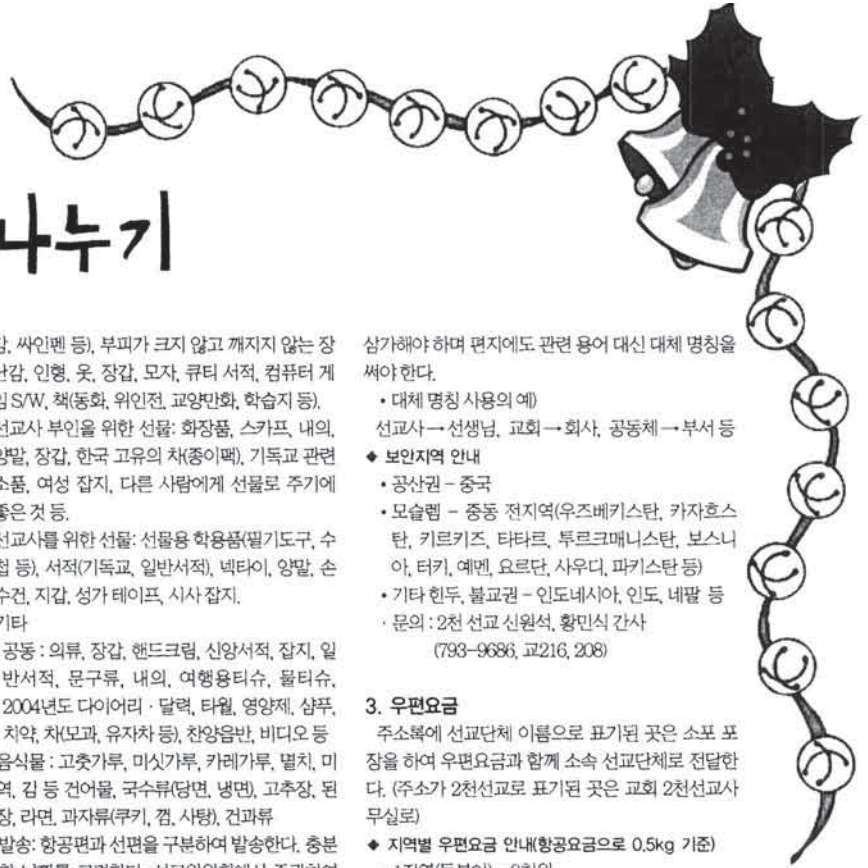
선교센터에서는 또 한 달에 한번 정도 무료치과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초콜릿과 사탕, 콜라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충치가 아주 심하지만 돈이 없어서 치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무료진료를 할 때 저는 주로 치과 기구들을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약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지요. 물론 필리핀 전도사님은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으시지요. 저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나도 커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 의료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꿈을 더욱 가지게 되었지요.

지금 6학년인 저와 4학년인 동생은 일년 동안 학교 공부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 한국에서 중학생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필리핀 어린이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내년 1월말에 돌아갈 때까지 온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성탄선물 나누기



1. 선물 준비

◆ 방법

- 1) 주소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한다. 상당히 많은 국가의 우편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손실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선교단체에 문의하도록 한다. 때로는 선교본부에서 인편을 이용하기도 한다.
- 2) 편지쓰기: 11월 중에 보내야 성탄절에 받아볼 수 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편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성의껏 준비한다. 교회소식이나 한국소식을 함께 전해도 좋다.
- 3) 선물준비: 부피가 크거나 무겁거나 깨지는 쉬운 선물은 피해야 한다.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가볍고, 실용적이며, 본국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선교사의 필요를 고려한 것이 좋다.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재치 있는 선물이면 금상첨화.

예쁜 포장지로 포장하고, 다시 소포포장을 한다. 정기구득 잡지나 책을 선물하는 경우 내용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한다.

보안이 요청되는 지역으로 보낼 때에는 카드나 편지에 선교사라는 용어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선물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1)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

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인형, 옷, 장갑, 모자, 큐티 서적, 컴퓨터 게임 S/W,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2) 선교사 부인을 위한 선물: 화장품, 스킨, 내의, 양말, 장갑, 한국 고유의 차(종이팩), 기독교 관련 소품, 여성 잡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에 좋은 것 등.

- 3) 선교사를 위한 선물: 선물용 학용품(필기구, 수첩 등), 서적(기독교, 일반서적), 베타이, 양말, 손수건, 지갑, 생가 테이프, 시사잡지.

4) 기타

- 공동 : 의류, 장갑, 핸드크림, 신앙서적, 잡지, 일간지, 문구류, 내의, 여행용티슈, 물티슈, 2004년도 다이어리 · 달력, 태월, 영양제, 삼푸, 치약, 차(모과, 유자차 등), 찬양음반, 비디오 등
- 음식물 : 고춧가루, 미숫가루, 카레가루, 밀치, 미역, 김 등 건어물, 국수류(당면, 냉면), 고추장, 된장, 라면, 과자류(쿠키, 김, 사탕), 건과류

- 5) 발송 : 항공편과 선편을 구분하여 발송한다. 충분한 날짜를 고려한다.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골고루 선물이 가도록 배려한다.

* 보안지역 선물제의 품목 :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약세서리 등

2. 보안지역 유의사항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와 관련된 선물을

삼가해야 하며 편지에도 관련 용어 대신 대체 명칭을 써야 한다.

• 대체 명칭 사용의 예
선교사 → 선생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등

◆ 보안지역 안내

- 공산권 - 중국
 - 모슬렘 - 중동 전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타르, 투르크메니스탄, 보스니아, 터키, 예멘, 요르단, 사우디, 파키스탄 등)
 - 기타 힌두, 불교권 -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등
- 문의 : 2천 선교신원석, 황민식 간사
(793-9686, 교216, 208)

3. 우편요금

주소록에 선교단체 이름으로 표기된 곳은 소포 포장하여 우편요금과 함께 소속 선교단체로 전달한다. (주소가 2천선교로 표기된 곳은 교회 2천선교사 무실로)

◆ 지역별 우편요금 안내(항공요금으로 0.5kg 기준)

- 1지역(동북아) - 9천원
- 2지역(동남아) - 1만원
- 3지역(북미, 중동, 유럽) - 1만3천원
-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 1만7천원

* 우편요금 안내 : 우체국 홈페이지
<http://seoul.koreapost.go.kr>
용산 우체국 전화 : 797-0659

“가장 좋은 마음의 선물, 편지”



조윤희 선교사(일본 삿포로 사역 후 안식년 중)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 중 기억나는 것은 성탄 장식품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문이나 벽에 걸어두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냈어요. 한국산 과자도 있었는데 많은 양을 보내주셔서 일본 교회 청년부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조리해서 먹는 것 보다는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좋고 저렴한 것이라도 풍성히 보내주시면 선교지의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추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스웨터나 목도리도 많이 받았는데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저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좋은 것은 정성과 마음이 듬뿍 담긴 편지 한 통입니다.



“이메일로 가장 필요한 선물 문던 자매”

조문상 선교사(싱가폴)

선물은 필요의 유무를 떠나 받는 그 자체로 기쁨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 보내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황홀합니다. 지금 딱 필요한 것이 선물로 온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하겠지요. 싱가포르 동·서양 모든 물품이 풍족하게 넘실대는 곳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한 자매님은 크리스마스가 가깝기 훨씬 전 저희에게 거의 험박조의 전자메일을 보냈습니다. 선물로 무엇인가 반드시 보낼 터인데 무엇을 보낼지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요. 그렇게 해서 받은 그 물건들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손이 가고 진요하게 사용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선물을 알아보고 보내주신 자매님께 감사할 두고두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 차까지 생각하며 선물 보낸 친구”



김정년 선교사(싱가폴)

타향에서의 삶에는 늘 고향을 그리는 눈물이 배어 있다 보니 그저 발신지가 한국어라 쓰여진 우편물만 봐도 반가움이 솟구칩니다.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던 해에 그동안 소식이 뜸했던 친구로부터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니 여름용 반팔 옷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어디서 어떻게 반팔 옷을 구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크리스마스에도 여전히 맘을 홀리고 있을 우리의 형편을 헤아린 깊고 따뜻한 마음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면 추운 겨울에 반팔 옷을 구해서 보내준 친구의 애뜻한 사랑에 늘 미소가 떠오르곤 합니다.



“예수님 묵상할 수 있는 달력있으면”

강바나바 선교사(몽골)

몽골에는 연예인 사진, 사주팔자를 점치는 달력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에게 성경적인 달력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 장에 일년 365일이 표시되어 있는 팬시 달력도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성인들에게는 한장씩 뜯는 달력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부 정도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선교지에서도 달력을 환영할 것입니다. 대부분 인쇄율이 뛰쳐져 있는데 기독교적인 물건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 그리고 워십 비디오 테이프도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교회 성도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이촌공동체: 김형욱 전도사 - 우즈벡 카라칼팍

순 선교사 사역지 선교단체
 이촌 1, 22, 23순 배사문/김로자 중앙아 OM
 이촌 2, 11, 16순 김영인/박화진 중앙아 한국인터서브
 이촌 3, 5, 18순 최연숙 중앙아 YWAM
 이촌 4, 10, 21순 강용원/정주자 미국
 P.O.Box 336 Orangeburg, NY 10962 U.S.A
 이촌 6, 12, 24순 류다윗/송안나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촌 7, 13순 아야고보/루디아 중앙아 한국인터서브
 이촌 8, 14순 서광/양혜원 중앙아 인터콥
 이촌 9, 19, 20순 이찬우/송용희 중앙아 한국인터서브
 이촌 11, 16순 김영인/박화진 중앙아 한국인터서브
 이촌 15, 17순 남진선/이혜숙 미국 한국인터서브
 이촌 25, 26순 전제삼/구영남 중앙아 FMnC 사무실

한강 공동체: 송대현 목사 - 일본 오사카

사랑 1, 2순 권윤일/다케다기우코 흑석중앙교회
 (156-860) 서울 동작구 흑석1동 102-21 / 전화: 813-0054
 사랑 3, 4순 김은영 일본
 063-0051 Miyanosawa Ijo 5chome 1-12 Nishi-ku Sapporo
 Japan I.C.F Church
 사랑 5~7순 김정길/조호숙 일본 2419-2
 YAMAGUCHI TOKOROZAWA SAITAMA JAPAN
 사랑 1, 2순 민명홍 일본 GMTC본부
 사랑 3~5순 천창길/황미혜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6, 7순 정지문/김은옥 일본
 B-1 Townhouse Ko Yama, 4-5-20 Edaminami Tsuzuki Ku,
 Yokohama 224-0007 Japan
 화평 1, 2순 도문갑/황영애 일본 GMP
 화평 3, 4순 조윤희 일본
 #201 Marubeni Haitusu, Kita 2Jo, Nishi 13 chome, 1-50,
 Chuo-Ku, SAPPORO, 060-0002 JAPAN
 화평 5, 6순 이은혜 중동 YWAM

강촌공동체: 박종렬 목사 - 러시아 모스크바

영선 1~4순 김낙웅/조길순 러시아
 Russia Moscow Rainskey prospect, Dom 4/a atag 5
 은유 1, 2순 김성찬/김주향 동북아 인터콥
 은유 3~5, 홍성 1순 이훈/이향선 캐나다
 BOX 106 DOMAIN MANITOBA R0G 0M0 CANADA 144
 총성 2, 3순 전영수/장현미 러시아 2IC동북아선교회
 / 전화: 2066-5585
 총성 4, 5, 평강 1순 엄홍석/안재영 싱가포르
 Singapore Post Centre Post Office, P.O. Box 447, Singapore
 914015 / 전화: 65-6280-1550
 총성 2~4순 주홍종/최경숙 한국
 (132-762) 서울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A 8동 106호
 / 전화: 955-7894

중흥로 공동체: 이상준 목사 - 미얀마 인타족

종로 1, 중한남 10, 11순 야망 미얀마
 C/O U Ngo Hang Fishery Department Nyanngshwe S. Shart
 State Myanmar
 종로 2, 3, 중한남 7순 최선수/김상욱 캐나다
 315 Woodland Acres Cres, Maple Ontario Canada L6A 1G1
 종로 4, 5순, 중한남 8순 김미향 중동 중동선교회
 종로 6, 중한남 1순 백인숙 한국 GMTC
 중한남 2, 3순 변희숙 한국 WBC 국제선교회
 중한남 4, 5순 이대경/박현신 캐나다
 #115 TOWNHOUSE APARTMENT ST. ANDREWS HALL
 6040 IONA DRIVE VANCOUVER, BC V6T 2E8 CANADA
 중한남 6, 7순 이태웅/송현복 한국 GMTC
 중한남 8, 9순 정철화/조경자 파푸아뉴기니
 P.O. BOX 24, SIL, UKRUMP, EHP444 PAPUA NEW
 GUINEA

용산 공동체: 송경부 목사 - 중국 A시

용산 1~3, 7순 김서로/윤위로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4~6, 8순 김스태반/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9~12순 성다윗/박숙자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13, 14순 유진광/신승신 동북아 HOPE
 용산 15~17, 20, 21순 최상운/허윤정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용산 18, 19순 유진광/신승신 동북아 HOPE

상동광진 공동체: 여성민 목사 - 중국 B시

성동 1~3순 김순종/송지수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동 4~6순 소현수/박호경 동북아 2IC동북아선교회
 성동 7~9순 강성실/최은희 한국 HOPE
 성동 10~12순 아리문츠/박영희 홍콩
 ARIE, YUNG HEE, DANIEL MUNTZ HRCC, 102 SHATIN
 TAU VILLAGE, SHATING, NT, HONG KONG S.A.R
 성동 13~15순 이광호/오정미 홍콩
 Timothy & Ruth Lee-Room Rm, 702-705, Corn Yan Centre,
 No.3 Jupiter St, North Point, HK
 성동 16-18순 변희현 동북아 경배와 찬양
 광진 1, 2, 11, 12순 조문상/김정년 싱가포르
 10 Gilstead Rd, Beulah House #02-10 Singapore 309064
 광진 3~5, 17순 신명기/민에스터 동북아 GBT
 광진 6~8, 15, 16순 박인숙 동북아 인터콥
 광진 9, 10, 13, 14순 김중/김란 동북아
 (122-943)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06-9 / 전화: 389-8704

동대문중앙 공동체: 이대영 목사 - 터키 투르크족

동대문 1~3순 김진영/임은경 소아시아 2000선교
 동대문 4~6순 김다니엘/이한나 소아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동대문 7, 8순 최상락/윤화정 소아시아 인터콥
 과천원순 김다니엘/이한나 소아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중앙 ① 1~4순 강에스터 터어기 YWAM
 중앙 ② 1~4순 최연호/김명옥 남아공
 115 Chudleigh Road, Plumstead, Cape Town 7800 South Africa

성북 공동체: 백상욱 목사 - 우즈베키스탄 우즈벱족

강북 1, 성북 7순 고여호수/유한나 중앙아 인터콥
 강북 2, 3순 안신기/김동연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강북 4순 최연호/김명옥 남아공
 115 Chudleigh Road, Plumstead, Cape Town 7800 South Africa
 강북 5, 5동 1, 2순 김스태반/조희 중앙아 인터콥
 강북 6, 7, 5동 8순 이정열/이미경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북 1, 5순 안신기/김동연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북 2, 5동 4, 6순 최현우 중앙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성북 3, 5동 3순 강요한/유마리아 중앙아 인터콥
 성북 4, 7순 정하진 중앙아
 POSTFACH 203 ATTN: HWAN SOOK JUNG(BESSHARIK),
 CH-4950 HUTTWIL SWITZERLAND
 성북 6, 5동 5순 박상호/최미옥 중앙아 인터콥

서빙고 공동체: 박종길 목사 - 인도네시아 람롱족

은유 1, 2순 이석희/박혜숙 인도네시아
 Komplek Bukit Permai J1, Merbuk Blok i/29 Cibubur
 Jakarta-Timur Indonesia 13720
 은유 3, 4순 김종만/황신실 인도네시아
 P.O. BOX 1332, YWAM, Bandung 40013, INDONESIA
 은유 5~8순 김순기/이문수 뉴질랜드 144
 HUTCHINSON RD HOWICK, AUCKLAND N.Z
 은유 9, 은혜 1, 2순 박재희 한국 GMP
 은유 10, 화평 5순 고재형/허성혜 몽골
 Prof. Ko, Jae Hyeong Ph.D Dean of Academic & Student
 Affairs Director of Biosci, & Food Res, Center Mongol
 International University
 은혜 3~5순 양미희 인도네시아
 P.O. BOX 1332 BANDUNG 40013 INDONESIA
 은혜 6~8순 유은영 인도네시아 YWAM

“크리스마스, 온누리”

남양주 공동체: 이재훈 목사 - 동경/우에다

구리 1, 마리아 5순 무함렘군드스 소아시아 2000선교
 구리 2, 3, 남양주 1, 2순 심하일/정진주 소아시아 YWAM
 남양주 3, 4, 6순 이시랑/김은혜 소아시아 YWAM
 남양주 5, 마리아 6, 7순 황디모데/송예나 미국
 1804 JT LUTHER DR, APT C, FORT WORTH, TX, 76115
 마리아 1, 2순 정이레 소아시아 ITM
 마리아 3, 4순 조수정/이하나 일본
 反野 懸 上山 講義 形 1377-64 上山 オンスリキリストチャーチ
 / (HP) 81-90-9611-5967

노원외정부 공동체: 최성림 목사 - 인도네시아

월계 1~4순 김요한/명드보라 인도네시아
 JL. Rungkut Asri/Lor IV RL I D / No.16 Surabaya 60293
 Indonesia
 공룡 1순 김연수/최애숙 인도네시아
 SIL P.O. BOX 1800 JAYAPURA 96018, IRIAN JAYA, INDONESIA
 공룡 2, 3순 이경화 인도네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하계 1~3순 이우림/김조은 인도네시아
 JL. BAGUSRANGIN NO 5 BANDUNG 40132 INDONESIA
 중계 1~3, 노원 1순 손창남/안은숙 인도네시아 OMF
 노원 2, 상계 1순 김의정/박연화 인도네시아
 Box 1 Sentani 98352, Irian Jaya, Indonesia
 상계 2, 3순 김연수/최애숙 인도네시아
 SIL P.O. BOX 1800 JAYAPURA 96018, IRIAN JAYA, INDONESIA
 상계 4, 5, 외정부 1순 서재춘/이선희 인도네시아
 P.O BOX 1332 BANDUNG 40013 INDONESIA
 외정부 2~5순 박관구/안은숙 인도네시아
 JI SIMPRUG GOLF IX PERSIL NO 132 JAKARTA SELATAN INDONESIA

은혜 9, 화평 1, 2순 임연실 인도네시아 GBT
 화평 3, 4순 장현/정미용 인도네시아 2000선교
 화평 6~8순 전광호/김혜란 인도네시아
 Jl. Rungkut Mapan Barat A1 No.11, Surabaya 60293, Indonesia

영등포구로 공동체: 서재범 목사 - 멕시코 미헤족

구로 1~5순 김선광/구자현 멕시코
 Rio Grijalva, #107 Fracc. Los Sauces Oaxaca, OAX, MEXICO
 C.P. 68010
 구로 6~10순 김수선 니카라과
 Barry & Soosun Davis Apartado 105 Managua, Nicaragua
 Central America
 영등포 1~4순 박성민/정희진 에콰도르
 CASILLA 17-17-752 C.E.Q. QUITO ECUADOR
 영등포 5~8순 박운용/김연아 브라질
 Rua Julio Conosicao 236, Apto 42 Bom Retiro sao Paulo, SP,
 BRASIL, CEP 01126-000
 영등포 9~14순 김성태/이성자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여의도 공동체: 전병택 목사 - 몽골

여의도 1~4순 박관태/정수경 몽골
 David Park, Yonsei Friendship Hospital CPO Box 1035,
 Ulaanbaatar, Mongolia
 여의도 5~7순 마키토/이종은 네팔
 Makto and Chong-eun Fukuzawa P.O. BOX 8975 EPC
 1623 Kathmandu, Nepal
 여의도 8, 9순 심재욱/장성애 파푸아뉴기니
 Mr. & Mrs. Jee Wook Shim / Box 252, SIL, Ukarumpa EHP
 445 PNG
 여의도 10~12순 정민영/이재진 한국

JungAsian Diaspora Initiative, Wycliffe International 7500 W. Camp Wisdom Road Dallas, Texas 75236 U.S.A
 여의도 13, 14순 권애진 싱가포르
 Singapore Post Centre Post Office, P.O. Box 447, Singapore 914015
 여의도 15, 16, 17순 허남석 미국
 11820 S.W. 7th St Beaverton, OR, 97005, USA (전화: 1-503-628-8907)
 여의도 18순 고재형/허성혜 몽골
 Prof. Ko, Jae Hyeong Ph.D Dean of Academic & Student Affairs Director of Biosci. & Food Res. Center Mongol International University

동작A 공동체: 최봉림 전도사 - 중국 하니족

믿음 1~4순 한소망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믿음 5~8순 이보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믿음 9~11, 사랑 6순 심영애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1~4순 한다나엘/정진화 동북아 경배와 찬양
 사랑 5, 7순, 소망 1, 2순 정진숙 싱가포르
 YWAM GEYLANG P.O. BOX 25 SINGAPORE 913801
 소망 3, 4순 정제순/홍정옥 미국
 JeSoon & JungOk Chung / SIL P.O.Box 217, Ukarumpa FHI 444, Papua New Guinea
 소망 5순 이명순 스웨덴
 RFSSTENAS 32200 45993 LJUNGSKILE YWAM, SWEDEN

동작B 공동체: 박철웅 목사 - C국 D시

인애 1~4순 김천중/김지혜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인애 5, 6, 영선 1, 2순 최선호/김용호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인애 7, 희락 1~4순 이주복/김신애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영선 3~6순 우동관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관악 공동체: 이기원 목사 - 캄보디아

관악 1~3순 심원희 캄보디아 경배와 찬양
 관악 4~6순 정석천/신병연 태국
 Rev. Seok Cheon, Jung 79/3-13 Soi 112 Latphrao Wangthonglang Bangkok 10310 Thailand
 관악 7~9순 장성근 필리핀
 YWAM P.O. BOX 252 BAGUIO CITY 2600, PHILIPPINES
 관악 10~12순 박성화/박종운 미국
 1306 MILL CREEK BLVD. N202 MILL CREEK, WA 98012 USA
 관악 13~15순 보니 랜 블랙카드 캄보디아
 C/O BRIAN MAHES PO BOX 2178 PHNOM PENH CAMBODIA
 관악 16~19순 양영화/한경신 한국 빌리온선교회
 (151-01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31 / 전화: 879-1192

신림금천 공동체: 안광국 목사 - 이라크

금천 1, 2순 김영희 아프리카
 152 Str. 5 Qala-e-Fatehullah Kabul City Afghanistan
 금천 3, 4순 이기정 아프리카 YWAM
 금천 5~7순 정운길/허정옥 미국
 Rev. Un Kil Jung 2270 Hassell Rd, #107 Hoffman Estates, IL 60195 U.S.A
 신림 1~3순 권능/오성령 몽골
 Dean of Academic & Student Affairs Director of Biosci. & Food Res. Center Mongol International University (MIU)
 신림 4~6순 김정희 인도

B-5, First Floor Defence Colony, New Delhi, 110024, India
 신림 8, 9순 이원상/김혜정 이스라엘 두란노해외선교회

광명인턴 공동체: 신기섭 전도사 - 터키 쿠르드족

광명 1~4순 김순중/천사랑 소아시아 인터콥
 광명 5~8순 장리브가 소아시아 WBC
 광명 9, 10, 부천 1순 손승성/송이레 소아시아 인터콥
 부천 2~4순 김마가/송두리 중앙아
 (137-042) 서울 서초구 반포2동 주공2단지 215동 104호 / 전화: 6264-7412 / 019-661-0907
 부천 5~8순 박성현/장혜경 미국
 Seong hyun Park 88 Hammond St. #1 Cambridge, MA 02138 USA
 부천 9, 10, 부평 1순 채사라 소아시아 인터콥
 부천 11~15순 김현수/홍성애 소아시아 WBC
 부천 17~20순 이명순 스웨덴
 RFSSTENAS 32200 45993 LJUNGSKILE YWAM, SWEDEN
 부평 2~5순 김사랑 소아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부평 6, 7, 인현 1, 2순 이빛 소아시아 인터콥
 부평 8~11순 김동훈/김현심 소아시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인현 3~5순 손승덕/윤영아 싱가포르 경배와 찬양
 인현 6, 7순 김은혜 영국
 22d Howards Road Plaistow London E138AY, ENGLAND
 인현 8, 9순 최상락/윤화정 소아시아 인터콥

일산 공동체: 김홍주 목사 - 케냐 스와힐리족

믿음 1~4순 김완영/홍미숙 케냐
 P.O. BOX. 1261 MALINDI KENYA AFRICA
 믿음 5~7순 문하림 중동 중동선교회
 믿음 8, 사랑 1순 나오미 중앙아

Naomi Park / H.O Professionals International Postanski Fah 249 72102, Zenica Bosnia and Herzegovina
 사랑 2~4순 엄기정/이해정 중동 OM
 사랑 5, 6순 오한나 한국 경배와 찬양
 사랑 8~10순 이동원/문귀향 튀니지아
 10 RUE, AHMADELGHARBI BELVEDERE TUNIS 1002
 소망 1, 2순 최승민/배원실 나이지리아
 PMB 2009, Jos, Plateau State Nigeria
 소망 3~6순 이성우/김영미 중앙아 GBT
 소망 7, 8순 이재일/조순희 세네갈
 Soon Hee & jae il Lee - Mission (GHM) B.P.1143 Dakar RP Senegal West Africa

고양은평 공동체: 이형석 목사 - C국 E시

고양 1~6순 임창대/박인나 동북아
 (135-220) 서울 강남구 수서동 750-1 남서울 은혜교회 내 원동 문화개발기구 / 전화: 445-0390
 고양 1~4순 김광휘/안경심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고양 5~8순 이재환/선우순애 미국 Come Mission Korea
 :137-846)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960-1 목화빌딩 3층 / 전화: 585-0697
 은평 1~6순 김한나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은평 7, 은평 1~6순 방상억 동북아
 은평 7~11순 위진경 동북아 경배와 찬양

마포 공동체: 김중원 목사 - 중국 위구르족
 마태 1~3순 윤경숙 동북아 경배와 찬양
 마태 4, 5, 마태 2순 김미선 영국 경배와 찬양
 마태 2, 3순 고진우/혜현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마태 4~6, 마태 12순 선순희 미국 ALLM
 P.O. BOX 778 monroe, washington, U.S.A
 마가 1 3~5순 윤경숙 동북아 경배와 찬양
 마가 2 1~6순 이룻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서대문 공동체: 손신국 전도사 - 모잠비크

총정 1~4순 고진우/혜현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총정 5, 6순 정보인 영국 경배와 찬양
 연회 1~3순 오대원/엘렌 미국
 David and Ellen Ross 13717 Cascadian Way Everett, WA 98208 USA
 연회 4순 이성우/김영미 중앙아 GBT
 총재 1~3순 아이라함/유사라 뉴질랜드
 30 White Heron Drive Royal Heights Auckland New Zealand
 총재 4, 5순 이반석/최순덕 모잠비크
 C.P. BOX 1303 RENEWAL, MISSION MAPUTO, MOZAMBIQUE

양천 공동체: 이양목 목사 - 이스라엘

믿음 1~4, 은유 4순 류모세/강주희 이스라엘 두란노해외선교회
 믿음 5, 6, 사랑 2, 은평 7순 안드레/서석남 이스라엘 두란노해외선교회
 믿음 7순 이원상/김혜정 이스라엘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3~6, 은유 5순 오세동/전선희 이스라엘 두란노해외선교회
 소망 1~4순 Keith Intrater 이스라엘 KIBI
 은유 1~3순 임봉추 사우디 JOY 선교회
 (130-062)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274-6 / 전화: 929-3652-4

양천 B공동체: 이기훈 목사 - 내몽고

마태 1~4순 이주복/김신애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마가 1~4순 한경원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누가 1, 2순 유진상/윤미리 동북아 HOPE
 누가 3~5순 박숙현 영국 경배와 찬양

강서김포 공동체: 김평래 목사 - 몽골 브리야트족

셋째 1~4순 김바나바/김조세핀 몽골
 Kang Barnabas P.O. BOX 355 070.000 DOPHOD MONGOLIA
 셋째 5, 김포 삼배, 김포 5순 이철희/원은복 미국
 16124 Rosecrans, Ave. Apt #D9 La Mirada CA90638
 셋째 삼배, 김포 4순 이창욱 몽골
 U-B 21201 P.O. BOX 102 BAGANUU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영생, 은혜 1, 2, 김포 6순 박경수/황미옥 미국
 Abe Park or Kyungsoo Park 75-5851 kuakini hwy#296 kailua kona HI 96740 U.S.A
 은혜 3, 4순 오석환/제니오 미국
 13444 Moore Street Carritos, CA 90703 USA
 은혜 5~7순 오연수 미국 YWAM
 김포 1, 2순 김바나바/김조세핀 몽골
 Kang Barnabas P.O. BOX 355 070.000 DOPHOD MONGOLIA
 김포 3, 7, 8순 한샘물 몽골
 Bright Future School P.O Box 305 UlanBataar 38 Mongolia

강남A 공동체: 한홍 목사 - 말레이시아 이반족

믿음 1, 2순 위요한/요한나 말레이시아
 No. F-13, Menara Impian Jalan Sultan Taman Tar Ampang 68000, Selangor Malaysia
 믿음 3, 4, 사랑 1순 찰스 김 미국
 524 E. SEASIDE WAY #704 LONG BEACH, CA 90802
 소망 2순 정규채/박정신 한국 GMF
 소망 3~8순 탁연주/김경희 말레이시아 HOPE
 사랑 2~5순 조종환/임미경 파푸아뉴기니 GBT
 사랑 6, 7순 정규채/박정신 한국 GMF
 은유 1~5순 김성순 네덜
 G.P.O. Box 10034 Kim Nepal (RCK)

선교사와 함께하세요”

강남 B공동체: 광성한 목사 - C국 C시

송성 1~4순 김사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희락 1순 유진상/윤미리 동북아 HOPE
 희락 2~5순 김드보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희락 6, 7순 박은형/김영신 싱가포르 BEE
 화평 1~3순 유레베카 동북아 경배와 찬양
 화평 4순 유진상/윤미리 동북아 HOPE
 화평 5~7순 김선복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강남 C공동체: 신도배 목사 - 아프가니스탄

사랑 1, 2순 김드보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3순 김선복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4, 양선 3~5순 김사라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5순 김스데반/정한나 동북아 GBT
 사랑 6순, 은유 4순 이기정 아프리카 YWAM
 양선 1, 2순 김스데반/정한나 동북아 GBT
 은유 1~3순 김영희 아프리카
 152 Str.5 Qala-e-Fatehullah Kabul City Afghanistan

서초A 공동체: 박달희 목사 - 스리랑카 베다족

기쁨 1, 2순 이지연/김정희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 Ltd Millagahawatte Strawadana Mw,
 Ganemulla Sri-Lanka
 기쁨 3~5순, 배움 5, 6순 정레베카 스리랑카
 나눔 1, 2순 박영근/추행란 스리랑카
 나눔 3~5순 이승환/김은미 미국
 James Lee, 627 N.Mentor apt.#203 Pasadena CA91106
 나눔 6, 7순, 배움 1순 박영근/추행란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ite
 Ganemulla, Sri-Lanka
 배움 2~4순 정용택/전순애 스리랑카
 490-1A, HAVELOCK RD, COLOMBO 6, SRI LANKA
 은혜 1~4순 김길환/이은하 인도
 2328 Hudson lines Kingsway Camp Delhi-110009 India

서초B 공동체: 박형준 목사 - 스리랑카

서초 11~14순 도육환/이경희 미국
 61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USA
 서초 15, 16순 조윤정 스위스 YWAM
 서초 17, 21, 22, 37, 43, 44순 민성기/최윤숙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초 23, 24순 조윤정 스위스 YWAM
 서초 25~27, 46순 김교신 한국 안다옥 선교회
 (403-827)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16-1
 / 전화: 032-512-4746
 서초 31~33, 42, 47, 48순 이정미/지구보기 인도
 #422 7 th A main, 1st block, HRBR Layout Kaliyanagar,
 Bangalore-43, INDIA
 서초 34~36순 도육환/이경희 미국
 616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USA
 서초 41순 이승환/김은미 미국
 James Lee, 627 N.Mentor apt.#203 Pasadena CA91106

서초C 공동체: 김영배 전도사 - 브라질

예절 1~4순 이유진 중남미 두란노해외선교회
 드림 1, 7~9순 이승환/김은미 미국
 James Lee, 627 N.Mentor apt.#203 Pasadena CA91106
 드림 2~5, 10순 박일규/신인순 모잠비크
 C.P.BOX 16890 NELSFRUIT1200 SOUTH AFRICA
 드림 6순 박영근/추행란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ite
 Ganemulla, Sri-Lanka
 드림 11, 12, 설김 8순 박은용/김연아 브라질
 Rua Julio Conescao 236, Apto 42 Bom Retiro sao Paulo,
 SP, BRASIL, CEP 01126-000
 설김 1, 2, 7순 강예스터 한국 YWAM
 설김 3~6순 이지연/김정희 스리랑카
 TIM INSTITUTE(PVT)LTD, Millagahawatta Bollaite

Ganemulla, Sri-Lanka

강동송파 공동체: Joshua Kim 목사 - C국 E시

강동희락 1, 2순 김중성/정애리 일본
 강동희락 3~7순 김신순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東京都 新宿区 北新宿 4-30-2 東京基督教 門会
 마리아 1~3순 최해양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희망 1~3, 송파선 5, 6순 배홍일/박은영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희망 4순 김신순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파양선 1~4순 이수구/김숙일 일본
 26-1, Kita 4jo Nishi 11 chome CHUUKU SAPPORO,
 JAPAN
 송파충성 1, 2순 이영숙 일본
 902, 1-18-16, EBISU SHIBUYAKU TOKYO JAPAN
 송파충성 3~7순 허정란 동북아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랑, 2순 김안신 일본 OCC 선교국
 (110-021)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36-1 / 전화: 395-0636
 사랑 3~6순 김옥희 일본
 4-28-16, DAISAN, KANEKO 102 AYASE ATACHIKU
 TOKYO 120-0005 JAPAN

성남분당 공동체: 유선식 목사 - 멕시코 타라후아라족

분당 1~3, 18, 성남 3순 강일영/고영주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분당 4~6, 14, 15, 17, 18순 박성근/김인옥 멕시코
 14 Poniente 908, La Libertad, Puebla, Pue. MEXICO
 C.P.72131
 분당 7, 8순 신기숙 미국
 739 NE 90th D07 Portland, OR, 97220, USA
 분당 9~11순 유영춘 스웨덴 YWAM
 분당 12, 13, 성남 1, 2순 홍은선 미국
 Miss Sunny Hong/ WYCLIFFE BIBLE TRANSLATORS
 Korean Relations office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마리아순 최보인/천정옥 한국 GMP
 광주 1, 2순 최승민/배원실 나이지리아
 PMB 2009, Jcs, Plateau State Nigeria

과천의왕 공동체: 김차성 목사 -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과천 1~3, 13순 오하늘/김소망 중앙아 인터콕
 과천 4~6, 14순 김요열/이모임 중앙아
 과천 7~9순 안다옥 중앙아
 과천 10~12순 윤영숙 캐나다
 706 Reggie Court Spring Lake, NC 28390-3026, USA
 과천 15, 의왕 1~3순 김신숙 중앙아
 과천 16, 의왕 4, 인제원 4 장미정 남아공
 (우120-11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1동 112-35
 / 전화: 324-8688
 과천 17순 손은정 폴란드
 ul, Hetmanska 16/21 (20-555) Lublin Poland

수원용인 공동체: 박성일 목사 - 네덜

용인 1, 평택 1, 2순 최보인/천정옥 한국 GMP
 용인 2, 3순 최광규/주선자 도미니카
 Kwang Kyu, Choi / APARTADO POSTAL 25114
 EMBAJADOR SANTO DOMINGO, REPUBLICA
 DOMINICANA
 용인 4~6순 이철영/이순영 도미니카
 4680 NW 74th Ave., #37709 MIAMI, FL, Republica
 Dominicana 33166-6447
 용인 7~10순 김성진 네덜
 G.P.O. Box 10034 Kim Nepal (RICK)
 수원 1~3순 이수만/오미경 중앙아 GBT
 수원 4, 5, 영통 1~3순 이철우/김문경 필리핀
 Lee, Chul Woo: PO Box, 80841, Davao City, Philippines

안양안산 공동체: 최원준 목사 - 방글라데시

서평촌 1~5순 박영환/윤라래 방글라데시
 6/6 E-Block Lalmatia Dhaka Bangladesh

서평촌 6, 신본 1~3순 한유민/강영희 방글라데시
 H-36 R-1 sec-3 Uttara Dhaka Bangladesh HAN YOU-
 MIN
 신본 4~8순 강철주/백순애 한국
 (695-812)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82-1
 / 전화: 011-9884-5165
 안산 1, 2순 박무열/이현영 방글라데시
 HN5, RN1, Sector 6, Uttara Dhaka Bangladesh
 안산 3, 4순 홍영순/김숙경 일본 GMP
 동평촌 1, 2순 한정국/이경애 한국 UPMA
 (138-20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7-3 / 전화: 402-4967
 동평촌 3, 4순 김남수/이덕신 파푸아뉴기니
 Mr. & Mrs. Nam-Soo Kim / Box 18, SIL, Ukarumpa EHP
 444 Papua New Guinea
 동평촌 5, 6순 박무열/이현영 방글라데시
 HN5, RN1, Sector 6, Uttara, Dhaka Bangladesh


가정지역 공동체: 공진수 목사 - 일본 아미오/후쿠오카

젊은부부 1~6순 김철희/최지형 일본
 千葉 八千代市 ゆりのき台 1-4-2 いわいびる 201ご
 う室 八千代オンスリチャーチ
 聖マリア 聖 12 482 36 츠지하시시/츠지나오코 일본
 Yokohama-shi Naka-ku Yamashita cho 162-1 Hia-Bldg.
 2018202
 믿음 3~6, 소망 4, 5순 조수정/아미나기 일본
 長野 懸 上田山崎 1377-64 上田オンスリキリストチャー
 チ / 81-90-9611-5966 (HP)
 사랑 1~5, 소망 1순 천창학/황미혜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 단체 연락처

- ◆ 한국인터서브 본부: (110-761)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파어선빌딩 1009호 / 전화: 725-6065-6
- ◆ YWAM 본부: (121-884)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0-8 합
 정빌딩 4층 / YWAM 본부 / 전화: 3142-0907-9
- ◆ 두란노해외선교회: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
 전화: 794-1064
- ◆ 인터콕본부: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
 지유한빌딩 3층 / 전화: 796-3541#
- ◆ GMTC본부: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 전화:
 2649-3197 백인숙간사
- ◆ GMP: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62-5 / 전화: 031-
 419-6792
- ◆ WEC 국제선교회: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승
 진빌딩 4층 / 전화: 529-4552
- ◆ HOPE본부: (135-610) 서울시 강남구 우치동 1062호 / 전
 화: 533-6067 전연주간사
- ◆ GBT : (425-824) 경기도 안산시 사2동 1362-5호 / 전화 :031-
 418-5324
- ◆ CMF본부: (143-203) 서울시 광진구 구의3동 596-6 삼진빌딩
 501호 / 전화: 455-0261
- ◆ 경배와 찬양 본부: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 전화: 796-9700
- ◆ FMnC 사무실: (156-854)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94-35 / 전화: 848-6251
- ◆ 중동선교회 본부: (143-193)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482-5 머릿돌 교회 6층 / 전화: 3436-3347
- ◆ 21C동북아 선교회: (423-800)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5-28번지 광복교회 4층
- ◆ GMP: (158-803) 서울 양천구 목2동 231-163 144호 /
 전화: 653-4270
- ◆ ITM 본부: (158-074)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81-12 2
 층 / 전화: 695-1451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 29 바그다드(Baghdad)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
 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내용: 1) 이라크 현지 정보 공유와 중보기도
 2) 바그다드 온누리비전교회 개척팀을
 위한 중보기도
 3) 올해말 "Christmas in Baghdad"
 를 위한 준비기도
 문의: 이홍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송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TIM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일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7:30 서빙고 아
 름기도실
 문의: 김지은 (019-269-0921)

인디모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
 11월 6일 목요일 (매월 첫째주 목요일) 오후
 7:00~9:00 서빙고 2층 유아실
 문의: 016-346-8460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케냐 아웃리치
 꿈땅/청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
 치를 떠납니다
 12월 24일~2004년 1월 4일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서빙고(장소시간추후
 공고)
 물품구함: 여름 헌 옷(아동, 성인), 장난감, 인형
 등
 문의: 이명열 (011-202-5386)
 정영원 (011-1707-6299)

에젠티교회
정기모임
 매일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온누
 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24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에젠티교회 사무실 두란노빌딩 704호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Christmas in Baghdad
 12월 21일 ~ 2004년 1월 1일 (서울도착)
 주최: 온누리 바그다드 한인교회, 온누리세계
 선교센터
 비용: 150만원 (예정,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
 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 서울 - 카타르 도하 - 요르단 암만 - 바
 그다드 - 니스웨 - 모술 등지 여행
 접수마감: 11월 15일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자격: 온누리 교인으로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에서 실시한 Why Missions? 졸업생이
 나 이와 동등한 훈련을 받은 온누리교
 회 성도

"OPEN HOUSE"
 11월 7일 (금) 오후 4:00~7:00 (저녁식사 포
 함)
 내용: 선교사 훈련학교 소개, 선교사 훈련 시
 설 공개, 선교사 후보생들과의 만남, 훈
 련과정 안내와 질의응답, 선교사 파송
 문의
 문의: 강자형 간사 (031-336-6350~2)

제3기 Turning Point (단기선교사 훈련)
 2004년 1월 12일 (월) ~ 2월 6일 (금)
 원서마감: 2003년 12월 14일 (주일)
 대상: 단기 선교사로서 2년정도 현장 선교경
 험과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온누리교회
 성도
 훈련내용: 선교의 성경적, 문화적 기초, 대인
 관계, 장기사역과 단기사역자의 관
 계, 선교전략과 실제

제4기 OSOM (Onnuri School of Missions, 장기선교사 훈련)
 2004년 2월 16일(월)~6월 18일(금)
 원서마감: 2004년 1월 25일(주일)
 대상: 장기선교사로 사역지에 나가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훈련내용과 강사: 홈페이지 (www.owmc.
 or.kr) 참조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whymissions@empal.com)
 (홈페이지 : www.owmc.or.kr)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
 도종중중보기도실 (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 (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체

물품구함
 컴퓨터(노트북포함), 차량(봉고차)12인승이상
 가능지원 받습니다.
 문의: 황호상(017-290-7856), 온누리미션
 사무실(02-790-6052)
 셀터에서 사용할 방장고가 필요합니다.
 문의: 이경희 간사
 (017-316-9787/796-6052)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우절제홀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
 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부천 외국인예배
 매주 일 오후 4:00 부천온누리비전교회 2층
 예배당
 문의: 백정석 집사 (011-446-7490)
 *외국인근로자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외국인예배 스폰서 구함
 대상: 인도네시아 성인 남녀 성도용
 품목: 가을, 겨울옷과 이불(담요)
 문의: 부천온누리비전교회 목회지원실
 (032-325-8707)

캄보디아 아웃리치
 12월 15일~20일
 문의: 오재성 목사(042-825-3642~4)
 *함께 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헌금: 하나은행 149-910033-91407 예
 금주:지이령

*

성탄절 선물 보내기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선교사에게 성탄절 선물보내기'가 올해도 열렸다.

성탄절 선물은 선교지 기후와 선교사의 필요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11월 중순 전에 보내야 성탄절에 선교사들이 정성어린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모슬렘지역이나 공산권 등 보안지역은 기독교 관련 선물을 피하고 선교사나 교회, 공동체 같은 호칭을 선생님, 회사, 부서 등으로 바꿔 표기해야 한다.

순은 각 선교지로 직접 선물을 발송하지만 수신 주소가 두란노 해외선교회나 인터콥본부 등 선교단체로 되어있는 경우 소포 포장해 우편요금과 함께 각 선교단체로 발송해야 한다. 수신이 2천선교라고 되어 있는 순은 2천선교사무실로 전달하면 된다. 각

순별 섬김 선교사 주소

는 11월 2일자 온누리신문에 실려있으며 신문사 홈페이지(www.onnuri.news.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천 선교본부는 선교사와 순이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선교사에게 편지를 쓸 때는 해당 순의 순장 주소와 전화, 이메일을 반드시 기록해주도록 당부했다.

◇ 선교사 주소 정정
 조윤희 선교사(한강, 화평3,4순)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산 87-85
 산장빌라 5동 106호
 (우 136-102)

• 문의: 황민식 간사

(793-9686 교 208)

/ 전성희 shee@onnuri.or.kr

2回 オンヌリ祝

제2회 일본온누리축제

Home
Sweet
Home

Onnuri Co

[에덴의 가정을 회복]

하나님의 가정으로 '1% 벽' 허문다

하 목사 말씀 선포 ... "일본의 모든 가정이 꿈의 가정이 될 지어다"

'무너지는 일본의 가정을 복음으로 세운다.'

하용조 목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환상과 비전앞에 일본과 서울의 온누리공동체 가족과 일본 교회의 리더십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허물 수 없을 것 같았던 '복음화율 1%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영적 흥분의 눈물이고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지난 10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도쿄하시에서 있었던 제2회 일본온누리공동체수련회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

"일본의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가정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용조 목사의 예언자적 메시지는 캐나다, 서울, 오사카, 동경, 고베, 우에다, 후쿠오카에서 달려 온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모두들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제1회 하코네수련회에 참석했던 실버 성가대 어르신들, 소프라노 김수정 자매, 유선식 목사가 일본 땅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를 찬양했다. 김지형 자매와 울동팀, 서울과 일본 온누리 교역자들이 아름다운 선과 동작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감사함으로 표현했다.

웨딩 채플에 일곱 번째 교회를 ...

수련회가 열린 도쿄하시의 작은 도시였다. 첫날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7층 속소를 나서며 내려다본 도쿄하시의 바다, 운하, 논, 밭, 높은 빌딩, 맑은 하늘, 곱게 가을로 물든 나무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그 마을 한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예쁜 건물이 있었다. 종탑이 달린 그 건물을 쳐다보면 김창욱 전도사가 성당 같다고 말을 건넸다.

"저 건물이 일본에 세워지는 온누리 일곱 번째 교회가 될 지어다."

수련회 3일 동안 그 건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련회 마지막 날 아침, 잠시 집을 내 오사카 온누

리교회 박윤수 집사와 그 건물을 찾아나섰다.

엄청난 규모의 웨딩 홀이었다. 영국, 프랑스, 이태라... 유럽의 정원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공간이 너무 아름다웠다. '장례식은 절에서 치루더라도 결혼식은 교회에서 치르고 싶다.' 는 일본 젊은이를 위한 채플이었다.

"여기에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일본 온누리 7번째 교회를 세우면 되겠습니다." 박 집사의 말에 응답했다. "이 웨딩 채플 사장을 전도합니다."

은혜를 넘어 영적 부흥으로

말씀, 세미나, 찬양, 기도, 성찬, 교재, 나눔, 회복... 수련회의 정점은 세례식이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네 명의 성도와 유아 한 명이 세례를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방황하는 저를 우에다교회 조수정 사모님이 친절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찬양예배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생후 1년 9개월에 아이가 고열로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아이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이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울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에 취했다.

내년 제3회 수련회를 기약하며 도쿄하시를 떠나는 성도들은 하용조 목사가 선포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며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일본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서고, 3천 명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들어설 지어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지어다. 일본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꿈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될 지어다."

아멘.

/장선철 편집국장 jsc@onnuri.or.kr

Home Sweet Home [에덴의 가정을 회복]



"일본에 3천명, 5천명이 모이는 교회를 주옵소서. 일본의 작은 교회들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그들을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일본 가정회복 사역과 일본 작은 교회를 돕고 싶다"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로 시작한 제 2회 일본 온누리축제, 일본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이번 온누리축제는 온누리교회의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용조 목사와 오오가와 목사의 설교, 이기복 교수의 가정과 자녀교육 강의,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비학교, 생활건강법 강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해갔다.
 / 정리: 전성희 shee@onnuri.or.kr



첫/째/날

신앙의 가정

Home Sweet Home

[에덴의 가정을 회복]

하용조 목사(에베소서 5:22~33)



이번 축제 주제는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자', '홈 스위트홈'입니다. 진부한 말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70,80년대에는 존재했지만 2천년 대 들어와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혼율이 50퍼센트가 넘습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이 많습니다. 죄의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그들의 문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복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향한 그리움

성경에 많은 가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적인 가정이 없습니다. 구약의 가정은 사실 비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이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상적인 가정을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부부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의 첫 자식인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구약의 특징은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유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홈 스위트 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탈출하고 방향하고 움직이는 것이 구약의 가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역대하 모두 왕권과 왕권 찬탈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덴의 가정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정을 향한 목마름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꿈꿨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가로질러 광야를 건너서 그들이 가고 싶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메시아가 오길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생활에서 귀환하길 원했습

니다. 포로생활이 끝나고 무너진 예루살렘성을 회복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가 가정을 향한 그리움이고 잃어버린 에덴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버려진 가정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만들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복은 그분의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일본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일본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숫자와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일본이 구원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갈대아우르, 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약 가정입니다. 다윗에게 네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정이라고 하셨지만 한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은 언약의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언약의 가정이 신앙으로 오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뿌리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에덴의 가정을 회복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약 가정의 세 축복

이 언약가정은 중요한 세 축복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

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렘루아, 이 세대의 축복은 천 대를 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일본 땅에 수많은 신과 귀신 문화가 있지만 삼사대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일본에 오면 놀린다. 안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선교사가 일본에 온지 1백년, 2백년 됐습니다. 이제 저주의 때가 끝나고 축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언약 가정의 또 한 특징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가족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만 살리지 않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베드로와 대화했던 고넬료, 사도 바울을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과 실라를 만난 간수 모두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약 가족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가족 교회입니다. 언약의 가정이 신앙으로 들어오면 성령의 가정, 영적인 가정으로 변합니다. 구약 가정은 혈육개념이지만 신앙에 들어오면 혈육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

장,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구약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가정 원리입니다. 남편과 부인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천국 가정의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 가정의 모델은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말합시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 높은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위하고, 보호하십시오. 아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됩니다.

천국 가정의 모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부부관계의 새로운 모델,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에덴은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은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도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영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장 48, 49절에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개념의 혁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사도행전적 가정, 구원 받은 사람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당신 교회와 내 교회가 하나입니다.

언약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영적인 가

분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여러분이 다닌 교회가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일본 가정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를 축복해주십시오. 영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에덴의 가정으로 복 받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 비밀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가난하건 부유하건 병들었건 건강하건 유명하건 유명하지 않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 정리 : 전성희 shee@onnuri.or.kr

돌/째/날

축복의 대를 잇는 가정



오오가와 쓰구미찌 목사(베드로전서 3:1~9)



사람들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면 개구리는 연못으로 도망갑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으로 들어가면 치유받고 회복됩니다. 이번 3월이 은혜의 연못에 들어가 폭 쉬고 힘을 얻어서 다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적혀있습니다. 일본 가정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희 아빠처럼 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가족회의를 할 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다 옳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자고 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장로님이 13명 있는데 여러 일들을 회의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잘 나지 않을 때 92세 장로님이 항상 마지막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30년 이상 오오가와 목사님께 순종했지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 순종하십시오. 다 맞을 겁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결론이 쉽게 납니다. 우리 교회의 투고함에는 반대 의견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목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일에 다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에덴 가정의 회복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바로 질서의 회복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부인은 남편, 남자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질서입니다. 우리교회는 올해부터 처치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처치스쿨은 아이들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능수능란

하게 할 정도로 매일 가르칩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이 질서의 회복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부인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과 같이 부인을 사랑하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때 이 질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서적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너의 비전은 너의 미래다. 네가 그리고 있는 네 비전이 네 장래를 결정한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는 초대교회에 보내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음이여 나로 오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시편 글은 사무엘서에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할 때의 장면을 연상하고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 다윗이 전사 골리앗에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 쪽은 소년이고 저 쪽은 프로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흑시 골리앗의 모습만 봤다면 다윗은 굉장히 작아지고 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주님의 싸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회성장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싸움입니다. 주님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모습이 아닌 그 뒤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보지 않았고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해결의 꿈을 투신했습니다. 일본 교회가 작다고 하지만 그 작은 모습 뒤에는 부흥의 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6명인데 5명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소년 때 일본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님은 정말 가난했고 박해 받았었습니다. 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를 괴롭히고 부끄럽지만 침도 벌고 폭력도 가했습니다. 학교에서 교토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반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사람은 저 뿐이라 화가 나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대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기 머리채를 잡은 아들을 보며 '네 본모습은 그것이 아니다. 네가 수학여행으로 교토를 못 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너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이

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눈물어린 기도로 저는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신 자녀 중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뒤의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정죄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없다

셋째,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는 젊은 목사였을 때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목적이 있어 그 사람을 여기 뒀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며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에서 사용하려면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정죄하고 교단이 교단을 정죄하는 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각자 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정죄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은혜가 많아도 정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목사 중 해리 포드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는 열쇠' 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이 구절을 인

위해서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부부가 서로를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지않고 부모도 더 이상 자녀를 참지 못하는 현상이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보면 가망이 없다고 보시겠지요. 그러나 하 목사님과 한국 성도여러분이 일본을 향한 강한 마음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범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뉴욕에 데이비드 빌리 카슨은 말세 악마의 표적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악마가 원하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악마를 쫓아내고 악마와 대항해 파괴되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일본을 선교할 기회

최근 몽고제국 시대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 예전에는 스페인과 중국까지 지배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칸의 지배는 굉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었고 그리스도교회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로마교황에게 공물을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자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고 가정이 회복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용해 하나님의 자비의 깊으심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첫째, 비판하지 말라. 둘째, 정죄하지 말라. 셋째,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넷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가정과 교회를 만들면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최근 이 말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절 끊임없이 참고 계십니다. 교회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모범이 되기

그리스도교로 바꾸고 싶다면 어떤 불교신도에게 성경을 잘 아는 강한 선교사 1백 명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황은 세명을 보냈습니다. 의지가 굉장히 약한 선교사 세명은 여행이 너무 길고 힘들어 가버렸습니다. 그 왕후는 몇 년동안 선교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천년에 한번 있을 선교찬스를 버렸습니다.

지금은 일본 선교의 찬스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자살하는 연간 3만 명 이상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일본 복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항상 신세만 지지만 하늘에서 축복이 여러분께 넘칠 것을 믿습니다.

/ 정리 : 전성희 shee@onnuri.or.kr

셋/째/날

Home
Sweet
Home

[에덴의 가정을 회복]

꿈이 있는 가정

하용조 목사(사도행전 2:17~21)



본은 꿈의 주인공입니다.

에덴동산 아담과 하와를 보니 꿈의 가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 사이에 별거벗었으나 수치가 없습니다. 진짜

꿈의 부부는 자기의 약점과 수치를 다 내보일 수 있는 사이입니다. 둘째,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끊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꿈의 가정은 끊임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셋째,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이브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꿈의 부부는 서로를 책임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꿈의 가정이 깨졌습니까? 이것이 제 2원리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환멸의 가정으로 변합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 최초의 사건은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에덴의 가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나 권력, 학벌이나 가문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정에 대한 제 3원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꿈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고 언약, 축복,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제 4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 들이면 행복한 가정, 꿈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꿈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임하는 가정,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행복한 가정, 꿈의 가정의 원리는 아내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혼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원리에 입각해 세 종류 사람들에게 말

하고 싶습니다. 우선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상대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께 언약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아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 높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모든 남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모기와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가난한 목사 아들로 태어나 수학 여행을 가지 못해 분한 마음에 어머니 머리채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머리채를 잡히고도 아들을 축복했기에 오모가와 목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란 부모가 하는 대로 보상하는 것뿐입니다.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했다고 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셨는데 상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냥 중보기도 하십시오. 목회해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차라리 이혼하지' 하는 마음이 드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합니다. 존 스

시오, 그것이 최고입니다.

부부 싸움 할 때 세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째, 상대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부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매력이었지만 다른 사람과 평생 사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자녀도 참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이기에 다르고 서로 체질이 다릅니다. O형보고 A형이 되라고 하면 안됩니다. 각자 혈액형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상대를 나처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둘째, 문화는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는 습관을 만듭니다. 부자집에서 자란 사람, 가난한 집에 자란 사람은 각자 그 문화가 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문화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삼아

셋째 상처가 있습니다. 형제 없이 자랐던지 또는 부모에게 상처 받고 자랐다면 그 상처에 대한 문제나 나오면 확 변합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체질은 받아들여야 하고 문화는 이해해야 하고 상처는 치유해야

“성령이 임할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비전을 갖는 꿈의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타트라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이 이혼하는가? 그 사람이 실수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외도해도 참고 살아야 합니다. 아내가 실수했다고 버리면 안됩니다. 그것이 호세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떤 실수를 해도 받아줘야 하고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해도, 아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받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사별했거나 이혼한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도 치유해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됩니다. 상처는 묵상하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불어 사십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여할 것이고 이때 가정은 꿈의 가정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습니다. 가정이 외로운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자녀의 비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꿈의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복의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 정리 : 전성희 shee@onnuri.or.kr

365일 매일 예배하는 갈보리교회
오오가와 목사와 함께

일본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365일 매일 예배하는 갈보리교회를 소개해 주시길요.

▼ 저는 일본 크리스천 인구 1퍼센트를 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카나가와 현 아마토 시에 있는 교회는 매주 1천2백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텔레비전 방송도 합니다. 최근에는 도쿄에서도 매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기쁨 부으심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 현재 일본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시지요?

▼ 일본에 개신교가 전파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시아사피 일본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낭떠러지로 몰린 느낌이 듭니다. 일본 가정은 위기에 빠져있으며 학교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살자는 연간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가 바로 일본 선교의 찬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가 하나님에게는 희망의 때입니다. 마이너스인 것이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보시고 느끼신 점은?

▼ 평소 좋은 소문을 듣고 익히 알고 있었던, 그래서 한번쯤은 꼭 만나고 싶었던 하용조 목사와 온누리교회 가족들과 짧으나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이 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온누리교회라 생각합니다.

최근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전도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가 병들면 밥을 가져다주고, 일주일에 한번 청소해주며 전도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직접 전도하는 이외에 지혜를 쓰지 않습니다. 하 목사님

은 제게 전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 목사님이 동역하자는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비전과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 365일 매일 예배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전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아까도 밝혔지만 1%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저의 큰 기도제목입니다. 일본 교회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에게 항상 세만 지지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께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 수련회와 여러분이 하시는 프로그램,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성공한 가네보 CEO 미타니 야스오 부부와 함께

'눈물의 계곡'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 미타니 야스오(三谷 廣人) ◇

- 1929년 11월 8일 히로시마에서 출생
- 1952년 3월 게이오 대학 졸업
- 1952년 4월 가네보(주) 입사
- 1954년 10월 결혼
- 1961년 5월 다카오카 공장 - 경리과
- 1962년 7월 오오기 공장 - 인사과장
- 1962년 10월 5일 세계 방문
- 1965년 2월 화장품 사업부로
- 1971년 9월 약품 사업부로
- 1978년 4월 가네보약품(주) 임원 취임
- 1979년 4월 제약사업 부장
- 1990년 6월 팔미산(八味地黃丸) 캠페인
- 1994년 6월 가네보약품(주) 사장 취임
- 1995년 6월 가네보(주) 전무 사임
- 1997년 6월 가네보약품(주) 사장 사임
- 1997년 6월 가네보 회장 취임
- 1997년 8월 가네보 약품(주) 회장 사임
- 1997년 8월 퇴직 후 부부가 함께 하나님 일 시작

- 베스트 셀러인 '역전인생'을 소개해 주십시오.

▼ 야스오: 1952년 가네보(주)에 입사하여 1997년 4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가네보(주)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며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부부가 모두 크리스천이 되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직장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생명의 말씀사 크리스천 신문에 '역전의 신앙경영'이라는 제목으로 1년에 걸친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과 아내의 신앙 생활 간증을 한 데 묶은 책이 바로, '역전인생'입니다.

- 그동안 사모님은 목사로, 아내로 훌륭한 내조를 해 온 것으로 압니다만.

▼ 키미코: 남편이 회사를 그만 둔 것은 저와 함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조금이나마 헌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오차노미즈 성경대학을 수료하고 지금은 저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고야의 이찌바구교회 초대목사인 마쓰바라에게 지도를 받아 목회와 전도사역에 헌신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이 전군을 갈 때마다 그곳에서 전도를 하여 믿는 자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서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많았는지?

▼ 야스오: 일본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회사에서 3번의 전출과 좌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주님의 명령을 따랐고,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여 오히려 회사에 이익을 안겨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어 미천한 저를 마침내 가네보 약품의 사장, 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 키미코: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이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도서와 잠언을 보며 늘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계곡'을 지나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곳을 '기쁨의 샘'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축복해주시는 하나님께 남은 생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 지난 후쿠오카 교회 창립예배에서 처음으로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를 만나 것으로 압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하여 느끼시는 감회가 특별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야스오: 하용조 목사님은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특별하게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온누리교회는 땅끝선교라는 비전으로 3만성도가 하나가 된 교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온누리교회를 잠깐 방문했을 때, 맞춤 전도집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한 인상적이었습니다.

▼ 키미코: 일본에 큰 은혜와 도전을 주시는 분이 하 목사님이십니다. 그 분에게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사랑, 영적통찰력을 배웁니다.

- 지금 하고 계신 일과 비전은?

▼ 야스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각지의 강연회에 초대받아 기쁨과 감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목회를 하고 있으며, 저는 VIP 클럽 동경 중앙회 회장을 맡아 일본의 리더십들을 복음으로 깨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과 좋은 관계로 더 많이 배우기 원합니다

“57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비전”



최애숙 성도 (오사카 온누리교회)

저는 재일교포이지만 일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일본 선교에 힘쓰고 이렇게 집회를 열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온누리교회의 일본선교를 향한 비전은 제가 57세까지 살아오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비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믿음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가 일본을 위해 일본 사람을 위해 일본에 맞게

비전과 성령을 들고 오시는 것이 정말 기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일본 교포와 일본사람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교회가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저희는 3대째, 그리고 제 아끼까지 4대째 크리스천 집안입니다. 온누리교회가 한국어가 아닌 일본말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올 4월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작년 하코네 축제에 어머니를 모시고 참가해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봉사하느라고 말씀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봉사하느라 몸이 힘들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일본 전역에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타치 토시아키 (CBMC)

6개월 전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했는데 거기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와 서울 온누리교회의 축제를 한다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가정훈련학교에서 접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온누리교회 축제에서도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말 훌륭한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훌륭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것은 자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자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커뮤니티(CBMC:Christian Businessman Community)는 한국분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일본 전역에 퍼뜨려서 불교가정, 기독교 가정, 그 외 모든 가정을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백경옥 권사 (서울고 공동체)

제가 일본에 처음 온 것은 우에다교회 참례예배 때였어요. 그 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적은 일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면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부 새벽기도를 섬기다 보니 사역을 내려놓을 수 없어 참석을 못해서 올해에는 꼭 참석하고 싶었어요. 축

제에 참석할 날을 사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병이 나고 여러 일이 생겨 이번에도 참석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왜 못 가게 하십니까? 기도하며 억지로 왔는데 오니 눈병도 좋아지고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좋았어요. 이런 대회에 많이 참석 못해봤지만 말씀도 좋고 오신 분들이 은혜를 무척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세대학이 특송을 할 때 이 찬양으로 저 분들이 뭔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이곳에 온 것에 오히려 제가 더 은혜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본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김지향 자매 (서울 온누리교회)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2, 3천명이 모이는 온누리교회에 비해 굉장히 작은 축제였지만 어른 3백명과 어린이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지만 그 축제의 한 부분을 맡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은 축제였습니다. 예전 오사카 크리스마스 축제와 대학부아

우리치에 갔었고 이번이 세 번째 일본 방문인데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게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가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으며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무너진 가정만 찾아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가정의 회복을 함께 외쳐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학교가 일본에서도 열매 맺었으면...”

저는 목사이지만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가 여기 올 수 있도록 버스 운전을 부탁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축제를 연다는 것을 알았고 평소 많이 들어왔던 온누리교회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 왔습니다.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참가하신 분들 얼굴이 밝고 기뻐 참 좋았습니다. 또 목사 한분 한분이 전부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다. 어제 선택식 강의를 아버지학교에 참석했는데 비디오는 것만으로도 감동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좋은 강좌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11월에 일본에서도 열린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아버지학교가 정말 좋은 도구로서 사용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오늘 아침 일본 교역자들이 모여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좋은 교제를 했는데 그 시간도 유익했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 한국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회생을 치르며 이 집회를 열고 일본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훌륭하다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앞으로도 계속 많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것을 이곳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저는 1983년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20년이 됐습니다. 여러 사회생활, 복잡한 관계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교회 전도지를 보고 인도 받아 신앙을 받아들일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한 지는 지금 5년이 됩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누리교회 축제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하 목사님을 비롯해 온누리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힘써 돕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 앞으로도 계속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네시로 히로아사 목사, 김미숙 사모 (다카사키 국제그리스도교회)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째가 되자 제 자신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때 온누리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웬지 모르게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고 3일 동안 편안한 인식을 통해 재충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네시로 히로아사 목사

김미숙 사모



니시자와 겐지

오늘 저는 예수님과 결혼합니다. 지금 이곳에 서있는 자체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지금 제 마음은 벅합니다.

저는 35살입니다. 제 생일이 8월 26일인데 올해 8월 24일 어떤 친구를 따라가 다른 종교에 갔습니다. 저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 종교 단체에 갔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단체에는 열광과 황홀은 있지만 자기만 만족하고 좋아하면 끝나는, 자기가 사랑이 끝난 종교였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채워질 지 모르지만 곧 다시 허무해질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돌아왔다

그날 저녁 제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단

세레간증

예수님은 내 마음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어가 들어왔습니다. 당장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니 우에다 그리스도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였는데 예배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다가에 서둘러 찾아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에다 온누리그리스도교회로 인도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교회를 결혼식장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우에다 온누리 교회에 가니 조수정 사모님이 처음 온 나를 보고 '안녕하세요'고 눈물을 흘리며 반겨주었습니다. '잘 돌아왔다'고 말하는 듯 들렸습니다. 상처와 죄 투성이인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교회에 전 감동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섰는데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많아 어떻게 돌아가는 지 분위기는 잘 몰랐지만 저녁 찬양예배가 시작했고 전 계속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21세에 결혼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행복했지만 뭔가 이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만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틀렸

다는 것을 교회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워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또 나도 상처 받는 생활을 매일 했지만 교회에 오면서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제대로 잘 해야지' 하고 회복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드리워진 커튼을 걷어내고

이제는 저로 상처 받은 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여태 하던 나쁜 욕설을 그만했습니다. 상사를 비판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인생은 커튼이 내려져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가렸던 커튼을 걷고 오직 한 길을 택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걸림돌 같 때도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영원한 생명으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까지 받은 것처럼 주위 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한 가족인 것을 압니다. 아마나카 전도사님이 희망을 주며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즈키 마미 (스즈키 유키 어머니)

저희 아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간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저희 가족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유키가 세례 받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키는 세미나 시작하는 날인 10월 29일 5세가 되었습니다.

뇌성마비가 된 유키

1998년 10월 29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자라고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유키가 1살 9개월 됐을 때 일입니다. 아기가 몸 여기저기를 만지고 괴로워하며 '엄마 기도해 줘' 하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자다가 또 일어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대역섯 번 반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회개해야 할 일인데 당시에는 귀찮아서 화를 냈습니다. 유키는 그

유아세례

유키의 세례로 우리가정이 하나되길 바랍니다

다음날 높은 고열이 나서 큰 발작이 일어났고 호흡곤란이 시작했습니다. 발작 때문에 뇌에 산소가 가지 못해 그날부터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감염상태가 계속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안에서 아들을 건져주셨습니다. 1주일 후 아들이 눈을 떴지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변해 마비가 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반년쯤 입원하고 아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 후 매일 아이를 간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아이는 아직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여러 번 부딪혔고 부부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작년 11월 하코네 수련회에서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평안과 자유의 아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그날부터 동경 온누리비전교회

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자유의 아이

지금도 남편과 때때로 부딪치지만 아키의 누나인 아이짱이 상처 받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도 벅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장애 위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들은 큰 시련을 겪었지만 주님이 언제나 아들과 함께 있어주시고 변함없이 평안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도 무척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마비되고 딱딱해질 것이라 말하지만 저희 가족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경 온누리비전교회에 와서 장 목사님 부부에게서 받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태까지 저희는 인간의 눈으로 이 장애를 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유키와 함께 계십니다. 사실은 수련회에서 아기를 돌보는 것으로 남편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여기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들 유키의 세례로 유키와 아이짱, 부족한 저희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 29 바그다드(Baghdad)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
 번지 두란노해와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내용: 1) 이라크 현지 정보 공유와 중보기도
 2) 바그다드 온누리비전교회 개척팀을
 위한 중보기도
 3) 올해말 "Christmas in Baghdad"
 를 위한 중보기도
 문의: 이홍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11월 17일(월) 오후 7:00 양재 두란노홀(속소
 동 지하1층)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소아시아공동체 열마안팀
 (017-278-3376)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뽀텔빌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TIM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7:30 서빙고 아
 룬기도실
 문의: 김지은 (019-269-0921)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11월 17일(월) 오후 7:30 선교관 B2층 출기도
 실
 말씀: 민성기 선교사

선교사 지원자를 찾습니다.
 동아시아: 컴퓨터교사, 한국어교사, 영어교
 사, 유치원교사 각2명 피아노, 찬
 양인도, 전도사 각 1명
 문의: 박인영 (794-1063~5)

물품구함
 품목: 냉장고, 카세트(녹음), 컴퓨터, 핸드폰,
 노트북
 문의: 박희창 간사(794-1063)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의료선교 C팀 11월 아웃리치
 11월 16일(주일) 오전 9:00 서빙고 2천/1만
 평장암
 사역지: 경기도 파주 생명의빛 부활선교회
 (나이지리아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교회)

케냐 아웃리치
 12월 24일~2004년 1월 4일
 꿈광/청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
 치를 떠납니다.
 여를 현 옷(아이들 성인), 장난감, 인형, 의약
 품을 후원받습니다.
 동참할 청년들을 찾습니다(의사,간호사)도움
 을 주실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의: 이명열(011-202-5386)
 정영원(011-1707-6299)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서빙고(장소시간추후
 공고)

에펠선교회
정기모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온누
 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24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에펠선교회 사무실 두란노빌딩 704호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Christmas in Baghdad
 12월 21일 ~ 2004년 1월 1일 (서울도착)
 주최: 온누리 바그다드 한인교회, 온누리세계
 선교센터
 비용: 150만원 (예정, 현지사정에 따라 차이
 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 서울 - 카타르 도하 - 요르단 암만 - 바
 그다드 - 니스웨 - 모솔 등지 여행
 접수마감: 11월 15일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자격: 온누리 교인으로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에서 실시한 Why Missions? 졸업생이
 나 이와 동등한 훈련을 받은 온누리교
 회 성도

제3기 Turning Point (단기선교사 훈련)
 2004년 1월 12일(월) ~ 2월 6일(금)
 원서마감: 2003년 12월 14일(주일)
 대상: 단기 선교사로서 2년정도 현장 선교경
 험과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 온누리교회
 성도
 훈련내용: 선교의 성경적, 문화적 기초, 대인
 관계, 장기사역과 단기사역자의 관
 계, 선교전략과 실제

**제4기 OSOM (Onnuri School of
 Missions, 장기선교사 훈련)**
 2004년 2월 16일(월)~6월 18일(금)
 원서마감: 2004년 1월 25일(주일)
 대상: 장기선교사로 사역지에 나가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훈련내용과 강사: 홈페이지 (www.owmc.
 or.kr) 참조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whymissions@empal.com)
 (홈페이지: www.owmc.or.kr)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
 도종족중보기도실 (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 (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도모임은 화요 2천선
 교기도모임으로 대기

물품구함
 컴퓨터(노트북포함), 차량(봉고차)12인승이상
 가능 지원 받습니다.
 문의: 황호상(017-290-7856), 온누리미션
 사무실(02-790-6052)
 셀터에서 사용할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문의: 이경희 간사
 (017-316-9787/796-6052)

몽골어예배 반주자
 예배시 피아노반주하실 봉사자를 모집하
 다.(몽골어 몰라도 됩니다.)
 시간: 매주일 오후 2:00-4:30
 문의: 이경희간사(017-316-9787)

바자회 자원봉사자
 11월 16일 네팔의 교회 건축기금을 위한 음식
 바자회를 도울 주부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온누리미션사무실(790-6052)
 황호상간사(017-290-7856)
 김연화간사(019-367-9727)

여성사역자를 위한 BEE 세미나
 11월 24일(월)~11월 26일(수) 오전 10:00~
 오후 4:00
 공개강의 26일(수) 오후 1:00~4:00
 장소: 서빙고 경천홀
 내용: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강의와 선교에서
 의 여성 역할의 중요성
 강사: Cindy Smith, Dawn Whitehurst
 (BEE World Facilitator)
 자격: BEE 세미나 환과목 이상 수강하신 분
 회비: 2만원(점심식사 제공), 당일접수
 문의: BEE Korea (749-9480)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유대인 요셉술람 목사 사도행전 강해
 "정평과 유대인 목사와 함께 떠나는 깊이있
 고 생동감 있는 사도행전 여행"
 11월 10일~11일(월,화) 오전 10:00~오후
 4:00 서빙고 온누리교회
 강사: 요셉 술람 목사
 회비: 3만원

2003년 해외선교현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우절제홀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
 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부천 외국인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부천온누리비전교회 2층
 예배당
 문의: 백정석 집사(011-446-7490)
 *외국인근로자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외국인예배 스폰서 구함
 대상: 인도네시아 성인 남녀 성도용
 품목: 가을, 겨울옷과 이불(담요)
 문의: 부천온누리비전교회 목회지원실
 (032-325-8707)

*

01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제 1회 'Why Missions?' 총 동문회

와이미션 동문들이 모여 사역을 공유하고 서로 증보하며 선교 열정을 회복, 새롭게 선교에 헌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와이미션 총동문회 '미션 브릿지'가 열린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와이미션(Why Missions?)총 동문회 '미션 브리지' (Mission Bridge)를 22일(토) 오후 4시 서빙고 비전홀에서 연다. 와이미션 졸업생과 4기 훈련생, 하우미션 수료자, 선교 관심자가

모이는 이번 첫 동문회에서 김사무엘 목사는 이라크에 교회를 개척한 사역보고를 한다.

한편,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제3기 단기선교사 훈련인 '터닝포인트' (Turning Point) 훈련생을 모집한다. 2년 정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기 원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031-336-6350-2) www.owmc.or.kr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온누리미션 네팔어예배 바자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세우는 교회”

온누리미션 네팔어예배 지체들이 네팔N.C.G.F.(Nepal Christian Gospel Fellowship) 교회를 돕기 위해 오늘(16일) 2천/1만 광장에서 음식바자를 연다.

N.C.G.F.교회는 한국에서 주님을 영접한 네팔인 미르 형제가 본국에 들어가 설립한 교회다. 지난 2003년 8월 31일 카트만두 전세집에서 50여 명 성도가 모여 창립예배를 드린 N.C.G.F.교회는 이제 건물을 설립하려는 비전을 품

고 있다. 네팔어 지체들은 이를 위해 헌금과 헌물을 기증하고 있다.

'ACTS 29 네팔에서 이어지는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네팔 교회 돕기 바자는 감자를 넣어 만든 네팔 빈대떡인 '로피'와 어묵 등 음식을 판매하고 N.C.G.F. 예배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네팔 전통의상, 액세서리도 전시한다. 이번 바자 기금은 네팔 N.C.G.F. 교회 건축부지를 사는 데 쓰인다.

네팔어 예배는 96년 '인민전쟁' 이후 반군과 정규군 간 교전으로 매년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내란과 분쟁에도 지지 않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네팔인들의 복음을 향한 열망에 온누리성도가 동참해 주길 부탁했다.

• 문의: 황호상 간사(790-6052) • 온누리 미션 네팔어 예배 홈페이지 : www.ncgf.com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1만사역자



정원익 · 정은화 (C국)

- ◇ 기도제목 ◇
- C국 병원 스텝과 연합하고 제자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 침 사역이 잘 이루어 지도록.
- 성령님이 선행하시는데 순종하도록.

ACTS 29,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12가정에서 2천/1만 비전까지

1985년 10월 6일 한남동 한국기독교선교원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온누리교회는 12가정이 모여 기도하며 제자훈련을 시작했다.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온누리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매년 선교헌금을 작성해 '땅 끝 선교'의 꿈을 키웠다.

그러던 1994년, 하나님은 선교사 2천명과 사역자 1만 명을 파송한다는 2천/1만 비전을 주셨다. 당시 등록 교인 6천여 명, 이 비전은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를 통해 이 꿈을 하나씩 이뤄 나가셨다. 1996년, 1997년 창립기념주일에는 15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하게 하였고, 2003년 11월 15일 현재 전 세계 52개국에 선교사 5백 18명을 파송하게 하는 등 선교지경을 넓혀주셨다.

ACTS 29 선포

지난 3월, 'ACTS 29' 비전이 선포되었다. 'ACTS 29'란 사도행전 28장에 이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이요, 꿈이다. 이 비전은 온누리교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공유하며 나눠야 할 비전이다. 하용조 목사는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복을 미전도종족과 연합한 교회에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ACTS 29'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에 따라 지역과 땅 끝으로 흩어져 '부흥하는 중소형교회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교회와 네트워크를 하고 미전도지역, 창의적 전도접근 지역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고 밝혔다. 이 비전을 따라 국내외 해외선교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

워지고 있다. 'ACTS 29' 비전이 꽃 피고 열매 맺고 있다.

ACTS 29의 결실

비전이 선포된 후,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온누리 장로, 권사, 순장, 안수집사, 여성리더십, 사역탐장 등은 모임을 통해 이 비전을 키워갔고, 4월 17일에는 온누리 전 성도가 헌신예배를 드리며 비전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작정헌금에 참여했다. 7천4백84명이 1백33억원을 작성한 'ACTS 29' 작정 헌금은 11월 9일 현재 50억5천만원이 모아졌다.

선교지에서도 ACTS 29 비전 소식이 들려왔다. 아프가니스탄을 돕는 단체가 세워지고, 중국 단둥 한인 교회가 중국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며, 일본 북음화를 위한 교회가 곳곳에서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10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교회에서 개척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추시는 교회는 지구촌 곳곳에 흩뿌려져 퍼져나갔다.

ACTS 29 어떻게 품어야 하나?

하용조 목사는 창립 18주년을 맞아 'ACTS 29' 비전을 이루려고 성도들에게는 메시지를 전했다. "첫째, 비전을 품으십시오, 비전을 잉태해야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낳아다 아이를 목상하듯 비전을 낳아다 목상하십시오. 둘째,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잉태한 비전을 입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십시오.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넷째, 비전을 축제로 만드십시오.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ACTS 29'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답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청년 온누리의 꿈이요 신앙고백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땅 끝 족속에까지 확산되는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때에 18살 청년이 된 온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ACTS 29' 비전을 주셨다. 지금 전 세계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다. 이 전쟁 중심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다. 하나님은 추수의 때를 맞아 떠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추시는 교회를 세울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물뭇듯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온누리교회가 먼저 이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 온누리성도가 'ACTS 29' 비전으로 하나되어 대답해야 한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 서철 chol@onnuri.or.kr



아프간 심장병어린이

'생명을 되찾은 아이들'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한 미국여인이 큰 눈에 곱슬머리 꼬마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지난 11월 9일 오전 7시 예배에서 서빙고 강단에 섰다. 성도들의 축복과 박수 속에 빨간 옷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의 큰 눈을 두리번거리며 여인 옆에 바짝 붙어 있다. 이 여자 아이가 디다(Dida, 5세),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돌아가는 아프가니스탄 심장병 어린이이다.

디다는 지난 9월 20일(월) 또 다른 심장병 어린이인 모다시르(Modasir, 5세)와 함께 NGO단체인 동서문화개발교류회(이하 ECC)과 은누리교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공장기회사 뉴하트바이오 초청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에 도착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컴퓨터와 의료, 농촌 개발 활동을 하는 ECC는 지난 5월 단기의료선교팀이 농촌진료를 하던 중 심장병 어린이와 첫 대면을 했고 수술성공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지난 7월 심장병 전문의를 현지로 불러 1차 진단을 했다. 그 중 완치가 가능성이 높은 디다와 모다시르가 초청됐다.

“한국으로 오기 전 날 디다 어머니가 ‘수술치유 가능성이 20퍼센트 이하면 수술하지 말고 돌

아오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보호자로 디다와 함께 온 이모 카리마 씨의 말처럼 이들은 수술 후 완쾌되리라는 희망 한쪽에 불안한 또한 안고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에 도착한 디다와 모다시르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직행해 입원수속을 했다. 디다와 모다시르의 진료를 담당한 원용순 교수는(흉부외과 전문의) 아이들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21일(화) 심장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정밀 검사를 했다. 모다시르는 폐동맥 판막이 좁아 생기는 폐동맥 판막 협착증, 디다는 동맥관개존증으로 진단결과가 나왔다. 모다시르는 지난 22일(수) 혈관내 기구(풍선)를 넣어 좁아진 판막을 넓히는 혈관 조형술 시술을 받았고 디다는 28일(화) 뚫려있던 동맥관을 막는 동맥관개존증 수술을 받았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끝난 모다시르는 11월 2일 양재 성전에서, 디다는 11월 9일 서빙고 성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카불에서는 끝없는 절망 뿐 소망을 갖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술할 수 있는 의학역전이 구비되지 않아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모다시르의 아버지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뛰어들어 모다시르를 보며 이제 소망을 품기 시작한다.

“모다시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바라는 것은 아이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모다시르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신 한국 정부와 후원

해주신 모든 기관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CC는 심장병어린이돕기계획(ECC

Save Hearts Project)에 따라 내년 또 다른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할 계획이다.

인터뷰

“성공했다는 말, 믿지 못했어요”



카리마디다 이모

디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기 전 만약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면 그냥 돌아오라고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술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 나았다고 말하자 무척 기뻐했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전했습니다.

디다는 수술 받기 전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지금은 개구쟁이처럼 활발해졌고 몸무게도 4kg이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저를 비롯해서 디다와 디다 가족 모두가 감사드립니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아름다운 한국을 관광하면서 즐거웠습니다.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아프간에서 고생하고 있을 가족들이 생각나 속으로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나중에 꼭 함께 보고 싶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사들라 (모다시르 아버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아이 치료에 두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다시르가 예상보다 간단한 시술로 빨리 치유되었고 의사가 수술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말해 기쁩니다. 차후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수술할 때 내 마음이 위험할까봐 많이 걱정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모다시르가 많이 나아졌고 이제 잘 놀아서 좋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져서 바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앞으로 모다시르가 의사가 되어 한국에 와서 받은 사랑을 다른사람에게 나누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합니다. 병원분들과 사무실분 등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참 행복합니다.



은누리선교센터 오픈하우스

은누리선교센터가 문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맞았다. 지난 7일(금) 선교사 훈련생 가족, 장로, 기도후원자, 청년부 선교 다락방 등 1백여 명이 경기도 양지에 위치한 은누리선교센터를 방문했다. 은누리선교센터에는 현재 선교사 훈련생 20명이 제 3기 장기 선교사 훈련학교(OSOM)에서 훈련 받고 있다.

선교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생활하는 센터를 살펴본 후 강의실에서 황종연 목사가 설명하는 센터 운영과 선교사 훈련과정을 들었다. 이어 3기 훈련생들의 이름과 품고있는 사역지를 소개 한 후 훈련생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 후배들을 격려하러 온 2기 졸업생들과 훈련생, 오픈하우스 방문자들은 바비큐로 저녁 식사를 하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장기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박지용 훈련생은 “요즘 여러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는 막내 누나가 찾아왔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내 모습을 보여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 가정의 전능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함께 느꼈다”고



말했다.

은누리선교센터는 평신도선교훈련인 ‘왜이 미션(Why Missions?)’, 단기선교사 훈련인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장기선교사훈련인 ‘OSOM(Onnuri School of Missions)’으로 은누리교회의 비전을 품은 선교사를 키워내고 있다.

“선교에 공감하는 계기 되었습니다”



이교자 자매 (OSOM 3기 훈련생)

목회사역을 20여년간 하다가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꼭 험한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하느냐?’며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오픈하우스로 가족들이 말로만 듣던 선교를 공감하는 듯했습니다.

파송 교회 목사님도 방문해 주셨는데 교회 성도들까지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동생, 제부, 조카, 목사님이 센터 내부 구경을 하고, 센터 사역 소개를 듣고, 센터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며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교센터 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 큰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북공동체

“실크로드에서 만난 성령 하나님”



김채수집사
(성북공동체 강북6순)

전제상 선교사를 파송하며 기도해 온 땅 우즈베키스탄. 그러나 피상적 기도 제목에 그치지 않고 내가 기도 하던 땅을 직접 밟고 싶은 생각에 이번 성북 공

동체 우즈베키스탄 선교여행에 동참했다. 전제상 선교사는 성북공동체 강북 다락방 5순 식구로 성북 공동체가 배출한 선교사다. 우리는 선교여행을 가기 전 선교사를 돕는 선교헌금 마련하려고 바자를 열었다. 7박8일 일정으로 10월 28일(화) 오후 5시 40분 인천공항을 출발, 서울보다 4시간 빠른 타슈켄트에 오후 8시 40분 도착해 최선교사님의 안내로 로템의 집에 여장을 풀었다.

10월 29일(수)

아침 큐티때 아시아 61장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황폐한 우즈베크 땅에 위로자로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쓰이도록 기도했다.

5시간정도 차를 타고 우즈베키스탄 중앙에 있는 사마르칸트에 도착했다. 사마르칸트 외대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영문과보다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더 높다고 한다. 이 학생들 중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나타나 우즈베크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마르칸트에 많은 초소 교회를 세우길 기도했다.

저녁에는 현지인 목사님이 인도하는 초소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초소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스테반 선교사님이 9년 전 성경공부를 하며 양육한 현지인이다. 초소교회 현자인 20여 명과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였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초대



성북공동체가 10월 28일(화)부터 11월 4일(화)까지 7박8일간 섬김섬교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지역 선교사를 위로하고 선교를 향한 비전을 키우는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성북공동체는 지난 6월부터 기도모임에서 선교사 현황과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역사와 지리적 배경을 공부하고 선교사 기도제목물 나누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교회 믿음을 서로 나눌 때는 너무나 기뻐 눈물이 핑 돌았다. 구역 예배가 끝난 후 우리 공동체가 후원한 우미드교회(소망교회)를 방문했다. 우미드교회가 하루 빨리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이 좋은 교회당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10월 30일(목요일)

오전에 고아원과 최하류층인 인도계 놀리족이 사는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 가니 김 선교사님을 의사로 알고 아픈 부위를 보여 주면서 치료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들은 토담집에 천 조각 하나 깔고 자고 있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어떻게 인도 빈민굴에서 사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나로서는 어안이 병방할 뿐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없었다.

11월 1일(토요일)

부하라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14세기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 웨이크 바하우트딘 나슈반디 묘를 방문했다. 그 곳에서 많은



▲ 인도계 놀리족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안고 살아간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사 61:1)
◀ 사마르칸트 모스크에서 (왼쪽부터 백상욱 목사, 송지근 성도, 하영철 장로, 김채수 집사, 김OO 선교사, 최중훈 장로, 백중신 집사)

사람들이 고목을 만진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서 복을 구하고 있었다. 생명력이 없는 고목을 우상으로 섬기며 방황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11월 2일(일요일)

2명씩 3개조로 나누어 초소 교회를 방문하여 준비한 선물들을 전해 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 초소교회는 강요한 선교사와 최 선교사의 헌신과 순종으로 많은 모슬렘들이 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와 자녀로서 살고 있다.

저녁 때 타슈켄트에서 15km정도 떨어진 치르치 교회를 방문했다. 치르치 교회는 고려인 3세인 김 목사님이 담임이며 러시아어로 예배를 드린다. 교인은 고려인과 러시아인 우즈베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 부에서 우즈베크인들이 몇 명 있다고 교회 등록증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고 한다. 비밀리에 장소를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할 형편이었다. 우리들은 정부 종교부에 있는 관리들이 등록증을 반환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11월 3일(월요일)

6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였다. 한 가정에서 40여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모교회가 없어졌으나 오히려 셀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구나 감사할 뿐이다. 등록증을 받을 때에는 셀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잘 자라 대형교회가 될 줄 믿는다.

오후에는 송지근 성도가 직접 공수해 온 흑태로 매운탕을 끓여 김스테반 선교사님과 타슈켄트에 있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맛있다고 감탄하며 먹었다. 이렇게 사역자들의 미각을 즐겁게 해주고 하나되어 찬양하며 우즈베크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11월 4일(화요일)

마지막 날이다. 시내에 있는 콤파 모스크에서 코란을 열심히 읽는 이슬람 신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성전 안에서 모슬렘처럼 똑같이 기도를 하면서 ‘주여! 우즈베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현장을 보지 않으면 구체적인 기도제목물 잡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은누리성도 여러분도 자기가 속해있는 공동체 입양종족을 위해 꼭 현지의 땅을 밟아가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하고 싶다.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선교지에 나가기 전 시간을 내어 선교지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현장을 직접 보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 오르며 은누리교회의 사명인 ACTS 29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선교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 타슈켄트를 섬기는 선교사 /

- ◇강요한, 유마리아: NGO인 IACD(Institute of Asian Culture and Development)에서 부부치과 의사로 의료사역을 하고 있다.
- ◇고영호수사, 유한나: 소아과 의사, 열방친선병원(All Nation Fellowship Hospital)을 거점으로 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이동 진료를 하고 있다.
- ◇안베드로, 김OO: 심장전문의, 열방 병원의 Director로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 ◇최OO: 타슈켄트 국립대학에서 역사학 공부, 지하고회 개척 사역.
- ◇윤OO: IACD 행정 간사로 섬김.
- ◇김OO: IACD에서 행정 간사로 섬김.
- ◇김스테반, 조OO: 캠퍼스 사역, 제자양성.
- ◇박OO, 최OO: 캠퍼스 사역, 한국어 교육.
- ◇전OO: 언어훈련 중.
- ◇이생명, 이샘물: 언어 연수 중, 이샘물 선교사는 현재 임신6개월, 아이를 위해 많은 기도 필요.

*

2000선교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 29 바그다드(Baghdad)증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내용: 1) 이라크 현지 정보 공유와 증보기도
 2) 바그다드 온누리비전교회 개척팀을 위한 증보기도
 3) 올해말 "Christmas in Baghdad"를 위한 준비기도
 문의: 이흥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11월 17일(월) 오후 7:00 양재 두란노홀(속속동 지하1층)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소아시아공동체 열마안팀 (017-278-3376)

쿠르드 증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애플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속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선교사 지원자를 찾습니다.
 동아시아: 컴퓨터교사, 한국어교사, 영어교사, 유치원교사, 각2명 피아노, 찬양인도, 전도사 각 1명
 문의: 박인영 (794-1063-5)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7:30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지은 (019-269-0921)

서남아시아 기도 모임(SAM)
 11월 17일(월) 오후 7:30 선교관 B2층 홀기도실
 말씀: 민성기 선교사

물품구함
 품목: 병장고, 카세트(녹음), 컴퓨터, 핸드폰, 노트북
 문의: 박희창 간사(794-1063)

TIMA 과정 모집
 2004년 1월 개강
 내용: 선교언어 스쿨(영어, 중국어) 선교기능 스쿨(전자침 과정, 발마사지 과정)
 담당: 최진혁간사(794-1065)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이로선교 C팀 11월 아웃리치
 11월 16일(주일) 오전 9:00 서빙고 2천/1만 광장앞
 지역: 경기도 파주 생명의빛 부활선교교회 (나이지리아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교회)

케냐 아웃리치
 12월 24일~2004년 1월 4일
 품앗이/청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여를 헌 옷(아이들 성인), 장난감, 인형, 의약품 등을 후원받습니다.
 동참할 청년들을 찾습니다(의사, 간호사) 도움을 주실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의: 이명열(011-202-5386)
 정영원(011-1707-6299)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서빙고(장소시간추후 공고)

에펠선교회
정기모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사를 위한 증보기도 모임
 매주 요일별 각 24개 기도방에서 모임

목요 찬양 증보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양재 비전홀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793-1738, 011-9947-3146)
 에펠선교회 사무실 두란노빌딩 704호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Why Missions? 총동문회
 1기부터 4기까지 와이미션 총동문회로 모입니다.
 11월 22일(토) 오후 4:00~8:00 온누리교회 (예정) 추후 확정시 재공고
 주최: Why Missions 동문회(미션 브릿지)
 순서: 찬양, 이라크 사역보고(김사무엘 선교사), 다과 및 교제, 와이미션 사역보고, 온누리선교부흥을 위한 증보기도 및 헌신의 시간, 동문회

제3기 Turning Point (단기선교사 훈련)
 2004년 1월 12일(월) ~ 2월 6일(금)
 원서마감: 2003년 12월 14일(주일)
 대상: 단기 선교사로서 2년정도 현장 선교경험과 사역을 하길 원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훈련내용: 선교의 성경적, 문화적 기초, 대인관계, 장기사역과 단기사역자의 관계, 선교전략과 실제

제4기 OSOM (Onnuri School of Missions, 장기선교사 훈련)
 2004년 2월 16일(월)~6월 18일(금)
 원서마감: 2004년 1월 25일(주일)
 대상: 장기선교사로 사역지에 나가고자 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훈련내용과 강사: 홈페이지 (www.owmc.or.kr) 참조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whymissions@empal.com)

무릎선교기도
 매주 금 오전 10:00~오후 1:30 서빙고 미전도총중증보기도실 (계속 등록 가능)
 회비: 2만원 (식사, 간식비)
 문의: 이경애 집사(793-9686 교667)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인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서빙고 306호
 문의: 이경희 간사(793-9686 교 514)
 ※ 매월 마지막 수요일기도모임은 화요 2천선교기도모임으로 대체

물품구함
 1. 컴퓨터, 노트북 헌물받습니다.
 2. 차량(12인, 15인승) 헌물받습니다.
 3. 팩스 헌물받습니다.
 담당: 황호상간사(017-290-7856), 김연화간사(019-367-9727)

몽골어예배 반주자
 예배시 피아노반주하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몽골어 몰라도 됩니다.)
 시간: 매주일 오후 2:00~4:30
 문의: 이경희간사(017-316-9787)

여성사역자를 위한 BEE 세미나
 11월 24일(월)~11월 26일(수) 오전 10:00~오후 4:00
 공개강의 26일(수) 오후 1:00~4:00
 장소: 서빙고 경천홀
 내용: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강의와 선교에서의 여성 역할의 중요성
 강사: Cindy Smith, Dawn Whitehurst (BEE World Facilitator)
 자격: BEE 세미나 한과목 이상 수강하신 분
 회비: 2만원(점심식사 제공), 당일접수
 문의: BEE Korea (749-9480)

중국어예배 찬양팀 드림 연주자 모집
 예배시간: 주일 오후 1:15 서빙고 두란노홀
 문의: 차명선 간사(02-793-9686 교 707)

2003년 해외선교한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유절제홀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

01

인도네시아 주님의교회 헌당예배



인도네시아 주님의교회 가 오는 12월 7일(주일) 헌당예배를 드린다.

평양노회에 속하게 된 주님의교회는 김완일 목사를 위임목사로 받아들여 이날 취임식도 함께 연다. 우리교회에서는 박용국 장

로, 하용기 장로를 중심으로 이예배에 참석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다.

12월 6일~10일(4박5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주님의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흥범식 집사(011-278-0466)에게 연락하면 된다. 비용은 약 80만원이다.

/ 서철 chol@onnuri.or.kr

02

성탄절 선물 보내기

‘선교사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가족,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은 명절이나 성탄절에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성탄절 선물로 선교사님은 자신이 선교사와 있음을 기억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순에서는 선교사님을 한번 더 생각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최금록 성도/영등포구로)

성탄절이 1달 앞으로 다가온 요즘 섬김 선교사에게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느라 각순이 분주하다. “타향에서는 한국에서 온 우편물만 봐도 반가움이 솟구쳤다”는 김

정년 선교사의 말처럼 성탄 선물은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된다.

선물은 선교지 기후와 선교사가 필요한 것으로 준비하고, 순별 섬김 선교사 주소를 확인해 순에서 직접 선교사에게 발송한다. 단 수신주소가 선교단체로 되어있는 보안지역은 소포포장을 해 우편요금과 함께 기재된 선교단체로 발송한다. 수신주소가 ‘2천선교’라고 되어있는 순은 서빙고 2천선교 사무실로 가져오면 된다. 모슬렘지역이나 공산권 등 보안지역은 기독교 관련 선물을 피하고

선교사나 교회 같은 호칭을 선생님, 회사 등으로 바꿔 표기해야 한다.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는 순원들이 돌아가며 한 마디씩 적고 추후 선교사와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순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꼭 기재한다.

각 순별 섬김 선교사 주소는 온누리신문 459호(11월 2일자)나 www.onnuri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황민식 간사 (793-9686 교 208)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 주일, 추운 날씨에 체온을 높이려고 손을 비비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바자 봉사자들이 외친다.

“네팔에 교회를 세웁시다!”

네팔 카트만두에 교회를 세우려고 2천/1만 광장에 연 바자는 사랑의 줄기기와 요셉 청년부도 함께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인 것은 온누리미션 네팔어예배 지체들이었다. 커다란 현수막에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교회를’이라고 쓴 표어처럼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고국에 교회를 세우려고 로띠를 튀기고 찬양을 했다.

“네팔에 교회를 설립하는 바자라 출출하던 차에 작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 아이들과 왔다”는 함영미 성도(남양주 마리아, 노원5순), 2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던 중 팔을 걷고 몇 시간 켜 전을 부친 성도 등 2천/1만 광장은 네팔교회 설립을 도

우려는 온누리성도들로 북적거렸다.

이번 바자는 네팔 N.C.G.F.(Nepal Christian Gospel Fellowship) 교회 부지를 마련하려고 열렸다. 네팔 N.C.G.F

N.C.G.F 교회 설립 동기를 말한다.

“N.C.G.F 교회가 네팔과 부탄, 인도와 히말라야 일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기지가 되도록 건축하려 합니다. 앞으로

화 1만 6천달러(약 2천만 원)를 모금했고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고 이번 바자를 열었다.

전 국민의 약 90퍼센트가 힌두교를 믿는 네팔은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기독교를 전도하거나 포교하는 것이 적발되면 징역을 산다. 네팔어예배 형제들은 고국에 돌아가서도 계속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필요하다. 이를 절감했고 개비라 목사를 네팔에 파송, 1998년 11월 헤브론 교회를 개척했다. 헤브론 교회는 인근 30여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BEF 사역을 하고 불가촉천민(접촉하기조차 싫어하는 천민)인 다말족을 품는 등 현지인 전도에도 앞장서고 있다. 네팔어예배는 헤브론교회, N.C.G.F. 교회 등 현지 교회들이 네팔에 영향력을 미쳐 네팔 전 지역에 복음의 불길이 일기를 기도한다.

네팔어예배 바자

“우리 땅에 우리 손으로 교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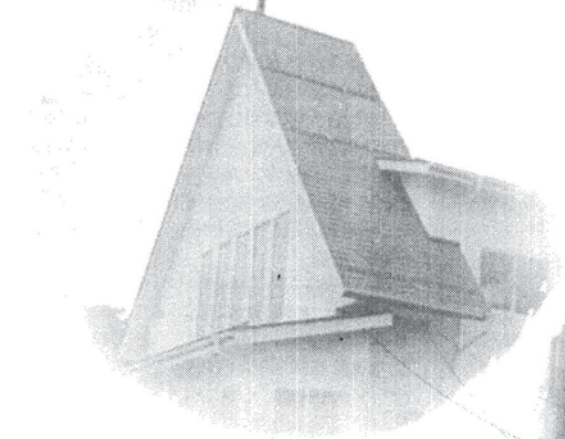


교회는 1992년 한국에 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누리교회 네팔어예배에서 훈련을 받은 비르 형제가 올해 3월 고국 네팔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다. 현재 가정집을 빌려 50여 명이 예배를 드린다.

필립 가즈얼 목사(네팔어예배 담당)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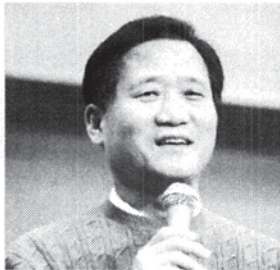
N.C.G.F 교회가 많은 사람을 훈련하고 사역하는 교회로 서길 바랍니다.” N.C.G.F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약 8천만 원이 필요하다. 네팔어예배 지체들은 한국에서 노동해서 번 돈을 교회 건축헌금으로 내놓아 이미 미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용조 목사와 함께



‘바로 그

‘내 생애 개척



하용조 목사

하나님 주신 복을 돌아보며 감사를 찬양하는 추수감사주일

- 사람이 식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감사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 할 것을 헤아리며,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인 믿음은 믿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며, 또 하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의 영적인 의미부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지적이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성도에게 주신 축복의 산물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하신 복의 분량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돌아켜 보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온누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지난 18년 동안 우리 교회에 물 보듯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엄청난 부흥,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온누리에 부여하신 이런 복을 돌아보고, 그 복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안주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 섬기며 나눌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웃, 지역교회, 사회, 국가, 민족, 열방을 돌아보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왔던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 총수입의 1/10을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과 국가

와 민족을 섬겼습니다.

고통 받는 이웃, 미자립 교회, 미전도 종족 먼저 복 받아 누리는 온누리가 풀어야

- 진정한 감사는 돌아보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 무척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희들은 뒤 돌아 볼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많은 복을 잊고 살아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이 땅에는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 베풀며 돌보아야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조금의 한국사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고통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국가 사회 단위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어른들이 한창 일 할 나이에 날개를 접습니다. 한국교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몇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역교회가 미자립 상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10/40 지역을 포함하여 복음을 받지 못한 지역과 소수 민족, 미전도종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복을 나눌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 이상적인 교회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 이 세상의 제도, 법, 교육, 문화, 예술로는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혼란을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할 수 없음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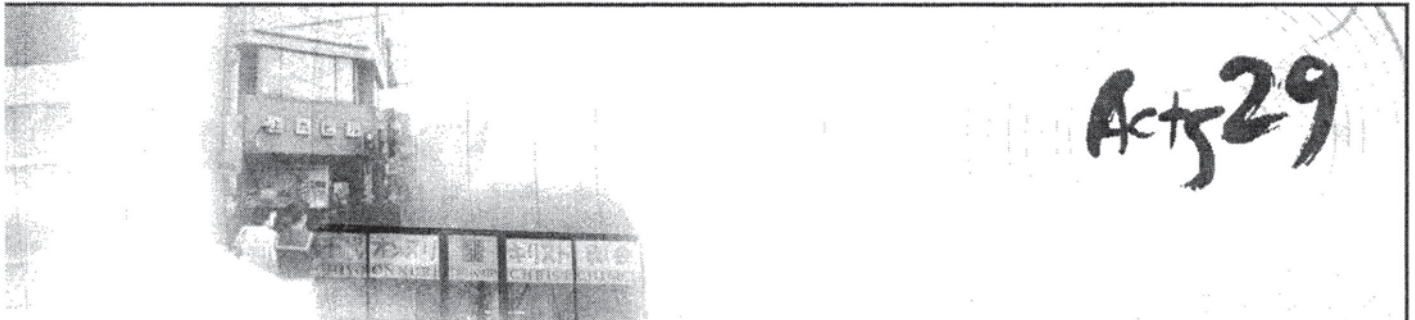
▼ 오직 교회만 세상을 변화전에서 배웁니다. 분명 이 세상 교회는 세상에 꿈, 비전, 환상을 안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역사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내 생애에 꾸십시오. Acts 이 ‘나도 개척 제가 되기를

세상을 바꾸는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어 리교회는 이런 교회를 계속 세워 개척해야 합니다. 개인이 교회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 지역을 도와야 합니다. 아직 복음의 나침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도행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누리에 주

Acts29 비전특별헌금, 축복의 바로 그 자리로

▼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했습니다. 그 교회와 함께 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는 꿈 주심에 감사

‘교회 하나 세우리라’... 기쁨으로 ACTS29 비전에 참여하는 추수감사주일

나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적 유일한 소망, 희망은 교회입니다. 주고, 세상을 변하게 할 유일한 대나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적 교회입니다.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모델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워 온누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꿈, 비전, 환상, 목회철학, 사역을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Acts29 비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라 생각합니다.

- 이제 Acts29 비전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아이를 낳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세워진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 특별 비전헌금 20여원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하십시오. 내 생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나 개척한다는 감동으로 참여하십시오. 지난 4월에 작성하신 분은 이번에도 완납해 주시고, 그때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은 추수감사주일 Acts29비전 특별헌금,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신 바로 그 교회 하나를 개척한다는 거룩한 꿈을 Acts29 비전 헌금을 통해 그 꿈을 이루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주일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기쁨이 넘치는 감동의 축제, 감사의 축제를 지원합니다."

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순 | 나오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 | 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교회들 | 을 개척하면 자칫 위기에 빠지기 쉽 | 록에 있는 미자립 교회, 중소형 교회 | 손길이 닿지 않은 지구촌 곳곳에 하 | 영전적 바로 그 교회를 세워야 합니 | 다신 Acts29비전입니다.

이오십시오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 | 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한 영향력

이 비전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목사님께서는 이번 추수감사주 | 일을 맞아 Acts29 특별 비전헌금을 작성하시고 제안하셨는데...

▼ Acts29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Acts29 비전을 이뤄 나가십니다. 일 | 본, 미국에 세워진 비전교회도, 이라크에 교회와 신학교가 들어선 | 것도, 아프가니스탄에 설치된 NGO EOC를 통한 사역들도 모두 성 | 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국내에는 부천, 수원, 대전에 비전교회 | 가 세워졌습니다. 곧 남양주, 단동, 대련 등에도 비전교회가 세워질 |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 | 이를 낳으면 건강한 청년이 되도록 계속 양육해야 합니다. 온누리 |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잉태하여 교회를 출산하기 시작했습 | 니다. 이제 그 교회를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며 계 | 속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키워야 합니다. 또한 계

비전교회는 중소형 교회의 모델이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

- 진정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요, 거울이며 소망이어야 | 할 것 같습니다. 온누리가 계속 세워나갈 비전교회의 역할을 정리 |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남겨 주십시오.

▼ 온누리 비전교회는 지역 중소형교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 비전교회를 통해 온누리에 주신 비전, 사역, 목회철학을 이 땅의 모 | 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또한 온누리 비전교회는 미 | 전도종족,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기지가 될 것입니다. 땅 끝 | 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온누리 주신 비전, 꿈, 환상을 열방과 | 모든 족속과 공유하며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성령님이 춤추는 교 | 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성도님들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 생애에 | 예수님의 꿈이신 바로 그 교회 하나를 개척한다는 거룩한 꿈을 꾸 | 십시오. Acts29 비전 헌금으로 그 꿈을 이 | 루십시오.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나도 개 | 척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기쁨이 넘치는 | 감동의 축제,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축원 | 합니다.



/ 편집국장 장선철 jsc@onnuri.or.kr

'문 열린 이라크...지금 이 복음 전할 기회'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 근황 ...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가 지난 10월 10일 (금) 개척예배를 드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척예배에는 이라크 사람 20여 명, 한국 사람 20여 명 총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수적인 이라크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는 모습에 놀랐고 그 후 우리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장로교회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라크 장로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다 이슬람 사회는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척팀은 찬양 사역자 3명, 피아노, 컴퓨터, 총무, 노구석 전도사와 저를 합해 총 8명입니다. 교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한국인에게 철수 명령을 내려 교회에 한인이 5명 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이 깊어 교회가 풍성합니다.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라크 현지 상황 ...

한국 대사관은 우리에게도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보니 주님께서 아직 철수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와보니 매일 텔레비전에서 이라크 뉴스가 나오는데 그 안에 있을 때는 크게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크리스천만 있는 지역이라 사고가 벌어지는 모슬렘인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이라크에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말 어느 아침 '뿡'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옥상에 올라가보니 적십자 건물이 폭발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우리 교회 유리창이 다 깨질 정도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그 폭발로 30여 명이 죽고 1백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 날은 라마단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적십자사 출근시간은 원래 오전 8시 30분인데 라마단이 시작한다고 출근시간을 9시로 늦췄지만 테러범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8시 30분에 폭발을 터트렸던 것입니다. 만

1991년 제1차 걸프전 모연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는 두 번째 전쟁에 휘말렸다. 연이은 전쟁으로 국토는 훼손됐고 기본생활 시설이 파괴됐다. 강력한 이슬람 체제에 갇혀 있던 이라크 사람들은 후세인 장권의 물리학과 불안한 정국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새로운 신앙을 찾고 있다.

"문이 열린 지금이 기회입니다." 김사무엘 목사는 지금이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김 목사는 지난 9월 노구석 전도사와 단기선교사 6명과 함께 이라크에 들어가 바그다드에 이라크 한인연합교회를 개척했다. 김 목사에게서 10월 10일(금) 첫 예배를 드린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 소식과 이라크 동정을 들었다.



약 평상시대로 출근했

으면 몇 백 명이 죽었을 텐데 하나씩 세고 도와주셨습니다.

이라크에서 위험을 당하거나 두려움을 느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라크 사람들은 미국인에게 적대감이 심하지만 동양인들에게는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에 있는 한국군들이 신용을 잘 얻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위협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안전하고 교회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 ...

바그다드에 있는 대표적인 두 이라크 교회인 바그다드 장로교회와 연합교회가 우리에게 일대일 제자훈련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예배학교를 열어달라고 부탁해 예배학교와 컴퓨터교실, 영어교실, 유치원 사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척팀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북쪽 모슬렘지역으로 정탐여행을 다녀왔고 이라크 연합교회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12월 5일 창립예배

는 내년으로 연기되었지만 크리스마스에는 온누리 세계 선교센터와 '크리스마스인 바그다드'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12월 23일(화)은 모슬렘 아이 3백여 명을 모아 선물을 나눠 주고 28일(금)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라크교회의 일주일 ...

주일에 청년들이 이라크 장로교회와 연합교회로 가서 예배를 섬깁니다. 월요일 새벽 6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며 지난 1주일을 정리합니다. 오전에는 아랍어 숙제를 하고 오후에는 영어와 컴퓨터 반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2시간 반 동안 아랍어 공부를 합니다. 화요일 오후에는 예배 학교를 열고 목요일 오후에는 장로교회에 가서 장로교회 청년들에게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수요일 오후 5시와 금요일 오후 1시 장로교회 예배당을 빌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쉽니다.

8명이 모두 사역에 매달려 1주일을 바쁘게 보냅니다. 간 지 1달 밖에 안됐는데 현지 사람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쉽게 자리를 잡게 해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 ...

이라크 사람들은 지금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과 빵으로만 1주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찾습니다. 그 중 특별한 소명자들을 위해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이라크 교회가 부탁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 후보생들을 훈련하는 3년 과정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소명이 확실한 사람 20명을 뽑아 장래 목사 후보생으로 훈련시키려 합니다. 온누리 선교사 훈련처럼 아침 6시 큐티로 시작해 5일 간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훈련하려 합니다. 1년에 4개월씩 두 학기는 공부하고 남은 2개월씩은 교회에 봉사하며 3년 과정을 마치면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졸업한 이라크인 목사들이 자기 민족을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누리교회에 허락하신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라크에 모두 소개하고 교회 목회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다리 구실을 하고 싶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지금, 기회가 있는 지금 해야 합니다.

기도제목 ...

허리 근육을 다쳐 1달 동안 비명과 신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자면서도 너무나 아파 한 시간, 한 시간 반 강격으로 잤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에 에어컨도 잘 돌아가지 않아 1달 동안 고생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이 교회를 탄생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로 영적으로 힘들었고, 육신에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일이 있어 서울에 나왔는데 잘 쉬고 몸을 잘 추스려 12월에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라크에 남아 있는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바그다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이라크 한인연합교회가 한국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힘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이라크 교회가 서기까지


- 7월 6일, 13일 예절 선교회 이라크 교회 건축 위한 바자
- 7월 21일~8월 2일 하우미션 아웃리치 (이라크 남부 바시리아와 바스라)
- 9월 18일 1차 정탐팀 바그다드로 출국 (김사무엘 목사, 노구석 전도사)
- 10월 6일 2차 정탐팀 출발 (단기 선교사 6명, 자매 3명, 형제 3명)
- 10월 10일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 개척예배

크리스마스인 바그다드

12월 25일 ~ 1월 1일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 니느웨성, 모슬 아웃리치



*

 **2000선교**

■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 29 바그다드 (Baghdad)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 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문의: 이흥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11월 24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지하 출
 기도실
 말씀: 이기원 목사
 담당: 김화수 팀장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벨엘빌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 (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7:30 서빙고 아론기
 도실
 문의: 김지은 (019-269-0921)

TIMA 과정 모집
 2004년 1월 개강
 내용: 선교언어 스펠(영어, 중국어)
 선교기능 스펠(전자침 과정, 발마사지 과정)
 담당: 최진혁 간사(794-1065)

■ KIBI
☞ 11월 이스라엘 선교의 밤
 키이스 인터레이터 목사님의 저서인 "이락에서 아
 마겟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송만석 장로의 이
 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중보 기
 도합니다.
 11월25일(화요일) 오후 7:30~9:30 서빙고 선교
 관 306호
 문의: KIBI (792-7075)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여성사역자를 위한 BEE 세미나
 11월 24일(월)~11월 26일(수) 오전 10:00~오후
 4:00
 공개강의 26일(수) 오후 1:00~4:00
 장소: 서빙고 경천홀
 내용: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강의와 선교에서의
 여성 역할의 중요성
 강사: Cindy Smith, Dawn Whitehurst (BEE
 World Facilitator)
 자격: BEE 세미나 한과목 이상 수강하신 분
 회비: 2만원 (점심식사 제공), 당일접수
 문의: BEE Korea (749-9480)

■ 아웃리치
케냐 아웃리치
 12월 24일~2004년 1월 4일
 꿈방/청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여름 헌 옷(아이들, 성인), 장난감, 인형, 의약품을
 후원받습니다.
 동참할 청년들을 찾습니다(의사, 간호사) 도움을 주
 실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의: 이명열 (011-202-5386)
 정영원 (011-1707-6299)

중국어예배 찬양팀 드럼 연주자 모집
 예배시간: 주일 오후 1:15 서빙고 두란노홀
 문의: 차명선 간사(02-793-9686 교 707)

■ 일본어예배
☞ 어린이 예배 초등부 교사 모집
 예배시간: 매주 토요일 1:30~5:0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모집 부문: 피아노 반주자(일어 관계 무)
 초등부 교사(일어 가능한 분)
 문의: 황혜경 간사(793-9686 교702)
 오카 사오리 (011-1702-4511)

☞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 탁아 봉사자 모집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6:30 서빙고 유아실
 대상: 일본 미션자 아동들
 일본인 전도를 위한 귀한 기회입니다. 일본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 물품구함
 선교사님 자녀를 위한 아동 백과사전 구함
 서빙고 교역자실 간사님께 연락바랍니다
 문의: 윤서희 간사(793-9686 교 634)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6나)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우리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매주 월~금 오전 6:30 온유점제출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i.com/e2s2

☞ 캄보디아 아웃리치 모임
 매주 3부 예배(11:30)후 모입니다.
 장소: 분당
 문의: 오재성 목사(042-825-3642)

*

... 인터뷰



“감동과 은혜와 각성의 시간”

박용대 목사 / 보령 신광교회
 온누리 교회 농어촌선교회의 초청으로 이번 전도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농어촌선교회에서 숙소까지 제공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3일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보령에 있다보니 전도 할 때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과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축제가 열려 우리 교회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철학을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하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실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말씀하실 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향하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각성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온누리 순장사관학교에서 저희 교회로 순장 아웃리치를 와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온누리 교회와는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세계가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

정금옥 전도사(좌), 류영선 전도사(우) / 안산 섬기는교회
 많은 기대 속에서 이번 전도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어려움과 막힘을 겪으면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가 정말 반기왔고 3일동안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포스트모던시대에 세계 열방에서 새로운 전도전략이 필요하다는 영상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전도전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보내신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협력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적이라고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희망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 하용조 목사님께서 교회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교회만의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실 때,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교역자로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줬습니다”

김명재 목사 / 상도 중앙교회
 저는 상도 중앙교회 부목사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여는데 특별히 맞춤 전도 형식으로 해보려고 하던 중 전도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고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전도의 흐름이 어떤지, 특히 맞춤 전도란 어떤 것인지 관심이 있어 참석했는데 오늘 좋은 이야기를 무척 많이 들어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말씀 중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정의하신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45세 이하인 포스트 모더니즘 생활에 젖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까지 전통적인 전도 방법대로 해왔지만 뭔가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계속 해 왔습니다. 더구나 많은 교회가 수행이동으로 부흥하는데 만족하는 것을 보며 불신자 전도도 해야 하는데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 중 우선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원론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 배웠습니다”

김용기 목사 / 일본 크리스찬기독교도요하시교회
 8년전 목회자 연수 받으러 온누리교회에는 처음 왔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도쿄하시 일본 온누리 축제 홀스위트홈에서 이번 전도축제를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용조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비전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이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강의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어두움 이기는 전도전략 배웁니다”

신구 히로고 목사 / 일본 마에바시살롬처치
 올해 초 목회사관학교에 참가하면서 처음 온누리에 왔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자신의 교회를 크게 키우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라는 말씀에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자분들의 모습에서 생생한 빛을 봤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이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들 안에 어두움이 덮여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그 어두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전도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그런 영적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감을 느끼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과 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을 사랑해 주시고 일본 교회를 위해 희생적으로 섬겨 주시게 감사드립니다.



“전도, 쉽게하고 싶습니다”

허아른 병정(가운데)
 새벽기도에서 연대장님이 '체인지업'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한 번 참석해 볼 생각이 있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생명의 삶 앞에 체인지업 축제 광고를 보긴 했지만 저희가 가겠다고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연대장님께서 먼저 권해주셨습니다. 원래 희망자가 많았지만 부대 바깥에서 하는 행사라 개인 휴가 대신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 세 명이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전도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희 내부실의 경우 제가 군중을 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집회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김동제 상병(우)
 연대장님과 사모님인 김인숙 집사님이 온누리교회에 다니다 파송되어 오셨습니다. 사모님께서 연대장님께 군인들도 은혜받아야 한다고, 집회에 보내달라고 부탁하신 덕분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데 감사합니다.

Change 2003 온누리전도축제

7 온누리신문 2003년 11월 28일(금요일) 464호

이집트

“맞춤전도의 씨 뿌리겠습니다”



라니 포드, 아테프 사미
(Rany Four, Atef Sami)

그동안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축제가 열려 참석 하고 싶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주어 귀한 전도축제에 참석 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새로운 비전들도 배우고 싶어서 초대받 아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국민의 12%가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는 130년 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슬렘과 기독교로 정해져 아이디(주민등록증)가 결정 됩니다. 현재 크리스천 8백만 명 가운데 신자는 1백만 명 쯤 됩니다. 크리스천에서 모슬렘으로 개종하기는 쉽지만 모슬렘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모슬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종을 바라며 지하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축제에서 맞춤전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전도집회에 잘 적용하고 싶고, 앞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서 맞춤전도를 응용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들과 다양한 협력으로 주님의 큰 비전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 한승현 ruby@onnuri.or.kr

이라크

“성도들에게 감명받았습니다”



카산 목사
(Ghassan,
이라크 정로교회)

에zell 선교회가 초콜릿 바자로 모금한 이라크교회 건축헌금을 이라크로 여름 아웃리치를 온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전해주었습니다. 처음 목회할 때 어려움이 많아 김 목사님과 스태프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현재 350명에서 400명이 모입니다.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는 것을 보여 앞으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 집회에서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쉬완 목사
(Nashwan,
이라크 침례교회)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기만 바라기보다는 담대해지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세인 정부 시절에 이라크에는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교회가 다섯 개 있었습니다.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여러 나라 많은 교파가 이라크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기독교인이고 모슬렘은 계속 모슬렘이라는 전통적인 종교체제가 변화를 겪으며 호기심에 교회에 나오는 모슬렘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몽골

“전도의 길”을 열겠습니다



첸두마, 니드릿, 낸다
(S.Tsendmaa, N.Nandintsetseg, D.Nadmidtseden)

몽골에서 박관태선교사님과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관태 선교사님께서 전도축제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숙소까지 제공해 주셔서 편하게 전도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1년동안 한국에 나올 수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는데 이렇게 전도축제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도 한음식만 먹으면 질리는데 영적으로도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트모더니즘과 체인지업을 강조하시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벽 앞에 있고 지나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고 제게 주신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교회가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몽골의 영적 아버지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각 교회가 연합축제등으로 교류가 많은데 몽골에서는 각 교회가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번 전도축제로 몽골에서 반드시 전도를 해야만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 한승현 ruby@onnuri.or.kr

01



일본어예배
크리스마스 전도파티

큰 행사인 '전도파티'에는 일본어예배 어린이학교인 프치파프스(2세~7세)와 파프스(7~12세) 어린이들의 부모, 한글강좌 학생, 한국어학당 학생, 이촌동 주변 일본인 등 약 2백50명을 초청해 전도 집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오후 5시 서빙고 선교관 커피숍에서 저녁식사 후, 7시부터 경춘홀에서 어린이들이 준비한 뮤지컬과 장기자랑, 성가대찬양을 관람한다. 일본어예배는 이날 일본 어린이들을 돌봐줄 탁아봉사자를 모집한다.

•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 702)
/ 전성희 shee@onnur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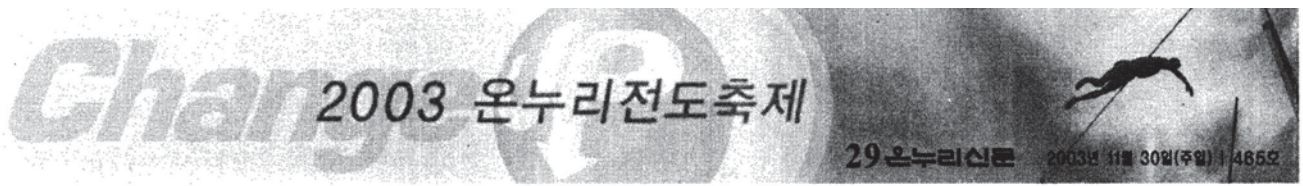
일본어예배는 교회에 발을 들이기 힘든 일본인들을 파티에 초대하는 형식으로 전도하는 '크리스마스 전도파티'를 13일(토)에 연다. 일본어예배 1년 행사 중 가장

02

의료선교인의 밤

오는 12월 14일(주일) 오후 6시 30분 서빙고 경춘홀에서 의료선교인의 밤이 열린다. 의료선교사 역팀과 회복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선교팀의 2003년 보고와 내년 사역계획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 문의: 안태환 집사
(011-323-1515)



... 인터뷰



“감동과 은혜와 각성의 시간”

박운대 목사 / 보령 신광교회
 온누리 교회 농어촌선교회의 초청으로 이번 전도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농어촌선교회에서 숙소까지 제공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3일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보령에 있다보니 전도 할 때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과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축제가 열려 우리 교회가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철학을 잘 알지 못했는데 오늘 하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많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하 목사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말씀하실 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형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향하신다고 하셔서 그동안 저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각성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온누리 순장사관학교에서 저희 교회로 순장 아로리치를 와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온누리 교회와는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세계가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

정금옥 전도사(재), 류명선 전도사(우) / 안산 성기는교회
 많은 기대 속에서 이번 전도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어려움과 막힘을 겪으면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축제가 정말 반가웠고 3일동안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포스트모던시대에 세계 열방에서 새로운 전도전략이 필요하다는 영상메시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전도전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보내신 영상메시지를 보면서 협력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적이야고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희망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용조 목사님께서 교회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교회만의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실 때,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교역자로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줬습니다”

김명재 목사 / 상도 중앙교회
 저는 상도 중앙교회 부목사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여는데 특별히 맞춤 전도 형식으로 해보려고 하던 중 전도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고 듣고 왔습니다. 요즘 전도의 흐름이 어떤지, 특히 맞춤 전도란 어떤 것인지 관심이 있어 참석했는데 오늘 좋은 이야기를 무척 많이 들어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말씀 중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정의하신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45세 이하인 포스트 모더니즘 생활에 젖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까지 전통적인 전도 방법대로 해왔지만 뭔가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계속 해 왔습니다. 더구나 많은 교회가 수평이동으로 부흥하는데 만족하는 것을 보며 불신자 전도도 해야하는데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좋은 말씀 중 우선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원본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 배웠습니다”

김용기 목사 / 일본 크리스찬가독교도요시교회
 8년전 목회자 연수 받으러 온누리교회에는 처음 왔었습니다. 지난 10월 말 도쿄하시 일본 온누리 축제 홀스위트홈에서 이번 전도축제를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용조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자세와 비전에 많은 도전을 받았고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웃음이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강의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어두움 이기는 전도전략 배웁니다”

진구 히로코 목사 / 일본 마에바시살롬처치
 올해 초 목회사관학교에 참가하면서 처음 온누리에 왔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자신의 교회를 크게 키우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라는 말씀에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생생한 빛을 봤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이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들 안에 어두움이 덮여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그 어두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전도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본의 그런 영적 어두움이 조금씩 물러감을 느끼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과 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을 사랑해 주시고 일본 교회를 위해 희생적으로 섬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왼쪽부터 박승근, 선태현, 최창수, 박승훈

“하나님의 위로받으며 섬깁니다”

최창수 집사(서초C공동체)
 기존 주차봉사팀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체인지업 주차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차위원들 모두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오전 7시 30분부터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양재 성전에서 처음으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만큼 그동안 기도를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 와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외부 손님들과 목회자분들이 많았는데 협조를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첫날에는 행사주관 차량이 너무 많아서 참가자들이 환승주차장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모든 참가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체인지업 같은 큰 행사를 주차로 섬기니 영광입니다. 무대위에서 섬기면 큰 박수를 받았지만 무대 뒤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주차위원들이 빠지지 않고 잘 참가해 주어서 진행이 원활했습니다. 힘들어서 금방 그만두기가 쉬운데 계속 잘 섬겨주시는 주차위원 동역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집트

“맞춤전도의 씨 뿌리겠습니다”



라니 포드, 아테프 사미
(Rany Fourd, Atef Sami)

그동안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온누리 교회에서 전도축제가 열려 참석 하고 싶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주어 귀한 전도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새로운 비전들도 배우고 싶어서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국민의 12%가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이 들어온지는 130년 됐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슬렘과 기독교로 정해져 아이디(주민등록증)가 결정됩니다. 현재 크리스천 8백만 명 가운데 신자는 1백만 명 쯤됩니다. 크리스천에서 모슬렘으로 개종하기는 쉽지만 모슬렘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모슬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종을 바라며 지하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축제에서 ‘맞춤전도’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사를 전도집회에 잘 적용하고 싶고, 앞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서 맞춤전도를 응용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들과 다양한 협력으로 주님의 큰 비전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 한승현 ruby@onnuri.or.kr

이라크

“성도들에게 감명받았습니다”



카산 목사
(Ghassan,
이라크 침례교회)

예절 선교회가 초콜릿 바자로 모금한 이라크교회 건축헌금을 이라크로 여름 아웃리치를 온 김사무엘 목사님에게서 전해받았습니다. 처음 목회할 때 어려움이 많아 김 목사님과 스태프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현재 350명에서 400명이 모입니다.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 집회에서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슈완 목사
(Nashwan,
이라크 침례교회)

‘앉아있지 말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기만 바라기보다는 담대해지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세인 정부 시절에 이라크에는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교회가 다섯 개 있었습니다. 후세인 정부가 무너지고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여러 나라 많은 교파가 이라크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기독교인이고 모슬렘은 계속 모슬렘이라는 전통적인 종교체계가 변화를 겪으며 호기심에 교회에 나오는 모슬렘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기회의 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몽골

“전도의 길” 열겠습니다



첸두마, 나드릿, 낸다
(S.Tsendmaa, N.Nandintsetseg, D.Nadmidtseten)

몽골에서 박관태선교사님과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관태 선교사님께서 전도축제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숙소까지 제공해 주셔서 편하게 전도축제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1년동안 한국에 나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 학교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는데 이렇게 전도축제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음식도 한음식만 먹으면 질리는데 영적으로도 새로운 것에 목말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포스트모더니즘과 체인지업을 강조하시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벽 앞에 있고 지나가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고 제게 주신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교회가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몽골의 영적 아버지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각 교회가 연합축제등으로 교류가 많은데 몽골에서는 각 교회가 정보 교류가 잘 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번 전도축제로 몽골에서 반드시 전도를 해야만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 한승현 ruby@onnuri.or.kr

*

>> 2000선교

■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29 바그다드 (Baghdad)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 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문의: 이홍우 (011-9668-9625), 김민정 (019-383-6618)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 (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 인도 (인도를 위한 기도 모임)
매월 첫째주 목요일
장소: 서빙고 2층 유아실
시간: 12월 4일 목요일 저녁 7:00~9:00
문의: 이요셉 (016-346-8460)

■ 두란노 해외선교회 (TIM)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일시: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12월 8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아론 기도실
문의: 김지은 (019-269-0921)

☞ 두란노 해외선교회 월요기도모임
주제: 12월 가족 및 중보기도자 모임
장소: 양재 은유성전
시간: 12월 1일 저녁 7시
문의: 박소영 간사 (02-794-1063~5)

TIMA 과정 모집
2004년 1월 개강
내용: 선교언어 스쿨 (영어, 중국어)
선교기능 스쿨 (전자침 과정, 발마사지 과정)
담당: 최진혁 간사 (794-1063~5)

**☞ 몽골-MK교사, 한국어교사, 컴퓨터 교사 각 1
명의 지원자를 받습니다.**
문의: 박인영 간사 (794-1063~5)

■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 아웃리치

케냐 아웃리치
12월 24일~2004년 1월 4일
꿈팜/청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여름 헌 옷(아이들, 성인), 장난감, 인형, 의약품을
후원받습니다.
동참할 청년들을 찾습니다(의사, 간호사)도움을 주
실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의: 이명열 (011-202-5386)
정영원 (011-1707-6299)

중국어예배 찬양팀 드림 연주자 모집
예배시간: 주일 오후 1:15 서빙고 두란노홀
문의: 차명선 간사 (793-9686 교 707)

■ 일본어예배

어린이 예배 초등부 교사 모집
예배시간: 매주 토요일 1:30~5:0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모집 부문: 피아노 반주자 (일어 관계 무)
초등부 교사 (일어 가능한 분)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 702)
오카사오리 (011-1702-4511)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 탁아 봉사자 모집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6:30 서빙고 유아실
대상: 일본 미신자 아동들
일본인 전도를 위한 귀한 기회입니다. 일본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 물품구함

선교사님 자녀를 위한 아동 백과사전 구함
서빙고 교역자실 간사님께 연락바랍니다
문의: 윤서희 간사 (793-9686 교 634)

2003년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우리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은누리교회

☞ 은누리미션 후원계좌
하나은행 33901-9522448 은누리미션

양재 영어 새벽 기도 모임 E2S2
· 매주 월~금 오전 6:30 은유성제출
선교에 마음이 있고 새벽을 깨울 참된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www.freechal.com/e2s2

캄보디아 아웃리치 모임
매주 3부 예배(11:30)후 모입니다.
장소: 본당
문의: 오재성 목사 (042-825-3642)

*

01

선교준비 프로그램 '티마'

선교지에서 필요한 기능과 언어를 한 자리에서

두란노 해외선교회(TIM)는 선교지에서 필요한 기능과 언어를 훈련하는 선교준비 프로그램 티마(T.I.M.A: Tyrannus International Ministry Academy)를 신설했다. 선교기능스쿨(MSS- Mission Skill School)에서는 선교지에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침과 발마사지를, 선교언어스쿨(MLS Mission Language School)에서는 중국어와 영어를 개설했다. 선교 언어는 일상생활용어 뿐만 아니라 4영리, 찬양, 성경읽기 성경 용

어도 배운다. TIM은 앞으로 선교지망 후보생과 단기선교로 나가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미용 과정, 사진, 데코레이션과 선교 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각 과목은 전화로 등록한 후 입금하면 되고 개강 3일 전까지 등록하면 1만원 할인 혜택도 있다. 선교단체 간사와 신학생은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02-794-1063~5)

◆ 선교기능

-전자침 과정

2004년 1월 6일~2월 24일 (매주 화)

양재 온누리교회

-발마사지 과정

2004년 1월 8일~3월 4일 (매주 목)

서빙고 온누리교회

강사/ 엄현정 교수 (한국전인치유신학원 교수)

회비/ 7만원 (재료비 별도)

◆ 선교언어

-중국어

2004년 1월 13일~3월 23일 (매주 화, 목)

강사/ 하호중 교수 (크리스천 중국어 저자)

-영어

2004년 1월 28일~4월 7일(매주 수, 금)

두란노해외선교회

강사/ 김유나 강사 (EBS 영어강사)

회비/ 12만원

장소/ 두란노해외선교회 (서빙고동)

시간/ 오후 7:30~9:30

입금/ 하나은행573-910001-52505 (예금주: (사) 동서문화개발교류회)

02

의료선교인의 밤

오는 12월 14일(주일) 서빙고 경천홀에서 '의료선교인의 밤'이 열린다.

오후 6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의료선교인의 밤에는 의료선교사역팀은 물론 내년에 시작하는 회복사역에 관심 있는 의료인 모

두 참가할 수 있다.

이 날 모임에서는 하용조 목사가 설교하며 각 의료선교팀의 2003년 사역 보고와 회복사역을 포함한 의료선교팀의 내년 사역 계획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 문의: 안태환 집사
(011-323-1515)

03

선교사에게 축복과 사랑을 보냅니다

'The Light'

여성 워십리더 한나(용산 14순)가 첫 앨범 'The Light'를 발표하고 열방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한다.

- 'The Light'는 어떤 앨범?

세계선교인인터넷학회에서 '한나의 선교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 앨범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어떻게 제작?

제가 선교사들을 위해 앨범을 만든다고 하자 하스데반, 강명식, 조환곤, 오세광 등 저명한 예배자들과 강수호, 함춘호 등 최고의 뮤지션들이 앨범에 선뜻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음악신학교를 나왔고, 직장인



성경공부모임(BBB: Business Bible Belt)찬양팀, 경배와 찬양 어머니 모임 등에서 보컬과 음악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세계선교인인터넷학회에서 '한나의 선교여행'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성도들께...

선교사님들을 위한 앨범에 제가 사용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앨범은 3천여 선교사님들께 보내지며 앨범 수익금은 모두 선교사님들께 보낼 것입니다.

*앨범문의: 한나의 선교여행

(www.swim.org)

/한승현 ruby@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항상 깨어서 C국과 저희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는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다른 사역자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수도에서는 지난 5일간 폭탄 테러가 4건 발생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사망자 50여 명과 부상자 수백 명, 그리고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었건 죄 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어 마음이



아픔입니다.

5일간 테러 4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4년 전 지진 때에도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있었지만 그 지진으로 이곳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였습니다. 이번 테러로 우리 성도의 영혼을 다시 한 번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기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간절함과 사모함이 결여되었던 저희를 깨워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과 그 일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연약하고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C국 영적 상황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저희는 오늘

함께 모여 철야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 먼저 간구와 기도와 도고(중보기도)와 감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서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테러가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들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심하일/정진주 올림
(파송-소아시아-YWAM-동대문남양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강바나바/김조세핀
(파송-몽골-TIM-) 동북아-온누리교회

-첸수령, 나랑치메크, 바트올찌, 볼로르토야 이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인타까움을 느끼며 꺼지지 않는 전도와 기도의 불길기 타오르길

김교신
(협력-한국-안디옥선교회-서초B) 동북아-주안장로교회

-현재 형제자매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의 의료 진료를 위해서

손은정
(파송-폴란드-TIM-과천수원) 유럽-온누리교회

-아가타 막시니악이 폴란드인에게 좋은 리더가 되며, 제가 이 친구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이 땅이 가난과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03

온누리 세계선교센터 / 단기선교사 훈련 학교생 모집

"온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는 같은 비전을 품은 150여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11월 22일(화)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주최로 열린 와이미션 총 동문회 미션 브릿지에서 참가자들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미션브릿지 운영위원회'라 이름한 이 모임은 온누리세계선교센터와 선교사 선교사를 잇는 구실을 하고 와이미션 수료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등 영적·물질 후원을 한다.

이날 모임에서 김사무엘 목사가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 개척 예배 소식을 전하며 이라크 선교보고를 했다.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는 지난 7월 와이미션 졸업생들이 이웃리치를 다녀 온 결실로 세운 교회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앞으로 와이미션과 단기선교사 훈련학교인 터닝포인트(Turning Point), 장기선교사 훈련학교 OSOM으로 세계 선교에 힘쓸 선교사들을 배출할 계획이다.

그 중 단기 선교사 훈련학교인 Turning Point 3기생을 현재 모집하고 있다. 2004년 1월 12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훈련하며 원서는 2003년 12월 14일(주일)까지 받는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 홈페이지(www.owmc.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2년 정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거나 훈련받기 원하는 신청자 중 15일(월) 심리검사와 26일(금) 면접을 통과한 사람이 터닝포인트 3기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4주간 양지 온누리세계선교센터에서 합숙하며 교육한다.

◇ 교육내용

자신의 내면지도 그리기-인생 역정을 목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의 궤적을 통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기초영성세우기- 큐티, 일대일제자양육,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등 선교의 기초가 되는 기본 영성을 점검한다. 선교지에서 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전한다.

단기사역자의 역할과 사역- 짧은 시간 안에 좀더 바른 적응과 사역을 요구하고 장기사역자의 사역에 도움을 주어 선교현장에서 유기적인 사역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선교사의 전도, 제자양육, 교회개척, 장기선교사와의 관계 등을 이미 단기선교에 참여했던 선



배들의 인도를 통해 배워야 한다.

섬김리더십 훈련- 양지 선교센터 안에서 공동체 생활과 섬기는 훈련이 몸에 배도록 한다. 등산, 노동, 의무노동 등 실천을 통해 선교사로서 필요한 기초영성과 실무를 배운다.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단, 보건소 진단서 제외), 선교사 추천서(출석교회 담당 교역자, 신앙 선배에게서 각각 1부: 별도 추천 양식지 사용)

• 문의: 온누리세계선교센터

(owmc@onnuri.or.kr 031-336-6350~2)

/ 전성희 shee@onnuri.or.kr



열정과 하나님의

순장, 2천/1만 비전의 주인공

선교사 2천명을 파송하고 사역자 1만명을 세운다는 '2천/1만 비전'을 위해 2003년 온누리는 순장에게 초점을 맞췄다. 1월 5일 출범한 '1만 순장 프로그램'은 새신자가 등록, 양육, 일대일 지도자반을 거쳐 스스로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순장으로 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월 22일 공동체 목양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모든 순원이 순장이 되고 모든 순이 교회가 되어야 하며 순이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이 될 수 있다"고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를 이끌 건강한 순장을 양성하는 순장사관 학교가 서빙고와 양재에서 문을 열었다. 3월~6월, 9월~12월 2학기로 진행한 순장사관학교는 순장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영성을 습득하고 순을 운영하며 터득한 문제해결 노하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월 가정축제 '기프트'에서 3백여 순장은 하나님의 가정사역자가 되어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 가족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순의 성숙을 위한 '순별 계속 교육'도 3월부터 6월까지 서빙고와 양재에서 진행되었다. 온누리 순들은 '내적치유', '생활전도', '지성소의 영성', '말씀을 내면에 새기기', '선교스쿨', '공홀스쿨', '은사네트워크', '예배의 능력' 등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더욱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다.

새가족과 새신자를 교회의 가족으로 환영하는 비전수련회, 양육10주 과정을 마친 성도를 예비순장으로 자리매김해 주는 성령수련회도 참석자들에게 은혜와 비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었다.

10개월 동안 가동된 1만순장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개편되었다. 새신자 등록교육은 초신자와 기신자 모두 7주이며, 만남의 잔치가 부활했다. 등록교육 과정과 양육 10주 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일대일 동반자반은 등록과정과 분리되어 등록 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히 일대일 입학수로예배도 다시 시작된다.

새신자등록과 일대일 과정이 달라졌지만 순장은 여전히 1만사역자의 근원이다. 온누리 순장은 새해에도 복음으로 양육하고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온누리행진을 쉼없이 걸 것이다.

전 공동체가 섬김선교지로!

"피상적 기도에 그치지 않고 내가 기도하던 땅을 직접 밟고 싶어 아웃리치에 참가했다"는 김채수집사(성북공동체)처럼 2003년 공동체는 미전도종족과 선교지로 나섰다. 그동안 대학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단기 선교가 공동체에도 자리를 잡아 2002년에는 공동체에서 9팀 161명이 선교지로 나간 반면, 올해는 30공동체 440명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올해 공동체 아웃리치의 특징은 연합팀이 많았다는 것이다. 청년부, 대학부, JDS, 꿈땅, 영어예배 또는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선교지를 방문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역할 수 있었다. 또한 단편적 사역에 그치지 않고 한 지

역을 연합팀이 시차를 두고 방문함으로써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공동체 순원들이 각 모임에서 아웃리치 보고를 하며 선교사와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중보기도를 이끌어 선교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아웃리치 후 선교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몽기모(몽골을 위한 기도모임, 강서김포공동체),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모잠비크와 케냐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사람들이 만든 모임, 성동광진, 서대문) 등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이 생겨났다. 또한 다락방별로도 선교사를 품는 기도모임이 생겨 공동체와 선교현장이 이어졌다.

/ 전성희, 한승현, 최문경

2003 아웃리치

공동체	국가	지역	일정/기간
이촌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족	8/12-19
중종로	미얀마	인타족	7/16-20
JDS	모잠비크	마푸토	7/31-8/9
서대문	모잠비크	마푸토	8/11-18
동대문 남양주	타기	투르크족	2/1-10
노원의정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8/1-7
성북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10/28-11/4
서빙고	인도네시아	람봉족	8/12-19
동작A	일본	우에다	6/20-6/22
동작B	중국	천진/연길	8/15-19
관악금천	캄보디아	프놈펜	8/20-24
일산	방글라데시	다카	7/30-8/6
고양은평	베트남	하노이	7/29-8/4
마포	중국	위구르족	8/4-8/9
양천	이스라엘	예루살렘	8/12-20
강서김포	몽골	브리아트족	8/12-18
강남A	일본	동경/오교하마	8/15-17
강남B	국내	삼시도	7/24-26
강남C	이프가니스탄	카불	8/10-8/18
서초A	국내	봉화,영주	8/13-15
서초B	스리랑카	콜롬보	7/16-21
서초C	타기	앙카라/이스탄불	8/11-18
강동송파	국내	진천(양백교회)	7/26-27
성남분당	중국	하나족	7/19-7/26
안양안산	방글라데시	다카	8/11-17
과천의왕	아제르바이젠	아제리족(바쿠)	8/9-18
가정사역	일본	오사카	6/20-22
가정사역	미국	시애틀	7/23-30

))연합			
성동광진+영어예배	모잠비크	마푸토	7/24-8/2
수원선교+꿈땅	모잠비크	마푸토	8/11-18
서대문	모잠비크	마푸토	8/11-18
여의도+영동포구로	몽골	울란바토르	7/21-25
+청년			
광명인천	이리크	임만	7/21-8/1
+센타+청년부	일본	오사카	7/24-27
한강+용산	일본	오사카	7/24-27

인터뷰 / 박

은

* 2003년은
을 말씀해주는
2003년 온
이 빠르면 1년
이 2003년 9월
겸비한 순장을
순화하고, 라
입니다.

* 그의 자
병원 장례
깊이 묵상하
한 달에 한 번
다락방 기도
고 공동체가
의 열정과 순

* 내년 더
ACTS29는
라크, 아프간,
락방 기도회를
공동체를
이 건강한 비
하고 회복해
내년에도
다. 온누리교

사랑 어우러진 공동체로 서다



종길 목사

우리 공동체 ACTS 29 비전 품고 발돋움

은 1만 순장 프로그램이 첫 선을 보인 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의미와 변화내용
]시오.

우리공동체는 1만순장을 세운 한 해였습니다. 순장이 되려면 최소 2년 걸리던 과정
안에 순장을 세우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9월 기준으로 653명이던 순장
현재 9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영적 리더십과 온누리 비전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 연말부터 체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새신자 등록은 단
겨십 과정은 빨리 세우기보다는 한번 더 확인하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

1. 왜 온누리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역자와 전담교역자를 두어 공동체를 돌보게했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나누는 천만큐티운동은 순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전을 품게 도왔습니다.
다락방장을 중심으로 모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하고 선교정보를 나누는
회도 열렸습니다. 특히 아웃리치의 열매가 있었는데, 대학청년은 실제 사역을 하
기도와 재정을 후원하는 연합팀을 구성한 것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발들의 사랑이 어우러진 멋진 한 해였습니다.

2. 장성한 온누리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비전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와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운다는 도전과 비전으로 이
중국, 일본 비전교회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다
1. 계속 진행해 공동체가 선교지를 품고 비전을 더욱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2. 가벼 치유와 회복사역이 시작됩니다. 가장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순
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사역본부를 중심으로 먼저 공동체 내의 상처를 치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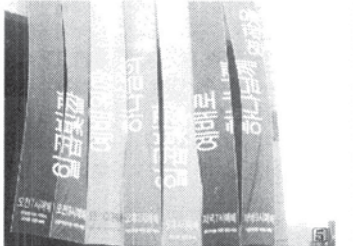
3. 목회자가 가정을 방문해 순식구와 가정을 축복하고 영적 친밀감을 이어갈 것입니
4. 회가 하나되기 위해 순종과 헌신을 재다짐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사진으로 보는 2003 온누리행진 I (1~3월)



1.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의 첫 걸음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로 힘찬 발걸
음을 내딛은 온누리교회는 리더십을 훈련하고,
1만명의 순장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1월 3일~5일 대청 리더십이, 1월 6일~2월
22일 온누리소속 모든 교역자와 일본 교회 리
더십 등 1백여 명이 거룩한 리더십을 위한 새
로운 비전을 꿈꿨다.(사진 1)
1월 5일 통합 1주차 과정을 시작하면서 1만순
장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사진 2)
2월 22일에는 양재 사랑성전에서 온누리 리더
십이 한 자리에 모였고, 3월 9일 1만명의 순
장을 세우기 위한 순장사관학교와 첫 비전수
련회가 문을 열었다.(사진 3)



2. 성령님이 충추시는 예배 늘어

1월 5일 국제영어예배가 서빙고 본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사진 4)
3월 2일 양재온누리교회가 주일 7부 예배를,
부천은 주일 5부 예배를 시작했다.(사진 5)
3월 3일~5일 일주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마
치고 치유, 능력, 헌신이란 주제로 하용조 목
사가 성령집회를 인도했다. 집회에 참석한 1만
5천여 명은 나라, 민족, 가정,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사진 6)



3. 복음과 은혜 나누는 온누리

1월 19일 2003년 첫 온누리 선교사 13명을
파송했다. 2003년 해외선교현금에는 1만76명
의 성도가 참여해 36억5천5백만원을 작성했
다.(사진 7)
2월 26일 온누리 청년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을 방문, 사고로 숨진 유가족을 위로했
다.(사진 8)
3월 12일~14일 대학청년들은 태풍 '루사'
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삼척 지역을 방문, 영적 회
복을 위한 성령집회를 열었다.
3월 17일~19일 4455 여성을 위한 전도집회
'클라이맥스'에 2천7백10명이 참석, 7백19명
이 복음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사진 9)

*

 **2000선교**

☞ Turning Point (단기선교사 훈련모집)
 2004년 1월 12일~2월 6일
 훈련장소: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자격: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선교 현장에서 단기 선교사로 (2년 정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훈련내용: 단기선교사의 역할, 개인영성 훈련, 대인관계,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선교신학, 선교사의 문화적응과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담당: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whymissions@empal.com)

☞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29 바그다드 (Baghdad)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문의: 이홍우 (011-9368-9625), 김민정 (019-383-6618)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 (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 소아시아(터키) 성탄 및 송년 기도모임
 12월 15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유주석 총무(011-355-2352)

☞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12월 8일 오후 7:30 서빙고 아론 기도실
 문의: 김지은 (019-269-0921)

TIMA 과정 모집
 2004년 1월 개강
 내용: 선교언어 스쿨 (영어, 중국어) 선교기능 스쿨 (전자침 과정, 발마사지 과정)
 담당: 최진혁 간사 (794-1063-5)

지원자 모집
 몽골-MK교사, 한국어교사, 컴퓨터 교사 각 1명
 문의: 박인영간사 (794-1063-5)

☞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 아웃리치 케냐 아웃리치
 꿈땅/정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기간: 12월 24일~2004년 1월 4일
 물품후원: 여름 헌옷, 장난감, 인형, 의약품
 대상: 청년, (의사, 간호사)도움을 주실분 누구나
 문의: 이명열 (011-202-5386) 정영원 (011-1707-6299)

☞ 2003 겨울 캄보디아 아웃리치
 2004년 1월 21일~25일
 사역내용: 의료구호, 영어교육, 머리감기기, 울동지도 물품후원: 의약품, 화장품, 여름옷, 영어동화책 등
 대상: 의사, 간호사, 약사, 미용사, 선교에 뜨거운 마음이 있는 성도 누구나 참여가능
 연락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c21@yahoo.co.kr)

☞ 에젤인의 밤
 2003년 한 해 동안 에젤에 역사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방 가족 모두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에젤인의 밤)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에젤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3년 12월 15일(월) 오후 6: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진희 (016-357-1172)


☞ 온누리미션 성탄연합행사
 12월 25일(목) 오후 3:00~7:00 서빙고 경찬홀
 프로그램: 성탄예배, 각 예배 발표회, 셀레브레이션, 식사
 자원봉사모집: 식당, 안내 등
 모임: 오후 1:00 서빙고 경찬홀 온누리미션 사무실
 문의: 이경희 간사(790-6052/017-316-9787)

중국어예배 찬양팀 드림 연주자 모집
 예배시간: 주일 오후 1:15 서빙고 두란노홀
 문의: 차명선 간사 (793-9686 교 707)

☞ 일본어예배 어린이 예배 초등부 교사 모집
 예배시간: 매주 토요일 1:30~5:0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모집 부문: 피아노 반주자 (일어 관계 무) 초등부 교사 (일어 가능한 분)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702) 오가사오리 (011-1702-4511)

☞ 크리스마스전도 집회를 위한 중보기도자 모집
 12월 13일(토) 일본어예배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 (전도 집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일본인들이 200명 이상 참석합니다.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당일 함께 중보할 기도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12월 13일(토) 오후 5:00~9:00 서빙고 경찬홀 탁아방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702) 이영려 자매 (018-225-4182)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 탁아 봉사자 모집
 12월 13일(토)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에 미신자들의 아동을 위한 탁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전도를 위한 귀한 기회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본어를 못하시는 분들도 대환영입니다.
 12월 13일(토) 오후 6:00~8:30 본당 2층 유아실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702) 박초성 집사 (016-9227-5165)

 **후원**

☞ 노트북, 컴퓨터 헌물받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한 노트북과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위한 컴퓨터(아주 오래된 컴퓨터는 고장이 잦아 사 않습니다)를 헌물받습니다.
 문의: 황호상 간사 (017-290-7856), 김연희 간사 (019-367-9727), 사무실 (02-790-6052)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하나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캄보디아 아웃리치 모임
 매주 3부 예배(11:30)후 본당에서 모임입니다.
 문의: 오재성 목사 (042-825-3642)

01

헌 안경 모읍니다

우즈벡 카라칼팍족에게 전달



2천 선교팀은 우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에게 전달할 안경을 모집한다. 우즈베키스탄 복음화를 위해 세운 열방친선병원이 '우즈베키스탄에는 안경이 부족해 시력이 나빠도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 쓰지 않는 헌 안경을 가지고와 주길 부탁했기 때문이다. 안경은 1월 11일까지 서빙고 2천선교사무실, 양재 은누리교회와 각 비전교회 사무국으로 가져오면 된다.

• 문의: 신원석 간사
(793-9686 교 216)

02

중국어예배 세례

중국인 5명이 오늘(14일) 오후 1시 중국어예배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다. 세례자 중 3명은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 설날 '재한 중국인을 위한 성령축제'에 참여한 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이르렀다. 황종연 목사가 세례를 집도한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3

With 2003 선교의 밤

19일 오후 9시 두란노홀

가까이 일본과 멀리 중동, 미국까지 뻗어나갔던 올해 선교사역을 마감하며 2천선교본부가 'With 2003 선교의 밤' 행사를 연다. 올해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온 선교본부 6개 부서와 각 선교기도모임, 선교위원 등이 참석하는 이 행사는 12월 19일(금) 오후 7시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저녁식사 후 2003년 주요 사역을 정리하고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가 말씀을 전한다. 또한 양지센터, UN House, 로템의 집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UN House 봉사자, 찬양사역 봉사자 등 섬김봉사자에게도 감사카드를 전달한다.

• 문의: 신원석 간사
(793-9686 교 216)
/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선교준비 프로그램 '티마'

선교지에서 필요한 기능과 언어를 한 자리에서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선교지에서 필요한 기능과 언어를 훈련하는 선교준비 프로그램 티마(T.I.M.A: Tyrannus International Ministry Academy)를 내년 1월 6일 개강한다. 선교기능스쿨(MSS- Mission Skill School)에서는 선교지에서 깊이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침과 발마사지를, 선교언어스쿨(MLS Mission Language School)에서는 중국어와 영어과목을 개설했다. 앞으로 선교지망 후보생과 단기선교로 나가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용 과정, 사진, 데코레이션과 선교 일어, 러시아어, 위구루어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각 과목은 전화로 등록한 후 입학금하면 되고 개강 3일 전까지 등록하면 1만원 할인 혜택도 있다. 선교단체 간사와 신학생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선교기능

-전자침 과정
2004년 1월 6일~2월 24일
(매주 화), 양재 은누리교회

-발마사지 과정
2004년 1월 8일~3월 4일
(매주 목), 서빙고 은누리교회
◇강사/ 엄현정 교수 (한국전원치유신학원 교수)
◇회비/ 7만원 (재료비 별도)

◆ 선교언어

-중국어
2004년 1월 13일~3월 23일
(매주 화, 목)
◇강사/ 하호종 교수 (크리스천 중국어 저자)
-영어
2004년 1월 28일~4월 7일
(매주 수, 금), 두란노해외선교회
◇강사/ 김유나 강사 (EBS 영어 강사)
◇회비/ 12만원
◇장소/ 두란노해외선교회 (서빙고동)
• 시간/ 오후 7:30~9:30
• 입금/ 하나은행573-910001-52505 (예금주: (사) 동서문화개발교류회)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02-794-1063~5)
/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온누리미션 성탄절 축제

네팔, 러시아, 몽골... 7개 부서 연합 행사

성탄의 기쁨을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나누기 위해 온누리미션이 12월 25일(목) 오후 3시 서빙고 경천홀에서 성탄절 축제를 연다. 온누리미션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이란, 파키스탄, 인도 7개 예배부서가 연합으로 드리는 이 행사는 연합예배, 각 예배 발표회,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한다.

박종길 목사가 설교하고 박에스더 자매와 러시아클래식 기타팀이 찬조출연한다. 온누리미션은 "이 땅에서 갈 곳 없는 이방인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 그들을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온누리성도

가 외로운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예금주: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 문의: 02)790-6052
 김연화간사(019-367-9727)
 www.onnurimission.com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에젤인의 밤

에젤선교회는 한 해 동안 에젤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에젤인의 밤' 을 오는 15일(월) 오후 6시30분 서빙고 한동홀에서 연다.

03

부천 외국인근로자, 쿠르드족, 선교사 기도모임 시작

지난 9월 14일에 시작한 부천온누리 외국인 근로자 예배에서 '외국인근로자, 쿠르드족,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 을 시작했다. 지난 주일(7일)부터 시작한 이 기도모임은 매주일 오후 1시에 4층 비전홀에서 열린다. 외국인 근로자 예배를 진행하는 백정석 집사를 중심으로 모이는 이 기도는 매달 첫 주 기도와 동역자

간담회, 나머지 주는 부평역, 송내역, 부천역, 공단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전도한다. 지난 첫 기도모임에 참석한 유영준 집사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기도모임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앞으로 기도모임을 소망했다.
 • 문의 : 백정석 집사 (011-446-7490) /한승현 ruby@onnuri.or.kr



‘주님의 군사로 나아갑시다’

온누리교회 2천1만 비전을 품고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전파에 앞장설 선교헌신자를 배출하는 장기선교사 훈련학교 OSOM(Onnuri School of Missions)와 와이미션(Why Missions?)이 졸업식을 연다. 12월 20일(토) 오후 4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명홀에서 OSOM 3기 20명과 와이미션 4기 40명이 수료한다.

장기선교사 훈련학교 수료생은 지난 8월 4일부터 다섯달간 합숙하며 선교훈련을 받았다. 독거노인막 도배, 한남동 복지관에서 미용, 주방일 등으로 섬기며 ‘종의 리더십’을 몸으로 경험하고 선교신학, 선교전략, 타문화권 적응, 교회 개척 등 선교 전반의 이론과 실제를 배웠다. 와이미션은 지난 9월 27일 시작해 12주간 교육 받았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김신영 (동북아 A국)

1. T.M. 교회 허입과정을 위해서
2. 기도와 재정의 동역자들을 잘 세워주소서
3. 나갈 시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박기범, 최현희 (이스라엘)

1. 이스라엘을 품고 있습니다. 파송받기까지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박기범/ 국내에 있는 동안 B.E.E 사역, 예수행진 이스라엘 2004 그밖에 중동사역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동역자들 붙여주세요.

-최현희/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닦이고 준비되도록



박수선나 (동북아시아 A국)

1. G성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시작할 사역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소시도록
2.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도록

3.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박은혜 (동북아시아 A국)

1. 동북아 A국 H족 영혼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2. 현지 적응을 잘하고 현지 선교사들과 한마음을 이루도록



박자용 (아프가니스탄)

1. 1년간 한국에 남게 되는데 더욱 충성스럽고 안정된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결혼과 어머니의 구원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2. 충성된 선교후원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서문유상

1. 1년 정도 준비하는 동안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를 풍성히 만날 수 있기를
2. 선교 사역지와 선교전략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소서
3. 영적으로 말씀으로 준비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송미경 (중동 E국)

1. 온누리교회와 예수전도단 파송을 준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2.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3. 기도, 재정 후원자들이 세워지도록



유성혜 (몽골)

1. 한국에 있는 동안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대학원 진학, 선교정당 훈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실히 준비하도록

2. 국내에서 주신 사역(온누리미션 - 몽골어예배)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3. 몽골과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주신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가도록



윤경애 (미얀마 만달레이)

1. 미얀마 소망공동체 사역을 위해
2. 새로 입소한 20가정의 정착을 위해서
3. 변함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교자 (몽골)

1. 몽골 브리아트족, 라마불교와 사머니즘에 매어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2. 언어습득과 문화에 잘 적응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이도현, 오은주, 이샘 (일본)

1. 선교지로 나가기까지 선교단체 허입과정을 위해서
2.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3. 파송교회(수원 초대중앙교회), 후원교회, 후원자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기를

4. 일본과 일본 영혼들을 위해서



이시내 (선교센터 사역 예정)

1. 가족이 모두 늘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행안 가운데 머물기를
2. 선교센터 스태프로 섬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사역을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
3.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아비가일처럼 살아가도록



이준희 (중동 E국)

1.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2. 준비안 종족이 복음화 되고 이들을 통해서 주변 중동국인들이 복음화 되도록

3. 선교준비와 내년 3월 결혼준비(송미경 자매와)를 위해서



이형년 (동북아시아 A국)

1. 훈련이후 더 구체적인 훈련계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2. 하나님이 예비해두신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도록
3. 하니족 중보기도 모임에 더 큰 부흥과 더 구체적인 사역이 있도록



표명환, 송지선 (선교센터 사역예정)

1.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적용하도록
2. 두 분 누님의 신앙이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3. 오른쪽 어깨 통증이 깨끗이 치료되도록



허도순, 마리아 (동북아 A국)

1.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가족에게 부어주세요.
2. 세 자녀(현민 중3, 은석 중2, 진석 초동1)가 주님 안에서 큰 비전을 품게 하소서

3. 현지 동역자들과 중보기도자 등, 후원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2003년을 돌아보며
2004년을 내다보며' II 대학청년**

◎2003년은 온누리 대학부와 청년부가 통합된 한 해였던 만큼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2003년 대학청년이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2003년 온누리 대학청년은 온누리 Crusader로 단합해 총체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삼척지역에서 집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그 지역을 중보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로 사역하여 타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온누리 대학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영성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머무는 대학청년이 아니라 도심으로 직접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리우

드 극장과 페아프르 추 해피스찬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리로 나아가 주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학청년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견선교사가 되어 온누리로 퍼져 나아갔습니다.



박종열 목사

**“대학청년은
온누리 십자군전사입니다”**

◎온누리 Crusader로 거듭난 온누리 대학청년이 2004년에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2004년 대학청년의 가장 큰 목표는

“전도가 삶이 되는 대학청년”입니다. 2003년에 해온 사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해 열방에 온누리의 영성과 비전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공동체와 요한공동체가 종로와 신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어 다윗공동체는 청담교회와 연합해 청담동 일대의 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는 도심 속의 교회와 연계해 복음을 전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 요셉공동체가 초소교회의 형태로 운영할 청년리더십센터를 도심에

세울 계획입니다. 청년리더십센터, 교육문화리더십센터, 차세대리더십센터 3곳을 서울 예정입니다. 리더십센터는 선교적 전략을 품고 창업을 꿈꾸는 대학청년들을 위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 중고차 사업을 기점으로 선교를 시작하고 중앙아시아에 라면, 우동집을 세워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을 지닌 리더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꾸준히 이끌어 주려고 합니다. 두 차례의 전도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맞춤형 전도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온누리 영성과 비전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릴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온누리
대학청년들의 힘찬 발걸음”**

연합된 힘으로 건강한 세상 만들기

온누리 대학청년은 교회의 2천/1만 비전에 사역을 통일, 집중하는 동시에 각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다양성을 추구하는 2003년을 보냈다.

우선,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대학부와 청년부를 통합하고 사역을 확대했다. 그동안 소그룹차원에서 하던 사역들을 한데 모아 온누리 대학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데 힘썼다. 갈렙 공동체와 느헤미야 공동체가 3월 8일과 3월 9일에 신설돼 더 큰 기동력으로 각 사역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새롭게 재정비한 온누리 대학청년의 영성과 능력은 지난 3월, 태풍 '루사'로 수해를 입은 삼척을 다시 찾아가 '영적구호'라는 비전으로 삼척중앙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다. 단발적인 도움이 아닌 온누리만의 지속적인 교류와 대학청년의 연합된 힘으로 삼척을 돕고 영적인 구호도 했다.

9월에도 삼척 고사리 지역에서 총 1백여 명의 온누리 대학청년들이 수해 복구를 도왔으며 삼천포, 사천, 진주 지역 여름 아웃리치에서도 집회를 열어 그 지역 교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새로운 영성으로 연합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문경에서도 점촌시민교회를 중심으로 미자립교회 13여개 교회를 섬겨 아웃리치만을 위한 섬김에서 벗어나 아웃리치 이후에도 꾸준히 그 지역과 교회를 위해 중보했다.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일이었던 10월 3일에는 양재 사랑성전에서 'SHOUT' 2003 컨퍼런스를 열었다. 대학청년은 그동안 이루온 2천/1만 비전과 ACTS 29비전을 세워 나가는 십자군 전사가 될 것을 선포하여 재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심속 기도처 확산

온누리 대학청년들은 각 지역에서 단결된 힘으로 기도했다. 지난 6월에는 이 땅과 열방이 주님 앞에 거룩하

고 깨끗하게 변해갈 기도하며 5백여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새벽 6시부터 모여 기도도 영적 무장을 한 성도들은 광화문과 주위 지역으로 퍼져 건물과 도로 구석구석을 다니며 기도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고, 종로를 비롯한 인근 지역 거리를 청소하며 전경들과 시민들을 사랑으로 섬겼다. 온누리 대학청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확인시켜 준 집회였다.

지난 4월, 도심으로 들어간 바울공동체는 허리우드 극장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그에 앞서 아침마다 종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도심의 새 비전을 위한 'Jesus King 기도회'를 드려왔던 바울공동체는 주말마다 허리우드 극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도심을 위해 중보하고 있다.

바울공동체를 시작으로 요한 공동체도 지난 10월 14일부터 화요일 저녁 7시, 홍대 앞 소극장 카페 페아프르 추 해피스찬(HAPPYSTIAN-Christian Culture Space) 2층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린다. 요한 공동체는 세상의 즐거움을 좇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다.

2004년에는 다윗공동체도 청담교회와 연계하여 청담동을 비롯한 강남일대에서 주님을 증거할 예정이다. 도심으로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온누리 대학청년의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학청년

온누리 대학청년은 바이블아카데미로 내적인 준비와 영성으로 기반을 다져 2천/1만 비전과 ACTS 29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바이블아카데미에서 성경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갖춘 거룩한 청년 리더십 2000여명이 양



육 받았다.

아울러 견선교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선교에 비전이 있는 청년들을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온누리 선교베이스에 파송하여 현장 사역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현지어어훈련, 문화적응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청년 연합 젊은이 21명이 졸업했다.

온누리 대학청년은 국내 93개 팀, 해외 32개 팀 등 1백25개 팀, 2천3백96명의 젊은이들이 여름 아웃리치를 떠났다. 여호수아 문화선교부팀이 월성교회, 모래교회, 가회교회 등 개척교회 지원했고 다윗 공동체는 외국인 셀터를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한편 온누리 대학청년은 북한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있다. 오는 4월에 북한선교교회가 개강해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북한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민간인 통제구역인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700m 떨어진 남쪽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 한 뜻깊은 북한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다.

/ 한승헌 ruby@onnuri.or.kr

‘2003년을 돌아보며
2004년을 내다보며’ Ⅲ 2천선교



“사도행전 교회의 2천 선교지 교회를 기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는 'ACTS 29' 비전이 선포 되었다. 이에 따라 2천 선교사 파송의 2천 비전이 선교지에 2천 교회를 세운다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됐다.

2천 선교사, 2천 선교지 교회

1월 19일 온누리세계선교사 훈련학교 수료생 13명 파송을 시작으로 올 한해 선교사 59명이 세계 각지로 나갔다. 현재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는 52개국에 519명이며 온누리교회가 직간접으로 후원하는 선교지 교회는 (9월 26일 현재) 20국 77지역 120교회다. 온누리출신 선교사가 세운 교회는 74, 협력 후원교회는 46이다. 특히 아프리카나 NGO활동과 이라크 교회개혁으로 굳게 닫혀있던 모슬렘에 복음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올해 1월 15일 사단법인 동서개발교류회(이하 EOC)를 아프간 현지 NGO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아비스나 병원에 담요와 난방기구 지원, 카불 대학에 도서와 컴퓨터 지원에 이어 5월 20일 아프간 문화센터에 컴퓨터와 미술용품 기증했다. 이 기증식에는 아프간 문화정보부 차관과 문화센터 관계자 등 1명 명이 참여했다. 또한 EOC 숙소 내부에 예배실을 마련하고 한국인예배를 드리고 있다.

EOC는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뉴하트바이오와 협력해 아프간 심장병어린이돕기계획(BCC Save Hearts Project)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올 9월 디다(여 5세)와 모다사르(남 5세)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11월 건강한 모습으로 아프간에 돌아갔다. EOC는 황폐한 아프간에 NGO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라크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지난 7월말 이라크 아웃리치를 계기로 진행된 이라크 교회개혁은 김사무엘 목사와 노규석 전도사, 단기선교사 6명 총 8명이 개척팀을 이뤄 이라크 바그다드에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를 세웠다.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는 이라크 장로교회에서 약 40명이 참석해 10월 10일 첫예배를 드렸다.

이 외 단동교회가 중국 정부에서 외국인교회로는 최초로 정식 교회 허가를 받았고 일본에서는 '홍 스위트 홈'이라는 주제로 일본 가정회복과 사회, 교회 회복을 기도하는 제 2회 일본온누리축제가 10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도요하시에서 열렸다.

또한 2천선교본부는 온누리교회가 18년간 세계에 복음을 전해온 선교행적을 돌아보고 선교사의 삶을 조명하는 선교잡지 '흙씨'를 출간했다.

온누리 성도 모두 2천 비전을 품고

'모든 성도가 선교동역자가 되자'는 비전으로 2천선교회는 올 한해를 시작했다. 3월 7일 서빙고 여성사역자

70명이 무릎선교사로서 입양종족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고 각 공동체 선교위원들이 선교사와 선교지 정보, 교회 선교정책을 공동체에 알려 공동체가 끊임없이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었다.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 이날 선물보내기, 선교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보내기 행사에 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또한 120개 다락방을 중심으로 'ACTS 29 중보기도모임'이 형성되어 선교사를 위한 중보에 힘썼다. 이런 공유된 선교비전의 기반 위에 2003년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선교지에 열매를 맺는 아웃리치'를 목표로 2천 비전에 따라 입양종족과 섬김선교지 중심으로 꿈이자라는 땅에서 성인공동체까지 28국 49지역으로 96팀 1418명이 아웃리치를 나갔다.

아웃리치 후 선교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공동체가 늘어났다. 다녀온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를 결성한 공동체도 있고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게시판에 기도제목이나 안부를 올리며 선교사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도 한다.

아웃리치 후 2천선교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기 위해 온누리 중보기도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10월 21일 중보기도팀 연합모임을 했다. 온누리교회 내 중보기도팀들이 참석한 이날 'ACTS 29 바그다드 중보기도모임',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등 아웃리치 후 새로 결성한 중보기도팀이 함께해 아웃리치에서 받은 선교의 열정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내의 외국인 제자로 만들기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해 선교하는 방법대신 우리 나라를 찾아온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방법을 택한 부서들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영성을 국제어인 영어로 전 세계와 나누자는 비전으로 시작한 국제화예배는 1월 5일 오후 4시 중국어예배, 일본어예배, 온누리미션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비전교회가 생기자 9월 14일 부천 온누리비전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예배를 시작했고 9월 21일에는 수원예배가 창립했다. 온누리미션은 4월 인도어예배를 신설했고 8월 24일 안산에 러시아예배를 창립했다.

큐티와 일대일, TEE 등으로 제자양육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교회를 세우는 열매도 맺었다. 온누리미션은 지난 11월 16일 네팔 N.C.G.F 교회 건축부지 기금 마련 바자회를 열었다. 네팔 N.C.G.F 교회는 온누리미션에서 파송한 비르 형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네팔

사역
운
이
양

공동체별 미전도종

공동체	성김선교사
강서김포	홍골 브리야미
일산	계나 스와힐
관악	일본 요코하
신원광천	이라크
성북	우즈베키스탄
서대문	모잠비크
용산	C국 A시
한강	일본 오사카
광명인천	타키 쿠르드
성동광진	C국 B시
동대문 중앙	타키 투르크
남양주	일본 동경/시
고양은평	C국 E시
동작A	중국 허난족
서빙고	인도네시아
강촌	러시아 모스
마포	중국 위구르
이촌	우즈베키스탄

2004 2천선교

2004년은 2천 교회 개척을 목표로 구체적 선교정책과 전략을 몰두하려 합니다. 첫째, 선교정책과 운영을 매트릭스 시스템으로 해 어느 한 쪽이 막혀도 다른 곳에서 사역을 펼치려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합니다.

둘째, 전 교회가 2천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려 합니다. 온누리 31개 공동체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아웃리치 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책임지고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 합니다. 국내 비전교회에도 온누리 교회처럼 책임 있는 사역을 펼치려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아랍권에 뻗어나가려 합니다. 시리아, 쿠웨이트, 레반, 터키 등 아랍권 일대

를 복음화 할 것입니다. 넷째, 해외에 파병된 한국 장병들과 동역할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장병들에게 영성훈련을 지원하고 그들이 가진 기술과 기능을 사역 현장

에 활용 할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내년 주와 둘째 주에 선교헌금을 작게 데 액수 보다는 성도 여러분이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창욱 전도사

“2천선교의 힘, 우리 모두입니다”

에서 협조 받는 동역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선교사역을 하려면 첫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지 자료를 책자로 만들어 가정에 배포하고 ACTS 29중

력이 필요합니다. 대학 청년 연인 밀하게 협조해 견습선교사 제5 성화할 것입니다. 짧은 인력에서 시절 선교를 경험하고 선교사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

열정으로 비척한다”

회에서 배척받는 네팔 크리스천을 위해 카트만두에 세 가정교회다. 온누리미션은 이처럼 훈련받은 제자들 고국에 돌아가 교회를 세우도록 양육하고 이들이 신 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족 입양현황

1	광동체	섬김선교지역
1족	동작B	C국 D시
2족	중종로	미얀마 인타족
3/아찌오/후꾸오카	양천	이스라엘
	양천B	내몽고
4/우즈베크족	여의도	몽골
	노원의정부	인도네시아
	영동모구로	멕시코 미혜족
	강남A	말레이시아 이반족
5	강남B	C국 C시
	강남C	아프가니스탄
6	서초A	스리랑카 베타족
	서초B	스리랑카
	서초C	브라질 (2SM)
7	강동송파	인도
8/중족	성남분당	멕시코 타리후라족
9/바	수원용인	네팔
	안양안산	방글라데시
10	과천의왕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다. 돌
월 첫
하는
많이
짜인

짜, 잘 준비된 선교단체와 네트워크를
해 선교자료실과 선교지역 연구실을
만들려 합니다. 다섯째, 온누리 미션
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제자훈련
해 본국에 보내고 계속해 돌보고 관리
하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국내는
셀터를 중심으로 한 셀터 교회에서 외
국인사역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 온
누리세계선교센터와 선교지가 긴밀
히 협력해 피드백을 통한 일원화를 만
들 것입니다. 선교지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도 지을 것입
니다. 이렇게 모든 부서가 비전 2000
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 가진 역량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과 긴
를 활
젊은
연결
다. 빛

사진으로 보는 2003 온누리행전 II (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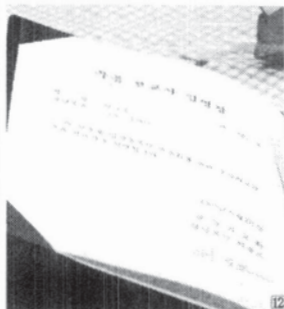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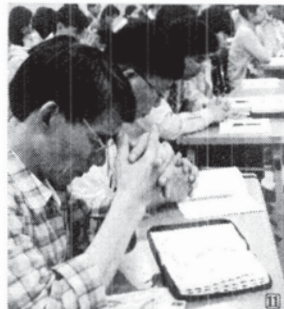
ACTS 29 비전 선포

3월 30일 온누리에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촉구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ACTS 29' 비전이 선포되었다. 설명회, 헌신예배에 이어 4월 27일에는 7천4백84명이 ACTS 29 헌금으로 1백33억원을 작성했다. (사진 1)
1999년 세워진 중국 단둥 한인교회는 2002년 12월 중국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았다. 4월 6일 창립기념예배에서 단동한인교회는 'ACTS 29'를 이루는 비전교회가 되었다. (사진 2)
동경온누리비전교회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03년 6월 11일 일본 요코하마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렸다. 일본에 세워진 여섯 번째 온누리교회였다. (사진 3)
수원온누리교회는 6월 29일 첫 모임을 했다. 수원온누리교회는 7월부터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5월 3일 양재 사랑성전에서는 'ACTS 29'의 일꾼이 될 온누리 리더 743명이 임직을 받았다. (사진 4)



하나님의 가정 꽃 피운 온누리


5월은 온누리 가정의 달이었다.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누리 순장을 위한 '가정사역축제'가 서빙고 본당에서 열렸다. 매일 2백80여 순장 가정은 하나님 이 청새때 계획하신 에덴동산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경험을 했다. (사진 5)
5월 4일 어린이 주일, 5월 11일 아버지 주일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겼 다. (사진 6)
4월 5일부터 7일까지 사랑부는 어린이대공원, 전쟁기념관, 곤지암으로 아웃리 치를 다녀왔다. 특히 4월 6일에는 청년정신지체장애우 공동체 '예수 사랑부'가 창립예배를 드렸다. (사진 7)



복음증거와 기도에 힘쓰는 온누리

5월 11일 청년 여호수아공동체 군부대 방문,
6월 13일 농어촌선교팀 서리교회 아웃리치,
6월 14일 온누리 세사랑 선교팀 여주 교소도 를 방문. (사진 8)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55~66세 어머니를 위한 전도집회 '해바라기'가 열렸다. 해바라 기에는 2천7백여 명이 참석해 8백여 명이 예 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했다. (사진 9)
'천만큐티운동본부'는 6월 21일 발대식을 하 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각오를 다 졌다. (사진 10)
6월 20일 여성사역자 70여 명은 '무릎선교 사'로 헌신했고, 온누리공동체는 6월 24일부 터 '아웃리치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12)

*

 **2000선교**

Turning Point (단기선교사 훈련모임)
 2004년 1월 12일~2월 6일
 훈련장소: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자격: 온누리교회 교인 중 선교 현장에서 단기 선교사로 (2년 정도)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
 훈련내용: 단기선교사의 역할, 개인영성 훈련, 대인관계,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선교신학, 선교사의 문화적응과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등
 담당: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whymissions@empal.com)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 29 바그다드(Baghdad)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문의: 이흥우 (011-9658-9625), 김민정 (019-383-6618)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벤델빌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 (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숙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소아시아(터키) 성탄 및 송년 기도모임
 12월 15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유주석 총무(011-355-2352)

남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 (SAM)
 12월 22일 (월) 오후 7:30 양재 숙소동
 말씀: 민성기 선교사
 문의: 윤정현 (018-225-9018)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일 둘째, 넷째, 일요일 오후 7:30
 서빙고 아론 기도실
 문의: 김지은 (019-269-0921)

TIMA 과정 모임
 2004년 1월 개강
 내용: 선교언어 스쿨 (영어, 중국어) 선교기능 스쿨 (전자침 과정, 발마사지 과정)
 담당: 최진혁 간사 (794-1063-5)

지원자 모임
 몽골-MK교사, 한국어교사, 컴퓨터 교사 각 1명
 문의: 박인영간사 (794-1063-5)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아웃리치 케냐 아웃리치
 꿈땅/청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기간: 12월 24일~2004년 1월 4일
 물품후원: 여름 현 옷, 장난감, 인형, 의약품
 대상: 도움을 주실분 누구나(청년, 의사, 간호사)
 문의: 이명열 (011-202-5386)
 정영원 (011-1707-6299)

2003 겨울 캄보디아 아웃리치
 2004년 1월 21일~25일
 사역내용: 의료/미용선교,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워십교육
 팀원모집: 의사(특히 치료과), 간호사(치위생사), 미

인터캠 - 2004선교캠프
 2003년 12월 31일(수)~2004년 1월 3일(토)
 호서대 아산캠퍼스
 www.missioncamp.net

예절인의 밤
 2003년 한 해 동안 예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방 가족 모두의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예절인의 밤)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예절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3년 12월 15일(월) 오후 6:30 서빙고 한동출
 문의: 이진희 (016-357-1172)

온누리미션 성탄연합행사
 12월 25일(목) 오후 3:00~7:00 서빙고 경찬출 프로그램: 성탄예배, 각 예배 발표회, 셀레브레이션, 식사
 자원봉사모집: 식당, 안내 등
 모임: 오후 1:00 서빙고 경찬출 온누리미션 사무실
 문의: 이경희 간사(790-6052/017-316-9787)

중국어예배 찬양팀 드림 연주자 모집
 예배시간: 주일 오후 1:15 서빙고 두란노출
 문의: 차명선 간사 (793-9686 교 707)

일본어예배 어린이 예배 초등부 교사 모집
 예배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30~5:0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모집 부문: 피아노 반주자 (일어 관계 무) 초등부 교사 (일어 가능한 분)
 문의: 황혜경 간사 (793-9686 교702)
 오카 사오리 (011-1702-4511)

노트북, 컴퓨터 헌물받습니다
 선교사역을 위한 노트북과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위한 컴퓨터(아주 오래된 컴퓨터는 고장이 잦아 사양합니다)를 헌물받습니다.
 문의: 황호상 간사 (017-290-7856), 김연희 간사 (019-367-9727), 사무실(02-790-6052)

캄보디아 아웃리치
 일시: 12월 15일~20일

*

일본어예배

크리스마스 전도파티



깜깜한 어둠 속 성가대가 은은히 부르는 캐럴이 일본어예배 '크리스마스 전도파티'의 막을 열었다. 이어 프치파프스 어린이들이

머리에는 반짝이는 링과 별을, 등에는 날개를 단 천사가 되어 노래를 불렀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 세 숲을 헤매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하는 과정을 그린 파프스 어린이들의 뮤지컬 '세 개의 숲'이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그렸다.

뮤지컬에 출연한 사사키 나오토

는 "연습할 때 지겨운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라며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같이 예수님께 기도하며 기쁘게 보내세요"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전도파티는 파프스와 프치 파프스 어린이들과 학부모, 한글강좌 학생, 이촌동 주변 일본인 등 약 2백 50명을 초대한 가운데 13일(토) 경천홀에서 열렸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의료선교인의 밤

지난 14일(주일) 오후 6시30분 서빙고 경천홀에서 '의료선교의 밤'이 있었다. 2003년 사역을 돌아보고 내년도 사역에 헌신할 의료 동역자를 모집하기 위한 이번 '의료선교의 밤'에는 의료선교사역자와 청년부 여호수아 공동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청량리 역 앞에서 노숙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신성교회의 김원일 목사는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

는 노숙자들에게 지속적인 치료로 힘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길 목사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마 8:1~4)'는 주제로 "문둥병자를 즉시 만지신 예수님처럼 주님과 동일한 의술과 사랑을 나누길 바란다"며 헌신을 독려했다.

이어 2004년 새로 시작하는 회복사역 소개, 손정래 장로의 아프간 소식, 백혈병에서 완치된 권혜



리 자매의 간증, 안태환 팀장의 의료선교 사역 소개 등이 있었다. 이날 참석자 중 의료선교에 50명, 회복사역에 30명이 헌신하는 열매가 열렸다.

/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01

선교 감사의 밤



올 한해 선교사역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With 2003 선교감사의 밤'이 지난 19일(금) 오후 7시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이날 2천선교본부는 선교를 위해 수고한 서용은 집사, 정리숙 권사, 이세원 집사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화요찬양팀과 예배성김 봉사자들에게도 감사카드를 전달했다.

공동체 선교위원회와 선교기도모임, 선교사역자 등 참석자 150여명은 일본, 미국, 이라크, 아프간 등 2003년 동안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하신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내년도 더욱 선교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일반사역자 파송

오늘 서빙고와 양재에서 일반사역자 파송식이 있다. 서빙고 2부 예배에서는 김영금 최형식 부부가, 양재 여호수아 청년부 예배에서는 박성관, 전효선, 조영찬, 최욱, 한태희 등 5명이 파송된다.



전효선 (이라크)
현지 업무와 언어 습득을 위해 현지인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태희 (이라크)
이라크가 목음의 문을 열도록 가정이 없는 동안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박성관 (이라크)
성령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도록,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조영찬 (이라크)
이는 사람들 사이에 기도모임이 생겨 이라크 생활에 기쁨 부으심이 항상 충만하길



최욱 (이라크)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을 살도록, 현지에 잘 정착하고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김영금, 최형심 (미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할 수 있도록 암 치료 후,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심대인 아이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선생님, 친구를 만나도록 6개월에 한번 한국을 방문하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드릴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선교지에서 온 편지

“순간순간 지켜주시니 평안합니다”



12일(금) 하루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45분간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반듯이 누워서 온 몸 구석구석을 활형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수술을 위한 준비인자인 팔 뒷부분의 굵은 혈관을 열어 심장 부분과 연결하여 쉽게 투약할 수 있게 한 후 골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막내가 주일 설교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그 큰 눈에 눈물을 가득 채우며 들어와 묵묵히 기도하자 제 콧등이 시큰해지며 이제까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를 나는 육친의 사랑이 편하게 감싸았습니다.

조지타운 병실에서

오후에 담당 의사가 들어와 아홉 번째 척추 신경이 위아래로 눌리니 즉시 수술하여 이 부분을 수술하고 암 치료를 해야 한다면서 긴급 수술 받을 준비를 하도록 이르고 나갔습니다. 등 위쪽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4시간 간격으로 모르핀주사를 맞으니 훨씬 견디기 쉬웠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병실까지 전화를 주셔서 결과를 불렀고 이번 주일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이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이

기에 할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빛진 자입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 큰 아이가 일을 마치고 아틀란타에서 도착하였습니다. 역시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을 가득 담고 내 손을 잡으니 내 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자정이 지나 신경 전문의가 와서 뼈 마디마디와 무릎 관절 등을 고무 봉으로 두드리고 끝이 뾰족한 도구로 이곳 저곳 누르고 긁고 하는 신경 검사를 마친 후 지금까지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긴급으로 수술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며 기다렸던 것이 싱겁게 끝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이 기억 났습니다. 주님의 예정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순간순간을 지키시며 운영하고 계심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고 평안인지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이 내일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 드렸습니다.

마취에서 깬 순간 펼쳐진 바그다드

그리고 어제(16일) 드디어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5번 척추와 9번 척추를 중심으로 보강할 것을 보강하고 대처할 것을 대처했다고 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간 다음

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선명하고 격렬한 경험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의식세계에 다시 들어올 때, 로켓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처럼 격렬한 진동이 온 몸을 뒤흔들었고 깨어나니 바그다드가 보였습니다. 온통 바그다드였습니다. 간호원에 게 이곳이 바그다드냐고 몇 번씩이나 확인할 만큼 틀림없는 바그다드였습니다. 이 장면이 지나자 조용한 어느 교회의 사찰 집사로 매우 편안하고 차분하게 교회를 지키며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등을 목직하게 누르던, 어떤 때는 모르핀을 맞아야 할 만큼 아프던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고 오늘부터는 암 전문의의 지시를 따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주께 온전히 다 맡길 수 있어서 평안하고, 그분이 거기 계셔서 저를 지켜 보시고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니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17일 김사무엘 드림

김사무엘 목사는...
지난 10월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를 개척하는 등 그동안 중국 선교사, 일본 선교사로 선교에 헌신하고 많은 선교지 교회를 개척했다. 또한 온누리세계선교센터 원장으로 일하며 선교사 후배 양성에 힘썼다. 이라크 개척지역 중 허리에 통증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 12월 한국에 돌아와 검사를 받던 중 혈액암으로 판명됐다. 혈액 속의 암이 척추 신경을 건드렸던 것이다. 현재 김 목사는 미국 조지타운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투병하고 있다.



▲ 송지근, 이상덕 부부가 성복공동체 종강예배에서 ACTS 29 헌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송지근성도, 이상덕성도, 하영철장로, 백상욱목사)

한 해 순예배를 마감하며 성복공동체가 종강예배를 열었던 12월 12일(금) 콘서트홀, 매운탕 식당을 운영하는 송지근, 이상덕 부부(성도)가 초록색 돼지저금통을 들고 단상에 섰다. 투명하게 비치는 돼지저금통 안에 가득한 만원짜리, 천원짜리 지폐는 송지근 이상덕 부부가 식당에 찾아온 온누리 교인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 해주고 대신 그 돈을 돼지저금통에 모은 것이다. 부부는 이 돼지저금통을 ACTS 29 헌금으로 백상욱 목사에게 전달했다.

◎ ACTS 29 헌금을 하게 된 동기는?

- 신앙생활을 십 몇 년간 했지만 정식 등록은 하지 않고 교회를 이곳 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온누

돼지저금통 가득 ACTS 29 비전

리교회에 와보니 정말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오니 기쁨이 넘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생겼습니다. 많이는 못해도 자주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교회에서 ACTS 29 헌금작정을 할 때 저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작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헌금 작정을 못해 힘들어 해서 6월 말쯤 '하나님 ACTS 29헌금을 할 수 있는 물질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작정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뤄진 거죠.

◎ 저금통에 글씨 써 있는데요?

- 기도를 하고 두 달 후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희 식당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자신이 있었지만 그 외에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이 없을까 하고 3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는 것이 감사해서 저희 식당에 오시는 온누리 식구들께 10% 할인을 해드린 것이 퍼뜩 생각 났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ACTS 29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제부터는 그냥 할인해 줄 것이 아니라 할인 금액으로 성도들이 함께 ACTS 29 헌금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돼지저금통을 장만했습니다.

이것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직접 써주신 글입니다. 그냥 저금통을 내 놓는 것보다 목사님 사인이 있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목사님께 부탁드렸더니 "ACTS 29 꿈을 이루는 성복공동체 성령충만하소서"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날 하용조 목사님께서 10만 원 수표를 종자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저금통에 사인을 붙이고 온누리교인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할인 받은 10%를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에 와서 남편이 스스로 술을 끊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술 값으로 썼을 돈을 하루에 5천원씩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 헌금을 할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깝다든지...

-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솔직히 ACTS 29 헌금을 하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식사도 좋지만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오히려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쁘고, 온누리에 와서 가족이 다 행복하니 저금통이 무거워질수록 더 보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 전성희 shee@onnuri.or.kr

'2003년을 돌아보며
2004년을 내다보며'

사진으로 보는 '03 온누리행전③(7~9월)



복음 들고 열방으로 떠난 온누리

2003년 여름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온누리 성도의 열정으로 유난히 뜨거웠다. 올 여름 온누리 성도 1천4백18명은 스물 여덟개 나라에서 복음과 사랑을 나눴다. 7월, 전쟁의 상처가 있는 아프간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정탐이 시작됐다. 사단법인 동서개발교육회(ECC)는 9월 모다사르(남 5세와 디다여 5세)를 한국으로 초청해 심장병수술을 해 주었다. (사진 2, 3) 해외 아웃리치팀은 일본,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복음을 전했다. 아웃리치 후에는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

는 모임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사진 1, 4) 7월 13일 에델선교회는 이라크를 돕기 위한 바자를 개최, 이라크에 교회를 짓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7월 말 이라크 아웃리치에 이어 10월 10일 '이라크 한인 연합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다. (사진 5, 6) 대학청년은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심척을 중심으로, 문경, 음성 등 상처받은 명을 고치고 사람들을 위로했다. 선교사훈련생들은 8월 13일 도배, 미용 등으로 독거노인들을 섬겼다. (사진 7, 8) 7월 13일, 몽골어예배는 국내에 있는 몽골인을 위한 축제를 열었다. 추석에는 중국인, 네팔인, 이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했다. (사진 9)



가을의 문턱에서 만난 하나님

9월 29일, 33세~44세 여성을 대상으로 열린 전도집회 '프리모즈'에는 1천4백48명이 참석, 1천2백47명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중 146명이 세례를 받았다. (사진 10, 11) 9월 26일, 정신지체 장애우 작업장인 '예스'은 현대백화점 미아점에서 작품 전시회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나는 1백여 점의 작품은 큰 감동을 전했다. (사진 12)





선교사가 보내온

기억에 남는 성탄절



“성극 중에 내리던 눈”

조수정 선교사 (우에다 은누리그리스도교회)

우에다는 겨울에 3~4일에 한번씩 눈이 20~30cm정도 내립니다. 이전에 저는 화이트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는 로맨틱한 한국 청년중의 한명이었는데 지금은 창을 내다보며 “또 눈이냐!” 하며 투정합니다. 눈을 다 치워야 하니까요 이런 제 자신을 보고 혼자 웃기도 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교회지붕도, 주차장도, 소나무 위에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흰 눈이 내렸습니다. 성탄절에 파프스(Pappus) 어린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한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야외무대에 재현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일 때 조금씩, 조금씩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을 실재를 보는 듯 했어요. 부모님들도 모두 감격했습니다.

올해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에다 은누리교회가운데 이 눈처럼 평평 쏟아지기를 기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이들과 성탄절 추억만들기”

김선광 선교사 (멕시코)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만들려고 올해 아이들 크리스마스 방학에는 가족이 함께 인접국 과테말라의 마야문명지를 돌아볼 생각입니다. 늘 멕시코에서만 크리스마스를 보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은 별 흥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서 귀한 추억으로 남기를 원하며 떠나기로 했습니다.

10년된 차가 걸맞으면 서버려서 걱정도 되지만 고물차를 타고 차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수십시간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좋은 추억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왜 하나님님이 없는 고대문명이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사라졌는지 현장교육도 시킬 참입니다. 직업의식이 너무 발달해서 아이들 지치지 않게 해야겠지요?

은누리 성도 여러분, 좋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되세요.



“한밤중의 총성”

이승환 선교사(스리랑카, 안식년 중)

스리랑카로 떠날 때부터 화이트크리스마스는 기대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정말 멍송멍송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이브가 기억에 남는군요. 아무래도 선교지에서 처음 맞는 성탄절이라 나름대로 기분을 내고 잠을 자는데 밤 12시 즈음에 ‘탕! 탕! 탕!’ 하는 소리가 연이어서 났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전쟁 중이러는데 우리 동네에서 싸우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 아내와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알게 된 사실, 그건 총소리가 아니었고 폭죽 터트리는 소리였습니다. 집집마다 폭죽을 연달아 터트리니까 마치 총소리로 들렸던 거지요.

불교도 나라지만 성탄절엔 거리에서 카드와 산타할아버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밤12시 정각에는 폭죽을 원 없이 터트립니다. 그 후론 폭죽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곤 했습니다.



성탄 특집

11 은누리신문 2003년 12월 21일(주일) | 제468호

기쁘다
구주오셨네

merry
christmas!

“우리 성탄절
이렇게 보내요”

- 비전교회 성탄절 엿보기

“보스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득 넘치길”

송용원 목사 (보스턴 은누리교회)

보스턴 은누리교회는 지난 5월에 첫 주일예배를 드린 이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교민들과 유학생들 120명이 함께 모여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12월에 새성전을 준비하면서 맞는 성탄절이라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앞으로 보스턴 은누리교회는 이 지역 교민과 학생의 85%가 넘는 'unchurched people'을 'churched people'로 회복시키는 전도사역과 함께 은누리교회의 2천/1만 비전을 대서양권(북중미, 남미, 서아프리카, 유럽)으로 확장하는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은누리교회가 맞이하는 첫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보스턴 땅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해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의 황제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선포합니다”

김철희 목사 (아치요 은누리그리스도교회)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아치요은누리교회에서도 문안을 드립니다. 예수님중심, 교회중심, 성경중심의 타협할 수 없는 슬로건을 가지고 아치요 은누리교회는 2003년도 한해를 정할 의미 있고 뜻 깊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선교의 열정은 내년도도 아치요은누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퍼져 나갈 줄 믿습니다. 본국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치요 은누리교회는 21일(주일)에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고 23일(화)에 성탄절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23일은 일본 천황의 생일입니다. 이 민족에게 하늘의 황제는 하나님임을 전하려 합니다.

23일 오후 4시 유치부의 연극, 유년부 찬양, Men's night를 합니다. 특히 예수님 탄생 재현 연극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후 각자 가지고 온 식사를 나누며 어린 아이 약 50여명이 즐거운 복직담을 경험할 것 입니다.

“기쁜 성탄절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아마나까 토모요시 전도사 (우에다 은누리그리스도교회)

할렐루야! 항상 우에다 은누리 그리스도교회를 기도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언제나 성령충만하며, 잃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드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에다 교회는 12월 6일(토) 부인회가 주축이 되어 빵과 쿠키를 성도들이 손수 만들어 제1회 우에다 은누리 크리스마스 바자를 했습니다. 20일에는 파프스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어린이들이 준비한 '저 들판의 양들'이라는 연극을 공연하고 케이크를 만들고 게임도 하며 어린이들이 성탄을 기쁘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1일은 성탄주일로 오전 11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애찬식을 합니다. 오후 6시 22분 열린새신자예배는 성가대 칸타타와 촛불 예식(candal service), 연주회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는 가스펠 가수 '요네다 히로시'의 콘서트를 엿니다.

“기쁜 성탄, 복된 새해 되세요”

도육환 목사 (원서 은누리교회)

홀아져 있는 모든 은누리식구들 마음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저희 원서 은누리교회에서도 매주일 대강절 촛불을 하나 둘씩 밝히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저녁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애찬을 나누고, 작은 발표회와 선물교환 등의 순서로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드리는 특별한급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변증하는 '창조과학신교회'를 위해 드릴 계획입니다. 원서 은누리교회는 1월 중순에 창립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 전 한 주간동안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기도와 헌금으로, 내부공사와 시설마련으로 숨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모교회를 향한 우리 원서 성도들의 따뜻한 성탄축하와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기쁜 성탄, 복된 새해 되세요"

“성육신의 신비를 생각하는 성탄절 되십시오”

유진소 목사 (LA 은누리교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LA은누리교회는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 대강절 새벽기도로 주님의 강림을 준비합니다. 12월 21일 오후 7시 30분에는 극장을 빌려 '성탄절 칸타타의 밤'을 합니다. 성가대가 부르는 헨델의 메시아를 들으며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나눕니다. 또 주위 이웃에게 성탄 인사와 함께 성탄절 선물도 돌립니다. 이브에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준비한 '반방 있습니까?' 연극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성육신의 신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아니고, 메시아가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이 조그만 삶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며 기쁨을 맛보십시오.

“요코하마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절을 만나길”

츠치 히사시 목사 (요코하마 은누리그리스도교회)

주가 이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요코하마에서 저희들은 교회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코하마 은누리 그리스도교회는 12월 21일(주일)에 교회에 한번이라도 오신 적이 있는 분들을 초대하여 간증과 찬양, 그리고 특별한 식사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3일(화)에는 일본에서 찬양CD를 발매한 배성윤씨의 특별찬양과 전도메시지를 전하고 촛불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이들, 특별히 젊은 이들을 향한 오픈 예배 형식의 콘서트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찾아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도되어진 소수였습니다. 올해 요코하마에서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은혜가 이 도시에 넘쳐나기를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

중국에서 먼저 출간된 “떠오르는 용...”의
저자 김하중 주중대사



◎ 중국을 사랑하며 중국 땅에 소명을 품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외교관은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던지 자기가 주재하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중국 전문가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 몰두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중국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중국인들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래 전부터 중국과 중국 친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으며 지금도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주중대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 중국은 나라가 크고 사람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한중 관계가 최근 들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도 많고 말도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을 품고 오직 기도로 많은 바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떠오르는 용”은 어떻게 집필하게 되

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 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독자에게 필요한 책일까요?

- 이 책은 중국에서 근무하거나 중국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 인도하시는 길 따라 언제나 담대히 걸어갑니다”

셨습니까?

-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중국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인식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중국을 알리

책은 중국인들의 기질과 중국인들과 사귀는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책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중국의 장래에 관해서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영적으로 어려운 곳인 만큼, 우리는 항상 중국 땅과 중국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탈북자 문제 등 북한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온누리 성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

2000선교

■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6-9085

ACTS 29 바그다드(Baghdad) 증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무실
 (한도는 www.timweb.org 참조)
 문의: 이홍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쿠르드 증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엘실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증보기도 (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소아시아(터키) 성탄 및 송년 기도모임
 12월 15일(월)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2층 소회
 의실
 주최: 소아시아(터키) 공동체
 문의: 유주석 총무(011-355-2352)

서남아시아를 위한 기도모임 (SAM)
 12월 22일(월) 오후 7:30 양재 속소동
 말씀: 민성기 선교사
 문의: 윤정현 (018-225-9018)

■ 두란노해외선교회 (TMM)
■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일 둘째, 넷째, 일요일 12월 22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아론 기도실
 문의: 김지은(019-269-0921)

TIMA 과정 모집
 2004년 1월 개강
 내용: 선교언어 스쿨 (영어, 중국어)
 선교기능 스쿨 (전자침 과정, 발마사지 과정)
 담당: 최진혁 간사 (794-1063-5)

지원자 모집
 몽골-MK교사, 한국어교사, 컴퓨터 교사 각 1명
 문의: 박인영 간사 (794-1063-5)

■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 아웃리치
케냐 아웃리치
 꿈땅/청년 여호수아 연합에서 케냐로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기간: 12월 24일(수)~2004년 1월 4일(주일)
 물품후원: 여름 헌 옷, 장난감, 인형, 약품
 대상: 도움을 주실분 누구나(청년, 의사, 간호사)
 문의: 이명열 (011-202-5386)
 정영원 (011-1707-6299)

2003 겨울 캄보디아 아웃리치
 2004년 1월 21일(주일)~25일(목)
 지역내용: 의료/미용선교,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워십교육
 팀원모집: 의사(특히 치과 의사), 간호사(치위생사), 미용사, 선교에 마음이 뜨거운 모든 성도
 모집마감: 2003년 12월 28일(주일)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6:00 신관지하1층 은누리상담실내 회의실
 후원요청: 여름옷 (성인, 어린이), 약품, 학용품, 장난감 등
 문의: 서세창 팀장 (016-218-4499)
 josephseo21@yahoo.co.kr

인터콜 - 2004선교캠프
 2003년 12월 31일(수)~2004년 1월 3일(토)
 호서대 아산캠퍼스
 www.missioncamp.net

은누리미션 성탄연합행사
 12월 25일(목) 오후 3:00~7:00 서빙고 경찬홀
 프로그램: 성탄예배, 각 예배 발표회, 셀레브레이션, 식사
 자원봉사모집: 식빙, 안내 등
 모임: 오후 1:00 서빙고 경찬홀 은누리미션 사무실
 문의: 이경희 간사 (790-6052/017-316-9787)

은누리 증보기도팀 모임
 매주 목 오전 10:30~12:30 미전도종족증보기도실
 문의: 윤서희 간사 (796-9686 교 634)

■ 하가훈 해외 아웃리치팀 지역자 모집

1. 미국(LA)
 일정: 2004년 8월4일(수)~10일(화) (7박8일)
 문의: 김신일 총무(011-232-1850)

2. 일본(동경)
 일정: 2004년 7월28일(수)~8월2일(월) (5박6일)
 문의: 신현일 총무(011-274-9350)

■ 은누리미션 한글교사 모집
 은누리미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글교육을 위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정교사 3명, 보조교사 5명
 자격:
 1) 정교사: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으며 학생이 안 나와도 꾸준히 나올 분
 2) 보조교사 (각국어 각 1명씩): 몽골어, 이란어, 러시아어, 우르드어(파키스탄어), 네팔어 등 정교사가 필요로 할 경우 간단한 통역을 담당
 봉사시간: 주일 오후 1:00-2:30 (선교관 302호)
 연락처: 은누리미션 (790-6052)

후원

■ 북베트남에 전해 드릴 선교물품 구합니다.
 모집기간: 12월 21일(주일)~2004년 1월 31일(수)
 선교물품: 종교의류, 학용품, 기독교용품(십자가 목걸이, 열쇠고리, 비디오테이프 등), 찬양CD 또는 Tape, 영어결간서적
 * 물품은 서빙고은누리교회 선교관 2층 이천만사 무실로 보내주세요!
 문의: BEE KOREA 김영신 간사(016-9282-0240)

■ 컴퓨터(노트북포함) 헌물받습니다
 엘터(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합니다.
 문의: 황호상 간사 (017-290-7856)
 사무실 (02-790-6052)

■ 일제 영어 새벽 예배 (E2S2:Early Sunrise English Service)
 Want to be a morning person for Christ?
 Come and worship with E2S2!
 시간: AM 6:30-7:30 (월~금)
 장소: 서점 옆 컴퓨터 올라오세요
 문의: 김희정 (016-9343-3260)

■ 외국인근로자, 쿠르드족,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
 매주일 오후 1:00 부천은누리교회 4층 비전홀
 첫 주는 기도와 동역자간담회, 나머지 주는 기도와 외국인 근로자 전도를 나눕니다.(부평역, 송내역, 부천역, 공단 등...)
 기도모임 안내: 한성희(018-351-6594)
 윤은희(011-9154-6594)

*

2004년 선교헌금

1월 4일, 11일 주일예배 시간에 작성

선교하는 교회 온누리교회는 2004년에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될 해외선교헌금을 1월 4일과 11일 2주간 주일예배 시간에 작성한다.

작년 선교사 59명을 파송한 2천선교본부는 2010년까지 2천명 선교사를 파송하자는 2천비전을 이루기 위해 올해 선교사 70명과 대청경순선교사 60명 파송, 교회 20개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천선교본부는 올

해 선교헌금 목표액을 45억원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2천선교본부는 온누리 성도가 모두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1월 4일과 11일 선교헌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선교헌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작성헌금봉투와 자동이체로 할 수 있다.

문의:신원석 간사(795-9085, 793-9686 교 216)
/ 전성희 shee@onnuri.or.kr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화 있으리

OSOM 20명, 와이미션 43명 졸업



온누리교회의 2천 비전을 품고 선교에 헌신할 장기선교사훈련 학교 OSOM 3기 20명과 와이미션(Why Missions?) 4기 43명의

졸업식이 12월 20일(금) 오후 4시 화명홀에서 있었다. 졸업식에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졸업생 가족과 선교관련 헌신자들 2백 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길 목사는 롯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아스를 통해 기뻐 못 없던 두 여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전부가 되고 우리의 의미가 될 것" 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박목사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온누리세계선교센터는 2월 16일(월)에 시작하는 제 4기 장기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한다. 접수마감은 1월 25일(월)이다.

문의: 김태완 간사
(031-336-6350~2)
owmc@onnuri.or.kr
홈페이지 www.owmc.or.kr
/ 전성희 shee@onnuri.or.kr

밴쿠버 온누리교회 첫 예배

캐나다 밴쿠버 온누리비전교회가 지난 21일(주일) 첫 예배를 드렸다.

이날 모인 11가정, 31명의 성도는 성탄의 기쁨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밴쿠버 온누리비전교회는 백석문 집사가 영어학원을 예배처소로 제공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성도의 기도와 간구로 이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라채광 장로는 공식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밴쿠



버 온누리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 한승현 ruby@onnuri.or.kr

'2003년을 돌아보며
2004년을 내다보며'

사진으로 보는 '03 은누리행전④ (10월~12월)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한 청년 은누리

2003년은 은누리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8주년인 되는 해다. 태동기부터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은누리가 'ACTS 29' 비전을 품은 청년으로 자랐다.

- 10월 5일 서빙고와 양재 주일예배에서 은누리 전 성도는 생일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하용조 목사와 은누리 교역자들은 화려한(?) 율동을 선보여 성도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았다. (사진 1,2)
- 대학청년, 여성, 공동체 등 'ACTS 29'의 주인공들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각각 집회를 했다. 10월 3일 양재 사랑성전에서 대학청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사운드 2003' (Shout 2003) 집회를 열었다. 주재강연, 문화행사, 선택식강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서길 원하는 대학청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사진 3)

나누고 세우는 일에 힘쓰는 은누리

-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하시에서 제2회 일본은누리공동체 수련회가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일본가정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결혼예비학교 등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선교이교, 함께 뜨겁게 중보기도를 했다. (사진 5)
- 10월 19일 네팔어예배 지체 3명이 세례(침례)를 받았다. 의왕시 부곡동 왕송호수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 3명은 한국에서 지내며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사진 6)
-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새로운 전도전략을 나누기 위해 11월 26일부터 28일 양재와 국내 18개 교회에서 '2003 은누리전도축제-체인지 업'이 열렸다. 위상으로 생중계된 이번 집회에는 6천여 교회 지도자가 참석해 이동원 목사, 어원 맥머니스 목사, 데이브 퍼거슨 목사 등이 강의를 주재강의와 선택식강의를 들었다. (사진 7)
- 12월 1일, 기독교선교발전센터 주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린데 이어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는 등 중보기도로 나라와 민족, 가정과 사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 (사진 8)



성탄의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해

- 각 지역팀은 송년 모임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꿈꾸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성도의 노래이다. 사진은 12월 19일 2천선교본부가 주최한 'With 2003 선교의 밤'과 12월 13일 일본어예배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 (사진 9,10)



'2003년을 돌아보며
2004년을 내다보며' 여성사역



서빙고 - 전문화와 선교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제5기를 진행한 여성사역자학교는 여성사역자의 내면에 안식과 치유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강의, 침묵기도,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영성 수련회 등으로 채워진 8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여성사역자들은 영적 안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하여 새 힘을 얻는 열매를 맺고 있다.

큐티 나눔방에서는 수요목상훈련, 큐티 길들이기, 음악으로 여는 행복한 나눔방, 큐티 순장 세미나 등을 열어 여성들이 깊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만도린 학교, 영상 학교, 사진학교, 바이블 잉글리시 등의 문화사역 또한 여성사역의 넓이를 더해 주었다.

더불어 서빙고 여성사역이 올해에

가장 주력한 부분은 무릎선교기도모임, 올해로 5년째인 무릎선교기도모임에서 나가는 선교사가 아닌 기도하는 선교사의 비전을 지닌 여성들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지난 3월 40여 명으로 시작한 무릎선교기도모임은 110여명이 모여 종강하는 성장을 경험했다.

이종실 목사에 따르면 2004년에는 천만큐티와 연합하여 큐티 리더를 양성하는 화요목상학교를 열어 온누리 큐티 영성을 전국과 공유할 예정이며 무릎선교모임 역시 타기관의 중보기도모임과 연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예수전도단의 딘 서먼(Dean Sherman)을 초청하여 영적부흥캠프 회를 열어 여성의 영적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

영성과 능력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재 - 안정에서 변화로

2002년에 시작한 양재 여성사역은 그동안 여성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여 2003년에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서빙고에 익숙해 있던 여성들이 이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빙고, 부천, 수원에서도 찾아오고 있다.

양재는 올해 서빙고와 다른 특색있는 프로그램에 주력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번 진행한 '좋은 어머니 스쿨'은 어머니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 더불어 찬양인도에 관심 있는 여성사역자를 위한 '여성찬양인도자학교'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기를 진행했다. 전문 찬양 사역자가 실기위주로 찬양훈련

을 인도하여 여성사역자들의 영성과 실력을 동시에 높여주었다.


테디 베어, 포장법, 발 건강 관리법, 메이크업과 헤어, 여성건강세미나 '해피레이디' 등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은사를 개발한 문화사역 또한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2004년에는 이애실 사모의 성경일독, 한홍 목사의 '교회사' 등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부흥을 경험한 여성 예배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질 것이다.

조호영 목사는 "여성사역은 여성의 변화에 따라 계속 변해갈 것이고 여성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양재 여성사역의 2004년을 조망했다.

/최문경 pink1969@onnuri.or.kr

*

 **2000선교**

■ 기도모임
2000선교 기도모임
 화요일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 소회의실
 문의: 795-9085

ACTS 29 바그다드(Baghdad)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사무실
 (약도는 www.timweb.org 참조)
 문의: 이홍우 (011-9958-9625), 김민정 (019-383-6618)

쿠르드 중보기도 모임
 매주 월요일 오후 7:00 양재동 뽕엘빌
 문의: 김은영 (011-474-5478)

아프가니스탄 기도
 화요일 오후 2:00 서빙고 301호

아랍권 중보기도 (맑은샘물)
 매주 토요일 오후 5:30 양재 속소동 3층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 두란노해외선교 월요기도모임
(아프간 특집 사역 발표)
 2004년 1월 5일 (월) 오후 7:00 양재 화평 홀
 주강사: 손정래 장로 (현 아프간 디렉터)
 문의: 신인순 (794-1063~5)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
 매일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아론 기도실
 문의: 김지은(019-269-0921)

TIMA 과정 모집
 2004년 1월 개강
 내용: 선교언어 스펠 (영어, 중국어)
 선교기능 스펠 (전자침 과정, 발마사지 과정)
 담당: 최진혁 간사 (794-1063~5)


지원자 모집
 몽골-MK교사, 한국어교사, 컴퓨터 교사 각 1명
 문의: 박인영 간사 (794-1063~5)

■ KIBI
이스라엘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30 서빙고 자모실
 문의: KIBI (792-7075-6)

■ 아웃리치
2003 겨울 캄보디아 아웃리치
 2004년 1월 21일(주일)~25일(목)
 사역내용: 의료/마용선교,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워십교육
 팀원모집: 의사(특히 치과와사), 간호사(치위생사), 미용사, 선교에 마음이 뜨거운 모든 성도
 모집마감: 2003년 12월 28일(주일)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6:00 서빙고 선교관 지하1층 온누리상담실내 회의를실
 후원요청: 여물웃 (성인, 어린이), 의약품, 학용품, 장난감 등
 문의: 서세창 팀장 (016-218-4499) josephseo21@yahoo.co.kr

인턴쉽 - 2004선교캠프
 2003년 12월 31일(수)~2004년 1월 3일(토)
 호서대 아산캠퍼스
 www.missioncamp.net


온누리 중보기도팀 모임
 매주 목 오전 10:30~12:30 미전도종족중보기도실
 문의: 윤서희 간사 (796-9686 교 634)

 **모 집**

☞ 제4기 OSOM (장기선교사 훈련 모임)
 훈련기간: 2004년 2월 16일 (월) ~ 6월 18일 (금)
 (5개월 합숙훈련)
 지원자격: 대졸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지고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한 사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로 나가기 전 최종적으로 선교훈련을 받기 원하는 분
 훈련내용: Life mapping, Communication, 관계훈련, 가정, 성령, 선교사 Life style, 선교신학, 전도(아웃리치), 타문화 교회 개척, 문화, 선교 전략, 멘토링 /Leadership, BEE, TEE, 선교동원 창조과학 등
 접수마감: 2004년 1월 25일(주일)
 문의: 김태연 간사 (031-336-6350~2) owmc@onnuri.or.kr (더 자세한 내용은 www.owmc.or.kr 참조)

하가운 해외 아웃리치팀 사역자 모집
 1. 미국(LA)
 일정: 2004년 8월4일(수)~10일(화) (7박8일)
 문의: 김신원 총무(011-232-1850)
 2. 일본(동경)
 일정: 2004년 7월28일(수)~8월2일(월) (5박6일)
 문의: 신현일 총무(011-274-9350)

온누리미션 한글교사 모집
 온누리미션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글교육을 위한 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정교사 3명, 보조교사 5명
 자격:
 1) 정교사: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으며 학생이 안 나와도 꾸준히 나올 분
 2) 보조교사 (각국어 각 1명씩): 몽골어, 이란어, 러시아어, 우르드어(파키스탄어), 네팔어 등 정교사가 필요로 할 경우 간단한 통역을 담당
 봉사시간: 주일 오후 1:00~2:30 (선교관 302호)
 연락처: 온누리미션 (790-6052)

 **후 원**

북베트남에 전해 드릴 선교물품 구합니다.
 모집기간: 12월 21일(주일)~2004년 1월 31일(수)
 선교물품: 중고의류, 학용품, 기독교용품(십자가 목걸이, 열쇠고리, 비디오테이프 등), 찬양 CD 또는 Tape, 영어경건서적,
 *물품은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2층 이천만사 무실로 보내주세요!
 문의: BEE KOREA 김영선 간사(016-9282-0240)

컴퓨터(노트북포함) 헌물받습니다
 월터(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합니다.
 문의: 황호상 간사 (017-290-7856) 사무실 (02-790-6052)

2003년 해외선교헌금
 서울은행 33901-9529186
 외환은행 010-33-23507-7
 한빛은행 011-023811-02-202
 국민은행 803-01-0219-417
 조흥은행 341-03-006359
 제일은행 327-20-233207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2448 온누리미션

☞ 양재 영어 새벽 예배
(E2S2:Early Sunrise English Service)
 다음 주(12월 29일~1월 4일)는 특별 새벽 기도회 관계로 없습니다.
 2004년 1월 5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벽을 깨웁시다.
 일시: 월~금 오전 6:30
 장소: 서점 옆 꿈터로 오세요
 문의: 김화정(016-9343-3260)

☞ 외국인근로자, 쿠르드족,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
 매주일 오후 1:00 부천온누리교회 4층 비전홀
 첫 주는 기도와 동역자간담회, 나머지 주는 기도와 외국인 근로자 전도를 나눕니다.(부평역, 송내역, 부천역, 공단 등.)
 -기도제목
 1. 외국인근로자 예배를 위하여
 2. 광명, 인천 일양종족 쿠르드족을 위하여
 3. 광명, 인천공동체에 속한 선교사들을 위하여
 4. 부천 온누리교회 국내외 아웃리치를 위하여
 5. 기타
 문의: 한성희(018-351-6594)
 윤은희(011-9154-6594)

Esther School(Bible English)
 화(초급반), 수(중급반), 목(고급반)
 오후 2:00~3:30
 대상: 학부모 누구든지
 문의: 수원 온누리교회 (031-204-9686)

*

찾아보기

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호수별 목록
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분류별 목록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70	2002.01.06	,
370	2002.01.06	가
370	2002.01.06	2
370	2002.01.06	: M
370	2002.01.06	
370	2002.01.06	44 -
370	2002.01.06	2000 - ' ,
370	2002.01.06	2002 : ()
370	2002.01.06	2002 : -
370	2002.01.06	2002 : -
370	2002.01.06	2
370	2002.01.06	(TIM)
370	2002.01.06	2
370	2002.01.06	2002
QT-35	2002.01.06	: ' ' - ()
371	2002.01.13	: - (C), (가)
371	2002.01.13	- C 1
371	2002.01.13	- - ()
371	2002.01.13	
371	2002.01.13	故 2 / -
371	2002.01.13	: -
371	2002.01.13	:
371	2002.01.13	: 가
371	2002.01.13	2002 - 5.
371	2002.01.13	2002 -
371	2002.01.13	(SAM)
371	2002.01.13	(TIM) ,
371	2002.01.13	2
371	2002.01.13	2002
372	2002.01.27	2002 31 7 6
372	2002.01.27	2000 :
372	2002.01.27	-
372	2002.01.27	: -
372	2002.01.27	
372	2002.01.2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72	2002.01.27	
372	2002.01.27	(TIM)
372	2002.01.27	
372	2002.01.27	2
373	2002.02.03	
373	2002.02.03	& 1 1
373	2002.02.03	
373	2002.02.03	-
373	2002.02.03	: ()
373	2002.02.03	
373	2002.02.03	1: A E
373	2002.02.03	
373	2002.02.03	
373	2002.02.03	, -
373	2002.02.03	
373	2002.02.03	: (1 -)
373	2002.02.03	: ()
373	2002.02.03	-
373	2002.02.03	2000
373	2002.02.03	(TIM)
373	2002.02.03	2
373	2002.02.03	2002
QT-36	2002.02.03	-
374	2002.02.10	
374	2002.02.10	2 : - ()
374	2002.02.10	
374	2002.02.10	: - ()
374	2002.02.10	
374	2002.02.10	2:
374	2002.02.10	: (2 - 14)
374	2002.02.10	:
374	2002.02.10	
374	2002.02.10	:
374	2002.02.10	2000
374	2002.02.10	9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74	2002.02.10	2
374	2002.02.10	2002
375	2002.02.24	- ' ,
375	2002.02.24	KIBI - 3
375	2002.02.24	
375	2002.02.24	- ()
375	2002.02.24	- ()
375	2002.02.24	- ()
375	2002.02.24	2
375	2002.02.24	(TIM)
375	2002.02.24	6
375	2002.02.24	2
376	2002.03.03	: - ()
376	2002.03.03	
376	2002.03.03	3 :
376	2002.03.03	?
376	2002.03.03	: 13
376	2002.03.03	2000
376	2002.03.03	(TIM)
376	2002.03.03	2
377	2002.03.10	1
377	2002.03.10	2 : - (A), - ()
377	2002.03.10	2
377	2002.03.10	: - (), - ()
377	2002.03.10	: - ()
377	2002.03.10	
377	2002.03.10	4 : C B
377	2002.03.10	C&MA
377	2002.03.10	- ()
377	2002.03.10	- ()
377	2002.03.10	(SAM)
377	2002.03.10	3
377	2002.03.10	2
378	2002.03.17	
378	2002.03.17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78	2002.03.17	:	-	,
378	2002.03.17			
378	2002.03.17		-	()
378	2002.03.17		2002	
378	2002.03.17			(SAM)
378	2002.03.17		13	
378	2002.03.17			
378	2002.03.17		2	
379	2002.03.24			
379	2002.03.24	:	,	- ()
379	2002.03.24			
379	2002.03.24		5 :	
379	2002.03.24	:	-	
379	2002.03.24			
379	2002.03.24			-
379	2002.03.24			
379	2002.03.24			(TIM)
379	2002.03.24		2002	
380	2002.03.31			
380	2002.03.31	:	-	()
380	2002.03.31			
380	2002.03.31		6 :	
380	2002.03.31		Why Mission?()
380	2002.03.31			(TIM)
380	2002.03.31			
381	2002.04.07		4	20
381	2002.04.07			
381	2002.04.07	:	-	()
381	2002.04.07			
381	2002.04.07		7 : C	A
381	2002.04.07		'	'
381	2002.04.07	:		
381	2002.04.07	:		
381	2002.04.07		-	()
381	2002.04.07		Why Mission?()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81	2002.04.07	13
381	2002.04.07	
QT-38	2002.04.07	
382	2002.04.14	
382	2002.04.14	
382	2002.04.14	&
382	2002.04.14	'Why mission?'
382	2002.04.14	: - ()
382	2002.04.14	
382	2002.04.14	8: (:)
382	2002.04.14	-
382	2002.04.14	
382	2002.04.14	13
382	2002.04.14	
383	2002.04.21	(OWMTS)
383	2002.04.21	: ()
383	2002.04.21	
383	2002.04.21	9: / (:)
383	2002.04.21	‘ ’
383	2002.04.21	가 -
383	2002.04.21	/ TEE - ()
383	2002.04.21	
383	2002.04.21	13
383	2002.04.21	2002
384	2002.04.28	‘ ’
384	2002.04.28	(OWMTS)
384	2002.04.28	,
384	2002.04.28	T -
384	2002.04.28	: - ()
384	2002.04.28	
384	2002.04.28	10: / (:)
384	2002.04.28	(A , B , ,)
384	2002.04.28	
384	2002.04.28	13
384	2002.04.2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84	2002.04.28	
385	2002.05.05	
385	2002.05.05	: ()
385	2002.05.05	
385	2002.05.05	11: C C (: B)
385	2002.05.05	가
385	2002.05.05	
385	2002.05.05	13
385	2002.05.05	
QT-39	2002.05.05	
386	2002.05.12	
386	2002.05.12	8
386	2002.05.12	2002
386	2002.05.12	' 가 '
386	2002.05.12	: ()
386	2002.05.12	
386	2002.05.12	12: (:)
386	2002.05.12	가
386	2002.05.12	
386	2002.05.12	13
386	2002.05.12	
387	2002.05.19	2002
387	2002.05.19	(OWMTS)
387	2002.05.19	2002
387	2002.05.19	2002
387	2002.05.19	
387	2002.05.19	
387	2002.05.19	
387	2002.05.19	
387	2002.05.19	
388	2002.05.26	2002 !(&)
388	2002.05.26	2002
388	2002.05.26	2 - ' ,
388	2002.05.26	: - ()
388	2002.05.26	
388	2002.05.26	(/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90	2002.06.09	:
390	2002.06.09	
390	2002.06.09	
390	2002.06.09	2002
390	2002.06.09	(OWMTS)
391	2002.06.16	'
391	2002.06.16	
391	2002.06.16	
391	2002.06.16	(OWMTS)
391	2002.06.16	1
391	2002.06.16	: - ()
391	2002.06.16	
391	2002.06.16	14: (:)
391	2002.06.16	(/ / / / / /)
391	2002.06.16	:
391	2002.06.16	-
391	2002.06.16	
391	2002.06.16	: 1 -
391	2002.06.16	C : ,
391	2002.06.16	(TIM)
391	2002.06.16	(OWMTS)
391	2002.06.16	
391	2002.06.16	
392	2002.06.23	5
392	2002.06.23	' ,
392	2002.06.23	' ,
392	2002.06.23	
392	2002.06.23	2
392	2002.06.23	: - ()
392	2002.06.23	
392	2002.06.23	: 2 - 가
392	2002.06.23	- ,
392	2002.06.23	1-1
392	2002.06.23	1-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94	2002.07.07	
394	2002.07.07	7
394	2002.07.07	SWIM()
QT-41	2002.07.07	?() -
QT-41	2002.07.07	: 가
395	2002.07.14	4
395	2002.07.14	, - SAM
395	2002.07.14	: - (A), (B)
395	2002.07.14	2002 : 101 , 1730
395	2002.07.14	
395	2002.07.14	2 -
395	2002.07.14	
395	2002.07.14	2000/10000 : - ,
395	2002.07.14	:
395	2002.07.14	
395	2002.07.14	Why Mission - ,
395	2002.07.14	TV -
395	2002.07.14	-
395	2002.07.14	
395	2002.07.14	
395	2002.07.14	(TIM)
396	2002.07.21	‘ ’ 2000
396	2002.07.21	
396	2002.07.21	: - (), ()
396	2002.07.21	KIBI 7
396	2002.07.21	
396	2002.07.21	
397	2002.07.28	‘ ’ 2000
397	2002.07.28	: - ()
397	2002.07.28	
397	2002.07.28	MK NEST - MK
397	2002.07.28	2 /1 : 가 , - ,
397	2002.07.28	/
397	2002.07.2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397	2002.07.28	
397	2002.07.28	2002
398	2002.08.04	4
398	2002.08.04	가 , 8
398	2002.08.04	
398	2002.08.04	: - ()
398	2002.08.04	
398	2002.08.04	JDS -
398	2002.08.04	- ,
398	2002.08.04	- , 가
398	2002.08.04	- (2)
398	2002.08.04	-
398	2002.08.04	2000
398	2002.08.04	
398	2002.08.04	
398	2002.08.04	(TIM)
399	2002.08.11	4
399	2002.08.11	KIBI
399	2002.08.11	: - ()
399	2002.08.11	
399	2002.08.11	- (B)
399	2002.08.11	-
399	2002.08.11	-
399	2002.08.11	:
399	2002.08.11	4
399	2002.08.11	가
399	2002.08.11	(TIM)
400	2002.08.18	2 Why Mission
400	2002.08.18	: , ,
400	2002.08.18	: ' ' 가? 1-1
400	2002.08.18	: ' ' 가? 1-2
400	2002.08.18	2 - ,
400	2002.08.18	'Why Missions?' -
400	2002.08.18	: , -
400	2002.08.18	1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400	2002.08.18	-
400	2002.08.18	-
400	2002.08.18	4
400	2002.08.18	가
400	2002.08.18	(TIM)
401	2002.08.25	2 : 가
401	2002.08.25	4
401	2002.08.25	: - (), ()
401	2002.08.25	: -
401	2002.08.25	Why Mission? ()
401	2002.08.25	A O
401	2002.08.25	-
401	2002.08.25	- “ ” (,)
401	2002.08.25	2 Why Mission?
401	2002.08.25	
401	2002.08.25	8
402	2002.09.01	2 Why Mission?
402	2002.09.01	-
402	2002.09.01	: - ()
402	2002.09.01	
402	2002.09.01	-
402	2002.09.01	- (2)
402	2002.09.01	2 Why Mission?
402	2002.09.01	
402	2002.09.01	(TIM)
403	2002.09.08	
403	2002.09.08	-
403	2002.09.08	, ,
403	2002.09.08	(SDS) - ,
403	2002.09.08	가 - ,
403	2002.09.08	2 Why Mission?
403	2002.09.08	
403	2002.09.08	(TIM)
404	2002.09.15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404	2002.09.15	2
404	2002.09.15	1 : (), ()
404	2002.09.15	' ,
404	2002.09.15	1 :
404	2002.09.15	2-1 : '02
404	2002.09.15	2-2 : '03
404	2002.09.15	2-3 : ()
404	2002.09.15	2-4 : 10
404	2002.09.15	3-1 : ,
404	2002.09.15	3-2 : ,
404	2002.09.15	3-3 : (• •)
404	2002.09.15	4-1 : 2002 ()
404	2002.09.15	4-2 : 2002 ()
404	2002.09.15	4-3 : 2002 ()
404	2002.09.15	2 -
404	2002.09.15	
404	2002.09.15	(TIM)
405	2002.09.29	20 ,
405	2002.09.29	
405	2002.09.29	: - ()
405	2002.09.29	
405	2002.09.29	- , ' ?'
405	2002.09.29	()
405	2002.09.29	
405	2002.09.29	,
405	2002.09.29	(TIM)
406	2002.10.06	
406	2002.10.06	
406	2002.10.06	: ()
406	2002.10.06	
406	2002.10.06	1 (OWMTS)
406	2002.10.06	' '」
406	2002.10.06	17 : •
406	2002.10.06	17 : •
406	2002.10.06	17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406	2002.10.06	2 /
406	2002.10.06	,
406	2002.10.06	(TIM)
406	2002.10.06	가
407	2002.10.13	
407	2002.10.13	: -
407	2002.10.13	가 1-1
407	2002.10.13	
407	2002.10.13	가 1-2
407	2002.10.13	, -
407	2002.10.13	가 (Westminster Gardens)
407	2002.10.13	가 1-1
407	2002.10.13	가 1-2
407	2002.10.13	: - ()
407	2002.10.13	
407	2002.10.13	:
407	2002.10.13	2 /
407	2002.10.13	
407	2002.10.13	,
407	2002.10.13	(TIM)
408	2002.10.20	2 1 : (), - ()
408	2002.10.20	가
408	2002.10.20	: - ()
408	2002.10.20	
408	2002.10.20	2 :
408	2002.10.20	2 /
408	2002.10.20	2002
408	2002.10.20	,
408	2002.10.20	KIBI 10
408	2002.10.20	
409	2002.10.27	,
409	2002.10.27	
409	2002.10.27	-
409	2002.10.27	:
409	2002.10.27	: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409	2002.10.27	:	-	,	,
409	2002.10.27	:	-		
409	2002.10.27	:			1-1
409	2002.10.27	:			1-2
409	2002.10.27				가?
409	2002.10.27				
409	2002.10.27		2002		
409	2002.10.27			,	
409	2002.10.27		KIBI 10		
410	2002.11.03		2002, JDS		
410	2002.11.03				
410	2002.11.03			,	
410	2002.11.03		(TIM)		
411	2002.11.10	1	:	,	,
411	2002.11.10		EEF		
411	2002.11.10	1	:	(),	(), ()
411	2002.11.10		-	()	
411	2002.11.10				
411	2002.11.10		-	가	(GO)
411	2002.11.10		' 1		'가
411	2002.11.10	1	-	,	
411	2002.11.10				(OWMTS)
411	2002.11.10		2002		
411	2002.11.10				
411	2002.11.10				(TIM)
412	2002.11.17				
412	2002.11.17				(OWMTS)
412	2002.11.17				
412	2002.11.17		2002		
412	2002.11.17				(TIM)
412	2002.11.17				
413	2002.11.24		:		
413	2002.11.24				
413	2002.11.24		-		
413	2002.11.24		: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413	2002.11.24	4	:	-
413	2002.11.24	4	:	-
413	2002.11.24	4	:	-
413	2002.11.24			
413	2002.11.24			
413	2002.11.24	2002		
413	2002.11.24		(TIM)	
414	2002.12.01			
414	2002.12.01		:	
414	2002.12.01			1
414	2002.12.01		:	
414	2002.12.01		:	
414	2002.12.01			2-1
414	2002.12.01			2-2 &
414	2002.12.01		:	
414	2002.12.01		:	
414	2002.12.01	3 &	(,)
414	2002.12.01		:	
414	2002.12.01			
414	2002.12.01			-
414	2002.12.01			
414	2002.12.01	TV / 12		-
414	2002.12.01			
414	2002.12.01			
414	2002.12.01	2002		
414	2002.12.01		(TIM)	
415	2002.12.08		:	
415	2002.12.08		()
415	2002.12.08	2	'Why Missions?'	95
415	2002.12.08		:	- ()
415	2002.12.08			
415	2002.12.08	2	'Why Missions?'	- ,
415	2002.12.0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2. 12. 22-2003. 1. 05

417	2002.12.22	NGO	가
417	2002.12.22	:	-
417	2002.12.22		
417	2002.12.22	2002	
417	2002.12.22	2002	
417	2002.12.22		(TIM)
417	2002.12.22		
418	2002.12.29	'With2003	'
418	2002.12.29	&	2002
418	2002.12.29	2002	1-1
418	2002.12.29	2002	1-2
418	2002.12.29	,	1-1
418	2002.12.29	,	1-2
418	2002.12.29		
418	2002.12.29	2002	
418	2002.12.29		
418	2002.12.29		(TIM)
418	2002.12.29		
418	2002.12.29		
419	2003.01.05	- 1 5 /12	
419	2003.01.05	:	,
419	2003.01.05	:	()
419	2003.01.05		
419	2003.01.05	2003	: 7
419	2003.01.05	2003	:
419	2003.01.05	2003	:
419	2003.01.05		
419	2003.01.05	2	
420	2003.01.12	1	
420	2003.01.12	- (), (), (B)	
420	2003.01.12	-	
420	2003.01.12	- (2 /1)	
420	2003.01.12	2003 가 : 2000 , 2 &	
420	2003.01.12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20	2003.01.12	
420	2003.01.12	- 1
420	2003.01.12	- 2
420	2003.01.12	2 2003 : ‘ ’
420	2003.01.12	: ,
420	2003.01.12	- ‘ ’
420	2003.01.12	2000
420	2003.01.12	가
420	2003.01.12	
420	2003.01.12	(TIM)
420	2003.01.12	
421	2003.01.19	(OWMTS) , 2003
421	2003.01.19	
421	2003.01.19	
421	2003.01.19	: ()
421	2003.01.19	
421	2003.01.19	(OWMTS) 1
421	2003.01.19	2000
421	2003.01.19	가
421	2003.01.19	(5)
421	2003.01.19	
421	2003.01.19	(TIM)
421	2003.01.19	
422	2003.01.26	‘ ’
422	2003.01.26	: ‘ ’ NGO
422	2003.01.26	, ,
422	2003.01.26	: ,
422	2003.01.26	: ()
422	2003.01.26	: ()
422	2003.01.26	
422	2003.01.26	2000
422	2003.01.26	
422	2003.01.26	
422	2003.01.26	
422	2003.01.2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23	2003.02.09	: - ()
423	2003.02.09	- , ()
423	2003.02.09	
423	2003.02.09	2000
423	2003.02.09	
423	2003.02.09	
423	2003.02.09	(TIM)
423	2003.02.09	
424	2003.02.16	(OWMTS)
424	2003.02.16	'Why Missions?' 3
424	2003.02.16	
424	2003.02.16	' '
424	2003.02.16	1 : -
424	2003.02.16	NGO - (TIM)
424	2003.02.16	(OWMTS)
424	2003.02.16	'S' -
424	2003.02.16	BEE - ,
424	2003.02.16	() - 14 (), 12 가 ()
424	2003.02.16	() -
424	2003.02.16	2000
424	2003.02.16	2000
424	2003.02.16	2
424	2003.02.16	
425	2003.02.23	
425	2003.02.23	1 : - (), (가)
425	2003.02.23	'Why Missions?' 3
425	2003.02.23	-
425	2003.02.23	
425	2003.02.23	' '
425	2003.02.23	2000
425	2003.02.23	2000
425	2003.02.23	(TIM)
426	2003.03.02	-
426	2003.03.02	2 ,
426	2003.03.0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28	2003.03.16	(TIM)
429	2003.03.23	
429	2003.03.23	: “4 ” -
429	2003.03.23	1
429	2003.03.23	KIBI() /
429	2003.03.23	가
429	2003.03.23	: - (A)
429	2003.03.23	
429	2003.03.23	:
429	2003.03.23	‘ ’ - (6)
429	2003.03.23	:
429	2003.03.23	‘30 ’ - 1-1
429	2003.03.23	‘30 ’ - 1-2
429	2003.03.23	
429	2003.03.23	
429	2003.03.23	
429	2003.03.23	(TIM)
429	2003.03.23	
430	2003.03.30	30 ‘ACTS 29’
430	2003.03.30	
430	2003.03.30	: “4 ” -
430	2003.03.30	
430	2003.03.30	: , 가? - (가)
430	2003.03.30	(, ,) /
430	2003.03.30	TV - ‘ ’
430	2003.03.30	:
430	2003.03.30	
430	2003.03.30	
430	2003.03.30	
430	2003.03.30	(TIM)
430	2003.03.30	
431	2003.04.06	‘ ’
431	2003.04.06	-
431	2003.04.06	
431	2003.04.06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37	2003.05.18	2
437	2003.05.18	1 : - (), - ()
437	2003.05.18	' ,
437	2003.05.18	
437	2003.05.18	가 : ,
437	2003.05.18	: ,
437	2003.05.18	가
437	2003.05.18	1-1
437	2003.05.18	1-2
437	2003.05.18	: ,
437	2003.05.18	-
437	2003.05.18	Turning Point()
437	2003.05.18	가
437	2003.05.18	
437	2003.05.18	가 가
438	2003.05.25	
438	2003.05.25	Why Mission?() - •
438	2003.05.25	' (Why Missions?)
438	2003.05.25	-
438	2003.05.25	Turning Point ()
438	2003.05.25	
438	2003.05.25	
438	2003.05.25	
439	2003.06.01	2 : - ()
439	2003.06.01	2003
439	2003.06.01	Turning Point()
439	2003.06.01	2000
439	2003.06.01	2003 D 가
439	2003.06.01	
439	2003.06.01	2003
440	2003.06.08	
440	2003.06.08	- 2 (Turning Point)
440	2003.06.08	6
440	2003.06.08	
440	2003.06.0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40	2003.06.08			
440	2003.06.08	:	-	()
440	2003.06.08	:	(-)	
440	2003.06.08		2003	
440	2003.06.08	:	21	- 1-1
440	2003.06.08	:	21	- 1-2
440	2003.06.08			- ()
440	2003.06.08		Turning Point()	
440	2003.06.08		2000	
440	2003.06.08		2003	D 가
440	2003.06.08			
440	2003.06.08		2003	
441	2003.06.15			
441	2003.06.15			'6 '
441	2003.06.15		B 'C D	'
441	2003.06.15			-
441	2003.06.15			-
441	2003.06.15			- ()
441	2003.06.15		2003	
441	2003.06.15			1-1
441	2003.06.15			1-2
441	2003.06.15			
441	2003.06.15			-
441	2003.06.15		Turning Point()	
441	2003.06.15		2000	
441	2003.06.15		2003	가
441	2003.06.15			
441	2003.06.15		2003	
442	2003.06.22			
442	2003.06.22			: -
442	2003.06.22			
442	2003.06.22		A	(H)
442	2003.06.22		Turning Point()	
442	2003.06.22		200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42	2003.06.22	6	
442	2003.06.22	2003	가
442	2003.06.22		
442	2003.06.22	2003	
443	2003.06.29	2003	- 33 55
443	2003.06.29		
443	2003.06.29		
443	2003.06.29	3	(OSOM)
443	2003.06.29	2	(OSOM)
443	2003.06.29	2	OSOM (14)
443	2003.06.29	2003	-
443	2003.06.29	5가	- (TIM)
443	2003.06.29		-
443	2003.06.29		- ,
443	2003.06.29		
443	2003.06.29	KIBI()	
443	2003.06.29	()	가
443	2003.06.29	1	
443	2003.06.29	2000	
443	2003.06.29	2003	가
443	2003.06.29		
443	2003.06.29	2003	
444	2003.07.06	2003	- 6 , 10
444	2003.07.06		
444	2003.07.06		
444	2003.07.06	:	- (), - (), - ()
444	2003.07.06		
444	2003.07.06		
444	2003.07.06	:	- ()
444	2003.07.06	:	()
444	2003.07.06	/	1 : ' - (TIM)
444	2003.07.06	가	-
444	2003.07.06	5	- (11)
444	2003.07.06		
444	2003.07.06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44	2003.07.06	
444	2003.07.06	2000
444	2003.07.06	가
444	2003.07.06	A
444	2003.07.06	,
445	2003.07.13	2 /1 ()
445	2003.07.13	2 : - (), (), ()
445	2003.07.13	' ,
445	2003.07.13	- (1)
445	2003.07.13	/ 2 : ' ' - 가 (GO)
445	2003.07.13	2000
445	2003.07.13	
445	2003.07.13	A
445	2003.07.13	,
446	2003.07.20	() - 93 , 32
446	2003.07.20	
446	2003.07.20	- ,
446	2003.07.20	2 : - (), - (), ()
446	2003.07.20	/ 3 : ' ' - (TIM)
446	2003.07.20	가 : , ' ' 1-1
446	2003.07.20	가 : , ' ' 1-2
446	2003.07.20	가 : , ' ' 1-3
446	2003.07.20	: ()
446	2003.07.20	: ()
446	2003.07.20	2000
446	2003.07.20	가
446	2003.07.20	A
446	2003.07.20	
447	2003.07.27	2 (TP)
447	2003.07.27	
447	2003.07.27	: - ()
447	2003.07.27	' ' -
447	2003.07.27	-
447	2003.07.27	가 : 1-1
447	2003.07.27	가 : 1-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47	2003.07.27	2000
447	2003.07.27	
447	2003.07.27	
447	2003.07.27	
448	2003.08.10	
448	2003.08.10	가 (): 1-1
448	2003.08.10	가 (): 1-2
448	2003.08.10	“ ”
448	2003.08.10	• - , ,
448	2003.08.10	2003 - ,
448	2003.08.10	- 8 ‘ ’
448	2003.08.10	TV - 가
448	2003.08.10	2000
448	2003.08.10	
448	2003.08.10	
448	2003.08.10	
449	2003.08.17	2 : , , ,
449	2003.08.17	-
449	2003.08.17	: (), (), (), ()
449	2003.08.17	: (k)
449	2003.08.17	3 :
449	2003.08.17	4 Why Missions? ()
449	2003.08.17	: ‘ ’/ 가 -
449	2003.08.17	
449	2003.08.17	
449	2003.08.17	
449	2003.08.17	2000
449	2003.08.17	
449	2003.08.17	
449	2003.08.17	2003
450	2003.08.24	
450	2003.08.24	: - (C)
450	2003.08.24	: - ()
450	2003.08.24	가 - , (7), (1)
450	2003.08.25	‘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50	2003.08.24	C	가 -
450	2003.08.24		-
450	2003.08.24		- (3)
450	2003.08.24	1	- , ,
450	2003.08.24	JDS	-
450	2003.08.24		2000
450	2003.08.24		
450	2003.08.24		Inter CP- 3
450	2003.08.24		
451	2003.08.31		
451	2003.08.31		' ,
451	2003.08.31		' 2 '
451	2003.08.31		
451	2003.08.31		: - ()
451	2003.08.31		' -
451	2003.08.31		1-1
451	2003.08.31		1-2
451	2003.08.31		2000
451	2003.08.31		
451	2003.08.31		
451	2003.08.31		E2S2
451	2003.08.31		
452	2003.09.07	2	: - (), - (), ()
452	2003.09.07		
452	2003.09.07		/
452	2003.09.07		' ,
452	2003.09.07		: - ()
452	2003.09.07		- (1)
452	2003.09.07		- (2)
452	2003.09.07		- ,
452	2003.09.07		가 (, , ,)
452	2003.09.07		가 (, , ,)
452	2003.09.07		- (C)
452	2003.09.07		2000
452	2003.09.0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52	2003.09.07	
452	2003.09.07	E2S2
453	2003.09.21	
453	2003.09.21	
453	2003.09.21	
453	2003.09.21	:
453	2003.09.21	4 Why Missions?() -
453	2003.09.21	- ,
453	2003.09.21	: - (), (), - ()
453	2003.09.21	- ()
453	2003.09.21	
453	2003.09.21	JDS / -
453	2003.09.21	-
453	2003.09.21	2000
453	2003.09.21	
453	2003.09.21	
453	2003.09.21	
454	2003.09.28	4 Why Missions? ()
454	2003.09.28	
454	2003.09.28	2 -
454	2003.09.28	: - ()
454	2003.09.28	- ,
454	2003.09.28	TV : 'POWER LINK'
454	2003.09.28	TV : ARS
454	2003.09.28	2000
454	2003.09.28	가
454	2003.09.28	6
454	2003.09.28	
454	2003.09.28	E2S2
455	2003.10.05	2 -
455	2003.10.05	가 '20 77 120 '
455	2003.10.05	2 - 「 」
455	2003.10.05	
455	2003.10.05	KIBI()
455	2003.10.05	18 1-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55	2003.10.05	18	1-2
455	2003.10.05		
455	2003.10.05	2000	
455	2003.10.05	TIM()	
455	2003.10.05		
455	2003.10.05	2003	
456	2003.10.12		&
456	2003.10.12	-	
456	2003.10.12		' ,
456	2003.10.12		' ,
456	2003.10.12	KIBI()	
456	2003.10.12	1-1: ()	
456	2003.10.12	1-2: ()	
456	2003.10.12	- (,)	
456	2003.10.12		
456	2003.10.12	2000	
456	2003.10.12	TIM	
456	2003.10.12		
456	2003.10.12		
456	2003.10.12	2003	
457	2003.10.19	2 /1 : - ()/ (C), -	
457	2003.10.19	2 ' ,	
457	2003.10.19	' 가 '	
457	2003.10.19		
457	2003.10.19	2 /1 : - ()/ (C), - ()	
457	2003.10.19	' 2 '	
457	2003.10.19	:	,
457	2003.10.19	' , 1 ()	
457	2003.10.19		
457	2003.10.19		
457	2003.10.19		
457	2003.10.19	2003	
457	2003.10.19		E2S2
458	2003.10.26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58	2003.10.26	ECC ‘ 가 ’
458	2003.10.26	
458	2003.10.26	‘ ’
458	2003.10.26	KIBI() ‘ ’
458	2003.10.26	‘ 3 ’-
458	2003.10.26	: - ()
458	2003.10.26	(12)
458	2003.10.26	‘ ’
458	2003.10.26	- ,
458	2003.10.26	: -
458	2003.10.26	2000
458	2003.10.26	TIM
458	2003.10.26	
458	2003.10.26	3 Turning Point(/TP)
458	2003.10.26	
458	2003.10.26	2003
458	2003.10.26	E2S2
459	2003.11.02	
459	2003.11.02	()
459	2003.11.02	‘ ’
459	2003.11.02	-
459	2003.11.02	: ()
459	2003.11.02	‘ ’ : ()
459	2003.11.02	‘ ’
459	2003.11.02	- 1-1
459	2003.11.02	- 1-2
459	2003.11.02	- 1-3
459	2003.11.02	2000
459	2003.11.02	TIM
459	2003.11.02	
459	2003.11.02	Christmas in Baghdad
459	2003.11.02	3 Turning Point(/TP)
459	2003.11.02	
459	2003.11.02	2003
459	2003.11.02	E2S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60	2003.11.09			
460	2003.11.09	2	가	1-1
460	2003.11.10	2	가	1-2
460	2003.11.09	2	: ' 가 ' -	
460	2003.11.09	2	: ' 가 ' - 가	
460	2003.11.09	2	: ' 가 ' -	
460	2003.11.09	2	: 가	
460	2003.11.09	2	:	
460	2003.11.09	2		
460	2003.11.09	2	:	
460	2003.11.09	2	: (),	
460	2003.11.09		2000	
460	2003.11.09		TIM	
460	2003.11.09		C 11	
460	2003.11.09		christmas in Baghdad	
460	2003.11.09			
460	2003.11.09		BEE	
460	2003.11.09		E2S2	
461	2003.11.16	1	Why Missions?()	
461	2003.11.16		' N.C.G.F '	
461	2003.11.16	1	: - (C)	
461	2003.11.16		' ACTS 29 '	
461	2003.11.16	가	(/) /	
461	2003.11.16		' & 가 - (OSOM 3)	
461	2003.11.16		- (6)	
461	2003.11.16		2000	
461	2003.11.16		(TIM)	
461	2003.11.16		C 11	
461	2003.11.16		Why Missions?()	
461	2003.11.16			
461	2003.11.16		BEE	
462	2003.11.23			
462	2003.11.23		' N.C.G.F '	
462	2003.11.23	ACTS 29	가 -	1-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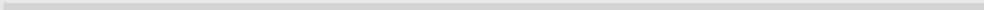
2003

462	2003.11.23	ACTS 29	가	-	1-2
462	2003.11.23				
462	2003.11.23		2000		
462	2003.11.23		KIBI() 11		
462	2003.11.23				
462	2003.11.23				
463	2003.11.27	2003	가	-	,
464	2003.11.28	2003	가	(, ,)	
465	2003.11.30			-	
465	2003.11.30				
465	2003.11.30	2003	가	-	,
465	2003.11.30	2003	가	(, ,)	
465	2003.11.30		2000		
465	2003.11.30		(TIM)		
465	2003.11.30				
465	2003.11.30				
465	2003.11.30				
465	2003.11.30				E2S2
466	2003.12.07				
466	2003.12.07				
466	2003.12.07				'The Light' -
466	2003.12.07				: - ()
466	2003.12.07				
466	2003.12.07		3	Turning Point (/TP)	
466	2003.12.07		2003	, 2004	1-1
466	2003.12.07		2003	, 2004	1-2
466	2003.12.07		2003	(1 ~3)	
466	2003.12.07			Turning Point(/TP)	
466	2003.12.07			()	
466	2003.12.07				
466	2003.12.07				
466	2003.12.07				
466	2003.12.07				
466	2003.12.07				
466	2003.12.07				
467	2003.12.14				
467	2003.12.14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3

467	2003.12.14	2	'With 2003	
467	2003.12.14			
467	2003.12.14	7		
467	2003.12.14			
467	2003.12.14			
467	2003.12.14	OSOM	3	
467	2003.12.14		: 2003	, 2004 2
467	2003.12.14	2	: 2003	, 2004 3-1
467	2003.12.14	2	: 2003	, 2004 3-2
467	2003.12.14		2003	(4 ~6)
467	2003.12.14		Turning Point()
467	2003.12.14			(SAM)
467	2003.12.14			
467	2003.12.14		2004	
467	2003.12.14			
467	2003.12.14			
468	2003.12.21			
468	2003.12.21			
468	2003.12.21	2	- 'With 2003	
468	2003.12.21		:	, , , ()/ - ()
468	2003.12.21		:	()
468	2003.12.21		-	ACTS 29
468	2003.12.21		2003	(7 ~9)
468	2003.12.21		가	: (), (), ()
468	2003.12.21			- “ ”
468	2003.12.21		:	-
468	2003.12.21		2000	
468	2003.12.21			(SAM)
468	2003.12.21			
468	2003.12.21		가	
468	2003.12.21			
469	2003.12.28		2004	
469	2003.12.28		OSOM 3 /	(Why Missions?) 4
469	2003.12.28			
469	2003.12.28		2003	(10 ~12)



01 ()
02 , ,
03 < > , , , ()
2000/10000 / 10 / ()
04 (,)
05 TP()/ (OSOM)/ (OPMS)/ FA/ , :H2H, H2K
06 , ,
07 (), ,
08 , , ,
09 CGNTV/ / M Mission/ /
10 , , , ,
(, , ,)
11 , ,
,
12 / (OMO)/ BEE/ / KIBI/
13
14 (,)
,
15 (가)
,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2. , , (3)

			page
377	2002.03.10	C&MA	46
377	2002.03.10	- ()	46
378	2002.03.17	- ()	49
03. <	>	, , , () (32)	
			page
370	2002.01.06	44 -	12
377	2002.03.10	2	44
386	2002.05.12	2002	76
387	2002.05.19	2002	80
387	2002.05.19	2002	80
387	2002.05.19	2002	81
388	2002.05.26	2002	82
389	2002.06.02	2002	93
389	2002.06.02	-	93
400	2002.08.18	: ' ' 가? 1-1	154
400	2002.08.18	: ' ' 가? 1-2	155
414	2002.12.01	:	217
420	2003.01.12	2 2003 : ' '	257
420	2003.01.12	:	257
422	2003.01.26	: ' ' NGO	262
424	2003.02.16		269
424	2003.02.16	NGO - (TIM)	270
430	2003.03.30	30 'ACTS 29'	294
432	2003.04.13	ACTS 29 ACTS 29	301
433	2003.04.20	Acts29	305
437	2003.05.18	1-1	331
437	2003.05.18	1-2	332
440	2003.06.08	: 21 - 1-1	343
440	2003.06.08	: 21 - 1-2	344
455	2003.10.05	가 '20 77 120 '	433
461	2003.11.16	'ACTS 29 '	471
466	2003.12.07	2003 , 2004 1-1	488
466	2003.12.07	2003 , 2004 1-2	489
467	2003.12.14	: 2003 , 2004 2	494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3. < > , , , () (32)

			page
467	2003.12.14	2 : 2003 , 2004 3-1	495
467	2003.12.14	2 : 2003 , 2004 3-2	496
469	2003.12.28	: 2003 , 2004	508

04. (,) (17)

			page
370	2002.01.06	,	11
372	2002.01.27	2002 31 7 6	21
374	2002.02.10		30
382	2002.04.14		62
394	2002.07.07	2 -	126
395	2002.07.14	2 -	133
416	2002.12.15		235
418	2002.12.29	'With2003 '	243
419	2003.01.05	- 1 5 /12	251
420	2003.01.12	1	254
421	2003.01.19	(OWMTS) , 2003	259
432	2003.04.13	2 -	301
434	2003.04.27	'Acts29'	311
434	2003.04.27	Acts29 ' 3 ' (6)	317
435	2003.05.04	Acts29	320
468	2003.12.21	- ACTS 29	500
469	2003.12.28	2004	506

05. (41)

			page
370	2002.01.06	2000 - ' , '	13
377	2002.03.10	1	44
378	2002.03.17	2002	49
383	2002.04.21	(OWMTS)	65
384	2002.04.28	(OWMTS)	69
387	2002.05.19	(OWMTS)	80
391	2002.06.16	(OWMTS)	105
406	2002.10.06	1 (OWMTS)	185
415	2002.12.08	(OWMTS) 1	23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5.

(41)

			page
416	2002.12.15	(OWMTS) :	236
416	2002.12.15	(OWMTS) :	236
416	2002.12.15	(OWMTS) :	236
416	2002.12.15	(OWMTS) :	236
416	2002.12.15	(OWMTS) :	236
416	2002.12.15	(OWMTS) :	236
416	2002.12.15	(OWMTS) :	237
416	2002.12.15	(OWMTS) : -	237
416	2002.12.15	(OWMTS) : -	237
416	2002.12.15	(OWMTS) : -	237
416	2002.12.15	(OWMTS) :	237
416	2002.12.15	(OWMTS) : -	237
416	2002.12.15	(OWMTS) : -	237
416	2002.12.15	(OWMTS) :	237
420	2003.01.12	- 1	256
420	2003.01.12	- 2	256
422	2003.01.26	‘ ’	262
425	2003.02.23		274
428	2003.03.16	21	285
437	2003.05.18	2	326
440	2003.06.08	- 2 (Turning Point)	339
443	2003.06.29	3 (OSOM)	358
443	2003.06.29	2 (OSOM)	359
443	2003.06.29	2 OSOM (14)	359
447	2003.07.27	2 (TP)	382
449	2003.08.17	3 :	396
459	2003.11.02	()	453
461	2003.11.16	‘ ’ & 가 - (OSOM 3)	472
466	2003.12.07	‘ ’	486
466	2003.12.07	3 Turning Point (/TP)	487
467	2003.12.14	‘ ’	491
469	2003.12.28	OSOM 3 / (Why Missions?) 4	50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6. , , (53)

			page
370	2002.01.06	가	11
371	2002.01.13	: - (C), (가)	16
371	2002.01.13	: -	18
371	2002.01.13	:	18
371	2002.01.13	: 가	18
372	2002.01.27	: -	21
373	2002.02.03	-	23
374	2002.02.10	2 : - ()	30
377	2002.03.10	2 : - (A), - ()	44
377	2002.03.10	: - (), - ()	44
378	2002.03.17	:	48
381	2002.04.07	:	59
381	2002.04.07	:	59
384	2002.04.28	T -	69
392	2002.06.23		113
395	2002.07.14	: - (A), (B)	132
395	2002.07.14	2000/10000 : - ,	133
396	2002.07.21	: - (), ()	137
397	2002.07.28	2 /1 : 가 , - ,	140
400	2002.08.18	: , ,	153
400	2002.08.18	: , -	156
401	2002.08.25	: - (), ()	159
404	2002.09.15	1 : (), ()	170
408	2002.10.20	2 1 : (), - ()	197
408	2002.10.20	2 :	197
411	2002.11.10	1 : , ,	208
411	2002.11.10	1 : (), (), ()	208
416	2002.12.15	: - (), - ()	235
421	2003.01.19	(OWMTS) 1	260
424	2003.02.16	(OWMTS)	269
424	2003.02.16	1 : -	269
424	2003.02.16	(OWMTS)	270
425	2003.02.23	1 : - (), (가)	273
426	2003.03.02	2 : - (C)	276
428	2003.03.16	, , /	28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6. , , (86)

			page
429	2003.03.23	1	288
431	2003.04.06	1 : - ()	298
432	2003.04.13	2	301
432	2003.04.13	2 : (), - ()	302
437	2003.05.18	1 : - (), - ()	326
439	2003.06.01	2 : - ()	337
444	2003.07.06	: - (), - (), - ()	366
445	2003.07.13	2 : - (), (), ()	371
446	2003.07.20	2 : - (), - (), ()	376
449	2003.08.17	2 : , , ,	395
449	2003.08.17	: (), (), (), ()	395
450	2003.08.24	: - (C)	402
452	2003.09.07	2 : - (), - (), ()	415
453	2003.09.21	: - (), (), - ()	425
457	2003.10.19	2 /1 : - ()/ (C), -	444
457	2003.10.19	2 /1 : - ()/ (C), - ()	445
467	2003.12.14	OSOM 3	493
468	2003.12.21	: , , , , ()/ - ()	499

07. (), , (28)

			page
QT-35	2002.01.06	: ' - ()	15
373	2002.02.03		23
383	2002.04.21	가 -	67
386	2002.05.12	' 가 '	77
388	2002.05.26	가 1-1	84
388	2002.05.26	가 1-2	85
389	2002.06.02	가 2	90
390	2002.06.09	가 -	99
390	2002.06.09	가 3	100
394	2002.07.07	/ , •	128
397	2002.07.28	/	141
406	2002.10.06	17 : •	187
417	2002.12.22	NGO 가	241
430	2003.03.30	: , 가? - (가)	295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7. (), , (28)

			page
437	2003.05.18	가 : ,	328
437	2003.05.18	: ,	329
441	2003.06.15	-	348
446	2003.07.20	가 : , ' ' 1-1	377
446	2003.07.20	가 : , ' ' 1-2	378
446	2003.07.20	가 : , ' ' 1-3	379
447	2003.07.27	가 : 1-1	385
447	2003.07.27	가 : 1-2	386
448	2003.08.10	가 (): 1-1	389
448	2003.08.10	가 (): 1-2	390
456	2003.10.12	1-1: ()	440
456	2003.10.12	1-2: ()	441
456	2003.10.12	- (,)	442
458	2003.10.26	' ,	451

08. , , (132)

			page
370	2002.01.06	: M	12
370	2002.01.06		12
371	2002.01.13	- - ()	17
371	2002.01.13		17
373	2002.02.03	: ()	24
373	2002.02.03		24
QT-36	2002.02.03	-	29
374	2002.02.10	: - ()	31
374	2002.02.10		31
376	2002.03.03	: - ()	41
376	2002.03.03		41
377	2002.03.10	: - ()	45
377	2002.03.10		45
378	2002.03.17	: - ,	48
379	2002.03.24	: , - ()	52
379	2002.03.24		52
379	2002.03.24	: -	51
380	2002.03.31	: - ()	5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 (132)

			page
380	2002.03.31		56
381	2002.04.07	: - ()	58
381	2002.04.07		58
381	2002.04.07	- ()	60
382	2002.04.14	: - ()	63
382	2002.04.14		63
383	2002.04.21	: ()	66
383	2002.04.21		66
384	2002.04.28	: - ()	70
384	2002.04.28		70
385	2002.05.05	: ()	74
385	2002.05.05		74
386	2002.05.12	: ()	78
386	2002.05.12		78
388	2002.05.26	: - ()	83
388	2002.05.26		83
388	2002.05.26	(/ / /)	83
389	2002.06.02	(/ / / / / /)	91
390	2002.06.09	: - ()	97
390	2002.06.09		97
390	2002.06.09	(/ / / / / /)	98
391	2002.06.16	: - ()	106
391	2002.06.16		106
391	2002.06.16	(/ / / / / /)	107
392	2002.06.23	: - ()	114
392	2002.06.23		114
392	2002.06.23	(/ / / / / /)	120
393	2002.06.30	: - ()	123
393	2002.06.30		123
394	2002.07.07	: - ()	127
394	2002.07.07		127
395	2002.07.14	:	134
395	2002.07.14		134
397	2002.07.28	: - ()	140
397	2002.07.28		14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 (132)

			page
398	2002.08.04	: - ()	143
398	2002.08.04		143
399	2002.08.11	: - ()	149
399	2002.08.11		149
401	2002.08.25	: -	160
401	2002.08.25		160
402	2002.09.01	: - ()	165
402	2002.09.01		165
405	2002.09.29	: - ()	181
405	2002.09.29		181
406	2002.10.06	: ()	185
406	2002.10.06		185
407	2002.10.13	: - ()	193
407	2002.10.13		193
407	2002.10.13	:	193
408	2002.10.20	: - ()	198
408	2002.10.20		198
409	2002.10.27	: -	201
409	2002.10.27	: - ,	201
409	2002.10.27	: - , ,	201
411	2002.11.10	- ()	209
411	2002.11.10		209
414	2002.12.01	:	226
414	2002.12.01		226
415	2002.12.08	: - ()	231
415	2002.12.08		231
417	2002.12.22	: (), ()	241
417	2002.12.22		241
419	2003.01.05	: ()	252
419	2003.01.05		252
419	2003.01.05		252
420	2003.01.12	: ()	256
420	2003.01.12		256
421	2003.01.19	: ()	260
421	2003.01.19		26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132)

			page
422	2003.01.26	: ()	264
422	2003.01.26	: ()	264
422	2003.01.26		265
423	2003.02.09	: - ()	267
423	2003.02.09		267
424	2003.02.16	‘S’ -	270
425	2003.02.23	-	274
426	2003.03.02		277
427	2003.03.09	: -	280
428	2003.03.16		286
429	2003.03.23	: - (A)	289
429	2003.03.23		289
432	2003.04.13		302
433	2003.04.20	: - ()	306
434	2003.04.27		315
435	2003.05.04	2 -	320
436	2003.05.11	: - (), - ()	324
437	2003.05.18		327
437	2003.05.18	: ,	333
440	2003.06.08	: - ()	341
442	2003.06.22	: -	356
442	2003.06.22		356
444	2003.07.06	: - ()	367
444	2003.07.06	: ()	367
446	2003.07.20	: ()	380
446	2003.07.20	: ()	380
447	2003.07.27	: - ()	383
449	2003.08.17	: (k)	396
450	2003.08.24	: - ()	402
450	2003.08.25	‘ ’: -	404
451	2003.08.31	: - ()	411
452	2003.09.07	: - ()	416
453	2003.09.21	:	424
454	2003.09.28	: - ()	431
457	2003.10.19	: ,	44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132)

			page
458	2003.10.26	: - ()	450
458	2003.10.26	: -	451
459	2003.11.02	: ()	454
459	2003.11.02	‘ ’ : ()	454
461	2003.11.16	1 : - (C)	470
466	2003.12.07	: - ()	487
466	2003.12.07		487
468	2003.12.21	: ()	500
468	2003.12.21	가 : (), (), ()	502

09. , , (204)

			page
370	2002.01.06	2002 : ()	13
370	2002.01.06	2002 : -	13
370	2002.01.06	2002 : -	13
372	2002.01.27	2000 :	21
372	2002.01.27	-	21
372	2002.01.27		21
373	2002.02.03		23
373	2002.02.03	& 1 1	23
373	2002.02.03		25
373	2002.02.03		25
373	2002.02.03	, -	25
373	2002.02.03		25
374	2002.02.10		30
375	2002.02.24	- ‘ ’	36
375	2002.02.24		36
375	2002.02.24	- ()	37
378	2002.03.17		48
379	2002.03.24		51
QT-38	2002.04.07		61
382	2002.04.14		62
382	2002.04.14	-	64
383	2002.04.21	/ TEE - ()	67
384	2002.04.28	,	69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04)

			page
386	2002.05.12		76
388	2002.05.26	2002 ! (&)	82
388	2002.05.26	2002	87
389	2002.06.02		88
389	2002.06.02		88
389	2002.06.02	2 ,	88
389	2002.06.02		89
389	2002.06.02	: (John Dawson)	92
390	2002.06.09	' ,	95
390	2002.06.09	1	96
390	2002.06.09	2 : /	96
390	2002.06.09		96
390	2002.06.09	17	101
390	2002.06.09	: ,	102
390	2002.06.09	: , ,	102
391	2002.06.16	' ,	104
391	2002.06.16		104
391	2002.06.16		104
391	2002.06.16	1	105
392	2002.06.23	5	112
392	2002.06.23	' ,	112
392	2002.06.23	' ,	112
393	2002.06.30	5	122
395	2002.07.14	, - SAM	132
396	2002.07.21	' , 2000	137
397	2002.07.28	' , 2000	139
397	2002.07.28	MK NEST - MK	140
398	2002.08.04		142
399	2002.08.11	KIBI	148
400	2002.08.18	2 - ,	156
401	2002.08.25	2 : 가	159
403	2002.09.08		167
403	2002.09.08	' ,	167
404	2002.09.15	' ,	170
404	2002.09.15	' ,	17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04)

			page
405	2002.09.29	20 ,	180
405	2002.09.29		180
405	2002.09.29	()	182
406	2002.10.06		184
406	2002.10.06	「 」	186
407	2002.10.13		190
407	2002.10.13	가 1-1	191
407	2002.10.13		191
407	2002.10.13	가 1-2	192
407	2002.10.13	, -	192
407	2002.10.13	가 (Westminster Gardens)	192
407	2002.10.13	가 1-1	194
407	2002.10.13	가 1-2	195
408	2002.10.20	가	198
409	2002.10.27	' '	200
409	2002.10.27		200
409	2002.10.27	-	200
409	2002.10.27	: -	202
409	2002.10.27	: 1-1	203
409	2002.10.27	: 1-2	204
409	2002.10.27	가?	205
411	2002.11.10	- 가 (GO)	209
412	2002.11.17		212
413	2002.11.24		214
413	2002.11.24	-	214
414	2002.12.01		226
414	2002.12.01		227
415	2002.12.08	:	230
415	2002.12.08	()	230
415	2002.12.08		232
415	2002.12.08	: ()	232
415	2002.12.08	27	232
416	2002.12.15	•	235
416	2002.12.15	2002	238
417	2002.12.22		24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04)

			page
419	2003.01.05	:	251
420	2003.01.12	-	254
420	2003.01.12	- (2 /1)	254
420	2003.01.12	- ‘ ’	255
421	2003.01.19		259
421	2003.01.19		259
422	2003.01.26	, ,	262
422	2003.01.26	:	263
424	2003.02.16	‘ ’	269
426	2003.03.02	-	276
426	2003.03.02		276
426	2003.03.02	-	277
427	2003.03.09		279
427	2003.03.09		279
427	2003.03.09	2003 -	283
427	2003.03.09	2003 -	283
428	2003.03.16	:	286
428	2003.03.16	() -	287
428	2003.03.16	2003 -	287
429	2003.03.23		288
429	2003.03.23	: “4 ” -	288
429	2003.03.23	:	289
430	2003.03.30		294
430	2003.03.30	: “4 ” -	294
430	2003.03.30	(, ,) /	296
431	2003.04.06	‘ ’	298
431	2003.04.06	-	298
431	2003.04.06		298
431	2003.04.06	‘ ’	298
431	2003.04.06	, 1-1	299
431	2003.04.06	, 1-2	300
432	2003.04.13		301
432	2003.04.13	: B ()	302
432	2003.04.13		302
432	2003.04.13	, 2	30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04)

			page
433	2003.04.20		305
433	2003.04.20	: TIM	306
433	2003.04.20	-	307
433	2003.04.20		307
433	2003.04.20	‘ ’ /	307
433	2003.04.20		307
434	2003.04.27	‘ ’ /	311
434	2003.04.27	:	315
436	2003.05.11		323
436	2003.05.11	3	323
436	2003.05.11	:	324
437	2003.05.18	-	326
440	2003.06.08	6	339
440	2003.06.08		340
440	2003.06.08	: (-)	341
441	2003.06.15		347
441	2003.06.15	‘6 ’	347
443	2003.06.29		357
443	2003.06.29	‘ ’	357
444	2003.07.06		365
444	2003.07.06		365
444	2003.07.06		366
444	2003.07.06	‘ ’	366
444	2003.07.06		369
444	2003.07.06	-	369
444	2003.07.06		369
446	2003.07.20		374
446	2003.07.20	- ,	375
450	2003.08.24		402
451	2003.08.31	‘ ’	409
451	2003.08.31	‘ 2 ’	410
451	2003.08.31		410
452	2003.09.07		415
452	2003.09.07	/	415
453	2003.09.21		42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04)

			page
453	2003.09.21		423
453	2003.09.21	- ()	426
453	2003.09.21		426
454	2003.09.28		430
455	2003.10.05	2 -	433
455	2003.10.05	2 - 「 」	433
456	2003.10.12	‘ ’	439
456	2003.10.12	‘ ’	439
457	2003.10.19	‘ 2 ’	445
457	2003.10.19	‘ ’ 1 ()	446
458	2003.10.26		449
458	2003.10.26	‘ ’	449
458	2003.10.26	‘ 3 ’ -	449
458	2003.10.26	(12)	450
458	2003.10.26	- ,	451
459	2003.11.02	‘ ’	453
459	2003.11.02	-	453
459	2003.11.02	‘ ’	455
459	2003.11.02	- 1-1	456
459	2003.11.02	- 1-2	457
459	2003.11.02	- 1-3	458
460	2003.11.09	‘ ’	460
461	2003.11.16	‘ N.C.G.F ’	470
462	2003.11.23	‘ ’	475
462	2003.11.23	‘ N.C.G.F ’	475
463	2003.11.27	2003 가 - ,	480
464	2003.11.28	2003 가 (, ,)	481
465	2003.11.30	-	482
465	2003.11.30		482
465	2003.11.30	2003 가 - ,	483
465	2003.11.30	2003 가 (, ,)	484
466	2003.12.07		486
467	2003.12.14	‘ ’	491
467	2003.12.14		491
467	2003.12.14	2 ‘With 2003 ’	49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04)

			page
467	2003.12.14	7 ' , '	492
467	2003.12.14	' , '	492
467	2003.12.14	- , ,	492
468	2003.12.21	-	498
468	2003.12.21		498
468	2003.12.21	2 - 'With 2003 '	499

10. , , , (169)

			page
372	2002.01.27		21
373	2002.02.03	1 : A E	24
373	2002.02.03	: (1 -)	26
373	2002.02.03	-	27
374	2002.02.10	2 :	31
374	2002.02.10	: (2 - 14)	32
374	2002.02.10		33
374	2002.02.10	:	34
375	2002.02.24	- ()	38
375	2002.02.24	- ()	39
376	2002.03.03	3 :	41
376	2002.03.03	: 13	43
377	2002.03.10	4 : C B	45
377	2002.03.10	- ()	47
379	2002.03.24	5 :	52
379	2002.03.24	-	53
380	2002.03.31	6 :	56
381	2002.04.07		57
381	2002.04.07	7 : C A	58
382	2002.04.14	8 : (:)	63
383	2002.04.21	9 : / (:)	66
383	2002.04.21	' , '	65
384	2002.04.28	' , '	69
384	2002.04.28	10 : / (:)	70
384	2002.04.28	(A , B , ,)	71
385	2002.05.05	' , '	7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9)

			page
385	2002.05.05	11 : C C (: B)	74
386	2002.05.12	12 : (:)	78
388	2002.05.26	2 - ‘ ’	82
390	2002.06.09	:	95
390	2002.06.09	13 : C D (: B)	97
391	2002.06.16	14 : (:)	106
391	2002.06.16	:	108
391	2002.06.16	-	108
391	2002.06.16		108
391	2002.06.16	: 1 -	109
391	2002.06.16	C : ,	110
392	2002.06.23	2	113
392	2002.06.23	: 2 - 가	114
392	2002.06.23		115
392	2002.06.23	1-1	116
392	2002.06.23	1-2	117
392	2002.06.23	:	117
392	2002.06.23	: -	117
392	2002.06.23		118
392	2002.06.23	(2): 2002	119
392	2002.06.23	(2):	119
392	2002.06.23	-	119
392	2002.06.23	(/)	119
393	2002.06.30	2	122
393	2002.06.30	: 3 - 가	123
393	2002.06.30	가 - ,	124
394	2002.07.07	2002	126
394	2002.07.07		126
394	2002.07.07	: 4 - / GP	127
395	2002.07.14	4	132
395	2002.07.14	2002 : 101 , 1730	132
395	2002.07.14		133
395	2002.07.14		133
396	2002.07.21		137
398	2002.08.04	4	14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9)

			page
398	2002.08.04	가 , 8	142
398	2002.08.04	- ,	144
398	2002.08.04	- , 가	144
398	2002.08.04	- (2)	145
398	2002.08.04	-	146
399	2002.08.11	4	148
399	2002.08.11	- (B)	149
399	2002.08.11	-	150
399	2002.08.11	-	151
399	2002.08.11	:	151
401	2002.08.25	4	159
401	2002.08.25	A O	161
401	2002.08.25	-	162
402	2002.09.01	-	164
402	2002.09.01	-	165
402	2002.09.01	- (2)	166
403	2002.09.08	-	167
403	2002.09.08	(SDS) - ,	168
403	2002.09.08	가 - ,	168
404	2002.09.15	2	170
404	2002.09.15	1 :	171
404	2002.09.15	2-1 : '02	172
404	2002.09.15	2-2 : '03	173
404	2002.09.15	2-3 : ()	173
404	2002.09.15	2-4 : 10	173
404	2002.09.15	3-1 : ,	174
404	2002.09.15	3-2 : ,	175
404	2002.09.15	3-3 : (• •)	175
404	2002.09.15	4-1 : 2002 ()	176
404	2002.09.15	4-2 : 2002 ()	177
404	2002.09.15	4-3 : 2002 ()	178
405	2002.09.29	- , ' ?'	181
406	2002.10.06		184
406	2002.10.06	17 : •	188
406	2002.10.06	17 :	189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9)

			page
414	2002.12.01		217
414	2002.12.01	-	227
415	2002.12.08		230
418	2002.12.29	& 2002	243
420	2003.01.12	- (), (), (B)	254
423	2003.02.09	- , ()	267
424	2003.02.16	() - 14 (), 12 가 ()	272
424	2003.02.16	() -	272
426	2003.03.02	2 ,	276
427	2003.03.09		283
427	2003.03.09	‘ , -	284
432	2003.04.13	(TIM) 가	301
433	2003.04.20	(TIM) 가	305
433	2003.04.20	‘ , - (6)	310
434	2003.04.27	(TIM) 가	311
437	2003.05.18	‘ ,	326
437	2003.05.18	가	330
438	2003.05.25		335
439	2003.06.01	2003	337
440	2003.06.08		340
440	2003.06.08	‘ ,	340
440	2003.06.08	2003	342
440	2003.06.08	- ()	345
441	2003.06.15	B ‘C D	347
441	2003.06.15	-	348
441	2003.06.15	- ()	349
441	2003.06.15	2003	349
442	2003.06.22		355
442	2003.06.22	A (H)	356
443	2003.06.29	2003 - 33 55	357
443	2003.06.29	2003 -	360
443	2003.06.29	5가 - (TIM)	361
443	2003.06.29	-	361
443	2003.06.29	- ,	362
443	2003.06.29		36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9)

			page
443	2003.06.29	() 가	363
444	2003.07.06	2003 - 6 , 10	365
444	2003.07.06	/ 1 : ' ' - (TIM)	367
445	2003.07.13	2 /1 ()	371
445	2003.07.13	' ,	371
445	2003.07.13	- (1)	372
445	2003.07.13	/ 2 : ' ' - 가 (GO)	372
446	2003.07.20	() - 93 , 32	374
446	2003.07.20	/ 3 : ' ' - (TIM)	376
447	2003.07.27	' ' -	383
447	2003.07.27	-	384
448	2003.08.10		388
448	2003.08.10	" "	391
448	2003.08.10	• - , ,	392
448	2003.08.10	2003 - ,	393
449	2003.08.17	: ' ' / 가 -	397
449	2003.08.17		398
449	2003.08.17		399
449	2003.08.17		400
450	2003.08.24	가 - , (7), (1)	403
450	2003.08.24	C 가 -	404
450	2003.08.24	-	405
450	2003.08.24	- (3)	405
450	2003.08.24	1 - , ,	406
450	2003.08.24	JDS -	407
451	2003.08.31	1-1	412
451	2003.08.31	1-2	413
452	2003.09.07	- (1)	416
452	2003.09.07	- (2)	417
452	2003.09.07	- ,	418
452	2003.09.07	가 (, , ,)	419
452	2003.09.07	가 (, , ,)	420
452	2003.09.07	- (C)	421
453	2003.09.21		423
453	2003.09.21	-	42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9)

			page
454	2003.09.28	- ,	431
459	2003.11.02		453
461	2003.11.16	- (6)	473
11.	, ,	(37)	
			page
394	2002.07.07	• :	128
394	2002.07.07	• :	129
394	2002.07.07	• : ‘ ’	129
411	2002.11.10	‘ 1 ’가	210
411	2002.11.10	1 - ,	210
413	2002.11.24	:	214
414	2002.12.01	1	218
414	2002.12.01	2-1	222
414	2002.12.01	2-2 &	223
414	2002.12.01	3 & (,)	225
425	2003.02.23	‘ ’	273
433	2003.04.20	4	306
440	2003.06.08		339
441	2003.06.15	1-1	350
441	2003.06.15	1-2	351
441	2003.06.15		351
441	2003.06.15		352
451	2003.08.31		409
451	2003.08.31	‘ ’ -	411
453	2003.09.21	- ,	425
454	2003.09.28	2 -	430
455	2003.10.05		434
456	2003.10.12	&	438
457	2003.10.19	2 ‘ ’	444
457	2003.10.19		445
460	2003.11.09	2 ‘ 가 ’ 1-1	461
460	2003.11.10	2 ‘ 가 ’ 1-2	462
460	2003.11.09	2 : ‘ 가 ’ - 가	464
460	2003.11.09	2 : 가	46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1. , , (37)

			page
460	2003.11.09	2 :	466
460	2003.11.09	2	467
460	2003.11.09	2 : ,	468
460	2003.11.09	2 : (),	468
462	2003.11.23		475
462	2003.11.23	‘ ’	478
468	2003.12.21	- “ ”	503
469	2003.12.28		506

12. , , (58)

			page
373	2002.02.03	: ()	27
374	2002.02.10	:	33
375	2002.02.24	KIBI - 3	36
376	2002.03.03	?	42
378	2002.03.17		48
379	2002.03.24		53
380	2002.03.31		55
381	2002.04.07	4 20	57
382	2002.04.14	&	62
382	2002.04.14	‘Why mission?’	62
392	2002.06.23	- ,	115
394	2002.07.07	1 ‘Why Mission?’	126
395	2002.07.14	Why Mission - ,	134
398	2002.08.04	JDS -	143
400	2002.08.18	2 Why Mission	153
400	2002.08.18	‘Why Missions?’ -	156
400	2002.08.18	13 -	157
400	2002.08.18	-	157
400	2002.08.18	-	157
401	2002.08.25	Why Mission? ()	160
402	2002.09.01	2 Why Mission?	164
410	2002.11.03	2002, JDS	207
411	2002.11.10	EEF	208
415	2002.12.08	2 ‘Why Missions?’ 95	23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2.

(58)

			page
415	2002.12.08	2 'Why Missions?' - ,	231
424	2003.02.16	'Why Missions?' 3	269
424	2003.02.16	BEE - ,	271
425	2003.02.23		273
425	2003.02.23	'Why Missions?' 3	274
426	2003.03.02	3 Why Missions? -	277
427	2003.03.09	3 Why Missions?()	280
428	2003.03.16	KIBI() /	285
429	2003.03.23	KIBI() /	288
429	2003.03.23	가	288
429	2003.03.23	' , - (6)	292
430	2003.03.30		294
432	2003.04.13	' ,	302
434	2003.04.27	Why Missions?()	311
434	2003.04.27	KIBI() / - ,	315
435	2003.05.04	Why Missions?()	320
436	2003.05.11	(Why Missions?) ' '(AD2000&Beyond)	323
436	2003.05.11	-	324
438	2003.05.25	Why Mission?() - •	335
438	2003.05.25	' '(Why Missions?)	335
443	2003.06.29	KIBI()	363
444	2003.07.06	가 -	368
444	2003.07.06	5 - (11)	368
447	2003.07.27		382
449	2003.08.17	-	395
449	2003.08.17	4 Why Missions? ()	396
452	2003.09.07	' ,	415
453	2003.09.21	4 Why Missions?() -	424
453	2003.09.21	JDS / -	427
454	2003.09.28	4 Why Missions? ()	430
455	2003.10.05	KIBI()	434
456	2003.10.12	KIBI()	439
458	2003.10.26	KIBI() ' ,	449
461	2003.11.16	1 Why Missions?() ' ,	47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377	2002.03.10	3	47
377	2002.03.10	2	47
378	2002.03.17	(SAM)	50
378	2002.03.17	13	50
378	2002.03.17		50
378	2002.03.17	2	50
379	2002.03.24		54
379	2002.03.24	(TIM)	54
379	2002.03.24	2002	54
380	2002.03.31	Why Mission?()	55
380	2002.03.31	(TIM)	55
380	2002.03.31		55
381	2002.04.07	Why Mission?()	60
381	2002.04.07	13	60
381	2002.04.07		60
382	2002.04.14		64
382	2002.04.14	13	64
382	2002.04.14		64
383	2002.04.21		68
383	2002.04.21	13	68
383	2002.04.21	2002	68
384	2002.04.28		72
384	2002.04.28	13	72
384	2002.04.28		72
384	2002.04.28		72
385	2002.05.05	가	73
385	2002.05.05		73
385	2002.05.05	13	73
385	2002.05.05		73
386	2002.05.12	가	79
386	2002.05.12		79
386	2002.05.12	13	79
386	2002.05.12		79
387	2002.05.19		81
387	2002.05.19		8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387	2002.05.19		81
387	2002.05.19		81
388	2002.05.26		86
388	2002.05.26		86
388	2002.05.26		86
388	2002.05.26	2002	86
389	2002.06.02		94
389	2002.06.02		94
389	2002.06.02		94
389	2002.06.02		94
390	2002.06.09		103
390	2002.06.09		103
390	2002.06.09	2002	103
390	2002.06.09	(OWMTS)	103
391	2002.06.16	(TIM)	111
391	2002.06.16	(OWMTS)	111
391	2002.06.16		111
391	2002.06.16		111
392	2002.06.23	1	121
392	2002.06.23		121
392	2002.06.23		121
392	2002.06.23	(TIM)	121
392	2002.06.23	(OWMTS)	121
393	2002.06.30	1	125
393	2002.06.30		125
393	2002.06.30	(TIM)	125
393	2002.06.30		125
394	2002.07.07	(SAM)	130
394	2002.07.07		130
394	2002.07.07	7	130
394	2002.07.07	SWIM()	130
395	2002.07.14		136
395	2002.07.14		136
395	2002.07.14		136
395	2002.07.14	(TIM)	13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396	2002.07.21	KIBI 7	138
396	2002.07.21		138
396	2002.07.21		138
397	2002.07.28		139
397	2002.07.28		139
397	2002.07.28	2002	139
398	2002.08.04	2000	147
398	2002.08.04		147
398	2002.08.04		147
398	2002.08.04	(TIM)	147
399	2002.08.11	4	152
399	2002.08.11	가	152
399	2002.08.11	(TIM)	152
400	2002.08.18	4	158
400	2002.08.18	가	158
400	2002.08.18	(TIM)	158
401	2002.08.25	2 Why Mission?	163
401	2002.08.25		163
401	2002.08.25	8	163
402	2002.09.01	2 Why Mission?	166
402	2002.09.01		166
402	2002.09.01	(TIM)	166
403	2002.09.08	2 Why Mission?	169
403	2002.09.08		169
403	2002.09.08	(TIM)	169
404	2002.09.15	2 -	179
404	2002.09.15		179
404	2002.09.15	(TIM)	179
405	2002.09.29		183
405	2002.09.29	,	183
405	2002.09.29	(TIM)	183
406	2002.10.06	2 /	189
406	2002.10.06	,	189
406	2002.10.06	(TIM)	189
406	2002.10.06	가	189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407	2002.10.13	2	/		196
407	2002.10.13				196
407	2002.10.13			,	196
407	2002.10.13			(TIM)	196
408	2002.10.20	2	/		199
408	2002.10.20			2002	199
408	2002.10.20			,	199
408	2002.10.20			KIBI 10	199
408	2002.10.20				199
409	2002.10.27				206
409	2002.10.27			2002	206
409	2002.10.27			,	206
409	2002.10.27			KIBI 10	206
410	2002.11.03				207
410	2002.11.03			,	207
410	2002.11.03			(TIM)	207
411	2002.11.10			(OWMTS)	211
411	2002.11.10			2002	211
411	2002.11.10				211
411	2002.11.10			(TIM)	211
412	2002.11.17			(OWMTS)	213
412	2002.11.17				213
412	2002.11.17			2002	213
412	2002.11.17			(TIM)	213
412	2002.11.17				213
413	2002.11.24				216
413	2002.11.24				216
413	2002.11.24			2002	216
413	2002.11.24			(TIM)	216
414	2002.12.01				229
414	2002.12.01				229
414	2002.12.01			2002	229
414	2002.12.01			(TIM)	229
415	2002.12.08				234
415	2002.12.08				234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415	2002.12.08	2002	234
415	2002.12.08	(TIM)	234
415	2002.12.08		234
416	2002.12.15		239
416	2002.12.15	()	239
416	2002.12.15	2002	239
416	2002.12.15	(TIM)	239
416	2002.12.15		239
417	2002.12.22		242
417	2002.12.22	2002	242
417	2002.12.22	2002	242
417	2002.12.22	(TIM)	242
417	2002.12.22		242
418	2002.12.29		248
418	2002.12.29	2002	248
418	2002.12.29		248
418	2002.12.29	(TIM)	248
418	2002.12.29		248
418	2002.12.29		248
419	2003.01.05		251
419	2003.01.05	2	251
420	2003.01.12	2000	258
420	2003.01.12	가	258
420	2003.01.12		258
420	2003.01.12	(TIM)	258
420	2003.01.12		258
421	2003.01.19	2000	261
421	2003.01.19	가	261
421	2003.01.19	(5)	261
421	2003.01.19		261
421	2003.01.19	(TIM)	261
421	2003.01.19		261
422	2003.01.26	2000	266
422	2003.01.26		266
422	2003.01.26		26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422	2003.01.26		266
422	2003.01.26		266
423	2003.02.09	2000	268
423	2003.02.09		268
423	2003.02.09		268
423	2003.02.09	(TIM)	268
423	2003.02.09		268
424	2003.02.16	2000	271
424	2003.02.16	2000	271
424	2003.02.16	2	271
424	2003.02.16		271
425	2003.02.23	2000	275
425	2003.02.23	2000	275
425	2003.02.23	(TIM)	275
426	2003.03.02	3 Why Missions?	278
426	2003.03.02	가	278
426	2003.03.02		278
426	2003.03.02	(TIM)	278
426	2003.03.02		278
426	2003.03.02		278
427	2003.03.09	3 Why Missions?	284
427	2003.03.09		284
427	2003.03.09		284
427	2003.03.09	(TIM)	284
427	2003.03.09		284
428	2003.03.16		285
428	2003.03.16		285
428	2003.03.16		285
428	2003.03.16	(TIM)	285
429	2003.03.23		293
429	2003.03.23		293
429	2003.03.23		293
429	2003.03.23	(TIM)	293
429	2003.03.23		293
430	2003.03.30		29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440	2003.06.08	2003 D 가	346
440	2003.06.08		346
440	2003.06.08	2003	346
441	2003.06.15	Turning Point()	354
441	2003.06.15	2000	354
441	2003.06.15	2003 가	354
441	2003.06.15		354
441	2003.06.15	2003	354
442	2003.06.22	Turning Point()	355
442	2003.06.22	2000	355
442	2003.06.22	6	355
442	2003.06.22	2003 가	355
442	2003.06.22		355
442	2003.06.22	2003	355
443	2003.06.29	1	364
443	2003.06.29	2000	364
443	2003.06.29	2003 가	364
443	2003.06.29		364
443	2003.06.29	2003	364
444	2003.07.06	2000	370
444	2003.07.06	가	370
444	2003.07.06	A	370
444	2003.07.06	,	370
445	2003.07.13	2000	373
445	2003.07.13		373
445	2003.07.13	A	373
445	2003.07.13	,	373
446	2003.07.20	2000	381
446	2003.07.20	가	381
446	2003.07.20	A	381
446	2003.07.20		381
447	2003.07.27	2000	387
447	2003.07.27		387
447	2003.07.27		387
447	2003.07.27		38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448	2003.08.10	2000	394
448	2003.08.10		394
448	2003.08.10		394
448	2003.08.10		394
449	2003.08.17	2000	401
449	2003.08.17		401
449	2003.08.17		401
449	2003.08.17	2003	401
450	2003.08.24	2000	408
450	2003.08.24		408
450	2003.08.24	Inter CP- 3	408
450	2003.08.24		408
451	2003.08.31	2000	414
451	2003.08.31		414
451	2003.08.31		414
451	2003.08.31	E2S2	414
451	2003.08.31		414
452	2003.09.07	2000	422
452	2003.09.07		422
452	2003.09.07		422
452	2003.09.07	E2S2	422
453	2003.09.21	2000	429
453	2003.09.21		429
453	2003.09.21		429
453	2003.09.21		429
454	2003.09.28	2000	432
454	2003.09.28	가	432
454	2003.09.28	6	432
454	2003.09.28		432
454	2003.09.28	E2S2	432
455	2003.10.05		437
455	2003.10.05	2000	437
455	2003.10.05	TIM()	437
455	2003.10.05		437
455	2003.10.05	2003	43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456	2003.10.12		443
456	2003.10.12	2000	443
456	2003.10.12	TIM	443
456	2003.10.12		443
456	2003.10.12		443
456	2003.10.12	2003	443
457	2003.10.19		447
457	2003.10.19		447
457	2003.10.19		447
457	2003.10.19		447
457	2003.10.19	2003	447
457	2003.10.19	E2S2	447
458	2003.10.26	2000	452
458	2003.10.26	TIM	452
458	2003.10.26		452
458	2003.10.26	3 Turning Point(/TP)	452
458	2003.10.26		452
458	2003.10.26	2003	452
458	2003.10.26	E2S2	452
459	2003.11.02	2000	459
459	2003.11.02	TIM	459
459	2003.11.02		459
459	2003.11.02	Christmas in Baghdad	459
459	2003.11.02	3 Turning Point(/TP)	459
459	2003.11.02		459
459	2003.11.02	2003	459
459	2003.11.02	E2S2	459
460	2003.11.09	2000	469
460	2003.11.09	TIM	469
460	2003.11.09	C 11	469
460	2003.11.09	christmas in Baghdad	469
460	2003.11.09		469
460	2003.11.09	BEE	469
460	2003.11.09	E2S2	469
461	2003.11.16	2000	474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461	2003.11.16	(TIM)	474
461	2003.11.16	C 11	474
461	2003.11.16	Why Missions?()	474
461	2003.11.16		474
461	2003.11.16	BEE	474
462	2003.11.23	2000	479
462	2003.11.23	KIBI() 11	479
462	2003.11.23		479
462	2003.11.23		479
465	2003.11.30	2000	485
465	2003.11.30	(TIM)	485
465	2003.11.30		485
465	2003.11.30		485
465	2003.11.30		485
465	2003.11.30	E2S2	485
466	2003.12.07	Turning Point(/TP)	490
466	2003.12.07	()	490
466	2003.12.07		490
466	2003.12.07		490
466	2003.12.07	,	490
466	2003.12.07		490
467	2003.12.14	Turning Point()	497
467	2003.12.14	(SAM)	497
467	2003.12.14		497
467	2003.12.14	2004	497
467	2003.12.14		497
467	2003.12.14	,	497
468	2003.12.21	2000	505
468	2003.12.21	(SAM)	505
468	2003.12.21		505
468	2003.12.21	가	505
468	2003.12.21		505
469	2003.12.28	2000	509
469	2003.12.28	(TIM) ()	509
469	2003.12.28	2003	509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416)

			page
469	2003.12.28	4 OSOM()	509
469	2003.12.28		509
469	2003.12.28		509

15. (가) (44)

			page
370	2002.01.06	2	11
371	2002.01.13	- C 1	16
371	2002.01.13	故 2 / -	17
371	2002.01.13	2002 : 5.	19
371	2002.01.13	2002 -	19
381	2002.04.07	‘ ’	59
QT-39	2002.05.05	‘ ’ -	75
386	2002.05.12	8	76
389	2002.06.02	: -	89
QT-40	2002.06.02	: ()	94
QT-41	2002.07.07	? () -	131
QT-41	2002.07.07	: 가	131
395	2002.07.14	TV :	135
395	2002.07.14	-	135
401	2002.08.25	- “ ” (,)	162
407	2002.10.13	: -	190
413	2002.11.24	: ‘ ’	214
413	2002.11.24	4 : -	215
413	2002.11.24	4 : -	215
413	2002.11.24	4 : -	215
414	2002.12.01	TV / 12 -	228
417	2002.12.22	2	240
417	2002.12.22	: -	240
419	2003.01.05	2003 : 7	253
419	2003.01.05	2003 :	253
419	2003.01.05	2003 :	253
420	2003.01.12	2003 가 : 2000 , 2 &	255
429	2003.03.23	:	292
430	2003.03.30	TV : ‘ ’	297

